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

1970~2020

경기도새마을회

Saemaul Undong in Gyeonggi Province

발간사



역사는 기록에 의해 전해진다. 기록으로 남지 못하는 역사는 사라지거나 왜곡되기 쉽다. 이 땅에 새마을운동이 추진된 지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경기도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리과정이 없어 늘 아쉬움이 컸다. 이제나마 지나 온 50년의 역사를 정리하게 되어 선배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조금의 위안이라도 되어드리는 것 같아 한없이 기쁘다.

새마을운동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시대에 따라 운동의 방향이나 핵심과제들은 다르지만 한 번도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이나 추진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핵심 가치들을 잘 보전하고 지켜왔기에 50성상을 잘 이겨내고 오늘에 이른 것 같다. 국민들의 연령이나 자라 온 환경이나 가치관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어떤 일이든 동전의 양면처럼 공과는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50년사는 조심스럽게 평가는 최소화하고 사실 위주로 편찬하려 노력하였다. 분명한 것은 50년 전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세계인이 부러워

하는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접어들면서 수천 년 찌든 가난과 수없는 외세의 핍박으로부터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 낸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바탕이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데 누가 이의를 달 수 있단 말인가? 2020년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50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창립된 지 40년,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가 창립된 지 38주년이 되는 해이다.

새마을운동은 이론이나 학문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아니고 일하면서 얻은 결과물과 그 과정에서 터득한 원리들이 모아진 현장운동이자 실천운동이다. 따라서 현장의 역사를 정리 · 기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새마을운동을 빼 놓고는 퍼즐을 완성시킬 수 없다.

새마을운동은 ‘그 때 그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자, 국가의 무형자산으로서 오히려 그 가치와 격이 한층 높아져 가고 있다. 경기도는 언제나 대한민국 중심에서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와 늘 함께해 온 경기도 새마을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기도 새마을운동 역사를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여 자칫하면 역사는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을 정리하고, 다가 올 50년을 준비하고자 그 간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선배들의 피와 땀과 정성을 사실대로 정리하여 후세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의 역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그간의 역사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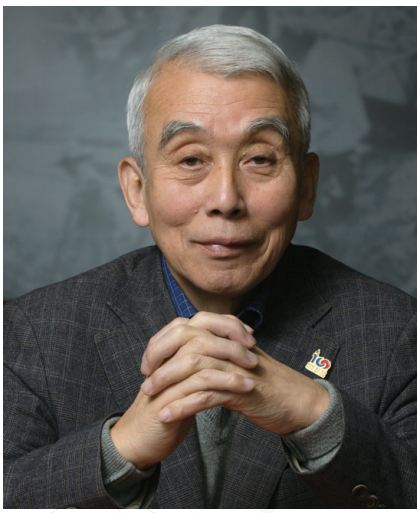
이 50년사가 지나 온 50년의 역사이지만 다가 올 50년의 방향타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2020. 4. 22.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송 재 필

Saemaul Undong in Gyeonggi Province

축간사



존경하는 경기도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지나 온 50년, 다가 올 50년'을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로 발간함을 축하합니다. 지나 온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오늘을 올바르게 살피며 내일을 제대로 설계하려는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잘한 것은 계승하여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한 것은 다시는 겪지 않도록 고치며 모자라는 것은 새롭게 노력하여 채워가도록 하는 것이 역사정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새마을운동이 벌써 반백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이며 유용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무형자산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세계의 새마을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같이 나누는 공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0년의 역사 정리는 또 하나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긴 세월 자료를 찾아 정리한다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지만 50

년사가 발간되었다는 것은 축하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운동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무릇 바람직한 사회운동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대 사람들의 사회적 실천행위입니다. 새마을운동은 그런 국민운동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공존과 순환,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로 대전환하기 위해 새마을가족 모두가 배우고 실천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새마을운동은 미래를 주도해 가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개인과 사회와 뭇 생명에게 도움이 되도록 애쓰는 운동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 길은 높은 시민의식 곧 공경의 생활화로 열릴 것입니다.

또한 훌륭한 사회운동은 '실천 활동'을 통해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한 차원 높이는 '가치향상 활동'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근본적이고 절실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존망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생명살림 운동입니다. 다가 올 50년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생명살림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된 역사를 교훈삼아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나은 운동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는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채워 가면 됩니다. 그것은 후세들이 해야 할 과제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는 모든 분들도 새로운 50년 새마을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50년사 발간을 위해 애쓰신 송재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20. 4. 22.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정 성 헌 정 성 헌

Saemaul Undong in Gyeonggi Province

축간사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경기도 새마을운동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송재필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이 이어진지 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기도 내에서 일궈온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한데 묶어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하는 데에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전통적인 공동체정신인 향약과 두레와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정신을 활용하여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공동

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현재도 우리 새마을운동은 각 지역에서 봉사단체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돕던 그 정신이 마을과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50여 개 저개발국가의 발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와 같이 빈곤과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한 국가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새로이 지향하는 가치는 '생명, 평화, 공경' 입니다. 공존과 순환, 생명과 평화,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고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공평하고 차별 없는 사회, 지구촌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방향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새마을운동 역시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새마을운동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50주년을 계기로 인류 보편의 생명, 평화, 공경을 수호하는 진정한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해나가기를 바랍니다.

2020. 4. 22.

경기도지사 이 재 명

Saemaul Undong in Gyeonggi Province

축간사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발간을 축하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역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보는 이에 따라 역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 발간을 통해 나름대로 역사를 정리하였다는 것은 매우 잘 한 일일 것입니다. "역사라기보다는 자료집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일러두기에서 밝힌 것처럼 이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경기도 관내에서의 추진된 새마을운동을 위주로 정리되었습니다. 지난 50년의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10년사 20년사 등 중간 자료집이 있었다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으로 만든 50년 자료이기에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많아 아쉬울 것입니다. 그 동안 후배들은 선배들이 이룩한 역사를 기록하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족함은 다음 세대들이 메우고 보완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중앙회의 발간 자료들에서 밝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초기부터 일선군수, 내무부에서부터 지방장관인 시도지사, 장관, 국회의원, 마지막 공직이었던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의 소임을 다할 때까지 새마을운동에 간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새마을운동50년사'는 남다른 감회와 의미가 깊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런 시도는 새로운 60년사, 100년사를 튼튼하게 만들 토대를 놓았다는 의미에서 축하하는 바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시대에 따라 실천과제나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 같은 새마을운동입니다. 그 정신이나 개념, 추진원리나 이름 등은 아직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꾸어 놓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처럼 지구촌의 개도국들이 이 운동을 발전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얀마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나라 수반들을 세 번이나 만나 새마을운동에 대해 논의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동남아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개발운동 들은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들입니다. 그것은 새마을운동이 과거의 운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운동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경기도새마을운동50년사' 발간은 운동의 종료가 아닌 시작입니다. 다가 올 50년을 향한 에너지이자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의 역사는 경기도새마을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0년사가 발간되기 까지 수고해 주신 새마을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2020. 4. 22.

경기도민회 회장 이 재 창

Saemaul Undong in Gyeonggi Province

축간사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가 나오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새마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일선 새마을운동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의 소임을 맡을 때까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일들을 두루 경험하면서 새마을운동과 인생을 같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국민운동입니다. 당시는 사회도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바람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저 굶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소박한 소망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비록 우리 시대에는 빛을 못 보더라도 후손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운동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운동을 추진하면서 차츰 꿈이 현실로 바뀌었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모두가 신이 나서 더 참여하였고, 더 경쟁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개발과정에서 흩어졌

던 국토를 공원화시키고 나태해진 마음을 바로잡으며 '질서 · 친절 · 청결'로서 '우리도 선진시민이고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역사는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때의 주역들은 서서히 무대 뒤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주역들이 퇴장하면서 우리사회의 정신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경기도새마을회가 나름대로 50년사를 쓰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역사의 증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역사를 한 번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국가나 후손들 보다는 우선 '나를 위한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지나 온 50년을 정리하고 새로 나아갈 50년을 계획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위해 아주 시의적절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앞장 서 주신 경기도새마을회 송재필 회장님과 뒤에서 후원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역들은 가도 역사는 남을 것이고 대한민국 브랜드인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울 때마다 꺼내 들 수 있는 신비의 묘약이 될 것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천이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가 후손들에게도 좋은 사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역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사라져 가는 경기도내의 새마을운동 관련 역사를 추가로 정리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 4. 22.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이 철 우

Saemaul Undong in Gyeonggi Province

축간사



새마을운동 제창 제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가 발간됨을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잊혀져가는 경기도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은 우리 경기도 새마을가족 모두의 소망이었는데 새마을운동 제창 제50주년에 의미 있는 발간이 이루어져 새마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새마을운동은 국가개조운동으로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폐습과 구악, 그리고 5천년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새마을정신으로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모든 변화의 기폭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로 말하자면 개혁이고 혁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혁신과정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니 개인과 국가의 운명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국가개조의 일은 경기도가 주도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국가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마을지도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적극적인 참여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선배님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극복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후배들로서 당연한 일이며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자 예의입니다. 이 시작을 통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후배들이 다음 장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0년사'라는 작은 디딤돌을 놓았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기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 직장과 공장으로, 나아가 학교와 군부대로 온 국민이 함께 이루어 낸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모두가 함께 역경을 이겨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역사는 함께 힘을 합할 때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듯이 이제 새로운 버전의 새마을운동이 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그 운동'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현재와 미래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 보자는 운동에서, 질서 있고 친절하고 청결한 나라를 만들자. 국가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지구촌과 같이 해보자.' 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 왔습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싹틔웠고, 부녀회활동을 통해 여성의 인권은 신장되었고, 건전한 직장을 만들었으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독서운동을 통해 선진문화한국을 만드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무엇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운동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50년의 국가비전을 여는데 큰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송재필 회장님, 이재창 회장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0. 4. 22.

경기도새마을회자문위원회 위원장 이 도 형

일러두기

○본 50년사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세계 새마을운동의 중심이고,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전국 새마을운동의 중심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편찬하였다.

○역사라기보다는 역사자료 정리라는 차원으로 편찬한 '자료집'의 성격으로 편찬하였다.

○경기도 관내에서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 역사를 중심으로 편찬하였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중앙회에서 정리할 사항이다. 본 50년사에서는 책마다 학자마다 이론이 많아 새마을운동의 원전 또는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초기 정부 간행물을 위주로 요약하여 뒤편에 실었다.

○본 50년사에서는 우선 사라지기 쉬운 70년대에서 90년대 위주로 편찬하였다.

○50년사의 편찬은 편찬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하고, 편찬위원들이 자료수집 및 편찬에 집중하여 초안을 만들고, 감수위원들의 검증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반복 실시하여 완성하였다.

○역사평가는 최대한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가급적 사실관계 위주로 편찬하였다.

○자료는 1차적으로 경기도새마을회가 잘 보관해 온 역사자료들을 바탕으로 편찬하였으며 부족한 내용들은 중앙정부, 새마을운동중앙회, 경기도, 시군 등의 발간자료나 보관 자료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편찬하였다.

○시군자료는 먼저 보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시군새마을회로부터 확인 ·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편찬하였다.

○자료 출처는 일일이 표시하지 않고 뒤편 참고문헌 목록에 일괄 게재하였다.

○자료가 부족하여 채우지 못한 부분은 공란으로 두어 후일에 맡기었다.

○연도나 수치가 상이한 것들은 중앙정부, 중앙회, 경기도, 경기도지부, 시군지회 자료 순으로 적용 · 편찬하였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것은 용어를 통일시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동일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현행 시군건재 순에 따라 시군별 용지에 요약하여 편찬하였다.

○목차의 순서는 '편, 장, 절, 1, 가, 1), 가)' 순으로 정리하였다.

편집위원 일동

들어가기 전에

○발간사(경기도새마을회장) · 2
○축간사 · 4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경기도지사, 감수위원장, 원로지도자, 자문위원장)
○일러두기 · 15
○목 차 · 16

제1편 경기도 새마을운동

제1장 경기도 새마을운동

제1절 경기도사 · 25
제2절 경기도 새마을운동사 · 37
1. 경기도 새마을운동 · 37
2. 새마을운동 조직의 법인화 · 40
3. 새마을회관의 확보 · 45
4. 경기도지부 · 61
5. 경기도지부 회원단체 · 65
6. 경기도지부 이웃단체 · 73
7. 경기도지부 사무처(국) · 80
8. 경기도지부 조직 통 · 폐합 · 86

제2장 경기도 새마을사업

제1절 새마을사업 · 89
1.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 · 89
2. 새마을운동의 변천과정 · 92
제2절 시대별 · 분야별 주요사업
1. 시대별 주요사업 · 95

2. 분야별 주요사업 · 102
3. 제2새마을운동 · 107
4. 뉴 새마을운동 · 109
제3절 주요 추진사업
1. 의식개혁 사업 · 111
2. 지역 활성화 사업 · 136
3. 환경개선 · 정화 · 보전 사업 · 176
4. 인보 · 협동 사업 · 201
5. 조직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 212
6. 기타사업 · 220
7. 초기 새마을사업과 행정지원 · 226
제4절 국제협력 사업 및 통일새마을 사업
1. 경기도지부 자체사업 · 231
2. 새마을운동조직간 협력사업 · 251
3. 통일새마을 사업 · 265

제3장 경기도새마을운동 지나온 50년, 다가 올 50년
제1절 지나온 50년의 경기도새마을운동 · · · · · · · · · · · · · · · · · · 272
제2절 다가 올 50년의 경기도새마을운동 · · · · · · · · · · · · · · · · · · 282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장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 → 수원시새마을회 · · · · · · · · · · · · 301
제2장 새마을운동고양군지회 → 새마을운동고양시지회 →
고양시새마을회 · 307
제3장 새마을운동용인군지회 → 새마을운동용인시지회 →
용인시새마을회 · 311
제4장 새마을운동성남시지회 → 성남시새마을회 · · · · · · · · · · · · · 317

제5장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 → 부천시새마을회 · · · · · · · · · · · 322
제6장 새마을운동반월출장소지회 → 새마을운동안산시지회 → 안산시새마을회 · · 326
제7장 새마을운동화성군지회 → 화성군새마을회 → 화성시새마을회 · · · · 330
제8장 새마을운동남양주군지회 → 새마을운동남양주시지회 → 남양주시새마을회 · 335
제9장 새마을운동안양시지회 → 안양시새마을회 · · · · · · · · · · · 338
제10장 새마을운동평택군지회 → 새마을운동평택시지회 → 평택시새마을회 · 342
제11장 새마을운동의정부시지회 → 의정부시새마을회 · · · · · · · · · 346
제12장 새마을운동파주군지회 → 새마을운동파주시지회 → 파주시새마을회 · 349
제13장 새마을운동시흥군지회 → 새마을운동시흥시지회 → 시흥시새마을회 · 353
제14장 새마을운동김포군지회 → 김포군새마을회 → 김포시새마을회 · · · 359
제15장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 · · · · · · · · · · · · · · · · · · · 364
제16장 새마을운동광주군지회 → 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 · · · · · · · 368
제17장 새마을운동군포시지회 → 군포시새마을회 · · · · · · · · · · 371
제18장 새마을운동이천군지회 →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 · · · · · · 375
제19장 새마을운동오산시지회 → 오산시새마을회 · · · · · · · · · · 380
제20장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 · · · · · · · · · · · · · · · · · · · 384
제21장 새마을운동양주군지회 →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 · · · · · · · 387
제22장 새마을운동구리시지회 → 구리시새마을회 · · · · · · · · · · 393
제23장 새마을운동안성군지회 → 새마을운동안성시지회 → 안성시새마을회 · 396
제24장 새마을운동포천군지회 →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 포천시새마을회 · 400
제25장 새마을운동의왕시지회 → 의왕시새마을회 · · · · · · · · · · 404
제26장 새마을운동여주군지회 → 여주군새마을회 → 여주시새마을회 · · · 408
제27장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 → 양평군새마을회 · · · · · · · · · · 412
제28장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 · · · · · · · · · · · · · · · · · · 416
제29장 새마을운동과천출장소지회 → 새마을운동과천시지회 → 과천시새마을회 · 419
제30장 새마을운동가평군지회 → 가평군새마을회 · · · · · · · · · · 423
제31장 새마을운동연천군지회 → 연천군새마을회 · · · · · · · · · · 427
제32장 폐지된 시군구 새마을지회 · · · · · · · · · · · · · · · · · 431

1. 새마을운동수원시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지회 : 수원시지회에 편입 · · 431
2. 새마을운동성남시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지회 : 성남시지회에 편입 · 432
3. 새마을운동안양시만안구 · 동안구지회 : 안양시지회에 편입 · · · · · 433
4. 새마을운동부천시원미구(중구) · 소사구(남구), 오정구지회
: 부천시지회에 편입 · 434
5. 새마을운동송탄시 · 평택군지회 : 평택시지회에 편입 · · · · · · · · 436
6. 새마을운동미금시지회 : 남양주시지회에 편입 · · · · · · · · · · · 437
7. 새마을운동강화군 · 옹진군지회 : 인천광역시지부에 편입 · · · · · · 438

제3편 한국의 새마을운동

제1장 한국의 새마을운동 · 441

제2장 '기획초고'에 정리된 새마을운동 · · · · · · · · · · · · · · · · 445

제3장 '새마을운동 길잡이'에 정리된 새마을운동 · · · · · · · · · · · 453
제1절 새마을운동 길잡이 · 453
제2절 새마을운동이란? · 457
제3절 새마을정신의 실천 · 463
제4절 생산 소득기반 사업 · 468
제5절 새마을 소득증대의 필요성 · · · · · · · · · · · · · · · · · · 503
제6절 국토 가꾸기 · 525
제7절 도시 새마을운동 · 532
제8절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하여 알아야할 사항 · · · · · · · · · · · 540
제9절 [새마을운동 관련] 박정희 대통령 어록 · · · · · · · · · · · · 548

제4장 '새마을운동 10년사'에 정리된 새마을운동 · · · · · · · · · · · 579
제1절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배경 · · · · · · · · · · · · · · · · · · 579

제2절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의 · 581
제3절 새마을운동 이전의 사회운동 · 583
제4절 새마을운동의 출범 · 586

제5장 새마을운동 주요연혁 및 새마을운동 상징(물) · · · · · · · · · · · · · · · · · 590
제1절 새마을운동 주요연혁 · 590
제2절 새마을운동중앙회 · 603
1. 중앙회 조직과 명칭변경 · 603
2. 중앙회장 · 604
3. 정치중립의 새마을운동 · 605
4. 영욕의 새마을운동 · 606
제3절 새마을운동 주요 상징(물) · 609
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 609
2. 새마을의 날 · 610
3. 새마을 기(旗) · 611
4. 새마을 모자와 마크(배지) · 613
5. 새마을 노래 · 614
6. 새마을 훈장 · 포장 · 615
7. 새마을휘장 · 616
8. 새마을기념장 · 616
9. 새마을지도자증 · 616
10. 새마을운동 신문과 SNS · 617
제4절 새마을운동 부설기관 등 · 617
1. 새마을운동연구소 · 617
2.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 · · · · · · · · · · · · · · · · · 618
3.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설 어린이 집 · 619
4.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 620
제5절 새마을운동 역사보존 · 621

1. 새마을역사관 · · ·

4. 시군지회 설치 · 법인설립 · 회관확보 · 조례제정 · · · · · · · · · · 760
5. 역대 도지부 이사 · 감사 · 761
6. 역대 도지부 회장단 · 중앙임원 · 767
7. 역대 시군구 회장단 · 773
8. 역대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직원 · · · · · · · · · · · · · · · · · · · 796
9. 역대 시군구 직원 · 799
10. 연도별 정부 포상자 · 810
11. 경기도새마을회관 건립비 모금 및 지원현황(2002~2019) · · · · · · 836
12. 선진마을 및 자랑스런 마을 · 837
13. 새마을운동 제창 장소(1970. 4. 22.) : 중앙청 · · · · · · · · · · · 839
14. 역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현황 · · · · · · · · · · · · · · 840
15. 경기도새마을회 총회 및 이사회 개최일지 · · · · · · · · · · · · · · 841
16. 경기도 새마을사업 연표(1983년 이후) · · · · · · · · · · · · · · · 867
17.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주요 치사 모음 · · · · · · · · · · · · · · · 979
18.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모음 · 1011
19. 시대별 주요 성공 · 우수사례 모음 · · · · · · · · · · · · · · · · · 1182
20. '새마을의 날' 제정 경위 · 1126
21. 새마을운동 관련 주요 언론보도 · 기고문 · · · · · · · · · · · · · · 1148
22.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 · · · · · · · · · · · · · · · 1178

마무리

○ 참고문헌 · 1179
○ 편집후기 · 1180
○ 경기도 새마을운동 50년사 편찬 · 감수위원 · · · · · · · · · · · · · · 1182
○ 판 권 · 1184

(별책) 시군, 읍면동별 회장단 명부

※ 이 부분은 별책으로 제작되어 이 책에는 내용을 싣지 않았음

Saemaul Undong in Gyeonggi Province

제1편
경기도 새마을운동

1970~2020

제1편 경기도 새마을운동

제1장 경기도 새마을운동

제1절 경기도사

1. 경기도의 유래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한강의 젖줄을 따라 형성돼 온 경기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한반도의 허리'라 불리는 경기도는 지정학적 의미에서나 정치 · 경제적 위상 면에서도 우리의 역사를 주도하고 대변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원전 18년 백제의 시조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지를 정함으로써 경기도 지역은 400년 동안 백제의 영지가 되었다. 서기 405년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은 백제 정복에 나서 임진강, 한강 유역 일대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그 후 경기지역은 고구려와 백제 양국 간의 분쟁지역이었다가 마침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신라 35대 경덕왕 16년에 당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전국을 9주(州)로 나누었고 경기지역은 한주(漢州)에 속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京畿)'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현종 때의 일이다. 당시 경기지역은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었던 만큼 오늘날의 경기지역과는 달랐다. 비로소 경기도가 하나의 지방행정 구역으로 오늘날과 비슷한 지역을 갖게 된 것은 조선 세종 이후의 일이다. 그렇다면 경기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경(京)'은 왕도를 가리키는 글자이

고, '기(畿)'는 천자에게 직접 예속되어 있는 4방 1,000리의 땅을 가리키는 글자이다.

고려 현종은 성종 때부터 시행해 오던 10도제를 폐지하고 지방의 행정체계를 4대 도호부 · 8목 등으로 개편하였다. 이 때 개성부를 혁파하는 동시에 종래 개성부에서 관할하던 적현(赤縣)과 기현(畿縣)을 개성현영관과 정단현영관의 관할로 옮기는 동시에 그 지역을 경기라고 불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때의 경기는 적현과 기현의 명칭, 즉 적현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려 현종 9년(1018)에 설치된 경기가 개성 · 정주 · 덕수 · 강음 · 장단 · 송림 · 토산 · 임강 · 적성 · 파주 · 마전의 12개현으로 편성되었으며 문종 16년(1062)에 우봉군이 첨가되어 13개 군현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경기의 13개 현수와 적기의 13개 현수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이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기는 적(赤) · 기(畿)현을 개편한 명칭인 것이다. 문종 23년(1069)에는 경기를 13개 군현에서 일약 4배인 50개 군현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때의 경기 주현은 그 범위가 북으로는 황해도의 대부분과 동으로는 강원도의 일부, 남으로는 경기도의 화성 일부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기의 확장은 양반들의 땅을 왕경(王京) 주변지역에 확정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이다.

조선조에 들어오자 초기에는 고려조의 편제인 지방행정구역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경기를 좌우로 개편하거나 통합시키기도 했다. 태종 16년(1416)에 이르러서야 8도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는데 고려시대 10도제나 5도양계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가 일반 지방행정 구역의 하나로 포함됨으로써 비로소 8도제가 성립된 것이다. 세종 조에 이르러 철원부와 안협현이 강원도에 편입됨으로써 경기도가 대체로 현재의 경기도 관내와 일치하게 되어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 왕도의 주변지역이던 경기가 신국도 한양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왕도의 주변지역 경기로 확립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2. 경기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경기도는 동북아시아에 길게 뻗은 한반도의 서부 중앙지역으로 동경 126도

와 127도, 북위 36도와 38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청의 위치는 동경 127도와 북위 37도 16분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의 면적은 전국토의 약 10%인 1만184㎢이며 북쪽으로는 86km의 휴전선에, 서쪽으로는 332km의 해안선에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원도, 남쪽으로는 충청도와 인접해 있고 그 중앙에는 서울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에 의해 남 · 북 지역으로 나뉘어져 한수 이북으로는 산간지역이, 한수 이남지역에는 평양지대가 펼쳐져 있다. 기후는 북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점이적 성격을 나타내며, 연평균 기온은 11~13℃이며, 북동부의 산악지가 낮고, 남서쪽 해안지역이 약간 높다. 1월 평균기온은 경기만 일대가 -4℃, 남한강 유역이 -4~-6℃, 북한강과 임진강 유역이 -6~-8℃로 내륙으로 갈수록 한랭하고 기온교차가 커진다. 여름기온은 겨울보다 지역차가 적으며, 내륙지방이 경기만 일대보다 높아 가장 더운 곳은 평택으로 8월 평균기옥이 26.5℃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1,100mm 내외로 다우지역에 속하며 북동부 내륙지방인 북한강 유역과 임진강 상류는 1,300~1,490mm에 달하나, 해안지방은 강수량이 900mm 내외에 불과하다.

3. 경기도의 행정구역의 변천

경기지역은 조선왕조에 와서 좌도 · 우도로 나뉘었는데 좌도에는 강화, 광주, 수원, 여주, 부평, 남양, 이천, 인천, 안성, 김포, 양근, 안산, 용인, 진위, 양천, 지평, 과천, 시흥, 음죽, 양성 등이 속했고, 우도에는 개성, 파주, 양주, 장단, 치덕, 교동, 삭령, 마전, 고양, 교하, 가평, 포천, 적성, 연천 등이 이에 속해 이때 이미 경기 지역은 현재의 골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1895년(고종 32년) 23부제 실시로 경기도는 3부(한성, 인천, 개성) 34군으로 분리되면서 경기도는 소멸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이르러 도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도를 4부(府) 30군(郡)으로 하고 관찰부를 수원에 두어 이를 관할하는 한편 따로 한성부를 서울에 두어 중앙의 직할로 함으로써 경기도가 소멸되었다.

이듬해인 1897년 다시 도제가 실시되어 경기도가 부활되기에 이른다. 1910

년 한일합방 때 수원에 있던 관찰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한편 중앙 직할이던 한성부를 폐지, 경성부라 개칭하고 이를 경기도 관하에 편입시켰다.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경기도는 2부 20군으로 되었고 1930년에는 송도면이 개성부로 승격됨에 따라 3부 20군 2읍 223면으로 구획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해방을 맞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대폭 축소되었으니 경기도 관할 38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던 연천군의 대부분과 가평, 포천, 파주, 장단, 개풍 등의 일부지역이 경기도에서 제외되는 반면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황해도의 연백, 옹진, 양군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편입됨으로써 3부 21군 10읍 231면이 되었다.

1946년 8월 미군정 하에서 경성부가 서울특별시로 개편 승격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었으며, 1949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인천부 · 개성부는 시로 개칭되었으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경기도 관할에서 떨어져 나가 중앙 직할로 변함에 따라 경기도는 2부 21군 10읍 231면으로 되었다.

1954년 연천군 및 포천군의 북부지역은 정식 수복되었으나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옹진군, 연백군의 5개 시군 중 옹진군의 2개 면을 제외하고는 완전 수복되지 않음으로써 경기도는 2시 19군 8읍 193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963년에 양주군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되었고, 크고 작은 행정구역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 1528호로 '경기도청 위치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67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 3122호의 경기도 위치변경에 관한 법률시행일을 공포함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76번지에 있던 경기도청이 드디어 수원시 매산로 3가 1번지로 이전하면서 명실상부한 경기도 시대를 맞게 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1일 의정부시에 경기도 북부출장소를 설치해 경기 북부지역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에 이른다.

1971년 광주군의 4개 면을 중심으로 성남출장소가 설치된 이후 1973년에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 부천군 소사읍이 부천시,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승격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6시 4구 18군으로 되었다. 1979년 화성군 반월면을 중심으로 시흥군 일부를 합쳐 반월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이어

1980년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남북의 양주군이 분리되어 남양주군이 신설되었다.

1981년에는 인구증가로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 · 분리되고 양주군 동두천읍이 동두천시,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각각 승격되었다. 1982년 시흥군 과천면에 과천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86년에 구리읍 · 평택읍 · 과천출장소 · 반월출장소를 각각 구리시 · 평택시 · 과천시 · 안산시로 승격시킴으로써 경기도는 12시 19군 33읍 160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988. 7. 1. 수원시에 장안구와 권선구가 설치되면서 처음으로 경기도에 구가 신설되었고, 1989. 1. 1. 남양주군 미금읍을 미금시로, 화성군 오산읍이 오산시로, 시흥군 소래읍 · 군자면 · 수암면을 시흥시로, 군포읍을 군포시로, 의왕읍을 의왕시로, 광주군 동부읍 · 서부면 · 중부면 상산곡리를 하남시로 하는 행정구역을 대폭 개편하여 6개 면을 시를 승격시키면서 시흥군이 자동 폐지되었다. 이어 1989. 5. 1. 성남시에 수정구와 중원구가 설치되었다.

1991. 9. 17.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분당출장소를 분당구로, 1992. 2. 1.에는 고양군 전체를 고양시로 승격시키면서 경기도 행정구역은 19시 17군으로 되었다. 1992. 10. 1. 안양시에 설치하였던 만안출장소와 동안출장소를 각각 만안구와 동안구로 승격시켰으며, 1993. 2. 1. 수원시에 팔달구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부천시에는 오정구를 추가 설치하면서 기존의 남구와 중구를 각각 소사구와 원미구로 구명을 변경하였다. 1995. 1. 1. 도농복합형태의 시군통합이 시작되면서 경기도에 최초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1995. 3. 1.에는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 되었고, 1995. 5. 10. 송탄시 · 평택시 · 평택군 등 3개 시군을 통합하여 평택시를 설치함으로써 경기도는 18시 13군이 되었다. 1996. 3. 1.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형태를 갖춘 용인군 · 파주군 · 이천군이 각각 시로 승격되었으며, 일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고양시에 덕양구와 일산구가 설치되어 21시 10군 13구가 되었다. 1997. 12. 17. 도시화 추세에 있는 안성군 · 김포군을 안성시 · 김포시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는 법률이 공포되고 1998. 4. 1. 각각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으로써 경기

도는 23시 8군이 되었다.

2001. 3. 21.에는 화성군, 광주군이 각각 시로 승격되어 경기도는 25시 6군이 되었다. 2003. 10. 19.에는 양주군과 포천군이 각각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다. 2013. 9. 23.에는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는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고 28시 3군이 되어 대부분 시 지역이 되었다.

그동안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과정에서의 큰 변화는 경기도에 소속 되었던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되었고, 이어서 경기도 도청 소재지를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인천시까지 경기도에서 분리하였다. 또한 수도권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읍단위가 시로 승격되었다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하면서 규모가 작은 시가 다시 인근지역 군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와 함께 경기도에 있었던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하게 됐다.

4. 60~70년대 경기도세

1960년대는 5 · 16을 기점으로 하여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1~1966)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에 힘입어 전력, 석탄, 제철, 시멘트 등 기간사업을 일으켰고 식량 자급에도 역점을 두어 기아와 빈곤 타파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하여 근면 · 자조 · 협동의 기치 아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 또 자연보호의 정신을 함양하였으며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근대화와 함께 문화향상에도 힘을 쏟았다. 이러한 민족적 ·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경기도의 도정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타도의 추종을 불허하는 웅도로서 선진도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

1949년에 실시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당시 경기도의 인구는 274만 명으로 해방 전인 1944년보다 37만 명이나 줄었다. 그 후 휴전선 확정으로 인구밀도가 조밀한 개성, 연백, 옹진군의 일부가 다시 이북으로 이탈됨에 따라 도의 인구는 더욱 감소됐다. 1953년 실시한 간이인구조사에서는 230만 명으로 줄

었고 1962. 4. 1.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양주, 광주, 시흥, 김포, 부천군의 일부지역이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 17만 명이 감소, 경기도의 인구는 213만 명으로 줄었다. 그 후 인구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해 1964. 12. 1.에는 291만 명으로 늘었고 1972. 10. 1. 상주인구 조사결과 356만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1973. 7. 1.에는 성남, 안양, 부천 등 3개 지구가 시로 승격됨에 따른 일부 행정구역 변경으로 경기도의 인구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1980년 말 경기도 인구(인천직할시 제외)는 385만 470명인데 이를 1975년과 비교하면 31만 1,345명이 증가했고 인구밀도는 354.3명으로 나타났다.

5. 근대화와 경제개발계획

1950년대 중 · 후반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실행으로 나타났다. 해방직후부터 미국의 원조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1950년대 후반까지 무상원조를 통한 미국 의존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1958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무상원조가 급격히 줄어들고 점차 원조정책이 유상원조 쪽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자립적인 경제적 토대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배경이었다.

1962년 1월 5일 '사회 경제적 악순환의 시정과 자립경제 달성의 기반 구축'이 기본 목표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을 발표함으로써 한국경제는 계획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개발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계획은 경제성장과 대외 지향적 공업화를 기초로 하고 전략부문과 취약부문의 집중개발을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1차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계기로 한국경제는 개발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과 근대화를 위한 정책의지가 더욱 굳게 다져졌다. 따라서 2차 경제개발계획(1967~1971)에서는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대외 개방전략을 더욱 강화했다.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한국경제는 대체로 계획치를 웃도는 고도성장과 수출신장을 나타냈다.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산업구조에

변동이 발생,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늘어났다. 이 같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1962년~1971년 제1, 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은 우리나라 핵심 교통망의 확충기라고도 할 수 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총 교통부문 예산 중 64%를 철도에 집중하였고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는 도로부문의 투자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1965년 경인선의 복선화를 시작하였는데, 공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기능지역이 확대되면서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도시지역 운송체계에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경인선의 복선화 이후 소사읍은 부천시로,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하는 등 경기도 서부지역의 발전이 이에 힘입은 바 컸다.

경기도 또한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군사전략적으로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장으로,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수도권지역은 근대화정책의 '진열장(Show Window)' 으로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나갔다.

6.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

이후 서울시는 경기도로부터 분리되는 사무이관 관계와 기구개혁에 분망하였고 1946년 10월 26일에는 헌장의 의한 기구개혁이 발표되었다. 서울시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특별시로 승격되고 경기도에서 분리, 독립하면서부터 경기도청사의 위치는 1961년 5 · 16이 일어나자 당시의 주체세력과 맥을 같이 하던 인사들이 주동이 되어 도청유치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즉 인천에는 유승원을 중심으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수원에서는 이병희를 중심으로 똑같은 기구가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인천에서의 이전 유치운동이 더욱 활발하여 인천의 사활문제인양 취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끝내 후보지를 수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유인즉, 수원은 비교적 도내의 중심지역에 속하여 모든 면에서 포화상태에 있는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발전성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위로 수원이 도청사의 후보지로 결정되어 드디어 1963년 12월 16일, 다시 말해 2년 2개월에 걸친 군정이 막을 내리는 하루 전날 역사적인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은 법적으로 확정을 보았다. 1967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 3122호로 경기도 위치변경에 관한 법률시행일을 공포했다.

7. 경기도의 경제적 여건과 발전

1960년대 이후부터 경기도의 경제적 발전을 가속화하고 본격화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개발계획에 입각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개발이었다.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경기도에서는 많은 공장이 설립되었고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또 경기도의 서부와 남부는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단이 조성되고 발전됨으로써 제조업이 크게 신장되고 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망의 확충으로 상업도 현저하게 발달이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새마을운동에 의한 새마을공장의 건설로 더욱 가속화되고 균형을 갖추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중화학공업으로의 정책전환에 발맞추어 중화학공장이 경기도에도 다수 건설됨으로써 공업구조상으로 균형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식량자급을 목표로 한 농업개발, 종자 및 영농방법 개량, 경지정리, 2중 곡가제의 실시는 경기도에서도 농업발전을 크게 가능케 하였고 새마을운동에 의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은 경기도의 농업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요컨대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은 경기도의 경제적 발전을 괄목할만하게 하였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 많은 정책적 중점이 두어짐으로써 농업, 공업, 상업, 운수 등의 비교적 균형 있는 고도성장을 가져와 경기도 경제가 크게 변모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다.

경기도의 인구는 우리나라의 평균인구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증가는 서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경기도 산업 활동의 영역을 확대시켜줌과 동시에 대규모의 시장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경기도는 제도적인 정비와 기구의 발전에 의해 경제적 발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DMZ에 접한 접경지역과 산간오지 · 낙도 등 낙후 취약 지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건에 있어 수도 서울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8. 수도권 정책과 경기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이란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부존된 잠재력을 일깨워 공간적으로 알맞게 배치함으로써 국토를 두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국토개발계획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였으나,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제1차 국토종합개별계획(1972~81)이 수립된 1971년이 처음이다. 경제개발계획이 1962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비해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라는 공간이 갖는 경직성과 불가역성 및 장기성이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제1차에 이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91)이 완수되었고, 제3차 국토종합계발계획(1992~2001)이 추진되고 있다. 1962년에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었고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1년까지 국토개발은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통합 실시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민경제의 구조를 공업화하여 근대화하고, 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국제수지와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970~1980년대 경기도 변화양상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광범위한 수도권이 형성되면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대도시 집중현상이 시작된 시기는 1961~1970년인데 이는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

다. 1970년대 이후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을 낳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교통망의 발달이었다. 1968년 12월 경인고속도로,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1973년 호남 · 남해고속도로, 1975년 영동 · 동해고속도로, 1977년 구마고속도로 등 전국에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일일생활권이 확대되었다.

또한 서울역~청량리와 서울역~수원역간의 수도권전철이 1974년 8월 15일에 개통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의 교통망확충은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유발하여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하였다. 이중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전철의 개통은 서울 인구의 분산을 유도하여 수도권의 영역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급격한 도시화의 진행과정에서 인구와 함께 각종 기능이 도시로 집중하였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절대책이 없어 각종 도시문제가 크게 대두한 시기 역시 1970년대이다. 대표적인 도시문제는 인구 · 주택 · 교통 · 공해 · 생활환경문제 등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은 서울 · 부산 및 수도권 일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1979년 조사에 의하면 경기지역 주민들은 교통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다음으로 도시공해와 환경, 주택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사안으로 느끼고 있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9. 경기도민 헌장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씨와 슬기로운 기상을 자랑하는 경기도민이다.

우리는 민주대한의 명예로운 선진 도임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복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헌장을 마련하고 다함께 지키기로 다짐한다.

가. 부지런히 일하며 생산과 소득을 늘린다.

나. 알뜰히 절약하고 저축하여 풍성한 살림을 키운다.

다. 모두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든다.

라.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켜 공익을 보호 신장한다.

마. 이웃끼리 서로 돕는 훈훈한 사회를 이룩한다.

바. 총화 단결하여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한다.

10. 경기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사업

경기도의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즉 1970년 4월 내무부관계관과 경기도의 일선 행정기관장,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40여명이 참석하여 최초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의 대상과 실천요령을 협의하였으며 결정된 사항의 실시과정에서 문제점 유무를 발견,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책정되었다.

1970년 9월 경기도내 3개 시군의 114개 리 · 동에 마을당 335부대씩 총 1만 8,304부대의 시멘트 수송 작전에 돌입했다. 9월 한 달 동안 읍 · 면 · 동에서 자조정신이 강하고 개발의욕이 왕성한 동리 지도자를 3명씩 선발하여 이미 잘 가꾸어진 이천군 대월면 대포리를 비롯해 용인군 남사면 동막마을, 청원군 비상리 등을 견학시켜 이들에게 자기 마을의 개발의욕을 자극시키는 한편 자기 마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추진방법 등을 터득케 했다.

1970년 10월 8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도내 유관기관장, 시장 · 군수, 읍 · 면 · 동장 등 400여명을 참석시켜 추진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시 · 군 단위에서는 같은 해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각기 시 · 군별로 총 8,000여명이 참석해 대회를 개최하였다. 읍 · 면 단위의 마을 지도자를 참석시켜 좌담회를 개최했다.

새마을사업은 중앙에서 책정한 10개 사업과 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불량화장실 개량, 문패달기, 화단만들기, 게시판세우기, 마을 종달기, 국기게양대 세우기 등 추가로 책정 · 추진하였다. 이같이 도내 전역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새마을사업은 침체에 빠져 있던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제2절 경기도 새마을운동사

1. 경기도 새마을운동

가. 도지부 설치 이전의 새마을운동 조직

1970년대에는 민간단체로서의 새마을운동 추진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마을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1970년대에는 마을문고와 새마을금고, 4-H,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등이 각각 존재하고 있었다. 1980년에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면서 새마을운동이 민간주도로 바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각 시도와 시군에도 단체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1980년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는 각각의 단체들이 한데 모여 활동하게 되었다. 1982년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가 설치되고 나서 각 단체가 도지부의 회원단체로 가입함에 따라 도지부에는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 경기도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추진본부,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 새마을청소년회경기도연합회 새마을금고경기도연합회, 생활체육경기도협의회 등이 함께 활동 하게 되었다.

나. 도지부 설치와 조직명칭

경기도새마을운동 조직은 1980년 민간주도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 조직되었는데 1981. 9. 30. 개청하고 1981. 10. 1. 시도지부 설치 승인에 의해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 업무개시 이전에는 '민간단체 경기도새마을운동협의회'로서 각 단체가 모여서 각각 활동하는 형태였다. 새로 조직된 시도지부의 공식 업무는 약1년 뒤인 1982. 9. 1.부터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되었다.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는 독립된 법인이 아닌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분사무소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 시기는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가 경기도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자립화를 목표로 1998. 5. 20.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가 창립되면서 명칭과 성격이 변경되었다. 법인을 설립하고 자체회관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었다. 도지부 법인화를 전후하여 각 시군도 법인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 시군이 법인화 되지 않았으므로 정관에 의해 법인지회 · 비법인지회 시군을 함께 이를 때는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의 명칭을 가지고, 도지부가 법적인 사항이나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는 '경기도새마을회'의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경기도새마을운동추진을 위한 조직의 역사는 1972년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가 정부 주도하에 행정기관 · 단체 중심의 자문기구로서 존재하였으며, 1981년 '경기도민간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1982년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1998년 '경기도새마을회'등으로 성격과 조직구성 내용이 변화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다. 시군구지회 설치

'경기도새마을회'는 2020년 현재 31개 시군을 운영하고 있어 전국 시군구지회의 약14%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이나 도처럼 시군도 새마을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각각의 단체가 만들어 졌고, 시군민간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1984년 시군구지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지회체제의 새마을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군구지회는 1983. 10. 20. 시 · 군 · 구 지회 설치승인에 따라 설치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기도의 각 시군지회는 1984년 초반부터 기존에 있던 시군민간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지회설치에 따른 준비로 회원단체별 회장을 선출하고 지회장을 선출하여 출범준비를 마쳤다. 설치 이전에 각 시군에서 선출된 전국 231명의 시군구지회장들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제2연수관에서 새마을교육을 이수하고 1984. 3. 12. 수료하면서 준비를 마쳤다. 이미 전국적으로 공채로 통해 뽑은 사무국장들도 1984. 3. 15. 발령되어 지회개청에 따른 준비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시군지회는 설치는 1984. 3. 15.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전은 준비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실질적인 업무는 1984. 3. 21.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개시되었는데 시군지회는 이 때부터 3월 말까지 대부분 시 · 군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29개 지회를 개청하게 되었다.

경기도지부의 시군지회는 1984년 출발 당시 29개 지회로 출발하였다. 8개 시, 2개 출장소, 19개 군 지회였다. 그러니까 3분의 2 지회가 군지회로서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었다. 당시의 시 지회로서는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송탄, 동두천, 반월 출장소, 과천 출장소' 정도였다.

이후 1986년에 평택시지회와 구리시지회가 설치되고 2개 출장소지회가 안산시지회와 과천시지회로 승격됨으로써 12개 시, 19개 군이 되어 오늘날과 같은 숫자가 되었다. 경기도는 산업화의 속도에 따라 도시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농촌지역은 차츰 감소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미금시지회, 오산시지회, 시흥시지회, 군포시지회, 의왕시지회, 하남시지회가 증설되고 시흥군지회는 폐지되었다.

이 때부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의 비자치구 11개에 지회가 설치되어 1993년에는 무려 47개 시군구지회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전국 228개지회의 21%정도가 경기도의 거대 지부였다. 시군지회는 늘었다가 줄고 분리되었다가 통합되면서 지속되어 왔는데 1995. 3. 1.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끝없이 늘어나던 시군구지회는 중앙회의 비자치구지회 폐지방침에 따라 1995. 12. 31.까지 모두 문을 닫게 되었다.

1995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읍면동을 가진 도농복합시가 생겨 군지회가 시지회로 바뀌어 나갔다. 대표적인 도농복합시는 남양주시, 평택시, 용인시, 화성시, 안성시,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시흥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지회 등이 2013년 까지 생겨났다. 그러니까 경기도새마을회 시군지회는 29개로 시작하여 31개, 33개, 36개, 42개, 47개 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34개, 31개 등으로 줄어들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경기도는 기존의 양주군, 시흥군, 광주군, 화성군 등의 어머니 군이 존재하였다.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1963년 양주군에서 의정부시가 분리되

는 것을 기점으로 이 지역들은 17개 시군을 출산하였다. 양주군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구리시, 양주시 등 5개로 분리되었다. 시흥군은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등 7개로 가장 많이 출산되었다. 광주군은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등 3개로 분리되었으며 화성군은 오산시, 화성시로 분리되었다.

1980년대 초반의 명칭과 지역을 유지해 온 시군은 14개가 정도이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이다. 일부는 군 지역에서 시로 승격하였다.

2. 새마을운동 조직의 법인화

가.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조직존폐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90년대 중반부터는 자립화를 위한 노력에 몸부림치는 시기였다. 도지부와 시군지회는 각각의 계획에 따라 자립화와 재정확보를 위하여 수익형 자체회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하였다. 이를 위한 준비로 도지부와 시군지회는 분사무소와 하부기관 체제에서 스스로 법인격을 갖춘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체회관 마련 후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준비이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분사무소였던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는 민법 제32조,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는 1998. 5. 20. 경기도청 제2회의실에 운영위원 101명이 모여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승인, 사무소설치, 회원회비 등을 의결하였고, 법인 초대 회장으로 임완수 회장을 선출하였다. 의결 후 1998. 5. 27.에는 법인설립허가증(제7호, 경기도지사,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 경기도청 내)을 받아 합법적인 법인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그 동안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의 분사무소 역할을 하던 등기와 직인 등은 1998. 5. 30. 폐지 · 폐기되었다. 법인 창립총회에서는 창립 경과보고, 창립 취지문과 새로운 100년을 여는 우리의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나.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 창립 경과보고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 창립에 따른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0년 4월 22일 중앙청에서 개최된 '한해대책을 위한 지방장관회의'에서 고.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가꾸기 운동을 제창한 이래 정부주도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오던 중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0. 12. 1.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었습니다.

1981. 10. 1. 중앙본부 총회에서 시도에 중앙본부의 분사무소인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경기도는 1982. 9. 1.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를 설치하였습니다. 1996년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따라 새마을운동도 지역중심운동, 주민중심운동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1996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조직을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회장단 및 운영위원 13인은 1998. 5. 15. 법인설립을 위한 (가칭)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정관(안)의 작성, 총회 부의안건의 검토, 임원 출연금의 결정, 회원회비(안)의 심의 등 조직구성에 필요한 기초사항들을 협의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창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998. 5. 20.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 창립준비위원회

다.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 창립 취지문

1970년 4월 새마을운동이 태동한지도 어언 2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우리의 자랑스러운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뿐 만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의 국민운동도 이루어 내지 못했던 커다란 업적과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 아래 우리국민 모두는 내 이웃을, 내

가족보다는 우리사회를 위하여 수많은 땀방울을 흘렸고 그 결과 세계가 찬탄하는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5천년 가난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새마을운동은 이제 6.25동란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IMF체제를 극복하고 2000년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서구 물질문명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황금 만능사상, 개인 · 가족 · 지역이기주의 도덕성의 타락과 인명 경시풍조, 심각한 환경오염, 우리사회를 좀먹는 각종 사회병리현상 만연으로 참신하고 진취적인 민족기상은 쇠락하고 사치와 향락과 방종이 민주주의의 권리인양 오도되는 오늘의 세태에서 힘써 일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서로 도우는 새마을운동의 이념이 보다 절실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에 경기도 새마을가족은 시대가 요구하고 지역사회가 부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절감하고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의 기치아래 희생과봉사의 자세로 이론이나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각종 사회 병을 퇴치하고 경기도 지역발전과 경기도의 제 모습을 찾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새마을가족 마음과 뜻을 모아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1998. 5. 20.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 창립준비위원회

라. 새로운 100년을 여는 우리의 선언문 채택

우리 경기도 새마을가족은 새마을운동 제28주년을 맞아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IMF라는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서야 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 새마을운동은 지난 4반세기동안 가난의 극복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그 시대적 소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국민은 IMF라는 암흑같이 긴 터널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은 채 언제 끝날지도 모를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지난 28년간 축적한 경험과 실적을 교훈으로 삼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비장한 각오로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영광된 새마을지도자이다. 새마을운동이야 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정신적 지주임을 명심하야 어느 정당이나 정파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순수 민간운동으로 승화발전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지방화시대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마을지도자이다. 이 생명은 오직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다하고 이 몸은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하여 활기찬 고장을 만들고 보람찬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참된 역군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위대한 시대창조의 선도자이다. 개인의 행복과 번영된 조국건설을 이상으로 하고 민족자존의 높은 긍지를 앞세워 세계 속의 한국으로 그 위상을 더욱 높여가는 2000년대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신명을 다한다.

1998. 5. 20.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 회원일동

마. 시군지회의 법인설립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는 2020년 현재 시군지회는 31개로서 28시, 3군을 가지고 있는 전국 최대지부이다. 이 중 법인지회가 25개, 비법인지회가 6개이다. 종전의 시군지회는 '새마을운동○○○시(군)지회'의 명칭을 가지고 있고, 법인지회는 '○○○시(군)새마을회'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비법인 시군지회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였기에 '설치', 법인지회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있으므로 '설립'이라 하였다. 시군지회의 법인화는 도지부의 법인설립 이전과 이후에 설립되었다.

도내 최초의 법인설립 지회는 1996. 9. 16. 경기도허가 제1호로 승인받은 '김포군새마을회'이다. 바로 이어 1996. 9. 25. 제2호로 '용인시새마을회, 1996. 10. 4. 제3호로 '시흥시새마을회', 1996. 12. 10. 제4호로 '화성군새마

을회'이다. 1996년에 설립된 1호에서 4호까지의 법인지회는 각각 공간과 회관을 확보하여 등기하게 되었다. 이후 1997. 6. 20. 제5호 '안양시새마을회', 1997. 10. 18. 제6호 '성남시새마을회'가 법인설립을 완료하였다. 그러니까 경기도새마을회가 1998. 5. 27. 제7호 법인설립허가증을 받기까지는 이미 6개 시군지회가 먼저 법인화를 마친 것이다.

이후 1998년에 군포시새마을회, 1999년에 평택시새마을회가 법인 설립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한 동안 잠잠하거나 회관확보 시기나 속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립되었다. 2002년에 과천시새마을회, 2003년 양평군새마을회, 2004년 부천시새마을회, 2005년 수원시새마을회와 파주시새마을회, 연천군새마을회, 2006년 포천시새마을회, 2007년 고양시새마을회와 안산시새마을회, 여주군새마을회, 2008년 오산시새마을회, 의정부시새마을회, 2009년 안성군새마을회와 가평군새마을회, 2012년 의왕시새마을회, 2014년 남양주시새마을회, 2015년 구리시새마을회를 끝으로 더 이상 설립되지 않고 있다.

2020년 현재 비법인 시군지회는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 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 6개 지회가 남아 있다.

바. 법인지회의 운영

법인설립 이전의 도지부나 시군지회는 각각 회장단회의와 '운영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해왔다. 그러나 법인설립 이후에는 이사회와 총회 등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인은 정관개정, 주소변경, 이사변경, 명칭변경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등기'를 해 오고 있다.

경기도새마을회의 경우 1998. 7. 3. 자체회관 확보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경기도청 내)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6-8으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이후 2002. 3. 13. 다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로 주소이전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6년 3월에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의 법인설립을 위한 '정관 예'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이 '정관 예'는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지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정관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하고 바꿀 경우라도 승인을 받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는 중앙협의회와 각 새마을회, 새마을회와 산하 회원단체가 근본적으로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동일조직체라는 점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이 '정관 예'에서는 명칭의 통일성과 새마을정신, 지향하는 목적, 사업들의 명시, 활동의 영역, 수익사업의 근거, 새마을운동의 공익성, 새마을회의 회원과 회원단체의 회원을 동일조직의 체계 유지, 새마을운동 저변확대를 위한 문호개방 및 외부인사영입 등을 규정해 주고 있으며, 기타 회원, 임원, 이사회, 재산, 사무국, 권리와 의무, 가입과 탈퇴, 임기와 선출방법 등도 상세히 담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협의회와 새마을회의 관계를 정의하여 동일조직체이지만 부득이하게 법인격을 갖춘 사단법인을 만들었음을 명시해 주고 있다.

중앙협의회는 이 '정관 예'를 기본으로 새마을회 법인설립을 위한 업무편람을 만들어 보급함으로서 시군지회의 법인화를 지원하였다.

3. 새마을회관의 확보

가. 공공건물 무상임대 시기

1970년대 '초창기 새마을운동'시기에 중앙에는 민관합동 기구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도에는 '시도협의회', 시군에는 '시군협의회', 읍면에는 '추진위원회', 마을에는 '리동개발위원회' 등이 있었지만 순수 민간 조직이나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 새마을운동 10년간은 성공적인 운동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민간주도라기보다는 관 주도성이 많았다.

그러나 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새마을운동마저 중단될 큰 위기가 있었다. 1년여의 공백기를 거쳐 1980년에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추진

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으로 탈바꿈하면서 운동조직을 뒷받침 할 사무조직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무실과 실무운동가들도 필요하게 되었다.

1980. 12.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민간주도새마을운동이 출발하게 되었다. 중앙본부에는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새마을문고중앙회, 새마을청소년중앙연합회 등과 새마을금고중앙연합회 등 새마을 관련 단체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함께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앙본부는 1981년에 각 시도에 '시도 민간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를 설치하였는데 중앙본부는 1981. 6. 3.에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유신학원 이사장이었던 박창원 회장을 경기도 민간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으로 임명했다. 첫 사무실은 1981. 9. 1.에 경기도청 후문 옆에 위치한 경기도교육회관 내에 무상입주하면서 본격적인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하고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불편하여 1982. 9. 3.에는 경기도청사(구관 3층, 수원시 매산로3가 1, 132㎡, 약40평)로 이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은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이 정착하지 못한 형편이어서 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관에서는 그 동안 담당해 왔던 업무를 하나씩 둘씩 차츰 넘겨주면서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주었다. 경기도는 물량사업 위주의 운동과 사업이 추진되었고 도지부는 교육과 홍보, 조직관리 등만을 담당하였다. 새마을운동을 총괄하던 내무국의 새마을지도과는 경기도청 구관 2층에 있었고 도지부는 3층에 있었으므로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도 청사 안에 사무실이 있기에 업무협조나 관리비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리하였다. 웬만하면 이전하지 않고 청사 내에서 있고 싶은 분위기였다. 1983년 박창원 회장이 재임하기까지가 도지부의 정착준비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지부 체제가 갖추어 지면서 경기도의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은 29개 시군으로 출발하였다.

1984년 2월까지는 협의회, 문고, 직장, 공장, 금고 등 단체별로 각각 운영되어 왔었는데 1984년 3월에 시군지회가 설치되면서 실질적인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이 출발되었던 것이다. 설치된 29개 시군지회는 시 · 군청이나 사업소 등에 무상 임차하여 사무소를 개청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도지부와 시군지회는 모두 청사 안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987년부터 시작된 새마을관련 사건들은 지방새마을운동의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고 새마을조직의 사무실을 이전해야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더구나 도청과 시군청의 기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무실 이전에 대한 압박은 점점 심해져 갔다. 이에 따라 도지부는 1986년에 경기도청 구관3층에서 제1별관 2층(약51평)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청사 내에서의 무상임차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80년대 말부터 여러 주변상황이 독자적인 자체회관인 새마을역사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여건이었다.

도지부는 나름대로 새마을역사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무렵 도지부는 1980년대 초부터 기부금, 야시장 수익금, 상금 등을 모아 만든 8천여만 원의 종자돈이 전부였다. 기금을 모아 이전을 준비 중이었지만 새마을역사관 건축과 이전은 감히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두 차례 새마을역사관 건립시도

1990년대 초부터 시간이 갈수록 자체회관을 마련해서 자립화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도지부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1. 1. 9. 이재창도지사와 오상근도지부회장을 비롯한 도회장단의 만찬을 계기로 경기도 새마을가족의 숙원사업인 '새마을역사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건의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1주일 뒤인 1991. 1. 16에는 도지사와 정부포상 수상 지도자와의 오찬 기회가 있어 역사관 건립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건의하게 되었

다.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도 회장단은 1991. 2. 9. 도지부 회장단 회의를 열어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결의하고 시군회장단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스스로 모금을 해서 기초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1991. 2. 22. 시군구 회장단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열어 동의를 받고 만장일치로 건립추진을 결의하였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임받은 도지부는 보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1991. 3. 8. 위원 20명으로 첫 번째 '경기도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경기도새마을운동역사관 건립계획'에 의하면, 새마을역사관을 짓는 목적은 '새마을운동의 역사 및 추진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전 도민의 새마을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새 시대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며, 새마을지도자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새마을운동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건립계획은 수원지역 내에 대지 약 2,000평, 건평 1,200평, 지하1층, 지상3층 정도의 회관규모로 계획되었다. 대지구입비 40억원, 건축비 24억원 등 총 64억 정도 소요를 예상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시 형편으로 보면 조금 무리한 계획이었고 자립화 의지가 너무 과도한 계획이 아니었나 싶다. 이 계획에 따라 도지부는 1991년 2월에서 6월까지 건립비 일부라도 마련하기 위해 전 · 현직 지도자의 성금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벽돌 한 장 값이든지 자갈 · 모래 한 포대를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추진위원회는 1991. 4. 6. 도지부의 의지와 뜻을 담아 도회장단 명의로 경기도내 전 지도자에게 서한문 발송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1991. 5. 1. 부터 건립기금 모금을 시작하게 되었다. "새마을역사관은 반드시 우리 힘으로 확보한다."는 신념으로 회원은 물론 평소 새마을운동을 아껴주신 분들에게도 '벽돌 한 장 사준다.'는 심정으로 성금을 해 달라고 설득하며 참여를 요청하였다. 언론광고를 통해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2개월 동안에 모은 성금은 모금목표액 8억 원에 턱없이 부족하여 고작 3,700만원을 모금하는데 그쳤다. 참으로 역부족이었다. 새마을역사관 건립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의 힘을 모으고 의지를 보여주어야 외부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모금의 한계에 부딪치며 크게 좌절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새마을에 대한 싸늘한 시각의 결과이었던 것 같다. 이 무렵부터는 점점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지자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초조해진 도지부는 또 다시 사무실 이전과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가진 기금이라고는 기존의 기금과 건립성금으로 모은 1억여 원정도가 전부였다. 그나마 기금은 도지부 운영이 어려워 원금을 제외한 과실금 일부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별 대책이 없는 도지부는 계속되는 사무실 이전촉구에 설움 속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수원시의 협조로 부지를 물색한 결과 수원시내에서는 500평 이상 대지를 찾기가 어렵고 변두리지역인 화서동의 논 1,000평(평당 100만원)을 추천해 주었지만 도지부는 자금여력도, 의지도 부족하여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안타깝지만 한 동안 새마을역사관 건립은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후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기에 중앙협의회는 1993년에 흔들림 없는 국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실현가능한 '재정자립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독려하면서 시군구의 목표까지 제시해 주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994년에는 지방비 정액보조금을 기준으로 30%이상 고정수입원 확보, 1995년에는 60%이상 확보, 1996에는 80%이상 확보, 1997년에는 100%를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였지만 결국 구호뿐이고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지침이 되었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무디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무렵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언론의 집중적인 비난, 행정기관의 사무실 이전요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이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1994년 정부의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전격 예산지원 중단조치 선언(이른바 3.8조치)은 참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

총리실의 발표는 내무부장관에게, 내무부장관은 1994. 3. 19. 시도지사에게 지시(내무부재정13330-170)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 사회단체용

사무실 정리지침'을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1994년까지 시도, 시군구청사 내 사무실 정리', '1995년까지 시도, 시 · 군 · 구 사업소 내 사무실 정리 또는 유상임대전환(시군청사는 유상전환 제외)'의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경기도는 1994. 3. 29에 '지방청사 내 사회단체 사무실 환수 협조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도지부에 보냈는데 이 공식적인 첫 번째 공문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경기도는 1994. 6. 13. 공문을 통해 도지부 및 시군구지회가 공공건물로부터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이거니와 '1995년부터는 예산 50%감축 지원, 1996에는 예산전면 지원중단'까지 통보해 왔다.

이전압박은 물론 무상사용도 금지시키기 시작하여 사면초가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1994. 7. 31. 현재 도지부 산하 시군지회 사무실 47개 중 이전 완료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결국 1994. 9. 24.에 가서야 47개 중 28개소를 통폐합이나 이전 완료하였고, 그래도 도 · 시 · 군청 잔류는 19개소가 남아 있었다.

한편 중앙회는 각 시도, 시군구의 자립화를 위해 수익형 회관을 마련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도지부도 시군지회가 조속히 자립형 회관을 마련하도록 독려하였다. 이런 이유로 도지부는 1994. 11. 1. 두 번째로 '경기도새마을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다시 역사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도지부는 첫 번째 실패를 거울삼아 계획을 대폭 축소하여 새마을역사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원시내 적정한 장소에 부지 400평 정도를 확보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역사관을 건축하여 연건평 500평을 확보하기로 계획했다. 총 사업비는 20억으로서 10억원의 자부담과 10억원의 도비보조금 지원을 요청할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도비보조금을 요청하였으나 이 마저도 무산되어 크게 실망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참으로 경기도 새마을가족의 염원인 '새마을역사관' 확보는 요원하기만 하게 보였다.

이후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역사관 마련은커녕 당장 사무실 이전에 급급하여 전전긍긍하는 시기였다. 도청에서의 이전 대상은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도 있었는데 형편은 모두 비슷했고 동병상련의 심정이었다. 어쨌든 역사관을 확보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속히 사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지부는 계속이전을 미루면서 성금을 모금하여 1995년 말에는 1억6,452만3천원, 1996년 말에는 2억5,959만3천원으로 늘려갔다. 1997. 4. 8~15에는 역사관 기금마련을 위한 '설봉 기노철화백 한국화전'을 주최하기까지 하면서 기금마련에 안간힘을 썼다.

경기도는 1994. 3. 29.~1998. 1. 22. 까지 청사 내에서 조속히 이전하던지 자체계획을 내라는 독촉을 이어갔다. 1994년에 4차례, 1995년 3차례, 1996년 1차례, 1997년 2차례, 1998년 1차례 등 총 11차례 보내왔다. 이 시기는 두 번이나 역사관 건립을 시도하였지만 좌절해야 하는 가장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시기였지만 잘 견디어 넘기고 있었다.

다. 최초의 자체 새마을회관 확보

1998년은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IMF사태 첫 해이기도 했지만 경기도새마을회로서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8년여를 노력한 끝에 삼세번 만에 자체회관을 마련한 해이기 때문이다. 새마을역사관 건립에 몇 번의 좌절을 맛보았던 도지부는 때마침 온 국민이 '신 국채보상운동'으로 추진한 국가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도지부는 IMF사태 직전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앞장섰던 '300만 새마을가족 3조원 저축운동('3 · 3 · 3 · 3운동', 300만 가족이 월3만원씩 3년간 3조원 목표)'에 적극 동참하였다. 도지부는 자체적으로 '30만 새마을가족 3천억 원 저축운동'을 목표로 정하였다. 대대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여 850만 경기도의 경제위기 극복의 최선봉에 섰다. 근검 · 절약은 우리 새마을이 가장 잘 하던 운동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가장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극복해 왔던 경험이 주효하였다.

새마을가족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 군부대 · 학교 등 전 도민의 참여를 이끌

어 추진하여 1997. 7. 16. '국민저축운동 최우수 지부'로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그 결과 1997. 12. 6. 내무부로부터 상 사업비 10억 원을 받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당시 임완수 도지부회장의 강한 지도력과 추진력, 회원단체장과 시군회장단의 헌신적인 노력, 사무국의 끈질긴 뒷받침은 경기도 새마을지도자의 저력을 이끌어 내는 최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IMF사태 직전과 직후인 1997년 하반기에 추진한 '국민저축운동'과 새마을부녀회가 주도하여 추진된 '애국 가락지 모으기'는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실천행동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였고 세계 '국민 운동사'에 남을 만한 혁혁한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지부는 이 상금확보를 계기로 주춤했던 새마을역사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의 계획은 '새마을역사관'이었지만 새로운 계획은 '새마을회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추진하였다.

1998. 1. 9. 위원 11명으로 세 번째 '경기도새마을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대상지를 물색하는 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1998에 수정된 계획은 대지300평, 건평100평(연건평 500평) 건축을 목표로 하고, 재원은 총 30억으로써 도비보조금 10억, 모금 5억, 융자 5억, 특별교부금 10억(국민저축운동 최우수)등을 확보하여 부지구입비 18억, 건축비 12억 등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경기도(사회개발과)는 자체보고서에서 30억 원(상 사업비 10억, 도비 10억, 자체자금 10억)규모로 계획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교부세법(특별교부세의 교부), 지방재정법(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출연금의 보조 등),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보조대상)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이 마저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경기도는 인근 강원도와 인천시의 사례를 비추어 약 30억 원 규모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당시 강원도 새마을회관은 1994년 건축 · 완공하였는데, 대지 1,500평에 연건평 1,000평, 지하1층, 지상

3층을 건축하였다. 총 30여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중앙회 1억, 임대보증금 16억, 강원도 10억, 춘천시 3억으로 지어졌다. 인근 인천광역시도 1998회관 확보를 목표로 진행 중이었는데 대지 500평에 연건평 1,253평, 지하3층, 지상3층의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총 24억 원이 투입되는데 중앙 4억, 자체자금 3억, 임대보증금 7억, 인천시 10억 등으로 거의 확보단계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IMF체제 하에 모든 정부예산이 긴축 조정되니 지원이 매우 어려워 상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도지부는 건축을 못해 아쉽지만 건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약이 많으니 건축보다는 매입하자는 의견을 모아 30여 군데 후보 건물을 대상으로 최상의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활동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목표대로 좋은 건물들은 우리가 가진 자금으로는 매입하기는 매우 벅찼다. 따라서 실정에 맞도록 우선 상 사업비 10억 원과 중앙협의회 금전대차 1억 원, 자체기금 1억7천만 원, 총 12억7천만 원에 맞는 회관을 매입하기로 하고 후보건물을 물색하게 되었다. 최종 후보 건물을 결정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한 후 1998. 3. 31. 경기도에 회관 건립비(상사업비) 지원 협조를 요청하였다.

1998. 5.11. 경기도의회는 해를 넘긴 상 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지원을 가까스로 의결해 주었다. 도지부는 1998. 5. 12. 도회장단 회의, 도 운영위원회의에서 새마을회관 매입을 의결하고 곧 바로 검토된 대상건물을 계약하기로 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1998. 5. 20. 사단법인 설립 창립총회도 열었다. 1998. 5. 27. 에는 건물매입(안) 최종확정과 법인등록(130121-0002376)까지 마치게 되었다. 신속히 진행된 확보계획은 1998. 5. 30. 도비보조금 교부신청, 1998. 6. 2.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가 오고 자금이 교부되어 1998. 6. 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6. 11. 소유권이전(제87755호)등기를 마치는 등 속전속결로 처리하여 드디어 30만 경기도새마을지도자의 오랜 숙원인 새마을회관을 확보하는 드라마 같고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매입한 건물은 '현대빌딩'으로서 구.산업안전공단이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었다. 빌딩은 1991. 2. 27준공된 건물로서 약7년 된 건물이었는데, 대지 526㎡(약 159평)에 건축면적 80평, 연 면적 1,639㎡(약 496평),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이었다. 당시는 IMF사태 직후라서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았다. 회관은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 매입한 것으로서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은 14억 8,893만원이었던 것을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상에 의해 우리가 가진 자금 범위 내인 11억 원(토지 4.5억 원, 건물 6.5억 원)에 계약하게 되었다. 부대비용 1.7억 원으로 세금납부 · 입주 · 단장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5층 건물의 4, 5층은 사무국과 회의실로서 경기도새마을운동의 활동거점이자 다짐의 장,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강당은 무료예식장으로 활용기로 했다. 나머지 층은 임대를 통해 독립채산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되었는데 명실 공히 '새마을회관'으로서 어엿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무려 16년간 경기도 청사의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당당한 자체회관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 경기도청 시대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6-3번지 자체회관 시대로 전환점을 만들어 낸 것이다.

1998. 7. 23. 개관식은 'IMF위기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실천 다짐'를 병행하여 소박하게 진행하였다. 임창열 도지사, 이계석 도의장, 석종윤 중앙협의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회관 마련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분들은 여러 대를 거쳐 여러 분들이 노력해준 결과이다.

특별히 첫 회관확보를 위해 애를 써주신 분들은 고희선 고문, 임완수 지부회장, 신현철 지역회장, 김선규 부녀회장, 이도형 직장회장, 정홍기 문고회장, 우태하 사무국장, 김원기 부장, 원인재 과장 등이 있었다. 매입 전후에 이 분들의 특별한 노고가 오늘 날의 경기도새마을운동의 터전을 닦아 주었던 것이다. 이후 중앙회의 회관건립비 대여금은 1998. 9. 28.지원금으로 바뀌어 한숨 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라. '더 큰 새마을회관'으로 확대 이전

자체 새마을회관은 우리 농산물직판장, 재활용품 교환센터 등으로 활용하

고자 하였으나 지방비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회관운영과 도지부 운영을 위한 수익은 턱 없이 부족하여 임대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정자립으로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회관의 규모가 너무 작아 시군지원은커녕 도지부 운영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무렵 중앙협의회는 1999. 4. 27. '지부 · 지회 자체 새마을회관 갖기 3개년계획'을 시달하였는데 '새마을운동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일선조직의 자립기반 구축, 자율추진역량 제고, 분위기조성 및 의지 강화'를 위해 확보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회관확보 과정을 통해 '전지도자 참여, 적극적 관심유도, 조직 활성화 및 정비기회로 활용, 행정의 자발적 지원유도, 각종평가우대'등을 구체적인 행동지침도 시달되었다. 1999년은 새마을회관 마련을 위한 분위기조성 해, 2000년은 새마을회관 갖기 계획추진의 해, 2001년은 목표달성의 해로 정하였다.

중앙회는 '새마을회관건립비지원규정'이라는 한시 규정까지 만들어 지부 · 지회 회관확보의 유인책을 제시하였다. '부지나 권리확보, 법인전환, 착공계 제출' 등의 근거를 제출하면 시도는 1억, 시군구는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물론 조직별 · 단체별로 보유하던 모든 기금은 통합하여 투입함을 전제로 했다. 이 시기 중앙회는 본격적으로 자립화와 세계화를 향해 변모하고 있었다. 중앙회를 화곡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전하고, 중앙협의회에서 중앙회로 명칭을 바꾸는 등 큰 변화를 이루었다. 대치동에 자리 잡고 나면서부터 지부 · 지회도 회관 매입 또는 신축을 통해 자립형 회관확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중앙회는 화곡동 부지 매각대금 중 230억원을 특별회계로 활용하여 지부 · 지회 회관 마련을 위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기로 정책을 바꾸었다.

중앙회는 시도별 자구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이 특별회계는 2002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므로 기한 내 착공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지부지회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1년 전인 1999년에 중앙회에서 제시한 계획보다 훨씬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이에 도지부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더 큰 새마을회관'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존 회관매각 대금, 지방비보조금 확보, 성금

모금, 중앙회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건축하고 시설운영 수익금은 도운영비와 지회지원금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도지부는 시군지회와 협의하여 보다 큰 회관을 확보 ·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지회를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모금사업을 펼치기로 하였다. 2000. 10. 10. 이사회보고를 거친 이 계획에 의거 시군지회 모금을 시작하였다. 2000. 10. 30. 수립된 신 회관건축 계획은 '일선 새마을운동의 구심체, 자율 역량제고, 재정자립기반 구축, 경기도의 지역활성화 거점 활용, 회관규모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수익사업 전개하여 수입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삼았다.

진정한 의미의 민간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급선무였다. 지자체의 정액보조금으로 연명해 온 실정으로 보아 보조금 단절시 지부 · 지회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였다. 시군지자체는 보조금을 고리로 여러 가지를 요구해 올 것이고, 일선 지도자의 의존적 사고로 운동성은 점차 훼손될 것이고, 열심히 일해도 국가예산으로 일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일한만큼 국민들의 관심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었다.

건축목표는 지하3, 지상6, 대지 380평, 건평 266평, 연 건평 1,368평 이었다. 소요예산은 총 63억 8천만 원 정도였고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대지구입비 12억 5,400만원, 건축비 47억 800만원, 기타 3억 4,200만원이었다. 하지만 IMF사태 여파로 건물신축은 무리하고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자칫 잘못하여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고, 전통적인 사업추진을 흐리지 않고 돈벌이에 급급하지 않도록 명분을 축적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성금모금이었다. 그 동안 도지부는 일선 지도자들에게 '북한농촌현대화 지원을 위한 통일손수레보내기 모금', 통일이후 급격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외 식량기지를 만들고자 추진한 '러시아연해주영농사업 모금', '도회관과 시군자체회관 확보를 위한 성금모금'등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회관 확보에 자신감을 얻은 시군 새마을지도자들은 양말 · 세제 · 수산물 등을 판매하여 8억1,700만 원을 모금하였다. 새로운 회

관을 건축하는 계획은 2000. 11. 10. 제9차 이사회 결정으로 확정되어 중앙회에 보고하였고, 11. 17. 시군협의회장 회의, 11. 21. 시군부녀회장 회의, 11. 24. 시군사무국장 회의를 통해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는 과정을 거치었다.

2000. 12. 14. 중앙회는 시도회관확보를 위한 지원목적과 조건으로 '지부 · 지회 재정자립 기반구축과 자율추진 역량제고, 새마을운동을 통한 시도별 지역활성화 거점 활용,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 위한 정보교육 문화센터 활용, 건립 후 1지회당 1천만원 이상 지원 목표, 건립비의 21% 이상을 모금'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지가차등배정, 평가지원금, 지회수 비례배정' 등의 방식으로 지원결정이 결정되는데 도지부는 이미 법인화를 완료하였고, 회관도 확보하였고, 조직의 잠재력 있음을 감안하여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 '더 큰 새마을회관'확보계획은 3개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2000년은 도회관 확보를 위한 '준비의 해'였고, 2001년은 본격적인 '실행의 해'였다. 2002년은 '확보의 해'였다. 2001. 2. 20. 중앙회의 새로운 도회관 건립비 지원 지침에 따라 도지부는 중장기계획을 제출하고 중앙회의 점검과 승인을 기다리게 되었다. 2001. 5. 11. 도회장단회의에서는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2001. 8. 1. 최소의 투자로 연간 3억 이상 순수익 목표, 수익성 · 편의성 · 신속성 ·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매입을 검토하자고 결의하였다. 가능한 경매물건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건물을 매입하여 사무실, 회의실, 임대(단체), 시민대학, 어린이집, 주차장, 생협 등으로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1. 11. 22.에는 총회로부터 새 회관매입에 따른 권한을 고문, 자문위원을 포함한 이사회에서 위임받았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의 영속적인 발전과 재정자립을 통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목적 수익형 회관을 마련'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오랜 조사와 검토 끝에 2001. 12. 19. 이사회는 '경기도새마을회관 매입'을 최종 의결하였다.

도지부는 2002. 1. 18. 중앙회에 '더 큰 새마을회관' 매입 계획을 보고하면

서 '연간 3억 원 이상 수익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앙회와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드디어 도지부는 2002. 3. 2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 수원시청 네 거리에 제대로 된 새마을회관을 확보하게 되었다.

도회관은 대지 2,796.9㎡(약 846평)에 건축면적 304평, 연면적 10,799.73㎡(약 3,267평), 지하3층, 지상 9층의 중형 건물이었다. 총 매입가격은 103억 4100만원으로, 매입비 90억 9895만원과 제세공과금 및 시설비 부대비용 12억 4250만원이었다. 매입재원은 66억 58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구 회관 매각 대금 14억 원, 중앙회 지원금 22억 5800만원, 도비보조금 30억 원이었다. 미확보 금액 36억 8300만원은 모금 8억 원을 공제하면 순 부족분은 28억 8830만원이었다. 순 부족액은 임대보증금 승계충당과 은행융자 등으로 충당하고 더 큰 회관을 확보하게 되었다.

매입한 건물은 1995년 12월에 지하 3, 지상 9층으로 준공된 구.동아생명 수원사옥이었는데 공매물건이었고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였다. 7년 지난 건물이었기에 비교적 새 건물이었다. 당시 새마을회관 매입과정에서는 자산공사가 파산하거나 부도난 업체의 건물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는데 유찰된 건물이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1998년 구입한 최초의 새마을회관은 수원시새마을회에 매각하고, 꿈에 그리던 수익형 새마을회관을 저렴한 가격에 아주 유용한 새마을회관을 장만하게 되어 2002. 5. 22. 회관 개관식을 갖고 오늘 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후 도회관은 2013. 11. 30. 분당선지하철이 개통되어 '수원시청역'이 생기면서 역세권으로서 요지로 바뀌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게 되었다. 2019년 말 현재 시군성금으로 모아진 금액도 당초 납입했던 총액의 6배 정도인 47억 정도를 배당 · 보상하게 되어 시군지회 운영에 큰 힘을 보태게 되었다.

이 회관은 도지부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시군새마을가족의 피땀 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로써 경기도지부 새마을회관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모범적인 회관이 되었다. 회관 매입의 마무리는 조명환 지부회장, 박장수 지역회장, 김선규 부녀회장, 윤한기 직장회장, 홍원일 문고회장 등과 박상선 사무처장, 김춘식 부장, 문행식 부장 등의

노고가 매우 컸다.

마. 제2새마을회관(별관) 매입

도 새마을회관은 역세권이라 비교적 임대가 잘 나가는 편이다. 중형 건물이기에 임대보증금도 상당히 들어왔지만 은행금리가 낮아 수익성은 매우 낮았다. 이에 도지부는 임대보증금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보증금 규모에 맞는 제2회관(별관)을 매입하여 수익성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매년 올라가는 시군 지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다. 몇 개의 건물을 물색하여 최종적으로 2014. 12. 12. 수원시 권선동 1064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하였다.

대지면적 388.8㎡(약 118평), 건축면적 232.44㎡(약 70.3평), 연면적 1,249.78㎡(약 378평)로 웬만한 시군 새마을회관 정도의 규모이다. 건물은 7개로 분할 등기되어 있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건물은 건축연도(사용승인일)가 2008. 11. 28.이라서 6년 정도 지난 건물이라서 사실상 새 건물이었다. 총 취득가액은 36억원으로서 토지 23.52억원, 건물 12억4.8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취·등록 면허세, 수입인지, 기타비용 등 경비 1억8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37억 8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기본적으로 본관 임대보증금 22억 4천만 원을 재원으로 삼았고, 부족한 자금은 은행융자 9억6,500만 원과 임대보증금 5억5,500만 원, 기타 2천만 원 등으로 메우고 차츰 갚아나가기로 하였다. 드디어 2014. 12. 30. 잔금을 지불하면서 제2새마을회관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회관 매입에는 이도형 지부회장, 함옥생 지역회장, 임낙희 부녀회장, 강경환 직장회장, 이응구 문고회장, 이광수 사무처장, 권민정 부장, 이종서 부장 등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

바. 지속가능한 경기도 새마을운동 추진의 구심체

새마을회관 확보과정은 경기도새마을회의 역사이다. 도청 후문에서 무상임차로 시작하여 경기도청 내 입주, 두 번의 역사관건립 좌절을 딛고 세 번 만

에 확보한 회관, 더 큰 새마을회관 마련을 위한 중앙회와 경기도, 시군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처음 시작한 분들로부터 중간 중간 어려운 고비를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인내로 이겨낸 모든 새마을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축 후 20년이 넘은 본관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 회관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켰다. 위치가 좋은 별관건물은 매각하여 경기도청 입주가 예정된 광교신도시 지역에 신축 건물을 매입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2018년에 이사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았지만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있고 매각하여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것도 위험부담이 많아 현재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9년 말 두 건물의 부채총액은 40억8673만원으로서 충당확보액 4억 원을 제외하면 순 부채액은 36억 8673만 원 정도이다. 이는 두 건물의 임대보증금이므로 향후 갚아야 하기에 보다 나은 활동을 위해 조속한 상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새마을회는 본관과 별관 건물을 갖게 되었다. 본관은 순수히 매입한 건물이지만 별관은 본관의 임대보증금으로 매입한 임시 소유나 마찬가지이다. 본관건물은 1995년에 건축한 건물로서 25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라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에 도새마을회는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3개년에 걸쳐 2016년 엘리베이터 1호기, 2017에 2호기, 2018년에 3호기를 보수하여 기능성과 안전성을 월등히 향상시켰다. 2018년에는 냉각탑과 화재경보장치, 사무실 인테리어를 통해 보다 유용하고 깨끗한 건물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청역 근처의 회관으로서 시민의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하고, 회관 강당을 항시 시민들에게 개방해 주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회관이 지역의 공공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2020년에는 배수관 등 각종 지하관 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여 더욱 안정성과 기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4. 경기도지부

가.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경기도새마을회)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는 2020년 현재 5개의 공식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다.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 경기도새마을부녀회, 직 · 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 새마을금고경기도연합회가 회원단체이다. 금고연합회는 회원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웃 단체로서는 새마을교통봉사대경기도대, Y-SMU경기포럼, 새마을사랑모임, 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각 회원단체장들은 각각의 회원단체를 대표하며 경기도새마을회의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지부회장과 회원단체장은 각각의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시군지회는 31개로 28시, 3군을 가지고 있는 전국 최대 도지부이다.

나. 도지부회장

도지부회장은 경기도새마을의 대표로서 회원단체를 총괄하며 경기도새마을운동을 이끌어왔다. 회원단체를 기반으로 도지부를 운영하는 지부회장에 대해 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사를 쓰면서 지난 선배들의 존함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도 무례일 것 같아 최소한의 언급만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이 대목은 사실을 바탕으로 쓰는 최소한의 역사일지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초대 박창원 회장은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설립 토대를 만들었다. 1981년부터 민간단체 직장새마을운동의 수장을 맡다가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가 설치되면서부터 회장을 맡았다. 제8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명성에 맞게 도지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이다. 사실상 오늘의 경기도새마을회가 있도록 산파역할을 해주셨다.

1985년에 선출된 두 번째 김종무 회장은 송탄을 기반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분으로서 선출 후 얼마 되지 않아 기업에 큰 사정이 생겨 중도에 퇴임하였다.

1986년에 세 번째로 선출된 지부회장은 경남여객 대표였던 남평우 회장으로서 순수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정착에 초석을 다져주신 분이다. 처음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수원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도지부 및 중앙회 운영에 도움을 주며 울타리 역할을 해 주셨다.

1988년 7월에 네 번째로 선출되어 도지부 회장을 맡으신 분은 수원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출신의 오상근 회장이다. 새마을운동의 수난기에 도지부회장을 맡았지만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주신 분이다. 수원 등 경기지역의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막힘없이 도지부를 이끌어주셨다.

이후 1994년에 대림환경과 대림건설, 중부일보사장이셨던 임완수 회장이 다섯 번째로 취임하였다. 처음으로 내부 조직의 수장을 거치신 분이다. 수원권선구지회장을 역임한 후 도지부회장에 취임하셨는데 이 시기는 국가경제난이 시작되어 대대적인 경제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던 시점이었다. 도내 전 새마을가족의 역량을 총 결집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덕에 IMF극복의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새마을회관 마련의 상 사업비를 받아냈으며, 법인을 설립하여 초대회장에 추대되었다. 이후 오랜 경기도청사 내의 곁방살이를 청산하고 첫 회관을 마련하는 지대한 공을 세워주신 분이다.

1998년 말에 여섯 번째로 도지부회장을 맡아주신 분은 고희선 회장이었다. 농우바이오를 경영하고 계셨던 고희선 회장은 통 큰 행보로 더 큰 회관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지대한 공을 세우고 현재의 자립형회관 확보를 성사시켰다. 이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도 도지부와 중앙회 일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

2000년에 일곱 번째로 취임하신 분은 조명환 회장이다. 도 직장회장을 역임하신 사업가로서 기존 회관을 과감하게 매각하고 수익형 자립회관을 마련해 주신 분이다. 시군지회를 설득하여 모금하고 중앙회와 경기도를 설득하여 오늘의 최고 회관을 마련해 주셨다.

2003년에 여덟 번째 선출된 지부회장은 홍원일 회장으로서 문고회장을 역임하신 분이다. 매입한 회관을 중심으로 체계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다가 중도 사임하시게 되었다.

2004년에 아홉 번째로 선출되신 고희선 회장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면서 새로운 임기를 수행해 주셨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다. 특히, 매년 개도국에 채소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일조하였다.

2007년에 열 번째로 취임하신 분은 리출선 회장이었다. 젊고 혁신적인 지부회장으로서 도지부에 경영혁신 마인드를 심어주셨다.

2011년에 선출되신 열한 번째 지부회장은 이도형 회장이다. 도 직장회장을 역임하시고 수원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도지부 위상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하셨다. 리출선회장의 중도 사임으로 임기를 이어가고 두 임기를 연임하시어 가장 오랫동안 도지부회장 임무를 수행하셨다. 경영인의 탁월한 감각으로 본관 임대보증금을 활용하여 별관을 구입하여 재정자립 기반구축에 기여해 주신 분이다.

열두 번째 회장은 수원월드컵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송재필 회장이다. 이도형 회장의 임기종료 후 적임자를 모시지 못해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도지부 회원단체장의 수차례 간청을 수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86년 이후 33년 만인 2019년 수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큰 올렸다. 대회에서의 대통령 말씀은 새마을운동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서 새마을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에 기대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격려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 새마을의 도지부회장은 언제나 도내 중량급 인사들이 맡아주시어 도지부의 위상과 조직력 강화, 운동성 향상의 성과를 올리며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지부회장은 경기도새마을회의 위상이자 얼굴이다. 박창원, 남평우, 오상근, 고희선 회장은 작고하시어 50주년을 함께 맞이하지 못하여 안타깝다. 그 분들의 노고가 오늘의 경기도새마을운동을 만들어 냈기에 잊으면 안 될 역사인 것이다.

다. 경기도지부를 거쳐 중앙회에서 일하신 분들

중앙회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지부는 항상 가장 중요한 지부이다. 그런 이유

로 중앙회 임원에도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해 주셨다. 경기도가 자랑하는 증산왕 황대영 회장은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하셨다. 이후 통합 평택시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을 역임하신 이철우 회장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제3대 회장을 역임하셨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장 이질현 서울대농대 교수는 경기도새마을운동 모든 분야를 자문해 주신 분이다.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이 시작하자 새마을운동의 이론가인 이질현 박사와 중앙본부 이철우 회장,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을 지내신 황대영 회장 이 세분은 경기도새마을운동의 삼총사였다.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장은 두 분을 배출하였다.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4대회장이신 이은숙 회장은 도 부녀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분이다. 고양시부녀회장과 도 부녀회장을 역임하신 최송옥 회장도 제5대와 6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을 역임하였다. 따라서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경기도새마을 임원 출신들이 그대로 중앙조직의 수장을 맡은 셈이다.

중앙회 임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중앙회 이사로는 박창원 도지부회장, 고희선 도지부회장, 홍원일 도지부회장, 리출선 도지부회장, 황말무 도 지역회장, 김기원 도 지역회장, 김숙희 도 부녀회장, 조정환 도 직장회장, 이창옥 남양주시 문고회장, 권태욱 도 문고회장 등이 활동하였다.

기타 새마을과 직 · 간접관계가 있는 경기도 출신 주요 인사로는 도지사와 환경처장관, 국회의원과 중앙회장을 역임하신 이재창 회장, 경기도지사와 중앙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윤세달 사무총장,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신 권두현 사무총장 등이 계셨다. 그리고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 국제농업개발원 이병화 원장, 양평연수원 정창영 원장, 파주시지회 김종승 회장 등이 경기도 출신으로서 중앙회의 자문위원이나 윤리위원등을 역임하셨다.

5. 경기도지부 회원단체

가. 중앙 회원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72. 3. 7. 대통령령 제6104호로 만들어진 새마을운동 민관협력 자문기구이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정책과 방향 등을 제시해 주는 정부 기구였다. 회원단체 중 새마을문고는 1960년대부터 존재하였고, 새마을금고도 1970년대 초반부터 활동하였다.

새마을청소년회도 '4-H'란 이름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첫 조직은 자생단체인 직장새마을이었다. 1976. 11. 10. 민간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결성하여 도시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다음 해인 1977. 2. 21.에는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가 결성되었고 상공부에서 관장하였다.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사실상 70년대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 새마을운동추진조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시군에서부터 새마을부녀회가 여러 이름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통합새마을부녀회가 만들어지면서 부녀회도 하나의 조직체가 되었다.

1980. 9. 11.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가 동시에 설립되어 도시와 농촌의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추진조직체 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단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1980. 12.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창립되었다. 창립과 동시에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공장새마을추진본부 4개의 회원단체를 가입시켜 단일체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1981. 2. 28.에는 '민간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유지해 오던 직장새마을운동 단체를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 시점부터 각 시도, 시군에서는 종전의 명칭인 민간단체 새마을운동협의회를 결성하여 지역, 부녀, 직장, 문고 등의 시군 조직들을 함께 모아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본부는 1981. 10. 1. 새마을문고중앙회를 회원단체 가입시켰고, 이어

새마을청소년회중앙연합회, 1984. 2. 11.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원단체를 가입시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모두 7개 회원단체를 거느린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추진의 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나. 경기도 회원단체

경기도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조직은 1970년대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문고와 4H는 이미 조직이 있었고 금고는 70년대 초반부터 활동하였으며, 공장은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추진부서가 있었으며, 직장은 각 시군의 활동들을 모아 1975. 5. 13. '민간단체 경기도새마을운동협의회'를 결성하여 중앙협의회 결성 이전부터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선봉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협의회는 1981. 2. 7. '직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유지되다가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와 함께 경기도새마을운동의 대표단체가 된 것이다. 경기도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회원단체는 80년대 초반 민간주도새마을운동이 추진됨에 따라 체제안정에 시간이 필요했다. 80년대 초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문고까지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세 단체는 지자체로부터 각각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였는데 사무실만 통합, 운영하였다.

이 시기 대부분의 사무실은 시군청사의 본관, 별관, 지하 등에 자리잡게 되었고 청사 공간이 없는 곳 일부는 시민회관이나 사업소 등 공공건물에서 운동을 시작하였다. 지역, 부녀, 문고는 전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됐지만 직장협의회와 공장추진본부는 몇 개의 시 단위에만 존재하였다. 각 단체별로 따로 운영하다가 '경기도 민간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가 결성되어 '남성부, 여성부, 문고부, 직장부'등 기능별 부서로 운영되었다. 시군마다 사정이 달라 회원단체 결성에도 제 각각 있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김포군협의회는 1980. 8. 14. 설립되었고, 김포군새마을부녀회는 1981. 9. 1. 설립되었다. 성남시는 1980. 10. 1.에 '민간단체새마을운동성남시협의회'를 설립하고 1983. 10. 1.부터는 6개 회원단체(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공장추진본부, 문고지부, 금고연합회)가 모여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시군은 이와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자생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와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1980. 9. 1. 구성되었다.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는 1982년부터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문고, 직장, 공장, 금고 등이 함께 활동하기 시작하였는데 1985년부터는 '새마을청소년회경기도연합회, 조기체육회'도 회원단체로 들어오게 되어 경기도지부는 총 8개 회원단체를 총괄하게 되었다. 청소년연합회가 회원단체로 가입되기 이전에는 '4-H'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다가 79년 '새마을청소년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함께 활동하다가 80년대 말에는 원래대로 '4-H'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체계도 잡히지 않아 민간주도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물론 각 지자체는 새마을과가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각 회원단체는 도지부와 시군지회 설치 이후에 체계가 잡히고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지금의 5개 회원 단체 체제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회원단체는 각각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운영되면서 명칭, 임원선출 방식, 임기 등이 다양하여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그 동안 회원단체별로 회장단의 임기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어 왔지만 2020년부터는 모든 회원단체 회장단의 선출시기와 임기를 맞추어 체계를 잡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는 부녀회와 같이 1980. 9. 1 결성되었다.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민간단체 경기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모든 활동은 각각 해왔다. 도지부가 설치되면서 회원단체로 가입하면서 일원화 되었다. 총 12명의 도 협의회장이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를 이끌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대 황대영 회장은 평택출신이자 전국 증산왕 출신으로 당시 식량자급에 최우수, 모범을 보여 도 협의회의 기초를 다져주었다. 황대영 회장은 이후 제

2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을 역임하였다.

이어서 도내 축산분야에서 가장 우수지도자였던 이철우 회장이 도 협의회장을 이어갔다. 이 때까지는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단계였다. 이철우 회장은 이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제3대 회장,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시며 도 새마을운동 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 원로로서 역할을 다해 주었다.

세 번째는 반월출장소 지역회장 출신의 김길웅 회장이 대를 이어 초기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을 이끌었다. 네 번째 회장은 수원시 지역회장을 역임한 최석한 회장으로서 도시지역에서의 새마을지도자 활동에 기반을 닦아 주었다. 다섯 번째는 의정부시 지역회장 출신 황말무 회장으로서 한수이북에서의 첫 회장으로서 북부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중앙회 이사로도 활동하였다.

1994년에 선출된 여섯 번째 회장은 평택시 지역회장을 역임한 차준호 회장으로서 남부지역 새마을운동 발전과 도 교통봉사대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기여가 있었다. 1997년에 일곱 번째로 선출된 수원시 지역회장 출신의 신현철 회장은 최석한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수원출신 회장이다. 신현철 회장은 도지부 첫 번째 자체회관 마련에 뚜렷한 공적을 세워 오늘 날 경기도 회관의 발판을 놓아 주었다.

2000년에 여덟 번째로 선출된 박장수 회장은 양평군 지역회장을 역임하였는데 두 번 째 회관 매입이 큰 공을 세워주어 오늘 날 전국 제일의 회관보유를 자랑하게 만들었다.

아홉 번째는 2003년에 선출된 김기원 회장은 용인시 지역회장을 역임하였는데 한 동안 도지부회장 공석으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지부를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기여했다. 특히 러시아, 필리핀 등 도 협의회 단독으로 국제사업을 펼쳐 오늘 날 국제사업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열 번째로 2007년에 선출된 하남시 지역회장 출신 김승수 회장은 동부지역 새마을운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임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중도에 사임하였다.

열한 번째로 선출된 광명 지역회장 출신 송동수 회장은 서부지역 새마을운

동 발전에 기여하였다. 열두 번째로 선출된 함옥생 회장은 안성시 지역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도지부의 별관 매입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등 국제사업을 개척하기도 하였다. 도지부회장 공석으로 한 동안 직무대행을 맡아 도지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라. 경기도새마을부녀회

경기도새마을부녀회가 결성되기 이전에는 몇 개의 부녀회가 각각 자생단체로 존재하였다. 1977. 10. 1. 국무총리령 제141호에 의거 자생조직을 '통합새마을부녀회'로 조직하면서 초대회장으로 이은숙 회장을 선출하였다.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와 같이 1980. 9. 1 결성되었다.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경기도 민간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모든 활동은 각각 해왔다. 도지부가 설치되면서 회원단체로 가입하면서 일원화 되었다.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는 1980. 9. 11. 창설되었다. 1980. 12.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창립과 동시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회원단체가 되었다. 1982. 9. 1. '민간단체 경기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는 분리하여 각각 독립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총 아홉 분의 도 부녀회장이 경기도새마을부녀회를 이끌면서 발전을 계속해 왔다. 초대 이은숙 회장은 송탄출신으로 모든 부녀회의 초기부터 활동하신 분이다. 이은숙 회장은 제2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경기도새마을부녀회의 위상을 높여 주셨다. 이은숙 회장은 1980년 총회에서 재임하며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였고 1982년 총회에서도 선출되어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하였다.

1986년에 두 번째로 선출된 고양시 부녀회장 출신의 최송옥 회장도 경기도에 이어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까지 역임하였다. 그러나 연달아 두 분의 중앙연합회장 역임 후 30여년 넘게 경기도 출신의 중앙부녀회장은 배출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1987년 세 번째로 선출된 과천부녀회장을 역임하신 김순자 회장은 차분하

게 도 부녀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었다.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수행하였기에 1988년 총회에서 다시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했다.

1990년에 네 번째로 선출된 성남시 부녀회장 출신의 김선규 회장은 가장 긴 13년간 도 부녀회장을 맡아주신 분이다. 1990년, 1992년, 1994년, 1997년, 2000년 선거에서 각각 회장에 선출되었다. 2000년 이전에는 2년의 임기였지만 2002년부터는 3년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이 만들어 졌다. 도 새마을회관 2개 매입에 모두 기여하였고, 애국가락지 모으기와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에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성남시의원에 이어 경기도의원까지 지내며 도 새마을운동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다.

다섯 번째 회장은 2003년에 선출된 화성군 부녀회장 출신 김명숙 회장은 몽골새마을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새마을이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여섯 번째 회장은 2009년에 선출된 성남시 부녀회장 출신 김숙희 회장은 중앙회 이사로도 활약하였다. 2015년에 선출된 고양시 부녀회장을 역임한 임낙희 부녀회장은 도 부녀회사업 영역을 많이 확장해 주었다. 특히, 자립화를 위한 별관매입에 크게 기여해 주셨다. 경기도새마을조직은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며,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조직이다. 따라서 도 부녀회는 단일조직으로서는 전국 최대 조직인 것이다.

마. 직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

'직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는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설치 이전부터 매우 양호하게 운영되어 온 조직이다. 초기부터 회비를 통해 독자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갖추고 활동해 왔다. 그러나 단체나 직장이 회원사이므로 개인이 참여하는 조직이 아니라서 그 확장성은 크지 않았다. 주로 대표자보다는 그 직장이나 단체의 실무부서장이 활동의 주체였다. 물론 각 직장이나 단체로 돌아가 각각의 건전하고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직장새마을운동을 펼쳤지만 90년대 말부터 서서히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초기 직장협의회 운영은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업무

를 수행하였다. 인건비는 회장단체에서, 관리비는 각 회원사로부터 책정된 회비를 받아 운영하였다. 직장협의회는 대개 도시지역 위주로 구성되어 공공단체나 협회 등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도 협의회는 도 단위 회원사 79개를 직접 운영하여 도회원사와 시군협의회를 동시에 관할하기도 하였다. 1975. 5. 13 '경기도 민간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가 창립되고 최정환 초대회장이 선출되면서 직장새마을운동 활동이 시작되었다. 농촌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성과가 도시새마을운동으로 확장된 것이다. 도시새마을운동의 주체는 직장새마을운동으로서 학교와 군부대까지 확산되기도 하였다.

1977. 6. 5.에는 박창원 회장이 선출되어 두 임기를 마쳤다. 도지사를 역임하셨던 박창원 회장은 이후 초대 도지부회장을 맡아주시기도 하였다. 1981. 2. 7. '직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민간주도 직장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총 여섯 분의 회장이 경기도 직장새마을운동을 이끌어 주셨다.

1982년 초대 회장은로 선출된 조정환 회장은 수원터미널의 모회사인 남도산업 대표로서 경기도 직장새마을운동을 가장 오래 이끌어주신 분이다. 초기에는 직원 2명을 파견해 주며 직장새마을운동을 지원해 주셨다.

두 번째로 1997년 7월에 선출되신 분은 창진운수 대표이신 이도형 회장이 취임하셨다. 이도형 회장은 첫 번째 도 새마을회관을 매입과 제2회관을 마련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2001. 12. 14.에는 기존의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와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를 묶어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2002년에 세 번째로 선출되신 분은 용인지회장을 역임하신 윤한기 회장이다. 두 번째 새마을회관 확보에 지대한 공을 세우시고 도 이사 등으로 활약하시다가 다시 용인시지회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새마을단체를 경험하신 분이다.

2007년에 네 번째로 회장에 취임하신 분은 양주군 직공장협의회장을 역임하신 김학섭 회장이다. 2014년에 다섯 번째로 선출되신 분은 시흥시 직공장회장을 역임하신 강경환 회장이다. 2018년에 여섯 번째로 취임하신 회장은

성남시 직공장회장을 역임하신 최연숙 회장이다. 최초의 여성회장으로서 시군조직 확장에 큰 노력을 기울이셨다.

바.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는 도지부 설치 이전부터 독자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회원단체 중 가장 역사가 오래 된 조직이다. 새마을문고는 1961. 2. 1. '마을문고본부'를 설립하고 11. 20. 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1962. 3. 10. 등기를 마쳤다. 1981. 10.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원단체로 가입하였고 1983. 1. 11.에 가서야 '새마을문고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새마을과 같이 하게 되었다.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는 설립 이전인 1980년에 선출된 강한성 회장이 마을문고를 이끌어왔다. 1982년에 첫 번째 최범상 회장은 의정부 문고회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사실상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의 문고운동을 이끌어 주었다. 1984년 말에 두 번째로 선출된 김종만 회장은 성남시 지역회장 출신으로서 문고를 맡아주신 분이다.

1989년에 세 번째로 선출된 문제복 회장은 수원시 문고회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도서점을 운영하는 분이었다. 1991년에 네 번째로 선물된 권태욱 회장은 부천시 문고회장 출신으로서 '문학의 한마당'을 만들어 오늘날 '문화의 한마당'으로 키워주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다.

1998년에 다섯 번째로 선출되신 분은 부천시 문고회장을 역임하신 정홍기 회장이다. 2002년에 여섯 번째로 선출된 홍원일 회장은 수원시 문고회장 출신으로서 도지부회장까지 지내셨다. 2003년에 선출된 이채용 회장은 양주군 문고회장 출신으로서 중앙문고 부회장을 역임하시며 경기도 문고의 위상을 높여 주셨다.

2010년에 선출된 이응구 회장은 남양주군 문고회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도 문고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문고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취임한 한이덕 회장은 사정으로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고 다시 이응구 회장이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 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

'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는 정관상 회원단체이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회원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경기도지부 이웃단체

'새마을운동중앙회'에는 5개의 회원단체가 있다. 정식 회원단체가 아닌 단체를 이웃단체라고 보는 것인데 경기도새마을회에는 '새마을교통봉사대경기도지역대', 'Y-SMU경기포럼', '경기도새마을사랑모임'과 정관 내 조직인 '경기도새마을회자문위원회'가 있다.

가. 새마을교통봉사대경기도지역대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새마을운동의 달리는 전위대 및 달리는 홍보요원'으로 선진 교통문화 확립과 자율 질서의식을 함양시켜 국가사회 발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세이프티 서포터즈 및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통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는 1984. 11. 17. KBS통신원 등 수도권 운전기사 600여명으로 '연예인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소속 준 회원단체로 발대하여 활동하게 되었는데 1993. 1. 1. 연예인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분리되어 본대 및 21개 지대로 '새마을지도자교통봉사대'를 조직하여 개편되면서 두 개의 교통봉사대로 각각 활동하게 되었다.

1996. 12. 31.에는 새마을지도자교통봉사대와 연예인새마을운동협의회 소속의 교통봉사대가 다시 '새마을지도자교통봉사대'로 통합운영하게 되었다. 새마을지도자교통봉사대는 1997. 4. 1.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산하단체로 소속되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별관 2층에 사무실을 두고 본격적인 새마을회원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이다. 4월 28에는 정식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산하조직으로 관리체계가 개편되면서부터 중앙은 '본대', 시도는 '지역대', 시군구는 '지대'로 운영하게 되었다. 출발 당시 중앙본대는 전국 15개 지대 13,150여명의 대원으로 발대하여 지역사회의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서 오고 있다.

교통봉사대는 21세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참다운 교통봉사자로서 시민들의 교통질서확립과 자율질서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직되었으며, 운영은 자생, 자활, 자립을 원칙으로 하며 자발적 활동을 목표로 조직된 자생단체이다. 중앙협의회는 교통봉사대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로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질서 · 친절 · 안전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왔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전북, 제주 등 10개 지역대와 54개 지대가 지역사회의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오고 있다.

'새마을교통봉사대경기도지역대'는 1994. 4. 13.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초대 임길만 대장과 12개 지대 1,300여명으로 발대하였는데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고양, 남양주, 시흥, 하남, 파주, 평택, 오산, 이천지대 등이 합류하였다. 경기도지역대는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 산하 조직처럼 조직되어 있었고 도 협의회는 봉사대의 활동을 지원해 왔다. 봉사대는 각종 선진교통문화 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여 활동하여 왔으며 조직원들의 단합과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도 지속해 왔다.

이후 '새마을지도자경기도교통봉사대'는 1999. 4. 28. 명칭을 '새마을교통봉사대경기지역대'로 개칭하고 신임 최군환 대장을 선출하였다. 이에 따라 1999. 7. 13. 도지부 회의실에서는 130명이 모여 임길만 초대 대장과 최군환 대장의 이 · 취임식이 있었다. 이 시기부터는 월드컵새마을운동이 한참이었던 시기이므로 교통봉사대는 시군지대와 도지역대 활동이 매우 많아졌고 새마을운동 홍보요원으로서 선진교통문화 길잡이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봉사대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선진질서의식 확립 및 자율봉사활동 전개를 기치로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교통질서 계도 및 캠페인, 교통에티켓 지키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정지선 지키기 활동, 친절택시 만들기 등 선진교통문화 만들기가 주요 사업이었지만 시군지대별 지역특색에 따라 행락질서 캠페인, 국토 대 청결 운동, 자율방범봉사대 활동, 맑은 강 가꾸기, 농촌일손 돕기, 야간방범순찰, 독거어르신 및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의집 고쳐주기, 소년

소녀가장 돕기 등의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 오고 있다.

특히 1994. 10. 9. 안양교육원에서 12개 교통봉사대원과 가족 650명이 함께 제1회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한 뒤 2019년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으며 활동하고 있다. 다짐대회와 함께 매년 4월에는 세이프티 서포터즈 및 정지선 지키기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새마을교통봉사대경기지역대'는 2020년 현재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시흥,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오산, 파주, 평택지대 등 16개 지대 3,3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새마을교통봉사대경기지역대'는 주로 각 지역 지대장 출신이 도 지역대장을 맡았는데 초대에서 제2대까지 임길만 대장을 시작으로 제3대 최군환 대장, 제4대 박준업 대장, 제5대 조종길 대장, 제6대에서 7대까지는 서원호 대장, 제8대 엄창섭 대장, 제9대 심혁환 대장에 이어 제11대에서 제12대까지는 강창희 대장이 경기지역대를 이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Y-SMU경기포럼

청소년과 대학생의 새마을운동 참여는 1981년 종전 4-H조직인 '새마을청소년회경기도연합회'가 도지부 회원단체로 가입하면서부터 시작하였지만 연합회가 80년대 말 탈퇴하자 사실상 멈추어 있었다. 90년대 들어와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자체 계획에 따라 1996년 '학생 자원봉사활동 관리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활동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이 또한 별 성과 없이 중단되었다.

다시 2000년부터 '농촌사랑 청소년 봉사대'를 발족하여 시군별 농촌을 체험하고 돕는 청소년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 · 소 · 정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산발적으로 추진되다가 중단되었다. 중앙회는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새마을운동 체험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새마을운동이 지속가능하게 발전되기 어렵다는 절박감에 2011년 초에 청소년새마을운동 포럼(Y-SMU포럼)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경기도새마을회도 2011년 5월에 시군별 조직 120명을 기반으로 'Y-SMU경기포럼'을 결성하였다. 'Y-SMU경기포럼'은 새마을운동에 젊은이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새마을운동 체험의 장이다. 타 단체처럼 상시 존재하는 조직원들이 아니고 수시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대학을 졸업하면 후배들이 잇는 등의 비정규 조직이다.

도내 각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처럼 모이고 있는데 도지부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만 해주고 있고 활동은 그들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 운영하게 하고 있다. 또한 'Y-SMU경기포럼'은 청년들의 글로벌 리더십 배양 및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나라사랑의 실천의지 구현하도록 지원하고자 만든 단체이다. 기존조직의 지역별, 단체별 폐쇄성 극복을 위한 유연한 조직을 지향하며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 조직을 구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조직과 상호 영향을 받지 않는 조직으로 구성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을 두고 운영하며, 계선화, 계층화하지 않는 조직체계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주로 각 대학별로 동아리 형태의 모임이 있는데 경기대, 김포대, 평택대 등 여러 대학들에서 자율적인 조직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년의 꿈 뉴 새마을운동에서 펼쳐보자.'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동하는 'Y-SMU경기포럼'은 각 지역에서 안보체험교육, 리더십교육, 해외봉사활동, 농촌사랑체험학습, 자전거타고 국토대장정, 녹색세상 만들기, 주제별 플래시몹, 환경지킴이, 대학생 논문공모전, 생명지식창고 등 다양한 미래지도자로서의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다. 경기도새마을사랑모임

'새마을사랑모임'은 전직 새마을운동 임직원이었거나 새마을운동에 찬동하는 분들의 사적모임으로서 1998. 4. 21.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사랑모임 발기인총회'를 열어 발족하였다. 이 모임은 전직지도자, 서훈지도자, 새마을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새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경험과 추억을 나누는 친목모임으로서의 성격이다. 모임은 새마을을 사랑하는 인사들이 모여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다지고 값진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며 현직새마을지도자

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새마을운동 발전에 간접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한다는 창립취지를 밝히며 조직되었는데 첫 상임대표는 중앙회장과 내무부장관을 역임하신 조해녕 회장이다. 새사모는 새마을조직에서 몸담았던 분들은 '새마을'이란 말만 들어도 저절로 신명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젖는 분들의 모임이라할 수 있을 정도로 새마을운동에 애착이 강한 분들의 모임인 것이다.

'경기도새마을사랑모임'은 중앙 모임이 결성되던 해인 1999. 5. 12. 고희선 회장을 추대하며 첫 발을 내디뎠다. 수원의 호텔캐슬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196명이 모여 성대하게 출발하였다. 중앙모임 조해녕 회장이 참석하고 그 동안의 경과보고와 여주 박준선 새마을지도자의 사례발표 등 나름대로의 형식을 갖추면서 현직시절 못 다한 아쉬움을 달래는 대회로 치러졌다. 2009 경기도새마을사랑모임 발기 취지문에는 그러한 의지와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경기도새마을사랑모임 발기 취지문

1970년 4월 22일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어언 4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출범한 새마을운동은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국민운동으로 앞장섰던 것입니다. 누적된 가난을 극복하고 민족정신을 일깨우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원동력으로 활기찬 농촌을 건설했고 직장공장새마을운동으로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쾌적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새마을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으며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민소망의 성취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30년간 우리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리고 행동의 강령으로서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소임을 올바로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 국가발전과 국민정신을 이끌어 온 하나의 큰 발자취로 기록될 것이며 가가 오는 21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새로운 국민운동의 전개를 위한 값진 기반이 되고 튼튼한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새마을운동은 국민적 차원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속히 타개하여 대망의 2천 년대로 자신 있게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할 당면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100년을 보람 있게 이끌어 갈 국민정신의 기조를 굳게 다져야할 장기적 사명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통분담을 넘어 우리민족이 염원하는 이상을 실현하는데 새마을운동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역할을 새롭게 구축하여 나아갈 바인 지표를 올바로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인고의 결의를 가지고 먼저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신뢰와 호응을 얻어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역량과 지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활동 중인 새마을지도자 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고 아끼는 각계의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크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여 우리 경기도새마을사랑모임(가칭)에서는 중앙회의 새사모에 이어 새마을운동 향수를 가지고 경기도새마을운동을 사랑하는 인사들이 모여 일차적으로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고 값진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며 나아가 새마을운동의 영속적인 발전을 돕는 울타리가 되고 후원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 경기도새마을사랑모임(가칭)을 창립하는 바입니다.

2009년 3월 12일 (가칭)경기도새마을사랑모임 발기인 일동

그러나 경기도새마을사랑모임은 처음 출발의지와는 달리 차츰 관심도가 낮아지고 시군의 새마을사랑모임이 생겨나다 보니 중앙모임가입자, 시군모임가입자 들이 빠져 나가면서 조직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뜻있는 분들이 모여 새사모를 재정비하기로 하고 2009. 3. 10. 제1차 경기도새사모 준비위원회를 열고 이어 5월 20일 제2차 준비위원회를 열어 경과보고, 발기취지문, 회칙, 회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새사모는 드디어 2009. 5. 29. 초대회장으로 김명숙 회장을 추대하고 전직 도지부회장인 고희선 회장, 이출선 회장을 고문으로

모시며 '경기도새마을사랑모임'을 다시 발족하게 되었다. 새로운 경기도 새사모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고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새마을운동 발전을 위한 후원사업, 회원에 대한 친목유대강화 사업, 도 새마을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등의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정하여 출범하게 된 것이다.

도 새사모는 매년 정기총회와 연중 한 두 차례 워크숍을 통해 자체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2011. 11. 1.에는 '경기도새마을사랑모임 장학금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12. 22. Y-SMU경기포럼 학생 5명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김명숙, 김기원, 김학연, 김현모 회장이 활동을 이어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 경기도새마을회자문위원회

'경기도새마을회자문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경기도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원로들의 경륜을 바탕으로 한 발전적인 의견을 듣고자 2019. 2. 15.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고 2019. 3. 18. 자문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어 이도형 직전 도지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활동이 시작되었다.

자문위원회는 경기도새마을회 정관 제27조에 의한 공식기구로서, 도회가 자문을 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문해 주는 기구로서 각급 새마을조직의 현직이 아닌 분들로 구성되었는데 전직 도 이사급 이상을 역임하신 분이나 원로 중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 중에서 활동이 가능하신 분 20여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지부는 일반적인 사항은 도지부회장과 회원단체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위주로 운영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주요결정 사항은 집행기구인 이사회를 통하여 처리하며, 자문위원회는 원로 조직으로서 도회가 요구하는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하여만 자문하는 역할로 각각 기구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경기도새마을운동의 원로모임으로 새마을회 운영에 대한 여러 자문은 물론이거니와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며 운영

해 오고 있다.

7. 경기도지부 사무처(국)

가. 도지부 사무실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조직인 '경기도 민간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는 1981. 9. 30. 설립하면서 경기도청 후문 옆에 위치한 교육회관에서 사무국을 개소하게 되었다. 이후 1982. 3. 18. 경기도청 구관 3층(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으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경기도새마을운동 지휘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새마을운동 관련 업무가 지방정부에서 민간단체로 이전되는 시기였는데 경기도청 구관 2층에는 새마을운동을 지원하는 새마을지도과가 위치하여 업무협조가 원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청으로부터 사무실 이전을 요청받아 1986년에 제1별관 2층(약51평)으로 옮겼다. 이후 지속되는 민간단체의 청사 밖으로 이전 촉구에 따라 자체회관을 마련하고 1998. 7. 2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6-3번지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하였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하여 수익형 회관을 매입하여 2002. 3. 2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 수원시청네거리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하여 다섯 번째 사무실을 열게 되었다.

나. 도지부 사무부서

1981년 민간단체 사무국 시절에는 지도부, 총무부, 부녀부. 지역부, 직능부 등이 있어 부장체제로 시작되었다. 공장새마을운동은 시군 상공회의소를 관장하였는데 수원상공회의소가 도 본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직장새마을운동은 도회장의 회사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운영하였다. 1982년부터는 도지부의 총무과가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부가 각 회원단체를 관장하였다.

지도부에는 지역1과, 지역2과, 도시새마을과 등의 부서로 구성되었는데 지역1과는 지역,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역2과는 부녀, 문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도시새마을과에서는 직장과 공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1990년

에는 총무와 직장업무를 통합하여 직장서무과, 1995년에는 총무와 직장 · 공장 · 문고를 통합 관장하는 직능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지역과와 부녀과는 각각 두 단체업무를 관장하였다.

1998년 다시 직제개편에 따라 직장, 총무를 관장하는 총무과가 주무과가 되고 지역과가 지역 · 문고, 부녀과가 부녀업무를 관장하였다. 총무과에서 시작하여 다시 총무과로 개편된 것이다. 도지부의 사무부서는 끊임없이 개편되면서 효율성을 추진하고 단체별 만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계속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2003. 8. 22. 사무국이 사무처로 바뀌고 2004년부터는 기획부와 지도부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후 사무처는 지원기능을 주 목적으로 하여 행정지원부와 운동지원부 2개 부서로 운영되어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새마을운동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내무부 새마을지도과로 시작하여 사회진흥과로 바뀌었다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공동체과 등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지구촌새마을운동TF에서 새마을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경기도청의 새마을운동 지원부서는 새마을지도과였는데 새마을계, 자연보호계, 교육홍보계, 개발계 등 4개계를 두고 총괄하였다. 이후 1989년부터는 국민운동지원과, 1996년에는 사회진흥과, 1999년 이후는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팀이 새마을운동을 관장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도지부 사무국(처) 직원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의 초기 사무국은 공무원출신, 각 단체 파견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1982년 12월부터 공채 1기생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다양해지기 시작하였고, 1984년 3월부터는 공채 2기생들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체제가 정비되고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공장새마을운동은 수원상공회의소에서 2명이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직장새마을운동은 당시 도회장 소속회사인 남도산업에서 2명이 파견되었다.

이후 농협출신, 군 출신 등까지 합류하여 다양한 경험자들이 도지부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었다. 초기 사무국은 공무원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초대 사

무국장은 평택군수 출신의 강도희 국장, 지도부장은 서무계장 출신의 김순호 부장, 총무과장은 예산계 출신의 송용섭 과장이었다. 경기도청으로 이전하면서 파주군수 출신의 김학기 국장 체제가 되었다. 김학기 국장은 퇴임 후 얼마 되지 않아 도지부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였기에 경기도청은 자동차와 기사까지 배려해 줄 정도였다.

이후 군 출신이었던 김선관 사무국장, 연수원 교수출신 김길수 사무국장 체제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중앙회 간부출신 사무국장이 지휘하게 된 것은 우태하 사무국장이었는데 이 때부터 사무처장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부터는 박상선 사무처장, 송중근 사무처장, 김정수 사무처장, 한상배 사무처장, 이광수 사무처장, 최태석 사무처장, 황창영 사무처장이 근무를 이어갔다.

2020년 현재 도지부 직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에 도지부 직원은 최대 15명까지 근무하던 전성기가 있었다. 이후 공장새마을운동추진과 직장새마을운동을 위해 파견된 직원들이 원대 복귀하였고 직제개편으로 명예퇴직하고, 정원이 축소되면서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도지부 정규직원은 항상 인사권을 가진 중앙회에서 발령하였고 인건비도 지원하였기에 주로 중앙회나 연수원,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 직원들이 전보인사를 통해 충원되어져 오고 있다.

라. 도지부 사무환경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는 경기도로부터 기초운영비를 받고, 지부회장 및 회장단의 출연금으로 운영하였다. 중앙에서는 정규직원의 인건비와 약간의 관리비를 지원해 주어 최소한의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지방비보조금은 내무부에서 도지부와 시군지회, 읍면동 지역 · 부녀까지 정액보조금 지원기준을 시달하여 지원해 주었다.

도지부 5천만 원, 시군지회 3천6백만 원, 읍면동 지역 · 부녀 각 120만원을 책정해 주었다. 이런 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비지원금액이 달라지고 공모사업이 생김으로써 운영체제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 사무실은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별도 운영비는 소요되지 않았다.

초기에는 도청의 용지나 서식까지 그냥 얻어다 쓰면서 지부를 운영하였다. 공문은 철판과 철필(가리방)을 사용하여 프린트하면서 생산하였고 생산된 문서들은 우편이 아닌 도청에서 각 시군을 매일 다니는 사송원들에게 부탁하여 전달하고 전달받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 긴급한 사항은 '전언통신문'을 활용하였는데, 도지부와 시군지회가 모두 행정전화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용은 들지 않았지만 29개 시군에 내용을 전하려면 하루 이틀씩 걸리곤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1984년 무렵에는 수동타자기에 스텐실을 넣어 문서를 만들었지만 이 무렵 전동타자기가 생겨 업무는 많이 편리해졌다.

전산화 작업이 가능해진 것은 1990년경 286컴퓨터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빠른 속도로 386, 486, 586, 팬티엄시대가 열리면서 행정업무는 더욱 편리해지고 간소해졌지만 명예퇴직 등으로 직원이 줄어들면 채우지 않게 되었음에도 업무는 줄어들지 않았다. 초기 기안문은 수기가 대부분이었고 문서는 대부분이 한자를 병행하여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1997년 무렵까지 계속되다가 완전한 한글 문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수기로 기안문이나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으면 타자원에게 맡겨 시행문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당시에는 타자원이나 교환원 등의 직종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 직원이 타자수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마. 시군 사무국

경기도의 시군사무국은 사실상 1984년 시군지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설계는 사무장(남성), 일반직(남성), 별정직(여성) 3명이 근무하는 체제였다. 시군청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개청하고 행정전화도 썼지만, 역시 운영이 만만치 않았다. 지방비보조금 3천6백만 원이 전부였고 회장단 출연금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지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영입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는 몇 번의 조직폐지나 축소 등으로 위기를 맞아 명예퇴직을 실시하였다. 최초의 조직폐지는 1987년 시군 일반직 직원을 직제에서 폐지한다는 중앙회의 방침이었다. 당초에는 별정직을 폐지시키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반직을 폐지시키도록 결정되었다. 1984년 지회를 개청한지 4년만인 1988년에 첫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일반직 직원들은 생존권사수를 위해 강력히 반발하였고 중앙회는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하게 되었다.

전국의 회장단과 담당 공무원들은 화곡동 본부에 모여 있는 직원들을 설득하여 고향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 특명이 생기기도 하였다. 긴 투쟁과 협상의 결과 지방정부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공무원으로 특채하기로 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9급 공무원에 채용하고 3년 미만은 고용직으로 채용하는 기준이 정해져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시군별 사정이 달라 만만치 않았다. 20여명이 직급을 받거나 고용직으로 채용되고 나머지는 사무국장으로 전직되거나 유사 공직기관, 의원면직 등으로 마무리되었다.

입사 전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는 퇴직당시의 직급을 주고 나머지는 9급을 주었다. 결과는 8급 2명, 9급 15명, 고용직 5명 등 22명이 공무원으로 전직되었다. 나머지는 사무장 승진 2명, 타 공공기관 입사 5명, 기타 의원면직 등으로 직제폐지에 따른 과원 31명을 전원 해소하게 되었다.

직원 강제퇴직 사태를 진정시키며 정원 2명 체제의 시군지회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직 직원들의 공무원 전직은 행운이었다고 보여진다. 이후 사무장은 사무국장으로 호칭이 바뀌었고 별정직은 기능직으로 전환되었다가 1991년 지도담당, 이어 지도과장 등으로 변천하게 되었다. 정원 2명으로 운영되던 지회는 재정악화로 또 다시 정원을 1명으로 조정해야만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했다.

바. 명예퇴직의 아픔

1987년부터 1년여에 걸쳐 혼란스러웠던 일반직 직원 해고는 1988년 말에 마무리된다. 시군 일반직 직원의 정원축소에 따른 정리해고의 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1984년부터 무리하게 직제를 확장시킨 탓과 80년대 말 발생한 새마을사건 등으로 대 국민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지부 · 지회 운영

을 위한 경비조차 마련이 어려웠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만 갔다.

한편 시군지회 정원 축소에 따라 도지부도 1988년 말에 2명의 직원을 줄이면서 명예퇴직이 시작된 것이다. 시군지회 사무국이 축소되면서 도지부도 대상이 된 것이다. 청소년과 문고 담당 직원 2명에게 당시 돈으로 300만원을 주고 사실상 강제 퇴직시키게 되었다. 시군 일반직 직원처럼 구제방안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못해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남아 있는 직원들도 불안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부 직원들은 재고용할 수 있으면 기회를 주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 없이 아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중앙회 사정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중앙회는 대대적인 명예퇴직을 위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명분은 보직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한 퇴직이었지만 당시에는 상당수 직원에게 퇴직권고의 수단이 동원되었다. 물론 장래가 불투명하여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는 직원들도 많았다. 경기도지부는 1993. 6.30. 총무과장이 신청하여 퇴직되었다. 이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앙회는 또 다시 직제 통폐합을 결정하고 시군지회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시켰다. 아주 절망적인 조치였다. 시군지회의 문을 닫지만 않았지 사실상 살아남을 수 있는 곳만 남도록 한 조치였다. 일단 1995. 8. 31.까지 명예퇴직 대상자를 정하여 퇴직시키고 부득이한 경우는 12월 말까지로 목표를 정해 명예퇴직을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시군의 명예퇴직자들에게는 연말까지의 자기 급여를 포함하여 18개 월 분의 봉급을 주고 퇴직위로금으로 300만원을 더 주는 유인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상이 너무 작아 이를 쉽게 받아들일 직원은 사실상 없었다. 하지만 시군지회 두 명중 한명은 명예퇴직 해야 하므로 시군지회마다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일부 직원은 타 시군 전보를 통해 살아남기도 하였고, 일부 사무장은 여직원을 남기고 명예퇴직을 결심하였고, 일부 여직원은 지회를 위해 사무장을 남기는 등 눈물겨운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 기능직 여직원들이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는 아픔이었다. 이때 명예퇴직한 직원은 의왕시 사무장, 여주군 사무장, 파주군 사

무장, 직원으로는 수원시 장안구, 성남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오산시, 평택시, 안양시 동안구, 화성군, 군포시, 하남시, 동두천시, 김포군, 이천군, 광주군, 포천군, 파주군, 양평군 등이었다.

퇴직 시기를 놓친 직원들도 1995. 12. 12.까지는 모두 퇴직하게 되었다. 과천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명시 등이 명예 퇴직한 직원들이었다. 일부 여직원들은 정규직 명예퇴직 후 자체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명예퇴직은 시군 직원들만의 아픔은 아니었다. 도지부와 시군 직원들이 번갈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대규모 명예퇴직이 또 있었다. 중앙회의 1998. 11. 25. 명예퇴직은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대규모였다. 중앙회는 이 때가 명예퇴직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을 하도록 파격적인 안을 제시하여 많은 직원들이 불안한 장래를 걱정하며 씁쓰름한 뒷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떠나는 직원이나 남은 직원이나 마음은 한가지였다.

한 동안 명예퇴직이 없다가 2003. 1. 24. 하남시 사무국장의 자발적인 명예퇴직이 끝이었다. 이미 이 시기는 언제든 일정기준이 되면 명예퇴직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앙회는 2015년 그 아픔을 또 이어갔다. 다행히 경기도는 해당자가 없었다. 여러 차례 아픔을 겪으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마치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의 원조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 때 그 결심을 해준 직원들이 결단이 있었기에 사무조직이 오늘에 이른 것이라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8. 경기도지부 조직 통 · 폐합

새마을조직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마을조직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왔다. 때로는 조직이 늘었다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도 병행되었다. 읍면동이나 통리 단위 조직의 통폐합은 큰 애로사항 없이 이루어지나 시군단위 통폐합은 늘 진통을 수반하며 이루어져 왔다. '시군새마을조직 통폐합'은 1994. 10. 5. '지회조직통폐합 지침' 시달에 의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1984년 지회가 설치되면서 늘어난 지회들을 다시 통폐합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경기도내에 설치된 비자치

구 지회(수원권선, 수원장안, 수원팔달, 성남수정, 성남중원, 성남분당, 부천원미, 부천소사, 부천오정, 안양만안, 안양동안) 11개가 이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는 시군지역 통폐합 등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해당 시군구지회 조직 및 사무국에 대한 통폐합이었다. 통폐합되는 지회는 해당시군이 1:1로 통합하여 단일지회를 만들게 되었다. 통폐합 사무국은 시 지회 사무국이 군 지회 사무국을 흡수통합하고 군 지회 사무국은 폐지하였다. 폐지되는 지회의 업무, 자산 등은 일체 통합 시 사무국에 인계 · 인수하도록 조치하여 통폐합하게 되었다. 통합지회 회장단은 지역별 자율조정 또는 경선을 거쳐 단체별로 1인을 선출하였는데 통합대상 지회별로 '회장단 선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이나 경선이 끝나면 자동 해산되도록 운영하면서 원활한 통합을 이루어 냈다. 이 통합으로 전국 32개 시군구지회가 통폐합되어 1995. 1. 1.부터 시행 되었는데 경기도는 비자치구와 함께 미금시지회와 남양주군지회가 폐지되고 남양주시지회가 설치되었다. 이 조치로 경기도는 총 47개지회에서 12개 시군구지회가 줄어들면서 35개 시군구가 되었다. 시 명칭이 변경되는 지회는 행정구역명과 동일한 지회명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비자치구가 설치된 시 지회 및 비자치구 지회 사무국은 일반지회 운영과 그 방법을 달리하도록 정리하였다. 사무국은 각각 별도 사무국으로 존치하되 사무실은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시 지회 사무국장 1인이 비자치구 사무국장을 겸무하고, 구별 지도담당 1명으로 조정하였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이 해당되었다. 비자치구 사무실은 199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지되었다. 통폐합은 거듭되었다. 1995. 3. 1.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고, 1995. 5. 1. 또 다른 시군지회 조직 통폐합 지침에서는 송탄시, 평택군, 평택시를 통합하여 1995 .5. 10.일자로 통합 및 사무국 업무 개시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4개 시군이 줄어들면서 또 31개로 줄어들게 2020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1996. 1. 29.에는 비자치구 폐지에 따른 회원단체 비자치구 조직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 폐지되는 비자치구 지회 및 회원단체의 장은 해당 시 조직의 부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지역실정에 따라 회원단체의 구 조직이 존속하는 경우 존속기한은 1996. 12. 31.까지로 하고 해당 단체

의 임원의 임기도 같도록 하여 과도기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비자치구 지회 사무국에서 사용하던 비품집기 등 모든 자산은 관할 시지회로 이관하여 시지회장의 책임 하에 활용 또는 불용처리 하도록 하면서 통폐합을 마무리하였다. 이로서 경기도지부는 1995년을 정점으로 최대 숫자인 47개 지회에서 31개 지회로 무려 16개 지회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1996년 말에 통폐합이 마무리되고 부터는 법인설립에 따른 각 시도 분사무소가 폐지되기 시작하였다. 중앙협의회는 1997. 11. 18. 분사무소 폐지공고 및 새마을회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지회는 동 지회를 폐지시켰다. 법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법인운영에 따른 독자업무를 제외하고는 중앙협의회의 지회에 준하여 운영하였다. 새마을조직 통폐합은 많은 교훈을 안겨주었다. 무리한 지회증설이 통폐합이라는 큰 부담과 진통을 안겨주어 큰 애로가 있었다.

제1편 경기도 새마을운동

제2장 경기도 새마을사업

제1절 새마을사업

1.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

'새마을운동'은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확산시키는 운동이다. 캐치프레이즈는 광고나 선전을 통해 남의 주의를 끌기 위한 문구나 표어이고, 슬로건은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구호이다. 새마을운동에서 캐치프레이즈는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해 냈다.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를 보면 그 시대 상황과 운동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1970년대는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와 구호가 대세였다. 70년대의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 하나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 같았기 때문에 모두 한 곳만 바라보게 된 것이다.

80년대 초반부터는 연수원에서 교육생들을 위해 사용되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는 교육생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야 하는 연수원에서의 캐치프레이즈나 구호는 교육효과를 높이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다. '나는 해야겠다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라는 구호는 늘 지도자들에게 의자와 자신감과 사명감을 안겨 주었다. 이 구호는 외국인들에게도 바로 적용되고 있다. 'I will do it, I can do it, I must do it' 만국 공통어처럼 매우 효과적인 구

호로 활용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주로 80년대 후반 들어서 캐치프레이즈와 구호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1989년의 캐치프레이즈는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새마을운동'이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막 넘은 시기라서 이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캐치프레이즈였다. 당시는 UR협상 막바지로서 조만간 닥쳐 올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대비하도록 국민의지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어 농산물 수입에 대한 구호가 많았고 굶주림을 벗어나다보니 허례허식과 과소비가 난무하기 시작하여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구호가 등장했다. '수입개방 한다 해도 소비개방 할 수 없다.' '소득은 1만 불, 소비는 3만 불'이라는 구호로 운동을 펼쳐 나갔다. 1990년에는 새마을사건 들로 혼란해진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새마을지도자의 새로운 각오를 담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운동이 되고자 '새마을 도약의 해'로 정했다. 캐치프레이즈로는 '화합으로 전진하는 성숙사회 이룩하자', '대망의 90년대 새마을로 꽃피우자.'하면서 주로 새마을조직원들을 다 잡는 내부용 구호가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좀처럼 대국민 이미지 개선이 더디어 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1993년에는 '근면 · 자조 · 협동으로 힘 모아 다시 뛰자'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웠다. 이는 새마을운동이 온갖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이를 극복해 보려는 의지의 표현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과 1995년에 사용된 캐치프레이즈는 '신한국 창조는 신 경기인 운동으로'였다. 운동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들을 운동을 통해 집단적인 힘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캐치프레이즈로만 보면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 사회구성원들이 집단보다는 개인적 이기주의 경향이 짙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이런 사회 경향을 파악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좀 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 나갔다. 밀레니엄 시대 개막을 앞두고 새롭게 도약하자는 것이었다. '건강한 사회는 새마을 봉사로'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 다시여는 새마을' 등의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다가 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도록 노력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언제나 개인 삶의 질 개선을 바

탕으로 지역과 국가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미래 후손들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돋움하고자 시도하였던 흔적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나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경제 살리기 새마을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다가오는 세계화시대, 통일대비 새마을운동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운동이 되기에는 부족하였다. 1999년에 또다시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봉사를', '새마을봉사로 제2의 건국 꽃피우자.'이런 캐치프레이즈와 구호였다. 이웃과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서비스를 통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앞장서자는 것이었다.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운동이고 국민에 의해서 하는 운동이고 국민을 위한 운동이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새마을운동은 살아 있는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캐치프레이즈들이 제시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캐치프레이즈는 종종 국가비전이나 국정지표에 방향을 맞추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활동들을 민간차원에서 보완해 주는 거버넌스(협치)차원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캐치프레이즈가 정해지면 구체적인 역점과제들이 설정되고 그 역점과제에 따라 세부적인 운동계획들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2001년까지는 1999년도에 정한 캐치프레이즈와 구호, 역점과제들이 이어졌다. 그것이 시대정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캐치프레이즈를 매년 바꾸기도 어렵지만 일선까지 알리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씩 같은 캐치프레이즈나 구호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2년부터의 캐치프레이즈가 달라졌다. 이 시기 부터는 절박하도록 새마을운동의 자립화가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우선 자립기반을 갖추어야만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결론에서 나온 것이다. '새마을 활성화로 성숙한 한국건설' 이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국민들에게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경제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캐치프레이즈와 구호들은 2003년까지 활용되었다.

2004년도에는 '새 희망 새 나라, 새마을정신으로'가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중앙회에서 캐치프레이즈가 만들어지면 경기도는 그냥 활용하거나 지역에 맞게 각색하여 활용하기도 하였다. '살기 좋은 경기 건설 새마을운동으로'처럼 도민들

을 위한 캐치프레이즈를 따로 만들 때도 있었다.

2009년도에는 목표를 좀 더 크게 하였다. '함께 만드는 위대한 대한민국,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봉사를'라는 캐치프레이즈였다. 2010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했다. '함께 만드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4대 코리아 운동이 추진되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캐치프레이즈는 '함께 만드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행복, 선진한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활용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국민'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정했는데 시대정신이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의 캐치프레이즈는 '생명 · 평화 · 공경으로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다가오는 50년을 맞이하고 있다. 시대별 캐치프레이즈는 우선 새마을운동이 시대별로 지향해야 할 목표를 반영해 주었지만 중앙회 지도자가 교체될 때마다 자신의 컬러와 소신에서 나온 측면도 적지 않다. 운동조직에서 캐치프레이즈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캐치프레이즈를 바꾸는 것은 자제할 필요도 있다. 새마을운동은 반세기를 지나오면서 언제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노력해 왔다. 새마을운동의 현재의 운동이지만 미래를 향한 운동이기에 다가 올 미래를 향한 준비를 위해 캐치프레이즈가 활용되어져 온 것이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곧 구체적인 실행과 실천을 위한 사업들로 이어져다. 따라서 캐치프레이즈는 새마을운동의 방향이고 이 방향에 의해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2. 새마을운동의 변천과정

1971년 새마을정신이 '근면 · 자조 · 협동'으로 정해진 후 새마을운동은 이 정신을 바탕에 두고 끊임없이 국민의 저력을 이끌어 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이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거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면서 운동의 동력을 유지해 왔다. 지난 50년간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이 많았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혁신을 위해 변화를 모색해 왔는데 그 변화는 새마을운동의 업그레이드나 방향 전환이었다. 이런 시도를 통해 대 국

민 이미지를 제고하고 조직원들의 각오를 다 잡는 계기로 활용하여 왔다.

가장 먼저 분위기 전환을 위한 시도는 1993년 김유혁 회장 체제에서 추진한 '제2새마을운동'이었다. '등일단진일보', 한 계단 더 오르고 한 발 더 나아가자는 다짐이었다. 이 시기는 80년대 말에 닥친 새마을위기로 한없이 추락하고 침체되어 가는 상황에서의 반전을 노린 방향 제시였다. 88올림픽까지 줄 곧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모처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과소비나 사회기풍이 나태해지는 시기였다. 이에 1993년에 선언된 '제2새마을운동'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깨끗한 환경, 활기찬 고장, 건강한 사회'를 모토로 신한국 창조에 힘을 보탠다는 것이었다. 경기도는 이를 '신 경기인 운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운동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국민소득 1만 불을 넘긴 상황에서의 새마을운동은 전 국민과 함께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추진 이후의 정부 의지도 부족했다. 그런 이유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족, 조직원들의 사기저하 등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전면적인 변화를 해야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 1999년 강문규 회장 체제에서 또다시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른바 '제2의 새마을운동'이 제시되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는 준비로 '새천년 새마을 국민과 함께', '이웃에게 사랑을 국민에게 봉사를', '새마을봉사로 제2의 건국 꽃피우자.'를 목표로 제시하며 보다 국민적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새마을운동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시기는 자원봉사활동이 태동하던 시기로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던 시기였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출현으로 새마을운동의 활동영역도 줄어들었고 도시화로 인하여 조직의 확장보다는 축소되어 가는 추세였다. 그러니까 이웃과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서비스를 통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앞장서자는 것이었다.

이 때부터 새마을운동은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운동으로서의 가치보다는 단순한 자원봉사활동으로 흐르는 아쉬움이 생겨났다. 2009년 이의

근 회장 체제에서 잠시 등장한 새마을운동은 '선진화 새마을운동'이었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에서의 새마을운동을 세계로 확장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가 핵심이었다. 처음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정부예산을 지원받게 된 계기였다.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를 총괄하는 민간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새마을운동전문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새마을운동 국제화를 추진하는 이유로 국고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의근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선진화새마을운동'은 중단되었다. 2009년에 이재창 회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뉴 새마을운동'의 타이틀이 붙여져 개혁의지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나 온 새마을운동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운동이었다. '함께 만드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SMU'를 바탕으로 4대 코리아 운동이 제시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전 영역을 4대 새마을운동으로 정리하여 모든 활동들을 이 카테고리 안에 넣었다. '스마트코리아, 그린코리아, 해피코리아, 글로벌코리아'가 그 핵심이었다.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시대정신들을 과제에 담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었다. '변화 · 도전 · 창조(Change, Challenge, Create)'는 이 시대에 가장 알맞은 시대정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운동이 되기에는 늘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미 전 국민이 함께 하는 운동을 추진하기에는 시대 환경으로 보아 한계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너무 빨리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2013년 심윤종 회장 체제에서는 새마을정신인 '근면 · 자조 · 협동'의 바탕위에 '나눔 · 봉사 · 배려'라는 덕목을 더한 '제2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제시되었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모체인 공동체를 다시 살리자는 '공동체회복운동'의 성격이었다. 새마을운동은 그 기본 정신이나 가치, 핵심원리에는 늘 변함없이 50년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시대마다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마을운동의 변신은 늘 시도되어 왔던 것이다. 제2새마을운동, 제2의새마을운동, 선진화새마을운동, 뉴 새마을운동, 제2새마을운동 등의 시도는 새마을운동이 끊임없이 시대요구와 추세에 맞추어 활동

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부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이 마치 특정 정치이념 구현을 위한 구시대적운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새마을운동이야 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개혁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오천년 찌든 가난과 오백년 폐습을 넘어 국민의식을 바꾸어 준 운동이기 때문이다. 당시로서는 가히 상상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개혁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좌절과 실의를 넘고, 유교적 관습을 넘어, 남존여비를 넘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만들어 가는데 그 많은 저항과 걸림돌들을 하나씩 둘씩 넘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새마을운동 그 자체가 사회혁명이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러한 동력이 떨어질 때마다 또 다른 차원의 새마을운동으로 반전을 거듭해온 것이다.

제2절 시대별 · 분야별 주요사업

1. 시대별 주요사업

가. 1970년대의 '잘 살기운동'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자 '정신 혁명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새마을사업과 활동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들은 실천을 통해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데 목표를 두었다. 따라서 마을길을 넓히고 초가집을 고치는 일이 새마을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바꾸고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의식이 바뀌면 나머지 일들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넓고 좋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가난과 무지, 절망과 무력감으로부터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은 새마을운동 전체를 통해볼 때 가장 중요한 성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성과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핵심동력이었다. 이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경기도의 새마을운동은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서 앞만 보고 달렸다. 달리는 과정에서 고난과 진통이 수없이 많았지만 도민들은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자'는 희망과 소원을 담아 매진하게 된 것이다. 잘 살아 보자는데 누구도 불만과 불평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도민을 하나로 묶고 도민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신앙과도 같은 구호였다.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온통 잘 살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을공동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개별가구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 사업, 의식개혁 사업 등이 주요 사업이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기에 새마을운동은 성공한 운동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70년대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중앙방침에 맞춰 지방특성을 살펴 수도권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과 마을지도자 양성이 앞섰기 때문에 경기도의 새마을운동은 타지역 보다 초기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5천년 찌든 가난을 물리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감을 심어 준 국민의식변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마을단위에서 총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제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계획을 주민의 힘으로 성취해낸 위대한 운동이다. 이로써 민주주의 훈련의 걸음마를 시작한 것이다. 주민자치의 뿌리이기도 하다. 공동체운동이되 읍면동단위가 아닌 마을단위 생활공동체 운동이었다.

1970년대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전국의 상황에 맞추어 농촌새마을사업이 주류였으며 도시새마을운동으로 번지면서 건전 직장 만들기, 품질향상 운동, 새마을대청소, 꽃길 가꾸기, 불우 이웃돕기, 독서활성화사업, 학교새마을사업, 군부대새마을사업 등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가족계획 운동, 산림녹화사업, 새마을금고운동, 새마을문고운동, 가정의례준칙 실천운동 등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졌다.

나. 1980년대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70년대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출발하여 도시로, 직장으로, 공장으로, 학교로, 군부대로 확산되어 전 국민의 새마을운동이 되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잠시 주춤했던 새마을운동은 그 동안의 놀라운 성과를 중심으로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으로 탈바꿈하면서 제2막을 열게 된 것이다. 70년대 말 새마을운동 존폐의 기로에서 정부가 결정한 일은 민간조직을 만들어 민간주도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기도새마을운동은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으로 탈바꿈하여 지난 날의 성공경험을 이어가며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이미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직장과 공장으로, 학교와 군부대까지 새마을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농촌은 농촌대로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협동권 사업이 펼쳐지면서 그 영역이 넓어졌다. 소득증대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종착역이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기적의 통일벼 심기, 고소득 작물과 부업, 새마을공장 등을 통해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마을마다 작목반이나 특색사업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소득으로 전환되었다.

80년대 새마을운동은 이미 민간운동으로 전환되었으며, 국민의 선진 시민의식 계도와 실천운동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 점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번져진 도시새마을운동은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에 알맞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도시는 도시대로 국가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던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목표로 전 국토를 공원화시키는 사업들이 매우 활발히 펼쳐졌다.

새마을운동의 거의 모든 사업은 양대 국제대회의 성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특히 경기도는 양대 국제대회장 인근에 위치하여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도내 경기장도 있어 더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80년대 올림픽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질서 · 친절 · 청결운동이었다. 양대 국제대회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성공신화를 알려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는 절호의 기회였고 결국 해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질서는 더 빠르고 안전한 것이라는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계기였고, 어딜 가든지 친절하다는 인상은 외국인들에게 또 다른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였던 것이었다. 청결은 나라의 얼굴로서 별 기대 없이 온 외국인과 기자들이 한국의 기적을 쓰기 시작하며 뉴스,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였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올림픽새마을운동에 사활을 걸었다. 80년대 말부터 국민들에게 실추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다. 전 국토공원 가

꾸기 사업으로 서울 인근의 도시들은 도로변에 갖가지 공원을 만들고 구석구석 버려진 자투리땅들을 활용하여 어딜 가나 아름다운 정원처럼 만드는 활동들을 지속했다. 도시지역이 많아 질서운동과 친절운동도 활발할 수 있었다.

결국 올림픽새마을운동과 질서 · 친절 · 청결운동은 새마을운동이 국민들로부터 새롭게 비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 올림픽새마을운동은 도시새마을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되었고 도시화되고 있는 경기도에는 가장 알맞은 사업이기도 하였다. 88올림픽은 사실상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올림픽을 전후로 모든 상황이 활발했다. 국민소득은 1만 불을 넘기었고, 국민들의 요구도 매우 다양해졌다. 특히 민주화의 요구는 거세어 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촌사회에서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의 길에 접어들어 있었다.

다. 1990년대 경제 살리기 새마을운동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로 우리 사회는 매우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새마을운동도 그런 다양화되는 사회에 맞추어 추진되었다. 90년대 초반의 경기도새마을운동은 마을을 떠나 좀 더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잘 돌보지 못한 산 · 강 · 하천 살리기에 운동역량이 집중되었다.

새마을운동과 발전과정에서 무너져갔던 것들과 잊혀 가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었다. 직장과 기관 · 단체들도 앞 다투어 '1사 1산 1하천'운동을 통해 공익활동을 펼쳐나가 모두가 힘을 합해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배고픔을 막 잊고 '소득은 1만 불이었지만 소비는 3만 불'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경기도새마을운동은 과소비 추방,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을 기치로 각종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해 왔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결과는 개인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나라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아시아의 떠오르는 네 마리용에서 추락하며 경제동물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다. 한강의 기적과 올림픽이 새마을운동으로 성공적인 발돋움할 수 있는 성과들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IMF사태를 맞이하며 공든 탑이 무너져 가

고 있었다. 이를 바라볼 수만 없었던 경기도의 새마을운동은 지역 경제 살리기, 나라 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애국가락지 모으기로 나라경제를 살리고 국민저축운동으로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 도민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새마을정신을 발휘하는 계기였다. 경기도새마을이 앞장 서 추진한 경제 살리기 새마을운동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이 시기에 경제 살리기 운동은 모든 도민들에게 절체 절명한 과제였다. '힘 모아 다시 뛰자', '30분 일 더하기', '일하는 보람상'등을 통해 IMF사태로 쓰러진 경제를 다시 살리고 다시 한 번 도약하자고 호소하면서 운동이 추진되었다. 90년대 후반은 우리 모두에게 악몽 같은 터널이었다.

라. 2000년대 제2새마을운동

90년대 말부터 불어 닥친 경제 위기는 2000년대 초반까지 그 후유증으로 고생스러웠다. 다시 2002월드컵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나갔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이 번에도 앞장서 질서 · 친절 · 청결의 '월드컵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다시는 IMF사태와 같은 악몽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보다 선진화된 문화시민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활동들이 주요사업이었다.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선진국 문턱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등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됐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이런 갈등을 넘어 지역화합 운동으로 초점에 맞춰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게 되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해일과도 같은 큰 위기가 닥쳤다. 정부의 민간운동 지원 중단 등 악재는 또 다시 새마을운동의 존폐위기로 몰아세우게 되었다. 절망으로 떨어져갔지만 새마을운동으로 보아서는 반전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총력을 기울여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위한 수익형 자체회관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끈질기게 추진하였다. 온갖 비난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말없이 희생하는 지도자들의 새마을운동자립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마자 새마을에게 닥친 더 큰 위기였다. 자립형 회관 확보는 경기도새마을운동의 큰 과제였다. 언제까지나 의존만 할 수 없었다.

끈질긴 노력 끝에 도내 31개 시군지회는 2020년 현재 모두 회관을 갖추는 성과를 이루어 내게 되었다. 정부의 압박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변화 · 도전 · 창조의 새로운 정신을 갖게 만들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은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폭주하는 새마을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세계화'라는 타이틀로 영역을 넓혔다. 새마을운동은 활동 영역을 넓혀 그 동안 초청 새마을교육 수준에서 현장으로 나가는 국제화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였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베트남과 일본 등과의 교류를 가지며 경험을 전수하고 교류하며 넓혀나갔다. 몽골새마을운동을 사실상 개척하며 바람을 일으킨 선구자도 경기도이다.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더불어 진행된 북한 농촌복구지원 사업은 인도적 교류 차원을 넘어 진일보한 운동이었다.

마. 2010년대 뉴새마을운동

90년대에 '제2새마을운동'과 '제2의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면 2010년대는 '선진화새마을운동'과 '뉴 새마을운동', '제2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다. 이는 그 동안의 새마을운동을 다시 정리하여 시대에 맞는 국민운동을 추진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은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였다. '뉴 새마을운동'은 스마트코리아, 그린코리아, 해피코리아, 글로벌코리아운동이었다.

미소지으며 매너를 지키고, 법질서를 잘 지키고 존중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 스마트새마을운동이다. 우리 국토를 녹색물결로 덮고 에너지를 아껴 쓰며 아름다운 산과 강과 하천을 물려주자는 운동이 그린새마을운동이다. 소외된 이웃이나 국가사회안전망의 혜택에서 벗어난 이웃을 돌보는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자는 운동이 해피새마을운동이다.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개도국에 전해 같이 잘사는 지구촌을 만들자는 것이 글로벌새마을운동이다. 이 4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품격 있고 녹색생활화를 실천하고 이웃을 돌보며 대한민국 브랜드인 새마을운동을 지구촌과 나누자는 4대 코리아운동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었다. 경기도새마을

운동은 이 운동들을 구체화하여 각각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실천하며 더 좋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추진된 사업들은 시대정신인 '나눔 · 봉사 · 배려'를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었다. 1% 기부운동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들이 이 시기의 주요사업이었다. '문화공동체, 사회공동체, 경제공동체, 환경공동체, 지구촌공동체'는 새마을운동 초기의 전통적인 마을 개념에서 산업화이후 형성된 문화에 맞게 없어져 가는 마을을 공동체로 바꾸어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공동체회복운동과 더불어 추진된 사업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한 자녀 더 갖기'운동이었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생명살림 · 평화 나눔 · 공경 문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 운동방향에 정해지면서 '생명 · 평화 · 공경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 기속되고 있다.

이 새로운 아젠다는 미세먼지와 화석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으로 생명파괴를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자책감에서 출발하였다.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결심으로 이 운동에 매진하게 된 것이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나누며 공경문화를 만들어 후손들이 이민가지 않아도 될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사명이었다. 모든 새마을사업은 생명을 살리는 사업에 매진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바. 시대별 새마을사업

'새마을사업'은 70년대 초반에 '잘 살기'를 실현하기 위한 것들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 추진되었다. 가구와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 사업, 의식개혁 사업이 그것이다. 80년대 사업은 성공적인 올림픽을 통해 도약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것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 '전 국토 공원화 사업', '질서 · 친절 · 청결'과 관련된 사업들이 핵심이었다.

9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의 자립화'와 더불어 '나라경제 살리기'에 매진하여 사업이 추진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월드컵새마을운동'과 '문화시민운동',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통일 새마을운동'등 새마을운동의 영역

을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주요 추진되었다.

2010년대에는 시민사회 활동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새마을조직이 축소되고 새마을사업 영역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조직의 경험과 장점을 살린 국민운동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4대 코리아의 뉴새마을사업, 공동체 관련사업, 저출산 고령화 관련사업, 생명살림 관련사업들로 사회변화에 따라 특성화 되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새마을사업을 발굴 · 추진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면서 국민운동으로서의 활동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2. 분야별 주요사업

가. 분야별 주요사업

새마을사업은 분야별로 다양하게 펼쳐져 오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의식개혁사업, 지역 활성화사업, 환경사업, 이웃돕기사업,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 조직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이 범주에 포함되며 시대별 사업명칭과 추진방법만 조금씩 달리 추진되어져 왔다.

'의식개혁사업'은 교육과 사업을 통해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이다.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것이 사업의 대부분이다. 질서를 지키면 나도 편하고 우리 모두 편하며 선진시민이 된다는 차원에서 의식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운동이다.

'지역 활성화 사업'은 마을과 공동체 단위로 공동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바꾸어 나가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통하여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키고 마을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다.

'환경사업'은 초기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자연보호 사업, 자연정화사업, 환경 가꾸기 사업들로 범위가 가장 넓은 분야이다. 생활환경을 넘어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밝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면 당장 우리도 좋고 후손들을 위해 좋은 국토를 물려주자는 활동인 것이다.

'이웃돕기사업'은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 할 수 있으므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자는 인보운동이다. 가장 전통적인 이 운동은 시대가 바뀌어도 불우한 이웃은 생기기 마련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활동이다.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은 우리의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가와 공유하여 함께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자는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닌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활동이다.

'조직육성 및 활성화사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추진되어져 오고 있는 기본사업으로서 이는 운동조직에서 기본적인 사업이다. 사업이라기보다는 관리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마을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재와 전문 운동가를 양성하고 능력을 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활동이다.

나. 70년대 초기새마을사업
(마을 · 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의식개혁사업)

- 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 지붕개량, 울타리 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전기 · 전화설치, 메탄가스시설, 상하수도 설치 등
- 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 마을안길 확 · 포장 · 정비, 마을진입로 확 · 포장, 농로개설, 교량 건설, 보설치, 선착장 건설, 소하천정비, 뚝 보수 및 바로잡기, 간이급수시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탁아소, 공동목욕탕, 공동이발소, 공동구판장, 공동빨래터, 가로수심기 등
- 소득증대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 지역 특색사업, 고소득 작물재배, 작목반 운영, 농외부업, 새마을공장 운영, 공동축사, 잠실, 양식장, 간이저장 및 가공시설, 양식장, 농산물 간이 저장시설, 가공시설, 소류지 정비, 협동영농, 농업용수개발, 농경지정리, 농업기계화, 공동 우물,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공동축사. 공동퇴비장, 공동 집 · 출하시설, 양묘장, 사방공사, 임산산물 채취 · 가공, 조림, 공동축산낙농사업, 한우, 양돈, 우유, 산양, 양계, 초지조성, 사료공장, 축사 등 공동 농외소득 사업, 특산품 개발, 내수면개발 및 양식, 농산물 가공, 선착장, 공원 · 묘원조성, 장묘문화개선 등

다. 문화공동체, 나라품격 높이기(SMART Korea)

올림픽새마을운동, 월드컵새마을운동, 문화시민운동, 생활개혁운동, 신 경기운동, 밝은 경기 만들기 운동,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경기 공동체운동, 신한국운동, 제2건국운동, 기초 · 거리질서 지키기, 행락질서 지키기, 질서 · 친절 · 청결운동, 새마을대청소, 국토 대 청결운동, 새봄맞이 환경정비, 전국토공원화, 꽃길 가꾸기, 교통 · 거리질서 계도, 정지선 지키기, 선진교통문화 만들기, 교통에티켓 지키기, 교통사고 줄이기, 쾌적한 화장실 만들기, 거리벽화 만들기, 특화거리조성, 작은 도서관 운영, 국민독서경진대회, 문화의 한마당, 백일장 · 사생대회, 새마을이동문고, 독서대학, 독서지도사 과정, 내 고장 양서 보내기, 피서지 문고, 서예교실, 한 자녀 더 낳기, 가정의례준칙, 화장실문화개선, 쾌적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무궁화심기, 대학생 논문공모전, 평화 나눔 운동 등

라. 의식개혁, 교육 · 홍보 · 캠페인

새마을교육, 안보 체험교육, 리더십교육, 30분 일 더하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일하는 보람상, 효부상, 검소한 명절지내기, 내 고향으로 휴가가기, 효 편지쓰기, 과소비 추방운동, 학교폭력 근절, 행락질서 지키기, 문패달기, 군부대 위로방문, 을지훈련 격려, 식생활개선 교육, 가족계획, 게시판세우기, 마을 종 달기, 세금바로내기, 건전한 장묘문화, 주제별 플래시 몹 등

마. 녹색새마을운동(Greea Korea), 자연보호 · 정화, 환경정비 · 개선, 환경공동체

자연보호, 자연정화, 전 국토 공원화사업,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샛강 살리기, 맑은 강 가꾸기, 소하천 살리기, 녹색세상 만들기, 환경지킴이, 내 고장 하천 되살리기, 맑은 하천 가꾸기, 내 고장 환경 지킴이, 도시농업, 나무심기, 숨은 자원 모으기, 3R자원 재활용, 숨은 자원 모으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자전거타고 국토대장정, 쌈지공원 만들기, 화단 만들기, 새마을 공동시설관리, 환경감시단 운영, 새마을 알뜰마당, 폐식용유활용 비누 만들기, 알뜰도서 교환시장, 온 맵시(내복 입기), 쿨 맵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생명나무 심기운동. 생

명지식창고, 생명살림운동 등

바. 지역 활력화, 도농교류

새마을일꾼 행진대회, 도민 화합 걷기대회, 방범봉사대 운영, 방역봉사대 운영,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복원, 자랑스러운 마을 만들기, 경기향토문화순례, 걷기대회, 새마을야시장, 특화거리조성, 거리벽화 만들기, 농어촌 일손 돕기, 농촌사랑 체험학습, 도농직거래 장터,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휴경지 경작, 농어촌 살리기 운동, 우리 농산물 먹기, 영농봉사단운영. 우수농산물 보급, 자랑스런 마을 만들기, 국기게양대 세우기 등

사. 이웃공동체, 살맛나는 공동체 만들기(Happy Korea)

불우 이웃돕기, 경로잔치, 효도관광,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사회안전망, 김장나누기, 1% 기부운동, 김장나누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노인섬기기, 홀몸노인 돌보기, 밑반찬 나누기, 며느리봉사대 운영, 다문화가족 돌보기, 탈북자지원, 도서벽지 어린이초청, 쌀 나누기. 재해재난 돕기, 합동결혼식, 실직가정 돕기, 사랑의 오뚝이캠페인 등

아. 사회 · 경제공동체

건전 직장 만들기, 품질향상운동, 직장비교평가대회, 새 일터 문화공동체, 여직원 사례발표회, 경제 살리기 저축운동,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 10원 동전 모으기, 경제 살리기 도민 저축운동, 3 · 3 · 3 · 3 저축운동, 국가재해 · 재난 사고 복구 지원, 재해 복구단 운영 등

자. 지구촌공동체(Global Korea), 세계화 새마을운동

한일국제교류, 한일지역사회지도자교류, 베트남새마을협력사업, 연해주새마을협력사업, 필리핀새마을협력사업, 몽골새마을협력사업, 라오스새마을협력사업, 키르기스스탄새마을협력사업, 스리랑카 쓰나미피해 돕기, 아이티 지진피해 돕기, 필리핀 태풍피해 돕기, 통일새마을사업, 대학생 및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등

차. 조직육성 및 역량 강화

주민총회 운영, 각종 회의(월례회의, 임원회의, 총회, 이사회), 회원배가운동, 새마을운동제창 기념식, 수익형 자체회관 확보, 새마을지도자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걷기대회, 연찬회, 간담회, 워크숍 및 수련회, 순회교육, 직무교육, 인터넷 정보화 사냥대회, 새마을지도자장학금, 회비제 운영, 조례제정, 다큐멘타리 · 드라마 · 영화 제작 등

카. 역점과제에 따른 분야별 사업추진의 변천

'의식개혁,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

'깨끗한 환경 가꾸기, 활기찬 고장 가꾸기, 건강한 사회 가꾸기'

'다정한 이웃, 보람찬 일터, 건전한 가정, 살기 좋은 고장, 건강한 사회, 성숙한 한국인'

'농어촌 살리기, 환경 살리기, 건강한 사회 가꾸기'

'생활의식 개혁, 살기 좋은 농어촌 가꾸기, 내 고장 환경 지키기, 자원봉사 활동'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새마을운동, 사회 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한 새마을운동, 농촌재건과 지방자치를 돕는 새마을운동, 생활의식개혁운동을 선도하는 새마을운동'

'다정한 이웃, 화목한 가정, 따뜻한 사회'

'행복한 개인, 활력 있는 지역, 질서 있는 사회, 번영하는 국가'

'국가의 장래에 대비하는 새마을운동, 국민정신을 쇄신하는 새마을운동,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마을과 직장에서 실천하는 새마을운동, 신 봉사문화를 창달하는 새마을운동'

'나라 품격 높이기 운동, 녹색새마을운동, 살맛나는 공동체 만들기, 세계화 새마을운동'

'문화공동체, 사회공동체, 경제공동체, 환경공동체, 지구촌공동체'

'생명살림, 평화나눔, 공경문화'

3. 제2새마을운동

'제2새마을운동'은 1993년 김유혁 회장에 의해 선언되었다. 새마을운동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으며 조직존폐가 거론될 만큼이나 최저점에 다다른 시기였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 변화나 내부조직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가 '제2새마을운동'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그동안 역대정권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역사적 맥락을 지키며 한결 같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해 왔으며 23년간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과감한 자체개혁과 '등일단진일보(登一段 進一步)'의 자세로 국민이 신뢰하는 새마을운동으로 거듭 태어나 '신한국창조'에 적극 기여하는 국민운동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제2새마을운동'을 펼쳐 가고자 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을 둘러싼 시대적 여건은 변화와 끊임없는 개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새바람을 진작시키고 있었기에 '제2새마을운동'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2단계 생활개혁 추진을 그 방향으로 삼았으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 맞추어 운동의 방향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정보화와 다양화, 국제화와 더불어 민주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새마을운동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순수한 민간자율운동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제2새마을운동'은 4대 실천과제를 정하여 운동의 방향으로 삼았다. 정치를 초월한 순수한 국민운동, 홀로 설 수 있는 자생 · 자활 기반조성, 지방시대를 여는 지역사회 개발운동 추진, 국제화 및 통일대비 새마을운동 전개 등이 그것이었다. 첫째는 정치를 초월한 순수한 국민운동의 전개였다. 이는 조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인들이 새마을조직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는 '새마을운동의 중립화' 선언이었다. 조직원들의 선거관여 등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정관 및 각종규정에 '선거중립 의지'를 명문화 하고, 윤리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새마을조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천명하는 것도 병행하였다. 새마을회원들은 봉사와 실천으로 오직 내 고장 발전과 의식개혁을

위한 순수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다른 민간단체와도 사안에 따라 연계 협력하여 지역사회 개발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홀로 설 수 있는 자생 · 자활기반 조성'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5년 이내에 완전한 재정자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였다. 중앙협의회 부지의 활용방안 연구하여 공익적 수익사업을 유치하고, 지방에서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지역단위 스스로의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기금을 적립하며 자체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또한 회원 회비제를 확대하여 읍 · 면 · 동, 시 · 군 · 구 단위로 단계적인 자립을 이룬다는 비전이 제시된 것이다.

세 번째는 '조직정비 및 인력의 정예화'이다. 중앙협의회는 사무조직 및 인력의 축소 및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활동이 미약한 일선 지도자 및 각급 회장단의 자율적 정비, 사무요원의 전문화 및 준 지도자화였다. 사업추진 방식에도 일대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시성 · 행사성 사업을 배제하고 주민의 공동관심사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율적이고 상향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지방시대를 여는 지역사회 개발운동 추진'으로서 지나 온 23년간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자율적 주민운동을 전개하여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 되살리기 운동,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환경 가꾸기 운동, 인정이 오고가는 다정한 이웃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과 주민자치능력을 키우기 위한 새마을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 가는데 이를 통해 유능한 새마을지도자를 발굴 · 육성하여 지역개발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는 '국제화 및 통일대비 새마을운동 전개'였다. 새마을운동의 국제화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한국 고유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교류의 확대, 새마을운동 모델의 해외 보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교육 및 새마을운동 현장의 관광자원화가 그 과제였다. 통일대비 새마을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배양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시

민교육, 이북5도 새마을조직의 활성화 및 통일이후 북한 전 지역의 새마을운동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2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정치중립, 재정자립, 조직정비, 자율운동, 국제화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당장의 성과를 거두는데 미흡하였지만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룬 이후의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후에도 이 운동은 계속되는 새마을운동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제2새마을운동'은 문민정부가 끝나면서 수면 아래로 접어들었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취임한 강문규 회장의 '제2의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4. 뉴 새마을운동

'뉴 새마을운동'은 2009년 후반부터 추진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범국민운동이다. 즉, 'SMU 뉴 새마을운동'은 전국 새마을가족의 축적된 경험과 결집된 역량을 한데 모아 시대적 · 국가적 ·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 넘어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인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희망공동체 운동'이다.

이 운동은 4대 중점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나라 품격 높이기 운동(SMART Korea), 녹색새마을운동(Green Korea), 살맛나는 공동체 만들기(Happy Korea), 세계화 새마을운동(Global Korea)을 중점추진 과제로 추진하였다.

SMART Korea(나라 품격 높이기 운동)운동은 법질서, 글로벌 에티켓, 배려, 칭찬, 친절 등을 실천하여 선진문화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Green Korea(녹색새마을운동)운동은 생활 속에서 저탄소 녹색운동을 통해 녹색생활을 실천하자는 운동으로서 강 · 하천 살리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자원 · 에너지 절약이 주요사업이다.

Happy Korea(살맛나는 공동체 만들기)운동은 어려운 가정과 다문화가정을 돌보고 안전지킴이를 실천하며 기부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Global Korea(세계화 새마을운동)운동은 외국인초청 새마을교육, 저개발국가 새마을협력사업, 해외 청년봉사단 활동 등이 주요사업이었다. 네 가지 중점사업

은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망라되어 사업화 되었다.

2010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제창 40주년을 맞이하여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를 도모하여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차원으로 '뉴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는 새마을세대는 물론 인터넷세대인 젊은이들이 공감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뉴 새마을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맞춰 '뉴 새마을운동 노래'와 '나라를 위하여'라는 곡을 만들어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다.

2011년도부터의 '뉴 새마을운동'은 'SMU'로 로고로 '뉴 새마을운동'이란 새로운 이미지로 전환되어 추진되었는데 목표는 선진 일류국가 만들기였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 · 자조 · 협동'의 바탕위에 시대정신인 '변화(Change), 도전(Challenge), 창조(Create)의 3C의 가치를 더해 보다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동을 추구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뉴 새마을운동은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사례화하였는데 4대 중점과제별로 선정하였다.

2011년의 경우 전국에서 선정된 31개 스마트마을 중 '수원의 천천 래미안아파트, 고양 일산 태영아파트' 등이 선정되었으며, 해피마을 전국 32개 중 '수원 영화동, 용인 중앙동'이 선정되었다. 'SMU 뉴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보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움직임이었으며 시대에 맞는 운동으로 변화하려는 혁신적 운동으로 추진되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 새마을운동 조직을 'Y-SMU'라는 이름으로 창설하였으며 법률로 4월22일을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이 추진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운동은 초기 새마을운동 이후 4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을 망라한 종합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절 주요 추진사업

1. 의식개혁 사업

'의식개혁사업'은 새마을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사업이다. 새마을운동은 '정신혁명'이자 '정신개혁운동'으로서 주민의식이 바로서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 인재양성의 운동이다. '의식개혁'이 곧 새마을운동인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 없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져 왔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의식개혁이다. 그러므로 새마을사업들은 추진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체험하며 의식을 바꾸도록 한 도구인 것이다. 의식개혁의 대표는 역시 "해야겠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는 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다. 눈으로 봐야 믿는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이다. 70년대와 80년대의 대다수 성공 사례자들의 성공수기에는 예외 없이 주민들의 냉대와 비난, 방해와 비웃음 등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여 보여주고 나서야 주민들이 따랐다는 점이다.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일들이 하나 둘씩 성공을 거두자 다음 일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요소 중 제일은 '할 수 있다.'고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개조, 국민정신 혁명이었다. 너무도 오랫동안 폐쇄적이고 무기력하고 체념적으로 살아왔던 그 관습을 새마을운동을 통해 바꾸었다는 것이다. 사람의 정신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말로만 해서는 되기도 어렵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사업이란 도구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고 그 의식은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이끌게 되었던 것이다.

의식개혁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교육과 캠페인, 경진대회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의식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초기 새마을사업을 크게 나누어 보면 생활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 사업, 의식개혁 사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같이 하니까 혼자 하는 것

보다 좋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마을 전체의 일이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같은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체험하게 되었고, 역경을 딛고 만들어 낸 결과물들을 보며 뿌듯하고 편리함을 느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다.

가구 생활개선 사업을 통해서는 청결하고 편리하고 위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새마을운동을 하니까 좋아 졌다.'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모든 사업들은 소득증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추진원리에 따라 소득증대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와 반성, 교육을 위해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인 것이다. 사업을 계획하고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한 결과를 평가해보며 다음 일을 계획하는 모든 과정은 자연스런 교육과정이었다. 주민 스스로 한 주민의 운동이자 체험을 통한 주민 의식개혁 과정들이었다. 간간히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공무원이나 영농 전문가들의 실무 교육을 통해 '해야겠다. 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의식개혁은 새마을운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다.

초기 새마을운동 추진이 마무리되고 80년대 들어 우리사회는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가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너무도 힘이 들고 참아왔던 일들이 봇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식이 크게 넓어지고 높아진 것이다. 그러한 변화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다양한 사회 병리현상들이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었다.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체제로 전환한 다음 새마을운동은 농촌보다 도시에 집중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사회도 산업화로 접어들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이런 이유로 도시는 많은 문제점과 갈등요소들을 안게 되었던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다시 한 번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도시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병리현상들을 치유하고 다함께 잘 사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특히 80년대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두 국제대회를 치르는 시기였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벗어나 올림픽을 치른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세계인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중진국에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손님맞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갔다.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도록 하여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을 소개할 수 있는 천운의 기회였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시기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나섰다. 생활 개혁운동이었다. 작지만 꼭 실천해야 하는 일들, 마음만 먹으면 아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시민의식을 갖자는 것이었다.

고도성장으로 인해 90년대 나태해진 국가는 IMF사태를 맞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또 다시 여러 가지 운동을 추진하면서 국민의식 변화를 촉구하였다. 2000년대 들어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10년 G-20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시민의식 변화와 역량을 발휘하여 '손님맞이 새마을운동'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삼고자 대대적인 의식개혁 운동들이 추진되었다. 이는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의 일환이었다. 이 운동은 도시새마을운동의 핵심이자 전 국민운동이다. 이어진 의식개혁운동은 2010년대 초반부터 '뉴 새마을운동'으로 'SMART코리아' 운동이 펼쳐졌다. 법질서, 기초질서를 웃으면서 모두가 지키자는 의식개혁 운동이었다. 이 의식개혁 운동들은 2018년 들어서는 '평화나눔'과 '공경문화'조성 이라는 타이틀의 의식개혁 운동이 전개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 생활개혁운동

'생활개혁운동'은 86아시안게임 · 88올림픽 등 국제 체육행사의 성공 이후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성장에 비해 다소 뒤쳐진 국민의식을 '2002한일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도약하는 의식수준에 이르러 조기에 선진국에 진입하자는 차원에서 펼쳐진 의식개혁운동이다.

그 동안 새마을운동 추진과 개발과정에서 잘 살펴보지 못한 잘못된 관행 · 관습을 비롯하여 공동체의식의 결여 및 가치관의 붕괴 등 잘못된 사회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그만"의 무질서 불감증, "나만 잘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 "질서는 지키면 손해다."라는 무질서 심리, '빨리빨리'의 조급증 증세, "나하나 쯤이야"하는 적당주의 등을 치료하자는 배경에서 1994년부터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생활개혁운동은 인식과 발

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이러한 고질적인 사회 병리현상을 개혁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세계화의 기반 조성을 위한 운동이다. 국민들은 주인의식 고취 및 선진질서의식 함양, 단체는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정부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계도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운동이 추진되었다.

1994년 정부에서는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후진국 형 인재의 추방', '4대질서 운동의 본격추진',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 '집단 이기주의의 극복',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불법부당요금 징수 근절',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등이었다. 그 중에 일부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개혁에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양하였는데 199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중점적인 생활개혁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내무부가 제시한 '생활개혁 3대 중점과제'를 기본으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생활개혁운동을 추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불법 · 퇴폐행위 추방, 맑은 물 지키기, 생활오수 줄이기, 예약문화 정착, 간소하고 질서 있는 여행하기,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 등이었다. 매우 단순하고 생활가운데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이었다.

새마을운동은 늘 국민 속에서 국민들이 하는 운동이므로 매우 쉬운 운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이 무렵 정부는 이 작은 생활개혁을 내무부, 복지부, 환경부, 문체부, 건교부, 외무부, 경찰청 등 범 부처별로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현장에서의 운동은 새마을조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갔다. 내무부는 생활개혁운동의 성공이 2002월드컵의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지방행정국장을 본부장으로 한 '생활개혁추진본부'까지 설치하면서 대대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였다. 1995년을 '기초 질서 지키기 확립의 해'로 정하고 '나부터, 작은 것부터 자질함양', '잘못된 관행과 행태개선', '세계시민 양성' 등을 과제로 추진해 나갔다.

이 운동은 각 지역실정에 맞는 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경기도지부는 '질서 지키기, 행락지 쓰레기 손수 치우기, 외국인방문객의 불편 해소' 등과 '생활개혁 과

제' 뿐만 아니라 3대 중점과제로 질서 지키기(기초질서, 교통질서), 쓰레기 줄이기(행락지 쓰레기 손수치우기, 쓰레기 종량제), 고운 말 쓰기(고운 말, 토론문화 정착)를 정하여 도민 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하였다. 각종 교육과 간담회, 캠페인과 홍보물, 표어, 포스터, TV등 방송매체, 시군별 주민대학, 생활개혁 강좌개설, 각종 세미나, 언론보도, 초중고생 기초질서 교육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갔다. 실천과제들은 매우 단순하고 쉬운 것들이었다. 질서 지키기는 '차례 지키기 생활화, 승하차 질서, 보행질서 확립, 입장질서 확립' 등이고 휴지 · 껌 · 담배꽁초 함부로 안 버리기, 주말 자연정화 활동, 내집 앞 내가치우기 등이었다. 불법 주정차 안하기는 '선진교통질서 확립, 승용차 10부제 운행, 카풀제 전 국민 참여 유도' 등이었다. 쓰레기 줄이기는 '행락지 쓰레기 손수치우기, 줄이고 · 안 버리고 · 치우기, 행락지 자연정화 캠페인, 쓰레기 수거, 1사 1산 1하천 가꾸기, 환경정화 봉사대 운영'등을 추진하였다.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 지정게시판 · 게시대 활용, 공중화장실 정비 및 청결유지, 노상 장애물 정비'등의 작은 실천의 생활개력운동을 추진하면서 의식개혁의 일환인 '생활개혁 운동'을 추진하였다. 의식개혁이 정신운동이라면 생활개혁운동은 실천과 실행운동으로서 '의식개혁, 생활개혁'은 매우 기초적이며 필수적으로 지키고 실천해야할 시민정신으로 자리 잡도록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스마트(SMART)새마을운동

'스마트 새마을운동'은 Smile(미소), Manner(예절), Admiration(격려), Responsibility(책임) Together(함께)의 첫 글자들을 모아 만든 말로서 "일상 생활가운데 항상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예절과 예의 차원에서 기초질서와 법질서를 지키고 상대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존중하는 일들을 모두 함께 하자."는 의미의 의식개혁 운동이다. 즉, 나라와 국민의 품격을 높여 당당한 선진국민이 되기 위한 '나라품격 높이기' 운동인 것이다. 이 운동은 2009년도부터 '뉴 새마을운동'의 4대 운동인 SMART Korea, Green Korea, Happy Korea, Global Korea의 하나로 추진된 운동이다.

이 스마트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 운동의 하나로 8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질서 · 친절 · 청결운동', 90년대 초반에 추진된 '신경기인 운동', 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생활개혁 운동'의 2000년대 초반에 추진된 '월드컵 새마을운동', 월드컵 이후 2003년부터 추진된 '생활문화 개선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시대 맞춤형 범 국민운동이다. 이 운동은 국제행사인 세계 선진국 국가수반들의 모임인 G20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기도 하였다. 운동의 방법은 주로 홍보와 캠페인, 세미나, 교육, 다짐대회 위주로 추진되었다.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리플릿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효과를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스마트 새마을운동은 시민의식의 선진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기초와도 같은 운동이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제92회 경기도 주최 전국체전'이 있어 '함께해요, 공정사회' 시범캠페인을 통해 2만 불 시대에 맞는 선진코리아 국격 높이기, 공정한 경쟁사회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사회구조 구축, 사회적 갈등해소 및 국민 화합 분위기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음식 값 함께 계산하기, 공짜 없는 세상으로 공정한 사회 만들기, 반칙 없는 원칙 지키기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전국 체전 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새마을운동'도 추진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언제나 국가의 큰 행사나 방향이 정해지면 현장에서 실천 활동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운동은 주로 홍보용 축하현수막 등을 겸하여 부착시켜 시민들이 오매 가매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나라품격 높이기를 위한 스마트코리아 운동으로서의 이 운동은 운전문화, 거리문화, 해외연수 등에서 지키고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운전문화 분야에서는 '끼어들기, 음주운전, 갓길운행, 꼬리 물기 안하기'가 홍보 내용이었고, (속도를)줄이고, (잠시)멈추고, (좌우를)살피고 등 사람먼저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갖도록 계도하였다. 거리문화 분야로는 우측보행, 한 줄서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차례로 타기 등이 추진되었는데 처음으로 바뀐 우측통행은 초기에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이 운동을 통해 상당한 만큼 바로잡을 수가 있었다. 전화문화 분야에서는 공공장소 휴대전화 자제하기, 친절한 전화응대 등이 추진되었다. 지역문화 가꾸기로 추진한 '우리고장 문화유산 가꾸기', '문화재 환경

정화 활동', '1가족 1문화 가꾸기'와 해외여행 시 지켜야 할 예절 등도 스마트코리아 운동으로 추진되었다.

선진 행락질서는 어느 시대에나 요구되는 운동인데 2012년에는 집중적으로 시민의식 고양으로 건전한 행락질서 도모를 위한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캠페인에는 재미있는 유행가를 스마트코리아로 개사하여 부르는가 하면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스마트코리아 운동은 선진 행락질서 지키기, 깨끗한 행락지 가꾸기, 안전한 행락지 만들기도 추진하였다. 스마트코리아 운동은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하여 '마을 만들기'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을에서는 운영위원장, 리 · 통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청년회장 등으로 마을 만들기 대표단을 만들어 함께 새마을교육을 이수하였다. 이 대표단은 수료 후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스마트 새마을운동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현장지도자였다.

다. 올림픽 새마을운동과 월드컵 새마을운동

'올림픽 새마을운동'과 '월드컵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의 영역을 넓히고 자리잡게 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올림픽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질서 · 친절 · 청결'운동이고 '월드컵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문화시민 운동'이다. '질서 · 친절 · 청결'운동과 '문화시민운동'은 도시 새마을운동의 확고한 영역이다. 초기 새마을운동이 농촌에서 시작되어 도시로 확산되면서 도시 새마을운동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고 영역도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양 대회는 도시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분명히 정리해 주는 역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질서 · 친절 · 청결'운동과 '문화시민 운동'은 현재 새마을운동이 추진하고 있는 영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큰 분야이다. 80년 중반부터 새마을운동이 국민들로부터 갖은 비난을 받으면서 침체기에 접어드는가 싶었지만 올림픽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전 국토를 공원화하고 '질서 · 친절 · 청결'운동을 통하여 도시질서를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국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이 정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월드컵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손님맞이와 대회 성공 뿐 만아니라 IMF로 인해 어려워진 나라 경제, 흐트러진 시민의식을 바

로세우는 새마을운동으로서 매우 적합하였다. 결론적으로 양 대회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이루어졌고 새마을운동은 양 대회를 통하여 국민운동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은 당시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아 좀 이른 측면이 없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나 시민의식으로 보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 대회를 치러냈다. 결국 양 대회의 성공은 중진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운동장 밖에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70년대 새마을운동 초기에 주로 물량사업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80년대 올림픽 새마을운동은 우리 고장과 우리 국토를 보다 깨끗하게 정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외형적으로는 전 국토를 공원화하여 삼천리금수강산을 만들고 도시민에게는 기초적인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여유 있고 친절한 미소로 손님을 맞아 국격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세계인들에게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게 현장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성공은 우리 국민들의 이런 희망들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의 성공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지만 국민들은 나태와 불감증, 부도덕 등으로 결국 IMF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고 결집하였다. 올림픽 새마을운동이 가시적인 측면이 많았다면 월드컵 새마을운동은 예절과 정신, 문화 등 시민의식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 시기는 이미 어느 정도 기초인프라가 형성되었지만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시민정신이 따르지 못한 측면이 강했다. 이를 극복하여 선진국으로 가자는 운동이 '월드컵 새마을운동'이었던 것이다. 운동의 대부분은 아주 쉽고 실천만 하면 되는 기초적인 것들이었다. 우리는 이런 실천을 생활화하여야만 선진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올림픽새마을운동과 월드컵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다.

'월드컵 새마을운동'은 시민의식 선진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주로 캠페인, 교육, 간담

회, 홍보위원 위촉, 특화거리 조성, 친절택시 발대식 등이 이루어졌다. 운동은 '기초질서 실천운동'으로서 매우 단순하고 초보적인 것이지만 이 운동이 선진시민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온 국민이 대표선수, 이것만은 지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운동'을 만들어 실행하였는데, 이 10과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순위를 정하였다. '국민이 뽑은 10가지 생활과제 실천운동'은 다음과 같았다.

1) 내 주변 쓰레기는 내가 줍는다.
2) 내가 먼저 양보하여 남을 존중한다.
3) 한 줄로 서기를 생활화한다.
4) 교통신호를 지키고 양보 운전한다.
5) 무단 주 · 정차를 하지 않는다.
6) 휴대폰은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
7) 내가 먼저 인사를 나눈다.
8)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 배려한다.
9) 공공시설을 내 집처럼 사용한다.
10) 금연 · 흡연지역을 꼭 지킨다.

라. 나라사랑 운동

'나라사랑 운동'은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에 대한 보전과 홍보로 국민들 마음속에 나라와 나는 공동운명체라는 의식을 갖게 하자는 운동이다. 태극기 달기, 태극기 보급, 태극기 바로 달기, 태극기 알기, 무궁화 심기 등이 주요활동이다. '집집마다 국기게양, 가슴마다 나라사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사업은 매번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기를 달자는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나라 상징물에 대한 적극 활용과 관리는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이며 이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은 국기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을 바탕으로 국민 준법정신 함양,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 함양 · 계승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데

활동은 주로 가두캠페인, 태극기 보급, 홍보물 배부, 계도방송 등의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이 운동은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더 필요한 운동으로 태극기 그리기, 나라사랑 플래시 몹 등을 통해 스스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하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것이다. 종전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거나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나 망언 등을 규탄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져 오기도 하였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나라의 상징이다.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과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참해야 하는 운동으로서 새마을조직과 회원들은 오랫동안 이 운동을 추진해왔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 운동은 지속되어질 것으로 본다.

마. 교통안전 · 질서계도 활동

'교통안전 · 질서계도 활동'은 새마을운동을 통한 자율 봉사활동 전개로 선진 질서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산업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비대해 지고 차량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교통문화 의식수준은 매우 낮아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부터 시작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운동으로 추진되었다. 80년대 초기부터 도시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이 운동은 각 직장이나 학교, 교통 혼잡지역 등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새마을지도자들의 교통 질서유지와 계도활동들이 펼쳐져 왔다.

1984년 '새마을지도자중앙본대'가 출범하면서 이 분야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 활동은 주로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 정지 선 지키기, 횡단보도 지키기, 교통신호 지키기, 안전벨트착용, 끼어들기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로 선진 교통질서를 만들고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활동에 역점을 두었다. 1994년에 발대한 '새마을교통봉사대경기지역대'는 도내 전역에서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각 시군지대를 조직하여 각 지역의 교통질서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활동은 주로 캠페인이나 전단 · 스티커 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교통질서 및 교통안전을 홍보하고, 간담회나 회의 등을 통한 교통문화 시민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현장 질서유

지 활동, 지역 내 각종 공공행사 질서유지 활동 등을 추진하여 왔다.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이 활동들은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선진 사회질서를 확립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활동으로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교통안전 · 질서계도 활동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손님맞이 새마을운동차원에서 더욱 빛을 발하였다. 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 활동을 추진한 지역은 성남시로서 매일아침 시내 주요 교통 혼잡지역에서 출근길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왔다. 지도자들은 눈에 띄는 교통제복을 입고 교통안내봉과 안전 깃발, 호루라기 등을 준비하여 활동하여 전국에 모범을 보여주었다. 특히 성남의 교통질서 안내 활동은 남성지도자 뿐만 아니라 여성 지도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매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여성 지도자들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사전연습을 통하여 사고 없이 안전하고 숙련된 활동이 되도록 준비하는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전국에서 펼쳐진 '교통안전 · 질서계도 활동'은 86 · 88 양 대회의 성공을 뒷받침한 운동장 밖의 선수였다. 이어 2002년 한일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올림픽 새마을운동'은 '월드컵 새마을운동'으로 전환되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집중된 이 활동은 '교통문화 2002실천운동'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국가의 불명예를 탈출하고 전 세계손님들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폭발적인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으나 차량증가에 비한 교통문화 의식수준은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이런 활동들은 더 필요하였던 것이다.

2002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와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심각해지는 교통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무지개캠페인(7부제)'을 전개해 나가기도 하였다. '교통안전 · 질서계도 활동'은 월드컵 개최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전주, 제주 등 10개 도시에서 집중되었고 수도권 지역에서 더 집중적인 활동이 펼쳐졌다. 경기도는 수원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수원은 물론 화성, 오산, 용인 등과 협력하여 대회 성공을 뒷받침하였다. 이 활동들은 월드컵 성

공개최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선진 교통문화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안전문화와 교통질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었다. 월드컵 이후 교통상황은 도로의 확충, 교통체계의 정비, 시민들의 교통문화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무질서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했다. 이에 '교통안전 · 질서계도 활동'은 '정지선 지키기, 교통기초질서 지키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등 아주 쉽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계도활동에 집중해 오고 있다.

바. 일하는 보람 상

운동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게 조금 높게 설정해야 효과적이다. 새마을운동으로 농촌과 도시가 크게 발전하면서 정부는 '1천불 소득, 100억 수출',이란 목표를 정하였는데 70년대 후반에 조기 달성되었다.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도 달성되었다. 목표를 크게 했지만 그리 빨리 달성될 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기보다는 과소비와 사치낭비 등이 심해졌고 놀고먹는 풍토가 조성되는 분위기였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은 승천하기도 전에 추락해 가고 있었다. 영국병처럼 한국병이란 용어가 등장하면서 사회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해 져 갔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0. 11. 13. '30분 더 일하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범 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갔다. 이 운동은 사회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중앙협의회는 이를 발전시켜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체계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1. 1. 15. '일하는 보람 상'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동안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정신으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며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지만 도약의 기회를 놓치며 해이해지자 무엇보다도 사회전체가 일하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중앙회는 '근면 · 자조 · 협동으로 힘 모아 다시 뛰자'는 캐치프레이즈를 앞 세워 다시 한 번 새마을운동의 열기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자는 '일하는 보람 상'을 제정

하게 된 것이다. 1992년에 제정된 이 보람상은 '참되게 살아가는 일꾼과 마을을 찾습니다. 숨은 일꾼과 마을을 찾습니다.'라고 홍보하며 우리 사회에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마을 · 직장 등을 찾아내어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보람상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마을, 직장, 기관, 단체 등도 수여대상이었다. '일하는 보람 상'은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활기찬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창의력과 진취적인 기상을 발휘하게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살기 좋은 우리고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다.

'일하는 보람 상'은 '활기찬 마을 상(개인, 단체)', '보람찬 일터 상(단체)'과 '다정한 이웃 상(단체)'등 세 분야로 나누어 발굴 · 시상하였다. '활기찬 마을 상'은 농어업 기술과 농어민의 의식개혁 등으로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에 수범을 보이거나,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마을)를 발굴하는 작업이었다. '보람찬 일터 상'은 생산성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증진, 모범적 노사화합 등을 통한 산업발전으로 보람찬 일터 조성에 선도적 업적을 이룩한 개인 또는 단체가 그 대상이었다. '다정한 이웃 상'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 등으로 더불어 사는 다정한 이웃,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수범을 보이거나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마을)을 대상을 발굴하여 시상하게 되었다.

'일하는 보람 상'은 그 권위와 공정성을 위해 국가 원로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장에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를 모셨다. 위원으로는 각계 원로이신 김보현(전 농림부장관), 김상하(대한상의 회장), 이규이(중앙협의회장), 박종근(한노총 위원장), 박진환(전 농협대학장), 홍두표(한국방송공사 사장), 홍석현(중앙일보사 사장)등 각계 최고원로로 위원회를 만들었다. 심사위원으로는 '활기찬 마을 상' 부문에는 이질현(서울대 교수), 정영채(중앙대교수), 정장섭(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등이 맡아주셨고, '보람찬 일터 상'에는 이동우(국민대교수), 함영훈(한국항공대교수), 강승일(대한상의 이사)등이 참여해 주었다. 1992년 제1회로부터 1998년 제7회 까지 추진된 이 보람상은 이후 사회 안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운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종료되었다.

'일하는 보람 상'은 수상자가 극히 적어 그 권위도 대단하였다. 경기도는 1992

년 제1회에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1993년 제2회에 '다정한 이웃 상' 개인부문에 양평군 용문면 최종회 지도자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1994년(제3회)에도 경기도는 수상자나 단체를 배출하지 못하였지만 1995년(제4회)에는 '활기찬 마을 상' 개인부문에 평택군 현덕면의 문만복 지도자가 선정되는 영예가 있었다. 문만복 지도자는 논밭농사에서 화훼농사로 전환하여 부농을 이룬 지도자로서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 농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준 우수사례로 수상하게 되었는데 농업장려금 1천만 원도 받게 되어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 이후 1997년에 여주군 금사면 금사2리 박준선 명예지도자가 '활기찬 마을상'을 수상하였는데 마을은 젖소마을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을 올리고, 무인판매점을 설치하여 주민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환경개선 사업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였고, 느타리버섯과 상황버섯 재배를 순환 농사하여 소득을 크게 올린 곳으로 상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보람상 시상식은 매년 '새마을운동 제창일'을 전후해서 시상되었는데 이 상은 내무부,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KBS, 중앙일보사 후원으로 새마을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로 영예로운 상이었다. '일하는 보람상'의 발굴 · 시상은 초기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의 성공사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당시 우리 사회가 많이 해이해져 가는 시기에 '30분 일 더하기' 운동과 더불어 시의 적절하게 추진된 운동이었다. 양평 최종회, 평택 문만복, 여주 박준선지도자는 90년대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자로 모범을 보여 준 경기도의 영웅들이었다.

1994년 12월에 '일하는 보람상 위원회'가 대국민 홍보자료로 만든 자료에는 일하는 보람상의 취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우리는 30년전 만 해도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어려운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 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 결과 현재는 중진국 수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근면과 성실이 우리에게 준 큰 대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조금 살게 되었다고 해서 놀고먹는 일에만 급급하고 무분별한 과소비, 사치, 낭비, 퇴폐풍조가 만연되고 있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집단이기주의가 살아나고 질서의식이 파괴되어 도

덕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참된 일꾼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지금 사회는 우리 모두의 근면 · 자조 · 협동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를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큰 정신으로 정성을 다하고 각자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의 현장에서 활기찬 사회를 건설하는데 한몫을 해야만 합니다. 제4회 일하는 보람상은 마을과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일꾼과 그 일터를 발굴하여 선양함으로서 활력이 넘치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함께 희망찬 내일을 향해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살려 땀 흘려 일하는 활기찬 사회 건설에 우리의 힘을 한데 모읍시다. 비록 짧은 연륜의 상이지만「열심히 또는 꾸준히」일하는 사람과 마을, 일터가 선발되어 우리사회 전반에 땀의 가치와 일의 소중함을 일깨워져 건강한 사회, 자랑스러운 나라를 이룩하는 대열에 국민여러분의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1994. 12. 일하는 보람상 위원회

사. 문화의 한마당

'문화의 한마당'은 1993년 '책의 해'를 계기로 '책을 열자 미래를 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하였다.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는 기존의 국민독서경진대회가 평가와 시상위주의 경직된 측면이 많아 '도민 독서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문화시대를 열어 간다는 측면에서 '문화 컨텐츠'로서의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 '문화의 한마당'이다. 처음에는 '문학의 한마당'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독서를 포함한 시, 음악, 놀이 등이 곁들여지면서 '문화의 한마당'으로 넓혀지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로는 좀 사치스럽고 과도한 측면이 있었으나 도 문고회장 권태욱과 문고과장 류영권의 적극적인 의지와 신선한 아이템으로 27년을 진행해 오는 경기도 새마을문고의 장수 프로그램이 된 것이다. 1993년은 '책의 해'였다.

도 문고지부는 '내 고향 양서 보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20만여 권의

도서를 모아 도내 317개 문고에 기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독서문화 확산과 문고운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 한마당'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1993년 제1회 대회의 주제는 '책 읽는 사람들이 이끄는 신 경기건설'이었다. 이는 건전한 독서운동을 통하여 '신 경기인상'을 정립하고 도민의 독서생활화와 정서함양을 진작시키고자 여름철 자연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푸른 바닷가를 찾아 책을 벗하며 문학을 이야기하는 다채로운 '문고행사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송림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모래밭에서 파도소리와 더불어 시와 독후감, 음악을 감상하고 문화의 강좌 등을 펼쳐 책사랑 잔치에 문인, 음악인, 무용인, 독자가 흠뻑 빠져들 수 있도록 신바람 나는 한마당 축제행사로서 책의 축제이자 문학한마당이었다.

1993. 7. 27.~28.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해수욕장 솔밭에서 200명이 모여 숙영지에 텐트를 치고 개별취사를 하며 마당을 준비하였다. 모든 비용은 참가자 자부담으로 진행되었다. 박효석 시인의 사회로 열린 1, 2, 3부는 시낭송, 음악 감상, 문인협회 초대작가외의 시간으로 시인 정공채 문학 강좌, 피서지문고(임해문고) 개설, 책의 축제, 문고활성화 토론회(모닥불 축제), 독서 토론회, 레크레이션, 해돋이, 독후감발표회 등 다양한 컨텐츠로 참가자들과 피서객을 위한 최고의 축제의 장을 열었다. 문인가수 이동원, 바리톤 황규영 교수, 김남웅 시인, 김동현 시인의 대금연주, 무용가 정주미의 춤사위 멋 가락, 김진식 시인, 박효석 시인의 낭송 등 최고의 무대로 꾸며졌다. 이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진 '문학한마당' 축제는 여름밤 낭만과 예술의 향기를 만끽하고, 조용한 시낭송, 가곡열창 땐 일제히 환호성을 하며 한 마음이 되었다. 해변에는 1천여 권의 책을 비치하여 해변을 찾는 이들이 피서하면서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유 있는 해변의 낭만과 문학이 만난 것이다, '시인과 함께 떠나는 환상의 휴가, 하늘 · 바람 · 별을 노래하며 책을 펴자'는 광고를 통해 상당수의 도민들도 참여하였다. 도민 독서습관 생활화를 휴양지에서 임해문고와 함께 하는 '해변 책의축제' 매우 이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다.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으로서 피서객의 폭발적인 호응과 종합문화예술로 발돋움하는 발판마련, '독서는 생활'이란 성숙한 시민의식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이다.

1994년 제2회 '문화의 한마당'은 1994. 7. 28.~29.까지 남양주 밤섬유원지에서 81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1995년 제3회 대회는 '수원 효원공원'에서 1,520명이 참가하여 열렸다. 1996년 제4회 대회는 여주 신륵사관광지에서 '책 읽는 사람들이 이끄는 경기사회 건설', '책사랑 이웃 사랑'을 슬로건으로 새마을문고 문학의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초기 10여 년의 '문화의 한마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피서지나 관광지 등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컨텐츠는 '피서지 문고운영, 독후감발표회, 시낭송, 문학 강좌, 콘서트, 전통무용 공연, 웅변대회, 교통사고 · 환경보전 사진전시회, 환경안내소 운영, 모닥불축제, 알뜰마당, 우량도서전시, 특산품시장, 한마당 잔치로 열려 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다.

1995년 제3회 대회부터의 컨텐츠는 '백일장, 사생대회, 삼행시 공모전, 에어로빅, 초청공연(가수 정수라, 무용가, 성악인 유국근), 장기자랑'등이 추가되면서 놀이로서의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다. 즉, 문화행사, 공연행사, 홍보행사 등이 어우러진 '문화의 한마당'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시대 주제에 맞는 이벤트만 별도로 추진하기도 하였는데 여주 신륵사 강변에서 열린 '새마을문고 한마당 큰잔치 경연대회(맑은 강 가꾸기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는 1,8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이벤트가 열리기도 하였다. 1996년에는 특이하게도 두 번이 더 열렸는데 파주 조리면 장곡공원에서 2천명, 분당 중앙공원에서 2천명이 모여 '책 읽는 사람들이 이끄는 일등경기, 일류한국 건설을 위한 큰잔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문화의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범 도민 독서진흥과 선진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열린 이 대회는 '국토 대 청결운동, 기초질서 지키기'등의 행사가 병행되었다. 추가된 콘텐츠로는 '자작시 낭송회, 알뜰도서 교환전, 알뜰마당, 도서 무료 교환전, 선인장 특별교환전, 열린음악회, 장기자랑, 동아리 경연'등의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어 흥미를 더해 나갔다. 1997년(제5회) 대회는 여주 은모래유원지에 1,255명이 참가하여 1박2일로 진행되었고, 1998(제6회) 대회는 8. 13.~14. 양주 장흥유원지에 1,989명이 참가하여 '건국 50주년 기념 새로운 100년 건설을 위한 문화의 한마당'으로 진행되었다.

제6회 대회까지는 도내 유명관광지에서 1박2일로 휴식도 취하고 문화도 나누는 '문화의 한마당'으로 진행 되었고 1999년(제7회)에는 광주 곤지암수련원

에 1,3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후는 1일 행사로 시군 주요 공원이나 관광지 등에서 한마당을 열어 오고 있다. 도내 주요 행사장소를 보면 2000년(제8회)에는 남양주 밤섬유원지, 2001년(제9회)에는 여주 도자기엑스포장, 2002년(제10회)은 수원 만석공원, 2003년(제11회)은 양주 별산대놀이마당, 2004년(제12회)은 시흥 옥구공원, 2005년(제13회)은 이천 설봉공원, 2006년(제14회)은 고양 호수공원, 2007년(제15회)은 이천 설봉공원, 2008년(제16회)은 부천 중앙공원, 2009년(제17회)은 남양주 종합촬영소, 2010년(제18회)은 수원 만석공원, 2011년(제19회)은 안산 호수공원, 2012년(제20회)은 남양주 한강시민공원, 2013년(제21회)은 광명 시민체육관, 2014년(제22회)은 양주 문화예술회관, 2015년(제23회)은 의왕 자연학습공원, 2016년(제24회)은 남양주 상패동 한강시민공원, 2017년(제25회)은 수원 야외음악당, 2018년(제26회)은 분당 중앙공원, 2019년(제27회)은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문화의 한마당'은 그 시대 맞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목표에 맞추어 일석이조의 축제로 열어왔다. 새로운 천년 희망의 경기건설, 새천년 새마을 경기도민과 함께,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지원, 나라사랑 부모사랑, 함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행복 선진한국 실현,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세상 등과 같이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행사와 함께 실현해 나갔다. 책 읽기에 대한 슬로건으로는 '희망찬 한국, 책 읽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책 읽는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책 읽는 사람이 이끄는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아름다운 나라 걸어서 가자 등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도민이 독서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추진해 옥 있다. '문화의 한마당'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하였고 다른 지부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추진하지 않는 고유의 사업이 되었다. 축제 주제를 통해 독서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처음 문학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예술장르를 포함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군 동아리 활동들의 폭넓은 무대로 문화와 재미를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도민 축제로 자리 잡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는 198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40년간 이어져 온 사업으로서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긴 세월을 유지해 왔다. 이 대회는 기관 · 단체 · 학교 등의 예선을 거쳐 시군예선을 치른다. 선발된 작품들은 도 예선을 거쳐 중앙본선에 이르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 우수하고 모범된 작품들을 선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독서 열기와 독서의식 함양, 독서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운동이다.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는 지난 40년간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 예선'이라는 타이틀로 이 경진대회를 통해 꾸준하게 도민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 왔다.

이 대회는 초중고생들로부터 일반인까지, 단위문고로부터 시도지부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후감부터 동아리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여 독서하는 국민 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전통적이고 전국적인 대회로 운영되어져 오고 있다. 매년 대회는 인상적이고 유익한 슬로건을 만들어 매년마다 분위기를 바꾸어 추진하고 있다. '책과 문화의 만남, 나눔의 즐거움, 행복한 문화공동체 실천'이런 형태의 캐치프레이즈들은 도민들이 잠재적으로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운동으로서의 도구들이다. 새마을문고의 독서운동은 사회 각 계각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독서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사회가 좀 더 밝고 품격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문화공동체 운동이다. 또한 경진대회는 각급 조직과 독서문화 공간, 재능기부 동아리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격려 ·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독서문화 생활화를 통하여 국민문화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운동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대회는 사회 각계각층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독서문화 생활화 운동의 축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경진대회의 절차는 기관(단체)별 예선대회를 거쳐 시군구예선, 시도예선을 거쳐 중앙본선을 치르는 4단계 경진이 이루어진다. 평가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우선 시군문고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며, 새마을작은도서관 · 이동도서관 · 재능기부동아리 · 사이버공간 등에 대한 운영부문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독후감부문, 편지글부문 등도 나누어 경진하고 있다. 독후감부문의 경우는 초중

고생, 대학생, 일반인, 군인, 경찰 등 다양한 개인들이 참여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 교육감 등의 표창을 수여해 오고 있다. 경진대회에서는 우수한 사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대회참가자들이 운동에 더 참가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해 주고 있으며, 우수작 들을 모아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하기도 한다. 사이버 분야의 경우 문화 · 예술 · 교육 등의 재능기부 동아리를 활성화 시키도록 동기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유롭고 쉽게 접근하도록 운영해 오고 있다. '국민독서경진대회'는 도민 모두가 언제나 생활가운데 자연스럽게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갖추어 주고 동기를 불어 넣어주는 운동으로서 지난 40여 년간 도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자. 새마을이동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은 1960년대 초반 경남 울주군(당시의 행정구역)의 엄대섭 문고지도자가 전쟁 후 버려진 탄약통에 책을 넣어 손수레에 싣고 마을과 마을을 순회하며 책을 빌려주고 회수하여 다음 마을로 이동하던 활동이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그 시절은 책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을 사서 독서를 한다는 것은 농촌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학교를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시군 단위에는 도서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에게 책을 접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활동이 마을문고운동의 효시가 되었고 엄대섭지도자는 그 당시 아시아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었던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실질적 의미의 이동도서관은 차량을 이용하여 장서를 싣고 인근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책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활동으로서 1980년대 중반부터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최초의 이동도서관이 만들어진 지역은 1990. 9. 10.에 개관한 '시흥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었다. 처음 차량 1대와 장서 1천5백여 권을 싣고 도심지역에서 떨어진 아파트 지역, 도시 외곽지역 등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하며 비치도서를 대출하고 1주일 후 회수 또는 재 대출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동도서관은 초창기에 차량 1대에 사서직원, 열람직원, 운전직원 각 1명이 승차하여 운영하였다. 경제가 발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풍부해 지면서 1개 시군에 많은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여파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동도서관의 예산 과다를 빌미로 직원을 줄이거나, 이동도서관 자체를 점차 폐지해가는 경향이다. 하지만 이동도서관은 투입한 경비에 비해 도서관보다 수배의 대출실적을 올려 왔다. 더구나 자료정보 획득이나 독서보다는 자격증 획득을 위한 독서실의 용도로 쓰이는 많은 상설도서관 보다 훨씬 더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책의 접근성과 대출의 편리성면에서 볼 때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이동도서관은 당초 설치 취지대로 상설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 가정살림에 바쁜 주부들이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이동도서관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바람이다.

이동도서관 1대는 보통 4,000권 내외의 도서를 비치하고 매주 평균 30곳을 순회하며 이용자는 월 평균 2,000명, 도서대출 권수는 1인 1회당 5권 이하로 월 대출권수는 평균 4,500권이다. 가장 많은 이동도서관이 운용되었던 시기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14개 시군에서 34대의 이동도서관이 활동하였다. 2019년 말 광명시 이동도서관 차량 1대, 2020년 초 부천시 이동도서관 차량 3대가 폐지되어 2020년 현재 성남, 고양, 안산, 남양주, 안양, 의정부, 시흥, 의왕 8개시에서 20대의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 작년 한 해 45만명이 이용하여 98만 2천권의 대출실적을 올렸다. 도내 주요 시군의 이동도서관 역사를 살펴보면,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은 1992년 7월 '수원시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설치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시비보조금 1억 6천만 원으로 차량2대, 직원6명, 1만 2천여 권의 장서로 이동도서관을 설립하였고 연 대출권수는 2만 5천여 권이었다. 1994년 6월엔 차량1대를 추가 구입하였다. 1998년에는 연 대출권수 25만권으로 설립초기보다 대출권수가 10배에 달하고 차량3대, 3만4천여 권의 장서로 8명의 직원이 운영을 하였다. 2002년도엔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차량4대, 1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였고 2005년도엔 차량3대 8명의 직원으로 운영하였다.

수원시 관내 50개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순회 하였다. 관내 35개소 동 새마을문고, 4개소 단위문고와 연계하여 문고운동의 활발한 추진과 균형적인 문고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왔다. 도시화에 따라 이동도서관 이용인원이 줄어들어 2007. 12. 31. 수원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과감히 폐지하고 동 새마을문고 위주로 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컴퓨터, 서가 등 필요한 집기류 및 도서를 보강해주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새마을문고를 설치하여 41개 동 새마을문고, 아파트의 8개 단위문고를 운영하며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새마을문고가 완벽히 정착하게 만들었다. 2010~2011년에는 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47개소 새마을문고에 책 소독기를 구입하였다. 2013년엔 광교동 새마을문고를 개관하였고, 2015년도에 분동되어 광교2동 문고를 개관하여 49개소 문고가 되었다. 2015년에는 1억5천3백만 원의 예산으로 49개소 새마을문고의 도서관리 프로그램 전산통합망을 구축시켰다. 2016년 금호동이 분동되어 금곡동 문고를 개관하여 50개소가 운영되었고, 2017~2018년 이용률이 저조한 아파트의 2개소 단위문고를 폐관하여 현재는 48개소 문고에서 연 3억9천8백만 원의 시비보조금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문화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재능기부동아리,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맞벌이부모 아이 돌봄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은 성남시민의 독서생활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2. 10. 22.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동도서관차량 2대를 구입하여 성남시내 인구밀집 지역인 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 30개소를 선정하여 순회하기 시작하였다. 개관 당시에는 성남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및 공공도서관이 변변히 있지 못하는 성남 주변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와 지식을 제공하여 자기향상과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이 2000년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92년부터 2000년도까지 성남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 해냈다. 폭발적인 이동도서관 이용회원의 증가와

시민들의 요청으로 1994년에 35인승 차량 1대를 증설하여 운용하였으며 성남시의 권고로 1997년 35인승 차량 1대 추가 증설로 총 이동도서관차량 4대. 직원 9명이 운용되었다. 1997년에는 도서대출 업무를 수작업으로 했던 부분을 전면 전산화를 실현하게 되었으며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갔다.

2000년 이후 성남시 공공도서관이 개관되기 시작하면서 이동도서관의 이용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되었고. 전면적 작은 도서관 육성으로 인하여 존폐위기까지 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소재지와 거리가 먼 외곽지역부터 일반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선회함으로써 차별성을 갖추며 효율성 있게 운용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차량 노후화와 직원의 퇴사로 25인승 차량 1대를 폐관하여 총 3대를 운영이 되었고, 2013년 2월에는 노후 되어 있는 차량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외부후원을 받기 위하여 지회장과 문고회장의 노력으로 삼성에스원으로부터 25인승 차량을 후원받아 교체하였고 11월에는 35인승 차량 1대를 외부로부터 또 지원받아 2대를 교체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차량노후와 직원퇴사로 인해 차량 1대를 폐관하고 현재 이동도서관차량 2대, 직원 5명이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성남시민의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많이 갖추고 있다.

2014년도에는 장애우10명의 집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매월1회 도서를 대출 및 반납처리를 하고 있으며, 군부대요청에 의회 5월부터 10월초까지 군부대를 방문하여 1회 200명이 넘는 군 장병이 이용하게 하고 있으며, 이동도서관은 도서를 대출업무 뿐만 아니라 각종 독서지도강좌나 독후감경진, 교양도서 모으기 등을 포함하여 대민봉사를 하고 있다. 독서는 자기 자신을 계발시켜 학문적 성취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기능을 간접 경험하게 해서 사회를 진보시키는 핵심도구가 되고 있다. 선진국가 일수록 국민의 독서량과 독서습관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가치 또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서가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미루어 볼 때 이동도서관의 역할 또한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성남시 이동도서관은 지역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은 1991. 11. 15. 도비보조금 없이 시비보조금 3,700만원과 문고 운영위원 월회비와 특별기부금을 바탕으로 교통부에서 형식 승인된 이동도서관 차량 1대를 확보, 경기도 최초로 이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992. 11. 18., 1995. 9. 14.에 이동도서관 2호, 3호차를 증차하여 개관 당시 10개동을 순회하던 것을 37개동으로 순회시간도 늘려 순회 대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골고루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출된 책은 반드시 1주일 후에는 반납토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반납이나 전화로 연기 신청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미반납자에 대해서는 순회대출전후에 전화독촉을 하는 등 반납율이 98%에 이르게 되었다. 월말, 분기, 반기, 연말 통계를 작성하여 도서 및 대출, 반납 독자관리를 하고 있으며 장기 미반납 독자는 순회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해 독촉전화로 미회수도서를 최소화하면서 운영하였다.

무엇보다도 타시에 비해 이동도서관 중 제일 먼저 1994년도에 센터 및 이동도서관차량에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 및 설치하여 바코드 및 스캐너를 이용해 전국 어느 이동도서관보다도 먼저 전면 전산화를 실시했다. 순회대출 시에도 단순히 책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독서상담, 도서선택, 독서지도법 등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카드 사용이 끝나 재발급 시 신용도에 따라 우수독자임을 표기하여 주고 각종 행사시에는 10여명 이상의 우수독자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 독자의 사기진작을 꾀하여 왔다. 수집한 도서를 알뜰도서 교환전에 활용하고 또한 중국 연변의 조선족 소수민족학교와 군 장병에게 도서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안양지구서점조합에서는 매년 운영비 및 식대를 지원해주는 등 관내서점들과도 마찰 없이 상호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또한 이동도서관 차량 3대를 시정홍보 센터로 활용하여 행정기관과 시민사이의 교량역할을 하여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동도서관은 조례와 운영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시흥시새마을문고센터'은 1989. 7. 22.일에 개관하였다. 그 후 문고센터를 자

주 이용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새마을독서회를 구성하여 15명의 회원이 확보됨에 따라 1990. 2. 10. '새마을독서회' 창립총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1990년 8월에 행정기관으로부터 1,500만원의 지원을 약속받아 본격적으로 이동새마을문고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우선 차량구입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문고 임원 및 사무국 직원들의 자문을 받아 1톤 트럭을 구입 · 개조하여 이동새마을문고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차를 구입, 개조하여 1990. 9. 10. 약 1,500여권의 신간도서를 적재시킨 후 꿈에도 그리던 '시흥시이동새마을문고'를 갖게 되었다. 발대식 후 이동새마을문고가 1990년도에는 9개동 15개 지역을 순회하기 시작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후 회원은 500명, 1500명, 1700명 등으로 늘어 나갔다. 1996년 7월에는 도서 전산업무에 착수하기로 하고 회장의 400만원 기부금 및 운영위원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100%의 도서 등록 작업을 완성시켜 모든 문고 업무를 전산화 하였다. 1대의 이동도서관으로는 시흥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위문고를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1997. 6. 30. 광덕새마을문고를 설립을 시작으로 각 문고에 다량의 도서를 지원해 주는 등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왔다. 이후 차량은 25인승 콤비를 개조하여 2,500여 권을 적재하여 관내 17개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찾아가고 있다.

'광명시새마을이동도서관'은 1992. 11. 17.에 개관하였으며, 개관당시 차량 1대로 시작하였으나, 미 순회 지역에서의 이동도서관 순회를 요청함으로서 1995년 2호 차량을 증차하여 29개 지역을 매주 순회하여 왔다. 개관이래 4만 여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연간 4만 여명의 이용과 10만 여권을 대출하여 왔다. 1999년 4월부터 시작한 이동도서관 전산화 작업은 장서 및 회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도서를 제공할 수 있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제도와 예산상의 이유로 2019. 12. 31.부로 폐관하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광명과 더불어 부천시 이동새마을문고도 폐지하게 되었다.

이동새마을문고는 도서관의 상대적 소외계층, 접근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충전의 기회를 주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는 2019년 말 새마을작은도서관 204개, 독서동아리 35개, 차량 20대를 운영해 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지역 활성화 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추진 단위인 마을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여러 사업들을 통해 활력을 불어 넣어 살기 좋은 마을과 지역을 만든다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나 도농교류사업, 농촌일손 돕기, 방범이나 방역 등이 주요 사업이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극복을 위한 활동들을 통하여 마을과 지역이 모여 국가전체의 운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마을과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주민 가정들의 정착을 도와 다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마을과 지역에 활력을 넣고자 하는 사업들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나라경제 살리기, 나라경제 살리기 저축, 애국가락지 모으기, 10원 동전 모으기, 방범봉사대 활동, 방역봉사대 활동, 안전마을 만들기, 외국인며느리 친정부모 초청, 도농교류, 농촌일손 돕기, 휴경지 경작, 상자텃밭 가꾸기, 주말농장 운영, 마을 만들기, 특화거리 만들기,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구판사업 등이 있다. 새마을사업들은 서로 친분이 있고 안면이 있는 마을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다. 그런 면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은 마을과 공동체를 위한 필수사업인 것이다.

가. 경제 살리기 범 국민운동

'나라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 새마을운동'으로서 국가에 닥친 위기를 온 국민의 의지와 역량으로 극복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90년대 말에 닥친 IMF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몸부림이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IMF 사태' 직전인 1997년 11월에 '경제 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하였다. 이 운동은 점점 나빠지는 외환사정, 이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불황, 기업의 잇단 도산 등 경제가 밑바탕부터 흔들거리고 있었기에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식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추진되었다. 'IMF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었으므로 이제는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중앙협의회는 이 '나라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을 통하여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보릿고개를 넘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새마을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새마을회원들이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추진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자제, 향락산업의 만연으로 인한 호화사치 소비행태 근절 등을 역점 운동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고 호소하였다. 운동은 캠페인과 대대적 궐기대회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과제별 이벤트화, 지속사업화 등을 내세웠다. 이 운동은 나라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라는 자각과 검약정신의 생활 속 실천, 저축의 습관화,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 등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다.

'경제 살리기 범 도민운동'은 이미 1997년 초반부터 추진되었는데 경제위기가 점점 심화되자 각 지방자치 단체도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운동이 추진되었다. 경기도지부는 경기도(사회개발과)와 함께 공동협력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경기도는 1997년 5월에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한 특수시책으로 '저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군 우수사례발표' 등을 정해 추진하였다. 경기도지부는 이 경기도의 추진과제를 운동으로 이어갔다.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국가부도가 나기 직전인 1997년 11월에 경기도와 도지부는 '지역경제 살리기 범도민 실천운동'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살리기 새마을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외화절약운동, 에너지 절약운동, 재활용운동, 가정저축 운동'등이 추진되었다. '외화 절약운동'으로는 동전 및 외화동전 모으기, 서랍 · 장롱 속 남은 외화 환전하기, 외화통장 갖기, 해외여행 자제하기, 관광성 해외여행 및 해외 신혼여행 자제, 해외여행 알뜰하게 하기 등이 권장되었다. '에너지 절약운동'으로는 유류절약, 전기절약, 승용차운행 자제하기, 수돗물 아껴쓰기 등이 추진되었다. '재활용운동'으로는 새마을알뜰마당, 알뜰 김장시장, 아나바다 운동, 쓰레기 분리수거, 중고

상설매장 운영 등이 추진되었다. '가정저축 운동'으로는 1인 1통장 갖기, 물자 절약 및 생활비 씀씀이 줄이기, 과소비 추방, 국산품 애용운동, 검소한 연말 연시 보내기, 분에 넘치는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외식 자제하기, 과다 호화혼수 안하기, 고액과외 안하기 등이 추진되었다.

'경제 살리기 범 도민운동'의 목표는 도민들의 건전 소비생활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사치낭비와 과소비를 추방하여 알뜰한 가정경제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참여촉진과 홍보방법으로는 캠페인, 현수막 게첨,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 우수사례 집중보도 및 홍보, 사회지도층 참여 대규모 궐기대회 등의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이는 다중 집합장소에서의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모임에서의 의식교육 등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총 망라하고 있었다. 경제 살리기에 쓰인 주요 구호로는 '방치해둔 외화동전 경제회복 가름된다.', '땀 흘려서 이룬 경제 저축으로 지켜가자', '흥청망청 가정살림 흔들리는 우리경제', '무분별한 해외여행 눈물짓는 우리경제', '근검 하는 엄마아빠 절약하는 우리자녀', '어머니의 알뜰식단 우리경제 되살린다.', '외국담배 연기 속에 우리경제 질식한다.', '우리상품 애용하여 우리경제 살찌우자' 등으로 당시의 시대상황과 국민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 살리기 범 도민운동'은 '경제 살리기 100만인 서명운동'으로도 추진되었다. 도민들에게 경제위기를 올바로 인식시키고 스스로 서명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도민들이 실천하기 쉬운 것, 파급효과가 큰 것부터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가장 적합한 운동이었다. 이 서명운동은 IMF사태 직전인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월까지 모든 행사장과 다중 집합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106만 8,209명 서명되어 종료하였다. 이 서명을 바탕으로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가능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즉시 실천할 과제 44개'를 선정하여 도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본격적인 경기도 '지역경제 살리기 새마을운동' 1998년 1월부터 추진되었다. 도지부는 이 모든 원인이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 퇴조로 원인을

초래했다고 보고 국채 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아 정부 · 기업 · 국민 모두 공동운명체로서 함께 하자고 운동을 펼쳤다. 이 때 캐치프레이즈는 '소득은 1만 불! 소비는 3만 불!'로 정하여 분에 넘치는 소비생활을 자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 때부터 30만 경기도 새마을지도자가 '다시 해낼 수 있다.'는 정신으로 펼친 운동으로는 '100만인 경제교육, 국산품 및 우리 농산물 애용,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 동전(외화/원화)모으기, 지역경제 살리기 도민저축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결과 애국가락지 모으기는 1998. 1. 12. 현재 13,260돈, 3,419kg을 모았으며 지역경제 살리기 도민 저축운동은 당초 목표인 3천억 원 계약고를 훨씬 초과한 8,572억 원의 저축을 이루어 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다.

1998년부터는 본격적인 'IMF시대'로 악몽 같은 시기였다. 경제 살리기 운동 보다 시급한 일들은 기업부도 등으로 대량 실직자 들이 발생하면서 큰 사회위기가 초래되었다. 1998년 5월 중앙협의회의 '경제 살리기 새마을운동추진본부'는 새마을회원들이 앞장서서 챙겨 나가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새마을회원들의 상당수도 이 IMF사태를 피해 나갈 수는 없었다.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우선적으로 결식아동 돕기 '사랑의 점심 나눔'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8년 경기도(사회개발과)는 '우리 모두 힘 모아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경기도지부와 함께 1997년에 대대적으로 전개하던 경제 살리기 활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 7월부터 '범도민 고철 및 재활용품 모으기'를 범 도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잊혀져 가는 근검절약 정신을 재인식시키고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원자재수입 절감효과를 만들며 '폐자원 수거의 날, 버려진 자원 모으기, 숨은 자원 찾아내기 경진대회'를 이벤트화하여 추진하였다.

운동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여 추진하였다. '우리 마을 철근 5톤 찾아내기', '학생 1인 10캔 모으기', '우리아파트 고철 10톤 모으기', '페트병 1만개 모으기' 등을 추진하여 평가 및 시상하도록 하였다. 이는 가정과 직장 · 사무실, 농

촌과 도시 등 쓸 수 있는 폐자원과 버려질 폐품을 구분하는 교육효과도 있었으며 지도자와 주민은 모으고 행정은 수거 및 보상하며 일부는 공공근로와 연계추진하고, 자원재생공사 등과도 협력으로 추진하여 효과를 높여 나갔다.

소비절약과 저축, 국산품애용이 경제회생의 지름길이라는 의미에서 '도민 1인 1천원 절약하면 850만 경기도민이 1달에 2,550억 원, 1년에 3조1천2백억 원을 절약하자는 운동도 병행하였다. '지금의 경제난국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실천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추진하여 해외여행 자제하기, 외화 되팔아 저축하기, 10%더 저축하기, 우리 것 먹고 쓰고 입기 등과 승용차부제 및 카풀제, 전기절약, 수돗물 아껴 쓰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치성 수입의류 자제하기, 사치성 승용차구입 안하기 등등 아주 기초적이고 늘 추진하던 운동들을 재강조하며 추진해 나갔다.

실직가정 돕기 '사랑의 오뚝이캠페인'은 1998년 9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추진되었다.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겨울을... 사랑의 점심 나눔 운동'은 실직가정에 부족한 쌀, 김장, 월동용품 나누기로 실직가정에 희망과 용기를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자는 인보활동이다. '실직가정 돕기 경기도추진위원회'는 이 활동을 '제2건국운동' 차원에서 범 도민운동으로 추진하였다. 이 활동으로 경기도지부는 도내 486읍면동에서 쌀 240,800kg, 김장 191,486포기를 지원하였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경제상황으로 1998년 10월에는 도내 1만 가구 돕기를 통해 실직가정 겨울나기 이웃사랑 실천과 국민적 자신감회복에 앞장서며 운동을 추진하였다.

1998년에는 도내 486읍면동의 6,500가구에 가구당 김장 10포기, 가구당 쌀 20kg, 가구당 책 1권 등을 지원하며 희망을 갖도록 용기를 제공하였다. '실업극복은 국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한 이 '사랑의 오뚝이 대행진'과 병행한 사업은 'ARS모금', '저금통설치' 등도 추진되었다. 소외된 계층에 사랑을 베푸는 이웃사랑의 정이 IMF이후 감소하고 있어 우리의 꿈나무인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자활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이 겨울방학동안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결식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새마을가족이 앞장서서 이들에게 따뜻한 정과 사랑이 담긴 점심을 마련하

여 나눔으로써 밝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어린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실직가정과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되도록 읍면동별 3명씩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점심나눔과 학용품지원, 마음을 함께하는 운동되도록 하였는데 경기도는 1,456명을 대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였다. 소년소녀가장 부모되어주기, 결식아동에게 점심지어주기, 밑반찬 및 부식전달, 월동용품, 학용품, 놀이기구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나. 지역경제 살리기 범 도민 저축운동

1) 경제 살리기 저축운동과 새마을운동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는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 요청을 했던 1997년 12월 3일에 시작되어 2001년 8월 23일까지 약 3년 9개월의 긴 시간 동안 새마을운동을 통해 어렵게 쌓아 온 경제기반을 무너뜨리며 위기가 이어졌다. 이 'IMF 사태'는 경제파탄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었으며 국민들 가슴에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IMF사태' 이전인 1996년부터 닥쳐오는 경제위기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경제살리기 새마을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7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새마을운동은 'IMF사태'가 경제위기이지만, 1970년에 시작한 새마을운동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배고픔에서 막 벗어나 1만 불 소득과 OECD가입 등에 고무되어 먼저 터뜨린 샴페인을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은 이 국가적 위기를 새마을운동 회복을 통해 극복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실천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7. 3. 27. 중앙회장단 회의를 열어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국가의 빚이 너무 늘어나자 '신 국채보상운동'으로 '국민저축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에 대구에서 발단된 주권수호 운동으로서 전 국민이

합심하여 일본에 대한 국채를 갚기 위해서 벌인 국민운동이다. 이 국채보상 운동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후원으로 4만여 명이 5월까지 추진하여 230만환을 모금하였다. 여성들은 패물을 헌납하였고 서울과 평양, 일본유학생도 호응하여 국채를 갚는데 모두의 힘을 합하였다. 이에 중앙협의회는 이 국채보상 운동 정신을 이어 받아 '신 국채보상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1997. 4. 22. "새마을운동 제창 27주년"을 계기로 "300만 새마을가족, 3조 저축운동"이라는 다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 경제구조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지만, 본질은 국민들의 사치, 낭비, 과소비, 지나친 제몫 찾기의 만연, 지역이기주의 난무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었으며 새마을정신을 벗어난 이유라고 보았다. '소득은 1만 불, 소비는 3만 불, 국민정신은 1천불시대'처럼 행동하는 정신적 황폐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정부도 경제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민운동차원에서 국민적 정신개혁운동이 더욱 시급하다고 진단하여 국민적 각성, 국민적 의지가 주요하다고 처방한 것이다. 결의 후 중앙협의회는 신속하게 1997. 4. 3. 시도지부에 운동 목표와 방향, 운동추진 요령을 담은 지침을 시달하면서 '경제 살리기 저축운동'이 시작되었다.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천만 저축운동'이었다. 1997. 4. 8.에는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의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나서 중앙협의회는 1997. 4. 9. '국민저축운동 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게 되었다. 이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전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설정된 목표를 향해 구국의 일념으로 대 국민 참여 설득에 나섰다. 1997. 4. 10.에는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저축운동을 '3 · 3 · 3 · 3운동'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300만 새마을가족이 한 달에 3만원씩 3년 정기적금을 들어 3조원을 저축'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경제 환경으로는 목표 달성이 다소 무리인 상황이었다. 이 운동을 보다 신속히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중앙협의회는 1997. 4. 14.에 국무총리, 내무부장관등과 저축운동 가두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총리와 장관도 현장에서 경제 살리기 통장에도 가입하

였다. 1997. 4. 14.에는 조흥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과 제휴하고 1997. 4. 16.부터 저축상품 발매를 시작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을 추진하였다. 중앙협의회는 전국 지자체 · 기관 · 단체 · 기업체 등에 '경제 살리기 저축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나라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KBS,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신문사, 한일은행과 공동주최와 전경련, 경총 및 시민단체 공동 후원으로 추진하였다.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추진' 상황실은 각 지방이 원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였으며 중앙은 물론이거니와 시도 이벤트행사에 언론이 대대적으로 협조해 주도록 노력하였다. 상황실은 석종윤, 정행길, 권영선 회장 등 중앙 단체장이 진두지휘하도록 하였다. 각 시도별 결의대회, 캠페인, 저축상황이나 우수사례 등은 KBS기획보도 등, 언론 인터뷰 및 홍보로 확산시켜 나갔다. 알뜰소비, 절약, 저축 등 건전 경제생활운동과 생산성 향상운동, 국산품애용운동 등 새마을가족이 앞장서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을 집중 추진하여 실천운동으로서의 국민적 실천과제와 캠페인 · 구호를 제시하였다.

'IMF 경제회생 수출지원 통장'에 가입된 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우대금리로 최우선 지원하여 중소기업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통장 발매 후 공익 저축상품이 대대적으로 발매되어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저축운동 추진되기도 하였는데 그 종류도 다양했다. 통일적금, 1천만가정한마음통장, 군인1통장 갖기 운동, 독도 살리기 통장, 통일알토란부금, 남도사랑통장, 지역경제도우미통장, 컨벤션센터주주통장 등 지역과 단체 실정에 맞는 저축운동이 진행되었다. 이 운동을 위해 중앙협의회는 범국민 호소문을 내고 '300만 새마을가족 3조 저축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3천개의 기업을 살리자','지금 시작하면 4,500만 국민운동이 됩니다.'라는 구호로 대 국민설득과 참여를 호소하면서 저축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4월중으로 조기에 3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리 녹록하지는 못했다.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하여 1997. 8. 14. 현재 저축계약고

5조원을 돌파하여 168%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축 3조면 1억씩 3만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이었다.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 추진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결국 'IMF 사태'는 오고야 말았다.

'IMF사태' 극복을 위해 제일 먼저 추진한 운동은 '신 국채보상운동'인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온 국민이 장롱 속에 있는 아기 돌 반지를 가지고 나오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시키게 되어 조기에 'IMF사태'를 극복하는 모범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새마을운동은 '경제 살리기 저축운동', '애국 가락지 모으기' 이후에도 '10원 동전 모으기', '모아보자 캠페인'등 다양한 범국민운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갔다.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에 이어 온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경제 살리기 저축운동'은 '한강의 기적' 못지않게 위기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어 낸 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의 저력은 참으로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을 또 해낸 것이다.

2) 경기도지부의 저축운동

국민 저축운동의 주역인 경기도지부는 1997. 4. 7. 신속하게 시군사무국장 회의를 소집하여 구체적 실천방안 시달하면서 구체적인 시군 목표를 제시해 주고 실천을 독려하였다. 다른 운동들은 좀 자율에 맡기지만 이 운동은 시급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약간의 독려가 필요하였다. 도지부는 '셋 넷(3 · 3 · 3 · 3)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30만 새마을가족이 한 달에 3만원씩 3년 동안 적립하여 3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즉, '30만 새마을가족 3천억 저축운동'으로서 중앙회 전국목표의 10%에 달했다. 임완수 도지부회장과 회원단체장들은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며 달성방안을 강구하였고 회원단체별로 시군을 독려하였고, 회장단 및 지도자 개인별 목표까지 부여하며 박차를 가했다. 도지부는 도내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이 운동을 공동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시기 여성단체협의회도 '경제 살리기 천만가정 한마음통장'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였다.

경제위기는 경제구조 못지않게 국민적 정신의 황폐와 나태, 자만이 본질이

라는 생각으로 깨어있는 경제 살리기 의식이 필요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 정책적 노력은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각성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이 절실하였다. 절약정신은 선진 국민의식의 기본이지만 구호만으로 살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저축운동을 경제 살리기 실천과제의 첫 걸음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운동의 근원은 일제시대의 '국채보상운동'이고, 새마을운동 초창기 '좀도리(좀덜이)운동'의 복원이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이 저축운동을 통하여 범 도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고 건전소비생활관을 정립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경기도지부는 1997. 4. 23. 안양문예회관에서 도내 새마을지도자 1,700명이 모인 가운데 새마을운동 제창 27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 도민저축운동(지역 경제 살리기 도민통장)을 추진하자는 '경기새마을 3천억 결의대회'를 열며 의지를 다졌다. 캐치프레이즈는 '나라경제가 어려우면 가정살림이 어려워집니다.'라고 정해 도민의 저축운동이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며 이 운동에 매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저축운동의 성과를 위해 도민 참여를 위한 구호를 만들어 홍보하였는데 '다시 뛰는 우리경제 저축으로 밀어주자, 국채보상 정신 살려 우리경제 되살리자, 저축 앞에 가난 없고 낭비 뒤에 부자 없다, 내가 맡긴 작은 저축 살아나는 지역경제, 한 푼 두 푼 모은 저축 경제회생 보약된다.' 등이었다.

1997. 5.에는 도지사와 시군 부시장 · 부군수 들이 모인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추진 상황보고회'를 통하여 추진상황과 적극참여를 독려하였다. 도지부는 경기은행과 11.5%의 적금 금리를 약정하는 등 도내 여러 금융기관들과 통장발급 제휴를 맺으며 제휴은행들을 확대해 나갔다. 시군에서는 알뜰교환시장, 농산물 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병행하여 건전한 도민정신 함양과 도민 역량결집으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캠페인과 알뜰소비, 근검절약, 저축 등 건전 소비생활과 저축의 '도민 경제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직장과 공장에서는 근면정신을 바탕으로 일 더하기, 노동의 질 높이기 등의 한 '생산성 향상운동', 자조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도민들은 우리

것 먹고 쓰는 '국산품애용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는 해이해진 새마을정신의 복원과 실천. 확산이 타개책임을 신념화하도록 한 '경제 새마을운동'이었다.

실천과제 중에는 '하루 1천원 아끼기(1인 1일 $1 절약운동),' 한 달이면 3만 원, 반찬 값 1천원 절약하여 좀도리 통장에 적립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도 실천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수단들과 목표들이 총 동원되었다. '1지도자 10구좌 모으기 운동'으로 3만 지도자가 30만 구좌를 가입하여 3,8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1마을 20구좌 가입운동'으로 도내 13,000리 통이 참여하면 26만 구좌를 가입하여 3,3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으며, 도내 '새마을가족 1인 1구좌 가입'으로 30만 회원 1구좌씩 가입하면 3,800억 원을 가입할 수 있다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독려하였다. 도회장단들은 '1일 명예은행장'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캠페인을 펼쳐 나갔다.

그러나 저축운동은 생각보다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1개월씩 더 연장하였고 보다 강도를 높여 나갔다. 5월 21일에는 1천억 원 달성, 6월 12일에는 2천억 원 달성, 드디어 6월 19일에는 목표인 3천억 원을 돌파하여 3,286억 원을 달성하였다. 1997. 3. 27 시작한 이 저축운동은 12월 말에 계약고 8,572억 원을 저축하여 당초목표인 3천억 원을 훨씬 초과하여 285%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 결과는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을 받아 자체회관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었다. 경기도지부는 1997. 9. 29 도 문예회관에서 5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 전국1위 평가대회'를 열고 평가와 시상, 사례발표를 하면서 격려와 보람을 얻게 되었다. '30만 새마을가족의 3천억 원 국민저축운동' 달성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큰 밑거름이 되었으며 새마을회원들의 보람으로 길이 남게 되었다.

3) 새마을운동 제27주년에 즈음하여 [언론 광고문]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아직도 새마을운동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북한동포는 가난에 시달려도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8조원을 버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나홀로 차량은 약 80%에

해당합니다. 내 집안은 깨끗해도 내 집 앞은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은 대접받고 봉사자는 외면합니다. 저축한 돈은 없어도 외식할 돈은 있어야 합니다. 나라경제는 반드시 살려야만 합니다. 가난과 무지로부터 탈출을 이끌어 낸 새마을운동! 아름다운 환경과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가는 새마을운동! 우리민족 자자손손 민족정신으로 남을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갑시다."

30만 지도자 3천억 원 저축운동

1907년 구국운동의 하나였던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에 항쟁하며 나라경제를 살려 냈습니다. 그 정신을 새마을정신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목표액 : 3천억 원(238,095구좌), 1997. 4.21~30, 새마을지도자 및 도민, 1인 1구좌 개설하기(3만원 3년 이상 적금)

지역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 결의대회, 1997. 4.23, 안양시문예회관,

취지문낭독, 사례발표, 웅변, 특별강연, 알뜰 벼룩시장, 저축홍보, 결의문채택 등

도지부 회장단 : 임완수, 신현철, 김선규, 조정환, 권태욱, 이관진

시군 회장단 : 수원 고석진, 성남 장두영, 의정부 윤창현, 안양 현광일, 부천 김계월, 광명 오현척, 평택 황대영, 동두천 김경수, 안산 김봉식, 고양 김도원, 과천 석용훈, 남양주 조호능, 오산 황갑룡, 시흥 전광옥, 군포 심재극, 의왕 김기담, 하남 한상필, 용인 윤한기, 파주 한 교, 양주 김상헌, 여주 이종만, 화성 권혁호, 연천 김정갑, 포천 김성균, 가평 성창모, 양평 권태룡, 안성 이성주, 김포 성덕경

다.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과 경제살리기 1천만 서명운동

1) 경제위기 극복의 기폭제가 되었던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

1997년 'IMF사태'직후 새마을부녀회가 추진한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은 국민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매우 성공적인 실천사례였다. 전국의 부녀지도자들이 근검 · 절약정신으로 '나라 살리기 운동'을 앞장서 실천함으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며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 기폭제

의 역할을 잘 수행해 냈다. 'IMF사태'가 터지자 새마을부녀중앙연합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한 끝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가락지를 헌납하여 나라를 구하자고 결의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은 늘 "쉬운 일부터, 작은 일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지금부터, 나부터"해 온 운동이므로 의지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97년은 외환부족 등의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이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기가 날로 높아지던 시기였는데 결국 1997. 12. 3에 'IMF사태'라는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 무렵 우리나라의 한 해 금 수입에 지출되는 외화는 약 60억불 정도였고, 가정마다 장롱 속에 비상자금으로 간직하던 금이 약 2천 톤(200억불 상당)에 달한다는 예상을 하고 이를 국민들로부터 이끌어 내 우선 국민의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점에서 이 운동이 추진되었다.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은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는 1997. 12. 10.(수) 11:00에 시도시군구 회장 345명이 서울 한 복판의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 모여 1997년도 평가대회와 병행하여 가락지와 금붙이 · 외국동전 등을 헌납하는 행사를 벌였다. 처음에는 헌납으로 이루어졌지만 지속적이고 범국민적인 참여를 위해 시가보상 방식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작은 행사는 언론에 크게 부각되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주도하고 정부와 기관 · 단체 · 기업 · 개인 등 전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은 1996년부터 시작한 '경제살리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지만 전 국민이 참여하는데 불을 붙이는 쏘시개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이 운동이 우리 사회 각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자 중앙협의회는 1997. 12. 13.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추진방침 시달을 통해 시도에 전달하고 범국민운동으로 확대해 전 국민 참여 열기를 조기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법을 시달하게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중앙협의회는 한국경제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주관으로 범국민경제위기 극복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온 국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새마을부녀회가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당시의 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2)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 추진 취지

최근 외환부족 등의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적 위기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 기업 ·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되어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열심히 일하며 근검절약을 체질화 하는데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절실히 요청되며 특히 이러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으기 위한 구심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의 초석이 되었던 새마을지도자들이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에 적극 앞장 서 경제난국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동시에 "다시 뛰자!"라는 국민적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 넣는데 새마을운동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자 한다. 특히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서는 경제 살리기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과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구한말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되살려 '장롱 속 숨어있는 아기 돌 반지' 하나라도 모아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한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은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신국채보상운동의 성격으로 여기에는 무엇보다 사회지도층 여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그 실천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3) 경기도의 '가정의 금붙이 내다팔아 저축하기 운동'

중앙회의 방침이 정해졌고 이제 각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리통까지 도민

들을 참여시키는 몫은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에게 부여되었다. 이에 도지부는 가장 빠른 시기인 1997. 12. 23.에 수원시내 시범캠페인을 시작으로 범 도민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도지부는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우리경제 살리기를 위한 나라사랑 금붙이 모으기 운동'으로 명명하여 추진하였다. 경기도의 총 목표는 1만돈 이상, 각 동별 500명 이상 참여가 목표였다. 이를 위해 각 읍면동과 리통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지역의 저명인사, 사회지도층, 주민, 학생 등 참여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지부는 도내 일간지 등을 통하여 "우리 경제를 살립시다.", "나라사랑 금붙이 모으기 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였는데 당시 광고에는 이 운동은 구한말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금가락지를 팔아 국가 빚을 갚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아기 돌 반지 하나라도 내다팔아 나라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애절함으로 도민들에게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호소하였다.

1997. 12. 26.에는 경기도 · 중부일보사 후원으로 경기도청 세계관에서 새마을회원 450명, 도청직원 492명 등 942명이 참여하여 "가정의 금붙이 내다팔아 저축하기"운동 시범행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장에서 금3,750돈(반지 2,569돈, 목걸이 225돈, 팔찌88돈, 기타 귀금속 838돈), 현금 150만원이 모아지는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다. 당시 금1돈의 값은 4만원에 책정되었는데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의 금붙이는 당일 시중금가에 따라 매입가를 결정한 후 '금붙이 매도 계약서'를 작성 후 거래하였으며 매도 후 '경제 살리기 저축'통장으로 입금하여 조금이라도 기업회생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공직자들과 도시군 새마을 임원들이 앞장 서 모범을 보인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 시범행사를 출발로 하여 전 시군구에서 도민의 역량과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운동을 적극 확산시켜 나갔다. 수집대상으로는 '개인소지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비녀 돌 반지 및 모형금붙이' 등 금붙이는 물론이거니와 '장롱 속 아기 돌 반지' 등이었다. 매도 금붙이 중 24k 순 금류는 판매위탁하고, 14k,18k 등 합금류는 헌납하고 배지나 기념품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수집대상에는 금붙이와 병행하여 외화 및 동전 모으기도 병행하였는데 매입하는

금붙이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사에게 평가받도록 하고 접수된 금붙이는 새마을금고에 보관하였다. 행사장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도 배치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금붙이 모으기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지역 축제로서 주민들이 모이는 계기를 통해 가훈 써주기, 새마을활동 사진전 등 각종 부대행사 등이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후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은 종전대로 '경제살리기 새마을운동'의 하나로 1998년 말까지 추진하였는데 '경제살리기 새마을운동'의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참여촉진을 위한 캠페인으로 '현수막 게첨, 사치낭비 과소비추방 캠페인, 외화 되팔기, 외화 동전 모으기, 저축배가운동, 에너지 절약'등으로 이어나갔으며, 주민계도 및 홍보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에 협조하여 '1언론사 1캠페인 유도, 홍보물제작지원 배포'등 지속적인 운동을 추진하였다.

'경제살리기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주민 축제의 장으로서 '우리 경제 살리기 실천 100만인 서명운동, 알뜰김장시장 개설운영, 새마을상설알뜰매장 운영' 등도 동시에 추진하여 분위기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추진하였다.

3) 나라사랑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의 의미

초기 애국가락지 매입현장은 그 열기가 대단하였는데 심지어 매입자금 부족으로 매도자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은 중앙 및 지방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적극 알려지고 홍보되어 범국민 참여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경기도는 지방지 1면 하단 광고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 도민참여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집중 홍보하였다. 이 운동은 직접적으로는 외화지출을 줄이는 효과와 나라의 위기에 동참함으로써 애국심 제고, 경제난국 극복에 범도민 참여 및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IMF사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뼈아픈 일이지만 경제위기를 국민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의지와 결집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각 가정에 사장되어있는 '금붙이 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 경제 살리기에 새마을

가족이 앞장서자는 각오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1998년 초부터 대대적으로 확산된 이 운동은 자율적 실천운동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적 자각과 의지 결집, 다시 뛰는 활력분위기조성, 범국민참여운동 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수출기업 등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전국의 시도, 시군구 단위로 추진된 이 운동은 시군구별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였으며, 거래은행과 금은 매수업체를 선정하고 가락지를 현장에서 현금화 한 후 통장발급 또는 참여자 계좌에 입금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모아진 가락지는 모두 현금화 시킨 뒤 본인 명의의 '경제살리기 통장'에 입금 되었는데 이 통장은 3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적금의 불입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자금을 빌려쓰도록 국민의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가락지모음 창구는 상설 또는 주1회 모음의 날로 정해 정례화하였으며 많은 직장, 단체 등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 중앙협의회는 애국 가락지 모으기와 함께 한경, 대한상의 등과 공동주관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라. '10원' 동전 모으기와 '모 · 아 · 보 · 자'

새마을사업 중에서 새마을회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중에 하나는 '근검 · 절약'운동이다. 근면하고 검소하며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다. '좀덜이(좀도리)저축운동'을 시작으로 '1인 1통장 갖기',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 '재활용품 수집', '숨은 자원 모으기', '3R(절감, 재활용, 재사용)운동 등이 대표적인 절약운동인 것이다. IMF사태를 겪으면서 나태해진 국민들의 경제관념을 바꾸어 새롭게 재도약하자는 의미의 활동들이 추진되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를 위해 '모 · 아 · 보 · 자 국민대행진-10원 동전 모으기 사랑의 팡파레'라는 운동을 추진하였다. '모 · 아 · 보 · 자'는 '모으자, 아껴 쓰자, 보듬자, 자제하자'를 구호로 표현한 것이다. 잠자고 있는 외화를 깨워 '모으자', 에너지가 달러다.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자',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자', 해외여행 좀

더 여유 있을 때까지 '자제하자'는 캠페인이었다. 이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헌 옷을 모아 다시 쓰고, 다문화가족을 돕고 해외여행을 좀 참자는 운동이었다. 중앙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희망 저금통을 나눠주고 모으면서 '100만 희망 저금통 모으는 기쁨, 보듬는 손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 세웠다.

한편 경기도지부는 '모 · 아 · 보 · 자'의 대표사업으로 아무 쓸모없고 관심 없는 10원 짜리 동전 모으기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다시 근검절약 정신을 불어 넣어주고, 읍면동 사업비도 충당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자 대대적인 10원 짜리 동전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연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미 10원 짜리 동전은 경제활동에서 거의 가치가 없는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10원 짜리 동전을 구석에 방치해 놓는다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액면가는 10원이지만 10원 짜리 동전을 주조하는 데는 오히려 주조비가 38원이나 소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지부는 도내 새마을지도자 등 회원들이 앞장서 동전을 모은다면 '티끌모아 태산'이 될 것이라는 착안으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10원 짜리 동전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새마을정신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치 없는 동전이라 생각하고 방치해 버리는 동전이지만 잠자는 동전을 모아 다시 유통하면 국가경제에도 큰 이득이 된다는 점에서 '모아보자'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다. 10원 짜리 동전을 모아 '불우이웃을 도움으로 이웃까지 훈훈한 정을 나누며 살맛나는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화폐의 소중함과 근검절약을 실천하며, 주조를 위해 수입해야 하는 외화를 절약하고,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었다. '모 · 아 · 보 · 자 도민대행진' 10원 짜리 동전 모으기 사랑의 팡파레 5개년 사업이었다. 사업의 캐치프레이즈는 '나누는 보람, 함께하는 기쁨'으로 정하고 모아진 동전은 모두 시군에 돌려주어 시군별로 불우이웃돕기 사업비로 쓰도록 하였다. 2006년 첫 해의 목표는 2천 5백만 원이었다. 1명의 지도자가 10원 짜리 동전 10개씩만 모으면 25만 경기도새마을회원들이 2,5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정한 목표이었다. 동전 250만개를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고 도민들이 참여한다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한 것이다.

첫 번째로 모아진 동전들은 2006. 11. 17. '동전 집하식'을 열고 시군별로 보내 온 동전들을 세어 나갔다. 한국은행경기본부의 후원으로 동전의 무게를 달고 세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첫 해 성적은 목표액에 조금 부족한 2,254만원 이었다. 다음 해인 2007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여 얻은 결과는 2,711만 8,000원 으로 지난해 보다 목표액을 조금 상회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작은 동전들이 모여 조성된 금액은 동전 주조를 위해 수입하는 1억 847만 2,000원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로 이어졌다. 두 해 동안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경기도지부와 시군지회는 2008년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3,044만 5,700원을 모았다. 이는 동전 304만 4,570개로서 약 12.2톤 무게에 상당하였다. 참으로 대단한 성과였다. 버려진 10원 동전의 위력이 실감되는 순간이었다. 2009년도에도 '모 · 아 · 보 · 자'도민대행진은 계속되었다. 2009년에는 '희망담기 저금통 모으는 날'을 정하여 수시로 저금통을 모았다. 이를 위해 '모 · 아 · 보 · 자'국민대행진을 위한 희망 저금통도 보급하였다. 목표는 2,262만 8,000원이었지만 결과는 4,098만 9,350원으로써 181%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2010년은 5년차로서 마지막 캠페인이었다. 모금은 예년처럼 목표를 훨씬 상회한 3,926만 2,140원이 모아졌으며 이는 10원 짜리 동전 392만 6,214개, 무게로는 약 15.7톤에 달하였다. 경기도지부의 '10원 짜리 동전 모으기'운동은 도민들에게 인상 깊게 작용하였고 높은 실적도 달성하여 모아진 자금을 시군으로 배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 크게 활용되었다. 10원 짜리 동전의 생각보다 큰 저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업은 새마을사업의 추진 방법인 '쉬운 일부터, 작은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지금부터, 나부터'를 검증해 주는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십시일반이지만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준 모범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 방범봉사대 및 안전지킴이 활동

'새마을방범봉사대' 활동은 마을과 지역 내에서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사고를 미연방 방지하도록 하는 순찰활동이며, 지역 내 학생들의 늦은 귀가를 안전하게 돕자는 차원에서 구성 · 운영되는 특별활동이다. 이 활동은 새마을운동 초기에 농촌에서 '야경'등의 활동으로 추진하던 것을 도시지역에 적용하여 추진하는 범죄예찰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사회가 혼란해 지면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면서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마을이나 도시의 골목과,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예찰활동을 펴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는데 '1봉사대 1학교 책임제, 청소년 선도 방범봉사대, 청소년 선도대 등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술 · 담배 안 팔기, 전자오락실 사행성 오락행위 않기 지도, 청소년에게 불량서적 · 불량영화 · 불량비디오 안 팔고 안보이기, 미성년자 혼숙 안 시키기, 영업시간 위반 안하기,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는 규정준수하기 등의 계도를 병행하였다. 봉사대의 활동은 주로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환경순찰, 질서계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범도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학교 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1997년부터는 학교폭력 근절, 유해환경 정화, 학교주변의 탈선 · 비행 · 폭력행위 순찰 및 단속,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개발시행, 유해업소 계도 · 정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1998년에는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학교주변 지도 · 계도활동, 순회 지도를 강화하고, 봉사대의 예찰활동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학교와 학교, 학부모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부모에게도 모범을 보이도록 '부모 몫 다하기 운동'을 병행하였다. 이는 학교 폭력의 가장 크 책임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전제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행동요령이었다. 밖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모범보이기로서 '고운 말 · 바른 언행 보이기, 청소년을 내 자녀 같이 돌보기,

미래지향적 사고와 계획 실천하기' 등이 제시되었으며 가정에서는 '하루 한 번 이상 가족과 식사하기, 하루 10분 이상 자녀와 대화하기, 하루 한 번 이상 자녀 칭찬하기'등을 제시하면서 계도활동을 펼쳐나갔다.

절정에 이른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범대도 보다 강화되어 2008년에는 '1봉사대 1학교 방범봉사대'활동을 통하여 215개 방범 봉사대 4,059명이 참여하여 1,932건의 안전 조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후 2004년부터는 방범봉사대를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로 바꾸어 활동하였는데 이는 노인 등 소외계층을 돌보는 활동까지 겸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자녀 안심귀가 서비스, 2012년에는 어린이 성폭행, 묻지 마 범죄 예방, 2012년에는 민 · 관 합동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정화활동 등을 추진하면서 시대분위기에 맞도록 운동을 추진해 왔다.

'안전마을 만들기'는 4대악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등을 지정하고 이를 근절시키는 '안전지킴이'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등 · 하교 도우미, 야간순찰활동 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안전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지역 내 주민자치회, 녹색어머니회, 지구대, 방범청소년단체 등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보다 촘촘히 살피게 되었다.

바.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

'새마을방역봉사대'는 남성 새마을지도자들의 하절기 대표적 사업이다. 봉사대는 매년 시군별로 5월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구성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활동지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읍 · 면 · 동을 중심으로 주택가, 습지, 하수구, 이면골목 등 해충이 왕성하게 번식할 수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집중방역을 실시하기도 한다.

'새마을방역봉사대'는 여름철 지역 내에 수해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가 방역활동을 펼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타 지

방에 발생한 수해복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또한, '새마을방역 봉사대'는 수해가 발생한 지역에 출동하여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방역 작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1999년 고양 · 파주지역, 2010년 동두천지역 대수해 때 경기도새마을 소속 전 방역봉사대와 장비가 출동하여 집중 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2017년 충북 수해 때에는 안양, 광주, 파주 등이 대대적인 방역반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방역봉사대는 읍 · 면 · 동별 10명 내외의 봉사대원과 방역차량, 자동연막기, 수동연막기, 분무기 등으로 구성된다. 방역차량은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도로변 지역을 담당하고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은 방역대원이 수동연막기를 메고 골목길을 담당하며, 분무기는 물 고인 웅덩이나 하수구 등 모기가 산란 · 번식할 수 있는 지역을 방역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 사업은 시군 보건소와 협조하여 방역약품 등의 물품지원과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건강하고 병충해 없는 마을을 가꾸기 위해 매년 운영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이 한창 성행할 때에는 350여개의 봉사대와 3천여 명의 대원, 200여대의 방역차량, 350여대의 자동연막기, 230여대의 수동연막기, 500여대의 분무기로 하절기 마을 방역에 종사하였다. 차량이 부족한 경우 개인 소유 오토바이에 연막기를 싣고 방역을 하기도 하였다. 1회 방역 거리는 도회지 지역은 10㎞ 내외, 농촌 지역은 30㎞를 넘는 경우도 있다. 1개 봉사대가 하절기 동안 방역에 참여하는 횟수는 적게는 20회, 많게는 50회 정도 참여한다. 이 사업은 매우 위험한 사업으로 1993년에 오토바이에 연막기를 싣고 동네 방역활동을 하던 안양의 새마을지도자 한분이 방역기 화재로 사망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이 차량사고, 연막기로 인한 화상, 낙상 사고 등을 입기도 하였다. 이후 자치단체에서는 방역업체에 경비를 주고 용역으로 점차 전환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 없이 자원봉사로 활동을 추진해 왔던 봉사대원들로서는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

'새마을방역봉사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방역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2019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창궐하였을 때는 휴

전선 인근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등에서 밤낮없이 열병의 남하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지켜내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인체감염으로 전염되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이 잦아져 활동량이 많아지고 있다. 2012년 11월 중국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병한 사스를 비롯하여 신종플루, 중동의 메르스, 2020년 초부터 발병한 중국 우한지방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확산방지에 새마을방역봉사대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한 방역활동은 방역봉사대는 물론이거니와 도내 전 지도자들이 지역별로 병역활동을 펼쳐나갔다. 도내 동시 일제방역과 다중집합시설, 공공시설, 버스정류장 등 읍면동별로 집중 방역활동을 실시해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 외국인 며느리와 새마을부녀회 결연

경기도새마을회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과 외국인 며느리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왔다. '외국인근로자 경기사람 만들기', 'I Love Korea', '외국인 며느리 새마을교육', '결혼여성 이민자 주부 친정부모 초청', '재한외국인 생활체험 수기 공모전', '외국인 주부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정착 지도자 교육'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중앙회가 주도하여 경기도지부가 참여하는 형태와 독자적 추진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중앙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999년부터 추진한 '외국인 근로자 경기사람 만들기'프로그램은 도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내 문화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문화와 풍습을 접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빠른 사회적응을 돕고 근무의욕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도움으로 언어와 풍습이 다른 외국인들이 각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군별 문화유적지를 돌아가며 답사하여 지리와 문화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각 업체에서 외국인 근

로자들을 모으는 일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산발적인 단년도사업으로 추진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도내 외국인 며느리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외국인며느리, 외국인 주부, 결혼이민자. 외국인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며 한국생활 정착에 큰 애로를 겪게 되었다. 그들은 각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낯선 문화와 언어적 장벽을 겪게 되어 정착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도지부는 외국인 며느리들이 경기도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다. 며느리들은 이미 한국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음에도 언어, 문화 등 많은 장애와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지역마다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며느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운동이 추진되었다.

2005년부터 이주 외국인 주부를 위한 'I Love Korea' 프로그램은 중앙회와 시군지회가 협력하여 추진한 프로그램으로서 '농어촌 외국인 주부의 한국적응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으로 시집 온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경기도는 시 단위에서도 추진되었다.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위주로 수지침 등의 생활교육도 같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시군에서 준비하면 중앙회에서 나와 진행해 주는 형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시군별로 많은 인원을 동시에 모으기가 어려워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중앙회는 2009년부터 'I Love Korea'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이주 외국인 주부를 위한 프로그램인 '다문화교육'을 기획하여 전담부서까지 만들고 일선 시군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는데 강의와 오락, 영상물시청과 문화체험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친정어머니처럼 돌봐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다문화 가정주부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

중앙회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에서 총98회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지부는 이 중 16회를 실시하였다. 2009년도에는 남양주, 안산, 안성, 고양,

성남, 수원, 시흥에서 추진하였는데 성남, 화성, 용인, 안산 등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취업안내까지 해 주었다. 2010년도에는 안양과 평택, 2011년도에는 광명, 김포, 파주에서 추진하였으며 2012에는 광주, 부천, 용인을 끝으로 약 5년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많은 외국인 주부들에게 좋은 평을 받게 되었으며,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 주부들과의 친분과 형편을 느끼게 되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다. '다문화 지도자 교육' 5년차인 2013년에는 교육참가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결혼이주여성과 새마을부녀회원간 멘토링 성과 모니터링, 사업성과 점검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등이 이루어지며 그 동안의 성과와 반성을 정리하였다.

외국인 주부들을 위한 현장 방문교육이 추진되면서 중앙회에서의 초청교육도 이루어졌다. 이는 2박 3일의 합숙교육으로서 시댁의 동의와 입교 및 수료를 도와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교육효과는 매우 컸다. 이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중앙회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마을부녀회원과 외국인주부들을 멘티(결혼이민여성)와 멘토(회원)로 1:1 결연을 맺어 주는 것이 중요하게 진행되었다. 부녀회원들에게는 '다문화가족 멘토 핸드북'을 제작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방법도 제시해 주었다. 이 교육은 '한국문화 이해, 멘토의 역할과 리더십, 직업정신과 직장문화, 가족친화력 향상, 정착 우수사례발표, 새마을부녀회장과 1:1결연, Ice Breaking' 등으로 재미와 유익을 겸하여 추진되었다. 경기도지부에서는 2009년도에 수원 5명, 성남 10명, 고양 5명, 안산 10명, 용인 5명, 남양주 5명, 시흥 5명, 화성 5명, 안성 5명 등 총55명이 입교하였다. 2010년도에도 교육은 이루어졌지만 크게 활성화 하지는 못하였다.

2009년 중앙회는 '결혼여성 이민자 주부 친정부모 초청'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결혼 후 오랫동안 고향에 갈 수 없는 외국인 주부들을 위하여 고향의 친정부모를 초청하여 향수를 달래고 혈육의 정을 느끼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입국하는 친정 부모들은 딸의 안부를 확인하고 사돈댁 식구들과의 우의를 다지며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되

었다. 전국적으로 총 39가족 78명이 초청되었는데 베트남 22가족, 필리핀 9가족, 태국 8가족 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중앙회 프로그램에 합류하여 몽골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카자흐스탄 2명 등 총 8명의 가족을 초청하여 추진하여 큰 인기와 감동을 자아냈지만 역시 지속사업이 되지는 못해 안타까웠다.

2010년 중앙회는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위하여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였다. 이 계획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전개로 다문화가족의 언어소통, 가정폭력, 생활환경 적응, 자녀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통합의 살맛나는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좀 더 나아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1 멘토링(결연 맺기) 디딤돌교실, 자녀공부방 운영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멘티(결혼이민여성)가 가정 · 사회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멘토(회원)와의 밀착상담 및 조언을 통하여 몸과 마음에 안정을 얻게 하여 건강한 삶, 가족관계를 영위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어 2011년부터는 그 동안 추진해온 멘토링 사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다문화가족의 후견자(멘토)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문화가족의 후견자(멘토)사례를 발굴하는 보급하는 일은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조기에 한국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게 된 것이다. 후견자이자 새마을부녀회원인 멘토는 결혼이주 여성의 친정엄마나 이모, 자매가 되어 상호방문 교류 등 모범적인 실천사례가 된 내용을 발굴하여, 결혼이주여성 후배 새내기들에게 멘토 길잡이 역할을 해준 사례, 지역에서 이주여성이 새마을회원으로 활동한 사례, 멘토 활동 중 흥미로운 화제와 겪은 사연 등을 공모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한 '재한외국인생활체험수기 공모전'에 우수사례로 당선된 작품들은 책으로 발간하였다. 2012에는 외국인 주민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정착 지도자 교육과 공모전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였다.

우수사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고 겪은 소중

한 경험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 마련해 주었다.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외국인동포, 다문화관련 민간단체 종사자, 결혼이민자 멘토, 후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의 캐치프레이즈는 '당신의 꿈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여 주세요,'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이민자가 들려주는 한국 살림 노하우 '나도 이제 주부9단', 한국인 배우자와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우리는 이렇게 만났어요.',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 유학생활의 재미 '공부하러 한국에 오세요.', 한국에서의 회사생활 '이것만 알면 OK'등이었다.

2013년 이후에는 의정부, 파주, 광주, 포천을 '다문화가정 읍면동 생활멘토단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신규입국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 인식제고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다문화가족 수 증가, 문화적 차이, 언어장벽, 한국사회에 정착어려움을 생활터전인 읍면동단위에서 생활밀착형 협조 지원체제구축 필요하기에 추진되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손길을 미치지 못하는 곳, 지역사회지도자 및 기 정착결혼이민여성 등의 지원을 통해 신규이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목표로 추진하였는데 각 읍면동에 멘토단 구성을 구성하였다. 생활멘토단은 부녀회원 5년 이상자와 기 적응 외국인주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대표로 구성되었다. 이 멘토단은 정기방문, 수시멘토, 소양교육, 현장점검, 외부평가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부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해 오고 있다.

아. 구매 · 판매사업과 기금마련

'구판사업'은 새마을부녀회가 초기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가게, 슈퍼마켓, 마트이다.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한다는 의미의 '구판사업'은 일종의 '공동구매', '공동판매'방식인 것이다.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와 마을 일에 동참하던 부녀자들은 마을마다 부녀회가 생기면서 여성 특유의 살림살이 수익사업 모델을 궁리하였다. 초기 마을에는 대부분 가게가 없고 있

다고 해도 부실하기 그지없었다. 이에 부녀회원들은 집집마다 필요한 생필품을 각자 먼 장터에 다니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몇몇 부녀회원들이 교대로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오면 편리하고 시장을 가지 않아도 되어 이득임을 깨달았다.

부녀회원들은 각자 시장에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생겨 육아나 가사, 농사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다. 물건을 도매로 가져오다보니 좀 더 싼 값에 들여 올 수 있게 되었고 부녀회원들은 원래 사던 가격이나 그 이하로 살 수 있어 모두가 좋은 사업이었다. 물론 그 차액은 부녀회원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부녀회원들은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지 않고 재투자하여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주문받아 가져오면서 더 다양한 상품을 더 저렴한 값에 들여옴으로서 더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었다.

초기의 구판사업은 매장이 없이 주로 부녀회장 집이 간이 마트였다. 부녀회의 구판장은 종종 기존에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과의 마찰도 있었지만 조화로운 방법들을 찾아 이겨냈다. 마을에 새마을회관이 생기고 부터는 회관 일부를 막아 활용하는 등 최소한의 구색을 갖춘 마트가 되었던 것이다. 회원들은 교대로 마트를 운영하다가 전문성이나 효율이 떨어져 조금 재주가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유지하게 되었다.

한동안 구판장은 부녀회원들의 시장경제를 체험하는 좋은 훈련장이 되기도 하였다. 부녀회원들이 추진하던 좀도리(좀덜이)운동과 더불어 활동자금 마련의 원천이 되어 준 것이다. 구판장 운영만으로는 필요한 활동자금을 다 마련할 수 없었던 부녀회원들은 공동으로 남의 집 농사를 지어주고 품삯을 받거나 식목일에 나가 임금을 받거나 벽돌을 찍어 파는 일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종잣돈을 모았다. 이 구판장은 그 동안 경제권을 쥐지 못 했던 여성들에게 통장이라는 경제적 기반을 인프라를 제공해 주었고 이는 여성의 권리와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 날까지 구판사업들을 지속하며 마을 공동기금을 마련하고 있어 부녀회의 활동영역이 더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구판사업은 마을길이 넓어지고 경운기나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생기고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그 효용성과 수익성이 낮아져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부녀회의 구판사업은 사라지지 않았다. 부녀회원들은 활동자금이 필요할 때면 회비를 걷는 방식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이나 양념 등을 구판하여 기금을 만드는 것이다. 구판사업은 사실상 부녀회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야시장, 도농직거래, 축제 음식판매 등이 일시적인 수익사업이라면 구판사업은 비교적 상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회는 새마을운동 자립화 방안 중 하나로 구판사업을 염두해 두었다. 부녀회원들의 전유물 같았던 구판사업은 전 새마을조직원들이 함께하는 경우들이 생겼다. 회관마련 기금을 모은다든지 재난재해 성금을 낸다든지 공동행사를 치러야 한다든지 자금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구판사업은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가 독선적이고 폐쇄적으로 구판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분열과 후유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왔다. 잘 쓰면 약이지만 오용하면 독이 되는 것과 같았다.

중앙회는 90년대 들어오면서 구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바꾸고 정관과 회칙에도 조직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을 시달하였다. 지침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중앙회가 '홀로서기 원년'으로 설정한 1995. 2. 24. 수익사업 업무지시에 따르면 효율성 기하고,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개인명의는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통장의 인장도 2인 이상 관리하고, 금전출납부는 필히 작성해야하며, 총무와 회장의 확인서명 후 수입과 지출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총회보고 등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 전에 차 상급기관에 보고 후 실시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나갔다. 이 지침은 거의 매년 상황에 맞도록 조금씩 변화해 오고 있다. 구판사업은 주로 마을이나 읍면동 단위에서 추진되어 스스로의 활동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가끔 시군단위로도 추진되어 왔다. 심지어는 도 단위까지 구판사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2006. 4. 27. 공익목적의 기금조성을 위한 구판사업 지침을 시행하면서 구판사업지침 준수를 철저하도록 하였으며, 유통회사 두 곳과 1년간 계약을 맺어 '김, 미역, 액젓, 세제, 고추장' 등을 판매하였다. 이는 도회관 마련과 국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 구판사업이었다.

2012년부터는 중앙회가 총괄적으로 구판사업을 통제하였는데 유통회사가 아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영세업자들과 하도록 하여 양측이 모두 이득이 되도록 하였으며 판매는 자율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판매 시에는 강매를 금지하여 새마을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한 조치였다. '구판사업'은 분명 수익사업으로서 새마을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자칫 하면 조직의 해를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자. 도 · 농교류

'도 · 농교류'사업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여 상생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자는 운동이다. 농촌일손 돕기, 직거래장터, 청소년 농소정사업, 그린 투어리즘 등이 주요사업이다. 이 사업은 80년대 들어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모내기나 태풍 등의 피해복구, 과일 수확이나 추수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농촌일손 돕기는 도시 직장인이나 학생, 새마을회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작은 일손이나마 보태는 것은 농민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체험을 통해 활력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농촌봉사 활동은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마을회관을 빌려 먹고 자면서 농촌일손도 돕고 노인들을 위한 이발, 염색, 파마, 마사지, 사진, 음식대접, 오락, 마을환경 정비 등 농촌마을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큰 활동이다. 2007년부터 추진된 '생태체험 청소년 영농봉사활동'과 '도농결연 그린투어리즘'은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도시 청소년에게 농촌 영농봉사활동을 통하여 농촌사랑과 농촌자연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청소년들이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부족일손을 도와줌으로써 농촌

에 큰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 새마을회원들은 농촌일손 돕기를 위해 '영농봉사단'을 결성하여 농가를 도와주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매입해 줌으로써 농가와 봉사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어져 오고 있다.

중앙본부가 1984년부터 추진한 '새마을야시장'은 대표적인 도농 농산물 직거래장터였다. 1주일씩 열린 이 장터는 전국의 특산물을 농민들이 직접가지고 나와 직접 도시민에게 판매하여 대단한 인기와 판매실적을 올렸다. 농민들은 자기 농산물 판매와 더불어 자기 지역을 홍보할 수 있었고 도시민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한 농민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였다. 특히 도시민들은 고향의 농산물을 도시에서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밤마다 진행된 '고향의 밤'에는 흥과 멋이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도시에 사는 저명인사들과 연예인들이 찾아 야시장의 분위기를 더 고조시켜 주었다. 그러나 주변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대규모 야시장은 오래 진행되지 못하고 차츰 시군에서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바뀌어 갔다.

도내 각 시군은 농촌지역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산물직거래를 활발히 추진해 왔다. 특히 농촌에서 대규모 생산이나 재해 등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시군 새마을회원들이 적극적인 구매로 농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고향사랑, 우리 농산물 애용정신 함양, 농어민에게 희망과 용기 제공, 도시민의 여가활용, 도농 공동체의식 함양, 도 · 농간 균형발전'차원에서 지속해 나가야 할 '도 · 농 교류와 상생'사업인 것이다.

차. 마을 만들기와 그린마을

'마을 만들기'는 초기 새마을운동의 마을처럼 인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마을로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마을과 주민이다. 새마을운동은 마을에서 주민이 하는 운동으로 시작하였다. 서로 안면이 있는 동네 친척과 친지, 이웃들이 함께 하는 운동이다. 초기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사업을 마을단위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마을길이나 회관, 구판장, 목욕탕, 탁아소 등 공동시설 들은 모든 주민 누구나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모두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시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동체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마을은 집안 어른이나 선후배, 친인척 등 인간관계도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마을이란 공동운명체, 이익공동체라는 장점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앞당긴 측면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에서 산업화 · 도시화로 바뀌어 가면서 이농현상이 크게 증대되고 외부인의 마을로의 정주가 늘어남에 따라 차츰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 가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가 심하여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80년대 말까지 지속되다가 올림픽 이후 더 심해진 경향이 있다. 이는 더 급속한 발전과 이로 인한 다양한 산업의 확장, 시민 이동속도의 증가 등으로 심해졌는데 90년대 말 IMF사태는 이런 현상들의 절정이 되었다. 이는 농촌 고령화, 농업생산 및 경제활동 침체 등으로 점점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새마을운동은 1998년부터 마을 회복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무너져 가는 마을과 공동체를 회복하여 활기차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었다. 자랑스런 마을을 육성하고 마을과 공동체의 기능을 되살리자는 활동이었다. 시군단위로 1개 시범마을을 육성한다는 목표였다. 이 시범마을이 육성되면 인근에 파급시켜 더 많은 마을들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었다. 중앙회는 1991년에 전국 151개 마을을 자랑스런 마을로 지정하였는데 그중 경기도는 20개 마을이 지정되었다. 1997년에 경기도의 지정마을은 35개로 늘어났다. 자랑스런 마을은 종전의 마을을 지역특성에 맞게 좀 더 개성화와 특성화시켜 마을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다. 이런 활동들은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역량 제고, 마을의 자생력을 높여 환경개선, 소득원 개발, 정신계발을 이루면서 만들어 가는 활동인 것이다. 자랑스런 마을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마을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주민의 인식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을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하며 단계적

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사업 착수 및 추진, 사업추진 평가 및 보완을 통해 지정되는 것이다. 우선 마을의 기본사업인 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 숙원사업을 선정하고, 마을 발전목표를 설정하되 자랑스런 마을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이 특성화 마을들의 사례는 '풍요로운 마을, 환경보전 마을, 건강한 마을, 경관조성 마을, 도덕성이 높은 마을, 주민화합 협동마을, 지식과 교양 있는 마을, 전통문화보존 계승마을'등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정하여 추진되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은 '지역특산품, 지역특산물의 가공, 관광농림 수산업' 등을 통해 창출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랑스런 마을 만들기는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자생력 확보사업인 것이다. 이 운동을 통해 농어촌에 활성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주민자치 역량을 함양시키며, 주민참여와 활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소득원 공동개발과 공동체 의식을 재건하는 것이 자랑스런 마을 만들기의 목표였다. 이는 70년대 새마을운동 경험을 되살려 마을단위 새마을운동을 재점화하고 새마을사업을 통해 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지방화 시대에 지역 활력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한 것이다. 1999년부터 도시지역에서는 '1지역 1구심사업 개발'과 '우리 동네 작은 개혁운동'이 추진되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지역 즉, 정주의 고장, 주민이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생활의 자족지역, 주민이 보람을 찾아 노력하는 보람의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주민 스스로 토론과 교육, 간담회를 통하여 만들어 가도록 추진하였다.

2010년부터는 4대 코리아 운동의 하나로 '그린마을'만들기가 추진되었다. 시군별 우수사례는 현지실사를 통해 '그린마을'로 지정하였다. 전국 155개 그린마을 중 경기도는 고양시 고봉동 8통 마을, 부천시 원미2동 3통, 15통, 용인시 계수마을, 안산시 네오빌 6단지 아파트, 안양시 호계1차 현대홈타운, 양주시 천죽마을, 양주시 덕계12통 마을, 안성시 상가천 마을, 포천시 대회산리, 오산시 신동아 아파트 2차, 의왕시 삼호 한아름 2차아파트 등이 선정되었다. '그린마을'은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형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활동

이다. '녹색새마을운동, 녹색실천 시범마을, 녹색커뮤니티 탄소 포인트, 탄소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등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새마을가꾸기 사업의 경험을 되살려 녹색생활(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녹색교통, 녹색소비,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그린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그린마을을 만드는 추진주체는 새마을지도자, 리통장, 청년회장, 입주자대표 등 주민대표이다. 2011년에는 전국에서 30개 그린마을이 선정되었는데 경기도에는 수원시 연무동, 안양시 호계1차 현대홈타운, 남양주시 조안면 사우리 마을, 안성시 양성면 미산2리, 양주시 홍죽 3리(천죽마을)등이 선정되었다. 2012년에는 '뉴 새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맺어 나갔다. 이는 지자체의 협조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협치 차원에서 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도지부와 경기도는 2012. 8. 6. 업무협약을 맺었다. '뉴 새마을 만들기의 선진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경기도-경기도새마을회 업무협약'의 내용으로는

경기도새마을회는

첫째, 뉴 새마을 만들기를 통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맛나는 마을 육성을 위해 강사육성,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현장방문 지도 및 컨설팅, 홍보 및 교육자료 제공 등 성과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둘째,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의 발굴확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생활화하는데 힘쓴다.

경기도는

첫째, 경기도새마을회의 '뉴 새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지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 협력 추진한다.

둘째,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추진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마을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0. 8. 6.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성렬, 경기도새마을회장 이도형

한편, 중앙회는 2012년에 '뉴 새마을 만들기'목표를 전국적으로 3년간 3,500개를 만들기로 정하였다. 3년간 1읍면동 당 1마을을 선정한다는 목표로서 2012년에 1,200개, 2013년 1,200개, 2014년 1,100개 이었다. '뉴 새마을 만들기'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맛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뉴 새마을 만들기'는 2013년에 '마을 만들기'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업을 계속하였다. 마을 만들기는 '행복마을을 만들기'로서 '그린마을, 스마트마을, 해피마을'을 목표로 하였는데 그 실천항목을 보면, 그린마을은 '자원재활용, 녹색교통, 녹색소비, 생태환경'을 잘하는 마을, 스마트마을은 '미소 가득한 마을, 예의 바른 마을, 칭찬하는 마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마을, 더불어 함께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 해피마을은 '소외된 이웃돕기, 다문화 가정 보듬기, 안전한 마을 만들기, 건강한 마을 만들기'등이 실천과제였다.

세 분야의 마을 만들기는 다시 '환경 있는 마을, 배려있는 마을, 나눔과 봉사하는 마을'로 바꾸어 통합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깨끗하고 친절한 우리 마을로 오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이는 환경정화 활동, 대국민 청결 · 미소 · 친절 캠페인, 대국민 환대실천의식 함양운동, 사회통합과 환경공동체 의식, 외국인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생활주변 및 하천 정화활동, 국공립공원 및 우리 지역 환경 가꾸기, 각종 공공시설 및 새마을시설물 정비 등이 과제로 추진되었다. '마을 만들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특성에 맞는 공동체를 회복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공동체회복 운동'으로 추진되었다. 사회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앞으로도 이 운동은 유효할 것이며 더 필요한 운동이 될 것으로 본다.

카. 협동조합과 수익사업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새마을운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중앙회는 오래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을 권장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하지 못한 분야이다. 새마을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수익도 창출한다는 것은 그 명분에 있어 매우 훌륭한 계획이나 언제나 '새마을운동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는 단서를 뛰어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은 성공하지 못하고 간간히 시범적으로 운영되기만 하였다.

'수익사업'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로서 정관이나 회칙에서 활동을 위해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인 새마을조직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어 매우 어렵기에 자회사 등으로 독립운영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앙회 차원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운동 자립화를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시도하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되었다. 중앙회가 90년대 중반부터 직접 추진한 '시민교양센터, 웨딩타운', 외부 전문집단에게 임대한 '한방병원, 자동차 운전연습장', 내부 새마을조직을 활용하고자 한 '이동통신 전화 가입, 내 고향 그린카드 발급' 등은 모두 의도는 좋았지만 운영과 참여 등의 부진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중단되었다.

중앙회는 1999년과 2015년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의도와는 달리 실제 이뤄지지는 못하였다. 2019년에는 생협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지만 이 또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다. 생협은 새마을과 지향하는 목표와 정신면에서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생협이나 협동조합을 통하여 환경 지향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정신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활동영역과 회원 확대에 기여한다고 보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도농공동체운동으로서 농촌을 살리고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실질적인 환경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지회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생협이나 협동조합은 새마을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명분은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성과 재정 투자, 운영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계속 기본계획이나 방침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지부는 2001년 '홀로서기' 자립화 운동의 일환으로 삼성카드와 '카드 제휴사업' 약정을 맺고 7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여 연간 5억 원의 '지역사랑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였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이 계획의 전제는 '새마을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었다. 결국 1년 정도 추진하다 2003년 1월에 업무제휴를 해지하였다.

시군에서는 종종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만들어 공식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농산물직거래나 구판사업 등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한다 해도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동두천시 등이 마을기업을 운영 하였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거나 명목상으로만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안산시 재활용센터'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은 새마을운동 자립화라는 방향에는 부합되나 실제 운영은 요원하기만 하다. 독립된 운영체가 아니라 지회체제에서 두 가지를 겸하는 것은 더군다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수익을 창출하는 별도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만들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등은 사실상 공모사업 수주를 통한 단위사업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어 수익사업과의 연계는 더더욱 안 되면서 오랜 과제로 남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타. 국가재해 · 재난과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이다. 따라서 국가가 당면한 위기나 재난이 있을 경우 언제든 국민들과 함께 현장에 달려가 복구를 지원하여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국가적 재해 · 재난뿐만 아니라 국제적 재해 · 재난에도 동참하여 지구촌 가족들과 아픔을 나누고 복구와 용기를 전

해왔다. 이러한 국가나 국제재해 · 재난은 중앙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현장과 연결하고 시도나 시군구 새마을회원들이 힘을 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져 왔다.

지원방식은 복구물품이나 생필품, 성금모금 전달 또는 현장 복구활동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든 달려간다는 자세로 국내외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나누어 오고 있다. 재해 · 재난은 이전에도 많았지만 1990년대에는 유난히 많았다. 1993년 10월에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발생한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현장에는 새마을회원 1,400여명이 참여하여 전문구조대의 구조 · 복구를 뒷바라지 해 냈다. 1994년 10월에는 '충주호 유람선 화재'가 있었는데 경기도 새마을회원 등 새마을가족 1,150명이 복구 · 지원활동을 펼쳤다. 1995년 4월에는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근지역 새마을회원 연 1,100명이 활동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새마을회원들은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피해복구를 지원하였다.

사고들은 주로 재해이지만 안전 불감증이나 소홀로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부실한 공사의 결과이고 소홀하고 안이한 관리문제가 많은 탓이기도 하였다. 1996년 7월에는 경기 · 강원북부에 큰 수해가 나서 수해현장 복구 및 이재민 돕기에 전국에서 연 32,830명의 새마을가족이 참여하였다. 경기도 새마을가족 모두는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고통'이라는 일념으로 파주, 연천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해 수재의연금품 시가 1억여 원을 수재민에게 전달하고 4,728명이 수해복구에 참여함으로서 실의에 찬 수재민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우기도 하였습니다. 1998년 8월에는 서울과 경기북부 수해로 복구지원과 이재민 돕기에 경기도새마을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약 9만 3천여 명의 연인원이 참여하였고, 전국 새마을가족의 성금 · 품 17억 6천만 원 상당을 전달하였고 경기도지부는 15,500천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연 이어 1999년 8월에도 경기북부에 수해발생으로 연 4만여 명의 참여와 성금 · 품 4억7천만 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그러니까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재해 · 재난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 경기도는 세 번이나 큰 수해피해가 있어 전국의 새마을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다.

재해 · 재난은 2000년대 중반까지도 매해 반복되었다. 2002년 강원도 동해안을 초토화 시킨 태풍 '루사' 피해에서는 '1인 1일 봉사, 2천원 보내기', 수해복구 노력봉사를 통하여 침수가옥 청소 및 가재도구정리, 오물수거 등을 수행하였다. 2003년 9월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이 큰 수해를 당해 경기도새마을회원 등 전국 새마을가족이 732회 복구지원활동을 펼쳤으며, 성금 · 품 4억 1천만 원 상당도 전달되었다. 2005년 호남지역 설해복구 지원에는 경기도지부 산하 22개 지회가 27회 활동하여 1,348명 투입되었다. 피해지역 농가비닐하우스, 축사복구, 농촌마을길과 도로정리, 농작물 복구 등을 지원하였다. 2005년 '양양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까지 연속되었다. 2007년 12월에 발생한 '태안 원유유출 사고'는 다음 해 2월까지 전국의 거의 모든 새마을회원들이 참여하여 추위를 무릅쓰며 방제활동을 전개하여 최대한 빨리 원상회복되도록 활동하였다.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피폭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경기도새마을회원들은 수원역 광장, 의정부역 광장, 화성 송산면민회관, 평택역 광장, 포천 시청광장 등 시민분향소 6개소를 설치하여 아픔을 같이 하였다. 5월에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추모대회에는 800명의 경기도새마을가족들이 참가하여 아픔을 같이 했다. 2010년 태풍 '곤파스'와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로 피해농가 돕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산바'는 경기도에 직격탄을 날려 연천, 부천, 안성 등에 큰 피해를 안겨주었다. 도 새마을회원들은 쓰러진 과실주를 세우고 낙과 배를 줍고, 쓰러진 벼를 세우기, 낙과품 팔아주기 등으로 피해농가와 아픔과 고통을 나누웠다.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도 터졌다. 경기도새마을가족들은 즉시 세월호 침몰 피해가족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하고, 도내에 위치한 안산 단원고, 수원 연화장, 동국대병원, 고잔1동, 수원의료원, 제일장례식장 등 곳곳에서 사고 피해가족과 조문객들을 위한 급수봉사, 발인지원, 분향소설치, 교통정리, 성금전달 등을 실시하였다. 3개월간 정부합동분향소(안산)외 23개소에서 연 2,983명이 활동하였으며, 44,515천원의 성금도 전달하였다. 피해가족 중에는 새마을가족 자녀 4명도 포함되어 더욱 안타까웠다.

2017년 충북 수해에는 경기도 시군별로 지도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복구 지원활동을 벌였으며, 2018년 강릉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도 새마을회원들이 모아 준 성금 2천여만 원을 전달하여 피해가족들을 위로하였다. 2019년 가을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야말로 방역과의 사투였다.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 포천, 김포 등은 밤낮없이 방역활동을 펼쳐 열병의 남하를 필사적으로 막아내는 노력이 계속하였다. 2020년 대대적으로 번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도 경기도내 시군, 읍면동 새마을가족이 매주 일제방역을 하면서 버티는가 하면 정성어린 성금 2천만 원과 마스크 1500매를 어렵게 구하여 사투하는 대구, 경북, 청도지역에 전달하고 위로하였다.

언제나 새마을회원들은 국가의 재해와 재난을 외면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먼저 현장에 달려가 복구지원과 아픔을 나누는 일에 앞장 서 실천해 오고 있다. 재해나 재난은 언제 우리지역에 닥칠지 모른다. 경기도는 여러 번 수해를 당해 전국의 도움을 받았다. 언제나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보답이었다. 경기도새마을회원들은 타 지역에 재난이나 재해가 있으면 언제나 즉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국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운동이다.

재해나 재난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촌 이웃 국가들에게서도 큰 재해나 재난은 발생하였다. 2004년 4월에는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로 힘들어 할 때 새마을회원들의 성금 1억 5천만 원으로 손수레 6천대, 밀가루 500톤을 준비하여 지원하였는데, 경기도는 가장 많은 성금을 모금하여 보냈다. 2005년 1월에는 서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재난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1억 4,700만원을 모아 2006년에 스리랑카 칼루타라 지역에 쓰나미주택 33가구 및 새마을회관 1동을 건립하였다. 2010년 3월에 중남미의 아이티 공화국 지원 성금모금 1억 9천만 원을 모아 성금과 복구 지원품을 전달하였다. 재해 · 재난이 발생하여 성금을 모금할 때면 경기도는 언제나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오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새마을 회원들은 수시로 가동할 수 있는 각종 봉사대를 편성 · 운영하고 있다. 방역봉사대, 방범봉사대, 며느리봉사대, 교통봉사대, 재해복구봉사대, 급식봉사대 등이 그것이다. 이는 각종

국가적 재해 ·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특별봉사단이다. 봉사대는 재난 ·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봉사대를 구성하여 '재해복구 노력봉사, 방역봉사, 급식지원, 기술봉사, 인명구조, 가전제품수리, 구호물자 전달, 급식구호차량, 성금모금, 성품전달 등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우리에게 재해 · 재난은 언제나 찾아온다. 새마을회원들은 언제나 재해 · 재난 현장에 투입되어 피해지역 복구지원과 피해주민들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환경개선 · 정화 · 보전 사업

새마을사업 중 '환경보전과 정화 · 개선사업'은 새마을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점적인 운동 분야 중에 하나이다. 초기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환경이 훼손되었거나 소홀했던 환경보전사업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앞장 서 복구하고 정화하고 개선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새마을사업은 환경 운동적 요소들이 매우 많은 운동이다. 환경은 자연환경, 마을과 개인의 생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루었다. 먼저 새마을운동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농업 · 농민 · 농촌 중에서 농촌부터 접근했다는 점이다. 농촌 주민들에게 가시적이고 손쉬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그 성과를 보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만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은 지붕을 고치고 마을길을 넓히는 정도로만 아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우선 마을공동으로 개선해야 하는 '마을생활 환경개선'이 첫 번째 과제이었으며, 이후 각 가정의 생활을 개선하는 '가구생활 환경개선'이 그 다음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가정과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들이었다. 이후 지역을 넓혀 나무를 심어 산림을 녹화하고 샛강과 소하천을 정비하고 도시를 공원화하는 등 다양한 환경개선과 보전활동 들이 추진되었다. 도시는 도시대로 거리를 청소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미관을 수려하게 만드는 등 환경개선 · 정화 · 보전 활동들이 추진되었는

데 이는 총체적으로 '환경새마을운동'이었던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환경새마을운동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했다.

이 모든 사업들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살림'운동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생명살림'은 종전에 추진해 오던 사람위주의 운동을 자연위주의 운동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종전의 것들을 편리하고 유용하도록 바꾸어 나가는 개선운동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자연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일들도 벌어졌다. 새마을운동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종전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활동들을 추진해 왔다. 그 동안 환경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자연보호, 자연정화 등으로 추진다가 환경보호, 환경개선, 환경정화 등으로 변해 왔다. 최근 들어 이 용어는 '생명살림'이란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자연에서 환경으로, 환경에서 생명으로 변하면서 시대마다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이름으로 캠페인, 교육, 현장사업 등으로 추진되면서 이어져 왔다.

경기도지부의 환경새마을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사업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명칭만 달리할 뿐 대동소이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져 오고 있다. 크게 나누어 마을, 산, 강, 하천, 도시, 공원 등에서 각각의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마을에서는 마을 안길 대청소, 꽃길 조성, 새마을시설물 정비, 맑고 푸른 마을가꾸기, 깨끗한 우리 동네 가꾸기, 우리 동네 소공원 가꾸기 등등이 추진되었고, 산에서는 나무심기, 산불예방, 쓰레기 되가져오기, 행락질서 지키기 등의 운동이 추진되었다. 강과 하천에서는 샛강 살리기, 소하천 가꾸기, 생명의 강 살리기, 도시에서는 새마을대청소. 꽃길 가꾸기, 쌈지공원조성 등이 추진되었으며 환경감시단 운영, 환경지킴이 활동, 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 등 수많은 사업들이 환경개선 · 정화 · 보전 활동으로 추진되어 왔다. 환경새마을운동과 병행된 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사업들이다. 재활용품 모으기, 알뜰마당, 재생비누가공, 알뜰도서 교환전 등의 사업들이 운동으로 추진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8년에 선언된 '자연보호 헌장'과 1995년에 환경부에 의해 제시된 '환경보전 국민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당

시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자연보호 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 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 보호 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 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

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5일

[1995 환경보전 국민생활 수칙-환경부]

1. 물과 전기를 아껴 쓰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2. 합성세제와 1회용 생활용품은 되도록 적게 사용합시다.
3.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잘 골라 자원 활용에 보탭시다.
4. 음식물찌꺼기는 물기를 짜낸 후 버리고 쓰고 남은 식용유는 휴지에 묻혀 버립시다.
5. 고무, 비닐 등 독한 냄새를 내는 물질을 함부로 태우지 맙시다.
6.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7.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합시다.
8.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9. 낚시 등산 시에는 도시락을 이용하고 자기쓰레기는 되 가져 옵니다.
10. 농약은 알맞게 뿌리고 폐비닐과 빈병은 반드시 거둡시다.
11. 풀 한포기 새 한 마리도 우리의 가족처럼 아끼며 보호합시다.

가. 알뜰마당과 아 · 나 · 바 · 다

'알뜰마당'은 새마을부녀회가 새마을운동 초기부터 추진해 온 전통적인 대표사업 중에 하나이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 · 나 · 바 · 다' 운동으로서 평소에 쓰던 물건이나 쓰지 않고 오래 쓰던 물건을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근검 · 절약 실천운동이다. 이 운동은 마을과 직장, 지역에서 주민을 상대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서로 필요한 물건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공동체 운동'으로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오고 있다.

새마을부녀회는 평소에 늘 '알뜰마당'을 운영해 오지만 경제위기 등의 어려움이 닥치면 더 빛을 발하기도 한다. '알뜰마당'은 소외계층과 외국인근로자

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물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터로서도 인기가 많다. 초기에는 마을마다 펼쳤던 장터가 읍면동이나 시군 규모까지 커지면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 물품들은 '재활용센터, 녹색가게, 수리센터' 등을 운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질 좋은 상품으로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업이다. 최근 들어 대대적인 수집활동으로 모아진 중고 의류 등은 수집상들에게 판매하여 수출되기도 하는 매우 유용한 장터이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회원들이나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각 가정에서 안 쓰거나 오래된 물건들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모아진 수익금들은 다시 지역의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미소를 안겨주는 사업들로 환원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알뜰마당'이란 소통의 장터를 통하여 근검절약 정신을 전할 수 있으며 작은 수익금도 모을 수 있고 이를 다시 이웃들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 높은 운동이라 볼 수 있다. 누구나 자기부담 없이 버리기는 아까운 물품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증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일 것이다.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IMF사태 직후에 벌어진 대량실직과 해고 사태로 좌절에 빠진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알뜰마당'을 열어 작으나마 희망을 안겨주는 일을 추진해 왔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특별히 추진된 '소외계층에 헌옷 나눠주기'는 대표적인 '알뜰마당'사업이었다.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도 IMF사태 못지않게 우리경제를 타격하여 온 국민을 좌절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직자가 급증하자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경기도청 내에 '토요 상설 나눔 장터'를 열어 붐 조성에 나섰다. 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부녀회가 기증자들의 물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익금은 전액 무한 돌봄 기금에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알뜰마당'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계절별 테마 장터'를 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2월 설 맞이 시기에는 '제수용품 판매, 차례시연회', 3월 환경정비 시기에는 '환경정비 도구 저가판매, 무료보급', 4~5월 나무심기 시기에는 '나무저가 판매, 무료보급, 나무전시회', 6월 환경의 날 기간에는 '에

너지 절약 상품전시 및 판매', 7월 여름휴가 시기에는 '휴가용품, 레저용품 저가 판매', 9~10월 가을철에는 '책 나눔 장터, 알뜰도서 교환, 도서 특별전' 등을 열어 더 많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운영하였다. 이 알뜰마당은 단순한 알뜰마당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이나 지역 특산물, 사회적 기업제품, 장애인 및 자활 생산품, 교복 나눔 등을 취급하여 지역발전과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알뜰마당은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즐기면서 장을 보도록 설계하였는데 '고쳐 쓰는 생활의 지혜 장터, 장바구니 만들기, 비누 만들기'등의 체험공간과 '작은 음악회, 다문화체험, 사진 및 미술전시회, 생태학습관'등의 지역실정에 맞는 부대행사를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 '알뜰마당'은 2010년에 들어와 '뉴 새마을운동'의 '살 맛 나는 공동체'운동으로 격을 높여가며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는 이웃공동체 실천운동인 'Happy Korea'운동으로 정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폐자원 모으기

'폐자원 모으기'운동은 환경정화 및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의 대표적 활동 중에 하나이다. 새마을운동 추진 초기부터 추진해 온 '빈병 모으기', '고철 · 폐지 수집' 활동은 '숨은 자원 모으기', '경제 살리기 고철 모으기', '농약병 및 폐비닐 수거', '헌 옷 모으기', '3R(Reduce, Recycle, Reuse) 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3R운동은 줄이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환경 선순환 운동으로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이 활동은 다른 개인이나 단체들이 접근하기 싫어하는 분야로서 마을단위까지 새마을조직이 있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아주 적절한 운동으로 추진되어져 왔다.

새마을운동 각급 조직에서는 '경진대회'등을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각종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오고 있다. 폐자원 모으기는 단순한 환경정화 차원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모아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초기의 폐자원 모으기 활동은 마을 단위 새마을조직 운영에 큰 자금원이 되었다. 폐자원 모으기로 조

성된 기금은 마을의 각종 인보사업과 장학금 등으로 환원시키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활동하는 이들에게 보람을 안겨주고 수혜 받는 주민들에게는 환경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폐자원 모으기가 한창일 때는 초등학교 등에서도 '빈 병 모으기', '폐신문수집' 운동을 펼쳐 나가기도 하였다. 사회변화 현상에 따라 노인들이 폐자원 수집으로 생계유지를 하는가 하면 중고의류 수거 업체 등이 매입활동 등으로 폐자원 모으기 활동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새마을운동에서는 누가하든 어떤 기간이나 업체가하든 우리 지역에서 버려지는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운동은 성공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폐자원 모으기는 환경정화, 경제기여, 인보사업 재창출 등으로 선 순환되는 1석 3조의 가장 효과적인 운동으로 볼 수 있다.

'폐자원 모으기'가 가장 활발하게 집중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IMF사태를 맞은 후 1997년 말에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범국민운동으로 전개 하였다. 정부(내무부)까지 나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갔다. 1998년부터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범국민적인 '고철과 폐지'모으기 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해외에서 외화를 들여 사오는 고철을 수입대체가 가능한 국내에서 모으자는 운동이었다.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로서는 '고철과 폐지'도 매우 큰 힘이 되었다.

중앙회에 만들어진 '경제 살리기 새마을운동추진본부' 1998년 초에 '나라사랑 재활용품 모으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KBS 등과 협력하여 전국 동시 이벤트로 추진하였다. 전국에서 재활용품을 모으는 현장을 연결하며 생방송으로 추진한 유례없는 사건이 되었다. 경기는 3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광명시 재활용센터 현장을 생방송하고, 양주 썬버드와 이천 OB맥주는 녹화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이 캠페인에서는 고철 모으기 전 과정과 알뜰마당, 도서 교환전, 재생비누 만들기, 가전가구 무료수리, 농기계수리 등 다양한 지역의 이벤트들이 방송되어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킴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량의 폐자원을 모아 나라경제 살리기의 열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이어서 중앙회는 농촌관련 단체인 '대산농촌문화 재단'과 협력하여 '숨은 자

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재단은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새마을회원들은 대대적으로 곳곳에 숨어있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찾아 내는 운동을 전개하여 나라경제 회생과 자원절약 기품조성에 큰 역할을 수행해 냈다. 특히 이 시기에 판매된 매각대금은 전액 지역 내 '실직자 자녀 및 농촌 돕기' 자금으로 활용되어 명실 공히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새마을운동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쓰레기분리수거 정착과 근검 · 절약정신의 생활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IMF극복,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숨은 자원 모으기'활동은 IMF사태가 완전 종식된 2000년까지 계속되었고 사업지역과 추진방법을 달리하며 2003년도까지 사업이 지속되었다.

'폐자원 모으기'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평가회를 갖고 더 효과적이고 운동성이 강한 방법을 강구하며 지속하여 왔다. 1999년에는 '숨은 자원 모으기 지역순회 토론회'를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여 범 국민운동으로서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갔다. 이는 '환경새마을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된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평가받아 오고 있다. 이 '폐자원 모으기'는 각종 평가대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 발표, 저공해 비누제조, 알뜰마당 운영, 재활용센터 운영 등으로 확대시켜 나갔으며 생활환경 정화분야인 공동시설물 청소, 도로변 꽃씨심기, 꽃길 가꾸기 등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부터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등과 협력하여 '고철 모으기 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원자재 대란과 외화 부족' 등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범국민 폐자원 모으기'운동을 다시 추진하였다. '집에 두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내가 모은 고철 국가경제 살린다.', '너도나도 고철모아 나라 튼튼 경제 튼튼' 등의 구호를 만들어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범국민 참여를 유도해 냈다. 이 운동은 '고철, 농약병, 폐비닐' 등 주로 농촌지역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차단시키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아 환경을 지켜 내고 자원도 조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도에는 '종이팩 모으기'가 추진되었는데 이는 우유팩 등은 지질이 좋아 다시 화장지로 재생할 수 있다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2009년에는 '숨은 자원 모으기와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병행 추진하였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역할을 다르게 주어 효율성을 높아는 방법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캔, 폐지, 종이팩, 페트병, 헌옷' 등을 집중하여 수거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폐비닐, 농약병, 폐 영농자재, 폐유, 폐지, 고철'등을 모으도록 추진하였다.

2010년도부터는 '범국민 자원 재활용품 모으기'를 추진하였는데 이 때부터 3R활동으로 변화되었다. 치운다는 개념이 아닌 '모으고 재활용한다.'는 의미로 3R 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모으면 자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캐치프레이즈로 실행되었는데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녹색성장을 이룬다는 측면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2012년도에는 녹색새마을운동 일환 '폐현수막 활용한 그린 장바구니 만들기'와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운동도 전개하였다. 이는 마구 버렸을 경우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우려한 조치였다.

2013년 이후에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3R'운동으로 일원화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폐자원 모으기'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에너지 절약운동

'에너지절약'운동은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국민운동 중 하나로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대표사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부터 전기의 혜택을 보게 된 농촌에서는 자연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실천되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부터 에너지 과소비나 무분별한 소비행태로 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풍조를 막고자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에너지절약 운동'은 자연스럽게 환경보전 운동과 병행 · 추진하였다.

특히 에너지절약 운동은 고유가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대대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에너지 과소비는 생명살림에 역행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가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에너지 절약은 근본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량만 사용하여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 하자는 것이다. 90년대 후반까지 생산을 위한 부득이한 에너지 사용이 있었지만 개인이나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에너지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유류파동 등으로 그 필요성은 증가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 그 중요성과 심각성은 더 심해졌다, 에너지절약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운동으로 추진된 것이다.

에너지절약은 주로 전기 · 수도 · 유류 · 가스 등을 위주로 '10%절약'을 기본으로 하였다. 2000년에는 '차량공회전 절제하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에너지관리공단등과 협력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집중된 도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녹색조명아파트 만들기'운동을 추진하였다. 2004년에는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작품 현상공모'도 추진하게 되었다. '여름철 우리 집 전기사용량 10%줄이기'를 통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에너지절약을 습관화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펼쳐 '에너지절약 캠프, 어린이 에너지절약 교실'등도 운영하였다.

에너지 수입비용이 급증하자 2008년에는 '고유가대응 범국민에너지절약 캠페인', '기후변화 교육', '사이버 에너지 절약 특공대'등의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갔다. '작은 절약습관이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 세워 에너지절약 10% 더하기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며, 동절기 화재예방캠페인과 전기용품 사용법에 대한 캠페인도 실시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집중 추진된 '그린코리아 운동'은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과 동절기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들이 강구되었다. 하절기의 '쿨 맵시'와 동절기 '온(溫화)맵시'는 내복입기운동, '내복 입고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내복 입기 문자메세지 릴레이 캠페인, 내복 선물하기 등을 추진하였는데 에너지 절약으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만들고 그린코리아를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었다. '쿨 맵시'는 시원한 여름나기 캠페인으로서 넥타이를 풀고 간편한 복장으로 일하는 '노타이 간소복' 운동이었다. 실내 냉방온

도 높이기를 통해 과도한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도록 하였다. 에너지절약 실천캠페인 은 가두 캠페인, 퍼포먼스, 플래시 몹 등으로 국민 참여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갔다. 2011년에는 경기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와 협력하여 여름철 고유가 극복과 전력부족 피해예방을 위한 '에너지절약 1만 우수가구 선발대회'를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우수가구를 선발하여 포상하였는데 이는 1년간 전기 · 가스 · 난방 사용량을 평가하여 가구와 아파트에 포상하는 방식이었다.

2011년과 2014년까지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집중한 시기였다. 이는 전력부족으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범국민 전기절감 캠페인'이었는데 한파나 혹서 시 과도한 전력사용으로 예비전력이 부족하여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기절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의 범국민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전기절약 생활문화를 정착하고 에너지 문제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변화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리는 활동이었다. 에너지절약의 국민생활화, 에너지절약 지킴이, 교육과 캠페인, 워크숍, 매뉴얼제작배포, 경진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부족 피해예방에 노력한 운동이었다. 가정에서는 1417피크시간대 전기 덜 쓰기, 대기전력 줄이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하기, 실내 온도 26도 이상 유지하기, 사무실에서는 점심시간 조명등 끄기, 엘리베이터 사용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끄기, 자동차운행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경제속도경제운전 실천하기 등 사소한 것부터 바꾸어 에너지절약을 습관화 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하였다. '겨울철 온 맵시', '전기20% 절약실천', '내복 입으면 에너지 20%절약', '실내온도 18도 유지', '피크시간대 전열기사용 자제', '한 가정 한등 끄기', '대 정전 블랙아웃 예방' 등의 실천 활동들을 이어갔다.

'에너지 절약'은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지만 습관화되지 않아 실천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모든 에너지절약 범국민캠페인은 작은 일, 작은 습관을 고쳐 생활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해 오고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최고인 우리나라로서는 언제든 위기가 닥칠 수 있기에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인 것이다. 범국민에너지 절약 실천운

동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대 정전과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식 고취 및 생활화 유도가 가장 유용한 수단인 것이다. 2018년에 중앙회는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서 전기 · 가스 · 수도 사용량을 20% 가까이 절감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에너지절약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게 되고 이것은 생명살림 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라. 자전거타기와 걷기 운동

'자전거타기 운동'은 평소 생활 가운데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고 건강을 지키며 고유가 시대 절약을 실천하고 지나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지구환경을 지켜 나가자는 차원의 '건강운동이자 경제운동'이고 '녹색운동'이자 '생명살림운동'이다. '자전거 타기 생활화'는 지나 친 차량운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완화하자는 자가용 이용 억제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전거 타기는 IMF사태 이후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와 자전거 타기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레저로서도 각광받게 되었다. 누구나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도 유지하고 절약도 실천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이 운동은 가족단위 레저 활동으로도 매우 유용한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이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범국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 왔다.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나도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어 매우 유용한 것이다.

경기도새마을회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자전거타기 경진대회'를 열어 레저와 축제를 즐기는 장을 마련해 주는 활동들을 이어 오고 있다. 각종 행사시에는 자전거를 시상품으로 제공하여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도록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자전거타기 운동'은 토론회, 강연회, 결의대회 및 캠페인과 경진대회, 자전거 무상점검 등으로 붐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이는 걷기대회,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과 함께 건강과 경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운동으로 자리 잡아 오고 있다.

'자전거타기'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운동으로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유용한 운동이다. 중앙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그린사랑 대학생 자전거 국토대장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도내 Y-SMU 회원들이 다수 참가하였는데 올바른 환경인식을 갖춘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캠페인으로 추진되어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의 기회를 주었다. 주민들은 '자전거타기'운동이 내게 유익하며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후손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이 '자전거 타기운동'은 저탄소 녹색생활화를 실천하는 새마을운동을 몸소 '실천하는 운동'인 것이다.

'자전거타기'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걷기대회'이다. 이는 걷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 ·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모여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는 매우 유용한 사업이다. '걷기대회'는 주로 시군단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운동은 198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새마을일꾼 행진대회'에 근원이 있다할 수 있다. 80년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 도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환경보전과 경제적 이득이 있지만 초기의 걷기대회는 건강증진과 화합차원에서 추진되어져 왔다. 무엇보다도 걷기대회의 유익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는 점으로서 가족 간, 이웃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서서는 도시지역 공원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누구나 마음 맘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되었다. 누구나 아무 때나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운동의 성공적 성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은 언제나 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 주민 다수가 희망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 환경안내소 운영

'환경안내소'는 유원지나 행락지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환경보

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청결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휴식을 취하고 되돌아 갈 때는 챙겨 온 쓰레기를 모으는 장소로도 활용되는 곳이다. 모아진 쓰레기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분리수거를 통해 활용되도록 하였다. 1998년 이후 활발히 추진된 '환경안내소'는 주5일제 근무의 본격실시로 나들이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환경 센터인 것이다. 환경안내소는 주로 해수욕장, 산, 강에 설치하였는데 도내에서는 양주 장흥(일영유원지), 포천(백운계곡), 안양(안양유원지)등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였다. 깨끗한 여름보내기, 쓰레기 안 버리기, 1회용품 안 쓰기 범국민 서명운동,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등의 환경보전 관련 홍보를 부수활동으로 하였다. '환경안내소'는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선진시민의식 함양, 질서 확립운동을 위해 '행락 철 쓰레기 되가져오기'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으는 활동으로서 자연보호 활동과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향토사랑 새마을운동으로 추진되었다.

바. 명예환경 감시원

1995년부터는 한강환경관리청과 협력하여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수도권에서 선발된 508명의 새마을지도자는 한강환경관리청장 명의로 위촉장을 수여받고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받아 활동하였다. 이는 수도권 시민들의 음용수인 한강을 깨끗이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운동이었다. 1998년에는 명예 환경감시원증 발급은 물론이거니와 환경보전 포스터와 캠페인을 상징하는 캐릭터까지 제작 · 지급 하면서 환경감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갔다. 이 활동은 1998년 까지 지속되다가 잠시 활동이 저조하였지만 다시 2010년, 2011년에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 주어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2011년에는 4대강 본류 및 지류를 집중 단속하여 '폐수 무단방류, 쓰레기불법투기 방치, 하천 불법세차, 오염사고 우려지역 순찰, 안내판 설치' 등의 불법적 행위들을 감시하여 생명의 식수를 지키는 운동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사. 새마을대청소

'새마을대청소'는 도시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1973년부터 시작되어 온 새마을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사업이다. 이 대청소는 매월 1일과 15일 두 차례씩 도시의 주요지점에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학생, 주민 등이 참여하여 범국민적인 청결운동으로서 추진된 실질적인 환경운동의 효시였다고 볼 수 있다. 골목마다 모두 할 수는 없고 주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역이나 터미널 주변 등에서 새마을대청소가 이루어졌다. 물론 빗자루 등은 각자 자기의 청소도구를 지참하여야 했다. 이 운동은 개발과정에서 지저분해 지고 시민의식 수준도 못 미치고 쓰레기를 처리해 줄 인력도 장비도 부족한 시절의 운동이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 골목길에서 각각의 구역을 정해 청소하면서 전 도시로 확산되어져 갔다.

'새마을대청소'는 1974년부터는 보다 본격적이고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도시새마을운동의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새마을대청소는 도시 곳곳에서 추진되어 시민들의 청결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새마을운동이 영역을 다각화하고 급속한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가치관 혼돈으로 새마을대청소는 새마을지도자만 참여하는 정도로 축소되어 쇠퇴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이후 각종 환경단체가 출현하면서 일면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들의 문제제기 방식과 해결방식은 오히려 환경문제는 국민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창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정부와 환경단체 간, 개발과 보존의 대립관계로 환경문제를 인식시키는 결과를 낳아 주민들이 쉽게 환경문제에 접근하고 참여하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은 주민 개개인의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이의 실천방안이 바로 새마을대청소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새마을대청소는 단순한 청결운동으로서만 아니라 첫째 건건한 국민정신운동에 대한 국민 참여의식을 조성할 수 있고, 새마을대청소를 통해 주민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인보협동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셋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의식개혁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97년 이후에는 환경문제가 생존의 문제까지로 심각하게 대두된 현실에서 다시 새마을대청소를 정례적으로 체계있게 내실화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실천적 환경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새로이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한 계획들이 추진되었다. 시군별로 새마을청소의 날을 정례화하면서 '작은 실천으로 큰 뜻을'이루는 새마을운동을 구현하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시군별 실정에 맞게 새마을대청소 또는 국토 대 청결운동 등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2001년도에는 새봄맞이 새마을 대청소 8개 시군시범지역까지 운영하며 새마을대청소의 명맥을 이어갔다. 2008년부터 2010년 까지는 살맛나는 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대청소의 날을 운영하며 새마을대청소를 이벤트화 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아. 국토 대 청결운동

1990년대 들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피서지나 행락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뒷정리가 없어 큰 문제가 야기 되었다.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쓰레기 대란이나 숨겨진 쓰레기 이야기들이 나왔다. 90년대 중반까지 이런 행태는 반복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 국토 청결주간', '청결의 날'까지 정하며 선진 시민의식을 호소하였지만 좀처럼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맞추어 경기도지부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새마을대청소의 연장선에서 각 시군의 피서지나 행락지에서 뒷정리를 하면서 '국토 대 청결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주민들에게는 '내 고장 환경 가꾸기'라는 운동으로 추진되었는데 쓰레기를 '줄이고, 안 버리고, 되가져오기'의 3대 중점운동 과제로 집중추진하게 되었다. '국토 대 청결운동'은 상시 하는 것이지만 계절에 따라 전국 일제히 추진함으로서 그 효과도 증대시켰다. 붐 조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이었다. '봄맞이 국토 대청소', '추석맞이 환경정비' 등 계절에 따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토 대 청결운동'에 집중하면서 내 고장 환경 지키기 자연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선일보와 문

화방송이 협력하여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우리고장을 깨끗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 'Clean Up The World 1996'은 국제적 캐치프레이즈였다. 내 고장 환경 지키기, 자연정화 활동을 전국 일제히 실시하고 생활주변 쓰레기제거, 하천주변 정화, 유원지 정화, 생활주변 불결지역 일제 대청소, '공중화장실 청결운동 및 시설정비, 새마을시설물 정비(회관, 창고, 군집 기, 조형물 등)등과 더불어 부대행사로 대기오염 줄이기 자전거 대행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무공해환경상품 전시회, 환경오염실태 사진전 등도 병행하여 '국토 대 청결운동을 생활화 하고 중요성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이는 생활주변과 자연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정화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시켜 선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도록 하는 운동이었다.

1999년에는 피서 철 쓰레기 특별관리, 내 고장 국토청결운동, 2000년에는 '국토 대 청결운동' 집중의 해, 2001년도에는 피서지 환경 대 청결운동 등 매년마다 이벤트화 하며 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2000년대 후반 까지는 '반상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새마을대청소'나 '국토 대 청결운동' 등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되어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사회변화는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멀어지고 이기주의적으로 흘러갔다. 급기야 2003년에는 '내 집 앞과 우리 동네 눈치우기'운동까지 펼치며 주민의 일은 주민이 하도록 홍보하였지만 주민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마침내 일부 기초 지자체들은 '내 집 앞 쓰레기 내가치우기'를 아예 조례로 만들어 시행하는 곳까지 생겨 매우 씁쓰름하게 되었다. '국토 대 청결운동'은 각종 국제행사 기간이나 준비기간 동안 더 철저히 추진되었다.

한국방문의 해, 2002월드컵, 2005경기 방문의해, G20정상회의 준비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손님맞이 차원의 '국토 대 청결운동' 특별이벤트를 통하여 세계 속 한국의 이미지제고에 노력하여 왔다. 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자 '새마을운동 제창일'로서 다양한 환경이벤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새 봄, 새 활력, 새 경기'라는 프로그램은 그러한 '국토 대 청결운동'의 하나였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토 대 청결운동과 새마을대청소는 2010년에 들어서면서는 'SMU 뉴 새마을운동'의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인 '그린코리아'의 일환으

로 '녹색새마을운동'의 타이틀을 걸고 다시 '국토 대 청결운동'을 추진하였다. 물론 시대마다 지역마다 시기마다 그 추진방법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데는 다름이 없었다. 전국에서 대대적이고 정례적으로 운동을 추진함으로서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서로 돕는 문화시민의식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깔끔이 봉사단 구성, 깨끗한 골목 가꾸기, 내 집 앞 쓰레기 내가 치우기, 우리 동네 내가 가꾸기, 취약지역 일제정비, 새마을유적지 및 시설물 가꾸기, 정화차원이 아닌 더불어 는 공동체정신 발휘, 이기주의 극복 차원의 국민운동이었다.

2010년도부터 3013년도 까지는 매우 활발한 '국토 대 청결운동'이 추진되었다. 도로변, 하천, 뒷골목 쓰레기치우기, 깨끗한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범국민 클린운동'전개로 녹색성장을 실천하고 '겨울철 눈치우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운동 등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범국민 클린운동'은 국토 대 청결운동의 다른 이름으로서 중단되거나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새마을대청소를 부활하거나 정례화 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자는 운동이었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범지역 지정, 계절별 이벤트화, 취약지역 정례화 등의 방법이 적용되었다. 국토 대 청결운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조차 무시되는 시민의식을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면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새마을운동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 오고 있다.

자. 강, 하천, 실개천 살리기

'강, 하천, 샛강 살리기'는 전통적으로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해 온 '환경새마을운동'이다. 지역과 사업시기에 따라 강, 하천, 샛강 명칭은 달랐지만 결국 '우리 동네 하천을 우리가 살리자'는 운동이다. 주변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제거하여 '맑은 강'을 만들어 청결하고 살아 숨 쉬는 생태를 복원하자는 운동으로서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나마 70년대와 80년대는 강과 하천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각

종 폐기물이 넘치고 낮은 시민의식으로 모두의 자산이자 생명 줄인 강과 하천에 대해 소홀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새마을회원들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각 지역을 가로지르는 '샛강과 소하천, 유원지 계곡'등을 집중해서 정화하는 활동을 해 왔다. '소하천과 샛강 살리기'는 소하천 전담구역 지정, 하천주변 청결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주요 활동과제로 내 지역의 하천을 살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활동이었다. '샛강과 소하천, 유원지 계곡'의 오염을 방지하고 살려 나가 생태를 복원하고 주민들의 유익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추진하여 왔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질분석'을 해가며 개선과 주민의식 변화에 주력하였다.

1994년에는 '맑은 강 가꾸기'실천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갔다. 이는 심각한 수질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오폐수 무단방류를 감시하여 '깨끗한 하천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목표였다. 새마을운동은 '깨끗한 환경 가꾸기 운동'이며 '맑은 물가꾸기 운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정화활동과 환경보전 인식확산에 주력하며 활동하였다. 시범사업으로 가장 오염이 심각한 수원을 지나 화성으로 흐르는 황구지천을 새마을회원과 공군부대 장병 등 3천여 명이 합동으로 수중 오물제거, 잡초제거, 물줄기 바로잡기를 추진하여 언론의 집중을 받기도 하였다.

1995년에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강과 하천'살리기를 위해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환경오염 실태 조사와 정기적 측정, 데이터분석, 읍면동 담당제도 추진하였다. 이는 경기도와 조선일보, 중부일보의 도움으로 추진되었는데 주요 활동지역은 수원(수원천), 안양(안양천), 안산(안산천), 구리(왕숙천), 오산(오산천), 광주(경안천) 등 약8km 구간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활동은 "수질분석기"를 활용하여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PO4(인산염), NO3-N(질산성질소), O2(용존산소),PH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조사결과 언론에 발표하여 환경오염 실태를 알리고 정화활동으로 인한 변화과정을 알리는 활동으로 매우 유익하고 홍보효과가 높은 환경정화 활동이었다.

1997년에는 '맑은 물 되찾기 도민운동'도 추진되었다. 도민들의 가정에서부

터 생활환경 오염원을 근절시키도록 실천하고 계도하는 활동이었다. 이 운동은 오염원의 주범인 음식찌꺼기, 폐식용유와 세제 등 생활폐수를 정화하고 줄이는 것이 강과 하천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지속되었다. 따라서 이 활동은 '소하천 살리기와 지하수 보호 폐공 찾기,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저공해비누 보급운동'등과 연계 추진하였는데 근본적인 오염원을 줄여나가고 이를 실천하여 생활화 하는 것이 '강과 하천'을 살린다는 것이었다. 생활폐수는 강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켜 다시 우리의 건강을 해치므로 이를 줄여나가고 차단함으로써 '환경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지는 운동인 것이다. '강과 하천'살리기 운동은 기본적으로 1개 지역이 1개 샛강이나 하천을 담당하자는 것인데, 각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참여하여 '1사 1산 가꾸기'로 확대 추진되었다. '샛강과 소하천'을 살리는 운동은 환경새마을운동의 시작으로서 가정과 직장의 생활 속에서 수질 오염원을 줄이면서 국민 개개인의 환경의식 높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2003년에는 점점 심해지는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30만 가구 물 저금통 보급운동'을 펼쳐 나갔다. 이 운동으로 물 부족문제를 극복하고 물의 소중함과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었다. 화장실 변기 수조에 버려진 페트병이나 벽돌2장을 넣어 조금씩이라도 물을 아껴 쓰자는 것이었다. 2004년에는 다시 국토청결운동을 실시하여 산 · 강 · 바다의 환경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전개 하였다. 활동을 통해 자원재활용도 병행하게 되었다. 중앙회는 2009년 7월에 '녹색새마을운동중앙본부' 출범식을 갖고 2010년부터 'SMU 뉴 새마을운동'의 '그린코리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녹색새마을운동경기도본부'는 그 중심이었다. 경기도지부는 '실개천 살리기 발대식'을 열고 각 지역마다 체계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천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도민 의식을 함양시키고 생활화 하자는 운동으로서 각 시군마다 자체구역에서 체계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면서 효과를 높여 나갔다. 녹색새마을운동으로 맑은 4대강 주변 정화활동과 하천 살리기 등도 병행 추진하였다. 이는 새봄맞이 대청소, 재활용품 모으기, 강 · 하천 쓰레기 치우기,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과 병행추진하면서 강 · 하천 살리기 녹색패밀리 봉

사단도 구성 · 운영하였다. 지역마다 '1사 1하천 운동 협약식'을 병행하여 지역 내 기관, 기업, 민간단체, 군부대, 학교 등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 받는 활동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SBS와 공동으로 '1사 1하천 운동' 방송캠페인도 실시하여 국토사랑정화활동과 내 고장 산천은 우리가 지켜 나가도록 추진하였다. '강, 하천, 샛강 살리기'는 범도민 환경새마을운동이다. 이 운동은 의식 환경운동이자 생활 환경운동이며, 실천 환경운동이자 지역 환경운동인 것이다. 경기도 새마을회원들은 우리 고장의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원칙으로 '강, 하천, 샛강 살리기'를 지속해 왔던 것처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차. 나무심기 운동

'나무심기'는 새마을운동 초기부터 추진되어 온 그린코리아 사업이다. 초창기 나무심기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헐벗은 산들을 푸른 산으로 만들었다. '산림녹화'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가장 성공한 운동이었다.

수종을 개량하여 속성, 지역 환경에 맞는 나무와 유실수까지 심어 헐벗은 산림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60년대 초가집에서 나무와 짚을 이용하여 난방과 취사를 해결하던 시기에 연탄과 석유 등의 사용으로 벌목과 산림채취는 줄어들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대체연료 전환으로 더 이상의 산림황폐는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헐벗은 산림에 나무를 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높은 산에 나무를 심고 사방공사를 하여 장마로 인한 토사 유출을 막아갔다. 나무를 심기 어려운 곳에는 지게를 이용하여 나무와 거름과 물을 날라 가며 어렵게 나무를 심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원이 주류였지만 나중에는 복차사업으로 노임을 지급하며 나무를 심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약이 부족한 시기였으므로 야산에 남아 소나무를 갉아 먹던 송충이를 잡는 일은 어린 학생들의 몫이기도 하였다. 그 때 심은 나무들은 이제 큰 나무가 되어 숲 가꾸기로 다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성장했다. 독일과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산림녹화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니

까 지금의 울창한 숲들은 대부분 70년대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심어진 것들이다. 새마을회원들은 매년 식목을 통하여 나무의 수를 늘리거나 수종을 개량하며 살아 숨 쉬는 국토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해 왔다. 이 나무심기 운동은 도시에서도 매년 진행하면서 삭막한 회색 빛 도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집중기간이나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식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지부는 경기녹지재단과 협력으로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내 집, 내 직장에 나무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2007년의 목표는 '내 직장 10만, 내 집 새마을 90만 그루'를 목표로 경기도를 나무와 숲으로 만들자는 운동이었다.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민과 기업이 참여하여 '내 집, 내 직장' 등 생활주변에 매년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범 도민, 범 기업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였다. '내 집, 내 직장에 나무심기운동'은 도내 21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기업 당 5,8그루 이상을 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이 일은 새마을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완수하게 되었다.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도시녹화사업, 환경교육, 포스터 및 가이드북 제작 등을 시행하였으며 나무심기 교육 및 홍보, 기관단체 연대, 나무심기 이벤트 등으로 대대적인 식목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실제 심은 나무는 2007년에 125만 그루, 2008년에는 13만 7,343그루, 2009년에는 43만 6,455그루를 심어 목표를 훨씬 초과하였다. 성과가 높게 나타나자 경기도지부는 2010년에도 연 이어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0년도에는 124만 8,516그루(125%)를 심었는데, 새마을회원들이 40만 3,079그루, 개인 · 기업 · 단체가 84만 5,437그루를 심어 목표를 훨씬 상회하였다. 이 나무심기에서 최우수는 포천, 우수는 가평과 고양, 장려는 안성, 안산, 양주 등이 차지했다.

2011년도에는 중앙회 차원에서 산림청, 농림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력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운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온실 가스를 줄여 나가며,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자난 것이었다. '나무심기 운동'은 자원위기, 환경위기,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온실가

스 배출량 증가대책 등의 시급한 정부나 국민들의 바람과도 일치되었다. 도시에서의 나무심기는 공원, 녹지, 도로변, 생활주변, 공공청사. 학교담장, 직장, 야산 등에 집중적으로 식재했다. 이 운동은 3~5월, 9~10월 기간을 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중간 중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동시행사로도 추진되었다. 수종은 주로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때죽나무, 은행나무)과 탄소저감 수종(팽나무, 메타스퀘어, 양버즘 나무)등을 주로 심어 나갔다. 식재 방법으로는 읍면동별로 300그루를 심고, 각 가정의 결혼, 출산 등 각종 기념일에 나무를 심어 보람과 미래를 기대해 보자는 차원이었다. 지역 별로 '새마을동산 만들기'를 통하여 체험 학습장을 만드는 시군도 있었다.

2011년에는 '우리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이 운동에는 140,946 그루를 심고, 새마을회원은 13,548명과 527개 읍면동이 참가하였다. 2012년 중앙회는 농림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나무심기를 추진하였다. '함께해요!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자투리 공원 나무심고 가꾸기를 추진하여 지구온난화, 기상재해,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온실가스 경각심등을 알리며 지속적인 국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이 운동을 추진하였다. '나무심기'는 상당히 긴 기간을 가다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조금씩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새마을회원들은 이러한 특성에 맞게 농촌에는 물론이거니와 도시의 공원녹지와 도로변, 생활주변과 직장주변 등에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심어 왔다. 2020년부터는 생명살림 차원에서 대기오염에 강한 양삼 등을 식재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카. 식생활개선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식생활개선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새마을부녀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중에 하나이다.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좀도리(좀덜이)운동으로 내일을 위한 절미저축운동을 전개하였다. 보리밥과 밀가루 음식으로 연명하다가 약간의 쌀이 생기게 되니까 쌀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이에 새마을부녀회가 혼식으로 건강도 유지하고 쌀도 절약하자는 운동을 펼

쳐 나갔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식생활을 하였지만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활방식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운동이었다. 초기의 식생활개선 운동은 쌀과 보리, 잡곡 등을 넣은 건강식을 교육하였다. 또한 국수나 빵 등 밀가루음식을 권장하여 매주 토요일은 '분식의 날'로 정하고 실천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도시락 검사를 통하여 혼식여부를 확인하는 일까지도 있었다. 식생활개선 교육은 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칼로리를 계산한 합리적이고 영양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부녀자들을 교육하였다. 음식을 요리해 먹는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닌 시절이었다. 따라서 식생활개선 운동을 통하여 부족한 쌀을 대체해 가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가정경제도 일으키자는 운동이었다. 오늘 날의 요리책이나 래시피와 비슷한 것이었다. 90년대 들어 소득이 증가하면서 차츰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혼 · 분식 등의 말은 사라져가기 시작하였다. 오히려 과도한 음식을 준비하여 실컷 먹고도 남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새마을부녀회는 이런 낭비행태를 주부가 먼저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음식은 염분이 많아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도 어려워 골치 덩어리였다. 음식물 쓰레기는 합리적이지 못한 우리 음식문화에도 기인하며 체면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2002년 월드컵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런 행태를 바로잡아 가는 계도활동을 펼쳐 나갔다. 1996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실천 범시민다짐대회' 개최를 계기로 각 시군, 읍면동에서는 가정과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권장하며 생활화 하도록 운동을 펼쳐 나갔다.

1997년에는 '일등 경기'를 목표로 '음식물 쓰레기 제로! 제로! 운동'에 돌입하였다. 이는 생활환경개선 캠페인으로서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비용문제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우리의 음식문화를 바꾸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도 추진되었다. 운동을 정착시키는 10여년 넘는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2005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교육교재를 만들어 주부들이 생활화 하도록 계도해 나갔다.

2009년에는 웰빙, 친환경 등의 붐이 일던 시기이다. 도 부녀회는 건강한 식단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 알뜰하고 골고루 영양을 갖춘 음식들을 권장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는 음식문화가 상당히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도 아직 합리적인 음식문화 정착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도 부녀회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방법을 실천해 나가도록 운동을 전개하였다. 음식 제로화 교육의 핵심은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음식물 포포'라는 사업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 나갔다. 도 부녀회는 시범지역인 부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전 시군, 전 읍면동에서 남는 음식 제로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 운동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식단제 실천 사진공모전, 남은 음식 포장해 주고 포장해 가기, 버려지는 음식물 줄이기, 식생활 개선으로 가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올바른 식품보관으로 변질식품 발생 예방하기, 과다구입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최소화하기, 식품조리 시 과학적인 계량으로 음식재료 낭비예방, 알뜰한 상차리기,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 자원화를 통한 감량화, 폐식용유 이용 환경비누 제작, 식품 포장용기 재활용, 음식물 찌꺼기 화초 및 채소재배 퇴비주기, 쌀뜨물 및 상한우유 천연세제 활용하기, 버리는 식품재료활용 요리하기 등등 가정과 음식점에서 실천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었다. 그 만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우리 사회가 않고 있는 큰 문제로서 과소비 행태의 대표였다.

부녀회는 음식문화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들을 지속하였는데 식품특성에 맞는 보관방법과 지혜를 습득하게 하고, 계량저울 등 올바른 사용을 생활화 하고,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여 되살리는 요리방법, 식생활개선 실천운동을 통해 식습관 개선까지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였다.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먹고 버려지는 량을 계산하면 음식물쓰레기를 1/2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면을 버리고 품격 있는 식문화를 만들면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홍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추진해 나갔다.

녹색새마을운동의 일한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합시다.' 'Me First, 녹색은 생활입니다.' '남

은 음식 Zero 운동에 동참합시다.' '낭비하는 음식문화, 친환경 식생활 습관이 건강과 환경을 지킵니다.', '차릴 때는 먹을 만큼만, 먹을 때는 남김없이' 등의 캐치프레이즈와 구호로 캠페인을 지속해 나갔다.

굶주림에서 꽁보리밥으로, 꽁보리밥에서 혼 · 분식으로, 혼 · 분식에서 쌀밥으로 오기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었다. 너무 빨리 성장한 덕분에 배불리 먹고도 남아 쓰레기를 걱정하게 되고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과 골치를 앓고 건강식과 웰빙 식단을 찾으며 다이어트 한다는 세상이 온 것은 우리에겐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높은 고개였는지를 안다면 합리적인 선진음식문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보 · 협동 사업

'인보협동 사업은' 이웃돕기 사업이자 해피 새마을사업이다. '불우이웃 돕기' 사업은 우리사회에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찾아 소외된 계층을 돕자는 운동이다. 이 활동이야말로 새마을사업 중에 가장 전통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보살핌의 대상은 주로 노인층과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과 탈북주민, 재난과 재해를 당한 이웃 등이다. '인보협동 사업'은 실제로 홀로 계신 외로운 노인도 있지만 혼자는 아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나라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도 실제 고아인 경우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사실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이기도 하다. 어찌됐든 이 운동은 우리 마을이나 지역에서 힘들게 삶을 유지해 가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주면서 그들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장애우 등 소외계층은 언제나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인 것이다. 특히 이 운동은 살맛나는 이웃공동체 운동으로서 'Happy Korea 운동'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즉, 나눔과 봉사, 배려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보살펴 우리 사회가 밝고 행복해 지자는 차원의 활동인 것이다. 새마을회원들은 회비를 모으거나 기금마련 사업을 통해 조성된 자금

으로 정성껏 이 소외계층 이웃들을 보살펴 오고 있다.

'불우이웃돕기'활동은 평상시는 물론이거니와 설맞이 · 추석맞이 · 연말연시에는 보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돕도록 추진하여 오고 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설 명절 함께하기, 결혼 이주여성 설 명절 문화 멘토 하기, 노숙인 챙기기, 사랑의 떡국 나누기 등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소외계층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는 겨울철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보다 섬세하게 소외된 이웃을 챙겨오고 있는데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자 '따뜻한 겨울나기 실천사랑 대행진'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활동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주 대상으로 펼쳐오고 있는데 주로 쌀 나누기, 김장김치 담가주기, 집 고쳐주기 등이다. 이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 경기, 세계 속의 경기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다. '1만 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100만 포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10만 가정 쌀 나누기, 100만장 사랑의 연탄 보내기' 등이다. 물론 목표는 단 년도에 달성하지 못하고 3년 내지 5년에 걸쳐 달성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은 희망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회통합, 공동체 정신 확산, 이웃사랑 운동에 역점을 두어 '행복 두 배를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불우이웃돕기 활동은 '해피 마을 만들기'운동으로 마을 전체가 이들을 보살피고 도와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2012년에는 전국 27개 우수 해피마을 중 경기에는 수원 장안구 영화동의 이웃사촌 맺기와 용인 중앙동의 어려운 이웃돕기로 해피마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해피마을은 아파트 및 마을단위로 선정하였는데 관할 지역에 있는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가정,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 나눔과 기부문화 생활화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 자녀 방과 후 돌보기, 빈집 관심 갖기,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애경사 등 희로애락 함께하기' 등에 대한 마을 발전방향과 방문일지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 평가하여 정하였다. '인보협동 사업은' 오래 추진해 온 사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오래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불우이웃을 돕는 일은 작지만 수혜자들에게 절실한 도움이다. 또한 이들이 행복해야 마을도 공동체도 다함께 웃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기에 운동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가. 며느리 봉사대와 노인섬기기

'며느리 봉사대'는 이웃돕기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봉사대는 이웃돕기 운동의 제1차적 대상자인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활동주체인 것이다. 1996년 3월에 발족된 이 며느리봉사대는 전국 247개 시군구부녀회에서 모두 발족되었는데, 첫 사업으로는 '사랑의 노인 섬기기'프로그램 이었다. '며느리 봉사대' 활동의 1차적 사업으로서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보살피게 되었다. 이 활동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1998년 말까지 지속되다가 다른 명칭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는 노인인구 급증, 노인문제 사회적 확산, 노인부양 증대, 경제능력 저하, 신체노화 및 질병, 노후 활동 및 가족 간 대화부족, 노인 소외감 등이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발목욕, 밑반찬, 말벗, 산책, 병원 모셔다 드리기' 등 마을과 지역에서 가장 쉽게 해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도와드리는 것이다. 이는 나눔의 봉사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다정한 이웃, 화목한 가정, 따뜻한 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 어른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활동으로 추진되었다. '며느리 봉사대'는 '사랑의 노인 섬기기'란 프로그램이 매우 간단한 활동이지만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단계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실행하였다. 1996년 제1단계는 '분이기 조성의 해'로서 부녀새마을가족부터 '사랑의 옹달샘 만들기'를 실천하였다. 이는 자기 가정에 계신 노인도 못 챙기며 다른 가정의 노인들을 챙기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는 차원으로 추진되었다.

1997년 제2단계는 '실천과 확산의 해'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봉활동으로 '사랑의 봇물 만들기'가 추진되었다. 이는 가정에서의 실천경험을 바탕으로 이웃 노인들에게 대상을 넓히는 차원의 활동이었다. 1998년 제3단계는 '정착

과 생활화 단계'로서 범국민적 생활봉사 활동정착인 '사랑의 강물 만들기'가 추진된 것이다. 이 운동은 작은 옹달샘에서 봇물과 강물이 되도록 넓혀 나간다는 활동으로서 마을과 지역에서 새마을회원들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사랑의 노인 섬기기'는 가정이나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누고 돌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한 어른의 권위회복, 효 정신 확산 등이 목적이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들로는 '노인시설장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며느리봉사대 발대식, 활성화 다짐대회, 수범사례 발표회, 1부녀회 1노인정 자매결연, 노인위안 잔치 등의 교육과 홍보, 이벤트 행사들이 이루어졌다. '며느리봉사대'의 노인을 섬기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이불 나눔, 김장 나누기, 밑반찬 드리기. 쌀과 연탄 나누기, 명절음식 나누기, 경로잔치, 삼계탕 달여 드리기, 효도관광, 목욕시켜드리기, 집 고쳐 주기' 등 마을과 공동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섬기기 사업이 수없이 많이 추진되었다. 사업자금은 새마을회원들이 회비를 모으거나 기금마련 사업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정성껏 보살펴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일종의 민간사회안전망 운동으로서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도움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국가사회안전망으로 돕고 있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 소외계층이 매우 많아 이들을 보살피는 활동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도 노인 섬기기는 계속되었다. 고령화로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가족붕괴가 심해지면서 소외된 노인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게 되면서 노인 자살,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노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것이다.

2007년 금융위기로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소외된 노인들이 제1차적인 피해자였다. 이에 '며느리봉사대'는 '10만 며느리봉사대 10만 무의탁 노인 섬기기'라는 대대적인 노인보살핌 활동을 펼쳐 나갔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홀로 지내는 '노인과 1:1 자매결연, 지속적 수시로 방문, 말 벗 되기, 든든한 울타리 역할하기' 등이 추진 내용이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공경과 효

의 전통적 가치관을 되살려 가는 미풍양속을 회복하고 예절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친숙한 며느리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사업으로서 '이 · 미용 업소 선정 월1회 이 · 미용 해드리기, 목욕 해드리기, 빨래 · 집안청소 해드리기, 말 벗 해드리기, 밑반찬 해드리기' 등이 전개되었다.

2009년에 추진한 '소외노인 원 스톱 맞춤서비스' 프로그램은 며느리봉사대 활동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사랑바이러스, 행복바이러스, 나눔바이러스' 전하기 사업으로서 사랑바이러스는 사랑을 싣고 달리는 무료급식을 릴레이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행복바이러스는 고부가 함께하는 행복한 나들이를 하자는 것이고, 나눔바이러스는 나눔 릴레이로 함께 사는 희망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운동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2010년 대 부터는 소외계층 노인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겨울을 대비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하여 '따뜻한 옷 나눠드리기, 집 고쳐주기, 김장 나누기, 사랑의 쌀 연탄 · 옷 · 떡국나누기 등이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생활밀착형 홀몸 노인 돌봄에 집중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하여 '봉사수첩 및 일지'를 적으며 노인 케어를 추진하였다. 이는 홀몸 노인들의 정서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성이 높은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이 수첩과 일지에는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안전, 우울증 및 자살 징후, 경제, 일상생활 등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기록하면서 노인을 캐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 위급상황 신고 요령 등을 알려드리는 활동이었다.

2012년도에는 '행복한 동행 1회원 1후원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며느리봉사대원들과 1:1결연, 상호간 결연을 맺고, 정기적 방문으로 건강을 확인하는 연대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고령화 사회 민간사회안전망 차원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생필품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말 벗, 외출도움, 옷과 이불 나눔, 김장 나누기, 밑반찬 드리기. 쌀과 연탄 나누기, 명절음식 나누기, 경로잔치, 삼계탕 달여 드

리기, 효도관광, 목욕시켜드리기, 집 고쳐 주기' 사랑의 물품 전달, 가가호호 방문 및 안부 묻기, 이 · 미용' 등이다.

나. 새마을 김장 나누기

'새마을 김장 나누기'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의 대표적 사업이다. 초창기는 부녀회원들이 전경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노력봉사 형태를 띠었다. 80년 이후 시 · 군, 읍 · 면 · 동 등 새마을부녀회가 공식적 조직형태를 가지면서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단순한 노력봉사가 아니라 김장재료의 확보, 김장 작업, 김장의 분배 등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초기에는 읍 · 면 · 동 부녀회가 주 사업주체가 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시 · 군, 도 단위 사업으로 확대되어 갔다. 특히 90년대 후반 IMF 사태를 맞아 실직가정의 증대, 가계 파산 등 서민층의 생활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새마을조직에서는 각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민간사회 안전망 운동'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 불우이웃돕기의 중심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김장사업의 재원조달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부녀회원들이 연중 우리농산물, 소금 등의 판매사업, 알뜰매장의 운영, 폐자원 모으기를 통한 자금 조달과 두 번째는 휴경지 경작을 통한 김장재료의 직접적인 재배 방법이다. 도시근교 등지의 휴경농지를 개간하여 남녀지도자들이 무, 배추 등의 김장재료 가꾸는 방식이다. 이때 봄철에는 감자 등을 재배하여 그 수익금으로 고춧가루, 젓갈 등의 양념 구입 자금을 마련하고 여름, 가을에는 무, 배추를 직접 재배하여 겨울철 김장거리를 장만하였다. 세 번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장 소요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김장김치의 분배 대상은 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 영세민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이다. 대상자 선정은 부녀회원들이 직접 선정하지만 필요시 행정기관 복지담당 부서의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분배의 방법도 선정된 대상 가구에 부녀회원들이 직접 방문,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경우 김장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쌀, 라면, 고추장 등 기초 생필품과 밑반찬 등을 함께 전달해오고 있다.

1가구에 전달되는 김장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7포기 내외이다. 물론 복지시설에는 시설크기에 따라 50내지 100포기를 지원하였다. 경기도새마을부녀회의 경우 IMF가 시작된 다음 연도인 98년도에 19만2천포기의 김장을 담가 1만8천여 가구와 시설에 전달하였고 그 후 20년 동안 약33만 명의 연인원이 참여하여 4백26만여 포기의 김장을 69만7천여 가구 및 시설에 전달하였다. 이 사업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겠지만 휴경지 경작, 김장재료 운반 등에는 남자지도자들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새마을부녀회의 고유사업이었던 이 사업은 지금은 다양한 여성단체는 물론이거니와 기업 · 기관 · 단체 등에 전파되어 겨울철 불우이웃돕기의 상징사업으로 자리 매김 해 오고 있다.

도 부녀회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11월 초에 경기도청 광장에서 4천~5천포기정도 김장을 만들어 시군 홀몸 노인, 차 상위 계층 어려운 이웃, 다문화가정, 탈북가정 등 상대적 소외계층에 전달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고 이웃을 배려하며, 나 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웃공동체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여 오고 있다.

다. 민간사회안전망

'민간사회안전망'은 '국가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기초생활 보호자 등 법적으로 보살펴주는 이들을 제외한 대상자들을 위한 인보협동 활동이다. 즉,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이다. '국가사회안전망'에서는 국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많은 안전장치와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도움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국가사회안전망이란 제도로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소외계층이 매우 많아 이들을 보살피는 활동이 민간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운동이자 주민자치 활동인 것이다. 이 운동의 근원은 상부상조 협동정신인데 이를 회복시켜 나가는 활동으로서 소외계층 주민 삶의 질을 높여 행복의 가치를 높여가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활동인 것이다.

홀로 사는 어르신이라 해도 자식이 돌보지 않는 경우와 부모가 있어도 자식을 돌보지 않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다. 다문화가정 가족들이나 탈북자 가정에도 이런 대상자들이 있다. 장애우 가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이런 대상자들을 모두 살필 여유가 없다. 돕고 싶어도 제도가 없어 마음대로 도울 수 없는 것이 국가사회안전망이다. 이는 정해진 틀 안에서 법과 제도 안에서만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부득이한 대상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마을과 지역공동체 내에서 여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살펴주는 활동들이 민간사회안전망 활동인 것이다.

이 사회적 활동은 공동체 내에서 각각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재능, 사업체를 활용하여 입고, 먹고, 사는 문제들을 분담하여 돕는 집단적 활동이다. 대상자는 주로 차상위 계층, 홀몸 노인, 소년 · 소녀가장, 장애우,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이다. 민간사회안전망은 1997년 초부터 발생한 경제 위기로부터 IMF사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활동이다. 이 활동은 새마을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의 인보협동사업이다. 다른 점은 새마을회원들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돕는다는 것이다. IMF사태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지만 기업파산과 대량해고로 실직자가정이 넘쳐났기에 이를 주민이 함께 해소하거나 완화해 보자는 협동운동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도와주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국민대통합과 사회통합, 공동체 정신 확산, 이웃사랑,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인 것이다.

1997년 IMF사태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나라경제 살리기' 운동이었고 이어서 추진한 사업이 '민간사회안전망'사업이었다. 민안망의 목적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희망과 용기를 주어 살맛나는 따뜻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다. IMF외환 위기로 인한 실직자 가정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는 당시의 빈약한 공적 국가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민간차원의 인보활동 차원으로 추진되었다. '민 · 관 · 산 연계형 네트워크'를 읍면동단위의 민간사회안전망으로 구축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이는 실업극복 정책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변의 실직자, 불우이웃, 소외계층 등 외롭고 힘든 이웃의 위기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우선 대처하는 '풀뿌리 기초 사회 안전망'이었다.

민안망은 순수하게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간차원의 구호활동이다. 주요 활동은 평소대로 '며느리봉사대, 실직가정 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불우시설 위문,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 구호사업'이었다. 이 활동에는 뜻있는 지역 인사를 적극 참여시키고 각급 단체가 연대하여 용기와 재활의 힘을 주는 것이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조정신의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적, 자활적 구호체계 구성활동으로 하였다. 사회 안전과 복지공동체 운동, 희망과 웃음이 넘치는 지역사회 가꾸기, 읍면동 중심 민간중심인 것이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사회적 기능(Social Skill)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하였다. 지역과 공동체 내에 있는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부동산중개소, 편의점, 슈퍼마켓, 대여점, 약국, 한의원, 병원, 학교, 보육시설, 우체국, 금융기관, 백화점, 음식점, 아파트자치회, 종교단체, 제과점, 지역상공인, 동호인단체, 일반주민 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구호대상 가정 기초생활 지원, 문화복지 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자원봉사 도우미활동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민안망 활동은 도내 시군에서 '무료급식소', '빨간 밥차', '도시락배달' 등의 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인보활동이다. 이는 IMF사태 이후 더 어려워진 이웃을 위해 주거공간에 대한 수리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활동은 마을과 공동체 내의 재능이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재능을 기부해 주는 것이다. 자금은 지역주민들이 모금을 하거나 지역 업체들로부터 수리물품들을 지원받아 활동해 오고 있다. '따뜻한 겨울나기 실천사랑 대행진'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소외계층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

움을 주는 사업이지만 사업자금 등이 많이 소요되어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다.

주요 수혜대상은 '재가 장애인, 자활능력 없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극빈 홀몸노인'등으로 자력으로 수리가 어려운 이웃들이다. '집 고쳐주기'의 주요 활동으로는 '도배, 장판, 보일러보수, 전기시설 보수, 화장실보수'등이다. 이 활동은 읍면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래 지속해 나가야 할 사업이다. 극빈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지 환경개선과 집 고쳐주기 사업은 소외된 이웃들도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건강한 삶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해 오면서 주민화합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며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마. 새마을합동결혼식

새마을합동결혼식은 새마을조직 출범 초기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으나 가정 형편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하고 살고 있는 영세 동거부부를 위해 새마을조직이 해당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혼례식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 사업의 진행은 지역 이웃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부녀회원들이 당사자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여 참여를 요청하고 준비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수를 확정하였다. 이어 장소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 교회, 기타 공공기관의 강당, 회의실 등의 협조를 구하게 된다. 주례는 시장, 군수 또는 지역에 널리 알려진 신망 있는 인사에게 부탁하였다. 관계기관이나 관계자는 이 사업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흔쾌히 협조하였다. 합동결혼식은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는 가정새마을운동의 주요사업으로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면사포와 흰 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하고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주부들에게는 큰 위안을 주는 보람 있는 사업이다

부녀회에서는 결혼 대상자의 수송, 식의 진행, 신혼여행지 확정과 여행경비 지원, 결혼기념품 제공 등 일체의 업무를 주관하였다. 더욱이 지역의 기업체

나 독지가는 가전제품, 이불 등 가재도구를 결혼기념품으로 지원하여 결혼부부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이 사업은 80년대와 90년대에 성행하였고 요즘에는 지역 일부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경기도새마을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215회 2,087쌍의 동거부부에 대하여 새마을합동결혼식을 진행하였다.

바. 경로(효도)잔치와 효 편지쓰기

'경로잔치'는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잘 하고 가장 오랫동안 해 온 주력사업 중에 하나이다. 새마을부녀회는 어버이날을 비롯하여 정월대보름, 복날 등에 주로 잔치를 베풀어 오고 있으며, 특별히 홀몸 노인이나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회갑연이나 칠순잔치 등을 베풀어 왔다. 보통 경로잔치나 어르신 대접 등은 리통 단위나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면 간혹 시군단위에서도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2011년도 도 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각 시군과 읍면동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효도잔치'를 기획 · 추진하게 되었다. 경로잔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공경과 봉사, 지역공동체 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이 '효도잔치'를 통하여 해피코리아,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 잔치는 티브로드 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새마을부녀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효원의 도시 수원의 화성행궁에서 개최된 '경기 효도잔치 한마당'은 정조대왕이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열어 모친과 백성들을 기쁘게 한 일을 재현하며 기획된 잔치였다. '무예, 민요, 길놀이, 서커스, 북, 장기자랑, 풀물놀이' 등 다양한 전통 문화예술 공연이 곁들여 졌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화성' 관람과 건강지킴이 체크, 효도부스 등도 설치하여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 이는 '새마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것을 기념하여 개최된 것이다. '효도 잔치'는 2012년도에는 도내 65세 이상 홀몸 및 소외노인들을 모시고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추진되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잔치'와 더불어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 '효 편지 쓰기'도 병행 · 추진되어 우리 사회가 공경문화의 전통을 이어가

도록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갔다.

'효 편지 쓰기'는 1999년 제1회 대회부터 2004년 제6회 대회까지 추진되었다.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효,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 추진되었다.

'효 편지'는 초중고생 등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은혜,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길러주고 확산시킴으로서 도덕성과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시군교육청과 협조하여 관내 초중고생에게 '효 편지 쓰기의 날'을 권장하도록 추진하기도 하였다. 부모 · 형제 · 친지 · 동료학생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담은 '효 편지'를 써보는 체험을 통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게 하여 왔다.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수원시지회 등 시군지회 특색사업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5. 조직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가. 조직역량 강화 및 활성화

'조직역량 강화와 활성화' 사업은 순수한 내부 조직원을 대상으로 우수한 운동가를 키워내는 과정이고 운동성을 높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활동이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새마을교육, 연찬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하계수련대회, 결의대회, 활성화대회, 전진대회, 워크숍, 정기총회, 이사회, 각종 회의' 등의 활동이 있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이 50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자양분이다.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과 인재를 양성하는 '정신개혁'운동이다. 이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을 이수한 지도자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귀향하여 주민들과 생활, 의식을 바꾸어가면서 발전을 거듭해 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의 입문이요, 마을과 지역을 바꾸어 나가는 동력이며 지속가능한 운동추진의 에너지인 것이다. 새마을 조직원에 대한 새마을교육은 신입과정부터 중견관리자 과정, 고급과정에 이르

기까지 단계별로 추진하여 우수한 운동가를 양성해 왔다. 그 결과가 마을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국가를 개조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도내 지도자들의 새마을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다. 교육은 새마을연수원에 입교하여 숙박교육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읍면동총무교육, 생명살림교육, 선진시민교육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교육은 먼저 중앙에서 교육 받은 이들이 회원들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져 오고 있다.

연찬회는 새마을조직의 지도급 리더들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의 사례를 교환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운동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특히 중앙의 방향이나 중점과제들에 대하여 먼저 이해하여 현장 새마을운동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수련과정으로서 사실상 실무교육과 실천다짐을 겸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세미나, 토론회는 새마을조직원들이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자칫하면 '우리끼리' 운동이 될 수 있음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이다. 시대적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운동의 방향이나 추진방법들을 조언 받아 전문성 있는 운동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왔다. 환경위기 극복, 경제난국 극복 등의 주제로 추진되었다.

간담회는 도와 시군, 시군과 읍면동, 읍면동과 리통 새마을회원 상호간에 운동방향과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들을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때로는 지자체장이나 의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활동상황을 이해시키고 시정이나 군정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조율하는 소통의 자리로서 활용되어져 오고 있다.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고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매년 전국이나 도 단위, 또는 시군단위로 개최되는데 이는 지난 한해 동안의 운동과 사업을 결산하고 참여한 새마을지도자들을 위로 · 격려 · 포상하는 결산의 자리이다. 참가자들은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 사명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여기서 얻은 의지와 보람으로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행사이자 자부심이 되도록 추진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1986. 10. 30.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남평우 도지부회장이 주관하여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치렀다. 이 때까지 경기도에서 대회를 치르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당시 경기도에는 대회를 개최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염보현지사와 이재창부지사는 1980년 12월에 수원 브라운호텔에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과 오상근과 최종현 회장을만나 실내체육관 건립을 제안하였고 최 회장이 10억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경기도에서 부담하여 선경건설에서 짓도록 합의하여 완공하게 되었다. 선경그룹의 최종현 회장은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을 역임했던 경험으로 수원 검찰청 자리에 선경도서관을 건축하여 기증해 주기도 하였다. 첫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전국 지도자대회는 24년 만인 2010. 11. 24. 이출선 도지부회장이 주관하여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1월 23일 화성행궁에서 전야제가 막 개최되고 있는 시각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본 대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인사 없이 대회를 치르게 되었다. 세번째 경기도 대회는 2019. 11. 28.~29. 송재필 도지부회장 주관으로 치러졌는데 전야제는 월드컵경기장에서 다음 날 본 대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은 새마을도자대회와 더불어 새마을운동에 몸담고 있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의식행사이다. 매년 이 행사를 통해 지도자들에게는 국민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도민들에게는 새마을운동이 살아 움직이는 현재형 국민운동이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추진

해 오고 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새마을조직원들의 중간 에너지충전 기간이다. 봄에 새마을의 날, 가을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식행사인 반면 수련대회는 주로 중간시기인 여름에 개최하게 되며 정례적으로 열리지는 못한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에서 서로 안면과 친분이 있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추진된다. 그러나 시군단위로 가면 서로 낯 설은 관계가 많으므로 이런 기회를 통해 다른 마을이나 지역의 사정과 사례도 알고 친분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어져 오고 있다.

결의대회, 활성화대회, 전진대회는 새마을운동 추진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역점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퍼포먼스이다. 이를 통해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추진요령과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이는 지역실정에 맞게 수시로 개최되는데 지자체의 시정 · 군정의 추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되어져 오고 있다.

워크숍은 새마을회원들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실무과정이다. 읍면동총무교육, 직원 직무교육 등 운동을 뒷받침하는 관리행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운동추진의 핵심인 리더들이 먼저 상세히 내용을 알아야 지도가 가능하므로 사전 교육적 측면이 강하다. 참가자들은 이 워크숍을 통해 사례나 처리방안을 듣고 자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방안을 찾는 것이다. 때로는 전국이 동일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숙지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수한 리더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것이다.

각종 회의는 새마을운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단'이다. 따라서 사람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정기총회, 이사회, 월례회의, 임원회의는 운동추진의 기초인 것이다. 사안의 경중이나 완급에 따라 정례적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해 오고 있다.

나.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새마을지도자'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 정성과 재화를 들여 마을과 지역사회, 국가발전을 위해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대가는 없다. 그들은 불타는 애향심과 애국심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건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새마을지도자에게 보상은 보람이요. 명예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국민운동이나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초기에는 그나마 철도이용, 공원이용 등 최소한의 혜택이 주어졌지만 시민운동 영역이 커지고 무수한 단체나 이익집단들이 생겨남에 따라 그 마저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 명예로 이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명예환경 감시원증 발급, 지도자증 발급 등은 최소한의 사기진작 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80년대 초반부터 새마을지도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기회가 사라지는 추세이다. 특히 장학금을 받을 중 ·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더욱 그런 기회가 없어져 가고 있다. 초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은 매우 큰 혜택이자 유인책이었다. 정부는 마을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좀 소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으로 '경기도새마을장학금조례'를 만들어 지급해 왔다. 초기에는 도내 전 지도자의 5~7% 정도가 대상이었지만 차츰 지방화에 따른 다른 기준들이 생겨 달라졌고 무상교육 등으로 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단체들과 함께 수혜 받도록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1994년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선정기준을 보면 장학금 지급 목적은 '새마을운동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인정감 부여 및 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

다. 이 제도는 자녀에게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후계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만든 제도라는 것이다. '경기도새마을장학금'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씩을 부담하여 지급해 왔다. 1994년 수혜 지도자는 1,638명으로서 도내 23,164명의 지도자 중 7% 정도로 책정하였지만 6%인 1,327명 선정되어 885,196천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장학금은 예산사정에 따라 시군에 배정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장학생은 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구분하여 각각 자격조건에 맞는 학생 중에서 선발하여 지급하였다. 수혜 지도자의 자격으로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재직한 지역 · 부녀 · 문고지도자 자녀 중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이었다.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상훈을 받은 지도자 자녀와 새마을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는 조금 더 우선권을 부여해 주기도 하였다.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연 2회 지급하였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서 1995년 1,417명(중학생 416명, 고등학생 1,001명), 1996년 1,411명(중386, 고 1,025), 1997년 1,561명, 1998년 1,469명, 1999년 1,480명 에게 지급되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마지막해인 2001년에는 1,191명에 990백만 원이 지급되고 중단되었다.

경기도는 2001. 6. 11. '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를 만들어 학업 장학금(도정유공자 자녀), 생활 장학금(저소득층 자녀)으로 통합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발전에 3년 이상 봉사한 도정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업장학금 지원을 통해 면학의지를 뒷받침하고 도정발전 유공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2002년에는 총 862명이 선정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156명 대상이었다. 2003년에는 859명 새마을지도자는 139명, 2004년에는 108명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2005년에는 새마을지도자수 21,818명의 3%인 661명, 2년이상 지도자 중,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유공장학생점점축소, 의용소방대, 농민후계자, 청소년선도위원 자녀장학금 등 2006년 새마을 장학금은 중학생 94명 고교생 420명등 총 514명으로 지도자 21,818명의 2.35%에 해당하여 금액은 504,000천원이었다. 2010년에는 도정유공자 장

학금이 늘어 345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수혜를 입게 되었다.

2010년 경기도의 도정유공자 자녀 학업장학금을 지급 대상자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345명, 의용소방대원 자녀 130명,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64명 등이었다. 반면에 저소득층 자녀 생활 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1,573명이 지급받았다. 2013년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고교생만 323명, 2014년에는 고교생만 260명이 지급받았다.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들로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공익활동을 펼치므로 국가나 지자체가 활동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땅히 일정부분 보상해야 하는데 좀 더 혜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각종 포상은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격려수단이다. 포상은 정부에서 수여하는 새마을훈장, 새마을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과 장관표창이 있다. 지체체장이 주는 표창과 새마을단체장 들이 주는 표창 등이 있어 나름대로 최소한의 격려수단을 갖게 된 것이다. 포상은 활동실적과 기간, 평가 등에 의하여 대상자와 훈격이 결정되는데 경기도지부는 지역이 넓고 회원이 많이 이에 비례한 만큼의 포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복지제휴는 병원이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받는 제도인데 시군지자체마다 그 사정에 따라 추진해 오고 있지만 크게 혜택이 없고 불편하여 대부분은 활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서비스 업종 이용료 할인, 상해보험 가입, 병원 진료비 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보상금 제도는 새마을지도자가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 등을 입을 경우 보상해주는 최소한의 제도이지만 2001년부터 시행한 이제도는 너무 미흡하여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새마을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지도자와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에 '공사상 새마을지도자 예우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였는데 새마을운동 현장에서 봉사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새마을교육 중 사망한 지도자, 새마을관련 시설물에 의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있을 시 장례 및 추서제, 위로금 지급 등이 골자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조례 등으로 타 단체 봉사자들과 함께 대상이 되어 불의의 사고 시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새마을지도자증과 명예환경감시원증'은 새마을지도자증은 지도자가 마을과 국가를 위해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상징물이었다. 초기에는 이 지도자 증으로 기차나 교통 공원입장 등의 최소 혜택이 부여되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크게 사기가 진작되어 다른 일들에 더 매진할 수 있었지만 차츰 제도가 폐지되어 그런 혜택을 보기는 어려워지고 보람과 자부심의 상징으로만 유지되고 있다.

'명예환경감시원증'은 중앙회가 환경부와 협력하여 활동의 근거를 위해 읍면동회장을 대상으로 발급해 주는 활동증명서으로서 1996년부터 발급해 주고 있다. 이 감시원증은 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인정감, 사명감에 일조하는 측면이 있다. 감시원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지도자가 공익활동을 당당히 할 수 있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증표로서 이를 통해 지도자들은 환경보전 실천의 생활화는 물론이거니와 환경오염 감시신고 및 계도활동을 적극 펼칠 수 있는 동인이기도 하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스스로 마련하여 단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운동 에너지를 찾자는 의미에서 추진되는 행사이다. 보통 기본적인 준비는 시군지회에서 하고 세부적인 준비나 음식물은 각 읍면동별로 준비한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이 대회를 통해 스스로를 위안하고 보람의 기회로 삼아오고 있다.

콘도이용권은 경기도지부가 도내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으로서 도 도지부는 2010년 2개의 회원권을 매입하여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6. 기타사업

경기도새마을운동은 매년 추진해야 하는 중점과제 이외에 특이한 사업들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 사업들은 시기에 따라 단 기간 추진되다가 중단되었지만 나름대로 사업의 목적을 잘 달성한 운동이기도 하다.

가. 새마을 사진 · 노래 · 논문 · 영상 · 시나리오 공모전

'공모전'은 특정 목적달성을 위한 주제를 정해 도민에게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발하고 선발된 작품들은 사례집이나 보고서를 만들어 확산 ·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공모전에는 '사진공모전, 생활체험 수기 공모전, 논문 공모전, 외국인 주부 체험기 공모전, 새마을노래 가사 공모전, 새나라 만들기 논문 공모전, 새마을운동 시나리오 공모전, 뉴 새마을운동 영상 공모전' 등이 추진되었다. 사진공모전은 몇 년에 한 번씩 주제에 맞는 사진을 공모하여 홍보 및 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다. 소재로는 자원봉사자 활동, 환경보전, 질서계도, 청소년 폭력예방,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5년에 추진한 '생활체험 수기 공모전'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수범사례들을 공모하여 범도민적 의식개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질서의식 분야, 환경의식 분야, 공동체의식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공모하였다.

1997년부터 추진된 '자원봉사활동 사진 공모전'은 가장 오래 추진된 사업이다. 이 공모전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현장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였는데 주로 환경 살리기, 환경보전, 질서계도, 학교폭력 예방, 사회복지시설 봉사, 농촌 살리기, 기타 공익활동 등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1998년에는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지구촌을 위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자원봉사 활동자의 모습을 공모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1999년에는 새마을 사진공모전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옛 사진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하여 많은 우수작품을 발굴했다.

1999년 중앙회에서는 '21C 새마을노래 가사 공모'가 있었다. 이는 기존의 새마을노래와 함께 21세기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래를 보급하여 새마을운동에 활기를 불어 넣고자 추진되었다. 새마을운동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마을노래를 미래지향적 내용으로 선정하여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한다는 것이었다. 당선된 노래는 '뉴 새마을운동, 나라를 위하여' 등인데 새마을연수원 교육생들을 통하여 보급하여 각종 행사에서 부르며 보급하였다.

2007년에는 '새 정신 새나라 만들기 논문 및 디지털 사진 공모전'이 있었다. 이 공모전을 통하여 도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도덕성 회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지역과 계층 간 갈등의 벽을 허물어 '국민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며, 나눔과 섬김의 이웃사랑 실천을 통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특히 이 공모전을 통하여 '새 정신 새나라 만들기 새마을운동'을 위한 젊은 세대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수렴과 새마을운동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아 추진하였다. 주제1은 새 정신 새나라 만들기를 위한 도덕성회복과 국민화합 구현에 관한 다양한 내용, 주제2는 시민사회 운동의 바람직한 방향과 국민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내용, 주제3은 내가 생각하는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발전방향으로 정하였다. 논문과 디지털사진 공모전을 통하여 생생한 새마을현장을 역사기록으로 남기고, 사진과 논문을 통하여 새마을지도자를 위로한다는 의도도 있었다. 공모부문은 나라경제 살리기 부문, 환경보전 부문, 생활 의식개혁 부문, 화합과 이웃사랑 부문, 새마을운동 국제화 부문 등이었다.

2010년에 경기도지부가 추진한 '새마을운동 시나리오' 공모전은 새마을운동 현장 활동들을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하기 위한 준비로 추진되었다. 주제는 '사랑'이었고 당선된 작품들은 새마을운동 화보, 콘텐츠 제작이나 새마을문고 데이터로 활용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선정 결과는 금상 '희망버스', 은상 '벼꽃'이라는 작품이 당선되었다. 시나리오는 감동과 애환이 담긴 새마을운동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발굴 · 보급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인식전환을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주민의 창의력 향상과 이야기가 있는 새마을운동 추진방안을 모색코자 함이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뉴 새마을운동'에 관한 여러 공모전들이 추진되었다.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녹색새마을운동 실천 표어, 새마을마크 그리기 공모전'이 있었는데 '녹색 새마을운동' 로고를 제작하여 각종행사에 적극 사용하게 되었다. 중앙회에서 추진한 '뉴 새마을운동 4대 중점운동 우수사례 동영상 콘테스트'는 시도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 후 홍보자료로 활용하였다. '스마트코리아운동 사진 · 미담 체험사례 공모전'은 새마을운동 제40주년을 기념하여 나라품격높이기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국민적 이해와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공모전은 언제나 도민참여와 운동 분위기 확산, 작품에 대한 홍보와 자료활용을 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나. 다큐멘타리 · 드라마 · 영화제작 시도

'영화 · 다큐멘타리' 제작은 아주 특별한 분야로서 중앙회가 아닌 시도나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경기도지부는 2009년 7월에 '새마을운동 제창 4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타리를 제작하기로 준비하였다. 지상파TV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제도권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새마을운동의 필요성과 역할을 잘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소요자금 등 추진동력이 약해 중단되었다. 다큐를 중단하게 되자 새마을운동을 소재로 한 'TV드라마'를 제작하고자 기획하였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새마을운동의 신화를 되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새마을운동이 나갈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잊혀져가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되살리고 국내외 새마을운동의 미담 및 주요활동 내용들을 소개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려 의도했다. 비용은 1편당 1~2억 원의 광고비를 받아 지상파 드라마로 총 20회를 방영한다는 원대한 목표이었다. 마치 '전원일기'나 '대추나무 사랑 열렸네.' 같은 프로그램 기획이었다. 이 기획은 국내 제일의 기획사와 협력 · 추진하여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창출한다

는 것이었지만 경기도지부가 감당하기 어려워 중단되었다.

다큐와 드라마 계획은 영화제작으로 넘어 갔다. 2010년은 새마을운동 제창 40주년이자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는 해로서 부대행사로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영화 가제는 '자전거 하이킹 31'로서 로드 무비였다. 경기도지부는 이 영화를 통해 전국 회원들에게 자긍심과 위안을 주고자 기획한 것이다. 내용은 31개 시군을 배경으로 녹색생활화, 에너지절약의 대명사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관내 문화, 관광지를 순회하며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 · 자조 · 협동과 변화 · 도전 · 창조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화롭게 부각시켜 예술적으로 표출해 내는 드라마 형태의 영화제작이었다. 2009년 6월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였지만 이행불가로 무산되었다. 2010년 3월에 다시 영화제작 제안서 입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방송사와 2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 대상 업체가 되었다. 가제는 '아름다운 유산'으로서 100분 내외의 영화로서 한국어 및 영어자막까지 넣어 극장에서 상영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예산은 7억 원 정도로 제작비만 1억 9500만 원으로서 매우 힘든 계획이었다. 김민수, 김형규, 임현성, 전무송, 이은, 이연재 등 배우들도 구성하였다. 내용은 진정한 희망과 건강한 사랑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녹색영화, 젊은이들의 성장과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교감,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성공스토리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경기도지부가 시도한 다큐멘타리, 드라마, 영화는 새마을운동 역사에 남을 아주 좋은 기회였고 의도였지만 결국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며 좌절할 수밖에 없어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다. 기타 활동

'재능 기부와 1%나눔' 활동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이웃 돌봄 활동의 하나이다. '재능기부'는 주민 누구나 각자가 가진 재능을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제공하는 기부활동이다. 특히 이 활동은 '새마을문화운동'으로서 주민문화 욕구를 해소해 주어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부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주로 예술 재능기부가 주류를 이루고 있

는데 기부활동을 통해 '품격 있는 나라 만들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는 모두가 이득이 되는 활동으로서 지역주민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재능기부자는 사회적 기능보전 및 활용으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는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품격을 고양시켜 선진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능 기부는 주로 시군별 문화동아리, 음악동아리, 댄스동아리 등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1% 나눔'은 도지부에서 일괄로 성금을 접수하여 각 시군별로 성금을 보내주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읍면동별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지부는 읍면동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다시 읍면동에 돌려주도록 모금 절차 진행만을 도와주고 있다. 1%나눔은 재능기부와 함께 지역주민 누구나 새마을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화 ARS 운영'은 2006년에 추진된 이 사업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는데 '060-700전화 ARS운영'을 통해 새마을운동 자립화에 기여하는 재원 및 회원 확보를 위해 2006년도에 추진되었다. 이는 화성시새마을회의 '이웃사랑 모금운동 본부'를 모델로 추진되었으며 후원계좌를 개설하여, 일반인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새마을조직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대상 단체로서 기부금품 기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자원봉사 대축제'는 1994년 제1회 대회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마을과 지역에서 추진한 다양한 활동들을 종합평가하여 이를 확산시키고자 개최해 왔다. 교통사고 줄이기, 거리질서 계도, 비행청소년 선도, 유해환경업소 순찰계도, 학교폭력근절 방범순찰, 등하교 교통정리 등의 자원봉사 활동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 자원봉사 대축제는 1999년에는 '지역사랑 자원봉사 경진대회',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지역사랑365포럼'라는 명칭으로 자원봉사 워크숍, 사례발표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왔다. 자원봉사대축제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새마을 야시장을 개장하여 우리농산물 직거래와 향토음식 판매, 고장 특산물 판매, 알뜰 교환시장 등도 개최하였다. 이 축제는 IMF직후 사랑의 햅쌀

나누기, 연말연시 검소하고 알뜰한 근검절약 기풍조성, 과소비 추방, 국산품 애용 등의 활동도 추진하였다.

'함께해요 희망한국'은 2006년부터 절망에 빠져드는 한국경제와 사회 붕괴 현상을 극복하고자 '이웃사랑 100만 후원회원 모집'을 위해 도민화합 걷기대회를 실시하였다. '함께해요 새 나라 만들기 2006'은 도덕성과 무너져가는 질서를 바로잡고 지역간 · 세대간 · 계층간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상생의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새나라 건설, 미풍양속과 도덕성 회복,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국민화합 걷기대회, 국민화합 릴레이 등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갔다.

'경기도 바로알기'는 2000년에 추진하였는데 '세계 속의 경기도 건설'을 위한 경기도 바로알기 교육으로서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자질과 지식함양,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미래형 지도자 육성, 새마을지도자로서 역할 인식과 사명감 고취, 경기도 알리기 교육차원에 추진된 사업이었다.

'세금 바르게 내기운동'은 2001년, 2002년, 2007년에 집중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새로운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하는 경우에 추진된 활동으로서 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우에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 · 계도 활동이다. 영수증 주고받기, 신용카드사용 생활화, 세금 바르게 내는 납세의식 고취, 건전한 소비생활, 맑은 사회 만들기, 현금영수증 보급운동 등의 실천을 위해 캠페인과 교육, 홍보전단 배포를 수단으로 하는 운동이다. 이는 '내가 낸 세금 내가 지키자'는 차원에서 생활의식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정착시켜 선진국으로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으로서 주민신고나 수수료를 통해 수익사업으로도 활용된 사업이다.

'장묘문화 개선운동' 정부의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국민의식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범국민

캠페인, 순회사진전, 토론회, 홍보 리후렛 제작 · 보급, 책자발간 등을 통해 홍보하였다. 납골당 및 납골묘 사용 서약을 받는 것이 주요 활동이었다. 이 운동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훼손을 예방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주고, 과소비를 추방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만들기'는 올림픽 및 월드컵을 대비한 손님맞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이 운동을 통해 화장실을 '머무르고 싶은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만든 운동으로 추진되었다.

'제철음식 봄여름 가을겨울' 책자 발간은 도민들의 우리 농산물 애용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2006년에 만들어 보급하였다. 이 책자에는 평소 몰랐던 우리의 농산물로 건강식을 만드는 방법 등이 잘 정리되어져 있어 유용한 교재로 활용되었다.

새마을사업 특별사업은 1994년 전국 7개 시군이 추진하는 특별사업으로 부천의 '양묘장운영'을 지원하였다. 3,300평에 다양한 꽃 들을 심어 부천시가 조성하는 가로 화단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7. 초기 새마을사업과 행정지원

가. 통일벼의 녹색혁명과 식량자급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살기'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가난을 벗어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1차적 과제였다. 그 수단의 하나가 기적의 씨앗 '통일벼'였다. '통일벼'는 1966년에 개발되어 실험재배를 거쳐 1972년부터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대 · 보급된 벼 품종이다. 필리핀에 있는 국제미작연구소(IRRI) 초청 연구원이었던 허문회 박사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일본 · 대만 · 국제 미작연구소의 종자를 3원 교잡하여 만들었다. 이 품종은 국제미작연구소의 667번째 개발 품종이라 하여 'IR667'이라고도 명명되었으나 우리나

라에서는 이 품종을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품종은 재배가 까다롭고 미질이 좋지 않아 농민들에게 인기가 없었다. 파종 후 냉해를 입기 쉽고 조금 더우면 잎이 타고 수확기엔 낱알이 떨어지는 등 농민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종자로서 미질마저 나빠 보급이 어려웠다. 반면에 수확량이 월등히 많아 잘만 하면 '보릿고개'라 불리는 고질적인 식량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 통일벼 재배를 적극 권장하였으나 농민들은 농사를 망친다고 기피하였다. 경기도는 이 '통일벼'재배의 실험장이었다. 사실상의 도내 전 공무원들은 농민들을 설득시켜가며 통일벼 재배를 최대과제로 추진하였다. 농민들과 정부가 다툼이 많아 보급이 어려웠지만 정부는 '비닐하우스 못자리'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보급하게 되었고 생산된 벼 전량을 수매해 주는 장려책을 만들어 '기술제공과 수매'라는 방식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통일벼의 전국적 재배는 이 시기 새마을운동이라는 큰 물결이 있었기에 농민들이 동참했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 뛰어난 종자의 개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공무원들과 새마을지도자들의 끈질긴 설득, 비닐하우스의 개발, 수확물의 전량 수매 등이 어우러져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일벼'는 뛰어난 생산성으로 우리나라 식량(쌀)자급을 이루게 한 '녹색혁명'의 주역이었다. 경기도는 통일벼를 재배 ·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농업혁명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다했다. 통일벼 재배로 식량자급이라는 '녹색혁명'을 이루었고 비닐하우스로 '백색혁명'을 이루어 언제나 필요한 식자재를 생산하는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농민들은 밥맛이 좋은 추청(아끼바레)을 선호하여 쌀 자급을 이루고 나서 1992년 이후 '통일벼'는 농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나. 농촌소득증대 특별사업과 취락구조 개선사업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방법은 '모든 새마을사업이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라.'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농민들은 소득증대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신기술은 물론이거니와 농업 인프라가 충분해야 했다. 통일벼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종자이다. 지속

적인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협동권 새마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물 공급 체계를 만들어 수리안전답이 조성되었으며, 더 효과적인 생산을 위해 농지정리와 농지개량으로 이어져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 농업용수 보급과 농로개설은 농업기계화를 앞당기게 되었고 수확이 늘어나면서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농업발전을 가속화 시켰으며 산업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농촌의 발전이 산업발전을 가속화시킨 셈이다. 농촌의 소득증대는 산업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분야 선도자는 '금성사'였고, '금성라디오'는 국산1호였다.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농촌에서는 가가호호 가난의 한풀이라도 하듯이 라디오를 구매하였다. 라디오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농민들의 자각과 더 큰 세상을 꿈꿀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다.

경기도는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 소득증대 특별사업'을 펼쳐 나갔다. 여주와 이천을 중심으로 한 잠업, 광주를 중심으로 한 시설채소와 원예농업 등이 대표적인 '농특단지'로 조성되었다. 광주, 여주, 이천, 평택, 안성, 화성 등은 농촌 소득증대 특별사업 지역으로서 경기도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전국 확산을 이끌어 주었다. 소득의 증대와 함께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취락구조 개선'이었다. 마을을 현대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서 주택단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남양주 화도의 묵현리, 성남 금토동 일대의 달래네 고개 마을은 대표적인 취락구조 개선지역으로 조성된 사례이다. 국도 · 고속도로 인근 마을로서 누구나 볼 수 있어 가시적인 홍보효과도 뛰어난 지역이었다.

다. 새마을 시범마을 육성

경기도는 외국인 홍보마을을 비롯한 시범마을들을 조성하였다. 파주 봉암마을, 고양 관산마을, 송탄 칠원마을 등을 비롯하여 20여개 마을이 조성되었다. 화성군 동탄면은 내무부로부터 '외국인 선진지 비교시찰 마을'로 선정되었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었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국내외에 소개

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다. 자조 · 자립 · 자영마을로 육성한 마을이며 국내외 손님들이 선진지를 보기 위한 벤치마킹의 현장이었다. 당시 외국 대통령이 동탄면에 소재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외국 국가원수가 방문하게 되자 진입로가 좁아서 의전상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새마을정신으로 20여일 만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김기형 군수는 외빈이 오시는 날이 20여일 남았는데 밤낮으로 3교대 일하면 60일을 일하는 것과 같으니 도로개통에 충분한 시간이라면서 공사추진을 독려했다. 김기형 군수는 경기도청 새마을지도과장 출신으로 화성군수를 거쳐 도청 내무국장으로서 새마을운동을 지휘했다. 다음해 1980년 9월에 경기도부지사로 취임한 이재창 부지사는 내무부 새마을교육과장, 내무부 새마을담당관 출신으로서 경기도 새마을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동탄면 외국인 선진마을에 외빈이 방문하는 경우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직접 설명에 나서는 등 새마을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마을 주민들은 기념비를 세워 아직까지도 그 당시의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다.

라. 새마을운동과 행정체계

정부의 새마을운동 주무부서는 내무부 행정과 개발계였다.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이 부서가 전국을 총괄하고 있었다. 이후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국장급의 지역개발담당관, 과장급의 도시개발담당관, 농촌주택담당관, 주택개발담당관 등을 두고 대대적인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경기도 각 군 부군수는 새마을부군수로 새마을운동을 총괄하였다. 1979년에는 새마을사업의 활력화를 위하여 새마을과를 부군수실에 직속으로 배치하였다.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 다음으로 부군수를 둔 것인데 군청의 부책임자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새마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특별한 행정조직을 편제한 것이었다.

소득증대, 주택개량, 취락구조 개선은 경기도의 핵심사업이었는데 부군수들이 이 일을 총괄지휘하면서 박차를 가했다. 당시 손재식 도지사는 도시계획에 준하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델로 만들어 나갔다. 경기

도는 소득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각 지역마을 새마을공장을 만들어 농한기 부업활동으로 농외소득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매진하였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내무국의 새마을지도과가 주무부서로서 새마을운동의 추진본부역할을 수행하였다. 새마을지도과에는 새마을계, 교육홍보계, 개발계, 자연보호계 등이 있었는데 이후 자연보호계는 국토미화계가 바뀌면서 새마을운동 본부로서의 역할을 해 냈다.

마. 새마을운동과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 10. 17.에 발표되었다. 새마을운동은 1970. 4. 22.에 시작되었다. 새마을운동은 10월 유신보다 2년 반이나 앞서 추진된 운동이다. 1972년은 새마을운동의 사실상의 시험기를 거쳐 안정과 가능성, 자신감을 확인한 시점이다. 1972. 4. 26. 광주에서 발표한 새마을운동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의 새마을운동 기본이론이다. 이른바 '기획초고'라고 불리는 이 초고에는 새마을운동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각의 역할을 무엇인지? 추진결과는 어찌될 것인지? 등등을 매우 상세히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처음부터 이론이나 학문적 바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실천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 행동철학인 것이다. 이 기획초고에는 새마을운동의 정의나 정신, 추진요령이나 각각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지만 10월 유신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처음부터 10월 유신과 연계된 운동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새마을운동에서 10월 유신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3. 11. 23. 전남 광주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지도자대회에서였다. 언급된 내용은 "새마을운동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실천도장이요, 참다운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도장인 동시에 10월 유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도장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밝힌 '10월 유신'의 목적과 기본이념은 '서로 서로 도와서 땀 흘려 일하고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데 있으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자는 것이 궁극적

인 목적'이라고 정의하였다. 새마을운동을 비판하는 일부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이 10월 유신을 위해 제창된 것으로 평가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본다.

제4절 국제협력 사업 및 통일새마을 사업

1. 경기도지부 자체사업

가. 러시아(Russia)연해주 새마을협력사업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6년 말부터 '러시아연해주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연해주의 그 경제적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더 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며 접근하는 미래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중앙협의회는 1997. 1.24 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게 하였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연해주영농협력사업은 부족한 국내농지를 대체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해외 식량전진기지의 확보, 장기 · 안정적 식량공급 등의 목표와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의 농촌개발 ·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경험 축적 등의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는 러시아의 토지와 고려인동포와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합한 협력사업으로서 국제적인 모델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야말로 나라의 장래를 위한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것이다. 대상지역은 연해주의 수도인 블라디보스톡 북방 약 230km에 위치한 호롤군 2개 마을에 12,498ha(약 3천8백만 평)를 50년간 공동 영농한다는 것이었다. 뻬뜨로이치 마을 6,548ha, 시바코프카 마을 5,950ha 이 두 마을은 오래 전 한인 조상들이 농사하던 애정 어린 곳이기에 더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조해녕 중앙회장은 1997. 2. 3. 사업파트너인 연해주 호롤군과 의향서를 교환하게 되었고, 3. 12.부터는 퇴직한 원로 농학박사들의 모임인 '북방농업연구소'의 박진환, 박래경, 홍은희 박사 등이 주축이 되어 현지에서 본격적인 영농을 위해 시험포 1ha를 직접운영하게 되었다. 3. 27.에는 정부에 보고하고

3. 28.에는 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유관기관들과 공동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기초를 준비를 마쳤다. 6. 23.부터는 중앙회 상주요원 3명을 파견하고 첫 준비사업으로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전국에서 선발한 대학생 32명을 영농마을인 뻬뜨로이치 마을에 파견하여 7. 1.부터 1개월간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 8. 24.에는 연해주 주지사일행이 중앙협의회를 내방하고, 그 해 11. 14. 에는 한 해 동안 실험한 결과를 한국농어촌진흥공사가 '러시아연해주 농업 투자환경조사 보고회'라는 제목으로 보고회를 가졌다. 12. 20.에는 사업 파트너인 호롤군수 일행이 중앙협의회를 내방하여 본격적인 연해주 영농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다. 1998. 9. 2.에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하지만 국내 경제사정 악화로 투자를 약속했던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게 되어 영농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강문규 회장은 러시아 연해주 새마을협력사업추진을 위한 모금을 결정하였다. 이는 모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공유하며 조직의 실체를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한 최초의 모금이었다. 최초의 전국모금으로서 '1구좌 3천원'을 책정하여 추진하였는데 새마을조직으로서는 아주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모금을 1998. 10. 20.~12. 20.까지 추진하였는데, 중앙회의 총 목표금액인 6억 원을 초과하여 614,671천원을 모금하였다.

경기도는 목표액 72,687천 원을 넘어 76,188천 원을 모금하여 105%를 달성하였다. 경기도는 전국 201,547명의 참여인원 대비 24,229명으로서 12%를 차지하였는데 남양주시지회는 최단기간 목표달성 전국2위, 최다모금 하남시(228%)전국 1위를 차지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1998년은 호롤군의 두 번째 마을인 시바코프카에서 7. 14.부터 3주간 제2기 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의 활동만 이어졌다. 새로 취임한 강문규 중앙회장과 회장단은 1998. 10. 6. 현지를 방문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이 있었다. 중앙협의회는 모금의 공로자를 대표로 선발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남양주의 조호능 회장이 선발되었지만 "혼자한 일이 아니라 안 가겠다."하여 제외되었으며 1999. 5. 22.~25. 전국에서 선발된 5명의 모금우수자들이 새마을농장을 견학하게 되었다.

나. 연해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

경기도새마을회가 구.소련 연방과 협력사업을 추진한 국가는 러시아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세 나라이다.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는 러시아 연해주 고려 동포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앙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2004년과 2005년에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에는 연해주 호롤군 내에서 소득증대사업으로 1천 만 원을 투입하여 새끼돼지 111마리를 분양하였다. 이는 각 가정이 새끼돼지를 분양받아 키우고 출산 후 다시 새끼돼지를 반납하는 일종의 '가축은행'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술지도와 운영은 호롤군이 직접 관리 · 운영하도록 하여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추진 되었다. 2005년에는 우수리스크 인근 미하일로프카군 우정마을에 농산물 직판장과 제2차 돼지은행을 위해 1천 6백만 원을 투입하여 고려인 정착 지원활동을 펼쳤다.

'고려인 우정마을'은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 후손들이 돌아와 정착한 마을이다. 한국주택건설협회 회원들이 1사 1가구 건축하여 33가구를 건축하여 고려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만든 계획마을이다. 새마을과 주택협회는 이 마을을 건설하여 귀향 고려인들을 정착 지원하도록 영농과 문화사업 등을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일대에서 귀향한 고려인들은 주거문제와 생계가 걱정이 되었기에 마을을 만들어 놓고 이주를 도운 것이다. 이주한 고려인들은 영농활동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는 이들 고려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첨단 농법인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도록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가판대에서 팔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주었다. 영농준비가 안된 고려인들은 마을농장에 취업하여 농사하는 기반도 갖추어 주는 등 이주정착을 위해 크게 도움을 주고 보람 있는 사업이 되게 추진하였다. 이 우정마을에는 러시아에서 유일하고 합법적인 '새마을로'라는 도로명이 명명되어 존재하는 마을로서 우리 새마을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다.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새마을협력사업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는 2007년부터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동포 지원을 위해 수도인 타쉬켄트 인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 2. 7~17.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 4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2008~2012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11. 25~29, 타쉬켄트주 유코르치르칙군 야싸비 마을에 20명이 방문하였다. 2008년 첫 사업은 '새마을로 포장, 하수도정비, 마을버스정류장 건립'등이었다. 야싸비 마을은 고려인과 러시아인, 우즈베키스탄인 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다.

첫 사업이 어렵자 두 번째 해인 2009년에는 고려인 집단거주마을인 시온고마을에 2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려인 공동묘지 개보수공사 및 진입로 포장, 영구차수리'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협력사업이 어렵다면 차라리 한인동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고려인마을을 택하게 된 것이다. 2009. 11. 3.~7.에는 도 지도자협의회 14명이 현지 마을을 방문하여 교류하였는데 2009. 11. 17.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에 '고려인의 희망이야기'가 방송되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새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새마을회관은 마을의 중심에 있어 고려인들의 소통의 장이자 쉼터로서 활용되고 있다. 2012. 2. 13~3. 17. 지도자협의회원 13명이 방문하여 고려인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감사가 있었다. 사업은 2012년에 종료하였는데 도 협의회는 연해주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활동을 도와 동포로서의 자부심을 갖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이다.

라. 몽골(Mongolia) 새마을협력사업

지방에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경기도지부는 타도에 비해 이런 면에서 앞서갔다. 처음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한 국가가 몽골이었다. 경기도지부는 국제사업을 모색하던 중 중앙회의 지원과 권유로 몽골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몽골에서의 새마을협력사업은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대구출신 사업가 권오석이란

분이 중앙회에 제안하였지만 중앙회 형편상 국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경기도새마을부녀회가 나섰다. 2003년 10월 김명숙 부녀회장과 김숙희, 김명님, 김대기 부장 등이 중앙회의 황창영 팀장의 도움으로 처음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중앙회의 국제협력사업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위탁으로 추진하는 외국인새마을교육과 자체 모금사업을 통해 일본과의 국제교류사업, 베트남과의 교류협력사업, 북한농촌현대화 지원사업, 러시아연해주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2009년 이전까지는 개별국가에 대한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조직의 국제협력사업은 경북, 구미, 경기 정도에서 지자체의 지원이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정도였기에 내년을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과감하게 시군부녀회 모금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여 2004년부터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새마을부녀회의 몽골협력사업은 오늘 날 국제협력사업에 초석이 된 새마을조직에서의 최초 협력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중앙회의 국제협력사업 기본 방향인 매뉴얼에 따라 사업지역과 마을을 선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추진원칙에 따라 시범마을로서의 조건인 수도에서 1~2시간 거리, 1번국도 인근,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의지, 농촌지역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현장을 답사해 보기로 하였다. 2~3개 지역을 답사한 결과 대상지역을 울란바토르 남쪽 약 40km정도의 지역인 날라이흐로 정하기로 하였다. 날라이흐는 테를지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과 고비사막 쪽으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수도의 슬럼지역 같은 곳이었다. 원칙에 따라 해당 군청을 파트너로 맺기 위해 나랄이흐 구청을 방문하였는데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은 평소 원조 받던 습관대로 새마을의 제안을 원조단체 정도로 생각하였다. 경기도부녀회는 정해진 추진 매뉴얼에 따라 기초 3년 동안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매년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1~2년을 더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작을수록 주민단결이 쉽고 효과적이라

서 6개 지역(면) 중 제4구역에서도 골목을 택하였다. 주민을 면담하고 구청의 협조로 담당과장이 지정되었다. 전제조건은 '새마을회'를 구성하여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난 후 스스로 새마을회를 통하여 마을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운동이 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새마을운동 추진의 원동력은 마을지도자이다. 마침 몽골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방향, 추진방식을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쉽게 이해 시켜줄 수 있었다. 막상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나니 자금마련이 만만치 않아 여러 차례 시군부녀회장 회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십시일반 모금하여 이 일을 시작한 것이다. 부녀회의 힘은 참으로 대단했다. 좀도리 절미저축운동으로 실질적으로 마을사업을 주도한 것처럼, 애국가락지 모으기로 나라 살리기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부녀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4년 자금이 마련되자 양측이 수시로 연락하며 주민과 행정의 의견을 수렴하여 첫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우물'설치 사업이었다. 자금과 자재는 경기도새마을부녀회에서 지원하고 토지와 주민의 노력제공은 몽골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때까지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자 물통을 끌고 다니며 먼 길을 다니며 물을 길어다 먹는 형편이었다. 우물은 암반이 많아 난 공사였다. 처음 공사를 맡은 업체는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고 너무 깊이 들어가 적자가 예상되어 포기하려 했지만 우리에게는 첫 사업이고 비즈니스가 아니므로 간곡하게 도와달라고 하여 작업이 진행되었다. 드디어 95m정도에서 물이 나왔다. 작업자들과 주민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동네가 야단법석 이었다. 물은 예상보다 깊은 곳에서 나오다 보니 비교적 많이 나왔다.

하지만 장벽은 또 있었다. 몽골은 지하지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물속에도 금속 성분이 많이 검출되었다. 검사결과 14가지의 금속이 검출되어 난감하게 되었다. 물론 주민들은 아우성이었다. "이런 물이라도 상관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보다는 마음껏 물을 쓸 수 있으면 된다."는 것

이다. 결국 추가 작업을 통해 105m정도에서 멈추었는데 수질은 조금 더 개선되었다. 주민들은 가슴에 부풀어 올랐다. 주민들은 수도 보호를 위한 막사를 짓고 난로도 준비하고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었다. 그 동안 주민들은 먼 마을까지 다니며 물을 사 가지고 왔기에 스스로 공동우물운영을 할 수 있었다. 작은 수입이지만 수입은 마을 새마을회에서 스스로 사업추진을 위한 작은 자금이 되었다.

새마을협력사업 추진방식은 첫 사업을 주민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사업,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업, 가시적인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이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기계은행'을 추진하였다. 재봉틀기계, 석탄 캐는 기계, 운반기구 등 주민들이 원하는 최소자금을 지원해 주고 매월 갚아가는 방식이었다. 회수된 자금은 구새마을회가 다른 마을 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마을새마을회와 구새마을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도 부녀회는 현지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을 '몽골새마을회장'으로 위촉하였다.

한편, 몽골에서는 재빨리 새마을운동 도입을 위한 자체준비가 있었다. 현지법인인 새마을회를 만드는 일이었다. 중앙회나 경기도의 지사를 만드는 일은 외국인 단체이므로 법적으로 쉽지 않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므로 추진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현지인이 스스로 현지방식의 법인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드디어 법무부에 NGO등록증을 받게 되었다. 이름은 사단법인 '몽골새마을회'였다. 새마을회는 '현지에서 현지인에 의해 현지인을 위한'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법인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자체활동을 하게하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회원을 모아 2014년 12월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마을회원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해외법인인 '몽골새마을회'를 만든 것이었다. 이는 중앙회에서 1997년 만든 '새마을운동연해주개발 주식회사'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두 법인은 완전히 성격이 달랐다. 연해주개발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중앙회의 주도의 해외법인 지사이었지만. '몽골새마을회'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위한 현지인이 스스로 만든 새마을법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법인이

었다. 이사는 의사, 변호사, 공직자, 사업가 등 다양한 민간인 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법무부 소속 공직자도 있었다. 결국 최초의 해외 '새마을회'를 만드는데 경기도부녀회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2020년 현재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 46개국의 효시이다. 회원국가 중 법인까지 만든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콩고민주공화국, 몽골, 네팔,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 몇 개국이 안 된다. 몽골새마을회장은 SGL회원국 중 아시아 몫 부회장으로 활약 중이다. 도 부녀회의 기여로 몽골새마을운동에 불을 붙여 2006년부터는 새마을부녀회의 사업이 도 새마을회가 주관하게 되었고, 2007년부터는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후 경기도는 새마을회의 성과에 따라 지방비를 보조해 주어 사업비 기초자금을 마련하였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시작한 사업은 도 새마을회가 주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을 나랄이흐, 바양, 바양찬드만늬 등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새마을운동의 씨앗을 심었다.

몽골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우물 설치, 마을 진입다리 설치, 녹색공원조성, 새마을회관 건립, 마을진입로 포장, 가로등 설치'등이 추진되었고,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는 '기계은행, 새마을농장, 양털가공공장, 블록 공장, 비닐하우스 설치(상추, 오이, 파, 배추 등), 젖소목장, 쓰레기재활용공장, 새마을 묘포장 설치, 우유가공공장'등이 추진되었다. 문화 복지사업으로는 '새마을문고, 어린이집 운영, 극빈자 게르 지원'등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새마을교육과 국내초청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경기도새마을회와의 협력사업을 계기로 몽골새마을회는 전국 20여개 지역에 새마을회를 설립하고 매년 몽골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그 공로로 몽골정부로부터 김명숙부녀회장은 에미기테(위대한 여인상)을 받게 되었으며 고희선, 김대기 등이 훈장을 받았다. 몽골새마을의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팀장은 대통령궁에 초대되어 나이람달 훈장을 받았다. 몽골 새마을협력사업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각 국가의 모델이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초청하여 체험하는 행사를 통해 그들도 스스로 매년 '몽골새마을

지도자대회'를 열어 한 해의 새마을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다. 친한파로 알려진 엥흐바야르 대통령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고듬쥐운동(골목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지만 이 운동은 관제운동이 되어 결국 흐지부지하게 되었다. 도 새마을회는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몽골리아 사업'에 집중하여 다양한 육묘 및 식수사업에도 동참하면서 몽골새마을운동 정착에 기여해 왔다. 경기도새마을부녀회의 해외협력사업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일 먼저 추진하고 가장 오래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도지부는 국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지도 · 협력 ·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지부의 역할은 현지인들에게 새마을운동을 통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불을 붙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주는 데 까지가 역할이다. 결국 몽골협력사업은 이후 경기도새마을회가 타 국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마. 필리핀(Philippines)새마을협력사업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은 중앙회가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을 이어 온 것이다. 이 운동은 민간차원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지구촌 개도국에 전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다. 중앙회가 2009년부터 현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04년부터 도 부녀회가 몽골사업으로 국제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자 곧 이어 2006년에는 도 지도자협의회도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 사업은 필리핀협력사업이었다. 필리핀은 우리의 우방으로서 6.25 참전국가이고 새마을운동 추진당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지만 개발이 더디어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다. 도 협의회는 사업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시군 협의회장들과 현장을 방문하여 마을도 보고 주민들도 만나보면서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 전수에 대한 열의가 솟도록 현지방문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2006. 11. 21.~24.에는 시군회장단 등 60여명이 함께 현지를 방문하였다. 도 협의회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에서 라모스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을 전했던 경험이 있는 G-FACE회장인 신용기 박사에게 도움을 청해 카비테주 마르곤돈시 팡티한4 마을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비보조금 등 사업자금 지원이 전혀 없는 터이라 도 협의회는 스스로 모금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결의하고 2006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자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바탕으로 12. 13.~15. 6명의 대표단이 다시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업에 합의하였다.

제1단계 사업은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를 비롯한 5개 기관 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행한 주민소득증대사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사업 마지막 부분에는 꼭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해야만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이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는 필리핀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의 새마을운동이 요구되었다.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는 사업지역선정을 담당하였고, 현지 지역개발단체인 G-FACE는 사업의 선정과 지역주민의 자치회 구성 지원, 새마을교육, 사업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민교육은 새마을연수원에서 새마을교육을 이수한 신용기 박사가 담당하였다. 추진방식은 도 협의회에서 종자돈을 제공하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은행에 맡겨 분배하고 받는 방식을 택했다. 필리핀은행 마르곤돈시 지점은 도 지도자협의회가 지원한 사업자금을 주민들에게 융자하는 형태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주민활동을 돕기 위해 코코넛청과도 협력하기로 하여 활동이 준비되었다. 우리나라의 도 농촌진흥청에 해당하는 카비테주 코코넛청은 주민기술지도와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 활동을 지원하였다. 사업주체인 카비테주 마르곤돈시 판티안까트러 마을은 마을 리장을 통해 희망 농가를 모집하여 주민 25명을 5개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협의를 거쳐 비육우 양돈 양계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해 5명이 서로 보증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사업으로 모아진 수익금과 투입자금은 마을 새마을회에서 지속관리하며 사업을 확산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주민들은 소, 돼지 등을 사육하는 가축은행과 사탕수수재배 등을 원하는 주민들의 작업반이 나누어져 사업을 추

진하게 되었다. 사업 전부터 사전교육을 하고 사업결과를 받아 평가하여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근로의욕과 소득증대를 도왔다. 2007년에 추진한 두 번째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회관을 마련하는 사업이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도 협의회는 자재대금만 지원하고 마을주민들이 회관부지의 확보 주민노력 봉사로 회관을 건립하는 우리나라 초기 새마을운동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회관 정문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이란 휘호에 '회관'을 집자하여 현판을 붙여 만들어 부착하여 새마을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회관에 필요한 음향시설, 비품집기 등은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마련하였다. 사업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시군협의회 성금 3천만 원을 모금하여 시행되었다. 토지와 노동력은 마을에서 제공하고 자재대금은 도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7백만 원을 투입하여 총 150평 대지위에 30평 정도의 회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사업은 경기도 새마을문고가 주관하여 기 조성된 회관 일부에 마을문고를 만들어 농업, 축산 도서 주민교양도서, 청소년도서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회관이 지어지자 10. 29.~11. 1. 다시 12명의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회관 안에 주민을 위한 새마을문고를 설치하기로 하여 도 문고지부에서 서가 4개, 도서 600권 등 5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용한 회관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초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충분치 않아 모금을 또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시군협의회장들이 첫 해 현장에서 느낀 새마을운동 전수에 대한 열망은 다시 모금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3년차까지 사업을 지속하니 소득도 올라가고 주민 단합도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도 협의회는 팡티한4마을이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두 번째 마을로 사업장소를 옮기기로 하였다. 도 협의회는 2011년에 다시 자금을 마련하여 인근 까트러 마을에서 시범사업으로 가축은행을 추진하였다. 가축은행은 소 · 돼지 등 3개조 15가구가 참여하였다. 65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자금으로 아주 알뜰하고 유용한 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이는 첫 번째 마을에서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하였기에 보다 쉽게 운영되게 되었다.

도 협의회와 문고 회원 등 17명은 2011년 5. 30.~6. 3.까지 까트러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문고를 개관하고 4백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여 주민들이 언제든 영농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 마을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전달하여 주민들의 사기를 북 돋게 하였으며 새마을의 정을 전달하는 계기도 되었다. 태풍의 생산기지인 필리핀이 2013년에는 태풍 하이엔으로 아주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중앙회의 시범마을들이 있는 일로일로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새마을시범마을들은 초토화 되었다. 중앙회는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인 성금을 모금하였다. 이에 따라 총 174,702천원이 모금되었는데 경기도는 약 25%인 39,928천원을 모금하여 피해복구 사업을 지원하는 저력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 자금은 일로일로 3개 시범마을 61세대 새마을회원가구에 지원되어 한국의 새마을가족들과 끈끈한 유대를 이어 가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도움을 받은 나라가 보은하는 예를 갖추는 매우 훌륭한 과정을 새마을가족들이 보여 준 것이다.

이어 도 협의회는 까트러 마을과의 협력사업을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이어갔다. 2014. 1. 2.~6. 다시 도 협의회 대표단 7명이 현지를 방문하여 도서관을 개관하고 4백만 원 상당의 도서도 비치해 주어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경기도새마을운동의 위상을 높여 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의 필리핀새마을협력사업은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도 새마을회가 동남아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바. 라오스(Laos) 새마을협력사업

경기도지부는 동남아와 몽골, 연해주 등 인근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새마을협력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새마을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리적 · 언어적 문제와 더불어 현지파트너 선정, 사업비 마련 등의 어려움이 많아 결국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새마을회가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아프리카까지 진출한다는 것은 좀

과욕이었던 것이다. 도지부는 다시 방향을 선회하여 동남아에서 새마을협력사업을 펼치도록 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 · 시행하게 되면서 '라오스새마을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라오스새마을협력사업은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가 주관하여 추진하였는데 그 동안 개도국협력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게 되었다. 사업지역은 중앙회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최적지역을 선정하게 되었다. 독자적인 현지파트너를 갖지 못한 도지부로서는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현지 협력관의 도움을 받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추천받은 마을은 수도인근인 비엔티엔주 무왕토라콤군 '껀느아' 마을이었는데 도지부에서는 2012. 9. 5.~9. 도 협의회 3명이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을 면담하여 마을의 형편과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인 무왕토라콤 군과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첫 사업은 '마을안길포장'사업이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제1호였기에 새마을방식대로 도지부가 기초자재를 마련해 주고 장비와 인력은 주민들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첫 해 사업은 주민들의 열의와 간절함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추진되었다. 이미 무왕토라콤 군에는 중앙회와 타 시도 등이 여러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므로 그 경험과 현장을 견학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마을안길은 길이 296m, 폭 3.5m의 시멘트 길로서 도지부가 4천 8백만 원, 마을 주민들이 2천 8백만 원을 부담하여 완공하였다. 10. 31.~11. 4. 준공식에는 도 협의회원 10명이 현지 마을을 방문하여 확인 점검하고 평가하여 사업이 첫 해 사업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하여 다음 해 사업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차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을이었던 주민들은 매우 기뻐하며 다음 사업을 기대하게 되었다.

2013년 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욕구조사를 재 실시하였더니 주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옥수수농장' 8ha 등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는 농업용 관정 확보와 농업용수로 설치, 주민의식교육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2013년 사업은 우기가 지날 무

렵인 6월부터 추진되었는데 6. 12.~16.에 현장을 방문해보니 벌써 농수용 관정 3개소를 각각 50~150m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껀느아 마을은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 건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관정 확보로 주민들은 안정적인 용수 확보로 보다 일찍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군청과 마을 리더들은 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과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잘 살 수 있는 방안과 주민협력방안 대책 등을 논의하고 마을의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3. 11. 27.~12. 1.에는 도 협의회에서 사업 평가단이 방문하여 준공식과 더불어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추진과정,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며 사업을 정리하였다. 2014년 제3차 연도에는 3. 19.~23. 3명의 현지 조사단이 파견되어 지자체와 마을주민들이 합동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2014년에는 껀느아 마을과 연접한 '통캄'마을 초등학교 보수 사업이 결정되어 1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전면적인 보수를 하기로 하였다. 마을 초등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는 학부형들도 많이 참여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종료 후 11. 5.~9.까지는 도 협의회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변화된 마을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였다. 도 협의회는 매년 방문단을 교체하여 보다 많은 시군 회원들에게 지구촌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도 진행하여 시군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구촌 사업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015년은 4년차 마지막해로서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 용수로공사'을 결정하였다. 농업용수로는 비가 풍부함에도 잘 가두어 두지 못하거나 용수로가 없어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해 농업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총 용수로는 8개소를 설치하였는데 농업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1개 마을에서의 사업은 3~5년 이내에 종료하고 그들 스스로 새마을운동을 익히고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주는 것

이었다. 이 방침에 따라 라오스에서의 첫 번째 시범마을 사업은 4개년도 사업으로 종료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마을에서 성공적인 새마을운동 전수를 마친 도 협의회는 다시 무왕토라콤 정부 및 라오스 새마을회와 협의하여 새로운 마을인 '폰홍'마을에서 두 번째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펼치기로 합의하였다.

2016. 4. 17.~21. 3명의 현지조사단이 현장 마을현황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다. 도지부는 매년 사업비 3천5백만 원씩을 들어 4개년 사업으로 준비하였다. 협약서를 체결한 후 첫 번째 사업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었다. 이미 인근 몇 개 시범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기에 그 방식이나 방법을 잘 알고 있어 그대로 시행하였다. 그 해 폰홍 마을에서는 폭 4m, 길이 600m의 마을안길을 포장하였다. 기초자재는 도 협의회에서 지원하고 기술과 장비는 군청에서 토지와 노력동원 등은 주민부담으로 추진하였다. 8. 16.~20. 준공식에는 도 협의회 대표단 15명이 방문하여 사업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주민과 함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보람과 애로사항 등을 듣게 되었다. 이는 다음 사업추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방문단은 기존 새마을시범마을 사업장 들을 돌아보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우의를 다져갔다. '폰홍' 마을에서의 두 번째 해 사업은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와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 8. 21.~25. 도 협의회원들과 문고회원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사업인 '채소재배단지 조성' 및 '새마을작은도서관' 설치를 점검하게 되었다. 라오스는 비가 많아 농사짓기는 좋지만 다 같이 채소를 심어 다 같은 시기에 팔게 되므로 노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팔게 되는 구조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채소를 재배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채소재배단지 조성사업(비가림 하우스)은 비닐하우스 6개동과 관정 2개를 마련하여 나름대로 첨단 농업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새마을문고 회원들은 마을 초등학교를 개보수하고 초등학교 내에 '새마을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배움에 굶주린 학생들에게 좋은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방문단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한 마을들을 돌아보며 그

동안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점검하여 지구촌 새마을사업에 반영하였다. 방문단은 경기도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회의 대표적인 시범마을 사업장인 학사이, 폰헤, 껀느아 마을 등도 방문하여 성과를 체험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시범마을사업은 2017년에 종료되고 2018년부터는 세 번째 시범마을로 사업을 이전하는 준비가 한창이었다. 세 번째 마을은 종전 2개 마을과 연접한 '나와' 마을이었다. 2018년 사업은 비가림하우스의 성과가 커서 처음부터 소득증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비가림하우스 12개 동을 설치하고 관정 6개를 만들어 소득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는 외국인단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에 내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결국 검토 끝에 더 이상 사업추진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하에 사업 국가를 옮기기로 한 것이다.

라오스새마을협력사업은 중앙회에서 무왕토라콤이라는 군에 집중하여 수년간 많은 마을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기에 시범지역으로서는 매우 좋은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라오스 대통령이 직접 새마을현장에 방문하기도하였는가 하면 APEC 등 국제회의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 협력에 감사를 표하는 등 새마을사업을 통해 민간 외교적 성과를 크게 나타내기도 하였다. 2019년 전국지도자대회에서 대통령은 메콩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사업을 더 강화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지부가 라오스에서의 새마을협력사업을 추진한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새마을협력사업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속한 나라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세계화 2년차인 2010년에 CIS국가 초청 시 키르기스스탄 공직자와 각계지도자 11명을 초청하여 새마을교육을 실시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중앙회는 2009년 이전부터 현지 한인교포들로부터 지속적인 새마을협력사업 요청을 받았지만 여러 여건상 추진하지 못하다가 CIS 국가 중 러시아 브리야트,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국내 초청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나름대로 애국심이 강한 지역개발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새마을교육을 받으면서 자국에 돌아가서 자국의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총리실 카라바예프 국장을 단장으로 새마을교육을 받은 연수단은 자국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배운 대로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2011. 11. 24. 이사11명으로 '키르기스스탄새마을펀드'라는 법인을 설립(등록번호 115080-3301)하여 초대회장에 은행원출신 경제전문가인 '주라 멘디쿨로바(Zuura Mendikulova)'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는 몽골, 콩고, 네팔, 필리핀 등에 이어 생긴 해외 새마을법인이었다. 이후 중앙회는 2012년부터 중앙회의 매년 외국인 초청 새마을교육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포럼(GSLF)에 키르기스스탄을 참가시켜 새마을운동을 전수하였다. 그러나 중앙회가 현지에 나가 새마을협력사업을 추진할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 '키르기스스탄새마을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다가 2013. 9. 제2대 회장에 잘카르 까말로프(Zalkar Kamalov)를 회장으로 뽑고 한국에서 새마을교육을 이수한 사람 25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현지에서 새마을협력사업을 제일 먼저 추진한 곳은 인천시지부였다. 인천은 2013년 4월에 공항근처 마나스(Manas)면 악졸마을에서 '한 · 키 친선공원'을 조성하면서 시작하였다. 인천은 8월에도 현지를 방문하여 새마을운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주민들에게 새마을운동을 전하고 참여할 것을 설득하였다.

이 시기 현지에서는 비쉬케크 한국교육원이 마나스마을을 대표마을로 지정하고 앗바쉬학교 등을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새마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새마을펀드'는 2014년 11월에 법인을 변경하여 '키르기스스탄새마을회'(SMU Center in Kyrgyzstan, Public Fund)로 재정비 하여 제3대 회장에 아수완(Asuan Zakipov)을 선출하였다. 회원은 교육이수자 등 35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새마을회의 노력과 성과, 홍보 등을 바탕으로 키르기스탄 정부는 2015년 4월에 '키르기스스탄 정부 새마을운동 도입'을 결정하고 주무부처인 내각장관실에 새마을운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내각장관이 맡게 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역개발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

이다.

현지에서 한국교육원은 세계화재단과 협력하여 2015. 11. 4.~6.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마을의 사례를 발표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공부를 하는 등 자체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드디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15. 12. 17. 사리예프 총리령으로 '범부서 새마을운동 추진'을 지시하게 되었다. 중앙회는 키르기스스탄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의 승인이 없어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만 하다가 2016년 11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측 담당 장관이 새마을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MOU를 체결하면서 사업국가로 지정하게 되었다.

중앙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관계자와 마을지도자 등 182명을 초청하여 새마을교육을 실시하면서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운동을 지원해 왔다. 2010년 11명, 2011년 17명, 2012년 3명, 2013년 11명, 2014년 18명, 2015년 14명, 2016년 24명, 2017년 34명, 2018년 32명, 2019년 18명 등이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전국에 새마을운동을 펼치는 새마을운동 전도사가 된 것이다. 중앙회는 2018년부터 시범마을 4개를 육성하고 있는데, 아랄 마을에서는 목축(소), 악바샤트 마을에서는 비닐하우스와 양계, 코쉬 코르곤 마을에서는 제빵과 과수원, 이스크라 마을은 곡물도정 및 목축(젖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지부도 2018년부터 아랄 마을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KOICA도 2019년부터 츄이주에 2개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KOICA는 2019년부터 오쉬주에 28개 시범마을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 경기도의 키르기스스탄 새마을협력사업

키르기스스탄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국가이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더불어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2019년 라오스사업이 여의치 못하자 중앙회의 자문과 내부 의견조율을 거쳐 사업지역을 중앙아시아의 개도국인 키르기스스탄으로 사업 국가를 바꾸게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그동안 중앙회와의 교류를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는 국가로서 자체적으로 새마을회가 운영되는 국가이다. 정부에서도 새마을운동 전수 중점협력국가로 정해진 나라이므로 접근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도 새마을회는 사전조사를 위해 2019. 2. 21.~27. 까지 지원기관인 경기도와 수원시, 추진단체인 경기도새마을회와 수원시새마을회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했다. 사전조사에 의해 새마을운동전수를 희망해 신청한 5개 마을의 자료들을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시범마을을 정하는 일이었다. 합동조사단은 시범마을 후보 대상지에 대한 사업추진 적합성을 판단하고, 현지정부 관계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협력 채널 구축하며, 중장기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수집활동을 하였다. 현지조사에는 키르기스스탄 중앙정부 주무부서인 '지방자치청'과 대상지역인 '추이주'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의견을 나누어 사업지역인 시범마을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미 2015년 정부의 방침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도입하고 협력하기로 결정한 나라이다.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대 정부의 대규모 개발협력사업도 추진되는 국가이다.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게 된 대상마을은 수도 비쉬케크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의 농촌마을로서 악수면 악바샤트, 옥쨔브랴면 악바샤트, 옥쨔브랴면 츄이마을, 크줄트면 카라사콜마을, 스카타면 타쉬바트마을 등 5개 마을을 조사하게 되었다. 합동조사단의 마을선정 기준은 '마을이 동 떨어져 주민 협력을 이끌기 좋은 마을', '마을개발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열기가 매우 높은 마을', '마을 인프라가 열악하여 효과가 높을 것 같은 마을'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각 마을은 합동조사단이 도착하자 경쟁적으로 전수를 희망하였지만 합동조사단은 수원시에서 1개 마을 경기도에서 2개 마을과 협력사업을 펼치기로 결론지었다. 결론을 짓기 위해 대사관과 코이카 등의 의견도 수렴하고 기존 사업지역인 인천과 대구의 시범마을과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여 결정하게 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전국 7개주, 2개 특별시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 31개 시, 453개 면(지자체), 1950개 마을이 있고, 대상지역인 츄이주(Chuy Oblasty)

는 우리 경기도와 유사하게 수도 비쉬케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다. 츄이주에는 8개 군, 105개 면, 338개 마을이 있는데 면 단위가 자자체로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었다. 조사 마을 5개 중 수원시지회는 악바샤트 마을을 시범마을로 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기도지부는 악바샤트 마을과 타쉬바트 등 2개 마을을 선정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악바샤트 마을은 이미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마을이었다. 합동조사단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을의 현황과 주민의 욕구에 대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협력사업을 협정하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생활환경개선 보다는 소득증대사업을 원했다. 소득증대사업은 주민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공동목장 운영이었다. 역시 새마을사업 추진의 방식은 도지부가 기초자재 비용을 지원하고 면 정부는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며, 마을과 주민들은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민들의 희망사업은 마을공동사업으로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등을 원하였고, 소득증대사업으로 사료 생산시설, 가축은행 등으로 압축되었다. 마을은 농업과 축산업 위주의 마을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해 많이 들었고 주민들도 하고 싶어 하는 마을이었다. 사업추진 방식은 초기 새마을운동 추진 원리에 따르고, 쉬운 일부터, 가까운 일부터, 작은 일부터 추진하도록 하였다. 사업은 마을의 실정과 능력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현금지원이 아닌 물자(자재)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며, 개인이 아닌 마을 단위 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하였다. 노동력, 부지 및 자재, 농기계 및 차량 등 일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지원사업은 사업종료 후 마을기금이 조성되어 지속가능한 자립추진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사업은 주민주도로 추진하고 주인정신(Ownership)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는 새마을운동은 무의미함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마을의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초청교육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며, 현지화, 현대화 새마을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기도지부는 악바샤트마을에서의 협력사업을 '새마을공동목장'으로 설치되어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

다. 타쉬바트마을에서는 새마을회관을 건축하였지만 약간 미흡하게 되었다.

2. 새마을운동조직간 협력사업

가.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

경기도지부의 새마을협력사업은 대부분 중앙회의 국제협력사업 방향에 맞추어 추진해 오고 있다. 일부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중앙의 방침과 역점방향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일본과의 '한일국제교류사업'은 중앙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시도에 기회를 주어 참여하게 되었으며, 베트남과의 협력사업은 국제적 감각을 익히는 측면이 더 강한 견학 수준이었다. 몽골과의 국제협력사업은 경기도새마을부녀회가 개도국협력사업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중앙회가 이를 이어 받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동포 돕기 사업은 중앙회 사업장에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가 들어가 추진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라오스와 키르기스스탄협력사업은 경기도지부가 독자적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한 개도국 새마을협력사업이다. 각종 재난에 따른 복구지원사업으로는 서남아시아 스리랑카 쓰나미 주택재건사업, 중남미 아이티 지진 이재민 돕기, 필리핀의 태풍피해 지역지원 등은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경기도지부는 적극적인 성금모금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통일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북한농촌지원, 통일손수레, 산란종계장, 룡천폭발사고 피해 돕기 등도 중앙회의 추진방침에 따라 성금모금 등으로 협력하였다. 다만 경기도지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북한동포 겨울나기용 의류지원사업'이었다.

나. 한 · 일 국제 교류대회

경기도지부의 최초 국제협력사업은 일본과의 '한일국제교류대회'였다. 이는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일본 오히타현의 '1촌1품 운동'이 상호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대회로서 중앙회가 주도하는 사업이었다. 이 대회는 일

년에 두 차례씩 양국이 상호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매우 유익한 교류프로그램이었다. 이 시기 중앙은 물론이거니와 지방 새마을조직이 국제교류나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80년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대만, 일본, 태국 등으로 새마을연수단을 보내어 해외에 눈을 뜨고자 다닌 적은 있지만 이 교류대회처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었다. 중앙회는 '내고장활력화센터'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이 한일국제교류대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2년부터 추진한 일본과의 경험교류사업에 경기도지부는 성남시가 제1회 대회를 주최하였고, 1996년 제9회 대회는 수원시가 주최하였다. 경기도는 일본 대표단을 맞이하여 도내 우수영농단지와 새마을현장 등을 보여주며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일본 측에서는 오히타 현 각 지역의 특색사업들을 소개해 주었다. 양측 대회는 각각 200여명의 지역지도자들이 참석하여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대회의 핵심은 '사례발표, 현장견학, 민박'등이었다. 한국 측에서는 '살기 좋은 고장 가꾸기'라는 주제로, 일본 측에서는 '마을의 생명을 도시의 생활로'라는 주제를 정하여 추진하였는데 이 대회에 참가하는 우수지도자들은 출발할 때 사전교육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돌아와서는 자체평가 및 전달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과 특색사업들을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특히 이 교류대회에서는 방문단들이 반드시 민박을 하도록 하여 양국 간의 민간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제10회 대회는 1997. 1. 21.~24. 일본 오히타현 오히타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는 한국 측 40명 중 대부분 경기도 지역지도자들이 참가하여 매우 유익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 참가자들은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선발된 우수 영농인, 일하는 보람상 수상자,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 주최한 지역으로는 성남, 대전, 안동, 춘천, 수원 등으로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사례들을 전하였으며, 일본에서는 벳부, 유후인정, 히다시, 사이키 등에서 일촌일품의 사례와 경험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1992년에 시작한 이 대회는 상호 방문하는 어려움이 많아 1997년

10회 벳부(오히타)대회를 끝으로 종료하고 2000년부터 다시 한국의 행자부와 일본의 자치성 등이 주도하는 '한일지역사회개발 지도자 교류대회'로 격상하여 국제대회의 격을 높여 나갔다. '지역사회지도자 교류대회'는 1999. 10. 23. 제23차 한 · 일 각료회담 간담회 시 한국의 행자부가 일본의 자치성에 지역 가꾸기 지도자들의 상호교류를 제의하여 합의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행자부는 일본의 '지역 가꾸기'가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요청하게 되었다. 행자부는 이 지역 가꾸기 지도자의 상호교류를 통한 민간차원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제1회 대회는 2000. 11. 7.~14.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는데 주로 토론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양국 간 우수사례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선진지역의 활성화 개발기업을 도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대회가 한일국제교류대회와 다른 점은 주로 전문가 집단이 참여했다는 점과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달랐지만 근본적인 취지와 추진방법은 대동소이하였다. 집중 분야로서는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인력개발' 분야 등이 토론의 주제였는데 좀 더 전문성을 높인 교류대회였던 것이다. 제1회 대회에는 50여명이 참가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여주 권혁진, 광명 백승대, 안성 곽춘식, 평택 정병호 등이 참가하였다. 제2회 대회는 2001. 10. 14.~17.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남, 경북 등의 활동이 소개되었다. 지역 활성화운동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연대활동 등이 소개 되었으며, 삶의 질 향상, 월드컵 및 엑스포 자원봉사 활동 등도 소개되었으며, 우수 복지시설 견학 등이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이천 설봉공원, 여주 신륵사 국민관광단지, 광주 곤지암 문화특구, 이천의 진로소주, 도자기 체험장, 현대전자, 제일제당, OB맥주, 한국야쿠르트와 용인 원삼지역의 젖소 농장 등이 주요 견학지였다. 한일국제교류대회는 새마을운동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 할 것이다.

다. 베트남(Vietnam) 새마을협력사업

1998년 8월에 부임한 강문규 중앙회장은 '지구촌나눔운동'이란 국제개발원

조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오랜 해외생활과 국제개발원조 경험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새마을사업에서 국제협력사업을 역점사업의 하나로 정하였다. 새마을조직원들이 개도국 현장을 직접 보며 국제적 감각을 익혀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구촌나눔운동의 현장이 있었던 베트남을 첫 사업대상지로 정하였다. 중앙협의회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므로 지구촌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방문단을 모집하여 현장을 견학시키고 적당한 사업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7차에 걸쳐 방문단이 파견되어졌다. 이는 국제개발원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다. 사업은 하따이성에서 활동하던 '한 · 베협력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주로 하노이 근처의 하따이성 주요 마을을 견학지를 정하였다. 협력센터는 현지 마을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새마을은 기초자금을 제공하고 새마을운동 방식을 전수하는 상호 유익한 방식이었다. 경기도지부의 사업은 1999. 10. 11.~16. 수원 대표 4명이 탄 오아이 지역 견학에 참가하면서 시작되었다. 2001년부터는 경기도지부의 독자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일본과의 교류사업에 이은 두 번째 국제사업이었지만 교류사업이 아닌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이었다. 2001년도 첫 사업은 하따이 마을에 보건소를 짓는 사업이었다. 베트남 측에서 토지와 인력을 제공하고 경기도지부가 자재자금을 지원하면서 새마을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이었다. 베트남 각 마을은 보건소와 학교가 부족하고 멀어서 주민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기에 주민의 요구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이 시기 경기도지부는 더 큰 새로운 자립형새마을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을 한참 진행하던 시기였으므로 지속적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보건소신축과 더불어 '겨울 옷 보내기'사업을 추진하여 40여 박스의 옷가지를 전달하며 사업과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2002년도에는 자금마련에 더 큰 어려움이 있어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가 주도하여 다이타잉, 낌안, 화타익 3개 마을에 새마을문고 3개소를 설치하였다. 2003. 2. 20.~25. 문고시찰단

26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된 새마을문고에 500만 원을 투입하여 책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로서 경기도지부의 베트남 협력사업은 문고도지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중앙회와 구미, 강원 춘천 등에서는 회관 · 학교 · 보건소 건립, 저수지설치, 카우뱅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고, 경북은 하노이 북쪽에 위치한 타잉웬성에서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경기도지부는 자금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베트남새마을협력사업은 중앙회와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국 베트남 정부는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한 '도이모이'정책으로 인하여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새마을협력사업의 씨앗은 아주 소중한 경험전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기타 국가에서의 새마을협력사업

캄보디아에서의 새마을협력사업은 직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가 2008. 6. 29. 회원 16명을 추진단으로 편성하여 프레이벵도 쁘라싸닷군 앙코 · 면 캄퐁투날 마을과 소난차이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가축은행'을 추진하였는데 회비 5백만 원을 모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협력사업이 아닌 사실상의 지원사업으로서 직장 회원들의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자 마련되었으며 대상마을은 중앙회가 시범마을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을 택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다.

2012년 경기도지부는 경기도의 자매결연지역인 캄보디아 캄폿주 실무공무원 20명을 초청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금 9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서 자매지역 주민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새마을운동 전수를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현지 답사단이 2012. 6. 4.~8.까지 캄폿주를 방문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과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입국하여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캄보디아 캄폿주 공무원들의 개발역량을 강화시키고 경기도와 새마을운동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었다. 선

발된 공무원 20명은 2012. 8. 19~24.까지 새마을교육과 더불어 경기도의 발전 시설과 지역 등을 방문하여 충분한 경험이 되도록 운영하였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현지로 돌아가서 사업비 중 5천만 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였고, 경기도지부는 관계공무원 및 시군지도자 24명이 2012. 12. 7.~12. 현지를 방문하여 준공식을 갖게 되었다. 협력사업은 나름대로 초청교육과 현지에서의 시범사업 구성으로 내용이 좋고 성과도 좋았으나 아쉽게도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 인도 아래에 있는 섬나라이다. 2005년 서남아시아에는 큰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쓰나미가 덮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일대가 초토화되었다. 이에 중앙회는 단순한 지원보다는 복구지원사업을 통해 도우면서 새마을운동을 전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을 실시하였다. 한 동안 스리랑카 피해지역은 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2006년 중앙회는 '희망의 마을 만들기'프로젝트를 만들어 모아진 성금으로 쓰나미주택을 직접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자금이 부족하여 코이카의 재난복구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희망의 마을 만들기가 추진된 것이다. 중앙회는 우선 대사관의 도움으로 수도 콜롬보 남부에 위치한 칼루타라 지역에서 마을을 만들기로 했다. 이 시기 곳곳에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등 각 국가별로 복구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앙회는 담당 팀장을 현지에 파견하여 직접 '희망의 마을 만들기'프로젝트를 추진하여 6개월 여 만에 쓰나미 주택 31가구를 완공하게 되었다. 완공된 마을은 칼루타라 정부가 정글을 깍아 만든 국유지로서 기반시설이 전혀없는 지역이었다. 그나마 어렵게 집을 지을 땅을 구하였는데 한인회와 한인교회 등의 도민이 아주 컸다. 경기도지부는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지만 성금을 출연하며 사업을 지원하였다. 준공식에는 경기도 대표로 김기원 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장이 동행하였다.

아이티는 중남미의 섬 국가로서 2010년 대규모 지진으로 매우 큰 피해를 당

하였다. 이에 중앙회는 전국적인 모금을 통해 '아이티지진피해복구지원'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아이티는 6.25당시 우리나라에 8백만 달러를 지원해 준 보은국가였기에 원조공여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아이티를 돕는 것은 의무이자 당연한 조치였다. 중앙회는 글로벌코리아차원에서 뜻하지 않은 지진피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초토화된 아이티에 조금이나마 보은하고 돕는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었다. 중앙회는 2010. 2. 1.~19.까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아준 성금은 총 1억 7천701만 7천 원이었는데 이 중 경기도지부는 2천964만 5천 원을 전달하여 16.7%를 담당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시도평균은 1천88만 오천 원, 참가 시군구 평균은 83만 7천 원, 읍면동 평균은 5만 1천 원이었는데 역시 모금은 언제나 처럼 경기도지부가 1위를 차지했다. 중앙회는 군부대의 도움을 받아 현지를 방문하고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아 준 성금으로 구입한 정성 어린 구호품들을 전달하게 되었다.

경기도지부는 동남아에서 아프리카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탄자니아를 택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획은 제1단계 기반조성단계 사업으로서 '새마을회 조직, 마을공동우물 설치, 시범마을 안내 간판설치', 제2단계 사업인 기반조성2단계로 '새마을회관 건립, 공동채소밭 조성, 소득증대 기계은행', 등을 계획하였으며, 제3단계는 자조발전단계로서 '마을진입로 조성, 가축은행 50가구', 마지막 제4단계는 자립완성단계로 정하고 '회관 내 다용도 시설조성, 젖소목장 조성' 등 나름대로 야심찬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준비하였다. 그러나 여러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결국 포기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경기도지부의 성금모금은 대부분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언제나 가장 많은 분담과 가장 많은 실적으로 전국 새마을운동을 견인하여 왔다. 경기도는 늘 1등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앙회 전체의 규모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해주농업협력사업 모금, 북한농촌복구지원을 위한 통일손수레 보내기 모금, 북한 룡천 폭발사고 복구

지원 모금, 스리랑카 쓰나미주택 건립모금, 아이티지진피해복구 성금 모금,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지원 성금모금, 세계화사업 기금 모금 등 주로 국제사업과 통일새마을운동으로 모금을 추진해 왔다. 모금에 익숙하지 않은 조직원들의 불만도 있지만 사업의 명분이 있어 보람과 자부심으로 모금을 해 오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역량 점검과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마. 시군지회의 지구촌 새마을협력사업

시군지회의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은 모든 여건으로 보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기도지부 소속 시군지회 중 수원, 성남, 김포, 과천, 양평, 안산, 안양, 포천 등 많은 시군들이 연차별 · 단계별이나 간헐적으로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에 참여해 오고 있다. 협력대상 국가는 주로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등이고 키르기스스탄, 사할린 등과도 협력해 오고 있다. 대개는 단 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수원, 성남, 양평 등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범을 보이면서 여러 개도국과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1) 수원시새마을회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

수원시새마을회는 관내에서 가장 많이 큰 규모로 지구촌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미얀마 등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등과의 협력사업으로 도내에서 가장 활발히 국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수원시새마을회는 2014년에 수원시와 협의하여 장기적 · 지속적으로 개도국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고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의 명성에 맞게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초로 '수원시지구촌새마을운동협력사업'을 계획하였다. 첫 사업은 중앙회와 협의하여 당시 중앙회의 중점협력국가이었던 라오스를 선정하였다.

라오스에는 중앙회에서 위촉한 현지 협력관이 있어 사업의 위험부담이 적었고 라오스 정부에서도 중앙회에서 진행한 반끈느아마을, 학사이 마을 등의 성공적인 시범마을 조성사례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확산을 반기고 있었다. 라

오스 국제협력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2014. 3. 19.~3. 23. 수원시새마을회 회장단과 수원시청 담당공무원 등 13명이 라오스 현장답사를 진행하여 사업대상 마을의 지방정부인 무왕토라콤군청을 방문하여 군수 및 마을주민 대표들을 만나고 중앙회 시범마을인 학사이 마을을 방문하여 새마을회관,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현지 협력관과 군청에서 추천한 폰캄 마을과 농하이 마을 두 곳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지와 사업이 더 필요한 곳이라 판단되는 폰캄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후 수원시, 수원시새마을회, 무왕토라콤군, 라오스새마을협력관이 다자간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 전수를 위한 새마을협력사업인 만큼 초기에 많은 예산투자 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희망하는 사업의 적정예산을 지원하여 성취감을 통한 자립의지와 새마을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정하고 1차년도 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폰캄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하였다. 수원시보조금 3천5백만 원을 확보하여 마을에 투입하였고 마을에서는 자부담으로 8,093천원을 보탰다. 기존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나무기둥을 걷어내고 철골과 시멘트로 기둥을 만들고 천장 및 지붕(아연)개량 작업과 교실 전체 도색, 출입문 교체, 책 · 걸상 교체, 선풍기 및 전기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였다. 2015. 3. 3. 준공식에는 수원시와 수원시새마을회 관계자 24명이 참여하여 보수된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제2차 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하였다. 2차년도 사업은 주민들의 요청으로 1차 사업 때 하지 못했던 학교 울타리 설치와 마을 안길 도로포장으로 정하고 수원시보조금으로 3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2015년 6월부터 11월 까지 완공하였다. 또한 수원시 상인연합회에서 5백만 원을 지원해 주어 폰캄 초등학교 교문설치와 교내 체육시설(축구골대, 미끄럼틀, 철봉, 그네)을 설치하였다. 2015. 11. 15. 준공식에는 수원시장을 포함한 30명의 대표단이 마을을 방문하여 폰캄 초등학교 시설 및 길이 220m, 폭 4m의 포장된 마을 도로를 둘러보고 중앙회 시범마을인 학사이 마을도 방문하는 등 저개발국가에서의 새마을운동 효과를 확인하였다. 제3차 사업을 위한 주민간담회에

서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지원해준 폰캄 초등학교의 시설을 좀 더 개선해 주기를 원하여 2016. 3월부터 6월 까지 4천4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 내 도서관시설 보수, 주방시설 설치, 화장실 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라오스 정부에서도 새마을협력사업에 호의적이고 폰캄 마을 주민 새마을교육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주민 스스로가 사업에 참여하고 현지협력관의 지도 감독으로 3년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라오스와의 3개년 협력사업을 끝내고 2017년 사업대상지를 중앙회 중점협력국인 미얀마로 선정하고 2016. 9. 26.~30. 현지를 답사하였다. 답사기간 동안 KOICA새마을연수원을 방문하여 새마을연수원교육과정을 견학하고 딴린 협동대학교를 방문하여 미얀마에서의 새마을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사업대상 후보지인 산피야마을과 버옛 마을을 방문하여 지리적 접근성과 마을주민들의 이해도 및 열정, 조직력 등을 검토하여 버옛 마을을 선정하였다. 2016. 9. 28. 수원시새마을회, 딴린협동대학, 미얀마국제협력관 간의 새마을운동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미얀마 시범마을지도자 초청연수」에 수원시의 요청으로 미얀마 버옛 마을지도자 4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2017. 4. 5.~4. 14. 교육일정 참여 전일에 마을지도자들을 인솔하여 수원시새마을회관을 방문하고 행궁동 새마을문고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견학하게 하기도 하였다. 미얀마 1차년도 협력사업은 마을의 구심점이 될 회관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4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2017. 4. 28.부터 11. 19.까지 부지면적 108평, 건평 50평, 내부시설은 회의실, 주방, 도서관, 사무실, 화장실(남,여) 로 구성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회관 앞에 국기봉을 설치하여 새마을기와 미얀마국기를 게양했다.

2018년 제2차년도 사업은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 교육혜택과 소득증대 기여로 도로포장, 마을회관 담장공사, 회관 내 컴퓨터교육장 구축, 양돈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8. 7. 15.부터 11월 까지 진행되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 내 396m, 폭 3m의 도로에 20cm두께의 콘크리트를 포장하

였고 회관 담장을 설치하였다. 담장에는 새마을마크도 부착하였다. 교육사업으로 회관 내 컴퓨터 6대 및 책상, 걸상, 에어컨, TV 등을 구입하여 컴퓨터교육장을 만들고 11. 10.부터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5주 과정의 교육으로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소요되는 강사료는 마을공동경비에서 집행하기로 하였다. 소득증대사업으로 마을에서는 양돈사업을 희망하였고, 버옛 마을 양돈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끼돼지 130마리를 38가구에 지원하였다. 가구별 농장에서 개별사육하고 10개월 후 돼지구입비용 원금상환, 차익금은 주민이 갖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상환된 원리금은 양돈사업에 재투자 및 마을회관 관리비로 사용되었다. 미얀마 국제협력사업은 당초 3개년으로 계획했으나 3차년도 사업 추진해인 2019 사업대상지를 새마을중앙회와 경기도새마을회의 권유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으로 선정하게 되어 종료되었다. 수원시새마을회는 미얀마에서의 3차년도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세계화장실협회'에 협조요청 하여 미얀마 딴린 협동대학교 내에 화장실 설치를 지원해 주고 이후 사업들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초체계를 갖추어 주고 마무리하게 되었다.

경기도 지구촌새마을사업 추진단과 수원시새마을회가 동행하여 2019. 2. 21.~2. 25. 키르기스스탄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지방자치청을 방문하여 청장과 면담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키르기즈공화국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협력관계 구축을 논의하고 KOICA현지사무소를 방문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의 역할 협조를 논의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국가적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희망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시범마을인 자이을군 앗바쉬면 아랄시범마을을 둘러보고 악바샷트, 추이, 카라사칼, 타시바샤드 등 4개 후보마을을 답사한 결과 이미 새마을조직을 구성해 놓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악바샷트 마을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2019. 3. 4. 수원시새마을회와 악바샷트 마을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년도 사업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을 결정하였다. 6월

12일부터 10월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4천만 원의 수원시보조금을 받아 마을에 지원했다. 그간 지원했던 라오스, 미얀마와는 달리 현지 협력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기초 작업부터 회관건립까지 모든 과정을 면장과 마을주민들이 분담하여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마을주민들이 생업을 마친 후에 작업을 하였기에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다. 2019. 11. 8. 준공식을 개최할 때에도 회관 외관만 구축된 상태로 내부 시설(화장실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 2차년도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결정하고자 한다.

2) 성남시새마을회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

성남시새마을회의 해외협력사업은 2008. 10. 23.~10. 28. 캄보디아 프레이벵도 깜퐁투날마을 도로포장공사 지원을 시작으로 시작하여 2010. 10. 9.~10. 12. 몽골 날라이흐구 탄광마을 진입로 도로포장공사를 지원하였다. 성남시새마을회는 단편적인 지원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움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전수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오지에 있는 3개 조선족 마을과 5개의 조선족 학교에 대한 ODA 공모사업을 4년간 추진했다. 마을마다 회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매년 위촉하고, 본인들 마을의 인력과 자부담을 유도해 마을공동우물, 마을공동화장실,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했으며, 주민들과 함께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무지개 뜨는 학교조성사업'으로 학교 측의 인력과 자부담을 포함하여 낙후된 학습장, 화장실, 컴퓨터실, 공예실, 작은 도서관 등의 시설개선과 윷놀이, 제기차기, 족구, 독서골든 벨, 한지공예 등의 다양한 한중문화교류로 자생력과 동질감을 만들어내는 큰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3) 김포시새마을회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

김포시새마을회 지구촌 새마을협력사업 2020. 2. 5.~9. 필리핀 중부에 위치한 일로일로(ILoilo) 시(市)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코피노 돕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인 교수(코피노 코뮤니티 대표와 코피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코피노(kopino)란 한국인(Korean)과 필리핀인(Filipino)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필리핀 전역에 약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피노는 주로 유학생, 사업자, 관광객 등과 필리핀 현지여성 사이에서 출생하거나 간혹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귀국한 자녀들이 주를 이루는 이들 코피노는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포시새마을회는 2016년부터 이들 코피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컴퓨터(노트북 3대)와 각 읍면동에서 헌옷 모으기를 통해 조성한 기금과 칫솔 등을 지원해 왔으며, 한복과 어린이 이동도서 차량지원을 위한 900만원의 성금을 마련해 전달하여 왔다. 김포시새마을회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코피노 돕기'를 추진키로 하고 회원단체별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일로일로시 코피노 코뮤니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코피노에 대한 교육지원, 코피노가정 자립사업 지원, 코피노 취업 교류지원, 김포시새마을회 Y-SMU(대학생회원)들의 해외 자원봉사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을 펼쳐 나가려고 한다.

4) 과천시새마을회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

과천시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경기도새마을회와 협력하여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캄보디아, 네팔, 몽골 등에서 해외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2010~11년도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협력 사업 중인 캄보디아 프레이벵도 쁘리사닷군 앙코 · 면 소난차이 마을 도로포장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사업비로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2.8km 도로포장 중 800m를 포장하였는데 2년에 걸쳐 2,200만원을 투입하고 공동우물 설치 사업에도 2년 동안 700만원을 투입하였다. 이밖에도 마을주민을 위한 생필품, 학용품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가정 내 쓰지 않는 타월과 재활용 옷을 모아 현지 마을 주민들에게 전해주었다. 2012~13년도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의하여 네팔 치트완 다밀리 피플레9 마을 도로포장 공사에 2년 동안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2,800만원을 투입하여 총 450m 도로포장에 참여하였고 특히 2012년도에는 중앙회에서 추진한 피플레 2, 5, 7마을 도로포장 등 기공식에 참석

하였으며 이밖에도 300만원 상당의 염소, 양 지원 및 수저, 치약, 칫솔 등 생필품과 재활용 옷가지와 타월 등을 준비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학교를 방문하여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2014년도에는 경기도새마을회와 협의하여 몽골 나랄이흐군 형허르 마을에 하우스 2개 동과 채소밭, 묘목장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의견을 청취하여 마을 주민들의 원하는 공동우물로 사업을 변경하고 시 보조금 1,300만원을 지원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공동우물 설치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었으며 그 밖에도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전달하였다. 과천시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계획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해외협력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나라에 새마을정신을 전파하고 마을주민이 스스로 힘을 합쳐 마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해외협력사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오고 있다.

5) 양평군새마을회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

양평군새마을회는 지구촌새마을운동에 대한 비전으로 캄보디아를 선정하고 현지 협력관으로 국제옥수수재단 캄보디아 지부와 협력하여 2014년~2015년까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돕는 사업을 펼치던 중 2016년 양평군의 자매도시가 된 캄보디아 반테민체이주 바노야이 마을을 새롭게 선정하여 활성화된 양평군새마을운동을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부터 추진된 지구촌협력사업은 캄보디아에 집중되어 6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양평군새마을회 현지 파트너인 옥수수재단과 2년, 하찬캄 지방정부와 4년간 협력하며 캄보디아 프놈펜, 깜뽕톰주, 반테민체이주 바노야이마을 등에서 활동해 왔다. 주요사업으로서는 교육과 생활환경개선사업, 새마을교육, 새마을공동작업장 건립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4년도에는 프놈펜 피스국제학교의 마을진입로포장과 놀이터시설 보수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옥수수재단 협력으로 추진되었다. 2015년에는 매스터즈터치 국제학교의 마을진입로포장 30m와 학교시설보수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은 직접사업 재료비는 양평군새마을회가 부담하고 인력 및 장비 등은 현지에서 부담하는 협력방식으

로 추진되었다. 2년간 옥수수재단의 협조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다.

2016년에는 바노야이 지역에서 사업이 펼쳐졌는데 마을 마을진입로포장과 학습도구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하찬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한 것이다. 2017년에도 400m의 마을진입로포장과 새마을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대한민국과 새마을운동을 소개하면서 주민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활동하였다. 2018년에도 400m의 마을진입로포장과 한글교실 신축(8mx16m)를 개선하였다. 하찬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에는 새마을공동작업장과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며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간과 소통의 장소를 마련해 주면서 지구촌새마을협력사업을 지속해 이르고 있다.

3. 통일새마을 사업

가. 통일새마을협력사업(북한농촌현대화지원사업)

통일새마을협력사업은 통일 이후 북한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비하여 조금씩 북한농촌복구를 지원하여 통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북한지역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북한농촌의 빠른 복구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지방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하여 중앙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은 중앙회가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중앙회도 대북지원 전문단체가 아니어서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가입하여 북한 채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중앙회의 대북지원사업은 1998년 북한 어린이들의 아사 상태를 막기 위해 '북한 젖 염소보내기'를 추진한 것이 처음이었다. 사료걱정도 없고 비교적 생존력도 강한 젖 염소를 길러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고기도 섭취할 수 있기에 남북양측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사업추진 방식은 농가에 직접 젖 염소를 분양하되 암 · 수컷을 보내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분양받은 염소가 자라 새끼를 낳으면 분양 받은 것처럼 새끼 1마리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국에서 400여 마리를 구입하여 보냈는데 새마을운동 시도 조직 뿐 만 아니라 국내 각 교회와 단체, 독지가들도 참여하였다.

첫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중앙회는 1998년에 '북한동포돕기 새마을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굶주림과 영양실조가 지속되어, 연간 50~80만명이 아사함에 따라 같은 동포로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농자재와 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북한은 계속되는 한 · 수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집단농장 및 주체농법에 의한 비효율적 영농, 농자재부족으로 인한 생산능률 저하, 사회주의 국가 붕괴로 경제교류 침체, 중국원조의 감소 등 이중삼중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던 시기였다. 소위 '고난의 행군'이 진행되는 시기였다. 유엔의 식량 · 보건 · 아동 · 개발기구들과 세계 각국의 비정부기구 들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새마을에서도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민족화해의 실현과 민족통일 준비, 더불어 사는 세계구현, 한민족 공동체 형성, 남북 간 이질감 및 상호 부정적 인식의 해소를 위해 전 국민 참여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단계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긴급 물자지원이었는데 구호물품 보내기, 옥수수보내기, 북한 결식아동 돕기 등이었고, 2단계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농업협력사업으로서 비료보내기 등이 추진되었다.

1998년에 시작한 남북교류의 통일새마을운동은 1999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규모를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이라 사업의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여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8년 젖 염소보내기에 이어 1999년에는 극심한 식량난 극복을 위해 동포애를 발휘하여 '옥수수 보내기'를 추진하였다. 함께 잘사는 인류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부녀회 위주로 추진되었는데 우선 시도별로 긴급지원 차원에서 시도 부녀회별 100만 원 정도씩 총 2천만 원을 모아 옥수수를 사 보내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9년에는 북한에 비료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였지만 자율 참여율 저조,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 사업은 통일준비를 위한 이미지 다지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사업규모가 커서 새마을 독

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버거웠기에 타 단체와 공동으로 모금하여 추진하고, 전달은 각 단체별로 이루어졌다. 새마을은 비료 1,600포대(1천만 원 상당)를 보내는데 그쳤다.

나. 경기도새마을부녀회의 북한동포겨울 옷 보내기

경기도새마을부녀회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독자적으로 북한동포(어린이) 겨울의류 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알뜰마당, 1일 찻집'등을 열어 최소한의 경비마련과 재활용 의류 모으기에 힘을 모았다. 그 결과 36,417명이 참여였고 모금은 18,208천원이었다. 최우수에는 광명시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9년에 추진된 이 사업은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사랑의 옷감을 모아 보내는 것이었다. 모아진 옷감은 경기도새마을부녀회가 북한 측에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도내 중부일보와 경기방송 등과 손을 잡고 도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 '온정의 손길, 한민족공동체 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쓰며 도민 참여를 호소하였다. 이는 수년간 수해와 흉년으로 생존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반목과 갈등을 버리고 추운겨울을 함께 나누자'는 캠페인으로 이어져 나갔다. 1999. 10. 20.~12. 15. 옷감 등을 모았는데 새마을가족은 물론 도민들도 상당히 참여해 주었다. 결과는 총 707박스를 모았다. 가지 수로는 총 17,995점, 약 3컨테이너 분량으로서 환가액은 1억 2,663만원 상당이었고, 별도로 새마을마크가 표기된 박스를 제작하여 담았다. 내일신문이 모은 옷감 30만 야드(약 8컨테이너)도 같이 보내졌다. 이는 도내 483개 읍면동에서 모은 아동복, 속옷, 양말, 치약 · 칫솔, 옷감 등이었다. 의류보내기 사업은 IMF시기와 겹쳐 실적이 부진하였고, 새 옷 모으기가 곤란하였지만 나름대로 의류협찬도 많이 들어왔다, 이 사업은 새마을운동 기반구축노력과 전 도민 참여와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되었으며, 북한동포와 상호 이해증진, 한민족공동체 의식 제고, 남북화해 화합계기, 통일대비 새마을운동, 북한경제회생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 동포애, 한반도 평화적 통일, 화합과 결속계기 마련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모아진 의류는 2000. 3. 15.~21. 인도요원으로 우태하 사무처장이 남포로 파견하여 직접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

다. 통일손수레

2000년은 새마을운동 역사에 있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해였다. 지난 30여년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과의 교류를 여는 중요한 해였다. 2000년 7월에 '통일손수레보내기 국민운동 기본계획' 수립이었다. 손수레는 새마을운동 상징이었다. 중앙회는 북한농촌복구지원을 위한 통일손수레 보내기 사업을 위해 국민운동추진 본부까지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 4. 22. 새마을운동제창 30주년 기념 식사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북한의 농촌재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70년대 우리농촌을 살리고 국가과제를 일으켰던 새마을의 경험과 열정이 어려움에 처한 북한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하여 북한농촌복구를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새마을조직이 앞장 서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북한 농촌재건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가장 새마을다우며 북한농촌재건에 효과를 거둘 것인가를 검토한 끝에 '손수레'로 결정 하였다. 가래와 손수레는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의 상징적인 농기구이기 때문이었다. 중앙회는 이를 '통일손수레'로 명명하였는데 통일손수레는 매우 적정성이 있는 품목이었는고 이는 대한민국 어느 기관 · 단체도 추진하지 않은 새마을만의 사업이었다. 손수레는 마을단위에서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대당가격에 비해 반영구적이고, 고장률도 낮고 수리가 용이한 품목이었다. 아울러 새마을 열기를 전달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어 아주 적절하였다. 통일손수레 보내기 모금을 위한 가시적인 품목제시로 모금목표와 동기부여 명료화하며, 새마을마크와 기증단체 표기로 북한주민들에게 협력의 뜻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대적인 모금을 통해 실시하였다. 1998년에 추진에 연해주영농협력사업 모금에 이어 두 번 째였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전국적으로 모금의 열기가 대단하였다. 중앙회는 이 사업을 통해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화해 통일기반조성 기여하며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 및 신뢰증진, 실질적인 북한 농촌복구지원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며, 국민들에게는 통일새마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키고, 새마을의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내부 조직원들에게는 새마을조직의 역량을 강화

하고 조직실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2000. 7. 5.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시군별 모금 목표액도 정해졌다. 7월 8일에는 '통일손수레보내기 국민운동본부'까지 설치하며 본격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전국 목표액은 10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00. 11. 30.까지 모금한 결과는 15억 225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43%를 달성하게 되었다. 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2001년도에 우선 손수레 1만대(일륜형 3,000, 이륜향 7,000대)와 장비 및 부품 30,752점을 북한 8개소 전달하게 되었다. 손수레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보다 튼튼하도록 하였으며 북한지역에는 평양시 상원군, 중화군, 력포지역, 황해북도 사리원시, 봉산군, 황해남도 자연군, 평안남도 개천시, 문덕군 등에 각가 배분되어 북한농촌복구지원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통일손수레'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4,500대를 보내어 남북 모두의 북한농촌재건사업의 상징이 되었다.

라. 경기도지부와 통일손수레

경기도지부는 중앙회의 대대적인 모금에 동참하면서 처음으로 해 보는 통일새마을운동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일단 시군,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7월14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중부일보와 합동으로 도민 참여 홍보와 모금자 명단을 일자별로 게재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갔다. 중부일보는 사고를 통해 북한동포 농촌재건돕기 '통일손수레를 보냅시다.'를 내보내고 사설이나 특별 기고를 통해 활동도 홍보해 주었다. 이 사업에는 도내 기관 · 단체 등도 적극 참여해 주었는데 2000. 7. 18. 임창열 도지사와 시군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120개에 기관 · 단체의 적극참여를 호소하며 범 도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갔다. 경기도는 전국목표액 10억5천만 원 중 경기도 목표액인 119,425천원을 2000. 8. 28. 일찌감치 달성하였으며 2000. 10. 31.에는 새마을가족과 도민 32,774명이 참여하여 247,795천원을 모금하여 목표대비 207%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모금은 8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1월까지 모금하였는데 일반도민들도 동참해 주어 103,450천원을 모금해 주었다. 결과는 최다 모금지회는 418%, 최저 모금지회가 100%였다. 최다모금은 용인시

지회가 2천367만 원을 모금하여 418%를 달성하였으며, 군포시지회는 목표액 대비 최고인 570%, 1천72만 원을 모금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경기도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경기도가 전국 새마을운동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도 되었다. 중앙회는 행운권 당첨자 23명에게 2000. 11. 29.~12. 2.까지 금강산 관광을 시켜 주었는데 경기도는 임홍업 구리 동구동협의회장 1명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경기도지부는 모금결과 최우수가 되어 내무부로부터 상사업비 10억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 자금은 자체회관 확보의 밑천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광명시지회는 전국 우수지회가 되었다. 도지부는 성금모금자 전원에게 감사서한을 보내는 등 성금을 내주신 분들에게 각별히 예의를 갖추면서 모금을 마감하게 되었다. 모금을 위해 만든 호소문은 다음과 같았다.

[북한동포 농촌재건 돕기 '통일손수레'를 보냅시다!]

도민들의 적극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 북한농촌은 70년대 우리가 벌인 새마을운동초장기 시절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손수레라도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장 북한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과 무기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용기입니다. 5천년의 한 맺힌 가난을 몰아낸 경험과 지혜를 이제 북한 동포들과 함께 나눌 때입니다. '통일손수레 보내기' 는 통일의 큰 길을 닦는 일입니다. 북한농촌을 번영으로 이끄는 것은 물론 북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견인차이자 우리 겨레가 함께 잘살기 위한 희망의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새마을회와 중부일보사는 6 · 15 남북공동선언의 취지를 살리고 나아가 7천만 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 을 앞당기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북한농촌 재건을 위한 '통일손수레 보내기 범국민 운동' 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도민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 룡천 폭발사고 복구지원 등

통일손수레 지원과 더불어 2000년에는 축산지원 및 새마을운동 대표단 10

명이 방북하여 양측 축산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2000. 10. 24.~28.까지 방문하였는데 경기도지부는 박장수 도 지도자협의회장이 대표로 참가하였다. 이후 대북지원사업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매년 조금씩 추진하였는데 통일손수레 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었다. 안타깝게도 2004년에는 평양에서 신의주로 가는 룡천역에서 폭팔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다. 이에 새마을은 또 다시 '룡천참사돕기'모금을 통하여 인도적 차원의 지원인 중국산 밀가루를 사서 보내주었다. 경기도는 이번에도 가장 모범적인 성금모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군포시지회 이환봉회장과 중앙회 황창영 팀장 등이 중국 단동지역에서 생산된 밀가루를 싣고 북한 신의주를 방문하여 전달하게 되었다. 경기도지부는 통일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대부분은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성금모금으로 참여하였고 때로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향후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북한지역 새마을운동 전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제1편 경기도 새마을운동

제3장 경기도새마을운동 지나온 50년, 다가 올 50년

제1절 지나온 50년의 경기도새마을운동

가. 새마을운동과 경기도

경기도는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중심이자 기수로서, 새마을사업의 실험장이고 모델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 왔다. 경기도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새마을운동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모범과 실제를 보여주며 전국의 새마을운동을 이끌고 온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정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함으로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을 먼저 접하고 먼저 실행하여 전국에 전달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마을의 모형을 만들기 위한 시범지역으로서 시범마을 조성, 주택개량, 국도변 가꾸기, 취락구조 개선사업, 통일벼 재배 등의 실험을 통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우수마을을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견학할 수 있는 모델로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실험되고 모델화된 마을들과 새마을운동의 성공 가능성을 앞장서 보여주며 전국의 새마을운동을 이끌어가는 견인차적인 역할과 방향

을 제시해 주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소 중에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새마을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새마을지도자'라는 직책을 가진 리더들의 역할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주민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새마을운동의 개념과 정체성, 정책방향과 의도를 잘 전달해 주고, 주민들의 바람과 어려움을 정부에 전하면서 조율사로서의 역할을 해 준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주민들의 신망과 기대를 받으며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마을과 주민의 리더였다. 이런 새마을지도자를 길러 낸 곳이 경기도에 있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새마을교육의 효시이자 산실'이라는 것이다.

나. 새마을교육의 산실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은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이론이나 학문이 아닌 행동과 실천 철학이다. 그러므로 머리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과 국가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지도록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위한 제1차적 관문은 어떤 인재를 발굴하여 어떻게 활동하게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 새마을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새마을지도자를 마을마다 선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제도를 만들고 주민들에 의해 새마을지도자가 선출되었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뿐이었다. 1970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각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지만 구구각색이었다. 1971년 하반기까지 성과를 들여다보니 마을별로 성과가 뚜렷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평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본 결과 성공한 마을에는 반드시 우수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우수한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해야만 새마을운동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가 정해졌지만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었다. 그래서 1972. 1. 14. 서울 인근인 고양군 농협대학 내에 '독농가연수원'을

설립하여 새마을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는 부족하였다. 이에 1973. 4. 8. 독농가연수원을 농업의 중심지인 수원 농촌진흥청 내 농민회관으로 옮기게 되었다. 1973. 5. 31.에는 '독농가연수원'을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개칭하면서 본격적인 새마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전국 마을에서 선발된 열정적인 새마을지도자들은 이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을과 국가발전에 가슴 벅찬 각오를 다져나갔다. 새마을지도자, 농민, 공직자, 사회지도층 등 새마을운동을 이끌고 갈 최우수 정예 지도자들을 수원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양성한 것이다. 경기도가 새마을운동의 못자리 역할을 톡톡히 해 낸 것이다. 이 연수원은 1983. 4. 22. 성남시 율동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으로 이전 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초기 새마을운동의 정점이었던 1970년대 새마을교육은 사실상 경기도에서 전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 내는 큰 역할을 수행해 낸 것이다. 경기도는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해 내는 산실이었던 것이다.

수원시에 있던 이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1973년 4월부터 1983년 3월까지 10년 동안 새마을국민정신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일주일 내외의 합숙교육기간 동안 "나는 마을과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방안을 찾게 하고 그 실천의지의 고양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는 물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포함하여 550여회에 걸쳐 총 77,851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수련한 지도자들의 열정은 마침내 새마을운동을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타오르게 하였으며 실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오천년 찌든 가난의 한을 풀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이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품었던 정신혁명의 발화점이요. 새마을지도자의 산실이며 새마을운동의 요람이라 할 것이다.

다. 새마을운동 실험장으로서의 경기도

경기도는 우리나라 농업 연구발전의 중심이었다. 조선의 제22대 정조대왕 시

절부터 설계된 농업관련 시설들은 농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오늘 날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문턱에 까지 이르게 하는 역사적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 농업의 중심인 경기도의 수원은 한 때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부문별 시험장 등 국내 최고 · 최대의 농업관련 기관 · 시설 들이 많았다. 새마을운동은 농업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원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은 새마을운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새마을운동은 처음부터 이론이나 학문을 가지고 출발한 운동이 아니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새마을운동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막막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마을운동은 각각 자기방식대로 추진되었다. 이에 정부는 새마을사업 모델을 만들고 표준화하여 '새마을운동 길잡이' 책자를 전국 마을에 공급하였다. 공무원이나 마을지도자나 주민 누구든지 이 표준을 보며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되도록 아주 상세한 지침서이자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이 지침서는 공무원과 학자, 현장의 마을지도자 들이 모여 만들었다. 그 실험장의 상당수는 지리적으로 정부와 가까운 경기도에서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정리하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견학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들을 여러 시군에 만들었다. 기존 자연부락 중 의욕 있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마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새마을운동은 모델운동으로서 지나 온 50년의 결과들은 상당부분 경기도가 만든 새마을운동의 열매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성공사례 시범을 보인 경기도 새마을운동

경기도가 새마을운동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 보다 많은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등을 만들 수 있었다. 성공한 마을과 성공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례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역할을 해 냈다. 새마을운동의 경쟁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새마을사업의 교과서를 만들어 공급하는 역할을 해 낸 것이다. 수원을 중심으로 화성, 평택, 용인, 이천, 여주, 양평, 광주, 양주, 고양, 파주, 김포, 시흥, 포천 등이 경기도 새마을운동의 중심 지역이었고 이 지역에서 우수사례 들이 많이 나타났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새마을지도자연수

원에서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감동적인 발표가 있었다. 이 사례를 들은 교육생들은 각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례를 만들고자 불타오르는 가슴을 안고 귀향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불을 지르며 전국에 새마을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동력이 되었다. 경기도새마을운동에 있어 특이한 사항은 70년대 후반에 우수사례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을 만화로 만들어 보급하였다. 당시 각 지역에서는 경쟁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기에 성공하는 마을이 많았고 이를 견인해 준 새마을지도자들도 많았다. 경기도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만화를 만들어 주민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였다. 이 만화들은 오늘날 경기도새마을운동의 보물 같은 자료로 남게 되었다. 경기도는 새마을운동 우수사례의 생산기지였던 셈이다. 19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국 고위인사나 교육생 등 새마을시찰 방문지는 거의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다.

마. 경기도새마을운동이 걸어온 길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자 '정신 혁명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새마을사업과 활동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다. 모든 사업들은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도구로서의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을길을 넓히고 초가집을 고치는 일이 새마을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바꾸고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의식이 바뀌면 나머지 일들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넓고 좋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가난과 무지, 절망과 무력감으로부터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은 새마을운동 전체를 통해볼 때 가장 중요한 성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성과물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핵심동력이었다. 이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중앙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운동이 이어졌다. 그 기조 하에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면서 운동이 추진되었다. 경기도는 언제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고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경기도의 새마을운동은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앞만 보고 달렸다. 달리는 과정에서 고난과 진통이 수없이 많았지만 도민들은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자'는 희망과 소원을 담아 매진하게 된 것이다. 잘살아 보자는데 누구도 불만과 불평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도민을 하나로 묶고 도민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신앙과도 같은 구호였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갈팡질팡할 때 최고통치자의 강한 의지와 애국심과 애향심 높은 공직자들은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되었다. 게다가 헌신적인 마을의 새마을지도자와 믿고 따라 준 주민의 참여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성공하도록 만든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대 말 새마을운동의 존폐 위기가 있었다. 이 위기는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이라는 방향이 정해지면서 새롭게 변모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80년 들어서면서 경기도새마을운동은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으로 탈바꿈하여 지난날의 성공경험을 이어가며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펼치게 되었다. 80년대 새마을운동은 이미 민간운동으로 전환되었기에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범국민적 참여와 실천에 중점을 두었다. 1980년대에는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국가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 국토를 공원화' 시키는 사업들이 매우 활발히 펼쳐졌다. 경기도새마을사업의 대부분은 양대 국제대회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특히 경기도는 양대 국제대회장 인근에 위치하여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도내 경기장도 있어 더욱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양대 국제대회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성공신화를 알려 중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는 절호의 기회였고 결국 해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올림픽을 전후로 모든 상황이 활발했다. 국민소득은 1만 불을 넘기었고, 국민들의 요구도 매우 다양해 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농촌사회에서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의 길에 접어들어 있었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 나갔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로 우리 사회는 매우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초반의 경기도새마을운동은 마을활동에서 좀 더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잘 돌보지 못한 산 · 강 · 하천 살리기에 운동역량이 집중되었다. 새마을운동과 발전과정에서 무너진 갔던 것들과 잊혀 가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

한 운동이었다. 직장과 기관 · 단체들도 앞 다투어 '1사 1산 1하천'운동을 통해 공익활동을 펼쳐나가 모두가 힘을 합해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배고픔을 막 잊고 '소득은 1만 불이었지만 소비는 3만 불'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경기도새마을운동은 과소비 추방,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을 기치로 각종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해 왔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결과는 개인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나라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아시아의 떠오르는 네 마리용에서 추락하며 경제동물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다. 한강의 기적과 올림픽이 새마을운동으로 성공적인 발돋움할 수 있는 성과들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IMF사태를 맞이하며 공든 탑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를 바라볼 수만 없었던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지역 경제 살리기, 나라 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애국가락지 모으기로 나라경제를 살리고 국민저축운동으로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통해 도민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새마을정신을 발휘하는 계기였다. 운동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행동인 것이다. 이 시기에 경제 살리기 운동은 모든 도민들에게 절체 절명한 과제였다. 90년대 후반은 우리 모두에게 악몽 같은 터널이었지만 경기도새마을운동은 빠르게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90년대 말부터 불어 닥친 경제 위기는 2천 년대 초반까지 그 후유증이 있었다.

2천 년대에는 다시 2002월드컵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나갔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이 번에도 앞장 서 '질서 · 친절 · 청결'의 월드컵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다시는 IMF사태와 같은 악몽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보다 선진화된 문화시민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활동들이 주요사업이었다.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선진국 문턱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 졌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지역 · 계층 · 세대 등의 갈등이 생겨나게 됐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이런 갈등을 넘어 지역화합 운동으로 초점에 맞춰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게 되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쓰나미와도 같은 큰 위기가 닥쳤다. 정부의 민간운동 지원중단 등 악재는 또 다시 새마을운동의 존폐위기로 몰아세우게 되었다. 절망으로 떨어져 갔지만 새마을운동으로 보아서는 반전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총력을 기울여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을 위한 수익형 자체회관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끈질기게 추진하였다. 온갖 비난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말없이 희생하는 지도자들의 새마을운동자립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천 년대 말에 정부의 무관심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변화 · 도전 · 창조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90년대에 '제2의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면 2천 년대는 '뉴 새마을운동'이 있었다. 이는 그 동안의 새마을운동을 다시 정리하여 시대에 맞는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였다. 스마트코리아, 그린코리아, 해피코리아, 글로벌코리아운동이었다. 그것은 선진문화새마을운동, 녹색새마을운동, 이웃새마을운동, 세계화새마을운동이었다.

2010년대는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사회변화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몸부림치는 시기였다. 크게 보면 2천 년대는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대 초반에 들어 다시 새로운 시대정신을 '나눔 · 봉사 · 배려'로 정리하고 제2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2010년대 중반에는 폭주하는 새마을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구촌새마을운동'이라는 목표를 정하여 영역을 넓혀 나갔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 다시 '생명 · 평화 · 공경'이라는 운동의 목표가 정해졌다. 이 새로운 방향은 화석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으로 우리 스스로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생명을 살려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결심으로 이 운동이 추진되었다. 운동에 대한 고민은 2010년대 초반의 변화 · 도전 · 창조를 바탕으로 한 '뉴 새마을운동', 중반의 '나눔 · 봉사 · 배려'의 '제2새마을운동', '글로벌새마을운동', 후반에는 '생명 · 평화 · 공경'운동 등 숨가쁘게 새롭게 탈바꿈하려는 시도들이 연속되어 왔다.

바. 지나 온 50년의 경기도새마을운동

경기도새마을운동의 지나 온 50년은 새마을운동의 중심이요, 새마을교육의 산실이요, 새마을운동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 역할을 해 온 주역들은 아직도 살아 각 시군의 원로로서 존재한다. 정조대왕의 농업기반 조성이 새마을운동의 터전이 되었듯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였던 우리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은 오늘 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는 자랑스러움도 있다. 비록 헐벗고 굶주리며 이를 악물고 걸어 온 50년이지만 우리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후손들이 당당히 어깨 펴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떳떳함도 있다. 그러나 지나 온 50년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잠시 뒤돌아보고 다시 앞을 보고 달려야 한다. 우리 뒤를 따르는 후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가 올 50년을 잘 만들면 50년 뒤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좋은 조상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때 그 시대를 살던 우리의 조상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후세들이 평가할 일이다.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세', '독일이 해냈는데 일본도 해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못할 것이 없지 않느냐?' 지나 온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의 역사는 참으로 숨 가쁜 시간들이었다. 에베레스트보다 높다는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들이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국토와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어 원망만하며 주저 앉아 있던 국민들을 새마을운동으로 일어서게 만들고 행동하게 하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게 하였다. '하겠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최빈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것이다.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유교사상과 관습의 장애요인, 배고픈 기간을 조금이라도 당겨보려고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절망적이었던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 끈질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야만 한다는 절실함이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기에 새마을운동은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출발한 산업혁명과 르네상스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일으켰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 다다르며 일본을 바꾸어 놓았다. 그 흐름이 대한민국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 국민들은 하늘이 내린 기회를 차 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이룬 한강

의 기적은 아시아의 4마리용을 넘어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도착해 있다. 역사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자꾸 흘러만 가고 있다. 인구 250만의 서울의 위성지역이었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1,350만의 거대한 경기도로 변했다. 새마을운동은 행동이요 실천이다.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무형자산으로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국가브랜드이다. 유네스코세가 인정한 세계의 새마을운동이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이루어 온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중심 경기도새마을운동의 지나 온 50년은 자랑스럽고 보람된 시간들이었다. 역사는 흐르다. 막을 수도 없다. 우리는 그 흘러간 역사를 뒤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새로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새마을운동이 필요했고, 이 새마을운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였기에 자랑스럽고, 앞으로 다가 올 어려움이 잇기에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전국에 활력의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의 역할로서 성장해 왔다. 새마을교육의 산실이요, 실험장이요. 역사의 보관지인 '새마을운동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2019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새마을지도자는 공무원증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헌신적인 공직자이다."라고 정의하고 격려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이다."라고 정리하였다. 지나 온 50년은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좌고우면할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린 셈이다. 앞만 보다보니 옆을 보지 못하였다. 보지 못한 옆은 새로운 50년에 다시 보아야 할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제2절 다가 올 50년의 경기도새마을운동

가. 현재진행형 새마을운동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기저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이 역사적 사실이 '그 때 그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으로 후세에 길이 전해질 때 앞의 역사들도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가 올 50년의 과제는 다양한 우리사회 만큼이나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의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은 비전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성과를 올리기 위한 전략과 전술들도 지속적으로 연구 · 발전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이라는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원리와 개념, 정신 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시대마다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민 눈높이에 두고 지속적으로 새마을운동추진의 시대적 과제의 발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가 올 50년의 새마을운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한 것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바르게 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에 대한 편견 없는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수차례 되풀이 되었던 과거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에 잘 했다고 지금도 잘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발전할 수 없다. 오히려 과거의 문제점을 제대로 찾아내어 새롭게 시대변화에 맞도록 조직과 운동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국민의식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좌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국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 국가브랜드로서의 새마을운동, 지구촌이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생명을 살리는 새마을운동, 평화를 나누는 새마을운동, 재정건전성을 정착시키는

새마을운동이다. 이 방향은 시대가 흐르면서 그 시대에 맞추어 변하거나 수정되겠지만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시점의 과제로서는 미래 지향적 국민운동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볼 것이다. 핵심가치와 정신, 쌓여진 실적, 새로운 운동,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준비들, 기본 뼈대와 운동영역 들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정신만으로도 운동만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골고루 살펴보면서 먼 미래를 준비하자는 차원이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어차피 중앙에서의 큰 방향이 제시되고 구체화되면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자체 방향과 좌표를 살펴보는 일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새마을운동은 아직도 살아있는 운동이고 현재진행형 운동이라는 것이다. 다가 올 50년에도 어제의 운동이 아닌 현재의 운동이고 미래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새마을운동과 운동

새마을운동은 '운동(Movement)'이다. '운동'은 학문적으로는 사회구조나 가치 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조직적, 집단적, 지속적인 실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운동 중에 기존의 사회구조에 대한 모순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조직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인데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일종의 사회운동의 성격을 가진 국민운동이다. 다시 말해 운동은 우리 사회에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갈등, 세대갈등, 도농갈등, 빈부격차, 양극화, 저 출산 · 고령화 등 그릇된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 사회운동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힘과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힘에 의한 영향력을 다 포괄하는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운동'이란 그 시대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인식, 합의, 공유,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조직하고 실천하는 행위이다.

운동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대부분은 성공적 운동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과가 반드시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운동도 그 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확고한 주체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부터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그런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 자신부터 운동에 몰입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운동이란 나 자신부터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인적, 물적 협동력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집단 간 협동력은 일과 학습을 통해서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운동은 집단적, 목표 지향적 개혁 실천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목표설정, 운동방향과 방법, 실천과정, 그리고 실천 후 결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조직 활동에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계획, 실행, 평가'의 일련의 과정은 서로 연계되어 환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특히 평가는 수시평가를 통해 중간분석을 실시하여 잘 된 것은 그대로 진행하되 잘못된 것은 수정하여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운동을 앞에서 이끄는 지도집단은 국민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 유도, 참여를 하게 하여 운동의 성공을 이끌어야 한다. 운동에서 일보다 조직을 중시하게 되면 관료주의화가 되어 목적 성취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운동에서 금기사항은 '옛날에 매몰되기'이다. 어제의 부귀와 영화는 오늘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현재가 더 중요하고 내일은 더 중요한 것이다. 새마을운동에서 가장 금기해야 할 사항은 과거의 역사를 지나치게 부여잡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랑스러운 점을 바탕으로 더 자랑스러운 것들을 만들어 내야 참다운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는 보람이라는 열매로 보답을 받을 수 있다. 이 보람의 열매를 따 먹지 못하면 그저 활동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운동은 소수가 하면서 다수는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해봐서 겁을 내고 있는데 할 만한 사람들이 앞장서면 나도 모르게 따라오고 확산되어지는 것이다. 운동은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을 더 중시해야 운동이 잘 된다. 지나 온 새마을운동은 바로 두 가지가 잘 충족되었기에 오늘에 이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운동은 그 사회가 앓고 있는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사회적 실천행위이다. 또한 훌륭한 사회운동은 '실천 활동'을 통해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한 차원 높이는 '가치 향상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운동'은 원칙과 기조 있어야 하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운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앞에서 이끌고 사회가 변화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다. 국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으로서 일반 봉사활동과는 다르다. 국민과 하지 않는 새마을운동은 일개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운동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현상들을 남보다 조금 앞서 치유하고자 앞장 서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자 하는 활동들이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에 매몰되어 있었던 과거형 국민의식을 미래형 국민의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민운동이 되어야 지속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자체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한다 해도 국민적 시각을 바꾸지 못하면 과거형 새마을운동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의 운동'이라야 미래를 준비하는 운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나 온 50년을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지내온 것처럼, 다가올 50년은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나라임을 자부하도록 만드는 국민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새마을운동은 70년대의 국민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상당 부분 퇴색한 채 일종의 봉사단체로 전환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70년대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잘 살아 보겠다는 국민적 열망에 모두가 동참했던 당시의 새마을운동과 지금의 새마을운동을 평면적으로 비교 평가하기는 시대가 너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별해 볼 때 70년대와 현재의 새마을운동은 많은 격차가 있음이 사실이다. 조직원들의 상당수는 봉사단체로 인식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국민운동을 추진해야 새마을운동이 가능함은 물론이거니와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태생적으로 국민운동으로 조직화 되었다.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생겨나서 각각의 분야의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해오던 일들의 상당수는 겹치게 되어 활동영역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새마을운동을 보고 익혀 더 다양하게 분화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반증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운동조직이 많을수록 좋고 상승효과도 더 있을 것이다. 운동의 상당영역은 사회체제 변화로 정부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어 가는 현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현실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을 잊으면 안 될 것이고 이를 벗어나서는 기본 가치와 배치되며 그 생명력을 잃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국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새마을운동을 종교적 수준에서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운동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국민운동이라고 한다면 현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해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이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현실과 동 떨어진 '우리끼리'운동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진정한 국민운동 조직체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 앞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합목적적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의 달성에 온 힘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마을운동은 보다 확실한 것을 운동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한다. 목표나 방향이 뚜렷할 때 국민들의 공감도와 참여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힘과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라. 정치적 중립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의 생명력은 정치 · 종교 · 이념 · 사적이익 추구를 배제하는 중립적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위기를 맞아 왔다. 운동을 보지 않고 운동조직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정치꾼들의 욕심에 희생되어져 온 것이다. 50년 전의 새마을운동은 지금의 새마을운동과 다르지 않다. 그 정신과 개념, 추진원리들은 지금도 그대로이다. 다만 시대정신에 맞는 운동과제를 택하여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 동안 어렵게 이리저리 정치꾼들을 피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련과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범적인 협치의 상징인 것이다. 이 운동은 어떤 정치집단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아니다. 오직 도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정치행위가 아닌 보편적인 가치에 의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조직원들의 일부 성향이 정치적이라 해도 조직 안에서 표현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유혹하고 겁박한다 해도 절대 휩쓸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운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대다수 조직원들에게 불명예스러움을 안겨주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독자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더 위험한 것이다. 진정한 국민운동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과 협력하는 협치의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협치의 혜택은 주민들이 누리게 되도록 설계하면 되는 것이다.

마. 국가브랜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인정한 대한민국브랜드이다. 이를 바탕으로 키워 나가는 일은 앞으로의 지속적 과제인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인정받고 브랜드로서의 핵심가치들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잃을 때 보통 사회단체들 중에 하나가될 것이고 브랜드파워는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최근 동남아 정상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이라는 브랜드파워를 실감하였다. 이 브랜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까지 돈독히 하는 촉매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운

동은 한류의 원조이다. 이미 70년대 새마을운동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다가온 이웃 국가들이 아직도 우리의 새마을운동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개도국에게 새마을운동은 희망이자 수단이자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다가 올 50년은 우리의 소중한 경험들을 이웃국가들과 나누는 '희망의 한류'로서 역할이 커져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잠시 바람을 일으키다 없어지는 그런류의 한류가 아니다. 지난 50여 년간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가치는 떨어질 것이기에 세심한 목표설정과 관계정립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잘 키워 온 국가브랜드를 다가 올 50년에도 더 잘 활용하고 융성하게 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가의 무형자산인 새마을운동을 잘 활용하여 또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꽃을 피우는 또 다른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이 되어야 한다. '메콩강의 기적'도 좋다. '인더스나 갠지스강의 기적'도 좋을 것이다. 이런 결과들이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모델국가이자 새마을운동 원조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결과물은 누리 국민 모두가 누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 브랜드를 잘 가꾸고 활용하여 더 좋은 선진 국가를 만드는 기틀이 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 아이돌 그룹이 일으키는 한류는 다른 문화를 가진 국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에게 한류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이미 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50년이 지난 지금 국가브랜드 새마을운동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더 브랜드파워를 키워나가는 운동이 지속되어야 다가 올 50년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바. 지구촌 새마을운동

흔히 우리는 지구를 마을에 비유하여 '지구촌'이라 말한다. 마치 시골에 여러 마을이 어울려 사는 것처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 지구촌에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마을도 있고 키리바시나 부탄같이 작은 마을도 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역사 · 문화 · 종교 · 전통을 지키며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색깔과 수준은 달라도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은 그들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019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대통령께서는 "2017년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미얀마의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각국의 정상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개발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고, 필리핀 농업부도 지난해 새마을 ODA 사업을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소개하면서 인도차이나에는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들과 태국이 메콩강을 공유한다. 이에 대해서도 "특히 새마을운동의 전파는 메콩국가들과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새마을운동의 전파로 우리는 경제발전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지구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다. 내년부터 라오스와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메콩강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협력의지와 계획까지 밝혔다. 개도국에서의 새마을운동은 그 국가들과의 우리의 끈끈한 연대를 만드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일인 것이다. 이들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에 이은 '메콩강의 기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이미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에서 세계의 새마을운동으로 전환되었다.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세계인들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새마을운동이란 말이다. 2013년 유네스코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기록물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였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가 들쭉날쭉하기도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세계인들에 의해 검증되고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이 지속가능한 운동으로서 정치 · 종교 · 이념을 배제하는 인류 보편적인 운동이라는 점에서 친근감을 갖는다. 단지 구호가 아닌 성공사례가 그들을 매혹시키고 운동에 빠져들면 한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 최빈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인 대

한민국의 기적을 확인하고 벤치마킹하고 싶어 부러움과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한국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이제는 한국인만의 것이 아닌 세계인의 것이 되었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지구촌새마을운동'은 2016년에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46개국으로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을 결성하였다. UN등 국제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로서 46개국은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자 자랑이다. 지구촌새마을운동은 다가올 50년의 지구촌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이 지속가능한 운동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다.

사. 생명살림 새마을운동

다가 올 50년의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의 본질적 가치인 새마을정신, 즉 근면 · 자조 · 협동의 정신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도록 본질은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운동방식이나 운동전개의 합리적 변형을 유도하여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올바른 국민운동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모두의 근본적이고 절실한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인류존망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생명살림 운동'이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환경운동, 생태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 생명의 위기, 뭇 생명의 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 곧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절멸과 관계파탄의 위기이다. 생명살림운동은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차원 향상을 통합하는 새로운 문명운동이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소유보다는 단순 · 소박함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집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스스로,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존과 순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존과 순환의 이치를 삶의 방식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대량생산 · 소비 · 폐기하는 거대문명을 거부하고 적정함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문명을 추구해야 한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다. 우리는 조건의 불리함, 시간의 촉박함을 계산하기 전에 그리고 정부와 기업 특히 거대자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생명살림의 길로 나서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며, 스스로 함께 실천의 길, 생명살림의 길로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공부하며 실

천하고,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가며 실낱같은 생명의 길, 더 큰 생명공동체의 길로 나아 가야한다. 이러한 결심과 실천이 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도 서로 연계되어 상호작용한다. 부산 앞바다에서 버린 페트병이 캘리포니아 해변가에서 발견되고,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이 우리 곁을 노리고 있다. 결코 남의 일도 먼 나라의 일도 아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넘겨 아름다운 지구촌과 살기 좋은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미세먼지와 열대야로 나라도 마을도 미래도 없게 될지도 모른다. '생명살림'이란 이 시대정신을 가정과 직장에서 마을과 공동체에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능동적 행동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아주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생활이 바뀌면 '문명의 대전환'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데 중요한 것은 공기, 물, 밥이다. 온실가스와 산업 폐기물 때문에 공기와 물과 땅이 망가지고 있다. 물과 땅이 망가지고 있다. 미세먼지를 들이 마신 동물들, 비에 가라앉아 땅에 녹아버린 미세먼지 지하수, 이를 먹고 사는 동식물. 그것들을 섭취하는 우리에겐 분명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50년 후엔 농작물 소출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땅과 물과 하늘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운동은 아주 현실적인 아젠다이다. 땅과 물과 공기처럼, 불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일단은 불을 아껴 써야 하고 불을 아껴서 석탄 연료를 줄이는 게 급선무이다. 아끼면 30%는 줄일 수 있다.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그나마 젊은이들의 이민가려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도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의 연계고리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직 · 간접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달나라에 가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연계된 생명체의 사슬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오염원을 줄이는 것 정도일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생명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무심코 버려진 오염원들은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메랑이 되어 다시 우리 몸에 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우리가 누린 만큼 우리 후손들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버리며 산다. 이 과정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를 너도 나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한 행동들의 결과가 우리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 절실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어 나가다 보면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땅은 우리가 잠시 빌려 살다가 돌려 줘야 하는 땅이다. 머지않아 이 땅은 우리의 후손들이 주인이 될 것이다. 생명을 되살리자는 운동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운동이다. 생명이 되살아나야 나라도 있고 후손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선진시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호주에 이어 세계적인 조림 성공국가이자 산림선진국이다. 지금 심어진 나무들의 상당수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심어진 것들이다. 1974년에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을 제시한 박정희 대통령의 초고에 의하면 정부나 주민들에게 성급한 성과를 자제시키고 있다. 이 초고에서 “조림사업의 성과는 40년, 5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하자. 조림사업은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부모님들과 삼촌들은 당장은 힘들지만 이 땅의 후손들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오염원과 더 가까이 있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지난날도 그랬듯이 새로운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그 운동의 결과물들은 나를 위한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로 돌아 올 것이다. 이 생명살림 운동이야 말로 경기도새마을운동이 추진해야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국민운동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운동이 될 것이

다. '생명을 살리는 운동으로 우리 문명의 대전환을 만들자'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생명살림운동은 메가 트렌드이자 시대정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아. 평화 나눔과 공경운동의 실천

평화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있음을 전제로 서로가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는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부터 출발할 수 있다. 연령과 인종, 계층을 넘어 서로 공경할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가진 평화를 상대방에게 더 나누어 줄 때 평화의 크기는 더 커질 것이다. 공경은 평화를 만들고 화합도 평화의 결과물이다. 새마을운동은 평화의 운동이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부족한 이들을 도와 같이 잘살자는 것이다. 경제소득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자살율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평화 나눔과 공경공동체 형성의 가치를 공유하여 공동체적 삶의 진정한 행복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평화는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방법이다. 상대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평화의 마음과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아야 국민의 삶 속에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나눔'은 김장과도 같다. 절임배추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파 · 마늘 · 무 · 생강 · 갓 등의 갖은 채소와 액젓이나 젓갈을 넣고 시뻘건 고추 가루로 마무리하여 전혀 다른 오묘한 맛을 내는 것과도 같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은 그런 김장을 만드는 평화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하나의 용광로에 넣고 녹여 강하고 단단한 철판을 만들어 내는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각 가정이 올바로 섰을 때 우리사회가 올바로 서 지는 것이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 같다. 공경은 섬김이다. 부모가 지식을,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공경하는 것이 사회질서의 기본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가정에서의 공경은 자연히 사회에서의 공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존중을 넘어 공경으로 갈 때 우리사회는 밝고 건강해 지는 것이다. 공경은 상하개념이 아닌 수평적 개념이다.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어른도 아이를 공경해야 하고 스승도 제자

를 공경해야 한다. 이런 수평적 존중이 공경이다. 공경은 선진국가로 가는 출발점이다. 우리에게 '태평성대'는 과분한 욕심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잘 갖추어진 DNA가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 말이다. 3만 불 넘은 선진국민의 모습은 그런 공경의 문화를 잘 정착시킬 때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때 오래된 폐습과 체면을 버리자는 '가정새마을운동'을 펼치기도 했는데 다시 한 번 그런 운동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참교육을 목표로 하는 선생님들부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어야 한다. 가정교육은 기본이지만 선생님들의 열정어린 가르침이 있을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 질 것이고 나라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공경문화를 만드는 일은 평화운동이고 우리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일이므로 온 국민이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도록 다가 올 50년에 해야 할 운동인 것이다.

자. 재정자립을 통한 새마을운동

운동을 잘 하면 재정문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마을은 운동추진을 위한 조직이 있기에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보조금으로 연명해 오고 있다. 물론 회비나 회관운영 수입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금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방어적 입장이다. 보조금을 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하관계가 아니고, 지자체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운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새마을은 법과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단체이다. 시대정신에 맞는 적극적인 운동추진으로 당당히 지원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들에게 새마을운동이 하는 일은 우리 지역을 위해 하는 일이고 지역에서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 강국을 넘어선 생명의 나라, 인간과 자연이 같이 살 수 있는 나라, 군사 강국을 넘어선 평화의 나라, 물질 우선을 넘어선 수준 높은 문화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자연스럽게 행정의 파트너로서 당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새마을운동은 시대정신과 시대적과제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주체적 운동이기 보다는 과거에

국가주도 압축성장 시기의 운동방식과 현재의 시민운동 발전의 과제 실천이 혼재된 어중간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가 올 50년의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보다 똑똑하고 훌륭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운동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차. 새로운 50년을 향한 각오

새마을운동의 장점은 이론이나 학문이 아닌 '행동과 실천'이라는 것이다.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면 그것은 곧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져 왔다. 그 기저에는 항상 새마을정신이 있었다. 그러나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만으로는 다가오는 더 큰 통일 대한민국에는 부족할 수 있다.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나누면서 서로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으로서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생명 · 평화 · 공경'운동은 통일국가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될 것이다. 다가 올 50년의 새마을운동 추진 방향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 · 평화 · 공경의 길'로 나서기 위해 생각을 바꿔 생명의 세계관을 갖고, 생활을 바꿔 단순하고 소박한 행복추구의 생활관을 가져야 한다. 세상을 바꿔 훌륭한 시민과 현명한 인류의 협동 활동을 영위하며, 문명을 바꿔 생명의 문명, 작은 문명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미래는 그냥오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으로 타 운동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국가도 바뀔 것이다. 생명 · 평화 · 공경의 길은 개인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통합 실천하는 새로운 국민운동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해 '생명을 살리는 새마을, 동서남북을 화합시키는 새마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새마을, 미래를 준비하는 새마을'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다가 올 50년을 위한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카. 2019년 수원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결의문

온 마음 온 몸으로 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하자.

온 마음 온 몸으로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자.

기후위기와 전면적인 생명의 위기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이다. 오늘의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는 내일의 기후 파탄과 종의 대 절멸로 치닫고 있다. 우리의 자식들 곧 모든 미래시민들의 생명의 위기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다. 상황은 절박하고 시간도 촉박하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나의 생명, 뭇 생명, 지구 생명의 위기를 극복할 결정적이며 전면적인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 2018년 새마을운동은 회원들의 높은 합의와 참여 속에서 '생명 · 평화 · 공경운동'으로 대전환하였다. 생명살림 운동은 이 시대 우리 사회 최고의 운동이다. 이 길만이 우리 모두의'제대로 된 삶'을 담보하기에, 우리는 228개 시 · 군 · 구 현장 조직과 9,000여 읍 · 면 · 동 최 일선 조직이 떨쳐 일어나고 있다.

전국의 200만 새마을 회원들이여! 우리 운동의 3대 과제인 생명살림, 평화나눔, 공경문화의 일상적 실천과 구조적 전환을 위해 온 마음 · 온 몸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

하나, 우리는 기후 위기와 전면적인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각과 생활을 바꾸고, 국민 속에서 대중과 함께 생명살림운동 실천에 정성을 다하자.

하나, 우리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사구시하는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고, 실력있는 실무운동가 집단으로 변화 · 발전해 나가자.

하나, 우리는 남을 탓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존하기 전에, '스스로, 함께, 꾸준히' 생명 · 평화 · 공경운동을 펼쳐 나가자.

하나, 우리는 나무 · 조선삼 · 양삼을 심고, 에너지 · 수입육고기 ·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30% 줄이는 '3식(植)3감(減)운동'을 실천해 나가자.

하나, 우리는 유기농 태양광발전운동으로 지구온난화와 초미세먼지를 줄이고 땅 심과 밥상을 살려 나가자.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올바른 협력 관계를 맺고 개방과 협력의 문화

를 조성하여,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

2019년 10월 29일 전국 새마을지도자 일동

Saemaul Undong in Gyeonggi Province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장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 → 수원시새마을회

1. 도청 소재지로서의 '수원'

'효원의 도시' 수원은 1949. 8. 14. 대통령령 제161호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67. 6. 23.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옮겨오면서 줄곧 경기도청의 소재지이자 경기도 수도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수원은 조선 정조 때 농사를 위해 축조한 제방과 '서호'라고 불리는 '축만제' 등이 있는 우리나라 농업 연구발전의 중심이었다. 축만제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에도 등재된 농업시설이다. 수원은 한 때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부문별 시험장 등 국내 최고 · 최대의 농업관련 기관 · 시설 들이 많았다. 새마을운동은 농업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원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은 새마을운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새마을지도자연수원

흔히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청도 신도리나 포항 문성리를 꼽고 있지만 새마을교육의 효시는 경기도의 수원이다. 1970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려 하였지만 마땅한 교육기관이 없었다. 그래서 1972. 1. 14. 서울 인근

인 고양군 농협대학 내에 '독농가연수원'을 설립하여 새마을교육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는 부족하였다. 이에 1973. 4. 8. 독농가연수원을 농업의 중심지인 수원 농촌진흥청 내 농민회관으로 옮기게 되었다. 농민회관은 당시로서는 매우 우수한 건축물이었고 지금도 서호와 잘 어울리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다. 1973. 5. 31.에는 독농가연수원을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개칭하여 본격적인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에서 선발된 열정적인 새마을지도자들은 이 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을과 국가발전에 가슴 벅찬 각오를 다져나갔다. 새마을지도자, 농민, 공직자, 사회지도층 등 새마을운동을 이끌고 갈 최우수 정예 지도자들을 수원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양성한 것이다. 수원은 새마을운동의 못자리 역할을 톡톡히 해 낸 것이다. 이 연수원은 1980. 4. 22.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특수법인으로 개편하여 1983년 성남시 율동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으로 이전 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초기 새마을운동의 정점이었던 1970년대 새마을교육은 사실상 수원에서 전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수원은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 내는 큰 역할을 수행해 낸 것이다.

이에 수원시새마을회는 2010년 새마을운동 40주년을 기념하여 서호공원 내에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터'라는 표지석과 '새마을교육 기념비'를 세워 후손들을 위해 자랑스러운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곳 수원에 위치한 농민회관에서는 1973년 4월부터 1983년 3월까지 새마을국민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주일 내외의 합숙교육기간 동안 "나는 마을과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방안을 찾게 하고 그 실천의지의 고양에 교육의 중점을 두었다.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수련한 지도자들의 열정은 마침내 새마을운동을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타오르게 하였으며 실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일깨워 오천년 찌든 가난의 한을 풀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는 물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계의 지도급 인사들을 포함하여 550여회에 걸쳐 총 77,851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그러므로 이곳은 정신혁명의 발화점이요. 새마을지도자의

산실이며 새마을운동의 요람이라 할 것이다.」 2010. 3. 25.

3.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는 초대 이종득회장을 선출하면서 1984. 3. 15. 설치되었다. 3월 31일 개청하면서 수원시 새마을운동의 총괄 지휘본부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인구의 급증과 행정구역의 확대로 1989. 7. 1. 수원시에는 전국 최초로 비자치구인 장안구와 권선구가 설치되면서 '새마을운동장안구지회'와 '새마을운동권선구지회'도 개청하게 되었다. 1993. 2. 1.에는 '새마을운동팔달구지회'까지 설치 · 개청되었다. 따라서 수원시지회는 수원시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등 4개의 지회가 운영된 것이었다. 이후 중앙회의 비자치구지회 폐지 방침에 따라 1995. 12. 31.부로 3개구 지회는 폐지되고 수원시지회로 흡수 통합되었다. 2020년 현재 수원시의 4개구 중 영통구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지회를 가지고 있다가 통폐합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지회는 통폐합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조직, 회장단, 사무실, 직원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애로가 많았던 것이다. 조직을 확대하였다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당연한 어려움이었다. 이후 새마을운동 자립화와 자체회관 매입을 위하여 2005. 4. 13. 사단법인 '수원시새마을회'를 설립하고 김학주회장을 법인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011. 5. 6.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수원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을 갖추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장(수원시새마을회장)'은 이종득, 이승원, 조명환, 고석진, 이종구, 김학주, 송유섭, 김봉식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수원시협의회장'은 유재언, 신현태, 최석한, 이종구, 신현철, 이범원, 이명걸, 김학문, 윤주흥, 이완모 회장이 역임했다.

'수원시새마을부녀회장'은 김혜경, 안진숙, 공연임, 이종월, 홍경자, 석문지, 허영순, 성경순, 유임선, 이명순, 나금숙, 유준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

새마을운동수원시협의회장'에는 이종득, 백성복, 조정환, 이승원, 조명환, 이기용, 엄익수, 김봉식, 우인구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회장'은 박선옥, 이정식, 문제복, 박우양, 고석진, 홍원일, 이강영, 신동운, 유인제, 소진순, 조계숙, 오영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사무국장에는 임건식, 정종태, 한상준, 정해천, 김인수, 박종대, 이창복 국장이 재직하였다.

수원시새마을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신 분은 도지부회장에 조명환 회장, 홍원일 회장이었으며, 도 협의회장에는 최석한 회장, 신현철 회장, 도 직장회장에는 조정환 회장, 도 문고회장에는 문제복 회장 등 무려 여섯 분이 도지부 회장단으로 활약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최봉근, 지역회장 최성국, 부녀회장 서영숙, 직 · 공장회장 조철상, 문고회장 정혜경, 사무국장 서건기 등이 활동 중이다.

5. 회관확보(매입)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는 수원시 팔달산에 위치한 시민회관 내에서 사무국을 개청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단체 공공기관에서의 이전 방침에 따라 1995. 5. 17. 시청 근처 인계동 1032-15, 민간건물인 '광봉빌딩' 7층을 전세 4,800만원을 주고 181.82㎡(약55평)을 2년간 임대하여 이전하였다. 이후 임대료 등의 부담으로 수원시가 관할하는 수원종합운동장 내 사무실로 이전하여 무상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무실이전 요구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만 하였다.

최초의 계획은 1999. 5. 13. 이종구지회장이 동회장간담회시 발의하여 시작되었는데 2002년에는 건물을 확보하여 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지300평, 건축면적20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새마을회관을 건축한다는 것이었다. 총 투입비용은 부지매입비 4억 300만원, 건축비 3억 6천만 원 등 총 7억 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원은 시비보조금 3억 6,300만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3억 5,300만 원을 목표로 하였다. 1999. 5. 24.에는 시단체장을 비롯한 115명으로 '회관건립추진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우선 자체자금 마

련이 큰 문제였다. 이에 새마을지도자들은 판매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양말, 미역, 액젓 등을 판매하며 자체회관 확보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갔다. 자체기금 마련은 1995년 5월부터 1998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3천여 새마을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출향인사, 전 · 현직새마을가족, 기업 · 상공인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재원확보가 어려워 계획을 변경해 보면서 한동안 침체에 빠져 있다가 다시 회관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당초계획은 규모가 작아 자립형 회관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2001년에 다시 계획을 변경하였다. 재원은 총 20억 원을 계획하였는데 시비보조금 15억 원, 자체모금 5억 원을 확보하는 목표였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실현되지 못하였고, 다음 해인 2002년에 다시 대지 300평에 연 건평 200평 지상2층의 회관을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추진 중이었다.

회관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던 중 경기도새마을회가 더 큰 새마을회관을 확보하고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 · 실행되게 되었다. 이에 도지부와 수원시지회가 도지부 건물을 매매하기로 합의하게 되어 회관 신축계획은 매입계획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시회장단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도지부가 내 놓은 매물을 매입하기로 결의하였다. 도회장단과 이종구지회장을 비롯한 시회장단은 재원마련을 위해 임창열 도지사를 면담하여 새마을회관 매입 안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받고 도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시비보조금을 보조받아 매입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매입 대상건물은 경기도새마을회가 1998. 6. 10. 매입하여 2년 6개월간 활용했던 건물이었다. 1991. 2. 27. 준공된 건물로서 약11년 된 건물이었는데 당시 경매로 나온 건물을 도지부가 매입한 것으로서 한국감정원의 1998년 평가금액은 14억 8,893만원이었다. 도지부는 11억 원(토지 4억 5천만 원, 건물 6억 5천만 원)에 이 건물을 매입한 것이었다. 수원시지회와 도지부는 2002. 4. 10. 이 건물을 14억 원에 매매계약 하였다. 도지부가 1998. 7. 23. 새로운 회관인 시청4거리 새마을회관 빌딩으로 이사하면서 드디어 시내 중심지역인 인계동에 '수원시새마을회'자체건물 시대로 전환점을 만들어 낸 것이다. 수원시 회장단과 새마을가족 모두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토록 염원했던 '자체회관'이 확보된 것이다.

인계동 1026-8에 위치한 '수원시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525.03㎡(약159평)에 건축면적 272.25㎡(약83평), 연면적 1,635.15㎡(약496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다. 총 투입비용은 14억 원이었고, 재원은 특별교부세 9억 원, 시비보조금 5억, 중앙회지원 5천만원, 자체기금 5천만 원 등 15억을 확보하여 충당하였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판매사업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은 약2억 3천여만 원이었는데 경기도새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5천 7백만 원을 출연하고 매입 시 세금 및 건물보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회관 매입당시는 법인이 아니었기에 일단 지회장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매입 이후인 2005. 4. 13.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등기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등기비용이 7~8천만 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여 수원시에 등기 이전비용 보조금을 요구하였으나 시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하여 몇 년간 못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설득으로 등기비용 4,269만원의 수원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새마을회관이 1991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여러 노후 하자가 발생하여 2012년 도비보조금 2억 원과 시비보조금 1억 4천만 원 등 3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회관 내 승강기 교체, 전기시설 교체, 방수, 화장실 내부 교체, 배관 및 주차장공사, 외관벽체 공사, 내부 인테리어, 간판교체 등 건물 내 ·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회관을 보수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후 2017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건물 창호교체, 보안시스템 설치, 지붕설치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료하여 건물의 기능을 보강하게 되었다. 수원시새마을회관은 활동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장 새마을운동고양군지회 → 새마을운동고양시지회 → 고양시새마을회

1. 꽃의 도시 '고양'

'고양'은 1403년(태종3)에 고봉과 덕양을 합쳐 고양현으로 개칭되었는데 1470년(성종1)에 군으로 승격하였다. 고양은 서울, 양주, 파주와 연접하여 일부의 땅을 편입하거나 내주면서 성장해 왔다. 1992. 2. 1. 법률 제4417호에 의거 고양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면서 100만 이상의 도시로서 경기도내 두 번째 대도시로 발전하였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과 더불어 자치분권과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고양은 홍수로 일산 일대가 물속에 잠기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결과는 일산신도시라는 거대한 주거 공간이 생기고 고양시가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양은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과는 달리 군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뀐 대도시이기도 하다. 고양군은 1996. 3. 1. 일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설치되었다.

1996. 5. 4. 개장한 호수공원은 전국 최고의 인공공원으로 고양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며 인근에 있는 킨텍스는 초대형 컨벤션센터로서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고양은 1984년 당시 도내 시군건재 순으로 보면 열일곱 번 째 군에서 2020년 1월 현재 도내 두 번째 시로 급격히 상승하는 놀

라운 발전을 하였다.

2. 독농가연수원

고양시는 새마을교육의 산실인 '독농가연수원'이 있던 곳이다. 1972. 1. 14. 고양군 관내에 있는 농협대학 내에 '독농가연수원'을 설립하여 새마을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새마을교육을 위한 연수원은 훗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의 모태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개발역사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1973. 4. 8. 독농가연수원이 수원 농민회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이전하기까지 고양은 새마을교육의 산실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3.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고양군지회'는 초대 박상복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되었고, 3월 29일 개청되어 고양새마을운동을 총괄하게 되었다. 인구의 급증과 행정구역의 확대로 덕양구, 일산서구, 일산동구 등의 비자치구가 있지만 수원, 성남, 부천, 안양처럼 구 새마을지회를 갖지는 못하고 고양군지회가 총괄 관리하면서 운동을 추진해 왔다. 고양군지회는 새마을운동 자립기반 구축과 자산의 소유권 등기를 위해 2007. 1. 11. 사단법인 '고양시새마을회'를 설립하고 김도원회장을 초대 법인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008. 9. 19.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를 제정하였지만 회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과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아직도 '새마을운동고양시지회'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새마을운동고양군지회'에서 '새마을운동고양시지회', '고양시새마을회'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4.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고양군(시)지회장(고양시새마을회장)'은 박상복, 김계수, 지희창, 김도원, 김학연, 박동빈, 김봉진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고양군(시)협의회장'은 최재균, 장석정, 지희창, 이상필, 차성환, 이병무, 김학연, 박민선, 유금석, 박홍서, 김규정 회장이 역임했다.

‘고양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최송옥, 이순득, 장점수, 이순득, 황선자, 김순, 임낙희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고양군(시)협의회장’에는 오항록, 최재균, 차명식, 정의종, 김중연, 김학동, 이상주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고양군(시)지부회장’은 경화복, 장준웅, 이은석, 박윤구, 권오형, 박동빈, 원재진, 곽 무, 남윤숙, 강성환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김윤경, 김영길, 김윤경, 허경남 국장이 재직하였다. 고양시새마을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신 분은 도 부녀회장에 최송옥 회장, 임낙희 회장이 있다. 중앙회장단을 역임하신 분은 최송옥 회장이 새마을부녀중앙연합회장을 역임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공석, 지역회장 김창규, 부녀회장 오춘희, 직 · 공장회장 공석, 문고회장 공석, 사무국장 공석 등이 활동 중이다.

5.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고양군지회’는 최초의 사무실은 1984. 3. 28. 고양군청 안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여 개청하였다. 고양군이 시가 되고 인구와 행정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지회사무실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다 달았다. 자체회관 마련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1997. 12. 13. 회장단의 발의로 건립계획이 수립되었다. 우선 부지를 확보하고 자체자금 조달을 통해 건축하기로 하며 각 동으로 지원되던 보조금 전액을 건축기금으로 적립하기로 의결하였다. 1998년 2월 정기총회에서 본 안건이 의결되어 본격적인 회관확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1998년 말에는 자체기금 확보를 위해 결의한 정액보조금 8,400만원이 모아져 기금으로 예치되었다. 1999년 3월에는 회장단 등 8명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본격적으로 회관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당초 계획으로는 신도시내 4차선 도로에 연접한 장항3동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여 2001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신축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지 100평에 연면적 2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 규모였다. 총 투입비용은 4억 5천만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재원마련 목표는 시비보조금 3억 원, 중앙회 지원금 5

천만 원, 자체모금 1억 원을 계획하였다. 회관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축계획도 차질을 빚었다.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자 기왕 회관을 확보하는 바에 소규모 회관으로는 자립화가 어렵다는 의견과 판단에 따라 힘들겠지만 좀 더 큰 규모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다시 부지를 물색하던 중 고양시가 보유하던 일산동구 정발산동 공유지를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건축에 박차를 가하였다. 김도원지회장과 회장단은 2001. 8. 22. 새로운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날 고양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의뢰를 신청하고, 10월 10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의뢰하였다. 2003. 5. 31.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서 10월에 최종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10월 30일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이 떨어지면서 속도가 붙었다. 김학연지회장과 회장단은 2003. 12. 10. 드디어 지방비보조금도 확보하였다. 회장단은 2004. 4. 13. 지방비 교부결정(토지매입비)에 따라 건축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4월 21일 고양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에 건축을 착공하게 되었다. 드디어 2014. 12. 30. 고양시새마을가족 모두의 오랜 염원인 자체 새마을회관 건축이 완공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완공 후 '새마을운동고양시지회 대표자 김학연'으로 등기를 하였다. 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를 놓쳐 법인설립이 안된 상태이어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는 아쉬움이 있다.

일산동구 정발산동 816에 위치한 '고양시새마을회관'은 대지 818.9㎡(약 248평), 건축면적 405.13㎡(약123평), 연면적 1,471.66㎡(약445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물이다. 총 투입비용은 31억 6,911만원이 투입되었는데, 부지매입비 16억 913만원, 건축비 14억 4,783만원, 부대비용 1억 1,215만 원이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18억 원, 시비보조금 11억 8,911만원, 중앙회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1억 3천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2017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방수 및 내부 수리 등을 통해 회관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 고양시새마을회관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서,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 거점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3장 새마을운동용인군지회 → 새마을운동용인시지회 → 용인시새마을회

1. 도농복합도시 '용인'

'용인'은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쳐 용인현이라 불리다가 1914년 양지군을 합쳐 용인군이 되었다. 인근에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이천, 광주, 성남, 의왕 등과 연접하여 지역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다가 1996. 3. 1. 용인군 전역이 도농복합시인 용인시가 되었다. 당시는 14개 읍 · 면 · 동에 25만 6천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작은 지방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2005. 10. 31. 도농복합시 가운데 최초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개 구청을 개청한 100만이상의 대도시가 되었다. 참으로 놀랍고 비약적인 발전이었다. 1984년 새마을지회 설치 시에는 도내 시군 중 스물네 번째 시군이었는데 2020년 현재 세 번 째로 큰 대도시가 되었다. 용인은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라는 랜드마크를 가진 관광도시이면서 수지구라는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다. 한편으로는 처인구 대부분의 지역이 청정지역으로서 자연환경이 수려한 농촌지역이기도 한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이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용인군지회'는 초대 신효철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

되었고 타 시군과 비슷한 시기인 3월 29일에 개청하여 용인새마을운동을 총괄하여 왔다. 1996년 3월 용인군이 용인시로 승격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용인시지회'로 개칭하였다. 새마을운동 자립화와 자체회관 소유권 등기 등을 위하여 1996. 9. 25. 사단법인 '용인시새마을회'를 설립하면서 초대 법인회장으로 윤한기회장을 선출하였다. 2008. 12. 19.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용인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용인군(시)지회장(용인시새마을회장)'은 신효철, 김정길, 최춘성, 윤한기, 지희천, 황창영, 정기종, 윤한기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용인군(시)협의회장'은 박노성, 유강희, 박광우, 김기원, 황창영, 최병서, 윤진원, 조병옥, 윤진원, 이기인 회장이 역임했다.

'용인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진영애, 박정옥, 유선년, 우일출산, 정길옥, 백애라, 주명숙, 예숙자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용인군(시)협의회장'에는 장형옥, 김국일, 신동선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용인군(시)지부회장'은 최춘성, 송재권, 유강희, 지희천, 박순규, 정연영, 김국일, 손동란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어윤강, 우종최, 허 진, 어윤강, 박승국, 한갑수, 조병옥, 조동호, 김태근 국장이 재직하였다.

용인시새마을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신 분은 도 지역회장 김기원, 도 직장회장 윤한기 두 분이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김종억, 지역회장 송태일, 부녀회장 김정식, 직 · 공장회장 신동선, 문고회장 박순형, 사무국장 백국현 등이 활동 중이다.

4. 자립화를 위한 '전통 장 공장' 설립 · 운영

'새마을운동용인군지회'는 1984년 3월 개청 당시 용인군청에서 사무실을 열고 출발하였다. 하지만 그런 무상임대 혜택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찍이 이를 감지한 회장단은 수익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자립화를 하자고 결의하고 우리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여 보다 유익하고 많은 사업을 펼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위해 수익사업을 하되 우리 고유의 전통을 살리고 수익도 극대화 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잊혀져가는 메주, 간장 · 된장공장을 설립하여 전통의 맛을 되살리자고 '전통 장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공장을 설립하는 데는 2억 7천여만 원의 자금이 필요했다. 주위에서 많은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열정으로 1억여 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지도자들의 열성에 시에서도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어 어느 정도 재원을 만들게 되었다. 부녀회에서도 판매사업 수익금으로 2천만 원을 보탰고, 전직 지도자들이 2백여만 원을 보태고, 나머지 부족분 3천 3백만 원은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를 얻어 2억 6,500만 원을 조달하였다. 이 자금으로 남사면 북리 183번지, 324평의 부지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소원하던 100여 평의 공장을 세우게 된 것이다. 총 투자비는 부지 매입비 3천만 원, 건축비 8천만 원, 시설비 1억 5천 5백만 원으로 1996년에 공장을 건립하였다. 공장을 짓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많았지만 남성지도자들은 노력봉사를 여성지도자들은 밥을 지으며 구슬땀을 흘린 결과 드디어 기다리던 공장이 완공된 것이다.

공장을 지었으니 이제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간장, 된장, 메주를 생산하는 데는 많은 저장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지혜를 짜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결과 시골에서 못쓰게 된 장독을 걷기로 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장을 담가 먹었지만 차츰 조금씩 사먹던지 조금씩 담가 먹으므로 이전에 쓰던 큰 장독은 필요 없게 된 것에 착안한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대형 장독을 얻은 결과 충분한 용기를 수집할 수 있었다. 용기도 우리 고유의 것을 써야 제 맛을 낼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생산에 앞서 제일 중요한 재료인 콩을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 주원료인 콩의 확보가 매우 어려워 값싼 중국산 콩으로 생산을 해보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맛과 품질이 나오질 않았다. 다시 지혜를 모아 우리 손으로 콩을 만들자는 의견에 따라 우선 계약재배를 시작하였다. 충분한 양의 콩을 확보하여야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하므로 콩 확보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주재료인 콩이 좋아야 좋은 제품이 생산되므로 콩을 재배할 유휴지 확보에도 나섰다. 이러한 유휴지를 찾는 것은 노는 땅도 없애고 많은 콩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많은 콩을 확보하여 자체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 사무실을 공장으로 옮겨야만 했다. 그러나 전통 장 공장은 생산과 유통 · 판매 모두가 녹녹치 못했다. 결국 3년여 만에 공장을 닫고 매각하여 철수해야만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어느 시군도 도전하지 못한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 덕분에 자체회관 마련을 위한 마음의 준비와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5. 첫 번째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용인시지회'는 '전통 장 공장'의 3년여 시절은 역경과 손해가 많았다. 결국 공장을 팔고 시내에 자체회관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회장단은 용인시에 사정을 설명하고 회관 건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여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게 되어 부지를 구입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공장을 매각하고 건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1998. 10. 31. 완공시킴으로서 사실상 첫 번째 자체새마을회관을 하게 된 것이었다.

삼가동 204-3에 위치한 '용인시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183평, 건축면적 146평, 연면적 167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었다. 총 투입비용은 총 5억 8,600만 원으로서 대지구입비 1억 3,090만원, 건축비 4억원, 제비용 5,510만원이 소요되었다. 재원은 시비보조금 4억 원, 중앙회지원금 5천만원, 자체기금 1억 3,600만 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첫 자체회관은 신도시 개발과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증가로 개발부지에 포함되어 다시 이전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용인시는 14개 읍 · 면 · 동이었는데 향후 5년 후면 35개 읍 · 면 · 동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도시계획을 수립 · 시행하였는데 새마을회관이 도로로 편입되게 된 것이다. '용인시새마을회'는 두 번의 소중한 회관확보 경험을 바탕으로 100만 시민 시대에 걸 맞는 새마을운동 재정자립 기반구축을 목표로 마평동으로 이전 · 건축하기로 의결하였다.

6. 두 번째 회관확보(신축)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의 구심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적 자립기반이 되도록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부족한 회관건립 기금마련을 위해 기금모금 및 판매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위해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중심지인 새마을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하여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을 받았고. 삼가동 회관보상비와 잔여 토지 매각, 판매사업 기금 등 35억 4천만 원으로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처인구 마평동에 대지 612평 중 459평 토지를 17억 7백만 원에 구입하여, 건축면적 144평, 연면적 792평, 지하 1층, 지상 5층을 총사업비 35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신축회관을 건립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회관건축계획은 당초 예산보다 그 규모는 컸고 부족한 4억 1,900만 원 초과 예산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하였다. 회관건립추진위원회는 임대보증금 6억 3,500만 원에서 부족분 4억 1,900만 원을 상계하고 보증금 부족분은 매년 5천만 원씩 10년간 적립하여 0원을 만들고자 계획하여 실천하였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2005. 12. 6. 개인 땅 매입하여 곧 바로 신축에 들어가서 2006. 11. 24.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자체회관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처인구 마평동 717-3번지에 위치한 '용인시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1,517.0㎡(약460평), 건축면적 507.2㎡(약154평), 연면적 2,632.3㎡(약798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다. 총 투입비용은 42억 6,900만원으로서 부지구입비 17억 원, 건축비 22억 원, 제잡비 3억 6,900만 원이 투입되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16억 원, 시비보조금 10억 원, 삼가동 회관보상비 6억 3천만 원, 잔여 토지 매각분 2억 4천만 원, 판매사업 기금 7천만 원, 총 35억 4천만 원, 부족분은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

세 번째 자체회관을 소유하게 되고 회관이 있어 지하실을 이용하여 그 동안 지속해 오던 무료급식 활동을 19년째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마을회관은 무료급식 활동을 통하여 소외된 시민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시민 누구나 활용

할 수 있는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된 것이다. 덕분에 2019년에 시작한 '생명 · 평화 · 공경(LPR)대학'도 시민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게 되었다. 2020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5,500만 원을 지원받아 급식소를 보수하여 건물 기능을 보강하였다. 용인시새마을회관은 언제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존심이자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4장 새마을운동성남시지회 → 성남시새마을회

1. 개발된 계획도시 '성남'

'성남'은 새마을운동과 같이 역사를 함께하며 성장한 대표적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에 의해 1968년 광주군 중부면 '성남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에 의해 착수되어 만들어지고 1969. 5. 2.부터 입주민 들이 터를 잡게 되어 오늘의 성남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수도권의 인구증가 억제와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및 서울특별시 외곽도시의 합리적인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성남은 1971년 광주군의 4개 면을 중심으로 성남출장소가 설치되었는데, 출장소는 2년 뒤인 1973년에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성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수한 목적 하에 정책적으로 개발된 인공도시인 셈이다. 성남은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다가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1989년 수정 · 중원출장소를 수정구청, 중원구청으로 승격시켰으며, 동년 성남시 남쪽지역의 남단녹지를 중심으로 분당지역 일대 17,850천㎡(약 540만평)에 10만 6천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42만 인구를 수용하는 '성남 분당지구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계획된 신도시로서 만들어 졌다. 1991 분당구로서 승격하면서 성남은 100만 인구 시대에 접에 들게 되었다. 이후 판교신도시까지 조성되면서 성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수도권의 대표적인 대도시가 되었다.

2. 새마을연수원을 품은 성남

성남시의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초부터 성남시 개발과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새마을운동과 같은 시기에 출발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역사를 같이 공유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새마을운동의 성지인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을 품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이다. 1983. 4. 23. 수원시에 있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00으로 이전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소속시킨 것이다. 연수원이 1984. 1.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성남연수원'으로 개칭하면서 새마을운동 시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게 되었다. 게다가 2016. 2. 19.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에 있던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실이 분당구 새마을로 257,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과 통합되면서 확고한 새마을운동의 메카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성남은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못자리 격인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세계기록문화유산이 가득한 '새마을역사관', 전 세계 새마을운동의 본부인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가진 새마을운동의 중심도시이자 새마을지도자들의 고향 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새마을운동 역사를 갖게 되었다.

3.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성남시지회'는 초대 김충호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되었다. 4월 30일에 개청하여 성남새마을운동을 총괄하는 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물론 새마을지회가 있기 전부터 회원단체별 새마을조직이 있었다. 1980. 10. 1.에 '민간단체 새마을운동성남시협의회'를 설립하여 각 단체별로 흩어져 출발하였다. 1983. 10. 1.부터는 6개 회원단체(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공장추진본부, 문고지부, 금고연합회)가 모여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각 단체들이 '새마을운동성남시지회'에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통합운영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1989. 5. 1. 수정구와 중원구가 개청되었는데 이 때 '새마을운동수정구지회'와 '새마을운동중원구지회'도 설치되었다. 이후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고 1991. 9. 17. 분당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가 분당구로 승격시킴에 따라 '새마을운동분당구지회'도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5. 12. 31.자로 비자치구의 구지회를 폐지시킴에 따라 모든 업무와 인력 등은 원래대로 새마을운동성남시지회로 통합되었다. 성남시는 100만 전후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발전하여 도내에서 2~4위권을 유지하는 큰 도시가 되었다.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아픔, 재정자립과 자체회관 확보라는 과제들은 만만치 않았다. 새마을운동 자립화의지를 담아 1997. 10. 18. 장두영 회장을 초대 법인회장으로 사단법인 '성남시새마을회'가 설립되어 체제를 새로 갖추게 되었다. 2010. 12. 20.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성남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을 갖추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성남시지회장(성남시새마을회장)'은 김충호, 오정대, 김정범, 장두영, 김영봉, 김현모, 김상현, 손국배, 염동준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성남시협의회장'은 정형주, 김종만, 조상호, 이종식, 박치선, 이종훈, 조기철, 황덕근, 고영환, 배재충, 임원묵, 김선곤 회장이 역임했다.

'성남시새마을부녀회장'은 심정자, 박보영, 유혜순, 최영희, 김선규, 조봉구, 백정선, 이호순, 김은영, 김숙희, 유이재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성남시협의회장'에는 이명훈, 안병선, 황운영, 이신호, 이형하, 김충호, 고재혁, 서정식, 이형순, 민병훈, 김방우, 우건식, 이명선, 허영숙, 최연숙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성남시지부회장'은 조명천, 이계남, 한형섭, 김종일, 유재현, 안극수, 김정호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안일준, 서찬규, 정갑진, 정해천, 이정학, 정해천, 이희영, 정해천, 안남식, 임영재 국장이 재직하였다.

성남시새마을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시 분은 도 부녀회장에 김선규 회장, 김숙희 회장, 도 직장회장에 최연숙 회장, 도 문고회장에는 특이하게도 시 지역회장 출신인 김종만 회장이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임원묵, 지역회장 송봉식, 부녀회장 김귀자,

직 · 공장회장 김용범, 문고회장 박인수, 사무국장 곽규봉 등이 활동 중이다.

5.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성남시지회'는 개청 당시 어둡고 침침한 시청 지하에 70여평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업무를 시작하였다. 오랜 세월 성남 도시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 봉사만 해오던 새마을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의 거점인 회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 회장단은 탄천이 범람하는 홍수로 새마을지도자들과 복구봉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맞이하는 녹물이 베인 지하철문, 시끄럽게 돌아가는 환풍기, 끈적한 바람을 뿜는 선풍기, 낡은 책상과 의자, 푹 꺼진 소파,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실의 음습하고 칙칙한 곰팡이 냄새 등으로 회관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어 자체회관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행정기관은 청사 내 민간단체에 대한 이전 압박이 계속되었다. 시 청사를 사용하면서 이전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져갔다. 이에 회장단과 임원들은 자체회관을 확보하자는 굳는 결의로 독자적인 계획을 세웠다. 새마을운동 자립화를 위한 법인인 성남시새마을회를 설립하고 나서 자체모금을 위해 전 새마을지도자들은 총력을 기울였다. 김영봉 지회장과 성남시 새마을지도자들은 자체모금을 위한 판매사업 등으로 무척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독립된 새마을회관을 갖고자 고철 · 빈병 판매,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판매, 재활용품 판매, 잔디밭 관리, 제초작업, 커피판매, 일일찻집, 바자회, 구판사업(떡, 미역, 김, 젓갈)을 수개월 동안 밤낮으로 추진함으로써 4억 6천 4백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자체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대출이나 차입금 없이 자체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력을 마련하였다. 회관확보를 위해 김영봉지회장과 황덕근, 김은영, 우건식, 유재현 회원단체장을 비롯한 2천여 새마을지도자들은 자체회관을 갖는다는 꿈에 어려운 고비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 특히 막대한 기금모금은 타 시군의 부러움을 사는 모범사례가 되었다.

2000년에 들어 세운 첫 회관확보 계획은 지방비 12억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모금 3억 7천만 원 등 총 16억 2천만 원을 마련하여 분당구 야탑동

에 부지를 매입하고 대지227평, 연건평408평,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의 회관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립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금 더 큰 회관을 확보하기로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 수정계획은 1개층을 더 올려 연면적을 넓히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총 투입비는 23억 원으로 대지구입비와 건축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예상했다. 재원은 자체기금과 중앙지원금, 특별교부세와 시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예산을 세웠다. 장소는 구도심을 벗어나 분당구 상탑동사무소 건립 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기로 하였다. 야탑동 155, 부지는 성남시가 1992. 3. 13. 취득한 공용용지를 성남시새마을회가 2000. 8. 22. 매매로 취득하게 되었다.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여 사무실, 수익사업장, 임대 등으로 기본골격을 잡아 2001. 5. 24. 착공식을 갖게 되었다. 드디어 2001. 11. 20. 새마을회관을 완공하여 새마을가족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다. 이 시기 성남시는 3개구 44개동 92만 8천명으로 100만 인구를 코앞에 둔 시기였다. 준공 후 2003. 12. 13.부터 2004. 2. 14.까지 지상 4층에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을 위한 증축과 용도변경을 완료했다.

증축 후 야탑동 155에 위치한 '성남시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752.30㎡(약228평), 건축면적 446.63㎡(약135평), 연면적 2,226.78㎡(약674평), 지하 1층, 지상 4층이다. 총 투입비용은 부지구입비 3억 9,759만 원, 건축비 17억 6,065만 원, 부대비용 1억 5,636만 원 총 23억 1,460만 원 이 소요되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보조금 13억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모금 4억 6,420만 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2017~2018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지원받아 회관의 안정과 기능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실시하였다. 성남시새마을회관 건립은 단순한 자산 확대 차원이 아니라 국민운동과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람의 장을 창조해낸 작품이다. 성남시새마을회관 건립은 단순한 자산 확대차원이 아니라 국민운동과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람의 장을 창조해낸 작품이다. 시새마을회관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나아가 활동의 근거지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5장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 → 부천시새마을회

1. 복사꽃의 도시 '부천'

전통적으로 '복사꽃의 고장'이라 불리는 부천은 서울의 남서쪽에 위치하여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경기도 수도권의 18개의 위성도시 중에 하나이다.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고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하면서 서울의 강서, 양천, 구로, 경기도의 김포, 광명, 시흥 등과 연접해 일부 지역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경기도의 4~5번째 도시로 성장해 왔다. 1989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에 따라 중구, 남구가 설치되었다. 1993년 중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중구를 원미구와 오정구로 나누고, 남구의 일부는 소사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6. 7. 4.에는 자체적인 행정체제 개편 으로 3개 구청을 폐지하고 동의 기능을 강화한 권역별 행정복지센터 체제가 출범하였다. 기존의 동은 유지하면서 권역별 중심이 되는 10개의 동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었다.

부천시는 1973년에 6만 5천명의 인구에서 한 때 100만 명을 넘어섰다가 2020년 현재 90만을 조금 밑도는 인구의 대도시가 되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는 초대 이시형 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

되었고, 3월 28일 개청함으로서 지회의 새마을역사가 시작되었다.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1989. 7. 1. '새마을운동부천중구지회', '새마을운동부천남구지회' 설치되었고, 이후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라 1993. 2. 1.에는 중구와 남구가 원미구와 소사구로 변경되면서 '새마을운동부천오정구지회'까지 새마을지회가 설치되어 4개의 지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1995. 12. 31. 중앙회의 비자치구 새마을지회 폐지에 따라 3개 구지회는 폐지되면서 부천시지회에 통합되었다.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조직과 인력, 사무실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새마을가족 특유의 이해와 배려를 통해 어려운 통합을 마치게 되었다. 부천시 새마을조직의 역사는 지회설치 이전인 1973년 7월에 새마을청소년회부천시연합회가 설립되었고, 1976년 6월에 부천시 민간단체 새마을협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해 7월에는 새마을문고 부천시지부도 설립되었다. 1981년에는 새마을지도자부천시협의회와 부천시새마을부녀회가 설립되면서 1982년 10월에 새마을운동단체(지역, 부녀, 직장, 문고)의 통합사무실을 열고 각 단체별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 때 시청에 새마을과도 개설되었다. 이후 자체 새마을회관 확보 및 새마을운동 자립화 등을 위해 2004. 2. 5. 사단법인 '부천시새마을회'를 설립하여 초대 법인회장에 박용규회장을 선출하였다. 2010. 3. 9.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부천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을 갖추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장(부천시새마을회장)'은 이시형, 공영희, 김정기, 김계월, 박형재, 박용규, 김기명, 홍석인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부천시협의회장'은 장경석, 변창옥, 동우경, 김기현, 손충신, 정영모, 최문섭, 윤윤원, 한창진, 장광섭 회장이 역임했다.

'부천시새마을부녀회장'은 전옥려, 곽양숙, 임광자, 이말선, 한재림, 최복순, 김연희, 황진희, 신언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새마을문고부천시지부회장'은 권태욱, 정홍기, 권순호, 황미숙, 윤광천, 차동길, 이선근 회장이 역임

하였다. 사무국장에는 엄범용, 이천영, 홍국표, 장 성, 오주영, 김영길, 김귀태, 김영길, 변창수, 박영호, 오희철, 정광철, 한승만, 정순호, 박선주 국장이 재직하였다. 부천시새마을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신 분은 도 문고회장에 권태욱 회장과 정홍기 회장이 도 회장단을 역임하였다. 특이하게도 중앙회에서 가까운 이유로 중앙회파견 사무국장들이 많았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조우형, 지역회장 편상기, 부녀회장 김명옥, 문고회장 김광운, 사무국장 강승원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매입)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는 1984. 3. 28. 원미구 원미동 78-2, 시청별관 3층에서 개청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구와 행정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부천시청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지회는 1989. 5월에 원미구 원미동 71번지 새로운 시청 내로 이전하였다. 1989년부터 설치된 3개 구 지회는 각각 구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다가 다시 부천시지회로 통합되었다. 이후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들은 1994년 4월 국민운동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적 활동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내 각종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정리계획에 의거 1994. 8. 23. 지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전을 결의하였다. 이는 자립형 회관확보 및 자율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결의에 따라 1994. 10. 7. 원미구 심곡2동 150-3번지로 이전하여 개소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 무렵 부천시지회는 3개구 33개동 877개통의 조직으로 남 · 여지도자 1,824명 전직 남, 여 지도자 1,280명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회장단은 1999년에 '회관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 1일 찻집 운영, 액젓 판매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2002. 2. 5. 새마을 회장단은 부천시에 회관건립의 필요성과 향후 새마을회가 자립을 목적으로 한 회관건립을 건의하였는바, 부천시와 협의하고 2002년 3월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국비지원을 약속 받았다. 2002. 5. 7. 지회 운영위원회는 새마을회관 신축이 아닌 매입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2002. 7. 9. 부천시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지출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2. 8. 27.에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7억 원을 확보하게 되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회장단과 동회장들은 2002. 9. 16.~17.에는 전국 시군 우수새마을회관을 견학하며 회관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도 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다. 2003년 1월에 회관매입비 17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때마침 지회장이 공석이라 어려움이 있어 회관확보는 지지부진하였다. 2003. 7. 9. 박용규지회장 취임하면서 다시 회관확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3. 9. 18.에 회장단 등 7인으로 '회관매입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10월에는 3회에 걸친 이사회를 열어 매입추진위의 제안을 심의 · 의결하여 확정하게 되었다. 11월 14일에는 매입계획을 중앙회와 부천시에 통보하고 승인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2003. 12. 23. 부천시 새마을가족의 염원인 자체 새마을회관을 확보하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원미구 약대동 169-130에 위치한 매입 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424㎡(약128평), 건축면적 220.5㎡(약67평), 연면적 1,103.64㎡(약334평), 지상 6층 건물이다. 총 투입비용은 19억 원으로서 17억 3천만 원의 매입비와 시설비 1억 2천만 원, 부대비용 5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재원은 특별교부세 7억 원, 시비보조금 10억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1억 5천만 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엘리베이터 등 회관 기능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보수와 안정성 향상을 위한 보강 공사가 이루어졌다. 부천시새마을회관은 부천시새마을운동의 센터로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활용의 거점으로서 훌륭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6장 새마을운동반월출장소지회 → 새마을운동안산시지회 → 안산시새마을회

1. '반월공단'의 도시 '안산'

'안산'은 고려 초기부터 안산이란 이름이 사용되었으며, 현종9년(1018년)에 안산현, 1308년에 안산군으로 발전되었다. 1914. 3.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안산, 시흥, 과천 3개 군이 시흥군이란 명칭으로 통합되었고, 1976년 시흥군 군자면과 화성군 반월면 일대가 '반월신공업도시'로 조성되면서 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1986. 12. 1. 시 승격과 함께 안산시란 이름을 되찾게 된 것이다. 화성, 시흥, 군포, 수원 등과 지역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기도 하고 수원과 인천에 각각 편입되기도 하다가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가 되었다. 안산은 서울의 인구 및 산업분산시책의 일환으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계획적이고 인공적으로 개발된 전원주택 도시이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반월출장소지회'는 초대 김은주회장을 선출하고 1984. 3. 15. 설치되어 3월 28일에 개청되면서 새마을지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출장소지회의 설립 이전인 1984. 3. 2.부터 설치준비를 마치고 이전의 화성군, 시흥군 새마을조직 등을 흡수하여 설치하였다. 출장소가 1986. 1. 1. 시로 승격되

면서 '새마을운동안산시지회'가 설치되었다. 1984년 출범 당시 지회는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공장추진지부, 문고지부, 금고연합회 등의 회원단체를 모두 갖추고 출발하였다. 이후 새마을운동 자립화 기반구축을 위한 자체회관 확보를 위한 준비를 위해 2007. 7. 9. 사단법인 '안산시새마을회'를 창립하고 김태욱 회장을 초대 법인회장으로 선출하여 오늘의 조직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2012. 4. 27.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안산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안산시지회장(안산시새마을회장)'은 김은주, 안재문, 윤용혁, 김봉식, 이만승, 김봉식, 이재진, 김영진, 홍순목, 김태욱, 김태진, 나영부, 김복식, 김철호, 정차동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안산시협의회장'은 김길웅, 윤동완, 전용장, 이제억, 홍삼랑, 홍순목, 손성남, 김용화, 이문우, 정차동 회장이 역임했다.

'안산시새마을부녀회장'은 박용주, 권순자, 신은복, 진해정, 박점순, 박두선, 서유자, 박경숙, 김기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안산시협의회장'에는 안재문, 장영근, 류인영 공장회장과 이규식, 허의강, 김진옥 직장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안산시지부회장'은 김이태, 김봉식, 최경환, 이종순, 성철수, 박승한, 허춘중, 이대근, 김동경, 김남수, 황연화, 유근원, 최유정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김기정, 박용득, 조재범, 윤종영, 방보영, 정창운, 한갑수, 박창용, 김기정, 민정화, 이준규, 박상규, 노종완, 곽광순 국장이 재직하였다. 안산시새마을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시 분은 김길웅 회장이 도 지역회장을 역임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임충렬, 지역회장 김상호, 부녀회장 정상순, 문고회장 최유정, 사무국장 한숙희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행정임대)

'안산시새마을회'는 1984년 3월 '새마을운동반월출장소지회'로 시청 내 사무실을 두고 개청하였다. 이후 공공건물에서의 사회단체 이전요구에 따라 '고잔동 531-1' 안산시 도시개발부지 내에 있던 가건물로 재 이전 되었다. 사무국이 있는 가건물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지도자들의 사기저하 문제로 새마을회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새마을회가 운영하던 안산시 상록구 재활용품판매장을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자 안산시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대상건물은 1998. 4. 28. 준공된 2층 건물로서 안산시 청소과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우 작고 낡은 건물이었다. 새마을회는 2012. 6. 25. 안산시에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신청하고 2012. 7. 13. '새마을나눔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건물이 낡고 좁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리모델링을 통해 3층을 증축하여 강당, 사무실, 나눔센터를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새마을 나눔문화센터'를 확보하도록 설계하였다. 다음 해인 2013. 1. 17.에는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4억을 확보하였다. 계획된 대로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2013. 8. 6. 공사를 착공하였고 부족한 재원은 자체기금 5,500만 원과 9월 25일에 안산시 추경예산으로 시비 1억을 확보하여 충당하였다. 공사는 2013. 11. 3.에 준공되었고 2013. 11. 29. 안산시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하게 되었다.

안산시새마을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회관확보는 지도자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다. 자체노력으로 기금마련을 마련하고자 10년간 모아온 회비와 지도자들의 수고와 땀이 담긴 판매사업으로 이뤄낸 작품으로서 자긍심 또한 높이게 되었다. 새마을회관은 지역새마을운동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이거니와 나눔가게 운영으로 생명살림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다. 안산시새마을지도자들은 농촌계몽운동의 선구자 '최영신'의 고향인 상록구에 '새마을나눔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됨으로서 우리사회 근대화의 역사와 지속적인 새마을운동이 이어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안산시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의 영속적 발전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 토론, 체험 등 새마을운동을 실천하고 건강한 정신을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

고 있다. 특히, 안산시새마을회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나눔 가게'는 회원들과 시민들이 재사용가능한 헌옷 등 물품들을 판매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헌옷 팔아 새 옷 나눔'으로 연말에 홀몸어르신들에게 내복, 조끼 등을 구입하여 나눔으로서 생명살림운동과 함께 공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8번지에 위치한 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323.80㎡(약98평), 건축면적 318.02㎡(약96평), 연면적 502.61㎡(약152평)으로서 사무실과 나눔문화센터,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총 투입자금은 도비보조금 4억 원, 시비보조금 1억 원, 자체기금 5천 5백만 원 등 총 5억 5,500만 원으로 회관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타 시군처럼 독립적인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2017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회관에 대한 전면보수로 안전성과 기능을 보강하였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7장 새마을운동화성군지회 → 화성군새마을회 → 화성시새마을회

1. 길이 열리는 화성시

'화성'은 효도의 상징인 정조대왕과 부친 사도세자(장조)가 잠들어 있는 '융건릉'이 있는 효심 가득한 고장이다. 인근에 수원, 용인, 평택, 안산, 시흥, 오산, 옹진 등 7개 지역과 연접하여 지역을 합병분할하면서 성장해 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도시이기도 하다, 새마을지회 개청시 15번째 지역에서 7번째의 시군세로 자란 발전지역이다. 화성은 1949년 수원군이 수원시로 승격할 때 나머지 수원군 전역이 화성군으로 정리되었으며 1989년 오산시를 독립시켜 주기도 하였다. 2001년 전 지역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면서 도내에서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바다 길이 열리는 제부도와 3.1운동 당시 발안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30여명을 잡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러 만행을 저질렀던 '제암교회'가 있는 유서 깊은 지역이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화성군지회'는 초대 정광현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에 설

치되었고 3월31일에 개청되었다. 일찍이 재정자립과 새마을운동 자율추진 기반조성을 위해 1996. 12. 10.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사단법인 '화성군새마을회'를 창립하고 권혁호 회장을 법인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12월 18일에는 등기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초석을 놓게 되었다. 2001. 3. 21.에는 화성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화성시새마을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2012. 12. 31.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화성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을 갖추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화성군 지회장(화성시새마을회장)'은 정광현, 홍성직, 신봉식, 권혁호, 정영진, 신경수, 안상교, 박성권, 홍진선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화성군(시)협의회장'은 정광현, 홍성직, 윤정성, 강래진, 배우진, 김형재, 신운식, 홍순철, 이광행, 이재현, 김선근, 김홍성, 안낙영, 최영수 회장이 역임했다. '화성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조은석, 민태봉, 오도환, 김명숙, 김정희, 이인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화성군(시)협의회장'에는 김일선, 유주영, 유형태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화성군(시)지부회장'은 한광수, 임승규, 주현중, 안희석, 이범우, 홍윤선, 홍석주, 이길자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서원일, 이정재, 이길원, 김인수, 한상준, 윤용섭, 이창복, 엄기은, 장수만 국장이 재직하였다. 화성시새마을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시 분은 김명숙 회장이 도 부녀회장을 역임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김선근, 지역회장 신영학, 부녀회장 조종애, 직 · 공장회장 김송환, 사무국장 함영민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건축)

'새마을운동화성군지회'는 1984년 3월 개청당시 지금의 오산시청 자리인 군청 안에 사무실에서 시작하였다. 1989년에 화성군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하면서 화성군청 내에 있던 사무실은 오산 시민회관으로 이전하여 잠시 거처하

게 되었다. 화성군청이 남양읍으로 청사를 새로 지어 이전한 뒤에는 군청 내로 들어가 본격적인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잦은 사무실의 이전을 겪으면서 자체회관 없이 새마을운동을 펼치기 힘들다는 판단에 회장단은 자체 수익형 회관을 확보하기로 결의하고 새마을지도자들에 동의를 구하였다. 새마을에게 어려움은 또 하나의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지회는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의 추진을 위해 양주, 김포, 용인, 시흥과 더불어 일찍부터 회관확보에 주력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자율 기반조성과 자산의 소유권 등기를 위해 1996. 12. 18. 사단법인 '화성군새마을회'를 설립하여 초대 법인 회장으로 권혁호 회장을 선출하였다.

권혁호회장과 신운식, 김명숙, 안희석 등 회원단체장과 김인수 사무국장은 새마을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회관건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새마을지도자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체회관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양말, 세제 등의 판매사업으로 기금을 모으고, 정성어린 성금모금으로 7백만 원이라는 자체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회장단들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기금모금과 판매사업을 추진하였다. 1996. 10. 10. 당초 계획은 대지 500평에 연건평 150평, 지상2층 회관을 짓되, 군비보조금 2억 6,500만원, 자체자금 4,500만원 총 3억 1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당시 김일수 군수는 농민운동가로서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회장단의 자립형 건물 확보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무상으로 시유지 1,650㎡(500평)를 불하해 주었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군비보조금 2억 6,500만원을 마련해 주었다. 모아진 자금과 군비보조금을 더해 1997. 7. 18. 팔탄면 구장리 부지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당시로서는 아주 외진 곳이었으나 발안과 남양을 잇는 길목이어서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추진한 것이다. 1997. 10. 8.에는 건물이 완공되어 드디어 1997. 10. 20. 독자적인 자체 지상 2층의 새마을회관을 개관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팔탄면 구장리 146-4번지에 위치한 새마을회관은 대지 1,650㎡(약500평), 건축면적 249.93㎡(약76평), 연면적 493,86㎡(약150평),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총 투입비용은 3억 1,673만원으로서 부지구입비 4,150만 원, 건축비 2억 1,026만원, 부대비용 6,497만 원이 소요되었다. 재원은 지방비보조금 2억 6,500만 원과 자체기금 7백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화성군새마을회관을 건립한 후 재정자립의 박차를 가하고자 마당 한 쪽에는 가건물로 '저공해 비누공장'을 함께 설립하여 지역의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빨래비누로 만들어 비누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새마을사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생명살림운동을 이때부터 시작하였던 것이다. 자립형 회관이 확보됨에 따라 화성군 지도자들은 더욱 마음 편히 지역사회를 위하여 새마을 운동에만 열심히 한 결과 1998년도에는 전국 최우수 지회에 선정이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 시기가 바로 화성군 새마을회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눈부신 활약을 했다. 2001년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됨에 따라 '화성시새마을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10여년간 꾸준히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으나, 동탄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 도시지역 조직 미구성, 서부권 지역의 젊은 지도자 이탈 등 화성시의 동서 불균형 발전의 양극화 현상이 도래했다. 이에 따라 동서간의 화합과, 도농복합형 새마을운동을 위한 재정자립을 확고히 다지고자 이웃사랑모금운동본부'천사친구'를 발족하였다.

ARS 전화한통에 2천원이 적립이 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모금을 시작하였다. 마을 회의 때마다 지도자들 스스로 전화한통을 하면서 모금에 참여하고, 화성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2009년 비지정기탁 모금액이 2억 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자립의 표본 모델이 되었다. 이 시기에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의 사회공헌팀이 사회적기업 설립제안을 해오면서 새마을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 빵공장인 '두리반'까지 설립하게 된다. 두리반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다문화가정의 일자리까지 제공하게 되었고 생산된 빵은 관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지금도 지역 활성화의 모델이 되고 있다.

회관건축 후 20년이 훌쩍 넘자 노후된 건물에 하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로 김선근지회장이 취임하면서 화성시새마을회는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취임직후 회관의 활용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실정과 자립을 할

수 없었던 현황을 파악하여 회관증축과 회관주변정리, 아스콘 공사를 위해 회장단과 함께 화성시에 새마을회관 보수와 증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2015~2016년 2년여에 걸쳐 2억 6천만원의 회관 증축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증축을 통해 늘어난 규모는 지상 3층으로 건물로서 건축면적 316m²(약92평), 연면적도 749.79㎡(약227평)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증축은 회관의 안정성과 기능보강을 위해 주차장과 건물보수공사를 마친 것으로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회관을 방문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50대의 주차가 항시 가능한 주차장도 마련이 되었다. 이로써 완벽한 자립형 회관이자 개방형 회관으로의 형태를 갖추었고, 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지금도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화성시새마을회관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두리반'빵공장이 있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다문화가정의 일자리까지 제공하게 되었고 생산된 빵은 관내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지역 활성화의 모델이 되고 있다. 재정자립을 위한 ARS 모금(천사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두리반'을 설립 · 운영하는 등 선진 새마을운동을 펼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8장 새마을운동남양주군지회 → 새마을운동남양주시지회 → 남양주시새마을회

1. 다산 정약용의 유적지가 있는 '남양주'

'자연친화적 선진도시' 남양주는 경기도의 동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인근에 서울, 의정부, 구리, 양평, 가평, 포천 등과 연접하여 지역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한수이북의 도시이다. 1980년 양주군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이 되었다. 1986년 남양주에서 미금읍이 시로 승격되며 분리되었다가 1995년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되면서 남양주군은 없어지고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가 되었다. 천마산 그리고 축령산 자연휴양림과 밤섬유원지가 있는 자연휴양도시이기도 하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남양주군지회'는 초대 조호능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에 설치되었고, 3월 26일 개청하고 업무를 시작하여 남양주 새마을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1989. 1. 1. 미금읍이 미금시로 승격 · 분리되면서 '새마을운동미금시지회'도 설치되었다. '새마을운동남양주군지회'는 1995. 1. 1.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새마을운동남양주시지회'가 되면서 '새마을운동남양주

군지회'와 '새마을운동미금시지회'는 폐지되었다. 통폐합으로 인한 진통은 타 시군과 비슷하였다. 조직과 회장단, 사무실과 사무인력의 통폐합은 그리 만만치 않아 큰 어려움이 있다가 차츰 해소 정상을 찾게 되었다. 2009. 11. 20.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남양주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었다. '새마을운동남양주시지회'는 후일 자립회관 확보 등을 위해 2014. 2. 19. 사단법인 '남양주시새마을회'를 창립하고 초대 법인회장으로 이준성 회장을 선출하여 2014. 4. 3. 등기를 마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남양주군(시)지회장(남양주시새마을회장)'은 김용순, 백형진, 이문학, 조호능, 박기춘, 이우순, 이준성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남양주군(시)협의회장'은 정용석, 이종식, 이석희, 이종식, 정영길, 고석철, 이은한, 송준우 회장이 역임했다. '남양주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김보자, 윤현자, 김경진, 박영순, 김재림, 박영순, 이우순, 이미화, 최옥녀, 김명조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남양주군(시)협의회장'에는 김응수, 김영희, 조남호, 김춘재, 조동우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남양주군(시)지부회장'은 김응춘, 박완석, 박수부, 이창옥, 이응구, 우희동, 이응구, 최정자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서성복, 이선래, 이갑수, 김칠용, 유병출, 배은주, 김은선, 장수만 국장이 재직하였다. 남양주시새마을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신 분은 도 문고회장에 이응구 회장이 있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전기성, 지역회장 이진헌, 부녀회장 나성란, 직 · 공장회장 최순옥, 문고회장 유지환 회장, 김은선 사무국장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행정임대)

'새마을운동남양주군지회'는 1984. 3. 26. 군청 내에 사무실에서 개청하였다. 사무실을 본청 밖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에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대책이 전무하였다. 1991년 계획으로는 확보된 금곡동 산74-3에 대지137.8평, 연면적 172.6평,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짓는 것이 목표였다. 2004년도부터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여 회관건립기금 1억을 모았으나 부지매입도 불가한 돈이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애처로운 처지가 되었다. 이에 회장단들은 1980년대부터 새마을회관으로 사용되었던 자리에 전 박기춘 국회의원(제5대 남양주시새마을지회장)이 특별교부세 · 도비보조금 31억을 지원받게 하여 시비보조금 10억을 포함하여 총41억을 들여서 부지 1740평, 건축면적 139평, 연면적 696평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여 2009년 1월 23일 완공하였다. 그러나 회관명의가 남양주시로 되어 있어 지도자들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었다. 노력한 결과가 만족치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새마을회는 새로운 자체회관 마련이나 기존 회관에 대한 명의 이전 등의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9장 새마을운동안양시지회 → 안양시새마을회

1. 살기 좋은 편안한 '안양'

'안양'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안양사라는 절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다. 안양은 안양리라는 리가 성장하여 면, 읍을 거쳐 시가 된 전국 유일사례 도시이다. 안양은 1973. 7. 1. 법률 2597호에 따라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분리 승격하면서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었다. 경기도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사통팔달 할 수 있는 요충지로서 서울 남부에 연접한 안양은 인근에 광명, 시흥, 안산, 군포, 의왕, 과천 등과 연접하여 지역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여 왔다. 안양은 지역이 좁아 1988. 9. 13.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조성된 '평촌신도시'가 개발된 이후 좀처럼 도시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1984년 새마을지회 설치당시 4번째 도시가 2020년 현재 9번째 시로 타 시군보다 인구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도시이다. 1992. 10. 1.에는 1989. 5. 1. 설치했던 만안출장소와 동안출장소를 각각 만안구와 동안구로 승격시켰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안양시지회'는 초대 변원신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되었고, 3월 30일 개청하면서 안양시 새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안양시

는 인구와 행정구역의 증가에 따라 만안구와 동안구가 설치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1992. 10. 1. '새마을운동만안구지회'와 '새마을운동동안구지회'가 설치되었다. 이전에 조직되었던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문고지부는 모두 회원단체로 들어와 조직이 일원화되었다. 다만, 금고연합회와 공장추진본부는 별도로 사무국을 운영하였고 새마을축구는 지회 안으로 들어와 함께 활동하였다. 새마을운동 자립화 기반구축과 자체회관 확보를 위해 1997. 3. 26. 사단법인 '안양시새마을회' 창립총회를 열어 김의중회장을 법인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고. 6월 20일에 등기등록을 마쳤다. 2009. 12. 21.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안양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을 갖추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안양시지회장(안양시새마을회장)'은 변원신, 원영희, 현광일, 음순배, 가재문, 음순배, 김의중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안양시협의회장'은 변원신, 김종인, 박시래, 김성춘, 신진수, 신재현, 조 삼, 한기영, 이철화, 이장희, 조경연 회장이 역임했다.

'안양시새마을부녀회장'은 이인숙, 이은혜, 이정자, 김기영, 조금영, 최관순, 한향숙, 신선순, 전명화, 김정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안양시협의회장'에는 정봉수, 장배순, 전범윤, 오경환, 박병환, 이동우, 이성현, 주명선, 백종주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안양시지부회장'은 박경재, 송보영, 송요선, 전영선, 박영호, 이채학, 김경남, 이동연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이경호, 유장석, 서창식, 이병국, 문행식, 서창식, 정명진, 이창복, 고희완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원광희, 지역회장 이완재, 부녀회장 공석, 직 · 공장회장 서영빈, 문고회장 김명원, 사무국장 고대원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안양시지회'는 1984년 개청 당시에 안양시청 내에 사무실을 열

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하지만 회원단체가 많은 반면 사무실이 비좁아 근무여건이 열악하였다. 9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 자립화와 사회단체의 공공건물 밖으로의 이전계획에 따라 회장단과 임원들은 회관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최소한 대지구입비는 지도자 회비 및 회장단 출연금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부족한 건축비는 지방비보조금의 지원을 받고, 더 부족한 부분은 보증금과 중앙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물론 회관 건축 후 우리농산물 직판장, 새마을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자립의지도 강했다. 지회는 1994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자립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동별 매월 5만 원씩을 적립해 왔다. 1996년에 수립된 이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에 의해 기존 적립금은 자립형 회관건립 기금 명목으로 전환되었다. 1997년 새마을회 발기인 총회에서 새마을지도자 연 회비제를 채택하여 전액 건립기금으로 가결하여 조금씩이나마 회관 건립기금을 차근차근 모아갔다. 1998부터는 1인당 매월 2천 원씩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안양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체회관확보에 대한 노력에 감동받은 현광일 지회장은 9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하여 그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지도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은 1억 1천만 원에 이르렀다.

1999년 지회는 회장단, 이사 및 운영위원 각동 남녀회장, 단위 문고회장 등 112명으로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각각의 맡은 조직에 대한 2천여 명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성금모금에 박차를 가하였다. 2001. 3. 30.개인 땅을 매입하여 신축하기로 하고 2001. 4. 12.부터 2002. 3. 15.까지 4건의 토지 648.7㎡를 교환 · 합병 등의 과정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초 회관건립은 2002년에 착공하여 대지 100평, 건평 180평, 지하 1층, 지상 2층을 계획하고 부지매입비 5억 원과 건축비 5억 5천만 원, 총 10억 5천만 원으로 건축한다는 목표였다. 재원은 자체기금 5억 원, 시비보조금 5억 5천만 원, 중앙회지원금 5천만 원 등 11억 원을 마련하여 충당한다는 목표였다. 드디어 2001. 3. 30.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하여 2001. 11. 20.에 완공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건축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지지부진하다가 2002년에

착공하게 되었고 2003. 5. 7. 준공하게 되어 안양시새마을 가족의 소총의 장이자 새마을운동의 센터가 되었다.

동안구 호계동 335-67에 건축된 안양시새마을회관은 대지 1,006.2㎡(약304평), 건축면적 419.09㎡(약127평), 연면적 1,372.56㎡(약415평),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총 투입비용는 15억 2,366만 원으로서 대지구입비 3억 1,826만 원, 건축비 10억 5,990만 원, 부대비용 1억 4,550만 원이었고, 재원은 시비보조금 11억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2억 3,366만 원 이었고 부족분은 보증금 1억 4천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2018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회관의 전면보수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을 보강하여 보다 새로운 회관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0장 새마을운동평택군지회 → 새마을운동평택시지회 → 평택시새마을회

1. 서해안의 중심도시 평택

'평택'은 경기도 최남단 지역으로서 안성, 용인, 화성, 오산, 충남의 천안, 아산 등과 연접하여 지역을 주고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940년(고려태조 23) 진위현이 평택현으로 개편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수원군 일부와 충남 평택군을 흡수하여 평택군이 되었다. 1981년에는 인구증가로 송탄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되었고 1986년에는 평택읍 지역이 구리 · 과천 · 안산과 함께 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되어 3개 시군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는 다시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통합되어 도농복합도시 평택시로 개편되면서 송탄시와 평택군은 폐지되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평택군지회'는 종래의 민간단체 새마을운동협의회 체제에서 1983. 10. 20.부터 새마을지회 설치를 준비하여 1984. 3. 15. 지회가 설치되었고, 3월 1일에 평택군청 내에서 개청하면서 새마을지회 체제가 시작되었다. 같은 날에 '새마을운동송탄시지회'도 설치 · 개청되어 평택은 2개 시군으

로 나누어 출발하게 되었다. 1986. 1. 1.에는 '새마을운동평택시지회'도 설치되어 평택은 3개 시군지회로 나누어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자립화와 효율화를 위해 1995. 5. 1.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새마을운동평택시지회'가 되었고, '새마을운동송탄시지회'와 '새마을운동평택군지회'는 폐지되었다. 통합에 따른 조직, 인력, 사무실, 자산 등의 처리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사무국을 통합하고 회장단을 조정하고 직원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 희생과 아픔이 있었지만 무사히 통합되어 더 큰 새마을운동평택시지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사회단체의 자립화와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하여 1999. 1. 26. 홍장근 회장을 법인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면서 '평택시새마을회'를 창립하고 1999. 2. 5.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1999. 5. 19. 법인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2012. 5. 29.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평택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평택시새마을회장' 권달수, 방효익, 강건수, 황대영, 홍장근, 노승관, 김광일, 김경현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평택시협의회장'은 성윤호, 이규봉, 차준호, 한협동, 공윤열, 유재경, 정부안, 목범수, 정영래, 권기식 회장이 역임했다. '평택시새마을부녀회장'은 조순자, 윤금선, 윤복례, 임해숙, 김은영, 오정자, 최희용, 한경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사무국장에는 조영행, 최종문, 구태덕, 오운교, 정명진, 김종훈, 강 석, 최시영, 홍사곤 국장이 재직하였다. 평택시새마을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신 분은 차준호 도지역회장이 있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최시영, 지역회장 박종선, 부녀회장 손정화, 사무국장 정경희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평택군지회'는 1984. 3. 31.에 평택군청 내에서 개청하였고, '새

마을운동송탄시지회'도 같은 날 송탄시청 내에서 개청하였다. '새마을운동평택시지회'는 1986. 1. 1. 평택시청에서 개청하였다. 3시군 모두 시군청사 내에서 사무실을 개청하고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후 1995년 시군지회 통폐합으로 부득이 평택시지회가 모든 업무를 떠맡게 되어 종전의 사무실이 매우 비좁게 되었다. 때마침 평택시의 인구와 행정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청사 밖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었다. 이 요구에 따라 1996. 11. 20. 황대영회장과 회장단들은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기로 발의하고 의견을 조율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마을회장단과 각 단체는 기금모금과 판매사업 등을 통해 최대한의 자체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하고 1998. 5. 10. 회관건립을 위한 판매사업으로 양말8천개를 판매하여 3,200만을 조성하였고, 1998. 5. 10.에는 새마을회관 기금조성 읍면동 모금으로 4,600만 원을 조성하였다. 회장단과 지도자들은 회관을 확보할 때까지 어렵고 힘들지만 자체회관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판매사업과 기금조성을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초 회관건립계획은 1998년 10월부터 1999년 2월까지 평택시 세교동에 대지구입비 8천만 원과 건축비 4억 원등 총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회관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재원은 시비보조금 3억 5천만 원, 중앙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1억 1,200만 원이 목표였다. 하지만 회관의 규모가 작아 자립형회관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다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9년에 이르러 홍장근회장 외 22명으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다시 세운 계획은 대지200평, 연건평4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당초보다 1억 8천만 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을 추가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계획은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계속 차질을 빚고 규모가 달라졌다. 위원회는 회관건립을 위해 1999. 10. 4. 평택시 채비지 278.6㎡(약84평)을 298.2㎡(약90평) 1억 1,674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1999. 5. 30.에는 시비보조금도 확보되어 1999. 7. 1.에 회관건축 준비를 모두 마쳤다. 1999. 7. 31. 건축허가를 받고 1999. 10. 15. 착공하였다. 12월 23일에는 중앙회의 건립비 지원금도 받아 총 4억 8천만 원의

건축자금을 마련하였다. 건축은 2000. 5. 22. 사용승인을 받고, 2000. 6. 5. 소유권 보존, 2000. 6. 27. 준공식을 하여 평택시 전 새마을가족의 염원이었던 새마을회관을 확보하게 되었다.

평택시 합정동 938-10에 위치한 '평택시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302.9㎡(약92평), 건축면적 164㎡(약50평), 연면적 578.8㎡(약175평), 지하 1층, 지상 3층 이다. 총비용은 부지구입비 1억 1,674만 원, 건축비 3억 5,134만 원, 부대비용 355만 원 등 4억 7,163만 원이 투입되었다. 재원은 시비보조금 3억 5천만 원과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그리고 부족분은 자체자금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되었다. 2020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회관을 수리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을 향상시켰다.

평택시새마을회관은 평택시의 역사나 규모 등에 비추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작은 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회장단과 지도자들은 보다 큰 규모의 제대로 된 수익형 자체회관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1장 새마을운동의정부시지회 → 의정부시새마을회

1. 북부지역의 수도 '의정부'

'의정부'는 서울의 정 북부에 위치하며 북부지역의 수도로서 남양주, 포천, 양주, 서울과 연접하여 지역을 주고받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22년 주내면 유양리에 있던 양주군청이 시둔면 의정부리로 오면서 양주군의 심장부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1938년 시둔면이 양주면, 1942년에는 양주면이 의정부읍로 승격하고, 1963에는 양주군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하였다. 1980년에는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남북의 양주군이 분리되어 남양주군이 신설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의정부시지회'는 초대 문성규지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되었고, 3월 26일에 개청하여 의정부 새마을운동의 총괄 본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과 자체 새마을회관 확보 시 소유권등기 등 자산 취득을 위해 2010. 7. 20. 사단법인 '의정부시새마을회'를 설립하면서 초대 법인회장으로 이민종 회장을 선출하였다. 2008. 12. 31.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의정부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의정부시지회장(의정부시새마을회장)'은 문성규, 송영복, 윤창현, 이민종, 박형국, 윤성현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의정부시협의회장'은 이제율, 구자인, 채규창, 임우빈, 김만순, 김면갑, 황말무, 이민종, 진동균, 서홍선, 최병옥 회장이 역임했다. '의정부시새마을부녀회장'은 문근숙, 최성임, 박윤향, 송동은, 임경숙, 김점순, 김영숙, 강귀순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의정부시협의회장'에는 문성규, 문동연, 손경환, 안수길, 김형두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의정부시지부회장'은 이제율, 최창진, 김용민, 정진선, 신운석, 정영혜, 문금옥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김해경, 이후영, 김해경 국장이 재직하였다. 의정부시새마을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신 분에는 황말무 도 협의회장이 있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박기환, 지역회장 조상권, 부녀회장 한진숙, 문고회장 권경철, 사무국장 노혜정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행정임대)

'새마을운동의정부시지회'는 1984년 3월 개청 당시 의정부시청 내에 사무실을 열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새마을단체에 보조금 중단 등의 위기와 사무실의 시청사 밖으로 이전을 요구받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체회관을 마련하여야만 하는 새마을회장단 및 지도자들의 공통된 의식이 형성 되었다. 회장단과 임원들은 1999년 5월부터 2002년 6월까지 3개년을 준비하여 자체회관을 확보하도록 의결하였다. 지회장과 임원진 등 103명으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관내에 부지 100평, 건평 60평, 연건평 180평 정도로 건축하면 부지구입비 1억 5천만 원, 건축비 3억 6천만 원, 총 5억 1천만 원 정도가 예상되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였다. 재원은 시비보조금 3억 원과 자체기금 2억 1천만 원이 예상되었고 목표는 2002년 이내에 준공하는 것이었

다. 연도별로 자금을 확보하되 1999에 5천만 원, 2000년에 5천만 원, 2001년에 4억 1천만 원을 단계별로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타 시군과는 달리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시의 요청에 따라 의정부시 신흥로 177-27에 위치한 시 소유 땅에 다목적건물을 신축하면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의정부시 소유의 다목적회관을 위·수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회관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비록 새마을회의 소유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 등이 있어 수용하게 되었다.

회관은 대지 852㎡(약258평), 건축면적 281㎡(약85평), 연면적 794.35㎡(약241평)평으로 지상 3층 건물이다. 의정부시는 도비보조금 2억 8,500만 원, 시비 7억 1천만 원, 총공사비 9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2006. 9. 8. 건물을 완공했다. 2006. 9. 1.부터 의정부시 소유의 다목적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있다. 아쉽게도 의정부시새마을회는 자체회관 확보에 실패하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인 자체회관의 확보는 늘 과제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기존 건물을 무상양여 받든지 새로운 곳에 신축 또는 매입을 통해 언젠가는 자체건물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2장 새마을운동파주군지회 → 새마을운동파주시지회 → 파주시새마을회

1.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파주'는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하면서 국가 안보상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지역이다. 파주는 1895년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한성부 파주군으로 출발하여 1896년 경기도로 소속되었다. 1914년에는 파주목과 교하군, 적성현이 합쳐졌으며 이후 1943년 11월에 적성면 편입 등 많은 행정구역 개편을 거쳤으며 1996년 3월에 파주시로 승격(도농복합시)하였다. 파주시는 판문점, 임진각, 경의선, 1번국도 등이 있어 통일의 관문으로 불리며, 현재 1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파주시에서는 대표농산물로서 장단콩과 인삼 등이 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파주군지회'는 초대 이상현 회장을 선출하고 1984. 3. 15.에 설치되었고, 3월 29일에 개청하면서 파주 새마을운동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96. 3. 1.에는 시로 승격함에 따라 '새마을운동파주시지회'로 개칭하게 되었다. 시군지회 자립화 및 자체회관 확보 계획에 따라 자산등

기 등을 위하여 2005. 3. 10. 사단법인 '파주시새마을회'를 설립하면서 초대 법인회장에 최유섭회장을 선출하였다. 2010. 11. 12.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파주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파주군(시)지회장(파주시새마을회장)'은 이상현, 김종승, 김용호, 한 교, 박 정, 최유섭, 정성환, 유한성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파주군(시)협의회장'에는 안응덕, 신형우, 유광석, 김용호, 남봉희, 김윤경, 이영복, 하석이, 이재영, 이희만 회장이 역임했다. '파주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성인자, 이정남, 이용순, 정영숙, 채봉화, 송분연, 유연희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새마을문고파주군(시)지부회장'에는 김종승, 송진용, 김정원, 심성구, 우춘환, 박 훈, 정성환, 권옥기, 이순자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이범선, 박상복, 김흥기, 고삼열, 김우권, 박정우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김경선, 지역회장 권병일, 부녀회장 김명자, 사무국장 임강영 등이 활동 중이다.

협력단체인 '새마을교통봉사대파주지대장'은 김광선, 오관옥, 송동식, 박광진, 김종구, 판순길, 김태오, 이상만지대장이 역임하였고 현재는 조두현지대장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파주군지회'는 1984년 3월 개청 당시 군청 내에 사무실이 있었다. 공공청사 내에서의 사회단체 이전 압박으로 자체회관 확보가 시급하여 회장단의 발의로 회관건축을 결의하게 되었다. 1996년에 파주군의 시 승격에 따라 '새마을운동파주시지회'로 개칭하였다. 1998. 7. 7. 회장단 및 남 · 녀 읍면동회장단회의에서 자체 새마을회관의 필요성과 상징성을 공감하면서 회관건립의 목표를 세우게 됨과 동시에 회관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는 모두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2. 1. 17. 당시 이재창 국회의원에게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02년 2월에 군비보조금 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파주시 새마을지도자들은 회관건립이라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판매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손으로 자체기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고, 2002. 6. 7.까지 회관건립 기금마련 판매 사업을 실시하여 1억 2,600만 원이라는 기금을 만들게 되면서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 설수 있게 되었다. 2002. 11. 19. 파주시지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관부지 매입을 결정 한 후 2002. 11. 23.에 금촌동 946-26번지 314㎡(약95평)2을 2억 3,750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2003년 1월에는 이재창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국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고 2003. 6. 30. 금촌동 946-25번지 66㎡(약20평)을 1억 1천만 원에 추가 매입하게 되면서 회관건립 부지를 확정짓게 되었다. 그 후 2003. 10. 6. 박정지회장과 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기본모형을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회관건축설계를 완료하고 다음 날 회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10월 20일에는 회관 건축에 따른 공개입찰공고를 실시하였는데 회관의 전체 면적은 262.0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설계되었다.

2003. 11. 1. 회관 건립에 대한 건설사가 결정되면서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5개월간의 공사가 이루어져 2004. 3. 7. 파주시새마을가족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던 자체 새마을회관을 완공하게 되었다. 2004. 5. 14.입주하고 5월 24일에 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로서 회관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의 상징성을 높이고 위상을 높이는 주요 시설이 되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김으로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는 더욱더 단합되고 화합되는 계기가 되는 시설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회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자산취득을 위해 2005. 3. 10. 사단법인 '파주시지회'를 설립하고 초대 법인회장으로 최유섭회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과다한 세금으로 인하여 회관등기가 곤란하여 '새마을운동파주시지회(박정)'로 등기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금촌동 946-24의 1에 위치한 '파주시새마을회관'은 대지 380㎡(약115평), 건축면적 206.46㎡(약62.5평), 연면적 858.83㎡(약26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완공되었다. 총 투입비용은 11억 6,537만 원으로서

부지구입비 3억 4,750만 원, 건축비 6억 5천만 원, 부대비용 6,787만 원 이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보조금 2억 원, 중앙지원금 5천만 원, 자체모금 1억 2,600만 원. 기타 1억 7,970만 원 등 10억 5,570만 원이었고 부족분은 1억 8,937만 원은 은행대출금 1억 2천만 원 등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15년 정도 지난 현재의 건물은 균열, 파손 등이 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임대수입도 적어 이전을 검토해야만 하는 형편이다. 2020년에 안전성과 기능보강을 위해 도 새마을회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보수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3장 새마을운동시흥군지회 → 새마을운동시흥시지회 → 시흥시새마을회

1. 최다 시군 분리한 어머니 '시흥'

'시흥'이라는 명칭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을 중심으로 한 일원을 시흥이라 부르며 그 관할지역이 매우 컸다. 조선 정조19년(1795)에 시흥현으로 개칭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고종 32년(1895) 시흥군으로 승격하면서 시흥의 명맥이 이어져 왔다. 식민시대인 1914. 3.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 과천, 안산 3개 군이 시흥군에 흡수통합 되었다. 제일 먼저 1973. 7. 1. 법률 2597호에 따라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분리되었고, 1981. 7. 1.에는 법률 제3425호에 의하여 소하읍과 광명출장소가 광명시로 승격되어 시흥군에서 분리되었다. 1986. 1. 1.에는 출장소로 유지되던 반월과 과천이 각각 안산시와 과천시로 승격되면서 완전 분리되었다. 1989년 1월에는 군포시, 의왕시마저 분리되어 시흥군이 폐지되고 잔여 지역 전부가 시흥시가 되었다. 시흥은 양주, 광주 등과 함께 여러 시군을 배출한 어머니와 같은 도시이다. 그 중에서도 시흥은 안양,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서울 시흥동 등을 배출한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은 시군을 생산한 큰 어머니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시흥군지회'는 초대 유지연 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에 설치되어 3월 31일 개청하면서 시흥새마을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89. 1. 1.에는 군포, 의왕이 분리되면서 시흥군은 폐지되고 소래읍과 군자면, 수암면이 합쳐져서 시흥시가 되어 '새마을운동시흥시지회'로 개칭되었는데 1995년 수암면은 수암동으로 안산시에 편입되었다. 이후 새마을운동 자립화와 자체회관 마련을 위해 1996. 10. 4. 전광옥회장을 법인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사단법인 '시흥시새마을회'를 설립하여 초석을 놓게 되었다. 2009. 11. 6.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시흥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시흥군(시)지회장(시흥시새마을회장)'은 유지연, 고경렬, 김영웅, 김용문, 김왕규, 김창일, 안동인, 전광옥, 임완석, 함동규, 송봉용, 정인산, 박명석, 권준안, 오세관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시흥군(시)협의회장'은 이영득, 김영웅, 김용문, 김왕규, 김창일, 심현일, 차철순, 임완석, 함동규, 정종찬, 권준안, 정인산, 이헌세, 오세관, 김근환 회장이 역임했다. '시흥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김순자, 안운선, 민명임, 오계순, 정종미, 박춘순, 손옥순, 강갑순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시흥군(시)협의회장'은 김창렬, 손주식, 이동우, 이성하, 박준희, 소춘섭, 송봉용, 김호영, 강경환, 김보원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시흥군(시)지부회장'은 김해경, 구경희, 권회길, 이원남, 이윤철, 장순설, 유병만, 김영달, 이환세, 김 선, 김찬심, 최경옥, 복연금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금고시흥시협의회장'은 이용석, 권흥식 회장이 역임하였다. 사무국장에는 정명진, 원인재, 김용수, 조일환, 정명진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강갑순, 지역회장 정현국, 부녀회장 홍화자, 직 · 공장회장 강동호, 문고회장 소수경, 사무국장 양미금 등이 활동 중이다.

협력단체인 '새마을교통봉사대시흥지대장'은 김대성, 이주헌, 오춘근, 김명

보, 황경하, 최정희 지대장이 역임하였고 현재는 유재호 대장이 활동 중이다.

4. 첫 번째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시흥군지회'는 안양시에 있던 시흥군청에서 개청하였다. 최초 사무국이 안양시 만안구 시흥군청 내에 있다가 시흥시로 승격하면서 신천동 시청별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시흥시새마을지도자들은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자립형 새마을회관을 짓기로 하고 이왕 짓는다면 전국 최우수지회답게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회관을 마련하자고 결의하여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 우선 '사단법인 시흥시새마을회'를 설립하여 장현동 11블럭 7롯트에 회관건축 후 소유권 등기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흥시는 신생 시로서 재정형편이 그리 좋은 시는 아니었다. 이를 잘 아는 새마을지도자들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한다는 뜻을 모으고 성금모금을 시작하여 약 1억원 가까운 기초자금을 모았다. 당시 전광옥지회장과 시 회장단들은 모아진 성금을 기반으로 지역구 제정구 국회의원에게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위해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중심지인 새마을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하여 정부자금 3억 원을 배정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시흥시새마을회는 신 시청 근처에 위치한 공영 개발한 준주거지를 매입대상 부지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부지매입비는 총 4억 1천만 원이 필요하였기에 1997. 7. 15. 시흥시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104.6평을 매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건축비 · 설계비 등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였다. 이에 전광옥 지회장과 정명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새마을회장단은 정언양시장과 함께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역임하고 내무부장관이 된 조해녕 장관을 면담하고 '농산물직판장'운영을 위한 상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일단 건축자금 일부가 확보되었지만 추후 임대를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하고 1996년에 건평 104평, 연건평 434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 회관건축을 시작하였다. 총 6억 1천만 원으로 이 규모의 건축을 하기는 부족하기에 신축회관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1997. 6. 11.에 착공하여 1997. 12. 22.에 건축

을 완공하였고 1997. 12. 30.에는 준공검사까지 마쳐 새마을회관을 확보하게 되었다.

장현동(시청로68번길 19)에 신축된 회관의 규모는 대지 345.785㎡(약105평), 건축면적 238.81㎡(약72평), 연면적 1,433.455㎡(약434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총 투입비용은 14억 4,943만 원이었는데, 부지구입비 4억 1.352만 원, 건축비 9억 4,238만 원, 부대비용 1억 3,588만 원이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보조금 1억 1천만 원, 중앙회지원금 50,000천 원, 자체기금 1억7,330만 원, 행정 임대보증금 2억 4,200만 원, 기타 4억1,90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막상 회관을 건축하고 나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금융위기인 IMF사태로 임대가 원활치 못하자 첫해부터 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다. 대출이자가 너무 높았을 뿐 만 아니라 연체하면 24%정도의 고율이자를 물어야 하는 최악의 형편이었다. 궁리 끝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무이자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10~20만 원씩 모아 은행이자를 갚으며 버티었다. 차츰 임대가 나가면서 은행 빚을 갚아나가고 무이자 채권도 돌려주게 되는 어려운 과정 끝에 새마을지도자의 보금자리이자 운동의 본부엔 자립형 새마을회관을 갖추게 되었다. 회관이 신축되고 전국 시군구에서 많은 견학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시흥시새마을회관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부심이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 전 시군에 새마을회관을 갖추는데 기폭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다. 그러나 재정과 IMF라는 악재는 회관 이자 부담을 탕감하기 위해 2002년 1, 2층에 차량등록사업소 입주로 매월 나가는 이자 부담을 줄였으나 전세보증금이 부채가 되고 회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재산세, 교통유발금 등 고정비로 인하여 자립형 회관은 새마을지도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 왔다.

5. 두 번째 회관확보(매입)

재정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자립형 새마을회관은 어렵다는 것에 많은 교훈을 받고, 시흥시새마을회는 최초 회관 건립에 많은 기여와 노력을 하여 주신 김영웅, 김왕규, 김용문, 정인산, 정종미 회장들과 현직 오세관 새마을회장

을 비롯한 강갑순 부녀회장, 김근환 협의회장, 김보원 직장회장, 복연금 문고회장, 양미금 사무국장이 회관 매각에 대한 상황 설명회를 갖게 된 바, 장현동 새마을회관을 매각 후 다른 장소로 이전 또는 신축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2016. 1. 27. 제85차 이사회와 같은 날 정기대의원 총회를 거쳐 2016년 2월 회관 매각 후 매입계획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3. 21. 경기도새마을회에 시흥시새마을회관 매각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다. 결국 2016. 4. 18. 시흥지역산림조합에 20억 7,300만 원에 매도하여 임대보증금 상환과 건물 부가가치세 납부, 부동산중개수수료와 법인세 추정금액을 제외하고 12억 951만 원의 금액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자금으로 2016. 7. 12. 하중동의 급매빌딩을 12억 2,733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건물구입에 자금이 부족하다 하니, 김근환협의회장과 강갑순부녀회장은 각동의 새마을지도자들과 의논하여 1,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주어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중동 825-4번지에 위치한 회관은 지상 5층 건물(1층 101호 제외)로서 대지 326.90㎡(약99평), 건축면적 191.33㎡(약58평), 연면적 1,006.61㎡(약305평) 건물이다. 건물은 2000. 8. 25.준공된 건물이라서 좀 낡았지만 후일 보수하기로 하고 2016. 10. 5.에는 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되었다. 총 매입비용은 7억 6,481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대지 분 5억 9,666만 원, 건물 분 5,733만 원, 제잡비 9,282만 원, 부족분은 임대보증금 9,00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건물은 애석하게도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집합건물인데 1층 101호는 매매하지 않겠다는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7년과 2018년 도비보조금으로 대대적인 안전성과 기능보강을 위한 보소공사가 진행되어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회관은 시흥시 새마을운동의 전략적 본부로서 뿐만 아니라 자립형 새마을회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전 회관의 수익률이 제로인 상태로 운영이 어려웠지만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견디어 준 새마을지도자들과 자립형 새마을회관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단체장들의 판단으로 새마을회관을 이전하여 다시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아 회관의 전면적 수리를 통해 회관의 가치가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안전성

과 기능성도 대폭 좋아지는 계기가 되어 지도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시흥시새마을회관은 언제나 시민들이 찾아오고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이 모이는 사랑방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4장 새마을운동김포군지회 → 김포군새마을회 → 김포시새마을회

1. 평야의 땅 '김포'

'김포'는 서울, 인천과 연접하며 지역 규모가 줄기도 늘기도 하며 성장하는 경기 서북부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넓은 김포평야가 있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다. 김포는 1997. 12. 17. 도시화 추세에 있는 안성군과 함께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1998년 4월에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김포군지회'는 초대 김기송회장을 선출하고 1984. 3. 15. 설치되었으며 3월 21일에 취임식을 열고 3월 28일에 개청과 함께 김포새마을지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지회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1980. 8. 14. 새마을지도자김포군협의회가 창립되었고, 1981. 9. 1. 김포군새마을부녀회가 창립되었다. 새마을지회 설치 이전의 '민간단체 새마을운동김포군협의회'는 협의회, 부녀회, 문고지부 등이 함께 모여 각각의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후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자립화를 위해 1996. 9. 16. 사단법인 '김포군새마을회' 설립하면서 초대 법인회장으로 권영선회장을 선출하였다. 1998. 4. 1. 시로 승격

됨에 따라 '김포시새마을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1. 09. 30. 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김포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김포군지회장(김포시(군)새마을회장)'은 김기송, 장상진, 이대하, 권영선, 성덕경, 심명섭, 김남섭, 유준학, 최종필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김포군(시)협의회장'은 이운교, 김기송, 조장현, 허근무, 장상진, 이강세, 이대하, 권영선, 성덕경, 이경택, 심형갑, 민석기, 이명우, 최종필, 윤행선, 정일성 회장이 역임했다. '김포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황옥자, 이기월, 정정숙, 허미연, 오무순, 오세월, 김의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김포시협의회장'에는 김영애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김포군(시)지부회장'은 신형식, 황연문, 이종성, 한종수, 이용준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권오윤, 김대형, 유경석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정일성, 지역회장 진기준, 부녀회장 김미경, 직 · 공장회장 임홍순, 사무국장 이춘애 등이 활동 중이다.

4. 첫 번째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김포군지회'는 1984. 3. 31. 개청 시 군청별관에서 시작하였다. 이 사무실은 '민간단체 새마을운동김포군협의회'가 1981. 1. 2. 개소하여 쓰던 사무실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새마을운동 자립화와 지속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이 새마을조직의 과제였다. 이에 김포군지회는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자체회관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권영선 지회장과 회장단들은 1994. 9. 5. 회관건립을 발의하고, 10. 26.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994. 11. 4. 군민회관에서 500여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새마을운동자립다짐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620만 원이나 모금되었다. 이 결의와 의지는 김포군 전 지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지도자들은 솔선하여 2년간 회관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사업으로 양말팔기를 시작하였으며 각 읍면회장, 전 · 현직새마을지도자들, 공무원, 시민들이 동참하여 1억 2,5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었다. 그로인해 지방비보조금 1억 1,400만 원을 얻어내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11월 17일에는 '회관가설계 및 공사비 추정'계획도 나왔다. 12월에 군 의회는 군유지 121평을 새마을회관 부지로 불하(拂下)한다고 의결하였다. 1995. 2. 15. 군유지 100평에 대한 매수요구가 있었고, 3월 9일에는 회관부지에 대하여 임업조합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다. 1995. 3. 20. 토지를 분할하고 지분을 확정하여 48번 국도변 장기리 348-17에 회관부지 100평을 확보하게 되었다. 자치단체는 토지만 불하해 주고 건축비는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에 지회는 건축자금 확보를 위해 1995. 4. 3. 중앙회에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1997에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중앙회에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지회의 입장은 불하 시기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자체 재원 2억 4천만 원 확보에 나섰다. 회장단과 읍면동 회장들은 결의를 다지고 1994년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혼신을 다해 기금을 모아 1억 3,4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았지만 건축비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하지만 1995. 6. 29. 부지 330㎡에 대하여 일단 권영선지회장 명의로 6,500만 원에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 23.에 착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축 재원마련이 막막하여 또 다시 기금모금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 1997년 2월까지 2차 모금으로 보증금을 포함하여 1억 6백만 원을 더 모았다. 이 무렵 지도자협의회의 5천만 원과 군비보조금 8,400만 원이 더해져 어느 정도 건축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건축 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하여 1996. 9. 16. 전국 최초의 사단법인 '김포군새마을회'를 설립하여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10여 개월 공사 끝인 1996. 10. 24. 김포군새마을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새마을회관을 준공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장기리 348-19에 위치한 김포군새마을회관은 대지 330㎡(약100평), 연면적 378㎡(약115평), 지상 3층 건물이었다. 투입비용은 부지매입비 7,093만 원, 건축비1억 2,400만 원과 부대비용 등 총 2억 3,502만 원이었다. 재원은

군비보조금 1억 2,100만 원, 자체기금 1억 2,102만 원과 임대보증금 등을 마련하여 충당하였다. 회관은 사무실, 재활용품 교환 및 알뜰상설매장을 개설하여 운동의 구심체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5. 두 번째 회관확보(신축)

'김포군새마을회'는 1996년 9월에 전국최초로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성남에 있는 새마을운동역사관에 기록으로 남게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다. 2003년 장기동 348-19번지에 위치한 새마을회관이 김포 한강신도시에 편입 · 수용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회장단과 지도자들은 이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기반을 조성할 기회라고 여겨 새로운 다목적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2007년 9월, 새마을회관 이전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3월에 월곶면 갈산리 465-31, 465-36, 465-37 등 3필지에 1,881㎡(약570평)을 11억 3,800만 원에 계약하여 회관건축 준비를 마쳤다. 2008년 7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는 건축허가 및 토지거래 허가 등 행정절차 후 2008. 9. 17. 토지등기를 완료하였다. 2008년 10월 착공한 공사는 10개월 후인 2009년 8월 건물 신축을 완료하고 2010. 3. 12. 건물 등기까지 마치게 되어 두 번째 회관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2010. 3. 26.에는 김포시새마을다목적회관 이전식 및 회관 3층에 새마을역사전시관 개관식으로 새로운 김포시 새마을운동 시대를 열게 되었다.

월곶동 465-30에 위치한 '김포시새마을회관'은 토지 3필지를 매입하여 합병하여 신축한 지상 3층의 건물이다. 총 투입비용은 22억 7,956만 원으로서 부지구입비 11억 3,800만 원, 건축비 10억 7,230만 원, 부대비용 6,926만 원이 소요되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보조금 10억 원, 자체자금 5억 9,956만 원, 임대보증금 3천만 원, 은행대출금 1억 8천만 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회관은 3억여 원의 시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내부인테리어 공사와 전국 지회에서 유일한 새마을회관 내 새마을역사전시관을 설치하였다. 새마을다목적회관을 통해 김포시새마을운동이 더욱 활성화 되고, 새마을정신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계승 · 발전시켜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아울러 김포시새마을역사전시관은 김포의 60~70년대의 생활상과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유물, 기록물, 변천사 등을 전시하고 있어 새마을 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는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지역내 학생들이 새마을역사관을 방문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가치로서도 재조명하게 되어 가고 있다. 2018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3,800만 원을 지원 받아 회관의 안전성과 기능향상을 위한 보수로 보다 좋은 회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5장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

1. ‘광명동굴’과 ‘KTX광명역’의 도시 ‘빛을 품은 광명’

‘광명’은 경기도 서부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과 북쪽은 서울, 서쪽은 시흥과 부천, 남쪽은 안양과 연접한 도시로서 거리상으로 보면 서울이나 마찬가지인 도시이다. 광명은 1970. 6. 10. 시흥군 조례 제199호에 의해 서면 광명리와 철산리를 중심으로 광명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 1974. 6. 1. 시흥군 광명출장소로 승격되어 7개분소를 설치, 1979. 5. 1. 서면이 소하읍으로 승격, 최종 1981. 7. 1. 법률 제3425호에 의하여 시흥군에서 분리되면서 소하읍과 광명출장소가 광명시로 승격되어 생긴 도시이다.

‘광명동굴’과 ‘KTX광명역’, ‘광명돔경륜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광명은 기아자동차와 첨단 테크노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산업도시로도 유명하다. 광명에는 1970년대 초반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금은 400여개의 점포로 전국 7위의 대표적 재래종합시장인 광명시장과, 1986년부터 108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시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1984년 당시에 경기도에서 여섯 번째 지역이었지만 타 시군이 급속히 발전하는 동안 지역이 작은 광명은 개발여지가 부족하여 현재 18개 행정동을 경기도에서 정 중간 규모의 도시이다. 또한 서울 지역번호 사용으로 생활권은 서울이나 마찬가지인 도시이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는 초대 안병한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되었고 3월 28일에 개청하여 광명시새마을운동을 총괄해 오고 있다. 설치 시부터 지금까지 동두천시와 함께 한 번도 명칭이 바뀌지 않은 시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9. 12. 18. 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광명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장'은 안병한, 김석천, 오현척, 이강우, 김광기, 조용호, 김충숙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광명시협의회장'은 권유안, 허무영, 권순영, 강장섭, 이영희, 송동수, 박재금, 정순묵 회장이 역임하였다. '광명시새마을부녀회장'은 이정선, 김순임, 한희심, 이인진, 김충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광명시협의회장'에는 최만승, 문용선, 권왕식, 남상경, 김복형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광명시지부회장'은 김재주, 김석천, 오현척, 최필원, 최옥선, 정경선, 성명순, 전영호, 윤명모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윤항근, 장순한, 박창호, 전동구, 문행식, 한상준, 백승대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장용성, 지역회장 김맹수, 부녀회장 김정진, 문고회장 윤명모 회장, 조연희 사무국장 등이 활동 중이다.

협력단체인 '새마을교통봉사대광명시지대장'에는 장영광, 전직지도자 모임인 '새사모회장' 에는 박기수회장이 활동 하고 있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는 1984년 개청 당시 광명시청 본관 안에서 사무국을 열고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후 계속되는 사회단체의 청사 밖으로의 이전 요구와 압박에 별관, 시민회관, 철산동 549번지 복개천으로 옮겨 다니며 설움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이에 회장단과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자립화 기반구축을 위해 자체회관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자고 결의하였다. 이후 1995년 총회에서 19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새마을회관을 마련한다는 각오와 결의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들은 회관마련을 위한 건립기금모금을 시작하였다. 전 · 현직지도자와 관심 있는 시민의 성금을 비롯한 판매사업을 실시하여 5천만 원을 모금하였으나 자체 새마을회관을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2000년 8월에 오현척지회장과 시회장단이 당시의 국회의원인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을 여러 차례 만나 새마을운동 활력화 및 자립기반 조성,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담당은 물론 시민을 위한 봉사의 전당인 새마을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하여 그해 12월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2001년 1월부터 3개월 여간 광명시 전역에서 회관 부지를 물색하던 중 광명7동의 세차장 부지인 개인 땅 413.90㎡을 찾아 적당여부를 논의하였다. 회장단은 2001년 4월에 그 땅을 대상 부지로 확정하고 5억 5천만 원에 계약하고 2001. 4. 11.에 등기를 마쳤다.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필요한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2001년 5월 새마을지회의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를 마쳤다.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들은 땀과 보람의 결실로 자체회관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확보된 자금으로 부지매입비를 집행하고 나니 남은 자금으로는 도저히 회관건축을 할 수가 없었기에 시장을 면담하여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해주면 다른 단체도 지원해야한다.'는 거절 답변에 낙담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길이 열리듯이 건축을 하기도 전에 입주할 임차인이 생겨 중앙회 지원금과 새마을지도자들의 모금한 성금, 임대보증금으로 신축을 시작하였다. 2001. 6. 8. 신축 기공식을 시작으로 3개월여의 공사 끝인 2001. 9. 28. 광명시새마을지도자들의 염원에 그야말로 광명의 빛이 내린 준공에 이르게 되었다. 회관건축을 진행하면서 오현척지회장과 시회장단들은 인근지회의 대형규모의 회관을 지으면서 건축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 진행하였으나 늘 이자를 갚느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적정건물의 회관을 짓고자 노

력하여 알뜰한 새마을회관을 갖게 된 것이다.

광명7동 743번지에 위치한 새마을회관은 대지 413.90㎡(약125평)에 건축면적 164.10㎡(약50평), 연면적 492.30㎡(약149평), 지상 3층 건물이다.

총 투입비용은 대지구입 5억 5천만 원, 건축비 2억 7백만 원, 부대비용 4,300만 원등 8억 원이 투입되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6억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제체기금 1억 원, 은행대출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회관은 소규모지만 내실 있고, 새마을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봉사의 전당인 광명시새마을회관을 마련하여 자립기반 조성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주민복지봉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운동의 선봉의 역할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어 광명시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16년에는 새마을회관이 노후하여 천정누수는 물론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회관보수 건축비 걱정을 하던 중 도 새마을회로부터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붕방수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피트 외벽을 철거하고 적벽돌로 보수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을 향상시켰다. 다만 아쉬운 점과 과제는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였는데 추후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법인설립을 비롯한 광명시 새마을가족의 소통의 전당과 지역주민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6장 새마을운동광주군지회 → 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

1. '남한산성'의 고장 '광주'

'광주'는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광주라 부르기 시작하였고 983년(성종2년)에 전국 12목을 설치할 때 광주목으로 지정되었다가 189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주군이라 부르게 되었다. 1963년 서울인구가 팽창하면서 4개면이 서울시로 편입되고 1973. 7. 1. 성남시가 생기면서 3개면과 중부면의 성남지역이 성남시로 편입되었고, 1989. 1. 1. 광주의 동부면, 서부면 등 합쳐져 하남시가 생기면서, 2001년 3월에 도농복합도시인 광주시로 승격하였다. 광주는 여주, 이천, 성남, 용인, 양평 등과 연접하여 일부 지역을 통합하고 분리하면서 성장해 왔다. 현재 경기도에서 16번 째 도시 규모로 10개 읍 · 면 · 동이 있는 청정도시이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광주군지회'는 초대 김사선지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되고 3월 30에 개청하여 새마을지회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2001. 3. 21.에는 시로 승격됨에 따라 '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법인은 설립되지 않고 있다. 2009. 12. 15. 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광주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광주군(시)지회장'은 김사선, 한상필, 이상원, 박종진, 허광회, 이영우, 손선기, 이상윤, 권혁구, 이길수, 임흥택, 김환회, 이원률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광주군(시)시협의회장'은 한상필, 박인용, 정운석, 양승균, 권혁구, 이만종, 유지황, 장치순, 이영배 회장이 역임했다.

'광주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조완호, 서병례, 장윤희, 김영화, 주화자, 진영숙, 박남숙, 윤재숙, 백희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광주군(시)협의회장은 이상원, 이상화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광주군(시)지부회장은 유충렬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박종민, 박승국, 이병일, 황익구, 이후영, 박승국, 양승호, 강승원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박광성, 지역회장 권이혁, 부녀회장 공석, 박선주 사무국장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광주군지회'는 1984년 3월 개청당시 광주군청에서 사무실을 열고 지회체제로 운동을 시작하였다. 지회는 자립할 수 있는 자체 기금조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1994. 3. 18. 국무총리령에 의한 '사회단체의 정부 보조금 삭감' 발표를 들어야만 했다. 이에 회장단과 새마을 가족들은 자성의 기회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를 마련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7. 7. 28. 새마을지도자들의 결집력으로 자립기틀인 재정자립은 물론 자체 새마을회관을 건립하자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시민을 위한 활동의 전당으로 자리 매김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시민의 대화와 토론의 장소로 활용할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회관건립 기금마련 위해 경안천 맑은 물가꾸기 사업, 양말판매사업, 휴경농지 경작사업 등을 전개하여 5천여만 원의 자체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확보된 기금을 바탕으로 회관건축을 추진하려 했지만 자금은 너무도 초라했고 기금모금이나 판매사업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회장단은 2001년부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새마을회관

건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며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도비보조금(시책보전금), 시비보조금, 중앙보조금 등 8억 7천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지만 당초 계획된 목적과 규모에 맞는 부지를 찾는 일도 그리 간단치가 않았다. 회관 부지매입을 위하여 권혁구지회장과 단체장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적당한 부지를 찾던 중 광주시 송정동에 적합한 개인 땅이 있어 이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송정동10-9, 11-4번지 유지 및 전 307평을 4억 2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2. 9. 18. 회장단 및 읍면동 회장 회의를 거쳐 회관설계를 확정하여 계약하였다. 지회는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2002. 12. 5. 광주시청 회계과 계약관리팀에 건설업체 선정을 위탁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하고 2002. 12. 10. 새마을회관 건축을 착공하게 되었다. 2003. 6. 7. 광주시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았으나 법인이 아니므로 대표자인 권혁구회장 앞으로 등기하여 6월 20일에는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었다. 드디어 2003. 7. 24. 광주시 새마을가족 모두에게는 일을 수 없는 감격의 개관식이 거행되어 자체 새마을회관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송정동 10-9에 위치한 광주시 새마을회관은 전체부지 약315평 중 대지 601.00㎡(약182평), 건축면적 264.00㎡(약80평), 연면적 797.76㎡(약242평), 지상 3층 건물이 되었다. 총 투입비용으로는 부지구입비 4억 2,389만 원, 건축비 4억 5,473만 원, 기타 부대비용등 총 9억 3,104만 원이 소요되었다. 재원은 9억 3,224만 원이 마련되었는데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보조금 3억 2천만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6,224만 원,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2018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회관을 전면 보수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을 대폭 증대시켜 새롭게 탄생시켰다.

광주시 새마을회관은 지방자치 시대에 재정자립 체제를 갖추어 새마을운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며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깊이 뿌리내려 지속 발전시켜 순수 민간 자율운동으로 자리 매김 하겠다는 광주시새마을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흘린 땀과 정성의 결실로 맺어진 영원한 둥지라 할 것이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7장 새마을운동군포시지회 → 군포시새마을회

1. 수리산 철쭉이 아름다운 '군포'

'군포'는 1979년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시작하여, 1989. 1. 1.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하였다. 인근에 안양, 안산, 의왕, 시흥 등과 연접하여 지역을 합병 · 분리하면서 성장해 오고 있다. 시 승격 당시 6개의 행정동으로 시작하여 현재 11개동으로 늘었으므로 약 2배가 성장한 셈이다. '방짜유기'는 군포의 명품 특산물이도 하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군포시지회'는 초대 이재룡회장을 선출하여 1989. 1. 1. 설치되어 유지되고 있다가 새마을운동 자립화와 지속화를 위한 자체 회관마련을 위해 1998. 10. 24. 심재극회장을 초대 법인회장으로 선출하고 사단법인 '군포시새마을회'를 설립하였다. 2013. 3. 12. 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군포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군포시지회장(군포시새마을회장)'은 이재용, 송요태, 최길락, 심

재극, 김수경, 이환봉, 김위환, 이환봉, 어수인, 서정규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군포시협의회장'은 최길락, 이세중, 한상헌, 이창환, 강복선, 이민구, 한항교, 최규대, 김용철, 서정규 회장이 역임했다. '군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서기자, 정재현, 이연희, 민경애, 염칠순, 정경숙, 원경애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새마을문고군포시지부회장'은 유병직, 오건환, 최학규, 전지희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김위환, 구태덕, 윤항근, 곽광순, 김종훈, 김병우, 오현철, 장문성, 오현철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공석, 지역회장 안정규, 부녀회장 최영자 사무국장 공석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행정임대)

'새마을운동군포시지회'는 1989년 1월 시작 당시 군포시청(당동 751-15)에 사무실을 열고 군포시새마을운동의 총괄 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후 새마을운동 자립화 기반구축을 위해 자체 새마을회관을 확보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무렵은 정부의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을 줄여가는 시기로서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회장단과 임원들은 새마을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려면 자체 회관확보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결의를 다졌다. 이 결의에 따라 1998년 4월에 기관단체장, 지역인사, 전 · 현직새마을지도자 등 40여명으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체회관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건립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마을가족들의 마음을 모아 자체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회관건립을 위한 자체자금 마련을 위한 생필품, 양말, 젓갈, 무공해 비누 등 판매사업과 동별 자체회비를 성금으로 모아 기금을 마련해 나갔다.

기본계획은 금정동에 개인 땅을 매입하여 1998년 6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신축을 마치고 입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원마련 등 여러 가지 형편이 마땅치 않아 사업승인, 기본설계, 시설설계, 기초공사, 골조공사, 내장공사 등을 2년간 더 연장하여 2001년 말까지 신축한다고 계획을 변경하였다. 회장

단과 임원들은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을 예견하고 속도를 내어 회관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1998년 5월에는 신축 설계도까지 마련되었다. 1998. 10. 20.에는 건축 부지를 취득하고 건축을 준비하였다. 또한 회관 신축 후 소유권 이전 등 자산처리를 위하여 1998년 9월에는 사단법인 '군포시새마을회'를 창립하여 심재극 회장을 법인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1998. 10. 24. 등기를 완료하였다. 건립추진위원회는 회관건립은 단 년도에 완성하기가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3개년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시비보조금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회장단은 회관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유선호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여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신축이 가능해졌다. 잠시 사무실은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밖으로의 이전요구에 따라 부득이 1999. 7. 27. 군포1동 729-16, 구.군포소방파출소 2층로 이전하게 되었다. 자금이 확보되어 2000. 9. 5. 회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드디어 2001. 12. 21. 새마을회관을 완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회관 명의를 새마을회로 등기하지 못하는 군포시 명의로 등록하게 되었다. 이미 이전을 위한 법인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이 결과는 두고두고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으며 결정적인 실수가 되었다.

금정동 872-5에 위치한 '군포시새마을회관'은 대지 667.70㎡(약202평), 건축면적 381.56㎡(약116평), 연면적 1,669.79㎡(약506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다. 총 투자비용은 26억 7,040만 원으로서 부지매입비 6억 8,536만 원, 건축비 19억 2,990만 원, 설계 및 감리비 5,514만 원이 투입되었고, 재원은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비보조금 12억 원, 중앙회 지원금 2천만 원, 자체기금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2019. 9. 2. 군포시는 새마을회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군포시새마을회와의 회관 위·수탁을 중단할 것을 통보해 왔다. 새마을회관은 군포시새마을지도자들의 판매사업과 기금모금 등 갖은 노력과 당시 유선호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도움으로 회관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양측의 양해 하에 명의만 군포시로 해 놓고 18년을 위·수탁으로 운영해 왔는데 소유권을 주장하며 위·수탁 운영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회관 명의를 새마을회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

고 있다. 군포시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자립형 새마을회관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사업 및 모금활동을 추진한 것이다. 새마을회관은 군포시새마을지도자들의 땀과 눈물과 정성이 담긴 군포시새마을운동의 성지이다. 이 회관은 활동의 근거지로서 무보수자원봉사 활동자의 대주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 센터의 장소이므로 당연히 새마을회가 소유 ·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8장 새마을운동이천군지회 →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1. '도자기와 쌀'의 고장 '이천'

'이천'은 936년(고려 태조)에 이천이라 칭하다가 남천군, 이천현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894 이래 이천군이라 칭하게 되었다. 1996. 3. 1. 도농복합시인 이천시로 승격되어 개칭되었다. 이천은 인근에 광주, 용인, 여주, 안성, 충북 음성 등과 연접하며 지역을 분리, 합병하면서 성장해 왔다. 시로 승격된 이후는 24개 읍 · 면 · 동을 관할하는 큰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이천군지회'는 초대 김백경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에 설치되었고, 3월 27일에 개청하면서 이천새마을운동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6년 시 승격으로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자산관리에 애로가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006. 8. 14.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이천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이천군(시)지회장'은 김백경, 김용한, 신광철, 이제연, 신광철, 조준택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이천군(시)협의회장'은 임완규, 박성길, 김종길, 최영상, 육재수, 홍흥곤, 조준택, 김동승 회장이 역임했다. '이천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김옥재, 원영순, 김관석, 장복자, 박필하, 이정임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이천군(시)협의회장'에는 유재우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이천군(시)지부회장'은 김태화, 이백우, 이세구, 임진석, 이현호, 하광호, 오광석, 육재수, 이종태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김경렬, 문윤규, 이승재, 이정호, 남민우, 김종훈, 곽영홍, 민호기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김동승, 지역회장 김종근, 부녀회장 권순영, 직 · 공장회장 이호경, 문고회장 이현호, 사무국장 이승희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매입)

'새마을운동이천군지회'는 1984년 3월 개청 당시 이천군청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천군의 새마을운동 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의 새마을운동조직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와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밖으로의 이전 계획에 따라 무려 여덟 번에 걸쳐 사무국을 이전해야만 했던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회설립 이전에는 초대회장인 김백경 회장의 자택건물에서 사무국의 업무를 시작했다가 3개월이 되었을 무렵 행정기관의 주문으로 분수대오거리 근방에 있던 사회복지관 문간방(약5평)으로 이전하였으나 그나마 사회복지관측의 비협조로 같은 건물 뒤편으로(약5평) 밀려나게 되었다. 2년 정도 후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구. 사방사업소 건물로 사무국을 옮기게 되었으나 몇 년 지나서 개인에게 매각되어 1층에서 2층으로 옮기고 건물주가 건물열쇠를 소지하고 있어 열어주고 닫고 하는 참으로 기막힌 서러움을 받았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차에 당시 이천읍사무소에 지회 사무실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전국선거가 끝난 그날 밤, 극비리에 사회복지관 회의실로 사무국을 이전하였다. 마치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

다. 반가울 리 없던 복지관측의 홀대와 다시 쫓겨날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사무국운영은 할 수 없었고 낮에는 지도자들이 1개월 정도 사무실을 지켜주었고 밤에는 숙직을 하면서 사무국을 보존하였으나 복지관측의 험악한 횡포로 사무국장이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는 뼈아프고 견디기 힘든 시간도 있었다. 그 후 사무국 이전의 불가피한 어려움을 관계기관에 수차례 토로하고 협의 끝에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사무국을 또 이전하게 되었다. 약 1년 후 시립어린이집 설립으로 지회사무국을 축소 이전해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또 1년 후 어린이집 확장결정으로 인해 아예 지회사무실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구.시민회관 지하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다시 2층에 위치한 선거 때만 운영되던 선거운영사무소로 사무국을 또 다시 이전하게 되었다. 아쉽고 한스러운 것이 있다면 수차례 사무국을 이전할 때 마다 중요보관서류 및 기물이 파손되고 분실되어 중요한 고증을 할 기록물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나날을 보내던 회장단과 새마을가족들은 1998. 2. 10. 정기총회에서 신광철지회장의 발의로 대의원 만장일치의 결의에 따라 수익형 자체회관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결의에 따라 2월 20일에는 회장단 및 동회장 등 31명으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자체회관 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99. 3. 4.에는 회관건축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력화 전진대회 개최하여 다시 한 번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진정한 고장사랑, 나라사랑 운동을 전개 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집인 자립형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목표는 창전동 산1번지 땅을 매입하여 대지 350평에 바닥면적 300평 정도의 3층 건물로 계획하였다. 재원마련 목표는 7억 원으로서 지방비보조금, 중앙회 지원금, 성금모금 이었다. 2001년도에는 회관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들은 우선 읍 · 면 · 동 협의회 운영지원금 일체를 3년간 회관건립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그 당시 읍 · 면 · 동 협의회 운영은 참으로 어려웠지만 임대농사, 도로변 풀 깎기 사업, 방역사업 및 계절 따라 생활물자 판매 등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였고 지회에서는 구. 시민회관 내

체육관에 롯데백화점 유치 및 각종 바자회 등의 수입금을 지원운영하고 있었다. 1999. 3. 10. 부터 마을의 전 지도자들은 양말 판매사업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무려 1억 2,400여만 원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천시 3천여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판매사업을 추진해 주었고, 출향인사와 상공인, 주민들은 십시일반의 성금을 내 주어 만든 정성 가득한 건립성금이었다.

한편, 2001. 8. 2. 이희규 국회의원과 지회 단체장, 읍 · 면 · 동회장단은 지역사회발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마을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정성으로 설득하여 그 해 12월 행자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배정받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여기에 힘입어 2002. 1. 21. 유승우 이천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립회관 건립으로 새마을운동의 정체성을 찾고 점차적으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어가는 분위기에 즈음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을 지속적 펼치기 위한 숙원사업임을 강조하여 시비보조금 5억 원을 확정 받고, 새마을중앙회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당시 새마을지도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확보 된 10억 7,400만 원의 회관확보재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자금으로 2002. 5. 6. 이천 시로부터 창전동 시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2002. 8. 20. 꿈에도 그리던 이천시새마을회관을 확보하게 되어 12월에 입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인이 설치되지 않아 회관의 등기는 2003. 2. 4.에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대표자 신광철'로 등기하게 되었다.

창전동 152, 152-1에 위치한 '이천시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278.6㎡(약84평), 건축면적 216.45㎡(약65.6평), 연면적 635.124㎡(약192.5평) 의 3층 건물이 마련되었다.

총 투입비용은 10억 2,662만 원으로서, 부지구입비 3억 4,546만 원, 건축비 5억 5,700만 원, 부대비용 6,769만 원이 투입되었다. 제원은 특별교부세 3억 원과 시비보조금 6억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과 자체기금 1억 2,786만 원,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이 마련되어 회관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2017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2,200만 원을 지원 받아 회관의 안전성과 기능향상

을 위한 보수로 보다 좋은 회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천시 새마을지도자들은 자체 회관건립을 위해 모두 혼신의 힘을 모아주었고 그 결과 자부심을 가질 만한 회관이 마련된 것이다. 새마을가족들에게 회관의 의미는 어렵고 서러웠던 애환이 서려있는 장소이다. 새마을회관을 통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19장 새마을운동오산시지회 → 오산시새마을회

1. UN군 초전비가 있는 '오산'

'오산'은 1949. 8. 15. 대통령령 161호 의하여 수원시와 화성군이 분리되면서 오산면이 되어 화성군에 속해 있었다. 1960. 1. 1. 오산읍으로 승격하였고, 1989. 1. 1. 오산시로 승격한 도시이다. 인근에 용인, 화성, 평택과 연접하며 지역을 분리하고 통합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 오산은 1989년 시가 되면서 6개 동으로 출발하였지만 의왕시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6개동이 있다. 법정동은 31개나 있어 잠재력이 큰 도시이기도 하다. 오산은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950. 7. 5. 미군과 북한군이 처음으로 전쟁한 죽미령 'UN군초전비'가 있는 곳으로서 백제성인 '독산성'과 권율 장군의 전적지인 '세마대'가 있는 곳이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오산시지회'는 초대 이용우 회장을 선출하여 1989. 1. 1. 설치되어 오산새마을운동의 본부 역할을 수행해 오다가 2008. 4. 15. 사단법인 '오산시새마을회'를 설립하면서 초대 법인회장으로 김선우 회장을 선출하였다. 2011. 12. 14. 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오산시의회에서 '새마을

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오산시지회장(오산시새마을회장)'은 이용우, 황갑룡, 주현중, 윤진국, 공흥식, 김선우, 이진운, 윤진국, 이희수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오산시협의회장'에는 이형재, 유재성, 윤익섭, 백기현, 최종준, 임성철 회장이 역임했다. '오산시새마을부녀회장'은 오화분, 김금자, 장기순, 장선이, 이명자, 유혜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새마을문고오산시지부회장'에는 주현중, 안성희, 김용석, 나지섭, 안성희, 이명자, 손진숙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이정재, 박종원, 박연원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한웅석, 지역회장 윤필중, 부녀회장 이순열, 사무국장 김애순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오산시지회'는 1989년 1월 화성군에서 분리되어 시민회관 내에 사무실을 열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오산시새마을회는 이용우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회원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가 함께 활동해 오고 있다. 23여년을 처음 시작한 사무실인 시민회관(사용면적 75㎡, 약22.7평)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늘 자립화 기반구축을 위한 자체회관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왔다.

첫 계획은 1995. 5. 24. 황갑룡지회장의 발의로 '회관확보 3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1996. 2. 20.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결의와 동의를 받아 본격적인 회관건립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결의에 따라 4월 12일에는 회장단과 임원진 등으로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하게 되었고 기금모금을 시작하여 연말에는 5천여만 원의 기금이 확보되었다. 1997. 5. 19.에는 부녀회도 6백만 원의 기금에 보탰다. 1997. 6. 11. 단체장 및 운영위원회는 모금액 중 5천만 원을 우선 예치하면서 계속 기금모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음 해 말에는 지도자협의회 모금 6백만 원도 예치되어 총 51,789천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회장단과 건립추진위원회는 1999년 3월에 오산시청에 오산동 6-10, 국유지 291평을 불하해 줄 것을 요청하고, 5월 15일에는 가설계까지 의뢰하였다. 계획된 회관의 규모는 대지 291평, 바닥면적 80평, 연면적 320평으로서 부지구입비 1억 7,400만 원, 건축비 6억 4천만 원 등 8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한 재원은 시비보조금 5억 원과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3억 원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관 확보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고 장애가 많아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2000년에 들어 계획을 수정하였다. 기왕 짓는 것인데 당초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자립화에 크게 못 미친다는 판단 하에 규모를 늘려 대지 200평, 연건평 500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자체회관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수정하고 2001년에는 반드시 회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자체회관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과 꿈으로 모두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갖은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기금모금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자체회관 건립은 기약 없이 세월을 보내야만 하였다. 지회는 2008. 3. 25. 김선우회장 임기 중에 자산 취득을 위해 먼저 사단법인 '오산시새마을회' 법인설립을 의결하고 법인 초대회장에 김선우회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회장단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 새마을회관 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시비보조금 10억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 5월 자체회관 확보를 위한 지도자들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고 2009년 9월에는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 하였다. 2009. 10. 12.에는 건추위가 물색해 온 회관부지 매입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의결을 마쳤으며, 2009. 10. 19. 원동 623-12, 1,603㎡를 새마을회관 부지로 계약하였다. 개인 토지인 전(田)을 샀기에 지목변경 허가를 받아, 11월 16일에 등기까지 마쳤다. 곧 이어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회관 신축을 시작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공사가 지연됨으로 신축을 할 수 없는 지 2011. 4. 22.

‘새마을의 날’이 법으로 제정된 축하 날을 맞아 윤진국 회장과 회장단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내빈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오산시새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2011. 5. 30.에는 소유권 등기까지 마치어 완전한 새마을회관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미진한 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2011. 12. 30. 오산시 새마을지도자 모두의 숙원사업인 새마을회관 공사를 마침으로서 새마을가족의 염원을 달성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원동 623-12에 위치한 ‘오산시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1,603㎡(약485평), 건축면적 296.67㎡(약90평), 연면적 882.21㎡(약267평), 지상3층 건물이다. 투입비용은 17억 7,062만 원으로서 부지구입비 7억 7,000만 원, 건축비 10억 672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재원은 시비보조금, 중앙회 지원금, 자체기금 등을 마련하여 충당하였다. 2019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4,350만 원을 지원 받아 회관의 안전성과 기능향상을 위한 보수로 회관의 기능이 많이 향상되었다.

어려운 과정 끝에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자립형 오산시새마을회관이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회관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긍지를 심어주고 자부심을 갖고 오산시 지역사회에서 ‘생명 · 평화 · 공경운동으로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에 나설 오산시새마을지도자들의 터전이 되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0장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

1. 백제의 수도 '하남'

'하남'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던 곳으로 역사 깊은 도시이다.

조선시대에는 광주부 관내 동부면이었다. 지방제도 개정으로 1895년에 한성부 광주군, 1896년에 다시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이 되었다. 1980. 12. 1. 동부읍으로 승격되고, 1989. 1. 1. 광주시의 동부읍(12개 리)과 서부면(11개 리), 중부면 일부(상산곡리) 24개 법정리 지역을 합쳐 10개 동으로 승격시켜 하남시가 탄생하였다. 2014. 6. 5. 풍산동을 미사강변도시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풍산동, 미사1동, 미사2동으로 분동하여 10개 동이 12개 동으로 조정 되었으며, 2015. 11. 5. 감북동을 위례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감북동, 위례동으로 분동하여 12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조정 되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는 초대 한상필회장을 선출하여 1989. 1. 1. 설립되었고 하남시 새마을운동을 총괄하는 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10. 3. 23.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하남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었지만 법인은

설립하지 못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장'은 한상필, 유기준, 안덕환, 이연우, 김진각, 최천기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하남시협의회장'에는 임현범, 유기준, 안덕환, 김승수, 노재평, 유병윤회장이 역임했다. '하남시새마을부녀회장'은 조완호, 허일행, 허애자, 박명옥, 윤미애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새마을문고하남시지부회장'에는 이열종, 박인철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김정렬, 최상조 국장이 재직하였다.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신 분은 김승수 도 협의회장이 있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유병윤, 지역회장 박만철, 부녀회장 신송연, 사무국장 강경조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행정임대)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는 최초 사무국 개청 시 하남시청 내에 20평 규모로 시작하였다. 1992년 하남시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는 덕풍동 426-10, 구. 시청 자리에 남아있게 되었다. 하남시새마을지도자들은 협소한 사무국을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전 · 현직 지도자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화합과 친목으로 결집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과 대화의 장소로 활용하며, 수익성 있는 회관건립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운동 단체로서의 폭넓은 봉사활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1999년 2월 20일 회장단 및 임시총회에서 최초로 '하남시새마을회관 건립(매입)계획'을 결의하여 하남시와 시의회에 새마을회관 매입협조 및 새마을지도자 회비, 동 바자회 수익금, 각종행사 찬조금 등 회관건립기금을 모금하여 1억 4천만 원의 기초자금을 모았다. 또한 2003년, 2004년, 2012년에 하남시에 회관건립 계획 자료 및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2005년에는 도의회에 새마을지도자들의 염원을 담은 회관건립 동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회관건립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

력하였으나, 하남시의 재정상황 및 시대 상황 등으로 회관건립 진행이 미진한 상태에서 2018. 11. 27. 하남시 신장로에 동사무소를 재건축하여 새마을지회와 타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신장로 228번길 5에 위치한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다. 이 건물은 하남시 소유의 건물로서 하남시지회는 지하 1층 163.19㎡(약49평)과 지상 1층 203.37㎡(약62평)을 무상임대 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전 ·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보다 폭넓은 새마을운동을 펼치는데 하남시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1장 새마을운동양주군지회 →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

1. 조선왕조의 산실 '양주'

'양주'는 삼국시대에는 매성군 또는 창화군으로 불렀으며 고려시대 부터는 지방 12목 중의 하나인 양주목으로 불리면서 오늘 날 까지 양주의 명칭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경기도에서 유서 깊은 고장이다. 1395 조선의 도읍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한양주민을 그 당시 견주로 옮기고 견주를 양주군으로 개칭하였다. 1922년 10월 군 청사를 주내면에서 시둔면(현.의정부시)로 이전하였고, 1963에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되었다. 1980년에는 남양주군이 분리되었고, 1981년 7월에는 동두천읍이 시로 승격 · 분리되었다. 2000. 9. 29. 군 청사는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2003. 10. 19. 포천과 함께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었다. 관내 회암사는 태조 이성계가 머무르던 곳으로서 조선왕조의 산실의 역할을 한 곳이다. 양주는 인근 포천, 의정부,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와 연접하며 일부 지역이 분리되기도 편입되기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 때 양주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지역이었다.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에서의 양주의 인구는 경기도에서 1위, 전국에서 12위에 해당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등을 배출하고 중소 지역이 되어 11개 읍 · 면 · 동을 관할하고 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양주군지회'는 초대 조태훈 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되었고 3월 21일 개청하면서 양주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였다. 2003. 10. 19.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면서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가 되었지만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지회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2010. 2. 23. 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양주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양주군(시)지회장'은 조태훈, 송동수, 김상헌, 정동화, 박형복, 유영도, 한관희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양주군(시)협의회장'에는 조태훈, 황춘성, 송동수, 권상내, 정동화, 박형복, 허운행, 권선욱, 박세근, 김광모 회장이 역임했다. '양주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유철이, 홍점분, 정명순, 박병화, 이대수, 송갑재, 서정순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양주시협의회장'은 유영도, 김학섭, 윤재원, 홍현덕, 임남순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양주군(시)지부회장'에는 조영순, 한승춘, 김철동, 이채용, 장영숙, 이인섭, 지수길, 김영권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이근칠, 이준우, 이기덕, 이종서, 이기덕, 장문성, 장수만, 유용희, 노현수 국장이 재직하였다. 새마을운동양주군(시)지회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시분은 송동수 도 협의회장이 있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김용춘, 지역회장 마현중, 부녀회장 양효숙, 직 · 장협의회장 김선정, 문고회장 이한우, 사무국장 최장규 등이 활동중이다.

4. 첫 번째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양주군지회'는 1984. 3. 21. 개청 당시 양주군청 내에 사무실을 열고 양주군 새마을운동을 총괄하는 본부의 역할을 해 왔다. 일찍이 초대 조태훈지회장과 회장단들은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에 맞게 새마을정신으로 자체

회관을 만들자고 결의하여 광적면 가납리에 부지를 임대하여 건축 부지를 확보하였다. 양주시새마을지도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자립형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기로 의결한 계획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고 1984. 6. 10.에 공사에 착수하여 5개월 만인 1984. 11. 30. 전국 최초의 자체 새마을회관을 확보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 제1새마을회관 건립은 초대 조태훈 지회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들의 불굴의 투지로 건립된 하나의 역사적인 작품이 되어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광적면 가납리 727-1번지에 위치한 양주군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50평, 건평 46평, 지상 2층의 마을회관 정도의 소규모 새마을회관이었다. 총 투입비용은 2천만 원이었으며, 확보재원은 1,950만 원으로 도지사 포괄사업비 8백만 원,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지원금 2백만 원,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1백만 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4백만 원, 양주군청 2백만 원, 임대보증금 250만 원이었다. 회관신축 당시 지회에서 대지를 마련하여 건축하는 것이 자체재산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고 대지를 임대하여 건축하고 건축 후 1층 임대보증금을 받아 대지를 1년 만에 매입하였다. 이 회관은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건축한 자체 새마을회관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도내에서 김포, 시흥, 화성 등에 이어 전 시군이 자체회관을 확보하게 된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아주 소박한 양주군새마을회관은 1984년 3월에 막 시작한 전국 시군구지회에게 자립의지를 심어 주었으며, 향후 닥쳐 올 시련을 예견하고 일찍이 모델을 보여준 회관이다. 지회개청 당시 대부분의 시군지회는 시군청사 내에서의 편리함과 예산부담이 없어 안주하던 시절이므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5. 두 번째 회관확보(매입)

전국 최초의 새마을회관은 20여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낡고 좁아 양주군 새마을운동의 구심체 역할이 부족하였다. 전국적으로 지회 사무실이 시군청사 밖으로의 이전 요구에 대해 타 시군지회가 전전긍긍 하던 시

기에 양주군지회는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도내 각 시군지회는 경쟁적으로 자체 회관을 확보하게 되었고 지회도 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 정동화지회장 직무대행은 양주군에 회관건립보조금을 신청하였다. 1998년 하반기에는 군청인근에 3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회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년여 동안 진도가 나가지 못하자 2002. 1. 14. 정동화 지회장과 회장단은 양주군새마을운동 발전을 위해서는 양주시청과 인접한 장소가 유리하다고 보고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총회를 거쳐 의결한 이전계획에 따라 기존 가납리 727-1소재 제1회관인 광적회관은 2002년 6월, 1억 7,200만 원에 공개 매각하였다. 6월에는 회정동 614번지 300평을 1억 5천만 원에 구입하고 7월에는 농지전용허가까지 받아 신축을 준비를 마쳤다. 이 무렵 지회는 2003. 10. 19. 양주군에서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면서 지회도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가 되었다. 이에 회장단과 지도자들은 새로운 회관의 확보가 더 절실하고 시급하게 되었다. 2003년 12월에 양주시로부터 시비보조금 3억 원을 지원받아 2004년 1월에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회관부지가 도시화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허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4년 3월에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은 도시화 예정지구이므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까지 사실상 착공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매입한 부지는 수용되었고 박형복지회장과 회장단은 다시 제2새마을회관 신축보다는 매입하자고 결의하여 후보 건물을 물색하였다. 2004년 9월에 소집된 읍면동회장단 회의에서도 회관매입을 연내에 완료할 것을 결의하고 2004. 10. 16. 임시총회를 열어 '건축계획을 매입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 새로운 계획은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도록 협의하여 부지 300평, 건축면적 250평을 신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16억 원이 투입될 이 회관은 부지매입비 9억 원과 건축비 6억 원, 부대비용 1억 원으로 계상하였다. 회관신축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받아 놓고 지지부진하자 2004년 10월에 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이월하지 못하여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 시장을 면담하여 '건축허가가 어려우니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자.'는 승인을 받고 건축에서 매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 11. 1. 주변에서 물색된 6개 건물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현지실사도 마쳤다. 심의결과는 2004. 11. 5. 남방동 9-28건물 매입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건물은 이후 2004. 12. 27. 신축된 건물이었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해 '새마을의 날'인 2005. 4. 22. 남방동 9-28, 지상 3층 건물을 7억 원에 매입완료하게 되었다. 부족한 재원은 농협에서 2억 1천만 원을 차입하여 충당하였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양주군지회'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양주시새마을회 대표자 박형복'명의로 자산을 등록하게 되었다.

남방동 9-28에 위치한 양주시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145㎡(약44평), 건축면적 71.58㎡(약22평), 연면적 231.06㎡(약70평), 지상 3층 건물이다. 총 투입비용은 7억 2,500만 원으로서 건물7억 원, 제잡비 2,500만 원과 임대보증금 9천만 원이었다. 재원은 시비보조금 3억 원과 중앙회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3,500만 원 등으로 부족한 자금은 2004. 11. 2. 이사회에서 대출을 승인받아 2개 농협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대출 받아 매입하게 되었다. 이후 2009년 회정동 614번지 토지보상비 약 9억 원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회관은 양주시청 정문 오른쪽이라서 시청에 다닐 때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 출입이 용이하여 업무편리성과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여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하여 비교적 임대료도 높은 지역이다.

6. 세 번째 회관확보를 위한 준비

두 번째 회관을 매입하여 양주시새마을운동의 본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시의 규모에 비해 회관이 작아 회장단은 다시 세 번 째 자립형 새마을회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2005년에 매입한 새마을회관이 비록 위치는 양주시내 행정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성 · 편리성 · 수익성 등은 양호하나 자연녹지상태에서 건축한 건물이라 면적이 협소하여 양주시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에 맞추어 행정타운 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회관을 마련하고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결의에 따라 2016. 2. 23. 백석읍 오산리 557-7번지에 660㎡(약200평)의 부지를 4억 5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후 2016. 3. 21. 한관희지회장 등 8명의 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총 공사비 4억 7천만 원 중 2억 3천만 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세 번째 회관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향후 양주시새마을의 추진 방향은 양주시 도시발전계획을 고려하여 현재 매입한 신축 회관부지와 기존의 회관을 매각한 기금을 통합하여 양주시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여 제3회관을 건립할 복안이다. 2020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2,500만 원을 지원 받아 회관의 안전성과 기능향상을 위한 보수로 회관의 기능이 많이 향상되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2장 새마을운동구리시지회 → 구리시새마을회

1. 동구릉의 '구리'

'구리'는 1914 구지면과 망우리를 합해 구리면이 되었다. 1963년 양주군의 구리 면이었다가 1973. 7. 1. 대통령령 6543에 의하여 구리읍으로 승격하였다. '구리'는 1980. 4. 1. 대통령령 3169호에 의거 양주군에서 분리된 남양주군에 소속되었다가 1986. 1. 1. 법률 제3798호로 분리되어 시로 승격하였다. '구리'는 남양주, 서울의 노원구, 중랑구 연접하면서 지역의 일부는 편입되거나 분리되면서 발전하면서 8개 동을 관할하고 있다. '구리'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가족들이 있는 동구릉이 있어 풍수지리설에 의한 명당이라 볼 수 있는 곳이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구리시지회'는 초대 김응춘 회장을 선출하고 1986. 1. 1. 평택시와 함께 시로 승격되면서 지회가 설치되었다. 지회가 설치되자마자 자립화에 대한 큰 과제가 눈앞에 닥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한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 이에 따른 기반구축을 위해 2009. 12. 4.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구리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2015. 12. 16. 법인 초대 회장으로 곽경국 회장을 선출하면서 '구리시새마을회'를 창립하고 2016. 3. 21.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3월 23일 법인등기를 마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구리시지회장(구리시새마을회장)'은 김응춘, 이상운, 손태일, 김항오, 김문경, 이장국, 이명우, 탄성은, 안정섭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구리시협의회장'에는 김준로, 윤석균, 김윤배, 변영옥, 박정구, 조병일, 신대섭, 한영한 회장이 역임했다. '구리시새마을부녀회장'은 조유라, 이점분, 손희자, 주윤순, 김정희, 허만정, 허영자, 김옥례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구리시협의회장'은 박영철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구리시지부회장'에는 손점석, 양태흥, 이영재, 강태환, 노염주, 서정자, 이우웅, 노염주, 김애란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안완식, 김용겸, 김대형, 이명순, 이현동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곽경국, 지역회장 백형록, 부녀회장 김광순, 문고회장 정준희, 사무국장 이명순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구리시지회'는 1986. 1. 1. 설치 당시 구리시청 내에서 사무실을 열고 구리시 새마을운동의 본부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자체회관이 없어 이리 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손태일 지회장의 발의로 회관건립이 시작되었다. 회장단과 지도자들은 모두 도내 전 시군이 자체회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구리만 회관이 없어 자존심도 상하고 불편하다고 호소하면서 같이 힘을 모으기로 결의를 다졌다. 1995. 2. 3. 동회장 합동회의에서는 회관 건립을 위한 수익사업 · 판매사업과 성금모금, 회비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기금 1억 원을 목표로 360여 명 지도자가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수익사업으로는 쥐똥나무 가꾸기 수탁사업,

수산물 판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기금을 모아 나갔다.

1996부터는 수택동 374-1 시민회관 2층으로 사무실을 옮겨 9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임대하여 활동하면서 자체회관 건립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한 동안 자체회관 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산 위기에 빠졌다. 오랫동안 실망과 낙담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2016년도부터 다시 회장단과 임원 등 20여명으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관확보에 주력하였다. 구리시에는 공유재산 불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몇몇 대상지를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구.교문2동 주민센터 부지가 물색되어 기 조성된 새마을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지회는 2018. 2. 2. 이사회에서 부지구입 건을 의결하여 공개 입찰된 교문동 799-1 공유재산 부지를 낙찰 받아 매입계약하게 되었다. 3월에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3월 23일에 등기를 마쳤다. 건립추진위원회는 7월에 착공하고 2019년 2월에는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지만 장벽이 많았다.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또 1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2019. 3. 6.에야 계획됐던 준공식이 아닌 착공식을 갖고 2019년 2월에 준공한다는 목표로 수정하여, 공개 입찰하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업체와의 잦은 마찰로 진도가 늦어져 또 다음 해에 준공하는 것으로 미루어 졌다. 결국 2020년 새마을운동 50주년에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자체 새마을회관을 확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구리시새마을회관 신축 · 확보는 경기도 내 전 시군 새마을회관 확보의 마침표가 되었다.

교문동 799-1에 위치한 '구리시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230㎡(약70평), 건축면적 230㎡(약70평), 연면적 599.20㎡(약182평),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다. 총 투입비용은 부지구입비 8억 9500만 원, 건축비 9억 800만 원, 부대비용 1억 원 등 26억 원이 투입되었다. 재원은 시비보조금 4억 4,300만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새마을기금 12억 1천만 원, 기타 자부담 1억 6천만 원 등 18억 1,30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구리시새마을회관은 경기도에서 가장 늦게 건립되었지만 행정 무상임대가 아닌 당당한 자체회관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게 되었고, 시민들에게는 주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3장 새마을운동안성군지회 → 새마을운동안성시지회 → 안성시새마을회

1. '안성맞춤'의 고장 '안성'

'안성'은 고려 초부터 천안부 안성현이 되었다가 1362년 천안부 안성현이 안성군으로 승격되었다. 안성군은 1896년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편입되었다. 1914년에는 안성, 죽산, 양성을 합해 안성군이 되었다. '안성'은 1937. 7. 1. 수원, 개성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3개가 읍으로 승격되는데 포함될 정도로 역사 깊은 고장이다. 1963. 1. 1.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 고삼을 편입하였고, 1998. 4. 1. 도농복합시로 승격하여 15개 읍 · 면 · 동을 관할하고 있다. 안성은 인근에 이천, 용인, 충남 천안 등과 연접하며 일부 지역을 분리, 편입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안성의 자랑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2006년부터 유네스코 공식자문협력기구의 CIOFF®의 공식축제로 지정 우리나라 전통을 소재로 한 가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안성군지회'는 초대 서용범 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되어 3월 31일 개청하면서 안성새마을운동을 총괄하는 본부로서의 역할을 수

행해왔다. 지회는 1998. 4. 1. 시로 승격하면서 '새마을운동안성시지회'로 개칭하였다. 지회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안성시새마을의 자산취득을 위해 2009. 10. 23. 사단법인 '안성시새마을회'를 설립하면서 초대 법인회장으로 남기철 회장을 선출하였다. 2010. 3. 31.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안성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안성군(시)지회장(안성시새마을회장)'은 서용범, 한창섭, 차주봉, 이성주, 김문수, 이수철, 남기철, 이용우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안성군(시)협의회장'에는 최왕기, 서용범, 정동욱, 백남정, 최상만, 오세훈, 이만호, 윤종섭, 유소형, 최흥식, 이용세, 함옥생 회장이 역임했다. '안성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방진신, 심명옥, 김용순, 이선자, 윤순모, 유정순, 원명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안성군협의회장'은 김성진, 허장회, 이상옥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안성군(시)지부회장'에는 홍석주, 한창섭, 이성주, 김원영, 유원종, 유영이, 심윤석, 김종열, 김대준, 김인숙, 이근옥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김태원, 김문수, 구태덕, 김종문, 김영웅, 윤원기, 이승휘, 유영일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김진원, 지역회장 김종인, 부녀회장 전선숙, 문고회장 박근미, 사무국장 이정형 등이 활동 중이다.

4. 첫 번째 회관확보(공공임대)

'새마을운동안성군지회'는 1984년 3월 개청 당시에 안성군청 내에 사무실을 열고 새마을지회로서의 활동을 수행해 왔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 불어 닥친 새마을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및 공공건물에서의 사회단체 이전 압박이 심해졌다. 이에 안성군새마을 가족들은 조속히 자체회관을 확보하여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에 따라 1998년 수립된 계획은 안성시 구포동 38에 새마을회관을 건축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한다는 것

이다. 계획은 시비보조금 11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 210평, 연건평 386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였다. 이 건물은 1999. 5. 10. 안성시 소유의 건물로 건축되기 시작하여 준공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건물을 자체회관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안성시지회는 2000. 9. 18. 이 건물에 입주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수익형 자체회관 확보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5. 두 번째 회관확보(매입)

첫 번째 회관은 활동하기는 좋았으나 자체회관이 아니어서 자율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형 자체회관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에 회장단과 새마을가족들은 새로운 새마을회관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결의를 다졌다. 회장단과 임원들은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활동에 매진하였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힘으로 상당부분 감당한다는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성금모금, 판매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에 대한 연장이었다. 자체회관 확보라는 안성시새마을가족들의 염원과 간절함으로 2억여 원에 가까운 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회관확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드디어 2014. 8. 5. 건물을 매입하게 되어 온 새마을가족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안성시 서인동 60번지(안성맞춤대로 1042-1)에 위치한 '안성시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면적 302.80㎡(약92평), 건축면적 231.2㎡(약70평), 연면적 1,285.135㎡(약389평), 지하 1층, 지상 5층과 인지동 390-1번지 119㎡(약36평)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있다. 총 투입비용은 17억 원으로서, 재원은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12억 5천만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1억 9,500만 원, 임대보증금 2억 5백만 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회관은 적은 자금으로 낡은 건물을 매입하여 손 볼 곳이 매우 많았다. 이를 보수하고자 도지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되었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도새마을회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회관을 전면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회관의 가치가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안전성과 기능성도 대폭 좋아지는 계기가 되어 지도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되

었다.

안성시새마을회는 2019. 8. 12. '안성맞춤 시니어클럽' 최종수탁 법인으로 선정되어 이 회관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10여 명의 직원 고용창출과 안성에 거주하는 550여명의 시니어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쳐 경제적 도움, 건강개선,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성취감 고취 등으로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형(우리 마을 환경지킴이, 우리 마을 3R 자원지킴이, 보건소 도우미), 사회서비스형(우리마을 시설도우미), 시장형(뚝딱 공작소)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 장소로 그 역할을 다해 가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4장 새마을운동포천군지회 →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 포천시새마을회

1. '산정호수와 명성산'의 '포천'

'포천'은 조선 초부터 포천이란 지명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인근에 가평, 양주, 의정부, 남양주, 연천, 동두천, 강원도 화천 및 철원 지방과 연접하며 오랫동안 지역을 분할 · 분리하거나 통합 · 합병하면서 성장해 오고 있다. 1973년 포천군 탑동리가 양주군 동두천읍으로 분리되었고, 1983에는 청산면이 연천군으로 가는 반면 연천군 관인면이 포천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지역발전이 인구증가와 도시형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2003. 10. 19. 양주와 함께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로 승격하여 14개 읍 · 면 · 동을 관할하고 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포천군(시)지회'는 초대 이용협 회장을 선출하고 1984. 3. 15.에 설치되어 3월 26일 개청되어 포천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2003. 10. 19.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로 승격되면서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로 개칭되었다. 이후 새마을운동 자립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06. 3. 31. 사단법인 '포천시새마을회'를 설립하여 강태선회장을 법인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009. 12. 2.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포천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포천군(시)지회장(새마을회장)'은 이용협, 허복남, 이부웅, 박기복, 김성균, 정관진, 박왕근, 강태선, 정종선, 최영주, 채희군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포천군(시)협의회장'에는 이용협, 허복남, 박호만, 박치백, 정관진, 이용근, 이기형, 박남진, 송광의, 김수철, 임동직, 구인서 회장이 역임했다. '포천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강명숙, 원음천, 송영희, 김옥자, 이윤중, 조영원, 이상태, 윤순옥, 이종숙, 최계옥, 김정숙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포천군(시)협의회장'은 최영관, 남순우, 송상국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포천군(시)회장'에는 양완종, 오신식, 윤영호, 강명숙, 홍만영, 장혜광, 박종구, 정해균, 안임자, 임종연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김영돈, 이현동, 이명순, 이현동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이경묵, 지역회장 양윤호, 부녀회장 차용숙, 직장회장 정미옥, 사무국장 이미경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포천군지회'는 1984년 개청 당시 포천군청 내에 사무실을 열고 새마을운동 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후 사회단체의 청사 밖으로 이전 요구에 따라 2000. 9. 31. 군내면 용정리 688, 종합운동장으로 사무국을 이전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들은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기반조성을 위한 자체회관 확보를 결의하고 실행하게 되었다. 2003년 7월 새마을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포천읍 신읍리에 대지 200평, 건축면적 90평, 지상 3층의 회관을 짓는다는 계획으로서 총 투입비용은 2억 7,600만 원이 예상되는바 재원은 시비보조금 1억 3천만 원과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9,600만 원

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추진진도는 그리 원만하지 못하였다. 그 사이 2004년에는 포천시의회청사 지하 1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좁은 공간에서 사무국, 이동도서관 도서 보관으로 14개 읍면동 회장단 월례회의 장소도 없는 열악한 환경과 자원재활용 및 인보사업 등 장소부재로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을 느낀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는 자립형 새마을회관을 건립하여 새마을운동의 자립기반은 물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지속적인 사업추진 고정장소, 농촌의 위기 극복 방안 모색 등 포천시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2004년 계획은 포천읍 신읍리에 대지 200평, 지상 3층 건물을 2억 7,600만 원으로 건축하되, 재원은 시비보조금과 중앙회 지원금, 자체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들은 휴경지 경작, 알뜰바자회 운동, 판매사업 등을 전개하여 3천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포천시에 새마을회관 건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 결과 시비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5억 원, 건축비 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다. 지회는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과 자산의 소유권 등기를 위하여 2006. 3. 31. 사단법인 '포천시새마을회'를 설립하였다. 회장단들은 확보된 자금으로 관내 적정 부지확보를 위해 여러 곳을 답사하고 조사하여 군내면 구읍리 644-1번지 등 답5필지 개인 땅 500평의 적합한 부지를 찾아 2006. 8. 29. 매입하기로 하였다. 부지는 5억 원에 매입하였고 건축비 4억 6천만 원 중 2억 1천만 원은 본예산, 2억 5천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본 부지가 포천시 신도시 개발에 포함되어 신축이 보류되게 되었다. 결국 구읍리 642-2 외 1필지를 부지로 선정하여 매입하게 되었다. 강태선지회장은 중앙회로부터 2007. 4. 3. 건립동의서를 받았고, 이 후 2008년 신도시에서 본 부지가 제외되어 10월 13일 건축허가를 받아 10월 27일 (주)정산건설과 공사계약을 하고 522.6㎡의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상 2층 회관을 건축하여 2009년 6월 1일 포천시새마을회관 준공식을 개최하고 2010. 3. 16. 등기를 마쳤다.

군내면 구읍리 642-2에 위치한 '포천시새마을회'의 규모는 대지 1,322㎡

(약400평), 건축면적 264㎡(약80평), 연면적 536.10㎡(약162평), 지상 2층이다. 총 투입비용은 총11억 1,383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5억 원, 건축비 5억 6,250만 원, 부대비용 5,154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재원은 시비보조금 10억 2,150만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4,233만 원으로 충당 되었다.

2018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3,900만 원을 지원받아 회관의 전면적 수리를 통해 회관의 가치가 월등히 향상되었으며 안전성과 기능성도 대폭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5장 새마을운동의왕시지회 → 의왕시새마을회

1. 국내 유일의 철도특구 '의왕'

'의왕'은 1963 의왕면이 되어 시흥군에 편입되었다가 1989. 1. 1. 의왕읍이 의왕시로 승격되었다, 의왕은 지난 20년간 오산시와 마찬가지로 6개동에서 출발하여 전혀 증가하지 않은 지역이다. 인근에 안양, 군포, 과천, 수원, 성남 등과 연접하여 있지만 지역규모의 변화가 가장 없는 곳 중에 하나이다. 왕송저수지 주변으로 철도관련 시설들이 많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철도특구로 지정된 시이기도 하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의왕시지회'는 초대 고경열 회장을 선출하고 1989. 1. 1. 설치 · 개청되어 의왕시새마을운동의 본부로서 기능을 유지되어 오다가 2010. 8. 30. 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의왕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었다. 2012. 6. 22. 이원홍 회장을 법인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사단법인 '의왕시새마을회'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의왕시지회장(의왕시새마을회장)'은 고경열, 주명종, 김기담, 김명선, 이주복, 최양호, 이원홍, 이종진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의왕시협의회장'에는 주명종, 이주복, 최양호, 이원홍, 김종문, 신동교 회장이 역임했다. '의왕시새마을부녀회장'은 안명자, 박광자, 김희순, 이순이, 김복기, 강분임, 이연주, 임영임, 김용란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의왕시협의회장'은 유신열, 최경선, 정진화, 김명선, 김기담, 공화영, 조복규, 박형구, 변현정, 장금자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의왕시지부회장'에는 김대식, 김대원, 이종진, 문성태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최은진, 문행식, 김선철, 심장래, 정영철, 안원영, 이후영, 정선주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김용란, 지역회장 안영순, 부녀회장 이혜숙, 직 · 공장회장 유금례, 문고회장 박찬분, 사무국장 문상윤 등이 활동 중이다. 전직 새마을지도자 모임으로는 새마을산악회 회장 이용화, 새동지회 회장 이주복 등도 현직 새마을지도자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여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행정임대)

'새마을운동의왕시지회'는 1989. 3. 1. '새마을운동시흥군지회'에서 의왕시지회로 분리되어 오전동사무소 내 사무실에서 터를 잡고 10여 년간 새마을활동을 남다른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추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위기가 찾아왔다.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었던 것이다. 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물론 동회장과 회원들 모두 상실감과 죄책감에 일손을 놓으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중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고자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았으며 너나 할 것 없이 솔선수범하며 내 일처럼 뛰어 다녔다. 이 기회에 새로운 자체회관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1999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회관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었다. 2002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체회관을 건축하여 새마을

운동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만들게 되었다. 1999. 6. 1. 김명선지회장은 자체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서를 의왕시에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해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물론 회관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하여 대지 100평에 연면적 200평,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회관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투입비용은 부지구입비 3억 원과 건축비 3억 7천만 원, 부대비용 등 총 7억 원 정도가 예상되었고, 재원은 시비보조금 4억 8천만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모금 1억 4,400만 원을 마련하여 충당하기로 하였다. 새마을지도자들의 회관건축에 대한 의지와 열정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들도 그동안 의왕시새마을이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을 인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었다. 이 무렵 사무실은 고천동 주민센터로 이전하였는데 열악한 환경이지만 새마을지도자간 화합과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삼고자 노력하였다. 이주복지회장과 새마을가족들은 새마을회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새마을회관 건립' 계획을 세우고 대외적으로 당위성을 알리며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주복지회장 및 회장단은 회관 건립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계획을 설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빠른 시일 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하여 10억 원 국비지원 약속을 받아 냈다. 또한 회관건립에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족한 자금 지원에 대하여 시장과 면담을 갖고 시 예산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이에 새마을지도자들은 자체회관 마련을 위한 성금모금과 판매사업을 추진하여 조금씩 기금을 모아갔다. 이렇게 잘 추진되어 온 준비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의왕시는 건물규모를 주변시설에 맞게 지하 없이 지상 3층으로 건립하자고 제안을 했고, 설계도면도 함께 작성되고 있었다. 회장단은 앞으로 지역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담당자를 설득 지하층 및 지상 4층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3년 3월 회관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04년 4월 무사히 준공할 수 있었다. 드디어 6월 4일에는 회관 준공식을 갖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새마을가족들은 큰 실망과 아쉬움을 갖게 되었다. 신축회관 명의를 새마을회로 하지 못하고 의왕시로 하였다는 것이다. 의왕시는 자체회관 건립기금 조성된 금액

이 1,500만 원 밖에 안 되어 최소 1억 원 이상 마련되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새마을가족들의 의지에 따라 지회장과 전 새마을지도자들이 합심하고 노력하여 확보한 새마을회관인데 매우 안타깝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의왕시와 3년 단위로 새마을회관 위 · 수탁협약서를 맺고 회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며 회관을 유지하게 되었다.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마을가족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등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회관을 확보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회는 훗날 자체새마을회관 명의회복을 대비하여 2012. 7. 4. 사단법인 '의왕시새마을회'를 설립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6장 새마을운동여주군지회 → 여주군새마을회 → 여주시새마을회

1. 신륵사와 도자기의 고장 '여주'

'여주'는 1469(예종1) 세종대왕 영릉을 여주로 이전하면서 여주목이 된 오래된 고을이다. 1914년 읍 · 면 통폐합조치로 여주면이 되었고, 1941년 여주면이 여주읍으로 되었다가

1963. 1. 1. 여주군이 되었다. 2013 도농복합시인 여주시로 승격되었는데 경기도 31개시군 중 28번째로 시가 된 막내 시로서 12개 읍 · 면 · 동을 가지고 있다. 여주는 인근 양평, 광주, 이천과 연접하여 지역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성장해 오고 있는 지역이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여주군(시)지회'는 초대 김종성 회장을 선출하고 1984. 3. 15. 설치되었고, 3월 27일 개청하여 새마을운동의 지회시대를 열었다. 지회설치 이전에는 1980. 7. 1. '민간단체 새마을운동여주군협의회'를 창립하여 각 단체들이 모여 각자 활동해 오다가 지회체제로 통합운영하게 된 것이다. 2007. 2. 2.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여주군새마을회'를 설

립하고 박종덕 회장을 초대법인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설립과 동시에 여주군자원봉사센터를 위탁 · 운영하였다. 2009. 12. 22.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여주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었다. 2013. 9. 23.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승격하여 사단법인 '여주시새마을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여주군지회장(여주군(시)새마을회장)'은 김종성, 임규철, 김효정, 이덕영, 허정님, 이종만, 박용일, 박종덕, 조성웅, 김인영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여주군(시)협의회장'에는 권혁준, 문무웅, 박용국, 윤세욱, 박용일, 이윤섭, 조종태, 임갑선, 원종욱, 유재종 회장이 역임했다. '여주군(시)새마을부녀회장'은 김희숙, 최경희, 이정희, 한금순, 길숙자, 박춘자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새마을문고여주군(시)지부회장'에는 김종성, 임규철, 유재식, 이광호, 정삼석, 박광정, 구은회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박사선, 변억식, 원용각, 곽재송, 김주남, 임용기, 조명식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고광만, 지역회장 박찬일, 부녀회장 임복순, 사무국장 강경원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여주군지회'는 1984. 3. 27. 개청할 당시 여주군청 내에 사무실을 열고 여주군새마을운동을 총괄하는 지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들어 자체 새마을회관 확보와 자립화를 위한 기반구축이 시작되었다. 이에 지회는 새마을역사관을 건립하여 여주군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보존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며, 새마을가족 만남과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자는 취지였다. 이 역사관은 새마을운동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을 영원히 기리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개발과 헌신봉사의 대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사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 자립형 자체회관 확보로 전환되었다.

1998. 3. 7.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회관 건립을 결의하여 4월 5일 임시총회에 새마을회관 건립 안이 의결되었다. 4월 6일부터 건립기금 목표 6천만 원을 책정하여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기금마련을 위해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고, 새마을알뜰마당을 운영하여 1998년 말까지 1천만 원을 조성하였다. 한편 중앙회는 1998. 7. 12. 제정한 새마을회관건립지원 규정에 따라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시군지회에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주기로 하여 좋은 기회였다. 1999년 말까지 계속된 양말, 미역, 새우젓 등의 판매사업과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여 자체기금 2,200만 원을 조성하였다. 이후 2000년 말까지 3,300만 원 조성, 2004년 말까지 5,600만 원의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등 매년 기금조성으로 회관건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갔다. 1999. 6. 30. 최종 건립계획은 대지 210평에 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26평, 지상 3층을 짓는 다는 계획이었다. 2000년 8월과 10월에는 특별교부세와 군비보조금을 받아 본격적인 부지매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회장단은 2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여주읍 창리 195, 개인 땅을 매입하기로 하고 2000. 11. 1. 회관 부지를 계약하게 되었다. 계약 후 11월 7일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11월 30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비 2억여 원이 부족하여 난감하게 되었다. 이에 회장단과 임원들은 2000. 12. 8. 회관건축을 건설회사가 아닌 지회에서 직접 공사하여 부족재원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일단 2000. 12. 23. 새마을회관 기공식을 하고 월동기라서 공사를 중지하였다. 2001년 1월에 새마을 회장단은 이규택국회의원, 박용국군수, 김효정도의원 등과 네 차례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마을회관을 훌륭하게 짓자고 의견을 모았다. 2001. 3. 2. 겨울이 지나자마자 공사를 재개하였다. 공사 중인 2001. 4. 9.부터 6월 14일까지 특별교부세, 중앙회 지원금, 군비보조금 등이 차례로 확보되어 순조로운 회관 건축을 뒷받침하였다. 여주군새마을회관은 1998년부터 발기되어 4년여 만인 2001. 7. 17. 완공하게 되었고, 7. 31. 새마을지도자 모두의 숙원 사업이자 새마을가족의 염원인 자체 새마을회관을 갖게 되었다. 2001. 9. 17. 소유권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여주읍 창리 195에 위치한 여주시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739㎡(약224

평), 바닥면적 135.78㎡(약41평), 연면적 407.34㎡(약123평),지상3층 건물이다. 투입비용은 4억 5,670만 원으로서 부지매입비 1억 4,330만 원, 건축비 2억 8,173만 원, 부대비용 3,167만 원이 투입되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1억 원, 군비보조금 2억 5천만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5,670만 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특이한 것은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이종만 지회장님이 직영으로 건축하여 공사비를 7천만 원 정도 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관이 미려하고 튼튼하고 꼼꼼히 잘 짓게 되었다.

2007. 2. 2.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과 자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위해 사단법인 '여주군새마을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2013. 9. 23.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승격하여 '여주시새마을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2001년도에 건축된 새마을회관은 여러 가지 노후 · 하자가 발생하여 2018년 시비보조금 7,800만 원으로 옥상방수, 화장실 내부 교체, 창호교체, 사무실 인테리어 등 공사하여 회관의 안전성과 기능을 보강하였다. 2020년에는 시비보조금 4,9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방시설, 1층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료하여 이로서 건물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여주시새마을회관은 활동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을 위한 활동의 구심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7장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 → 양평군새마을회

1.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건강도시 '양평'

'양평'은 1908. 9. 1. 양근군과 지평군을 합병하여 양평군이 된 역사 깊은 지역이다. 여러 차례 지명이 합병 분리되다가 1963. 1. 1. 행정구역 개편 시 다시 양평군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생태행복도시'양평은 전체면적의 70%가 산림지역이고 이중 50%가 1등급 수림자원으로 우수한 생태환경을 자랑하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가 있는 고장이다. 양평은 1999전국 최초로 자연환경보존조례가 제정된 청정지역이기도 하다. 인근에 가평, 광주, 여주, 남양주, 강원도 홍천 및 원주 등과 지역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오늘의 양평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는 초대 성기정 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되어 3월 27일 개청하면서 양평새마을운동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2009. 8. 5.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양평군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었다. 지회는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체제개편과 자체회관 등 자산 취득를 위해 2003. 4.

10. 사단법인 '양평군새마을회'를 창립하고 이희영 회장을 법인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4. 23.에 등기를 마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장(양평군새마을회장)'은 성기정, 권오균, 안광원, 이평호, 양승우, 김광재, 권태룡, 이희영, 최종희, 윤광신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양평군협의회장'에는 김한수, 성기정, 최윤근, 이인용, 서항석, 이재영, 황근수, 박장수, 전경복, 이종식, 신창선, 홍성표, 권덕명 회장이 역임했다. '양평군새마을부녀회장'은 홍영후, 김영희, 김성분, 박찬일, 최종희, 박명환, 이인숙, 이용기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양평군협의회장'은 민관식, 김주흥, 양승우, 장재찬, 김유택, 이명희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양평군지부회장'에는 맹득영, 권오윤, 안광원, 김광재, 박유선, 고건덕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김영걸, 윤호선, 김명상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홍성표, 지역회장 김성은, 부녀회장 강영혜, 사무국장 전영희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매입)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는 1984년 3월 개청 당시에 군청 안에 사무실을 열고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90년대 초반에 닥친 새마을운동 자립화와 사회단체의 군 청사 밖으로의 이전 방침과 요구에 따라 부득이 1997. 1. 1. 군민회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권태용지회장과 회장단들은 1997. 3. 10. 자체회관을 건립하자는 발의를 하고 결의를 다졌다. 곧 이어 '양평군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새마을지도자 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자체기금을 모으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1997. 3. 20.~5. 30. 까지 관내 2천여 전 · 현직지도자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모금을 펼쳐 7,200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지도자들은 공사가 시작되면 모두 벽돌 나르기라도 우리 힘을 보태자고 자체회관의 꿈을 그리며 결의하였다. 그

러나 회관건립은 만만치 않은 자금이 필요한데 비해 기금 모금은 너무 적었다. 이에 새마을가족들은 한 번 더 모금하기로 하고 1998. 7. 1.~8. 30. 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6,300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기에 이르렀다. 1998. 10. 1.~11. 30. 까지는 판매사업을 통한 수익금 5백만 원을 적립하고, 1999. 5. 6.~7. 6. 까지는 공동판매 수익금 1천만 원을 적립하는 등 자체회관 확보를 위한 피땀 어린 노력이 차근차근 계속되었다.

회관확보에 따른 자금은 약6억 원이 필요했다. 대지구입비 2억 4천만 원, 건축비 3억 6천만 원으로 계획하였고, 재원은 군비보조금 3억 6천만 원, 중앙회지원금 5천만 원, 자체 기금모금 1억 9,400만 원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계획에 따라 모아진 자금을 바탕으로 1999. 6. 15. '양평군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다시 발족하여 박차를 가하였다.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동안 1999년 6월 부터 2002년 5월 까지는 지속적인 모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추위는 여러 부지를 물색하다가 2001년 6월에 적정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당시 건축목표는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약6억 원을 확보하여 대지 300평, 건평200평, 지상 2층의 소박한 새마을회관을 지어 직판장, 재활용품센터, 예식장, 새마을도서관, 사무국, 회의실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만들었다. 6억 원은 군비보조금 3억 6천만 원, 자체기금 2억 4천만 원 이었다. 그러나 회관건축은 안타깝게도 재원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게다가 양평군 새마을의 위상으로 보아 회관이 작이 큰 보탬이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 · 추진하였다. 결국 건축에 따른 어려움과 비용 등을 감안하여 차라리 매입하자는 결의 따라 기존건물을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보다 10억 원 정도 더 추가되는 회관을 2004년 초까지는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계획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었는데 총 15억 4,3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회관매입은 2002년 3월부터 시작하였다. 드디어 이희영지회장과 건추위는 2003. 4. 14. 양평군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양평읍 양근리에 기성 6층 건물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27. 새마을회관 매입을 위한 이사회에 대상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건물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매입을 승

인 · 결정한 것이다. 2003. 9. 19. 건립비지원을 신청하고 2003. 9. 30.에 양평군 새마을가족 모두의 간절한 소원인 양평군새마을회관을 확보하고 군민회관에서의 더부살이를 청산하고 어엿한 새마을회관의 주인이 되어 2004. 1. 8.에는 새로운 회관에 입주하게 되었다.

양평읍 양근로 174-1에 위치한 새마을회관은 회관은 양평군청과 양평역을 지근거리에 둔 양평읍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회관의 규모는 대지 304㎡(약92평), 건축면적 211㎡(약64평), 연건평 1,445㎡(약438평),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다.

총 투입비용은 15억 4,300만 원으로서 토지 · 건물매입 14억 원, 부대비용 1억 4,300만 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보조금 7억 5천만 원, 중앙회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7천 8백만 원, 임대보증금 1억 6,500만원으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회관건립을 위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열정의 산물이며 이를 마련코자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하며 얻은 아주 작은 정성들의 결정체였다. 또한 회관 건립을 위해 제8, 9대 이희영 지회장과 전경복회장, 최종희회장 그리고 읍면회장들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자체 양평군새마을회관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양평군새마을운동은 안정적인 지역새마을운동을 펼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 새마을운동의 실체인 회관을 가진 지도자들의 높은 자긍심으로 현장이 있는 새마을운동, 지역실정에 적합한 새마을운동을 펼쳐 나왔으며 오늘날 “역시 새마을이다”라는 평판을 일구게 되었다. 새마을회관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구심체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8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2천만 원을 지원받아 회관의 안전성과 기능향상을 위한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보다 좋은 회관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8장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

1. 아름다운 단풍의 도시 동두천

'동두천'은 '하천이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있다.'하여 동두천이다. 소요산의 단풍이 아름다운 도시로서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에 연접하여 서로 지역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오고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도시이다. 1963 양주군 이담면이 동두천으로 개칭되었고, 1981. 7. 1. 동두천읍이 동두천시로 승격하며 독자적인 지자체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24%, 미군공여지 42%등 오랫동안 우리나라 안보를 위하여 희생되어 온 지역으로서 발전이 매우 더딘 곳이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는 초대 이철동 회장을 선출하고 1984. 3. 15. 설치되어 3월 31에 개청하여 동두천지역 새마을운동을 총괄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2009. 12. 24. 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동두천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었다. 새마을운동 시군구지회 설치 시 도내 8번째 도시였는데 2020년 1월 현재 28위권으로 그 위상이 매우 낮아진 지역으로서, 타 지역 발전에 비해 멈추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장'은 이철동, 이원록, 박상현, 이채혁, 김경수, 김경차, 김명임, 양순종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동두천시협의회장'에는 허상준, 원유혁, 김일태, 신현우, 장호순, 홍종서, 홍순연, 유호정, 윤광회, 박민우 회장이 역임했다. '동두천시새마을부녀회장'은 김군자, 김인숙, 고순자, 김명임, 이향자, 박연순, 손복자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동두천시협의회장'은 이원록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동두천시지부회장'에는 조규진, 정선채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김재훈, 이종서, 이기덕, 이종서, 송봉섭, 유광혁, 손덕환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윤광회, 지역회장 김석훈, 부녀회장 박순호, 사무국장 김종윤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는 1984년 개청 당시 동두천시청 내에서 사무실을 열고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본청 밖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자체회관을 건립하여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2001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부지 100평에 건평 150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 신축이었다. 총 투입자금은 3억 8천만 원으로서 시비보조금 2억 5천만 원과 자체기금 1억 5천만 원, 기타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를 목표로 회장단과 동 회장들은 회관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판매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지지부진하였다. 다시 계획을 조정하여 자체회관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001. 10. 18.에 동두천시로부터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가 부지를 수증 받아 신축하게 되었다. 2002년 박차를 가해 2002. 9. 11.에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 새마을회관을 준공하고 2002. 10. 8.에는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 대표자 김경수'로 등기를 마쳐 새마을 가족들이 소원하던 자체 새마을회관을 갖게 된 것이다.

생연동 714-13에 위치한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 새마을회관'의 규모는 대지 418.4㎡(약127평), 건축면적 249.23㎡(약76평), 연 건평 415.29㎡(약

126평), 지상 2층 건물이다. 총 투입비용은 4억 5,817만 원으로 대지구입비 1억 9,567만 원, 건축비 2억 6,551만 원, 부대비용 1,783만 원이었고, 재원은 시비보조금 3억 원과 중앙회지원금 5천만 원, 그리고 자체기금 9천만 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2010. 12. 29.에는 대지 5.7㎡(약2평)을 합병하였으며 2019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5,700만 원을 회관보수비를 지원받아 회관의 안전성과 기능을 향상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29장 새마을운동과천출장소지회 → 새마을운동과천시지회 → 과천시새마을회

1. 서울대공원과 국립미술관이 있는 문화 관광도시

'과천'은 1911. 4. 1. 과천군 7개 면 55동리로 편제되어 있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로 시흥군 과천면이 되었으며, 1982. 6. 10. 과천면 6개리를 관할하기 위해 과천지구출장소를 설치하였고, 1986년 구리읍 · 평택읍 · 과천출장소 · 반월출장소가 각각 구리시 · 평택시 · 과천시 · 안산시로 승격되었다. 과천은 성남, 안양, 의왕, 서울과 연접하며 성장해 왔다. 이 시기 정부종합청사 4개동이 완공되어 정부부처 이전이 본격화되어 과천시가 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이후 과천대공원과 서울랜드 건립 그리고 서울 경마공원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 이전, 과천과학관 개관으로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과천시는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에 위치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지식정보타운, 복합문화관광 단지 등도 조성되고 있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새마을운동과천출장소지회'는 초대 이승조 회장을 선출하고 1984. 3. 15.

설치되어 3월 30일에 개청하였고 과천새마을운동을 총괄하였다. 출장소가 86. 1. 1. 시로 승격되면서 '새마을운동과천시지회'로 변경 설치되었다. 이후 새마을운동 자립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자체회관 확보를 위한 준비를 위해 2002. 11. 25. 사단법인 '과천시새마을회'를 창립하고 신학수 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010. 4. 8.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과천시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과천출장소(시)지회'(과천시새마을회장)'은 이승조, 김병수, 김해경, 이태종, 석용훈, 신학수, 이원구, 신학수, 김승렬, 김진웅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과천시협의회장'에는 이승조, 김병수, 강신태, 이태종, 석용훈, 최명락, 이원구, 고정수, 조훈수, 장종근 회장이 역임했다. '과천시새마을부녀회장'은 김순자, 강명희, 김정순, 유연자, 이석연, 권혁희, 이희자, 박정옥, 조송월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과천시협의회장'은 이용산, 김영준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과천지부회장'에는 김종렬, 안석준, 김석기, 김정석, 조훈수, 김승렬, 박건길, 김진웅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양종찬, 윤주옥, 이한억, 정종태, 임건식, 어윤강, 박만균, 한갑수, 박승국, 김지훈, 백남욱, 송수빈, 장수만, 박종대 국장이 재직하였다. 과천시새마을 회장단 중 도지부 회장단을 역임하신 분은 김순자 도 부녀회장이 있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장종근, 지역회장 공석, 부녀회장 차연경, 문고회장 정원기, 사무국장 이남경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과천시지회'는 1984. 3. 30. 개청 당시 과천시청 내에서 시작하였다. 이는 지회설립 이전에 민간단체 새마을운동과천시협의회가 과천면사무소 안에서 시작하다가 이전한 것이다. 이후 사회단체는 본청에서 이전할 것을

요구받아 시민회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2000년 초에 회장단과 동회장들은 계속되는 재정자립과 공공건물에서의 이전 압박으로 자체회관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신학수지회장과 과천시새마을지도자들은 지속적인 새마을운동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자립형 새마을회관을 짓기로 하고 2000. 3. 17. 회장단 간담회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발의하였다. 연달아 3. 20.에는 지도자협의회, 3. 23. 부녀회, 3. 28. 지역 · 부녀 연석회의를 연달아 열고 회관건립을 결의하면서 구체적인 회관건립 세부계획을 의결하였다. 2000년 4월부터 3개년 모금활동 자체자금 마련을 위해 4월부터 양말판매 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 1월까지 김 판매사업, 성금모금 등을 통해 1억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회관확보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에 전국에서 유례없이 신학수지회장이 거금 1억 원을 출연하여 회관 건립비에 보태기로 하였다. 회관건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유지를 양여 받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여 과천시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시키며 무상양여를 요청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자 회관 건축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준비하여 2002년 11월에 회관건립을 위한 법인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나서, 2002. 12. 10. 건립부지 양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짓게 되었다. 2003. 11. 11.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들은 회관건립을 위한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2003. 12. 시보조금이 결정되면서 2004년 1월에 기본예비설계준비, 2월 16일에는 실시설계 및 감리계약, 3월 4일에는 건립부지 양여 신청, 4월 9일에는 건립 시 대지사용 승낙 등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가게 되었다.

'과천시새마을회'에게 2004년은 아주 의미 있는 해가 되었다. 2004. 4. 20. 건축 토지양여 및 건축허가 신청하여 5월에 허가가 나왔다. 8월 7일에는 제7차 이사회에서 건설회사 선정, 8월 17에는 공사를 계약하여, 8월 25일 기공식을 갖고 12월 20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드디어 2005. 2. 14. 문원2단지 새마을회관 건축부지 무상양여 확정통보를 받아 대지를 취득하였고 2005. 3. 4. 과천시 새마을가족의 꿈과 희망인 과천시새마을회관을 확보하게 되었다. 과천시새마을회관은 문원동 115외 4필지를 합병하였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

중 근린생활시설 지역으로서 문원동 2단지 나들목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과천시 단독주택 세대 중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으며, 문원동 복지타운 건설 계획이 있어 자산가치 증식, 시소유부지로서 시내버스종점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주민 접근성이 좋아 상업 업무시설의 임대운영에도 반응이 좋은 곳이다.

회관의 규모는 대지 735㎡(약223평), 건축면적 337.63㎡(약102평), 1,151.35㎡ (약339평), 지하 1층 지상 3층 이다. 투입비용은 총 10억 7천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건축비 10억 1,300만 원, 부대비용 5,700만 원이었다. 재원은 총 11억 7,003만 원으로서 시비보조금 9억 5,554만 원과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1억 6,449만 원 등으로 충당하였다.

새마을회관 확보 과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지만 과천시와 관계자들의 협조, 새마을지도자들의 간절한 바램과 기금마련을 위한 끈질긴 노력, 무엇보다도 신학수회장의 리더십과 많은 출연금 등에 힘입어 이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2,100만 원의 회관보수 공사비를 지원받아 건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능을 향상시키게 되어 새마을가족과 시민들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30장 새마을운동가평군지회 → 가평군새마을회

1. 3다 3청의 고장 가평

가평은 산, 물, 잣이 많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풋풋한 인심이 넉넉한 '3다 3청'지역으로서 수도권 최고의 1일 관광지이다. 일찍이 신라 경덕왕 때(757) 때부터 가평으로 불리며 강등과 승격을 거듭하다가 1896 가평군으로 독립하여 지금에 이르는 역사 깊은 고장이다. 경기도의 남양주와 포천, 양평을 연접하며 지역을 주고받아 왔는데 강원도 춘천, 홍천, 화천과도 이웃하고 있다. '아침고요수목원'과 '자라섬', 유명산 단풍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지역이다.

2. 지회설치와 법인설립

가평군새마을회는 초대 남정석 회장을 선출하고 1984년 3월 15일에 설치되어 1984년 3월 29일 가평군청 내에 사무국을 열고 '새마을운동가평군지회'로 출발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90년대 중반부터 닥친 정부의 정액보조가 중단되는 시점에 군청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사무국을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협소한 사무실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을 맞이하기가 부끄럽고 안타까웠다. 또 다시 군청과 가까운 시내에 위치한 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사회단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었다. 사무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

고 활동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다. 회장단과 임직원들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립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체제정비에 들어갔다. 2009. 4. 7. 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가평군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자체회관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창립총회를 열어 결의하여 2009. 6. 30. '사단법인 가평군새마을회'을 설립하고 초대 법인회장에 하철호 회장을 선출하고 조직체제를 완비하였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가평군지회장(가평군새마을회장)'은 남정석, 장기찬, 한규평, 최영도, 성창모, 양재춘, 최승수, 조정배, 하철호, 허금범, 추선엽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가평군협의회장'에는 남정석, 이상우, 송광록, 장학순, 유광열, 이상옥, 이수근, 장동구, 조영태 회장이 역임했다. '가평군새마을부녀회장'은 양정숙, 김옥향, 지옥희, 고영숙, 안정남, 어옥자, 이순덕, 김금순, 신영옥, 김금윤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새마을문고가평군지부회장'은 김문재, 신현정, 최영도, 한규평, 김명수, 장승렬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사무국장에는 신득성, 장복희, 김회권, 이연화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새마을회장 김성우, 지역회장 염철교, 부녀회장 이영옥, 사무국장 장지안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자립형으로 자체회관 확보는 전 새마을가족의 염원이었지만 가평군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요원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도내 타 시 · 군이 새마을회관을 신축 · 매입 등 자체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에 자극을 받은 회장단은 2007년 정기총회 시 새마을조직의 자율 추진역량 제고 및 재정적 자립기반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립형 새마을회관건립 추진을 결의하게 되었다. 새마을회관을 짓기 위한 자금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새마을

가족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으기로 하고 행동에 옮겼다. 무엇보다도 새마을회관 만은 자조 · 자립의 새마을정신으로 새마을지도자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두 동의하였다.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 가평군의 대표 농산품인 잣을 판매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면서 가평군 새마을지도자들의 의지를 한데 결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회관 건축에는 만만치 않은 자금이 소요되는 터이라 부득이 지방비보조금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회장단들은 경기도와 가평군에 새마을회관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 건의하여 2010. 2. 11. 특별교부세 9억 원, 가평군 3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나 부지는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모아진 기금으로는 턱도 없어 당시 새마을후원회장이었던 허금범 회장에게 부지 구입비를 대여 받아 2010. 4. 20. 공설운동장 인근에 개발예정 중인 가평읍 대곡리 318-4 주거지역을 새마을회관 부지로 확정하고 공유 지분 1,545㎡분의 915㎡(약277.3평)를 2억 4,1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2011. 3. 4.에는 공유자(허금범)과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치고 2011. 6. 13.에는 인근 318-8 대지 81㎡(약24.5평)를 매입하여 합병하였다. 이후 대곡리 303-3 대지 407㎡(약123.3평)도 매입하여 합병하게 되었다.

준비된 부지는 1,403㎡(약425.2평)이었는데 부지 인근에는 아파트 입주 등 신도심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위치가 좋았다. 2011. 5. 25. 새마을회관 건립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계약하고 가평군으로부터 새마을회관 제1차 민간자본보조금 14억 원을 지원받아 신축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진입로가 없어 가평군 소유인 진입로 부지 112㎡(약34평)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 대지면적이 약간 넓어지게 되었다. 2011. 6. 27. 가평군으로부터 2차 보조금 9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2011. 12. 27. 가평군 새마을가족들의 염원이며 숙원사업인 가평군새마을회관 착공식이 열렸다. 회관은 2년여 만인 2013. 12. 11.에 4천여 새마을가족의 염원이던 자체 새마을회관 준공을 하게 되었다. 회관 준공으로 전 지도자들의 사기는 충천하였으며 모두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도움의 장으로서의 새마을회관으로 활용할 것을 다짐했다. 회관은 운동의 영속적 발전과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신축한 회관의 규모는 대지 1,515㎡(약459평), 건축면적 562.98㎡(약170평), 연면적 2,216.76㎡(약672평)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되었다. 총 투입비용은 대지구입비 3억 8천만 원, 건축비 44억 5천만 원, 제잡비 등 48억 8,414만 원이 소요되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30억 원, 군비보조금 12억 4,763만 원, 중앙회지원금 5천만 원, 자부담 2억 원 차임금 3억 8천만 원으로 총48억 7천여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당초 회관건물 1,2층은 목욕탕, 3층은 새마을회, 4층은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목욕탕을 새마을이 직접 운영하려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하도록 의결하였다. 매입하지 않고 신축하였기에 그 과정에서 잡음도 많았고 임차인과의 분쟁도 많아 2019년 말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도비보조금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옥상방수 등 내 · 외부 회관안전 및 기능성을 보강하여 훌륭한 회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평군 새마을가족들은 타 단체의 귀감이 되는 단체의 회원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31장 새마을운동연천군지회 → 연천군새마을회

1. 구석기 유적의 고장 연천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연천은 임진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경기도의 최북단 지역으로서 포천, 파주, 양주, 동두천, 강원도 철원, 황해도와 연접하면서 지역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오고 있다. 연천은 경기도 뿐 만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서 이미 396년경 고구려시대부터 연천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오래된 지역이다. 비록 인구는 5만이 넘지 않는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지역이지만 역사로는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서 연천은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해 온 지역이라 할 수 있다. 1963. 1. 1. 법률 제1178호로 연천군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휴전선 32km를 북한과 접해있는 연천은 남한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8년에 한탄강 유역에서 발견된 '전곡리 유적'은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많아 우리나라의 선사지역 연구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2. 지회설립

'새마을운동연천군지회'는 초대 김종관 회장을 선출하고 1984. 3. 15.에 설치되어 3월 29일 개청하면서 활동이 시작되었다.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새마

을지회 설립 이전에는 각 단체별로 활동하다가 '민간단체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되어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1984년 지회가 설치되고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지부 등이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새마을운동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었다. 2004. 12. 27. 회관을 신축하고 나서 2005. 12. 10. 사단법인 '연천군새마을회'를 창립총회를 설립하면서 초대 법인회장으로 홍영표 회장을 선출하였으며 12월 30일 법인 등기를 마쳐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11. 11. 23.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근거로 연천군의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근거와 기반도 갖추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 지회 임 · 직원

'새마을운동연천군지회장(연천군새마을회장)'은 김종관, 백종식, 김정갑, 채기창, 홍영표, 김규선, 이원근 회장이 역임하였고, '새마을지도자연천군협의회장'에는 채기창, 임덕락, 김병철, 임덕락, 이상무, 신영진, 신동규, 홍영표, 성기호, 김선기, 서정만 회장이 역임했다. '연천군새마을부녀회장'은 권부근, 민연희, 최능자, 최복남, 김복임, 전정옥, 이계숙, 최삼순 회장이 역임하였으며, '직 · 공장새마을운동연천군협의회장'에는 백종식, 손기영, 김인권 회장이 역임하였다. '새마을문고연천군지부회장'에는 김종관, 이호순, 조용윤, 이규익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에는 채기창, 이연화, 장문성, 오현철 국장이 재직하였다.

2020년 현재 임직원은 지회장 왕영관, 지역회장 이인행, 부녀회장 이춘애, 사무국장 김형순 등이 활동 중이다.

4. 회관확보(신축)

'새마을운동연천군지회'는 1981. 3. 29. 부터 민간단체 새마을운동연천군협의회로 활동하다가 1984년 3월 연천군청 내에 연천군지회 개청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10여 년간 무상임대로 군청 내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군청의 행정조직이 커지고 사회단체의 청사 밖으로 이전 방침에 따라 1995. 1. 15.에 공

설운동장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지회는 이미 1993년부터 자체 새마을회관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왔다. 참으로 막막한 상태에서 자체회관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들은 연천군 지역의 가장 알맞은 회관을 지어 새마을에도 지역주민에게도 유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지역 내 농작물 재배현황을 조사하고 생산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천군 지역 기후풍토 특성에 맞는 특산물을 개발하여 상품화함으로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성수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기 위하여 1차 가공 및 저온저장으로 수급조절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소득향상 연구센터로 활용하고,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근검 · 절약정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주민의식 개혁의 전당으로 활용하자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직거래센터를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망을 구축 다단계의 유통구조로 인한 피해를 줄이므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새마을회관을 짓기로 하였다.

연천군 새마을가족은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새마을운동의 자립기반은 물론 닥쳐오는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연구센터로서 농민구심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연천군의 전현직지도자들이 회관건립을 착수하였던 것이다. 1993년 3월 회장단회의 시 회관건립을 발의하고 그해 11월 휴경지 채소(무) 경작 수익금으로 기금조성을 착수해 1995년 읍 · 면 협의회와 부녀회에서 회관건립기금 8천만 원을 모금하였다. 2002년 1월에는 군비보조금인 새마을회관건립비 지원금 1억 원을 확보하였다. 2002년 4월에는 추가로 1천850만 원의 군비 보조금도 확보하였다. 2003년에 2억 3천만 원을 연천군 본예산에 확보하였다. 채기창지회장과 회장단은 은대리 일원에 회관 지을 땅을 구입하고 연천군청에 허가사항을 알아보는 도중 절대농지이므로 새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할 수 없이 그 땅을 다시 매도하고 연천읍 일원에 땅을 구입하였으나 이곳 또한 군사지역으로서 동의를 해주겠다는 연대장이 다른 부대로 발령 나자마자 회관부지가 군사부동의가 되어 회관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채기창회장이 사의를 표하였다.

이어서 홍영표 회장과 회장단은 전곡읍 전곡리 296-6번지 500평을 새마을회관 부지로 확정하고 확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2003. 8. 29. '새마을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회관확보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준비가 끝나고 2003. 10. 20. 중앙회에 회관신축 동의를 요청하였다. 결국 오랜 시행착오 끝인 2003. 11. 28. 잡종지이자 개인토지인 회관 부지를 3억 원에 구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곳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문화재발굴을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문화유적 발굴조사 착수하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또한 1차에 계약했던 건축업체에서 건축포기를 하는 뜻하지 않은 일로 착공이 늦어졌다. 2003년 12월 드디어 새마을지도자들의 숙원인 회관건립 착공식을 하게 되었다. 2004년 연천군 추경으로 1억 5천 6백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2003. 7. 28. 새마을회관 기공식을 갖고 2004. 12. 27.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2005. 3. 3.에 연천군 새마을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새마을회관 개관식을 갖게 되었다.

새마을회관은 연천의 중심인 전곡읍내에 위치해 있으며 개발지역으로 인근에는 군인아파트와 보건소, 병원 등이 있어 주민왕래가 많고 임대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연천군의 관광지인 한탄강에 접한 도로변이고 구석기문화 행사장 바로 근처에 있어 연천군 관광객은 한번쯤 지나가는 3번 국도변으로서 전곡역과 매우 가까운 지역이다.

회관의 규모는 대지 1,650㎡(약500평), 건축면적 562.98㎡(약171평), 연면적 576.0㎡(약175평), 지상 2층 건물이다. 총 비용은 8억 9,295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부지 구입비 3억 원, 건축비 5억 493만 원, 부대비용 8,802만 원 이었다. 재원은 군비보조금 5억 4,930만 원, 중앙회 지원금 5천만 원, 자체기금 9,218만 원, 대출금 2억 4,627만원이 마련되어 회관을 확보하게 되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자체회관 확보라는 중요한 일을 겪으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019년에는 도 새마을회로부터 회관보수비 2,200만 원을 지원받아 안전성을 높이고 기능성 회복공사를 마쳤다. 연천군새마을회관의 지역주민과, 농민, 새새마을가족 모두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2편 시군 새마을운동

제32장 폐지된 시군구 새마을지회

1. 새마을운동수원시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지회 : 수원시지회에 편입

가. 새마을운동수원시장안구지회

'새마을운동수원시장안구지회'는 수원시의 인구급증과 행정구역의 확대로 1988. 7. 1. 전국 최초로 비자치구인 장안구와 권선구가 설치되면서 초대 주성광 회장을 선출하여 장안구청 내에서 개청하였다. 이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비자치구지회 통폐합 지침에 따라 1995. 12. 31. 수원의 장안, 권선, 팔달 3개구 지회는 폐지되고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이 통폐합과정에서 조직, 회장단, 사무실, 직원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큰 애로가 많았다. 조직을 확대하였다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당연한 어려움이었다. '새마을운동수원시장안구지회'는 주성광, 최흥식 두 명의 지회장이 역임하면서 명맥을 이어 오다가 폐지되었다. 최흥식 회장은 20여 년간 도 지부 감사와 이사 등의 임원을 역임하였다. 사무국장으로는 이병일, 방보영 국장이 재직하였다.

나. 새마을운동수원시권선구지회

'새마을운동수원시권선구지회'는 1988. 7. 1. '새마을운동수원시장안구지회'

와 함께 설치되면서 초대 임완수 회장을 선출하고, 권선구청 내에 사무실을 개청하였다. 이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비자치구지회 통폐합 지침에 따라 1995. 12. 31.부로 수원의 장안, 권선, 팔달구 지회와 더불어 폐지되고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새마을운동수원시권선구지회'는 임완수, 박광휘 두 명의 지회장이 역임하면서 명맥을 이어 오다가 폐지되었다. 이후 임완수 회장은 구지회장으로서 곧 바로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회장을 역임하며 큰 업적을 세웠다. 사무국장으로는 강선태, 정해선, 한상준, 이창복 국장이 재직하였다.

다. 새마을운동수원시팔달구지회

'새마을운동수원시팔달구지회'는 행정구역의 확대로 1993. 2. 1. 설치되었고, 초대 이종구 회장을 선출하여 1993. 6. 15. 팔달구청 안에서 개청하여 팔달구 새마을운동을 총괄하였다. 이후 1995. 12. 31. 장안구, 권선구와 함께 지회는 폐지되었고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새마을운동수원시팔달구지회'는 이종구 회장만 역임하고 폐지되었다. 이후 이종구 회장은 수원시지회장으로서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사무국장으로는 한상준 국장이 재직하였다.

2. 새마을운동성남시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지회 : 성남시지회에 편입

가. 새마을운동성남시수정구지회

'새마을운동성남시수정구지회'는 성남시의 행정구역 확대로 1989. 5. 1. 수정구와 중원구가 설치되었는데 이 때 '새마을운동성남시중원구지회'와 함께 설치되었다. 초대 장두영 회장을 선출하고 1989. 7. 27. 수정구청 내에 사무실 개청하여 수정구 새마을운동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5. 12. 31. 비자치구의 구 지회를 폐지시킴에 따라 모든 업무와 인력 등은 원래대로 '새마을운동성남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새마을운동성남시수정구지회'는 장두영, 최철원, 이철수 등이 역

임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폐지되었다. 이후 장두영 회장은 성남시지회장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사무국장으로는 김선철, 원영규 국장이 재직하였다.

나. 새마을운동성남시중원구지회

'새마을운동성남시중원구지회'는 성남시의 행정구역 확대로 1989. 5. 1. 수정구지회와 함께 설치되었는데 초대 김정범 회장을 선출하여 1989. 7. 27. 중원구청 내에 사무실을 열고 중원구 새마을운동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5. 12. 31. 비자치구의 구 지회를 폐지시킴에 따라 모든 업무와 인력 등은 원래대로 '새마을운동성남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새마을운동성남시중원구지회'는 김정범, 전영수, 안재흥 회장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폐지되었다. 이후 김정범 회장은 성남시지회장으로서 성남시새마을운동을 총괄 지휘하였다. 사무국장으로는 방보영, 박승국 국장이 재직하였다.

다. 새마을운동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는 개발과 발전을 거듭하며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1989년 성남시 남쪽지역의 남단녹지를 중심으로 '성남 분당지구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건설된 신도시로서 만들어졌다. '새마을운동성남시분당구지회'는 행정구역이 늘어나면서 1991. 9. 17. 설치되었으며, 초대 정대화 회장을 선출하고 1992. 3. 27. 분당구청 내에서 개청하였다. 이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5. 12. 31.자로 비자치구 지회를 폐지시킴에 따라 모든 업무와 인력 등은 원래대로 '새마을운동성남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사무국장으로는 정해천, 원영규 국장이 재직하였다.

3. 새마을운동안양시만안구 · 동안구지회 : 안양시지회에 편입

가. 새마을운동안양시만안구지회

'새마을운동안양시만안구지회'는 안양시의 인구와 행정수요가 늘어 행정구

역 개편으로 1992. 10. 1. 만안구가 생김에 따라, 초대 현광일 회장을 선출하여 1993. 5. 1. '새마을운동안양시만안구지회'가 설치되었고 5월 4일 만안구청 내에서 개청하였다. 이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5. 12. 31.자로 비자치구의 구 지회를 폐지시킴에 따라 모든 업무와 인력 등은 원래대로 '새마을운동안양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이후 현광일 회장은 안양시새마을회장을 역임하면서 회관 건립 등에 큰 업적을 남기었다. 사무국장으로는 심장래 국장이 재직하였다.

나. 새마을운동안양시동안구지회

안양시 동안지역은 1988. 9. 13.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조성된 '평촌신도시'의 개발로 건설된 신도시 지역이다. '새마을운동안양시동안구지회'는 1992. 10. 1. 동안구가 설치됨에 따라, 초대 음순배 회장을 선출하고 1993. 5. 1. 설치하여 5월 2일 만안구청 내에서 개청하였다. 이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5. 12. 31.자로 비자치구의 구 지회를 폐지시킴에 따라 모든 업무와 인력 등은 원래대로 '새마을운동안양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음순배 회장은 안양시새마을회장으로서 활동을 이어갔다. 사무국장으로는 서창식 국장이 재직하였다.

4. 새마을운동부천시원미구(중구) · 소사구(남구), 오정구지회 : 부천시지회에 편입

가. 새마을운동부천시중구지회(원미구지회)

'새마을운동부천시중구지회'는 1989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에 따라 1989. 5. 1. 중구, 남구를 설치하였다. 중구지회는 1989. 7. 1. 초대 김재인 회장을 선출하고 부천시중구청 내에서 개청하였다. 이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5. 12. 31.자로 비자치구의 구 지회를 폐지시킴에 따라 모든 업무와 인력 등은 원래대로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이후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라 1993. 2. 1. 중구와 남구가 원미구와 소사구로 개칭되면서 오정구까지 새마을지회가 설치되었다. 이에 '새마을운동부천시중구지회'를 '새마을운동부천시원미구지회'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5. 12. 31. 중앙회의 비자치구 새마을지회 폐지에 따라 3개구 지회는 폐지되면서 부천시지회에 흡수 · 통합되었다.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조직과 인력, 사무실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무사히 통합을 마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부천시원미구지회'는 김재인, 전승옥 회장이 역임하면서 명맥을 이어 가다가 폐지되었다. 사무국장으로는 이충인, 장 성, 김영길, 최희진, 오주영 국장이 재직하였다.

나. 새마을운동부천시남구지회(소사구지회)

'새마을운동부천시남구지회'는 1989. 5. 1. 남구가 설치됨에 따라, 1989. 7. 1. 초대 지영철 회장을 선출하고 남구청 내에서 개청하였다. 1993년 중동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중구를 원미구와 오정구로 나누고, 남구의 일부는 소사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부천시남구지회'는 '새마을운동부천시소사구지회'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1995. 12. 31. 중앙회의 비자치구 지회 폐지에 따라 3개구 지회는 폐지되면서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에 흡수 · 통합되었다. '새마을운동부천시원미구지회'는 지영철, 이종인 회장이 역임하다가 폐지되었다. 사무국장으로는 박기성, 오주영, 최희진, 김귀태 국장이 재직하였다.

다. 새마을운동부천시남구지회(오정구지회)

부천시는 1993년 중동 신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확대로 남구에서 오정구가 분구됨에 따라 1993. 2. 1. 남구는 소사구와 오정구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부천시오정구지회'는 1993. 6. 15. 초대 윤정기 회장을 선출하고 설치되어 부천오정구청 내에서 개청하였다. 이후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1995. 12. 31.자로 비자치구의 구 지회를 폐지시킴에 따라 모든 업무와 인력 등은 원래대로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수원시팔달구, 성남시분당구와 함께 최단기 존속했던 지회로 남게 되었다. 사무국장으로는 김귀태, 김윤경 국장이 재직하였다.

5. 새마을운동송탄시 · 평택군지회 : 평택시지회에 편입

가. 새마을운동송탄시지회

'송탄'은 인구증가와 도시 확대로 1981년에 송탄읍이 시로 승격되어 평택군에서 분리 · 독립되었다. 1986년에 평택시가 분리되기 전까지 평택은 송탄시와 평택군 2개 시군으로 운영되었다. '새마을운동송탄시지회'는 초대 이갑재 회장을 지회장으로 선출하고 1984. 3. 15. 설치되어 3월 31일 서정동 342에 위치한 송탄시청 안에 사무실을 열고 개청하였다. 송탄은 미군부대가 있는 도시로서 타 도시와 다르게 관광특구로서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지회는 지역, 부녀, 직장, 문고, 공장, 금고 등 새마을회원단체 모두를 운영하는 아주 튼튼한 지회였다. 그러나 1995. 5. 11.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3개 시군으로 분리되었던 것을 다시를 통합하여 도농복합도시 평택시로 개편되면서 '평택군지회'와 함께 폐지되었다. 통합에 따른 조직, 인력, 사무실, 자산 등의 처리과정에 진통이 있었다. 사무국을 통합하고 회장단을 조정하고 직원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 희생과 아픔이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아름답게 통합되었다. 이갑재, 경두현, 김기호, 강건수 등 4명의 지회장이 명맥을 이으면서 유지하다가 폐지되었다. 송탄 출신 이은숙 회장은 초대 도 부녀회장과 부녀중앙연합회장까지 역임하였다. 사무국장으로는 정영철 국장이 재직하였다.

나. 새마을운동평택군지회

'평택'은 넓은 평야로 이루어진 서해안에 연접한 고장이다. 1981년에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되어 평택군에서 분리되었다. '새마을운동평택군지회'는 1984. 3. 15. 초대 권달수 지회장을 선출하여 설치되었고, 3월 31일 비전1동 625, 평택군청 내에서 개청하면서 평택새마을운동을 총괄하게 되었다. 같은 날 '새마을운동송탄시지회'도 설치 · 개청되어 평택은 사실상 2개 시군으로 나

뉘어 출발하게 되었다. 1986년에는 평택읍 지역이 구리 · 과천 · 안산과 동시에 시로 승격되면서 평택군에서 분리되면서 평택군, 송탄시, 평택시로 나뉘었다. 1986. 1. 1.에는 '새마을운동평택시지회'도 설치되어 평택은 3개 시군지회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라 1995. 12. 31.자로 다시 3개 시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도시 평택시로 개편되면서 '새마을운동송탄시지회'와 함께 '새마을운동평택군지회'도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업무와 인력 등은 '새마을운동평택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평택군지회는 권달수, 박세홍, 황대영, 김학진, 김영호 등 다섯 명의 지회장이 명맥을 이어오다가 폐지되었다. 황대영 회장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지회장을 맡아 큰 업적을 남기었다. 사무국장으로는 조영행, 김종수, 구태덕, 최승옥 국장이 재직하였다.

6. 새마을운동미금시지회 : 남양주시지회에 편입

가. 새마을운동미금시지회

'미금'은 1980년 남양주군이 양주군에서 분리되면서 남양주군에 속한 읍이었다. 1986년 미금읍이 미금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주군에서 분리 · 독립하였다. '새마을운동미금시지회'는 1989. 1. 1. 설치되었고 초대 이용휘지회장을 선출하여 3월 1일에 미금시청 내에 사무실을 열고 개청하였다. 그러나 1994. 12. 31.부로 다시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되면서 '새마을운동미금시지회'와 '새마을운동남양주군지회'는 폐지지고 도농복합도시인 '새마을운동남양주시지회'가 되었다. 모든 업무와 인력 등은 원래대로 '새마을운동남양주시지회'로 흡수 · 통합되었다.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됐던 많은 문제들은 양측 시군 회장단 및 직원, 도지부의 조정으로 원만하게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사무실과 사무인력의 통폐합은 그리 만만치 않아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츰 해소되어 정상을 찾게 되었다. 미금시지회는 이용휘 회장이 역임하였고 사무국장으로는 박현순 국장이 재직하였다.

7. 새마을운동강화군 · 옹진군지회 : 인천광역시지부에 편입

가. 새마을운동강화군지회

'강화'는 연천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최고로 오래된 고장 중에 하나이다. 940년 고려 태조시절 강화현, 1232년 고려 고종시절에 강화군으로 승격되었다. 강화는 강화부, 강화도호부, 강화유수부 등으로 불리다가 1895 조선 고종 때 강화군으로 개칭되었다. '새마을운동강화군지회'는 초대 우남득 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되었고 3월 29일 강화군청 내에 사무실을 열고 개청하였다. 초대 우남득 지회장은 경기도 29개군 중 유일한 여성 지회장이었다. 이후 '새마을운동강화군지회'는 1995. 3. 1.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다. 우남득, 이재식, 윤정호, 김인필 등 네 명의 지회장이 명맥을 이오다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경기도를 떠나게 되어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사무국장으로는 이영은 국장이 재직하였다. 이영은 국장은 이후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새마을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나. 새마을운동옹진군지회

'옹진'은 고종32년인 1895년에 옹진으로 개칭되면서 명칭을 유지해 왔다. 1980년 민간주도새마을운동 추진 당시에는 경기도와 함께 출발하였다. 초대 장세문 회장을 선출하여 1984. 3. 15. 설치되었다. 시군지회 설치 시에 경기도의 29개 시군 중 하나로서 시군서열 29위였던 곳이다. 모두 섬 지역으로 구성된 옹진은 경기도지부가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었다. 다만 사무소는 인천시내에 있던 옹진군청 안에서 1984년 3월 29일에 개청하였다. 1989. 1. 1.에는 영종도와 용유도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떨어져 나갔고, 1994. 12. 26.에는 대부면을 안산시에 편입시키며 분리되었다. 결국 1995. 3. 1.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분리 · 편입되었다. 장세문, 차두회, 김성률, 최인환 등 네 명의 지회장이 명맥을 이오다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어 경기도를 떠나게 되었다. 사무국장으로는 차희륜 국장이 재직하였다.

Saemaul Undong in Gyeonggi Province

제3편
한국의 새마을운동

제3편 한국의 새마을운동

제1장 한국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추진된 지 반세기가 지났다. 한 운동(運動, Movement)을 5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새마을운동은 처음부터 이론이나 학문을 바탕으로 추진된 운동이 아니었기에 이 운동은 운동을 추진해 가면서 개념과 추진원리, 추진방법 등이 정리되어 갔던 것이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정신혁명운동이요. 실천과 실행하는 행동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1970. 4. 22.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주창된 새마을운동에 대한 핵심적인 정신과 추진원리는 초기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점인 내용이 담긴 초고와 정부간행 책자 등 세 가지를 중요한 자료로 보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론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다른 기관 · 단체 · 학자 등이 저술하거나 발행한 책자들도 있지만 약간씩 그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한국의 새마을운동' 에서는 다른 것들을 참고하여 기술하거나 경기도새마을회가 별도로 기술하지 않는다. 세 가지 자료를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통한 이론적 근거로 보고 이를 요약한 것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 번째 자료는 1972. 4. 26. 광주에서 개최 예정이었다가 5. 18 개최된 '전국새마을 소득증대 촉진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비서실 용지에 정리하여 발표한 '새마을운동이란'이라는 17쪽 짜리 친필원고이다. 제목 없이 정리된 '기획초고'라고 불리는 이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운동과 정신, 추진원

리, 추진방법, 추진 필요성과 목적, 새마을지도자' 등에 관하여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 기획초고는 놀라울 정도로 개념들을 논리적이고 알기 쉽게 풀어 주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을 정도로 섬세하게 정리된 새마을운동의 바이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념과 추진원리는 이 '기획초고'를 근거로 개념과 이론 등을 붙여 나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970. 10. 1.에 발행한 '새마을 가꾸기 길잡이' 책자도 있지만 새마을정신이 정해진 것은 1971. 9. 29.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마을운동에 관한 개념과 이론은 이 초고로부터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새마을운동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기획초고'로 보고 원문(국 · 한문)그대로를 옮겨 적었다.

두 번째 자료는 '기획초고'를 바탕으로 1975년에 내무부가 현장운동용으로 발행한 '새마을운동 길잡이'책자이다. 이 길잡이는 새마을운동의 개념과 정신, 추진 원리와 방법 등을 초고에서 빠친 부분까지 보다 상세히 이론적 ·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풀어 주었다. 실질적인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대한 교본이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과 개념, 배경과 추진원리 등은 새마을운동이 시작 된 지 5년 뒤인 1975년에 가서야 '새마을운동 길잡이'라는 1180여 페이지의 이 책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총정리된 기본교재인 교과서가 나온 것이다.

길라잡이 책자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5년간 현장의 경험과 시행착오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교본이다. 당시에는 물자도 풍족하지 않았으며 책자도 매우 귀하던 시절인데 이 귀한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시기는 새마을운동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농민들의 사기가 충천하여 그야말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불굴의 정신으로 넘쳐나던 시기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학자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리가 각각 이었다. 이에 내무부는 전국에서 선발된 새마을지도자들과 일선에서 직접 새마을사업을 추진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 학계전문가인 교수 등으로 이 책을 공동 집필하였다. 집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과 설계도면 들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새마을운동의 중심이면서 이 설계도면들을 실험하기 위한 시험장이었다. 그 결과 사업의 집행자인 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공부하도록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제공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사업들의 추진의미와 추진방법 등을 일일이 적어주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마다 표준을 만들어 사용될 자재와 규모, 시공방법과 효과를 높이는 방법 등 책만 보고 따라하면 될 정도로 자세히 만들어 졌다. 지금도 이 책 한권이면 귀농자라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교과서이자 길잡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새마을운동 길잡이'는 새마을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종합지침서이자 교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농촌 지도자들은 눈을 뜨고 농민들은 영농기술을 터득하게 되어 더욱 자신감을 갖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자료는 1980년 당시 정부의 주무부서인 내무부가 '새마을연구회'에 맡겨 초기 새마을운동(1970~1979)의 성과와 실적을 총 정리한 710쪽 짜리 '새마을운동 10년사'이다. 이 책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태동 배경, 역사적 의미, 개념, 이론, 추진원리, 실적, 통계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담은 결과보고서이다. 지금도 외국에 새마을운동을 소개하려면 이 책에 게재된 이론이나 통계자료 등을 인용해 써야만 하는 귀한 책자이다.

따라서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술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소개한 '새마을운동 초고, 새마을운동 길잡이, 새마을운동 10년사'를 근간으로 각 책자에 대한 요약정리로서 '새마을운동'을 정리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에 관한 가장 정통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물론 새마을운동에 관한 수많은 논문이나 간행물들이 있음을 안다. 그러나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는 새마을운동사에 관한 별도의 역사정리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역사정리에서 다루어야 할 몫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1972년에 만들어진 '기획초고', 1975년에 발간된 '새마을운동 길잡이', 1980년에 발간된 '새마을운동 10년사' 이 세 가지 자료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정확하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자들은 실제로 이 운동을 진두지휘하던 박정희 대통령과 정

부의 담당부서인 내무부가 현장의 새마을지도자, 관계 교수들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새마을운동' 표준교재이자 원조교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편의 맨 뒷부분에는 새마을운동의 제창자인 박정희 대통령 어록이 게재되었다. 이 어록은 1970~1975년까지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대회나 담화, 정부부처나 지방장관들에게 지시사항으로 남긴 부분 중 새마을운동에 관한 어록을 발췌 수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책자들도 이 어록을 중심으로 이론을 만들고 체계를 잡아갔기에 어록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것이다. 이 편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라는 목차를 사용하는 이유는 2013년에 새마을운동 기록물들에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2016년에 결성한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 53개국 회원국들이 각각 몽골새마을회, 네팔새마을회, 콩고새마을회 처럼 '국가명+새마을회'를 쓰고 있으므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세계의 새마을운동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편 한국의 새마을운동

제2장 '기획초고'에 정리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1972. 4. 26.(광주)

1.

1)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나도 그 동안 여러 마을을 찾아 가보고, 보고를 통하여 듣고, 우리 농민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2) 도지사 이하 시장 · 군수, 그 외 모든 일선공무원들이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잠바 차림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 다니면서 이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면서도 지출 줄 모르고 보람을 느끼는 것도 우리 농민들은 그 부지런한 모습에 감동되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한다.

3) 확실히 이 운동은 우리 농촌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 바람이며, 서광이요, 희망이라고 본다. 우리 역사 어느 때에도 이런 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확실히 우리 민족은 잠재적으로 무한한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4) 왜 이러한 저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발휘하지 못했을까. 역시 여기에는 어떠한 계기가 마련되어야 했고 자극이 있어야 했다고 본다. 지난 10년 동안 1 · 2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민족이 땀 흘려 이룩한 건설의 성과는 우리 농민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고 오랜 침체라는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 '하면 된다.'하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2.

1) 한 민족이 침체에서 벗어나서 일대 도약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다.

자신이 있으면 의욕이 생긴다. 의욕과 자신이 없는 민족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이것을 이용할지 모른다.(기회포착 불가)

반대로 의욕과 자신이 왕성한 민족은 역경에 처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줄 아는 슬기를 발휘할 줄 안다.

2) 우리도 그 동안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다. 외적으로부터 침략도 받아 봤고, 공산당의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아왔으며, 한해 · 수해 등 수많은 천재도 받아 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이란 설움을 뼈에 사무칠 정도로 겪어봤다.

3)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경에 굴하지 않았다. 침략자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서 이기는 힘을 길러야 하고, 천재에 대해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4) 과거에는 이러한 역경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이겨낼 생각도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분발하고 근면하고 협동하고 단결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을 분연히 일어나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3.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인가?(의의, 개념)

1) 속담에 "논어를 읽고도 논어의 뜻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2) "시멘트와 철근으로 농로를 닦고 다리를 놓는 것이다."라고 운운하지만,

3) 쉽게 말하자면 '잘 살기 운동'이다.

4)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가?

○ 빈곤을 탈피하고, 소득이 증대되어 농촌이 부유해지고 더욱더 여유 있고 품위 있고,
○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며,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상부상조하며,
○ 알뜰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내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 당장 오늘 잘 살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잘사는 내 고장을 만들겠다는데 더 큰 뜻이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철학적인 의의를 발견하자.)

4. 어떻게 해야 잘살 수 있을까?

1) 방법은 다 알고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2) 부지런해야 잘산다.
3) 자조정신이 강해야 잘산다.
○ 혼자 부지런해도 안 된다. 온 집안 식구 전부가 부지런해야 한다.
○ 한 집만 부지런해도 안 된다. 온 동리 사람이 전부 부지런해야 한다.
○ 온 동리 사람이 전부 부지런하면 협동도 잘 된다.

5. 협동의 원리

1) 협동의 필요성
○ 1+1=2+α
○ 능률이 오른다.(예, 농로작업, 퇴비, 지붕개량)
○ 단결심이 강해진다.
○ 자신감이 생긴다.
○ 협동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므로 자신감이 생김
○ 능률-단결심-자신감 : 안 되는 일이 없다.

6. 근면, 자조, 협동정신

1) 이것이 새마을 정신이다.

2) 이 정신이 있어야만 새마을운동은 성공한다. 즉, 잘살 수 있다.
3) 이렇게 볼 때 새마을운동이란 정신 계발운동이요, 정신 혁명운동이다.
4) 동시에 이 운동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 즉, 행동철학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농촌은 반드시 잘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다.

7. 어떻게 행동에 옮기느냐?(실천단계)

가. 사업선정을 잘하라! (5대 고려사항)

1) 마을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결정
2) 마을전체의 이익에 기여
3) 마을의 특수성 고려(다른 마을 모방불가)
   예 : 마을 회관부터...농로부터...교량부터...마을 안길부터...간이 상수도부터...유실수 공동조림부터...등
4) 마을주민의 자체 능력고려 인구와 노동력, 자금 부담능력...등
5) 직 ·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

나. 사업의 추진과 마을 지도자

1) 계획을 누가 짤 것인가
2) 마을 주민을 누가 설득할 것인가
3) 여기에 지도자가 필요하다.
4) 이 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할 추진핵심체가 필요하다.(추진위원회)

다. 유능한 마을 지도자가 있고 없고는 사업성패의 관건이다.

1) 신망이 두텁고 설득력이 있으며,
2)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정신이 왕성하며 추진력이 있는 자

라. 시동이 걸렸다, 점화가 됐다.(시동, 점화)

1) 사업이 선정되었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마을 주민에 대한 설득력이 이루어졌다.

※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능률적으로 추진

2) 이처럼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3) 이처럼 한 마을은 반드시 성공했다.

4) 이처럼 해서 성공한 마을은 근면과 협동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들이 이룩한 일이 엄청나게 거창한 일이라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게 된다.

8. 이제부터는 이 사업을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이냐?

가. 직접적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1) 이제까지 한 사업도 직접, 간접으로 소득증대에 이바지한 사업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시동 작업이요, 점화 작업이다.

2) 앞으로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지 못하면 이 운동은 열이 식어버린다.

3) 새마을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하여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있다.(잘 살기운동)

4) 농번기에 접어드는 지금부터 할 일

- ㅇ 새마을사업 중 금년도 사업 대강완료 및 미완료 분야는 후반기 농한기로 돌리고 농사에 전력 경주할 것(본 농사)
- ㅇ 농사일도 협동으로 하면 더 능률이 오른다.(모내기, 김매기, 농약살포 등)

5) 올해 후반기에 할 일도 이제부터 연구하라.

- ㅇ 후반기 사업에도 정부는 약 1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6) 전반기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성과가 좋은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 될 수 있으면 환경정리사업보다는 소득증대에 직접 이바지하는 사업들을 검토하라.

9. 오늘 토의하는 소득증대 특별사업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이다.

가. 성공한 사례와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나

○ 성공한 사업은 역시 근면하고 자조정신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왕성한 데 있고

○ 성공하지 못한 사업은 그렇지 못한 데 있다.

나. 근면하고 협동을 잘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했다면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 하나는...(농민측) 영농에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했거나

○ 또 하나는...(정부측) 정부의 지원이 잘못되었다. 자금지원 적기, 방출 불이행, 계획생산 불이행, 농산물가격 보장 불실시, 판로개척 불알선 등

다. 앞으로는

○ 농민도 영농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고(머리를 써야 하고)

○ 정부는 적절한 지원대책을 필히 수반해야 한다.

10.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유의할 사항

1) 성과에 대한 성급한 생각을 버리자.(정부관리나 농민들)

○ 최소한 5년 동안을 열심히 지속해야 성과가 난다.

○ 조림사업은 40년, 50년 정도 걸린다.(우리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생각)

○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라.

2) 새마을운동은 반드시 농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계도되어야 한다.

○ 스스로 마을 주민 마음속에서 우러난 자발적 운동이라야 성공한다.

○ 관에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해서 하는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

예 : 마을주민의 협의에 따라 농로를 만들기로 했다면 군이나 면에서는 측량설계를 도와주고 기술 지도를 하고 행정지원을 해주고 기술공무원들을 자주 출장 시켜서 계도를 하는 등

3) 반드시 생산과 직결되고 소득증대가 결과 되어야 한다.

○ 과학적인 영농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일선 공무원이나 농촌지도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가 지도와 협조를 해야 한다.

4) 정부는 근면하고 자조정신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왕성한 우수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계속 밀고 나간다.

5) 정부는 이 운동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기술지도, 계획생산, 농산물의 가격보장, 유통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땀 흘려 일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욱 증산의욕을 북돋아 주도록 한다.

6) 마을의 부녀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줘야 한다. 성공한 마을은 반드시 예외 없이 마을 부녀회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컷 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체로 부녀들은 남자들보다 더 알뜰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이다.

7) 훌륭한 마을지도자의 발굴과 양성에 정부는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한 사람의 훌륭한 마을지도자가 한 마을을 완전히 일어나게 한 예를 자주 보았다. 이들이 이룩한 업적을 기록에 남기고 후세역사에 남겨야 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 농촌의 영웅이다.

8) 이 운동은 민족의 대약진운동이다. 농촌에만 해당하는 운동은 결코 아니다. 범 국민운동이다. 도시민들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동해야 한다. 아무도 방관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도시사람도 모두 농촌에 가서 농로를 뚫고 지붕개량사업을 직접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도시민들은 도시민들로서 무엇인가 이 운동을 돕는 길이 있을 것이다.

최소한 돕지 못한다면 훼방을 놓지 말아야 하고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일부 도시민들의 지각없는 생활태도는 이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가져올 수도 있다.

최소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

9) 이 운동에는 물론 여러 가지 개선점도 있고 일부 부작용도 있다. 당연히 처음부터 실수가 없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나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해서 비방만 할 것은 못된다. 바로잡아 나가면된다.

10) 모든 사업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착수하고 하나하나의 공사는 야무지고 견고하게 확실히 해야 한다.(다리를 놓았더니 비 한번 오니 내려앉는 예는 없도록.)

11) 모든 공무원들은 이 운동에 앞장서고 이 운동을 지도하고 농민을 도와주는 일에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제3편 한국의 새마을운동

제3장 '새마을운동 길잡이'에 정리된 새마을운동

제1절 새마을운동 길잡이

1. 새마을운동 길잡이가 발간되기까지

이 「길잡이」 발간의 의의는

첫째, 새마을정신인 근면 · 자조 · 협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실천요목을 목차에 따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둘째, 마을 단위에서 실시되는 각종 새마을사업 하나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며 시공 요령과 추진절차가 어떤 것인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마을의 가정추진 사례를 예시하면서 도해를 하나하나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읽는 이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셋째, 지금까지 중복되는 새마을운동 추진의 지시 · 통첩내용을 처음으로 이 책 한권으로 다듬어 종합 집대성 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고 그러므로 이 책자는 먼 후손들을 위하여 값지고 빛나는 역사적인 문헌이 될 것이다.

2. 새마을운동 연표(1970~1975 초기 새마을운동)

가. 1970년 방향제시 : 박 대통령 각하의 제창

1) 1970. 4. 22. 지방장관 회의 지시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 자립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머지않아 잘 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꾸어 지리라고 확신한다.....이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2)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

○ 1970. 5. 6 : '국토를 잘 보존하자'는 친필지시

3) 새마을에 관한 주요사항

○ 1970. 10. 1 : '새마을 가꾸기 길잡이' 책자를 발간

○ 1970. 10. 5 : 전국 읍 · 면장에게 새마을 가꾸기 교육을 실시

나. 1971년 실험사업 : 새마을정신의 잉태

1) 전국 33,267개 행정 리 · 동에서 균일추진(행정 리 · 동당 시멘트 335포대씩 지원)

2) 10대 가꾸기 예시사업을 중점추진

○ 마을진입로, 소하천, 소류지 정비,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퇴비장 설치, 마을식수 등

3)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

○ 1971. 7. 30 :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정신계발'을 강조

○ 1971. 9. 29 : 새마을정신을 '근면, 자조, 협동'으로 규정

4) 새마을에 관한 주요사항

○ 1971. 8. 19 : 내무부에 새마을 전담부서인 '지역개발담당관, 도시개발관, 농촌개발관, 주택개량관' 신설

○ 1971. 9. 17 : 새마을 가꾸기 운동 평가를 위한 전국 시장 · 군수 비교

행정 회의 개최

다. 1972년 : 기초점화

1) 새마을정신의 점화 · 확대

- ○ 전국 34,665 마을 중 22,708 마을 참여(지원마을 16,600, 자진참여 6,108)
- ○ 지원마을 16,600개에 기본자재 균일지원(시멘트 500포대, 철근 1톤)
- ○ 새마을 가꾸기에 중점을 두어 정신계발 촉진(안길, 농로, 간이급수, 소하천 등)

2)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

- ○ 1972. 5. 18. : "새마을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농어민소득 증대"임을 강조
- ○ 1972. 10. 17. :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새마을사업이 국가시책의 최우선 사업임을 명시

3) 새마을에 관한 주요사항

- ○ 1972. 3. 7. : 관계부처의 차관급으로 구성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설치
- ○ 1972. 7. 2. :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을 개설

라. 1973년 : 기반확립

1) 자율실천의 기초구축

- ○ 새마을운동은 민주 · 애국의 실천도장
  (전국 34,665개 모든 마을이 참여하여 실천)
- ○ 모든 마을을 발전수준에 따라 체계화(기초 18,415, 자조 13,943, 자립 2,307)
- ○ 새마을사업을 소득에 직결시켜 발전(기본사업 4, 지원사업 9, 소득사업 9)

2)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

- ○ 1973. 3. 23. : 새마을운동을 통한 '생활의 과학화'를 강조
- ○ 1973. 11. 2. : 새마을운동을 '민주 · 애국의 실천도장'으로 규정

3) 새마을에 관한 주요사항

- ㅇ 1973. 12. 5. : 상훈법에 '새마을훈장'을 신설
- ㅇ 1973. 1. 8. : 농수산 · 상공 · 문교부 및 농협에 새마을 전담부서 신설
- ㅇ 1973. 2. 1. : 시도 · 시군에 새마을 지도과를 신설

마. 1974년 : 자조발전

1) 총화참여의 저변확대

- ㅇ 전국 모든 마을과 각계각층 참여(마을 34,665, 직장 5,253, 학교, 단체 등)
- ㅇ 기본 자재를 마을 실정에 맞게 지원(마을신청→시군심사→마을지원)
- ㅇ 3대 역점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새마을소득, 새마을교육, 도시새마을운동)

2)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

- ㅇ 1974. 2. 8. : 식량증산 · 치수 · 치산 · 소득증대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사업을 한데모아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해야함을 강조
- ㅇ 1974. 12. 6. : 우리나라 농촌근대화의 길은 오직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뿐임을 강조

3) 새마을에 관한 주요사항

- ㅇ 1974. 5. 4. : 새마을운동론을 공무원임용 시험과목으로 설정
- ㅇ 1974. 7. 21. : 경제 · 언론 · 종교 · 학계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새마을교육을 실시

바. 1975년 : 증산소득

1) 새마을운동 도약의 해

- ㅇ 3대 운동 : 증산운동, 근검운동, 인보운동
- ㅇ 4대 시책 : 새마을소득증대, 노임소득증대, 새마을국민교육, 도시새마을운동

2)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

○ 1975. 1. 14. :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위한 정신혁명 운동이며 이 운동의 1차적인 목표를 1981년에다 두고, 그 때에 가서 우리 농가소득을 평균 140만 원 선으로 끌어 올리자”고 강조

○ 1975. 1. 17. : 새마을운동으로 근검절약운동, 이웃돕기운동, 노임소득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

3) 새마을에 관한 주요사항

○ 1975. 1. 1. : 새마을운동 추진체제강화를 위하여 군에 부군수제를 실시

제2절 새마을운동이란?

새마을운동은 살기 좋고 잘 사는 부자 마을을 만드는 운동이다.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기르고, 소득을 올리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고, 잘 사는 부자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며 궁극적으로는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근대화 운동이다.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얻은 귀하고 값진 교훈과 경험은 이제 우리 국민도 「우리도 하면 된다」「할 수 있다」는 자신과 가능의 신념을 찾았고 체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 말로 그 어떤 것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재산인 것이다. 우리는 이 새마을운동을 기어이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기르는 가운데 잘 사는 마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온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서로 인정이 넘쳐흐르는 살기 좋은 새마을로 가꾸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1.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왜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잘 살기 위해서 한다. 이 운동의 목적은 잘사는 마을,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있다. 나와 내 이웃이 잘 살고, 우리 마을과 이웃 마을이 잘 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데에 이 운동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5천년 동안의 긴 역사를 너무나 어렵게

살아 왔다. 가난과 침체와 체념 그대로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5천년 동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민족혼을 일깨워서 우리도 한번 떳떳이 잘 살아 보아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야만 했던 동기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새마을운동인 것이다.

첫째로 내가 잘 살고 우리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 일은 하지 않고 가난만 탓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한 시간 일할 때 나는 두 시간 일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세 배의 땅을 홀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근면 정신이다.

둘째로 내가 잘 살고 우리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남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려서는 결코 안 된다.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내가 해결해 나가고, 마을일은 마을사람들 전체가 하나가되어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며,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이웃 마을이, 그리고 정부에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을은 진실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피눈물 나는 노력을 다할 때 바라고 원하는 결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조 정신이다.

셋째, 내가 잘 살고 우리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합하여 도와 나갈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혼자 살아 갈 수가 없다. 서로 이웃끼리 사랑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 모자라는 일손을 도와 나가는 미풍과 인정이 있어야 한다. 마을 주민 모두가 마을 일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의지와 힘을 한데 모아 일에 열중해 나갈 때 잘 사는 마을, 부자마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곧 협동 정신이다. 새마을운동이란 잘 살기 위한 운동이며,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면하고 자조하며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잘 살기 운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웃집에서는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정말 잘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살뿐 아니라 이웃과 우리 마을이 함께 고루 잘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마을도 마찬가지다. 우리 마을만 잘 살 뿐 아니라 우리 마을과 함께 우리 이웃에 있는 마을들이 모두 살기 좋은 부자 마을이 될 때 우리 국민은 잘 사는 국민이 되고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만을 잘 살게 하자는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들 당대에 잘 살아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후손들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 한다.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고 심는다고 한다. 비록 그 열매가 100년, 200년이 지나야 열리더라도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심어야만 한다. 새마을운동을 하는 참 뜻은 오늘의 우리 세대와 내일의 우리 후손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몸 바쳐 일하는 것이다.

2.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정신을 실천하는 정신혁명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무엇을 하자는 운동인가. 이 운동의 내용은 5천년 동안 잠들었던 민족혼을 일깨우고 정신을 계발하여 잘사는 우리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실천운동이라 함은 앞에서 보아 온 바와 같다. 우리가 잘살기 운동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못 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과거를 반성하여 그 속에서 우리를 못살게 만든 요인을 찾아내고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날 우리의 생활이 남들보다 뒤지고 못 살았다면 그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대체로 인간 생활의 발전수준에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그 하나는 기후풍토나 자연자원과 같은 주어진 여건이 어떠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여건을 이용 개발하는 인간의 정신자세와 노력이 어떠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풍부한 자원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어렵고 낙후된 생활을 하는 민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별로 풍부하지 못한 자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인한 국민정신과 피나는 노

력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락한 문화생활을 하는 국민이 있는 것을 보면 인간 생활의 발전수준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은 인간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가난을 주어진 숙명이라 생각하고 체념을 하며 살아 왔다. 5천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 온 것이다. 너무나 소극적이었고 보수적이었으며 앞으로 나아 갈 줄을 몰랐다. 새로운 사상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몰랐거나 두려워하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습성이 있었다. 겨울철이면 할 일 없이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화투놀이나 윷놀이를 일삼고 될 수만 있으면 힘 안 들이고 살아가려는 방법을 찾았으며, 서로의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일하고 도와 나갈 줄을 몰랐던 것이 지난날의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었고 생활 태도였다.

새마을운동은 이와 같은 지난날의 우리의 역사와 민족성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라도 더욱 분발하여 잘 사는 길을 찾자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영토의 넓고 좁은 거나 자원의 많고 적은 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정신을 계발하고 더 많은 땀과 지혜와 노력을 기우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계발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정신혁명 운동인 것이다.

3. 새마을운동은 마을주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하는 자율적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추진하는 운동인가.

첫째로 이 운동의 주체는 마을의 주민이다.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 되었을 때에는 시장 군수나 일선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앞장서 지도해 나갔기 때문에 마치 공무원이 이 운동의 주체이고,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따라 가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마을주민들이며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은 이 운동의 지원자요, 협조자에 불과하다. 마을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마을운동의 주인이지만 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마을주민의 협동

체야 말로 이 운동의 참된 주체이며 기본단위인 것이다.

둘째로 새마을운동은 주민 스스로의 힘을 모아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의 주체가 마을주민이며, 실시 단위가 원칙적으로 마을이라고 할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결론이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마을의 사정을 보면, 마을의 공동사업은 물론 심지어는 개인의 일까지도 정부에서 시키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그와 같이 누가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민이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피동적이고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마을이 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로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총의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선택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는 마을 전체 주민의 의사기관인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이나 이장 유지 몇 사람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4. 새마을운동의 기본이념

새마을운동은 참다운 애국심을 가르기 위한 실천도장이다.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새마을운동은 애국심과 직결 된다고 보겠다.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드는데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데 보람을 느낄 줄 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지도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새마을운동은 내가 잘 살고 발전하며 내 마을, 내 고장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고 부강해지기 위한 운동이요, 나아가 온 국민이 모두가 서로 힘을 합해서 다 같이 잘 살고 발전하기 위한 운동이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은 곧 나라를 발전시키고 잘 살 수 있게 하며 부강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야 말로 참다운 애국운동이요, 애국애족 운동인 것”이라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하는 운동이다. 말로 백번 천번 외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애국인 것이다. 정신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서 일깨워지지만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더욱 북 돋아지는 것이며 또한 행동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정신은 아무리 훌륭한 정신이라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렬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신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그것은 참다운 애국이 될 수 없다. 새마을운동은 이와 같은 애국 · 애족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더욱 일깨우고 북돋게 되는 것이므로 참다운 애국심을 길러 주는 애국심의 훈련장이요 실천도장인 것이다.

5. 새마을운동의 발전방향

'푸른 산에 둘러싸여 언제나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소득이 늘어나 지붕이나 담장은 산뜻하게 다듬어져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한결 같이 잘 살아 보려는 의욕이 넘쳐흐르고 보기에도 풍성한 마을' 이러한 마을을 만들자는 것이 다름 아닌 새마을운동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누구의 힘도 기다리지 않고 빛나는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71년부터 73년까지는 '기반조성의 단계'로 마을 안길, 지붕개량 등 마을의 기초 환경사업과 농로, 도수로 등 손쉬운 생산기반사업을 통하여 마을주민에 대한 새마을정신의 점화 · 가열에 역점을 두었고, 74년부터 76년까지는 '자조발전의 단계'로 보, 저수지,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사업과 마을 양묘, 소하천 정비사업 등 복차소득사업을 통하여 농촌 표준 환경의 마무리와 생산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77년부터 81년까지는 '자립완성의 단계'로 생산소득기반의 완료와 농외소득원의 확대로 소득증대에 전력을 기울여 목표연도인 1981년에는 농가소득 140만원을 달성시켜 나가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기본방향인 것이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장기 발전에 따른 새마을운동의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모든 국민이 체득하여 성실하고 참된 새마을 인간상을 정립해 나가고,

둘째, 새마을운동 제1차 목표연도인 1981년 까지는 농가소득목표 140만원

을 기필코 달성하며,

셋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마을을 개조하여 80년대의 표준농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제3절 새마을정신의 실천

새마을운동이란 앞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내 마을이 잘 살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운동이다.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하여 이룩하지 못한 조국의 근대화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보자는 곳이 바로 이 새마을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새마을운동의 기본이념은 조국근대화에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민족혼을 일깨워서 좀 더 부지런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일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을 합쳐 한번 일어서 보자는 것이 이 운동의 근본이요 전부다.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정신적 지주로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정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새마을정신은 근면 · 자조 · 협동이라는 세 가지 기본요소가 그 정신적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3 · 1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독립 사상을 만방에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어떠한 압박에도 꺾일 줄 몰랐던 3 · 1 정신이 온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요체는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이다. 이 새마을정신이 어떻게 국민 모두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가서 모든 국민이 이 새마을정신에 따라 생활하고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이 운동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운동이 담고 있는 이 새마을정신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이다. 우리의 실정을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일선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새마을운동이 무엇이냐,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정신이 기본바탕이며 새

마을정신은 근면 · 자조 · 협동정신으로 이루어진다고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와 같은 근면 · 자조 ·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이 무엇이며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느냐고 물을 때에는 얼른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새마을운동은 막연히 근면 · 자조 · 협동이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참 뜻을 찾아내고 그 뜻에 따라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마을운동을, 새마을정신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근면정신의 실천

살기 좋은 사회,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먼저는 부지런해야 한다. 즉 근면이다. 내가 잘 살고 우리 고장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부지런해야 한다. 근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면하지 못한 사람이 백 마디 말을 해봤자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에서 근면정신이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잘사는 국민, 부지런한 국민이 되자는 정신인 것이다.

근면이란 무작정 부지런한 것만이 근면이 아니다.

첫째, 근면은 남보다 부지런하게 일하면서도 그 결과 생산적이어야 한다.

둘째, 근면은 남보다 더 땀 흘려 노력해야 한다.

셋째, 근면은 남보다 더 정성을 들여 수고하여야 한다.

넷째, 근면은 과학적일 때 더 빛이 난다.

다섯째, 근면은 일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성과가 크고 낭비가 없어야 한다.

여섯째, 근면은 근검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결실된다.

2. 자조정신의 실천

박정희 대통령은 자조정신의 뜻을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겠다는 강인한 정신자세의 확립"이라고 말하면서, 잘 살자면 첫째, 부지런해야하고 또 자조 · 자립정신이 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에게 기대야 되겠다, 의지해야 하겠다, 의존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

람은 결코 잘 살 수 없다."고 우리의 주의를 촉구해 주었다. 자조정신이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잘 못 사는 것을 누구에게 탓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앞길을 우리 스스로 헤쳐 나가는 것이 다름 아닌 자조정신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새마을의 정신을 통하여 정말 빛나고 장한 자조정신을 발휘하며 훌륭한 새마을을 이룩한 가슴 뭉클한 경험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많이 봐왔다. 몇 세대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지 지원을 받지 않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정말 피눈물 나는 죽을 고생을 다하여 어려운 일을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다 자조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겠다. 새마을운동에서 자조하는 정신이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정신인 것이다. 그러면 자조란 무엇인가.

자조란 막연히 스스로 돕는다고 하는 것만이 자조가 아니다.

첫째, 자조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자조는 현재의 위치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셋째, 자조는 자발적인 노력을 기초로 한다.

넷째, 자조란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절약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돕는다는 정신은 자신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 생긴다. 자기가 처해있는 사정과 현재의 위치, 자기의 능력과 소망,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아야 자기 자신을 기르고 자기 자신을 보존하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조란 바로 이처럼 스스로의 분수를 지키면서 절약하는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다섯째, 자조란 분수와 처지를 스스로 깨달아 버릴 것과 지킬 것을 엄격히 구분하여 시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3. 협동정신의 실천

협동이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한 사람의 능력을 가령 1이라고 평가했을 때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얼마가 나오느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 가 된

다. 그러나 두 사람의 힘을 합쳤을 때에는 둘도 되고 셋이나 다섯도 될 수 있다. 즉 1+1=2+α인 것이다. 이 알파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협동을 통해서 우리는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고 단결심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며 자신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능률 · 단결 · 자신 이것을 합치면 못 할 것이 없다. 근면하고 자조 · 자립정신이 강하고 또 협동정신이 왕성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곧 새마을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이 왕성하면 새마을운동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에서 협동하는 정신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의 힘을 모아 도와나가자는 정신인 것이다.

그러면 협동이란 무엇인가. 협동이란 단순히 힘을 합해 일을 같이 한다는 것만이 협동이 아니다.

첫째, 협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 일할 때 이루어진다.

둘째, 협동이란 힘이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한 힘을 도와줌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이다.

셋째, 협동은 분업을 통해서 능률을 높여준다.

넷째, 협동이란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남을 돕고 힘을 합하는 것이다. 협동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힘이 합쳐져야 한다. 힘이 합쳐지기 위하여 남이 나에게 먼저 힘을 합쳐 오기를 기다린다면 언제 협동이 되어 일의 성취가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에서의 협동은 누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스스로 남을 도와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다.

다섯째, 협동은 단결심을 높여주고 새로운 힘을 창조한다. 협동 자체가 단결을 뜻하기도 하지만 협동을 통해 이루해 놓은 결과에 보람을 느낄 때 구성원의 단결심은 더 한층 높아지고 고조되기 마련이다. 마을사람들이 협동하고 단결하여 커다란 일을 해냈을 때 그들이 힘만 합치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을 갖게 된다. 이 자신력이야말로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력이며 일에 자신만 갖게 되면 일의 반 이상은 성취한 것

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처럼 협동을 통해서 일의 능률을 올리고 주민의 단결심을 더욱 굳게 하며 일에 대한 자신을 갖게 한다. 능률과 단결과 자신이 합쳐질 때 안 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새마을운동이란 협동정신을 기르고 실천하는 운동인 것이다.

4.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의 상호관계

이상에서 설명한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정신이어서는 안 된다. 새마을운동은 이 세 가지 새마을정신을 함께 기르고 실천해 나가야 하며 이 세 가지 정신을 하나로 융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해서 잘 살 수 없다.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 즉 협동이 없이는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협동이란 서로 다른 관심과 이해를 조정해서 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힘을 합치는 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혈연이나 지연이나 파벌 중심으로 덮어 놓고 합치고 뭉치는 맹목적인 협동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바탕위에 이룩되는 협동이어야 한다.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작은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큰일을 그르치거나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앞세워 전체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무절제하게 경쟁하고 서로 모함하고 다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거기에는 정당한 경쟁을 통한 응분의 대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협동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 응분의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연구하고 근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지런히 일해야만 일한 보람도 얻을 수 있고 일한 대가도 얻을 수 있다. 근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는 또한 자조정신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는 사회를 뜻한다. 근면과 자조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협동도 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도 하지 않고 안이하게 살아간다면 결국에 가서는 남에게 기대거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기의 개성도 주관도 없어지고 자립의 능력도, 자기를 지키는 힘도 모두 사라진다.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협동과 근면의 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조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을주민 전체가 자조정신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서로 협동하게 된다면

그 마을은 잘 사는 마을이 된다. 우리의 모든 농어민이 자조정신을 바탕으로 근면하게 일하고 서로 협동할 때 우리의 농촌은 저절로 부강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가 자조정신을 바탕으로 근면 · 협동의 정신을 발휘하게 되면 국가는 크게 발전하고 민족은 중흥되며 보람찬 내일을 맞게 된다. 근면하지 않고 자조할 수 없는 것이며 자조하지 않고 협동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서로 다른 정신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의 정신이며 삼위일체를 이루는 정신인 것이다.

제4절 생산 소득기반 사업

1. 새마을 가꾸기 사업

가.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의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깨끗하고 알뜰하게 가꾸어 편리하고 살기 좋은 부자마을로 만드는 사업을 말한다. 마을은 우리조상이 대대로 살아왔고 오늘의 우리 세대가 살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이 물려받을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삶의 보금자리인 마을을 어느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그 누구를 탓함이 없이 오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사업이 곧 새마을 가꾸기 사업인 것이다.

1) 새마을운동의 주축사업이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주축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은 이 가꾸기 사업에서 비롯한다. 이 사업을 힘 모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이 협동하고 단결하게 되어 이 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새마을의 기운을 생산소득사업과 직결시켜 나감으로써, 새마을운동이 더욱 알차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가 한층 더 뚜렷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 사업

을 통하여 우리민족도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과 신념의 값진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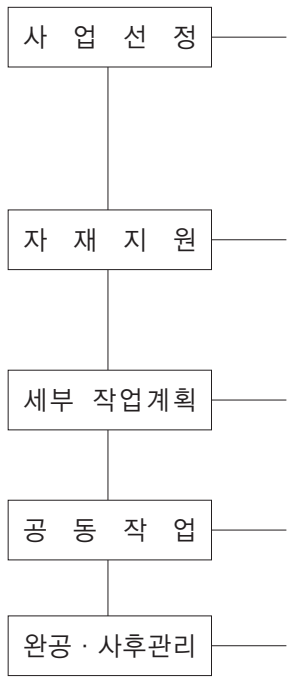
2) 환경개선 · 정신계발 · 소득증대를 근본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밑바탕은 마을안길, 농로, 담장, 하수구, 소하천 등 마을의 기초 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마을을 이룩하고, 그러한 사업 실적을 증거로 하여 보다 강인한 주민의 의욕과 자신과 집념을 배태 · 계발시켜 나가면서, 새마을운동의 궁극 목표인 잘사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미 그 자체에 새마을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온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마을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따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근면 · 자조 ·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주민은 평소에 절실하게 원하는 숙원사업 중 기초 환경개선사업이나 생산소득증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 또는 문화 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이 주민의 힘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경우에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자제(시멘트 · 철근 등)와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4)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5단계로 추진한다.



마을주민이 함께 모여 주민총회를 열고 무슨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주민마다 의견이 다르므로 마을 전체의 공동이익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마을의 발전방향이 정해지고 주민의 공동욕구가 집약되게 된다.

사업의 선정이 끝나면 그 사업의 규모와 성질에 따라 필요한 기본자재를 지원함으로서 국민들의 사업에 대한 의욕을 자극하게 된다.

지원된 자재 이외의 부족한 자재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한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작업반에 들어가 협동작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당초의 사업계획에 따라 빈틈없이 작업을 하여 사업을 완공하고 최종적으로 빠지거나 잘못된 점이 없는지 재점검한다. 완공된 사업에서 느끼는 자신과 협동의 굳은 뜻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면서 완공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마을의 실정에 따라 추진한다.

① 마을이 그 발전 수준에 있어서 기초, 자조, 자립 마을 중 어떤 마을인가, 그리고 그 입지 여건이 도서 · 오지 · 광산 · 접적 · 관광마을 등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마을 실정에 따라 알맞은 사업을 택해야 한다. 특히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첫째, 주민의 공동이익이 될 수 있고,

둘째, 마을의 능력에 알맞은 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셋째, 마무리와 완공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마을의 수준별로 가꾸기 사업을 예시하면 기초마을에서는 마을안길,

농로 선착장 등의 농촌 도로사업과 하수구, 지붕개량 등 기초 환경사업을 주로 하고 기본적인 생산기반사업을 병행 실시하며 자조마을에서는 농촌도로와 농업용수시설 등의 생산기반사업을 위주로 하여 마을창고 간이저장 및 가공시설과 같은 소득구심사업을 아울러 실시하고 자립마을에서는 마을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각종 소득사업과 문화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환경사업과 생산기반 시설을 마무리 짓는다.

② 마을의 입지여건에 따라 추진할 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도서마을에서는 수산 사업에 필요한 선착장, 굴 양식사업 등을, 오지마을에서는 도로와 임산소득 기반사업을, 광산마을에서는 위생적인 간이급수시설을, 접적마을에서는 농산물 저장고 겸 방공호와 같은 안전시설을, 관광마을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관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마을수준별 사업과 지역 유형별 사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마을수준별 사업 예시〉

마을 수준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도시근교마을
중점 추진 사업	주사업	기초환경 개선사업	생산기반사업	소득사업	주산 기반사업
	부사업	생산기반 사업	소득사업	문화복지사업	녹화위주환경 종합정비
지원사업		1. 농촌도로 사업 마을안길, 농로, 하수구, 소교량, 선착장	1. 농촌도로사업 마을간 도로, 농로, 하수구, 소 교량, 선착장, 도선장	1. 소득구심사업 공동축사, 잠실, 양식장, 간이저장 및 가공시설	1. 농로, 마을안길정비, 길 내기, 길 넓히기, 길 고르기, 길 포장하기, 하수구, 소교량, 가로수심기
		2. 소하천정비 마을 앞 소하천, 뚝 보수 및 바로잡기	2. 농업용수시설	2. 미진 된 기초 환경개선 사업	2. 소하천정비 뚝 쌓기, 돌 붙이기, 하천 바로잡기
		3. 위생급수 간이급수시설, 위생우물	3. 소득구심사업 공동축사, 잠실, 창고, 양식장, 간이저장 및 가공시설		3. 소득구심사업 공동축사, 잠실, 창고, 양식장, 간이저장 및 가공시설

마을 수준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도시근교마을
중점추진사업	주사업	기초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사업	소득사업	주산 기반사업
	부사업	생산기반사업	소득사업	문화복지사업	녹화위주환경종합정비
지원사업		4. 농업용수시설	4. 위생급수 간이급수시설, 위생우물		4. 공동이용시설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마을회관, 구판장, 어린이놀이터, 공중목욕탕, 선착장, 물 양장 등
		5. 공동이용시설 창고, 작업장, 빨래터, 공동퇴비장	5. 마을 간에 연결된 소하천 정비		
자력사업		마을식수, 언덕손질, 담장, 변소, 부엌개량, 마을청소, 퇴비증산, 소류지 모래파내기, 화단 가꾸기, 주택 및 지붕개량	마을식수, 언덕손질, 새마을광장, 어린이 놀이터, 도로정비, 마을청소, 퇴비증산, 협동영농, 주택 및 지붕개량	마을식수, 표준주택건립, 메탄가스시설, 농어촌전화, 마을 통신, 목욕탕, 새마을공장, 마을청소, 퇴비증산	마을청소, 마을식수, 불량주택 개량, 퇴비증산, 새마을공장, 국토 가꾸기, 전기전화가설

〈지역유형별 사업 예시〉

마 을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도 서 마 을	선착장, 도선장, 물 양장, 방파제, 간이급수
오 지 마 을	산간농로, 조림, 공동잠실
광 산 마 을	공동목욕탕, 간이급수, 공동빨래터
접 적 마 을	농산물 저장시설을 겸한 방공호, 간이급수, 농로개설
관 광 마 을	자연경관조성, 관광조경

나. 새마을 가꾸기의 대상사업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대상사업은 생산소득기반 사업, 공동이용시설 사업, 복지환경 사업, 국토 가꾸기 사업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세부사업은 마을에 따라 다르나 사업을 분류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기반 사업

① 생산기반시설

○ 마을공동창고 ○ 공동작업장 ○ 공동축사
○ 공동퇴비장 ○ 공동잠실 ○ 양식장
○ 건조장 ○ 공동저장시설 ○ 공동가공시설
○ 선착장(물양장) ○ 저습답개량 ○ 농경지확장 등

② 농업용수시설

○ 소류지 ○ 보설치 ○ 도수로
○ 양수장 ○ 관정시설 등

③ 농로

○ 농로개설 ○ 암거 ○ 석축
○ 토관 ○ 수발 등

④ 소교량

○ 교량가설 ○ 교량보수 ○ 세월교 등

⑤ 안길 확장

○ 안길확장 ○ 측구손질 ○ 석축
○ 구조물 사업 등

⑥ 마을언덕 손질

○ 마을회관 ○ 공동목욕탕 ○ 새마을광장
○ 공동이발소 ○ 어린이 놀이터 ○ 공동변소
○ 구판장 등

2) 공동이용시설 사업

① 공동이용시설

○ 공동우물 신설 ○ 공동우물 보수

② 공동우물

○ 공동빨래터 신설 ○ 공동 빨래터 보수

③ 공동빨래터

○ 하수구 설치 ○ 하수구 복개 ○ 하수구 보수 등

3) 복지환경 사업

① 하수구 시설

② 간이급수 시설
③ 메탄가스 시설

4) 국토 가꾸기 사업
① 국토변 가꾸기
② 도읍 가꾸기
③ 관광지 가꾸기
④ 소하천 가꾸기
⑤ 가로수 가꾸기
⑥ 사방사업
⑦ 보호수 관리
⑧ 노변불량주택 정돈사업
⑨ 수해상습마을 이주사업
⑩ 도서 · 낙도개발 사업 등

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추진

1) 사업의 추진주체

사업은 이동개발위원회가 주관한다. 마을 단위에서의 사업의 주관과 계획의 수립은 이동개발위원회에서 하고, 실제사업의 추진은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

2) 사업의 추진시기

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추진한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월별로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연중 쉬지 않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에 한하여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말까지 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3) 지원 대상마을의 선정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대상마을 선정은

① 매년 실시하는 새마을 사업의 실적평가 결과

ㅇ 원칙적으로 대상사업이 많고

ㅇ 마을의 사업실적이 우수하며

ㅇ 주민의 개발의욕이 왕성한 기초 또는 자조마을 중에서 선정한다.

② 자립마을이라 할지라도 기초 환경사업이 미진한 마을은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③ 도시근교의 마을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연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4) 자재의 지원

마을에 대한 자재는 정부의 예산형편과 마을의 규모, 사업의 대상에 따라 시멘트는 300~1,000포대의 한도에서, 철근은 1톤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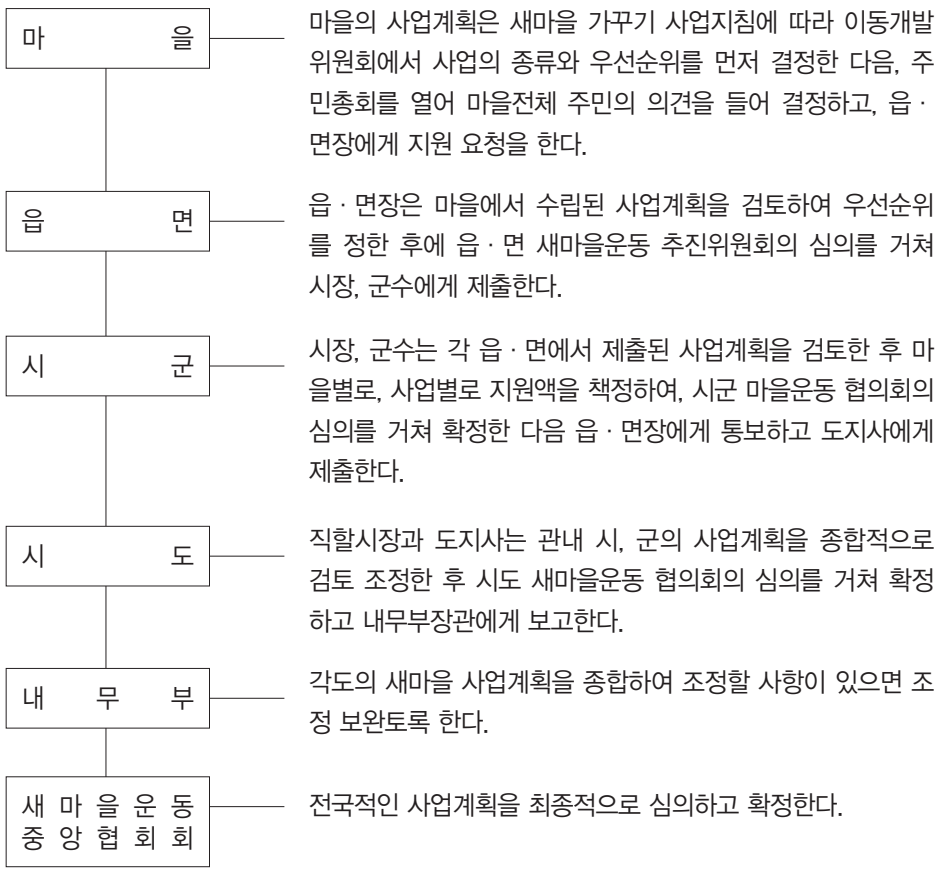
(자재의 지원 기준은 매년 일정한 것은 아님)

① 특히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사업을 잘한 마을, 전년도에 지원된 자재로 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마을과 기초 환경사업과 생산소득사업이 미진한 자립 마을은, 시멘트 지원자재의 10%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책임 하에 비축한 자재 중에서 마을의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자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사업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추진의욕이 없어서 사업이 착수를 지연시키거나 계획을 변경 또는 축소한 마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마을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 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계획은 마을에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수립된다.



②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 농한기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익년도 사업을 전년도 9~10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 마을에서 읍 · 면에 지원신청 → 매년 9월 10일까지
- ○ 읍 · 면에서 시 · 군에 계획제출 → 매년 9월 20일까지
- ○ 시 · 군에서 시 · 도에 계획제출 → 매년 9월 30일까지
- ○ 시 · 도에서 중앙에 종합보고 → 매년 10월 10일까지

6) 새마을 가꾸기 사업 분류방법 및 단위표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생산 소득기반 사업		4. 소하천 (마을세천 포함)	〈4개 사업〉
1. 생산기반시설	〈11개 사업〉		4–1 축 제
	1–1 마 을 창 고		4–2 보 수
	1–2 공 동 작 업 장		4–3 석 축
	1–3 공 동 축 사		4–4 구 조 물
	1–4 공 동 퇴 비 장	5. 마을언덕 손길	〈1개 사업〉
	1–5 공 동 잠 실	**공 동 이 용 시 설**	
	1–6 양 식 장	6. 공동 이용 시설	〈8개 사업〉
	1–7 건 조 장		6–1 마 을 회 관
	1–8 공동 저장 시설		6–2 공 동 목 욕 장
	1–9 공동 가공 시설		6–3 공 동 이 발 소
	1–10 선 착 장		6–4 공 동 변 소
	1–11 기 타		6–5 새 마 을 광 장
2. 농업용수시설	〈6개 사업〉		6–6 어린이 놀이터
	2–1 소 류 지		6–7 구 판 장
	2–1 보 설 치		6–8 기 타
	2–3 도 수 로	7. 공동 우물	〈2개 사업〉
	2–4 양 수 장		7–1 공동우물시설
	2–5 관 정 보 수		7–2 공동우물보수
	2–6 기 타	8. 공동 빨래터	〈2개 사업〉
3. 농 촌 도 로	〈15개 사업〉		8–1 공동빨래터시설
3–1 농 로	〈7개 사업〉		8–2 공동빨래터보수
	3–1–1 농 로 개 설	**복 지 환 경 사 업**	
	3–1–2 농 로 보 수	9. 하수구	〈3개 사업〉
	3–1–3 암 거		9–1 하 수 구 설 치
	3–1–4 성 축		9–2 하 수 구 복 개
	3–1–5 토 관		9–3 하 수 구 보 수
	3–1–6 수 발	10. 간이급수 시설	〈1개 사업〉
	3–1–7 기 타		
3–2 소 교 량	〈3개 사업〉	11. 메탄가스 시설	〈1개 사업〉
	3–2–1 교 량 가 설	12. 국토 가꾸기	〈2개 사업〉
	3–2–2 교 량 보 수		12–1 국도변 가꾸기
	3–2–3 세 월		12–2 국도변 구조물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명
생산 소득기반 사업			
3-3 안 길 확 장	〈5개 사업〉 3-3-1 안 길 확 장 3-3-2 석 축 3-3-3 토 관 3-3-4 수 발 3-3-5 기타 구조물	13. 도로 가꾸기 14. 기 타 사 업 (사업별로 기입)	〈2개 사업〉 13-1 측구, 절개지 보수 13-1 도로 구조물 보수

라.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발전방향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마을단위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사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새마을 운동의 튼튼한 기반이 구축되고 새마을 운동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연중 생활화 하여 실천해 나가면서 대상사업의 범위와 깊이를 더욱 넓혀서 전국 모든 마을을 80년대의 바람직한 표준농촌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다.

1) 새마을 가꾸기 대상사업의 전환이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꾸기 사업은 마을 안길 넓히기, 하수구정비 지붕개량 담장개량 등 주로 마을의 기초 환경을 개선하는 가시적인 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80년대 농가호당소득 14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소득기반사업과 연결되는 농로, 보, 소류지, 도수로, 공동작업장 등 협동생산시설과 간이급수시설이나 전기, 전화사업과 같은 문화 복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나가야 하는 것이다.

2)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영역과 방식을 점차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

이제까지는 마을단위의 주민 이익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마을권 단위의 공공이익사업에까지 가꾸기의 방식을 확대하여 수해복구나 도로관리 등 마을 권내의 모든 공공사업을 협동으로 시행하면서 이러한 기풍이 다시 소득사업에 직

결 되도록 하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마을간 협동권을 하나의 주산단지의 기능을 하는 마을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3)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연중 실천하여 새마을운동을 일상생활화하는 표본이 되도록 한다.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게 월별, 계절별,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전 국민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도록 신앙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 자재를 지원받는 지원 사업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4~6월까지 완료함은 물론 자력사업으로 기설농로의 손질, 마을청소, 퇴비증산, 식량증산, 이웃돕기 등을 연중 쉬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온 마을 주민이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확대 실천함으로써 일 년 중 어느 때도 새마을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하고 노는 일손도 없도록 해야 하겠다.

2. 새마을 협동권 사업

가. 새마을 협동권 사업의 의의

새마을운동의 초기단계에서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마을 내에 국한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의사 통일과 협동 참여가 용이하고 사업 성과도 공동이든 개인사업이든 모두 그 마을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근 마을이나 다른 지역주민과는 큰 관련이 없이 마을마다 그 마을 실정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하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을 안에서만 살 수가 없으며 어느 한 마을에만 사업이 잘 추진되어 좋은 마을회관이 있고 농로가 잘 가꾸어지고 지붕이 전부 개량되었다 하여도 그 마을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마을 앞의 하천 제방을 아무리 잘 손질하여 놓았다 하여도 윗마을에서 제방이 무너지면 우리 마을도 안전할 수 없으며 힘들여 가꾼 하천도 홍수가 나면 전부 무너지게 마련이다. 새마을 협동권 사업은 한 마을의 새마을 사업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일, 한 마을만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2개 이상의 마을이 협동하여 도수로, 보, 제방 등 마을 간

의 공동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마을의 기초 환경시설이나 마을 안의 공동이용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여도 적극적으로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한 마을의 소득은 일개 마을로부터 전국 모든 마을에 이르기까지 상호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마을 보다는 두 마을이, 두 마을 보다는 세 마을이 협동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하면서 기술을 교환하여 나간다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마을이 협동하여 더 많은 이익과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일 또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마을과 마을이 협동하여 나가면 참여한 마을은 더 많은 소득과 발전을 가져 올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마을 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그치지 말고 몇 개의 마을이 뭉친 새마을 협동권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런데 협동권 사업은 동일한 면, 동일한 군 동일한 도내의 마을간은 물론 면이 서로 다르면서 인접해 있는 이 · 동간, 나아가서는 타군, 타도 간에서도 서로 이웃하는 몇 개의 마을이 참여할 수도 있다. 두 마을은 서로 군 관할을 달리 하지만 두 마을에서 공동의 숙원사업이 있으면 새마을 협동권 사업으로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새마을 협동권 사업의 추진요령

1) 새마을 협동권 사업의 추진 방법

① 공동의 목표를 찾는다.

새마을 협동권 사업은 1개의 마을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 중에서 이웃마을이 공동으로 협동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마을의 대표자나 지도자가 모여 사업계획, 협동 추진방법 등을 연구하고 주민총회의 결의를 얻어서 사업을 확정 짓는다.

② 사업에 따라 분업화활 수 있다.

좀 더 많은 소득과 효과를 얻기 위하여 마을별로 전문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함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3개의 마을에서 생산된 상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창고나 가공시설을 설치한다면 많은 관리비와 낭비가 따르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는 창고만 관리하고 다른 마을에서는 가공공장을 운영하여 서로 부족한 힘을 보완하여 나가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③ 협동권 대표지도자를 선출한다.

협동권 사업으로 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사업기간이 수개월 또는 앞으로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마을의 지도자가 전부 참여할 부분을 제외하고 협동권 마을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지도자에게 일부사업 추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의뢰하여 시간절역과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적이고 마을 주민이 하기 힘든 사업은 대행시킬 수 있다.

새마을 협동권 사업을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협동권 조직의 마을주민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기관이나 그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민간단체와 일정한 계약 아래 사업의 일부를 위임하여 추진시킴으로서 협동권 사업 육성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과수단지 개발을 위하여 마을 간에 협동사업을 하는 경우 주민의 교육을 전문대학과 자매결연하여 실시하며 묘목의 구입을 과수협 동조합이나 특정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유리한 조건에서 공급받을 수도 있다.

2) 협동권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

① 지세와 마을전통성, 학구 등 생활여건이 유사하여 공동사업 형성 가능한 지역

② 지역개발 방향과 수단이 일치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생산기반의 확충 및 문화 복지시설 등 개발사업의 공동추진이 기대되는 지역

③ 5~6개 이상의 자연부락정도 규모로서 마을간 협동정신이 충일하고 협

동개발의 실익이 뚜렷한 초등학교 학구정도의 지역으로 3개 행정 이·동 정도의 300호 내외의 규모로 묶는다.

④ 주민의 개발의욕과 협동의식이 왕성하고 마을 단위의 기초 환경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지역

⑤ 참여마을의 능력을 상호 보완하려 협동사업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고 토지이용이나 구조물 건축에 제약을 받지 않는 지역

⑥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

3) 새마을 협동권 사업대상

① 사업결정

대상사업은 주민총회로 선출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참여 마을의 공동숙원사업을 결정한다.

②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생산소득 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대상사업의 예시]

대 상 사 업	사 업 예 시
공동증산 기반사업 농업용수개발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퇴비증산, 개간, 전화 사업 등
공동 집·출하시설	마을간 농로, 도로, 창고, 차량, 선박, 구판장 등
공동산지개발	마을양묘, 사방사업, 임산 부산물채취가공, 조림 등
공동축산낙농사업	한우, 양돈, 우유, 산양, 양계, 초지조성, 사료공장, 축사 등
공동농외소득사업	새마을공장, 특산품 개발, 내수면개발, 양식, 농산물가공, 고공품생산 공장 등
공동문화복지시설	교량가설, 간이상수도, 선착장, 소하천정비, 공원·묘원조성, 세탁장시설 등

4) 사업계획 수립

협동권 사업의 사업계획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수립한다.



① 계획의 수립

계획은 권역별로 생산기반사업, 소득구심사업, 문화 · 복지사업으로 구분하되 사업 추진기간별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늦어도 사업 착수 30일 전까지는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의 확정

수립된 계획은 권역 내 각 마을별로 주민총회에서 마을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시켜 이를 확정하고 군수 및 도지사의 심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 새마을 협동권 사업의 대상마을 지원

새마을사업은 원칙적으로 마을 단위의 사업이건 협동권 사업이건 마을 자체의 힘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협동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각종 기술 지도를 포함한 행정지원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도 없이 마을 간의 협동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협동권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이외의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 줌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새마을사업을 주민자력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정신을 심화시켜 나간다.

라. 새마을 협동권 사업의 발전방향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한 방식으로 시작된 협동사업은 모든 새마을 사업이 결국 소득증대에 직결되어져야 하듯이 앞으로는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산 기반을 넓혀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야겠으며 이러한 1개 협동권 사업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몇 개의 협동권이 모여 보다 큰 협동지역을 형성, 하나의 주산단지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양잠이 잘 되는 지역은 그 지역 안에 있는 가능한 모든 마을이 서로 협동하여 양잠단지를 형성, 공동의 노력을 기울려 나가는 한편 이러한 지역의 중심지에는 권역공동 제사공장을 건립한다면 소득을 크게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지금의 환경개선 내지는 생산기반 사업을 앞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소득구심사업 및 공동 문화 복지시설 사업으로 확대 전환해 나감으로써 80년대 이상 농촌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다.

2) 협동권역의 수를 늘려 나간다.

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군수 책임 하에 선정 추진토록 하고

② 계속하여 대상지역을 늘려 80년까지는 협동권 형성이 가능한 모든 마을을 협동권으로 묶어서 광역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3.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사업별 추진요령

1) 마을창고

마을창고란 마을주민이 생산해 낸 쌀 · 보리 · 콩 · 감자 등 농산물이나 마을에서 사용하여야 할 비료 · 농약 · 시멘트 · 농기구등의 기자재를 보관하는 마을공동의 건물을 말한다. 마을창고는 비바람을 이겨내야 하며 보관품의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습도의 유지 및 통풍시설이 갖추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공동작업장

지금까지 우리 농촌에는 공동작업장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래 우리 농촌에 농한기라는 말이 없어지고 모든 농촌의 일손을 생산과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주민이 협동하여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작업장을 만듦으로써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밖에서 일할 수 없을 경우 마을 공동작업장을 시설하여 활용하고 농한기에는 가내공업 가내부업 소규모 가공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농산물 건조장으로도 겸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동작업장으로 시설한다.

3) 축사

근년에 와서는 우리나라 가축사육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일반적으로 소 · 돼지 · 닭이 그 대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공동축사 건축요령에 대하여도 우사 · 돈사 · 계사에 대해서 설명한다.

가) 우사(외양간)

소는 농우, 육우, 유우 등으로 분류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개량되어야 할 우사는 농우의 우사라 할 것이다. 농촌에서 소의 분뇨는 일반적으로 비료로 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사 내에 분뇨가 모이고, 이에 따라 파리 등이 많이 발생하여 불결해 지기 쉬움으로 가급적 주택의 본 건물에서 떨어져서 지을 필요가 있으며, 우사에 깔아주는 짚은 자주 걷어서 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돈사(돼지우리)

돈사는 수컷돈사, 암컷돈사, 새끼돈사, 비육돈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수컷돈사만 따로 만들고 다른 것은 한 동에 함께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돼지는 본래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가축이나 우리 농촌의 경우, 정반대로 돼지우리는 아주 불결하게 관리 되어 있다. 돈사는 종래와 같이 불결하게 사육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계사(닭장)

닭은 예민한 가축이므로 다른 가축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럼으로 주의 깊게 계사를 개량함으로써 발육이 좋고 산란이 많고, 닭똥은 비료로 이용하는 등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양계의 형태에 따라 계사의 크기 형태 등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는 농가에서 20~30마리 정도의 양계를 중심으로 계획한 것임으로 닭의 수에 따라 계사의 크기도 신축성 있게 지어야 한다.

4) 공동퇴비사

공동퇴비사는 마을의 환경을 보다 깨끗이 하고 퇴비의 성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다. 마을에 공동퇴비사가 있으면 여러 집에서 따로 모아놓지 않고 한 곳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두어 주민의 퇴비생산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자연히 퇴비도 더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개인퇴비사도 자연히 만들어 지게 된다.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보면 퇴비사가 없어 아무데나 퇴비를 모아 놓음으로서 환경이 불결하고 냄새가 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퇴비사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퇴비도 만들 수 있고 집안도 정비가 된다.

5) 공동잠실

농가소득증대의 방법으로 산간 · 중 산간지대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잠업은 이제 그 양적인 확장보다 질적 개선만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며 우리나라 잠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 특히 질적으로 좋은 잠견을 만들기 위하여 누에를 기르는 장소 및 기술의 향상만이 급선무이다. 지금까지는 거의 아무렇게나 양잠을 하는 것이 우리농촌의 실정이었으나 더 좋은 잠사와 더 많은 잠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잠실을 건립하여 과학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접을 하여야 한다.

6) 소류지

소류지라 함은 5~10ha(정보) 내외의 천수답이나 수리불안전답을 경작하는데 필요한 물을 끌어내기 위하여 산간 계곡을 가로질러 막아 쌓아올린 시설을 말한다. 소류지는 보 보다는 규모가 크고 저수지 보다는 규모가 적은 농업용수 시설이다. 특히 산간 · 중 산간 지역의 천수답 또는 몽리 불안전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적게 들고 추진하기에도 부담이 덜 드는 이와 같은 소류지를 2~3개 마을이 협동하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7) 보

보란 하천에 흐르는 물을 일정한 높이로 막아 농경지로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농업용수 시설을 말한다. 규모가 작아서 마을에서 추진하기에 가장 간편한 농업용수 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 시설 하나 없어가지고 농경지에 물을 대기가 어려워 쩔쩔매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게 된다. 20m 내지 30m정도의 보는 마을사람들이 힘만 합치면 1개월 이내에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8) 도수로

도수로라 함은 수원이 있는 곳에서 경작지까지 물을 대기 위하여 콘크리트나 돌, 흙 등으로 만든 물길을 말하며 부대시설로는 수로지반의 일부가 급경사이거나 물을 모으기 위한 낙차공과 수로를 따라 흘러온 물을 일정한 지역의 경작지에 분배하기 위한 분수공과 수로가 하천이나 계곡을 횡단하는 경우 수

로교까지를 포함하여 말한다.

9)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마을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의 공통관심사가 되는 일을 토의 하여 지혜를 모으고 협동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소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것은 대개의 우리농촌의 경우 마을회관이 있지만 회관만 지어 놓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애써 지어놓은 마을회관을 그대로 놀릴 것이 아니라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해나야 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회관은 단순한 회의장소라고 하기 보다는 영농기술과 사회교육의 교육장으로서, 탁아소 또는 유치원으로서, 소규모 공장, 가내부업장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 관으로서 각종 후생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으로 연중 활용함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요람이며 산실의 역할을 하게 된다.

10) 공동목욕탕

목욕은 신진대사를 돕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특히 노동이 심한 광산이나 농촌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됨으로 목욕을 자주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욕탕 시설이 없어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일을 하여 땀을 흘리지 않는 경우라도 1주일에 한번정도는 목욕을 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좋다는 것이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릴 경우는 바로 그때그때 씻어 내는 것이 좋다. 따라서 농어촌에서는 아직까지는 집집마다 목욕탕을 만들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공사비가 적게 들고 튼튼하며 사용하기 편한 공동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변소와 부엌

우리농촌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곳이 변소와 부엌이다. 주택 전체를 개량하지 않고 변소만을 개량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으나 변소를 새로 짓거나 현재의 변소를 개량할 경우에는 특히 위생적이면서도 미관이나 정

서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변소의 개념은 사람의 생리적 배설장소 즉, 용변의 편의를 위한 곳이라기보다 오히려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곳으로 중요시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변소의 편리하고 위생적인 위치 선정은 지나치게 소홀히 취급되어 파리나 기타 해충 또는 점염병원균의 중요번식처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12) 어린이 놀이터

농촌이 근대화 되어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생활방법도 개선됨으로서, 마을의 복리를 위한 여러 가지 공동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어린이들에게도 뛰어놀 수 있는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농촌의 실정을 보면 농촌아이들이란 좁다란 골목길에서 노는 것이 일수이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만 한다면 70~80평정도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곳저곳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흐뭇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네라든지, 미끄럼틀, 철봉 등 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그러한 시설물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차차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 할 수 있으므로 어른들의 바쁜 일손에 부담을 덜어주고 공동시설을 이용함으로 어린이 스스로 협동정신과 도덕심을 기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평상시에는 어린이들이 맘대로 뛰어나와서 놀 수가 있고, 또 추수철이 되면 이 장소를 활용하여 공동작업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13) 위생우물

물이 우리생활에 귀중하고 없어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우리주위에는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해 소홀하게 취급을 하나

위생적인 물을 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공해나 오염이 심해져가고 있는 때일수록 위생적인 우물을 더욱 원하게 된다. 불결한 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비위생적인 우물을 알면서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임으로 하루빨리 우리 주위의 우물을 재점검하여 위생적인 우물로 개량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14) 공동 빨래터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될수록 빨랫감은 많아지기 마련이며 따라서 편하게 빨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히 빨래터는 농촌 부녀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관심만 있다면 가장 손쉽게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빨래터다. 앞으로도 빨래는 어느 가정에서나 해야 하기 때문에 손쉽게 시설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위생적인 공동빨래터의 표준시설 요령을 소개한다.

15) 하수구

하수구는 눈에 잘 뜨이지 않아 소홀히 취급되는 곳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하수구는 여러 가지 병원균이 씻겨나가 불결한 요소가 제거되나 물이 군데군데 웅덩이진 곳에는 파리, 모기, 쥐가 번식하는 온상이 된다. 우리 농촌의 주위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농촌을 가꾸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곳도 중요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정비하여 오염되기 쉬운 전염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여야 한다. 우리 농촌의 하수구를 크게 나누어 보면 마을안길과 연결되는 마을안 하수구와 집안에 있는 하수구로 구분할 수 있다. 마을 안에 있는 하수구는 새마을운동 시작과 함께 마을안길 확장정비의 일환으로 대부분 깨끗하게 보수 개선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가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곳은 집안의 하수구를 정비하여 마을안 하수구와 연결시키는 일이다. 마을안 하수구와 집안 하수구가 완전히 연결될 때에 하수구 정비 사업이 끝난다고 할 수 있겠다.

16) 메탄가스 시설

우리나라 농촌가정의 대부분이 나무나 볏짚 등 농산물의 부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산은 헐벗어가고 퇴비로 사용하여야 할 농산 부산물은 땔감으로 충당되어 전답은 척박하여 가고 있으나 이에 대체할 근본적인 연료원의 확보가 없는 한 산림녹화는 어렵게 될 것이다. 농촌연료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구할 수 있고 시설이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먹히는 메탄가스 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다.

17) 부엌 개량

부엌 개량이란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능률적인 농촌의 부엌을 새로운 부엌으로 개량하여 주부의 건강과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생활에 알맞은 설비와 배치, 채광환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위생적인 식품관리를 하여 전가족의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우리 농촌의 주택대량 사업 중 변소와 더불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이다. 특히 주부들의 작업능률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부담은 덜어주기 위해서는 부엌 안에 전기, 수도 시설을 갖추고 부뚜막, 개수대, 조리대 등을 높여야한다.

[부엌 개량 추진 요령]

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력으로 개량한다.

나) 새로운 집을 지을 때는 개량부엌으로 만든다.

다) 기존주택의 부엌은 마을단위로 부엌개량 계를 조직하여 점차적으로 개량한다.

18) 아궁이 개량

아궁이 개량이란 옛날부터 사용해 오는 재래식 아궁이문, 불 주머니, 불 고개 구멍 등을 개량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다. 종전의 아궁이는 대개가 필요 이상으로 크거나 비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연료가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열 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여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인 형태로 되어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이다. 따라서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을 뒷받침하여 농촌 연료를 아끼고 열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궁이 개량사업인 것이다.

[아궁이 개량의 필요성]

가) 연료가 절약된다.

전국적으로 개량되지 않고 있는 아궁이 3,652천개를 77년까지 완전 개량함으로써 임산연료 1,862천 톤이 절약되어 치산 녹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나) 열 손실을 줄임으로써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아궁이를 개량하면서 고래, 구들장, 굴뚝 등을 아울러 개량하게 됨으로 열손실을 방지하여 방의 보온효과를 증대하게 될 뿐 아니라 연료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19) 마을식수

마을식수란 글자 그대로 마을에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한다. 우리농촌을 보면 마을주변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보기에 매우 풍요로운 마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을 안에 나무가 거의 없어 보기에도 쓸쓸하고 막막한 마을이 있다. 지금까지도 산에 나무를 심는 것만을 조림으로 생각해 왔으나 앞으로는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물론 마을주변이나 집안에도 나무를 한 그루라도 더 심어 나가야 한다. 마을식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마을주변의 공한지나, 하천부지, 마을진입로, 농로 등에 심는 것도 또 다른 하나는 각자의 집안에 심는 경우가 있다.

우리 농촌의 모습을 바꾸어 놓은 예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겠다.

가) 기와나 슬레이트로 지붕개량을 하거나 주택 개량을 하여 마을의 모습을 말끔하게 단장하거나

나) 마을안길 하수구 정비 담장개량 등 마을환경을 개선하여 마을 모습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며

다)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의 방법은 마을 식수의 방법이다.

마을 주변이나 집안에 나무를 심어 마을 전체가 푸른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여 풍요하고 정서적인 농촌모습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시급히 하여야 할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마을 식수를 통하여 구민공동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우거진 숲으로 가꾼 후에는 마을연료나 목재로 사용하고 집안에 심은 나무에서는 과일을 따내어 논밭에 못지않은 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옛 추억이 담긴 아름다운 꿈과 낭만이 깃든 인정어린 마을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것도 우리가 할 당면과제인 것이다.

4. 농로 개설사업

가. 농로

농로란 마을을 기준으로 하여 마을과 국도, 지방도간, 마을과 이웃 마을간, 마을에서 농경지간을 연결하는 노폭 5m이상의 농촌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농로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립된 것은 1970년 새마을운동 시작 이후의 일이다.

종래의 농촌마을을 보면, 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나 논밭으로 나가는 길은 매우 좁고 꼬불꼬불하여, 사람이나 리어카, 경운기 등 농기계를 움직이거나 짐을 실어 나르기에 매우 불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70년 이후 농로 개설 작업이 전국 거의 모든 마을에서 추진됨으로써 농업기계화와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게 되고, 또 마을 앞까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산품을 시장에 빠른 시간 내에 출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농로개설의 의의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촌근대화의 촉진에 있다고 하겠다. 이제 마을에서 하여야 할 일은 이미 농로를 개설하지 못한 마을은 새로이 농로를 개설하는 일이다. 또 농로를 개설한 마을이라도 농로 상에

교량이 없거나 기타 구조물 암거석축 토관 등이 설치되지 않아 불완전한 농로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완전 설치하여 완전한 농로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다.

나. 암거

암거란 도로가 조그만 수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 물을 배수시키기 위해 길 밑으로 묻는 관등을 말하며 암거를 설치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농로나 길을 닦아놓았을지라도 길 밑으로 물을 빠지게 하는 방법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암거를 사용 목척에 따라 배수암거, 용수암거로 구분하고 모양은 원형 또는 상자 모형의 사각형 암거가 있다.

다. 석축

석축이란 도로나 농로의 양쪽언덕이나 비탈면에 흙이 들어가 무너지기 쉬운 곳에 돌을 쌓아 올려서 도로나 농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석축에는 돌과 콘크리트를 섞어 쌓는 찰쌓기와 돌만으로 쌓아 올리는 메쌓기가 있다.

라. 측구

측구는 노면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적당한 구배를 주어 노면에 고인 물을 인근하천으로 뽑아내는 배수 처리 공작물로서, 흙 측구, 돌쌓기, 측구, 돌붙임 측구, 콘크리트 측구 등이 있다.

마. 소 교량 가설

소 교량이란 농로위에 개울, 웅덩이 도랑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사람이나 우마차가 지장 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설한 폭 5m 이상, 길이 50m 이하의 다리를 말한다. 우리농촌에는 새마을운동 시작 이후 폭 5m이상의 도로가 많이 개설되었으나, 마을에 따라서는 농로 상에 다리가 없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이런 곳에 다리를 놓아 이미 개설해 놓은 농로가 제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소 교량 가

설이며 소 교량 가설공사는 모든 농로가 완전히 소통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 세월교

일반 교량과 같이 홍수위 시의 유량을 전부 감당할 수 있도록 통수 단면을 확보한 구조가 아니고 평수위시의 통수단면만 확보하고 홍수위시는 교량 상판을 월수하도록 개방한 구조의 교량을 말한다.

1) 세월교의 설치위치

① 전체 하폭에 교량가설을 하지 않고도 수평 위 부분만의 가설로도 교통소통에 별 지장이 없는 곳

② 홍수 시 유수가 단시간 내에 평수위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곳 즉 홍수로 인한 장시간의 교통 두절이 안 되는 곳

③ 교통량이 많지 않은 하천 횡단도로

④ 일반 교량으로 가설할 경우 접속 도로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어야 할 곳

2) 세월교의 시공요령

① 수발로 시공할 경우는 지수벽의 깊이 결정은 하상의 지층상태나 유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초가 세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세월교는 홍수 시 구체가 잠수되도록 한 구조임을 유수에 의한 저항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부유물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불필요 장식물의 설치를 피한다.

③ 유출구는 가급적 물 방석을 설치하여 기초가 세굴 되지 않고 유수가 완만하게 흐르도록 한다.

④ 기타 시공 요령은 일반 구조물과 동일함으로 생략한다.

5. 지붕개량 사업

가. 지붕개량

지붕개량 사업이란 초가지붕을 기와나 슬레이트 또는 함석 등으로 바꾸어 이음으로써 농가의 주거수준 향상은 물론 농어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아울러 농가소득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새마을 사업의 하나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 3. 7. 제1회 지방장관 회의 시 유시를 통해 "초가집보다 기와집이 보기에 더 좋아서 하느냐, 물론 보기에도 좋지만 매년 지붕에 올라가던 짚을 퇴비로 만들어서 농토를 비옥하게 한다든지, 가마니를 짜고 새끼를 꼰다든지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다."고 강조 한 바와 같이 지붕 개량 사업은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가난하고 낙후한 농촌을 경제적으로 근대화된 농촌으로 탈바꿈 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실 우리 농촌은 지금과 같은 초가지붕 형태로 5천년을 그대로 살아온 것이다. 좀 더 환경을 개선해 보고 경제적으로 살아 보려고 애써 보지도 않은 것이 우리농촌의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1970년 이후 완전히 달라져가고 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지붕개량 사업인 것이다. 지붕개량 사업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우선 환경이 개선되어 마을이 산뜻하게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매년 지붕을 잇는 짚이 절약되어 그 짚으로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을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릴 뿐 아니라 썩은새는 퇴비로 활용하여 논밭의 밑거름을 만들어 농토의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나. 주택개량

주택개량사업이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새롭고 편리하게 부분적으로 보수개선하거나 위생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부분적인 보수만을 하지 않고 집 전체를 헐고 새로이 짓는 경우를 말한다. 농촌이나 도시의 경우를 막론하고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보수개량하는 것이 많았으나 점차 주민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신축을 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예로부터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3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의, 식과 더불어 가장 흔히 다루어 온 우리의 생활수단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주택은 우리 모두의 생활근거지요 부녀자들의 활동무대요, 어린이들의 기본 교육장이며 밖에서 활동하는 남자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주택의 실태를 살펴보면 규모가 협소하고 재료가 환고하지 못하며 몇십호씩 무질서하게 옹기종기 모여 있거나 산기슭이나 도로변 등에 흩어져 있어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농사를 짓는데도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지금까지 농촌주택개량은 초가지붕을 기와 또는 슬레이트, 함석 등으로 바꾸어 이어왔으나 현존하는 농촌주택의 상당수가 하부구조가 약하고 노후불량하여 전면적인 개축을 하거나 신축건물로써 대체하여야할 상태임으로, 앞으로는 지붕개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주택의 보수 또는 농촌주택 건설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우리나라 농촌주택의 실태

① 주택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 주택의 모양은 一자형이 가장 많고 ㄱ자, ㄷ자, ㅁ자 모양으로 되어있다.
- 안채의 평균면적(건평)은 14평 정도이고 부속건물은 10평정도이다.
- 마루는 농산의 보관 장소이며 현관 역할을 하고 있다.
- 다락이나 선반이 없어 주거공간이 좁다.
- 가족 수에 비해 방수가 적다.
- 각 방마다 조명이나 통풍을 무시하고 배치되어 있다.
- 각 방과의 연결기능이 무질서하고 활동에 불편하다.

② 주택의 배치가 비능률적이다.

- 작업장이 안채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 풍향이 농사철에는 남동, 남서 이므로 먼지 및 취기가 안채에 들어간다.

- 대문이 작업장 남쪽에 있어 안채의 동선이 길고 작업공간을 통과해야 한다.
- 거실이 작업장이 되기도 한다.
- 배치의 중심은 마당이고 각 건물은 마당 주변에 무질서하게 산재외어 있다.
- 부지의 모양과 규모가 일정하지 않아 건물의 배치도 산만하다.
- 농촌의 전원적 미관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③ 주택에 대한농민의 의식구조가 방관적이다.

- 자기 집의 구조나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서도 개선의욕이 부족하다.
- 가축사나 부속사에서 오는 냄새, 오염 시각적 불량 등을 인시하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④ 남존여비사상이 강하며 건물 내에서의 가족분위기가 고압적이다.

2)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촌주택의 대부분이 오래되어 불량하고 그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재료마저 남은 목재나 흙으로 되어있어 구택 개량의 범위는 거의 주택의 신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농촌주택의 개량은 그것이 부분적인 개 · 보수이건 전반적인 신축이건 간에 사회, 경제, 교육, 문화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며, 능률적인 표본주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① 기존건물은 대폭 보수 수선한다.

② 새로 짓는 집은 생활과 영농에 편리하도록 건축한다.

③ 농촌주택건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해준다.

6. 간이급수 시설사업

가. 간이급수 시설사업의 필요성

간이급수시설이라 함은 음료수가 없거나 수질이 좋지 않은 지역의 음료 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48%가 아직도 위생면에서 불안전한 우물물이나 자연수를 그대로 마시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대부분은 농어촌 인구의 대부분인 75%의 주민이 이와 같은 비위생적인 물을 사용하고 있어 매년 장티프스, 이질과 같은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하여,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주빈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마을정신이 왕성하고 간이급수시설 설치가 가능한 마을에 대하여 일부 자재대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간이급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에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면

1)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예방되어 인명피해 방지는 물론 의료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절약된다.

2) 먼 곳에서 물을 길어오는 불필요한 노력을 다른 유익한 일에 전용할 수 있다.

3) 물을 항상 자유롭게 쓰게 됨으로 집안과 밖의 정결유지는 물론 부엌, 하수구, 변소 등의 주변이 깨끗해지고 시설이 좋아진다.

이와 같은 건강과 생활의 편리, 환경의 개선은 결과적으로 농어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게 되어 간이급수시설은 새마을사업 중에서도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업이다.

7. 농어촌 전기가설사업

농어촌 전기사업이란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농어촌지구에 전기를 가설하고

동력을 시설하여, 제반 전력시설을 가설하여 일상생활과 영농이나 부업에 편리하도록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어촌 전기사업에 있어서의 전기시설사업이란 농어촌 전화촉진법 제 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전기시설공사를 말하는 것이다.

농어촌에도 하루속히 제반전력시설을 완비한다는 것은 복지국가건설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1964년 말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의 88% 정도가 아직 전등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우선 전등시설을 구비하여 전등의 밝은 조명 설비 밑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에서 하는 국가적인 전기시설공사는 발전, 송 · 변전, 배전, 옥내시설 등의 전력공급시설을 말하는 것이나 여기에서 농어촌전화 사업은 농어촌전화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배전 시설공시 및 내선시설공사와 일부 송, 변전시설공사를 사업의 범위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문명은 전기문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1800년대에 이용되기 시작한 전기는 불과 1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 인간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고도의 물질문명과 전기를 통하여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조명시설을 비롯하여 라디오, TV등 일상 가정생활에서부터 제반 산업 시설이나 전철에 이르기까지 현대생활에서 인간에게 물이나 공기처럼 필수불가결한 것이 바로 전기일 것이다. 이와 같이 전기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태양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아직도 전등시설이 없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1965년부터 시작된 농어촌 전기사업은 72년 말 농어촌미 전기가설호수 1,529전호를 73년부터 78년까지 6개년 간에 645여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완전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어두운 밤으로부터 해방된 생활환경은 물론 전력을 이용한 농업경영기술의 향상과 영농방식의 개선으로 70년대 후반에는 풍요한 농어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절 새마을 소득증대의 필요성

1. 새마을운동과 소득증대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운동이며 국민 모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목표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새마을운동은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마을기초 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민족의 저력을 실증하였다. 앞으로도 정신적 총화운동과 실천하는 생활운동을 더욱 충실하게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마다 생산과 소득을 높여 문화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소득증대운동을 보다 계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마을주민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각기 마을의 사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마을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한 후 능력에 맞는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 실천함으로서 다른 마을보다 앞서 발전하는 선진마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모든 마을이 자율적 추진력을 바탕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지적산의 주산지를 형성하여 고도의 기술과 생산성을 가진 국민경제의 일원으로서 지역분담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나갈 때, 새마을운동은 소득증대를 통하여 내실 영속화되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마을,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2. 새마을 소득증대 방향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구분되며 어느 한쪽만으로는 목표된 소득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농가에서는 누구에게 의존함이 없이 근면 · 자조 · 협동하는 정신적 바탕위에 소득증대를 이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정부로서는 마을소득 계획을 적기에 지원 · 지도하여야 한다.

가. 농업소득증대

1) 주곡의 자급

어느 마을이나 할 것 없이 토지나 노동력 또는 기술을 식량증산에 최우선으로 활용하여, 생산면적을 넓히고 단위당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마을의 장기 안정된 기간 소득원으로 개발하고 자립경제를 지향할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2) 지역농업의 특화

식량작물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생산은 지리적 환경조건과 경제적 입지여건을 세밀히 분석하여 타 지역보다 유리한 몇 가지 작물이나 품목만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대량생산, 공동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협동추진 하여 생산체제의 근대적 혁신을 기할 수 있는 단지 협동생산체제를 조성한다.

나. 농외소득증대

1) 농촌공업의 확대

도시에서 집중되어있는 공장을 농어촌과 지방공업단지로 분산시키며, 새마을공장을 건설하여 농어촌의 소득구조를 개선한다.

2) 농외취업 확대

통근취업의 기회를 조성하고 농번기 취로사업을 확대하여, 농어촌부업을 조직적으로 육성하여 노동력을 최대로 활용한다.

3. 새마을 소득증대 계획의 특성

새마을 소득증대 계획은 자기 마을을 잘살기 위한 이정표이므로 계획수립시 모든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자기 마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개발계획을 연결시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증대 계획은 모든 마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며 자기 마을의 능력에 맞는 잘사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가. 주민 스스로가 하는 계획

새마을 소득증대 계획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주민 스스로가 근면 · 자조 · 협동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부존자원과 경제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시도는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계획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나. 마을마다 특성 있는 계획

마을이나 지역단위 종합계획 내에는 그 지역이나 마을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집단 또는 협동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의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작성하되, 계획품목을 안정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자금, 기술, 행정의 지도지원을 집중 종합한다. 마을에서는 지대별로 기본특화유형과 세분된 파생유형을 참고로 하여 마을별로 적합한 유형을 택하여 계획을 작성하고 마을 단위로 품목별 또는 작물별 주산지 특화가 되도록 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한 광역지역은 동일품목별로 단지화 하여 이러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생산애서 소득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나간다.

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계획

마을 지도자와 지도공무원은 지역의 농과계 학교와 서로 협조하여 마을의 자원과 능력을 기초 조사하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앞으로 지향할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의 결의를 얻어 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별 소득은 높은 수준의 마을에서 낮은 수준의 마을까지 여러 계층이 있으며 소득의 증가속도가 마을의 자원과 주민의 개발 의욕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으므로 마을의 특성과 능력에 맞게 연차적으로 육성하여 전체의 마을이 점차 높은 수준의 마을로 발전되도록 육성한다.

라. 능력에 맞게 추진하는 계획

새마을 소득증대 계획은 마을의 능력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의 소득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수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이 새마을정신으로 단합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소득사업을 수행할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마을이어야 하며

셋째, 원료 기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넷째,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섯째, 마을주민이 협동하여 기술, 자본,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동원하여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끊임없이 개척하여 나갈 수 있는 마을 주민의 새마을협동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는 마을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특화하여 그 특화 품목을 전국 시장에서 완전한 안정품목으로 개발 육성한다. 지도자가 없고 주민의 새마을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면 자금이나 기술을 지원하여도 사업은 성공할 수 없고 지도자와 주민은 단합되어 있어도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수준이 낮다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도 그 자금은 올바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마을의 개별능력에 맞게 단계적 육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① 낙후마을은 정신지도 · 지도자육성이 끝나면 다음 기술교육의 단계로 육성한다.

② 발전추구마을은 마을 요인분석으로 낙후요인을 제거하고 다음 단계로 육성한다.

③ 모든 상태가 우수한 마을은 시장조직을 육성하여 소득화 하고, 우수마을은 우선 지원 육성하여 점차 그 효과를 하급 확대한다.

4. 20개 종류의 마을특화 파생유형

가. 파생유형의 활용방법

파생유형은 지대별 특성에 따라 특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화 기본유형을 구체적으로 마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 주요 시책방향을 예시로 제시하

는 것이며 이 20개의 파생유형이 전국 어느 마을이나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20개의 파생유형이 제시하는 형태를 참고로 그 마을의 특성에 맞도록 변형된 특화방법을 도출해야 한다.

나. 지대별 마을특화를 위한 파생유형

1) 평야지대

① 유채마을

- 중남부에서 답리작으로 유채재배
- 단지화 할 수 있는 양의 종자, 비료보급
- 수매량과 가격에 대한 계약생산
- 지역단지에 착유공장 설치
- 유채를 이용한 양봉을 혼합

② 대마마을

- 중남부 답리작 재배
- 계약재배
- 반가공 출하
- 윤작체계 수립
- 노동력의 계절적 조절

③ 축산마을

-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 한우 중심 축산
- 추동기 곡초 춘하기 사료작물 활용
- 농가단위로 적정두수 사육
- 자급비료 확보

2) 중산간 지대

① 한우마을

- 한우 또는 산양 중심 사육
- 공동초지 조성 집단사육
- 일부 부산물이용 개별교육
- 자급사료 한계 내 사육

② 과수마을

- 경사지 개간지 활용
- 사과, 뱌, 포도, 복숭아 단지 조성
- 공동육묘, 자재공동구입, 공동교육
- 협동출하 조직구성
- 지역단위 가공공장

③ 양잠마을

- 기존상전의 집약적 경영
- 공동치잠 사육
- 공동잠실 및 기술의 보급강화
- 답작과의 노동력 조절활용

④ 채소마을

-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채소
- 단일품목의 집단재배
- 전지선정 우량품종 확보
- 집약재배 고도의 기술개발
- 공동저장 출하조직 기능육성
- 지역특수품종 개발

3) 산간마을

① 유실수마을

- 밤, 호도, 잣, 대추, 감 등 경사지 활용
- 공동육묘 연차적 식재
- 공동암야 확보
- 국유 및 사유림의 분수계약 활용
- 지역단지별 가공식품생산
- 밀원식물 육성 양봉(아카시아, 싸리)

② 약초마을

- 인삼, 작역, 화기 등 다종의 약초 재배
- 품종별로 경사지, 평지, 계속 등 토지의 적절한 활용
- 건재, 반가공품 출하
- 계약재배 및 건재상과 연결재배

③ 임업마을

- 장기용재림의 조성–리기다, 삼나무, 낙엽송
- 속성경제림 조성–오동나무, 포푸라, 관상수
- 공동육묘, 공동관리 분수계약 활용
- 산채, 버섯 등 임산부업 개발
- 선진지 견학 및 기술지도 철저

④ 한우마을

- 한우 다두 사육
- 인공초지 조성 자연초지 보호
- 전량 자급사료 확보
- 마을협동권 단위사료(건초) 가공공장 설치
- 우량종우 확보

4) 어촌지대

① 양식마을

- 연안 양식 적지 활용, 수익성 품목 양식
- 공동양식장 조상
- 공동작업, 공동생산, 공동출하
- 가공저장시설 확보
- 유통정보조직 강화

② 축산마을

- 도서 산지 초자원 활용
- 한우, 산양사육
- 해안초지 방목
- 양식업과 노동 분배 활용

③ 약초마을

- 도서, 해안지역의 적지 활용
- 인삼, 당귀 등 재배
- 종가보급 및 종자용 약초재배

5) 도시근교

① 고등채소마을

- 비절기 청정채소 재배
- 고급품종 재배
- 시설확대
- 주민상호간 기술교환
- 답리작 적극 활용

② 과수마을

- 고직매 관광용 재배
- 조생종 및 만생종 재배
- 자급비료용 가축겸업 사육
- 유원지주변 활용

③ 축산마을

- 고급 화분류 및 관상수 재배
- 온실 재배
- 채소전후작 활용
- 상품용 계약생산
- 기술 및 품종 도입

④ 축산마을

- 양계, 낙농 비육우 등 사육
- 자본회전이 빠른 가축 선택
- 전업 또는 기업적 경영
- 구입사료중심 협동조직 육성
- 우수품종 사육 질병예방

5. 농업 · 농외소득의 증대

가. 농림어업 소득증대 방향

1) 식량의 자급

식량의 증산으로 자급자족을 조기달성하기 위하여 단지영농, 품종 및 토양개량, 토지 기반정비, 기계화를 추진하고 산간 어촌지역의 토지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영농 기술의 집중보급과 경지의 확장에 주력한다.

2) 지역농업 특화

식량작물을 제외한 작물에 대하여는 마을과 마을을 합한 협동권 및 지역단위를 연결한 광역협동권으로 작목의 종류별로 기능에 따라 철저한 지역분업 생산체제로 한다.

① 적지 적작농업을 집중 개발한다.

② 자가소비를 위한 농업을 지원 확대하여 상업 · 농업으로 육성한다.

③ 농수산물 저장처리 가공시설을 주산단지에 설치하여 경제성 있는 공장규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산지 작물의 품종과 규모를 확장한다.

④ 성숙기가 다른 가공원료 작목을 연결시킨 복합주산지를 조성하여 해당 지구에 설치된 처리가공시설을 연중 완전 가동한다.

⑤ 가공공장의 부대시설로서 냉동 · 냉장시설 창고를 설치하여 원료공급을 조절한다.

나. 농외소득 증대 방향

1) 도시공장의 지방유치와 신규 설립공장의 지방분산

경제발전과 공업화 시책에 따른 공업의 지방 분산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업단지 조성의 기반을 조성한다.

2) 농어촌공업의 육성

새마을공장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유치하며 기존 농어촌지역의 농가부업 및 가내 공업을 적극 육성하여 공장형태의 기업으로 육성한다.

3) 입지조성

농어촌의 공업화 및 공업입지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진한다.

4) 노임사업의 확대

농촌지역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투자에 의한 노임 취로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나간다.

5) 기술교육의 강화 및 취업기회 조성

농촌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민의 숙련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위탁교육 산학협동교육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며 지역 내 취업 및 동근취업을 알선하는 제도

를 마련하여 이촌을 방지하고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한다.

6) 새마을공장의 지역생산 원료사용과 주민의 자본 공동참여를 조장한다.

7) 어느 곳에 어떠한 공업이 육성되나?

유치공업	생산품목 및 업종선정 기준	대상지역 선정기준	경영관리 형태
농촌가내공업	• 해외시장의 확대 및 내수증진 품목 • 신규수출용 개발품목 • 공정이 단순하고 노동집약적 품목 • 농촌에서 원료공급이 가능한 품목	• 전통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지역 • 원료공급이 적합한 지역 • 기존부업단지 및 가내공업 센터 설치지역	완제품 또는 반제품 계열 생산체제
농산물가공공업	• 특화지역에서 원료공급이 가능한 품목 • 계절성 생산물로 저장가공 품목 • 국내 및 해외수요가 보장되는 품목	• 어촌지역에서는 패각제품, 인조진주, 해산물가공 • 산간지역에서는 목각 공예품, 갈포벽지 • 평야지역에서는 초경제품, 과채가공	주산지 조성 원료계약 생산체제
농촌잡화공업	• 수송이 유리한 품목 • 공정이 단순한 노동집약적 품목 • 부녀노동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	• 농외취업기회가 제한된 원격지 • 계절적 유효노동력이 풍부한 지역	완제품 또는 반제품 계열 생산체제
농촌경공업	• 농촌공해에 지장이 없는 업종 •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지 않는 생산업종 • 농촌원료를 활용하는 업종	• 공업입지에 적합하고 용지확보가 용이한 내륙지역 • 마을 내 또는 통근이 가능한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	생산계열화 자본계열화 판매계열화

6. 새마을 소득증대계획의 실천

가. 새마을 소득협동사업을 성공시키는 일

1) 소득사업은 왜 협동하여 추진되어야 하는가?

단순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은 그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며 그 효과의 귀속도 확실하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소득사업은 불안정한 요소와 주민의 이해에 상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주민의 협동보다 실질적인 내면의 협동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의 성과도 일회에 나타나기보다 여러 횟수를 거듭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사업은 협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모든 지혜와 기술과 자금을 합하여 연구와 노력을 꾸준히 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2) 협동의 순서

① 초기단계

소득사업을 협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수준과 능력을 참작하여 기초마을이나 자조마을에서는 성공이 확실하고 단순한 협동사업부터 시작한다. 즉 사업투자에 앞서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공동 참여하여 기술을 숙달시켜, 가격이 안정되고 소득이 확실한 사업부터 시작한다. 예컨대, 전매작물, 양잠 등이나 또는 단순한 공동작업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모내기, 공동병충해 방제 등으로 협동사업의 점화를 이룩한다.

② 발전단계

초기단계의 과정에서 성공한 마을은(자립마을) 집단재배, 공동시설,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이며 계열화된 협동사업을 육성하여 나간다.

③ 육성제도

단계별 소득사업의 협동화로 경비의 절감, 판로의 개척,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및 지도공무원은 협동사업 육성에 대한 주민육

성을 강화하며 사업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맞는 행정, 자금, 기술지원 체제를 일원화하여 나간다.

3) 협동사업의 종류

협동에 의한 소득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의 추진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협동사업을 실시한다.

① 노동 협동형

일시에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며 분산된 노동을 집중하여 투입함으로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공동의 소득효과를 얻는 협동(모내기, 공동방제, 한수해대책 등)

② 기술 협동형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주민이 이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나 기계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이용하여야 할 사업

③ 자금 협동형

소규모의 개인자본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고 개인이 소요자금의 전부를 투자할 경우에는 주민이 잘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자금이나 토지를 부담하여 협동하는 방법

④ 생산 또는 판매일부 협동형

특정품목의 생산이나 판매에 한하여 전 생산과정을 공동자금, 공동노력, 공동 토지 부담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을을 공동합경작)와 개별가구에서 생산된 품목의 시장 판매만을 공동으로 대량 출하하거나 협동조직에 의한 판매로 소득을 높이는 협동방법

⑤ 생산재 공동구매형

계속하여 마을 주민이 대량 소비하는 생산재(농업비료 등)에 대하여 원산지나 생산 공장에서 공동구입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협동

⑥ 생산으로부터 판매까지 협동

일부 사업이나 품목에 한하여 주민의 협동조직에서 생산과 최종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공동양식장, 특산물생산)

⑦ 완전 협업형

주민의 전 재산과 노동력을 통합하여 마을단위를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4) 협동사업의 성공요건

① 기술의 도입

종전의 개별농가의 경영체제에서 협동경영체제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종전의 운영방법보다 유리한 기술을 계속 도입하여야만 한다.

② 공평한 분배

협동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이 부담한 자금과 노동대가에 대하여는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절감

주민의 협동으로 동원된 생산지원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수익의 증가를 실현하여야 한다.

④ 상품생산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협동사업의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현금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생산품목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⑤ 외부경제동향분석

협동사업의 실패요인을 방지하고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신빙성 있는 계통을 통하여 신속하게 외부시장의 경제사정의 변화를 수시 파악하고 분석하여 나가야 한다.

⑥ 공동기금의 확보

협동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제1단계로 공동자금을 형성하고 제2단계로 이 공동자금을 바탕으로 적당한 협동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제3단계로 공동자금의 증대로 참여주민의 협동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⑦ 수익금의 적립

협동사업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사업의 효과에서 나타난 수익금의 일부를 적정한 수준에서 계속 적립하여야만 모처럼 규합된 협동체제가 와해되지 않는다.

⑧ 계획의 일관성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자금과 노력이 투입됨으로 충실한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나.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방법

1) 기본원칙

① 보조 사업을 점진적으로 융자지원(저리 및 무이자)사업으로 전환한다.

② 농촌지역에 도시의 민간자본이 유입되도록 생산입지 조성에 주력한다.

③ 지원보조 사업은 마을 협동권 및 광역권 유통시설(가공, 저장, 수출, 판매) 확충과 조직개선사업에 우선투자한다.

④ 고도의 실용기술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 및 보급 그리고 육성사업에 재정투자를 증가한다.

⑤ 대단위 생산기반 시설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

⑥ 소득자원 사업비는 생산에서 분배과정까지 체계 있는 관리체제를 확립한다.

⑦ 새마을소득 기본시책의 지속과 투자효율증진을 위하여 자금운영의 집중관리체제를 강화한다.

2) 새마을 소득금고

① 설치

시 · 군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금고를 설치하고 새마을소득 공동사업에 마을단위로 지원한다.

② 규모

연차적으로 금고기금을 확대하여 마을당 100만원 수준의 기금을 시 · 군별

로 확보한다.

③ 운영

기금의 이자 대부기간에 대하여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준칙에 의하여 새마을협동사업의 조장과 육성으로 지역별로 소득의 특화를 유도한다.

3) 주민자금이 참여하는 새마을공장

지역생산과 가공업체를 연결하여 계획적인 원료생산과 공급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노동참여뿐만 아니라 자금 및 경영참여로 안정운영과 소득증대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수개의 새마을이 협동하여 공동 투자하여 공장을 설치하거나 마을주민의 개별주식투자로 마을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4) 농어촌금융

일반금융자금은 단기가격조절에 필요한 선대금의 지원과 유통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공장판, 집하장, 수송시설, 가공업체 육성 등에 지원토록 한다. 지원 금융에 대하여는 사업의 실행과 성과에 대한 점검제를 실시하여 자금의 타용도 유출을 방지한다.

5) 마을공동기금과 저축은 왜 필요한가?

①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의 성공요인은 자기자금으로 운영하여야 함으로 주민의 저축과 투자를 높여 나가야 하며 협동추진을 위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나가야 한다.

② 호당 연간저축(투자) 목표는 소득액의 8%로 하여 개인 저축률 6% 공동저축률 2%를 증대하여 81년도 호당연간 10만원의 저축과 마을공동으로 약 1천만 원의 저축을 이루도록 한다.

③ 공동기금의 조성은

- 복차소득사업
- 공동재산사업
- 공동사업의 일부적립

- 개인부담
- 기타 공동수입으로 구성한다.

7.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시책

새마을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잘살기 운동이며, 잘살기 위해서는 마을마다 지대별로 특색 있는 소득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소득이 중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새마을 소득증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을 통한 여러 가지 시책을 통과하여 자금을 지원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종합 조정 기능을 갖는 중앙 · 시도 · 시군 · 읍면 단위의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새마을 소득사업의 대표적 지원시책으로는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 우수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자립마을 소득증대 사업, 농협지원 새마을 육성 사업, 각종 자금융자 및 기타 지원 사업 등으로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새마을 소득금고

소득증대에 대한 의욕은 높아지지만 자금이 없어 끝을 이루지 못하는 우수새마을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간편한 수속과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 종래 농촌에 다원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시 · 군의 농가대여양곡특별회계, 복지자금특별회계, 농촌진흥특별 회계, 비육우특별회계, 가내공업육성 특별회계, 농촌 부흥자금 특별회계 자금 등 다양한 융자금을 통합하여 전국 각 시 · 군 단위로 새마을 소득사업을 특별히 지원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여 연 3%이내의 저리 회전 자금으로 물적 담보의 제공 없이 대부 신청서 제출만으로 마을에 융자하여 소득사업을 실시, 새마을운동을 영속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모든 주민이 소득사업에 참여하도록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나. 우수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우수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새마을운동을 부지런하게 꾸준히 실천하고 노력하는 우수마을에 대하여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을 새마을 사업방식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

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박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왕성한 농민과 농촌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말하고, 1973. 11. 22. 광주 새마을지도자대회 시 1,645마을에 1,645백만 원과, 1974년도에 1차로 1,993마을에 1,993백만 원, 2차로 2,131마을에 2,131백만 원을 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평균 100만원씩 사업자금을 교부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일하고자’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고, 지원된 자금과 주민들의 합하여져 농업용수개발, 농경지조성, 경제작물, 축산 등 생산소득 사업과 문화 복지 사업 등 총 5,95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당 평균 1건 이상의 사업을 이룩하였다. 또한 월간 경제동향 보고 시 박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지원하사금을 직접 받은 마을과 시 · 도 자체적으로 우수마을 지원비를 받은 마을의 사업도 우수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준하여 관리된다.

다. 소득증대 자립마을 지원 사업

전국에는 3만5천개 가까운 농촌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각기 마을의 능력과 여건이 서로 달라 어떤 마을은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마을 주민이 협동 단결하여 열심히 일하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아직도 새마을정신이 불붙지 못하여 구태의연한 그대로 가난과 게으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자 한 마을은 정부에서 조금만 밀어주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 마을들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약속했다. 정부에서는 마을의 여건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나누어 그 지원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기초마을은 아직까지 주민들의 새마을정신이 불붙지 못하고 있으며, 마을기금도 없고, 마을의 기초 환경마저 정비되지 못한 부진한 마을임으로 우선 주민들이 공동 작업을 통하여 협동정신을 익힌 후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자신을 얻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멘트와 철근을 주어 마을 공동사업으로 생산기반 사업과 일부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음 자조마을은 기초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주민들이 협동작업을 하는 가운데 새마을정신이 점화되어 지도자도 생기게

되고, 마을환경도 많이 정비되어 이제부터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착수하려는 마을로서, 정부에서는 철근과 시멘트를 지원하는 외에 소득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재나 시굴도 지원하고 있는 마을이다. 가장 바람직한 새마을은 자립마을이다. 자립마을에는 마을주민의 신망을 받는 지도자가 있고, 주민 소득도 높으며, 기금도 많고,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마을에서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 생활환경을 위생적이고 편리하게하고, 여러 가지 소득사업도 실시하도록 지원해 주어 이웃에 있는 부진 마을들이 자극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 '우수마을 우선지원'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자립마을에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며, 전기, 통신시설을 해 주고, 부업을 알선해 주고, 새로운 영농 기술을 가르쳐 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사업을 소득증대 자립마을 사업이라 한다.

라. 농협지원 새마을 육성사업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이 구성원이 되어 영농 기술을 발달시키고, 필요한 자금을 서로 융통하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조합이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래 농협이 주관하여 실시한 사업이 많지만 단위조합과 새마을을 바로 연결하여 1개 단위 조합이 1개 새마을을 맡아 육성시키고 있는 사업이 농협지원 새마을 육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정된 자금으로 여러 마을에 조금씩 지원하여 별로 큰 성과를 못 보던 지금까지의 지원방식에서 나아가 한 마을이라도 중점을 지원하여 개발의 거점을 마련함으로서 이웃마을에도 파급효과를 기대하자는 것이다.

마. 소득증대 지원자금 융자절차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소득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융자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 이때 각종 금융기관이나 관계기관에서는 많은 종류의 융자제도가 있으나, 우리 농촌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서 취급하는 융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으로 융자되는지를 알아본다.

8. 새마을 노임소득사업

새마을 노임소득사업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영세민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 취로 대책사업이며 농한기를 통한 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노임소득을 올리기 위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이고 식량증진과 생산기반조정을 통한 경기지원 대책사업이다. 따라서 새마을 노임소득사업의 기본방향은 식량증산에 기여하고 고용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생산기반조성을 통한 경기 지원 대책을 도모 하는 것이다.

9. 소득증대를 돕는 몇 가지 예

가.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의 종류와 시설]

비닐하우스는 현대 영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이다. 경영농의 돈벌이 기구라는 말도 있다. 그만큼 농사에서 비닐하우스 재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요채를 알고 시작할 일이다. 어떤 유형의 것이 좋을까, 토양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닐하우스의 정체와 내막을 분석하여 실행 가능성과 수지계산을 판단하여 착수하여야 실패가 없다.

나. 야채재배의 일반상식

야채재배를 '그저 물만 주면 되겠지.' 또는 '비료만 주면 충분하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 야채가 바라고 있을 때 물을 주고 비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늘 야채가 아주 기분 좋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성껏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야채 가꾸기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두어야 한다.

다. 포도

"돈 벌이가 신통치 않다."하여 한때 따돌림을 받은 포도농사가 요즈음 다시 인기업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새 돈벌이 작전 시샘? 마저 낳게 한 포도재배는 여느 수익성 작물에 비해 투자부담이 다소 많은 것이 흠이라고 하겠지만 이에 비해 지역여건과 시장성, 적성품종을 골라 경영의 묘를 살린다면 관당 5천 원 이상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진주알을 따는 유망사업이란 호평을 산다. 이런 현상은 별 상식도 없이 노지재배에 의존하던 재래식 방법과는 판이한 것이다. 특히 야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토질 등 재배조건이 알맞아 초심자의 관심을 끈다. 요즈음에는 관광농원 붐까지 싹 터 전망은 더욱 밝아진다. 그러나 실패하기 쉽고 함정이 많은 것 또한 포도농사이다. 얄팍한 이론과 재래식기술로 대들어선 밑천 들어 먹기 알맞다는 적신호를 던진다.

라. 사과재배

일본 '아오모리껜 나가지와 · 쓰루마쓰' 라는 사과 영농가의 36년에 걸친 경험 속에서 얻어진 새로운 사과 재배기술을 여기에 소개한다. 그는 여름 가지치기를 토대로 해서 가지의 밑동까지 꽉 차게 꽃눈을 달게 함으로써 질 좋은 사과를 놀라울 정도로 다수 수확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 인삼재배

인삼은 다른 작물과 달라 특이한 환경 속에서만 이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인삼 본 고장이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도 생산지는 거의 한정되어 있었으며 재배법도 복잡한 편에 속한다. 최근에는 재배기술이 발달되고 수요량이 증가 되는 등 경제작물로서의 가치가 확고해지자 이제까지 삼농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지방에 까지 번져가기 시작했으며 타 지역에서의 인삼재배 성공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실증을 보여 준 것이다.

바. 약초재배에 필요한 기초상식

1~2년 생초는 보통 씨를 뿌려서 번식시킨다. 춘파는 3월 하순부터 4월 상

순경에 행해지지만 열대나 아열대의 식물, 가령 율무 등은 서리 내릴 염려가 없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걸쳐 뿌리는 것이 좋다. 가을뿌림은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에 걸쳐서 행한다. 겨울의 추위가 오기까지 모를 어느 정도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늦어지는 것보다 다소 일찍 뿌리는 것이 좋다. 야행약초의 경우에는 종자를 채취했으면 즉각 뿌리는 것이 좋은 종류가 많다. 가령 하고초나 이질풀, 질경이, 용담, 삽주뿌리, 지치 등은 종자의 수명이 짧거나 휴면하기 쉬움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곧 뿌리거나 습한 모래 속에 종자를 넣어 두었다가 이른 봄에 뿌리는 것이 좋다. 약목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

아. 비육우

우리나라도 해를 거듭함에 따라 국민소득이 급속도로 늘고, 80년대에 가서는 수출 1백억불,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늘어가는 쇠고기이의 수요를 충당하고, 나아가서는 수출을 함으로써 수출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비육우 사업은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급증하는 소고기를 우리 농민이 생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바람직하고 소고기의 생산량이 많은 종우를 선택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되며,

둘째, 비육기술을 개발하여 빨리 살찌우고 적은 비용으로 비육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

셋째, 좋은 종우와 값싼 사육법으로 합리적인 경영을 함으로써 많은 소득을 올리는 일이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합돼야 비로소 비육우사업의 성공이 주어진다고 보아야 옳다.

자. 양돈

새끼 구입 시기를 잘 택해야 한다. 육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특히 돼지

가 좋은 값으로 팔리는 시기에 맞추어 구입함으로써 수익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에 구입하면 추석 전후에 판매가 되므로 고가로 팔수 있다. 번식용의 경우 출산 시기가 혹한기나 혹서기가 되지 않도록 미리 유의하여야 하며, 새끼 돼지의 경우 판매가 유리한 때를 계산하면 더욱 좋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새끼를 구입하면 교배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든지 시세가 맞을 것을 기다려 판매를 늦추는 일이 없어 경제적이다.

차. 양묘

묘목을 살 경우 어떤 규격의 묘목이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묘목이냐를 알아야 한다. 묘목이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여러 가지다. 묘판에서 그대로 자란 것. 묘판에서 접붙이기를 한 것. 또는 묘판에서 다른 곳으로 이식한 것 등등이다.

제6절 국토 가꾸기

1. 국토 가꾸기 사업

가. 국토 가꾸기 사업의 의의

국토 가꾸기의 개념이 확실해진 것은 1970년 5월 대통령의 「국토보존에 관한 지시」 중에서 "이 땅은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고 또 우리들이 또한 묻힐 땅이며 우리의 자손만대가 지켜나가야 할 삶의 보금자리기 때문에..."라고 말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방조림사업이라든지 치수사업과 같은 의미에서의 국토 가꾸기는 오래전부터 실시하여 온 사업이겠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국토 가꾸기 사업이란 지난 1972년 이후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한 서울 춘천간의 경춘간 국도정비, 서울 판문점 통일로 주변정비, 천안시의 도시정비사업, 소하천정비, 보호수 가꾸기, 절개지 보전사업 등과 같은 새로운 의미에서의 국토 가꾸기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국토 가꾸기 사업은 서울과 각

도청소재지를 잇는 국도변의 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도 있지만 마을 입구의 절개지 보수, 소하천의 정비와 같은 작은 규모의 사업도 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거나 경주, 속리산 지구와 같은 관광 지구를 다녀보면 옛날과 달라진 점이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멋대로 버려진 관광지가 아담하게 가꾸어져 관광객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며 몇 십 년, 몇 백 년 동안을 그대로 방치되어 흘러가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수해를 막고 이를 농업용수로 활용해 나가고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 경관을 조성하고 측구를 만들어서 비가와도 도로가 파손되지 않는 것은 다 이러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효과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을 마을단위에서 추진함으로써 농한기만 되면 아무런 할 일 없이 놀던 농촌의 인력이 생산되어 사업장에 나가 일을 하면 노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결국 우리의 국토는 잘 보존이 되고 농민들은 소득을 올리게 되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나. 국토 가꾸기 사업의 대상

국토 가꾸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대상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도와 지방도의 도로변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국도변 가꾸기

2) 읍이나 면소재지의 소 도읍을 대상으로 하는 도읍 가꾸기와 관광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정비하는 관광지 가꾸기

3) 마을 앞에 흐르는 소규모 하천의 물줄기를 바로잡고 유수가 잘 되도록 정비하는 소하천 가꾸기

4) 가로수와 보호수로 지정된 희귀 수목의 관리

5) 수해상습마을의 이주, 노변불량주택정돈, 도서낙도개발 사업 등 특수지역의 종합 개발사업은 이에 포함된다.

다. 국토 가꾸기 사업의 추진요령

국토 가꾸기 사업의 공통적인 추진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임소득을 올린다.

주민자력에 의한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대부분의 국토 가꾸기는 유휴노동력을 취로 시켜 복지재정방식에 의한 노임살포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

2) 사업은 시군에서 주관하여 마을에서 시행한다.

시군에서 노선별, 지구별 계획사업량을 확정, 사업별 세부설계에 의한 산출된 금액을 시장, 군수가 현지 부근 마을에 도급하여 새마을지도자 중심으로 추진케 한다.

3) 사업 시기는 농한기를 이용한다.

사업별로 가로수 가꾸기 등 계절적으로 완료할 사업을 제외하고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단 소하천 가꾸기 사업, 수해상습마을 이주 등은 우기 이전에 정비 완료 하여 홍수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더욱 효과를 높여야 한다.

4) 특색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국토 가꾸기의 표준시공법은 각 사업마다 다르나 현지의 돌, 모래를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시공으로 경관미와 실용도를 감안하여 향토색이 짙은 운치 있는 방법으로 가꾸어야 하며 계획된 물량이 적고 가꾸어야 할 곳이 많은 곳에서는 계통별 수계별로 점진적 정비를 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우리 모두의 정성을 드려 가꾼 국토는 지역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점검케 하여 적은 부분의 파손을 사전에 보수하여 큰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2. 국도변 가꾸기 사업

국도변 가꾸기는 전국 국도의 도로연변을 정리 정돈하는 사업이다. 정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노면, 노견(길의 양옆), 길을 따라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측구, 도로의 비탈 등의 정비와 도로변에 자리를 잡고 있어 교통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건물, 암벽, 산모퉁이 등)을 철거하거나, 도로의 양측 언덕이나 하천을 정비하는 일 등이다.

3. 도읍 가꾸기 사업

도읍 가꾸기는 전국의 읍면소재지 이상의 소 도읍 시 · 군청 또는 도청소재지의 도읍을 정리 정돈하는 사업이다. 도읍 가꾸기 사업은 크게 나누어 시가지의 도로를 정비하고, 도시미관과 환경을 정비하며, 도시녹화 사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도로정비 사업은 읍면소재지나 시군청소재지로 들어가는 도읍 입구에서 시작하여 시가지의 중심지역인 도심에 이르기까지의 가로, 보도, 측구, 하수구, 가드레일, 보도블록 등 도로와 관계되는 부분이나 시설물 등을 정리하여 거리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도시미관과 환경정비 사업은 간판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 전주 · 전신주를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옮기거나 뒷골목이나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아 사람이 다니기에, 편하게 하는 사업 등이다. 끝으로 도시녹화사업이란, 공원, 공한지, 가로변, 주택주변, 도읍 입구주변에 나무를 심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4. 소하천 가꾸기 사업

일반적으로 하천은 규모에 따라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법정하천'과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으로 나누어지며 법정하천은 건설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할하천과 시도지사가 수임 관리하는 지방하천, 준용하천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소하천은 하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관리청도 명시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돌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년 전국에서 엄청난 한 · 수해를 입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5개년 간 우리나라 한 수해 상황을 참고로 보면, 매년 인명피해가 상당수가 되며, 재산피해는 190여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서도 하천정비 불량으로 인한 수해가 133여억 원이나 되며 이의 복구를 위해 매년 50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반복투입 되고 있

는 실정이다. 정주는 지안 1972년부터 소하천을 가꾸기 위하여 소하천을 세분하여,

1) 하폭 11~20m까지를 군 단위 하천으로 지정하여 군수가 관리하고

2) 하폭 6~11m까지를 면 단위 하천으로 지정하여 읍면장이 관하고

3) 하폭 2~5m까지를 마을단위 하천으로 지정하여 이장이 관리한다.

위처럼 소하천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하에 노임직영 2호 방식으로 수계별 완공위주로 소하천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노임율이 높아 노임 살포 사업으로 가장 적합할 뿐 아니라,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5. 가로수 가꾸기 사업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꾸는 것은

첫째,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 경관과 녹음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감을 주어 명랑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시가의 고시공해 방화 방음 방진을 피하고

셋째, 해안변의 방풍이나 방조의 효과를 얻는데 있다.

가로수 가꾸기는 시가 전원 산간 해안 강변 등 전국의 가로변에 지역별로 적지적수를 골라 시장 군수 책임 하에 식재하고 마을 단위로 구역책임제를 실시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가로수는 산에 나무를 심는 것과는 달리 사람이나 가축의 왕래가 많은 곳에 심어져 그 보호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행인의 눈에 가장 잘 보임으로 가로수의 보호 관리에 따라 그 지방 인심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가로수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잘 가꾸고 관리하여야 한다.

6. 보호수관리

보호수관리의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72년 이후의 일이다. 우리의 주위에는 수천 년 수백 년 묵은 오래된 나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우람찬 거수 노목,

마을을 보호하여 준다는 당산나무 등 귀하고 값진 수목이 도처에 많이 있다. 모두가 우리의 조상들이 정성들여 심고 가꾸어온 빛나는 유산이다. 이러한 수목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500년 묵은 나무를 지난날 잘라버렸다면 이러한 나무가 다시 크는데 500년이 지나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전설이 담기고 진귀 조류가 살고 있는 수목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내무부가 1972년에 마련한 것이다. 보호수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전국에 산재한 100년 이상의 거수, 노목, 진귀 희목 전설이 담겨져 있는 명수, 조류서식 수목 또는 풍치수림 등이다.

7. 노변불량주택 정돈사업

노변불량주택 정돈사업이란 노변에 흩어져 있거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불량주택을 철거하여 가까운 인근마을에 합촌하거나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여 도로변을 깨끗이 정화하고 질서 있게 가꿀 뿐 아니라 교통에 위험이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울러 살기 좋고 영농에 편리한마을로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취락과 구택개선의 표본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흔히 농촌지방이나 도시근교를 보면 길가에 한 두 채의 집이 딱 붙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나 자동차에서 보면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여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먼지를 많이 뒤집어쓰게 되어 위생상 아주 나쁘고 특히 커브 길에서는 시야를 가리고 있어 앞에 오는 자동차의 운행에 장애를 줌으로써 차량충돌 위험이 있고 어린이 놀이에도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주택들을 이주시켜 생계와 영농에 편리하고 농촌취락과 주택건설의 표본이 되도록 할뿐 아니라 이주농가에 대하여는 안정되고 편안한 가운데 위생적인 가정을 꾸며주는 사업이 노변불량주택 정돈사업인 것이다.

8. 수해 상습마을 이주사업

장마철이 되면 해 마다 수해를 입게 되는 마을을 안전지대로 집단이주시킴으로서 인명손실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

고 아울러 살기 좋고 편리한 마을로 육성하여 우리나라 농촌 취락과 주택개선의 표본이 되게 하는 사업이다. 우리 농촌은 해마다 엄청난 수해의 재난을 당하고 있다. 얼마 안 되는 강우량에도 집과 전답이 무너지거나 떠내려가고 인명의 손실은 물론 우마와 가축을 잃어버려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계를 잃고 실의에 빠져 비통해 하는 참상이 매년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혹심한 피해를 입게 되는 마을들은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위치하여 항상 수해의 위험에 있음에도 방관 내지 방치하고 잇을 뿐 아니라 누구하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국 수해 상습마을을 대상으로 가장 위험이 큰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이주하여 안전지대에 옮겨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수해 상습마을 이주사업이다. 수해 상습지역에 산재해 있는 이주대상 마을은 수해를 당하기 전에 마을 전체가 결의하여 스스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마을 전체를 집단으로 이주하여야 하므로 그 중에는 희망농가도 잇고 반대하는 농가도 있으며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본 건물을 비롯하여 변소, 축사 등 부속건물도 일시에 옮겨야 하고 이주 후의 생계걱정 등으로 본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상주택을 이주 시에는 정부에서 지원혜택을 주고 생계와 영농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줌으로서 살기 좋고 편리한 농촌주택에서 생활코자 하며 수해의 재난을 피하기 위해 이주 희망자가 늘고 있다. 따라서 이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연차별 목표량보다 초과하므로 우려가 가장 많은 하천변 마을부터 이주한다.

9. 도서 낙도 개발사업

섬은 바다에 둘러싸여있고 지형이 험하고 물이 귀해서 살기가 어렵다. 생활 수단인 교통수단은 내륙지역과 달라 기차나 자동차를 맘대로 이용할 수도 없으며 전기나 전화의 혜택도 받지 못하며,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시설과 거리 관계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섬은 여러 가지 생활면에서, 지리적인 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또한 섬은 촌락이 집단화 되어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지와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더욱 통신망이 미비되어 남파간첩의 침투요소가 되기도 한다. 도서 낙도개발사업은 이와 같이 살

기 어려운 섬 지역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선착장을 만들거나, 호안공사를 하고 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섬 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서지역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도서 낙도개발을 위하여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그 지역에 알맞은 사업을 지원 추진할 계획이다.

제7절 도시 새마을운동

1. 도시 새마을운동이란?

새마을운동이 맨 처음 시작된 곳은 농촌마을에서 부터였다. 그러나 농촌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되어온 새마을운동은 이제 농촌에서만 그치지 않고 농촌이건 도시이건 직장이건 모든 사회의 모든 계층의 일상생활에 새마을정신이 깊이 스며들어 범국민적인 일대 국민운동으로 실천되어 가고 있다. 박대통령은 1974년도 연두기자회견에서 "새마을운동은 농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범국민적인 운동이라는 점이다. 도시사람들도 적극 참여해야할 것이다. 물론 도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 사례를 많이 알고 있지만 농민이나 어민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운동은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서 도시의 직장 학교 군대 일반기업체가 적극적으로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가. 도시 새마을운동의 필요성

새마을운동의 근본적인 목적이 조국근대화운동이요, 잘살기 운동이며 근면 · 자조 ·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을 국민정신으로 생활화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고, 우리의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평화적인 통일조국을 지향하려는 대과업에 농촌이 있고 도시가 따로 있을 수는 없으며, 인구 면에 있어서 읍 이상의 도시가 전체 인구의 52%로서 28%인 농촌을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공시설과 사회지도층이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의 특수한 여건으로서 퇴폐풍조 내지 사치와 낭비 허영이 농촌에 비하여 두드러진 현실로 보아 오히려 새마을운동은 도시에서부터 앞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농촌과는 다른 도시의 특수성이 있기에 농촌지역에서 실시하던 새마을운동의 방향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도시사회의 특이성을 살려 도시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과 실천지표를 약간 달리 할 뿐이다.

나. 도시 새마을 운동의 실천지표

1) 도시 새마을운동은 새 생활의 시민운동이어야 한다.

도시민이라면 거주하는 도시의 크고 작고 간에 자기가 도시에 거주한다는 점만으로 좋든 나쁘든 우월감이나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나 올바른 시민상은 자기의 생활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참가하고 행동화하는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시민의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과 공동 협력하여 시민의 연대의 의식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회적 원칙에 따라 자기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줄 알며 타인을 시민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부 도시민들은 나의 분수를 모르고 타인도 모르며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난 의무를 이행할 줄 모르며 나의 권리는 중하게 여기나 남의 권리는 무시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새 생활 시민운동은 나보다는 우리고장, 우리고장 보다는 우리나라를 중히 여겨 큰 테두리 속에 포함된 적은 구성체로서의 나를 발견하여 모든 시민이 겸허하고 협동하는 자율적인 생활 질서를 확립함으로서 근면 · 절약 ·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을 생활화하는 새로운 시민상을 정립하여 나가야 한다.

2) 도시 새마을운동은 이웃이 서로 협동하는 근린운동이다.

도시에는 원주민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모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대대로 한 고장에서 살아오면서 서로를 잘 아는 농촌과는 다르며 편의에 따라 주거지를 자주 옮기게 되므로 향토애적 유대마저 희박하다. 이웃간에 서로가 알지 못함으로 불신이 싹트고 불신은 또한 가로막힌 벽을 더욱

굳게 함으로서 불신은 다시 고립을 초래한다. 이러한 도시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골목청소, 골목정비, 환경정비 사업부터 시작하여 이웃을 연결하는 유대를 가져 협동하고 서로 돕는 인보에 전래된 미풍을 살려나가는 자율정신을 발휘하여 근면 · 자조 · 협동 체제를 통하여 근면하고 자조하는 밝고 푸른 도시가 조성되고 지역사회가 밝아지는 근린 운동이 실천되어야 한다.

3) 도시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위한 생산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의 종극적인 목표는 근대화된 조국에서 잘 살자는 운동이다. 도시의 사치와 허영 분수에 안 맞는 생활자세, 무분별하게 맞아들이는 외래풍조와 퇴폐풍조 등을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주변에서 추방하여 도시의 소비적인 분위기를 근검하고 건전한 생산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각자의 맡은바 직분을 다하면서 능력을 발휘하여 가정에서는 근면절약하고 직장에서는 새로운 생산적 직장윤리를 조성하여 노사간의 협조로 근로자의 자율운동을 권장하는 직장풍토를 개선하고 사회에서는 가진 자와 없는 자간의 협조로 불우한 이웃을 도와 서로가 신뢰하고 협동하는 새로운 가정 · 직장사회풍토 개선으로 잘사는 생산운동이 되어야 한다. 도시 새마을운동은 모든 도시민이 스스로 긍지와 인정감을 가지고 새마을에 자진 참여하여 정신개혁과 시민정신 함양으로 새로운 시민상을 정립하는 도시사회개발 운동이며 도시문화창조운동인 것이다.

2. 도시 새마을운동의 기본방향

가. 도시 새마을운동의 기본방향

도시 새마을운동은 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각 도시의 여건과 특성에 알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새마을 사업으로 생활주변의 조그마한 손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방향에서, 농촌에서는 소득증대와 중점목표를 두고 있으나 도시에서는 도시질서의 확립 등 정신적인 면에 치중하여 추진하

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농촌에서와 같이 모든 농촌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규모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가정 · 직장 · 학교 등 연대의식이 강한 한정된 규모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실정에 맞는 구체적 지도하에 점차 그 규모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 도시 새마을운동의 추진방침

1) 직장 및 단체와 가정을 2대 사회적 실천거점으로 구분하여

가정에서의 실천주체는 주부층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 하며, 사회에 있어서는 실천거점을 직장과 단체가 중심이 되어 실천주체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정에 맞게 점화요인을 찾아 자극하여 점차 사업의 목표와 규모가 번져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추진목표에 있어서는 도시 새마을운동의 거점을 직장새마을에 두어 거점적 · 파생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고 지역새마을은 도심지보다 이웃 간에 유대의식이 강한 근교권을 중심으로 협동에 입각한 근린운동이 되도록 하며

가정새마을은 주로 도심권을 중심으로 하여 근검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되게 하고 학교새마을운동은 학구와 학교단위로 추진하여 학교교육이 가정과 지역에 직결된 교육의 향토화운동이 되도록 추진한다.

상기 4개 분야의 실천주체별 새마을운동이 서로 연계되고 보완되어 협동하는 다원적인 추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3. 도시 새마을운동의 분야별 추진 요령

이제까지 직장 새마을운동은 자매결연 등 지역새마을 돕기 운동으로 오해하여 왔으나 오히려 직장 내 새마을운동이 먼저 필요하고 중요하다. 직장 새마을운동은 '자기가 맡은 일 중에서 작은 부조리 · 낭비적인 요소라도 찾아서 하나씩 고쳐 나가는 자율적인 실천운동'인 것이다.

가. 직장 새마을운동의 표준사업

1) 업무개선 면에서 절약 · 근검 · 친절 · 직장 내 단합 등 건전한 직장을 조성하는 활동

2) 노사협조 면에서 후생복지시설, 직장금고운영, 생산성 향상 등 생산적인 직장을 조성하는 활동

3) 직장환경 면에서 청소, 나무심기, 작업환경정비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활동

4) 새마을봉사 면에서 자매결연 · 성금성품 보내기 · 노력봉사 등 지역새마을 돕기와 사회봉사활동 등

나. 직장 새마을운동

직장 새마을운동은 사회적 지위와 책임이 있는 직장단체의 기관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자기 직장단체는 물론,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새마을운동까지를 책임지고 지역지도자를 발굴한다든가 지원 육성하여 새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새마을운동은 그 직장, 단체의 능력과 조직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직장 단체내부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근검절약하고 인보 상조하는 직장분위기조성은 물론이거니와,

2) 각기 기술과 능력에 따라 농촌 새마을과 자매결연하여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며,

3) 여성단체에서는 소비자보호운동, 저축운동, 사회봉사활동 등에 앞장서고 있고,

4) 취미단체인 산악회까지도 애림운동 등 나름대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5) 특히, 공무원들의 새마을운동은 그들이 주민 계도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사명감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공직 내부의 부조리와 불신요소를 스스로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의 떳떳한 공복이 되자는 자율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다. 새마을의 날

전국적으로 매월 1일을 '새마을 날'로 통일해서 청소를 비롯해서 새마을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 아침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시민과 공무원은 자기 집 앞을 청소하고 모든 학생은 학교 단위로 모여서 청소함으로써 청소를 시민생활에 일상화하고 습성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는다.

2) 적어도 새마을 사업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업으로써 청소만은 매일 자율 실천하여 나가도록 꾸준히 이끌어 나간다. 또한 '새마을 날'에는 폐품을 들고 나와서 폐품은행에 예치한다.

3) '새마을 날' 며칠 전부터 각종 매스컴을 활용하여 사전홍보를 하고 반상회, 새마을 소식 등을 배포하여 '새마을 날' 자진 참여를 권유한다.

4. 지역 새마을운동

지역 새마을운동은 골목과 통 · 반 · 동단위로 그 지역에 여건에 따라 실정에 알맞은 사업을 선택하여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운동이다.

가. 지역 새마을운동의 표준사업

1) 이웃을 알고 지내고, 이웃을 넓혀 나가면서 이웃을 돕는 사업

2) 내 집 앞 내가 쓸고 골목하수구를 정비하는 등 지역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3) 푸른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사업을 주된 사업

나. 지역 새마을운동

지역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지도자, 부녀층, 향토예비군, 독지가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사업도 지역별로 특수한 실정에 맞도록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1) 근교권은 가로, 하수구, 축대, 하천정비 사업

2) 주택단지는 뒷골목 정비, 보안등 관리
3) 아파트단지는 공지를 이용한 화단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4) 상가와 시장은 간판정비, 정찰제 이용, 오물 청소
5) 불량지구는 재개발사업과 환경정비사업
6) 천변지구는 하상정비와 오물처리
7) 가로주변은 가로화단의 조성과 가로수 관리에 중점을 두어 실천하고 있다.

5. 가정 새마을운동

가정 새마을운동은 가정주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근검하고 화목 안락하며 합리적인 가정생활을 실천하며 이 기운을 골목단위 지역단위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가정 새마을운동은 지역과 직장 새마을운동의 연장으로서 집안 주부를 위시한 부녀 층이 주축이 되어 쉬운 일부터 착수하여 새마을정신이 가정에서부터 생활화 되도록 한다.

가. 가정 새마을운동의 표준사업

1) 근검운동으로서 저축, 폐품, 불량품활용, 청소운동 등
2) 생활개선으로서 생활간소화, 외래품 안 쓰기, 식생활 개선 등
3) 사회활동으로서 소비자가 보호, 여성운동, 봉사활동 등을 스스로 실천한다.

나. 가정생활의 종류

1) 주부 새마을운동
2) 가장 새마을운동
3) 자녀 새마을운동
4) 노년층 새마을운동

6. 학교 새마을운동

학교 새마을운동은 학교와 학군단위로 모든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의 협동참여아래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봉사와 산학협동을 통하여 가정

직장 지역 새마을운동을 연결하여 뒷받침하는 것이다. 학교 새마을운동은, 자라나는 2세들에게 새마을운동의 참뜻과 실천요목을 올바르게 익혀 건실한 사고방법을 길러주는 주체성 있는 교육이 되게 하기 위한 운동이다.

가. 학교 새마을운동의 종류

1) 초등학교 새마을운동 : 유치원, 공민학교, 초등학교 등
2) 중 · 고등학교 새마을운동 : 실업 중고교, 인문 중고교, 종합학교 등
3) 대학교 새마을운동 : 전문학교, 초급대학, 대학, 대학원 등

나. 학교 새마을운동의 표준사업

1) 교풍순화운동으로서 면학 분위기의 조성, 건전한 학생 생활실천, 학교내외 환경의 정비
2) 산학협동으로서 새마을 실습장 활용, 새마을 연구 활동, 새마을교육 계몽활동
3) 향토봉사활동으로서 새마을 노력봉사, 기술지원 위로봉사활동
4) 초등학교는 가정과 학교를 직결하여 학교 새마을이 바로 가정 새마을에 연장되도록 어머니교실, 주부교실의 운동을 강화하고,
5) 중 · 고등학교는 학습활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익히면서 교사와 학생의 기술과 능력을 지역새마을에 연결시켜 참여하도록 하고,
6) 대학에서는 연구 활동, 봉사활동, 향우활동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제8절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하여 알아야할 사항

1. 새마을 주민총회

가. 새마을 주민총회의 의의

새마을 주민총회란 마을일을 의논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모여서 개최하는 회합을 말한다. 마을이라는 공동사회 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마련이고 또 결정해야 될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 ○ 이번에 새로 마련한 마을공동 정미소는 누구에게 맡겨 관리를 시킬 것인가
- ○ 금년도 새마을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을 무슨 일부터 먼저 시작할 것인가
- ○ 우리 마을 새마을 지도자로는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 하는 등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결정해야 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마을에서 연세가 많고 항열이 높은 문장, 족장이나 이장과 같이 마을의 소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결정하고 전체 주민이 따라가는 방법(전통 방법)

둘째,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가장 많은 찬성을 받은 의견을 마을전체의 의사로 정하여 추진하는 방법(민주적 방법)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우선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번잡하지 않고 시간이 절약되며, 결정을 하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정확하다면 대체로 올바른 결론이 나올 것이다. 다만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 분화된 사회임으로 어느 한 사람도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임으로, 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혹시 독단과 독선에 빠져 시행착오를 범하기 쉬운 결점이 있다.

둘째 방법은 비록 시간과 절차가 번잡하고 경비가 많이 드는 결점이 있으면

서도 근대적인 의사 결정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중지를 모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총화참여 정신에 맞고, 의사결정에 '나도 참여했다.'는 참여의식이 자율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일 중에서도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공동재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요, 자율적인 방법임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 새마을 주민총회에서 할 일

새마을 주민총회에서는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1)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 마을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과 성과분석
- 새마을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 새마을 공동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 새마을 규약의 제정과 개정
- 새마을지도자의 선임과 개임
- 기타 새마을 주민의 공동복지에 관한 사항

2) 기타 주민총회의 토의안건으로 제출된 사항의 결정

새마을 지도자 또는 다수 주민의 동의로 주민총회의 의제로 제기된 사항은 주민총회에서 토의한다.

2. 새마을 규약

가. 새마을 규약의 의의

새마을 규약이란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하여 새마을 주민들이 지켜나가야 할 생동 규범으로 정한 새마을의 기본 규약이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는 인보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지켜 나가야 할 일을 향약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제정 시행해 왔다. 새마을 규약은 이러한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본따서 현재의 사회생활에 알맞은 규약을 만들어 시행해 나감으로써 주민총화를 이루고 질서 있는 새마을이 되게 하기 위한 주민전체의 약정이다. 나라에서 본다면 행정기관이나 국민이 지켜야 할 법과 같은 것이다.

나. 새마을 규약의 내용

새마을 규약은 새마을과 새마을 주민들이 질서 있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본규범임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를 비롯하여 동공 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정하여지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항의 예시를 보면,

-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 검소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한다.
- 가정의례 준칙을 지킨다.
- 도박과 미신을 버린다.
- 마을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꾼다.
- 향토 문화재를 보호한다.
- 이웃 간에 서로 돕는다.
-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일은 꼭 실천한다.

3. 새마을 자매결연

가. 새마을 자매결연의 의의

새마을 자매결연이란 자금이나 기술을 가진 기관 단체 직장 학교 개인 등이 새마을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금이나 기술이 부족한 새마을과 자매결연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새마을 자매결연은 도시 · 농촌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새마을운동에 총화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으로 더욱 발전시켜 계획적이며 지속적으로 육성시켜 나

가야 한다.

나. 새마을 자매결연의 대상과 형태

새마을 자매결연의 주체는 주로 농촌 새마을을 매 부락으로 하여 도시 · 직장 · 단체 · 기관 · 학교 · 개인 등이 자기기관이 되어 행하여진다. 자기기관은 각자 능력에 따라 매 부락을 지원하여 우수 자립마을로 육성한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다음에 말하는 절차를 거쳐 자기기관이 될 수 있다. 새마을자매결연은 일방적인 지원이나 무상원조가 아니고, 자매간에 서로 부족한 점을 보안하면서 이해를 깊게 한다는 뜻에서 국민총화를 다짐하는 지름길이 된다.

4. 새마을교육

가. 새마을교육의 의의

새마을 교육이란 모든 국민에게 새마을 운동의 근본이 되는 근면 · 자조 · 협동하는 새마을 정신을 기르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정신계발과 기술을 습득하는 범국민교육을 말한다.

나. 새마을교육은 정신계발교육이다.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한 바와 같이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잘살기 운동'으로써 잘살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이웃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의 처세를 반성하여 자각하고 분발하는 건실한 마음가짐이 앞서야 한다. 새삼스럽게 말할 나위도 없이 '하늘은 스스로가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듯이 스스로 돕는 정신을 기르면서 이웃과 서로 힘을 모아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행동철학으로 삼는 정신자세를 가다듬고 닦아주는 교육을 말한다.

다. 새마을교육은 소득증대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오랜 가난 속에서 벗어나 잘살아 보자고 몸부림치는 새마을운동이 곧 담을 쌓고 지붕을 개량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메탄가스 시설, 간이급수시설 등을 통하여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며 농가부업을 개발하고 특용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윤택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새마을교육이라 하겠다.

라. 새마을교육은 범국민교육이다.

새마을교육은 10대 청소년층에서부터 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남녀노소와 사회적으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임직원, 경제단체 언론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에게 실시하는 범국민 교육이다. 이와 같이 새마을교육을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교육의 목표와 중점을

- ○ 국민에게 필요하고 희망하는 교육
- ○ 국민이 실천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하여 새마을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침아래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첫째,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주관아래 장기계획과 종합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실천토록 함으로써 대상과 수준에 따라 적응하는 교육으로 조정해 나간다.

둘째, 교육의 체계는 중앙에서 마을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교육기관 간에는 기능별로 체계화해 나간다.

셋째, 마을회관이나 광장을 교육장으로 하는 마을단위 교육을 적극 강화하여 나간다.

넷째, 새마을교육에 헌신 전념할 수 있는 정예 새마을교관을 양성해 나간다.

5. 마을공동재산

가. 마을공동재산의 의의

마을공동재산이라 함은 마을의 전 · 답 · 임야 등 주민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부동산과 마을 주민 공유로 과거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경운기, 탈곡기 등 동산 또는 현재보유하고 있는 현금, 곡물, 수목과 마을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마을주민 총회의에 의하여 처분되거나 공동소유로 등기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와 같은 재산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마을 주민 중 씨족 관계나 특수한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성질의 재산은 마을공동재산이라 할 수 없으며 마을 전체의 발전과 마을 주민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면서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마을공동재산 조성방법

1) 마을주민이 양묘, 한우, 양식 등 새마을소득사업을 통하여 공동재산을 조성한다.

2) 공동모심기, 공동작업 등 협동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로 공동재산을 마련한다.

3) 전기,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는 것과 같이 주민이 재산의 일부를 부담하여 공동재산을 마련한다.

4) 독지가나 해외동포 또는 정부로부터 마을에 기부된 증권이나 채권과 같은 금권이나 물품, 토지도 공동재산이 된다.

5)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을 임야 등 마을재산도 공동재산이다.

6) 기타마을에서 공유로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이다.

다. 공동마을 재산 관리

구분	종류	예시	관리방법
동산	현금 또는 금권	• 현금, 예금고, 증권, 출자금, 공채	•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 •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동개발위원 중 1인의 3인 공동명의로 예치
	기계 기구	• 농기계, 차량, 우마차, 기타 기구	• 마을금고 등에 집중 보관 • 종목별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대장 비치활용 • 정기보수 · 점검
	가축	• 우 · 돈 · 닭 · 양 등 수익성 동물	• 주민공동 또는 위탁사육 • 위탁사육은 마을 총의로 수익 분배
	곡물	• 양곡	• 주민 대여 • 매각 전까지 집중관리
부동산	토지	• 전 · 답 · 임야 · 대지 · 잡종지 • 생육중인 임목 • 과수	•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 총유재산으로 소유권 등기 • 마을총의로 관리
	건물	• 회관, 창고, 공장, 구판장, 이발소, 공동축사, 기타공동 이용시설	•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 총유재산으로 보존등기 • 관리책임자 지정관리 • 수익의 결산

6. 새마을지도자

가.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 사명

1972. 5. 18. 박정희대통령은 새마을소득증대촉진대회 치사를 통해 “부락

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그 부락민들의 신망이 두텁고, 또 설득력이 있고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지도자만 부락민들이 따라 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았다.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성패의 관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 말하고, 그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마을지도자의 책임과 사명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오래 전부터 농촌을 개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 있게 그 방법을 밝히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만이 우리 농촌의 살길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새마을운동은 "한 두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요, 부락 사람 전부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며 "그 부락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부락지도자를 전체 의사에 따라 선출"하여 그를 중심으로 서로 협동하여 땀 흘려 일해 나가는데서 성공적인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된 사람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 · 애국애족의 향도라는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려는 개척자의 자세로 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새마을지도자의 활동

- ○ 새마을을 선도하는 핵심적 요원이 된다.
- ○ 새마을 소득증대를 위한 유능한 정보원이 된다.
- ○ 새마을 기술향상을 위한 참된 교사가 된다.
- ○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 활동적인 회원이 된다.
- ○ 새마을지도자는 주민의사의 진정한 대변인이 된다.

다. 새마을지도자 관리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구심점이자 핵으로서 사명감에 불타는 열의와 새마을지도자라는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1) 이를 위해서 지도자 선발은 직장 지도자와 지역 지도자로 구분하여 선발하되 직장지도자는 직장별로 '여론 선도자'로 적어도 1명 이상씩 선발하고 도

심지역에 있어서는 지도자 대신 동단위로 지도자단을 구성하되 그 구성인원은 동 개발위원 재산, 덕망, 사회적 지위로 보아 지도력이 큰 유공자, 관내 직장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지도자단 대표는 호선제로 한다.

2) 또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각급 교육을 강화하고 새마을 비교 시찰 등 견문기회를 넓힘으로써 지도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3) 새마을 지도자로서 우수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여 줌으로써 지도자의 사기를 높여주고,

4) 새마을 지도자는 자동적으로 전원 동 개발위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절 [새마을운동 관련] 박정희 대통령 어록

가. 새마을운동의 기본이념에 관하여

새마을운동은 자조 · 자립 ·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의 구현을 위한 운동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신계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이루는 농촌발전의 기본원리이며,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천이 되는 운동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72. 1. 31.~2. 10. 지방 연두순시)

우리 농촌에서는 자조 · 자립 · 협동의 새마을운동이 기운차게 전개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비단 농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근검 · 협동하는 우리의 전통적 미풍과 근대 산업사회의 생산적 가치를 집합시키는 정신운동인 것이다. 또한 이 운동은 건전한 사회기풍과 올바른 국민윤리를 생활화하는 애국운동이기도 하다. 이 운동을 우리는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대학인과 지식인들도 혼연히 합세하여 이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72. 2. 26. 서울대학교 졸업식)

부지런하면 누구라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참여를 해야 한다. 남한테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 보자는 의욕과 분발심과 우리 마을을 우리 마을사람이 힘을 합쳐서 부지런히 일해서 우리 힘으로 한번 잘 살아 보는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의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내가 늘 강조하는 자조정신 즉 스스로 돕는 정신이 중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돕지 않고 남이 돕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72. 3. 7. 지방장관 회의)

우리 농촌에는 지금 새마을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 운동에도 예비군 은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야 한다. 내 마을, 내 고장을 보다 살기 좋고 보다 풍요하고 보다 알뜰한 마을을 만들자는 운동이다. 내 마을이 잘 살고 나도 잘 살면,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국력이다. 국력이 부강해져야 국가 안보도 튼튼해지고, 따라서 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잘 되자면 온 마을 사람이 부지런하고 자조정신이 강하고 협동심이 강해야만 한다. 이런 정신이 강한 마을에는 무장공비가 들어와서 발을 붙일 곳이 없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마을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운동인 동시에 우리 마을을 튼튼히 지키는 운동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총력안보를 위한 가장 으뜸가는 운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72. 4. 1. 향토예비군 창설 제4주년)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의 농촌은 그야말로 가난과 무지와 체념과 무기력 속에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모든 과거의 이러한 농촌의 현상을 우리가 과감하게 탈피해서 근대화된 농촌, 보다 부강하고 잘 사는 농촌, 또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온 동네 사람들이 이웃들이 인정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72. 4. 4. 제17회 4-H 구락부 중앙 경진 대회 및 제4회 농촌부업 경진대회 시상식)

오늘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자주적 각성 아래 안일과 정체를 박차고 자조 · 자립 ·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이 힘차게 추진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정신의 계발만이 근대화 혁명을 완수시키는 궁극적인 관건이 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우리의 전 국민이 '인간 상록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 어떠한 개발도상 국가를 보더라도 이러한 국민정신은 자연히 계발되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를 일깨워 주는 모든 지도층의 선도적 역할이 있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새마을운동'이 종국에 있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의 능력과 성의가 이 운동에 얼마만큼 투입돼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72. 4. 17. 민주공화당 지구당 정기 위원회)

새마을운동의 철학적인 의미를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해야 된다. '우리 당대에서는 아무런 소득을 못 보더라도 우리들 자손에 가서 반드시 꽃이 핀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땀 흘린다.'

새마을운동은 수차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농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계도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렇게 강요해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마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으란 얘기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슨 시멘트나 철근을 가지고 다리를 놓고 안 길 다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국민정신계발운동이며, 정신 혁명운동인 것이다.

새마을운동이나 우리나라의 농촌 극대화나, 소득증대나, 모든 것이 이러한

정신 운동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철학이다.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직접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정신계발 운동이요, 행동철학이다.

가난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노력하여 소득증대를 해서 우리 농가나 우리 마을에 수입이 더 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 당대에도 잘 살아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노력을 해서도 우리 당대에 잘 살수 없다면 우리 자손들에 대에 가서라도 잘 살도록 해야겠다.

이제 우리는 조상을 원망할 그런 단계가 지났다. 우리 스스로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나라를 잘 만들어 우리들 후손들에게 떳떳한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다음에 우리들 자손들한테서 우리가 또 원망을 듣게 된다. 이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인 것이다.

잘 살자면 첫째, 부지런해야 된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철칙이요, 진리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서 잘 살았다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다. 또, 자조정신, 자립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남에게 기대야 되겠다, 의지하겠다, 의존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잘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신을 가진 민족은 잘 살수 없는 것이다. 또, 서로 협동해야한다.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협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새로이 분발을 하고 근면하고 서로 협동을 하고 단결한다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다는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이란 잘 살기 운동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배부르게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도 물론 잘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잘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밥을 먹고 옷을 입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써 보다 더 여

유가 있고 품위가 있고 보다 더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것도 나 혼자만 그렇게 잘살아서는 안 된다. 내 이웃 사람은 지금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여유 있고 품위 있는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웃끼리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웃 간에 인정과 미풍이 넘쳐흐르는 고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이 진짜 잘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자신감에 가득 차있다. 이것이 곧 우리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요, 그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결코 우리농촌사회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옛날 속담에 논어를 읽고도 논어의 뜻을 모른다 하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즈음 새마을, 새마을 하는 것은 어린애들까지 다 아는 얘기인데 막상 새마을 운동이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참 뜻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어떤 사람은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시멘트하고 철근을 가지고 마을 앞에 다리 놓고 농로 뚫는 것, 이것을 새마을운동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것도 새마을운동의 일부다. 그러나 그것이 새마을운동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 민족도 희망이 있다는 거다. 과거 우리는 수천 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 농촌 사회에서 우리 농민들이 이처럼 의욕적으로, 이처럼 자발적으로 근면하고 서로 협동을 해서 자기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정렬을 쏟아 본 에는 역사상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민족도 잠재적으로 무한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한 민족이나 아무리 훌륭한 소질을 가지고 있고, 또는 무한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역시 어떤 계기와 자극이 있어야만 그 소질과 저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2. 5. 18. 새마을소득증대 촉진대회)

지금 우리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새마을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은 근면 · 자조 ·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아스팍의 기본 정신과도 그 기조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안으로는 우리의 근대화 운동인 동시에 밖으로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나름의 노력의 한 형태인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근면 · 자조 · 협동의 노력이 그 사회의 국가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국가 상호간의 자조 · 협력하는 노력도 바로 그 지역 전체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72. 6. 14. 아시아 · 태평양 이사회 제7차 각료회의)

새마을운동을 국가시책의 최우선 과업으로 정하며, 이 운동을 통해 모든 부조리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사회기풍을 함양하며, 과감한 복지균점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72. 10. 17. 대통령 특별선언)

지금 이 시간에도 4대강 유역의 크고 작은 마을에서는 꿈을 이룩하려는 우렁찬 개발의 고동이 메아리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 자조 · 협동의 정신을 일깨우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착실히 좁혀 나가고 있다. 그리고 새마을정신은 새로운 정신혁명의 원동력이 되어 전국에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으며, 우리의 정신문화와 정치 제도는 이제 떳떳하게 그 국적을 되찾게 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땀과 더 많은 정렬을 우리 조국에 받쳐야 한다.

(72. 12. 27. 제8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

생활환경의 개선은 결코 새마을운동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요 시초에 불과하다. 새마을운동은 조상전래의 합동 총회의 정신적 가치를 오늘에 되살려 조국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하는 정신혁명이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 자조 · 협동의 정신자원을 계발하려는 정신혁명이며 이 정신을 우리의 생

활영역에서 실천하려는 행동철학이다. 새마을운동은 한마디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그 궁극목표로 하고 있는 잘살기 운동이다.

(73. 2. 7.~2. 16. 지방 연두순시)

우리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겨놓고 죽는 것이 가장 보람이 될 것인가. 우리 자손들에게 '후세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의 조상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알뜰하게 일한 바로 저 마을의 농민이었다고 대답하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쉽게 말하여 '잘살기 운동이다'리고 풀이한다. 이 '잘살기'라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자주심이 강하고, 서로 협동하여 서로 도와서 땀 흘려 가면서 나도 잘 살고 우리 이웃도 잘살고 우리고장도 잘살고 우리나라도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참되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들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참되게 잘사는 것이다. 나는 새마을 운동은 우리들 세대가 앞장서서 해야겠고 또 우리 후손들 대에 까지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73. 11. 22.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우리는 다시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의 백성, 못사는 나라의 국민, 못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과거 일제 강점기 또는 해방직후 그리고 6 · 25전쟁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렇게 물을 때 자주정신과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한국 사람이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여 말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당신 어느 나

라 사림이요? 나는 동양인이요. 동양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중국사림이요? 일본사람이요? 한국이요. 한국이 어디에 있더라?' 또는 아는 사람은 '아 한국전쟁 때 그 피난민들이 몰려다니던 그 한국말이요.' 과거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많이 있다. 앞으로는 어디 나가서 '당신 어느 나라 사림이요?' 라고 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요'하고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디에 나가서도 조금은 구김살 없이 가슴을 활짝 펴고 떳떳하게 대한민국 사람이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물려주자, 이것이 우리가 노리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가난이라는 유산을 절대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작년에도 강조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온 국민들에게 나는 재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73. 11. 22.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우선 부락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부락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부락 지도자를 전체 의사에 따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좋은 의견을 들어 종합하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 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그 부락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남녀노소 전부가 참여하여 서로 협동하고 땀 흘려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73. 11. 22.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혹 어떤 사람은 새마을운동을 보고 와서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마을이 그 전보다 깨끗해졌고, 꼬불꼬불하던 동네길이 훤하게 뚫려있다. 저것이 새마을운동이냐, 그렇다면 하나의 겉치레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전시효과만 노린 것 같은 인상이 짙다 하는 애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새마을운동의 참뜻

을 이해하자면 마을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또 자기 마을을 보다 더 살기 좋고 깨끗하고 아담한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그 결의와 의지 이것이 중요하지,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되기도 하고 농로가 뚫리기도 하고 했지만 그 결과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74. 1. 18. 연두기자회견)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적도 부근의 원주민들은 밥 세끼만 먹으면 불평이 없으나 구라파에서는 밥 세끼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불평을 하게 된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마을운동에 정진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자들은 한번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성과 있게 일을 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은 세계 각국에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새마을운동을 연상하게 되어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의 열이 식어서는 안 되겠으며, 공무원이 앞장서고, 주민들도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감을 갖지 말고 더욱 분발하고 기필코 그 일을 성취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온 마을 사람들이 의논해서 전원의 찬성을 받아 일할 때 무서운 힘을 발휘하여 놀랄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임으로, 어지간한 일은 이와 같이 해내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성공한 마을의 예를 보면 모두가 한 두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마을들이다. 남이 해서 안 되는 것을 내가 해서 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된다.

(74. 12. 17. 새마을유공자 서훈)

우리 모든 국민들의 농촌과 도시에서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생활화 하여 증산과 소비절약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오늘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도전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오늘의 세계적인 경제난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심각하고 위협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각한 자원 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운동처럼 효과적인 대책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한시라도 이 새마을운동의 우렁찬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이 새마을운동의 불길이야말로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국난 극복의 원동력이요, 새 역사 창조의 활력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74. 12. 18.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운동에 대해 나는 처음부터 이것을 잘 살기 운동이라고 했다. 새마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잘살기 위해서는 첫째 정신부터 고쳐야 하겠다. 정신혁명부터 먼저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자조심이 강하고 협동심이 강해야만 소득도 늘어나고 또 잘 살게 될 수 있다.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정신혁명이라는 것을 빼면 이 운동을 죽은 운동이다.

(75. 1. 14. 연두기자 회견)

나. 새마을운동의 추진방침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경계해야 될 일은 이 운동이 결코 전시적이거나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나 기와로 바꾸고 흙 담장을 시멘블록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외형적이고 전시적인 운동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72. 1. 31.~2. 10. 지방연두순시)

새마을운동을 했다고 해서 이제까지 수백 년 동안 가난하던 그런 부락이 1년 동안에 또는 2년 동안에 갑자기 부자가 된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 그런 기적은 없다. 특히 우리 농촌 사회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성과에 대해 너무 성급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72. 5. 18. 새마을소득증대촉진대회)

새마을사업은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소득증대사업의 하나로 밤나무 단지와 집단상전을 조성하고 비닐하우스를 많이 설치하였는데, 그 관리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도시근교의 비닐하우스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집단조성의 무계획성과 사후관리 지도의 소홀에 기이한 현상으로서 앞으로는 사업의 사후관리와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한번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택임을 지고 성공시키겠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열의와 정렬이 필요하다. 소득증대 사업을 즉흥적으로 벌였다가 방치하여 실패하거나 사람이 바뀌면 종래의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농어민의 소득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73. 2. 7.~2. 16. 지방 연두순시)

새마을사업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1~2년 동안에 당장 성과를 올리겠다는 의욕으로 너무 서두르거나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사업별로 순서를 정하여 한 가지씩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가령 농촌의 초가지붕이 하루아침에 전부 기와지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와를 이을 만한 형편이 된 농가는 기와를 이어야 하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농가는 보다 열심히 일해서 형편이 나아진 뒤에 개량해야 한다. 부락단위사업을 예로 들면, 일차적으로는 부락민들이 협동단합하고 다음에는 환경정리와 같은 부락공동 이익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락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협업을 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부락민들의 열의와 의욕이 식지 않고 계속 분발하게 되고 성과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너무 서두르거나 갑자기 하려 들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단계적으로 순서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새마을사업은 꾸준히 일관성 있게 밀고나가 이미 시작한 사업을 먼저 매듭지어놓고 다음 사업을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 해 보았다가 잘 안된다고 집어치우고 딴 사업을 벌이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다시 바꾸어 추진한다면 성공될 것이 별로 없게 된다. 더군다나 지사가 바뀌거나 새로운 시작, 군수가 새 임지에 가면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일을 벌려 놓는데, 의욕만 좋지 역시 앞뒤를 잘 보고 지금까지 해온 경험을 토대로 일관성 있게 후임자가 꾸준히 밀고 나가서 꼭 성공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73. 2. 7.~2. 16. 지방 연두순시)

우리가 이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얻는 또 하나의 성과는 같은 일이라도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하면 그 성과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에 사기와 의욕을 더욱 북돋아 주는 것이 우리 농촌을 근대화시켜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80년도 초에 가면 거의 우리 농촌들이 전부 다 자립마을 수준까지 올라가고 선진국 농촌에 조금도 손색없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꿈일 것이다.

(74. 1. 18. 연두 기자회견)

새마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더욱 조심하되, 잘못된 것은 솔직히 반성하여 다시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야 한다. 어떤 마을은 의욕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부락의 능력을 벗어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중단하거나 부채만 많아지는 폐단이 있었다. 새마을운동이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한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 착수했다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부채를 지게 되면 주민들이 모두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자포자기해서 다시 일어나는데 매우 힘이 들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부락의 특수성, 부락의 능력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착실히 세워가지고 1년, 5년, 또는 10년이라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74. 2. 6.~15. 지방 연두순시)

다. 새마을운동 지원지침에 관하여

앞으로 모든 정부의 지원은 이와 같은 새마을정신이 투철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골라서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나중으로 미루겠으며, 이와 같은 순위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새마을지원정책의 기본 방향임을 밝혀 둔다. 그 결과 생기는 부락간의 격차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오히려 공평한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가 더 잘살고, 나태하고 타성에 젖어 남에게 의존하고 불평이나 하는 자가 못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72. 1. 31.~2. 10. 지방 연두순시)

정부는 부지런한 곳에 중심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분발심을 일깨워 주고 자조 · 자립 · 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으로 더욱 잘 살아 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기운이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가득 차게 될 때 정부의 노력과 새마을운동은 비로써 알찬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본 방침이다.

(72. 2. 7. 지방 연두순시)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자조 · 자립 ·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왕성한 그러한 농민 또는 그런 농촌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뒷받침을 해 줄 생각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농촌에 대한 지원방법에 있어서 일률적인 시책을 많이 써왔다. 즉 공평히 하기 위해서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뜻에서 그런 시책을 써왔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잘 살아 보겠다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애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되며 그렇지 못한 게으른 사람은 우선순위를 훨씬 낮춰서 맨 마지막에 도와줘야 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시책이라고 생각한다. 부지런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을 똑같이 지원을 한다, 똑같은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일단 공평한 것 같지만 지극히 불공평한 것이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정부는 가장 부지런하고 의욕적이고 새마을정신이 왕성하고 투철한 그런 농민과 농촌에 대해서 중점

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것도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매년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농촌은 앞으로 수년 내 다 일어서고, 다 부강한 농촌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72. 3. 7. 지방 장관회의)

모든 농민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골고루 정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새마을운동의 근본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잘 살아 보겠다고 노력하는 농민들부터 먼저 도와주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농민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순위는 훨씬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73. 1. 22. 내무부 연두순시)

작년에 새마을운동은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본다. 이제까지의 경험에 미루어 보더라도 새마을운동은 우리 농민들이 이 운동의 참다운 의의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욕이 넘쳐흐를 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해야만 성과가 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보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은 부지런하고 자조정신이 강하고 동정과 협동정신이 강한 우수부락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절대적인 관건인 것이다.

(73. 1. 22. 내무부 연두순시)

새마을사업은 우수부락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과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여 보았으나, 별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지 못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저부에서 모든 부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배해 주는 식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부락에 고루 나누었기 때문에 지원 자금이 영세하여 소기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고, 또 스스로 잘 살아 보려는 의욕도 없고, 부지런히 일하지도 않는 부락을 아무리 도와주어 보았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아무

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스스로 돕고 서로 협동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우수부락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73. 2. 7.~2. 16. 지방 연두순시)

정부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자극하고 그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지런하고 자조정신이 강하며, 협동단결이 잘된 우수부락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운동을 잘 하는 우수부락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그렇지 않은 부락은 뒤떨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들 부락사이에는 많은 격차가 생길 것이다. 물론 부락 간에 격차가 생기는 것 자체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뒤떨어진 부락 사람들도 우수부락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잘살게 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이에 자극을 받아 조만간 분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때 비로써 정부는 이 마을도 지원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든 부락이 차례로 다 고루 잘 살게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훨씬 빠르고 성과 있는 방법이 된다고 믿는다.

(73. 2. 7.~2. 16. 지방 연두순시)

우수부락은 그 부락의 새마을운동 실적을 심사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 실적을 심사하고 평가할 때는 먼저 구체적으로 실질적이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겠으며, 그 다음에는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저 막연한 추상적 기준이나 외양만 보고 잘 되었다는 식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심사기준에는 마을 사람들의 정신자세와 생활환경 개선면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주된 기분으로 삼아야 한다. 내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새마을운동 실적 심사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재검토 작성하고 이를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3. 2. 7.~2. 16. 지방 연두순시)

새마을우수부락 우선지원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물량적인지원 못지않게 영농기술의 중점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기술이 없으면 자금을 아무리 투입해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며, 한 번 실패하면 자금의 낭비는 물론 주민들이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새마을사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민들의 기술습득이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면 인근학교와 농촌지도소 공장 등과도 연결을 맺어 지도를 하든가 중앙에서 기술자를 파견 교육토록 해야 한다.

(74. 2. 6.~2. 15. 지방 연두순시)

라. 새마을정신계발에 관하여

작년 가을부터 전국에서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나는 이 사업의 목표를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주민들의 정신계발 이라는 측면에 두고 이를 더 중요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협동정신과 단결심과 자조정신을 북돋자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부락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은 줄 알지만, 이러한 모범부락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둔 데는 바로 그곳 주민들의 자조정신과 협동과 단결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는다. 오늘 표창을 받는 모범부락 주민들의 자조정신과 협동 단결심이 강하면, 적은 예산과 적은 물자를 가지고도 커다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정신력의 위대함을 실증했다.

(71. 7. 30. 지방장관 회의)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정신을 나는 최근에 '새마을정신'이라고 합니다. '새마을정신'이란 무엇이냐, 자조 · 자립 · 협동정신입니다. 내가 항시 입에 닳도록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지만 특히 우리 농민들은 잘 살아 보겠다는 의

욕이 있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잘 살아 봐야 되겠다,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해서 한번 잘 살아 보자 하는 자조정신, 또 남에게 의지하거나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해 보겠다 하는 자립정신, 또한 동네에 있어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고 협동해 나가는 협동정신, 이러한 정신이 갖추어지게 되면 우리 농촌은 불과 몇 년 이내에 완전히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 어느 농촌에 비해 보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71. 9. 29. 벼 베기 대회)

농민들의 자조 · 자립 · 협동정신 이것이 곧 새마을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울 농민들 가슴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고 우리 농촌 방방곡곡에서 이 정신이 팽배하게 늘어날 때 비로소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우리 농촌이 부흥하고 우리 농촌의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72. 1. 11. 연두 기자회견)

농촌의 근대화는 농민 스스로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 즉 자조 · 자립 ·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농민의 정신자세를 고치기에 앞서 농촌을 지도하는 정부의 모든 공무원이 먼저 정신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72. 1. 13. 농수산부 연두 순시)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좋은 시책과 계획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의욕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 모두가 이에 참여하고 호응하여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자기에게 부하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가의 발전도 경제 개발도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욕과 노력이 없이는 총력안보도 향토방위도 농촌의 개발도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과 교육자는 영광된 조국을 재건해

보겠다는 팽배한 의욕과 투철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사업 지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도와준다는 자조정신과,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신념으로 일어서는 자립정신, 그리고 서로도와 노력하는 협동정신, 즉 '새마을 정신'에 충일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는 정신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72. 1. 31.~2. 10. 지방 연두순시)

조국 근대화의 관건은 모든 공무원이 농민에 앞장서, 부지런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보람과 정열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국민을 계도하되, 그 방향은 국민의 자조 · 자립 · 협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하여야 하며 꾸준하고 끈기 있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시책을 바로 자기 스스로의 일처럼 꼭 성공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앞서 자조 · 자립 · 협동정신, 새마을 정신을 체득하고 이에 충일하여야 하며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근대화에 선각적 사명감과 지도 이념을 가지고 계도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2. 1. 31.~2. 10. 지방 연두순시)

우리 농촌이 근대화하느냐 못하느냐의 열쇠는 오직 농민 스스로의 정신 자세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남보다 더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고 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자신과 의욕을 발휘 할 때에 비로소 우리 농촌은 근대화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 농민들의 자조 · 자립 · 협동정신이야 말로 농촌 근대화의 추진력이라고 보고, 이러한 정신을 '새마을 정신'이라고 하겠으며 이 새마을정신으로 농촌개발에 헌신하고 있는 농민들의 새로운 노력을 '새마을운동'이라고 하겠다.

(72. 2. 7. 지방 연두순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또 지원을 많이 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적극 호응하여, 이 기회에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농어민 자신들의 분발심과 자조 · 자립정신, 그리고 온 부락이 단결해서 같이 한번 힘껏 잘 해보자는 협동정신, 즉 새마을정신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72. 2. 7. 지방 연두순시)

협동을 하면 모든 일에 능률이 오르는 것이다. 이번 새마을운동에 있어서도 여러 부락들이 농로를 만든다, 교량을 만든다, 등등 여러 가지 공공이익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한 두 사람 힘으로는 안 되고 전 마을 사람이 단합을 해 가지고 협동을 해야만 될 수 있는 일이다. 한 사람의 능력을 가령 1이라고 평가를 했을 때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얼마나 나오느냐, 산술적으로는 1+1이니까 2가 맞다. 하지만 두 사람의 힘을 합쳤을 때는 1+1=2+α이다. 이 알파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인식을 해야 되겠고 우리 농민들은 이것을 점차 깨닫게 된다고 생각한다.

(72. 5. 18. 새마을소득증대 촉진대회)

우리 농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협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협동을 통해서 부락민들의 단결심이 강해지는 것이다. 같이 서로 힘을 써서 땀 흘려 가지고 일을 하고, 이래서 이룩한 그 결과를 보고 서로 흐뭇하게 보람을 느끼는 데서 부락민들의 간결심이 생긴다. 처음에는 우리 부락에 아무 기계도 없는데 부락민들이 맨주먹으로 삽과 곡괭이만 가지고 저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는데, 실제 해 놓고 난 뒤에는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부락민들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 협동을 통해서 우리는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고 단결심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자신력을 가질 수 있다. 능률 · 단결 · 자신 이것을 합치면 못하는 것이 없다. 근면하고 자조 · 자립정신이 강하고 또 협동정신이 왕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새마을정신입니다.

(72. 5. 18. 새마을소득증대 촉진대회)

첫째는 부지런해야 한다. 즉 근면이다. 내가 잘 살고 우리 고장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부지런해야 하겠다. 근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면하지 못한 사람이 백 마디 말을 해 보았자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조정신이 강해야 된다. 서로 협동을 할 줄 알이야 한다. 협동심이 강해야 한다. 근면 · 자조 · 협동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행동강령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조국근대화를 위한 일대약진 운동이요, 동시에 범국민적인 정신혁명 운동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따라서 이 운동이 반드시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이론이나 말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하나의 행동철학이다.

(73. 11. 22.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운동을 농촌의 혁명이라고 본다. 농민들의 정신혁명인 것이다. 우리 농촌의 근대화는 우리 농민들의 정신혁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지금 우리 농촌에 정신 혁명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또 농민들의 의욕이 식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이 운동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소득증대와 직결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74. 1. 18. 연두 기자회견)

새마을운동은 우리 모두가 잘살기 위한 잘살기 운동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뒤에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75. 1. 14. 연두 기자회견)

마. 새마을지도자와 주민참여에 관하여

민주사회의 영웅이란 자기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말없이 묵묵히 피 땀 흘려 일하는 상록수 들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러한 인간 상록수들을 가장 많이 필요하고 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과 실천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만 있어 가지고는 나라의 건설이나 발전은 불가능 한 것이다.

(71. 7. 30. 지방장관회의)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 성공하려면 먼저 그 부락의 지도자 양성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농촌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새 물결이 아래위로 파고들 때 이 운동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71. 9. 17. 전국 시장 · 군수 비교 행정회의)

새마을운동을 성공시키자면 이 운동에 앞장 설 농촌의 부락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 우리 농촌에서 좀 더 잘 산다는 부락을 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데, 이러한 지도자가 새마을정신에 불을 붙여 농민들 일깨우고 꾸준히 지도하고 설득할 때 이 운동은 성공하는 것이다. 지사나 군수는 유능한 지도자의 발굴과 육성에 특히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72. 1. 31.~2. 10. 지방 연두순시)

부락마다 있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주민들의 힘을 합쳐 가지고 함께 이 운동을 강력히 밀고 나간다면 우리 농촌은 반드시 부강할 것이고 먼 장래가 아니라 불과 수년 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72. 3. 7. 지방장관 회의)

잘 사는 부락을 우리가 한번 전부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에는 몇 가지 공통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 부지런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부락민들의 단결심과 협동심이 강하다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부락은 성공하지 못하

였다. 또 한 가지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부락에는 반드시 훌륭한 헌신적인 지도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다.

(72. 3. 7. 지방장관 회의)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락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우우 모여 가지고 좋소, 합시다, 해도 부락민들의 앞장에 서서 밀고 나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 가지고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72. 5. 18. 새마을소득증대 촉진대회)

그 부락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그 부락민들에 대한 신망이 두텁고 ,또 설득력이 있고,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지도자야만 부락민들이 따라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 이 훌륭한 부락의 지도자를 우리가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새마을운동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72. 5. 18. 새마을소득증대 촉진대회)

새마을운동은 한 두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온 부락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부락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부락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부락지도자를 전체 의사에 따라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 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좋은 의견을 들어 종합을 하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결코 한 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그 부락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남녀노소 전부가 참여하여 서로 협동하고 땀 흘려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73. 11. 22.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한 마을이 잘 살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마을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마을 사람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마을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 정신이 불붙지 않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유능한 지도자가 있고 근면 · 자조 ·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이 왕성한 부락 중에는 지금 자립 단계에 올라가고 있는 부락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74. 1. 18. 연두 기자회견)

바. 새마을 가꾸기에 관하여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란 한 마디로, 앞으로 정부가 농어촌에 투자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자조정신, 참여의식, 협동심, 단결심, 근로정신이 왕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이런 부락부터 빨리 일으켜 점차 다른 지역에도 확대토록 하자는, 말하자면 경제 개발과 정신계발의 병행운동으로서 국가발전의 기본 개념인 것이다.

(71. 9. 17. 전국시장군수 비교행정회의)

사. 주민소득 증대에 관하여

또한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일체의 사업은 생산과 소득증대에 직결되어야만 된다. 예를 들어 초가를 입혔던 짚은 가공품 또는 퇴비로 활용하면 농가의 부업과 증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농로가 넓어지면 영농이 기계화되기 쉽고, 농촌의 생산물을 소비지로, 비료, 농약 및 공산품 등을 농촌으로 쉽게 실어나르는 수송도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시장 · 군수는 물론 말단 공무원에게 까지 뚜렷이 인식시켜 새마을운동이 하나에서 끝까지 모두 농어민의 생활과 소득증대와 직결되도록 지도할 것.

(72. 1. 31.~2. 10. 지방 연두순시)

새마을운동은 어디까지나 우리 농민의 생산과 직결되어야 하고 또 농민들

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 농촌에서 하는 일중에는 농로 개설이라든지 또는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꾸는 지붕개량 운동이라든지 그 부락 앞에 있는 홍수 때, 떠내려간 하천에 대한 개수라든지 또는 뒷산에 대한 조림녹화, 위생우물 개량, 전기가설, 집단상전 조성 등 사업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생산과 직결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부락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겠다. 다시 말하면 겉치레만 번드레 해가지고 생산과 직결이 되지 않고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지 않는 소위 외형적이고 전시효과만 노리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다. 이 사업이 생산과 직결이 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해서 농가마다 소득이 불어난다 하는 재미를 느껴야만 이 운동에 대한 농민들의 열의가 식지 않지, 해 봤는데 아무 소득이 느는 것도 없고 자기 집에 수익이 더 느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농민들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열의가 식어버릴 것이다.

(72. 3. 7. 지방장관회의)

나는 농어민 소득 증대 특별사업이라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일부인 동시에 새마을운동의 전체다. 즉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인 것이며, 우리는 이 운동을 소득증대로 몰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72. 5. 18. 새마을소득증대 촉진대회)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우리 농가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겠다.

(72. 9. 29. 벼 베기 대회)

새마을사업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농로확장을 하더라도 단순히 보기만 좋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리어카, 삼륜차나 트럭, 경운기, 트랙터 등 현대적 영농기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생산을 늘리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새

마을운동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물론 우리 농민들이 이 운동의 궁극목표가 주민의 소득증대에 있음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를 세워서 착실하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한다.

(73. 2. 7.~2. 16. 지방연두순시)

또한 이 운동은 반드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소득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은 처음에는 모두 열을 올려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열의가 식어 버리고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운동이 계속 불길이 타오르고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직결되어야 한다.

(73. 11. 22.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최근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추진 면에서 보면 영세규모로 분산되고 종래의 주산단지 개념이 희박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할 때에 하나의 마을 단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새마을운동을 하더라도 양잠이 잘 되는 지역은 양잠을 시키고 그 인접부락도 양잠을 권장해서 하나의 양잠단지가 조성되고 잠업농가가 많아지면, 장차 이러한 지역의 중심에 제사공장을 전립함으로써 농업과 공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74. 2. 6~15. 지방 연두순시)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데 있다. 새마을사업이 따로 있고 식량증산, 치산치수사업, 소득증대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도의 모든 사업 즉 새마을사업, 식량증산, 치산치수, 소득증대사업 등을 한데 묶어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해야 하며 결국 도정운영의 정신적 기조는 새마을정신인 것이다.

(74. 2. 6.~15. 지방 연두순시)

새마을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으며, 소득을 올리려면 마을사람들이 남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자조의 정신을 발휘하여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 혼자 일하기보다는 모든 마을사람들이 협동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4. 12. 17. 새마을유공자 서훈)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가열화하기 위해서는 직접간접으로 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 소득이 증대되면 다른 일도 순조롭게 잘 되어 나가게 된다.

(74. 12. 17. 새마을유공자 서훈)

아. 새마을교육에 관하여

우리는 이 자조정신, 자립정신, 협동정신을 새마을정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신에 투철한 우리 농민, 공무원, 농촌지도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같이 앞으로 밀고 나가자, 우리 농업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지역사회 개발에 한번 불을 붙여 보자 하는 이 운동을 우리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한다. 지금 이 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상당한 의욕과 열의로 일어나고 있다.

(72. 3. 7. 지방장관회의)

지금 우리 농촌은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마을운동이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각 급 학교는 오늘의 국가 현실과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개발의 센터가 되고, 국가 목표 달성에 자진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금 농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모든 학교가 직업 교육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산학협동 체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며, 각 지방 대학은 그 고장의 특성에 알맞게 전문화되어야 한다. 항도에 있는 지방대학은 수산대학으로, 농업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방대학은 농과대학으로, 각기 그들의 특징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땀 흘려 일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찾아야 하며, 그

속에서 내 고장 내 나라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을 길러야 한다.

(72. 3. 24. 전국 교육자 대회)

자. 도시 새마을운동에 관하여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훌륭한 운동이다. 도시 사람들은 농촌보다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몇 년을 한 동네에 살면서도 서로 이름을 모르고 인사하며 내왕하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사고를 버리고 이웃끼리 정담도 나누고 자기 집 앞은 서로 자기가 깨끗이 쓸고 동네 하수구가 막히면 동네 사람들 서로가 모여 협력해서 보수도 하여, 또 그것이 너무 큰 공사여서 동네 사람들끼리만 해결하기에 벅차면 시정에 건의하는 등 상호 협동하는 정신을 통해 도시에서도 건전한 시민 기풍을 진작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도시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도시의 성격에 알맞은 새마을운동은 추진해야하며, 새마을운동의 실천이 곧 애국의 첩경이라는 것을 잘 인식시켜 도시에서도 이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72. 1. 31.~2. 10. 지방 연두순시)

새마을운동은 남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리를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서로도와 잘 살아보자는 것인데, 어찌하여 그렇게 무관심하고 전혀 방관적이며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앞으로 시당국은 물론이지만, 시내 각 학교를 통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시민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서울시에 있어서도 지식층, 지도층으로부터 앞장서서 우리의 수도 서울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는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학교의 새마을운동은 학생들이 동리에 나가서 주민을 도와주는 것도 좋으나, 먼저 자기학교 울타리 안부터 전개해야 한다. 흔히 학교에서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자기 할 일을 제쳐 놓고, 인근 부락에 나가 무슨 일을 하는 것부터 생각하는데, 자기 할 일을 먼저 해야 남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학교를 깨끗이 하고, 유리창을 아침저녁 깨끗이 닦고, 변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학교 주변에 세워져 있는 나무를 잘 가꾸고 해야 학생들도 그것을 배우고, 익혀 집에 가서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 운동장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유리창은 더럽혀져 있고, 나무라고 심어놓은 것은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교문이 있는데도 교문으로 다니지 않고, 철조망 밑으로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농촌에 나가서 농민들에게 무슨 새마을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은 자기학교를 깨끗이 하고, 나무를 잘 가꾸고, 혼·분식에 앞장서는 등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이 얼마든지 있으니, 먼저 이러한 자체 새마을운동부터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73. 1. 29. 서울특별시 연두순시)

도민들도 새마을운동이 이처럼 여러 가지 면으로 자기들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골목길을 넓힌다든가, 개천을 치운다든가, 집 앞길을 청소한다든가 하는 작은 일까지를 시의 예산에만 의존해서 하려고 한다면 한정된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함으로 시민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73. 2. 7.~2. 16. 지방연두순시)

학교에서도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새마을운동은 우선 자기 학교 울타리 안에서부터 전개해야 한다. 학생들이 인근 부락을 도와주고 주민들 계몽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의 새마을운동은 학교를 깨끗이 하고, 환경을 잘 가꾸는 일,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를 하는 예의바른 학생이 되는 일, 친구끼리 고운 말을 쓰고 인정 있게 사귀는 일, 혼·분식에 앞장서는 일 등 학교 안에서 해야 할 일에서 우선 출발해야 한다.

(73. 2. 7.~2. 16. 지방연두순시)

학교 안에는 쓰레기를 싸놓은 채 농촌에 나가서 '부락을 깨끗이 하자', '새마

을운동을 하자'하는 식으로 한다면 새마을운동도 성공하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학교내외가 얼마나 깨끗이 정돈되어 있느냐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학교에서 산 교육을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자기의 일상생활주변에서부터 새마을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73. 2. 7.~2. 16. 지방연두순시)

새마을운동은 농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 사람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 물론 최근 도시민들 가운데서도 이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올린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농촌의 농민이나 어민들이 아닌 도시 사람이라고 하여 이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국민적인 운동이 되어야 하겠고 범국민적인 정신 혁명의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시 사람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학교나 군대나 또 민간 기업체에서나 모든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활발히 참여해 줘야 하는 것이다.

(74. 1. 18. 연두기자회견)

차. 국토 보존에 관하여

전국을 다녀 보면, 도처에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는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국도 주변의 허물어진 산에는 축대를 쌓고 잔디를 입고 나무를 심는 등 국토를 보전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국민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의식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음으로 자기 집 가까이에서부터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고, 자기고장은 그 고장 사람들이 가꾸어나가고, 군은 군사람들이하고 국가적인 큰 사업은 정부가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산에 나무를 아끼고 다듬는 것이 바로 애국이다.

(73. 1. 17. 건설부 연두순시)

우리는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도시 · 농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근검 · 절약하는 생활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또한 이것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증산을 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낭비와 사치 풍조가 남아있는 한 의 · 식 · 주 생활의 모든 면에서 더욱 근검절약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이 이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곧 '도시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74. 12. 18.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이 운동은 처음에는 농촌과 어촌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도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밖에 모든 직장이나 공장, 또 학교와 우리 군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75. 1. 14. 연두기자회견)

카. 새마을업적의 기록에 관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농촌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분발한 농민들이 열화와 같은 의욕으로 부지런히 일한 결과로써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공업과는 달라 농업생산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늘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동안 조금씩이나마 시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73. 1. 16. 농수산부연두순시)

그러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보았을 때 조상들이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만큼 피땀을 흘려 가면서 노력했다. 우리 동리를 잘사는 부자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전 부락이 근면 · 자조 · 협동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를 써서 우리 부락을 이처럼 훌륭하게 만들었다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조상들의 뜻을 반드시 받들어 하겠다.'는 사명감과 감동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얼인 것이다.

(73. 11. 22.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훌륭한 새마을지도자 아래 온 부락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의 모습,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이 뭉클한 미담 가화 등 성공사례담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마을들은 머지않아 반드시 부자마을이 된다고 확신한다. 우리 정부에서 이처럼 성공한 부락, 또 그 부락이 성공할 때까지 앞장서서 노력한 새마을지도자, 그 부락에 공이 많은 사람 등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업적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역사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을 후세에 까지 남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73. 11. 22.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제3편 한국의 새마을운동

제4장 '새마을운동 10년사'에 정리된 새마을운동

제1절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배경

1. 서언

1970년 4월 22일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처음으로 박정희대통령에 의해 제창되었던 새마을운동이 어언 10년을 맞이했다. 강산이 한 번이나 변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새롭게 변했다. 강산의 변화는 자연 환경적 변화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세월이다.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전 국토가 개발의 성공 도서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세기의 변화는 우리겨레의 잘 살아보자는 욕구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임을 뜻하는 동시에 안일했던 구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개척자적 의미를 지닌다. 새마을운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 속에 꿈을 담고 자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간직했던 재래의 운명론을 수정해 놓은 적극적인 태도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의 성격은 모험적인 도전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을 추구함에 따르는 시련으로부터의 인내인 것이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의 부르짖음은 분명히 말해서 자각의지의 표명인 동시에 능동적인 태도의 표현이었다. 가난과 시련에 찌

든 우리는 사막을 걷다가 기갈과 폭서에 지쳐 죽음을 기다리며 쓰러진 나그네와 같았다. 그러나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5년 후면 어느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발전 목표의 제시는 나그네에게 머지않은 곳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희망을 안겨 준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사력을 다해 오아시스 목표에 도달하려는 노력과 인내가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자리 잡게 된 보람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어느 나라의 역사이든 밝은 면의 역사와 어두운 면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병행하기 마련이다. 밝은 면의 역사는 드높은 긍지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다는 뜻에서 자랑스럽기 이를 데 없지만 어두운 면의 역사는 그것대로 자각의 의지를 발현케 해 준다는 뜻에서 크나 큰 교훈을 던져주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부끄러웠던 역사를 숨긴다는 데서 얻어지는 가치보다는 역사의 표면을 올바로 직시하고 교훈삼아 민족적 대오각성의 자극으로 받아들일 때 보다 큰 발전촉진성의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2.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민족사적 의의와 그 성과에 대하여 후세의 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매우 궁금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1970년대 한국의 근대화 운동의 추진과정에서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정신혁명을 추진하는 씨앗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사이의 반도국으로서 유사 이래 줄 곧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사투를 벌이며 존속하여 왔다. 독립마저 우리 힘으로 쟁취하지 못했기에 항상 강대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수 밖에 없었다. 좁은 국토, 남북분단, 자원빈국, 6.25전쟁 등의 지정학적 불리함에서 늘 운명론적이고 체념적인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자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일어섰다는 점이 발전의 제1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제2절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의

1. 근대화의 시발적 산업혁명

새마을운동은 거의 모든 국민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민족의 대약진운동이었다. 그래도 우리의 근대화의 시발 시기는 영국보다는 약 200여년, 독일보다는 약 150여년, 일본보다는 약 100여년이 뒤진 셈이다. 가난을 벗고 '잘 사는 민족'이 되어야만 했고 우리도 국력을 길러 우리 힘으로 능히 전쟁의 불안과 위기를 벗어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국민'이 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제발전에 주력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계획은 사실 거의 무(無)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우리가 자진 것이라고는 '우리도 떳떳하게 잘사는 민족이 되고 우리도 '튼튼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건설해 보자는 결단과 의욕과 실천 뿐 이었다. 우리는 생산과 수출만이 우리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공장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항만과 저수지도 만들었던 것이다. 1960년대의 이런 노력들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가속화되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새마을정신으로 농촌에서 시작하여 성공한 농촌 새마을운동에 힘입어 그 경험과 자신감을 공장으로 도시로 확산시키게 되었다. 1973년에 세계적으로 촉발된 석유와 식량의 자원파동을 극복하면서 공업화와 도시화는 더 가속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근면 · 자조 ·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으로 생활이 개선되고 향상되면서 국민경제의 총량발전은 국민생활의 혁명을 가져 온 것이다. 그것이 우리 조상이 못다 이룬 과제를 우리세대에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산업혁명이 된 것이다.

2. 민주화의 내실적 기반조성을 위한 선행운동

정치적인 민주화나 경제적인 산업화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가하는 문제는 각각의 나라가 지닌 역사적인 전통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매우 현명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화운동이다. 민주화는 그 산업화를 자양분으로 하는 꽃이라 할 수 있

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산업화가 없었다면 민주화도 없었을 것이다. 산업화의 밑거름은 민주화로 성숙되어 그 열매를 매었기에 오늘 날 3만불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농촌에서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마을의 문제들과 해결방안들을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민주화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 5백년을 통해 주권이 없던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면서 주민총회에서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를 토의를 통해 표결할 수 있었던 경험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장이었던 것이다.

3. 새마을운동은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운동

산업화와 공업화의 결과가 국가전체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국력의 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져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생산과 분배, 소비 등 다양한 측면이 있고 경제는 사회 문화적 측면들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능률화 가속화를 꾀하다보니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격차와 계층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느냐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경제적 미성숙 시기에는 더더욱 어려웠던 문제인 것이다. 도시와 농촌, 빈부 격차는 사회문제들을 야기 시키기 시작했다. 그 격차는 삶의 질의 격차이기에 국민간의 위화감이 생기게 된 것이다. 도농각의 격차는 농촌근대화운동의 필요성을 야기시켰고 그 것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의 생활환경개선을 훌륭히 이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국민들은 우리도 근면하고 자조하여 협동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동기유발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환경도 개선되고 생활도 행상되고 향유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국민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게 되었고 보다 저축하게 되었고 보다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에서 새마을운동은 확실히 농민에게 용기와 자신을 불어 넣어주는 정신혁명의 계기가 된 것이다.

4. 새마을운동은 다목적적인 종합개발운동

새마을운동은 농촌근대화와 도 · 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에서 농민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다. 농민들이 갖는 향토애와 애국심의 근간이 없었던들 새마을운동은 결코 확산도 심화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있었기에 새마을운동은 놀라운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었고 그 운동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 경험과 확고한 신념을 견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70년대의 한국근대화의 상징이 되었고 국민생활의 기반으로 다지게 되었다. 그 만큼 새마을운동은 우리 의식 속에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지역, 계층, 직장,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어 갔고 새마을정신은 국민들의 모든 생활영역에 까지 파급되어 그것이 국가발전의 정신적원동력이 되기에 이르렀다.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물량적인 생산증대를 통한 국민생활의 질적 내용을 계발하는데 그 의의가 간직되어 있다고 하겠다.

제3절 새마을운동 이전의 사회운동

1. 고대사에 비친 사회운동형의 활동

삼한시대부터 있었던 '계'는 상조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었던 사회운동형의 주민활동이었다. '두레'는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마을단위 생활협동체인데 저마다의 두레기로 자체를 상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원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였고 잉여분은 공유로 하여 그것으로써 마을의 다리를 놓는다든가 야학시설을 갖춘다든가 또는 공동이용의 농기구를 준비하는 등의 비용으로 집행하였다. 두레는 이와 같이 주민공간을 함께하는 지연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었다.

향약은 두레에 비교하면 그 범위가 면단위 지역사회였다는데 특징이 있지만 두레와 같이 지역공동체의 성원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체제는 아니었다.

향약은 어느 경우에나 실천덕목을 생활강령으로 한다는 사회교육적인 의미가 강하게 풍기고 있다. 향약은 미풍양속을 이룩하기 위해 주요 실천덕목으로서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을 천명하여 왔다.

그러므로 계, 두레, 향약 등은 우리민족 전통의 사회운동의 유형이었다.

2. 광복 이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지역사회운동

일제하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사회운동은 조국을 되찾기 위한 항일적의미의 민중운동, 일제의 동화교육적 의미의 주민운동, 일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아니하며 내용적으로는 민족갱생의 정신을 살려가려는 전통 유지적 의미의 자활운동이 있었다고 보나 실질적 의미의 사회운동은 아니었다. 건국과 휴전사이에도 사실상 지역사회운동은 없었다. 실질적인 사회운동은 1953년도에 한국정부와 국제연합 한국재건위원단과의 협력 하에 지역사회개발 취업 2개년 계획을 마련했던 때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업은 매우 소규모였고 1957년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한국사회개발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반을 조직했던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운동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실무반 활동의 결론은 한국 농민은 자력으로 부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농촌사회의 개화발전을 위해 외부에서 다소의 물자지원도입 및 지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해체되었다.

한편, 한국정부는 1958. 1. 24.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 요강을 결의하며 지역사회개발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였는데 “지역사회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그들 자신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공동 또는 개개인의 난관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적 또는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들 자신의 힘으로 또는 외부(정부 기타기관)로부터 용역이나 물자를 보급 받아 실천 수행하는 사회개선운동의 과정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1958. 9. 2. 대통령령으로 매우 구체적인 첫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고 이를 부흥부에서 ‘지역사회개발위원회’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다가 1961. 6. 7. 위원회가 해

체되면서 건설부 내 지역사회국으로 개편되었다. 1961년과 1962년에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각 부처에 있던 지역사회 개발 업무가 농촌진흥청으로 통합되었다. 농촌진흥청은 1966년부터 1971년까지 '부락민의 자조개발 6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점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농촌사회의 민주적 조직화를 통한 지도력을 배양한다. 둘째, 농촌노동력과 유휴자원 활용으로 생산기반 정비와 농가소득을 증대한다. 셋째, 지역민의 자조력을 육성하고 정부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이때 계획에서 밝힌 지역개발사업의 개념은 1958년 정의와는 좀 달랐는데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은 부락민의 공동욕구를 부락민의 창의와 노력에 의해 부락민이 계획하고 부락민이 실천하는 사업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이 목표추진을 위해 전국 33,100개 부락을 대상으로 하여 총 640,556건의 사업 중 233,100건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407,003개 사업을 자조사업으로 전개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6개년 계획은 농촌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인 자본부족, 기술부족, 낮은 교육수준, 의욕부족, 종교적 인습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계획만으로 그치게 된 것이다.

3. 재건국민운동

1961. 12. 17. 법률에 의해 전개되기 시작했던 '국가재건국민운동'은 1963년에 '국민운동'으로 개칭하였으나 사실상 명칭이외의 모두 것은 국가재건국민운동이었다. 국민운동이란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민주주의 이념아래 협동단결하고 자립 자조정신으로 향토를 개발하며 새로운 생활체제를 확립하는 운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운동의 실천을 위해 시도, 시군구에 지부와 위원회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읍면동, 리동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사업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리고 청년회와 부녀회를 리동위원회 산하에 두고 국민운동사업을 실천하게 하였다. 국민운동의 주요활동 사업은 국민사상함양, 동포애발양, 국제친선, 향토개발, 생활개선, 사회기풍진작, 향토교육, 청소년 및 부녀회 지도육성 등이었다. 모든 임직원의 취임 시에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운동의 국민단합의 모체이며 향토개발의 주체임

을 자각한다."라는 선서를 하였다. 국민운동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올렸지만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생산 활동으로서의 비중이 강하지 못하고 문화 활동면에 치중하였기에 민중생활 속에 뿌리내리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새마을운동 이전의 사회운동을 요약하자면 전쟁 직후에 있었던 지역사회개발운동은 추진조직의 체제적미비로 인하여 행정조직체계 속에서조차 정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사회개발국은 부흥부에서 건설부, 건설부에서 농림부, 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방랑하는 불안정성을 면치 못하였다.

1963년부터 시작된 '국민운동', 1966년부터 시작되었던 '부락민의 자조개발 6개년 계획',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매우 유사성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새마을운동의 태동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계, 두레, 향약'의 뿌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운동, 부락민의 자조개발 6개년계획 등을 흡수하여 새마을운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새마을운동의 명명은 1970년에 시작하였지만 새마을운동 체질 속에 담긴 피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회운동의 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이와 같은 운동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현대사회적 특성 속에서 제기되는 우리의 욕구를 구현하기 위한 보다 새롭고 보다 진전된 형태의 잘살기 운동으로 모형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제4절 새마을운동의 출범

1. 자각으로부터의 출발

1960년대는 새마을운동의 출범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수천년 묵은 때를 베끼고 동시에 농촌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과도한 고금리로부터 농민을 해방시키고, 농산물가격을 보장하는 시책을 이 때부터 도입한 것이다. 60년대 농촌 근대화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는 농촌주민에게 직업관과 국가관을 정립했다는 점이다. 농촌인으로 하여금 자기계발과 농촌개발은 곧 자기방어

이며 국력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기에 이르렀고 당시의 최고정책이기도 했다. 둘째로 영농근대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행정도 혁신하였다. 수자원을 개발해서 전천후농업을 시도하고 경지정리를 실시해서 장차의 농업기계화에 대비하고 영농기술지도를 체계화하였다. 셋째로 주곡의 자급, 원료생산물의 일부를 수입 대체하는 등의 농촌자원개발이다. 넷째로 과감한 농촌투자이다.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와 보조는 당시 총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농촌인구 중 약 70만명의 농촌실업자를 일터로 이끌었다. 60년대의 농촌은 국가의 앞날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런 시기에 농촌을 개발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낡은 전통사회의 잠으로부터 깨어 조국근대화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제창된 것이 '새마을운동'이다. 즉, 새마을운동은 약 10년간의 태동기를 거쳐 탄생한 셈이다. 새마을운동이 탄생하게 된 외적요인으로는 덴마크,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가는 국가들은 대대 농촌을 개발하는데서 시작하여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 자극이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지 10년도 채 안되어 잘살아 보겠다는 국민적 열망은 온 국민의 피와 땀에 힘입어 후진국이자 저개발국에서 중진국 대열에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 1971년 새마을사업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22억원인데 이 가운데 정부지원은 41억원으로서 지원액의 3배 이상을 농촌인들이 만들어 냈다. 1972년에는 313억원의 실적 가운데 주민노력투자가 211억원으로 전체실적의 67%를 차지하게 되었다. 1962년에 호당농가소득은 6만2천원이었는데 1979년에는 200만원을 넘어섰다. 1961년 당시 1인당국민소득은 고작 81달러에 지나지 않은 최빈국이엇다. 이 무렵 북한은 1950년대부터 천리마운동, 3대혁명 등으로 우리의 1인당 소득을 능가하고 있었다. 1962년부터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사회 각 분야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지만 급격한 도시화, 도농간 소득격차, 이기주의 만연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 때 제시된 것이 새마을운동이었고 이는 참으로 우리민족에게 다행스런 일이었다.

2. 근대화를 겨냥한 결의의 실천

1970. 4. 22. 전국지방장관회의 때 정부시책에 의하여 농민, 관계기관, 지도요원협조를 전제로 한 농촌자조노력의 진작방안을 연구한다는 것과 동년 5월6일 국토보존에 관한 지침으로 국토를 알뜰히 가꾸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새마을운동의 추진을 강조하였다. 이로서 비로소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농촌에서 먼저 시작해야 했던 이유로는 국민의 다수가 영위하고 있는 농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농업이 또한 당시로는 기반산업이었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시작해야 했던 농촌 내적인 이유로서는 우선 농촌주민의 정신적 지주가 될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많은 농촌에 잠재해 있는 인력을 사회적 생산과 경제적 생산에 동원해서 유휴노동력을 생산력화 하려는 데 그 근원이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출범사업은 농촌에 있어서의 환경정비사업이었다. 1개리동에 시멘트 335부대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휴한기의 유휴노동력을 동원하여 농촌주민 스스로가 환경개선사업인 새마을가꾸기를 시도하도록 했던 것이다. 새마을가꾸기사업의 목표는 주민의 정신적 협동을 시험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었다. 이 시험사업은 연인원 720만명이 이 사업에 참가했고 이 시범사업에서 얻은 성과에 누구보다도 놀란 것은 주민자신이었다. 협동하면 자립할 수 있다는 원리를 도출해 낸 것이다. 이 때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된 것이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마을지도자가 있고 주민협동과 개발의식이 왕성한 마을일수록 시험사업의 성과도 컸다는 것을 알아냈다. 여기서 새마을운동의 원리를 근면, 자조, 협동으로 정하고 물량적 성장보다 주민의 정신적 단결과 협동에 역점을 두는 운동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사업의 추진은 개발의욕이 왕성한 주민에게 있고 이들이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단결만하면 사업의 성과는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단계를 거쳐 새마을운동 방향이 정립되고 또 체계화된 것은 1972년의 일이다. 이론적 체계로서는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을 농촌의 경우 환경개선과 정신계발, 소득증대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설정하였고, 새마을운동의 추진방향도 농촌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실천해야 하는 운동으로서 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 운동에서 국민운동으로 확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새마을운동 초기에 정부가 주도했다고 해서 관주도형이고, 관주도형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새마을운동은 50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험기에는 계획과 기술 및 자금지원 외에 지방행정 기관의 관여가 없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원을 제외하고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추진은 마을마다 조직된 마을개발위원회가 주도하였으며 마을에 따라서는 이들 조직이 계획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를 담당하였다.

제3편 한국의 새마을운동

제5장 새마을운동 주요연혁 및 새마을운동 상징(물)

제1절 새마을운동 주요연혁

1. 새마을운동 주요연혁

1970. 4. 22.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전국지방장관회의)
한해 대책 지방장관회의(중앙청),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가꾸기운동'제창

1970. 5. 6. "국토를 잘 보존하자" 친필 휘호

1971. 9. 29. 새마을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으로 규정

1972. 1. 14. 독농가연수원 개원 및 새마을교육 실시
(경기 고양시 농협대학 내)

1972. 3. 7.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설립(대통령령 제6104호),
매월 1회 개최

1973. 1. 25. 새마을훈장(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제정
1973. 3. 22. 새마을금고연합회 창립(64. 8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비롯)
1973. 3. 23. 새마을운동을 통한 '생활의 과학화' 친필 휘호
1973. 3. 25. 새마을지도자증 갱신교부(내무부장관, 시도지사 공동명의)
1973. 4. 8. 수원 농민회관으로 이전
1973. 5. 17. 새마을금고연합회 설립허가(재무부 1-1043)
1973. 5. 31. 독농가연수원을 새마을지도자연수원으로 개칭, 고양에서 수원으로 이전
1973. 6. 25. 새마을기 보급
1973. 11. 22. 제1회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전남 광주)

1974. 12. 18.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시도단위)

1975. 5. 17. 새마을 모(帽) 제정
1975. 12. 10.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대구)

1976. 11. 10. 민간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설립(민법 제32조)
1976. 12. 10.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충남 대전)

1977. 2. 21.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설립(상공부)
1977. 3. 27. 직장새마을중앙협의회 교육원 개원(안양)
1977. 10. 28.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창립(민법 제32조)
1977. 12. 9.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전북 전주)

1978. 12. 6.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전남 광주)

1979. 1. 1. 상공부 공장새마을연수원 개원
1979. 11. 16. 민간단체 직장새마을중앙협의회 법인 설립 허가(내무부 제12호)

1979. 12. 18.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설치법 공포(법률 제3171호)
1979. 12. 28.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시도 단위)
1980. 4. 22.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특수법인으로 발전적 개편
1980. 7. 30. 새마을금고중앙교육원 건립(서울 도봉구 수유2동 산81-2)
1980. 9. 11.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설립
1980. 12.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창립(종로구 삼청동 25-1)
1980. 12. 1. 초대~제2대 김 준 회장(1980.12. 1.~1984. 2. 11.)
1980. 12. 1.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민간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원단체로 가입
1980. 12. 10.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서울)
1980. 12. 13.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정(법률 제3269호)
1980. 12. 19.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설립인가(내무부)

1981. 1. 28.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교육원 개원
1981. 2. 28. 민간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개칭
1981. 3. 5.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이전(강서구 화곡6동 1093)
1981. 10. 1. 시 · 도지부 설치 승인(1982. 9. 1. 업무개시)
1981. 10. 1. 마을문고본부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원단체로 가입, 새마을문고중앙회로 개칭
1981. 10. 28. 새마을청소년회중앙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원단체로 가입
1981. 12. 9.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대구)
1981. 12. 23. 새마을조기체육회 결성,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원단체로 가입

1982. 2. 11. 제2대 김 준 회장 취임
1982. 9. 1. 시 · 도지부 업무개시

1982. 12. 10.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전북 전주)
1982. 12. 17.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연수원 설립

1983. 4. 22.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이전(성남시 중원구 율동)
1983. 4. 26.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새마을역사관 개관
1983. 10. 20. 시 · 군 · 구 지회 설치승인(1984. 3. 21 업무개시)
1983. 11. 3.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충북 청주)
1983. 12. 31.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새마을운동중앙본부로 통합
(성남연수원으로 개칭)

1984. 1.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성남연수원으로 개칭
1984. 2. 11.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원단체로 가입
1984. 2. 12. 제3대 이철우 회장 취임(1984. 2. 12.~1985. 1. 18.)
1984. 3. 15. 시 · 군 · 구 지회 사무국장 임명
1984. 3. 21. 시 · 군 · 구 지회 업무개시
1984. 6. 26. 장성연수원 승인

1985. 2. 16. 제4대 전경환 회장 취임(1985. 2. 16.~1987. 2. 26.)
1985. 3. 9. '86아시안, 88올림픽' 손님맞이 새마을운동 추진
1985. 4. 15.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장성연수원 개원
(전남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1985. 10. 25.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부산)

1986. 9. 1.~10. 31. 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 관련 봉사활동 전개
1986. 10. 30.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수원)
1987. 1.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영종연수원 개원
1987. 2. 27. 제5대 김동하 회장 취임(1987. 2. 27.~1988. 3. 25.)
1987. 4. 8.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본부 경내로 이전

1987. 4. 17.~1988. 10. 31. 88서울올림픽 관련 올림픽새마을운동 전개
1987. 11. 3.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서울)

1988. 2. 26.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영종연수원 폐원
(1987. 1. 1.~1988. 2. 26.)
1988. 3. 31. 제6대 김 준 회장(1988. 3. 31.~1988. 11. 1.)
1988. 4. 7. 새마을조기체육회 중앙 회원단체 탈퇴
(1981.12.23.~1988. 4. 7.)
1988. 12. 19.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시군구 단위)

1989. 3. 2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명칭 변경
1989. 3. 22. 제7~9대 김수학 회장(1989. 3. 22.~1993. 10. 14.)
1989. 3. 31.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연수원 폐원
(1982. 12. 17.~1989. 3. 31.)
1989. 4.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기구축소 및 개편
(1실3부13과, 124명 → 3부7과, 80명)
1989. 4. 24. 새마을청소년회중앙연합회 회원단체 탈퇴
(1981.10.28.~1989. 4.24.)
1989. 6. 1. 새마을가족의 행동지침 “우리의 다짐”제정
1989. 11. 28.~1989. 12. 19.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시도 단위)

1990. 1. 1. 연수원 명칭변경
(성남연수원 → 중앙연수원, 장성연수원 → 남부연수원)
1990. 2. 28. 새마을지도자 강령 제정
1990. 11. 13. ‘30분 더 일하기’운동 전개
1990. 11. 22.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서울 세종문화회관)
1991. 1. 15. 일하는 보람상 제정
1991. 2. 13. 자랑스런 마을 선정(182개), 군별 1개 마을

1991. 3. 11.~10. 31. 새 질서 새 생활실천운동 전개
1991. 12. 19.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시도 단위)

1992. 3. 5. 제1회 한 · 일국제교류대회(경기도 성남시)
1992. 3. 28. 새마을시민교양문화센터 개원
1992. 4. 1. 내 고장 활력화 센터 개원
1992. 6. 12. '앞서가는 새마을지'발간(격월간)
1992. 10. 23. 제2회 한 · 일국제교류대회(일본 벳부시)
1992. 11. 9.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서울 세종문화회관)

1993. 3. 7.~11. 7. 대전엑스포 새마을운동 전개
1993. 3. 29 '1사1산1하천'가꾸기 운동 전개
1993. 4. 22 '제2새마을운동'선언
1993. 5. 13. 제3회 한 · 일국제교류대회(대전광역시)
1993. 7. 9. '여름휴가 고향으로 갑시다.' 캠페인
1993. 7. 26. 전남 해남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현장 자원봉사
1993. 9. 13. 맑은 물 지키기 환경감시원 발대식 및 실천대회
1993. 9. 24. 농어촌도서관 마을문고에 100만권 책보내기운동 전개
1993. 10. 1.~10. 18. 전북 부안군 위도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현장 자원봉사 (연1,400여명)
1993. 10. 15. 제10대 김유혁 회장(1993. 10. 15.~1995. 3. 6.)
1993. 10. 20. 제4회 한 · 일국제교류대회(일본 오이타현)

1994. 4~5월 농어촌살리기 도농 간 결연(도시 1,200개동, 농어촌 1,200개 읍면)
1994. 5. 27. 제5회 한 · 일국제교류대회(경북 안동시)
1994. 6. 7.~12. '도 · 농 결연 한 울타리 큰 장터'개장
1994. 10. 19. 영농봉사대 발대
1994. 10. 20. 제6회 한 · 일국제교류대회(일본 히다시)

1994. 10. 24.~10. 26. 충주호 유람선 화재 현장 자원봉사(연 1,150명)
1994. 11. 30. '21세기 한국인' 책자 발간
1994. 11. 30.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시도 단위)

1995. 3. 29. 제11대 이규이 회장(1995. 3. 29.~1997. 2. 26.)
1995. 4. 28~5. 3.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현장 자원봉사(연 1,100명)
1995. 6. 28~7. 30.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자원봉사(연 3,450명)
1995. 8. 31. 제7회 한 · 일국제교류대회(강원 춘천시)

1996. 1. 24. 제8회 한 · 일국제교류대회(일본 사이키시)
1996. 5. 2. 사랑의 노인섬기기 새마을며느리봉사대 발대식
(시군구부녀회)
1996. 5. 15.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범봉사대 발대식
(시군구 새마을협의회)
1996. 7. 20. 학생자원봉사단 발대식(중고생 1,100명)
1996. 7. 28.~8. 29. 경기 강원북부 수해현장 복구 및 이재민 돕기
(연 32,830명)
1996. 11. 21.~24. 제9회 한 · 일국제교류대회(경기 수원시)

1997. 1. 21.~24. 제10회 한 · 일국제교류대회(일본 벳부시)
1997. 2. 26. 제12대 조해녕 회장(1997. 2. 26.~1997. 8. 6.)
1997. 3. 29.~9. 11. 경제 살리기「300만 새마을가족 3조원 저축운동」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 전개(저축계약고 5조 3천억 원 달성)
1997. 8. 26. 제13대 김수학 회장(1997. 8. 26.~1998. 7. 7.)
1997. 11. 1.~1999.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
(IMF사태 극복 나라경제 살리기)
1997. 12. 5. 경제 살리기 1천만 명 서명운동 전개

1997. 12. 10. IMF사태극복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 주창
(프레스센터,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1997. 12. 13. '애국가락지 금 모으기 운동'추진, 370만돈 모집(13.8톤)

1998. 2. 16. 나라사랑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 전국 동시수거 행사(KBS 공동)
1998. 2. 19. '(가칭) 새마을사랑모임' 준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장 이질현 선출)
1998. 3. 5. 새마을운동 신문 창간
1998. 4. 21. 새마을사랑모임 창립총회 개최(상임대표 조해녕 선출)
1998. 5. 1. 노숙자 돕기 '사랑의 점심나누기'운동 전개
1998. 8. 2.~9. 5. 서울 경기북부 수해지역 복구지원 및 이재민 돕기
(연 9만 3천여 명, 성금 · 품 17억 6천만 원)
1998. 8. 15. 제14~15대 강문규 회장(1998. 8. 15.~2003. 2. 27.)
1998.10. 1.~2005년 민간사회안전망범국민운동 전개
1998. 10. 23. 실직가정 돕기 범국민캠페인 선포식
1998. 11. 17. 실직가정 결식아동 돕기 3차 모금, 사랑의 오뚝이캠페인
(KBS 공동)
1998. 12. 8.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제2새마을 운동 선언
1998. 12. 11. 러시아연해주 새마을협력사업 추진(성금 6억 4천만 원 모금)

1999. 1. 1. 중앙 회원단체 사무국 통합
1999. 2. 2. 새마을사랑모임 결성
1999. 3. 20. 북한지역 농촌재건지원사업 추진(젖 염소, 비료, 옷감보내기)
1999. 6. 30. 베트남새마을협력사업 협약서 체결
1999. 7. 16. 민간사회 안전망범국민운동 선포식,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3,503개 읍면동)
1999. 8. 3~8. 13. 경기북부 수해지역 지원봉사모집 지원활동
(연 4만여 명, 성금 · 품 4억7천만 원 상당)

1999. 12. 4. 민간사회안전망 이벤트 쌀 나누기'사랑의 징검다리 캠페인 (KBS 공동)

2000. 2. 7. 새마을 홈페이지 개통(www.saemaul.or.kr)
2000. 2. 10.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 새마을운동중앙회로 명칭 변경
2000. 2. 10.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를 직 · 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통합
2000. 4. 10. UN 공보처(DPI) 연합회원 자격획득
2000. 4. 19.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앙연수원으로 개칭
2000. 6. 25.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실 이전 (강서구 화곡6동 → 강남구 대치2동)
2000. 7. 1.~2005 통일새마을운동(대북지원사업) 전개
2000. 7. 20. 북한 돕기 '통일 손수레보내기국민운동추진본부' 설치
2000. 7. 20~10. 31. 북한 돕기 통일손수레보내기운동 모금활동 (목표 10억 5천만 원)
2000. 8. 10.~28. 제1회 한일지역사회개발 지도자 교류대회(한국)
2000. 10. 13.~10. 16. 통일손수레 및 부속자재 북한 지원 (2006년까지 손수레 2만 6천대 지원)
2000. 11. 7.~14. 제2회 한일지역사회개발 지도자 교류대회(일본 오사카)

2001. 3. 1. 남부연수원 폐원
2001. 8. 1.~2002. 12. 2002월드컵 새마을운동 전개
2001. 11. 30. 새마을 닷컴 개통(www.saemaul.com)
2002. 7. 23. UN 경제사회이사회 NGO 회원가입(등록지위)

2003. 2. 10. 북한 평양 삼석구역 장수원동 산란 종계장 준공
2003. 2. 28. 제16~17대 이수성 회장(2003. 2. 28.~2007. 10. 9.)
2003. 8.~12.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3,204가구)

2003. 9. 14.~10. 1.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지역 복구 지원활동
(732회, 성금 · 품 4억 1천만 원 상당)

2004. 5. 1.~5. 15.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 관련 성금모금(1억 5천만 원)
손수레 6천대, 밀가루 500톤' 지원
2004. 11. 1.~12. 30. 100만포기 사랑의 김장나누기운동 전개
(133,495가구, 1,074,445포기 지원)

2005. 1. 10.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 재난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1억 4,700만원)

2006. 6. 5.~8. 스리랑카 칼루타라 지역 주택건립 33가구 및 마을회관 1동
건립
2006. 4. 18. '함께해요' 희망한국 선포식
2006. 6. 10. 전국 동시 국민화합걷기대회
2006. 6. 15. 외국인 주부 한국적응 프로그램 '아이 러브 코리아' 운영

2007. 12. 1.~2008. 2. 15. 태안 원유유출사고 방제 봉사활동 전개

2008. 5. 16. 제18대 이의근 회장(2008. 5. 16.~2009. 3. 19.)
2008. 8. 14.~11. 20. 200만 새마을가족 독도지킴이 서명운동 전개
2008. 11. 17.~5. 31 경제 살리기 '모아보자'국민대행진 전개(희망저금통
100만개 배부)
2009. 3. 12.~12. 30. 다문화 정착을 위한 이주여성 지도자 교육
(전국 35개 지역)
2009. 3. 20. 제19~20대 이재창 회장(2009. 3. 20.~2013. 3. 31.)
2009. 4. 7. 희망저금통 1차 회수(13만개, 6억 5천만 원)
2009. 5. 11. 인천 세계도시축전 성공기념 걷기대회

2009. 6. 29.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중앙회, 캐피탈호텔 200명)
2009. 7. 9. 녹색새마을운동중앙본부 출범
2009. 7. 9. 함께 해요! 그린코리아 녹색새마을운동 중앙선포식
2009. 9. 16. 녹색새마을운동 발전방향 세미나(프레스센터)
2009. 9. 18.~23.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경북 구미시)
2009.12. 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뉴 새마을운동'선포

2010. 2. 8. 녹색새마을운동 실천 4대강 · 하천 살리기 다짐대회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2010. 3. 4. 아이티 공화국 지원 성금모금(새마을가족 1억 9천만 원)
2010. 6. 7. 다문화가정 친정가족 맺어주기 업무협약(중앙회, 여성가족부)
2010. 6. 11. 새마을운동 제창 40주년 기념식(중앙연수원)
2010. 7. 26.~8. 5. 아프리카 새마을시범사업 현지 모니터링(아프리카 3개국)
2010. 8. 24. 국격 제고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중앙회, 법무부)
2010.10. 15.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중앙회, 지역발전위원회)

2011. 3. 8. 「새마을의 날」제정(매년 4월 22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 법률 제10438호)
2011. 4. 22. 제1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기념비 제작
2011. 11. 27. 새마을운동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제6호)

2013. 5. 31. 제21~22대 심윤종 회장(2013. 5.31.~2016. 2.17.)
2013. 6. 18.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
2013.12. 1. 새마을운동연구소 설립

2014.10. 21. 제1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구촌새마을지도자
포럼(GSLF)개최
2015. 1. 27. 국가기록물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수상

2015. 4. 22. '읍면동공동체운동'선포

2016. 2. 19.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실 이전(강남구 대치2동 → 분당구 새마을로 257)
2016. 3. 15. 제23대 소진광 회장(2016. 3.15.~2018. 2.28.)
2016. 4. 22. '가정새마을운동'선포
2016. 8. 1.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으로 개칭
2016. 10. 19.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창립. 33개국
2016. 10. 20.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선포

2018. 3. 1. 제24대, 정성헌 회장(2018. 3. 1.~2020. 4. 현재)

2019. 2. 19. 새마을운동 대전환 선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주요연혁(중앙회 연혁에 포함됨)

1972. 1. 14. 독농가연수원으로 설립(경기 고양시 농협대학 내)
1973. 4. 8. 수원 농민회관으로 이전
1973. 5. 31. 독농가연수원을 새마을지도자연수원(수원)으로 개칭
1980. 4. 22.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특수법인으로 발전적 개편
1983. 4. 23.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성남시 분당구 율동 200으로 이전
1983. 4. 26.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새마을역사관 개관
1983. 12. 31.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새마을운동중앙본부로 통합
1984. 1. 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성남연수원으로 개칭
1985. 4. 15. 장성연수원 개원
1984. 6. 26. 장성연수원 승인
1990. 1. 1. 연수원 명칭변경(성남연수원 → 중앙연수원, 장성연수원 → 남부연수원)

2001. 3. 1. 남부연수원 폐원
2000. 4. 19.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앙연수원으로 개칭
2016. 8. 1.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으로 개칭

| 새마을운동중앙회장(중앙회 연혁에 포함됨)

초대~제2대 : 김 준, 1980. 12. 1.~1984. 2. 11.
제3대 : 이철우, 1984. 2. 12.~1985. 1. 18.
제4대 : 전경환, 1985. 2. 16.~1987. 2. 26.
제5대 : 김동하, 1987. 2. 27.~1988. 3. 25.
제6대 : 김 준, 1988. 3. 31.~1988. 11. 1.
제7~9대 : 김수학, 1989. 3. 22.~1993. 10. 14
제10대 : 김유혁, 1993. 10. 15.~1995. 3. 6.
제11대 : 이규이, 1995. 3. 29.~1997. 2.26.
제12대 : 조해녕, 1997. 2. 26.~1997. 8. 6.
제13대 : 김수학, 1997. 8. 26.~1998. 7. 7.
제14~15대 : 강문규, 1998. 8. 15.~2003. 2. 27.
제16~17대 : 이수성, 2003. 2. 28.~2007. 10. 9.
제18대 : 이의근, 2008. 5. 16.~2009. 3. 19.
제19~20대 : 이재창, 2009. 3. 20.~2013. 3. 31.
제21~22대 : 심윤종, 2013. 5. 31.~2016. 2. 17.
제23대 : 소진광, 2016. 3. 15.~2018. 2. 28.
제24대 : 정성헌, 2018. 3. 1.~현재

제2절 새마을운동중앙회

1. 중앙회 조직과 명칭변경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조직은 1972. 3. 7. 대통령령 제6104호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이는 새마을운동을 실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위원회로서 민관합동기구였다.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만들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 위원회만 구성하여 새마을운동 정책을 자문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6. 11. 10.에는 '민간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설립되었다가 1981. 2. 28.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개칭되었다. 1977. 2. 21.에는 상공부 내에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도 설립되었다. 1980. 9. 11.에는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설립되었고 드디어 1980. 12. 1.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1에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 날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직장협의회, 공장새마을추진본부 네 개 회원단체가 가입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총괄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1981. 3. 5.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1093 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1981. 10. 1.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가 회원단체 가입하였고, 1984. 2. 11.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도 회원단체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후 중앙본부는 새마을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대 국민 이미지쇄신과 조직재정비를 위해 1989. 3. 21.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크게 실추한 대국민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고 정부의 국고지원 중단으로 재정자립이라는 큰 과제가 닥쳐왔다. 중앙협의회는 90년대 중반부터 자립화를 위한 논의들이 계속되었지만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중앙협의회는 '시민교양센터, 새마을예식장, 한방병원, 자동차운전연습장' 등의 사업을 펼쳐보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웠다. 심지어는 일부 부지를 '한국가스공사, 새마을금고연합회'등에 부분 매각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역시 미봉책이었다.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며 화곡동 부지에 대한 매각 및 이전이 본격화되었고, 결국 건설회사에 매각하면서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전

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0. 2. 10.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다시 '새마을운동중앙회'로의 명칭을 변경하고, 2000. 6. 25. 강남구 대치동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치동시대는 2016. 2. 19. 중앙회가 성남시 분당구 율동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으로 이전할 때까지 존치되었다. 민간주도 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2. 중앙회장

중앙회는 중앙본부, 중앙협의회를 거쳐 중앙회가 되었지만 새마을운동의 총괄 지휘자는 줄 곧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초대와 제2대 회장은 새마을운동의 상징이자 국민정신교육의 총책이었던 김 준 회장으로서 1980. 12. 1.~1984. 2. 11.까지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의 기틀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하였다. 제3대 회장은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장을 역임한 이철우 회장이 맡아 1984. 2. 12.~1985. 1. 18.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철우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가면서 1985. 2. 27.~1987. 2. 27.까지는 제4대 전경환 회장이 중앙회를 이끌었다. 제5대는 김동하 회장이 재임하였는데 1987. 2. 28.~1988. 3. 31.까지 활동하였다. 제6대는 다시 초대와 2대 회장을 역임한 김 준 회장이 1988. 4. 1.~1988. 11. 1.까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시 어려운 새마을운동의 상황을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제7~9대는 김수학 회장이 1989. 3. 22.~1993. 10. 15.까지 맡아 민간주도새마을운동을 정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제10대 회장은 학자출신의 김유혁 회장이 맡았는데 1993. 10. 16.~1995. 3. 3.까지 활동하였다. 이어서 이규이 회장이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1995. 3. 30.~1997. 2. 26.까지 재임하면서 지방새마을운동조직 법인화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12대 조해녕 회장은 1997. 2. 27.~1997. 8. 6.까지 짧은 재직기간에 러시아연해주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무부장관으로 발탁되었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자 다시 제13대 회장으로 전임 7대~9대 회장을 맡았던 김수학 회장이 맡아 1997. 8. 26.~1998. 7. 7.까지 활동하였다. 제14~15대 회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강문규 회장이 1998.

8. 15.~2003. 2. 27.까지 역임했다. 큰 결단으로 화곡동 부지를 매각하여 시도, 시군구의 새마을회관 마련에 돌파구를 만들었으며 중앙회도 대치동으로 이전시켰다. 제16~17대 회장은 국무총리와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이수성 회장이 2003. 2. 28.~2007. 10. 9.까지 활동해 주었다. 제18대 이의근 회장은 2008. 5. 16.~2009. 3. 19.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작고하시어 임기가 중단되었다. 제19~20대 이재창 회장은 2009. 3. 20.~2013. 3. 31. 까지 재임하시며 새마을운동 기록물들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고, 새마을의 날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21~22대 회장으로 취임한 심윤종 회장은 2013. 5. 31.~2016. 2. 17.까지 재임하면서 중앙회의 가장 어려운 재정상황을 맞아 골프연습장 문제와 연수원부지 공시지가 조정 등 큰 현안문제 등을 해결 하였다. 2016. 3. 15.~2018. 2. 28.까지는 제23대 소진광 회장이 두 번째 학자 출신으로 역임하였다. 제24대 정성헌 회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2018. 3. 1.부터 '생명살림 · 평화나눔 · 공경문화'를 새로운 운동으로 주창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정치중립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으로서 새마을조직은 언제나 정치중립이다. 제대로 된 정치 중립은 1993년 '제2새마을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앙협의회가 변화를 천명한 제2새마을운동의 첫 번째 선언이 '정치를 초월한 순수한 국민운동'의 전개였다. 이는 조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치인들이 새마을조직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는 '새마을운동의 중립화'선언이었다. 조직원들의 선거관여 등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정관 및 각종규정에 '선거중립 의지'를 명문화 하고, 윤리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새마을조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천명하는 것도 병행하였다.

중앙협의회 정관 제5조는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치관여를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임원선거규정 제5조에도 '정당으로부터 급여, 활동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받는

자'나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재직 중이거나 입후보한 자', '중앙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정당의 당원인 자'는 중앙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임기 중 피선거권이 없게 된 자는 당연 퇴임 사유이기도 하다. 또한 인사규정에도 '상근 임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시군조직)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 놓았다. 그러므로 조직원으로서 공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은 '선거기간 중 회의 및 각종집회 금지, 새마을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공명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금지, 상근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범죄자의 새마을단체장 및 임직원 취임제한 등 이중 삼중으로 엄격히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새마을조직의 정치중립을 명확히 하는 조치이다. 헌법소원 등을 통해 다퉈볼 만도 하지만 정치중립을 잃으면 국민운동이 안 되기에 오히려 자유롭게 되었다. 새마을조직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많을 수 있다. 정치인들은 새마을조직을 이용한 활동에 매력과 유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행하면 새마을조직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인들이 새마을조직의 정치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언제나 국민운동일 뿐이다. 지나 온 5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하고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이기도 하다.

4. 영욕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국민운동으로서 가장 왕성하게 추진되었고 이 놀라운 성취에 의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0여 년간 여러 위기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며 새마을운동을 유지해 왔다. 새마을운동 첫 번째 위기는 1979년 10월 새마을운동의 주창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존폐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1980년부터 본격적인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으로 선언하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운동의 동력을 잃은 상태

에서 국가가 아닌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새마을운동에서 추진해 오던 물량사업이 떨어지고 교육과 홍보사업 등만 가지고 나온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은 조직, 예산, 행정력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아직 가슴이 뜨거운 새마을지도자들이 전국에서 활동하였고 행정으로부터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다. 70년대와 전혀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운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민간주도의 운동방향은 어느 정도 가능했으나 사업의 아이템과 예산조달 등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동인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준비였다.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은 모든 역량을 이 국가적 두 대회를 위한 준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주도적으로 박차를 가하여 나름대로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국가적 국제대회인 양 대회를 성공리에 치르고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새마을조직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70년대 말까지의 개발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다 보니 부족한 부분들을 돌볼 여유가 부족하였다. 이 때 새마을조직은 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전 국토의 공원화'를 주창 하면서 손님맞이 준비에 전 조직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질서 · 친절 · 청결'을 슬로건으로 전 새마을 회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공로에도 또 다시 큰 위기가 닥쳐왔다. 1987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새마을비리' 사건은 새마을조직에게 두 번째로 찾아 온 최악의 위기였다. 두 번째 위기를 극복하고자 나선 때는 80년대 초반보다는 훨씬 국민의 신망을 잃은 상태이라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더군다나 문민정부 들어 단행된 새마을조직 보조금 중단 조치는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존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전국의 사무실들도 이전을 통보받았기에 국민적 신뢰회복과 자립화새마을운동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이에 잃어버린 신망과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993년에는 제2새마을운동을 선언하고 정리중립과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바꾸며 반전을 꾀하였다.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에 맞춰 재정립하고 조직 내부를 대폭적으로 개편하며 아픈 세월을 지내게 되었다.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이미지

와 자금중단은 더 이상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닥쳐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간신히 가난에서 벗어났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 조금 살만해 진 것을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양 흥청망청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위기의 조짐이 시작되었다. 이에 새마을회원들은 검소하고 절제된 국민경제 생활을 위한 운동들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나라 경제위기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결국 'IMF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새마을회원들은 그토록 외치던 새마을정신을 다시 확산시켜 새마을운동으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나라사랑 금 모으기를 비롯한 저축운동, 실직자 돕기, 민간사회안전망 등 새마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함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위기 탈출 국가가 되었다. 제2의 한강의 기적과도 같았다. 이에 중앙회는 21세기 새마을운동에 대비하여 또 다시 대 전환을 이루었다. 이른바 제2의 새마을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 제창 제30주년인 2000년은 여러 모로 매우 의미 있는 대변혁을 가져 온 시기였다. 다시 중앙협의회를 중앙회로 바꾸고 운동의 방향을 국내에서 해외로 바꾸고, 회비제 등 조직을 대 수술하였다. 중요한 변화는 화곡동 중앙회를 매각하여 대치동으로 이전하고 전국 시군구지회에 자립형 회관을 갖도록 뒷받침하였다. 결국 이 조치는 적중하여 오늘 날 시도와 시군 자립형 회관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지부와 시군지회는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두 번의 큰 위기를 넘긴 새마을운동은 2008년에 찾아 온 국제 금융위기에서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주며 국가경제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안정된 운동추진 기반에 올라서게 되었다. 2011년부터 추진된 '뉴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새마을운동의 영역과 추진방향을 가장 명확히 정리해 주고 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새마을운동의 위상을 높이는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는 2011년 11월에 새마을운동의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으며, 2013. 6. 18. 이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서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세계의 새마을운동으로

그 브랜드가치를 높였으며 지구촌 모두가 공유하는 운동이 되었다. 2015년은 큰 변화가 또 있었다. 대치동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성남시 분당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과 통합하여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서울 삼청동에서 화곡동, 대치동을 거쳐 분당으로 이전하며 오게 되었는데 새마을운동 영욕의 세월처럼 비슷하였다. 2016년은 2014년부터 추진해 오던 세계새마을지도자포럼(GSLF)를 격상하여 SGL(새마을운동지구촌리그)을 창립하여 46개 회원국을 갖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명실 공히 세계 새마을운동의 종주국이자 SGL의 의장국이 되었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새마을운동의 메카로서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들의 정신적 중심지가 되었다. 2018년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그 동안 새마을운동은 외형적 변화들을 시도하면서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는 운동자체를 바꾸어 가자는 것이다. '생명살림, 평화 나눔, 공경 문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도록 한 것이다. '생명 · 평화 · 공경으로 새로운 문명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메가 트렌드의 선점은 '새마을운동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지구촌을 살릴 수 있고 후손들과 뭇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운동으로 지속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3절 새마을운동 주요 상징(물)

1.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 1980. 12. 13. 법률 제3269호로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새마을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이 법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

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비법인 지회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하여 국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 양여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 감면, 과세특례를 적용해 줌으로서 공익단체로서의 활동의 폭을 넓혀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법 제8조의2(새마을의 날)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국가기념일과 행사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근거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법과 조례는 새마을조직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 근거이다. 새마을조직은 사실상 이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출연 및 보조받고 있는 것이다.

2. 새마을의 날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기에 이 날을 '새마을운동제창일'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새마을운동제창일'을 크게 기념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 중앙회는 2011년 국회의 도움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새마을의 날'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중앙회는 "새마을운동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겪어야 했으며 앞으로는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되도록 법률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한 결과이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새마을의 날'관련 조항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적합한 행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2011. 3. 8. 법률 제10438호로 통과되었는데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첫 번째 국가기념일인 2011. 4. 22. 제1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중앙연수원 돌 뜰에 대형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 옆에는 타임캡슐을 만들어 전국 지도자들의 염원을 담아 묻기도 하였다.

3. 새마을 기(旗)

가. 새마을 기 제작경위 및 의미

새마을운동의 범국민적 참여기풍을 조성하고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민족중흥에 앞장서는 새마을의 표상으로 새마을 기를 제작 보급하게 되었다. 새마을 기는 녹색바탕에 황색원, 황색원 속의 새싹, 하단에 새마을이란 글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바탕은 농촌의 녹색혁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황색원은 협동과 부 및 무한한 가능성을 표시한다. 황색원 속에 그려진 녹색의 잎과 싹은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 및 희망과 소득을 상징하며 줄기의 밑이 넓은 것은 안정과 번영을 표시하고 있다.

나. 새마을 기 제작 및 업무표장 등록

1972. 11. 28. 새마을 기, 새마을표어, 새마을 농민복 공모(내무부)
1972. 12. 1.~12. 20. 현상공모
1973. 1. 9. 입선작 선정
(서울 성북구 미아동 1156-2 최헌영 작)
1973. 5. 9. 새마을 기 심사결과 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1983. 5. 5. 새마을 기 작도법 변경(새마을운동중앙본부)
1984. 8. 10. 상표법에 의한 등록(업무표장등록 제46호)
1992. 2. 28. 새마을 기에 관한 규정제정
(새마을운동중앙회 규정 제145호)

다. 새마을 기 제작법

새마을기의 제작법은 태극기 그리는 법과 유사하다. 바탕 면은 녹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원은 깃 면의 중심으로부터 위로 1/4 점을 중심점으로 하여 면 길이의 1/2로 하며, 원의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하고 원내의 싹은 녹색으로 한다.

'새마을' 글자는 원 하단부의 중심으로 하고 백색으로 하면 된다.

라. 새마을 기 게양 연혁

1973. 6. 25. 내무부 지도1194-7759 : 표준 새마을 기 권장 · 보급 · 시행
1976. 1. 29. 내무부 새지1194-1167 : 새마을 기 게양에 관한 지시
1976. 2. 7. 총무처 의정131-151 : 국기와 타기를 함께 게양하는 요령
(새마을 기를 2순위, 기관 기를 3순위로 게양)
1976. 8. 31. 내무부 새지1194-13285 : 새마을 기 게양에 관한 추가 지시
1982. 7. 20. 내무부 총무130-9434 : 국기 취급요령 교육 및 홍보
(새마을 기 게양 방법 수록)
1989. 7. 11. 대통령 지시사항(일련번호 642 코드번호 12-03-56)
각급 공공기관에 새마을 기를 게양하여 공직자부터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솔선 실천해 나가도록 하기 바람
1989. 7. 25.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철저(내무부 국지01021-6735)
1994. '행정쇄신위원회(대통령소속)' 의결로 각급 기관 · 단체의 장이 국민의 정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새마을 기 게양여부 결정

마. 새마을 기 게양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

새마을 기는 어렵고 힘든 시절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 가난을 물리치고 오늘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한 국민의지의 상징으로서 게양하는 것이다. '새마을 기'는 새마을운동 단체만의 것이 아닌 우리국민 모두의 국가무형자산이자 세계 개도국이 배우는 희망의 상징인 것으로 게양의 필요성이 있다. 새마을 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겠다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하면서 지난 50여년 가까이 게양되어 온 역사의 상징이자,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역사적 상징물인 것이다. 새마을 기는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 역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세계 개도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매우 큰 상징물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 기'는 국가의 자산이다. 엄연하고 자랑스러

운 대한민국 '성공 스토리의 상징'이며 국민의지의 상징이기도 하다. 새마을기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에 담긴 정신을 되새기며, 온 국민이 단합하여 자신감을 갖고 고난과 역경을 물리쳐 나가자는 '자신감의 상징'인 것이다. 새마을 기는 세계 개도국이 배우는 희망의 상징으로써 세계 개도국이 가난을 타파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인 것이다. 새마을 기는 2013년 난중일기와 함께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 기록물들을 상징하는 '대표유산'이다. 새마을 기는 SGL(새마을운동글로벌 리그) 46개 회원국의 '새마을 종주국의 기'이다. 새마을 기는 비정치 · 비종교 · 비이념 · 비사익추구의 상징으로서 인류 보편적 정신인 '근면 · 자조 · 협동'의 정신이 담긴 '순수한 상징물'이다. 새마을 기는 대한민국 정부의 판단에 의해 지난 반세기 여 동안 게양해 온 '국가브랜드의 상징물'이다. 새마을 기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 일 '새마을의 날'과 더불어 국가가 그 정신과 역사를 '계승 · 발전시켜야 하는 상징물'이며 지속발전 가능한 한류 브랜드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새마을 기는 50여년 국가를 지켜 온 국가브랜드의 상징이자 지속발전 가능한 소중한 한류브랜드의 상징물이다.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새마을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 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생각하고, 후손에게 물려 줄 자랑스러운 상징물이기도 하다.

4. 새마을 모자와 마크(배지)

새마을모자는 새마을 기, 새마을 배지와 더불어 새마을운동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새마을모자는 공모과정을 거쳐 1975. 5. 17.에 제작되었는데 초기의 새마을모자와 현재 쓰고 있는 모자는 약간 형태가 달라졌지만 그 내용과 취지, 상징은 변함없이 초록색 모자에 새마을마크를 달고 있어 사실상 45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새마을마크는 새마을 기 중심에 있는 원형로고를 빼내어 배지로 만든 것이다. 이 배지는 뉴 새마을운동에서 'SMU새마을운동'이라는 로고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5. 새마을 노래

새마을노래는 새마을사업 현장에서 운동성을 높이는 도구로서 가장 유용한 존재 중에 하나이다. 애국가, 교가, 군가처럼 새마을노래는 새마을운동을 추진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노래이다. 새마을노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 작곡하였으며 초기 새마을노래는 4절까지 되어있었는데 1980. 12. 10.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5절이 추가되었고 이후 2000년대 이후 6절까지 만들어 졌지만 의식행사에서는 주로 4절 까지만 부르고 있다. '새마을노래'는 '나의 조국'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 · 작곡한 노래로도 유명하다, 그 가사를 보면 1절은 새마을정신을, 2절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을, 3절은 소득증대사업을, 4절은 자주국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노래 만으로도 새마을운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노래이다.

(1절)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2절)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3절) 서로 서로 도와서/ 땀 흘려서 일하고/ 소득 증대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4절)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드세

(후렴)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새마을노래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중앙회는 2012년에 들어와 새마을노래를 새로 만들어 보급하였는데 '뉴 새마을운동가'였다. 이는 '좋아졌네'의 작곡가 전석환 씨가 직접 만든 곡이다. 시대에 맞는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만든 노래로서 가사와 곡이 좋았지만 2, 3년 부르다가 중단되어 안타깝기도 하다. 새마을노래는 해외에서도 만들어 졌다. 2004년 세계 최초로 만든 몽골새마을회는 유명 가수에게 부탁하여 몽골에 맞는 새마을노래를 작곡하여 몽골인들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 쓰고 있다. 우

간다에서도 독자적인 새마을운동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는데 새마을교육을 받으러 온 가수이자 새마을지도자인 스텔라마리스 라는 분이 직접 작사 · 작곡 · 취입하여 부르고 있다. 새마을노래는 새마을운동 초기에 '좋아졌네', '잘 살아보세' 등과 함께 부르면서 정말 마을이 새로워지고 정말 잘살게 되었고 정말 좋아지게 만든 노래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래가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결과가 된 것이다.

(5절) 새시대가 열렸네/ 우리 모두 힘 모아/ 민주복지 정의의/ 새역사를 만드세

(6절) 우리 모두 한마음/ 새정신을 일깨워/ 화합번영 통일의/ 새나라를 만드세

(후렴) 자랑스런 내나라 우리 힘으로 빛내자

6. 새마을 훈장 · 포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지도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보상이다. 정부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인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1973. 1. 25. 상훈법에 따라 새마을훈장을 제정 · 시행하고 훈장의 등급을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등 다섯 가지와 훈장 다음가는 훈격인 새마을포장을 수여해 오고 있다.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영예로운 상인 것이다. 새마을훈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훈장 중 하나로서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등 11가지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고 있다. 새마을훈장과 더불어 훈장 다음가는 훈격인 '새마을포장'도 열한 가지 포장 중 하나로 수여되고 있다. 새마을훈장 제정 이전인 1971년도와 1972년도에는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이 수여되기도 하였으며, 새마을훈장은 1973. 11. 22. 전남광주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수여되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7. 새마을휘장

'새마을휘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지도자나 공직자 등에게 수여하는 훈장 이상으로 영예로운 것이다. 훈장이나 포장은 매년 전국적으로 다수의 현직지도자들이 수상하고 있지만 휘장은 현직은 제외되며 최소한의 대상자에게만 주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이다. 이 휘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선발되고 있으며 새마을의 날이 제정되고 난 후인 2012. 4. 1.부터 시행되고 있다.

8. 새마을기념장

'새마을기념장'은 훈장이나 포장이 아닌 그야말로 기념메달이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줄 수 없기에 새마을운동에 오래 몸담아 활동하신 분들에게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도록 예우 차원에서 만들어 수여하는 것이다. 이 기념장은 2010. 5. 14.에 제정되었는데 매년 4월 22일을 기준으로 새마을운동조직에 3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임직원에게 하고 있다. 기념장은 새마을운동에 30년 이상 근속하거나 활동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예우이다.

9. 새마을지도자증

'새마을지도자증'은 1970년대 초반부터 발급되었는데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회원단체 소속 새마을지도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가 되었다. 이 증서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인정의 표시로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공동명의로 발급되었다. 초기에 새마을지도자증은 매우 자랑스러운 증서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서의 활용도가 낮아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도자증은 공공시설이용, 철도이용, 의료시설 이용, 새마을자녀장학금 수급 등 필요할 때마다 요긴하게 활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지도자증의 발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발급되고 다시 중단됨을 거듭하여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사회변화로 인해 많은 신분증과 카드 등이 발급되면서 그 희소가치 등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유효하게 발급되고 있다. 초기의 지도자증은 인쇄용지에 사진을 붙이

고 수기로 표시하는 등의 지도자증 이었지만 현재는 자동발급기를 통해 아주 세련되고 쉽게 발급되고 있다.

10. 새마을운동 신문과 SNS

새마을운동을 홍보하는 매체는 '새마을운동신문', 홈페이지, SNS 등이 있다. '새마을운동신문'은 1998. 3. 5. 창간되었는데 이전에 발간되어 오던 '월간새마을'을 폐간하고 전국의 새마을소식을 전하는 언론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신문은 전국 시군구, 읍면동까지의 새마을활동을 소개해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역사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의 활동상황과 국민들에게 전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2000. 2. 7. www.saemaul.or.kr 라는 도메인으로 새마을 홈페이지를 개통하였다. 이는 한글판 홈페이지였다. 2000년대 들어 새마을운동 세계화 기치를 높이 들게 되어 해외에 새마을운동을 알리는 방법으로 2001. 11. 30. 한글판인 www.saemaul.com과 영문판인 www.saemaul.net 를 개통하게 되었다. 이후 유투브와 페이스북도 만들어 시대상황에 맞게 새마을운동을 홍보하고 소통하여 오고 있다.

제4절 새마을운동 부설기관 등

1. 새마을운동연구소

'새마을운동연구소'는 2011. 11. 27.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 제6호로 지정되면서 연구소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어 2013. 6. 18. 새마을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되면서 더욱 그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2013. 12. 1. 설립되었다. 이전의 연구발전과 연구기능이 중단되었다가 결국 2009년부터 추진된 새마을운동 세계화 등에 결과로 연구기능을 되살리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학새마을연구소 등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하게 되자 연구소가 설립된 원인이기도 하

였다. 연구소는 각종 학술연구와 세미나, 용역사업과 유네스코기록물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영문명칭으로 Saemaul Undong Research Institute(SURI)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연구소는 국내는 물론 해외 새마을운동 관련 연구 활동도 겸하게 되어 명실 공히 새마을운동의 학술적 뒷받침을 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다. 연구소의 세부 활동으로는 새마을운동 및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와 새마을운동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용역사업,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역사관 유네스코 기록물, 기증물, 전시물 포함)관리 및 관련 업무, 정기간행물 및 학술도서의 발간,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강연회의 개최, 지역 주민 및 지도자와의 연구교류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는 중앙회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도부의 의지 등에 따라 활성화 되다가 주춤하게 되었다. 한 때는 연수원을 새마을대학원대학으로 전환하려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다. 이는 ODA자금 등을 받아 안정적으로 대학원과 연수원을 운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2.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은 새마을운동중앙 연수원이 사회적 책임의 일환과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 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교사양성기관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경기도로부터 제4호로 지정받아 정원 300명으로 1993. 11. 11. 개원하였다. 운영주체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었다. 연수원은 교육원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시책에 따라 영 · 유아 교육을 위한 많은 보육 전문가 양성할 수 있었으며, 평생교육 기회제공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사회교육에 공헌할 수 있었으며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하면서 새마을의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교육원 초기에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등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맞춰 운영하였지만 교육수요가 급감하여 2004년에 오후반을 폐지하였고, 2011년에는 야간반마저 폐지하여 오전반만 2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교

육 수요자가 급감하여 신입생 모집이 어렵고, 이에 따른 수익성도 악화할 뿐만 아니라 연수원의 새마을교육 관련 업무를 단순화 · 집중화 · 고유화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 폐원하기로 하였다. 교육원은 18년간 총 3,722명을 수료시켰는데 연평균 218명 이었다. 1994~2004학년도, 11년간은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이었는데 총 2,728명, 연평균 수료생은 248명이었다. 그러나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급 양성기관이 3급 양성기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입학생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2005~2010학년도, 6년간은'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으로서 총 994명, 연평균 16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교육원은 연수원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적절하고 유용한 교육과정이었다. 주요과정으로는 보육교사양성과정 3,722명을 비롯하여 시설장 양성과정 173명, 보수교육과정 5,605명, 영아전문과정 935명, 시설장 전문과정 272명, 실기교육 537명 등 총 11,244명을 정규교육과 보수교육 등으로 양성해 냈다. 18년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오던 교육원은 결국 2012. 2. 28. 제18기 수료 후 폐원하게 되었다. 폐원에 따른 출강강사 15명, 차량 2대 및 기사 2명, 재학생 및 졸업생, 관할관청, 보육교사 관련단체 등에게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설득하고 관할관청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반납함으로서 폐원을 마무리 하였다.

3.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설 어린이 집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부설 어린이 집'은 '보육교사교육원'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사회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사회에서 새마을운동과 연수원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어린이 집은 역사관 옆에 빈 공간을 이용하여 건축하였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8억여 원을 대출받아 10여 년간 분할 상환하였다. 어린이 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292명을 정원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아 1994. 3. 3. 개원하게 되었고 1994년~2019년까지 26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언제나 지역 내 최고의 어린이집으로 인정받아 오고 있으며 1~5세를 대상으로 보육하는 곳으로 교사 20여

명, 15~17개 학급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어린이 집은 그 역사도 깊지만 졸업한 원아와 학부모들은 본원 졸업생으로서의 자부심이 매우 강한 편인데, 이는 평생교육기관, 국민교육도장으로서의 연수원 위상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여건이나 주변여건 등이 매우 많이 변화함에 따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고, 추가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어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폐원 시 함께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어린이 교육기관이라서 좀 더 운영하기로 결정을 유보하게 되었다. 새마을연수원은 연수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새마을운동 역할에 집중하고자 폐원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4.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수탁사업은 1994년 사회공헌과 수익사업을 목표로 중앙협의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많은 종류의 공공시설들을 수탁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개관하는 성남시 청소년수련관은 연수원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내부에 자격을 갖춘 상당한 인력이 있었으므로 장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범수주로서 매우 적합하였다. 중앙협의회는 이 사업의 수주를 위해 중앙협의회 인력을 성남시지회에 파견하여 모든 준비를 해 나갔다.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라 어려웠지만 준비를 마치고 공개입찰에서 어렵사리 운영권을 수주하였다. 중앙협의회가 성남시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성남시지회(지회장 장두영)' 명의로 운영하게 되었다. 수련관은 성남시 청소년의 놀이마당과 정서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개운영, 지역활성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 편익중심의 사회교육 수행체계 확립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시설은 '수영장, 세미나실, 공연장, 체력단련실, 상담실, 체육관, 전시장, 사무실 등' 부지 3,852평에 건물 2,343평의 대규모 시설로서 4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어졌다. 운영인력은 사회교육 지도사 4명, 청소년 지도사 10명, 사회체육 지도사 3명, 사서 2명, 상담사 1명, 2급 정교사 6명과 운전 등 기술직 총 32명으로 출발하였다. 초기에 반응은 매우 좋아 시민들로

부터 매우 인기가 많았다. 중앙회는 핵심지도부를 파견시키고 기타 인력은 성남에서 채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면서 차츰 손을 떼게 되었다. 결국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입찰 시에는 더 이상 수주하지 못하여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새마을조직에서 이런 시도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다. 자원봉사센터 수주 · 운영, 다문화센터 수주 · 운영,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등이 있다. 그러나 지회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하나씩 둘씩 중단하고 일부 새마을이동도서관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5절 새마을운동 역사보존

1. 새마을역사관

가. 역사관 개 · 보수

'새마을역사관'은 새마을회원들과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개도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전수받고자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성지(메카)'이자 요람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내에 위치한 역사관은 1983. 4. 23.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수원에서 분당으로 이전해 오면서부터 완공되어 있었다. 이전 하자마자 1983. 4. 26.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새마을역사관'을 개관하면서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 이 역사관은 1992년도 개축하게 되었지만 공사 중 천정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한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새마을역사관은 전시관, 자료관, 홍보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새마을현장이 사라지면서 '외국인 견학시설'로서 매우 귀중한 역할을 다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낡고 어두웠으며 그 전시가 아날로그 방식이라 외국인 등 방문객들에게 초라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 이유로 현대식 개 · 보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역사관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고 개도국 등에게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적합

한 공공시설로서 역할을 다해 오고 있어 국비보조로 개 · 보수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된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개 · 보수로 밝고 쾌적하며 세련되게 리모델링되어 현대화 된 역사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중앙회는 2009년부터 4개년에 걸쳐 개 · 보수를 마쳤는데 2009년도에는 전시실, 2010년도에는 중앙 홀, 2011년도에는 자료실, 2012년도에는 홍보실을 말끔히 리모델링하여 정비를 마치게 되었다. 첫 해인 2009년에는 전시실을 위주로 전체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유물들을 안전하게 옮기고 타임터널, 초가집 리모델링, 새마을운동관, 쇼 케이스, 조명시설 등 기본적인 관람시설들을 정비하였다. 2010년도에는 자료실을 개 · 보수 하였는데 내부 인테리어, 쇼 케이스, 환영 싸인보드, 자료 검색 키오스크, 내 · 외부 방수 및 세척작업, 옥상 및 입구 방수, 입구 2중 강화문, 싸인대, 출입구 등을 개 · 보수하였다. 2010년도에는 기존 전시관과 중앙 홀의 시설들을 철거하고, 중앙 홀과 휴게실, 전자방명록, 키오스크, 중앙 홀 바닥, 새마을운동 국제화 코너, 항온 · 항습기능을 갖춘 이동식 수장고 및 서가, 전시관 환기 · 조명 · 전기 시설 개보수를 마쳤다. 2011년도에는 자료실 위주의 개 ·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항온 · 항습시설과 조명 · 전기 · 환기시설 등 자료가 손상되지 않는데 초점을 두고 보수하였으며 중앙 홀 유리 돔과 견학 편리성을 감안하여 시설을 재배치하였다. 2012년도에는 홍보실을 개 · 보수하였다. 이 기간 동안 기존의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 작업이 병행되었다. 2009년부터 개 · 보수를 시작하여 전시관, 중앙 홀, 자료관, 홍보관 모두를 리모델링하면서 명실 공히 새마을운동 종주국의 역사관으로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들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보전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들은 2011년 11월에 '국가기록물'로 지정되었고, 2013년 6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면서 세계인의 새마을운동이 되었다. 역사관 개 · 보수로 유물들을 잘 관리한 덕분에 2015. 1. 27. 국가기록물 관리가 우수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나. 내 · 외국인 새마을교육 장소로 활용

'새마을역사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부분인 새마을운동을 한 공간에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배치하여 내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이 새마을운동을 체험하는데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외국인 방문객들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초 · 중 · 고생 등 자라나는 세대에게 새마을운동을 체험할 있는 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연수원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마을운동 초기에 추진된 모습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 따라서 새마을역사관은 새마을사업을 통해 변화된 마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새마을운동 추진과정 및 추진방법 등을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전달하는 공간이다. 이 역사관을 활용함으로서 국가자산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전수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새마을역사관은 외국인 교육생이나 방문객에게는 필수적인 견학시설이다. 또한 국내 새마을지도자 및 일반인, 학생 등 연수원의 교육생들에게도 교육과 홍보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수학여행단과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을 이해하는데 최적의 장소이다. 방문객들은 새마을역사관에 전시된 자료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추진과정과 미래비전을 볼 수 있어 마치 새마을현장에 온 느낌이 드는 곳이다. 새마을역사관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시설이자 국가의 자산이다. 크게 보면 세계인이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역사관은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피상적으로만 듣거나 배운 학생들과 외국인들에게 새마을운동을 이해시키고 대한민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최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마을역사관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공익적 자산인 셈이다. 역사관 개 · 보수는 2009년 197백만 원, 2010년 571백만 원, 2012년 400백만 원, 2012년 400백만 원 등 4년간 18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현대식으로 개조된 것이다. 새마을연수원 건축물들은 고.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하여 1983년 한국 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건축물로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뛰어난 예술성으로 보존 할 가치가 매우 크다. 새마을역사관 또한 그와 같이 근대적 가치가있는 건축물로서 길이 보존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2. 새마을운동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화

새마을역사관에 보관 중인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들은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유일본들이 대부분이다. 새마을역사관에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당시에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만든 계획서와 추진과정, 결과보고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사진들과 발간자료들도 매우 많이 보관되어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새마을지도자와 공직자, 기업인, 학생 등 교육생들이 직접 작성한 마을개발계획서나 자료들도 보관되어 있다. 이에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일환으로 사라지거나 훼손되어 가는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영구 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DB작업은 중앙회와 나라기록관, 지방이나 개인이 소장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디지털 작업을 수행하여 데이터베이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제1단계 작업들은 국가차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새마을운동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자료의 온 · 오프라인 통합관리로 기록물의 효율성 · 안정성 ·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또한 소멸 · 훼손 위기에 직면한 원본자료와 새마을운동 성과물들을 길이 보전하는 작업이었다. 작업추진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물들을 활용하여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는데도 활용되었다. 결국 이 작업들은 새마을운동과 그 정신을 계승하고 종합적인 홍보 ·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새마을운동 세계화'의 발판으로 삼게 된 것이다. 2009년부터 3년간 추진한 이 DB작업들은 새마을운동 기록물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새마을운동 자료 DB구축'은 대한민국 발전사이자 국가 지식정보 자원인 소중한 자료를 복원 · DB화함으로서 국민 누구나 새마을운동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명을 부가함으로서 이해도를 크게 증진시키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사이버자료관'을 3D로 만들어 가상체험으

로 당시상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였다. 특히 국내에 살아계신 원로들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과 체험담을 영상으로 받아 DB화함으로서 반영구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만들어진 자료들은 문서류, 도서류, 신문, 사진, 슬라이드필름, 16mm 영화필름, VHS류, 릴테이프, 박물류 등과 원로지도자 구술 증언 등이 있으며 이를 국민 모두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든 '새마을사이버자료관'이 설치되었다. DB화 작업과 병행된 작업들은 자료실의 항온, 항습장치가 설치된 수장고와 프로그램 저장장치 및 구동장치 들이 있다. '새마을운동 자료 DB화'사업의 목표는 전수 조사한 새마을운동 자료 4만 9천여 점 중에서 우선 필요한 1만 3천여 점을 대상으로 초기 1단계(3년간)에 DB화하는 것이었다. 투입 예산은 2009년 293백만 원, 2010년 298백만 원, 2012년 400백만 원 등 3년간 9억 9천만 원으로 기초 작업을 마치고 제2단계 사업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새마을운동 자료 DB화'사업은 대한민국 근대사 사료(史料)로서의 원본자료를 영구보존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현장 기록물인 원본자료들을 항온 · 항습 등의 시설을 갖춘 수장고에 모아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저개발국가 지역사회 개발모델로서 국내 · 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정보의 고품격화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새마을운동 자료에 대한 수집 · 분류 · 정리 및 DB구축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정신의 계승 · 홍보, DB자료의 온라인서비스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확대 및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수 조사한 내용 중 중요도가 높은 가치가 있는 자료 우선 DB구축하고 DB구축한 자료 및 박물류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마련되었다. 새마을운동 관련 원본자료에 대한 디지털파일화 및 검색시스템 업로드. 기 구축된 새마을운동 자료 DB검색시스템의 보강을 통한 일반인 대상의 자료열람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서 새마을역사관과 새마을운동 자료들에 대한 제1단계 기초작업들을 마치게 되었다. 새마을역사관은 새마을회원들에게는 든든한 마음

의 고향이다. DB화된 자료들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국가의 자산이자 세계인의 자산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료 발굴 작업들이 계속되어 콘텐츠가 더 풍성해져야 한다.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훼손되지 않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자료들은 확대 재생산되어 새마을운동의 가치증대에 기여되어야 한다.

제6절 새마을운동 국제활동 등

1. UN DPI(공보처)와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 가입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세계 각국에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전수하여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국제기구가입을 서두르게 되었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새마을운동을 접하는 일은 1972년부터 외국인교육이 이루어졌으므로 생소하지 않았지만 외국에 새마을운동을 알리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이에 중앙회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가입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2000. 4. 10. UN 공보처(DPI)로부터 '연합회원'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후 중앙회는 국내 굴지의 사회단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하였다. 국제기구 가입은 새마을운동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절차와 다름없었다. 준비 끝에 2002. 7. 23. UN 경제사회이사회 NGO 회원에 가입되어 등록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 인증 절차는 일정한 주기로 UN에 활동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중앙회의 지속적으로 개도국 초청교육과 시범마을사업 전개로 국제기구에 가입된 국민운동단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 (GSLF : Global Saemaul Undong Leader's Forum)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09년부터 '새마을운동세계화'타이틀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외국인 초청 새마을교육과 개도국 새마을운동 전수 활동을 펼치게 되

었다. 협력대상국을 정하고 새마을교육을 받을 팀을 구성하여 초청하였다. 초청된 국가 연수생들은 귀국 후 전개할 새마을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통과되면 중앙회가 최소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과 시범사업을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외국인새마을교육이 거듭될수록 우수한 각국의 사례들이 생겼다. 이에 각 국가의 사례를 공유하고 각 국가에 적용하는 기회를 갖고자 2014. 10. 21. 제1회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년 사례 공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구촌새마을지도자포럼(GSLF)는 시범사업 국가와 관심국가 들이 모여 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매우 훌륭한 국제포럼으로 자리 잡고 있다.

3.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SGL : Saemaul Undong Global League)

중앙회는 기존의 GSLF를 확대하여 국제기구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새마을운동 추진국가와 관심국가 33개국이 모여 2016. 10. 19.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를 창립하게 되었다. 이 리그는 민간차원의 국제기구로서 매년 새마을운동의 종주국이자 의장국가인 대한민국이 주최하여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 온 세계새마을지도자들은 매년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가하여 국내지도자들의 활동을 보고 교류하며 자신들의 국가에서 추진할 새마을운동을 구상하게 되었다. 국내 지도자들은 외국에서 온 개도국 새마을지도자들의 열정에 감동받으며 상호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2020년 현재 가입국은 46개국으로 늘어 새마을운동 한류의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4. 지구촌새마을운동 기금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중 · 장기 해외시범마을조성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년 2월에 '세계화사업 기금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기금조성 및 운영규정까지 만들었다. 모금은 전국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기관 · 단

체, 독지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장치였다. 모금은 1구좌 1만 원으로 하며, 내부모금은 1인 1구좌 이상으로 하되 자율모금을 원칙으로 하였다.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모금된 결과는 새마을가족 및 일반시민 63,578명 참여하여 약 10억 원의 기금이 모아졌다. 모아진 기금은 원본을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새마을교육, 해외 시범마을 조성 · 관리, 국내 전문가의 협력관 파견 등 국제협력사업에 쓰도록 계획되어졌다. 중앙회는 이 자금 활용을 위한 '운용위원회'를 열어 Y-SMU포럼에 속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라오스, 네팔, 몽골, 미얀마 등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였고 시범국가 육성 등에 활용하여 오고 있다.

5. 새마을운동 기록물들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 새마을운동 기록물

1970년 새마을가꾸기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획기적인 환경개선과 생산기반조성, 소득증대 등에 기여했다. 또한 빈곤극복과 지역사회공동체 회복,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 동기를 유발하는 유인이 제공되었기에 가능했는데 그 방법으로서 정부가 새마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우수마을우선지원' 원칙이었다. 이는 새마을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을 투입하였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새마을운동 초기 마을주민들은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협동하고 정부는 마을안길 확장, 교량건설, 상하수도 건설 등 마을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될 시멘트와 철근 등의 원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이후 평가를 통해 추가지원이 이루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 이외도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희사하기도하였다. 마을주민 공무원 지역사회지도자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새마을운동 추진의지를 불태운 또 다른 방법은 새마을교육이었다. 독농가연수원으로 시작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교육, 생활교육과 실천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분임토

의와 다짐을 통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추진당시 마을 단위에서 수집한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들을 보면 새마을운동 전개과정에 있어 마을주민들의 역량과 자주성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주민총회를 통하여 새마을 사업을 선정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율적 ·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여성의 참여, 주민 간 신뢰, 공동체 의식, 그리고 주인의식을 함양함으로서 사회적 자본 축적에 일조하였다. 새마을운동은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1970년대 국가차원의 중앙정부로부터 군 · 읍 · 면 등의 지방정부와 마을단위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사업에 대한 점검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용되었는데 이러한 체제는 민관 상호이해, 상호 책임의식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013년 6월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IAC)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유네스코에 권고했고 유네스코는 등재를 결정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1970년대부터 1979년까지 추진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새마을지도자와 마을 주민,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등에서 생산된 새마을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록물을 일컫는다. 정부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에 보존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와 마을주민,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등에서 생산한 자료들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전국 각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있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재도 수집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1970년대 전국 34,000여개의 마을에서 전개된 농촌근대화에 관한 종합적 기록이다. 이 기록물에는 빈곤퇴치, 마을환경 개선, 새마을정신 계발, 농촌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주민들의 리더십 개발 등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빈곤퇴치와 농촌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개발기구와 개발도상국가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데 기여한 초석이자 인류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등은 새

마을운동을 빈곤퇴치의 모델로 채택하였다.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해외의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이 새마을운동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나. 기록물 형식

유네스코 세계가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총 22,084건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7,437건을 소장하고 국가기록원이 14,647건을 소장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교육과 관련된 자료와 민간의 마을단위에서 생산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국가기록물은 정부기관이 생산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1) 대통령비서실이 생산한 기록물

1970년대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비서실은 새마을운동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문서를 생산하였다. 여기에는 새마을운동의 이념, 목표, 정신 등을 자세하게 밝힌 대통령의 친필원고와 연설들이 포함되며 새마을운동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을 보여주는 계획서, 보고서 등이 대통령의 친필서명이 담긴 문서 형태로 남아있다. 이 기록물들은 대통령의 확고한 농촌발전 의지와 새마을운동의 전체적인 전개과정을 잘 보여준다. 국가기록원에 228건의 가록물이 보존되고 있다.

2) 중앙, 지방 행정부처가 생산한 기록물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필요한 법령제정, 지원시책 실시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행정부처에서는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이 기록들은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조직, 기능, 역할, 활동 등을 보여준다. 특히 공보처와 국립영화제작소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위한 영화와 사진첩을 제작했는데 여기에는 새마을사업을 통해 변화된 마을과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국가기록원에 14,199건의 기록물이 보존되고 있다.

3) 마을단위의 새마을운동 기록물

전국의 마을단위에서도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이 기록물에는 마을규약, 마을 회의록, 사업계획서, 작업일지, 결산보고서, 실적대장 등과 같은 자료들이 친필원고와 문서형태로 남아있다. 특히 마을회의록에는 사업명, 토의안건, 일시, 문제점과 대책, 작업실적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당시 진행되었던 새마을사업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새마을운동중앙회가 750건의 관련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4)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 편지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새마을사업을 성공시킨 새마을지도자들의 생생한 활동기록이다. 이 사례는 다른 마을로 전파되어 새마을운동 성공모델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마을의 편지는 그들을 교육시킨 새마을지도자연수원장에게 사업현장에서 부딪친 애로점을 토로하고 원장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4,042건의 관련 기록물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보존하고 있다.

5) 시민, 단체, 기업들의 편지, 기증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기원하며 시민, 단체, 기업 등 많은 곳에서 편지, 성금, 성품 등을 대통령이나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 속에는 가난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들 편지에 일일이 회신하여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국가와 시민사회의 소통공간이 되었다. 국가기록원이 160건의 관련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6)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생산 기록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새마을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킨 곳으로 교육자료를 생산했다. 새마을교육은 근면 · 자조 · 협동의 정신교육과 분임토의 성공사례 현지견학 과학적 영농기술 등 실천교육을 강조했다. 새마을교육 관련 자료는 교재원고, 성공사례,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수료생명부, 생활기록부,

분임토의 차트, 1970년대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의 구술자료 등이 있다. 2,645건의 관련 기록물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보존하고 있다.

다. 기록물의 의의

1) 농촌근대화의 성공스토리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1970년대부터 1979년까지 전개된 대한민국 농촌근대화 과정을 기록한 역사적 자료이다. 1960~1970년대 많은 국가들에서 전개되었던 빈곤극복, 농촌부흥, 지역개발 등 경제개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잘사는 농촌을 실현했던 성공사례를 담고 있는 자료이다. 새마을운동은 식민지배, 한국전쟁, 오일쇼크, 남북한 대치, 극심한 식량부족 등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의 34,000여개 모든 농촌 마을에서 전개된 농촌발전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가난과 역경을 극복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성공스토리와 새마을지도자와 국가지도자, 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빈곤에 시달렸던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농의 과학화와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했다. 이 밖에도 공동작업 도입, 농로개선, 농경지정리, 농기계도입, 새로운 농업기술 확대 등으로 농가소득향상과 과학영농을 실현하여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자발적 주민참여의 증거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농민, 여성,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인의식과 개척정신을 불러일으킨 의식개혁과 정신혁명에 관한 기록이자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룩한 마을발전의 기록이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조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농촌여성들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다. 남녀차별로 마을회의에서 배제되었던 여성들도 발언권과 투표권을 행사하고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됨으로써 농촌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의 농촌근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

은 '잘 살아보자'는 농민과 농촌의 사회적 열망과 자발적 참여 때문이었다. 농촌사회의 열망과 참여는 단순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잘 사는 마을 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농민과 농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다.

3) 대체 불가능한 세계 유일무이한 기록물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은 새마을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추진과정과 실적을 볼 때 새마을운동과 같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기록물 역시 세계 유일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4) 국제사회 발전을 위한 자료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과거의 영광을 되 짚어보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가치가 크다. 새마을교육을 받기위해 한국을 찾는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출신 교육생들은 빈곤퇴치, 여성개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목표로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참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대한민국 각지의 역사관에 전시되거나 화보, 영상, 책자 등으로 제작되어 국제교육 및 국제교류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5) 온전한 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국가기록원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들은 원형 그대로 보존 관리되어 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부처 등 국가기관이 생산한 교육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생산한 교육 자료와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생산한 기록물들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다. 과거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점, 그 자료의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온전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크다.

라. 주요 기록물

1) 새마을교본

중앙정부 각 부처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원활한 새마을교육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재를 제작하였다. 그 중 독농가연수원과 내무부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1972년도 새마을교본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종합안내서로서 참고할 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내무부국장, 대통령특별보좌관, 대학교수 등의 강의내용이 정리된 이 책은 새마을정신 계발, 농민지도기법, 협동, 새마을가꾸기 완성사업, 소득사업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부록에는 전국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를 담고 있어 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2) 새마을화보

1972년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작을 시작한 이후로 1987년까지 발행된 새마을화보는 매년 전국에서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다. 농수로 정리, 마을 안길 포장, 공동농장 만들기, 마을다리 건설 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전면 컬러화보로 생생하게 담아냈다. 새마을화보는 주민들의 활동사진을 단순히 나열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해의 새마을운동 성공사례를 사업유형별로 분류한 다음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특히 1970년대에 발행된 새마을화보는 새마을운동의 지도이념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어 정부에서 추구하는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1974년부터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된 버전이 출판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월간 새마을

1972년 1월 대한공론사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소식을 전국으로 전하기 위해 잡지 월간 새마을 발행을 시작했다. 이후 1989년까지 발행된 월간새마을은 그 달의 새마을사업 진행상황, 대표 모범사례, 농가소식 등을 기사로 엮어냈다. 기사 외에 독자참여 코너와 연재소설, 만화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정

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냈다. 1976년 9월호부터 1979년 4월호까지 제작된 월간 새마을은 농촌판과 도시판으로 나뉘어 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독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새마을운동 사례

1979년 영어로 제작된 새마을운동 소개 음성자료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연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환경개선을 통한 마을개발, 성공사례,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소득증대사업과 마을의 농업기술 근대화, 연수원의 기술훈련에 대해 언급했다. 후반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농민들을 위해 편리한 복지사회를 완비할 것과 식량의 자급자족,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뤘다. 약 28분 분량의 이 음성파일은 릴 테이프 형태로 저장되었는데 음성파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로 작성된 시나리오와 영상 슬라이드도 함께 존재한다. 이 자료들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 홍보를 실시할 수 있었다.

5) 분임토의 차트

분임토의 차트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 입교한 지도자를 비롯한 공무원, 학생 등 교육생들의 활동내용을 엿보기에 적합하다. 교육생들은 반별토론을 통해 각지의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이 추진된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마을사업 추진상황과 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다.

6) 수료생 앨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교육받은 수료생, 당시의 교육내용 등에 관한 정보는 수료생 앨범에 담겨있다. 앨범에는 당시 새마을교육에 참가했던 수료생

들의 증명사진을 비롯해 반발 생활신조와 교육현장 사진이 실려 있으며 앨범의 끝부분에는 수료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도 담겨있다.

7) 수료생 편지

새마을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의 편지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육소감, 교육 이후 새마을사업 추진현황,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각오 등이 적혀있다. 그들은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원장에게 사업현장에서 부딪힌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이에 원장은 교육생들의 편지에 답장을 해 주면서 그들과의 소통을 이어 나갔고 피드백을 통해 얻은 의견을 교육과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했다.

8) 마을단위 생산기록물

각 마을별로 어떻게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업별 작업일지, 회의록, 사업계획서, 회계장부 등 각 마을에서 생산된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마을 회의록은 마을 주민들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회의록 작성 시 회의에 참여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련 없이 모두 적어 반영했는데 이를 통해 마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회계장부 등을 통해서는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모은 마을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영 집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마. 기록물 평가

1) 진정성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정부와 주민이 협력하여 빈곤퇴치, 생활환경 개선, 영농의 과학화, 정신혁명, 리더십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대한민국 근대화의 증인이다. 1970년대부터 1979년 사이 중앙 및 중앙행정 부처,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새마을지도자, 마을 등이 생산한 이 기록물은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계획되고 진행되었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원본이며 1차적 자료이다.

2) 독창성 및 비대체성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유일의 국가이며 많은 개발도상국가 들은 한국식 발전 모델을 학습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첫 걸음이 새마을운동이었다. 대한민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빈곤퇴치, 경제개발, 경제발전 등을 이룩했다. 특히 농가소득은 1970년 825달러에서 1979년 4,602달러로 급속히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이 마을주민들 사이에 확산되었으며 위생환경, 생활공간, 농업시설 등 농촌사회의 생활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당시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데 초석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인류사의 소중한 자산이다.

3) 세계적 중요성

새마을운동은 농민의 적극적 참여와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민관협력의 성공 모델이다. 추진과정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여 마을의 민주화를 앞당겼다. 특히 전국의 34,000여개 모든 마을에 여성 지도자들을 한 명씩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리더십개발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은 농촌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공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4) 희귀성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대통령, 정부 각 부처, 교육기관, 마을 지도자, 주민 등 다양한 운동 주체가 직접 생산한 종합적인 농촌근대화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연설문 원고와 서명이 수록된 행정문서, 농민들이 작성한 회의록, 새마을지도자들의 원고, 시민들의 편지 등 작성자들의 친필로 쓴 자료들이 원

본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운동의 진행과정과 그 성공요인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권자, 연구자, 마을 발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진다면 농촌 근대화를 추진하는 국제사회의 심대한 손실이 될 것이다.

5) 원형성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들은 원형 그대로 보존 · 관리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비서실과 행정부처 등 국가기관이 생산한 자료,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원고 등을 원본 그대로 소장 관리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교육과 관련해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생산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표적인 성공 마을들의 기록물도 소장하고 있다.

바. 현대적 활용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2013년 6월) 기록물이자 대한민국 국가지정기록물(2011년 12월)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과 기록물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영구보존 및 활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 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7,437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과 3,015건의 국가지정 기록물,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1970년대 마을단위 기록물이다. 사업으로는 기록물이 디지털화, 해제 및 번역, 색인정보 정비, 온라인 아카이브 고도화 등이다.

1) 기록물 디지털화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자기록관리 관련법과 표준을 적용하여 보존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기록물을 디지털하고 해당 기록물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고 있다.

2) 기록물 해제 및 번역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소장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7,437건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2,000여건의 기록물 내용과 특징 의미를 중심으로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제와 번역을 실시하고 있다. 해제는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자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해제 내용은 해당 기록물의 서지정보, 정의, 주요내용, 용어정리, 의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요내용과 용어정리 부분에서는 중 ·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새마을운동을 통한 발전 경험을 요청하는 개발도상국가 또한 새마을운동과 기록물에 담긴 내용을 접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3) 기록물 색인정보 정비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12년부터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디지털화의 대상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새마을운동 기록물들을 포함하여 기타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데 의미가 있는 중요 기록물들이다. 약 4,700철 정도가 되는 기록물이 국제표준기록물기술규칙을 준용하여 생산기관 생산연도 · 철 · 건 제목 · 공개여부 · 위치 등의 색인정보를 조사하여 기존 목록정보의 오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 수정 ·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새마을운동 기록물만이 가진 특성을 반영하여 신분류체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4) 온라인 아카이브 고도화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디지털화의 색인정보 정비 후 정확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 온라인 아카이브를 고도화 하고 있다. 이번사업을 소설미디어 기능과 반응형 웹 기능,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개편될 것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Open-AP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은 물론 기록물 관련 기관들도 새마을

운동 기록물에 대한 온라인 제공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월간새마을, 새마을운동 만화, 1970년대 새마을지도자의 증언 등 주제별 컬렉션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의 해제와 영문서비스 제공은 기록관리 분야의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과 결과물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수집한 정보화 전략계획에 의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대한민국 국가지정기록물인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영구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아.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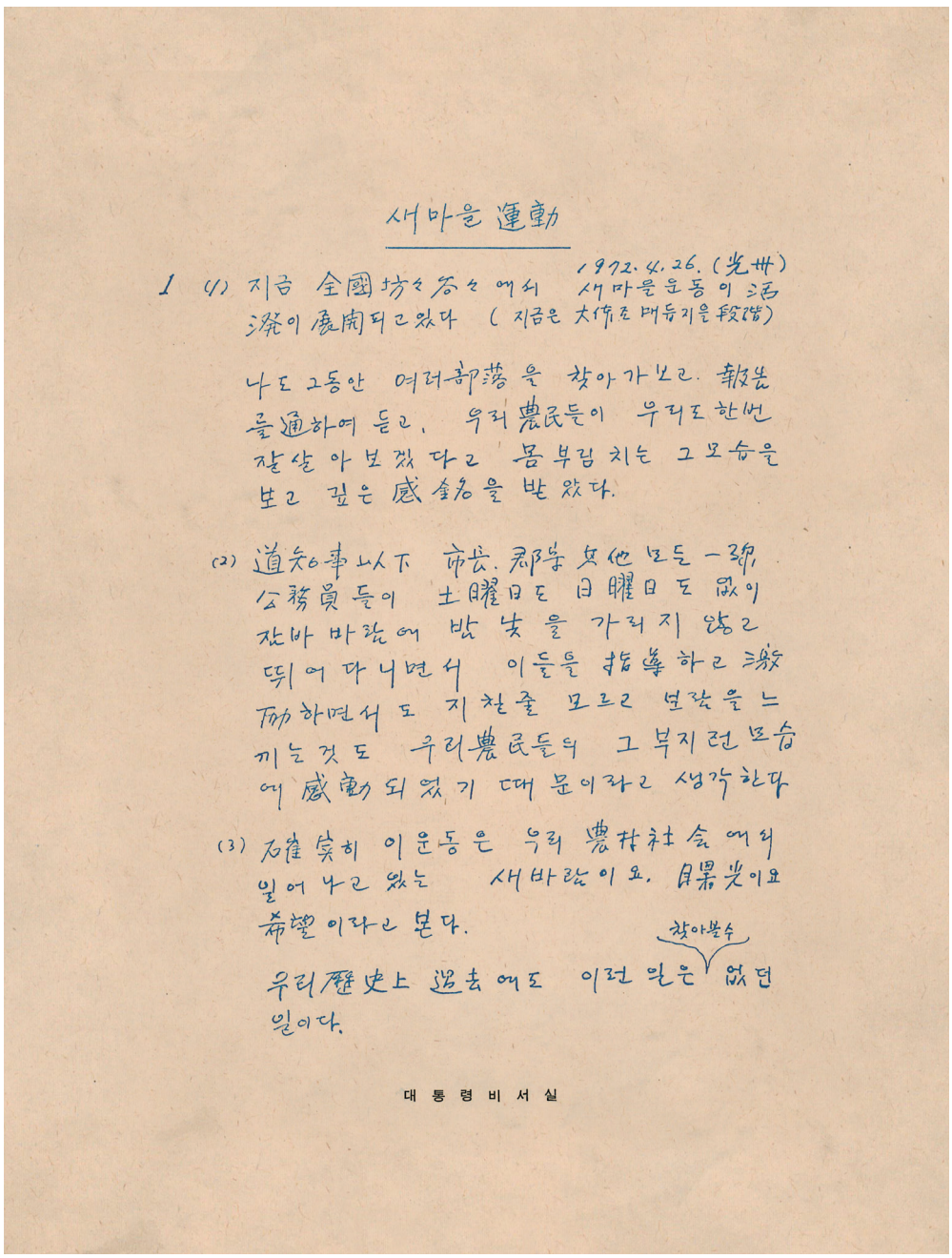
1) 훈민정음 해례본
2) 조선왕조실록
3)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4) 승정원일기
5)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6) 조선왕조 '의궤'
7) 동의보감
8) 일성록
9)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10)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
11) 새마을운동 기록물
12) 한국의 유교책판
13)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기록물
14)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15)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16)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17세기~19세기 한 · 일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

Saemaul Undong in Gyeonggi Province

경기도새마을50년사 | 부록

제1절 새마을운동 사진자료

1. 새마을운동 기획초고



새마을 運動

1972. 4. 26. (光州)

1 (1) 지금 全國 坊々谷々 에서 새마을운동 이 活潑이 展開되고있다 (지금은 大体로 태동기의 段階)

나도 그동안 여러部落 을 찾아가보고 報告를 通하여 들고, 우리 農民들이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모습을 보고 깊은 感銘을 받았다.

(2) 道知事以下 市長, 郡守 其他 모든 一線 公務員 들이 土曜日도 日曜日도 없이 잔바람에 밥 낯 을 가리지 않고 뛰어 다니면서 이들을 指導하고 激勵하면서도 지칠줄 모르고 보람을 느끼는것도 우리農民들의 그 부지런한 모습에 感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 名實히 이운동은 우리 農村社會 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바람이요, 日暑光이요 希望이라고 본다.

찾아볼수

우리歷史上 過去에도 이런 運動은 없던 일이다.

대 통 령 비 서 실

確実히 우리民族 全도 潜在的으로
無限한 底力을 가진 民族이 다.

(x) 왜. 이러한 底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底力을
発揮하지 못했느냐

亦是 여기 에는 어떠한 契機가 마련되어야
하고 刺戟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지난 10年동안. 1. 2次 5個年計画을 通해서
우리國民들이 땀흘려 이룩한 建設의成
果가. 우리農民들로 하여금 큰 刺戟을 주
었고 ~~어려운~~ 오랜 沈滞속에서 잠을깨고
눈을 뜰수 있는 契機를 만들어 주었다고
봐야 할것이다.

우리도 하면 된다 하는 自信이 생겼다.

2. (1) 한民族이 沈滞에서 벗어나서 一大飛躍
을 할때 가장 重要한 것이 自信이다

自信이 있으면 意欲이 생긴다.

意欲과 自信이 없는 民族은 아무리
좋은 機会가 있더라도 이것을 利用
할줄 모른다. (機会捕捉不可)

대 통 령 비 서 실

反対로 意欲과 自信이 旺盛한 民族은
逆境에 處해서도 이를에 屈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轉禍為福으로 삼을줄
아는 슬기를 發揮할줄 안다.

(2) 우리도 그동안 數없이 많은 苦難과 試
練을 겪어 왔다.

⓪ 外敵으로부터 侵略도 받아 왔고, 共產主
의 數없이 많은 挑戰도 받아 왔고. 旱害다
水害다 하고 數많은 天災도 받아 왔고.
祖上으로부터 물려 받은 가난이란
서른 을 뼈에 사무칠 程度로 겪어 왔다

(3)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逆境에 屈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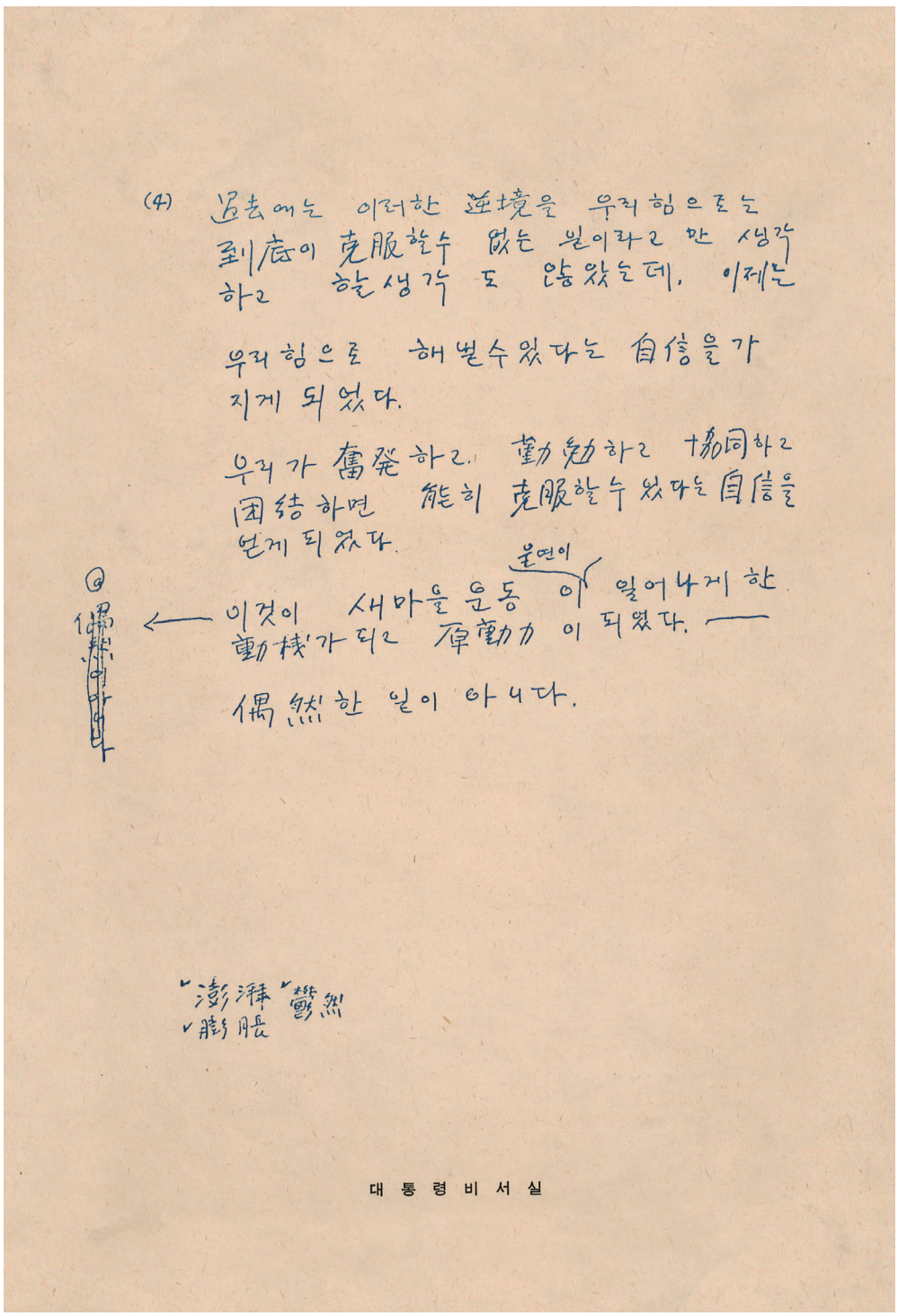
侵略者에 對해서는 對決해서 싸
워서 이길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天災는 하늘을 쳐다 보고 怨望할것
이아니라 人力을로, 이것을 克服하는 方法을
~~생각~~ 모색해야 하고

가난은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수 있
다는 것을 깨달았다

(옛날은 고사하고 근래만 보아도 ~~이~~ 수천년에 들어서도)

대 통 령 비 서 실



(4) 過去에는 이러한 逆境을 우리 힘으로는 到底이 克服할수 없는 일이라고 만 생각 하고 할생각 도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해낼수있다는 自信을 가 지게 되었다.

우리가 奮發하고 勤勉하고 協同하고 団結하면 能히 克服할수 있다는 自信을 얻게 되었다.

운연이

이것이 새마을운동 이 일어나게 한 動機가되고 原動力 이 되었다.

偶然한 일이 아니다.

"澎湃" "鬱然"
"膨脹"

대 통 령 비 서 실

3. 새마을 運動 이란 뭐냐.(意義, 概念)

(1) 俗談에 論語를 읽고도 論語의 뜻을 모른다 는 말이 있다.

(2) 시멘트와 鉄筋 가지고 農路닦고 다리놓는 것이다 허허....

(3) 쉽게말하자면 잘살기운동 이다

(4) 어떻게 사는것이 잘사는 거냐?

○ 貧困脫皮.

○ 所得이 增大되어 農村이 富裕해지고 보다더 餘裕있고 品位있고 文化的인 生活

○ 이웃끼리 서로사랑하고 相扶相助 하고

○ 알뜰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내마을.

◎ 当場 오늘의 우리가 잘살겠다는 것도 重要하지만..... 来日을 為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后孫들을 為해서 잘사는 네고장 을 만들겠다는 데 보다더 큰 뜻이 있다.(새마을운동에 対한 哲学的인 意義 発見하자)

大品位 | 金剛山도 食後景이라 너무 가난해 體面도 엷치도 없어진다

대 통 령 비 서 실

4. 어떻게 해야 잘살수 있느냐?

(1) 方法은 다 알고 있다.
問題는 実践이다.

(2) 부지런 해야 잘산다.
(3) 自助精神이 강해야.
(4) 온마을 사람이 協同精神이 強해야.

혼자 부지런 해도 안된다. — 온집안 食口 全部가 부지런해야 한다

한집만 부지런 해도 안된다.
온洞里사람이 全部 부지런 해야한다.

온洞里사람이 全部 부지런하면 協同도 잘 된다.

5. 協同의 原理.

(1) 協同의 必要性

1+1=2+α

- 能率이 오른다
  例: 農路作業 堆肥, 지붕개량
- 団結心이 강해진다.
- 自信이 생긴다

協同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므로 自信이 생긴다

能率 — 団結心 — 自信

안되는 일이 없다.

대 통 령 비 서 실

6. 勤勉, 自助, 協同精神

이것이 새마을 精神이다

이 精神이 있어야만 새마을 운동은 成功한다 → 即 잘살수 있다.

이렇게 볼때 새마을 운동 이란

精神啓発運動이요
精神革命運動이다

同時에 이 運動은 말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行動과 実践이 반드시 隨伴해야 한다. 行動哲学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農村은 반드시 잘사는 農村이 될수 있다

대 통 령 비 서 실

7. 어떻게 行動에 옮기느냐 (実践段階)

가. 事業選定을 잘 하라 (5大考慮事項)

(1) 部落民의 總意에 依하여 決定

(2) 部落共同利益에 寄與

(3) 部落特殊性考慮 (他部落模倣 一辺倒 不可)

(4) 例: 마을会館부터 ....
農路부터 ....
橋梁부터 ....
마을안길부터 ....
簡易上水道부터 ....
有実樹共同造林부터 ... 等

(5) 部落民의 自体能力 考慮
人口와 労働力
負担能力 ... 等

(6) 直接·間接으로 部落民 所得增大와 直結

나. 事業의 推進과 部落指導者

(1) 計画을 누가 짜느냐

(2) 部落民을 누가 説得하느냐.

(3) 여기에 指導者가 必要

(4) 이事業은 반드시 推進체
推進核心体. (推進委員会)

대 통 령 비 서 실

다. 有能한 部落指導者가 있느냐 없느냐는
事業成敗의 關鍵이다.
信望이 두텁고. 說得力이 있고
部落發展을 爲해서 献身的이고
犧牲的 精神이 旺盛.
推進力이 있는 者.

라. 始動이 걸렸다 궤도가 됐다.

(事業選定이되고
훌륭한 指導者가 있고
部落民의 了解得이 됐고) } 始動 궤도

必 計画은 綿密은 세워서 能率的으로 推進.

— 이와 같이 하면 반드시 成功한다 —
— 이와 같이 한 部落은 반드시 成功했다 —
— 이와 같이 해서 成功한 部落은
勤勉과 協同이 얼마나 所重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自己들이 이룩한 일이 엄청나게
巨創한 일을 했구나 하고
스스로 놀라게 된다.

8. 이제부터는 이事業을 어디로
이끌어 갈것이냐?

대 통 령 비 서 실

가. 直接的인 所得增大 事業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1) 이제까지 한 事業도 直接·間接으로 所得增大에 寄與하는 事業이다.
그러나 本格的인 事業으로 이끌어가기 爲한 始動作業이요. 準備作業이다.

(2) 앞으로 所增에 直接的으로 寄與하지 못하면 이 運動은 熱이 사그러진다.

(3) 새마을 운동의 窮局的目標는 ~~所得增~~ 農漁民의 所得을 增大하여 잘사는 農村을 만드는 데 있다 ……(잘살기 운동)

※ 農漁村이 富裕해져서. 우리 農民이 보다 余裕있고 品位있고, 보다 文化的인 生活을 누릴수 있으며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울줄 아는 살기좋은 새마을을 만들어 사랑하는 우리 后孫들에게 떳떳하게 물려 줄수있는 내고장.

대 통 령 비 서 실

(4) 農繁期에 접어드는 지금부터 할일
새마을事業 今年後半期事項大体完了
未完了 分野는 後半期 農閑期로 돌리고
農事에 全力傾注 할것 (本農事)

農事일에도 協同을 할수있는것은
協同으로 하면 더 能率이 오른다.
(모내기. 김매기. 농약살포 等)

(5) 今年後半期에 할일도 이제부터 研究
하라
後半期事業에도 政府는 約 ~~100億~~
程度의 財源을 마련할 予定이다

(6) 前半期事業의 成果를 分析하여
成果가 좋은 部落에 集中投資
할 予定
可及的이면 環境整理事業보다
는 所得增大에 直接寄與하는
事業등을 検討하라.

9. 今日討議하는 所得增大 特別事業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는 "새마을
운동"의 一環이다

가. 成功한 事例 不成功한 事例있으나

㉮ 成功한 事業은 모두
勤勉하고 自助精神 강하고
協同精神이 旺盛한데서 成功
㉯ 不成功은 그렇지 못했던데서다.

나. 勤勉하고 協同을 잘 했는데도
成功하지 못한 例가 있다면
두가지 原因이 있을까다

하나는 ..... (農民側)
營農에 있어서 科學的인 知
識과 技術이 不足했거나

다른하나는 .....(政府側)
政府의 支援이 잘못됐다.
資金支援이 適期放出不尸行
計画生産 不尸行

대 통 령 비 서 실

農產物価格保障 不実施
販路開拓 不斡旋 等

다. 앞으로 는

農民도 営農에 対한 科学的 知識
(머리를써야) 이상함

政府는 適切한 支援対策이
상히 隨伴되어야 한다.

10. 새마을 운동을 成功的으로 発展
시켜 나가기 為하여 留意한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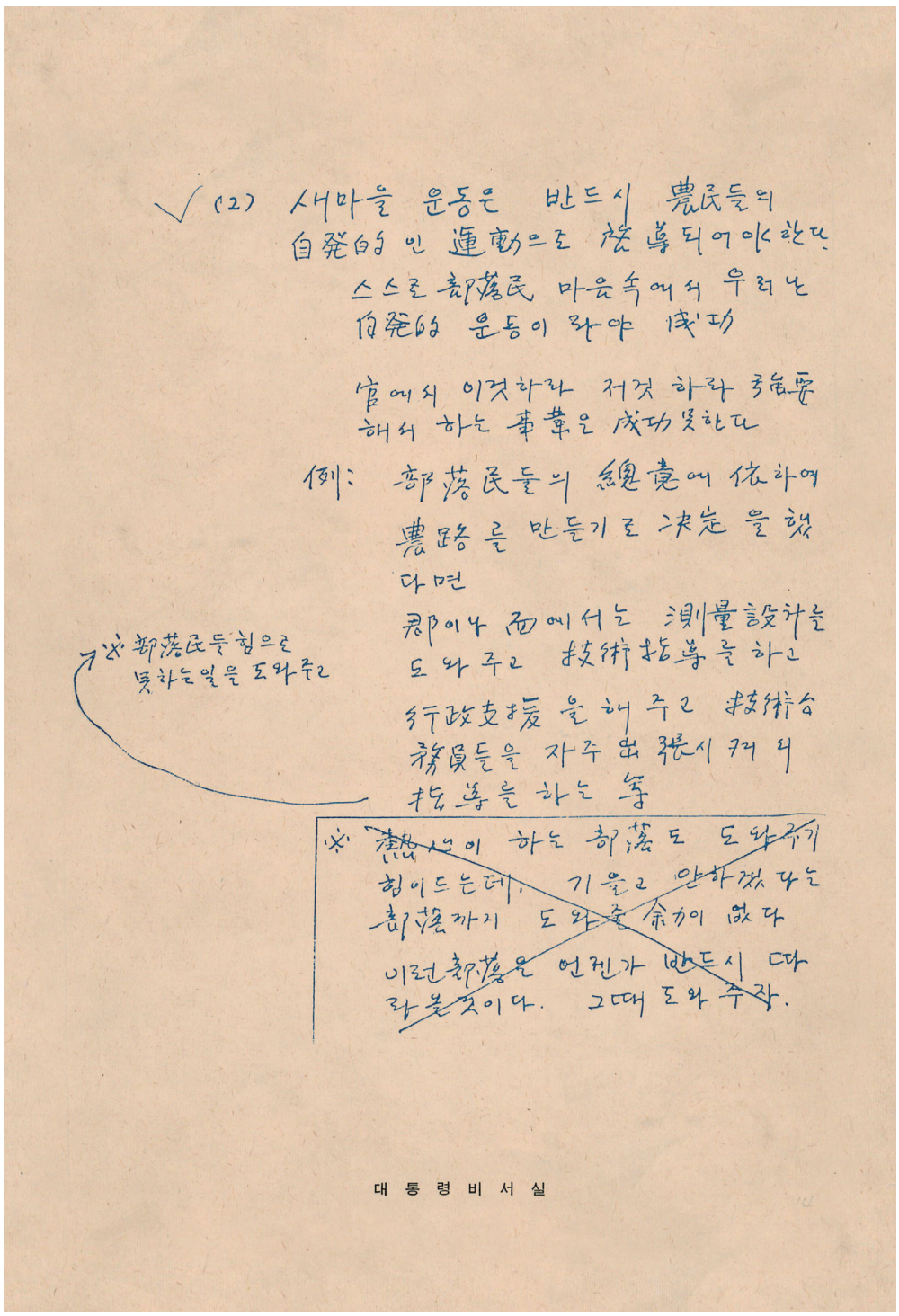
(1) 成果에 対한 性急한 생각을
버려라 (政府官吏나 農民들)

最少限 5年 동안을 熱心히 (持)
해야 成果가난다

造林事業은 40年 50年도걸린다
(우리들 子孫에게 물려준다는생각)

우리 子孫들에게 遺産으로 물
려주기 為한 보람있는 사업이
라고 생각하라.

대 통 령 비 서 실



✓ (2) 새마을 운동은 반드시 農民들의 自発的인 運動으로 指導되어야 한다.
스스로 部落民 마음속에서 우러난 自発的 운동이라야 成功

官에서 이것하라 저것 하라 強要해서 하는 事業은 成功못한다

例: 部落民들의 總意에 依하여 農路를 만들기로 決定을 했다면

郡에서 面에서는 測量設計를 도와주고 技術指導를 하고

行政支援을 해주고 技術公務員들을 자주 出張시켜서 指導를 하는 等

※ 部落民들 힘으로 못하는일을 도와주고

※ ~~積極的인~~ 하는 部落도 도와주기 힘이드는데, 기울고 망하겠다는 部落까지 도와줄 余力이 없다

이런 部落은 언젠가 반드시 다라는 것이다. 그때 도와주자.

대 통 령 비 서 실

(3) 반드시 生産과 直結되고, 所得增大가 結果되어야 한다.
科学的인 営農技術과 知識이 必要하며 이를 為하여 一線行務員이나 農村指導機関이나 地域社会에 있는 学校가 指導와 協調를 해야 한다.

(4) 政府는 勤勉하고 自助精神이 強하고 協同精神이 旺盛한 優秀部落을 優先的으로 支援한다는 方針을 継続 밀고 나간다.

(5) 政府는 이 운동을 強力히 뒷받침하기 為하여 必要한 資金의 支援 技術指導. 計画生産 農産物의 価格保障. 流通対策 을 세워서 農民들이 땀흘려 일한것이 決코 헛되지 않고 失望하지 않도록 더욱 增産意欲 을 북돋아 주도록 한다.

(6) 部落의 婦女会員들을 積極的으로 参与시키고 그들의 参与意識을 높여 줘야 한다.

대 통 령 비 서 실

成功한 部落은 반드시 例外없이 部落
婦女会員들의 役割이 大端히 컸다는
것을 알고 있다.

大体로 婦女들은 男子보다더 알뜰하고 誠実
하고 積極的이다.

7) 훌륭한 部落指導者의 発掘과 養成에
政府는 継続努力해야한다.

한사람의 훌륭한 部落指導者가 한마을
을 完全이 일어나도록 많은 例를 많이 보고
있다

이들이 이룩한 業績을 記録에 남기고
后世歴史에 남겨야한다.
이들이 바로 우리 農村의 英雄이다.

(8) 이 運動은 民族의 大躍進運動이다
農村에만 該当하는 運動은 決코아니다.
汎國民運動이다. 都市民들도 参與하고
積極的으로 協調해야한다.

아무도 傍観者가 될수 없다
그렇다고 나는 都市사람도 全部農村
에 가서 農路를 닦고 지붕改良事業을
直接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都市民들은 都市民들로서 뭔가 이웃
을 도우는 길이 있을 것이다.

대 통 령 비 서 실

最少限 도우지 못한다면 制妨 을놀지
않아야 하겠고. 妨害는 하지 않아야 하
겠다. 一部都市民들의 知覺없는 生活
態度는 이 運動에 찬 물을 끼얹는
結果를 가져올수도 있다. — 最少限
이런일은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9) 이 운동에는 勿論여러가지 問題点도
있고 一部 副作用도 있다. 勿論처음
부터 失手가 없도록 最善을 다 해야 하
겠으나 一部 副作用이 있다 해서 誹謗
만 할것은 못된다 是正해 나가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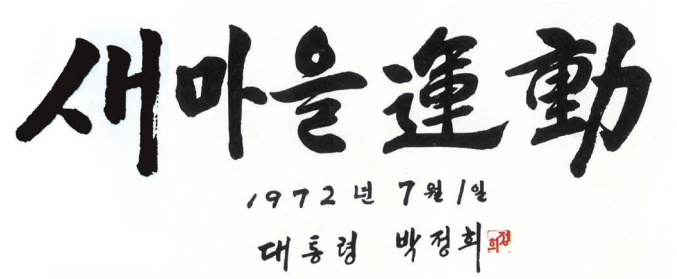
○ √(10) 모든 事業은 처음부터 緻密한 計画을
세워서 着手하고 하나 하나의 工事는
야무지게 堅固하게 着実히 해야
한다. (다리를 놓았더니 비한번 오니 내려
앉는 例는 없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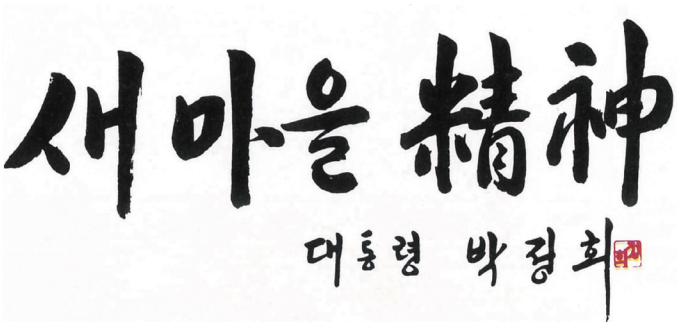
(11) 모든 公務員들은 이 運動에 앞장서고
이 運動을 指導하고 그들 農民을
도와주는 일에 無限한 矜持와
보람을 느낄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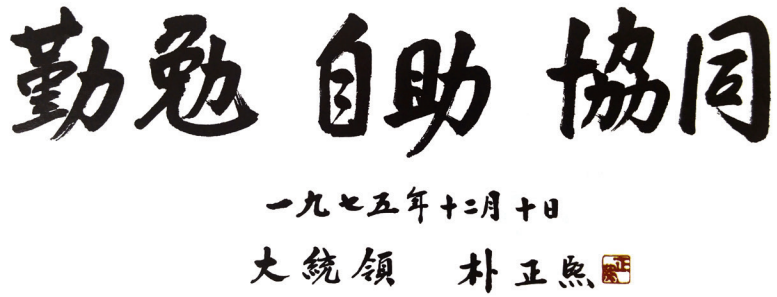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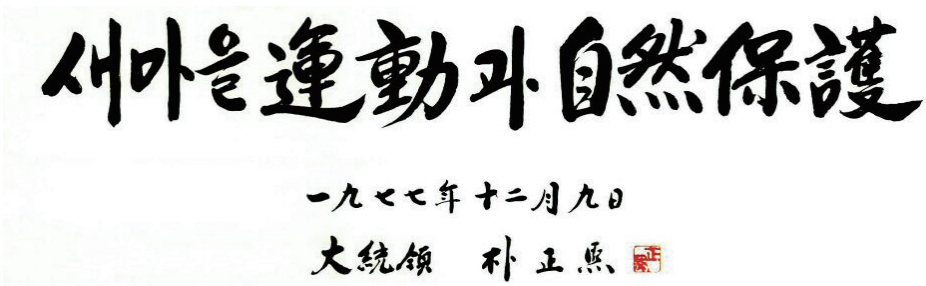
대 통 령 비 서 실

2. 새마을운동 휘호


새마을運動
1972년 7월 1일
대통령 박정희


새마을精神
대통령 박정희


勤勉 自助 協同
一九七五年十二月十日
大統領 朴正熙


새마을運動과 自然保護
一九七七年十二月九日
大統領 朴正熙

국토를 잘 보존하자

대통령 박정희

독서의생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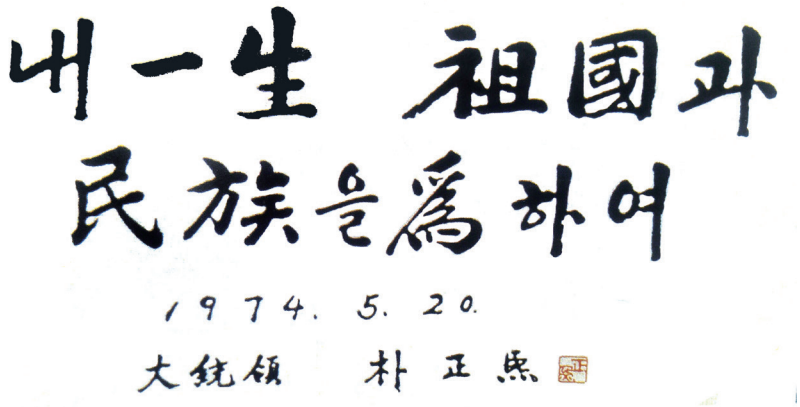
마을문고 창립 10주년 에스을하여
1971년 2월 1일
대통령 박정희

번영을향한경제설계

한국개발연구원 개원에즈음하여
1972년 7월 4일
대통령 박정희

새역사를 창조하자

1969년 1월 1일
대통령 박정희


내一生 祖國과
民族을爲하여
1974. 5. 20.
大統領 朴正熙


治山治水
一九七七年四月五日
大統領 朴正熙

3. 성공사례 만화 표지



평택군 현덕면 화양2리 황대영 새마을지도자



화성군 팔탄면 노하3리 홍성직 새마을지도자



김포군 하성면 후평1리 허금순 부녀지도자



이천군 율면 석산1리 이관섭 새마을지도자



시흥군 군자면 정왕6리 박형진 부녀지도자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오성철 새마을지도자



인천시 소암부락 홍륜사 주시 정재준 법사

이 만화는 1978년, 1979년, 1980년에 경기도 새마을지도과에서 제작된 작품으로서 경기도만 가지고 있는 경기도새마을운동의 보물이다. 경기도가 매년 도내 최우수지도자를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만화로 제작 · 보급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참여를 홍보하였던 작품들이다. 새마을운동은 우수지도자와 우수마을을 발굴하여 모델화하고 다른 지도자나 마을이 벤치마킹하도록 한 모델운동이었다는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다. 만화들은 추후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할 후보작품들로서 경기도새마을회 역사관에 전시중이다.

[편집자 주]

4.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포스터



1975. 12. 10 (경북 대구)



1976. 12. 10 (충남 대전)



1977. 12. 9 (전북 전주)



1978. 12. 6 (전남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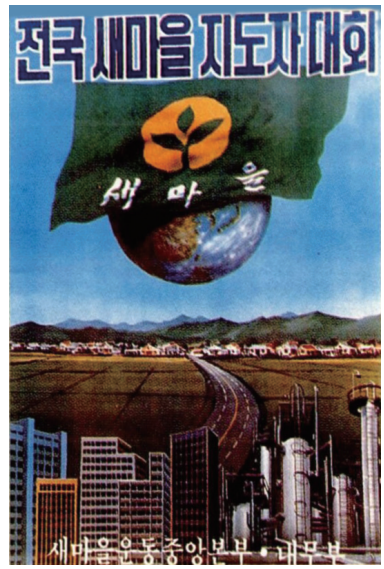
1979. 12. 18 (시 · 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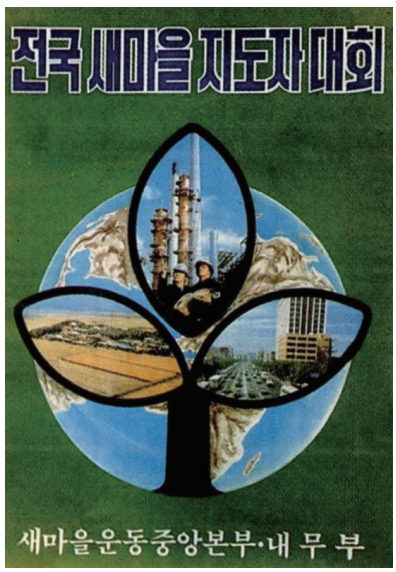
1980. 12. 10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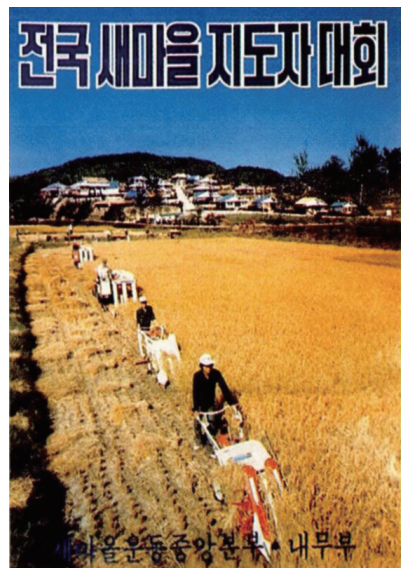
1981. 12. 9 (경북 대구)



1981. 12. 9 (경북 대구)



1982. 12. 10 (전북 전주)



1982. 12. 10 (전북 전주)



1983. 11. 1 (충북 청주)



1983. 11. 1 (충북 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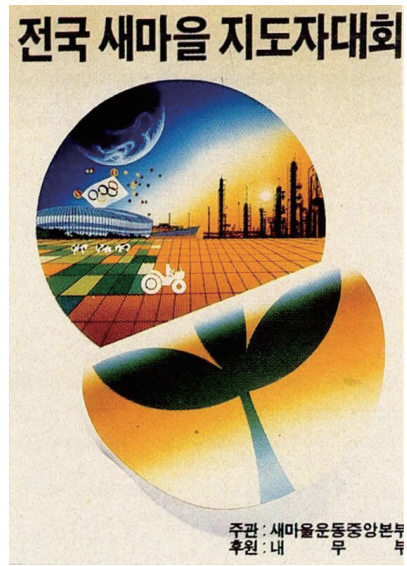
1984. 10. 22 (충남 대전)



1984. 10. 22 (충남 대전)



1985. 10. 25 (부산)



1986. 10. 30 (경기 수원)



1990년(서울)



1992년(서울)



1993년(시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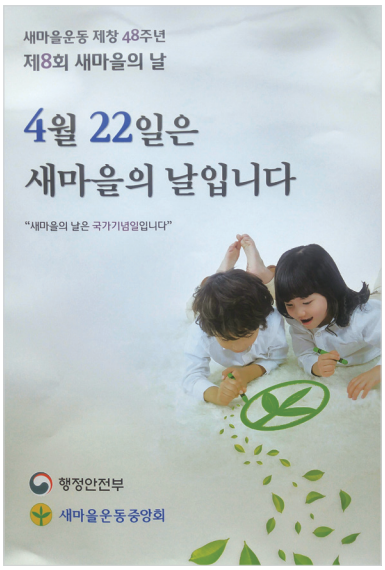
1994년(시도별)



2017년(부산)



2019년(경기 수원)



2018년(새마을의 날)



제2새마을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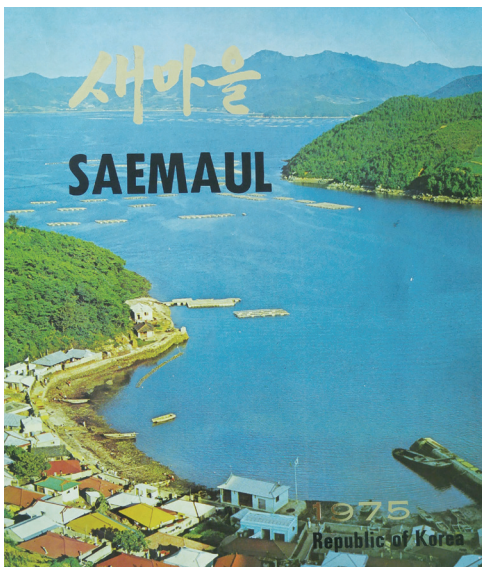
5. 새마을운동 화보집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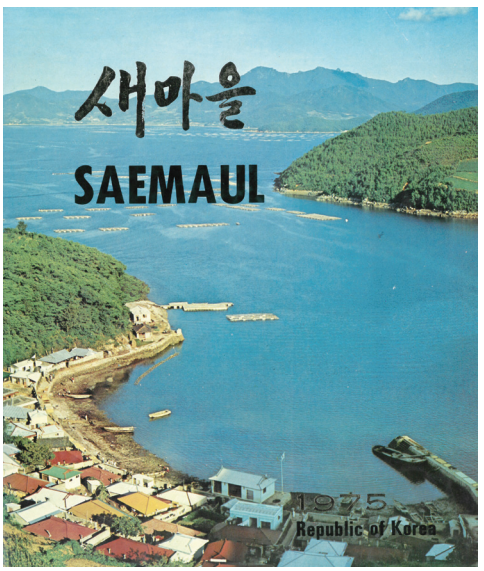
197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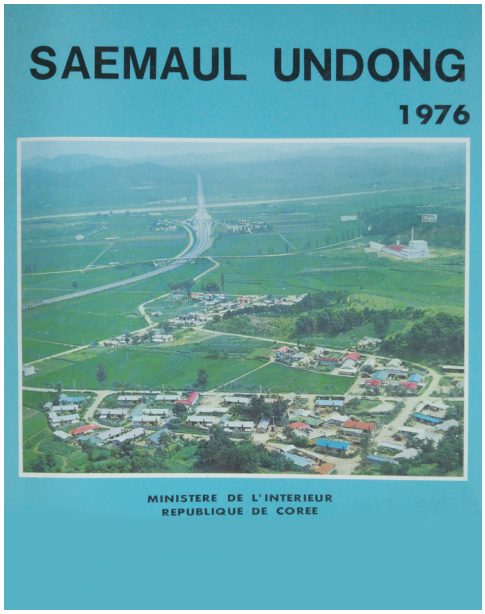
1974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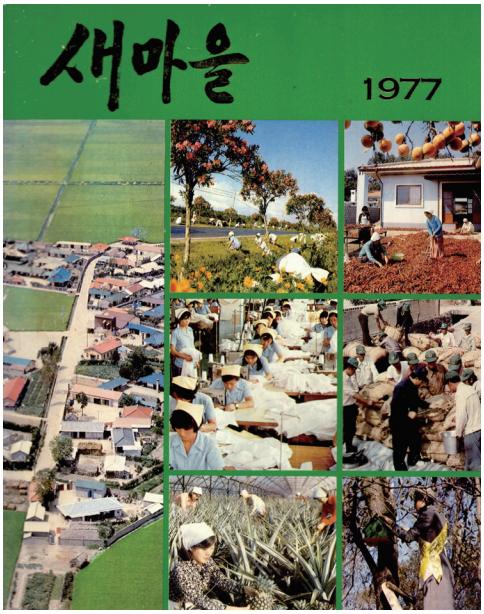
1975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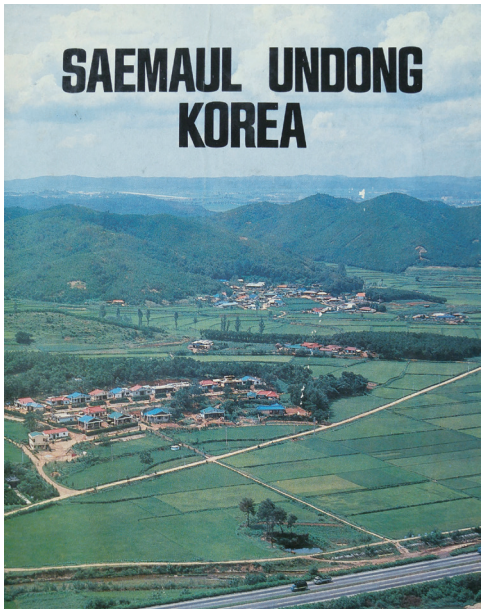
1975년도(영문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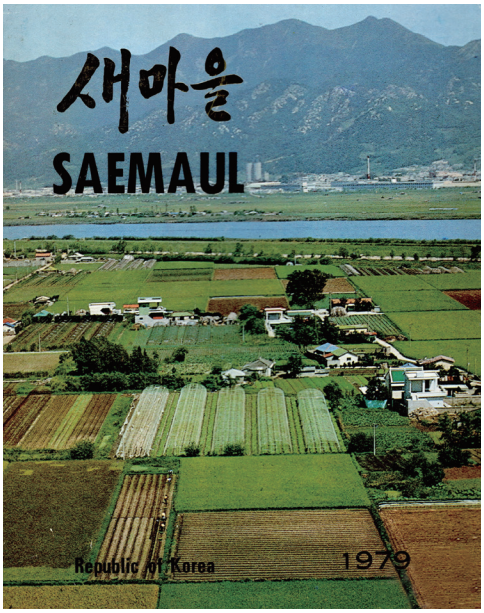
1976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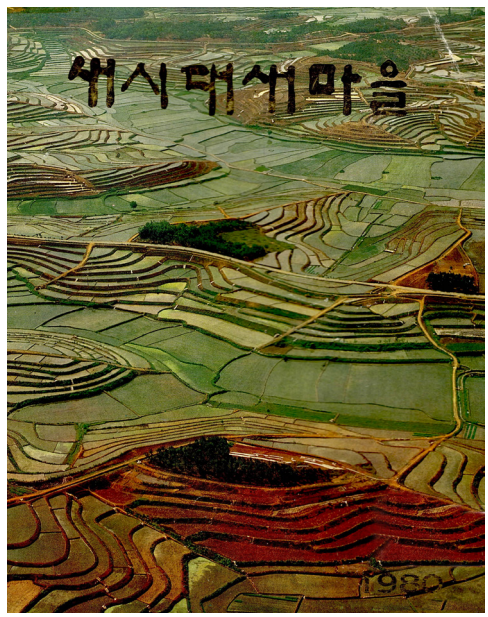
197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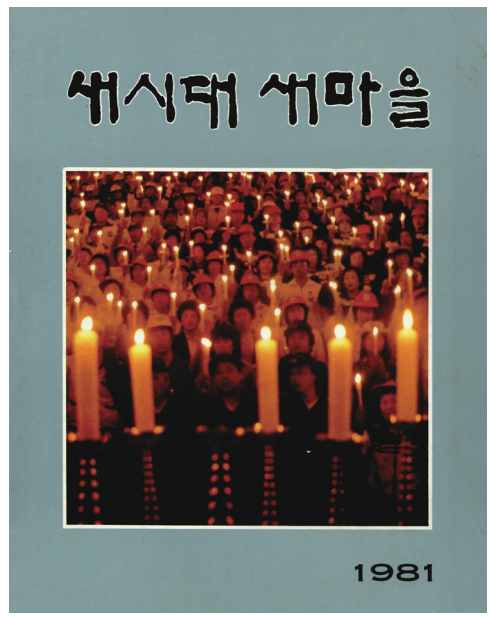
197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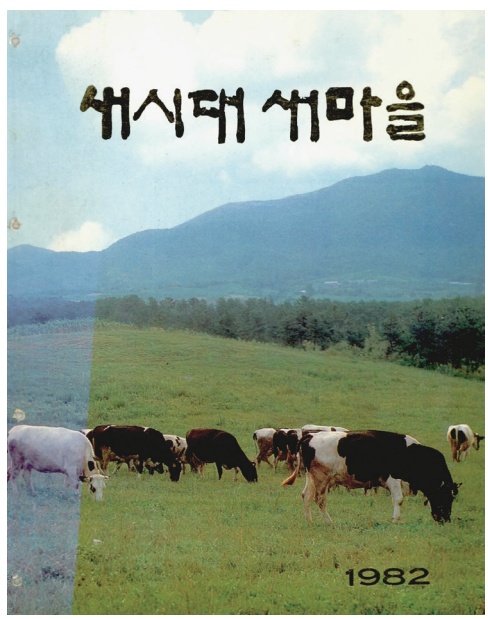
197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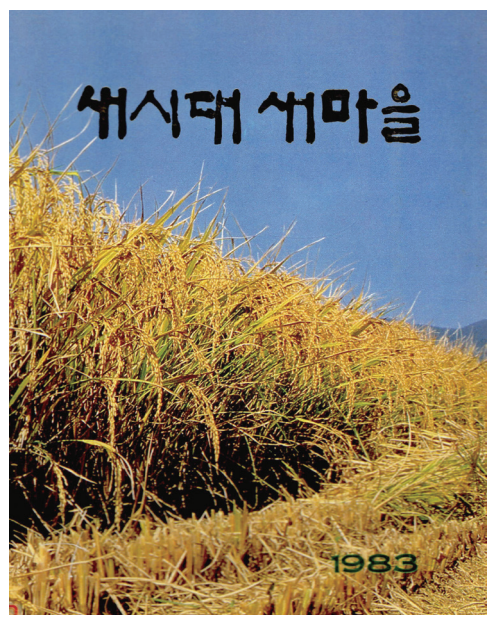
1980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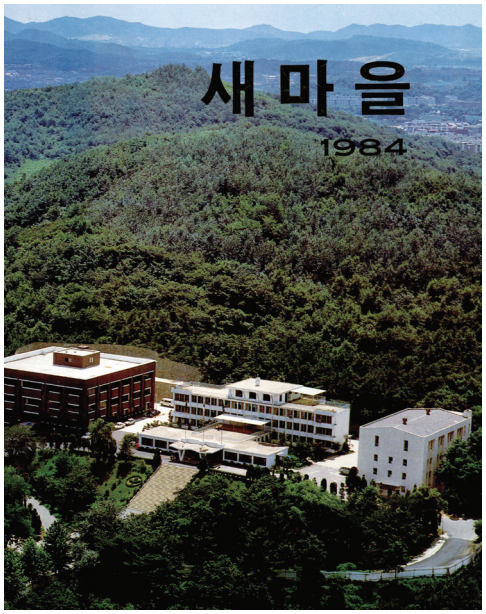
1981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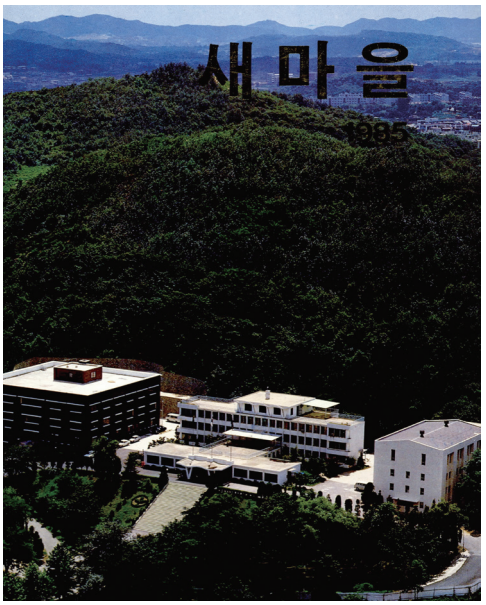
1982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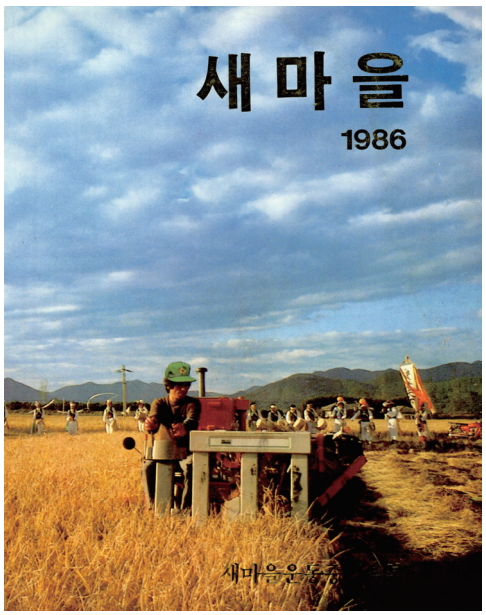
198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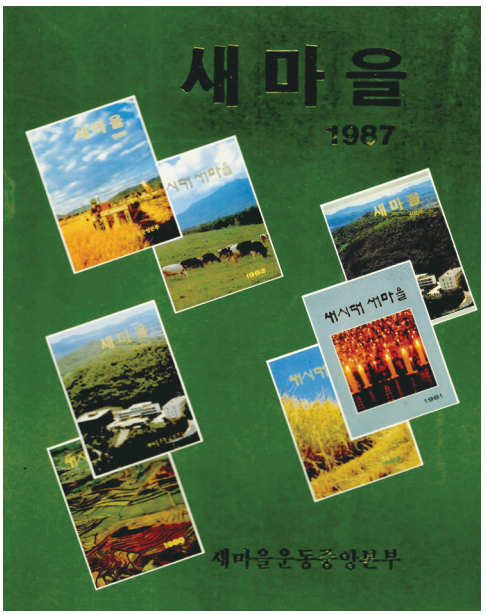
1984년도



1985년도



1986년도



1987년도

6-1. 새마을 캐릭터-새아찌·새줌마(앨범)



6-2. 새마을 캐릭터-새아찌·새줌마 달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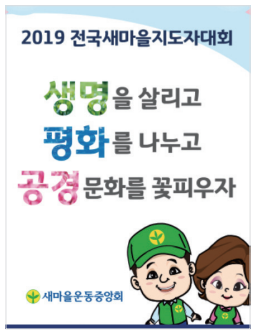
12월

6-3. 새마을캐릭터-새아찌·새줌마(응용)



생명살림운동, 새마을이 시작합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

김장김치에는 우리 돼지고기가 최고! 한돈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살리기! 경기도새마을이 함께 합니다

2019. 11. 13.(수)~11. 14.(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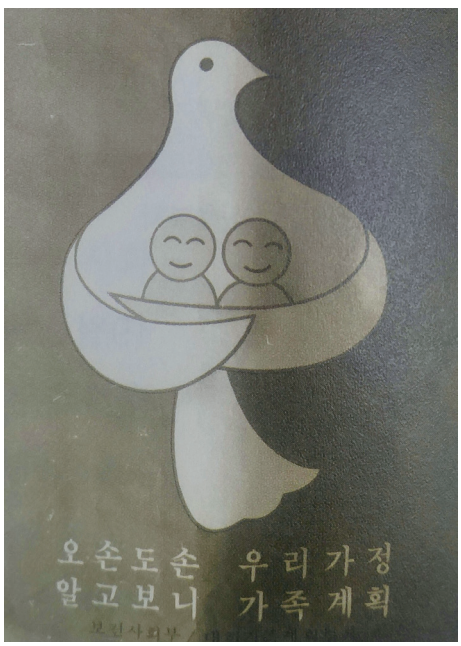
7. 시대별 가족계획-산림녹화 포스터



1960년대








둘도 많다!
1980년대


삼천리는 초만원
대한가족계획협회


국민식수기간 특별우표
Special Postage Stamps Marking the
National Tree Planting Campaign
1975. 3. 20


국민식수
산·산·산, 나무·나무·나무

8. 경기도 시군 새마을회관 전경



경기도 새마을회관



경기도 새마을회관(별관)



수원시 새마을회관



고양시 새마을회관



용인시 새마을회관



성남시 새마을회관



부천시 새마을회관



안산시 새마을회관



화성시 새마을회관



남양주시 새마을회관



안양시 새마을회관



평택시 새마을회관



의정부시 새마을회관



파주시 새마을회관



시흥시 새마을회관



김포시 새마을회관



광명시 새마을회관



광주시 새마을회관



군포시 새마을회관



이천시 새마을회관



오산시 새마을회관



하남시 새마을회관



양주시 새마을회관



구리시 새마을회관



안성시 새마을회관



포천시 새마을회관



의왕시 새마을회관



여주시 새마을회관



양평군 새마을회관



동두천시 새마을회관



과천시 새마을회관



가평군 새마을회관



연천군 새마을회관

9-1. 새마을운동 상징물



새마을기(당초)



새마을기(변경)



새마을지도자증(1978, 광주군)



새마을지도자의 집



새마을지도자증(1985, 안양시)



새마을마크



새마을마크(문고)



새마을마크(금고)



새돌이 새순이


훈 장 증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
회 장 함 옥 생

귀하는 새마을사업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새마을훈장 자조장

2018년 11월 27일

대통령 문 재 인

국무총리 이 낙 연

이 증을 새마을훈장대에 기재함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새마을훈장(자조장, 2018)

청년새마을



새마을부녀회장의 집 문패



새벽종



새마을훈장



절미저축 통(좀도리)

새마을교통봉사대

새마을기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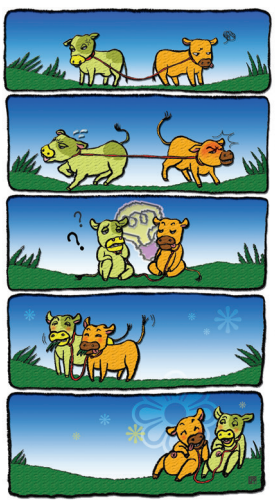
SMU새마을운동

SGL

9-2. 새마을상징물



새마을운동 이미지



새마을운동 이미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수원시 화서동)



새마을지도자탑(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새마을의 날 기념비(중앙연수원)



새마을지도자의탑(중앙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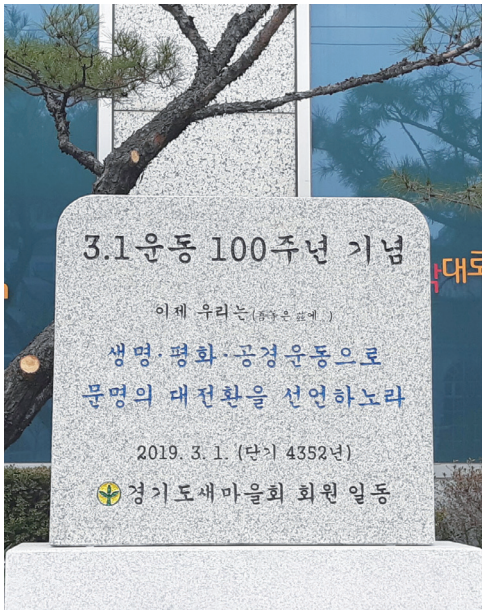
새마을운동중앙본부(서울시 화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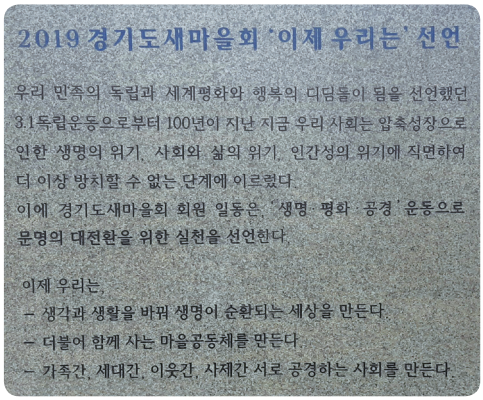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시 대치동)



'새마을의 날' 제정



3 · 1운동 100주년 기념비



3 · 1운동 100주년 기념비문



새마을기념장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

9-3. 새마을운동 기념우표



새마을운동 기념우표 (1972년)



새마을운동 기념우표 (1976년)



새마을운동 10주년 기념우표 (1980년)



새마을운동 20주년 기념우표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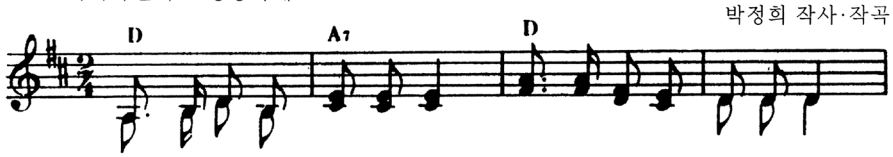


새마을문고 창립 30주년 기념우표 (1991년)

9-4. 새마을운동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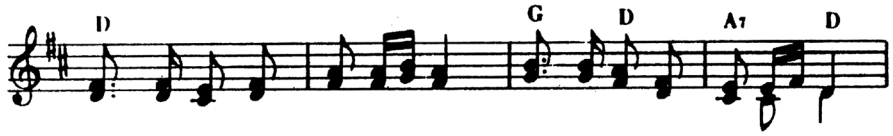
새마을 노래

씩씩하면서도 명랑하게

박정희 작사·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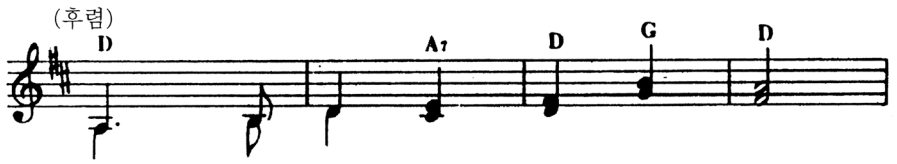


1. 새 벽 종 이 울 렸 네 새 아 침 이 밝 았 네
2. 초 가 집 도 없 애 고 마 을 길 도 넓 히 고
3. 서 로 서 로 도 와 서 땀 흘 려 서 일 하 고
4. 우 리 모 두 굳 세 게 싸 우 면 서 일 하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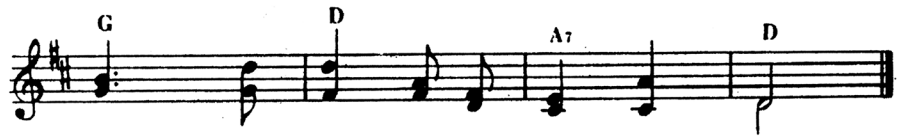


너 도 나 도 일 어 — 나 새 마 을 을 가 꾸 — 세
푸 른 동 산 만 들 — 어 알 뜰 살 뜰 다 듬 — 세
소 득 증 대 힘 써 — 서 부 자 마 을 만 드 — 세
일 하 면 서 싸 워 — 서 새 조 국 을 만 드 — 세

(후렴)



살 기 좋 은 내 마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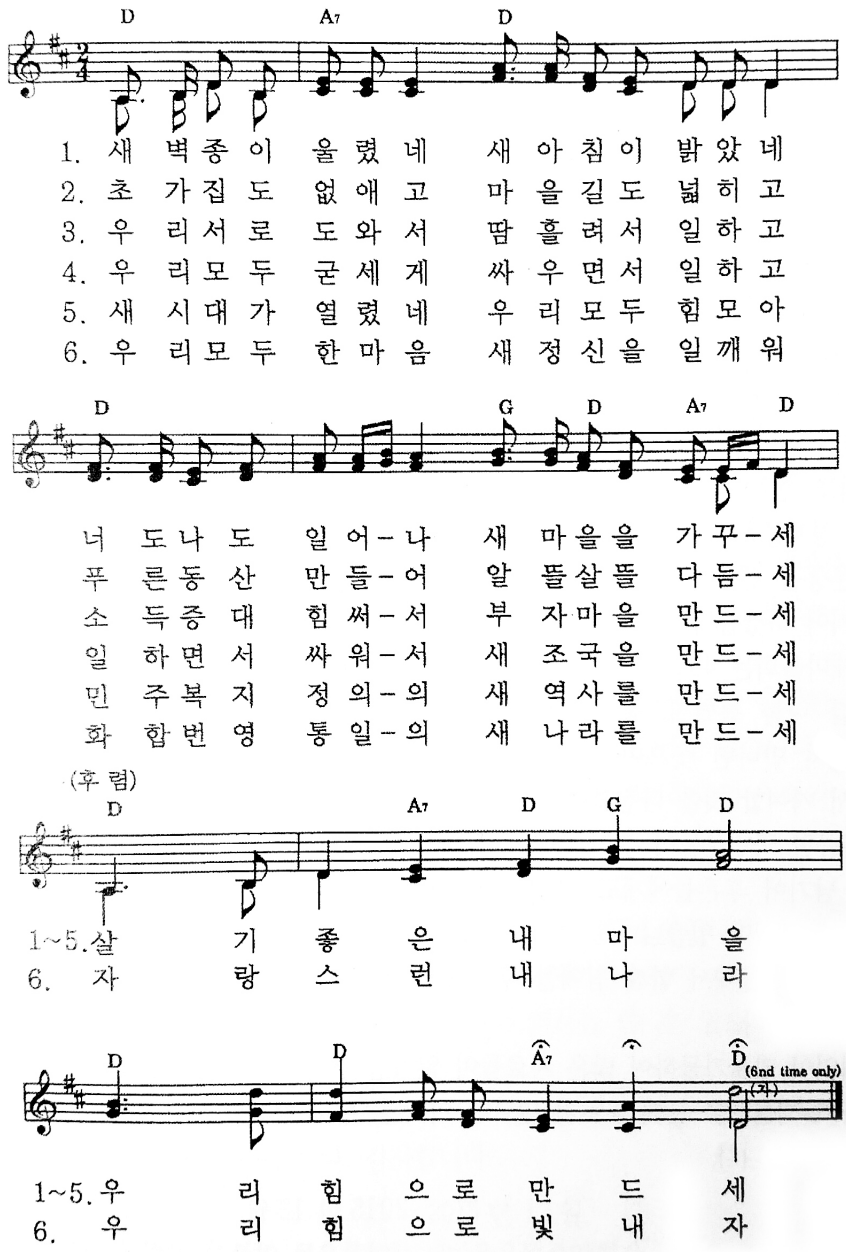


우 리 힘 으 로 만 드 세

새마을노래(4절)

새마을 노래

씩씩하면서도 명랑하게 작사 · 작곡 · 박정희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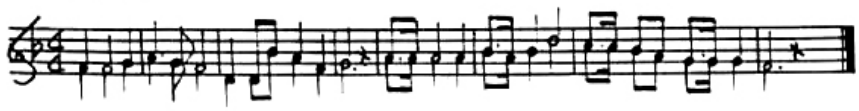


새마을노래(6절)

나라를 위하여

전 석 환 작사
전 석 환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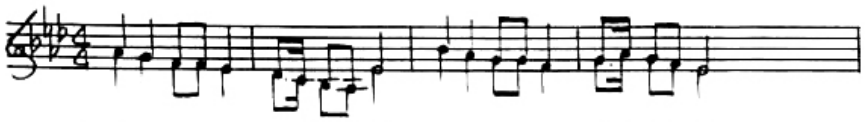
환기넘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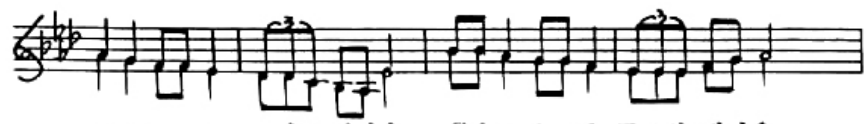
새시대를열어가자 아름다운꿈을갖자
1. 2. 너와내이웃과 나라를위하여 모두함께힘을모아 선진한국이룩하자

전 석 환 작사
전 석 환 작곡

행진곡풍으로



1. G r e e n 그린새마을 H a p p y 해피 새마을
2. 녹색생활 그린코리아 사랑나눔 해피 코리아



S m a r t 스마트 새마을 G l o b a l 글로벌 새마을
친절배려 스마트 코리아 세계로 일류로 글로벌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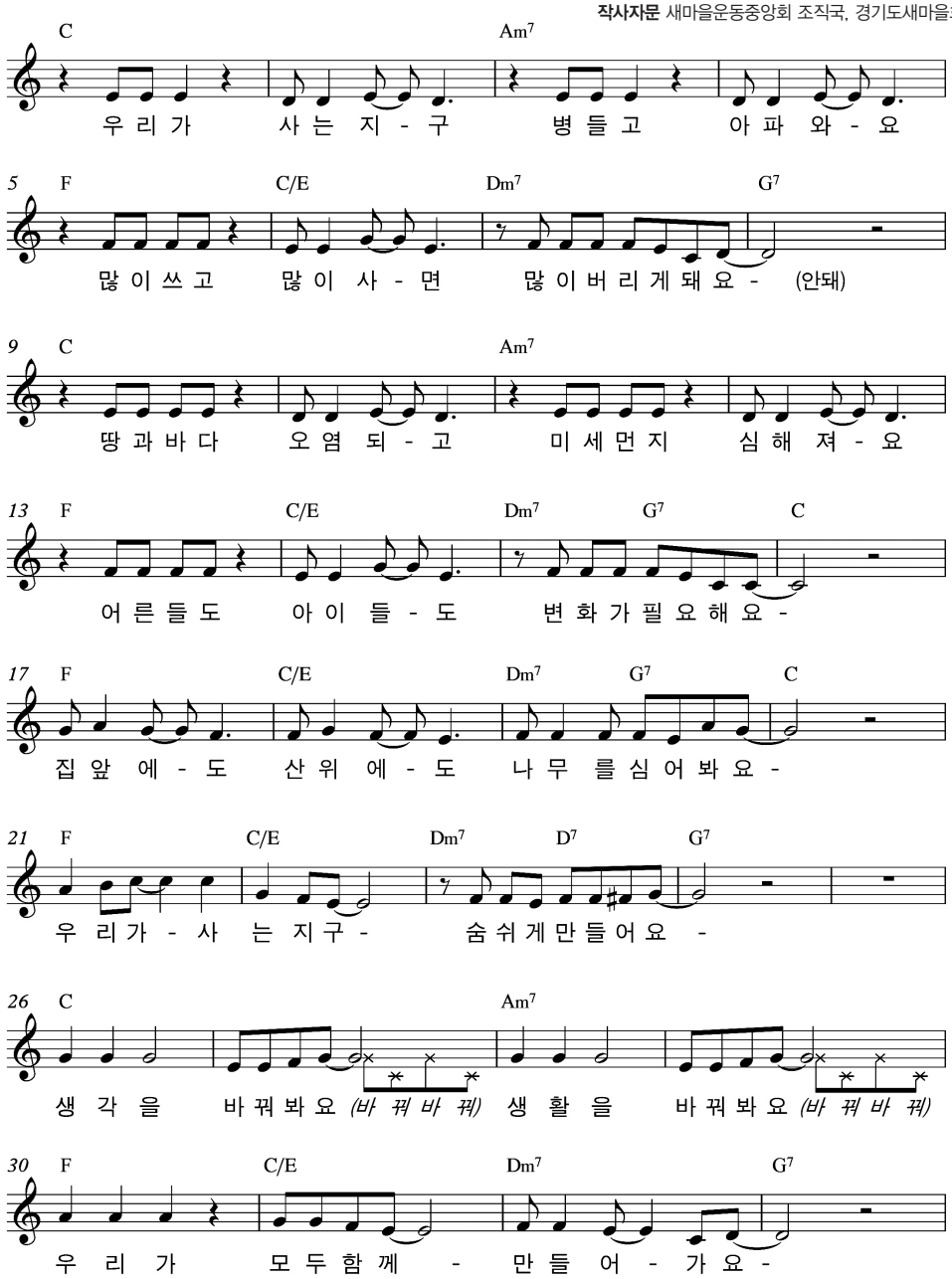


1. 성실하게 땀흘리는사람 가정과이웃에서 존경받고
마을사랑 아름다운봉사 살맛나는사회 ——— 열어가리라
2. 서로믿고 서로돕는사람 마을과직장에서 사랑받고
나라사랑 타오르는 정열 선진일류국가 ——— 열어가리라

새마을노래(뉴 새마을운동 / 나라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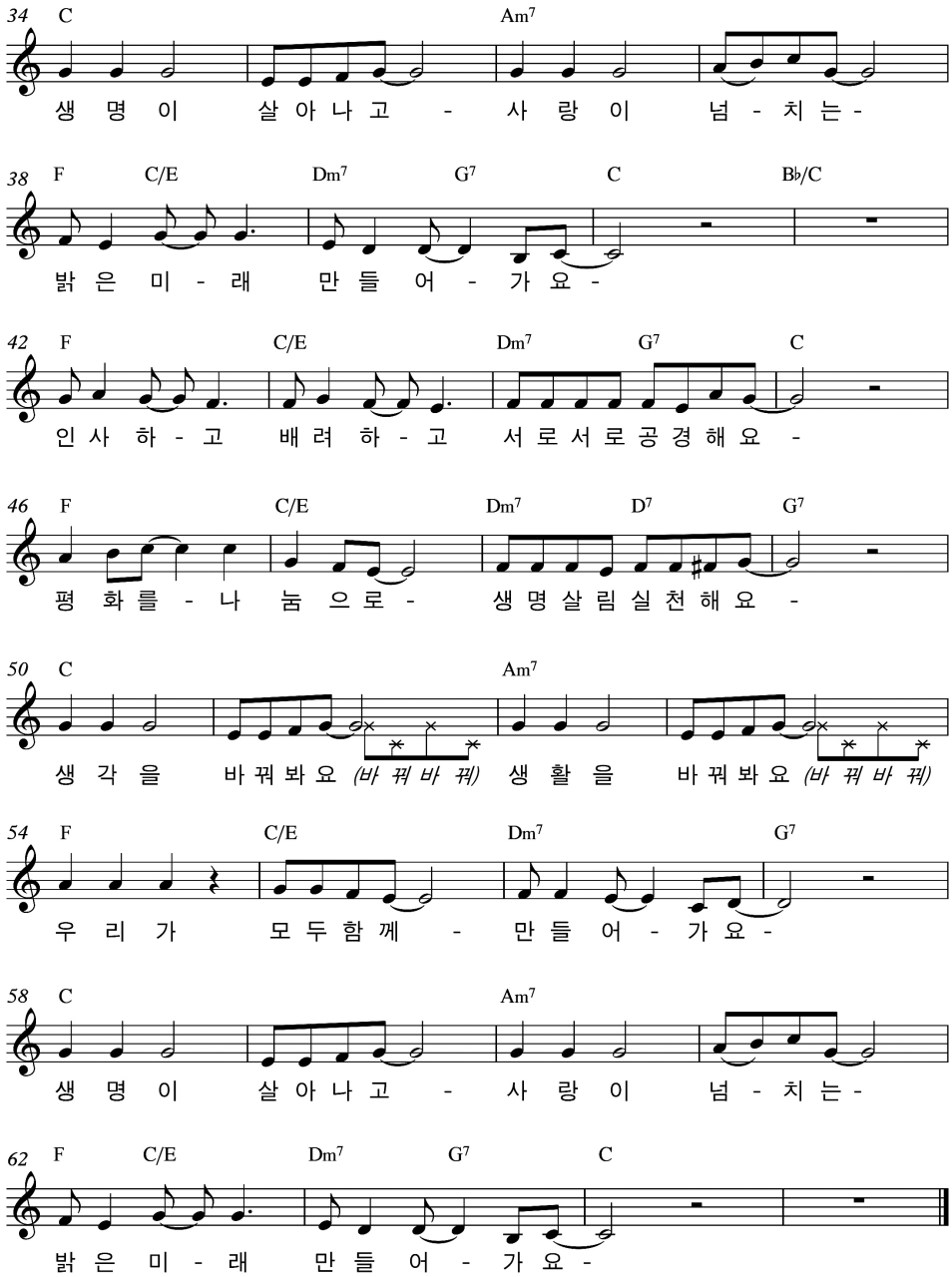
생명살림 캠페인송

작사 윤선옥, 김지은 **작곡** 김지은
편곡 김신욱, 정현준 **노래** 노예빈
작사자문 새마을운동중앙회 조직국, 경기도새마을회



새마을 노래(생명살림 캠페인 송)

생명살림 캠페인송



새마을 노래(생명살림 캠페인 송)

9-5. 우리의 다짐

우리의 다짐
—새마을가족—

1. 獻身으로 創造하자

1. 和合으로 建設하자

1. 傳統살려 跳躍하자

우리의 다짐(새마을가족)
헌신으로 창조하자 / 화합으로 건설하자 / 전통 살려 도약하자

9-6. 새마을상징물(탑, 비)



새마을지도자연수원(터) (수원시 화서동, 2010)



새마을탑(고양시 관산동, 1996)



새마을기념비(용인시 역북동, 2011)



새마을기념비(용인시 풍덕천동, 2001)



새마을기념비(용인시 마북동, 2009)



세네갈대통령방문 기념비(화성군, 1979)



새마을기념비(화성시새마을회관, 2001)



새마을운동기념비(안산시, 2019)



새마을탑(의정부시 동부역, 2012)



생명살림(김포시, 2019)



새마을역사전시관(김포시, 2010)



새마을기념비(남양주시 금곡동, 2009)



새마을기념비(광명시 소하동, 2007)



새마을기념탑(하남시 천현동, 1990)



새마을기념탑(하남시 덕풍동, 1991)



새마을기념비(광주시, 2018)



새마을지도자상(이천시 청소년센터, 1993)



새마을기념비(이천시 설봉산, 2008)



새마을기념비(이천시 대월면, 2003)



새마을지도자탑(구리시 토평동, 1991)



새마을지도자탑(파주시 조리읍, 1990)



새마을탑(여주군 여주읍, 1992)



새마을기념탑(가평군 청평면, 1999)



새마을기념비(가평군 설악면, 2002)



새마을기념비(연천군 중면, 2003)



새마을기념비(연천군 연천읍, 1986)



새마을기념비(양평군 용문면, 2005)



뉴새마을기념비(양평군 용문면, 2013)



새마을기념비(양평군 지평면, 2013)



새마을기념비(양평군 강하면, 2014)



새마을기념비(양평군 옥천면, 2015)



새마을기념비(양평군 서종면, 2015)



새마을기념비(양평군 단월면, 2015)



뉴새마을기념비(양평군 강상면, 2016)



새마을기념비(양평군 양서면, 2016)



새마을기념비(양평군 양동면, 2017)



새마을기념비(양평군 개군면, 2017)



새마을기념비(양평군 청운면, 2017)



뉴새마을기념비(양평군 양평읍, 2017)



새마을기념비(안양시 석수2동, 1987)

10-1. 연도별 특별사진(1970년대)



초가 집





초가지붕 개량



여주 · 이천 사방공사



기와지붕 개량



담장 쌓기



마을진입로 확장



조림사업



마을 안길 만들기



가마니 짜기



추곡수매



새마을대청소



보리밟기



반상회



반상회



성남시 새마을운동목표 필승기간



성남시 새마을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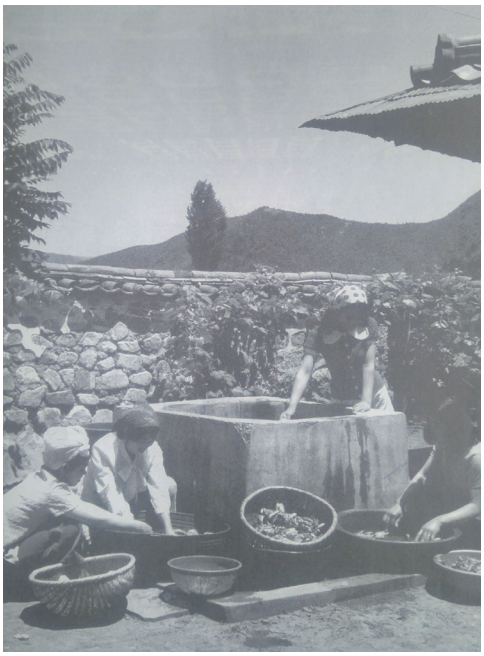
수원시 인계동, 1970



수원시 인계동새마을, 1972



정돈된 마을



공동우물















시흥군 과천면 새마을운동



이앙기 영농



건전사회 캠페인



유실수 조림



빈병 모으기



박정희 대통령 벼 베기



자연보호 활동



공장새마을운동추진 결성대회, 1977



건전한 시장거래 캠페인(수원상의)



물자절약 상공인대회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용인)



공장새마을운동 연수교육, 1982



서울 광화문에 있던 경기도청, 1964



수원시청 준공



경기도청 청사 기공, 1964



동두천시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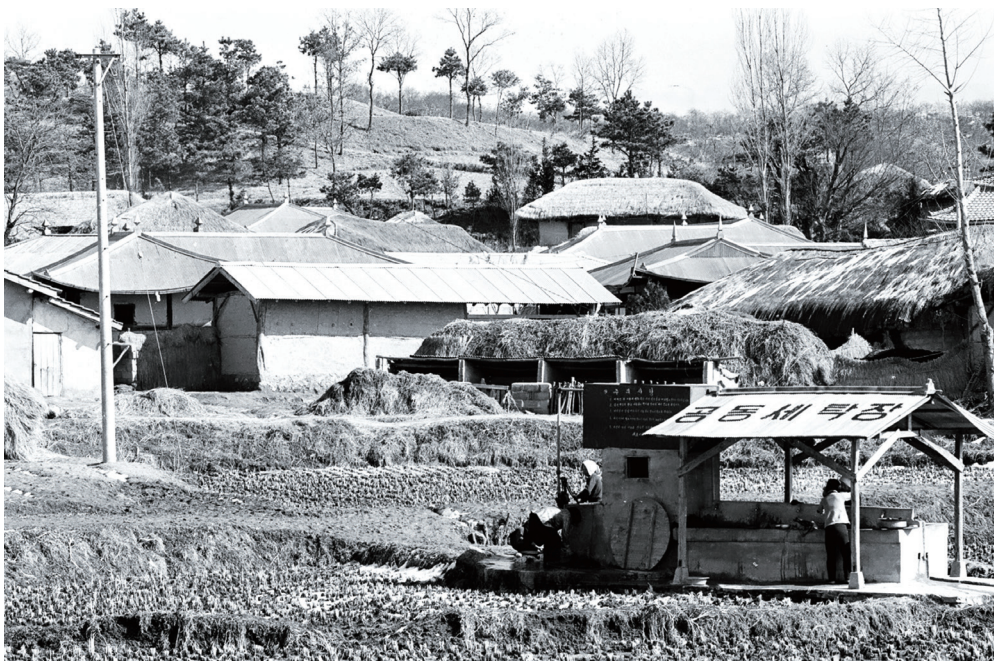
안산시청 준공



매월1일은 새마을의 날



사방공사



공동세착장



새마을대청소



하수구 정비



도로개설



새마을협동유아원



가정새마을실천결의대회, 1988

10-2. 새마을운동 초기(1970년대) 특별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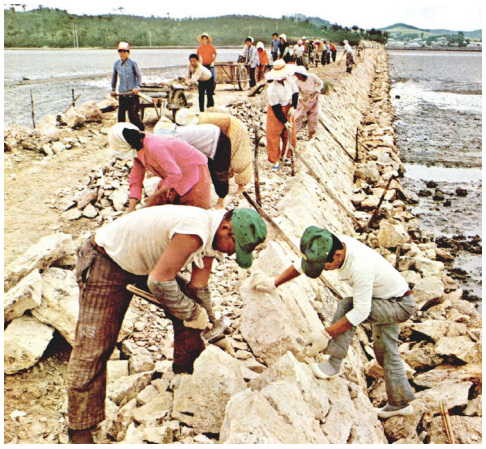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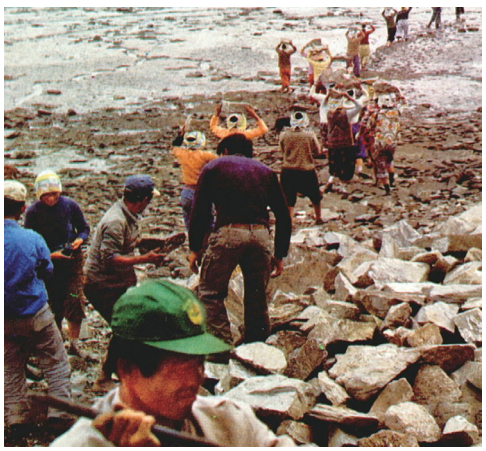














10-3. 연도별 활동사진(1970년대)



시흥군 의왕면 왕곡1리,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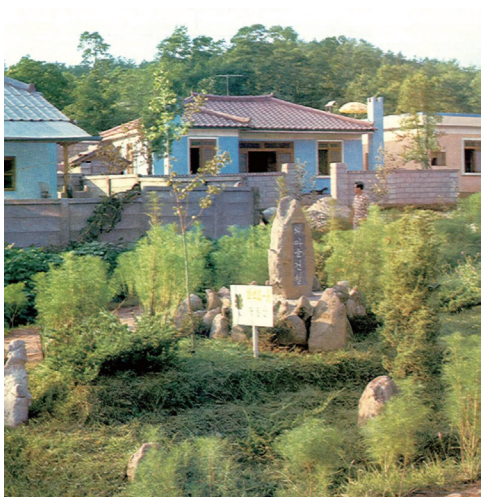
파주군 교하면 광화리,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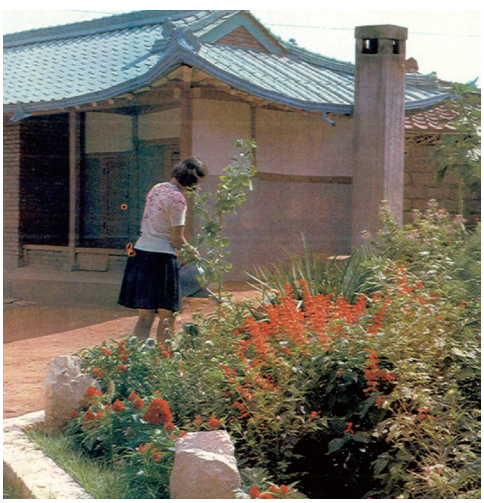
양주군 구리면 교문1리, 1973



광주군 오포면 양벌2리, 1973



경기도 인천시 백석동 한들부락, 1973



평택군 송탄면 모곡리, 1973



시흥군 수암면 장하1리, 1973



용인군 용인면 마평2리, 1973



김포군 고촌면 신곡 양수장, 1973



이천군 대월면 고당리, 1973



양주군 동두천읍 지행2리, 1973



이천군 신둔면 수강2리, 1973



시흥군 소하읍 탁아소, 1973



광주군 광주면 태전리, 1973





화성군 비봉면 새마을공장(대우실업), 1973





용인군 용인면 새마을공장(동광통상),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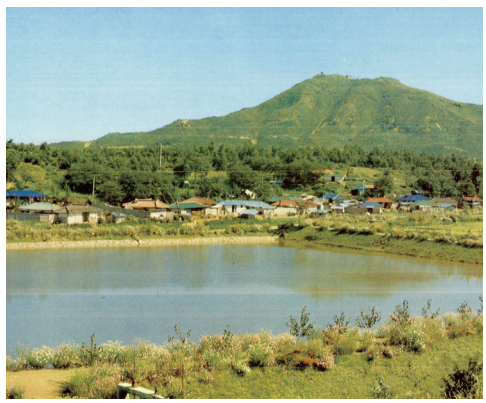
시흥군 서면 철산리(1971→1972→1973)



화성군 송산면 고포1리 엇섬마을, 1974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선감어촌계, 1974



파주군 주내면 봉암 3리, 1974



김포군 김포면 풍무2리, 1974



포천군 신북면 가채2리 하가채마을, 1974



수원시청 청우회 농촌일손돕기, 1974



안성군 미양면 구수리, 1974



고양군 중면, 1974



화성군 양감면 대양1리, 1974



파주군 문산읍 운천리, 1974



양평군 양평면 덕평마을, 1974



안성군 공도면 공도단협, 1974



경기도 새마을지도자교육, 1974



고양군 관산2리, 1974



평택군 송탄읍, 1974



시흥군 과천면, 1975



고양군 벽제면,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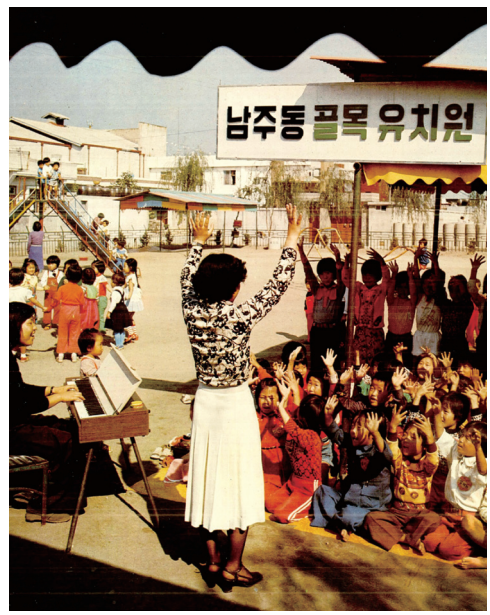
화성군 송산면, 1974



화성군 송산면, 1974



포천군 일동면 하가계리, 1973



남주동 골목유치원, 1974



고양군 관산2리, 1977



옹진군 대부면 선재리 어촌, 1977



용인군 백암면, 1977



용인군 외사면 단협, 1973



고소득 작물재배, 1975



추곡수매 검사, 1975





포천군 일동면, 1975





퇴비증산, 1975



공장 새마을운동



공장 새마을운동 노사화합



공장 새마을운동



공장 새마을운동 노사화합



공장 새마을운동 분임조활동



공장 새마을운동 노사화합

10-4. 연도별 활동사진(1980년대)











올림픽 새마을운동(질서 · 친절 · 청결)


올림픽환경미화 새마을봉사대








에너지는 국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


자연보호




새마을운동13주년기념사업










1988. 6. 27
올림픽 새마을 봉사대 발대식
주관·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경기도 새마을부녀회


올림픽 새마을운동 실천 다짐대회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10-5. 연도별 활동사진(1990년대)











애국가락지 모으기(우리 아기 돌 반지로 나라경제 살리자), 1997











나라사랑 금 모으기(외화 모으기), 나라경제 살리기 1천만 서명운동, 1997

10-6. 연도별 활동사진(2000년대)



통일새마을(통일 손수레)



통일새마을(통일 손수레 모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북한 수해복구지원



녹색새마을(맑은 강 가꾸기)



경제살리기(동전 모으기)



합동결혼식



방역봉사대



태극기 달기



폐식용유 활용 재생비누



녹색새마을(하천살리기)



청소년 농촌체험

10-7. 연도별 활동사진(2010년대)



수해복구 지원



밑반찬 나누어 드리기



방역봉사대



청결한 도시 만들기



대학생봉사단



지도자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결의대회



사랑의 집 고쳐 드리기



문화의 한마당



사랑의 김장 나누기



생명나무 심기



대학생 플래시 몹(태극기 사랑)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수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2019)



새마을부녀회 방역마스크 제작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

10-8. 지구촌 새마을운동



우즈베키스탄 협력사업



몽골 협력사업



필리핀 협력사업



캄보디아 협력사업



라오스 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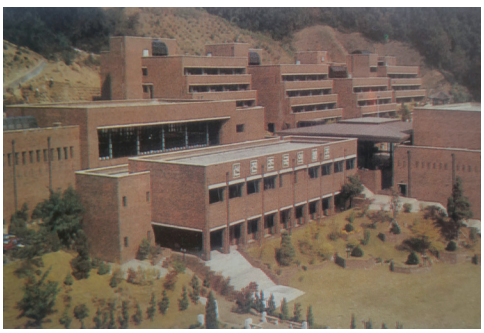


키르기스스탄 협력사업

10-9. 새마을운동중앙회·연수원·경기도지부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창립총회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새마을운동 제창 제30주년



제2의 새마을운동



경기도새마을회 새사모 창립총회



경기도새마을지도자대회, 2001

11. 역대 도 회장단 사진

경기도새마을회 | 역대회장



제1~2대 **박 창 원**
(81. 8. 3~85. 3.10)



제2대 **김 종 무**
(85. 3. 11~86. 3. 24)



제3대 **남 평 우**
(86. 3. 25~88. 7. 7)



제4~6대 **오 상 근**
(88. 7. 8~94. 2. 17)



제7~8대 **임 완 수**
(94. 2. 18~98. 12. 17)



제9대 **고 희 선**
(98. 12. 18~00. 1. 27)



제10대 **조 명 환**
(00. 1. 28~03. 5. 12)



제11대 **홍 원 일**
(03. 6. 18~04. 6.15)



제11~12대 **고 희 선**
(04. 9. 9~07. 4. 11)



제12~13대 **이 출 선**
(07. 7. 28~11. 5. 31)



제13~15대 **이 도 형**
(11. 8. 13~18. 2. 20)



제16대 **송 재 필**
(18. 11. 24~21. 2. 19)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 | 역대회장



제1대 **황 대 영**
(80. 12. 1~82. 2. 16)



제2대 **이 철 우**
(82. 2. 17~84. 2. 11)



제3~4대 **김 길 웅**
(84. 2. 12~88. 1. 31)



제5~6대 **최 석 한**
(88. 2. 1~92. 1. 31)



제7대 **황 말 무**
(92. 2. 1~94. 2. 1)



제8대 **차 준 호**
(94. 2. 2~97. 1. 21)



제9대 **신 현 철**
(97. 1. 22~00. 1. 19)



제10대 **박 장 수**
(00. 1. 20~03. 2. 10)



제11~12대 **김 기 원**
(03. 2. 11~07. 5. 11)



제12~13대 **김 승 수**
(07. 8. 24~09. 12. 31)



제13~14대 **송 동 수**
(10. 7. 3~15. 2. 4)



제15~16대 **함 옥 생**
(15. 2. 5~21. 2. 3)

경기도새마을부녀회 | 역대회장



제1~3대 **이 은 숙**
(77. 10. 1~86. 3. 26)



제4대 **최 송 옥**
(86. 3. 27~87. 9. 23)



제4~5대 **김 순 자**
(87. 9. 24~90. 2. 8)



제6~10대 **김 선 규**
(90. 2. 9~03. 2. 12)



제11~12대 **김 명 숙**
(03. 2. 13~09. 2. 3)



제13~14대 **김 숙 희**
(09. 2. 4~15. 2. 3)



제15~16대 **임 낙 희**
(15. 5. 1~21. 2. 2)

직장·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 | 역대회장



제1~8대 **조 정 환**
(82. 3. 31~97. 9. 2)



제8~9대 **이 도 형**
(97. 9. 3~01. 2. 5)



제10~11대 **윤 한 기**
(02. 2. 6~07. 1. 31)



제12~13대 **김 학 섭**
(07. 6. 6~13. 2. 1)



제14~15대 **강 경 환**
(13. 2. 2~19. 1. 29)



제16대 **최 연 숙**
(19. 1. 30~00. 00. 00)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 | 역대회장



제1대 **강 한 성**
(80. 7. 30~82. 7. 31)



제2대 **최 범 상**
(82. 8. 1~84. 12. 19)



제3~4대 **김 종 만**
(84. 12. 20~88. 12. 31)



제5대 **문 제 복**
(89. 1. 1~91. 2. 28)



제6~8대 **권 태 욱**
(91. 3. 1~97. 9. 2)



제9~10대 **정 홍 기**
(97. 9. 3~02. 1. 1)



제11대 **홍 원 일**
(02. 1. 2~03. 6. 27)



제11~13대 **이 채 용**
(03. 6. 28~09. 12. 31)



제14대 **이 응 구**
(10. 6. 26~13. 2. 28)



제15대 **한 이 덕**
(13. 5. 24~16. 2. 18)



제16~17대 **이 응 구**
(16. 2. 19~21. 2. 17)

Saemaul Undong in Gyeonggi Province

경기도새마을50년사 | 부록

제2절 새마을운동 통계·참고자료

제2절 새마을운동 통계 · 참고자료

1. 시군구지회 조직 변천

	1981~1983	84~85 (29)	1986 (29)	86~88 (31)	1989 (36)	89~92 (42)	93~95 (47)	1996 (31)	1997 (31)
1	水原市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2	城南市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3	議政府市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4	安養市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5	富川市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6	光明市	광명시	광명시	광명시	광명시	광명시	광명시	광명시	광명시
7	松炭市	송탄시	송탄시	송탄시	송탄시	송탄시	송탄시	동두천시	평택시
8	東豆川市	동두천시	동두천시	동두천시	동두천시	동두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동두천시
9	半月(出)	반월(출)	安山市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과천시	안산시
10	果川(出)	과천(출)	果川市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양주군	고양시
11	楊洲郡	양주군	양주군	양주군	양주군	양주군	양주군	南楊州市	과천시
12	南楊洲郡	남양주군	남양주군	남양주군	남양주군	남양주군	남양주군	여주군	구리시
13	驪州郡	여주군	여주군	여주군	여주군	여주군	여주군	平澤市	남양주시
14	平澤郡	평택군	평택군	평택군	평택군	평택군	평택군	화성군	오산시
15	華城郡	화성군	화성군	화성군	화성군	화성군	화성군	시흥시	시흥시
16	始興郡	시흥군	시흥군	시흥군	시흥군	始興市	시흥시	파주시	군포시
17	坡州郡	파주군	파주군	파주군	파주군	파주군	파주군	고양시	의왕시
18	高陽郡	고양군	고양군	고양군	고양군	고양시	고양시	광주군	하남시
19	廣州郡	광주군	광주군	광주군	광주군	광주군	광주군	연천군	용인시
20	連川郡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포천군	파주시
21	抱川郡	포천군	포천군	포천군	포천군	포천군	포천군	가평군	이천시
22	加平郡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양평군	양주군
23	楊平郡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	이천시	여주군
24	利川郡	이천군	이천군	이천군	이천군	이천군	이천군	용인시	화성군
25	龍仁郡	용인군	용인군	용인군	용인군	용인군	용인군	안성군	광주군
26	安城郡	안성군	안성군	안성군	안성군	안성군	안성군	김포군	연천군
27	金浦郡	김포군	김포군	김포군	김포군	김포군	김포군	구리시	포천군
28	江華郡	강화군	강화군	강화군	강화군	강화군	강화군	군포시	가평군
29	甕津郡	옹진군	옹진군	옹진군	옹진군	옹진군	옹진군	의왕시	양평군

	1981~1983	84~85 (29)	1986 (29)	86~88 (31)	1989 (36)	89~92 (42)	93~95 (47)	1996 (31)	1997 (31)
30				平澤市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하남시	안성군
31				九里市	구리시	구리시	구리시	오산시	김포군
32					渼金市	미금시	미금시		
33					軍浦市	군포시	군포시		
34					儀旺市	의왕시	의왕시		
35					河南市	하남시	하남시		
36					烏山市	오산시	오산시		
비자치구	[수원]	장안, 권선 팔달				장안, 권선	장, 권, 팔		
	[성남]	수정, 중원, 분당				수정, 중원	수, 중, 분		
	[부천]	부천중구(원미), 부천남구(소사, 오정)				남구, 중구	원, 소, 오		
	[안양]	만안, 동안					만안, 동안		

	98~01 (31)	2002 (31)	2003 (31)	04~06 (31)	07~11 (31)	12~13 (31)	14~17 (31)	18~20 (31)	비 고
1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수원시	
2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고양시	
3	의정부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용인시	
4	안양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부천시	성남시	
5	부천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안양시	용인시	용인시	부천시	
6	광명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안산시	
7	평택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안양시	안양시	화성시	
8	동두천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9	안산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의정부시	안양시	
10	고양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평택시	
11	과천시	광명시	광명시	광명시	광명시	시흥시	시흥시	의정부시	
12	구리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화성시	화성시	파주시	
13	남양주시	군포시	군포시	군포시	군포시	광명시	광명시	시흥시	
14	오산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파주시	파주시	김포시	
15	시흥시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군포시	군포시	광명시	
16	군포시	이천시	이천시	이천시	이천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17	의왕시	구리시	구리시	구리시	구리시	김포시	김포시	군포시	
18	하남시	김포시	김포시	김포시	김포시	이천시	이천시	이천시	
19	용인시	포천시	포천시	포천시	포천시	구리시	구리시	오산시	

	98~01 (31)	2002 (31)	2003 (31)	04~06 (31)	07~11 (31)	12~13 (31)	14~17 (31)	18~20 (31)	비 고
20	파주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광주시	양주시	양주시	하남시	
21	이천시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양주시	
22	안성시	하남시	하남시	하남시	하남시	포천시	포천시	구리시	
23	김포시	의왕시	의왕시	의왕시	의왕시	오산시	오산시	안성시	
24	양주군	양주시	양주시	양주시	양주시	하남시	하남시	포천시	
25	여주군	오산시	오산시	오산시	오산시	의왕시	의왕시	의왕시	
26	화성시	여주군	여주군	여주군	여주군	여주군	여주시	여주시	
27	광주군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28	연천군	동두천시	동두천시	동두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29	포천군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과천시	
30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31	양평군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연천군	

2. 시군구지회 설치 · 개청 · 폐지

	지 회 명	설치일자	개청일자	폐지일자	행정구역 변천과정
	경 기 도	1981. 9. 1	81. 9. 30		67. 6.23 경기도청 수원이전 81. 7. 1 인천직할시 경기도와 분리
1	수 원 시	1984. 3. 15	84. 3. 31		63. 1. 1 수원시 ← 1949 수원읍
2	고 양 시	1984. 3. 15	84. 3. 29		92. 2. 1 고양군 → 고양시
3	용 인 시	1984. 3. 15	84. 3. 27		96. 3. 1 용인군 → 용인시
4	성 남 시	1984. 3. 15	84. 3. 30		73. 7. 1 성남출장소 → 성남시
5	부 천 시	1984. 3. 15	84. 3. 28		73. 7. 1 소사읍 → 부천시
6	안 산 시	1984. 3. 15	84. 3. 28		86. 1. 1 반월출장소 → 안산시
7	화 성 시	1984. 3. 15	84. 3. 31		01. 3. 21 화성군 → 화성시
8	남양주시	1984. 3. 15	84. 3. 26		80. 4. 1 양주군 → 남양주군 분리 89. 3. 1 미금시, 구리시, 남양주군 분리 95. 5. 1 (미금시+남양주군) → 남양주시
9	안 양 시	1984. 3. 15	84. 3. 30		73. 7. 1 안양읍 → 안양시
10	평 택 시	1986. 1. 1	86. 3. 1		86. 1. 1 평택읍 → 평택시(평택군 분리) 95. 5. 1 (평택시 · 군+송탄시) → 평택시
11	의정부시	1984. 3. 15	84. 3. 26		63. 1. 1 의정부읍 → 의정부시
12	파 주 시	1984. 3. 15	84. 3. 29		96. 3. 1 파주군 → 파주시

	지 회 명	설치일자	개청일자	폐지일자	행정구역 변천과정
	경 기 도	1981. 9. 1	81. 9. 30		67. 6.23 경기도청 수원이전 81. 7. 1 인천직할시 경기도와 분리
13	시 흥 시	1984. 3. 15	84. 3. 30		89. 1. 1 시흥군 → 시흥시
14	김 포 시	1984. 3. 15	84. 3. 28		98. 4. 1 김포군 → 김포시
15	광 명 시	1984. 3. 15	84. 3. 28		81. 7. 1 소하읍 → 광명시(시흥군 분리)
16	광 주 시	1984. 3. 15	84. 3. 30		01. 3.21 광주군 → 광주시
17	군 포 시	1989. 1. 1	89. 1. 2		89. 1. 1 군포읍 → 군포시(시흥군 분리)
18	이 천 시	1984. 3. 15	84. 3. 27		96. 3. 1 이천군 → 이천시
19	오 산 시	1989. 1. 1	89. 6. 28		89. 1. 1 오산읍 → 오산시(화성군 분리)
20	하 남 시	1989. 1. 1	89. 1. 2		89. 1. 1 동부읍외 → 하남시(광주군 분리)
21	양 주 시	1984. 3. 15	84. 3. 21		03.10.19 양주군 → 양주시
22	구 리 시	1986. 1. 1	86. 3. 1		86. 1. 1 구리읍 → 구리시(남양주군 분리)
23	안 성 시	1984. 3. 15	84. 3. 31		98. 4. 1 안성군 → 안성시
24	포 천 시	1984. 3. 15	84. 3. 26		03. 10. 19 포천군 → 포천시
25	의 왕 시	1989. 1. 1	89. 1. 2		89. 1. 1 의왕읍 → 의왕시(시흥군 분리)
26	여 주 시	1984. 3. 15	84. 3. 27		13. 9. 23 여주군 → 여주시
27	양 평 군	1984. 3. 15	84. 3. 27		63. 1. 1 양평군 ← 1908 양평군
28	동두천시	1984. 3. 15	84. 3. 29		81. 7. 1 동두천읍 → 동두천시
29	과 천 시	1984. 3. 15	84. 3. 30		86. 1. 1 과천출장소 → 과천시
30	가 평 군	1984. 3. 15	84. 3. 26		63. 1. 1 가평군 ← 1897 가평군
31	연 천 군	1984. 3. 15	84. 3. 29		63. 1. 1 연천군 ← 1897 연천군
32	송 탄 시	1984. 3. 15	84. 3. 31	95. 5. 11	평택군에서 분리 → 평택시로 통합
33	평 택 군	1984. 3. 15	84. 3. 31	95. 5. 11	송탄, 평택시 · 군으로 분리 → 평택시로 통합
34	미 금 시	1989. 1. 1	89. 3. 1	94. 12. 31	89. 1. 1 미금읍 → 미금시(남양주군 분리) → 남양주시로 통합
35	강 화 군	1984. 3. 15	84. 3. 29	95. 3. 1	95. 3. 1 분리 → 인천광역시에 편입
36	옹 진 군	1984. 3. 15	84. 3. 29	95. 3. 1	95. 3. 1 분리 → 인천광역시에 편입
37	장 안 구	1989. 7. 1	89. 7. 1	95. 12. 31	88. 7. 1 설치 → 수원시로 통합
38	권 선 구	1989. 7. 1	89. 7. 1	95. 12. 31	88. 7. 1 설치 → 수원시로 통합
39	팔 달 구	1993. 2. 1	93. 6. 15	95. 12. 31	93. 2. 1 설치 → 수원시로 통합
40	수 정 구	1989. 7. 1	89. 7. 20	95. 12. 31	89. 5. 1 설치 → 성남시로 통합
41	중 원 구	1989. 7. 1	89. 7. 27	95. 12. 31	89. 5. 1 설치 → 성남시로 통합
42	분 당 구	1993. 1. 1	92. 3. 27	95. 12. 31	91. 9. 17 설치 → 성남시로 통합
43	만 안 구	1993. 1. 1	93. 5. 4	95. 12. 31	92. 10. 1 설치→안양시로 통합

	시 군 명	설치일자	개청일자	폐지일자	행정구역 변천과정
	경 기 도	1981. 9. 1	81. 9. 30		67. 6. 23 경기도청 수원이전 81. 7. 1 인천직할시 경기도와 분리
44	동 안 구	1993. 1. 1	93. 5. 2	95. 12. 31	92. 10. 1 설치 → 안양시로 통합
45	원 미 구	1989. 7. 1	89. 7. 1	95. 12. 31	89. 5. 1 설치(중구) → 부천시로 통합
46	소 사 구	1989. 7. 1	89. 7. 1	95. 12. 31	89. 5. 1 설치(남구) → 부천시로 통합
47	오 정 구	1993. 2. 1	93. 6. 15	95. 12. 31	93. 2. 1 설치 → 부천시로 통합

주)

- ○ '설치일자'는 중앙회로부터 시 · 군 · 출장소지회 설치가 승인(29개, 8시 19군 2출장소)된 날짜로서 1984. 3. 15.이 시군지회의 최초 설치일자 이자 사무국장의 최초 발령일자 임
- ○ 중앙회지침에 따라 시 · 군 · 출장소 지회 업무개시일은 1984. 3. 21.
- ○ '개청일자'는 시 · 군 · 출장소에 따라 간판을 붙이고 사무실을 열은 날짜이므로 상이함
- ○ '폐지일자'는 중앙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지회 조직이 폐지된 날짜임
- ○ 행정구역 명칭은 1963. 1. 1. 이후를 적용하였음

3. 시군구지회 명칭 변경

	지 회 명	설립 당시	1차 변경	2차 변경	비고
	경 기 도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경기도새마을회		
1	수 원 시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	수원시새마을회		
2	고 양 시	새마을운동고양군지회	새마을운동고양시지회	고양시새마을회	
3	용 인 시	새마을운동용인군지회	새마을운동용인시지회	용인시새마을회	
4	성 남 시	새마을운동성남시지회	성남시새마을회		
5	부 천 시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	부천시새마을회		
6	안 산 시	새마을운동반월출장소지회	새마을운동안산시지회	안산시새마을회	
7	화 성 시	새마을운동화성군지회	화성군새마을회	화성시새마을회	
8	남 양 주 시	새마을운동남양주군지회	새마을운동남양주시지회	남양주시새마을회	
9	안 양 시	새마을운동안양시지회	안양시새마을회		

	지 회 명	설립 당시	1차 변경	2차 변경	비고
	경 기 도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경기도새마을회		
10	평 택 시	새마을운동평택군지회	새마을운동평택시지회	평택시새마을회	
11	의정부시	새마을운동의정부시지회	의정부시새마을회		
12	파 주 시	새마을운동파주군지회	새마을운동파주시지회	파주시새마을회	
13	시 흥 시	새마을운동시흥군지회	새마을운동시흥시지회	시흥시새마을회	
14	김 포 시	새마을운동김포군지회	김포군새마을회	김포시새마을회	
15	광 명 시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			
16	광 주 시	새마을운동광주군지회	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		
17	군 포 시	새마을운동군포시지회	군포시새마을회		
18	이 천 시	새마을운동이천군지회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19	오 산 시	새마을운동오산시지회	오산시새마을회		
20	하 남 시	새마을운동하남시지회			
21	양 주 시	새마을운동양주군지회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		
22	구 리 시	새마을운동구리시지회	구리시새마을회		
23	안 성 시	새마을운동안성군지회	새마을운동안성시지회	안성시새마을회	
24	포 천 시	새마을운동포천군지회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포천시새마을회	
25	의 왕 시	새마을운동의왕시지회	의왕시새마을회		
26	여 주 시	새마을운동여주군지회	여주군새마을회	여주시새마을회	
27	양 평 군	새마을운동양평군지회	양평군새마을회		
28	동두천시	새마을운동동두천시지회			
29	과 천 시	새마을운동과천출장소지회	새마을운동과천시지회	과천시새마을회	
30	가 평 군	새마을운동가평군지회	가평군새마을회		
31	연 천 군	새마을운동연천군지회	연천군새마을회		
32	송 탄 시	새마을운동송탄시지회			폐지
33	미 금 시	새마을운동미금시지회			폐지
24	평 택 군	새마을운동평택군지회			폐지
35	강 화 군	새마을운동강화군지회			인천
36	옹 진 군	새마을운동옹진군지회			인천
37	장 안 구	새마을운동수원시장안구지회			폐지
38	팔 달 구	새마을운동수원시팔달구지회			폐지
39	권 선 구	새마을운동수원시권선구지회			폐지
40	수 정 구	새마을운동성남시수정구지회			폐지
41	중 원 구	새마을운동성남시중원구지회			폐지

	지 회 명	설립 당시	1차 변경	2차 변경	비고
	경 기 도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경기도새마을회		
42	분 당 구	새마을운동성남시분당구지회			폐지
43	만 안 구	새마을운동안양시만안구지회			폐지
44	동 안 구	새마을운동안양시동안구지회			폐지
45	원 미 구	새마을운동부천시원미구지회			폐지
46	중 구	새마을운동부천시중구지회			폐지
47	남 구	새마을운동부천시남구지회			폐지

[시군구지회 증감]

○ 1984. 3.15. 시 · 군 · 출장소지회 설치(29개, 8시 19군 2출장소), 반월 · 과천출장소

○ 1986. 1. 1. 시군지회 변경(29개, 10시 19군), 안산시 · 과천시

○ 1986. 3. 1. 시군지회 증설(31개, 12시 19군), 평택시 · 구리시

○ 1989. 1. 1. 시군지회 증설 · 폐지(36개, 18시 18군), 미금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하남시 증설, 시흥군 자동폐지

○ 1989. 7. 1. 시 · 군 · 구지회 증설(42개, 18시 18군, 6구) 장안구 · 권선구 · 수정구 · 중원구 · 부천중구 · 부천남구 증설

○ 1993. 1. 1. 시 · 군 · 구지회 증설(45개, 19시 17군 9구)
부천중구(원미구) · 부천남구(소사구)는 명칭변경
만안구 · 동안구 · 오정구 증설

○ 1993. 2. 1. 시 · 군 · 구지회 증설(47개, 19시 17군 11구),
팔달구 · 분당구 증설

○ 1995. 1. 1. 도농복합형태의 시군통합(미금시+남양주군=남양주시),
남양주군 · 미금시 폐지(46개, 19시 16군 11구)

○ 1995. 3. 1. 시 · 군 · 구지회 감축(44개, 19시 14군 11구),
강화군 · 옹진군 인천으로 편입

○ 1995. 5. 10. 시 · 군 · 구지회 감축(42개, 18시 13군, 11구),
송탄시+평택시+평택군=평택시, 송탄시 · 평택군 폐지

○ 1995. 12. 31. 시 · 군 · 구지회 감축(33개, 18시 13군, 2구) : 비자치구 폐지

○ 1996. 3. 1. 시 · 군 · 구지회 감축(31개, 19시 14군) : 비자치구 폐지
○ 2020. 1. 1. 시 · 군지회(31개, 28시 3군), 양평군 · 가평군 · 연천군 외 모두 시 지회

4. 시군지회 설치 · 법인설립 · 회관확보 · 조례제정

지회명		새마을지회		새마을회(법인)		자체회관/공공임대		조례 제정일자	
		설치일자	개청	설립일자	등록	확보일자	자체		
계		1982. 9. 1	1981. 9. 30	26도시군(6시)		26도시군(6시)		32도시군	No
경기도				1998. 5. 27	7	2002. 3. 26	O	2009. 10. 30	
1	수 원	1984. 3. 15	3. 31	2005. 4. 13	13	1998. 6. 10	O	2011. 5. 6	24
2	고 양	1984. 3. 15	3. 29	2007. 1. 11	16	2014. 12. 30	O	2008. 9. 19	2
3	용 인	1984. 3. 15	3. 27	1996. 9. 25	2	2006. 11. 24	O	2008. 12. 19	3
4	성 남	1984. 3. 15	3. 30	1997. 10. 18	6	2001. 11. 20	O	2010. 12. 20	23
5	부 천	1984. 3. 15	3. 28	2004. 2. 5	11	2003. 12. 23	O	2010. 3. 9	18
6	안 산	1984. 3. 15	3. 28	2007. 7. 9	18	2013. 11. 29	공공	2012. 4. 27	28
7	화 성	1984. 3. 15	3. 31	1996. 12. 10	4	1997. 10. 20	O	2012. 12. 31	30
8	남양주	1984. 3. 15	3. 26	2014. 4. 3	24	2009. 1. 23	공공	2009. 11. 20	8
9	안 양	1984. 3. 15	3. 30	1997. 6. 20	5	2003. 5. 7	O	2009. 12. 21	14
10	평 택	1986. 1. 1	3. 1	1999. 1. 26	8	2000. 6. 27	O	2012. 5. 28	29
11	의정부	1984. 3. 15	3. 26	2010. 7. 20	22	2006. 9. 1	공공	2008. 12. 31	4
12	파 주	1984. 3. 15	3. 29	2005. 3. 10	12	2004. 3. 7	O	2010. 11. 12	22
13	시 흥	1984. 3. 15	3. 30	1996. 10. 4	3	2016. 7. 12	O	2009. 11. 6	7
14	김 포	1984. 3. 15	3. 28	1996. 9. 16	1	2010. 3. 12	O	2011. 9. 30	25
15	광 명	1984. 3. 15	3. 28	새마을지회	X	2001. 9. 28	O	2009. 12. 18	13
16	광 주	1984. 3. 15	3. 30	새마을지회	X	2003. 6. 20	O	2009. 12. 15	10
17	군 포	1989. 1. 1	1. 2	1998. 10. 24	7	2001. 12. 31	공공	2013. 3. 12	31
18	이 천	1984. 3. 15	3. 27	새마을지회	X	2002. 8. 20	O	2006. 8. 14	1
19	오 산	1989. 1. 1	6. 28	2008. 4. 15	19	2011. 5. 20	O	2011. 12. 14	27
20	하 남	1989. 1. 1	1. 2	새마을지회	X	2018. 11. 27	공공	2010. 3. 23	17
21	양 주	1984. 3. 15	3. 26	새마을지회	X	2005. 4. 22	O	2010. 2. 23	16
22	구 리	1986. 1. 1	3. 1	2016. 3. 23	25	2020. 4. 30	O	2009. 12. 4	12

지회명		새마을지회		새마을회(법인)		자체회관/공공임대		조례 제정일자	
		설치일자	개청	설립일자	등록	확보일자	자체		
계		1982. 9. 1	1981. 9. 30	26도시군(6시)		26도시군(6시)		32도시군	No
경기도				1998. 5. 27	7	2002. 3. 26	O	2009. 10. 30	
23	안 성	1984. 3. 15	3. 31	2009. 10. 23	21	2014. 8. 5	O	2010. 3. 31	19
24	포 천	1984. 3. 15	3. 26	2006. 3. 31	15	2010. 3. 16	O	2009. 12. 2	9
25	의 왕	1989. 1. 1	1. 2	2012. 7. 4	23	2004. 4. 22	공공	2010. 8. 30	21
26	여 주	1984. 3. 15	3. 27	2007. 2. 2	17	2001. 9. 17	O	2009. 12. 22	11
27	양평군	1984. 3. 15	3. 27	2003. 4. 10	10	2003. 9. 30	O	2009. 8. 5	6
28	동두천	1984. 3. 15	3. 29	새마을지회	X	2002. 10. 8	O	2009. 12. 24	15
29	과 천	1984. 3. 15	3. 30	2002. 11. 25	9	2005. 3. 5	O	2010. 4. 8	20
30	가평군	1984. 3. 15	3. 26	2009. 6. 30	20	2011. 12. 27	O	2009. 4. 7	5
31	연천군	1984. 3. 15	3. 29	2005. 12. 10	14	2004. 12. 27	O	2011. 11. 23	26

※ 폐지지회(16개) : 송탄시, 평택군, 미금시, 강화군, 옹진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부천중구(원미구), 부천남구(소사구), 오정구, 만안구, 동안구

※ 2020. 3. 31. 현재 : 31개 시군 중 시 28개, 군 3개(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5. 역대 도지부 이사 · 감사

※ 1998. 5.27. (사)경기도새마을회 법인등록

가. 역대 도지부 이사 · 감사(연도별)

[1998]

○ 임완수, 신현철, 김선규, 이도형, 정홍기, 홍성호, 이종구, 조명환, 권태랑, 최길락, 김봉식, 윤한기, 왕택동

[1999]

○ 고희선, 조명환, 신현철, 김선규, 이도형, 정홍기, 윤한기, 이종구, 김봉식, 홍성호, 권태랑, 최흥식, 이영묵

[2000]

○ 조명환, 박장수, 김선규, 윤한기, 이종구, 권태랑, 김봉식, 이우순, 윤익섭, 조광식, 이천우, 전광옥, 김도원

[2001]

○ 조명환, 이출선, 홍원일, 김기원, 박장수, 김승수, 김선규, 김명숙, 김숙희, 김학섭, 이도형, 윤한기, 정홍기, 이채용, 이응구, 이승원, 이종구, 이우순, 신광철, 윤익섭, 김봉식, 조광식, 이영환, 이천우, 장정규, 권태랑, 이영희, 김일선, 송유섭, 이은한, 김청길, 김학주, 박종구, 장호순, 전경복

[2002]

○ 조명환, 홍원일, 김기원, 박장수, 김선규, 김명숙, 이도형, 윤한기, 정홍기, 이종구, 윤익섭, 이우순, 조광식, 이천우, 장정규, 이승원, 김청길, 권태랑, 김봉식, 이승원, 김학주, 박형복, 이대수, 박종구, 장호순, 전경복

[2003]

○ 조명환, 박장수, 김선규, 홍원일, 김기원, 김명숙, 윤한기, 이종구, 김봉식, 윤익섭, 이우순, 조광식, 이천우, 장정규, 이승원, 김청길, 김학주, 박형복, 이대수, 박종구, 전경복, 권태랑, 장호순

[2004]

○ 고희선, 이도형, 김기원, 김명숙, 윤한기, 윤익섭, 이우순, 조광식, 김학주, 박형복, 이대수, 박종구, 전경복

[2005]

○ 이도형, 김기원, 김선규, 김명숙, 윤한기, 이우순, 김학주, 박형복,

이대수, 박종구, 전경복, 홍기헌, 조광식, 이은종, 김영수, 이세용, 윤용호, 박준배

[2006]

○ 고희선, 김기원, 김선규, 김명숙, 윤한기, 이채용, 이응구, 신학수, 이강우, 이우순, 장호순, 이대수, 이인진, 김영수, 이세용, 윤용호, 박준배, 최흥식, 유재현, 김학주, 박형복, 박종구, 전경복, 홍기헌, 조광식, 이은종, 김영수, 조복규

[2007]

○ 고희선, 이출선, 김기원, 김선규, 김명숙, 윤한기, 이채용, 이응구, 신학수, 이강우, 이우순, 전경복, 홍기헌, 조광식, 이은종, 김영수, 이세용, 윤용호, 박준배, 이인진, 조복규

[2008]

○ 이출선, 김선규, 김명숙, 윤한기, 김학섭, 이채용, 이응구, 신학수, 이우순, 이강우, 전경복, 홍기헌, 조광식, 이은종, 김영수, 이세용, 윤용호, 이인진, 조복규, 김화양, 윤태권, 이원성, 문명무, 이영환, 김석진

[2009]

○ 이철우, 고희선, 이출선, 김승수, 김선규, 김명숙, 김숙희, 김학섭, 이채용, 이응구, 신학수, 신광철, 송유섭, 이영희, 이은한, 김환회, 전경복, 이강우, 이인진, 조복규, 김화양, 윤태권, 이원성, 문명무, 이영환, 김석진, 김일선, 황종각

[2010]

○ 이출선, 김승수, 김선규, 김명숙, 김숙희, 김학섭, 이채용, 이응구,

윤성현, 신광철, 이영환, 이영희, 김일선, 송유섭, 이은한, 조동신, 송수길, 주명숙, 현종태

[2011]

○ 이철우, 고희선, 이출선, 이도형, 김승수, 김선규, 김명숙, 김숙희, 김학섭, 이채용, 이응구, 윤성현, 신광철, 김환회, 송유섭, 이영희, 이은한, 김일선, 이영환, 송수길, 조동신, 황종각, 현종태, 주명숙

[2012]

○ 이철우, 고희선, 이도형, 김승수, 송동수, 함옥생, 김선규, 김명숙, 김숙희, 주명숙, 김학섭, 이채용, 이응구, 신학수, 김환회, 최동선, 송유섭, 박동빈, 윤성현, 김병문, 김동승, 김충숙, 김일선, 현종태, 이영환, 신광철, 이영희, 김일선, 이은한, 조동신, 송수길

[2013]

○ 이철우, 고희선, 이도형, 송동수, 함옥생, 김선규, 김숙희, 주명숙, 김학섭, 강경환, 이채용, 한이덕, 신학수, 김환회, 윤성현, 최동선, 최흥식, 송유섭, 김병문, 김동승, 김충숙, 천동현, 문명식, 현종태, 조동신, 송수길

[2014]

○ 이철우, 고희선, 이도형, 송동수, 함옥생, 김선규, 김숙희, 주명숙, 김학섭, 강경환, 이채용, 한이덕, 신학수, 김환회, 윤성현, 최동선, 최흥식, 송유섭, 김병문, 김동승, 김충숙, 천동현, 문명식, 현종태, 조동신, 송수길

[2015]

○ 이도형, 함옥생, 송동수, 강경환, 이채용, 최흥식, 신학수, 신광철,

정기종, 김환회, 최동선, 윤성현, 장종근, 김동승, 임　삼, 현종태

[2016]

○ 이도형, 함옥생, 송동수, 김선규, 임낙희, 강경환, 이채용, 이응구, 최흥식, 신학수, 신광철, 정기종, 김환회, 최동선, 윤성현, 염동준, 장종근, 김동승, 임　삼, 현종태

[2017]

○ 이도형, 함옥생, 송동수, 김선규, 임낙희, 강경환, 이채용, 이응구, 최흥식, 신학수, 신광철, 정기종, 김환회, 최동선, 윤성현, 염동준, 장종근, 김동승, 임　삼, 현종태

[2018]

○ 이도형, 함옥생, 송동수, 김선규, 임낙희, 강경환, 이채용, 이응구, 최흥식, 신학수, 신광철, 정기종, 김환회, 최동선, 윤성현, 염동준, 장종근, 김동승, 임　삼, 현종태

[2019]

○ 이도형, 송재필, 함옥생, 송동수, 김선규, 임낙희, 강경환, 최연숙, 이채용, 이응구, 최흥식, 신학수, 신광철, 정기종, 김환회, 윤성현, 최동선, 염동준, 장종근, 김동승, 최시영, 유병윤, 이경묵, 김용란, 현종태, 이인행, 김맹수, 조종애, 최정자, 임　삼, 김봉식, 이원률, 곽경국

[2020]

○ 송재필, 함옥생, 임낙희, 강경환, 이응구, 이인행, 조종애, 임　삼, 최정자, 최시영, 유병윤, 이경묵, 김용란, 김맹수, 최연숙, 김봉식, 이원률, 곽경국

나. 역대 도지부 이사 · 감사(총괄)

강경환 고희선 곽경국 권태랑
김기원 김동원 김동승 김동원 김맹수 김명숙 김병문 김봉식(안산) 김봉식(수원) 김석진 김선규 김숙희 김승수 김영수 김용란 김일선 김청길 김충숙 김학섭 김학연 김학주 김화양 김환회
문명무 문명식 박동빈 박장수 박종구 박준배 박형복 송동수 송수길 송유섭 송재필 신광철 신학수 신현철
염동준 왕택동 유병윤 유재현 윤성현 윤용호 윤익섭 윤태권 윤한기 이강우 이경묵 이대수 이도형 이세용 이승원 이영묵 이영환 이영희 이우순 이원률 이원성 이은종 이은한 이응구 이인진 이인행 이종구 이채용 이천우 이철우 이출선 임낙희 임완수 임 삼
장정규 장종근 장호순 전경복 전광옥 정기종 정홍기 조광식 조동신 조명환 조복규 조종애 주명숙 천동현 최길락 최동선 최시영 최연숙 최정자 최흥식 한이덕 함옥생 홍기헌 홍성호 홍원일 현종태 황종각

다. 역대 도지부 운영위원 · 감사 · 지도위원

※ 경기도새마을회 법인 설립 이전

임완수 신현철 김선규 조정환 권태욱 이관재
홍성호 이범상 공동식 이도형 정성목 이종명 권태욱 양택동 오명근
조명환 장두영 황대영 현광일 이종구
최흥식 이철우 이질현 이영묵

6. 역대 도지부 회장단 · 중앙임원

가. 도지부 회장단 · 사무국(처)장 등

	회 장 단					기 타	
	지부	지역	부녀	직 · 공장	문고	사무처장	교통
1981	박창원	황대영	이은숙	조정환	강한성	–	–
1982	박창원	이철우	이은숙	조정환	강한성	강도희	–
1983	박창원	이철우	이은숙	조정환	이범상	강도희	–
1984	박창원	김길웅	이은숙	조정환	이범상	김학기	–
1985	김종무	김길웅	이은숙	조정환	김종만	김학기	–
1986	남평우	김길웅	최송옥	조정환	김종만	김학기	–
1987	남평우	김길웅	최송옥	조정환	김종만	김학기	–
1988	남평우	최석한	김순자	조정환	김종만	김학기	–
1989	오상근	최석한	김순자	조정환	문제복	김학기	–
1990	오상근	최석한	김선규	조정환	문제복	김학기	–
1991	오상근	최석한	김선규	조정환	권태욱	김선관	–
1992	오상근	황말무	김선규	조정환	권태욱	김선관	–
1993	오상근	황말무	김선규	조정환	권태욱	김길수	–
1994	임완수	차준호	김선규	조정환	권태욱	김길수	임길만
1995	임완수	차준호	김선규	조정환	권태욱	김길수	임길만
1996	임완수	차준호	김선규	조정환	권태욱	우태하	임길만
1997	임완수	신현철	김선규	조정환	권태욱	우태하	임길만
1998	임완수	신현철	김선규	이도형	정홍기	우태하	임길만
1999	고희선	신현철	김선규	이도형	정홍기	우태하	최군환
2000	조명환	박장수	김선규	이도형	정홍기	우태하	최군환
2001	조명환	박장수	김선규	이도형	정홍기	박상선	박준업
2002	조명환	박장수	김선규	윤한기	홍원일	박상선	박준업
2003	홍원일	김기원	김명숙	윤한기	이채용	박상선	조종길
2004	홍원일	김기원	김명숙	윤한기	이채용	박상선	조종길
2005	고희선	김기원	김명숙	윤한기	이채용	송중근	조종길
2006	고희선	김기원	김명숙	윤한기	이채용	김정수	서원호
2007	이출선	김기원	김명숙	김학섭	이채용	김정수	서원호
2008	이출선	김승수	김명숙	김학섭	이채용	김정수	서원호
2009	이출선	김승수	김숙희	김학섭	이채용	김정수	서원호

	회 장 단					기 타	
	지부	지역	부녀	직 · 공장	문고	사무처장	교통
2010	이출선	송동수	김숙희	김학섭	이응구	김정수	서원호
2011	이출선	송동수	김숙희	김학섭	이응구	박상선	서원호
2012	이도형	송동수	김숙희	김학섭	이응구	박상선	엄창섭
2013	이도형	송동수	김숙희	강경환	한이덕	한상배	엄창섭
2014	이도형	송동수	김숙희	강경환	한이덕	이광수	엄창섭
2015	이도형	함옥생	임낙희	강경환	한이덕	이광수	심혁환
2016	이도형	함옥생	임낙희	강경환	이응구	최태석	심혁환
2017	이도형	함옥생	임낙희	강경환	이응구	황창영	심혁환
2018	이도형	함옥생	임낙희	강경환	이응구	황창영	강창희
2019	송재필	함옥생	임낙희	최연숙	이응구	황창영	강창희
2020	송재필	함옥생	임낙희	최연숙	이응구	황창영	강창희

나. 역대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회장

	성 명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1	박창원	1925. 1. 25	81. 8. 3~85. 3. 10	제9대 경기도지사, 유신학원 대표
2	김종무		85. 3. 11~86. 3. 24	기업체 운영
3	남평우	1936. 12. 20	86. 3. 25~88. 7. 7	경남여객 대표, 국회의원
4	오상근	1922. 4. 1	88. 7. 8~94. 2. 17	수원상공회의소 사무국장
5	임완수	1943. 2. 11	94. 2. 18~98. 12. 17	대림건설 대표, 중부일보 대표
6	고희선	1949. 9. 21	98. 12. 18~00. 1. 27	농우바이오 대표
7	조명환	1938. 12. 23	00. 1. 28~03. 5. 12	명진택시 대표, 도 직장회장
8	홍원일	1944. 2. 25	03. 6. 18~04. 6. 15	수원시 문고회장, 도 문고회장
9	고희선	1949. 9. 21	04. 9. 9~07. 4. 11	국회의원, 도 지부회장
10	이출선	1952. 8. 8	07. 7. 28~11. 5. 31	기업체 운영
11	이도형	1942. 4. 10	11. 8. 13~18. 2. 20	창진운수 대표, 경기도의원
12	송재필	1958. 6. 27	18. 11. 24~00. 00. 00	WI컨벤션 대표, 용산상의 부회장

다. 역대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 회장

	성 명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1	황대영	1933. 11. 25	80. 12. 1~82. 2. 16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2	이철우	1934. 1. 8	82. 2. 17~84. 2. 11	새마을운동중앙본부회장, 국회의원
3	김길웅		84. 2. 12~88. 1. 31	새마을지도자반월출장소협의회장
4	최석한		88. 2. 1~92. 1. 31	새마을지도자수원시협의회장
5	황말무	1946. 12. 21	92. 2. 1~94. 2. 1	새마을지도자의정부시협의회장
6	차준호	1938. 3. 25	94. 2. 2~97. 1. 21	새마을지도자평택시협의회장
7	신현철	1944. 3. 5	97. 1. 22~00. 1. 19	새마을지도자수원시협의회장
8	박장수	1958. 2. 23	00. 1. 20~03. 2. 10	새마을지도자양평군협의회장
9	김기원	1940. 10. 1	03. 2. 11~07. 5. 11	새마을지도자용인시협의회장
10	김승수	1960. 1. 18	07. 8. 24~09. 12. 31	새마을지도자하남시협의회장
11	송동수	1951. 9. 25	10. 7. 3~15. 2. 4	새마을지도자광명시협의회장
12	함옥생	1954. 6. 24	15. 2. 5~21. 2. 3	새마을지도자안성시협의회장

라. 역대 경기도새마을부녀회 회장

	성 명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1	이은숙	1939. 4. 5	77. 10. 1~86. 3. 26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2	최송옥	1929. 6. 2	86. 3. 27~87. 9. 23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3	김순자		87. 9. 24~90. 2. 8	과천시새마을부녀회장
4	김선규	1945. 1. 24	90. 2. 9~03. 2. 12	성남시새마을부녀회장
5	김명숙	1949. 7. 20	03. 2. 13~09. 2. 3	화성시새마을부녀회장
6	김숙희	1954. 9. 5	09. 2. 4~15. 2. 3	성남시새마을부녀회장
7	임낙희	1958. 12. 14	15. 5. 1~21. 2. 2	고양시새마을부녀회장

마. 역대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 회장

	성 명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1	조정환	1928. 4. 9	82. 3. 31~97. 9. 2	남도산업 대표
2	이도형	1942. 4. 10	97. 9. 3~01. 2. 5	직장새마을운동수원시협의회장
3	윤한기	1947. 12. 8	02. 2. 6~07. 1. 31	새마을운동용인군지회장
4	김학섭	1955. 2. 25	07. 6. 6~13. 2. 1	직 · 공장새마을운동양주시협의회장

	성 명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5	강경환	1956. 2. 3	13. 2. 2~19. 1. 29	직 · 공장새마을운동시흥시협의회장
6	최연숙	1958. 11. 28	19. 1. 30~00. 00. 00	직 · 공장새마을운동성남시협의회장

바. 역대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 회장

	성 명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1	강한성		80. 7. 30~82. 7. 31	
2	최범상		82. 8. 1~84. 12. 19	
3	김종만	1946. 2. 5	84. 12. 20~88. 12. 31	새마을지도자성남시협의회장
4	문제복	1938. 1. 7	89. 1. 1~91. 2. 28	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회장
5	권태욱	1942. 1. 17	91. 3. 1~97. 9. 2	새마을문고부천시지부회장
6	정홍기	1948. 3. 5	97. 9. 3~02. 1. 1	새마을문고부천시지부회장
7	홍원일	1944. 3. 26	02. 1. 2~03. 6. 27	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회장
8	이채용	1943. 5. 18	03. 6. 28~09. 12. 31	새마을문고양주군지부회장
9	이응구	1959. 9. 5	10. 6. 26~13. 2. 28	새마을문고남양주시지부회장
10	한이덕	1960. 11. 3	13. 5. 24~16. 2. 18	자영업
11	이응구	1959. 9. 5	16. 2. 19~21. 2. 17	새마을문고남양주시지부회장

사. 역대 경기도 출신 새마을운동중앙회 임원(이사/감사)

	성 명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1	황대영	1933. 11. 25	80. 12. 1~82. 2. 16 87. 2. 27~89. 2. 26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장
2	이창옥	1930. 1. 15	82. 12. 21~84. 11. 30	새마을문고남양주군지부회장
3	이질현	1935. 5. 19	82. 12. 21~88. 3. 31 97. 3. 27~03. 2. 27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지도위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4	박창원	1925. 1. 25	82. 12. 21~88. 3. 31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회장
5	이철우	1934. 1. 8	84. 2. 12~85. 1. 18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6	이은숙	1939. 4. 5	86. 12. 13~87. 9. 4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7	최송옥	1929. 6. 2	87. 9. 4~88. 8. 4 89. 6. 2~95. 6. 1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경기도새마을부녀회장
8	김장환	1934. 7. 28	88. 3. 31~89. 2. 26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

	성 명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9	조정환	1928. 4. 9	93. 6. 2~95. 6. 1	직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장
10	황말무	1946. 12. 21	93. 6. 2~95. 6. 1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장
11	윤세달	1935. 7. 7	95. 4. 14~97. 6. 13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 제25대 경기도지사
12	권태욱	1942. 1. 17	95. 7. 28~00. 2. 10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회장
13	고희선	1949. 2. 21	01. 3. 7~07. 4. 12 08. 5. 29~09. 12. 31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회장 농우바이오 대표, 국회의원
14	김기원	1940. 10. 1	03. 3. 13~07. 5. 18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장
15	홍원일	1944. 2. 25	03. 3. 13~04. 6. 18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회장
16	이재창	1936. 10. 25	09. 3. 20~09. 12. 31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제23대 경기도지사
17	권두현	1948. 3. 22	09. 3. 28~09. 6. 16 09. 6. 17~09. 12. 31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경기도 부지사
18	이출선	1952. 8. 8	09. 3. 28~09. 6. 16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회장
19	이도형	1942. 4. 10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회장
20	김숙희	1954. 9. 5		경기도새마을부녀회장

아. 경기도 출신 새마을운동중앙회 윤리위원 · 자문위원

	성 명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참 고 사 항
1	최송옥	1929. 6. 2	98. 7. 14~08. 3. 21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장
2	이질현	1935. 5. 19	89. 3. 22~94. 3. 20 97. 3. 18~05. 12. 2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지도위원
3	황대영	1933. 11. 25	89. 3. 22~91. 3. 21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장
4	이철우	1934. 1. 8	91. 3. 21~94. 3. 20 97. 3. 18~01. 8. 31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장
5	윤세달	1935. 7. 7	95. 4. 14~97. 6. 13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
6	이병화		99. 9. 1~01. 8. 31	국제농업개발원장
7	정창영		99. 9. 1~01. 8. 31	양평연수원장
8	김종승	1924. 10. 15	06. 1. 1~08. 12. 31	새마을운동파주시지회장
9	김진택	1932. 11. 11	06. 1. 1~08. 12. 31	새마을운동중앙회 기획조정실장
10	권두현	1948. 3. 22	09. 6. 17~09. 12. 31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11	조한유	1950. 8. 8	09. 10. 13~12. 10. 12	새마을운동중앙회 윤리위원

자. 경기도 새마을 회장단(代數)

	지부회장	지역회장	부녀회장	직장회장	문고회장
1980		제1대/황대영	제1대/이은숙		제1대/강한성
1981					
1982	제1대/박창원	제2대/이철우	제2대/이은숙	제1대/조정환	제2대/최범상
1983					
1984	제2대/박창원	제3대/김길웅	제3대/이은숙	제2대/조정환	제3대/김종만
1985	제2대/김종무				
1986	제3대/남평우	제4대/김길웅	제4대/최송옥	제3대/조정환	제4대/김종만
1987			제4대/김순자		
1988	제4대/오상근	제5대/최석한	제5대/김순자	제4대/조정환	–
1989					제5대/문제복
1990	제5대/오상근	제6대/최석한	제6대/김선규	제5대/조정환	
1991					제6대/권태욱
1992	제6대/오상근	제7대/황말무	제7대/김선규	제6대/조정환	
1993					제7대/권태욱
1994	제7대/임완수	제8대/차준호	제8대/김선규	제7대/조정환	
1995					제8대/권태욱
1996	제8대/임완수			제8대/조정환	
1997		제9대/신현철	제9대/김선규	제8대/이도형	제9대/정홍기
1998	제9대/고희선			제9대/이도형	
1999					제10대/정홍기
2000	제10대/조명환	제10대/박장수	제10대/김선규		
2001				–	
2002				제10대/윤한기	제11대/홍원일
2003	제11대/홍원일	제11대/김기원	제11대/김명숙		제11대/이채용
2004	제11대/고희선			제11대/윤한기	제12대/이채용
2005					
2006	제12대/고희선	제12대/김기원	제12대/김명숙		
2007	제12대/이출선	제12대/김승수		제12대/김학섭	제13대/이채용
2008					
2009	제13대/이출선	제13대/김승수	제13대/김숙희		
2010		제13대/송동수		제13대/김학섭	제14대/이응구
2011	제13대/이도형				

	지부회장	지역회장	부녀회장	직장회장	문고회장
2012	제14대/이도형	제14대/송동수	제14대/김숙희		
2013				제14대/강경환	제15대/한이덕
2014					
2015	제15대/이도형	제15대/함옥생	제15대/임낙희		
2016				제15대/강경환	제16대/이응구
2017					
2018	제16대/송재필	제16대/함옥생	제16대/임낙희		
2019				제16대/최연숙	제17대/이응구
2020					

※ 지역, 부녀, 직공장 회장은 선출에 의한 임기(2년→3년)를 1대수로 계산 함

※ 지부, 문고 회장은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된 임기(2년→3년)를 1대로 계산함

※ 잔여 임기 1년 이상이면 종전 임기 회장과 같은 대수로 계산

※ 2021년 정기총회부터는 모두 임기가 3년으로 맞추어 짐

7. 역대 시군구 회장단

가. 새마을운동시군구지회 회장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박창원	박창원	김종무	남평우	남평우	남평우	오상근	오상근	오상근
1	수 원 시	이종득	이종득	이종득	이승원	이승원	이승원	이승원	조명환	조명환
2	고 양 시		박상복	박상복	박상복	박상복	김계수	김계수	김계수	김계수
3	용 인 시		신효철	신효철	신효철	신효철	김정길	김정길	김정길	김정길
4	성 남 시		김충호	김충호	김충호	오정대	오정대	오정대	김정범	김정범
5	부 천 시		이시형	이시형	공영희	공영희	공영희	공영희	공영희	공영희
6	안 산 시		김은주	김은주	안재문	안재문	안재문	안재문	윤용혁	윤용혁
7	화 성 시		정광현	정광현	정광현	정광현	홍성직	홍성직	홍성직	홍성직
8	남양주시		김용순	백형진	백형진	백형진	백형진	백형진	이문학	이문학
9	안 양 시		변원신	변원신	변원신	변원신	변원신	변원신	원영희	원영희
10	평 택 시				권달수	권달수	방효익	방효익	방효익	방효익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박창원	박창원	김종무	남평우	남평우	남평우	오상근	오상근	오상근
11	의정부시		문성규	문성규	문성규	문성규	송영복	송영복	윤창현	윤창현
12	파 주 시	이상현	김종승	김종승	김종승	김종승	김용호	김용호	김용호	김용호
13	시 흥 시	유지연	이천성	고경렬	고경렬	고경렬	고경렬	김영웅	김용문	김용문
14	김 포 시		김기송	김기송	김기송	김기송	장상진	장상진	장상진	장상진
15	광 명 시		안병한	안병한	안병한	안병한	안병한	안병한	김석천	김석천
16	광 주 시		김사선	김사선	한상필	한상필	한상필	이상원	이상원	박종진
17	군 포 시							이재용	이재용	송요태
18	이 천 시		김백경	김백경	김백경	김백경	김백경	김백경	김백경	김백경
19	오 산 시							이용우	이용우	이용우
20	하 남 시							한상필	한상필	한상필
21	양 주 시		조태훈	조태훈	조태훈	조태훈	조태훈	조태훈	송동수	송동수
22	구 리 시				김응춘	김응춘	김응춘	김응춘	이상운	이상운
23	안 성 시		서용범	서용범	한창섭	한창섭	한창섭	한창섭	한창섭	한창섭
24	포 천 시		이용협	허복남	이부웅	이부웅	이부웅	박기복	박기복	박기복
25	의 왕 시							고경열	고경열	주명종
26	여 주 시		김종성	김종성	김종성	김종성	임규철	임규철	김효정	김효정
27	양 평 군		성기정	성기정	권오윤	권오윤	안광원	안광원	이평호	이평호
28	동두천시		이철동	이철동	이철동	이철동	이원록	이원록	박상현	박상현
29	과 천 시		이승조	김병수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30	가 평 군		남정석	남정석	장기찬	장기찬	장기찬	장기찬	한규평	최영도
31	연 천 군		김종관	김종관	백종식	백종식	백종식	백종식	백종식	김정갑
32	송 탄 시		이갑재	이갑재	이갑재	경두현	경두현	경두현	김기호	김기호
33	평 택 군		박세홍	박세홍	권달수	권달수	권달수	권달수	황대영	황대영
34	미 금 시							이용휘	이용휘	이용휘
35	강 화 군		우남득	우남득	유재식	유재식	윤정호	윤정호	김인필	김인필
36	옹 진 군		장세문	장세문	장세문	장세문	장세문	차두회	김성률	최인환
37	장 안 구							주성광	주성광	주성광
38	권 선 구							임완수	임완수	임완수
39	수 정 구							장두영	장두영	장두영
40	중 원 구							김정범	전영수	안재흥
41	중구(원미구)							김재인	김재인	김재인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박창원	박창원	김종무	남평우	남평우	남평우	오상근	오상근	오상근
42	남구(소사구)							지영철	지영철	지영철

	지 회 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 기 도	오상근	오상근	임완수	임완수	임완수	임완수	임완수	고희선	조명환
1	수 원 시	조명환	조명환	조명환	조명환	조명환	고석진	고석진	이종구	이종구
2	고 양 시	지희창	지희창	지희창	김도원	김도원	김도원	김도원	김도원	김도원
3	용 인 시	김정길	김정길	최춘성	윤한기	윤한기	윤한기	윤한기	윤한기	윤한기
4	성 남 시	장두영	장두영	장두영	장두영	장두영	장두영	장두영	김영봉	김영봉
5	부 천 시	김정기	김정기	김정기	김정기	김계월	김계월	김계월	박형재	박형재
6	안 산 시	김봉식	김봉식	이만승	이만승	이만승	김봉식	김봉식	김봉식	김봉식
7	화 성 시	신봉식	신봉식	신봉식	신봉식	권혁호	권혁호	권혁호	정영진	신경수
8	남양주시	이문학	조호능	조호능	조호능	조호능	조호능	조호능	조호능	조호능
9	안 양 시	원영희	원영희	원영희	원영희	현광일	현광일	현광일	음순배	음순배
10	평 택 시	방효익	방효익	방효익	강건수	황대영	황대영	홍장근	홍장근	노승관
11	의정부시	윤창현	윤창현	윤창현	윤창현	윤창현	윤창현	윤창현	윤창현	이민종
12	파 주 시	김용호	김용호	김용호	한 교	한 교	한 교	한 교	한 교	한 교
13	시 흥 시	김용문	김왕규	김왕규	김창일	안동인	전광옥	전광옥	전광옥	임완석
14	김 포 시	이대하	이대하	권영선	권영선	권영선	성덕경	성덕경	성덕경	성덕경
15	광 명 시	김석천	김석천	김석천	김석천	김석천	오현척	오현척	오현척	오현척
16	광 주 시	허광회	허광회	허광회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이영우	손선기	이상윤
17	군 포 시	송요태	최길락	최길락	최길락	최길락	최길락	최길락	심재극	심재극
18	이 천 시	김백경	김백경	김용한	김용한	김용한	신광철	신광철	신광철	이제연
19	오 산 시	이용우	황갑룡	황갑룡	황갑룡	황갑룡	황갑룡	황갑룡	황갑룡	황갑룡
20	하 남 시	한상필	한상필	한상필	한상필	한상필	한상필	한상필	한상필	유기준
21	양 주 시	김상헌	김상헌	김상헌	김상헌	김상헌	김상헌	정동화	정동화	정동화
22	구 리 시	손태일	손태일	손태일	손태일	손태일	김항오	김항오	김문경	김문경
23	안 성 시	차주봉	차주봉	차주봉	차주봉	차주봉	이성주	이성주	이성주	김문수
24	포 천 시	박기복	김성균	김성균	김성균	김성균	김성균	정관진	정관진	박왕근
25	의 왕 시	주명종	주명종	주명종	김기담	김기담	김기담	김명선	김명선	이주복
26	여 주 시	이덕영	이덕영	허정남	허정남	허정남	이종만	이종만	이종만	이종만
27	양 평 군	양승우	양승우	김광재	김광재	김광재	권태룡	권태룡	권태룡	이희영

	지 회 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 기 도	오상근	오상근	임완수	임완수	임완수	임완수	임완수	고희선	조명환
28	동두천시	박상현	이채혁	이채혁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
29	과 천 시	이태종	이태종	석용훈	석용훈	석용훈	석용훈	석용훈	석용훈	신학수
30	가 평 군	최영도	최영도	성창모	성창모	성창모	성창모	성창모	성창모	양재춘
31	연 천 군	김정갑	김정갑	김정갑	김정갑	김정갑	김정갑	김정갑	김정갑	채기창
32	송 탄 시	김기호	김기호	강건수	강건수					
33	평 택 군	김학진	김학진	김영호	김영호					
34	미 금 시	이용휘	이용휘	이용휘						
35	강 화 군	김인필	김인필	김인필						
36	옹 진 군	최인환	최인환	최인환	최인환					
37	장 안 구	주성광	최흥식	최흥식	최흥식					
38	권 선 구	박광휘	박광휘	박광휘	박광휘					
39	팔 달 구	–	이종구	이종구	이종구					
40	수 정 구	최철원	최철원	이철수	이철수					
41	중 원 구	안재흥	안재흥	윤기중	윤기중		지회명	1993	1994	1995
42	분 당 구	정대화	정대화	정대화	정대화	45	오정구	윤정기	윤정기	윤정기
43	원 미 구	김재인	김재인	전승옥	전승옥	46	만안구	현광일	현광일	현광일
44	소 사 구	지영철	지영철	이종인	이종인	47	동안구	음순배	음순배	음순배

	지 회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기 도	조명환	조명환	홍원일	홍원일	고희선	고희선	고희선	이출선	이출선	이출선
1	수 원 시	이종구	이종구	김학주	김학주	김학주	송유섭	송유섭	송유섭	송유섭	송유섭
2	고 양 시	김도원	김도원	김학연	김학연	김학연	김학연	김학연	김학연	박동빈	박동빈
3	용 인 시	윤한기	윤한기	지희천	지희천	지희천	지희천	지희천	지희천	황창영	황창영
4	성 남 시	김영봉	김영봉	김현모	김현모	김현모	김현모	김현모	김현모	김상현	김상현
5	부 천 시	박형재	박형재	박용규	박용규	김기명	김기명	김기명	김기명	김기명	김기명
6	안 산 시	김봉식	김봉식	이재진	김영진	이재진	홍순목	김태욱	김태욱	김태욱	김태진
7	화 성 시	신경수	신경수	안상교	안상교	안상교	안상교	안상교	안상교	박성권	박성권
8	남양주시	조호능	박기춘	이우순	이우순	이우순	이우순	이우순	이우순	이준성	이준성
9	안 양 시	음순배	음순배	가재문	가재문	가재문	가재문	음순배	음순배	음순배	음순배
10	평 택 시	노승관	노승관	노승관	노승관	노승관	김광일	김광일	김광일	김광일	김광일
11	의정부시	이민종	이민종	이민종	박형국	박형국	박형국	박형국	박형국	윤성현	윤성현

	지 회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기 도	조명환	조명환	홍원일	홍원일	고희선	고희선	고희선	이출선	이출선	이출선
12	파 주 시	한 교	한 교	박 정	최유섭	최유섭	최유섭	최유섭	최유섭	최유섭	정성환
13	시 흥 시	임완석	함동규	송봉용	정인산	정인산	정인산	정인산	정인산	박명석	권준안
14	김 포 시	성덕경	성덕경	심명섭	심명섭	심명섭	심명섭	심명섭	심명섭	김남섭	김남섭
15	광 명 시	오현척	오현척	이강우	이강우	이강우	이강우	이강우	이강우	김광기	조용호
16	광 주 시	이상윤	권혁구	권혁구	권혁구	이길수	임흥택	임흥택	임흥택	임흥택	임흥택
17	군 포 시	심재극	김수경	이환봉	이환봉	이환봉	이환봉	이환봉	김위환	김위환	김위환
18	이 천 시	이제연	이제연	이제연	이제연	이제연	신광철	신광철	신광철	신광철	신광철
19	오 산 시	주현중	주현중	주현중	윤진국	윤진국	공흥식	김선우	김선우	이진운	이진운
20	하 남 시	유기준	유기준	안덕환	안덕환	안덕환	안덕환	안덕환	안덕환	이연우	이연우
21	양 주 시	정동화	정동화	박형복	박형복	박형복	유영도	유영도	유영도	유영도	유영도
22	구 리 시	김문경	김문경	이장국	이장국	이장국	이명우	탄성은	탄성은	탄성은	탄성은
23	안 성 시	김문수	김문수	이수철	이수철	이수철	이수철	이수철	이수철	남기철	남기철
24	포 천 시	박왕근	박왕근	강태선	강태선	강태선	강태선	강태선	강태선	정종근	최영주
25	의 왕 시	이주복	이주복	이주복	이주복	이주복	최양호	최양호	최양호	최양호	최양호
26	여 주 시	이종만	이종만	박용일	박종덕	박종덕	박종덕	박종덕	박종덕	조성웅	조성웅
27	양 평 군	이희영	이희영	이희영	이희영	이희영	최종희	최종희	최종희	최종희	최종희
28	동두천시	김경수	김경수	김경차	김경차	김경차	김경차	김경차	김경차	김명임	김명임
29	과 천 시	신학수	신학수	신학수	신학수	신학수	이원구	이원구	이원구	이원구	신학수
30	가 평 군	양재춘	양재춘	최승수	조정배	조정배	조정배	조정배		하철호	하철호
31	연 천 군	채기창	채기창	홍영표	홍영표	홍영표	홍영표	홍영표	홍영표	김규선	김규선

	지 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기 도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송재필	송재필
1	수 원 시	송유섭	김봉식	김봉식	김봉식	김봉식	김봉식	김봉식	최봉근	최봉근	최봉근
2	고 양 시	박동빈	박동빈	박동빈	박동빈	김봉진	김봉진	김봉진	김봉진	김봉진	–
3	용 인 시	황창영	정기종	정기종	정기종	윤한기	윤한기	윤한기	윤한기	김종억	김종억
4	성 남 시	손국배	염동준	염동준	염동준	염동준	염동준	염동준	임원묵	임원묵	임원묵
5	부 천 시	김기명	홍석인	홍석인	홍석인	홍석인	홍석인	홍석인	조우형	조우형	조우형
6	안 산 시	라영부	라영부	김복식	김철호	정차동	정차동	정차동	정차동	정차동	임충렬
7	화 성 시	박성권	홍진선	홍진선		김선근	김선근	김선근	김선근	김선근	김선근
8	남양주시	이준성	이준성	이준성	이준성	전기성	전기성	전기성	전기성	전기성	전기성

	지 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기 도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송재필	송재필
9	안 양 시	음순배	김의중	김의중	김의중	원광희	원광희	원광희	원광희	원광희	원광희
10	평 택 시	김경현	김경현	김경현	김경현	김경현	김경현	김경현	최시영	최시영	최시영
11	의정부시	윤성현	윤성현	윤성현	윤성현	박기환	박기환	박기환	박기환	박기환	박기환
12	파 주 시	정성환	정성환	유한성	유한성	유한성	유한성	유한성	김경선	김경선	김경선
13	시 흥 시	권준안	권준안	권준안	권준안	오세관	오세관	오세관	강갑순	강갑순	강갑순
14	김 포 시	김남섭	유준학	유준학	유준학	최종필	최종필	최종필	–	정일성	정일성
15	광 명 시	조용호	조용호	조용호	조용호	김충숙	김충숙	김충숙	장용성	장용성	장용성
16	광 주 시		김환회	김환회	김환회	이원률	이원률	이원률	박광성	박광성	박광성
17	군 포 시	이환봉	어수인	어수인	어수인	어수인	어수인	어수인	서정규	서정규	–
18	이 천 시	신광철	조준택	조준택	조준택	조준택	조준택	조준택	김동승	김동승	김동승
19	오 산 시	윤진국	윤진국	윤진국	윤진국	이희수	이희수	이희수	한웅석	한웅석	한웅석
20	하 남 시	이연우	김진각	김진각	김진각	최천기	최천기	최천기	유병윤	유병윤	유병윤
21	양 주 시	유영도	한관희	한관희	한관희	한관희	한관희	한관희	김용춘	김용춘	김용춘
22	구 리 시	탄성은	안정섭	안정섭	안정섭	곽경국	곽경국	곽경국	곽경국	곽경국	곽경국
23	안 성 시	남기철	남기철	남기철	남기철	이용우	이용우	이용우	이용우	김진원	김진원
24	포 천 시	최영주	최영주	최영주	최영주	채희군	채희군	채희군	이경묵	이경묵	이경묵
25	의 왕 시	최양호	이원홍	이원홍	이원홍	이종진	이종진	이종진	김용란	김용란	김용란
26	여 주 시	조성웅	조성웅	조성웅	조성웅	김인영	김인영	김인영	김인영	고광만	고광만
27	양 평 군	최종희	최종희	윤광신	윤광신	홍성표	홍성표	홍성표	홍성표	홍성표	홍성표
28	동두천시	김명임	김명임	김명임	김명임	양순종	양순종	양순종	윤광회	윤광회	윤광회
29	과 천 시	신학수	김승렬	김승렬	김승렬	김진웅	김진웅	김진웅	장종근	장종근	장종근
30	가 평 군	하철호	허금범	허금범	허금범	추선엽	추선엽	추선엽	김성우	김성우	김성우
31	연 천 군	이원근	이원근	–	–	왕영관	왕영관	왕영관	왕영관	왕영관	왕영관

나. 역대 새마을지도자시군구협의회장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이철우	김길웅	김길웅	김길웅	김길웅	최석한	최석한	최석한	최석한
1	수 원 시	유재언	신현태	최석한	최석한	최석한	이종구	이종구	이종구	신현철
2	고 양 시	최재균	장석정	장석정	지희창	지희창	지희창	지희창	이상필	이상필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이철우	김길웅	김길웅	김길웅	김길웅	최석한	최석한	최석한	최석한
3	용 인 시	박노성	박노성	박노성	유강희	유강희	유강희	유강희	유강희	박광우
4	성 남 시	정형주	김종만	조상호	이종식	박치선	박치선	박치선	이종훈	이종훈
5	부 천 시	장경석	장경석	장경석	변창옥	변창옥	동우경	동우경	김기현	김기현
6	안 산 시	김길웅	윤동완	윤동완	윤동완	윤동완	전용장	전용장	이제억	이제억
7	화 성 시	정광현	홍성직	홍성직	홍성직	홍성직	윤정성	윤정성	윤정성	윤정성
8	남양주시		정용석	정용석	정용석	이종식	이종식	이석희	이석희	이석희
9	안 양 시	변원신	김종인	김종인	김종인	김종인	박시래	박시래	김성춘	김성춘
10	평 택 시				성윤호	성윤호	이규봉	이규봉	이규봉	이규봉
11	의정부시	임우빈	김만순	김면갑	김면갑	김면갑	황말무	황말무	황말무	황말무
12	파 주 시	안응덕	신형우	신형우	신형우	유광석	유광석	유광석	김용호	김용호
13	시 흥 시	이영득	이영득	이영득	이영득	이영득	김영웅	김용문	김왕규	김왕규
14	김 포 시	김기송	조장현	허근무	장상진	장상진	이강세	이강세	이대하	권영선
15	광 명 시	권유안	권유안	권유안	허무영	허무영	허무영	허무영	권순영	권순영
16	광 주 시		한상필	한상필	한상필	박인용	박인용	정운석	정운석	정운석
17	군 포 시							최길락	최길락	최길락
18	이 천 시		임완규	임완규	임완규	임완규	임완규	임완규	임완규	임완규
19	오 산 시							이형재	이형재	이형재
20	하 남 시							임현범	임현범	임현범
21	양 주 시	조태훈	황춘성	황춘성	송동수	송동수	송동수	송동수	권상내	권상내
22	구 리 시				김준로	김준로	윤석균	김윤배	김윤배	김윤배
23	안 성 시	서용범	정동욱	정동욱	백남정	백남정	최상만	최상만	오세훈	오세훈
24	포 천 시	이용협	허복남	허복남	박호만	박호만	박치백	박치백	정관진	정관진
25	의 왕 시							주명종	주명종	이주복
26	여 주 시	권혁준	문무웅	문무웅	박용국	박용국	윤세욱	윤세욱	윤세욱	윤세욱
27	양 평 군	성기정	최윤근	최윤근	이인용	이인용	서항석	서항석	서항석	서항석
28	동두천시	허상준	허상준	허상준	원유혁	원유혁	원유혁	원유혁	김일태	김일태
29	과 천 시				이승조	이승조	김병수	김병수	강신태	이태종
30	가 평 군	남정석	이상우	이상우	송광록	송광록	장학순	장학순	류광렬	류광렬
31	연 천 군	채기창	임덕락	임덕락	김병철	김병철	임덕락	임덕락	이상무	이상무
32	송 탄 시	이동진	이동진	이동진	이동진	이동진	이동진	이동진	정남주	정남주
33	평 택 군	임대웅	임대웅	임대웅	임대웅	임대웅	이영규	이영규	이봉모	이봉모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이철우	김길웅	김길웅	김길웅	김길웅	최석한	최석한	최석한	최석한
34	미 금 시									
35	강 화 군									
36	옹 진 군									
37	장 안 구									
38	권 선 구									
39	수 정 구									
40	중 원 구									
41	중구(원미구)									
42	남구(소사구)									

	지 회 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 기 도	황말무	황말무	차준호	차준호	차준호	신현철	신현철	신현철	박장수
1	수 원 시	신현철	신현철	신현철	신현철	신현철	이범원	이명걸	이명걸	김학문
2	고 양 시	차성환	차성환	이병무	이병무	이병무	이병무	이병무	이병무	김학연
3	용 인 시	박광우	박광우	박광우	박광우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4	성 남 시	이종훈	이종훈	조기철	조기철	조기철	조기철	조기철	조기철	황덕근
5	부 천 시	김기현	김기현	손충신	손충신	손충신	정영모	최문섭	최문섭	최문섭
6	안 산 시	이제억	이제억	이제억	이제억	이제억	홍삼랑	홍삼랑	홍삼랑	홍순목
7	화 성 시	강래진	강래진	배우진	김형재	신운식	신운식	신운식	홍순철	이광행
8	남양주시	이석희	이석희	이석희	이종식	이종식	정영길	정영길	정영길	정영길
9	안 양 시	신진수	신진수	신진수	신진수	신진수	신재현	신재현	신재현	조 삼
10	평 택 시	차준호	차준호	한협동	공윤열	공윤열	공윤열	공윤열	공윤열	유재경
11	의정부시	이민종	이민종	이민종	이민종	이민종	이민종	이민종	이민종	진동균
12	파 주 시	남봉희	남봉희	남봉희			김윤경	김윤경	김윤경	이영복
13	시 흥 시	김왕규	김창일	김창일	심현일	차철순	임완석	임완석	임완석	함동규
14	김 포 시	권영선	권영선	성덕경	성덕경	성덕경	이경택	이경택	심형갑	심형갑
15	광 명 시	권순영	권순영	권순영	권순영	권순영	강장섭	강장섭	강장섭	강장섭
16	광 주 시	양승균	양승균	양승균	양승균	양승균	양승균	양승균	양승균	권혁구
17	군 포 시	최길락	이세중	이세중	한상헌	한상헌	한상헌	한상헌	한상헌	이창환
18	이 천 시	박성길	박성길	박성길	박성길	박성길	박성길	김종길	김종길	최영상
19	오 산 시	이형재	이형재	이형재	유재성	유재성	윤익섭	윤익섭	윤익섭	윤익섭
20	하 남 시	임현범	유기준	유기준	유기준	유기준	유기준	유기준	유기준	안덕환

	지 회 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 기 도	황말무	황말무	차준호	차준호	차준호	신현철	신현철	신현철	박장수
21	양 주 시	권상내	권상내	권상내	정동화	정동화	정동화	박형복	박형복	박형복
22	구 리 시	김윤배	김윤배	변영옥	변영옥	변영옥	변영옥	변영옥	변영옥	변영옥
23	안 성 시	이만호	이만호	이만호	이만호	이만호	윤종섭	윤종섭	윤종섭	유소형
24	포 천 시	이용근	이용근	이기형	이기형	이기형	이기형	박남진	박남진	송광의
25	의 왕 시	이주복	이주복	이주복	이주복	이주복	이주복	이주복	이주복	최양호
26	여 주 시	박용일	박용일	박용일	박용일	박용일	이윤섭	이윤섭	조종태	조종태
27	양 평 군	이재영	이재영	황근수	황근수	황근수	박장수	박장수	박장수	전경복
28	동두천시	김일태	김일태	김일태	김일태	김일태	신현우	신현우	신현우	장호순
29	과 천 시	석용훈	석용훈	최명락	최명락	최명락	최명락	최명락	최명락	최명락
30	가 평 군	류광렬	류광렬	류광렬	류광렬	류광렬	이상옥	이상옥	이상옥	이상옥
31	연 천 군	이상무	이상무	신영진	신영진	신영진	신영진	신영진	신영진	신동규
32	송 탄 시	정남주	정남주	정남주	정남주					
33	평 택 군	이민관	이민관	공윤열	공윤열					
34	미 금 시			이종식	이종식	이종식	이종식			
35	강 화 군									
36	옹 진 군									
37	장 안 구						지 회 명	1993	1994	1995
38	권 선 구					43	만 안 구	신재연	신재연	신재현
39	팔 달 구					44	동 안 구	박정수	박정수	김종영
40	수 정 구					45	원 미 구			
41	중 원 구					46	소 사 구			
42	분 당 구					47	오 정 구			

	지 회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기 도	박장수	박장수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승수	김승수	김승수
1	수 원 시	김학문	김학문	김학문	김학문	김학문	윤주흥	윤주흥	윤주흥	윤주흥	윤주흥
2	고 양 시	김학연	김학연	박민선	박민선	박민선	박민선	박민선	박민선	유금석	유금석
3	용 인 시	김기원	김기원	황창영	황창영	황창영	황창영	황창영	황창영	최병서	최병서
4	성 남 시	황덕근	황덕근	황덕근	황덕근	황덕근	고영환	고영환	고영환	배재충	배재충
5	부 천 시	최문섭	최문섭	윤윤원	윤윤원	한창진	한창진	한창진	한창진	한창진	한창진
6	안 산 시	홍순목	홍순목	손성남	손성남	손성남	김용화	이문우	이문우	정차동	정차동
7	화 성 시	이재현	이재현	김선근	김선근	김선근	김홍성	김홍성	김홍성	김홍성	안낙영

	지 회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기 도	박장수	박장수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기원	김승수	김승수	김승수
8	남양주시	정영길	정영길	고석철	고석철	고석철	고석철	고석철	이은한	이은한	이은한
9	안 양 시	한기영	한기영	한기영	한기영	한기영	이철화	이철화	이철화	이장희	이장희
10	평 택 시	유재경	유재경	정부안	정부안	정부안	목범수	목범수	목범수	정영래	정영래
11	의정부시	진동균	진동균	진동균	진동균	진동균	서홍선	서홍선	서홍선	서홍선	서홍선
12	파 주 시	이영복	이영복	하석이	하석이	하석이	하석이	하석이	하석이	이재영	이재영
13	시 흥 시	함동규	정종찬	권준안	정인산	이헌세	이헌세	이헌세	이헌세	오세관	오세관
14	김 포 시	심형갑	심형갑	민석기	민석기	민석기	민석기	민석기	민석기	이명우	이명우
15	광 명 시	강장섭	강장섭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송동수	송동수
16	광 주 시	이만종	이만종	이만종	이만종	–	유지황	장치순	장치순	장치순	장치순
17	군 포 시	이창환	강복선	강복선	강복선	강복선	이민구	이민구	이민구	한항교	한항교
18	이 천 시	최영상	최영상	육재수	육재수	육재수	홍흥곤	홍흥곤	홍흥곤	조준택	조준택
19	오 산 시	윤익섭	윤익섭	백기현	백기현	백기현	백기현	최종준	최종준	최종준	최종준
20	하 남 시	안덕환	안덕환	김승수	김승수	김승수	김승수	김승수	노재평	노재평	노재평
21	양 주 시	박형복	박형복	허운행	허운행	허운행	허운행	권선옥	권선옥	박세근	박세근
22	구 리 시	박정구	박정구	조병일	조병일	조병일	조병일	조병일	신대섭	신대섭	신대섭
23	안 성 시	유소형	유소형	최흥식	최흥식	최흥식	이용세	이용세	이용세	함옥생	함옥생
24	포 천 시	송광의	송광의	김수철	김수철	임동직	임동직	임동직	임동직	구인서	구인서
25	의 왕 시	최양호	최양호	최양호	최양호	최양호	이원홍	이원홍	이원홍	이원홍	이원홍
26	여 주 시	조종태	조종태	임갑선	임갑선	임갑선	임갑선	원종욱	원종욱	원종욱	원종욱
27	양 평 군	전경복	전경복	전경복	전경복	진경복	이종식	이종식	이종식	이종식	신창선
28	동두천시	장호순	장호순	홍종서	홍종서	홍종서	홍종서	홍종서	홍종서	홍순연	류호정
29	과 천 시			이원구	이원구	이원구	고정수	고정수	고정수	고정수	조훈수
30	가 평 군	이상옥	이상옥	이수근	이수근	이수근	장동구	장동구	장동구	조영태	조영태
31	연 천 군	홍영표	홍영표	성기호	성기호	성기호	김선기	김선기	김선기	서정만	서정만

	지 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기 도	송동수	송동수	송동수	송동수	함옥생	함옥생	함옥생	함옥생	함옥생	함옥생
1	수 원 시	이완모	이완모	이완모	최성국	최성국	최성국	최성국	최성국	최성국	최성국
2	고 양 시	유금석	유금석	유금석	유금석	박홍서	박홍서	박홍서	김규정	김규정	김창규
3	용 인 시	최병서	윤진원	윤진원	윤진원	조병옥	조병옥	조병옥	윤진원	이기인	신동선
4	성 남 시	배재충	배재충	배재충	배재충	임원묵	임원묵	임원묵	김선곤	송봉식	송봉식
5	부 천 시	한창진	장광섭	장광섭	장광섭	장광섭	장광섭	장광섭	편상기	편상기	편상기

	지 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기 도	송동수	송동수	송동수	송동수	함옥생	함옥생	함옥생	함옥생	함옥생	함옥생
6	안 산 시	정차동	정차동	정차동	정차동	김상호	김상호	김상호	김상호	김상호	김상호
7	화 성 시	안낙영	안낙영	최영수	최영수	신영학	신영학	신영학	신영학	신영학	신영학
8	남양주시	이은한	이은한	이은한	이은한	송준우	송준우	송준우	이진헌	이진헌	이진헌
9	안 양 시	이장희	이장희	이장희	이장희	조경연	이완재	이완재	이완재	이완재	이완재
10	평 택 시		권기식	권기식	권기식	권기식	박종선	박종선	박종선	박종선	박종선
11	의정부시	서홍선	최병옥	최병옥	최병옥	최병옥	최병옥	최병옥	조상권	조상권	조상권
12	파 주 시	이재영	이재영	이재영	이재영	이희만	이희만	이희만	권병일	권병일	권병일
13	시 흥 시	오세관	오세관	오세관	오세관	김근환	김근환	김근환	정현국	정현국	정현국
14	김 포 시	이명우	최종필	최종필	최종필	윤행선	윤행선	윤행선	정일성	진기준	진기준
15	광 명 시	박재금	박재금	박재금	박재금	정순묵	정순묵	정순묵	김맹수	김맹수	김맹수
16	광 주 시	장치순	이영배	이영배	이영배	이영배	이영배	이영배	권이혁	권이혁	권이혁
17	군 포 시	한항교	한항교	한항교	한항교	최규대	김용철	서정규	안정규	안정규	안정규
18	이 천 시	조준택	김동승	김동승	김동승	김동승	김동승	김동승	김종근	김종근	김종근
19	오 산 시	최종준	임성철	임성철	임성철	윤필중	윤필중	윤필중	윤필중	윤필중	윤필중
20	하 남 시	노재평	유병윤	유병윤	유병윤	유병윤	유병윤	유병윤	박만철	박만철	박만철
21	양 주 시	박세근	김광모	김광모	김광모	마현중	마현중	마현중	마현중	마현중	마현중
22	구 리 시	신대섭	한영한	한영한	한영한	한영한	한영한	한영한	백형록	백형록	백형록
23	안 성 시	함옥생	함옥생	함옥생	함옥생	김종인	김종인	김종인	김종인	김종인	김종인
24	포 천 시	구인서	구인서	구인서	구인서	양윤호	양윤호	양윤호	양윤호	양윤호	양윤호
25	의 왕 시	이원홍	김종문	신동교	신동교	신동교	신동교	신동교	–	안영순	안영순
26	여 주 시	원종욱	유재종	유재종	유재종	박찬일	박찬일	박찬일	박찬일	박찬일	박찬일
27	양 평 군	신창선	홍성표	홍성표	권덕명	권덕명	권덕명	권덕명	김성은	김성은	김성은
28	동두천시	류호정	류호정	류호정	류호정	윤광회	윤광회	윤광회	박민우	김석훈	김석훈
29	과 천 시	조훈수	장종근	장종근	장종근	장종근	장종근	장종근	–	–	–
30	가 평 군	조영태	조영태	조영태	조영태	염철교	염철교	염철교	염철교	염철교	염철교
31	연 천 군	서정만	서정만	서정만	서정만	이인행	이인행	이인행	이인행	이인행	이인행

다. 역대 시군구새마을부녀회장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최송옥	최송옥	김순자	김순자	김선규	김선규
1	수 원 시	안진숙	공연임	공연임	이종월	이종월	홍경자	홍경자	석문지	석문지
2	고 양 시	최송옥	최송옥	최송옥	이순득	이순득	이순득	이순득	장점수	장점수
3	용 인 시	진영애	진영애	진영애	박정옥	박정옥	유선년	우일출산	우일출산	정길옥
4	성 남 시	유혜순	최영희	최영희	최영희	최영희	김선규	김선규	조봉구	조봉구
5	부 천 시	임광자	이말선	이말선	한재림	한재림	한재림	한재림	한재림	한재림
6	안 산 시	박용주	권순자	권순자	권순자	권순자	권순자	신은복	신은복	신은복
7	화 성 시	조은석	민태봉	민태봉	민태봉	민태봉	오도환	오도환	오도환	오도환
8	남양주시		김보자	김보자	윤현자	윤현자	김경진	박영순	박영순	박영순
9	안 양 시	이인숙	이은혜	이은혜	이은혜	이은혜	이정자	이정자	이정자	이정자
10	평 택 시				조순자	조순자	조순자	조순자	윤금선	윤금선
11	의정부시	문근숙	최성임	박윤향	박윤향	송동은	송동은	송동은	임경숙	임경숙
12	파 주 시	성인자	성인자	성인자	성인자	성인자	이정남	이정남	이정남	이정남
13	시 흥 시	김순자	안운선	민명임	오계순	오계순	오계순	오계순	오계순	오계순
14	김 포 시	황옥자	이기월	이기월	이기월	이기월	정정숙	정정숙	정정숙	정정숙
15	광 명 시	이정선	이정선	이정선	이정선	이정선	김순임	김순임	김순임	김순임
16	광 주 시		조완호	조완호	조완호	조완호	조완호	서병례	서병례	서병례
17	군 포 시							서기자	정재현	정재현
18	이 천 시		김옥재	김옥재	김옥재	김옥재	원영순	원영순	원영순	원영순
19	오 산 시							오화분	오화분	오화분
20	하 남 시							조완호	조완호	조완호
21	양 주 시	유철이	홍점분	홍점분	홍점분	홍점분	정명순	정명순	정명순	정명순
22	구 리 시				조유라	이점분	이점분	손희자	손희자	손희자
23	안 성 시	방진신	심명옥	심명옥	심명옥	심명옥	김용순	김용순	김용순	김용순
24	포 천 시	원음천	송영희	김옥자	이윤중	이윤중	이윤중	조영원	조영원	이상태
25	의 왕 시							안명자	안명자	안명자
26	여 주 시	김희숙	김희숙	김희숙	김희숙	김희숙	김희숙	김희숙	김희숙	최경희
27	양 평 군	홍영후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성분	김성분	김성분	김성분
28	동두천시	김군자	김군자	김군자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고순자	고순자
29	과 천 시				김순자	김순자	강명희	강명희	김정순	김정순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최송옥	최송옥	김순자	김순자	김선규	김선규
30	가 평 군	김옥향	지옥희	지옥희	고영숙	고영숙	안정남	안정남	어옥자	어옥자
31	연 천 군	민연희	최능자	최능자	최능자	최능자	최복남	최복남	최복남	최복남
32	송 탄 시	이은숙	최정애	최정애	최정애	최정애	박옥란	박옥란	박옥란	박옥란
33	평 택 군	장경옥	전영숙	전영숙	전영숙	전영숙	전영숙	전영숙	김옥순	김옥순
34	미 금 시							김재림	김재림	김재림
35	강 화 군		김기희	김기희	김기희	김기희	박정숙	박정숙	박현숙	박현숙
36	옹 진 군		신영애	신영애	신영애	신영애	김순자	박승임	박승임	박승임
37	장 안 구								연경숙	연경숙
38	권 선 구							홍사운	홍사운	홍사운
39	수 정 구									
40	중 원 구									
41	중구(원미구)									
42	남구(소사구)									

	지 회 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 기 도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1	수 원 시	석문지	석문지	허영순	허영순	허영순	허영순	허영순	성경순	성경순
2	고 양 시	이순득	이순득	이순득	이순득	이순득	이순득	이순득	이순득	이순득
3	용 인 시	정길옥	정길옥	정길옥	정길옥	정길옥	백애라	백애라	백애라	백애라
4	성 남 시	조봉구	조봉구	백정선	백정선	백정선	이호순	이호순	이호순	김은영
5	부 천 시	한재림	한재림	한재림	한재림	한재림	한재림	한재림	최복순	최복순
6	안 산 시	신은복	신은복	진해정	진해정	진해정	박점순	박점순	박점순	박점순
7	화 성 시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8	남양주시	김재림	박영순	박영순	이우순	이우순	이우순	이우순	이우순	이우순
9	안 양 시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김기영	조금영
10	평 택 시	윤복례	윤복례	윤복례	임해숙	임해숙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	김은영
11	의정부시	임경숙	임경숙	임경숙	임경숙	임경숙	임경숙	임경숙	임경숙	임경숙
12	파 주 시	이정남	이용순	이용순	이용순	이용순	정영숙	정영숙	정영숙	정영숙
13	시 흥 시	오계순	오계순	정종미	정종미	정종미	정종미	정종미	정종미	정종미
14	김 포 시	정정숙	정정숙	허미연	허미연	허미연	오무순	오무순	오무순	오무순

	지 회 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 기 도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김선규
15	광 명 시	김순임	김순임	한희심	한희심	한희심	한희심	한희심	한희심	한희심
16	광 주 시	서병례	서병례	서병례	서병례	서병례	장윤희	장윤희	장윤희	김영화
17	군 포 시	정재현	정재현	정재현	정재현	정재현	정재현	정재현	정재현	정재현
18	이 천 시	원영순	원영순	김관석	김관석	김관석	김관석	김관석	김관석	장복자
19	오 산 시	오화분	오화분	오화분	오화분	김금자	김금자	김금자	김금자	김금자
20	하 남 시	조완호	조완호	조완호	조완호	조완호	허일행	허일행	허일행	허일행
21	양 주 시	박병화	박병화	박병화	박병화	박병화	박병화	박병화	박병화	박병화
22	구 리 시	주윤순	주윤순	주윤순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23	안 성 시	김용순	김용순	김용순	김용순	김용순	이선자	이선자	이선자	이선자
24	포 천 시	이상태	이상태	윤순옥	윤순옥	윤순옥	윤순옥	윤순옥	윤순옥	윤순옥
25	의 왕 시	박광자	박광자	박광자	김희순	김희순	이순이	이순이	이순이	김복기
26	여 주 시	최경희	최경희	최경희	최경희	최경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한금순
27	양 평 군	김성분	김성분	김성분	김성분	김성분	박찬일	박찬일	박찬일	박찬일
28	동두천시	고순자	고순자	고순자	고순자	고순자	고순자	고순자	고순자	김명임
29	과 천 시	유연자	유연자	유연자	유연자	유연자	이석연	이석연	이석연	이석연
30	가 평 군	어옥자	어옥자	어옥자	어옥자	어옥자	어옥자	어옥자	어옥자	이순덕
31	연 천 군	최복남	최복남	최복남	최복남	김복임	김복임	김복임	김복임	김복임
32	송 탄 시	박옥란	박옥란	박옥란	박옥란					
33	평 택 군	김동순	김동순	임해숙	임해숙			1993	1994	1995
34	미 금 시	김재림	김재림	이우순	이우순	이우순	중원구	최연옥	최연옥	최연옥
35	강 화 군	박현숙	박현숙	이복순	이복순	이복순	분당구	이옥자	이옥자	이옥자
36	옹 진 군	박승임	박승임	박승임	박승임	박승임	만안구	조금영	조금영	조금영
37	장 안 구	연경숙	송순녀	송순녀	송순녀		동안구	조연순	조연순	조연순
38	권 선 구	홍사운	김정길	김정길	김정길		원미구	김죽희	김죽희	김죽희
39	팔 달 구		박일량	박일량	박일량	박일량	소사구	박병화	박병화	정순자
40	수 정 구		백정선	백정선	백정선		오정구	최은숙	최은숙	최은숙

	지 회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기 도	김선규	김선규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숙희	김숙희
1	수 원 시	성경순	성경순	유임선	유임선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나금숙	나금숙
2	고 양 시	이순득	이순득	황선자	황선자	황선자	김 순	김 순	김 순	김 순	김 순
3	용 인 시	백애라	백애라	주명숙	주명숙	주명숙	주명숙	주명숙	주명숙	예숙자	예숙자
4	성 남 시	김은영	김은영	김숙희	김숙희	김숙희	김숙희	김숙희	김숙희	유이재	유이재
5	부 천 시	최복순	최복순	최복순	최복순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김연희	황진희	황진희
6	안 산 시	박점순	박점순	박두선	서유자	서유자	서유자	박경숙	박경숙	박경숙	박경숙
7	화 성 시	김명숙	김명숙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이인숙	이인숙
8	남양주시	이우순	이우순	이미화	이미화	이미화	최옥녀	최옥녀	최옥녀	최옥녀	최옥녀
9	안 양 시	조금영	조금영	최관순	최관순	최관순	한향숙	신선순	신선순	신선순	신선순
10	평 택 시	김은영	김은영	오정자	오정자	오정자	오정자	오정자	오정자	최희용	한경숙
11	의정부시	임경숙	임경숙	김점순	김점순	김점순	김점순	김점순	김점순	김영숙	김영숙
12	파 주 시	정영숙	정영숙	채봉화	채봉화	채봉화	채봉화	채봉화	채봉화	송분연	송분연
13	시 흥 시	정종미	정종미	박춘순	박춘순	박춘순	손옥순	손옥순	손옥순	손옥순	손옥순
14	김 포 시	오무순	오무순	오세월	오세월	오세월	오세월	오세월	오세월	김의숙	김의숙
15	광 명 시	한희심	한희심	이인진	이인진	이인진	이인진	이인진	이인진	김충숙	김충숙
16	광 주 시	김영화	김영화	주화자	주화자	주화자	진영숙	박남숙	박남숙	박남숙	박남숙
17	군 포 시	정재현	정재현	이연희	이연희	이연희	민경애	민경애	민경애	염칠순	염칠순
18	이 천 시	장복자	장복자	장복자	장복자	장복자	박필하	박필하	박필하	이정임	이정임
19	오 산 시	김금자	김금자	장기순	장기순	장기순	장기순	장선이	장선이	이명자	이명자
20	하 남 시	허일행	허일행	허애자	허애자	허애자	허애자	허애자	허애자	박명옥	박명옥
21	양 주 시	박병화	박병화	이대수	이대수	이대수	이대수	이대수	이대수	송갑재	송갑재
22	구 리 시	김정희	김정희	허만정	허만정	허만정	허만정	허만정	허만정	허영자	허영자
23	안 성 시	이선자	이선자	윤순모	윤순모	윤순모	윤순모	윤순모	윤순모	유정순	유정순
24	포 천 시	이종숙	이종숙	최계옥	최계옥	최계옥	최계옥	최계옥	최계옥	김정숙	김정숙
25	의 왕 시	김복기	김복기	강분임	강분임	강분임	이연주	이연주	이연주	임영임	임영임
26	여 주 시	한금순	한금순	한금순	한금순	한금순	길숙자	길숙자	길숙자	박춘자	박춘자
27	양 평 군	박찬일	박찬일	최종희	최종희	최종희	최종희	박명환	박명환	박명환	박명환
28	동두천시	김명임	김명임	김명임	김명임	김명임	이향자	이향자	이향자	박연순	박연순
29	과 천 시	이석연	이석연	권혁희	권혁희	권혁희	권혁희	권혁희	권혁희	이희자	이희자
30	가 평 군	이순덕	이순덕	김금순	김금순	김금순	김금순	김금순	김금순	신영옥	신영옥

	지 회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기 도	김선규	김선규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명숙	김숙희	김숙희
31	연 천 군	김복임	김복임	전정옥	전정옥	전정옥	이계숙	이계숙	이계숙	이계숙	이계숙

	지 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기 도	김숙희	김숙희	김숙희	김숙희	임낙희	임낙희	임낙희	임낙희	임낙희	임낙희
1	수 원 시	나금숙	유준숙	유준숙	유준숙	유준숙	유준숙	유준숙	서영숙	서영숙	서영숙
2	고 양 시	김 순	임낙희	임낙희	임낙희	오춘희	오춘희	오춘희	오춘희	오춘희	오춘희
3	용 인 시	예숙자	예숙자	예숙자	예숙자	김정식	김정식	김정식	김정식	김정식	김정식
4	성 남 시	유이재	유이재	유이재	유이재	김귀자	김귀자	김귀자	김귀자	김귀자	김귀자
5	부 천 시	황진희	황진희	황진희	신언숙	신언숙	신언숙	신언숙	김명옥	김명옥	김명옥
6	안 산 시	박경숙	김기숙	김기숙	김기숙	김기숙	김기숙	김기숙	정상순	정상순	정상순
7	화 성 시	이인숙	이인숙	이인숙	이인숙	조종애	조종애	조종애	조종애	조종애	조종애
8	남양주시	최옥녀	김명조	김명조	김명조	나성란	나성란	나성란	나성란	나성란	나성란
9	안 양 시	신선순	전명화	전명화	전명화	전명화	전명화	전명화	김정숙	김정숙	–
10	평 택 시	한경숙	한경숙	한경숙	한경숙	손정화	손정화	손정화	손정화	손정화	손정화
11	의정부시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강귀순	강귀순	강귀순	한진숙	한진숙	한진숙
12	파 주 시	송분연	유연희	유연희	유연희	유연희	유연희	유연희	김명자	김명자	김명자
13	시 흥 시	손옥순	강갑순	강갑순	강갑순	강갑순	강갑순	강갑순	홍화자	홍화자	홍화자
14	김 포 시	김의숙	김의숙	김의숙	김의숙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15	광 명 시	김충숙	김충숙	김충숙	김충숙	김정진	김정진	김정진	김정진	김정진	김정진
16	광 주 시	박남숙	윤재숙	윤재숙	윤재숙	윤재숙	윤재숙	윤재숙	백희숙	백희숙	–
17	군 포 시	염칠순	염칠순	염칠순	염칠순	정경숙	정경숙	정경숙	원경애	원경애	최영자
18	이 천 시	이정임	이정임	이정임	이정임	권순영	권순영	권순영	권순영	권순영	권순영
19	오 산 시	이명자	유혜숙	유혜숙	유혜숙	이순열	이순열	이순열	이순열	이순열	이순열
20	하 남 시	박명옥	윤미애	윤미애	윤미애	윤미애	윤미애	윤미애	신송연	신송연	신송연
21	양 주 시	서정순	서정순	서정순	서정순	양효숙	양효숙	양효숙	양효숙	양효숙	양효숙
22	구 리 시	허영자	김옥례	김옥례	김옥례	김옥례	김옥례	김옥례	김광순	김광순	김광순
23	안 성 시	유정순	원명숙	원명숙	원명숙	원명숙	원명숙	원명숙	전선숙	전선숙	전선숙
24	포 천 시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차용숙	차용숙	차용숙	차용숙	차용숙	차용숙
25	의 왕 시	임영임	김용란	김용란	김용란	김용란	김용란	김용란	이혜숙	이혜숙	이혜숙
26	여 주 시	박춘자	박춘자	박춘자	박춘자	임복순	임복순	임복순	임복순	임복순	임복순

	지 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기 도	김숙희	김숙희	김숙희	김숙희	임낙희	임낙희	임낙희	임낙희	임낙희	임낙희
27	양 평 군	박명환	이인숙	이인숙	이용기	이용기	이용기	이용기	강영혜	강영혜	강영혜
28	동두천시	박연순	손복자	손복자	손복자	박순호	박순호	박순호	박순호	박순호	박순호
29	과 천 시	이희자	박정옥	박정옥	박정옥	조송월	조송월	차연경	차연경	차연경	차연경
30	가 평 군	신영옥	신영옥	신영옥	김금윤	이영옥	이영옥	이영옥	이영옥	이영옥	이영옥
31	연 천 군	이계숙	최삼순	최삼순	최삼순	최삼순	최삼순	최삼순	이춘애	이춘애	이춘애

라. 역대 직 · 공장새마을운동시군협의회장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1	수 원 시	이승원	이승원	이승원	조명환	조명환	조명환	조명환	이기용	이기용
2	고 양 시		오항록	오항록	최재균	차명식	차명식	차명식		
3	용 인 시		송재권	송재권	송재권	송재권	송재권	장형옥	장형옥	장형옥
4	성 남 시		고재혁	고재혁	고재혁	고재혁	고재혁	서정식	이형순	이형순
5	안 산 시		이규식	이규식	이규식	이규식	이규식	이규식	이규식	이규식
6	남양주시		김응수	김응수	김응수	김영희	김영희			
7	안 양 시	장배순	전범윤	전범윤	오경환	오경환	오경환	박병환	박병환	박병환
8	의정부시	문성규	문동연	문동연	문동연	문동연	문동연	손경환	손경환	안수길
9	파 주 시			유광석	이재영	이재영	이재영			
10	시 흥 시	김창렬	김창렬	손주식	손주식	이동우	이동우	이동우	이동우	이성하
11	광 명 시	최만승	문용선	문용선	문용선	문용선	문용선	문용선	문용선	
12	광 주 시		이상원							
13	구 리 시				박영철	박영철	박영철	박영철	박영철	
14	안 성 시	김성진	허장희	허장희	이상옥	이상옥	이상옥	이상옥		
15	의 왕 시								유신열	최경선
16	양 평 군	민관식	김주흥	김주흥	김주흥	김주흥	김주흥	김주흥	양승우	양승우
17	동두천시					이원록	이원록	이원록	이원록	이원록
18	과 천 시				이용산	이용산	이용산	이용산	이용산	이용산
19	연 천 군		백종식	백종식	손기영	손기영	손기영	김인권	김인권	김인권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20	송 탄 시		경두현	이승학	황윤기	이후재	이후재	이후재	신시순	신시순
21	미 금 시							심우영	심우영	

	지 회 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 기 도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조정환	이도형	이도형	이도형
1	수 원 시	이기용	이기용	엄익수	엄익수	엄익수	엄익수	엄익수	엄익수	
2	성 남 시	민병훈	김방우	김방우	김방우	김방우	우건식	우건식	우건식	우건식
3	안 산 시	허의강	허의강	허의강	김진옥	김진옥				
4	안 양 시	박병환	박병환	박병환	이동우	이동우	이동우	이동우	이성현	이성현
5	의정부시	안수길	안수길	안수길	안수길	안수길	안수길	안수길	안수길	김형두
6	파 주 시						김용대	김용대	김용대	
7	시 흥 시	박준희	박준희	박준희	소춘섭	소춘섭	소춘섭	소춘섭	소춘섭	송봉용
8	광 주 시	이상화								
9	의 왕 시	정진화	김명선	김기담	공화영					
10	양 평 군	장재찬	장재찬	장재찬	장재찬	장재찬	김유택	김유택	김유택	이명희
11	동두천시	이원록	이원록	이원록						
12	과 천 시	이용산	이용산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13	연 천 군	김인권								
14	송 탄 시	신시순	신시순	신시순	신시순					

	지 회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기 도	이도형	윤한기	윤한기	윤한기	윤한기	윤한기	김학섭	김학섭	김학섭	김학섭
1	수 원 시							김봉식	김봉식	김봉식	
2	고 양 시				정의종	정의종	정의종	정의종	정의종	김중연	김중연
3	용 인 시						김국일	김국일	김국일	신동선	신동선
4	성 남 시	우건식	우건식	우건식	이명선	이명선	이명선	허영숙	허영숙	허영숙	허영숙
5	화 성 시								김일선	김일선	김일선
6	남양주시								조남호	조남호	조남호

7	안 양 시	이성현	이성현	이성현						주명선	
8	의정부시	김형두	김형두	김형두	김형두	김형두	김형두	김형두			
9	시 흥 시	송봉용	송봉용	김호영	김호영	김호영	김호영	강경환	강경환	강경환	강경환
10	광 명 시				권왕식	권왕식	권왕식	권왕식	권왕식	권왕식	남상경
11	양 주 시				유영도	유영도	김학섭	윤재원	윤재원	윤재원	홍현덕
12	포 천 시					남순우	남순우	남순우	남순우	남순우	
13	의 왕 시			조복규	조복규	조복규	조복규	박형구	박형구	박형구	변현정
14	양 평 군	이명희	이명희	이명희							

	지 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기 도	김학섭	김학섭	강경환	강경환	강경환	강경환	강경환	강경환	최연숙	최연숙
1	수 원 시		우인구	조철상	조철상	조철상	조철상	조철상	조철상	조철상	조철상
2	고 양 시	김학동	김학동			이상주	이상주	이상주	이상주	이상주	이상주
3	성 남 시	허영숙	허영숙	최연숙	최연숙	최연숙	최연숙	최연숙	최연숙	김용범	김용범
4	화 성 시	김일선	김일선	유주영	유주영	유주영	유형태	유형태	유형태	김송환	김송환
5	남양주시	김춘재	김춘재	김춘재	조동우	조동우	최순옥	최순옥	최순옥	최순옥	최순옥
6	안 양 시		백종주	백종주	백종주	서영빈	서영빈	서영빈			
7	의정부시		박기환	박기환	박기환						
8	시 흥 시	강경환	강경환	김보원	김보원	김보원	김보원	김보원	김보원	강동호	강동호
9	김 포 시			김영애	김영애	김영애	임홍순	임홍순	임홍순	임홍순	임홍순
10	광 명 시	남상경	남상경	김복형	김복형	김복형					
11	이 천 시	유재우				이호경	이호경	이호경	이호경	이호경	이호경
12	양 주 시	홍현덕	홍현덕	임남순	임남순	임남순	김선정	김선정	김선정	김선정	김선정
13	포 천 시		송상국							정미옥	정미옥
14	의 왕 시	변현정	변현정	장금자	장금자	장금자	장금자	장금자	장금자		유금례

마. 역대 새마을문고시군구지부 회장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최범상	최범상	김종만	김종만	김종만	김종만	문제복	문제복	권태욱
1	수 원 시	이정식	이정식	문제복	문제복	문제복	문제복	박우양	박우양	박우양
2	고 양 시		장준웅	이은석	이은석	박윤구	박윤구	박윤구	박윤구	박윤구
3	용 인 시		최춘성	최춘성	최춘성	최춘성	최춘성	송재권	송재권	송재권
4	성 남 시		조명천	이계남	이계남	이계남	이계남	이계남	이계남	이계남
5	부 천 시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
6	안 산 시		김이태	김봉식	김봉식	최경환	최경환	최경환	이종순	이종순
7	화 성 시	한광수	임승규	임승규	주현중	주현중	주현중	안희석	안희석	안희석
8	남양주시		김응춘	김응춘	김응춘	박완석	박완석	박완석	박수부	박수부
9	안 양 시	송요선	전영선	전영선	전영선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10	평 택 시				박진철	박진철	박진철	박진철	박진철	박진철
11	의정부시	이제율	이제율	이제율	이제율	이제율	최창진	최창진	최창진	최창진
12	파 주 시	송진용	김정원	김정원	김정원	김정원	김정원	심성구	심성구	심성구
13	시 흥 시	구경회	권회길	권회길	이원남	이원남	이원남	이윤철	이윤철	이윤철
14	김 포 시	신형식	황연문	황연문	황연문	이종성	이종성	한종수	한종수	한종수
15	광 명 시	김재주	김석천	김석천	김석천	김석천	김석천	김석천	오현척	오현척
16	광 주 시		유충렬	유충렬	유충렬	유충렬	유충렬	유충렬	유충렬	유충렬
17	군 포 시									
18	이 천 시			김태화	이백우	이백우	이백우	이백우	이백우	이백우
19	오 산 시							주현중	주현중	주현중
20	하 남 시								이열종	이열종
21	양 주 시	조영순	한승춘	한승춘	김철동	김철동	김철동	김철동	김철동	이채용
22	구 리 시				손점석	손점석	손점석	손점석	손점석	양태흥
23	안 성 시	홍석주	한창섭	한창섭	이성주	이성주	이성주	이성주	이성주	이성주
24	포 천 시	양완종	오신식	윤영호	윤영호	윤영호	윤영호	윤영호	윤영호	윤영호
25	의 왕 시							김대식	김대식	김대식
26	여 주 시	김종성	임규철	임규철	유재식	유재식	이광호	이광호	이광호	이광호
27	양 평 군	맹득영	맹득영	권오윤	권오윤	안광원	안광원	김광재	김광재	김광재
28	동두천시	조규진	조규진	조규진	조규진	조규진	조규진	조규진	조규진	조규진
29	과 천 시		김종렬	김종렬	김종렬	김종렬	김종렬	김종렬	안석준	안석준
30	가 평 군		한규평	한규평	한규평	한규평	한규평	한규평	한규평	김명수
31	연 천 군	김종관	이호순	이호순	이호순	이호순	이호순	이호순	이호순	이호순

	지 회 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경 기 도	최범상	최범상	김종만	김종만	김종만	김종만	문제복	문제복	권태욱
32	송 탄 시								박학순	박학순
33	평 택 군								이민우	이민우
34	미 금 시								남기항	남기항
35	장 안 구								김기학	

	지 회 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 기 도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정홍기	정홍기	정홍기
1	수 원 시	박우양	박우양	박우양	박우양	고석진	홍원일	홍원일	홍원일	홍원일
2	고 양 시	박윤구	박윤구	박윤구	박윤구	박윤구	박윤구	박윤구	박윤구	박윤구
3	용 인 시	송재권	송재권	송재권	유강희	유강희	유강희	유강희	유강희	유강희
4	성 남 시	이계남	한형섭	한형섭	한형섭	김종일	김종일	유재현	유재현	유재현
5	부 천 시	–	정홍기	정홍기	권순호	권순호	권순호	권순호	황미숙	황미숙
6	안 산 시	이종순	이종순	성철수	성철수	박승한	허춘중	허춘중	이대근	이대근
7	화 성 시	안희석	이범우	이범우	이범우	이범우	홍윤선	홍윤선	홍윤선	홍윤선
8	남양주시	박수부	박수부	박수부	이창옥	이창옥	이창옥	이응구	이응구	이응구
9	안 양 시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10	평 택 시	박진철	박진철	황홍섭	황홍섭	강용식	강용식			
11	의정부시	최창진	최창진	최창진	최창진	최창진	최창진	최창진	김용민	김용민
12	파 주 시	심성구	심성구	심성구	우춘환	우춘환	우춘환	우춘환	우춘환	우춘환
13	시 흥 시	이윤철	이윤철	장순설	장순설	장순설	장순설	장순설	장순설	유병만
14	김 포 시	한종수	이용준	이용준	이용준	이용준	이용준	이용준	이용준	이용준
15	광 명 시	오현척	오현척	오현척	오현척	오현척	최필원	최필원	최필원	최필원
16	광 주 시	유충렬	유충렬	유충렬						오건환
17	군 포 시		유병직	유병직	유병직					
18	이 천 시	이백우	이백우	이세구	임진석	임진석	임진석	임진석	임진석	이현호
19	오 산 시	주현중	주현중	주현중	주현중	주현중	주현중	주현중	주현중	안성희
20	하 남 시	이열종	이열종	이열종	이열종	이열종	이열종	이열종	이열종	이열종
21	양 주 시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22	구 리 시	양태흥	이영재	이영재	이영재					
23	안 성 시	이성주	이성주	이성주	이성주	이성주	김원영	김원영	김원영	유원종
24	포 천 시	강명숙	강명숙	홍만영	홍만영	홍만영	홍만영	홍만영	홍만영	장혜광
25	의 왕 시	김대식	김대식	김대식	김대식	김대식	김대식	김대식	김대식	김대원

	지 회 명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경 기 도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권태욱	정홍기	정홍기	정홍기
26	여 주 시	정삼석	정삼석	정삼석	정삼석	박광정	박광정	박광정	박광정	박광정
27	양 평 군	김광재	김광재	김광재			박유선	박유선	박유선	박유선
28	동두천시	정선채	정선채	정선채	정선채	정선채	정선채			
29	과 천 시	안석준	안석준	안석준	안석준	김석기	김석기	김석기	김석기	김석기
30	가 평 군	김명수			장승렬	장승렬	장승렬	장승렬	장승렬	
31	연 천 군	이호순	이호순	이호순	이호순	이호순	이호순	조용윤	조용윤	조용윤
32	송 탄 시	박학순	박학순	박학순						
33	평 택 군	이민우	이민우	강용식	강용식					
34	미 금 시	남기항	남기항	남기항	이창옥	이창옥	이창옥	이창옥		
35	강 화 군									
36	옹 진 군		이수영	이수영						
37	장 안 구		홍원일							
39	팔 달 구		고석진							
40	수 정 구		권용현							
41	분 당 구		김은년							
42	소 사 구		최호성							

	지 회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기 도	정홍기	홍원일	홍원일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응구
1	수 원 시	홍원일	이강영	신동운	유인제	유인제	유인제	소진순	소진순	소진순	조계숙
2	고 양 시	박윤구	권오형	권오형	권오형	권오형	권오형	박동빈	박동빈	원재진	곽무
3	용 인 시	유강희	지희천	지희천	박순규	박순규	박순규	박순규	박순규	박순규	정연영
4	성 남 시	유재현	유재현	유재현	유재현	안극수	안극수	안극수	안극수	안극수	김정호
5	부 천 시	황미숙	황미숙	황미숙	황미숙	윤광천	윤광천	차동길	차동길	차동길	차동길
6	안 산 시	이대근	이대근	김동경	김동경	김동경	김남수	김남수	김남수	김남수	황연화
7	화 성 시	홍윤선	홍윤선	홍윤선	홍윤선	홍윤선	홍윤선	홍석주	홍석주	이길자	이길자
8	남양주시	이응구	이응구	이응구	우희동	우희동	우희동	우희동	이응구	이응구	최정자
9	안 양 시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박영호	이채학	이채학	이채학	이채학	김경남
10	의정부시	김용민	김용민	김용민	정진선	정진선	정진선	정진선	신운석	정영혜	문금옥
11	파 주 시	우춘환	박 훈	박 훈	박 훈	박 훈	정성환	정성환	정성환	권옥기	권옥기

	지 회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기 도	정홍기	홍원일	홍원일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채용	이응구
12	시 흥 시	김영달	김영달	이환세	이환세	이환세	이환세	이환세	이환세	이환세	김 선
13	광 명 시	최옥선	최옥선	최옥선	정경선	정경선	정경선	정경선	정경선	정경선	성명순
14	군 포 시	오건환	오건환	오건환	오건환		최학규	최학규	전자희	전자희	
15	이 천 시	이현호	이현호	이현호	이현호	이현호	이현호	하광호	하광호	오광석	육재수
16	오 산 시	안성희	안성희	안성희	김용석	김용석	김용석	나지섭	나지섭	나지섭	안성희
17	하 남 시	이열종	이열종	이열종		박인철					
18	양 주 시	이채용	이채용	장영숙	이인섭	이인섭	이인섭	이인섭	지수길	지수길	지수길
19	구 리 시		강태환	강태환	강태환	강태환	강태환	노염주	노염주	노염주	노염주
20	안 성 시	유영이	유영이	유영이	심윤석	심윤석	심윤석	김종열	김종열	김대준	김대준
21	포 천 시	박종구	박종구	박종구	박종구	박종구	박종구	정해균	정해균	정해균	정해균
22	의 왕 시	김대원	김대원	김대원	김대원	김대원	김대원	이종진	이종진	이종진	이종진
23	여 주 시	구은회	구은회	구은회	구은회	구은회	구은회				
24	양 평 군			고건덕	고건덕	고건덕	고건덕				
25	과 천 시	김정석	김정석	김정석	조훈수	조훈수	조훈수	조훈수	조훈수	조훈수	김승렬
26	연 천 군	이규익	이규익	이규익	이규익	이규익					

	지 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기 도	이응구	이응구	한이덕	한이덕	한이덕	이응구	이응구	이응구	이응구	이응구
1	수 원 시	조계숙	조계숙	오영숙	오영숙	오영숙	오영숙	오영숙	오영숙	정혜경	정혜경
2	고 양 시	곽 무	곽 무	남윤숙	남윤숙	남윤숙	남윤숙	남윤숙	원재진	강성환	
3	용 인 시	정연영	정연영	김국일	김국일	김국일	손동란	손동란	손동란	–	박순형
4	성 남 시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박인수	박인수	박인수	박인수	박인수	박인수
5	부 천 시	차동길	차동길	이선근	이선근	이선근	이선근	이선근	이선근	김광운	김광운
6	안 산 시	황연화	황연화	황연화	황연화	황연화	유근원	유근원	유근원	최유정	최유정
7	화 성 시	이길자	이길자								
8	남양주시	최정자	최정자	최정자	최정자	최정자	유지환	유지환	유지환	유지환	유지환
9	안 양 시	김경남	김경남	김경남	김경남	김경남	이동연	이동연	이동연	김명원	김명원
10	의정부시	문금옥	문금옥	문금옥	문금옥	문금옥	권경철	권경철	권경철	권경철	권경철
11	파 주 시	권옥기	이순자	이순자	이순자	이순자					
12	시 흥 시	김 선	김 선	김찬심	최경옥	최경옥	복연금	복연금	복연금	소수경	소수경
13	광 명 시	성명순	성명순	전명호	전명호	전명호	윤명모	윤명모	윤명모		윤명모

	지 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기 도	이응구	이응구	한이덕	한이덕	한이덕	이응구	이응구	이응구	이응구	이응구
14	이 천 시	육재수	육재수	육재수	육재수	육재수	이종태	이종태	이종태	이현호	이현호
15	오 산 시	안성희	안성희	이명자	이명자	이명자	손진숙	손진숙	손진숙		
16	양 주 시	지수길	지수길	김영권	김영권	김영권	김영권	이한우	이한우	이한우	이한우
17	구 리 시	이우웅	이우웅	노염주	노염주	노염주	김애란	김애란	김애란	정준희	정준희
18	안 성 시	김대준	김대준	김인숙	김인숙	김인숙	이근옥	이근옥	이근옥	박근미	박근미
19	포 천 시	정해균	정해균	송상국	안임자	안임자	임종연				
20	의 왕 시	이종진	이종진	이종진	이종진	문성태	문성태	문성태	문성태	박찬분	박찬분
21	과 천 시	김승렬	김승렬	박건걸	김진웅	김진웅			정원기	정원기	정원기

8. 역대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직원

	사무국장	지역부장	부녀부장	직장부장	공장부장	직 원	
1981	–	김순호				최경화	
1982	강도희	김순호	조정자	김정한	김세운	최경화/송용섭/박영철/이순호/유봉준/문영진(x)/강동언(x)	
	사무국장	지도부장	총무과장	지역1과장	지역2과장	도시과장	직 원
1983	강도희	김순호	송용섭	–	조정자	–	박영철/최경화/권태성/조명희
1984	강도희 김학기	김순호	송용섭	이봉필	조정자	박영철	권태성/최경화/조명희/임재학/최제형/황창영/이정삼/최선숙
1985	김학기	김순호	송용섭	이봉필	조정자	박영철	임재학/권태성/최제형/황창영/이정삼/최경화/조명희/최선숙/문행식
1986	김학기	김순호	송용섭	이봉필	조정자	박영철	임재학/권태성/최제형/황창영/최경화/조명희/최선숙/문행식/김광회/김해신/최은덕
	사무국장	지도부장	총무과장	지역1과장	지역2과장	도시과장	직 원
1987	김학기	김순호	송용섭 김부기	이봉필 백동승	조정자	박영철	권태성/최제형/황창영/문행식/김광회/김해신/최은덕/최경화/조명희/최선숙/송병천/이희영
1988	김학기	김순호	김부기	백동승	조정자	박영철	황창영/문행식/김해신/이희영/최은덕/조명희/최선숙 ※ 퇴직 : 김순호/조정자/최경화

	사무국장	총무과장	지역과장	부녀과장	직장과장	문고과장	직 원
1989	김학기	김부기 변복원	백동승	박길자	박영철 이봉필	이희영	황창영/최은덕/조명희/최선숙/ 김대형※ 퇴직 : 김부기 박영철/문행식/김해신
1990	김학기	변복원	백동승 이영우	박길자	이봉필	이희영 박용득	황창영/김대형/조명희/이기화 ※ 퇴직 : 김학기/최은덕
1991	김선관	변복원	이영우 한상배	박길자	이봉필	박용득 이봉필	황창영/김대형/조명희/이기화/ 권인호
1992	김선관	변복원	한상배	한상배 이건형	이봉필	권인호 권태성	황창영/김대형/조명희/이기화/ 박미선/김원기/이경란 ※ 박용득 : 안산시사무국장파견
	사무국장	직서과장	지역과장	부녀과장	문고과장	직 원	
1993	김선관 김길수	변복원 남완희	한상배	이건형 박미선	권태성 류영권	이봉필/김원기/이경란/권은주/김용운/김대형/송지섭/김명주(x) ※ 퇴직 : 변복원	
1994	김길수	남완희 황창영	한상배	박미선	류영권	김원기/김용운/박연화/박상미	
	사무국장	직능과장	지역과장	부녀과장	문고과장	직 원	
1995	김길수	황창영 김원기 이종욱	한상배 박용득	박미선	류영권	김용운/박상미/원인재/박연화	
	사무처장	총무과장	지역과장	부녀과장	직 원		
1996	김길수 우태하	이종욱 황창영	박용득 한상배	박미선	원인재/박상미/박연화		
1997	우태하	황창영 한상배	문행식	박미선	원인재/박상미/박연화		
1998	우태하	한상배 김원기	문행식	박미선	원인재/박상미/박연화		
	사무처장	조직운영부장	사업부장	직 원			
1999	우태하	김원기	문행식	원인재/박상미/박연화/송지섭			
	사무처장	기획부장	지도부장	직 원			
2000	우태하	김원기 이봉필	김원기	과장 : 문행식/원인재, 직원 : 박상미/박연화			
2001	우태하 박상선	이봉필 김춘식	김원기	과장 : 문행식, 직원 : 박상미/박연화 ※ 퇴직 : 이봉필※ 원인재 : 시흥시 사무국장파견			
2002	박상선	김춘식 문행식	김춘식	과장 : 원인재/박상미/정진남 주임 : 강대호/김륭기, 직원 : 류양선 ※ 김원기 : 관악구 사무국장 파견			

	사무처장	기획부장	지도부장	직 원
2003	박상선	문행식	김춘식 김대기	과장 : 박상미/원인재/정진남/이후영/정선주 주임 : 강대호/김륭기, 직원 : 류양선 ※ 이후영 : 의왕시 사무국장 파견
2004	박상선 송중근	문행식	김대기	과장 : 이후영/박상미/정진남 주임 : 강대호/김륭기, 직원 : 변종원
2005	송중근	문행식 최용근	김대기	과장 : 이후영/박상미/정진남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 직원 : 변종원
2006	송중근 김정수	최용근	김대기	과장 : 이후영/박상미/정진남, 주임 : 강대호/ 김륭기/ 신동호, 직원 : 변종원/지경희
2007	김정수	최용근	김대기	과장 : 이후영/박상미/정진남, 주임 : 강대호/ 김륭기/ 신동호, 직원 : 지경희※ 퇴직 : 이후영
	사무처장	행정지원부장	운동지원부장	직 원
2008	김정수	최용근	김대기	과장 : 박상미/박종대/정진남, 대리 : 지경희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직원 : 변종원 ※ 장수만 : 도지부 → 과천 → 도지부
2009	김정수	최용근 이광수	김대기	과장 : 박종대/정진남/김명선/이용한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 대리 : 지경희/이동효/장수만
2010	김정수	이광수	김대기	과장 : 김명선/이용한/정진남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 대리 : 지경희/이동효/장수만
2011	김정수 박상선	이광수 김대기	김대기 오관록	과장 : 김명선/정진남/이종서/이기호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 대리 : 지경희/이동효/장수만/김지훈 ※ 장수만 : 도지부 → 화성 → 도지부 ※ 이동효 : 도지부 → 군포 → 도지부
2012	박상선 한상배	김대기	오관록	과장 : 이종서/김명선/이기호/정진남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 대리 : 지경희/이동효/장수만/김지훈
2013	한상배 이광수	김대기 박상미	오관록	과장 : 이종서/김명선/이기호/유성일/정진남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 대리 : 지경희/이동효/장수만/김지훈
2014	이광수	박상미	강재훈	과장 : 이기호/정진남/이종서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 대리 : 지경희/이동효/장수만, 직원: 허숙희

	사무처장	행정지원부장	운동지원부장	직 원
2015	이광수	권민정	이종서	과장 : 이동효/김은영/정진남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 대리 : 지경희/이동효/장수만, 직원: 허숙희
2016	최태석 황창영	권민정	이종서	과장 : 이동효/김은영/정진남, 대리: 지경희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 직원: 허숙희
2017	황창영	권민정	이종서	과장 : 김은영/정진남, 대리: 지경희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 직원: 허숙희
2018	황창영	안성일	이종서 손형주	과장 : 김은영/황현균/정진남 주임 : 강대호/김륭기/신동호, 대리: 지경희 직원 : 허숙희/권용국
2019	황창영	윤선옥	손형주	과장 : 박종복/지경희/정진남, 대리 : 최선아 주임 : 강대호, 김륭기, 신동호, 직원 : 안지요
2020	황창영	배태용	이연화	과장 : 정찬건/박종복/지경희/정진남 대리 : 최선아, 주임 : 강대호, 김륭기, 신동호 직원 : 이소희

9. 역대 시군구 직원

가. 역대 새마을운동시군구지회 사무장(1984~) → 사무국장(1990~) : 연도별

	지 회 명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경 기 도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선관	김선관
1	수 원 시	임건식	임건식	임건식	임건식	임건식	임건식	임건식	임건식	임건식
2	고 양 시	김윤경	김윤경	김윤경	김윤경	김윤경	김윤경	김윤경	김윤경	김윤경
3	용 인 시	어윤강	어윤강	우종최	우종최	우종최	허 진	허 진	어윤강	어윤강
4	성 남 시	안일준	안일준	안일준	안일준	서찬규	정갑진	정해천	정해천	정해천
5	부 천 시	엄범용	엄범용	엄범용	이천영	이천영	이천영	홍국표	장 성	오주영
6	안 산 시	김기정	김기정	김기정	김기정	김기정	김기정	김기정	김기정	박용득
7	화 성 시	서원일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이길원	이길원	김인수	김인수
8	남양주시	서성복	서성복	이선래	이선래	이선래	이선래	이선래	이선래	이선래
9	안 양 시	이경호	유장석	유장석	유장석	유장석	유장석	유장석	서창식	서창식
10	평 택 시			조영행	조영행	최중문	최중문	최중문	최중문	최중문

	지 회 명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경 기 도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선관	김선관
11	의정부시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12	파 주 시	이범선	이범선	이범선	이범선	이범선	이범선	이범선	이범선	이범선
13	시 흥 시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14	김 포 시	권오윤	권오윤	권오윤	권오윤	권오윤	권오윤	권오윤	권오윤	권오윤
15	광 명 시	윤항근	윤항근	윤항근	윤항근	윤항근	윤항근	장순한	장순한	박창호
16	광 주 시	박종민	박종민	박종민	박승국	박승국	박승국	박승국	박승국	박승국
17	군 포 시						김위환	김위환	김위환	김위환
18	이 천 시	김경열	김경열	문윤규	문윤규	문윤규	문윤규	문윤규	문윤규	문윤규
19	오 산 시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20	하 남 시						김정렬	최상조	최상조	최상조
21	양 주 시	이근칠	이근칠	이근철	이근철	이근칠	이근철	이준우	이기덕	이기덕
22	구 리 시			안완식	안완식	안완식	안완식	안완식	안완식	안완식
23	안 성 시	김태원	김태원	김태원	김태원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24	포 천 시	김영돈	김영돈	김영돈	김영돈	김영돈	김영돈	김영돈	김영돈	김영돈
25	의 왕 시						최은진	최은진	문행식	문행식
26	여 주 시	박사선	변억식	원용각	원용각	원용각	원용각	원용각	원용각	원용각
27	양 평 군	김영걸	김영걸	윤호선	윤호선	윤호선	윤호선	윤호선	윤호선	윤호선
28	동두천시	김재훈	김재훈	김재훈	김재훈	김재훈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29	과 천 시	양종찬	윤주옥	윤주옥	윤주옥	윤주옥	이한억	정종태	정종태	정종태
30	가 평 군	신득성	신득성	신득성	신득성	신득성	신득성	신득성	신득성	신득성
31	연 천 군	채기창	채기창	채기창	채기창	채기창	채기창	채기창	채기창	채기창
32	송 탄 시	정영철	정영철	정영철	정영철	정영철	정영철	정영철	정영철	정영철
33	평 택 군	조영행	조영행	김종수	김종수	김종수	최승옥	최승옥	최승옥	최승옥
34	미 금 시						박현순	박현순	박현순	박현순
35	강 화 군	이영은	이영은	이영은	이영은	이영은	이영은	이영은	이영은	이영은
36	옹 진 군	차희륜	차희륜	차희륜	차희륜	차희륜	차희륜	차희륜	차희륜	차희륜
37	장 안 구						이병일	이병일	이병일	이병일
38	권 선 구						강선태	정해선	정해선	한상준
39	수 정 구						정해천	김선철	김선철	김선철
40	중 원 구						방보영	방보영	방보영	방보영
41	분 당 구									정해천

	지 회 명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경 기 도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학기	김선관	김선관
42	중구(원미구)					[중구]	이충인	이충인	장 성	김영길
43	남구(소사구)					[남구]	박기성	박기성	박기성	박기성

	지 회 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경 기 도	김길수	김길수	김길수	우태하	우태하	우태하	우태하	우태하	박상선
1	수 원 시	정종태	정종태	정종태	한상준	정해천	정해천	김인수	김인수	김인수
2	고 양 시	김윤경	김영길	김윤경	–	–	–	–	허경남	허경남
3	용 인 시	어윤강	어윤강	어윤강	박승국	박승국	박승국	박승국	한갑수	조병옥
4	성 남 시	이정학	이정학	정해천	정해천	이희영	이희영	정해천	정해천	정해천
5	부 천 시	김영길	김귀태	변창수	변창수	박영호	박영호	오희철	오희철	정광철
6	안 산 시	조재범	윤종영	방보영	정창운	정창운	한갑수	박창용	김기정	김기정
7	화 성 시	김인수	김인수	김인수	한상준	한상준	한상준	한상준	윤용섭	이창복
8	남양주시	이선래	–	이갑수	이갑수	이갑수	이갑수	–	김칠용	김칠용
9	안 양 시	서창식	문행식	서창식	서창식	서창식	서창식	서창식	서창식	정명진
10	평 택 시	최중문	최중문	최중문	최중문	최중문	구태덕	구태덕	구태덕	구태덕
11	의정부시	김해경	김해경	이후영	이후영	김해경	김해경	김해경	노혜정	노혜정
12	파 주 시	이범선	이범선	이범선	박상복	박상복	박상복	박상복	김흥기	김흥기
13	시 흥 시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정명진	원인재	김용수
14	김 포 시	권오윤	권오윤	권오윤	권오윤	김대형	–	유경석	유경석	유경석
15	광 명 시	전동구	전동구	문행식	문행식	한상준	–	백승대	백승대	백승대
16	광 주 시	박승국	이후영	박승국	양승호	양승호	양승호	양승호	양승호	양승호
17	군 포 시	김위환	김위환	김위환	구태덕	–	윤항근	윤항근	윤항근	곽광순
18	이 천 시	문윤규	문윤규	문윤규	문윤규	문윤규	문윤규	문윤규	문윤규	이승재
19	오 산 시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이정재	박종원	박종원
20	하 남 시	최상조	최상조	최상조	최상조	최상조	최상조	최상조	최상조	최상조
21	양 주 시	이기덕	이기덕	이기덕	이종서	이기덕	이기덕	이기덕	이기덕	장문성
22	구 리 시	안완식	안완식	김대형	김대형	김대형	–	–	이명순	이명순
23	안 성 시	김문수	김문수	구태덕	김종문	김영웅	김영웅	김영웅	김영웅	윤원기
24	포 천 시	김영돈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25	의 왕 시	김선철	심장래	정영철	–	–	–	안원영	안원영	안원영
26	여 주 시	원용각	원용각	원용각	–	–		곽재송	–	–

	지 회 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경 기 도	김길수	김길수	김길수	우태하	우태하	우태하	우태하	우태하	박상선
27	양 평 군	윤호선	윤호선	윤호선	윤호선	윤호선	윤호선	윤호선	윤호선	김명상
28	동두천시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이기덕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29	과 천 시	임건식	임건식	임건식	어윤강	박만균	박만균	한갑수	박승국	김지훈
30	가 평 군	신득성	신득성	신득성	–	–	–	–	–	–
31	연 천 군	채기창	채기창	채기창	–	–	–	–	이연화	이연화
32	송 탄 시	정영철	정영철							
33	평 택 군	최승옥	구태덕	구태덕						
34	미 금 시	박현순	이갑수	이갑수						
35	강 화 군	이영은	이영은	이영은						
36	옹 진 군	차희륜	차희륜	차희륜						
37	장 안 구	이병일	방보영					지회명	1993	1994
38	권 선 구	한상준	이창복				43	만안구	심장래	심장래
39	팔 달 구	한상준	한상준				44	동안구	서창식	서창식
40	수 정 구	정해천	원영규				45	원미구	최희진	오주영
41	중 원 구	방보영	박승국				46	소사구	오주영	최희진
42	분 당 구	원영규	원영규				47	오정구	김귀태	김윤경

	지 회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기 도	박상선	박상선	박상선	송중근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1	수 원 시	김인수	김인수	박종대	박종대	이창복	이창복	이창복	서건기	서건기
2	고 양 시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3	용 인 시	조병옥	조병옥	조병옥	조병옥	조병옥	조병옥	조병옥	조병옥	조병옥
4	성 남 시	정해천	정해천	정해천	정해천	정해천	정해천	정해천	정해천	정해천
5	부 천 시	정광철	한만승	정순호	정순호	박선주	박선주	박선주	박선주	박선주
6	안 산 시	민정화	민정화	이준규	이준규	박상규	노종완	곽광순	곽광순	곽광순
7	화 성 시	이창복	엄기은	엄기은	엄기은	엄기은	엄기은	엄기은	엄기은	엄기은
8	남양주시	유병출	배은주	배은주	김은선	김은선	김은선	김은선	김은선	김은선
9	안 양 시	문행식	문행식	이창복	고희완	고희완	고희완	고희완	고희완	고희완
10	평 택 시	오운교	정명진	김종훈	김종훈	김종훈	김종훈	강 석	강 석	강 석
11	의정부시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12	파 주 시	김흥기	김흥기	고삼열	고삼열	고삼열	고삼열	김우권	박정우	박정우
13	시 흥 시	김용수	조일환	정명진	정명진	양미금	양미금	양미금	양미금	양미금

	지 회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기 도	박상선	박상선	박상선	송중근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김정수
14	김 포 시	유경석	유경석	유경석	유경석	유경석	유경석	유경석	유경석	–
15	광 명 시	백승대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16	광 주 시	양승호	양승호	양승호	강승원	강승원	강승원	강승원	강승원	강승원
17	군 포 시	곽광순	곽광순	곽광순	곽광순	곽광순	곽광순	김종훈	김종훈	김종훈
18	이 천 시	이정호	이정호	남민우	남민우	남민우	남민우	남민우	남민우	남민우
19	오 산 시	박종원	박종원	박종원	박연원	박연원	박연원	박연원	김애순	김애순
20	하 남 시	최상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21	양 주 시	장문성	장문성	장문성	장문성	장문성	장문성	장문성	장문성	장문성
22	구 리 시	김용겸	김용겸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현동	이현동
23	안 성 시	이승휘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24	포 천 시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이명순	이명순
25	의 왕 시	안원영	이후영	정선주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26	여 주 시	김주남	임용기	조명식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27	양 평 군	김명상	김명상	김명상	김명상	김명상	김명상	김명상	전영희	전영희
28	동두천시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29	과 천 시	백남욱	백남욱	백남욱	송수빈	송수빈	송수빈	장수만	박종대	이남경
30	가 평 군	장복희	장복희	장복희	김회권	김회권	김회권	김회권	김회권	김회권
31	연 천 군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지 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기 도	박상선	한상배	이광수	이광수	이광수	최태석	황창영	황창영	황창영	황창영
1	수 원 시	서건기	서건기	서건기	서건기	서건기	서건기	서건기	서건기	서건기	서건기
2	고 양 시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
3	용 인 시	조병옥	조병옥	조병옥	조병옥	조동호	조동호	조동호	김태근	백국현	백국현
4	성 남 시	안남식	안남식	임영재	임영재	곽규봉	곽규봉	곽규봉	곽규봉	곽규봉	곽규봉
5	부 천 시	박선주	박선주	박선주	박선주	박선주	박선주	박선주	박선주	강승원	강승원
6	안 산 시	한숙희	한숙희	한숙희	한숙희	한숙희	한숙희	한숙희	한숙희	한숙희	한숙희
7	화 성 시	장수만	함영민	함영민	함영민	함영민	함영민	함영민	함영민	함영민	함영민
8	남양주시	김은선	김은선	장수만	김은선	김은선	김은선	김은선	김은선	김은선	김은선
9	안 양 시	고희완	고희완	고희완	고희완	고대원	고대원	고대원	고대원	고대원	고대원
10	평 택 시	최시영	최시영	최시영	최시영	홍사곤	정경희	정경희	정경희	정경희	정경희
11	의정부시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지 회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기 도	박상선	한상배	이광수	이광수	이광수	최태석	황창영	황창영	황창영	황창영
12	파 주 시	박정우	박정우	박정우	임강영	임강영	임강영	임강영	임강영	임강영	임강영
13	시 흥 시	양미금	양미금	양미금	양미금	양미금	양미금	양미금	양미금	양미금	양미금
14	김 포 시	–	–	–	이춘애	이춘애	이춘애	이춘애	이춘애	이춘애	이춘애
15	광 명 시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16	광 주 시	강승원	강승원	강승원	강승원	강승원	강승원	강승원	강승원	박선주	박선주
17	군 포 시	김종훈	김병우	김병우	김병우	–	오현철	오현철	오현철	장문성	오현철
18	이 천 시	곽영홍	민호기	민호기	민호기	민호기	민호기	민호기	민호기	이승희	이승희
19	오 산 시	김애순	김애순	김애순	김애순	김애순	김애순	김애순	김애순	김애순	김애순
20	하 남 시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강경조
21	양 주 시	장문성	장문성	장수만	유용희	노현수	최장규	최장규	최장규	최장규	최장규
22	구 리 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23	안 성 시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유영일	이정형	이정형
24	포 천 시	이현동	이현동	이현동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이미경
25	의 왕 시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문상윤
26	여 주 시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강경원
27	양 평 군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전영희
28	동두천시	이종서	송봉섭	유광혁	유광혁	유광혁	유광혁	유광혁	손덕환	김종윤	김종윤
29	과 천 시	이남경	이남경	이남경	이남경	이남경	이남경	이남경	이남경	이남경	이남경
30	가 평 군	김회권	김회권	김회권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장지안
31	연 천 군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장문성	장문성	장문성	장문성	장문성	오현철	김형순

※ 중앙회에서 경기도 시군지회에 파견된 직원 : 17시군구 26명

권선(강선태), 성남(정갑진, 이정학, 이희영), 부천(변창수, 박영호, 정광철), 남양주(이갑수), 안산(박용득, 조재범, 정창운), 안양(이병국), 의정부(이후영), 시흥(원인재, 김용수), 김포(김대형), 광명(박창호, 전동구), 광주(이후영), 군포(윤항근), 하남(김정렬), 구리(김대형), 의왕(이후영), 과천(이한억, 박만균), 미금(이갑수)

나. 역대 시군구 사무장(사무국장)

	지 회 명	1	2	3	4	5	6	7	8	9
1	수 원 시	임건식	정종태	한상준	정해천	김인수	박종대	이창복	서건기	
2	고 양 시	김윤경	김영길	김윤경	허경남					
3	용 인 시	어윤강	우종최	허진	어윤강	박승국	한갑수	조병옥	조동호	김태근
		백국현								
4	성 남 시	안일준	서찬규	정갑진	정해천	이정학	정해천	이희영	정해천	안남식
		임영재	곽규봉							
5	부 천 시	엄범용	이천영	홍국표	장성	오주영	김영길	김귀태	변창수	박영호
		오희철	김영길	정광철	한승만	정순호	박선주	강승원		
6	안 산 시	김기정	박용득	조재범	윤종영	방보영	정창운	한갑수	박창용	김기정
		민정화	이준규	박상규	노종완	곽광순	한숙희			
7	화 성 시	서원일	이정재	이길원	김인수	한상준	윤용섭	이창복	엄기은	장수만
		함영민								
8	남양주시	서성복	이선래	이갑수	김칠용	유병출	배은주	김은선	장수만	김은선
9	안 양 시	이경호	유장석	이병국	서창식	문행식	서창식	정명진	문행식	이창복
		고희완	고대원							
10	평 택 시	조영행	최중문	구태덕	오운교	정명진	김종훈	강 석	최시영	홍사곤
		정경희								
11	의정부시	김해경	이후영	김해경	노혜정					
12	파 주 시	이범선	박상복	김흥기	고삼열	김우권	박정우	임강영		
13	시 흥 시	정명진	원인재	김용수	조일환	정명진	양미금			
14	김 포 시	권오윤	김대형	유경석	이춘애					
15	광 명 시	윤항근	장순한	박창호	전동구	문행식	한상준	백승대	조연희	
16	광 주 시	박종민	박승국	이병일	이후영	황익구	박승국	양승호	강승원	박선주
17	군 포 시	김위환	구태덕	윤항근	곽광순	김종훈	이동효	김병우	오현철	장문성
		오현철								
18	이 천 시	김경렬	문윤규	이승재	이정호	남민우	곽영홍	민호기	이승희	
19	오 산 시	이정재	박종원	박연원	김애순					
20	하 남 시	김정렬	최상조	강경조						
21	양 주 시	이근칠	이준우	이기덕	이종서	이기덕	장문성	장수만	유용희	노현수
		최장규								
22	구 리 시	안완식	김대형	이명순	김용겸	이명순	이현동	이명순		
23	안 성 시	김태원	김문수	구태덕	양문규	김영웅	윤원기	이승휘	유영일	이정형

	지 회 명	1	2	3	4	5	6	7	8	9
24	포 천 시	김영돈	이현동	이명순	이현동	이미경				
25	의 왕 시	최은진	문행식	김선철	심장래	정영철	안원영	이후영	정선주	문상윤
26	여 주 시	박사선	변억식	원용각	곽재송	김주남	임용기	조명식	강경원	
27	양 평 군	김영걸	윤호선	김명상	전영희					
28	동두천시	김재훈	이종서	이기덕	이종서	송봉섭	유광혁	손덕환	김종윤	
29	과 천 시	양종찬	윤주옥	이한억	정종태	임건식	어윤강	박만균	한갑수	박승국
		김지훈	백남옥	송수빈	장수만	박종대	이남경			
30	가 평 군	신득성	장복희	김회권	이연화	장지안				
31	연 천 군	채기창	이연화	장문성	오현철	김형순				

다. 역대 시군구지회 별정직/기능직/지도담당(지도직)/지도과장 : 연도별

	지 회 명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	수 원 시	김미자	김미자	김미자	김미자	김영신	김영신	김영신	진선옥	진선옥
2	고 양 시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3	용 인 시	안선희	안선희	안선희	안선희	임선희	임선희	임선희	석화선	석화선
4	성 남 시	양은순	양은순	양은순	양은순	양은순	양은순	양은순	양은순	양은순
5	부 천 시	박은숙	박은숙	박은숙	박은숙	조현주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6	안 산 시	시옥란	시옥란	시옥란	시옥란	시옥란	시옥란	시옥란	강신숙	전효순
7	화 성 시	진선옥	진선옥	진선옥	진선옥	진선옥	진선옥	진선옥	정교성	방은주
8	남양주시	박정옥	박정옥	박정옥	박정옥	박정옥	박정옥	박연희	박연희	박연희
9	안 양 시	김태화	김태화	김태화	김태화	김태화	김태화	김태화	김태화	김태화
10	평 택 시			양혜정	박미라	윤명희	김리정	고현정	고현정	고현정
11	의정부시	조연옥	조연옥	조연옥	조연옥	조연옥	조연옥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12	파 주 시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선희	김정화	김정화
13	시 흥 시	안향분	안향분	안향분	안향분	안향분	함주아	함주아	함주아	함주아
14	김 포 시	신현례	신현례	박복임	오성란	오성란	오성란	오성란	오성란	오성란
15	광 명 시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16	광 주 시	이정옥	이정옥	이정옥	박애자	김경란	김경란	김경란	강혜선	박희연
17	군 포 시						박희숙	박희숙	박희숙	박희숙
18	이 천 시	김양수	김양수	오미경	윤명희	윤명희	방화영	방화영	방화영	방화영
19	오 산 시						신소영	신소영	신소영	박민원

	지 회 명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20	하 남 시						이숙희	이숙희	이숙희	이숙희
21	양 주 시	이인옥	이인옥	이인옥	이인옥	이인옥	이인옥	이인옥	한미진	한미진
22	구 리 시			김양순	김양순	김양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23	안 성 시	김희경	김희경	김희경	김희경	김희경	안영순	안영순	안영순	안영순
24	포 천 시	안명숙	안명숙	안명숙	정승숙	정승숙	정승숙	정승숙	정승숙	유선영
25	의 왕 시						안선영	신해경	신해경	신해경
26	여 주 시	유승진	유승진	유승진	유승진	유승진	김금수	김금수	김금수	홍정애
27	양 평 군	김연욱	안경자	안경자	안경자	지미정	지미정	지미정	지미정	지미정
28	동두천시	홍순천	홍순천	홍순천	김하순	한명희	조현희	조현희	이복희	이복희
29	과 천 시	김현우	김현우	김현우	김현우	김현우	김현우	남궁경애	남궁경애	이영희
30	가 평 군	권현선	권현선	권현선	권현선	이향우	이향우	장복희	장복희	장복희
31	연 천 군	유경애	유경애	유경애	유경애	유영림	유영림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32	송 탄 시	최은희	최은희	최은희	최은희	조경선	배진영	김윤선	김윤선	김윤선
33	평 택 군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김정미	이재영	이재영	이재영	이재영	이월남
34	미 금 시						김경자	김경자	김경자	김경자
35	강 화 군	윤현주	윤현주	유경자	유경자	유경자	우자선	우자선	김선숙	김선숙
36	옹 진 군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이상미	김향숙	김향숙	김향숙
37	장 안 구						김효현	김효현	김효현	김효현
38	권 선 구						최명희	최명희	홍성순	홍성순
39	수 정 구						이상희	이명식	이명식	이명식
40	중 원 구						이용숙	이용숙	이용숙	이용숙
41	분 당 구									정미경
42	중구(원미구)					[중구]	이상미	이상미	안정희	이선기
43	남구(소사구)					[남구]	김옥순	김옥순	조현주	조현주

	지 회 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	수 원 시	진선옥	진선옥	진선옥	김영실	김영실	주현정	주현정	주현정	주현정
2	고 양 시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허경남	–	–
3	용 인 시	석화선	석화선	–	유용희	유용희	유용희	유용희	유용희	유용희
4	성 남 시	양은순	양은순	김순규	이순경	이순경	이순경	이순경	이순경	이순경
5	부 천 시	이명순	권미선	김선정	조광신	조광신	조광신	조광신	조광신	조광신
6	안 산 시	전효순	이정숙	이정숙	이정숙	이정숙	민정화	민정화	민정화	민정화
7	화 성 시	방은주	방은주	방은주	정수진	정수진	정수진	한미경	한미경	한미경

	지회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8	남양주시	박연희	박연희	박연희	박연희	박연희	박연희	박연희	박연희	최영옥
9	안양시	김태화	우은혜	이현경	안영혜	안영혜	안영혜	안영혜	안영혜	안영혜
10	평택시	고현정	고현정	김윤선	남미우	남미우	남미우	남미우	남미우	남미우
11	의정부시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노혜정	김해경	김해경
12	파주시	김정화	한선주	한선주	권기령	권기령	권기령	권기령	권기령	권기령
13	시흥시	함주아	함주아	함주아	함주아	함주아	함주아	함주아	양미금	양미금
14	김포시	오성란	오성란	오성란	오성란	오성란	오성란	오성란	정은주	정은주
15	광명시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조연희
16	광주시	박희연	박희연	박희연	곽경희	곽경희	곽경희	곽경희	곽경희	곽경희
17	군포시	박희숙	박희숙	고현정	한지애	한지애	한지애	한지애	한지애	한지애
18	이천시	이정화	이정화	이정화	오희숙	오희숙	오희숙	오희숙	오희숙	오희숙
19	오산시	박민원	박민원	이월남	최문영	최문영	최문영	최문영	김정미	김정미
20	하남시	이숙희	이숙희	이숙희	김현선	김현선	김현선	김현선	김현선	김현선
21	양주시	한미진	한미진	이정순	이정순	이정순	이정순	이정순	이정순	이정순
22	구리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이명순		
23	안성시	안영순	안영순	황선옥	황선옥	황선옥	황선옥	황선옥	황선옥	황선옥
24	포천시	유선영	유선영	유선영	전화선	전화선	전화선	전화선	전화선	전화선
25	의왕시	정선주	정선주	정선주	정선주	정선주	정선주	정선주	정선주	정선주
26	여주시	홍정애	홍정애	홍정애	홍정애	홍정애	홍정애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27	양평군	지미정	이보경	이보경	최미진	최미진	최미진	최미진	최미진	최미진
28	동두천시	이복희	이복희	이복희						
29	과천시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민숙	이민숙
30	가평군	장복희	장복희	장복희	장복희	장복희	장복희	장복희	장복희	장복희
31	연천군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이연화	–	–
32	송탄시	김윤선	김윤선							
33	평택군	이월남	이월남							
34	미금시	김경자	김경자							
35	강화군	김선숙	김선숙							
36	옹진군	김향숙	김향숙							
37	장안구	김효현	최인숙	진선옥			지 회 명	1993	1994	1995
38	권선구	홍성순	김선정	민선영		43	만 안 구	김윤경	김윤경	우은혜
39	팔달구	김미경	김미경			44	동 안 구	이현경	이현경	
40	수정구	나미정	도숙경	양은순		45	원 미 구	이선기	권미선	임현신

	지 회 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41	중 원 구	이용숙	이용숙			46	소사구	조현주	임현신	김선정
42	분 당 구	정미경	김순규	지연옥		47	오정구	이명순	이명순	이용숙

라. 역대 새마을운동시군구지회 일반직(1984~1988)

	시 군 명	1984	1985	1986	1987	1988	직제폐지로 인한 처분
1	수 원 시	이병일	이병일	이병일	이병일	이병일	의원면직(신문사 지사장)
2	고 양 시	김낙희	김낙희	김낙희	김낙희	김낙희	공무원 전직(원당읍, 9급)
3	용 인 시	정구일	정구일	정구일	정구일	정구일	공무원 전직(외사면, 9급)
4	성 남 시	유현경	유현경	유현경	유현경	유현경	공무원 전직(태평2동, 8급)
5	부 천 시	이우민	이우민	이우민	이우민	이우민	공무원 전직(남구청, 9급)
6	안 산 시	박승한	박승한	박승한	박승한	박승한	의원면직
7	화 성 시	황순선	황순선	황순선	황순선	황순선	의원면직
8	남양주시	박상혁	박상혁	박상혁	박상혁	박상혁	의원면직(마석면, 청경)
9	안 양 시	문행식	문행식	김재원	한영섭	한영섭	공무원 전직(하수과, 고용직)
10	평 택 시			황승영	황승영	황승영	공무원 전직(시민과, 고용직)
11	의정부시	전진표	전진표	전진표	전진표	전진표	공무원 전직(장곡동, 9급)
12	파 주 시	우종철	우종철	송화식	송화식	송화식	공무원 전직(문산읍, 고용직)
13	시 흥 시	서인걸	서인걸	임익빈	임익빈	임익빈	공무원 전직(새마을과, 고용직)
14	김 포 시	양재창	양재창	양재창	조성민	조성민	공무원 전직(새마을과, 고용직)
15	광 명 시	김종복	김종복	김종복	김종복	김종복	공무원 전직(광명2동, 9급)
16	광 주 시	박승국	박승국	이상득	이상득	이상득	의원면직(서부면, 청경)
17	이 천 시	최윤섭	최윤섭	최윤섭	곽영홍	곽영홍	의원면직
18	양 주 시	이기덕	이기덕	이기덕	이기덕	이기덕	공무원 전직(백석면, 9급)
19	구 리 시			이강해	이강해	이강해	공무원 전직(교도소 교도주임)
20	안 성 시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	사무장 전직
21	포 천 시	김병남	김병남	김병남	김병남	김병남	공무원 전직(포천읍, 9급)
22	여 주 시	권재완	권재완	권재완	권재완	권재완	공무원 전직(여주읍, 9급)
23	양 평 군	김연욱	김연욱	김연욱	김연욱	김연욱	공무원 전직(양평읍, 9급)
24	동두천시	박인범	박인범	이종서	이종서	이종서	사무장 전직
25	과 천 시	강신홍	강신홍	강신홍	강신홍	강신홍	공무원 전직(과천동, 9급)
26	가 평 군	박영회	박영회	박영회	박영회	박영회	공무원 전직(북면, 9급)
27	연 천 군	조동형	양태모	양태모	양태모	양태모	공무원 전직(연천읍, 9급)

	시 군 명	1984	1985	1986	1987	1988	직제폐지로 인한 처분
28	송 탄 시	최원흥	최원흥	최원흥	최원흥	최원흥	공무원 전직(지산동, 8급)
29	평 택 군	하성룡	하성룡	장호성	장호성	장호성	공무원 전직(팽성읍, 9급)
30	강 화 군	전중석	전중석	전중석	전중석	전중석	공무원 전직(불은면, 9급)
31	옹 진 군	송규호	송규호	송규호	송규호	송규호	의원면직

※ 공무원전직

1988. 12. 31. 시군지회의 일반직 폐지(사무장-별정직 체제)로
3년 이상 경력자는 공무원 9급 이상, 3년 이하는 고용직 등으로 특채

10. 연도별 정부 포상자

가. 대한민국 정부 훈장 · 포장

종류 · 등급		자 격	종류 · 등급		자 격
무궁화대훈장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수교훈장	1. 광화대장 · 광화장 2. 흥인장 3. 숭례장 4. 창의장 5. 숙정장	국권의 신장 및 우방의 친선과 공헌에 공헌이 뚜렷한 자
건국훈장	1. 대한민국장 2. 대통령장 3. 독립장 4. 애국장 5. 애족장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산업훈장	1. 금탑 2. 은탑 3. 동탑 4. 철탑 5. 석탑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국민훈장	1. 무궁화장 2. 목단장 3. 동백장 4. 목련장 5. 석류장	정치 · 경제 · 교육 ·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새마을훈장	1. 자립장 2. 자조장 3. 협동장 4. 근면장 5. 노력장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무공훈장	1. 태극 2. 을지 3. 충무 4. 화랑 5. 인헌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문화훈장	1. 금관 2. 은관 3. 보관 4. 옥관 5. 화관	문화 · 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종류 · 등급		자 격	종류 · 등급		자 격
근정훈장	1. 청조 2. 황조 3. 홍조 4. 녹조 5. 옥조	공무원(군인 · 군속 제외) 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	체육훈장	1. 청룡장 2. 맹호장 3. 거상장 4. 백마장 5. 기린장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보국훈장	1. 통일장 2. 국선장 3. 천수장 4. 삼일장 5. 광복장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포장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훈장 다음가는 훈격

나. 새마을운동 유공 포상자 총괄

	계	훈장 · 포장					기 타	
		자조(립)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포 장	대통령	국무총리
계	1,348	10	66	117	138	251	380	386
1971	3					2	1	
1972	28				2(석류장)	2	24	
1973	7		2	2	2	1		
1974	18		1	6	2	3	6	
1975	14	1	2	3		4	4	
1976	19	2(자립장1)	2	3	4	4	4	
1977	21		7	4		5	5	
1978	26		3	8	5	6	3	1
1979	24		3	7	2	9	3	
1980	46		4	6	8	13	11	4
1981	46		3	9	10	15	6	3
1982	47		1	7	13	13	9	4
1983	50		4	7	16	15	5	3

	계	훈장 · 포장					기 타	
		자조(립)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포 장	대통령	국무총리
계	1,348	10	66	117	138	251	380	386
1984	53		3	9	9	15	8	9
1985	55		3	5	13	14	9	11
1986	43		2	7	7	10	9	8
1987	72		3	4	14	18	18	15
1988	24					11	7	6
1989	15				1	3	5	6
1990	19			2	1	3	7	6
1991	24		1	2	2	3	8	8
1992	30		1		3	7	12	7
1993	23			2	1	3	6	11
1994	16			1		2	6	7
1995	15	1				1	4	9
1996	29			1	3	3	9	13
1997	51	1	1	2	2	4	18	23
1998	26		2	1	1	2	12	8
1999	32		1	1		3	10	17
2000	28		1	2		1	12	12
2001	31			1	1	5	8	16
2002	23		2		2	2	8	9
2003	26		1	2	1	2	9	11
2004	23		1		1	4	7	10
2005	16	1		1	1	1	7	5
2006	19			1	2	1	6	9
2007	17			1	2	2	5	7
2008	30		1		2	3	10	14
2009	28		1	1	1	4	9	12
2010	29	1	1		1	4	10	12
2011	26		1	1		3	9	12
2012	24	1		2		3	9	9
2013	22		2		1	3	5	11

	계	훈장 · 포장					기 타	
		자조(립)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포 장	대통령	국무총리
계	1,348	10	66	117	138	251	380	386
2014	22		1	1		2	8	10
2015	21		1	1		2	7	10
2016	21		1	1	1	3	7	8
2017	21	1	1	2		3	5	9
2018	22	1	1			4	6	10
2019	23		1	1	1	5	4	11

다. 연도별 새마을운동 유공 포상자

1971 (3명)	[포장]–2명 김준영(양주, 수동)–국민포장 이성열(경기, 농촌지도자연합회)–산업포장	[대통령표창]–1명 양주 수동 운수1(단체)
1972 (28명)	[훈장]–2명 김종원(용인, 남사)–국민석류장 이윤승(양주, 진접)–국민석류장 [포장]–2명 이기성(이천, 이천)–국민포장 이재영(이천, 이천농협)–국민포장 [대통령표창]–24명 이규복(남양주, 수동중학교) 조규진(동두천, 문고) 최연춘(의정부 녹양, 지역) 수원시 평동 평리부락(단체) 의정부시 가능1동(단체) 양주군 미금면 호평리(단체) 여주군 능서면 신지2리(단체) 평택군 진위면 은산2리(단체) 화성군 팔탄면 가재3리(단체)	시흥군 수암면 장하리(단체) 부천군 계양면 목상리(단체) 파주군 주내면 봉암1리(단체) 고양군 벽제면 관산2리(단체) 광주군 오포면 양벌2리(단체) 광주군 낙생면 구밀리(단체) 연천군 군남면 진상2리(단체) 포천군 군내면 용정1리(단체)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단체) 이천군 장호원읍 엇리(단체) 용인군 남사면 통삼리(단체) 안성군 미양면 후평리(단체) 김포군 월곳면 귀전리(단체) 강화군 길상면 길지리(단체) 옹진군 백령면 대청리(단체)
1973 (7명)	[훈장]–6명 김용기(광주, 가나안농군학교)–협동장 이수호(김포 김포 풍리, 지역)–협동장	이상열(안성 보개 기율, 지역)–근면장 조득형(포천 신북 가채2, 지역)–근면장 배영섭(양주 은현 상패2, 지역)–노력장

	서항석(양평 청운 삼성, 지역)–노력장	[포장]–1명 이종란(김포 오정 약대, 부녀)
1974 (18명)	[훈장]–9명 강순구(양주 동두천 하봉암1, 지역)–협동장 김창배(화성 향남 평리, 지역)–근면장 김학성(광주 동부 망월, 지역)–근면장 전영훈(옹진, 부천어협)–근면장 조기철(화성 송산 고포1, 지역)–근면장 함연홍(양평 청운 비룡2, 지역)–근면장 황창윤(시흥 의왕 왕곡, 부녀)–근면장 이명호(평택 송탄 서정, 농민)–노력장 이순섭(양주 동두천 생연, 농민)–노력장	[포장]–3명 박승대(평택 고덕 율포1, 지역) 장정수(안성 보개 곡천, 지역) 한기수(화성 서신 송교, 지역) [대통령표창]–6명 김형문(양주 광적 덕도, 지역) 변기준(화성 양감 사창, 지역) 양준택(화성 봉담 상리, 지역) 광주군 동부면 망월리(단체) 이천군 장호원읍 이황리–이천단지(단체) 시흥군 수암면 상하1리(단체)
1975 (14명)	[훈장]–6명 홍순일(용인 남사, 지역)–자조장 원용진(여주 강천, 지역)–협동장 홍순일(강화, 하점국교)–협동장 김영진(여주 여주 단현, 농민)–근면장 임종만(화성 동탄 금곡, 지역)–근면장 최왕기(안성 공도 하용두, 지역)–노력장	[포장]–4명 박숙명(강화 화도 하1, 농민) 안병현(광주 도척 궁평, 지역) 이종섭(파주 주내 봉암3, 지역) 조현상(연천군 공무원) [대통령표창]–4명 김일수(경기도 농촌지도자중앙회) 전영찬(평택 평택) 안성쌀 대단위 증산단지(단체) 여주 성화리 성자 집단재배단지(단체)
1976 (19명)	[훈장]–11명 김 준(새마을지도자연수원)–자립장 이완석(남양주 구리 수택, 지역)–자조장 김기호(평택 송탄 칠원1, 지역)–협동장 이영섭(안성 일죽 금산, 지역)–협동장 김도창(강화 길상 온수, 지역)–근면장 김영제(경기도, 공무원)–근면장 이병화(용인 기흥 고매, 농민)–근면장 박홍선(부천 소사 영신, 지역)–노력장 백인홍(용인 외사 백봉2, 지역)–노력장 안병희(광주 퇴촌 정지, 지역)–노력장 임충승(화성, 발안천주교회)–노력장	[포장]–4명 이인용(양평 양동 삼선1, 지역) 김준규(농촌진흥청, 공무원) 임낙순(경기도, 공무원) 이정규(경기도, 공무원) [대통령표창]–4명 윤삼효(안양 비산, 지역) 평택군 송탄읍 칠원1리(단체) 재향군인회 파주군분회(단체) 시흥 과천 삼포새마을(단체)

1977 (21명)	[훈장]–11명 곽정현(새마을지도자연수원)–협동장 손관형(인천, 인천제철)–협동장 송상득(고양 벽제 관산2, 지역)–협동장 오성철(옹진 영흥 선재, 어민)–협동장 윤규돈(용인, 백암단협)–협동장 이완석(양주 구리 수택1, 지역)–협동장 김두기(안양, 동일방직)–노력장 김만순(의정부 용현, 지역)–근면장 민명진(이천 이천 중1, 부녀)–노력장 이관영(시흥 소래 계수2, 지역)–노력장 이종훈(성남 금곡 구미4, 지역)–노력장	[포장]–5명 김한석(여주 능서 마대, 지역) 목영직(옹진 영흥 내5, 어민) 이용섭(수원 권선, 지역) 이철우(화성 반월 입북2, 지역) 박상호(경기도, 공무원) [대통령표창]–5명 용인군 외사 백암 단위조합(단체) 고양군 벽제면 관산2리(단체) 옹진군 영흥면 선재어촌(단체) 인일여자고등학교(단체) 안양상공회의소(단체)
1978 (26명)	[훈장]–16명 김충배(성남, 삼영전자)–협동장 오병철(양평, 양평종고)–협동장 홍성직(화성 팔탄 노히3, 지역)–협동장 강연구(성남, 삼영전자)–근면장 권순종(새마을지도자연수원)–근면장 김동필(안성, 미양단협)–근면장 김영준(양주 동면 원당, 지역)–근면장 김재수(강화문화원)–근면장 김정근(시흥, 대한전선)–근면장 박기택(인천 계산, 지역)–근면장 홍범수(화성 남양 온석, 지역)–근면장 정용송(부천 심곡 지역)–노력장 조성휘(광주 동부 신장, 지역)–노력장 이재창(이천 신둔 소형, 지역)–노력장 유철영(용인 내사 주복, 민간)–노력장 이시우(수원 선경합섬)–노력장	[포장]–6명 김병환(안성 일죽 능국, 지역) 문순모(경기, 새마을금고) 박귀석(양주 광적 비암, 지역) 송남호(인천 북구 산곡1, 지역) 정재원(농촌진청청, 공무원) 한세권(경기도, 공무원) [대통령표창]–3명 신용균(안양, 금성통신) 이순용(의정부 가능1, 지역) 안양 협심새마을금고(단체) [국무총리표창]–1명 배태규(성남 야탑, 지역)
1979 (24명)	[훈장]–12명 박형진(시흥 군자 정왕6, 부녀)–협동장 전홍녀(부천 심곡, 부녀)–협동장 이재석(새마을지도자연수원)–협동장 김상문(성남 수진, 지역)–노력장 김일주(안양, 새마을교육원)–근면장 백낙현(화성 우정 석천, 농민)–근면장	이경재(안양 성 나자로마을)–근면장 이병만(화성 동탄 영천, 지역)–근면장 이제율(의정부 가능2, 금고)–근면장 양봉삼(경기, 금고 사무국장)–근면장 조경묵(용인 이동 화산, 지역)–노력장 허인희(의정부, 대한펄프)–노력장

	[포장]–9명 고상언(서흥화학공업) 김영완(인천 중구 송월, 지역) 김청일(인천 남구 용현1동, 금고) 김학동(광주 에스콰이어) 오원탁(선일포도당공업) 이영득(시흥 소래 포1, 지역) 한창이(안양 쌍용제지) 함기정(양평 양동 매월, 지역) 홍대건(경기, 도지부 위원) [대통령표창]–3명 경기도 안성군 경기도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탁두리	
1980 (46명)	[훈장]–18명 박영찬(인천 신흥2동, 지역)–협동장 오경환(안양, 새마을금고)–협동장 정교관(새마을지도자연수원)–협동장 최구연(동양정밀공업)–협동장 변원신(안양 안양3, 지역)–근면장 오상근(경기, 공장 사무국장)–근면장 유봉춘(연천 연천 차탄2, 지역)–근면장 조광준(광주 광주 역리, 민간)–근면장 최난영(이천 신돈 도봉, 부녀)–근면장 허 섭(경기, 공무원)–근면장 양상종(포천 내촌 지현, 지역)–노력장 윤삼효(안양, 금성전선)–노력장 이덕배(수원 구천, 지역)–노력장 이정의(인천 한국농약)–노력장 전영찬(평택 평택 평택3, 지역)–노력장 정동욱(안성 서운 현매, 지역)–노력장 정종흔(경기도, 공무원)–노력장 조영순(양주 은현, 문고)–노력장 [포장]–13명 구자인(의정부 호원, 지역) 남상만(인천 크로바백화점) 복명산(가평 상면 연하, 지역)	손봉수(파주 문산 문산, 지역) 우해수(여주 흥천 계산, 지역) 유만종(김포 김포 걸포, 지역) 이병직(부천 심곡1, 지역) 이진종(안양 새마을교육원) 이종대(의정부 새마을금고) 장정호(인천 제일제당) 최준석(경기 농협중앙회) 허 휴(동신화학) 홍사응(화성 남양단협) [대통령표창]–11명 김성일(과천 별양) 김진택(평택군, 공무원) 신대영(양주군, 공무원) 이영찬(양평군, 공무원) 조광훈(농촌진흥청, 공무원) 이재형(포천군 공무원) 이정구(여주군, 공무원) 최수봉(평택군, 공무원) 파주군 탄현면 중앙교회(단체) 화성군 비봉면 양노3리(단체) 정우상호신용금고(단체)

	[국무총리표창]–4명 박상우(과천 별양, 지역) 박재형(양평, 지역) 양광석(과천 별양, 지역) 양인순(과천 과천, 부녀)	
1981 (46명)	[훈장]–22명 권오윤(김포, 상록문고)–협동장 이시형(부천 심곡1, 지역)–협동장 조병상(용인 수지 풍덕천2, 지역)–협동장 강호준(수원, 선경합섬)–근면장 김기명(새마을지도자연수원)–근면장 김세운(공장새마을수원추진지부)–근면장 김인석(김포 월곳 서남, 지역)–근면장 김정대(안양문화원)–근면장 박인룡(광주 서부 감북, 지역)–근면장 이수창(남양주 와부 율석, 지역)–근면장 진천용(이천, 동양맥주)–근면장 최진선(강화 강화 국화, 농민)–근면장 김성식(이천 부발 송온, 지역)–노력장 김종인(안양 안양 지역)–노력장 박용렬(강화 길상 동검, 지역)–노력장 성천순(시흥 의왕 오전2, 부녀)–노력장 안재문(안산 대륙전선)–노력장 양재호(포천 군내 하성북, 농민)–노력장 장근택(인천 인천제철)–노력장 최정희(평택 서탄 사리, 부녀)–노력장 김형국(농촌진흥청, 공무원)–노력장 조창희(안양시, 공무원)–노력장 [포장]–15명 고종호(부천, 삼보금속) 김중기(수원 세류, 부녀) 김용우(성남 태평2, 지역) 문성규(의정부, 직장) 박상순(안성 양성 산정, 지역) 박승임(옹진 영흥 내리, 부녀) 서유성(남양주 구리 사노2, 지역) 양창갑(시흥, 시흥캅셀)	이성일(성남, 샤니) 이영재(여주 여주 점봉, 지역) 조만옥(광주 광주 목현. 농민) 전태환(시흥 의왕, 나자로마을) 정광현(화성 정남 관항2, 지역) 정방훈(양주 회천 을정, 농민) 고인식(여주군, 공무원) [대통령표창]–6명 노일양(전국주부교실중앙회 경기지부) 송석안(남부천초등학교) 이병두(의정부, 평안운수) 강성철(연천군, 공무원) 이계진(경기도, 공무원) 이한수(화성군, 공무원) [국무총리표창]–3명 송만순(의정부 가능2, 지역) 심규섭(광명 소하2, 지역) 광명시요식업조합(단체)

1982 (47명)	[훈장]–21명 임일선(용인 기흥 공세, 지역)–협동장 백옥현(양평 양동 삼산2, 부녀)–근면장 윤항근(광명 문고, 국장)–근면장 이동진(송탄 신장, 지역)–근면장 이은혜(안양 안양2동, 부녀)–근면장 정봉선(안성 보개 신안, 지역)–근면장 최재균(고양 송포 법곳, 지역)–근면장 고일웅(농촌진흥청, 공무원)–근면장 김영웅(시흥 군자 정왕6, 지역)–노력장 김원기(평택 현덕 신왕1, 지역)–노력장 김종철(수원, 직장 사무국장)–노력장 김중시(부평, 풍산금속)–노력장 서승구(연천, 청산단협)–노력장 이계남(성남 제1새마을금고)–노력장 이도훈(여주 여주 금사, 청소년)–노력장 이인형(동서교통)–노력장 이현식(새마을지도자연수원)–노력장 임대웅(평택 평택 평택, 지역)–노력장 정영철(평택 신장2 지역)–노력장 정형주(성남 태평, 지역)–노력장 차순만(강화 하점 창후, 청소년)–노력장 [포장]–13명 김옥현(남양주 진건 진관, 지역) 백인현(옹진 영종 운남, 지역) 박건하(의정부 의정부2, 지역)	윤봉진(수원, 청소년) 정화숙(강화 화점 양오, 부녀) 최진원(화성 태안, 청소년) 한광수(화성, 문고) 홍대의(이천 대월 대포, 지역) 홍재준(수원 연무, 지역) 황상찬(용인, 일양약품신갈) 김윤식(경기도 교육위원회, 공무원) 이용국(이천군 공무원) 주기호(평택군 공무원) [대통령표창]–9명 곽병환 김주긍(남양주 구리 교문, 지역) 이금성(수원시다방업협동조합) 여주농업고등학교(단체) 평택군 소양새마을(단체) 평택군 포승면 석정리(단체) 강보원(동두천시, 공무원) 이근태(여주군, 공무원) 윤영조(시흥군, 공무원) [국무총리표창]–4명 김기석(광명, 화영운수) 김영득(파주 적성 설마, 지역) 송우섭(안양 5동, 지역) 송후석(용인 역북, 지역)
1983 (50명)	[훈장]–27명 김삼석(삼풍)–협동장 박경식(여주, 여주농고)–협동장 오태근(연천전곡 신답2, 지역)–협동장 조상호(성남 신흥, 지역)–협동장 공선택(화성 우정 이화, 지역)–근면장 김완식(강화 송해 당산, 지역)–근면장 서용범(안성 안성 구포, 지역)–근면장 이교일(송탄 동부 6통, 지역)–근면장 이상순(양주 회천 율정, 부녀)–근면장 정해린(세라아트공업)–근면장	최희두(광주, 광주농고)–근면장 김용운(엘칸토, 직장새마을금고)–노력장 김종관(연천, 문고)–노력장 김충호(성남, 경기교통)–노력장 서정수(화성 향남, 농민)–노력장 신금부(경기, 공무원)–노력장 안광헌(파주 금촌, 청소년)–노력장 원민상(시흥 소래 계수, 농민)–노력장 이석현(한전, 평택발전)–노력장 이해균(삼우트레이딩)–노력장 임재성(시흥 과천 문원, 지역)–노력장

	장석범(의정부 가능1, 부녀)–노력장 조여행(수원, 수화농조)–노력장 최종옥(광명, 철산새마을금고)–노력장 한상필(광주 동부 풍산, 지역)–노력장 허필순(가평 상면 태평, 부녀)–노력장 홍흥표(부천, 공장)–노력장 [포장]–15명 김원종(평택 오성, 기계화영농단) 김재윤(동두천 광암, 지역) 김창식(용인 외사 가창, 지역) 민대홍(화성 중외제약) 박화정(시흥 의왕 내손, 부녀) 우제찬(경기, 경인일보사) 유정길(삼원공업사) 이동환(가평 용문 삼성2, 지역) 이광열(김포 계양 오류, 지역)	이규식(화성 송산 삼존, 지역) 이원철(송탄, 농어민후계자) 조형도(새마을지도자연수원) 최정애(송탄 신장, 부녀) 박갑순(경기도, 공무원) 이석태(농촌진흥청, 공무원) [대통령표창]–5명 심정구(안양,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이주관(경기, 새마을청소년연합회) 허 남(경기, 새마을청소년연합회) 신명희(경기도, 공무원) 이태영(화성군, 공무원) [국무총리표창]–3명 박수표(수원, 동우교통) 박인규(광명 광명4, 지역) 신현태(수원, 지역)
1984 (53명)	[훈장]–21명 이세원(이천, 동양맥주)–협동장 이종호(화성, 중외제약)–협동장 임완규(이천 부발 아미, 지역)–협동장 김보자(남양주 진접 장현, 부녀)–근면장 김종효(여주 대신 당산, 지역)–근면장 남기항(남양주 미금, 부녀)–근면장 신용백(수원, 아주대학교 교수)–근면장 신동무(시흥 수암 목감1, 지역)–근면장 심순희(수원, 여자운전자회)–근면장 이형순(동두천 송내, 부녀)–근면장 임문순(화성, 금고연합회 국장)–근면장 이종택(수원 남수)–근면장 김순자(시흥 과천 문원, 부녀)–노력장 여채봉(화성 남양 장덕, 부녀)–노력장 여운항(한국프러그공업)–노력장 유진운(광주 동부 하산곡, 지역)–노력장 윤석한(수원, 경인일보사)–노력장 전범윤(안양, 직장)–노력장 한천우(김포 대곳 대벽, 지역)–노력장 허 억(삼아약품공업)–노력장	최병석(경기도, 공무원)–노력장 [포장]–15명 김원영(수원 새마을유아원연합회) 김영창(양평, 양서 양수새마을금고) 김정식(화성, 대덕전자) 김진환(양주 남면 안단, 농민) 김창수(수원, 경인일보사) 박용자(양평 청운 갈운, 부녀) 이계한(평택 현덕 황산3, 지역) 허정길(새마을금고중앙교육원) 박종원(부천, 모범운전자회) 이재훈(시흥 수암 양상, 지역) 이철화(성남시, 공무원) 임우빈(의정부 4동, 지역) 주명종(시흥 의왕 오전, 지역) 한윤진(광명 하안, 지역) 홍덕순(화성 정남 발산, 부녀) 황세원(선진기업) 어수찬(이천시, 공무원)

	[대통령표창]–8명 강석근(광명, 화영운수) 김광회(공장새마을운동수원추진지부) 서성길(연천 차탄2, 문고) 소진회(송탄시, 공무원) 송탄시새마을부녀회(단체) 원재희(경기, 도축구협회) 장경석(부천 중동, 지역) 황영학(경기도, 공무원)	[국무총리표창]–9명 권의수(가평 설악 천안, 지역) 김덕배(이천 관고, 지역) 김종만(성남 상대원1, 지역) 심재균(송탄 서정, 지역) 우종일(용인 남사 진목, 지역) 이관호(안성 사곡, 지역) 우병권(반월출장소, 공무원) 조수기(의정부시, 공무원) 경기모원무역(성남, 단체)
1985 (55명)	[훈장]–21명 김규명(시흥, 시흥캅셀)–협동장 김진흥(화성 마도 송정, 지역)–협동장 민병갑(안양 석수, 지역)–협동장 김원석(이천, 나래국교장)–근면장 김인옥(파주 천현 법원, 지역)–근면장 안순환(이천 이천 창전, 부녀)–근면장 정용석(남양주 화도 마석우, 지역)–근면장 최영희(성남 태평2, 부녀)–근면장 공연임(수원, 수원교통)–노력장 구은회(여주 점동 부구, 문고)–노력장 김택상(화성, 금성계전)–노력장 문성제(경기도, 공무원)–노력장 문용선(광명, 요식업조합)–노력장 박노성(용인, 지역)–노력장 박승관(화성 매송 야목, 지역)–노력장 양낙종(포천 영중 금주, 지역)–노력장 윤영숙(시흥 군포 금정2, 부녀)–노력장 윤준한(평택 평택 동삭, 지역)–노력장 정규인(고양, 용마피혁)–노력장 조정환(수원, 남도산업)–노력장 홍규선(동양화학공업)–노력장 [포장]–14명 고경열(시흥 의왕 내손, 지역) 권복식(광명, 기아산업) 김군자(동두천 상패, 부녀) 김미자(강화 하림 망월, 부녀)	김영희(고양 일산 인산, 부녀) 김중식(수원 한일합섬) 손홍분(양평 지제 수곡, 후계자) 어옥자(가평 상면 율기, 부녀) 우일출산(용인 구성 언남, 부녀) 이기복(의정부 의정부3, 지역) 이창구(양평 지제 지평, 지역) 이한식(안양 비산, 직장) 장사인(경기, 경인일보사) 하복동(경기, 경인일보사) [대통령표창]–9명 김종화(광명, 기아산업) 김효열(경기북부,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이승원(수원여객) 정길남(수협중앙회경기지부) 한국현(강화 동면 하리, 농민) 홍건표(부천시, 공무원) 강정환(성남시, 공무원) 김동범(남양주군, 공무원) 새마을금고경기도연합회(단체)

	[국무총리표창]–11명 김동일(과천 부림, 지역) 김지권(부천 송내, 지역) 박만원(수원 조원) 박윤명(여주 여주 창리, 지역) 복진선(김포 월곳 고막, 지역) 연무초등학교(수원) 윤석균(구리 수택, 지역) 이계옥(평택 오성 학현, 지역) 허무영(광명, 지역) 심장보(반월지구출장소, 공무원) 원용일(수원시, 공무원)	
1986 (43명)	[훈장]–16명 김종일(광주, 제1가나안농군학교)–협동장 박옥란(송탄 지산, 부녀)–협동장 강래진(화성 향남 갈천, 지역)–근면장 김현구(수원, 새마을금고)–근면장 우봉제(수원, 선도직물)–근면장 유재관(양평 서종 문호2, 지역)–근면장 이도영(성남 단남국교)–근면장 최종혁(광주 동부 미사, 지역)–근면장 최창진(의정부 가능3, 지역)–근면장 신양호(의정부, 가능국교)–노력장 윤홍순(시흥 수암 논곡, 부녀)–노력장 이명미(남양주 미금 삼대, 부녀)–노력장 이봉모(평택 현덕 화양, 지역)–노력장 이범관(경기도, 공무원)–노력장 이희준(강화, 난정국교)–노력장 최종억(안양, 경향택시)–노력장 [포장]–10명 김길홍(국제화학공업) 길상기(이천 이천 관고, 지역) 송영복(의정부, 새마을금고 제5지회) 이강세(김포 양촌 석모, 지역) 이부승(안산 원곡, 지역) 이순득(고양 일산 일산, 부녀) 조기철(성남 수진, 지역)	조지행(용인 구성 오정, 지역) 현종국(평택 합정, 지역) 김경호(경기도, 공무원) [대통령표창]–9명 국중성(시흥 군포, 대양제지) 김경학(성남, 동양정밀) 김부기(성남, 농협중앙회) 김정돈(옹진 영종 운북, 지역) 김영환(화성 팔탄 해창1, 지역) 박윤향(의정부 4동, 지역) 신창기(경기, 경인일보사) 조명환(수원, 명진운수) 송필석(안양시, 공무원) [국무총리표창]–8명 고재혁(성남 단대, 지역) 권영섭(강화 강화 용정, 지역) 김웅렬(의정부 의정부1, 지역) 신경희(용인 용인 김량장, 부녀) 심명옥(안성 연니, 부녀) 오진환(파주 금촌 금촌, 지역) 최영수(구리 인창, 지역) 성남시새마을부녀회(단체)

1987 (72명)	[훈장]–21명 박세홍(평택 팽성 두2, 지역)–협동장 이혁근(시흥 소래 방산, 농민)–협동장 홍점분(양주 남면 신암, 부녀)–협동장 구연호(광주 실촌 열미, 지역)–근면장 김선규(성남 성남, 부녀)–근면장 반재석(안성 안성 봉산, 지역)–근면장 윤태환(평택 송탄 칠원, 지역)–근면장 김석천(광명, 문고)–노력장 신영애(옹진 영종 운남, 부녀)–노력장 안춘성(양평 양평 양근, 지역)–노력장 이갑수(안성, 일죽국교)–노력장 이신환(강화 신문, 지역)–노력장 이충웅(평택 송탄 칠원, 지역)–노력장 임동철(옹진 영흥 내리, 지역)–노력장 장기환(평택 비전, 지역)–노력장 정윤섭(안산 원곡, 지역)–노력장 조기호(김포, 하성국교)–노력장 최운영(용인 용인 삼가, 지역)–노력장 최지용(화성 우정 조암, 농민)–노력장 황근수(양평 양평 양근, 지역)–노력장 박종률(경기도, 공무원)–노력장 [포장]–18명 김면갑(의정부 가능, 지역) 남궁길(포천 군내 좌의, 지역) 박근집(과천 문원, 지역) 박세영(산대국민학교) 박복형(수원 화서, 지역) 박환봉(화성 반월 건건, 지역) 안준수(부천 심곡, 지역) 원유혁(동두천 생연, 지역) 이경우(의정부, 신곡새마을금고) 이석산(연천 청산 초성, 지역) 이종균(성남연수원) 임영철(광주, 제1가나안농군학교) 장동호(이천 이천 관고, 지역) 장상진(김포 검단 오류, 지역) 전채기(파주 천현 대능, 지역) 조송호(광명 철산, 지역) 최종원(남양주 미금 호평, 지역)	한만식(여주군 공무원) [대통령표창]–18명 강명희(과천 문원, 부녀) 권월군(용인 포곡 신원, 지역) 김백경(이천, 지회) 김영숙(화성 정남 보통2리, 부녀) 김용문(시흥 조남, 지역) 김윤묵(안양 비산2, 지역) 김인숙(동두천 탑동, 부녀) 김정윤(광명 소하, 부녀) 민경순(남양주 별내 퇴계원8, 부녀) 박계순(양평 청운 갈운, 부녀) 박병화(양주 회천 회암, 부녀) 박찬분(안양 관양, 부녀) 송동은(의정부 4동, 부녀) 원부섭(고양 원당 도내, 지역) 이용주(구리 갈매, 지역) 김연수(경기도, 공무원) 유기영(시흥군, 공무원) 수원모범운전자회(단체) [국무총리표창]–15명 권영완(의정부 의정부3, 지역) 김규영(안양 안양, 부녀) 김기희(강화 강화 신문, 부녀) 김숙자(광주 중부 상산곡1, 부녀) 박병화(부천 소사본1, 부녀) 박윤희(가평 하면 신하, 부녀) 박장례(포천 신북 신평, 부녀) 송경운(송탄 신장, 부녀) 신원분(용인 수지 신봉2, 부녀) 신희자(송탄 신장, 부녀) 안원진(성남 단대1, 지역) 양윤자(여주 금사 후리, 부녀) 왕명숙(파주 파주 봉서, 부녀) 원용순(이천 부발 아미, 부녀) 김포 통진, 월곳단위농협(단체)

1988 (24명)	[포장]–11명 강정자(의정부 낙양, 부녀) 방극통(성남 신흥, 지역) 오계순(시흥 소래 매화, 부녀) 윤재욱(파주 광탄 창만, 지역) 이길원(화성 봉담 상기, 지역) 이민관(평택 포승 석정, 지역) 이석희(남양주 미금 도농, 지역) 정명순(양주 장흥 부곡, 부녀) 조완호(광주 중부 상산곡, 부녀) 조차호(양평 용문 덕촌, 지역) 홍경자(수원 화서) [대통령표창]–7명 강옥분(옹진 영종 운남, 부녀)	김기석(광명, 화영운수) 박노종(평택 평택, 지역) 박준선(여주 금사 금사, 지역) 박학순(송탄 칠원, 문고) 백절자(과천 과천, 부녀) 신영순(고양 일산 일산, 부녀) [국무총리표창]–6명 김기웅(이천 장호원3, 지역) 김기원(부천 소사3, 지역) 민성근(안성 미양 개정, 지역) 서동숙(포천 포천 신읍, 부녀) 안덕영(구리 수평, 지역) 양금옥(파주 종천 산천, 부녀)
1989 (15명)	[훈장]–1명 손충신(부천 심곡1, 지역)–노력장 [포장]–3명 김성분(양평 지제 지평, 부녀) 송인자(수원 연무, 부녀) 정연보(안양 6동, 지역) [대통령표창]–5명 경선호(여주 흥천 상백, 지역) 구선자(성남 중원 은행2, 부녀) 김영득(파주 적성 설마, 지역)	원영순(이천 모가 신갈, 부녀) 유강희(용인 용인 마평, 지역) [국무총리표창]–6명 권오춘(의왕 삼동, 부녀) 김용순(안성 안성 낙원, 부녀) 오도환(화성 매송 어천, 부녀) 윤석균(구리, 지역) 이강필(광주 초월 쌍동, 지역) 이광희(수원 남수, 지역)
1990 (19명)	[훈장]–3명 강춘식(성남창곡, 지역)–근면장 이해일(시흥과림, 지역)–근면장 이종구(수원지동, 지역)–노력장 [포장]–3명 이길상(용인 수지 풍덕천3, 지역) 이형재(오산 남촌, 지역) 장항기(평택 비전1, 지역) [대통령표창]–7명 김순임(광명, 부녀) 김학진(평택 현덕 기산, 지역) 백정선(성남 태평1, 부녀)	송승용(안산 원곡, 지역) 오세훈(안성 공도 진사, 지역) 안성덕(가평 상면 태봉2, 지역) 안명자(의왕 포일, 부녀) [국무총리표창]–6명 김봉애(의정부 호원, 부녀) 변재봉(의정부 가능2, 지역) 서갑순(연천 백학 백령2, 부녀) 신대식(하남 덕풍2, 지역) 오경희(남양주 조안 송촌, 부녀) 유성기(의왕 오전, 지역)

1991 (24명)	[훈장]–5명 이질현(수원, 서울농대)–협동장 김옥순(평택 안중 학현, 지역)–근면장 신길수(안양, 부림신용금고)–근면장 공영희(부천, 지회)–노력장 이해수(용인 김량, 지역)–노력장 [포장]–3명 서정길(강화 삼산 석보, 지역) 이용순(파주 문산 문산, 부녀) 정우호(성남 신흥1, 지역) [대통령표창]–8명 권순영(광명, 지역) 김해경(과천 주암, 지역) 변영환(양평 강하 운심, 지역)	용영재(수원 장안 송죽, 지역) 윤금선(평택 비전, 지역) 윤세욱(여주 금사 전북, 지역) 이정남(파주, 부녀) 조명환(수원, 지회) [국무총리표창]–8명 강창례(성남 신흥1, 부녀) 강수명(성남 상대원1, 지역) 권상원(가평 가평 읍내, 지역) 김락도(성남 태평4, 지역) 박창환(오산 수청, 지역) 석정하(안성 금광 신양복, 지역) 송환준(화성 비봉 양노, 지역) 원영희(안양 관양1, 지역)
1992 (30명)	[훈장]–4명 김백경(이천, 지회)–협동장 권태욱(부천, 문고)–노력장 권태하(성남 중동, 지역)–노력장 오화분(오산, 부녀)–노력장 [포장]–7명 김길웅(경기, 지역) 최은덕(안양 호계2, 부녀) 김중필(의정부 1동, 지역) 안형준(안양 비산1, 지역) 박병환(안양, 직장)–포장 정권섭(안산, 반월새마을금고) 고재혁(성남, 수정의료보험조합) [대통령표창]–12명 김용문(시흥, 지회) 김일태(동두천, 지역) 박재석(의정부 의정부3, 지역)	신은복(안산, 부녀) 신효철(연천 미산 유촌, 지역) 오진어(광명 광명6, 지역) 장두영(성남, 지회) 정남주(송탄, 지역) 홍성호(경기, 지부운영위원) 이석영(김포군, 공무원) 하남 세방전기(단체) 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단체) [국무총리표창]–7명 권영선(김포 양촌, 지역) 김천중(포천 내촌 내리, 지역) 박광자(의왕 오전, 부녀) 박성만(용인 구성 상하4, 지역) 박용분(성남 상적, 지역) 박홍열(시흥 월곶, 지역) 변억조(용인 남사 북리, 지역)
1993 (23명)	[훈장]–3명 박영호(안양, 문고)–근면장 이은숙(평택, 부녀중앙)–근면장 조봉구(성남, 부녀)–노력장	[포장]–3명 이영자(부천, 성지새마을금고) 차주봉(안성, 지회) 황말무(경기, 지역)

	[대통령표창]–6명 권영완(의정부3동, 지역) 김기원(용인 기흥, 지역) 신시순(송탄, 직장) 이재억(안산, 지역) 임해숙(평택, 부녀) 최종희(양평, 부녀) [국무총리표창]–11명 김도식(과천 별양, 지역) 김명숙(화성, 부녀)	박성길(이천 호법 유산, 지역) 박찬일(양평, 부녀) 신영진(연천 청산 초성3, 지역) 신현철(수원 원천, 지역) 안상희(수원 매교, 부녀) 최복남(연천, 부녀) 홍숙선(군포 군포2, 부녀) 홍혁철(성남 수정, 지역) 김학규(경기도의회, 공무원)
1994 (16명)	[훈장]–1명 신봉식(화성, 지회)–근면장 [포장]–2명 이관재(수원, 노송새마을금고) 차준호(경기, 지역) [대통령표창]–6명 김군자(성남단대, 지역) 김진옥(안산, 직장) 박병화(부천 소사본1, 부녀) 박용일(여주, 지역)	윤한기(용인남사, 지역) 이성주(안성, 문고) [국무총리표창]–7명 안병국(성남 성남, 지역) 엄익수(수원, 대양상호신용금고) 이진수(포천 양북, 지역) 이창옥(남양주, 문고) 임완수(경기, 지부) 정길옥(용인, 부녀) 최연옥(성남 중원, 부녀)
1995 (15명)	[훈장]–1명 박병화(양주, 부녀)–자조장 [포장]–1명 최흥식(장안, 지회) [대통령표창]–4명 남봉희(파주, 지역) 문만복(평택, 면지역)–일하는 보람상 박일양(수원 팔달, 부녀) 차성환(고양, 지역)	[국무총리표창]–9명 강건수(평택, 지회) 고세영(안산 선부2, 지역) 권병호(수원, 고화새마을금고) 김금자(오산, 부녀) 김방우(성남, 직장) 김복임(연천 전곡, 부녀) 이열종(하남, 문고) 장옥균(성남 은행2, 지역) 정재현(군포, 부녀)
1996 (29명)	[훈장]–4명 김문제(남부연수원)–노력장 서정배(성남, 은행양지금고)–노력장 유기준(하남, 지역)–노력장 조명환(수원, 지회)–근면장	[포장]–3명 류연자(과천, 부녀) 정홍기(부천, 문고) 한희심(광명, 부녀)

	[대통령표창]–9명 구순자(안양, 부녀) 김대식(의왕, 문고) 민병흠(수원, 금고) 신운식(화성, 지역) 송순녀(수원 장안, 부녀) 이강우(광명, 광일새마을금고) 이규익(연천, 지역) 최길락(군포, 지회) 한재림(부천, 부녀) [국무총리표창]–13명 김기영(안양, 부녀)	김현자(시흥 미산, 부녀) 류성기(의왕 오전, 지역) 원기연(오산 중앙, 지역) 유환섭(용인 모협, 지역) 이강봉(화성, 비봉새마을금고) 이동우(안양, 벽산크리스탈뷔페) 이복성(의정부 신곡새마을금고) 이숙경(평택 중앙, 부녀) 이양헌(평택 포승, 지역) 정태호(부천 심곡1, 지역) 지중현(안성 안성, 지역) 최상용(수원, LD건설)
1997 (51명)	[훈장]–6명 임완수(경기, 지부)–자조장 이순득(고양, 부녀)–협동장 장두영(성남, 지회)–근면장 황갑룡(오산, 지회)–근면장 이창옥(경기, 문고운영위원)–노력장 정동화(양주, 지역)–노력장 [포장]–4명 고순자(동두천, 부녀) 송종태(성남, 태평낙원금고) 정광호(평택 오성, 지역) 현광일(안양, 지회) [대통령표창]–18명 금용환(안양, 박달새마을금고) 김붕현(안성, 면지역) 문중배(오산, 양산새마을금고) 박승국(용인, 사무국장) 박영화(남양주, 교통) 성덕경(김포, 지역) 우건식(성남, 직장) 이기우(광주 광주, 지역) 이주복(의왕, 지역) 이영수(성남, 동지역) 이우순(남양주, 부녀) 임경숙(의정부, 부녀)	장순태(남양주, 면지역) 정종미(시흥, 부녀) 주현중(오산, 문고) 허영순(수원, 부녀)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단체) 새마을운동오산시지회(단체) [국무총리표창]–23명 강장섭(광명, 지역) 고순재(고양 효자, 부녀) 김봉득(부천 심곡본, 지역) 김학문(수원, 지역) 마숙철(부천 역곡1, 지역) 석용훈(과천, 지회) 성경순(수원 서둔, 부녀) 안희석(화성, 문고) 유기희(수원 화서1, 부녀) 윤순옥(포천, 부녀) 이상인(의정부 의정부4, 지역) 이영자(평택 현덕, 부녀) 이응노(양주 회천, 지역) 이학세(의정부 호원, 지역) 이중희(고양, 교통) 임재율(수원, 대림건설) 정경숙(성남 태평1, 부녀) 정영숙(파주, 부녀)

	정용부(수원, 대한건설협회경기지회) 정춘영(평택 팽성, 지역) 조순종(용인 모현, 부녀) 최귀영(부천 괴안, 지역) 허일행(하남, 부녀)	
1998 (26명)	[훈장]–4명 윤한기(용인, 지회)–협동장 최송옥(고양, 부녀중앙)–협동장 신영진(연천, 지역)–근면장 김명숙(화성, 부녀)–노력장 [포장]–2명 우태하(경기, 사무국장) 음순배(안양, 지회) [대통령표창]–12명 고정수(과천, 지역) 권태랑(경기, 지부이사) 김관석(이천, 부녀) 박찬일(양평, 부녀) 박창환(오산, 지역) 소춘섭(시흥, 직장)	윤석봉(의정부, 금고) 이용우(오산, 지회) 이선자(안성, 부녀) 임길만(경기, 교통) 함장식(수원 ,고화금고) 홍원일(수원, 문고) [국무총리표창]–8명 김홍섭(파주 금촌2, 지역) 박영호(성남 태평4, 지역) 안성희(오산 세마, 문고) 윤상구(오산 초평, 부녀) 이명희(성남 수진2, 부녀) 이민종(의정부, 지역) 이완표(광명 4동, 지역) 황옥희(의정부 2동, 부녀)
1999 (32명)	[훈장]–2명 신현철(경기, 지역)–협동장 전광옥(시흥, 지회)–근면장 [포장]–3명 이채용(양주, 문고) 조호능(남양주, 지회) 홍숙선(군포 군포2, 부녀) [대통령표창]–10명 김도원(고양, 지회) 김순덕(안양, 지회감사) 김은영(평택, 부녀) 김정배(부천, 문고감사) 박성길(이천, 지역) 백용호(안산, 교통) 이연우(성남 상대원1, 부녀) 이정희(여주, 부녀)	장석영(용인 수지, 지역) 강세훈(경기도, 공무원) [국무총리표창]–17명 김정정(안양 범계, 문고) 김정희(구리, 부녀) 동방일(의정부 1동, 지역) 양월화(부천 심곡3, 부녀) 오현척(광명, 지회) 윤순원(수원 지만새마을금고) 윤익섭(오산, 지역) 윤종섭(안성, 지역) 이강우(평택 비전2, 지역) 이만규(경기제4지구의료보험조합) 이순이(의왕, 부녀) 이종숙(포천 포천, 부녀) 이창환(군포 산본1, 지역)

	조복규(경기, 문고운영위원) 최문섭(부천, 지역) 하순덕(수원 파장, 부녀) 안승덕(용인시, 공무원)	
2000 (28명)	[훈장]–3명 강대웅(성남, 제일새마을금고)–협동장 김현식(오산대원, 지역)–근면장 백애라(용인, 부녀)–근면장 [포장]–1명 김영봉(성남, 지회) [대통령표창]–12명 고승자(군포 2동, 부녀) 김영탁(성남, 낙원택시) 김인수(수원, 사무국장) 김정길(고양, 덕양금고) 문만식(하남, 교통) 신대식(하남 덕풍2, 지역) 이규복(수원, 도농업기반공사) 이응구(남양주, 문고) 이인진(광명 5동, 부녀)	장복자(이천, 부녀) 전경복(양평, 지역) 삼성전자기흥봉사단(단체) [국무총리표창]–12명 권혁구(광주, 지역) 김기용(안양 호계2, 부녀) 김명옥(부천 소사본, 부녀) 김우기(수원 신안, 지역) 김점순(의정부 자금, 부녀) 박정구(구리, 지역) 심형갑(김포, 지역) 오정자(평택 서정, 부녀) 이평락(안양 비산1, 지역) 전영선(안양 1동, 문고) 조병희(여주 가남, 부녀) 이규주(경기도, 공무원)
2001 (31명)	[훈장]–2명 김기원(용인, 지역)–근면장 정재현(군포, 부녀)–노력장 [포장]–5명 김형식(성남, 중부새마을금고) 박찬일(양평, 부녀) 이성현(안양, 직장) 임완석(시흥, 지회) 한 교(파주, 지회) [대통령표창]–8명 김금자(오산, 부녀) 박형복(양주, 지역) 양영주(부천, 교통) 이미자(수원 매탄3, 부녀) 정영길(남양주, 지역) 정지상(수원, 세화금고)	최순재(화성 송산, 부녀) 최양호(의왕, 지역) [국무총리표창]–16명 강태식(성남, 직장운영위원) 김계영(안양 박달1, 부녀) 김복임(연천, 부녀) 김선기(오산, 교통) 김택철(성남 금광1, 지역) 박종구(포천, 문고) 박점순(안산, 부녀) 조금영(안양, 부녀) 장명기(군포 산본2, 지역) 연기흠(요인 모현, 지역) 오무순(김포, 부녀) 이천우(경기, 지부이사) 이흥우(구리 교문1, 지역)

	최종영(양주 남면, 문고) 홍성자(수원 매산, 부녀) 홍태성(수원, 삼성반도체)	
2002 (23명)	[훈장]–4명 성덕경(김포, 지회)–협동장 홍원일(경기, 문고)–협동장 한희심(광명, 부녀)–노력장 홍순목(안산, 지역)–노력장 [포장]–2명 김영태(수원 팔달 지동, 지역) 성경순(수원, 부녀) [대통령표창]–8명 경길수(이천, 이천새마을금고) 김성춘(안양, 지회) 김용찬(성남 성남동, 지역) 신학수(과천, 지회) 양형규(의왕, 지역)	이연희(군포, 부녀) 조종태(여주, 지역) 시흥시새마을회(단체) [국무총리표창]–9명 김숙희(성남 태평3, 부녀) 김용민(의정부, 문고) 김학연(고양, 지역) 박정수(경기. 교통부대장) 이대수(양주 양주, 부녀) 이재현(화성, 지역) 조광식(경기, 지부이사) 최복순(부천, 부녀) 이기택(경기도, 공무원)
2003 (26명)	[훈장]–4명 우건식(성남, 서암개발)–협동장 김명님(동두천, 부녀)–근면장 이민종(의정부, 지회)–근면장 윤익섭(오산, 지역)–노력장 [포장]–2명 김학문(수원, 지역) 이주복(의왕, 지회) [대통령표창]–9명 권혁구(광주, 지회) 박우식(안양, 부녀) 이민덕(평택, 지역) 정부구(화성, 지역) 조종길(경기, 교통) 최흥식(경기, 지부감사)	허만정(구리, 부녀) 홍정웅(경기, 문고이사) 단 체(수원, 지회) [국무총리표창]–11명 김민회(가평, 청평새마을금고) 김영희(성남 신흥1, 부녀) 박업준(경기, 교통) 소진순(수원 정자2, 문고) 안창덕(구리 갈매, 지역) 이원구(과천, 지역) 유재현(성남, 문고) 이영희(광명, 지역) 조기태(성남, 교통) 한금순(여주, 부녀) 홍상선(경기, 지부이사)

2004 (23명)	[훈장]–2명 박형복(양주, 지회)–협동장 전경복(양평, 지역)–노력장 [포장]–4명 심명섭(김포, 지회) 이미화(남양주, 부녀) 최관순(안양, 부녀) 황덕근(성남, 지역) [대통령표창]–7명 김학동(고양, 교통) 박병임(의정부, 부녀) 박종구(포천, 문고) 송중근(경기, 사무처장) 안덕환(하남, 지회)	윤순모(안성, 부녀) 이태종(과천, 지역) [국무총리표창–10명 고항섭(양주, 문고) 김선근(화성, 지역) 김애순(성남 태평1, 부녀) 김영목(수원 평동, 지역) 이민용(경기, 경기일보사) 이상식(포천, 남부새마을금고) 이수웅(경기, 교통) 이연화(연천, 사무국장) 이영민(동두천 불현, 부녀) 홍덕남(구리 인창, 지역)
2005 (16명)	[훈장]–3명 이채용(경기, 문고)–자조장 최양호(의왕, 지역)–근면장 최종희(양평, 부녀)–노력장 [포장]–1명 김숙희(성남, 부녀) [대통령표창]–7명 강태환(구리, 문고) 김학연(고양, 지회) 김학주(수원, 지회)	나용자(남양주, 교통) 전정옥(연천, 부녀) 최병서(용인 기흥, 지역) 포천, 지회(단체) [국무총리표창]–5명 이문순(동두천 중앙, 부녀) 조동신(성남 태평3, 지역) 한기영(안양, 지역) 황창영(용인, 지역)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단체)
2006 (19명)	[훈장]–3명 이영희(광명, 지역)–근면장 오세월(김포, 부녀)–노력장 이채학(안양, 문고)–노력장 [포장]–1명 김형두(의정부, 직장) [대통령표창]–6명 김금순(가평, 부녀) 김선진(동두천, 지역) 김현모(성남, 지회) 안호용(성남, 교통) 홍영표(연천, 지회)	단 체(성남, 지회) [국무총리표창]–9명 강옥자(의정부 자금, 부녀) 문용호(안양 석수1, 지역) 류금희(양주, 문고총무) 원순자(파주 월롱, 부녀) 유진숙(포천 군내, 부녀) 이용석(시흥, 중앙새마을금고) 이준선(안산, 교통) 황명철(구리 교문2, 지역) 김복자(경기도, 공무원)

2007 (17명)	[훈장]–3명 김정희(화성, 부녀)–근면장 조병일(구리, 지역)–노력장 조훈수(과천, 문고)–노력장 [포장]–2명 김점순(의정부, 부녀) 송유섭(수원, 지회) [대통령표창]–5명 김정숙(동두천 생연1, 부녀) 이원홍(의왕, 지역) 이용구(안양, 교통)	채봉화(파주, 부녀) 홍흥곤(이천, 지역) [국무총리표창]–7명 나금숙(수원 평동, 부녀) 노영만(성남 금광2, 지역) 박정희(김포 김포2, 지역) 임점순(광명 광명6, 부녀) 정인산(시흥, 지회) 홍순식(포천 영북, 지역) 김용범(경기도 공무원)
2008 (30명)	[훈장]–3명 이우순(남양주, 지회)–협동장 이대수(양주, 부녀)–노력장 임동직(포천, 지역)–노력장 [포장]–3명 안극수(성남, 문고) 이인진(광명, 부녀) 지희천(용인, 지회) [대통령표창]–10명 강경환(시흥, 직장) 김광일(평택, 지회) 김영권(양주, 문고) 김옥식(안양 안양2, 부녀) 엄창섭(경기, 교통) 윤석분(남양주 화도, 부녀) 이명순(수원, 부녀) 장용성(광명 광명7, 지역)	함옥생(안성, 지역) 홍종서(동두천, 지역) [국무총리표창]–14명 강갑순(시흥 목감, 부녀) 김도순(성남 태평1, 부녀) 김봉순(안성 양성, 부녀) 박상배(의정부 장암, 지역) 배건수(고양 창릉, 지역) 배재충(성남 중동, 지역) 안낙영(화성 남양, 지역) 안창숙(안양 박달1, 부녀) 이길자(화성 매송, 부녀) 이창복(수원, 사무국장) 정근조(고양, 교통) 조두영(부천 송내, 지역) 한희수(양주 양주2, 지역) 조경희(경기, 공무원)
2009 (28명)	[훈장]–3명 신선순(안양, 부녀)–협동장 이응구(남양주, 문고)–근면장 김남섭(김포, 지회)–노력장 [포장]–4명 김 순(고양, 부녀) 김화자(동두천 소요, 부녀) 이제돈(포천 군내, 지역)	이종식(양평, 지역) [대통령표창]–9명 김대기(경기, 부장) 노재평(하남, 지역) 신영옥(가평, 부녀) 우광수(평택 송탄, 지역) 정경선(광명, 문고) 조연복(남양주, 교통)

	조준택(이천, 지역) 허영숙(성남, 직장) 허인숙(양평 양평, 부녀) [국무총리표창]–12명 박재복(성남 분당, 지역) 박찬분(의왕, 문고) 서화란(이천 마장, 부녀) 손영숙(남양주 도농, 부녀)	손옥순(시흥, 부녀) 양미금(시흥, 사무국장) 원종욱(여주, 지역) 윤복영(안양 안양7, 지역) 이관구(수원, 교통) 이대우(동두천 생연2, 지역) 정명자(성남 수진2, 부녀) 정필자(안양 호계2, 부녀)
2010 (29명)	[훈장]–3명 신학수(과천, 지회)–자조장 최옥녀(남양주, 부녀)–협동장 차동길(부천, 문고)–노력장 [포장]–4명 권준안(시흥, 지회) 박명환(양평, 부녀) 박세근(양주, 지역) 신대섭(구리, 지역) [대통령표창]–10명 김학섭(경기, 직장) 박윤상(부천 중동, 지역) 서원호(경기, 교통) 신광철(이천, 지회) 유이재(성남, 부녀) 유호자(안양 안양8, 부녀) 조영태(가평, 지역)	최정희(시흥, 교통) 허경남(고양, 사무국장) 단체(양주, 회천2동 그린마을) [국무총리표창]–12명 김경남(안양, 문고) 김삼례(부천 소사본3, 부녀) 김영선(안산 부곡, 지역) 김태화(안양, 직원) 김헌영(구리 수택2, 지역) 박연순(동두천, 부녀) 윤주흥(수원, 지역) 이용주(김포 대곳, 부녀) 이현순(성남, 직장감사) 추상기(안산, 교통) 황옥순(광명, 문고부회장) 박사승(수원시, 공무원)
2011 (26명)	[훈장]–2명 황창영(용인, 지회)–협동장 이희자(과천, 부녀)–근면장 [포장]–3명 김정숙(포천, 부녀) 서홍선(의정부, 지역) 오세관(시흥, 지역) [대통령표창]–9명 김대준(안성, 문고) 김옥례(구리 교문1, 부녀) 김충숙(광명, 부녀)	서상해(양주, 직공장운영위원) 오택영(경기도, 공무원) 유금석(고양, 지역) 유영도(양주, 지회) 전희선(경기, 교통임원) 최정자(남양주, 문고) [국무총리표창]–12명 권영진(경기, 교통임원) 김영민(성남 분당, 부녀) 김은선(남양주, 사무국장) 김종문(의왕 내손2, 지역)

	박시래(안양 박달1, 지역) 안성희(오산, 문고) 오민자(이천 중리, 문고) 윤태석(경기, 교통임원) 이호식(양평 양서, 지역) 임순자(양평 단월, 부녀) 홍사진(수원 행궁, 지역) 황진희(부천, 부녀)	
2012 (24명)	[훈장]–3명 이준성(남양주, 지회)–자조장 이장희(안양, 지역)–근면장 지수길(양주, 문고)–근면장 [포장]–3명 나용자(남양주, 교통) 박재금(광명, 지역) 이정임(이천, 부녀) [대통령표창]–9명 박춘자(여주, 부녀) 변현정(의왕, 직장) 양원오(포천 면지역) 이종원(성남 동지역) 이인숙(화성, 부녀)	조계숙(수원, 문고) 조병옥(용인, 사무국장) 최종필(김포, 지역) 홍석인(부천, 지회) [국무총리표창]–9명 김귀자(성남, 동부녀) 김동헌(경기, 교통임원) 김순옥(안성, 면부녀) 마명자(수원 원천, 부녀) 문강오(수원 지동, 지역) 신언숙(부천, 동부녀) 어미순(남양주읍, 문고) 이경기(부천, 동지역) 이태호(파주, 읍지역)
2013 (22명)	[훈장]–3명 서정순(양주, 부녀)–협동장 이도형(경기, 지부)–협동장 이재영(파주, 지역)–노력장 [포장]–3명 구인서(포천, 지역) 김명조(남양주, 부녀) 류금희(양주 백석, 문고) [대통령표창]–5명 심혁환(수원, 교통) 이광수(경기, 부장) 원성일(경기도, 공무원) 장광섭(부천, 지역) 조용호(광명, 지회)	[국무총리표창]–11명 곽정렬(시흥 과림, 지역) 김동승(이천, 지역) 김정호(성남, 문고) 김찬심(시흥, 문고) 유준숙(수원, 부녀) 이상만(파주, 교통) 이주천(포천 소흘, 지역) 조정옥(안양 호계2, 부녀) 전문욱(성남 하대원, 지역) 최순옥(남양주, 직장부회장) 한경숙(평택, 부녀)

2014 (22명)	[훈장]–2명 김의숙(김포, 부녀)–협동장 배재충(성남, 지역)–근면장 [포장]–2명 김영숙(의정부, 부녀) 이수희(양주 회천3, 문고) [대통령표창]–8명 김봉식(수원, 지회) 박덕호(고양, 교통) 원명숙(안성, 부녀) 육재수(이천, 문고) 장종근(과천, 지역) 정지하(시흥, 직장운영위원)	조연희(광명, 사무국장) 최종대(의정부 장암, 지역) [국무총리표창]–10명 고순옥(성남 태평4, 부녀) 김경현(평택, 지회) 김지호(시흥 교통) 김형선(시흥 정왕2, 지역) 박홍범(안성 서운, 지역) 손동란(용인 상현2, 부녀) 염상웅(수원 율천, 지역) 이수철(안성, 지회이사)–국민추천 최성현(이천 설성, 지역) 홍성규(안산, 수암새마을금고)
2015 (21명)	[훈장]–2명 최병옥(의정부, 지역)–협동장 김선근(화성, 지회)–근면장 [포장]–2명 권기식(평택, 지역) 라성란(남양주, 부녀) [대통령표창]–7명 김용기(경기, 교통총무) 김종복(부천 도당, 지역) 김종인(안성, 지역) 김정진(광명, 부녀) 오영숙(수원, 문고) 이용기(양평, 부녀)	장금자(의왕, 직장) [국무총리표창]–10명 김애순(오산, 사무국장) 김욱희(이천 신둔, 부녀) 김창규(고양 능곡, 지역) 김환회(경기, 지부이사) 류지환(남양주 와부, 문고) 박정희(수원 율천, 문고) 양원식(남양주 퇴계원, 지역) 이상옥(수원 곡선, 부녀) 이미순(남양주, 교통대원) 전갑태(수원 평동, 지역)
2016 (21명)	[훈장]–3명 강갑순(시흥, 부녀)–협동장 한영한(구리, 지역)–근면장 김상호(안산, 지역)–노력장 [포장]–3명 김용란(의왕, 부녀) 박기환(의정부, 지회) 이영순(안양, 문고부회장) [대통령표창]–7명 김광수(시흥 과림, 지역)	박선주(부천, 사무국장) 유연희(파주, 부녀) 윤미애(하남 부녀) 윤행선(김포, 지역) 이근옥(안성, 문고) 최연숙(성남, 직장) [국무총리표창]–8명 김태희(수원 호매실, 부녀) 박상찬(이천 증포, 지역) 윤재숙(광주, 부녀)

	윤진석(수원 정자3, 지역) 이한우(양주, 문고) 전유자(성남 신흥1, 부녀) 조종애(화성, 부녀) 홍성표(양평, 지회)	
2017 (21명)	[훈장]–4명 조준택(이천, 지회)–자조장 임낙희(경기, 부녀)–협동장 강경환(경기, 직장)–노력장 최성국(수원, 지역)–노력장 [포장]–3명 김기숙(안산, 부녀) 김영권(경기, 문고이사) 양윤호(포천, 지역) [대통령표창 5명] 김정식(용인, 부녀) 윤광회(동두천, 지역) 이선근(부천, 문고)	이진헌(남양주, 지역) 단 체(경기, 문고) [국무총리표창]–9명 김지언(고양 고봉, 지역) 김향순(수원 정자2, 문고) 송인호(용인 양지, 지역) 염철교(가평, 지역) 왕영순(포천 포천, 부녀) 윤성현(경기, 지부감사) 이춘식(수원, 교통) 이명순(구리, 사무국장) 조상권(의정부 의정부1, 지역)
2018 (22명)	[훈장]–2명 함옥생(경기, 지역)–자조장 이순열(오산, 부녀)–협동장 [포장]–4명 고정애(수원 매탄2, 부녀) 박인수(성남, 문고) 신영학(화성, 지역) 정차동(안산, 지회) [대통령표창]–6명 마현중(양주, 지역) 박찬일(여주, 지역) 서건기(수원, 사무국장) 손정화(평택, 부녀)	이영옥(가평, 부녀) 전기성(남양주, 지회) [국무총리표창]–10명 곽경국(구리, 지회) 권오금(성남 태평3, 부녀) 박남식(안양 부흥, 지역) 박영숙(양주, 문고부회장) 오수태(의정부 흥선, 지역) 유병윤(하남, 지회) 유애희(남양주, 교통대원) 이경수(파주 금촌1, 지역) 조규석(포천 산단, 지역) 고양 대덕(단체)
2019 (23명)	[훈장]–3명 임원묵(성남, 지회)–협동장 권병일(파주, 지역)–근면장 이혜숙(의왕, 부녀)–노력장	[포장]–5명 이완재(안양, 지역) 정혜경(수원, 문고) 차용숙(포천, 부녀) 최순옥(남양주, 직장)

	황창영(경기, 사무처장) [대통령표창]–4명 김성은(양평, 지역) 김정옥(남양주 와부,부녀) 이인행(경기, 지부이사) 차연경(과천, 부녀) [국무총리표창]–11명 고태영(안산 백운, 지역) 곽규봉(성남, 사무국장)	곽용진(이천 대월, 지역) 복연금(시흥, 문고이사) 송용규(포천 신북, 지역) 신경철(부천 오정, 지역) 이영실(화성 정남, 부녀) 이원률(경기, 지부이사) 이종복(시흥 신천, 지역) 임복순(여주, 부녀) 조돈수(가평 가평, 지역)

11. 경기도새마을회관 건립비 모금 및 지원현황(2002~2019)

[2019. 12. 31. 현재] (단위 : 천원)

No.	시 군 명	출연금	출연비율	도→시군 지원액 누계	지원비율	100% 달성일자
계		817,831		5,048,366		
1	수 원	57,688	7.05%	204,616	355%	2002–08–08
2	성 남	48,073	5.88%	177,686	370%	2005–11–17
3	고 양	46,822	5.73%	310,143	662%	2006–12–13
4	부 천	48,343	5.91%	177,103	366%	2009–02–19
5	용 인	39,234	4.80%	176,186	449%	2010–12–29
6	안 산	32,637	3.99%	202,309	620%	2005–10–17
7	안 양	40,279	4.93%	168,565	418%	2007–05–09
8	남 양 주	25,009	3.06%	174,295	697%	2005–10–07
9	의 정 부	24,954	3.05%	294,854	1182%	2002–08–14
10	평 택	45,177	5.52%	97,867	217%	2013–12–26
11	시 흥	21,854	2.67%	180,157	824%	2005–09–28
12	화 성	35,117	4.29%	119,065	339%	2007–08–16
13	광 명	23,948	2.93%	135,890	567%	2005–07–26
14	파 주	25,500	3.12%	100,658	395%	2005–03–18
15	군 포	23,045	2.82%	158,441	688%	2003–10–31
16	광 주	15,191	1.86%	108,631	715%	2006–04–04
17	김 포	21,890	2.68%	103,735	474%	2004–12–28

No.	시 군 명	출연금	출연비율	도→시군 지원액 누계	지원비율	100% 달성일자
계		817,831		5,048,366		
18	이 천	28,668	3.51%	100,367	350%	2006-07-31
19	구 리	16,420	2.01%	176,552	1075%	2005-01-20
20	양 주	12,000	1.47%	121,899	1016%	2007-06-30
21	안 성	35,088	4.29%	158,184	451%	2007-05-22
22	포 천	23,040	2.82%	205,812	893%	2004-12-16
23	오 산	11,449	1.40%	134,126	1172%	2005-02-18
24	하 남	11,251	1.38%	155,452	1382%	2002-09-27
25	의 왕	9,469	1.16%	167,459	1768%	2006-11-30
26	여 주	22,440	2.74%	104,172	464%	2013-12-20
27	동 두 천	9,060	1.11%	212,706	2348%	2002-02-22
28	양 평 군	18,554	2.27%	121,142	653%	2005-04-27
29	과 천	7,150	0.87%	104,136	1456%	2002-04-11
30	가 평 군	10,660	1.30%	189,768	1780%	2007-01-25
31	연 천 군	7,920	0.97%	206,385	2606%	2005-12-31
*	경 기 도	19,901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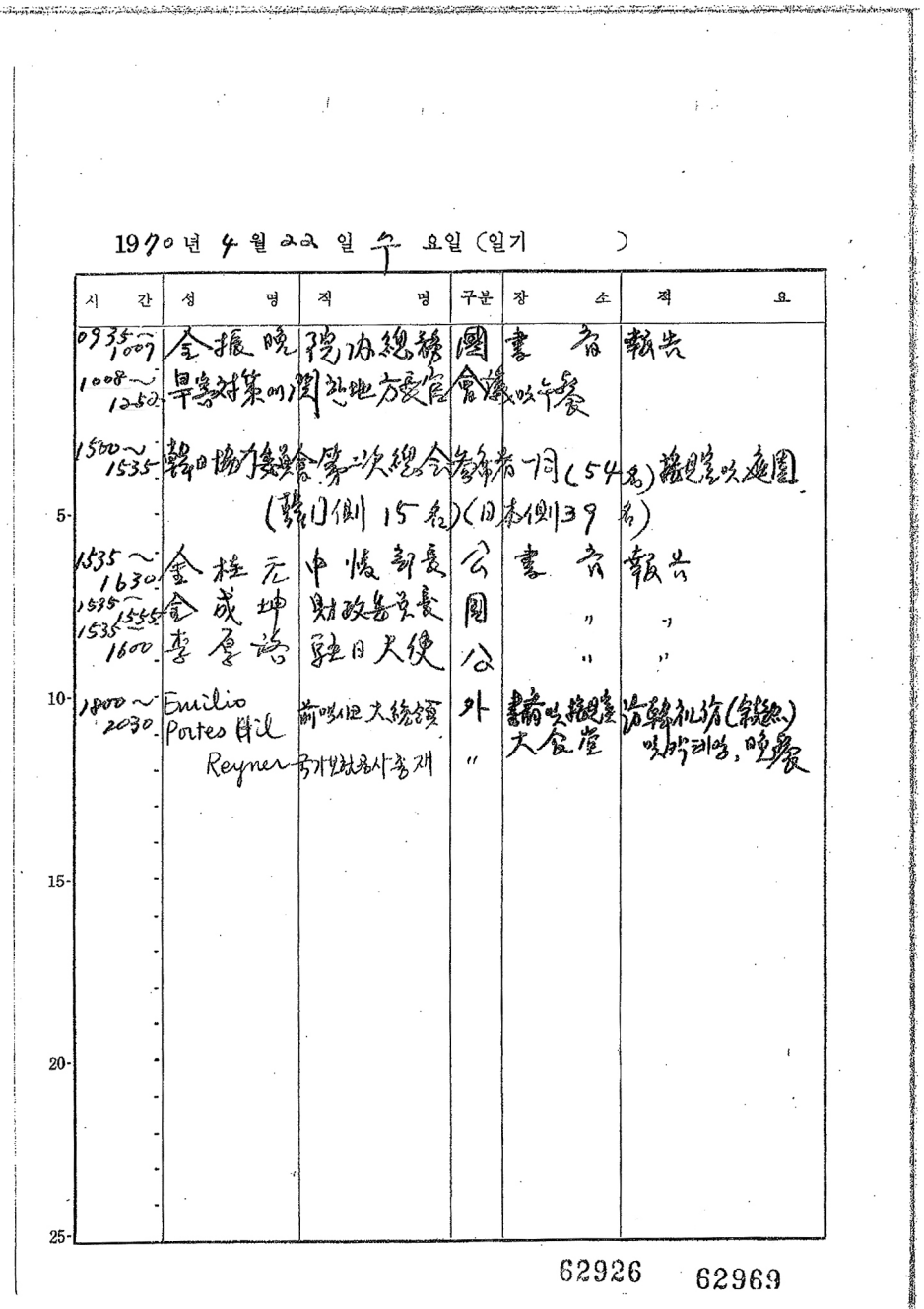
* 경기도 새마을회관 취득(2002. 3. 26.), 개관(2002. 5. 22.)

12. 선진마을 및 자랑스런 마을

	시군명	선진마을(지정연도) 경기도 지정 14개 마을	자랑스런 마을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정 37개 마을
1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2	고양시	고양군 벽제읍 관산2리(1976) 고양군 벽제읍 관산3리(1979)	덕이5리, 덕이리
3	용인시	용인군 기흥읍 공세1리(1980) 용인군 구성면 보정2리(1983)	이동면 송전리
4	성남시		
5	부천시		범박동, 상동, 약대동, 삼정동
6	안산시		

	시군명	선진마을(지정연도) 경기도 지정 14개 마을	자랑스런 마을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정 37개 마을
7	화성시	화성군 동탄면 영천3리(1978) 화성군 동탄면 금각1리(1982)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1983)	
8	남양주시	남양주군 화도면 묵현리(1971)	진접읍 내곡2리
9	안양시		
10	평택시	송탄시 도원동 칠원마을(1976) 평택군 고덕면 방축2리(1983)	소사동, 비전2동, 용이동, 장안동, 현덕면 장수리
11	의정부시		
12	파주시	파주군 파주읍 봉암1리(1979)	파평면 덕천리
13	시흥시		
14	김포시	김포군 김포읍 운양1리(1985)	대곶면 대벽3리
15	광명시		노온사동
16	광주시		
17	군포시		
18	이천시	이천군 마장면 덕평1리(1978)	설성면 금당리
19	오산시		양산동, 원동, 두곡2동
20	하남시		초일동, 초이동
21	양주시		회천읍 회암리, 회암2리
22	구리시		갈매동
23	안성시	안성군 삼죽면 마전2리(1985)	미양면 신계리, 하계정리
24	포천시		
25	의왕시		
26	여주시		금사면 금사2리
27	양평군		개군면 상자포리
28	동두천시		안흥동
29	과천시		과천동
30	가평군		상면 태봉2리
31	연천군		

13. 새마을운동 제창 장소(1970. 4. 22.) : 중앙청



1970년 4월 22일 수 요일 (일기)

시 간	성 명	직 명	구분	장 소	적 요
0935~1007	金振晩	總務總	國	書齋	報告
1008~1252	早魃對策에	관한 地方長官	會議	및 午餐	
1500~1535	韓日協力委員會 第二次總會		參席者	一同 (54名)	懇談 및 晩餐
		(韓國側 15名)	(日本側 39名)		
1535~1630	金桂元	中情部長	公	書齋	報告
1535~1555	金成坤	財政委員長	國	〃	〃
1535~1600	李厚洛	駐日大使	公	〃	〃
1800~2030	Emilio Portes Gil	前멕시코 大統領	外	晩餐會場	晩餐
	Reyner	국가보안위원장	〃	大食堂	

62926 62969

국가기록원 세미정신철 보고 대통령기록관

14. 역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현황

년 도	날 짜	장 소	참석인원(명)	참석자(치사)
1973	11. 23	전남 광주	4,189	대 통 령
1974	12. 18	시 · 도 단위(전국)	41,941	대 통 령
1975	12. 10	경북 대구	7,450	대 통 령
1976	12. 10	충남 대전	7,586	대 통 령
1977	12. 9	전북 전주	6,773	대 통 령
1978	12. 6	전남 광주	4,200	대 통 령
1979	12. 28	시 · 도 단위(전국)	16,906	대 통 령
1980	11. 28	서울 잠실체육관	12,000	대 통 령
1981	12. 9	대구 체육관	7,500	대 통 령
1982	12. 10	전북 전주	5,700	대 통 령
1983	11. 3	충북 청주	5,400	대 통 령
1984	10. 24	충남 대전	6,800	대 통 령
1985	10. 25	부산 종합체육관	12,700	대 통 령
1986	10. 30	경기 수원실내체육관	6,013	대 통 령
1987	11. 3	서울 잠실체육관	9,940	대 통 령
1988	12. 19	시 · 군 · 구 단위(전국)	137,264	장관
1989	11. 28~12. 19	시 · 도 단위(전국)	65,952	대 통 령
1990	11. 22	서울 세종문화회관	3,800	대 통 령
1991	11. 23~12. 16	시 · 도 단위(전국)	30,185	대 통 령
1992	11. 9	서울 세종문화회관	3,800	대 통 령
1993	11. 29~12. 16	시 · 도 단위(도 문예회관)	1,900	윤세달 도지사
1994	11. 28~12. 20	시 · 도 단위(도 문예회관)	1,900	장관
1995	12. 6	서울 88체육관	3,992	국무총리
1996	12. 5	시 · 도 단위(도 문예회관)	2,000	이인제 도지사
1997	11. 6	서울 88체육관	4,060(447)	국무총리
1998	12. 8	서울 학생체육관	7,200(777)	대 통 령
1999	11. 30	시 · 도 단위(도 문예회관)	2,000	장관/시도지사

년 도	날 짜	장 소	참석인원(명)	참석자(치사)
2000	12. 6	시 · 도 단위(도 문예회관)	1,950	대통령 축하메시지
	* 새천년새마을전진대회(2000. 4. 22. 88체육관 3,500명, 대통령 참석)			
2001	11. 29	시 · 도 단위(의정부체육관)	3,200	대통령 축하메시지
2002	10. 25	구미 박정희체육관	6,128(704)	국무총리
2003	12. 5	대전 충무체육관	4,300(400)	대 통 령
2004	12. 8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4,116	대통령 축하메시지
2005	12. 1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7,415	대통령 축하메시지
2006	11. 14	강릉 실내종합체육관	6,253(819)	대통령 축하메시지
2007	10. 5	창원 체육관	6,556(704)	국무총리
2008	12. 11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7,100(754)	대 통 령
2009	12. 9	청북 청주체육관	5,000(452)	장 관
2010	11. 24	경기 수원체육관	5,580(876)	장 관
2011	10. 20	울산 동천체육관	5,200(450)	이명박 대통령
2012	12. 21	시 · 도 단위(용인체육관)	2,000	김문수 도지사
2013	10. 20	순천 팔마체육관	5,000(600)	박근혜 대통령
2014	11. 20	시 · 도 단위(도 문예회관)	1,550	남경필 도지사
2015	11. 26	대구 육상진흥센터	6,000	장 관
2016	10. 20	평창 용평돔경기장	7,000	국무총리
2017	10. 19	부산 벡스코	10,000	행안부장관
2018	12. 4	시 · 도 단위(고양 킨텍스)	1,800	김희겸부지사
2019	10. 29	경기 수원체육관	5,300(640)	문재인대통령

15. 경기도새마을회 총회 및 이사회 개최일지

가. 총회 개최일지

1998년도 창립총회, 임완수

○ 1998. 5. 20. 도청 제2회의실

– 의결사항 제1호 : 정관승인에 관한 건
– 의결사항 제2호 : 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
– 의결사항 제3호 : 회원회비에 관한 건
– 의결사항 제4호 : 98~99 사업계획 및 세입 · 세출 예산(안)
– 의결사항 제5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
○ 임완수 도지부회장 선출(이사 17, 감사2)

1998년도 임시총회, 신현철(직무대행)
○ 1998. 12. 17. 호텔캐슬 영빈관
– 보고사항 제1호 : 도회관 운영에 관한 건
– 보고사항 제2호 :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도지부회장 선출에 관한 건
※ 고희선 도지부회장 선출

1999년도 정기총회, 고희선
○ 1999. 3. 16.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19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199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이사 선출에 관한 건(이사 7명)

2000년도 정기총회, 고희선
○ 2000. 1. 27.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199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도지부회장 선출(안)
※ 조명환 도지부회장 선출

2001년도 정기총회, 조명환

○ 2001. 2. 22.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이사 1명)

2001년도 임시총회, 조명환

○ 2001.11.22,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주요 당면업무 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새 회관 마련에 대한 추진사항 및 모금계획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정관 중 개정정관(안)

– 의결사항 제2호 : 회관매각 계획(안)

– 의결사항 제3호 : 새 회관 매입에 따른 권한 위임(안)

2002년도 정기총회, 조명환

○ 2002. 2. 4.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회관매입 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1년도 사업실적 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임원(감사)사임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새 회관 마련에 따른 일시 차입 및 담보제공의 건

– 의결사항 제4호 : 임원 선출에 관한 건(감사 1명)

2003년도 정기총회, 조명환

○ 2003. 2. 17.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
※ 조명환 도지부회장 선출

2003년도 임시총회, 김기원(직무대행)
○ 2003. 6. 17.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3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임원(회장, 감사)선출(안)
※ 홍원일 도지부회장 선출

2004년도 정기총회, 홍원일
○ 2004. 2. 11.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정관 중 개정정관(안)
– 의결사항 제4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이사7, 감사1)

2004년도 임시총회, 김기원(직무대행)
○ 2004. 9. 8.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정관 중 개정정관에 관한 건
– 의결사항 제2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회장, 이사)선출(안)
※ 홍원일 도지부회장 사임, 고희선 도지부회장 선출

2005년도 정기총회, 고희선
○ 2005. 2. 15.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정기총회, 고희선
○ 2006. 2. 16.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임원 및 회원 회비에 관한 건
– 임원선출 : 임원선출에 관한 건(도 회장 및 이사 · 감사 17명)

2007년도 정기총회, 고희선
○ 2007. 2. 23. 초원웨딩 뷔페 2층
– 보고사항 제1호 :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정기총회, 고희선
○ 2008. 2. 15.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정기총회, 이출선
○ 2009. 2. 11.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임원 및 회원회비에 관한 건
– 임원선출 제1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
(도 회장 이출선 및 이사 15명, 감사 2명)

2010년도 정기총회, 이출선
○ 2010. 2. 23.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임원선출 제1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이사 6명)

2011년도 정기총회, 이출선
○ 2011. 2. 15.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임시총회, 송동수(직무대행)
○ 2011. 8. 12.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임원선출 제1호 : 임원선출의 건

2012년도 정기총회, 이도형
○ 2012. 2. 23.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임원선출 제1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이도형, 이사 · 감사 16명)

2013년도 정기총회, 이도형

○ 2013. 2. 26.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

2014년도 정기총회, 이도형

○ 2014. 2. 25. 도회관 지하1층

– 보고사항 제1호 :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4년도 시군지회 평가 및 지회운영보조금 지원계획(안)

– 의결사항 제1호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자산취득의 건

2015년도 정기총회, 이도형

○ 2015. 2. 13.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정기총회, 이도형

○ 2016. 2. 17.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경기도새마을회 정관변경(안)

2017년도 정기총회, 이도형

○ 2017. 2. 22.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정기총회, 이도형

○ 2018. 2. 20.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법인지점(회관별관) 매각(안)

– 임원선출 제1호 : 임원선출(안)

2018년도 임시총회, 함옥생(직무대행)

○ 2018. 11. 23. 도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18년도 4/4분기 주요사업 계획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임원 현황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임원 추인(안)

– 임원선출 제1호 : 임원선출(안) : 송재필 도지부회장 선출

2019년도 정기총회, 송재필

○ 2019. 2. 15. WI컨벤션 (W홀)

– 보고사항 제1호 :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정기총회(서면), 송재필

○ 2020. 3. 5. 서면총회

– 보고사항 제1호 :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나. 이사회 개최일지

제1차 이사회(서면), 임완수

○ 1998. 6. 1. 도지부 회장실

– 의결사항 제1호 : 새마을회 회관용 건물매입(안)

– 의결사항 제2호 :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추경(안)

제2차 이사회, 신현철(직무대행)

○ 1998. 12. 17. 호텔캐슬

– 보고사항 제1호 : 서면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도회관 운영에 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도지부회장 사임 및 선출(안), 고희선 회장선출

제3차 이사회,

○ 1998. 12. 26. 도지부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당명사항 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도회관 운영에 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1998년도 제1회 세입 · 세출예추경(안)

제4차 이사회, 고희선

○ 1999. 3. 15.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19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199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이사 사임(안)

제5차 이사회, 고희선
○ 1999. 7. 27.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199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도 새마을회 운영에 관한 건
– 의결사항 제1호 :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추경(안)
– 의결사항 제2호 : 경기도새마을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제6차 이사회, 고희선
○ 1999. 11. 11.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도 새마을회 운영에 관한 건
– 보고사항 제3호 : 1999경기도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건

제7차 이사회
○ 2000. 1. 24. 도지부 5층 회의실
– 의결사항 제1호 : 199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

제8차 이사회, 조명환
○ 2000. 2. 28.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1~3호

제9차 이사회, 조명환
○ 2000. 11. 10.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1~2호

제10차 이사회, 조명환

○ 2001. 2. 22.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0년도 결산(안)심의

– 의결사항 제2호 :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안)심의

– 당면사항 제1호 : 새마을회비제 운영, 판매사업, 회원확충, 재정자립화

제11차 이사회, 조명환

○ 2001. 5. 22.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회관건립 계획(안)

– 의결사항 제2호 : 경기도 새마을 홀로서기 운동 추진계획(안)

– 의결사항 제3호 : 판매사업 등록업체 결정(안)

– 의결사항 제4호 : 경기도새마을윤리위원회 구성(안)

제12차 이사회, 조명환

○ 2001. 10. 18.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1년도 주요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판매사업 추가 등록 업체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회관매각 계획(안)

– 의결사항 제2호 : 임시총회 소집(안)

제13차 이사회, 조명환

○ 2001. 10. 19.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새회관 마련에 대한 추진사항 및 모금계획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정관 중 개정정관(안)

– 의결사항 제2호 : 새 회관 매입에 따른 권한 위임(안)

– 의결사항 제3호 :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4차 이사회, 조명환

○ 2001. 12. 19.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주요업무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경기도새마을회관 매입(안)

– 의결사항 제2호 : 새 회관 매입에 따른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제15차 이사회,(서면) 조명환

○ 2002. 1. 10. 서면

– 의결사항 제1호 : 경기도새마을회관 마련기금 적립을 위한 판매사업(안)

– 의결사항 제2호 : 보유장비 및 비품 집기류 처분(안)

– 의결사항 제3호 : 새 회관 매입에 따른 일시 차입의 건

제16차 이사회, 조명환

○ 2002. 1. 30.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회관매입 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전회 이사회(서면회의)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2001년도 사업실적보고

– 보고사항 제4호 : 임원사임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새 회관 마련에 따른 일시차입 및 담보제공의 건

– 의결사항 제4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

제17차 이사회, 조명환

○ 2002. 5. 6. 도지부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 회관이전 보고, 회관 개관식 및 현안사항 보고

제18차 이사회, 조명환

○ 2002. 8. 28. 20명,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의결사항 제1호 :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9차 이사회, 조명환

○ 2003. 2. 14.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의결사항 제1호 : 총회부의(안)

제20차 이사회, 조명환

○ 2003. 3. 26.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19차)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3년도 기본사업계획 및 주요현안업무

– 의결사항 제1호 : 새마을경기도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제21차 이사회, 조명환

○ 2003. 6. 10.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20차)이사회 결과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임원사임(안)

제22차 이사회(서면), 홍원일

○ 2004. 1. 16. 서면이사회

– 의결사항 제1호 :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경기도새마을회 윤리위원회 구성 건

제23차 이사회, 홍원일

○ 2004. 2. 11.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정관 중 개정 정관 개정(안)
– 의결사항 제4호 : 임원선출 건

제24차 이사회, 김기원(직무대행)
○ 2004. 7. 7.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23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임원사임 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상반기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정관중 개정정관(안)

제25차 이사회, 김기원(직무대행)
○ 2004. 9. 8. 도회장단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24차) 이사회 결과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임원선출(총회에 부의할 안건)

제26 이사회, 김기원(직무대행)
○ 2004. 12. 15. 도회장단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25차) 이사회 결과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4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7차 이사회, 고희선
○ 2005. 2. 14.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26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4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 의결사항 제1호 :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28차 이사회, 고희선

○ 2005. 2. 27.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27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실적

– 의결사항 제1호 :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9차 이사회, 고희선

○ 2006. 2. 16.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28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5년도 주요사업 실적

– 의결사항 제1호 :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임원 및 회원회비에 관한건

– 의결사항 제4호 : 임원선출의 건

제30차 이사회, 고희선

○ 2006. 6. 5.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29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6년도 상반기 사업실적 및 계획

– 의결사항 제1호 : 실외 임대주차장 직영에 관한 건

– 의결사항 제2호 :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31차 이사회, 고희선

○ 2007. 2. 23.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30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6년도 사업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32차 이사회, 김명숙(직무대행)

○ 2007. 7. 27. 초원웨딩부페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31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7년도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경기도새마을회 회장 선출의 건

– 의결사항 제1호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 의결사항 제3호 : 경기도새마을회 고문 추대에 관한 건

제33차 이사회, 이출선

○ 2007. 11. 22.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32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7년도 하반기 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수익사업 추진의건

– 의결사항 제2호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4차 이사회, 이출선

○ 2008. 2. 15.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33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7년도 사업실적 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임원선출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제33차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일부 변경 의결

제35차 이사회, 이출선

○ 2008. 5. 20.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34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8년도 사업실적 및 현안업무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36차 이사회, 이출선
○ 2008. 12. 23.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35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8년도 하반기 사업실적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7차 이사회, 이출선
○ 2009. 2. 6.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36차)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8년도 사업실적 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임원 선출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임원 및 회원회비에 관한 건

제38차 이사회, 이출선
○ 2009. 6. 16.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37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상반기사업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2010년도 전국지도자대회 개최 준비
– 의결사항 제1호 :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시군지회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안)

제39차 이사회, 이출선
○ 2009. 12. 15.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38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9년도 사업실적 및 현안업무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40차 이사회, 이출선
○ 2010. 2. 17.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39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임원(이사)선출(안)

제41차 이사회, 이출선
○ 2010. 7. 9.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40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0년도 사업계획변경 및 제1차 추가 경정예산(안)

제42차 이사회, 이출선
○ 2011. 11. 11.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41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주요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제2차 추가 경정예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자산취득에 관한 건

제43차 이사회, 이출선
○ 2011. 2. 8.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42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0년도 주요사업실적 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자산취득 및 도회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사항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44차 이사회, 송동수(직무대행)
○ 2011. 7. 1.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43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경기도새마을회장 사임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제45차 이사회, 송동수(직무대행)
○ 2011. 8. 5.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44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당면업무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경기도새마을회장 선출의 건

제46차 이사회, 이도형
○ 2011. 10. 12.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45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당면업무보고

제47차 이사회, 이도형
○ 2012. 2. 21.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46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도지부회장, 이사)선출(안)

제48차 이사회, 이도형

○ 2012. 3. 28.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47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경기도새마을회 주요업무현황

제49차 이사회, 이도형

○ 2012. 8. 21.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48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2년도 사업계획변경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50차 이사회, 이도형

○ 2013. 2. 18.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49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2년도 주요사업실적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임원선출 제1호 : 임원선출 (이사 김학섭)

제51차 이사회, 이도형

○ 2013. 7. 26.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50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 (안)

– 의결사항 제1호 : 2013년도 사업계획 변경 및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52차 이사회, 이도형

○ 2013. 12. 11.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51차)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제2새마을운동 추진계획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3년도 제2차 세입세출예산추경(안)

제53차 이사회, 이도형

○ 2014. 2. 25.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52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3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 의결사항 제1호 :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한 제2호 :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2014년도 시군지회 평가 및 지회운영보조금 지원계획(안)

– 의결사항 제4호 : 자산취득의 건

제54차 이사회, 이도형

○ 2014. 10. 30.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53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4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 의결사항 제1호 : 수익형 부동산 매입

– 의결사항 제2호 :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55차 이사회, 이도형

○ 2014. 12. 23.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54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4년도 사업실적 및 현안업무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56차 이사회, 이도형

○ 2015. 2. 13.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55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4년도 주요사업실적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임원선출에 관한 건

제57차 이사회, 이도형

○ 2015. 4. 2.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56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5년도 상반기 현안사항 보고

제58차 이사회, 이도형

○ 2015. 7. 14.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57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5년도 제1차 사업계획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59차 이사회(서면), 이도형

○ 2015. 8. 17. 서면이사회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58차) 이사회 결과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도보조금지원(민간단체) 차량 처분 건

제60차 이사회, 이도형

○ 2015. 12. 28.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59차 서면)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61차 이사회, 이도형

○ 2016. 2. 17. 경기도회관 지하1층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60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경기도새마을회 정관변경(안)

제62차 이사회, 이도형

○ 2016. 7. 21.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61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하반기 사업 계획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63차 이사회, 이도형

○ 2016. 12. 29.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62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64차 이사회, 이도형

○ 2017. 2. 22.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63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6년도 주요사업실적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65차 이사회, 이도형

○ 2017. 6. 30.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64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7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시군 자체채용 사무국장 운영비 지원 건

제66차 이사회(서면), 이도형

○ 2017. 11. 22. 서면이사회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65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지방보조금 사업비 변동사항 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그린잎 카페(두레) 설치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자산취득(빨래차량) 및 엘리베이터 수선 건

– 의결사항 제2호 : 경비 · 미화 직원 용역 전환 건

제67차 이사회, 이도형

○ 2017. 12. 22.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66차 서면)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7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제68차 이사회, 이도형

○ 2018. 2. 20.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67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사업 실적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의결사항 제3호 : 법인 지점(별관)매각 (안)

– 의결사항 제4호 : 임원선출 (안)

제69차 이사회, 이도형

○ 2018. 3. 27.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68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제70차 이사회, 함옥생(직무대행)

○ 2018. 11. 15.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69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8년도 4/4분기 사업계회보고

– 보고사항 제3호 : 임원현황에 관한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건

제71차 이사회, 송재필

○ 2018. 12. 20.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70차)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임원선출(감사)

– 의결사항 제3호 : 자문위원회 구성(안)

제72차 이사회, 송재필

○ 2019. 2. 15. WI컨벤션(W홀)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71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8년도 주요사업실적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73차 이사회, 송재필

○ 2019. 5. 14.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72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9년도 상반기사업실적보고, 하반기 사업계획

– 보고사항 제3호 : 2019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안)

– 의결사항 제1호 :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74차 이사회, 송재필

○ 2019. 10. 14.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73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9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제75차 이사회, 송재필

○ 2019. 12. 20.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회(제74차) 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9년도 주요사업실적

– 의결사항 제1호 :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76차 이사회, 송재필

○ 2020. 2. 20. 도 새마을회관 9층 회의실

– 보고사항 제1호 : 전차(제75차)이사회 결과보고

- 보고사항 제2호 :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
- 의결사항 제2호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16. 경기도 새마을사업 연표(1983년 이후)

○ 주요사업 실적은 경기도지부 설립 이후인 1983년부터로 한정하였으며 2019년을 표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약식으로 기록하였음
○ 사업실적은 경기도새마을회 외 4개 회원단체 등의 사업을 총괄하여 기술함
○ 1998년 이전 실적은 법인설립 이전으로 각 회원단체 업무를 중심으로 합산 집계함
○ 1989년도 이전 사업은 부녀회 사업을 근간으로 기술함

2019년

1. 생명살림운동

1) 생명살림실천! 3R 자원재활용 수집운동 사업

○ 사업지역(11) : 수원,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양주, 안성, 포천
○ 사업실적: 총 802톤(환가액: 263,622천원)
- 재활용자원 모으기, 다시 입을 수 있는 옷 모으기
- 판매대금은 불우이웃돕기 사업비로 활용

2) 경기도 생명지식창고

○ 사업기간 : 2019. 7월~12월

○ 추진계획 : 경기도내 12개소, 600여명(개소별 50명)
○ 추진현황 : 경기도내 12개소, 656명 교육(계획대비 9.3% 추가교육)
○ 주요내용 : 이론교육(전문 강사), 실습교육(페트병 화분 만들기)

3) Y-SMU포럼 생명살림을 위한 청소년 실천교육

○ 추진기간 : 2019. 7. 4.~10. 19. 3개월
○ 추진장소 : 분당 서현청소년수련관,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수원천
○ 참여인원 : 97명
○ 사업내용 : 생명살림운동 현장견학, 실천교육(4회), 환경정화활동

4) 생명살림지도자 정책연찬

○ 교육기간 : 2019. 8. 26.~8. 27.(화) 1박2일
○ 교육장소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 참석인원 : 105명
○ 주요내용 : 중앙회장 특강, 대 전환계획 특강, 시도별 추진방안 토의 등

5) 직장 내 에너지절약 지침 만들기

○ 추진장소 :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 회원사 23개소

구 분	게시장소	구 분	게시장소	구 분	게시장소
수 원 시	2개소	남양주시	1개소	이 천 시	2개소
성 남 시	1개소	시 흥 시	6개소	양 주 시	1개소
화 성 시	7개소	김 포 시	1개소	포 천 시	1개소

○ 추진방법 : 에너지절약지침(15가지) 게시판 게시 등

6)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 장 소 : 18개시군, 주요 지역
○ 추진실적 : 396회, 5,610명 참여, 34개 센터운영

7) 국토 대 청결운동

○ 장　　소 : 31개시군, 주요 지역

○ 주요내용 : 새마을대청소, 실개천 정화, 정류장 청소, 불법전단지 제거 등

○ 추진실적 : 2,214회, 77,296명 참여

8) 생명살림교육

○ 추진지역 : 경기도 및 24개시군, 주요 지역

○ 주요내용 : 환경교육, ECO 교육 등

○ 추진실적 : 109회, 6,363명 참여, 103개소

– 중앙연수원 생명살림 교육 수료 : 총12개 과정, 77명

– 현장강사 양성과정 : 11회, 72명/ 현장강사 심화과정 : 1회, 5명

2. 평화 나눔 운동

1) 희망 · 행복 1%나눔 후원회원

○ 사업내용

– 읍면동 단체별 모집 후원금은 사업비(이웃공동체 사업 등)로 사용

– 후원회원 모집과 함께 지도자 배가운동 병행실시

○ 누적실적 및 모금액(2019. 12. 31.현재)

– 회원수 : 3,821명

– 누적모금액 : 1,585,406천원, 2019년 모금액 : 391,438천원

2) 2019 마을공동체 운동

○ 추진실적 : 31개 시군별 시범지역 선정, 117개 읍면동

○ 우수 마을공동체 평가 뽐내기 대회 : 수원시 정자3동 정자마을 장려상 수상

3) 제5회 농촌사랑 in 대전 박람회

○ 기　　간 : 2019. 10. 18.~10. 20.

○ 장　　소 : 대전시 유성온천공원 두드림 공연장 인근
○ 참석인원 : 57명
○ 판매금액 : 3,460,천 원
○ 판매품목 : 오색 쌀, 계란, 율무
○ 주요내용 : 개막식, 도농직거래장터 운영, 문화공연 및 체험부스 등

4)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김장나누기)

○ 기　　간 : 2019. 11. 13.~11. 14.
○ 장　　소 : 경기도청 제3별관 앞 주차장
○ 참석인원 : 시군새마을지도자 및 봉사자 507명
○ 추진실적 : 507명 참여, 4,500포기, 949가구 수혜
　– 시군 추진실적 : 398회, 17,940명 참여, 329,805포기, 69,460가구 수혜

5) 이웃 돌봄 사업

○ 연탄나누기 : 23회, 604명 참여, 28,450장
○ 경로위안사업 : 455회, 9,064명 참여, 155,386명 수혜
○ 홀몸노인 관련사업 : 1,382회 참여, 19,352명 수혜
○ 다문화가정 관련사업 : 29회, 986명 참여
○ 소년소녀가장 관련사업 : 142회, 2,663명 참여

6) 청소년 농촌 생태체험 사업

○ 기　　간 : 2019. 4월~10월
○ 사업추진 : 2개소(의정부, 의왕)
○ 추진회수 : 10회
○ 참여인원 : 800명
○ 사업내용 :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및 일손 돕기

7) 행복 나눔 밥상사업

○ 기　　간 : 2019. 3월~12월
○ 사업추진 : 2개소(의정부, 의왕)
○ 사업내용 :
　– 주1회 관내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 가정 방문
　– 밑반찬 전달 및 어르신 건강 체크, 말벗도우미 등

8) 행복을 나르는 청장년 농촌봉사대

○ 기　　간 : 2019. 5월~7월
○ 사업추진 : 2개소(남양주, 이천)
○ 참여인원 : 118명
　　(협의회, 부녀회, 직 · 공장협의회, Y-SMU포럼 회원 등)
○ 주요내용 : 이 · 미용봉사, 장수사진촬영, 음식대접, 농촌일손 돕기
○ 수혜인원 : 81명

9) 방역봉사

○ 내　　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책임 방역제 구축 및 취약지역 방역활동
○ 추진실적 : 11,272회, 79,159명

10) 행복한 농촌, 건강한 마을 만들기

○ 내　　용 : 농촌일손 돕기 지원 등
○ 추진실적 : 52회, 1,582명

11) 사랑의 쌀 나눔

○ 내　　용 : 소외이웃에게 사랑의 쌀 기부
○ 추진실적 : 총840kg(협의회, 직 · 공장협의회)

3. 공경문화운동

1) 직 · 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 새마을포럼

○ 일　　시 : 2019. 9. 18.(수)
○ 장　　소 : 양주시청 대회의실(지하)
○ 참석대상 : 51명(도 직 · 공장회장, 시군 직 · 공장회장, 회원(사), 직원 등)
○ 주요내용 : 초청강의, 활성화방안토의, 오찬 및 회암사지 박물관 견학 등

2) 제27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 기　　간 : 2019. 6. 15.
○ 장　　소 :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 참석인원 : 1,131명
○ 내　　용 : 백일장, 사생대회, 오행시, 장기자랑, 체험부스 운영 등

3) 대통령기 제39회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대회 시상식

○ 기　　간 : 2019. 11. 20.
○ 장　　소 : 경기도새마을회관 회의실
○ 참석인원 : 100명
○ 내　　용 : 작품전시, 시상, 수상작 발표

4) 문고중앙회 임원단 독서문학기행

○ 일　　시 : 2019. 11. 27.~11. 28.
○ 장　　소 : 경기도새마을회, 수원화성
○ 참석인원 : 40명(문고중앙회 임원단, 경기도문고 회장단)
○ 내　　용 : 우수문고 사례발표, 동아리 공연, 우수문고탐방, 역사탐방

5) 독서문학기행 '길 위의 인문학'

구 분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	새마을문고수원시지부
추진기간	2019. 3. 8.(금)	2019. 9. 18.(수)
추진장소	이천, 여주박물관, 신륵사	이효석 문학관, 효석달빛언덕
참여인원	47명	171명
주요내용	문화탐방, 시군별 소개 등	인문학 기행

6) 독서문화운동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교육기간 : 2019. 5. 2.~7. 25. 11회×3시간=33시간
○ 교육장소 :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 회의실
○ 주요내용 : 제126기 독서문화전문가 양성과정(이야기 캘리 지도자 3급)
○ 수료인원 : 20명

7) 찾아가는 인문학 '가족퀴즈대회'

○ 추진주체 :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 새마을문고수원지부
○ 추진기간 : 2019. 9. 21. 15:00
○ 추진장소 : 화정동 꽃 우물 공원
○ 참여인원 : 143명
○ 내　　용 : 가족 독서 골든 벨, 독서체험부스, 포토 존 운영

8) 피서지 독서문화시설 운영

○ 추진시군 : 7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남양주, 안양, 양주, 구리)
○ 추진기간 : 2019. 7. 29.~9. 29. 60일간
○ 추진장소 : 공원, 캠핑장, 유원지 등
○ 도　　서 : 13,300권
○ 내　　용 : 도서교환 및 대출, 영화관버스, 새마을문고 홍보 등

9) 직장 내 공경문화 지침 만들기

○ 추진장소 :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 회원사 23개소
○ 추진방법 : 공경문화지침(8가지) 게시판 게시 등

4. 지구촌공동체운동

1) 2019 키르기스스탄 해외협력사업

○ 기　　간 : 2019. 8. 12.~8. 16. 3박 5일
○ 지　　역 : 옥쨔브르 츄이마을, 으쓰크아타면 타쉬바샤트마을
○ 사업내용 : 새마을낙농장 및 새마을종합복지관 건립
○ 방문 주요내용
　– 옥쨔브르면 츄이마을 새마을낙농장 준공식
　– 으쓰크아타면 타쉬바샤트마을 새마을종합복지관 현지점검

5. 조직역량강화 운동

1) 2019년도 각종 총회개최

가. 정기총회

○ 일　　시 : 도지부(2.15), 협의회(1.29), 부녀회(1.29), 직 · 공장(1.30), 문고(1.24)
○ 주요내용
(1) 도지부 및 협의회, 부녀회
　– 보고사항 : 2018 주요사업실적보고 승인
　– 의결사항 : 2018 세입세출결산(안), 2019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 직 · 공장, 문고
　– 보고사항 : 2018 주요사업실적보고 승인
　– 의결사항 : 2018 세입세출결산(안), 2019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임원선출

2) 2019년도 이사회

가. 제72차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2019. 2. 15. WI컨벤션 (W홀)

○ 주요내용

– 보고사항 : 전회 이사회 결과보고, 2018 주요사업실적보고 승인

– 의결사항 : 2018 세입세출결산(안), 2019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나. 제73차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2019. 5. 14. 도회관 9층 회의실

○ 주요내용

– 보고사항 : 전회 이사회 결과보고, 2019 상반기사업실적보고,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

– 의결사항 :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다. 제74차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2019. 10. 14. 도회관 9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전회 이사회 결과보고, 2019 주요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라. 제75차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2019. 12. 20. 도회관 9층 회의실

○ 주요내용

– 보고사항 : 전회 이사회 결과보고, 2019 주요사업실적

– 의결사항 :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3) 2019년도 중앙회 정기총회

○ 일시장소 : 2019. 2. 19.~2. 20.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 참석인원 : 29명(도회장단, 지회장 등)

○ 내　　용: 업무협약, 총회, 시도별 포부 발표, 결의문채택

4)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 추진

○ 작업기간 : 2019. 1월~12월

○ 출간일자 : 2020. 4. 22.(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일)
○ 발행부수 : 1,000부

5) 자문위원회 창립 및 운영

구 분	일 시	장 소	인 원	비 고
1차(창립총회)	19. 3. 18.(월)	도회관 9층 회의실	20명	현안업무보고 등
2차	19. 6. 12.(수)	도회관 9층 회의실	12명	현안업무보고 등
3차	19. 9. 30.(월)	도회관 9층 회의실	12명	현안업무보고 등

6)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주최주관 : 새마을운동중앙회/경기도새마을회
○ 후　　원 :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시
○ 기　　간 : 2019. 10. 28.~10. 29
○ 참석인원 : 약 6,000명
○ 내　용
　– 1일차 : 생명이 되살아나다 열린 음악회, 체험부스 등
　– 2일차 : 식전행사(입장식, 내빈소개 등), 본 행사(치사, 성과보고 등)

7) 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회

○ 기　　간 : 2019. 4. 18.~4. 19.
○ 장　　소 : 포천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 참석인원 : 179명(경기도, 시군 회장단, 사무요원, 교통봉사대, 자문위원, 새사모)
○ 내　용 : 기념식, 특강, 북 난타, 시군포부 시상, 화합의 한마당
　– 시군 포부 최우수 : 안산, 우수 : 평택, 고양, 광명, 양평

8) 새마을교육

○ 목표인원 : 1,427명, 교육인원 : 1,221명, 입교율 : 85.6%

시 군	교육인원	입교율	시 군	교육인원	입교율	시 군	교육인원	입교율
도지부	11	110	의정부	46	102	구리시	25	64
수원시	73	97	파주시	43	86	안성시	67	96
고양시	33	83	시흥시	33	110	포천시	42	93
용인시	43	78	김포시	31	61	의왕시	28	80
성남시	59	66	광명시	26	70	여주시	34	89
부천시	34	142	광주시	11	28	양평군	61	107
안산시	31	91	군포시	10	33	동두천	23	77
화성시	38	95	이천시	50	100	과천시	12	41
남양주	65	98	오산시	38	109	가평군	43	108
안양시	45	88	하남시	14	38	연천군	28	80
평택시	80	100	양주시	44	110			

9) 새마을 신문

○ 목표부수 : 7,246부, 구독부수 : 4,595부, 구독율 63%

시 군	구독부수	구독율	시 군	구독부수	구독율	시 군	구독부수	구독율
도지부	8	100	의정부	140	75	구리시	134	57
수원시	386	79	파주시	69	36	안성시	229	86
고양시	142	35	시흥시	214	85	포천시	180	98
용인시	–	–	김포시	170	89	의왕시	–	–
성남시	290	57	광명시	175	114	여주시	–	–
부천시	193	75	광주시	40	34	양평군	202	118
안산시	193	107	군포시	82	103	동두천	8	11
화성시	–	–	이천시	230	91	과천시	–	–
남양주	448	94	오산시	91	112	가평군	96	135
안양시	309	105	하남시	110	111	연천군	–	–
평택시	286	88	양주시	170	150			

10)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 새로운 100년 실천선언을 위한 3.1운동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
  – 일시장소 : 2019. 2. 28. 경기도새마을회관 앞 화단
  – 참석인원 및 대상 : 20명(도회장단, 중앙회, 도 이사, 도의원 등)
○ 나도 독립운동가[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 후원 참여
  – 모금기간 : 2019. 2. 11.~2. 22.
  – 참여인원 : 613명(3개 단체 포함)
  – 중앙회전달 : 4,560,000원(경기도, 15개시군)
○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광화문) : 고양시새마을부녀회 떡 나눔 지원

11)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지원

○ 성금모금 : 20,000,000원
○ 전　　달 : 2019. 4. 12.(금), 강원도새마을회(장소 : 강릉시새마을회)

(단위 : 천원)

시　군	금 액	시　군	금 액	시　군	금 액	시　군	금 액
경기도	1,020	남양주	400	광　주	자체진행	포　천	2,000
수　원	500	안　양	500	군　포	960	의　왕	500
고　양	200	평　택	1,000	이　천	1,500	여　주	400
용　인	1,000	의정부	300	오　산	500	양　평	1,250
성　남	600	파　주	1,000	하　남	200	동두천	1,600
부　천	1,000	시　흥	300	양　주	200	과　천	770
안　산	200	김　포	400	구　리	자체진행	가　평	500
화　성	200	광　명	300	안　성	300	연　천	400

12)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 돕기

○ 성금 전달
  – 일　　시 : 2019.11.14.
  – 금　　액 : 1백만 원
　　(도 50만원, 부녀회 20만원, 협의회/직공장/문고 10만원)

○ 우리 돼지고기 소비촉진
  – 일　시 : 2019. 11. 14.
  – 내　용 : 퍼포먼스 참여, 김장 시 우리 돼지고기로 수육 제공, 현장구매, 홍보

13) 북녘 평화의 나무심기운동 추진위원회 발족식
○ 일시 및 장소 : 2019. 5. 21.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대강당
○ 참석대상 : 중앙회장, 중앙 및 시도별 추진위원(경기도 10명)
○ 내　용 : 위촉식, 산림청 업무협약, 시도별 대화 등

14)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수도권지역 공론화 추진
○ 추진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참여단체 : 새마을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 내　용 : 권역별 포럼, 수도권 대토론회, 전국 사회적 합의 선포식

15) '경기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 개정
○ 발의의원 : 14명(대표발의 국중범 의원)
○ 통 과 일 : 2019. 4. 4. 10:00 제334회 임시회
○ 개정 주요내용 :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새마을운동 활성화
  – 기존범위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가

16) 2019 모범직원 해외연수
○ 기간장소 : 2019. 4. 30.~5. 2. 중국 연태일원
○ 참석인원 : 15명(도회장 1명, 우수시군사무국장 11명, 도 사무처 3명)
○ 주요내용 : 활성화방안 모색 및 문화탐방 등

17) 시군 사무국장 워크숍

○ 일시장소 : 2019. 3. 21. 새마을운동중앙회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34명(도 사무처 7명, 시군사무국장 27명)
○ 주요내용 : 협동조합설명회, 3개년 대전환 계획 추진방향등

18) 시군 직원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9. 9. 23. 도회관 9층 회의실
○ 참석인원 : 73명
○ 주요내용 : 현안업무보고 및 당면사항토의, 특강

19) 새마을 노동조합원 및 실무운동가 수련대회

○ 기간장소 : 2019. 9. 23.~9. 25. 라비돌 리조트(경기도 화성시)
○ 참석인원 : 550여명
○ 주요내용
  – 1일차: 도착 및 등록, 개회식, 특강, 지부별 대화의 시간
  – 2일차: 문화명소 탐방, 화합의 밤
  – 3일차: 특강, 폐회식

20) 실무운동가 갈등관리 교육(기본과정)

○ 기간장소 : 2019. 11. 18. 도회관 9층 회의실
○ 참석인원 : 47명(경기도, 시군사무요원 40명, 시군회장단 7명)
○ 주요내용 : 갈등이해(박지호), 경청대화(고재근)

21) 협의회 워크숍

○ 기간장소 : 2019. 7. 19.~7. 20. 경기도 양평군 일원
○ 참석인원 : 24명
○ 주요내용 : 조직 활성화방안 토의, 문화탐방 등

22) 부녀회 워크숍

○ 기간장소 : 2019. 11. 27.~11. 28. 쉬자파크 및 양평일원
○ 참석인원 : 24명
○ 주요내용 : 2020년도 경기도새마을부녀회 사업 활성화 방안 토의 등

23) 직 · 공장새마을협의회 워크숍

○ 기간장소 : 2019. 8. 13.~8. 17. 중국 웨이하이시 및 옌타이시
○ 참석인원 : 29명
○ 주요내용 : 조직 활성화방안 토의, 3 · 1운동 100주년 기념 우리역사 바로알기, 문화탐방 등

24) 문고 워크숍

○ 기간장소 : 2019. 9. 24.~9. 25. 제주도
○ 참석인원 : 17명
○ 주요내용 : 문고활성화 방안 토의, 민속마을 탐방 등

25) 경기도 새사모 워크숍

○ 기간장소 : 2019. 7. 2.~7. 5.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참석인원 : 21명
○ 주요내용 : 회원 간 친목도모 및 항일문화 탐방

26) Y-SMU포럼 운영

○ 조직 및 회원수 : 14개 포럼, 회원 420명
○ 추진실적 : 36회, 888명
  - 2019 전국 Y-SMU포럼 평가대회(국고보조사업부문) : 경기대 포럼 장려상

27) 제26회 교통봉사대경기도지역대 한마음다짐대회

○ 일　시 : 2019. 10. 6.

○ 장　소 : 경기도새마을회관 일원
○ 참석대상 및 인원 : 250명, 대원 및 가족
○ 내　용 : 캠페인, 실천결의, 한마음다짐대회

2018년도

1) 국토 대 청결운동

○ 장소 및 인원 : 용인, 부천, 안양, 광명, 광주, 이천, 오산, 포천, 동두천, 가평, 수원, 성남, 화성, 남양주, 양주
(15개 시군 시범지역) 1,989회, 37,427명

2) 3R 숨은 자원 모으기

○ 지역 및 실적 : 용인, 부천, 안양, 평택, 파주, 이천, 안성, 포천, 양평 등 9개시군, 603톤

3) 에너지절약 캠페인

○ 하절기 전기 100W줄이기 및 동절기 내복 입기 캠페인 40회, 2,800명

4) 방역봉사대 운영

○ 하절기 방역활동 및 모기 포충기 배부

5) 우수 마을공동체 평가

○ 여주시 산북면, 양평군 단월면

6) 사랑의 김장나누기

○ 도 부녀회 4,500포기 김장, 독거노인 1,000세대 지원

7) 명절맞이 새마을운동
○ 설 · 추석 443개소, 8,700명 참여, 37,000명 지원

8) 제4회 농촌사랑 박람회 in 경기
○ 수원 화성행궁 광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159개 품목

9)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운동
○ 방범순찰 활동 및 소방 · 생활안전교육 실시 444회, 3,970명 참여

10) 직공장새마을운동 포럼 및 회원사 순회 간담회
○ 성남시새마을회관, 58명 참여, 업 사이클링의 이해

11) 제26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 성남시 중앙공원, 2,500명 참여, 백일장, 사생대회, 장기자랑 등

12) 대통령기 제38회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 예선대회
○ 중앙연수원 강당, 200명, 우수독후감 발표회 및 시상

13) 독서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 남양주 지역, 40명 수료, 독서법, 서평 및 문화감상평 지도

14) 독서문학기행 '길 위의 인문학'
○ 4회, 353명 참여, 문화유적지 탐방, 애송시 낭송, 독서문화운동의 이해

15) 피서지문고운영
○ 고양, 안산, 남양주, 시흥, 양주, 구리 6개시 하절기 피서지 교양도서 대출

16) 지구촌새마을운동

○ 라오스새마을협력사업 : 무왕토라콤군 나와 마을, 주민교육 및 채소재배 단지 조성
○ 몽골새마을협력사업 : 바양찬드만군 찬드만 마을, 새마을블록공장 개설

17) 조직 역량강화

○ 총회개최 : 도회 2회 및 각 단체별 1회
○ 이사회 개최 : 4회
○ 회장단 연찬회 및 워크숍 : 6회 718명, 새마을회장단, 사랑모임회원, Y-SMU포럼 회원
○ 직원 업무역량 강화 연찬 및 사기진작 : 2회, 47명
○ 경기도새마을지도자대회 : 고양킨텍스 제1전시장, 2,000명
○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교육 : 1,349명, 중앙연수원 위탁
○ 교통봉사대 평가대회 : 도 새마을회관 150명 참여, 조직평가, 우수대원 표창

2017년도

1)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 사회연대회의 출범 : 22개 기관 및 사회단체
○ 운동 참여자 교육 : 60회, 3,800명
○ 캠페인 전개 : 25개소, 56회, 3,432명 참여
○ 자녀출산 축하 나눔 : 20개소, 98회, 1,167명 지원

2) 마을공동체 운동 전개

○ 문화 · 사회 · 경제 · 환경 중심 마을공동체 운동 추진
: 89개 시범 마을 선정
○ 평가 및 시상 : 고양 대덕, 안성 미양, 양평 양평읍

3) 행복한 동행 사업

○ 1지도자 1소외 가구 결연 : 말벗, 생활용품 지원, 3,989명

4) 함께 사는 이웃 사업

○ 밑반찬 나누기 : 1,471회, 17,651명 참여, 41,652가구 지원

○ 집 고쳐주기 : 3,436명 참여, 437가구 수리

○ 연탄 나누기 : 37회, 1,244명 ,참여 565세대, 179,100장 지원

5) 다문화가정 협력사업

○ 멘토 · 멘티 결연 : 380명

○ 어울 마당 운영 : 22회, 525명 참여

○ 다문화 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 308회, 2,609명

6) 사랑의 김장 나누기

○ 360천포기, 63,000가구 지원, 도 · 시 · 군 17,000명 참여

7) 명절맞이 새마을운동

○ 떡국, 송편, 쌀, 생필품 나누기, 귀향환영 현수막, 새마을대청소

○ 461개소, 9,650명 참여, 44,380지원

8) 안전마을 만들기

○ 야간 골목길 순찰, 귀갓길 동행, School Zone 지킴이 활동

○ 1,396회, 12,235명 참여

9) 하절기 방역봉사 활동

○ 27개시군, 6,340회, 21,403명 활동

10)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자매결연 체결 26개 지역, 장터 운영 90회

11)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 지역상인협회와 MOU체결, 온 누리 상품권 사용 활동

12) 농촌 돕기 활동

○ 일손 돕기 및 이 · 미용봉사 활동 전개, 108회 2,646명 참여

13) 휴경지 경작

○ 143개 지역, 122천 평 경작, 5,600명 참여

○ 고구마, 배추, 감자 등의 경작

14) 나라사랑운동

○ 국경일 국기달기 활동 : 캠페인 99회 3,600명 참여, 국기보급 8,000매, 가로기 게양 33,000매

○ 나라사랑 캠프 운영 : DMZ 인접 노동당사, 제3땅굴 견학 70명

15) 선진도민의식 함양

○ 준법, 기초질서, 교통질서, 행락질서 캠페인 445회, 4,500명 참여

16) 직장 · 공장새마을운동 추진

○ 소통과 화합 강연, 우수 회원사(화성시 한성하나론) 방문, 64명

17) 제25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 백일장 사생대회 경연, 체험부스 운영, 경연 우수자 시상 88명

○ 수원시 야외 음악당, 2,500명 참여

18) 대통령기 제37회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대회 개최

○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
○ 전시회, 우수작품 발표회, 우수입상자 시상식

19) 각종 도서관의 운영

○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 178개 도서관, 연인원 637천명 이용, 1,004천권 대출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시흥, 광명, 이천,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의왕, 과천 18곳)
○ 하절기 피서지문고 운영 : 10개소, 21,016명, 37,828권 대출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의정부, 시흥, 광명, 의왕)
○ 이동도서관 : 10개 지부, 26개 도서관, 426,240명 이용, 938,040권 대출 (고양,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의정부, 시흥, 광명, 의왕)

20)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

○ 광명시새마을회관, 7~8월, 35명, 독서법, 서평 및 문화감상평

21) 독서문학기행

○ 안양 및 의왕문고지부 76명 문화유적지 탐방, 애송시 낭송, 독서문화운동 소개

22) 알뜰도서 교환전

○ 15개 문고지부, 55곳, 36,828명 이용, 43,050권 교환

23) 선진교통문화 정착 실천 활동

○ 캠페인 : 하남 등 16개소, 168회, 2,500명 참여

24) 국토청결운동

○ 새마을대청소, 마을개천, 정류장청소, 불법전단지 제거, 2,181회, 83천명 참여

25) 재활용자원 수집

○ 고철, 폐지, 농약병, 폐비닐, 플라스틱, 헌옷 등

○ 31개시군, 1,260톤 수거

26) 에너지 절약운동

○ 100W줄이기 및 내복 입기 캠페인, 63회, 3,880명 참여

27) 지구촌새마을운동

○ 몽골 티브도시 에르덴군 볼락 마을, 유제품공장 설립 지원

○ 라오스 무왕토랑콤군 폰흥 마을, 채소재배단지 조성, 초등학교 개보수 지원

28) 조직역량 강화

○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 : 부산(10. 18.~19.) 748명 참여

○ 도회 및 단체별 총회 개최 : 6회

○ 지도자 워크숍 · 연찬회 · 간담회 및 사무요원 직무교육 개최 : 12회, 553명

○ 교통봉사대 조직 강화 및 평가대회 : 2회, 550명

○ Y-SMU포럼 조직육성 운영 : 15개 포럼, 453명 (대학포럼 7, 청년포럼 8)

○ 새마을지도자 교육 : 1,291명, 중앙연수원

○ 활동 실적 홍보 : 신문, TV, 유선방송 등 3,524회

2016년도

1) 읍면동 공동체 운동 추진 21개소

2)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

○ 공동체시범사업 : 3개 지역, 7회, 223명 참여
○ 가족사랑 가정교육 : 2개소, 6회, 439명 참여
○ 건전한 대학문화 : 대학생 60명 참여

3)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 국기보급 : 가정용 7,500매, 차량용 4,800매
○ 캠페인 전개 : 127회, 553개소, 3950명 참여
○ 나라사랑 플레시 몹 : 수원광교박물관 75명(경기대 Y-SMU포럼)

4) 성숙한 도민의식 함양

○ 준법정신, 기초질서, 교통질서, 행락질서 캠페인 : 521회, 9,350명 참여

5) 제24회 경기도민문화의 한마당

○ 남양주시 삼패동 한강시민공원, 2,500명
○ 백일장, 사생대회 경연, 체험부스 운영, 장기자랑 85명 시상

6) 대통령기 제36회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대회

○ 도 회의실, 150명
○ 전시회, 작품발표회, 우수작 시상

7) 독서 문화지도사 양성

○ 새마을문고 안성시 및 의왕시지부, 51명
○ 작은 도서관 운영실무, 독서지도, 도서 관리 등

8) 역사 문학 탐방

○ 7회, 397명, 김삿갓 · 정지용 · 김유정 문학관, 선암마을, 백마고지, 노동당사 등

9) 각종 도서관 운영

○ 작은도서관 : 18개 지부, 183개 운영, 968,753권, 대출 515,707명 이용
○ 피서지문고 : 10개 문고지부, 27개소, 66,704권, 대출 63,025명 이용
○ 새마을이동도서관 : 10개 문고지부, 25개 차량, 930천 대출, 337천명 이용

10) 도서 교환전

○ 14개 문고지부, 50개소, 36,344권 교환, 15,863명 이용

11)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실천 캠페인 : 17개소, 169회, 2,900명

12) 행복한 동행

○ 1지도자 1소외 · 노령가구 결연 : 생활용품 지원, 말벗, 심부름, 4,807명 결연

13) 다문화가정 돌봄 사업

○ 768가정 멘토 · 멘티 결연 말벗, 생활 멘토, 친정엄마 역할

14) 명절맞이 새마을운동

○ 떡국 떡, 송편, 쌀, 생필품 나누기, 귀향 환영현수막, 명절맞이 대청소
○ 457개소, 12,579명 참여, 31,058명 지원

15) 김장나누기 사업

○ 15,000명 봉사, 257,000포기, 5개 시설, 51,400세대 지원

16) 안전한 마을 만들기

○ 야간 골목길 순찰, 안심귀가 동행, 학교 횡단보도 교통안내, 876회, 6,630명

17) 연탄 나누기

○ 32회, 946명 참여, 588세대, 65,700장 전달

18) 국토청결운동

○ 다중 이용시설, 마을개천, 국도변 등 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 2,184회, 53,253명 참여
○ 고철, 폐지, 농약병, 폐비닐 플라스틱 등 1,726톤 수거

19) 에너지 절약 캠페인

○ 100W줄이기 및 온 맵시 캠페인, 61회, 3,026명 참여

20) 농촌 일손 돕기

○ 농작물 수확지원,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이 · 미용봉사 16회, 912명 참여

21) 직공장새마을운동 경제인 포럼 및 회원사 방문 간담회

○ 경제인 포럼 : 직장새마을운동의 이해 및 발전방안 토론 50명
○ 회원사 방문 간담회 : (주)락스타 (김포소재) 방문 직장새마을운동 추진 청취

22) 하절기 방역봉사 활동 : 7,938회, 연인원 15천명 참여

23) 지구촌 공동체 운동

○ 몽골 터부도시 에르덴군 볼락 마을 : 제빵 공장 설립
○ 라오스 무왕토랑콤군 폰홍 마을 : 마을안길 포장공사
○ 베트남 타이응엔성 딩화현 푸옹사또 마을 : 현지사업장 견학, 선물 전달

24) 조직역량 강화사업

○ 새마을지도자 연찬 및 워크숍 : 7회, 388명
○ 직원 직무교육 : 2회, 149명
○ 새마을지도자교육 : 1,417명, 중앙연수원 위탁
○ 교통봉사대 평가 대회 : 우수활동 사례발표 성과보고, 우수대원 표창
○ Y-SMU포럼 운영 : 16개, 508명(대학9/ 청년포럼7) 14개 사업, 1,146명 활동

25) 업무협약 체결

○ 도회 :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대행정사회복지대학원
○ 문고 : 이효석문학관

26) 새마을운동 홍보 : 신문, TV, 유선방송 등 3,064회

2015년도

1) 나라사랑 국기달기

○ 국기당기캠페인 : 시군별 적정 지역 2,716개소, 17,893명 참여
○ 국기보급 : 가정용 11,080매, 차량용 15,050매

2) 성숙한 도민의식

○ 의식개혁, 행락질서, 기초질서 지키기 등

○ 캠페인 380회, 18,655명 참여

3) 제23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 의왕시 자연학습원, 2,500명 참여, 104명 시상

○ 백일장, 사생대회, 장기자랑, 체험부스 운영

4)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교육

○ 양주시 및 이천시문고지부, 54명

○ 작은 도서관 운영실무, 독서지도법, 도서관리, 문화탐방 업무 등

5) 독서문학기행

○ 도 및 2개시군, 143명

○ 역사 및 문화유적지탐방 : 심훈 기념관, 이효석 박물관 및 생가, 청령포, 해미읍성

6) 도서관운영

○ 새마을작은도서관 : 18개시군, 183개 도서관, 920천권 대출, 652천명 이용

○ 새마을이동도서관 : 11개시군, 26대 운영, 1,168천권 대출, 498천명 이용

7) 알뜰도서 교환전

○ 13개 시군, 34개소 운영

○ 헌책 3권을 신간도서 1권으로 교환, 16천명 이용, 27천권 교환

8) 문화예술재능 기부 동아리 운영

○ 8개 문고지부, 32개 동아리, 606명, 580회

○ 음악연주회, 동화 구연 등

9)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 결의대회 650명(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체육공원), 캠페인 16개소, 48회, 2,400명

10) 1회원 1소외가구 동행

○ 말벗, 안부, 심부름 활동 및 생필품 지원, 8,600명 참여

11) 함께하는 공동체

○ 의류, 밑반찬 지원, 집 고쳐주기 2,500회, 130천명 참여, 38,000명 지원

12) 다문화가족 멘토링 사업

○ 부녀회원 이주여성 1:1 멘토링, 664명

○ 친정 엄마 되어주기, 멘토 · 멘티 상호가정 방문, 함께 시장보기, 지역문화 안내

13) 김장지원사업

○ 김장김치 262천포기, 9천명 참여

○ 저소득층, 홀몸노인, 탈북주민,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38천 가구, 3,745개 시설

14) 국토청결운동

○ 새마을청소, 꽃길 가꾸기 및 가로변 잡초제거, 마을실개천 가꾸기

○ 2,594회, 52천명 참여, 쓰레기 5.6톤 수거

15) 농촌사랑 운동

○ 농산물 직거래 : 도농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

○ 농촌사랑박람회 참여 : 서울광장 남양주, 양평 9개 품목판매
○ 농촌 봉사활동 : 직장협의회 및 Y-SMU포럼 장수사진, 이 · 미용봉사, 일손 돕기

16) 직장 경제인 포럼
○ 직장협의회 회원 40명 초청강연, 직장새마을 활성화 토론회

17) 자원재활용 운동
○ 31개시군, 1,215톤 고철, 폐지, 농약병, 폐비닐, 플라스틱, 헌옷 등

18) 하절기 방역활동
○ 6~9월, 31개시군, 8,150회, 연인원 92천명 참여

19) 에너지 아끼기 운동
○ 100W줄이기 및 온 맵시캠페인, 59개소, 4,900명 참여

20) 지구촌새마을운동
○ 몽골 터부도시 바양찬드만군 : 다목적새마을회관 건립, 현장 시찰
○ 라오스 비엔티안주 무왕토라콤 반끄느아 마을: 농업용수로 설치, 현장 시찰

21) 조직역량 강화
○ 정기총회 : 도회 2회, 단체별 각 1회
○ 각종 연찬회 · 워크숍 및 시군수련대회 : 35회, 15,075명
○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 대구 육상진흥센터, 570명 참석
○ 새마을지도자 교육 : 1,464명, 중앙연수원
○ 우수 직원 해외연수 : 미얀마 새마을현장 견학(동파운지, 따납핀 마을), 15명

○ 직장회원사 순회교류 : 대진정밀공업(시흥시) 방문 및 회사현황 청취, 21명
○ 새마을교통봉사대 평가 : 성과보고, 사례발표, 우수대원 표창, 150명
○ Y-SMU 포럼 해외 봉사 및 평가대회 참석 : 중앙회 주관, 8명 참석
○ 도회 제2회관 현판식 : 경새빌딩 권선구 권선동 1064번지
○ 새마을사업 홍보 : 신문, TV, 유선방송 3,064회

2014년도

1) 21세기형 마을 만들기

○ 31개시군, 192개 마을, 환경마을 99, 배려마을 41, 나눔과 봉사마을 52

2) 국경일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 국기달기 홍보 전단지, 가정용 및 가로기 게양, 현수막 게첨, 지역 언론 홍보, 9천명 참여

3) 범도민 선진시민의식

○ 대중교통 이용, 1417에너지절약, 겨울내복입기, 행락질서, 내 점포 앞 눈치우기
○ 겨울철 온 맵시 및 100W W줄이기 캠페인, 87회, 4,800명 참여

4) 제22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 양주문화예술회관, 2,000여명 참가
○ 백일장, 사생대회, 열린마당 운영, 기타 문화행사. 우수작품 시상 137명

5)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 25개 지역, 3,316명 참여, 도서 9,292권 교환

6) 독서문학기행

○ 11개 시군문고지부, 793명 참여
○ 문학작품, 문인, 역사 관련 유적지 탐방

7) 책 축제, 문화마당 등의 개최

○ 5개 지역, 7천명 참가, 도심 속 북 캠프, 자작시 전시회, 문화마당 등

8)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 17개시군, 4,180명 참여, 새마을가로기 게양, 환경정화 활동, 수련대회 등

9)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 교육

○ 성남 파주 2곳, 66명 수료, 독서토론 운영, 시 · 수필 쓰기, 독서문화탐방

10) 제34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 예선대회

○ 우수작품 시상, 우수 시 낭송, 우수독후감 발표 등 150명

11) 교통사고 없는 경기도 실천대회

○ 남양주시 우리은행운동장 1,100명, 실천결의 및 캠페인, 교통 수신호 시연

12) 세월호 참사봉사 활동

○ 안산 외 23개 분향소, 2,983명
○ 급수봉사, 조화 및 조의리본 배부, 분향소 안내, 유가족 반찬 전달
○ 성금모금 및 전달, 44,515천원

13) 안전한 마을 만들기

○ 등하교길 교통 안내, 야간귀가 도우미, 야간순찰활동
○ 시범활동 : 용인 및 광명, 495명, 야간순찰 36회, 캠페인 3회

14) 홀몸노인 돌봄 사업

○ 31개시군, 7,380명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계활동
○ 방문 매월 2회, 전화확인 수시, 잔심부름 수시

15) 재난 · 재해 봉사활동

○ 강원 폭설지역 복구 지원 9개시군, 425명, 제설작업, 가옥 정리, 성금 · 품 지원

16) 명절맞이 새마을운동

○ 설, 추석 쌀, 생필품, 떡국 떡 전달 귀향환영현수막 마을 청소 등
○ 461개소, 11천명 참여, 20,129명 지원

17) 도 부녀회 김장 나누기

○ 4,000포기 김장, 홀몸노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1,200곳 전달

18) 자원수집운동

○ 고철, 폐지, 농약병, 폐비닐, 플라스틱, 헌옷 등 1,331톤

19) 국토청결운동

○ 쓰레기 120톤 및 재활용품 390톤 수거
○ 실개천 살리기 흙 공 투하, 창포 식재, 미꾸라지 방생, 쓰레기 수거 등

20) 직장회원 농촌 일손 돕기

○ 연천군 중면 삼곳리 마을 22명, 동절기 대비 배추 포장 지원

21) 지구촌새마을 운동 추진

○ 필리핀 카비테주 판티한4 마을 : 커피농장 방문, 카우뱅크 점검 등
○ 라오스 무왕토라콤군 반끈느아 마을 : 마을안길포장, 실태점검, 학교

시설보수

○ 몽골 터부도 바양찬드만군 : 유제품공장 준공식

○ 시군지회 해외사업 : 수원시 등 8개 시군 7개국 대상

22) 조직역량 강화

○ 총회 및 이사회 : 총회 5회(각 단체별), 이사회 3회

○ 연찬회, 워크숍 등 : 9회, 364명

○ 직원 연찬 : 3회, 200명 개인정보보호, 생활 속의 문학 강연, 남한산성 답사

○ 지회 사무 감사 : 부천 등 10개 지회 회계, 복무, 사업 등 업무 전반

○ 2014 경기도새마을지도자대회 : 경기도 문화의 전당, 1,550명 유공자 표창

○ 시군 수련대회 : 28개시군, 14,671명

○ 시군지회 종합평가 실시 : 조직, 재정, 사업 부문 성남, 수원, 양평, 고양

○ 새마을교통봉사대 평가 : 도 회의실 200명, 성과보고, 사례발표 우수대원 표창

○ 새마을지도자교육 : 1,561명, 중앙연수원

○ 새마을사업 홍보 : 신문, TV, 유선방송 등 2,064회

○ 수익형 빌딩 확보 : 매입비 38억 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2013년도

1) 21세기 마을 만들기 순회 간담회

○ 144개 마을, 4,653명(그린마을 69, 스마트마을 28, 해피마을 47)

2)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 국기달기 홍보전단, 현수막 게첨,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7,512명

3) 범도민 선진 시민의식 함양

○ 에너지 아끼기, 내복 입기, 교통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4,230명

4) 새마을도서관 운영

○ 작은 도서관 : 19개시군, 203개소, 장서 1,186천권, 열람석 4205석, 운영자 1,923명

○ 이동도서관 : 26대, 1,580천권 대출, 638개소 순회, 525천명 이용

5) 정지선 지키기 실천 행사

○ 도 교통봉사대, 시흥 정왕동, 500명, 정지선 지키기, 선진교통문화 정착 캠페인

6)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

○ 수원시문고지부 78명 수료, 독서지도, 문고운영, 서적 관리 및 분류 등

7) 제21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 광명시민체육관, 1,638명 백일장, 사생대회, 오행시 경연 우수작 시상 116명

8) 녹색생활화 실천교육

○ 21개시군, 1,425명 지구환경의 실태, 녹색생활의 개념, 생활 속의 실천 방안

9) 교통사고 없는 경기도 만들기 실천대회

○ 화성시 비봉습지공원, 교통봉사대원 등 800명, 실천결의 및 캠페인

10) 대통령기 제33회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 예선

○ 총 625개 작품(단체 362편, 개인 193편, 편지글 70편)
○ 우수독후감 발표회, 우수작 시상 평가부문 14단체, 독후감 75개 단체 · 개인 편지글 8편

11) 1회원 1가정 돌봄 사업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안부전화, 방문활동, 생필품 지원 등

12) 안전마을 만들기

○ 마을위험지역 신고, 방범활동, 안심귀가 지원 176회, 7,739명

13) 경기 효도잔치 한마당

○ 경기도새마을회, 티브로드수원방송,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주최
○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 홀몸노인 1004명
○ 국악, 전통가요 공연, 중식봉사

14) 직장협의회 농촌봉사활동

○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마을 직장회원 40명, 콩 · 고추수확 지원

15) 사랑의 목도리 나누기

○ 시흥, 의왕시직장협의회 홀몸 노인, 500개 지원

16) 김장나누기

○ 도 및 시군부녀회, 346천포기, 15,730명, 41,864가구 및 복지시설 지원

17) 재활용 자원수집운동

○ 고철, 폐지, 농약병, 폐비닐 등 31개시군, 1,918톤

18) 국토청결운동

○ 새마을대청소 : 323개소, 11천명, 쓰레기 167톤, 재활용품 410톤 수거

○ 실개천 살리기 : 시군 94개 실개천, 1,860명 수로정화, 창포식재

19) 범도민 자전거타기생활화

○ Y-SMU포럼 회원 등 94명 북한강 일원, 자전거투어, 문화탐방 등

20) 녹색생활 실천교육

○ 오산시 31명, EM발효액 만들기, 분리수거 요령, 재활용품 이용 장난감 만들기

21) 에너지절약 실천 활동

○ 하절기 : 선풍기 활용과 적절한 냉방 온도 유지, 상가 개문 영업 자제 홍보

○ 동절기 : 내복 입기, 실내 건강난방온도 지키기

22) 지구촌새마을운동

○ 몽골 바양찬드만군 마을 : 공동우물 준공, 식목, 몽골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 라오스 무앙토라콤군 반껀느아 마을 : 농업용수로 공사, 학용품 전달

○ 필리핀 마르곤돈시 판티안4 및 아마데오시 일원 : 카우뱅크 및 커피농장 답사

○ 필리핀 태풍 : 성금모금 전달 4천만 원

23) 조직역량 강화

○ 총회, 도회 및 단체 : 각 1회, 도 이사회 3회

○ 새마을의 날 기념 경기지도자 체육대회 : 수원광교 임시수련원, 3천명

○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 621명

○ 연찬회, 워크숍 등 : 도회 2회 140명, 직장 2회 104명, 문고1회 64명,

새사모 34명

○ 직원 직무교육 : 2회 92명 및 지회감사 용인시 외 13개 시군

○ 새마을지도자교육 : 1,939명 중앙연수원

2012년도

1) 뉴 새마을 만들기(그린마을 부문)

○ 녹색생활실천마을, 수원시 세류동 등 100개 마을

○ 탄소 포인트, 전기 · 수돗물 절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EM발효액 만들기 등

2) 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 홍보 및 계도활동 새마을회와 에너지관리공단 합동 추진

3) 숨은 자원 모으기

○ 고철, 폐지, 농약병, 헌옷 등 1,925톤 수집

4) 대학생 자전거 타기 운동

○ Y-SMU포럼 250명 이포보→강천보

5) 그린마을 육성

○ 고양시 고봉동 8통 마을 외 10개 마을 및 아파트

6) 녹색생활 실천 교육

○ 시군 24개소 1,425명

7) 국토청결 및 실개천 살리기

○ 마을청소 142개소, 112천명 참여

○ 용인 금어천 외 10개 개천, 340회, 8,740명 수로정화, 창포식재

8) 상자텃밭 가꾸기

○ 텃밭상자 820개 보급, 200가구, 654명 참여, 옥상 · 마당 · 베란다 등

9) 겨울철 내복 입기 캠페인

○ 31개시군, 7,200명 내복 입기 퍼포먼스,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첨

10) 뉴 새마을 만들기(스마트마을 부문)

○ 마을 품격 높이기 고양시 중산마을 등 34개 마을

○ 미소, 칭찬, 상호 예절, 책임, 배려 등의 덕목 실천

11)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 31개시군, 7,512명, 국기달기 캠페인,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가로기 게양

12) 행락질서 지키기

○ 유원지, 명승지, 유적지 등에서의 공공질서, 행락질서 계도, 6,271명 참여

13) 부모와 함께하는 농촌 봉사

○ 곡성군 오곡면 마을, 2회, 학생 및 학부모 90명

○ 청소년 ECO교육, 체험활동, 활동 소감문 작성

14) 제20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 남양주시 한강시민공원, 1,415명

○ 백일장, 사생대회, 오행시 경연, 체험부스운영 제출 작품 761편

15) 제32회 국민독서 경진대회 경기도 예선

○ 제출 작품 수 684편(단체 401, 개인 200, 편지글 83), 우수독후감 발표회

○ 우수 글 시상 : 평가 부문 15, 독후감 63 편지글 14 등

16)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

○ 안산시 60명, 독서법지도, 독후감 작성법, 문고관리 도서 분류 등 10과목

○ 독서문학기행 3회, 103명, 서정주 문학관, 박경리 문학관, 유치환 문학관 등

17) 문고지도자 한마음 교류대회

○ 경남거제, 23명, 사례발표, 초청작가 특강, 문고인의 밤 행사

18) 교통질서 지키기 실천결의대회

○ 2회(오산시민회관 및 안산터미널), 1,300명, 정지선 지키기, 양보운전 실천

19) 뉴 새마을운동(해피마을부문)

○ 부천 도당동 장미마을 등 59개 마을

○ 소외 이웃돕기, 다문화가정 돌보기, 안전한 마을 만들기

20) 1회원 1가정 돌봄 사업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차상위 계층

○ 방문활동, 안부전화, 생필품지원 등

21) 재해 봉사활동

○ 풍수해 지역 지원 : 침수복구, 낙과제거, 하천부유물 제거, 피해가구 위문

22) 다문화가족 정착교육

○ 3회, 171명(용인, 부천, 양평), 한국의 문화와 예절 이해, 성공적 정착사례

23) 명절맞이 새마을운동

○ 설 · 추석맞이 마을청소, 귀향환영현수막, 생활용품 지원

24) 김장 나누기

○ 도 및 시군 부녀회 주관, 232천포기, 41,130가구 및 시설 지원

25) 농촌일손 돕기

○ 단양군 적성면 파랑리, 30명, 콩 · 고추수확 지원, 콩 수확용 낫 등 지원

26) 세계화 새마을운동

○ 우즈베키스탄 유코리치르칙 야싸비 마을 : 회관건립 지원

○ 라오스 무앙토라콤군 반껀느아 마을 : 옥수수농장, 마을진입로 조성 사업 지원

○ 몽골 터부도시 바양찬드만군 : 공동화장실, 가축은행, 묘목장 담장 설치

○ 캄보디아 캄폿주 소완사이거 마을 : 공무원 20명 초청교육, 새마을도서관 건립

27) 자율추진 역량 배양

○ 총회: 도회 및 단체별 각 1회, 도 이사회 3회

○ 연찬회, 워크숍 : 7회 579명

○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행사 : 시군별 기념비 건립, 걷기대회, 새마을가로기 게양

○ 경기도새마을지도자 대회 : 용인실내체육관, 3천명, 결산영상, 우수지도자 표창

○ 새마을지도자교육 : 2,057명

○ 사무직원 역량 강화 : 7회, 317명

○ 지회 감사실시 : 연천 등 7개 지회

○ 시군조직 평가 : 지회 및 각 단체 조직, 사업, 재정 등 전반

2011년도

1) 그린코리아 자전거타기

○ 양평, 남양주, 성남, 여주 250명(여주보→강천보)

2) 녹색생활화 실천교육

○ 여주 세종국악당, 400명, 녹색생활 실천 사례,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강연

3) 겨울 내복 입기 캠페인

○ 수원, 안산, 과천, 오산, 화성, 의왕, 350명, 수원역 일대 퍼포먼스 및 홍보물

4) 그린마을 시범 육성

○ 남양주 사우리 마을 등 7개 마을, 자원재활용, 탄소포인트제, 상자텃밭 등

5)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 고철, 폐지, 캔류, 병류, 폐비닐, 플라스틱 등 31개시군, 1,903톤

6) 고유가 극복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 부천역, 300명, 에너지절약 3 · 3 · 3운동(가정, 사무실, 자동차 실천)

7) 새마을동산 조성

○ 9개소, 680㎡

8) 탄소저감 나무심기

○ 31개 시군별, 1,015명 참여, 31종 23,300그루 식재

9) 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 의정부, 남양주, 양주, 고양, 동두천, 500명, 의정부역 로타리 에너지 절약 캠페인

10) 녹색마을기업 운영

○ 부천(저공해비누), 안양(전통 장), 여주(천연 수제비누), 고양(전통메주) 동두천(알뜰매장)

11) 국토청결 및 실개천 살리기

○ 새마을청소 3,034회 69천명 94개 실개천 4,184명 참여

12)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 한강유역 환경청 3층 대강당, 277명 교육 이수

13) 상자텃밭 가꾸기

○ 4개소, 438명 참여, 1,420개 텃밭용 상자 보급

14) 음식문화 개선 활동

○ 교육 2개소 250명, 캠페인 4개소, 970명, 남은 음식물 포장,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5) 도민 질서 · 친절운동

○ 교통질서, 기초질서 지키기 : 55회, 5,379명

16) 공정사회 실천 캠페인 및 퍼포먼스

○ 500명(안양, 과천, 의왕, 고양, 광명, 시흥), 안양역 일원

17) 4계절 제철음식 책자발간 배부

○ 계절별 제철 대표적 음식 200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병행

18) 제19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 안산시 호수공원 야외무대, 1,285명 참여, 백일장 222편, 사생대회 390편

19) 제31회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경기도 예선

○ 도 회관 회의실, 단체59팀, 372편, 개인 186편, 편지글 77편 평가 시상

20) 문화독서 지도사 양성

○ 남양주시 80명, 7개 과목 33시간

21) 문고지도자 한마음 교류대회

○ 합천해인사 30명, 특강, 우수사례, 문고운동 사업방향

22) 교통문화 실천 결의대회

○ 도교통봉사대 2회(화성, 광명) 1,300명, 정지선 지키기, 선진교통문화 정착

23) 수해복구 지원

○ 수해지역(광주, 동두천, 파주, 양주), 505명 지원활동 가재도구 세척, 빨래

24) 구제역 및 AI조류독감 예방 봉사 활동

○ 157개, 방역초소 방문 격려품 전달, 692명 참여

25) 경기효도잔치 한마당

○ 수원 화성행궁 광장 홀몸노인, 1,495명, 음식접대 및 위문행사

26) 영세사회복지시설 순회시설 점검반 운영

○ 300개 영세시설, 누수 · 누전점검 전등 콘센트 교체, 보일러 수리

27) 사랑의 떡국 나누기

○ 구호차량 이용 떡국제공, 500명(광명), 시군 5,406가구, 54,496㎏

28) 김장나누기 사업

○ 도 5천포기, 320개 시설, 시군 89천 포기, 25,356가구 지원

29) 설 · 명절 소외가구 돕기

○ 2,807가구, 쌀, 떡국, 생필품 지원

30) 다문화 가족 교육

○ 광명, 파주, 김포, 193명, 한국문화 이해, 자녀 교육 등

31) Y-SMU경기포럼 장학금 전달

○ 5명, 각 100만원, 경기새마을사랑모임

32) 세계화 새마을운동

○ 우즈베키스탄 타시겐트시 야싸비 마을 : '시온고새마을회관' 건립
○ 필리핀 까비테주 판티한 마을 : 카우뱅크 사업비 및 장학금 전달
○ 몽골 나랄이흐구 : 복지관 개관식, 도서 지원
○ 세계화사업 기금 조성 : 114백만 원

33) 조직역량 강화

○ 총회 6회(도회 2회 및 단체 각 1회), 이사회 4회
○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 울산 동천체육관, 500명
○ 새마을의 날 기념식 참석 : 중앙연수원, 120명

○ 연찬회, 워크숍, 수련회 : 7회 1,124명
○ 사무직원 업무 역량 강화 교육 : 5회 239명, 사업 분석 및 사이버교육
○ 시군 사무 감사, 평택 등 10개 지회
○ 시군 평가 : 조직, 재정, 사업 등 종합 평가 및 단체별 평가
○ 새마을지도자교육 : 2004명 중앙연수원 위탁

2010년도

1) 국토 대 청결 운동 및 실개천 살리기
○ 새마을대청소 : 1,711회, 117천명 참여, 94개 실개천 관리

2) 제철음식 요리 집 발간
○ 책자 15천부 발간, 순회교육 12회 626명

3) 녹색새마을 시나리오 공모
○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 가능한 '사랑' 25편 접수

4) 새마을운동 40년 새마을교육 기념 조형물 제작
○ 수원시 화서동 호수공원 내

5) 제18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 수원 만석공원, 1,600명, 백일장, 사생대회, 오행시 경진, 독서 사진전시

6) 도서관운영
○ 이동도서관 : 12시군, 차량 30대, 장서 527천권, 805천명 이용, 2,373권 대출
○ 피서지문고 : 7개소, 2,605명 이용, 4,260권 대출

7) 10원 동전 모으기

○ 31개시군, 6~10월, 39,262,140원, 약15톤

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전야제 및 본 행사 6,000명, 수원 화성행궁 및 수원체육관

9) 김장나누기

○ 도회 4천포기, 200명 참여, 시군 225천포기, 15천명 참여

10) 연탄 나누기

○ 786가정, 92천장 지원

11) 제30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 대회

○ 접수 작품 726편(74개 단체, 444편, 개인 282편) 우수단체 및 작품 시상

12) 토요상설 도청 나눔 장터 운영

○ 12회, 271명 참여,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 기탁

13) 농촌지역 이 · 미용 봉사

○ 63곳, 380명 참여, 1,318명 이용

14) 명예환경 감시원 교육

○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337명 교육 이수

15)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교육 : 2회 120명

○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초청 사업 : 4가정

○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 : 10명 참여

16) 새마을운동 제창 40주년 기념식 참석
○ 중앙연수원, 101명

17) 행락 철 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정화 활동
○ 유원지, 관광지, 주요 유적지, 산, 계곡 등 34회 1,902명 참여

18) 하절기 방역봉사활동
○ 103개 봉사대, 340대 방역차량 운영, 3,084회, 5,819명 참여

19) 쿨 맵시 시원한 여름나기 캠페인
○ 적정 냉방온도 지키기, 가게 개문 영업 안하기, 가두 캠페인 및 현수막

20) 새마을세계화 사업
○ 몽골 울란바타르시 나랄이흐구 : 녹색공원 사업
○ 우즈베키스탄 유코리치르칙군 : 시온고새마을회관 내부시설 사업

21) 지도자 사기진작
○ 표창 : 정부 및 자치단체 317명, 중앙회 단위 154명, 도회단위 336명
○ 자녀장학금 : 345명, 434백만원, 지도자협의회 7명, 3,500천원
○ 경조사 : 회장단 생일 축하화분 또는 축전, 애경사 축 · 조의 316건

22) 조직역량 강화
○ 총회 6회(도회 2회 단체별 각1회), 이사회 3회, 단체별 운영위원회 등 21회
○ 연찬회 워크숍 등 : 4회 167명
○ 새마을지도자 교육 : 2,216명, 중앙연수원
○ 시군 평가 : 종합평가 및 단체별 평가 조직, 재정, 사업 등 평가 시상
○ 직원 직무역량 향상 교육 6회 : 378명
○ 시군지회 감사 : 수원시 등 10개 지회 회계, 사업, 일반 행정 등 전반

2009년도

1) 회원 3% 증대 운동

○ 활동회원 및 후원회원 모집 실적 46,270명

2) 국토 대 청결 운동

○ 읍 · 면 · 동별 적정장소 선정, 3,763회, 93천명 참여

3) 내 집, 내 직장 나무심기

○ 경기농림진흥재단과 공동 추진 105만 그루, 15,364명 참여

4) 농촌 살리기 운동

○ 농산물 직거래 5개 지회, 영농봉사 활동 4개 지회, 도 · 농 결연 사업 23개소

5) 10원 동전 모으기

○ 집하식, 수집액 40,989,350원, 최우수지회 양주

6) 김장나누기

○ 350천포기, 17천명 참여, 35천개 김장 상자 제작 보급

7) 연탄 나누기

○ 278가구, 29,023장, 750명 참여

8) 폐자원 모으기

○ 3~12월, 31개 시군별, 수집 890톤

9) 제17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 남양주종합촬영소, 1,600명, 백일장 및 사생대회, 오행시, 시낭송 등

10) 대통령기 제29회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 대회

○ 작품 수 810편(단체 87팀 522 개인 288) 운영, 독후감 부문 등 시상

11) 신규 마을문고 개관

○ 15개소, 도서 등 31,880권 비치, 봉사자 수 234명

12) 그린코리아 녹색성장 민간단체 지원사업

○ 녹색성장 교육 : 합숙교육 1,070명, 현장교육 3천명, 자연밥상 책자 5천부

○ 실개천 가꾸기 : 9개시군, 70개 실개천

○ 재가 장애인 돌보미 사업(집 고쳐주기) : 13개 시군, 52가구

○ 홀몸 어르신 및 소년소녀가장 고추장 지원 : 10개 부녀회, 2천 가구

○ 교통안전지킴이 봉사대 운영 : 15개 봉사대, 연인원 2,400명

13) 마을버스 정류장 청소 : 37개 농촌마을 정류장 2,272명 참여

14) 하절기 방역봉사대 운영 : 29개 봉사대 ,방역기 575대, 9,323회, 14,841명

15) 직공장회원사 교류

○ 2회, 성남시 및 의왕시협의회 주관, 70명

16)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참가

○ 구미시민운동장, 862명 참가

17)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 청주체육관, 647명 참석, 훈 · 포장 7, 대통령 9, 총리 12, 장관 114

18) 새마을국제협력사업

○ 몽골 울란바토르 날라이흐구 : 10, 11마을, 새마을거리 조성 3km, 가로등

○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시 야싸비 마을 : 제례건물 개보수 사업

19) 조직관리 및 역량강화

○ 각종 회의 : 총회 5회, 이사회 4회, 운영위원회 등 29회

○ 연찬회, 워크숍 등 : 6회, 499명

○ 새사모 창립총회 : 33명

○ 각종 표창 : 정부포상 294, 중앙단위 회장 표창 171명, 도 단위 회장 표창 398명

○ 지도자 애경사 등 관리 : 362명 축 · 조의금, 화환 축전 등

○ 지도자새마을교육 : 2,708명, 중앙연수원

○ 사무직원 교육 및 연찬 : 6회, 293명

○ 지회감사 실시 : 안양 등 8개 지회

○ 시군평가 조직, 재정, 사업 등 업무전반 우수지회 안양, 양주, 가평

2008년도

1) 희망한국 도민화합 걷기대회

○ 성남 남한산성 놀이마당 1,200명, 시군별 행사 수원 등 5개시 3,350명

2) 이웃사랑 후원회원 모집 : 84,226명 모집

3) 내 집, 내 직장 나무심기 : 경기농림진흥재단과 공동 추진

○ 시군 적정 장소, 1,219천주 식재, 19,507명 참여

4) 농촌 활력화 사업

○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5개 시군

○ 학생 영농 봉사활동 참여 : 4개시군, 133명

○ 도 · 농 결연사업 : 21개 시군

5) 10원 동전 모으기

○ 집하 150명 참석, 30,445,700원 수집, 우수지회 동두천, 포천, 성남

6) 하절기 방역 활동

○ 5,117회 7,727명, 참여 방역기 차량용 145개, 휴대용 258개

7) 휴경지 경작 : 104개소, 86천 평,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등 경작

8) 헌옷 모으기

○ 읍면동 부녀회, 481톤 수거(96,122천원 환가)

9) 숨은 자원 모으기

○ 31개 시군별, 1,566톤 농약병, 폐비닐, 고철, 플라스틱 등

10) 따뜻한 겨울나기

○ 쌀 나누기 : 247,739㎏, 15,654가구

○ 김장 나누기 : 372,355포기, 41,332가구 및 시설 지원

○ 연탄 나누기 : 111천장, 1,225가구 지원

11)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

○ 부천범박고등학교, 10회 30시간 46명 수료, 방과후 아동지도, 논술교육 방법

12) 새마을문고 문화의 한마당

○ 부천시 중앙공원 1,450명 참여 백일장 및 사생대회, 오행시, 시낭송 등

13) 대통령기 제28회 국민독서경진대회

○ 150명, 접수 작품 79단체 474편, 개인 222편 우수조직 및 작품 시상

14) 각종 도서관 운영

○ 이동도서관 : 13개 시군 차량 30대, 장서 200천권, 대출 1,197천권

○ 단위문고 : 20개 시군, 173개 마을문고 운영

○ 피서지문고 : 5개소 10,750권, 1,800명 이용

15) 국토 대 청결운동

○ 4~11월, 350개 읍면동별, 5,571회, 114천명 참여

16) 나라사랑 독도지킴이 서명운동

○ 8~10월, 210천명 서명

17) 직 · 공장 회원사 교류

○ 3회, 120명 참여, 시흥시 아일기전, 양주시 아세아유니온, 화성시 여명기계

18)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여

○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 754명 참여, 훈 · 포장 6, 대통령 10, 총리 14 등

19) 경기도새마을회 홈페이지 개설

○ 주소 www.gsc.ne.kr 새마을소식, 사랑나누기, 자료실, 자유게시판

20) 새마을국제협력사업

○ 필리핀 판티한 까트러 마을 : 회관건립, 부지 100평, 건평 30평
○ 필리핀 판티한 까트러 마을 : 회관 문고 설치, 도서, TV, 서가 ,
○ 몽골 울란바토르 날라이흐구 : 제2 및 제4마을, 쓰레기재활용공장 설치
○ 캄보디아 프레이벵도 앙코릳면 : 가축은행(암소 및 돼지 59두)
○ 우즈베키스탄 타시겐트 야싸비마을 : 진입로 아스팔트공사, 버스정류장 설치

21) 조직관리 및 역량 강화

○ 각종 회의 : 총회 5회(단체포함), 이사회 3회, 단체별 운영위원회 등 39회
○ 연찬회, 워크숍 등 : 6회 624명
○ 시군 행사 참석 격려 : 41회
○ 시군회장단 신년 인사회 : 198명
○ 시군 평가 : 조직, 재정, 사업 등 업무전반 성남, 안양, 양주 시상
○ 새마을지도자 교육 : 2,454명, 중앙연수원
○ 우수지도자 표창 : 정부(도 포함) 293명, 중앙단위 회장 133명 도회장단 358명
○ 지도자협의회 장학금 : 대학생 10명, 5백만 원
○ 회장단 생일 및 애경사 관리 : 248건
○ 사무직원 직무교육 등 : 6회 375명
○ 시군 업무 감사 : 여주군 등 16개 지회

2007년도

1) 희망한국 도민화합 걷기대회

○ 5. 22. 성남 남한산성 원형광장 → 수어장대, 1,200명 걷기행사 · 자연정화 활동
○ 시군행사 : 수원, 안양, 남양주, 군포 가평군 2,400명 자체 걷기 행사

2) 도덕성 회복 예절교실 운영

○ 26개시군, 6,914명 교육

3) 이웃사랑 후원회원 모집 : 11,132명 실적

4) 맑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 현금 영수증 카드 보급 : 실적 5,364매

5) 내 집 내 직장 나무심기

○ 새마을회, 경기도농림진흥재단, 경기도상공회의소 공동 추진, 언론사 홍보

○ 1,246천 그루 식재 ,우수시군 시상 포천, 가평, 고양, 안산, 안성, 양주

6)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 국경일 국기배부 가정용 17천매, 차량용 3,300매, 캠페인 356회

7) 농어촌 활력화 사업

○ 농산물 직거래 사업 : 8개 시군

○ 생태체험 영농봉사 활동 : 2개 시군

○ 도 · 농결연 사업 : 도회 및 19개 시군

○ 휴경지 경작 : 145개소, 117천평, 24천명 참여, 고구마, 감자, 배추 등 재배

8) 방역봉사 활동

○ 6,023회, 14,633명 참여, 보유 방역기 차량용 168대, 휴대용 157대

9) 폐자원 모으기

○ 농약병, 폐비닐 고철, 플라스틱 등 2,008톤 수집

10) 재생비누 만들기

○ 45개소, 97천장 제조, 2,073명 참여

11) 10원 동전 모으기

○ 집하 150명, 27,110천원 수집, 우수 지회 동두천, 파주, 수원

12) 헌옷 모으기

○ 728톤, 우수지회 이천, 포천, 성남, 동두천, 가평, 안성, 남양주, 평택

13) 서해안 기름유출 오염제거 봉사 활동

○ 31개시군, 50회 2,653명 참여, 성금 250만원, 헌옷 타올 등 6.2톤 전달

14)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

○ 안양새마을회관, 105명 수료, 독서지도법, 도서선정 방법 및 관리 등

15) 문화 한마당

○ 이천시 설봉공원, 1,150명 참여, 백일장, 사생대회, 오행시, 열린마당

16) 대통령기 제 27회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 대회

○ 도회관164명, 개인 238편, 84개 단체, 504편 우수 작품 시상

17) 각종 도서관 운영

○ 이동도서관 : 차량 34대, 장서 514,709권, 대출 2,824천권, 919천명 이용

○ 피서지문고 : 12개소 장서 6,800권

○ 단위문고 : 186개소 장서 1,105천권 보유

18) 따뜻한 겨울나기

○ 쌀 나누기 : 270,669㎏, 17,060가구 지원

○ 김장 나누기 : 293천포기, 36,167가구 및 시설 19,878명 봉사
○ 연탄나누기 : 174천장, 925가구 지원, 1,594명 참여

19) 새마을지도자 대회

○ 전국대회 : 창원시 실내체육관, 경기도지도자 740명 참석
○ 시군별 대회 : 25개 시군 10,800명

20)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 몽골 날라이흐군 알타이 10, 11마을 : 젖소목장 및 강화양모 생산 공장
○ 필리핀 카비테주 판티한 까뜨러마을 : 회관건립을 위한 현지 실사

21) 조직관리 및 역량강화

○ 시군 회장단 신년 하례회 : 초원웨딩부페 210명
○ 각종 회의 : 총회(도회 3회, 지역 2회, 부녀 1회, 직공장 2회, 문고 1회)
이사회 3회, 단체 운영위원회 등 38회
○ 연찬회, 워크숍 등 : 4회 397명
○ 각종 표창 : 정부(도 포함) 185명, 중앙단위 회장 177명, 도 단위 회장 366명
○ 회장단 경조사 관리 : 75회
○ 지도자자녀 장학금 : 중 108명, 고 330명 475백만 원
○ 시군 평가 : 조직, 재정, 사업 등 전 분야 우수지회 안양, 성남, 시흥
○ 새마을지도자 교육 : 2,436명 중앙연수원 위탁
○ 감사업무 : 중앙회 감사 수감 3.12~16, 지회 감사 안양시 등 15개 지회
○ 사무직원 직무교육 : 19회 249명 회계순회교육, 심사분석 등

2006년도

1) '함께해요 희망한국' 도민화합 걷기대회

○ 분당 율동공원, 2,900참여, 인간 띠 잇기, 희망풍선 날리기, 댄스동아리 공연

2) 호남지역 설해 복구 지원 활동

○ 전북 고창군 등 설해 지역

○ 도회 및 18개시군, 24회, 1,200명 참여, 3개 지회 성금 450만원 지원

3) 경기 · 강원 지역 수해 복구 지원 활동

○ 경기 7개시군, 강원 6개시군, 충북 단양, 경남 진주

○ 도회, 도교통봉사대, 31개시군, 106회 3,761명 복구활동 참여

○ 성금 17,410천원, 위문품 79,660천원 상당 지원

4) 국경일 국기달기 캠페인

○ 59회, 7,148명 참여, 가정용기 10,750개, 차량용기 51천개 배부

5)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수원, 성남, 고양, 광명, 남양주, 140백만 원 판매, 685명 종사

6) 10원 동전 모으기

○ 집하 도회관 150명 참여, 22,540천원 수집

7) 지도자협의회 읍면동 순회간담회

○ 읍면동지도자협의회 12곳 우수지도자 표창, 면 · 동장 감사패 전달

8) 문화 한마당 큰잔치

○ 고양 호수공원 1,384명, 백일장, 사생대회, 장기자랑, 오행시

9)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대회

○ 도회관 186명, 개인 326편, 83개 단체 498편 우수작 표창

10)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

○ 수원시회관 매주 3시간 11주 과정, 116명 수료 독서지도, 도서관리 등

11) 이웃돕기 사업

○ 집 고쳐주기 : 362가구, 6,476명 참여, 전기시설, 보일러, 도배 · 장판 등

○ 이 · 미용 및 목욕 봉사 : 511회, 3,594명 참여 9,474명 수혜

12) 마을환경 미화

○ 야생화, 쌈지공원 관리 1,007개소, 8,585㎡, 1,687명 참여

○ 도로변 벽화 그리기 30개소, 2,700㎡, 370명 참여

13) 경기지사 초청 오찬 간담회

○ 초원웨딩홀 150명

1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 강릉종합 실내체육관 819명 참여

15) 새마을국제협력사업

○ 몽골 날라이흐구 알타이10, 11마을 : 마을다리공사, 묘목 재배 등

○ 필리핀 가비테주 판티한 4마을 : 25가구 송아지 및 새끼돼지 사업비 20백만 원

16) 조직 관리 및 역량 강화

○ 각종 회의 : 총회 5회(각 단체 포함) 이사회 2회
○ 연찬회 : 6회 340명(각 단체별)
○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 : 40회
○ 각종 표창 수여 : 정부 185, 중앙단위 회장 166 도단위 회장 316명
○ 시군행사 참석 격려 : 64회
○ 지도자 애경사 관리 : 51회
○ 새마을지도자교육 : 2,485명 중앙연수원 위탁
○ 시군 감사 : 회계, 조직관리, 사업운영 등 이천 등 16개 지회
○ 직원 직무교육 : 16회 244명

2005년도

1) '경기방문의 해' 새마을대청소

○ 수원 장안공원, 수원역, 팔달산 주변 450명

2) 문화유적지 · 관광지 질서 청결봉사대 운영

○ 고양 서오릉, 남양주 다산유적지 등 9곳 79회 3,080명 활동

3)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

○ 캠페인 135회, 5,356명 국기보급 가정용 15천매, 차량기 14천매 보급

4) 독도 지키기 운동

○ 서명 3,500명, 궐기대회 13회 4,075명

5) 읍면동지도자협의회 순회간담회

○ 용인시 포곡면협의회 등 10개 협의회 간담회, 표창, 동장 감사패 전달

6) 효 편지 쓰기 시상 및 발표회

○ 도회의실 200명, 우수글 시상 81명, 발표회 3명

7) 10원 동전 모으기 및 평가

○ 집하식 : 중앙연수원 강당, 25,546,800원 수집

○ 우수지회 : 성남시새마을회 9,657,740원

8) 새마을문고 문화의 한마당

○ 이천 설봉공원, 1,229명 참여 백일장, 사생대회, 오행시, 장기자랑

9) 도서 교환시장 : 76회, 13,536권 교환, 12,249명 이용

10)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경기도대회

○ 도회 강당, 185명, 개인 283편, 108개 단체, 648편

○ 시상 : 운영 12단체, 독후감 96편, 지도교사 3명, 유공지도자 3명

11) 독서문화 지도사 교육

○ 의정부 정보도서관 73명 수료(9. 23. ~11. 29.), 매주 3시간

12) 도서관 운영

○ 이동도서관 33대, 970천명 이용, 2,052천권 대출

○ 피서지 문고 3개소, 3,780명 이용, 25,450권 대출

13) 하절기 방역봉사 활동

○ 7,315회, 433개 봉사대, 19,398명 활동

14) 휴경지 경작 및 주말농장 운영

○ 126개소, 12천명 참여, 284천㎡, 감자, 고구마, 무, 배추 재배

15) 재해지역 복구 지원 및 위로금 전달

○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지원 성금 : 39백만원
○ 강원 양양 산불피해 지원 성금 : 23,800천원
○ 전북 수해지역 지원 성금 : 6,020천원
○ 호남지역 설해 복구 지원, 도회 및 18개 시군

16) 따뜻한 겨울나기

○ 집 고쳐주기 327가구, 1,890명 참여 도배, 장판, 보일러 전기시설 수리
○ 김장 나누기 : 339천 포기, 60천 가구 지원, 13,600명 봉사
○ 연탄 나누기 : 142천장, 1,395가구 지원, 2,068명 봉사
○ 쌀 나누기 : 264천㎏, 17천 가구 지원, 8,800명 봉사

17) 새마을국제협력사업

○ 러시아 연해주 호롤군, 미하일로프카군: 새끼돼지 111마리 재 분양 사업
○ 몽골 날라이흐구 : 10, 11마을, 새마을회관 및 공동화장실 건립

18)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840명 참석

19) 조직관리 및 역량 강화

○ 각종회의 : 총회 5회, 이사회 3회, 단체별 회장회의 21회, 연찬회 8회
○ 표창 : 정부(도 포함)169, 중앙단위 회장 182, 도 단위 회장 462
○ 새마을지도자 교육 : 2,320명 중앙연수원, 1일 교육 124명
○ 시군행사 참석 · 격려 : 51회
○ 지도자 등 애경사 관리 : 35회
○ 시군평가 : 재정운영, 조직관리, 사업추진 등 우수 성남, 광명, 남양주
○ 직원 직무능력 강화 : 연찬회 1회 95명 회계프로그램 교육 31시군 순회
○ 사무국 감사 성남시 등 11개 지회 시재 검사 31개 전 지회

2004년도

1) 생활문화 개선사업

○ 건전사회실천 캠페인 : 기초질서, 장묘문화 개선, 건전소비문화 등 798회, 83천명
○ 사랑의 효 편지 쓰기 : 125명 참여
○ 동전 모으기 운동 : 20,873,200원 수집

2) 나라상징물 사랑운동

○ 태극기 달기 캠페인 : 64회 7,392명
○ 나라꽃 무궁화 심기 운동 : 12곳 11,900주 7,400명 참여
○ 지역 상징물 상호 방문 견학 : 49회 1,750명
○ 향토문화 대행진 등 : 7회 655명 참여

3) 독서문화운동

○ 신규문고개관 : 18개소 736명 회원 32,100도서 비치
○ 도서관 운영실적 : 마을문고 120개, 이동도서관 33개, 피서지문고 3개소
○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 : 2개소 101명
○ 국민독서경진대회 : 독후감 3,611편 접수 우수작품 및 우수단체 시상
○ 도서교환시장 운영 : 18개소, 7,076명 참여, 15,547권 교환
○ 문화 한마당 : 1회 1,500명 백일장, 사생대회, 장기자랑 등

4)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 쌈지공원 만들기 : 35개소, 9,730㎡, 2,106명
○ 도로변 벽화 그리기 : 1개소 50㎡
○ 마을버스정류장 가꾸기 : 2개소 70명 참여
○ 휴경지 경작 : 80개소 303천㎡, 고구마, 감자, 배추 등의 재배
○ 하절기 방역 활동 : 512개 봉사대, 4,027회, 19,789명

○ 안전감시단 운영 : 43개대 운영, 방범활동, 마을위험지역 신고, 여성 · 청소년, 안심귀가 지원

5) 깨끗한 환경 지키기

○ 산 · 강 · 바다 가꾸기 : 79회 7,430명 참여, 쓰레기 44톤 수거
○ 유원지, 유적지 환경 안내소 운영 : 199곳 838명 활동
○ 새마을 시설물 및 군집기 관리 : 59곳, 1,541명 활동
○ 폐식용유 이용 비누 제조 보급 : 폐유 107천리터 ,비누 218천장 제조 보급
○ 생활환경 지키기 캠페인 : 23회, 1,585명, 홍보물 7종 30천매 배부
○ 회의, 간담회, 세미나, 환경교육 등 : 130회 6,996명 참여
○ 숨은 자원 모으기 : 폐지, 고철, 농약병 및 폐비닐 1,269톤
○ 에너지 절약 캠페인 : 60회, 1,723명 참여, 에너지 절약요령 책자 2,100부 배부

6) 이웃사랑운동

○ 장애우, 소년 · 소녀가장, 복지시설, 독거노인, 결식아동 돕기 : 939회 2,300명 지원
○ 헌혈하기 : 6개시군, 223명 헌혈
○ 사랑의 집 고쳐주기 : 58가구 570명 참여, 보일러, 전기시설 수리, 도배 · 장판교체
○ 김장 나누기 : 238천 포기, 16,500가구 및 26개 시설 지원, 10,851명 참여
○ 쌀 나누기 운동 : 617,491천원 모금, 16,147가구 지원

7) 국제화새마을운동

○ 몽골 새마을협력사업 : 우물파기 및 가내수공업용 기계 지원
○ 러시아 연해주 협력사업 : 새끼돼지 및 비닐하우스 건립 지원

8) 회원확충 및 역량강화

○ 회원관리 : 지도자명단전산화 작업, 지도자증 발급, 우수지도자 표창
○ 시군별 수련대회 : 25개 시군, 13,979명 참여
○ 새마을지도자교육 : 31회, 2,215명 중앙연수원 위탁

9) 자립기반 조성

○ 시군 자체회관 건립 : 2004년 말 20개 회관 확보
○ 회원 회비 : 도회 17,726천원, 시군회비 : 509,895천원

2003년도

1) 생활문화 개선사업

○ 건전사회실천 캠페인 : 664회, 66천명 기초질서, 건전소비문화, 세금 바르게 내기 등
○ 장묘문화 개선 운동 : 교육 10회, 1,288서약, 캠페인 17회, 682명
○ 사랑의 효 편지 쓰기 : 초 · 중 · 고생 211편
○ 동전 모으기 운동 : 10,525,040원 수집
○ 『POST WORLDCUP』캠페인 : 142회 4천명

2) 나라상징물 사랑 운동

○ 태극기 달기 캠페인 : 154회, 3,400명
○ 나라꽃 무궁화 심기 운동 : 13곳, 1,300주, 400명 참여
○ 지역 상징물 상호 방문 견학 : 6회, 204명

3) 독서문화운동

○ 신규문고개관 : 12개소, 530명 회원 영입, 20,139권 도서 비치
○ 도서관 운영실적 : 이동도서관 33개, 150만명 이용, 피서지문고 2개소, 1,650명 이용

○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 : 6개소 271명, 3개월 과정
○ 국민독서경진대회 : 독후감 643편 시군대회 1,635편 우수작품 및 우수단체 시상
○ 도서교환시장 운영 : 12개소, 3,316명 참여, 7,982권 교환
○ 문화 한마당 : 1회 1,500명 백일장, 사생대회, 장기자랑 등
○ 단위문고 운영 : 117개문고 장서 2,950천권, 1,454천명 이용

4)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 쌈지공원 만들기 : 64개소, 31천㎡, 5,414명
○ 수질정화 식물 식재 : 1개소 150평
○ 우리 마을 상징물 그리기 : 23개 마을 벽화
○ 휴경지 경작 : 52개소 368천㎡, 고구마, 감자, 배추 등의 재배
○ 하절기 방역 활동 : 512개 봉사대, 2,298회, 18,631명
○ 안전감시단 운영 : 방범활동, 마을위험지역 신고, 안심귀가 지원 102개대 운영

5) 깨끗한 환경 지키기

○ 산 · 강 · 바다 가꾸기 : 127회, 3,100명 참여, 쓰레기 19톤 수거
○ 유원지, 유적지 환경 안내소 운영 : 199곳, 838명 활동
○ 새마을 시설물 및 군집기 관리 : 57곳, 1,117명 활동
○ 폐식용유 이용 비누 제조 보급 : 폐유 70천 리터, 비누 116천장 제조 보급
○ 생활환경 지키기 캠페인 : 76회, 2,038명, 홍보물 1종 20천매 배부
○ 회의, 간담회, 세미나, 환경교육 등 : 96회, 4,229명 참여
○ 숨은 자원 모으기 : 폐지, 고철, 농약병 및 폐비닐, 폐농자재 451톤
○ 에너지 절약 및 자전거타기 캠페인 : 26회, 3,930명 참여

6) 이웃사랑운동

○ 장애우, 소년 · 소녀가장, 복지시설, 독거노인, 결식아동 돕기

: 430회 3,600명 지원

○ 푸드 뱅크 운영 : 46가구, 545회 지원

○ 집 고쳐주기 : 83가구 673명 참여 보일러, 전기시설 수리, 도배 및 장판 교체

○ 김장 나누기 : 151천 포기, 14천 가구 및 5개 시설 지원, 9,757명 참여

○ 쌀 나누기 운동 : 660,554천원 모금, 18,993가구 지원

7) 국제화새마을운동

○ 새마을문고 한 · 베트남협력사업 : 도서 500만원, 문구 30만원 상당 지원

8) 회원확충 및 역량강화

○ 회원관리 : 지도자명단전산화 작업 20,679명 입력, 지도자증 발급 7,238명

○ 시군별 수련대회 : 26개 시군, 12,396명 참여

○ 새마을지도자교육 : 36회 3,049명, 중앙연수원 위탁

9) 자립기반 조성

○ 시군 자체회관 건립 : 2003년말, 17개 회관 확보

○ 회원 회비 : 도회 2,500천원, 시군회비 : 448,069천원

2002년도

1) 지역 가꾸기 사업

○ 쌈지공원 : 5곳 132평, 벽화 그리기 5곳 402평, 미나리꽝 2곳 67평

○ 청소년 농촌 일손 돕기 활동 : 5개 봉사대 230명

○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 쌀 등 10개품 566회, 1,077백만원 판매

○ 휴경지 경작 : 82개소 259천㎡, 배추, 감자 등 식재

○ 마을안전 감시단 운영 : 562개 봉사대, 연29,338명 활동, 방범,

위험지순찰

○ 도농결연 교류 : 10개 지역, 27회, 845명 교류

2) 새 문화 시민운동

○ 국기달기 캠페인 : 42회, 4,397명 참여, 국기보급 5,760매

○ 장묘문화 개선 캠페인 : 24회, 홍보지 8,400매, 화장서명 2,652명, 교육 24회 1,324령

○ 근검 · 절약 실천 캠페인 : 95회, 17,784명 참여

○ 사랑의 효 편지 쓰기 : 초 · 중 · 고생 650명 참여

3) 독서문화운동

○ 신규문고개관 : 15개소, 457명 회원 영입, 30,837권 도서 비치

○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 이동도서관 30대, 676천명 이용, 1,881개 지역 순회

○ 독서문화 지도사 양성 : 6개소, 271명

○ 국민독서경진대회 : 독후감 643편, 시군대회 1,635편, 우수작품 및 우수단체 시상

○ 도서교환시장 운영 : 11개소, 7,622명 참여, 26,279권 교환

○ 문화 한마당 : 1회 1,548명 백일장, 사생대회, 장기자랑 등

○ 어린이 및 주부교실 운영 : 29개소, 84회, 1,900명 참여

○ 단위문고 운영 : 173개 문고, 1,474천권 대출

4) 깨끗한 환경 지키기

○ 자동차 공회전 자제 캠페인 : 116회, 1,098명 참여, 홍보물 12천부 배부

○ 에너지 절약 캠페인 : 124곳, 2,735명 참여

○ 새마을 시설물 및 군집기 관리 : 260회, 2,216명 활동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 1,253회, 48,355명 참여, 홍보안내서 205천장

○ 폐식용유 이용 비누제조 보급 : 폐유 64천 리터, 비누 109천장 제조 보급
○ 농경지 정화활동 : 농약병, 폐비닐, 폐농자재 수거 : 61회, 1,360명 70톤 수거
○ 자연보호 활동 : 372회, 27천명 참여, 100톤 오물 수거
○ 생활환경 지키기 캠페인 : 41회, 2,150명, 현수막 45매, 홍보물 9천매 배부
○ 회의, 간담회, 세미나, 환경교육 등: 106회, 1,951명 참여

5) 이웃사랑운동

○ 장애우, 소년 · 소녀가장, 복지시설, 독거노인, 결식아동 돕기 : 3,736회 1,130백만원
○ 군경위문 : 53회, 25,280천원 상당 위문품 지원
○ 푸드 뱅크 운영 : 48개 지역, 234가구
○ 장학금 지원 : 272명, 66,000천원
○ 집 고쳐주기 : 60세대 1,628명 참여 보일러, 전기시설 수리, 도배 및 장판교체 등
○ 김장 나누기 : 155천 포기, 12,328가구, 61개 시설 지원, 6,749명 참여
○ 쌀 나누기 운동 : 442백만 원 모금, 8,723가구, 19개 시설 수해지역 38곳 지원
○ 태풍 루사 피해지역 : 121회, 4,387명 복구 지원, 407백만 원 성금 · 품 지원

6) 국제화새마을운동

○ 새마을문고 한 · 베트남협력사업 : 3개 마을문고 설치, 도서 · 책장 등 500만원 상당

7) 월드컵새마을운동 추진

○ 월드컵 성공 실천대회 개최 : 56회, 18천명
○ 월드컵 맞이 질서, 친절, 청결운동 추진 : 1,596회, 73천명 참여, 홍보물

210천장

○ 특화거리 만들기 : 꽃길 161㎞ 조성

○ 내가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 216개 시범아파트 지정 운영 인사표어 홍보판 부착

8) 회원확충 및 역량강화

○ 회원관리 : 지도자명단전산화 작업 19,743명 입력, 지도자증 발급 3,591명

○ 시군별 수련대회 : 25개 시군, 11,595명 참여

○ 새마을지도자교육 : 41회, 2,260명, 중앙연수원 위탁

9) 자립기반 조성

○ 도회관 구입 : 수원 인계동 대지 846평, 연건평 3,266평 (총액 : 10,341백만원)

○ 시군 자체회관 확보 : 2002년 말 13개 회관 확보

○ 회원회비 : 도 회비 43,220천원, 시군회비 : 321,778천원

2001년도

1) 지역 활성화 사업

○ 쌈지공원 만들기 : 3개소, 121㎡, 325명 참여

○ 농산물직거래 사업 : 감자 외 8종, 154회, 540백만 원 판매

○ 휴경지 경작 : 103개소, 910천㎡, 벼, 배추, 감자 등 식재

○ 새마을공동시설물 관리 :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120개소, 415명 참여

2) 의식개혁운동

○ 지도자 새마을교육 : 20회, 1,833명 중앙연수원 위탁

○ 월드컵 맞이 10대 과제 실천운동

– 질서 · 친절 · 청결 운동 등 : 4,057회, 190천명 실천 서약
– 화장실문화 개선 캠페인 : 163개 공공화장실 청결 활동, 2,148명 참여
– 선진교통문화 정착 : 675회, 47천명 참여
– 정지선 지키기 : 10개 시군 교통봉사대 활동, 사진전시회, 어린이 등 굣길봉사

○ 국기달기 운동 : 국기 23천매 보급, 무궁화 420주 식재
○ 장묘문화 개선 : 캠페인 및 교육 35회, 2,321명, 화장서약 2,958명
○ 검소한 명절보내기 캠페인 : 116회, 3,375명 참여

3) 새마을문고운동

○ 새마을문고 운영 : 273개 문고, 35만명 이용, 113만권 대출
○ 이동도서관 운영 : 9개시군, 22대 73만명 이용, 223만권 대출, 2,472곳 순회
○ 도서교환시장 운영 : 34회, 9,292명 참여, 9,650권 교환
○ 독서문화의 한마당 : 여주 신륵사 공원 1,030명 참여 백일장, 사생대회 등

4) 깨끗한 환경 지키기

○ 지역 환경감시단 운영 : 105개 대, 16,75명 참여, 578건 계도활동
○ 에너지 절약 캠페인 : 167회, 6,700명 참여
○ 소하천 살리기 : 225곳, 288㎞, 14천명 참여
○ 소공원 가꾸기 : 60곳, 관목 4,800그루 식재
○ 하절기 방역 봉사활동 : 3,049회, 10,268명 참여
○ 폐식용유 이용 비누 제조 보급 : 폐유 104천 리터, 비누 287천매 제조 보급
○ 폐자원 모으기 : 31개시군, 2130톤 수집 폐비닐, 폐농자재, 고철 등

5) 이웃사랑운동

○ 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 돕기 : 1,166가구, 71,650천원 지원

○ 한가위 쌀 나누기 사업 : 쌀 147톤, 라면 등 전달, 12천 세대
○ 집 고쳐주기 : 11개시군, 24세대
○ 김장 나누기 : 160천포기 15,673가구
○ 쌀 나누기 운동 : 442백만 원 모금 8,723가구, 19개 시설 수해지역 38곳 지원
○ 가뭄극복 및 수해복구 지원활동 : 131회, 8,650명 참여, 성금 25,650천원 전달
○ 농촌 봉사활동 : 지도자 및 학생 171회, 5,240명 참여
○ 도자기엑스포 자원봉사 활동 : 입장권 예매 73천매, 행사장 봉사 3개소, 7,530명
○ 자원봉사센터 수탁 운영 : 6개소(고양, 남양주, 포천, 광주, 안성, 동두천)

6) 국제화새마을운동

○ 해외동포 도서보내기 운동 : 18천권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 한일지역사회지도자 교류대회 : 7명 참석

7) 민간자율운동 추진 기반 강화

○ 17개 새마을교통봉사대 육성
○ 광역지도자 선임 : 3,309명
○ 도회관 확대 이전 : 수원시 인계동 1122-12
○ 회원 회비제 시행 : 11,443명 279,402천원 납부

2000년도

1) 생활의식 개혁운동

○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 캠페인 437회, 52천명, 국기 18천매 보급
○ 장묘문화개선 운동 : 교육 및 캠페인 543회, 14,538명, 4,164명 화장 서약
○ 세금 바르게 내기 : 교육 213회, 19천명, 홍보활동 189회, 9,573명

○ 과소비 추방 및 근검 · 절약생활화 캠페인 : 450회, 61천명
○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 675회, 47천명
○ 새마을알뜰마당 운영 : 360회, 농산물 606,923천원 판매
○ 도서교환 시장 운영 : 19회, 3,855명, 9,650권 교환
○ 새마을이동도서관 : 9개시군, 22대, 454지역, 839천명 이용, 2,090천권 대출
○ 내 고향 장서보내기 운동 : 13개 문고, 31천권 지원
○ 에너지 절약운동 : 교육 194회, 13,182명, 캠페인 5,432명, 홍보물 58천장
○ 새마을정보지도자 교육 : 9개소, 250명

2) 민간사회안전망 운동

○ 5개시군, 98개 읍 · 면 · 동 추진위원 구성, 4,916명
○ 사회안전망 후원현황 : 48천명, 121,310천원 모금
○ 불우시설 및 어려운 이웃돕기 : 1,254회, 15,051가구 및 시설 284백만 원
○ 소년 · 소녀가장 돕기 : 1,035회, 79,909천원 지원
○ 재해민 돕기 : 84회, 성금 · 품 58,770천원 상당 전달
○ 김장 담가주기 : 161천포기, 14,673가구 및 시설 지원, 8,002명 활동
○ 쌀 나누기 : 2,560가구 및 30개 시설, 6,254포대, 18백만 원 상당 생필품
○ 경노잔치 및 효도관광 : 330회, 82천명 노인 접대

3) 환경보전운동

○ 방역봉사대 구성 및 활동 : 3,150개 대, 8,562명, 하절기 4,500회 방역
○ 새마을대청소 실시 : 매월 1, 15일, 1,460회, 294천명 참여
○ 꽃길 및 꽃동산 조성 : 145개소, 67㎞, 9,367명 참여
○ 공중화장실 청소 : 18회, 435명
○ 생활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 853회, 14천명 참여
○ 재활용 자원 수거 : 976회, 31천명 참여, 2,733톤 수거
○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비누 제조 : 97개소, 316천매 생산, 18천명 활동

4) 국제화 및 통일준비 운동

○ 북한동포 돕기 의류전달 : 710박스(127백만 원 상당)
○ 북한동포 돕기 통일손수레 보내기운동 : 248백만 원, 32,774명 참여
○ 평화의 종 타종식 및 꽃씨 풍선 날리기 : 1회, 127명
○ 새마을운동 국제자매 결연 : 도서 15천권, 학용품 2,500점 전달

1999년도

1) 나라 살리기 경제회생 및 민간사회안전망 운동

○ 민간사회안전망 추진위원회 구성 : 4개시군, 68개 읍면동
○ 실직가정 돕기 : 5,496가구 생필품지원(190,469천원 상당)
○ 중소기업 돕기 캠페인 : 9회, 5,620명. 중소기업생산품 우선 구매
○ 새마을알뜰마당 운영 : 483개소(상설 23개소 포함), 419백만 원 판매
○ 사치 과소비추방 캠페인 : 31개시군, 3천명
○ 세금 바르게 내기 캠페인 : 신용카드사용의 생활화 10개소, 2,500명
○ 농산물 상설직매장 운영 : 3개소, 39백만원
○ 휴경농지생산화 작업 : 94곳 138천 평, 벼, 배추, 감자 등의 경작
○ 영농봉사 활동 : 31회, 3,750명 참여
○ 직장새마을활성화 간담회 : 물자절약, 생산성향상 등 5회 1,500명

2) 생활의식 개혁운동

○ 국기달기 운동 : 캠페인 122회, 26천명, 국기보급 25천매
○ 방범봉사활동 : 483개 봉사대, 7,425명, 절도범검거, 취객안전귀가 등 141건
○ 청소년 선도 활동 : 72개 학교 봉사대 운영
○ 청소년 공부방 운영 : 15개소, 13,450명 이용
○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 : 483개소, 66천명, 정지선 정차위반 244건 적발
○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 차량 23대, 514천명 이용, 1,210천권 대출

○ 도서교환시장 운영 : 36개소, 41천권 교환
○ 내 고장 양서보내기 운동 : 36개 마을문고, 41천권 지원
○ 고아원 등 사회 복지시설 도서지원 : 25개소 58천권 지원

3) 화합과 이웃사랑 운동

○ 독거노인, 소년 · 소녀가장 돕기 : 975회, 15천명 생필품(233백만 원 상당)지원
○ 노숙자 점심 나누기 : 3개소, 28회, 8,400명 중식 지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 : 304회, 7,260명 참여 생필품(63백만 원 상 당) 전달
○ 청소년(중 · 고생) 봉사대 운영 : 31개시군, 157개 봉사단 1,500명
○ 김장 나누기 : 배추 70천포기, 4,650가구 및 복지시설 지원
○ 햅쌀 나누기 : 179천 ㎏, 9,124세대 지원
○ 소년 · 소녀가장 1일 부모 되어주기 : 7회, 28천명 참여

4) 환경보전운동

○ 새마을대청소 실시 : 매월 1, 15일, 1,450회, 246천명
○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 : 121곳, 1,084명 참여, 나무 9,033주 식재
○ 자연보호캠페인 전개 : 763회, 52,800참여
○ 방역봉사 활동 : 483개 봉사대, 7,245명, 2,537회 방역 활동
○ 마을 소하천 관리 책임제 실시 : 107개 하천, 20,215명 책임관리
○ 1사1산1하천 가꾸기 : 75개 직장회원사, 11,250명 참여
○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비누 만들기 : 57개소, 433천장 제조 보급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46개 지역, 4,416명 참여
○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설치 : 1,750개소
○ 환경오염 고발센터 운영 : 31개 지역, 76건 고발 조치

5) 국제화 및 통일 준비 운동

○ 북한 돕기 의류 모으기 운동 : 14회 의류 및 127백만 원 모금
○ 통일 · 안보강연회 : 5회, 2,540명 참여
○ 통일대비 새마을운동 전개 방향 토론회 : 3회, 574명 참여
○ 통일동산 식목행사 : 조경수 2,780주 식재, 560명 참여

1998년도

1) 도덕 · 질서세우기

○ 새마을국민정신교육 : 19개 과정, 2,017명, 회장단 연찬회 1회 202명
○ 도덕성 회복운동
  – 학원폭력 근절 : 215개 봉사대 조직, 4,059명 활동
  – 1봉사대 1학교 담당제 운영 : 487개 학교
  – 청소년 선도대 구성 : 17개시군, 교통봉사대원 1,200명, 순찰활동 235회 캠페인 111개소, 1,123회, 현수막 54개소, 전단 28천매
○ 질서 · 친절 · 청결 3대 시민운동 전개 : 교통문화 캠페인 및 정지선 지키기
○ 나라사랑운동
  – 국기달기 캠페인 : 109회, 3,927명 참여, 국기 37,400매 보급
  – 무궁화 심기 운동 : 8회, 8,200주 식재, 1,060명 참여
○ 독서생활화 운동
  –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 9개시군, 22대(수원3, 성남4, 의정부2, 안양3, 부천4, 광명2, 안산2, 시흥1, 포천1) 897천명 이용, 2,251천권 대출
  – 단위문고 운영 : 326개 문고, 장서 800천권
  – 내고향 양서보내기 운동 : 16개 문고, 29,881권 접수
  –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 도 및 시군 38개소, 21,043권 교환
  – 제6회 새마을문고 문화의 한마당 : 안양새마을교육원 1,209명, 백일장, 사생대회, 웅변발표, 오행시, 장기자랑 시군종합평가
  – 제18회 국민독서경진대회 : 도회의실, 150명, 21시군 독후감 3,986

명, 430단체, 종합부문 4개시군, 단위문고 8개, 이동도서관 3개

2) 경제 살리기

○ 국가경제 보호운동 지속 전개
- 순회경제교육 : 128회, 16,660명 참여
- 우리 경제 살리기 실천결의 : 도회의실, 193명 특강, IMF극복과 생활방식 구조개혁(김용래 전.장관)
-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 : 1997.12~1998. 6
- 사치 · 과소비 추방 운동 : 88개소, 46,800명 참여
- 동전 모으기 운동 : 오뚝이 저금통 1,092개 설치, 6,216㎏ 수집
- 새마을알뜰마당 : 수시마당 101회, 127백만원, 상설마당 21개소, 52백만원 거래

○ 나라사랑 재활용품 모으기
- 월별 재활용품 수집 : 고철, 폐지, 플라스틱 1,511톤, 462회, 49천명 참여 매각대금 중 192,790천원 불우이웃돕기 자금으로 사용
- 시군 평가시상 : 도회관 168명 참여, 18개 단체 및 개인 시상

3) 지역 가꾸기

○ 내 고장 가꾸기
- 새마을 군집기 설치 · 관리: 243개소, 1,855개
- 마을공동시설물 정비 : 마을회관, 마을상수도 등 47개소 1,620명 참여
- 꽃길 및 꽃동산 조성 : 127개소, 3,810평, 1,200명 참여
- 『자랑스런 마을』 지도 관리 : 20개 마을

○ 농어촌 활력화
- 결연지역 간 농산물 직거래 : 152회, 306백만 원 판매, 상설 8곳, 260백만 원
- 농촌일손 돕기 : 94개소, 5,224명 참여, 197천 평 지원
- 휴경농지생산화 작업 : 36개소, 151천 평, 벼, 고추, 무, 콩, 호박 등

재배

– 주말농장 운영 : 18개소, 36천 평

– 우리농산물 애용 캠페인 : 76회, 8,900명 참여

4) 환경 되살리기

○ 지역 환경보전

– 쾌적한 환경조성 운동 : 대청소, 자연정화 활동, 292개소 123천명 참여

– 자연보호 캠페인 : 798회, 156천명 참여

– 방역봉사 활동 : 차량 161대, 연막소독기 344대, 244개 봉사대, 4,033명 구성

– 피서지 환경안내소 : 3개소 400명 재활용품 수집, 피서지 청소, 에너지캠페인

– 좋은 환경 좋은 이웃교실 운영 : 31회, 1,500명

○ 맑은 물 살리기

– 소하천 책임구역 정화 활동 : 111개 소하천, 34,198명 참여(정부수립 50주년 한반도 되살리기 운동 병행)

– 폐식용유 이용 저공해 비누 만들기 : 27개소, 384천장 제조 보급

–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 : 16개 지역, 2,560명 참여

–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교육 : 31회 1,500명

5) 이웃사랑 나누기

○ 가정새마을운동 추진

– 가정새마을운동 실천 결의대회 : 32회, 9,600명 참여

– 모범가정, 새마을여인상 시상 : 32회, 130명

– 가정의 달 문화행사 : 고부나들이, 가족체육대회, 가훈전시회, 합동결혼식(13회 110쌍 결혼)

– 효 편지쓰기 : 학생 및 일반시민 11,472편, 부모, 스승, 직장상사 등

○ 이웃사랑 실천

– 불우시설, 이웃돕기 : 1,254회, 41천명, 23천명 봉사, 경로잔치, 효도관광
– 소년소녀가장 돕기 : 154회, 2,294명 지원
– 실직가정 사랑의 오뚝이 캠페인 : 김장 192천포기, 18천 가구, 쌀 241천kg, 12천 가구
– 결식아동 점심 나누기(겨울방학기간) : 1,296명 쌀 밑반찬 도시락 제공

○ 수해복구 지원 활동
– 경기북부 수해지역 : 8~9월 31개시군, 23,337명 참여, 성금 17백만원, 쌀 등 생필품 12종(120백만 원 상당), 식기 14천점 모음, 1,352세대 전달

6) 국제화 사업

○ 러시아 연해주 호롤군 협동농장 2개소 12,498ha 50년간 임차
○ 실험영농 호롤군 빼트로위찬스키 농장 500ha
○ 경기지도자 사업자금 모금 : 24,055명 76,177천원 모금

7) 조직 활성화

○ 사단법인 경기도새마을회 창립총회 : 1998. 5. 27.
○ 경기도새마을회관 개관식 : 1998. 7. 23.
○ 각종 회의 및 순회지도 : 단체 등 21회 시군 순회 60회
○ 평가보고회
– 지역, 부녀 각 1회 우수단체 및 66명
– 새마을지도자대회 : 잠실학생체육관, 777명 참석, 16개시군, 6,860명
– 지도자 사기진작 : 선진지 견학 96회 1,365명, 표창 398명, 단합행사 127회 2,690
– 지도자하계수련대회 : 16개시군, 9,939명 참여

1997년도

1) 생활의식 개혁

○ 사치 · 과소비추방 운동 : 캠페인 255개소, 42,100명, 홍보전단 310천매
○ 경제 살리기 실천 결의대회 : 31회, 24,500명
○ 검소한 설 · 추석 보내기 : 31시군, 3,900명, 홍보물 2종 25천매
○ 거리질서 계도 : 105개소, 11,215명 참여, 홍보물 게첨 92개소
○ 나라사랑운동 : 국기달기 캠페인 162개소, 국기보급
(가정용, 차량용 5,100매) 무궁화 심기 7개소, 1,850주
○ 건전가정 육성 : 가정의 달 고부나들이 57회 3,200명 합동결혼식
14회 146쌍
○ 새마을문화교실 : 54회, 6,080명
○ 청소년공부방 운영 : 112개소, 4,010회, 309천명 이용
○ 학교폭력 근절 : 385회, 4,660명 참여
○ 주민의식개혁 교육 : 37개소, 5,400명
○ 좋은 환경 좋은 이웃 교실 : 노래, 취미교실 10회 3,500명
○ 방범봉사활동 : 487개 대, 7,610명 매주 2회 이상 활동, 학교폭력 예방
(1봉사대 1학교 담당), 173개 청소년공부방운영

2) 농촌 활력화 사업

○ 농수산물 직거래 : 완도 외 26개 지역, 76회, 1,600백만 원 판매
○ 영농봉사 활동 : 63개소, 68회, 1,560명, 37천 평 지원, 과일봉지 씌우기, 감자 캐기 등
○ 휴경지 경작 : 24개소, 1,654명, 41,750평, 벼, 감자, 고구마, 배추 등
○ 새마을 군집기 설치 · 관리 : 243개소
○ 마을공동시설물 관리 : 마을창고 청소 29회, 1,620명
○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 : 76회, 8,900명 참여
○ 설 · 추석맞이 농산물 장터 운영 : 62개소, 117백만 원

3) 생활환경 개선 운동

○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 284개소, 37천명, 쓰레기 157톤 수거
○ 소하천 살리기 : 372개 지역, 1,150회, 199천명 참여
○ 새마을대청소 : 매월1. 15일, 487개소, 144천명, 설 · 추석맞이 89개소, 15천명
○ 재활용품 수집 : 487개소, 1,631톤, 25,586명 참여
○ 꽃길 · 꽃동산 가꾸기 : 155개소, 1,135㎞, 9,510명 참여, 꽃 19,500본
○ 재생비누 가공센터 : 27개소, 33대 기계설치
○ 불량벽보 제거 : 294회, 40,075명 참여
○ 공중화장실, 육교청소 : 309회, 14,770명 참여
○ 관광 · 유원지 공공시설물 청소 : 72회, 520명
○ 방역봉사활동 : 192개 조직, 2,370명 구성, 1,900회, 28,100명 활동

4) 이웃사랑운동

○ 소년 · 소녀가장 돕기 : 259회, 2,910명 대상, 77,600천원 상당 생필품 지원
○ 불우이웃, 시설방문 : 132개소, 93,200천원 상당 생필품 지원
○ 경로잔치 개최 : 487개소, 129,700명 대접
○ 효도관광 실시 : 43곳, 3,340명
○ 군경위문 : 10회 위문품 전달(7,700천원 상당)
○ 장애우 봉사요령 교육 및 봉사 활동 : 482개 시설, 11,200명 활동
○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김장나누기 : 560가구 지원

5) 추진역량 제고

○ 각종 회의 : 총회 4회(각 단체) 운영위원회 15회(지부 및 각 단체) 시군순회교육 · 간담회 47회
○ 교통봉사대 체육대회 : 수원연초제조창 운동장, 11개대, 550명
○ 지역새마을운동 평가회 : 도청 제2회의실, 108명

○ 부녀회 각종 봉사대 구성 : 환경안내 630대, 알뜰소비 630대, 이웃사랑 318대, 질서안내 276대, 새마을며느리봉사대
○ 며느리봉사대 운영 : 264개 대 운영재가노인, 노인시설, 노인정 결연 경로잔치, 효도 관광 등
○ 지도자 애경사 위문격려 : 127회, 144명
○ 지도자선진지 견학 : 35회, 16,364명
○ 새마을활동 홍보 : 언론사(신문 TV) 224회, 새마을신문 70회, 미담사례 21회

1996년도

1) 깨끗한 환경 지키기

○ 소하천 살리기 : 수원천 외 980개소, 120회, 67,100명 연중실시
○ 환경 안내소 운영 : 성남 남한산성, 사기 막골, 양주 일영유원지, 포천 백운계곡 등
○ 환경쓰레기 집중 수거 : 원천유원지 외 223개소, 19천명 참여 청소차량 95대, 마대 6,670개, 오물수거량 200톤
○ 재활용품 수집 : 폐지, 공병, 고철, 폐비닐 등 1,015톤 연중 실시
○ 새마을대청소 : 읍면동별 매월 1, 15일 382회, 132천명 참여
○ 불법벽보제거 및 공중화장실 청소 : 333회, 33천명 참여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 52회 7,300명, 홍보전단 25천부 배부
○ 봄철 폐비닐, 빈농약병 집중 수거 : 읍면지역 310톤 40천명 참여
○ 하절기 방역활동 : 192개 대, 2,370명 주거 밀집지역, 침수지역 등 6월~8월말

2) 건강한 사회 만들기

○ 나라사랑 실천운동 :
– 국경일 국기달기 캠페인 : 국기 14,800매 보급, 현수막 150매

– 무궁화 심기 운동 : 30곳 11천주 식재

○ 노인섬기기 : 33회, 8천명 중식 접대, 위안행사, 장기자랑 등

○ 모범 직장인 부모 초청 효도관광 : 44명, 현충사 온양온천 등

○ 합동결혼식 : 10회, 83쌍(저소득 동거부부 대상)

○ 추석맞이 새마을운동 : 검소한 명절보내기 캠페인, 명절맞이 대청소, 귀향 환영현수막 게첨, 불우이웃돕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 새마을알뜰마당 운영 : 88회, 판매금액 104,846천원

○ 청소년공부방 운영 : 61개소 초중고생, 52,000명 이용

○ 방범봉사대 운영 : 480개 대, 2,400명, 학교, 학원주변, 유흥가, 역 주변 청소년 계도, 범죄예방 및 신고활동 연 2322일 13,768명 활동

○ 교통질서 계도 및 캠페인: 181개 지역, 761회, 11,200명 참여

○ 직장새마을 '습관성 무질서 추방 캠페인' 홍보물 : 3천매 배부

3) 살기 좋은 농어촌 가꾸기

○ 농산물 직거래 : 36회 곡물류, 과일류 등 335백만 원 거래

○ 농촌일손 돕기 : 5~11월 벼 베기, 과일 따기 등, 3,200명, 42천 평, 농기계 지원

○ 도농 교류 사업 : 안양동안구–영월주천 도천1리 등 9개 지역 일손 돕기, 농산물구입 간담회 등

○ 휴경지 경작 : 11개시군, 35천평, 콩, 고구마, 깨 등 경작

4) 이웃사랑 실천

○ 수해지역 복구 지원 : 파주, 남양주, 연천, 포천지역 71회, 4,617명 참여 급식지원 및 복구지원 활동, 쌀 · 라면 김치 의류 및 위로금 등 94백만 원 상당 전달

○ 소년소녀가장 돕기 : 570가구 대상 1일 부모 역할 및 생필품

(19백만원 상당) 지원

○ 무의탁 노인 돕기 : 255회, 1,860명 대상, 39,995천원 상당, 생필품 전달
○ 복지시설 등의 위문 : 52개 시설, 73,100천원 상당, 물품 전달
○ 가정의 달 무의탁노인 경로잔치 : 42회, 1,100명
○ 각종 봉사대 운영 : 환경미화, 알뜰소비, 이웃사랑, 질서안내, 재해복구 등

5) 자율추진역량 제고

○ 단체별 총회 개최 : 지역, 부녀, 직장, 문고 1~2월
○ 운영위원회, 회장단회의 등 각종회의 : 지부 및 4개 단체 62회
○ 지역 · 부녀회장 연찬회 : 설악 프라자 51명
○ 직장지도자 연찬회 : 남양주 축령산, 30명
○ 교통봉사대 체육대회 : 고양시공설운동장 9개 지역대 550명 맑은 강 가꾸기 결의
○ 직장 · 단체장 조찬 간담회 : 브라운관광호텔 115명, 강연(이달순 수원대산업대학원장) 21세기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 시군 및 읍면동 순회지도 · 교육 : 135회 5,560명
○ 직장새마을사무요원 교육 : 남부연수원 110명
○ 단체별 평가대회 : 12월 중

1995년도

1) 활력 있는 고장 가꾸기

○ 농촌 돕기 운동 :
  – 일손 돕기 : 8,250명, 39천평 농사 지원, 배 봉지 씌우기, 포도수확 등
  – 농기계 보내기 : 4종 85점(8,623천원 상당)
  – 향우회장 초청 간담회 : 6회, 120명
○ 농산물 직거래 추진 : 쌀 등 12개 품목, 130회, 1,341백만원 거래

○ 공한지 텃밭 가꾸기 : 수원 입북동 외 5개소, 750명 참여 콩, 피마자, 배추 등
○ 알뜰마당 운영 : 중고 생활용품 및 의류 등 77회, 70,200명 참여, 89,500점 판매
○ 좋은 환경 좋은 이웃 교실 : 15회, 450명, 저공해 비누제작 시연 및 안보 교육

2) 깨끗한 환경 가꾸기

○ 소하천 살리기 : 수원천 외 826개 개천 전담구역 설정, 책임구역 팻말설치 3천개, 소하천 오염감시 및 정화활동 62,500명 참여
○ 재활용품 수집 : 폐지, 고철, 빈병, 폐비닐 등 1,774톤
○ 환경안내소 운영 : 한탄강, 장흥유원지, 안양유원지 등 566명, 피서지 정화, 계도활동, 알뜰마당 운영
○ 방역활동 : 31개 지역, 2,100회, 38천명 참여, 차량 35, 연막기 264, 분무기 52
○ 선거 후 환경정비 : 4대 지방선거 후 각종 선거 홍보물 제거 9천명 참여

3) 건강한 사회 가꾸기

○ 나라사랑운동 : 국기달기 162개소, 11,200명 참여, 국기보급 10천매 홍보물 3종, 15천매, 지역 언론(경기, 경인, 중부일보)과 공동 추진, 무궁화 심고 가꾸기 54개소, 19천주 식재
○ 4대 질서 지키기 사업 : 기초, 가로, 위락, 풍속 질서 620개소, 120천명 참여
○ 모범 직장인 부모 초청 효도관광 : 44명, 이천온천, 여주영릉, 신륵사 등

4) 이웃사랑 실천 운동

○ 새마을합동결혼식 추진 : 13회, 영세동거부부 91쌍, 예식비 및 결혼 기념품 지급

○ 수해지역 봉사활동 : 철산동 삼각주마을 276세대 905명 가재도구 세척, 생필품지원, 급식 및 방역 봉사 활동, 성금 지원
○ 김장 담가주기 : 25,290포기, 1,392가구 및 시설 지원
○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 450회, 20천 가구 지원

5) 자율추진 역량 강화
○ 회장단 연찬회 : 도고글로리콘도 120명 강연(지방자치와 새마을운동 : 이용학 수원대교수), 사례발표, 간담회 등
○ 직장 · 단체장 조찬 간담회 : 브라운관광호텔 180명 강연(지방화시대의 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 이인제 지사)
○ 새마을지도자교통봉사대 한마음 대회 : 안성천 및 안성산업대 550명, 안성천 정화
○ 도 및 시군 회장 교육 : 남부연수원 85명
○ 지역 · 부녀 순회지도 : 71회 일선현장 방문 및 간담회
○ 지역 새마을평가회 : 도청1회의실, 215명 시군 사업 및 조직 평가 시상
○ 부녀새마을운동 평가회 : 32회 결산보고, 수번사례, 우수부녀회 표창 등
○ 각종 회의 : 총회 4회(각 단체별 1회), 월례회의, 운영회의 등
○ 직장운영위원회의 : 수원상의 상아그릴 96년 직장운영 방안

1994년도

1) 활력 있는 고장 가꾸기
○ 봄의 축제 도시 · 농촌 한 울 큰모임 : 수원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1,500명, 도 · 농 자매결연 증서 교환(62개 마을), 음식전시회, 우리농산물 전시 · 판매, 알뜰마당

2) 농촌 돕기 운동

○ 농촌 일손 돕기 : 7,140명, 36천 평
○ 농촌 농기계보내기 : 3종, 71점(환가액 7,104천원)
○ 향우회장 초청간담회 : 11회, 210명
○ 한가위 우리 농산물 큰 장터 : 안성군 외 4곳 179백만 원 판매
○ 한해지역 양수기 지원 : 전남 일원 양수기 43대, 성금 700천원
○ 농산물직거래 사업 : 쌀 등 10개 품목 130회 1,341백만원 거래

3) 깨끗한 환경 가꾸기

○ 소하천 되살리기 : 수원천 외 1,017개소(1,410㎞), 78천명 참여 관리
팻말 3,600개
○ 자원재활용품 수집 : 폐지, 고철, 공병, 폐비닐 등 1,576톤
○ 환경안내소 운영 : 6개소, 652명 정화활동, 캠페인 전개
○ 불량벽보 제거 : 853회, 27,100명
○ 가로 화단 및 꽃동산 가꾸기 : 300개소, 940㎞, 3,700명 참여
○ 방역활동 : 192개 봉사대, 2,100회, 38천명, 차량 35, 연막기 264,
분무기 52대

4) 건강한 사회 가꾸기

○ 나라사랑 운동
– 국기 달기 캠페인 : 184개소, 12,100명 국기보급 10천매, 홍보물
3종 20천매
– 무궁화 심고 가꾸기 : 91개소, 2,400주 식재
○ 4대 질서 지키기 : 기초 · 가로 · 위락 · 풍속질서 계도 670회, 128천명 참여
○ 부녀회원 1회원 1통장 갖기 : 125천명 참여, 875백만 원
○ 청소년공부방 운영 : 128개소, 초중고생 33,205명 이용
○ 알뜰마당 운영 : 중고생활도구, 의류, 저공해 비누 판매 682회
64,487점, 87백만원

○ 가정새마을운동 실천 다짐대회 : 수원시청회의실 550명, 행동강령, 사례발표
○ 도서관 운영 : 이동도서관 8개시 15대 차량 185천권 227개소 순회, 928천권 대출, 408천명 이용
○ 내 고향 양서보내기 운동 : 226천권
○ 알뜰도서교환시장 : 47개소, 108천권 교환, 35천명 이용
○ 대통령기 제14회 국민독서 경진대회 : 운영부문 56개 팀, 독후감 3,634편
○ 제2회 새마을문고 문학의 한마당 : 가평군 산장국민관광지 812명 독서발표회, 사진전시회, 문고운영사례, 시낭송
○ 읍면 구심문고 육성 : 17개시군, 58개 문고
○ 경기도새마을문고운동 대행진 : 도 문화예술회관 580명
○ 새마을문고 발전 세미나 : 도청상황실 62명 이동도서관 이용, 문고운동 발전 방안

5) 이웃사랑 실천

○ 노인정 자매결연 : 56개 노인정, 봉사대원 216명, 간식지원 시설보수 등
○ 동거부부합동결혼식 : 저소득 동거부부 대상 14회 133쌍 결혼식, 기념품 제공 등
○ 소년 · 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돕기 : 749회, 2,484가구 생필품지원
○ 사회복지 시설 위문 : 132곳 생필품 등 31백만 원 상당
○ 어르신 경로잔치 : 251곳, 26천명 노인대접
○ 군경위문 : 88회 5,743명 참여 성품 전달

6) 자율추진역량 강화

○ 경기도새마을지도자 대회 : 문화예술회관, 2,000명 참석
○ 새마을지도자교통봉사대 발대식 : 도청 제1회의실 350명 참석 (대원 320명)

○ 직장새마을조찬 간담회(2회) : 브라운관광호텔 강사 이상희, 이한동
○ 직장 한 가족 운동 비교평가대회 및 여직원 활동사례 발표회
: 도청회의실
○ 지도자협의회권역별 순회간담회 : 수원 등 5개 권역 105명 참석
○ 지역 · 부녀회장 합동연찬회 : 설악프라자 73명
○ 새마을지도자 위촉현황 : 11,081명, 11,567리통(위촉율 89%)
○ 모범직장지도자 안보교육장 견학 : 고석정, 제2땅굴, 철의 삼각지 등
○ 직장지도자 해외 연수(2회) : 일본 및 유럽 20명 아사히신문사, 독일금융기관 등
○ 각종 회의 개최 : 총회,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회장단 회의 등 52회
○ 단체 평가대회 : 12월 중 조직운영, 사업추진 등 제반 우수조직 시상

1993년도

1) 건강한 국민정신 함양

○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 : 6회 293개소 13,120명 참여, 국기보급 20천매, 홍보물 4종 30천매
○ 무궁화동산 가꾸기 : 150개소 1,200명 참여 무궁화 5,300주 식재
○ 신경기인 의식개혁 교육 및 결의대회 : 문예회관 2천명 '한국병의 진단과 처방'
○ 기초질서 지키기 : 역, 터미널, 유원지 등 계도방송 및 현장계도 9,400명
○ 추석맞이 새마을운동 전개
– 검소한 추석 보내기 현수막 게첨 : 326개소
– 환경정비 활동 : 151회, 11,290명 참여
– 이웃돕기 : 411회, 3,190개 시설 및 가구 생필품 지원 (115,120천원 상당)
– 무연고 묘지 벌초 : 1,020명 참여, 440기
○ 부녀회원 근검절약 저축 운동 : 198,250명, 9,912,500천원

○ 건전생활 실천 캠페인 : 134회, 76천명 참여 홍보 전단 배포
○ 가정새마을 운동 : 가족 화합, 에너지 절약, 저축, 모범가정 표창 127가정
○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 일반시민 대상 280회, 대학 5회 1,540점 판매 · 교환
○ 방범봉사대 운영 : 188개 조직, 2,872명 구성, 청소년 선도, 질서위반 계도 · 신고
○ 직장새마을문고 설치 : 경기개발공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

2) 내 고장 활력화 운동

○ 감자 팔아주기 : 강원 대관령산 4,755상자(23,775천원 상당)
○ 노인정과 자매결연 : 186개 노인정, 봉사대원 1,781명 성금 · 성품 51개소, 현장수리 68건
○ 휴경지 없애기 운동 : 참여인원 107천명, 도시근교 유휴지 감자, 배추 등 경작
○ 자랑스런 마을 육성 : 화성 서근리, 여주 금사2리, 양주 회암 2리, 안성 신계리
○ 농촌 일손 돕기 : 벼 베기, 과일봉지 씌우기 등 331회, 11천명, 76천 평
○ 농기계보내기 : 3종 6점(1,000천원 상당)

3) 환경보전운동

○ 소하천 되살리기 : 1,016개 소하천(1,310㎞), 16천명 참여, 책임구역 설정
○ 산 · 강 · 바다정화 활동 : 14,287명 참여, 차량 123대, 마대 18천개, 비닐봉투 22천개 오물수거량 170톤, 홍보현수막 31개
○ 새마을공동시설물 정비 :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 2,106개 시설물
○ 하절기 방역봉사 활동 : 192개 2,375명으로 구성, 5,100회 43,890명 방역 참여
○ 환경 안내소 : 양주 외 5곳 피서지 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편의시설

제공

○ 재활용품 수집 운동 : 고철, 빈병, 폐비닐, 헌 종이 등 1,422톤

○ 맑은 물 지키기 실천 다짐대회 : 도 문예회관, 550명, 음식쓰레기 감축안

4) 이웃사랑 실천 운동

○ 직장협의회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 홍보스티커 제작 보급

○ 순직 지도자 돕기 : 안양3동 이선호지도자 방역봉사활동 중 순직 5천만 원 전달

○ 재해민 돕기 : 33세대, 가재도구 세척, 방역 활동, 생활용품 지원

○ 불우시설 위문 : 노인요양시설, 아동시설 등 1,287회

○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 돕기 : 602회, 35,500명 참여

○ 군경위문 : 120회, 25,220명

○ 직장협의회 수봉재활원 난방용 유류 및 신발 등 지원

○ 직장협의회 승용차 함께 타기 : 스티커 제작 배부

5) 자율추진역량 제고

○ 경기 새마을지도자 대회 : 문화예술회관, 2천명

○ 지도자협의회 순회 간담회 : 40회, 850명 일선새마을운동 현황 청취

○ 부녀회 시군 순회 간담회 : 36회, 920명, 일선 부녀회 사업 점검

○ 직장 회원 · 단체 순회지도 : 직장 회원사 52개사

○ 직장지도자 산업시찰 : 42명, 대전 엑스포전시장, 광양제철 등

○ 직장여직원회 사례발표회 : 한국통신안산전화국, 과천시청

○ 직장새마을 실무자 교육 : 도청회의실, 80명

○ 92년 조직평가대회 : 지역 · 부녀회 1월, 우수조직표창, 사례발표, 사업 실적 보고

○ 각종 회의 개최 : 총회, 운영위원회의, 월례회의 등 45회

1992년도

1) 건강한 사회 가꾸기

○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 : 캠페인 322회, 16천명, 국기 36천매 보급, 계도방송 730회
○ 무궁화 심기 : 210곳 15천 그루
○ 설 · 추석맞이 새마을운동 : 검소한 명절 보내기, 환경정비, 불우이웃돕기
○ 수험생 수송 및 민박지원 : 민박지원 41가구 87명, 입시생 긴급수송 239명, 교통봉사 281곳, 2,400명
○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 214개 교통 혼잡지역, 13천명 참여
○ 방범봉사 활동 : 청소년 계도, 우범지역 순찰, 경찰신고 120건
○ 취미생활교실 운영 : 234곳 13천명 꽃꽂이, 홈패션, 노래 부르기, 조화 등
○ 식생활 개선 교육 : 87회, 4,984명, 일회용 그릇 안 쓰기, 반찬 줄이기 등
○ 대학알뜰마당 운영 : 5회 판매액, 2,194천원(전액 장학금지원)
○ 자원절약 토론회 : 문예회관 657명, 단막극, 특강, 캠페인 등
○ 고부나들이 : 8회 350명, 효도관광 고부간 대화의 장 마련
○ 땀 흘려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 : '30분 일 더하기', '도박근절' 캠페인 610회 41천명

2) 내 고장 활력화 사업

○ 지역특색사업 지원 : 운용자금 22,064천원, 지원금액 20,800천원
  – 시흥시 양봉 사업 1,000천원 / 강화군 영지버섯 재배 5,000천원
  – 옹진군 미꾸라지 양식 800천원 / 의정부시 젖소 사육 3,000천원
  – 양주군 미꾸라지 양식 3,000천원 / 이천군 영지버섯 재배 3,000천원
  – 군포시 느타리버섯 재배 5,000천원
○ 특색사업장 순회지도 : 사업 추진 상황, 제반증빙자료 점검, 작업일지 작성 등
○ 우리농산물 직거래

– 성남시 태평2동 – 괴산군 덕산면 : 마늘
– 광명시 – 정선읍 : 감자
– 안양시 – 괴산군 감물면 : 감자
– 동두천시 – 완도군 : 미역

○ 농촌일손 돕기 : 추수철 과일수확, 고추따기, 벼베기 등 2,400명 지원
○ 한일국제교류대회 : 일본 오이타현 35명, '일본 1촌1품운동'사례 견학

3) 환경보전 운동

○ 우리고장 소하천 되살리기 :
– 관리 소하천 수 경안천 외 1,016개 (1,310㎞)
– 참여인원 : 새마을지도자, 주민, 공무원 등 14천명
– 책임구역 표시판 : 2,880개 설치
– 장비 : 장화 4,500켤레 갈고리 1,950개 마대 2,800개 비닐봉투 3천개 등
○ 한강유역 보전 활동 : 남양주(북한강 능내리), 가평군(청평호), 여주군(남한강 지역), 광주군(경안천) 7,428명 참여 오물 41톤 수거, 행정선 등 협조
○ 새마을대청소 실시 : 시군별 매월 1, 15일, 2,170,602명 도로변, 하천, 유원지 등
○ 폐품수집운동 : 3~10월 시군지회별 실시, 2,067톤 수거
○ 헌 종이 수집 경연대회 : 부녀회 주관 9~10월 5,162톤 (환가액 311백 만원)
○ 폐식용유 이용 비누제조 : 제조법 순회교육, 알뜰마당 판매 75천개
○ 방역봉사 활동 : 1,360개소, 6,024명 참여 활용장비 차량, 연막기 분무기 등
○ 불량벽보 제거 : 1,641회, 257천명 참여
○ 가로 화단 · 꽃길 가꾸기 : 622개소, 42㎞

4) 인보협동 사업

○ 소년 · 소녀가장 돕기 : 233회, 2,245명, 1일부모역, 장학금, 생필품 및 학용품 지원
○ 불우시설 위문 : 134시설, 12,349명, 위문 위문품 전달, 말벗 되어주기
○ 경노잔치 개최 : 121회, 17,848노인 접대
○ 군경 및 교도소 위문 : 162회, 2,800명 참여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 24회, 143쌍 결혼식 및 신혼여행경비, 선물지급
○ LA폭동 교포 돕기 성금기탁 : 한국일보사 180만원
○ 공사상 및 재해지도자 위문 : 사망 2명, 가옥전소 2명

5) 추진역량 강화

○ 간담회 및 순회지도
– 도지사 초청 간담회 : 도회장단 등 6명 지도자사기진작,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적극 참여
– 전직 도 협의회장 초청 간담회 : 크리스탈 뷔페, 도지사, 지부회장 등 50명
– 권역별 지역 순회간담회 : 평택군 등 6개 권역 사업현장 견학, 조직관리 등
○ 각종회의 개최 : 총회, 운영위원회의, 월례회의 시군회장단회의 등 46회
○ 시군구지역회장 수첩 제작 : 60부, 43개 지도자협의회장 인적사항 기재
○ 부녀회 선진지 견학 : 40명 부곡 및 직지사

1991년도

1) 건강한 사회 가꾸기

○ 도덕성 회복 실천 결의대회 : 36회, 15,570명
○ 가정새마을운동 전개 : 37회, 25,800명, 노인공경, 가족화합, 이웃 우의 등
○ 땀 흘려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 : '30분 일 더하기', '도박근절' 캠페인

83회, 11,148명, 홍보전단 15종,
66천부 배포

○ 경노효도 잔치 개최 : 307회, 43,349노인 대접
○ 교통 · 거리 질서계도 : 909개소, 149천명 참여
○ 방범봉사 활동 : 청소년 계도, 우범지역 순찰, 여성귀가 도움 등
○ 취미생활교실 운영 : 28곳, 1천명 꽃꽂이, 홈패션, 벽걸이 장식 등
○ 식생활 개선 교육 : 6개 시군부녀회, 1,300명, 일회용 그릇 안 쓰기, 건강식단 꾸미기 등
○ 과소비추방 캠페인 : 108회, 25천명, 근검절약, 외국여행 자제, 저축운동
○ 새마을알뜰마당 운영 : 133회, 판매 · 교환량 15,260점, 182천명 이용
○ 에너지 절약 운동 : 캠페인 98회, 27천명, 홍보전단 91천매 배포
○ 고부나들이 : 160명, 효도관광 고부간 대화의 장 마련
○ 사회지도층 여성교육 : 중앙연수원 59명(고위공직자 부인, 지도층여성 등)

2) 내 고장 활력화 사업

○ 지역특색사업 지원 : 운용자금 22,059천원, 지원금액 18,800천원
  – 가평군 영지버섯 재배 3,000천원 / 시흥시 양봉 사업 1,000천원
  – 강화군 영지버섯 재배 5,000천원 / 옹진군 미꾸라지 양식 800천원
  – 의정부시 젖소 사육 3,000천원 / 양주군 미꾸라지 양식 3,000천원
  – 이천군 영지버섯 재배 3,000천원
○ 10대 덕목 실천 및 1마을 1특화 사업
  – 1마을 1특화 사업 : 안성군 하개정 마을 원예작물(토마토, 오이, 참외) 재배, 지원금 100만원
  – 10대 덕목 시범마을 : 안산시 원곡동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10대 덕목 게시판 36곳 설치
○ 내 고장 농산물 판매 : 중앙회 운동장, 강화 인삼, 영지버섯, 안성 포도, 여주 쌀
○ 우리 것 먹고, 입고, 쓰기 운동 : 편지쓰기 2회, 400명, 캠페인 36회

800명

○ 농촌일손 돕기 : 모내기 73농가, 879명 지원, 벼 베기 46농가, 1,017명 지원

○ 내 고장 공동 시설물 관리 · 보수 :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1,692개소 21천명 참여

3) 환경보전 운동

○ 새마을대청소 : 읍면동별 매월 1, 15일, 277천명 도로변, 하천, 유원지 등

○ 생활하수 · 오염물질 처리 교육 : 108회, 38천명, 합성세제 덜 쓰기, 폐식용유 처리법

○ 폐품수집운동 : 3~11월 1,184톤 수거

○ 폐식용유 이용 비누 제조 교육 : 도 · 시군 · 읍면동 · 리통 단계별 교육 118천명

○ 방역봉사 활동 : 3,409개소, 18천명 참여, 차량133대, 연막기 467대, 분무기 878대

○ 불량벽보 제거 : 924회, 46천명 참여

○ 가로 화단 · 꽃길 가꾸기 : 332개소, 23,854㎡, 59천 그루 식수

○ 관광 · 유적지 정화 활동 : 72회, 5,700명 참여

4) 인보협동 사업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 25회, 180쌍 결혼식 및 신혼여행경비, 선물지급

○ 소년 · 소녀가장 돕기 : 233회, 2,245명, 1일 부모역, 장학금, 생필품 및 학용품지원

○ 시설수용자 돕기 : 283회, 71백만 원 상당 위문품 전달

○ 군경장병 위문 : 407개소, 73백만 원 상당 성품 전달

○ 수재지역 돕기 : 경북 150만원, 부산 100만원, 경남 150만원 전달

5) 추진역량 강화

○ 간담회 및 순회지도
○ 각종회의 개최 : 총회, 운영위원회의, 월례회의 시군회장단회의 등 46회
○ 시군구지역회장 수첩 제작 : 60부, 43개 지도자협의회장 인적사항 기재
○ 부녀회 선진지 견학 : 40명, 부곡 및 직지사
○ 각 단체 평가회 : 12월 말, 조직 · 사업 · 재정 평가, 우수 시군 시상

1990년도

1) 새마을교육

○ 중앙연수원 교육 : 지역 699명, 부녀 755명, 문고 327명, 직장 137 등 1,918명
○ 기술교육
  – 하남시 화훼교육 : 80명
  – 평택군 지도자 영농기술교육 : 200명
  – 파주군 지도자 및 부녀회원 공간원예 교육 : 60명

2) 살기좋은 고장 가꾸기

○ 1마을 1특화 사업 : 62개 마을
○ 10대 덕목 마을 선정 : 521개 마을
○ 소득증대 지역 특색사업 추진
  – 의정부시 토란 및 채소 재배 : 2,000천원 지원
  – 강화군 영지버섯 재배 : 5,000천원 지원
  – 옹진군 미꾸라지 양식 : 800천원 지원
○ 새마을 가꾸기 사업추진 : 마을안길, 농로보수, 마을회관 창고 등 공동시설물 정비
○ 방범봉사대 운영 : 928개대, 11,749명, 강 · 절도 예방활동, 청소년선도, 순찰 등

○ 거리질서 계도 : 1,128회, 29천명 참여, 차선,
정지선 주 · 정차 질서 지키기

3) 새마을운동 활력화

○ 새 질서 · 새 생활 운동 : 결의대회, 캠페인, 계도활동, 교육, 포스트 등
- 호화혼수 근절 추방 운동 / 근검 · 절약 저축운동
- 에너지 절약 운동 등
- 법질서 확립 : 기초질서, 교통질서, 거리질서, 행락질서 등

○ 부녀새마을운동 활성화 대회
- 도 및 시군 대회 27회, 8,500명 결의문, 교육, 캠페인 전개

○ 가정새마을운동 실천대회 : 도청회의실 572명 근검절약, 가족화목 등
○ 주부 취미교양 교실 : 18곳, 96회, 자기계발, 여가선용, 꽃꽂이, 홈패션 등
○ 식생활 개선교육 : 33회, 3,209명, 건강식단, 음식쓰레기 감소 등
○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 5~11월, 306회, 527천점 취급 판매액 232백만원

4) 환경보전 운동

○ 폐품수집운동 : 폐지, 고철, 폐비닐, 빈병, 폐플라스틱 등 1,482톤
○ 방역봉사대 운영 : 484개대, 5,783명, 고양군 등 수해지역 중점 방역
○ 새마을대청소 : 336회, 177천명 참여
○ 불량벽보 제거 : 478회, 25천명 참여
○ 가로화단 정리 및 꽃길조성 : 3,635개소, 1,327㎞, 16천명 참여
○ 관광지, 유적지 정화 및 공중화장실 청소 : 416개소, 16,915명 참여
○ 자연보호 캠페인 : 437회, 13천명

5) 인보협동 사업

○ 소년 · 소녀가장 돕기 : 136회, 680명, 연탄, 쌀, 라면 전달 23백만원 상당
○ 무의탁노인 돕기 : 216회, 6,157명, 생필품 합동회갑 잔치 36백만원 상당
○ 사회복지시설 위문 : 111곳 19백만원 상당 물품 전달

○ 군 · 경, 교도소 위문 : 186회, 32백만원 상당 위문품 전달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 10회, 200명 결혼식 진행 및 결혼 선물 전달
○ 공사상 지도자 위문 격려 : 2명

6) 민주도 추진 역량 제고
○ 부녀회 조직 정비 : 도 1, 시군구 42(수원, 성남, 부천 각 2개 비자치구 포함) 읍면동 406, 리 · 통 9116개 조직
○ 지도자협의회 시군 순회 업무지도 : 36개 시군 지도자협의회
○ 부녀회 시군 순회 업무지도 : 28개 시군 부녀회
○ 각 조직 회의 개최 :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월례회의 등 48회
○ 각 단체별 평가 대회 : 12월 말 조직운영, 사업관리, 재정 확보 등

1989년도

1) 가정새마을운동 실천 결의대회 : 500명, 모범가정 36가정 표창

2) 취미교양교육 : 63회, 1,600명, 자기계발, 꽃꽂이, 서예, 지점토 공예 등

3) 새마을교육 : 읍면동 부녀회장 355명, 성남연수원

4) 식생활개선교육 : 31개시군, 2,642명, 건강식단 구성, 반찬량 조정 등

5) 가족계획사업 : 227회, 41천명, 인구실태와 적정 자녀수, 산아 제한

6) 환경미화 사업

○ 자연보호 캠페인 : 72회, 5천명
○ 꽃길조성 : 주요간선 도로변 꽃 박스 비치, 500개
○ 새마을대청소 : 전국체전 대비 청소 및 불량광고물 제거, 518천명 참여
○ 꽃씨 채취 : 각동별 코스모스 재배지 80㎏ 채취

7) 건전소비생활 실천운동

○ 결의대회 : 수원시청 회의실, 600명, 참여 과소비 추방, 저축운동 전개
○ 캠페인 실시 : 32회, 21천명 참여
○ 홍보활동 : 아치 1식, 현수막 420매, 어깨띠, 전단, 포스터, 리본 등
유선방송 788회, 지역 언론 14회, 반상회보 활용 881천매

8) 퇴폐 향락업소 출입 안하기 캠페인: 72회, 19천명 참여

9) 폐품수집 경진대회

○ 기간 및 장소 : 10. 1.~12. 5.(65일간), 각 읍면동별 주관
○ 대상 : 폐지, 고철, 빈병, 폐비닐
○ 실적 : 폐지 385톤, 고철 192톤, 빈병 53톤, 폐비닐 1,258톤,
기타 866톤, 계 2,754톤

10) 인보협동운동

○ 소년소녀 가장 돕기 : 316명, 밑반찬, 학용품, 생필품 등의 지원
○ 무의탁 노인 돕기 : 36명, 말벗, 심부름, 생필품 지원
○ 불우시설 방문 : 72곳, 생필품 및 겨울내의 전달
○ 군경위문 : 52회, 음료수 떡 과일 라면 등 전달
○ 경로잔치 및 합동 회갑연 : 85회, 18천명 음식대접, 내의, 선물 전달
○ 수재민 돕기 : 전남, 광주지역 의연금, 1,080천원

11) 농촌일손 돕기 : 벼 베기 36회, 1,800명 참여

12) 전국체전 봉사 활동 : 대청소실시, 열무김치 국수 봉사, 4,150명 활동

13) 새마을복지상담소 운영 : 23건 상담, 지도자 민원 해결, 조직 이해

14) 농어촌청년 결혼 사업 : 신청 166명, 맞선 18쌍 성혼 1쌍

15) 각종회의 개최 : 총회 1, 정례회의 2, 이사회 1

16) 시군 순회지도 : 29개 부녀회

17) 1989부녀새마을운동 평가회 : 도청1회의실 255명, 우수부녀회 표창

18) 시군 사업비 지원 : 36개시군, 12,616천원(취미 교양교육, 폐품수집 건전생활 실천)

1988년도

1) 올림픽 대비 새마을운동

○ 환경미화 사업

- 청결 활동 캠페인 : 157회, 5,361명
- 방역 봉사 활동 : 107회, 11,450명
- 공중화장실 청소 : 566회, 25,780명
- 새마을대청소 : 486회, 257천명

– 육교청소 : 126회, 4,285명
– 간판정비 및 세척 : 147회, 5,861명
– 불량벽보 제거 : 396회, 11,250명
– 꽃길 및 가로 화단 정리 : 312회, 196㎞, 36,728명 참여
– 동네 소공원 조성 : 47개소, 5,326명 참여
– 건물 옥상 녹화 : 21개소
– 성화봉송로 꽃길조성 : 81㎞, 3,100명 참여
– 도로변 화분정리 : 176개소, 476회
– 관광지 주변 정화 작업 : 25곳, 2,852명

○ 시민의식 개혁 사업
– 질서캠페인 : 194회, 13천명 참여
– 보행자 질서계도 : 473회, 19,710명
– 교통정리 : 254회, 9,136명
– 친절캠페인 : 326회, 23천명

○ 올림픽새마을봉사대 발대식 : 도청 제2회의실, 380명
○ 올림픽경기장 자원봉사 활동 : 연인원 3,290명 봉사

2) 식생활 개선 및 가족계획 교육 : 43회, 3,892명

3) 부녀 취미 교양 교육 : 123회, 10,410명, 꽃꽂이, 지점토, 등공예 등

4) 인보협동 사업
○ 불우시설 위문 : 13회, 위문품(5,480천원 상당) 전달
○ 경노잔치 : 103회, 13,303명 노인
○ 소년소녀가장 돕기 : 4회, 2,520천원 상당 학용품, 생필품 지원
○ 합동결혼식 : 도내 영세동거부부 38회, 180쌍 결혼
○ 심장병 어린이 돕기 : 26명, 치료비 30,712천원 지원
○ 불우 새마을지도자 돕기 : 42명, 격려금품 전달 및 농사일 돕기

5) 시군 순회지도 : 31개 부녀회, 62회 올림픽새마을운동 추진상황 점검

6) 가정새마을운동실천 결의 대회 : 도청2회의실, 476명, 학교새마을 어머니회회장

7) 시군부녀회 조직 평가 : 도청1회의실, 480명, 우수부녀회 표창, 사례발표

8) 부녀회장 신상 카드 정리 : 리통 회장 이상 8,968명(대상 9천명)

9) 조직운영 회의 : 총회 등 6회

1987년도

1) 올림픽 대비 환경 미화 활동

- ㅇ 대청소 : 620회, 4,620명
- ㅇ 꽃길조성 : 496회, 843㎞
- ㅇ 꽃동산 조성 관리 : 178개소, 273회
- ㅇ 꽃 박스 설치 : 128회, 5,272개
- ㅇ 경기장 주변 정화 : 78회, 2,782명
- ㅇ 불량벽보 제거 : 217회, 3,237건
- ㅇ 하천 청소 : 107개소, 328회
- ㅇ 한강 오물 수거 : 18회, 423명
- ㅇ 공중전화박스 세척 : 576개소
- ㅇ 방역사업 : 248회
- ㅇ 간판정비 : 118건
- ㅇ 새마을시설물 정비 : 102곳, 1,078명

2) 가정새마을실천 결의대회 : 도청1회의실, 453명, 근검절약 교육, 결의문

3) 새마을향토 야시장 참여 : 31시군, 453명 참여

4) 요리품평회 개최 : 도청2회의실, 251명, 요리전시 82점 출품

5) 식생활개선 및 가족계획교육 : 43회, 5,462명 조리 강습, 가족계획 교육

6) 부녀취미교양 교육 : 31회, 2,480명, 꽃꽂이, 지점토, 등공예, 기초영어

7) 시군 순회지도 : 31시군 부녀회 올림픽 대비 새마을운동 추진상황 점검

8) 경기 지도층 여성교육 : 본부 연수원 27명, 지역단위 후원활동 상호 비교

9) 자원지도자 및 관리자 교육 : 6. 26~27. 농촌영양개선연수원, 26명

10) 본부 방문 교육 : 5회, 219명, 국산품전시장 견학, 1987 새마을운동 방향

11) 해외취업자 가족 새마을교육 : 수원시청회의실, 397명 근검절약과 자녀교육, 서울올림픽과 새마을운동

12) 건전생활실천사례 발표회 : 도청1회의실, 201명, 경노효친 사례3, 청소년선도 사례 3, 근검저축 사례 3

13) 인보운동 전개

○ 심장병 어린이 돕기 : 35명, 28,500천원 지원
○ 새마을합동결혼식 : 31회, 348쌍 도내 영세 동거부부
○ 불우시설 위문 : 61개소, 생필품(2,370천원 상당) 지원
○ 경노잔치 : 31회, 기념품, 중식, 다과(4,235천원 상당)
○ 군경위문 : 352회, 성금 및 성품 전달(15,325천원 상당)
○ 수재민 돕기 : 86회, 25천명 노력 봉사
  - 의연금 : 22,333천원
  - 물　품 : 간장 774L 된장 18,640L, 고추장 12,024L, 마늘 20접, 가스통 14개, 감자265㎏, 가방 40개, 식기류 1,263점, 쌀 3,976㎏, 소금480㎏, 신발 117켤레, 부르스타 200개, 고춧가루 2되, 세탁비누 171상자, 이불 271채, 모기향 206갑

14) 가족계획 사업 : 교육 601회, 95천명, 캠페인 49회 18천명, 대회 52회, 20천명, 불임시술 19,432명, 피임약 배부(루프 등 111,621명)

15) 특수업태 종사자 가족계획 교육 : 파주, 동두천, 의정부, 평택, 송탄 1,778명

16) 산업시찰 : 39명, 성류굴, 백암온천, 온양박물관

17) 지역순회 간담회 : 31개 부녀회 올림픽새마을운동 추진 실태 점검

18) 시군 평가대회 : 도청1회의실, 453명 우수부녀회 시상, 사례 발표, 사진전시

19) 각종 회의 개최 : 총회, 월례회의, 직원회의 등 10회

20) 도 부녀회장 이 · 취임식 : 9. 24 도청1회의실 이임 최송옥, 취임 김순자

1986년도

1) 식생활개선사업 : 31개시군, 59회, 4,130명

2) 해외취업자가족 새마을교육 : 도청1회의실, 399명 새마을교육, 국산품애용 및 근검저축운동

3) 지도층여성 보수 교육 : 3차, 145명 본부연수원

4) 요식업자 종업원교육 : 2회, 도청2회의실, 446명, 86아시안 게임 손님맞이 교육

5) 가정새마을운동실천 결의대회 : 도청 제1회의실, 400명, 부녀회장, 지도층여성, 학교새마을어머니회장, 모범가정시상(장한어머니상, 효부상, 저축모범가정상), 근검절약교육

6) 주부백일장 개최 : 팔달공원 서장대, 210명 소비절약, 국산품애용, 저축

7) 지도자 산업 시찰 : 아세아자동차 등 38명

8) 부녀지도자 해외 연수 : 자유중국 및 일본 10명

9) 86 아시안게임 봉사활동 : 229명 급수봉사, 미아보호,
거리질서 계도 등

10) 전국체전 봉사활동 : 조정카누경기장 60명, 급수봉사, 선수식당
봉사

11) 환경미화 및 전국토공원화 운동
: 44회, 5,689명, 대청소, 꽃길, 꽃동산 조성, 가로변 화분 설치,
등산로 정화 활동 등

12) 새마을합동결혼식 : 6회, 123쌍, 영세 동거부부, 결혼식 진행,
신혼선물 전달 등

13)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 : 8회, 1,826명, 어버이날 관내
노인 접대, 기념품 전달

14) 농번기 유아원 경영 : 옹진군 운북 2리 및 무의 2리, 유아 25명

15) 심장병어린이 돕기 : 7회, 12,160천원 1일 찻집,
쌀 · 성금 모금, 구판장 운영

16) 아동 명찰 달아주기 : 미아방지를 위한 명찰 7,000명

17) 이웃돕기 : 보훈가족,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 요양원,

농아원, 군경 등에 대하여 학용품, 생필품,
김장 등을 지원

18) 겨울 야생조류 먹이주기 : 남한산성 유원지 쌀, 보리, 콩 등 50㎏

19) 새마을주부대학 운영 : 부천 등 7곳, 1,874명, 취미교실,
교양교육, 식생활 개선 등

20) 시군 평가대회 : 도청 1회의실, 438명, 사업실적 평가

1985년도

1) 농어촌 청년 짝 지워주기 : 55(남)명 신청, 구혼안내서 1천매,
반상회보 게재, 맞선 13쌍

2) 식생활 개선 사업 : 시군별 95회, 9,319명, 이론 및 조리 실습

3) 해외 취업자 가족 새마을교육 : 도 및 동두천, 8회, 1,985명,
가정 관리, 자녀교육

4) 요식업종사자 1일 교육 : 도청 1회의실, 392명, 경제교육,
친절교육

5) 환경미화 운동

○ 새마을대청소 : 119회, 286천명, 공한지, 골목길, 가로변 정비 및 불량
벽보 제거

○ 꽃길 가꾸기 : 10,272명 꽃길 · 꽃동산조성, 아파트 베란다 화분 내어놓기

○ 자연보호 캠페인 : 56회, 4,211명 참여, 등산로, 유적지 등 오물수거

6) 가정새마을운동 실천 결의대회 : 유신고교강당 443명,
새마을교육, 결의문

7) 농촌 일손 돕기 : 123회, 11천명, 보리밟기, 모내기,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 등

8) 이웃돕기

○ 심장병 어린이 돕기 : 성남 등 3곳, 24백만 원, 11명 수술비 지원 및
성금기탁

○ 영세이웃돕기 : 영세가구, 불우노인 등 177명, 쌀, 밀가루, 의류 기타
생필품

○ 불우시설 위문 : 23개 시설, 성금품 540만원 상당

○ 장학금 지원 : 관내 불우학생 17명, 316만원 지원

○ 근로청소년 위안회 : 여주군 근로청소년 170명, 위안행사 및 위문품 전달

○ 군경부대 위문 : 29시군, 36회, 778명, 12백만 원, 상당 위문품 전달

○ 경로잔치 : 시군 및 읍면동 주관, 310회, 14천명 경로 및 합동회갑연 잔치

9) 새마을합동 결혼식 : 도 및 19개시군, 352쌍 결혼식, 결혼사진,
결혼선물 및 관광

10) 가족계획사업 : 가족계획협회와 공동 추진, 131회, 3,620명,
피임시술계몽, 가족계획캠페인, 예비군 대상 홍보

11) 국산품애용 운동 : 도 및 시군 교육 127회, 30,325명 및
캠페인 17회 1,106명

12) 소비절약 · 저축운동생활화

○ 저축운동 : 1가족 1통장 운동, 절미저축 1,972가마, 절약캠페인 14회,

1,325명

○ 중고품 교환시장 : 11개시군, 교환 2,464건, 판매 895건, 527천원

○ 폐품수집 : 고철 124톤, 공병 21톤, 폐휴지 35톤

13) 성공사례 발표회 : 도청 2회의실, 250명, 지역2, 부녀2, 직능1, 학교새마을1

14) 조직관리

○ 순회지도 : 29개시군, 325개 읍면동

○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 대회 : 27개시군, 5,868명 참여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 새마을장학회 114명, 행정기관 657명

○ 조직점검 : 회장 교체 상황, 지도자 증감 상황, 지도자카드 정리

○ 각종회의 개최 : 총회, 간담회, 월례회의, 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등 42회

1984년도

1) 새마을합동결혼식 : 도 및 시군 6회 82쌍 결혼식, 신혼관광, 결혼선물 전달

2) 1984 부녀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 도청 1회의실, 400명, 가정경제와 인구 억제, 새마을운동성공사례발표, 결의문 채택

3) 사회지도층 부인 새마을교육 : 40명, 본부 제2연수관, 3박4일

4) 모범가정 시상 : 여성회관 152명 참석, 장한 어머니, 효부, 모범가정상 시상

5) 식생활개선 및 인구 억제 교육 : 수원상공회의소, 300명 식단 교육 및 시연, 산아제한 교육

6)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발표회 : 도청 1회의실, 261명, 15개 사례 각 단체별

7) 학교새마을어머니회 중앙본부 방문 : 17개교, 1,006명

8) 자연보호 경진대회 : 남한산성 유원지 4회, 1,580명, 오물수거 18톤

9) 경로잔치 · 합동회갑연 및 효도관광
: 영세노인 및 무의탁 노인, 68회 8,349명

10) 이웃돕기 : 7개시군, 심장병어린이, 고아원, 영세가구, 청소원 등 생필품, 학자금, 치료비 등의 지원

11) 새마을부녀대학 운영 : 10개시군, 24회, 3,617명, 취미교양강좌, 경제 및 가족계획

12) 수재민 돕기 : 김포국교 수재민 수용소 급식봉사 활동

13) 향토음식경진 및 알뜰시장 운영 : 7개시군, 향토음식 솜씨 시연 등

14) 조직 관리

○ 시군회장단 선진지 견학 : 우수새마을 지역 및 인근 유적지 45명

○ 해외연수 : 우수시군 회장단 12명, 자유중국

○ 각종회의 개최 : 총회, 운영위원회, 회장단 회의 등 45회

1983년도

1) 새마을합동 결혼식 : 영세동거부부대상 14회, 236쌍, 결혼식, 결혼선물, 관광 제공

2) 향토음식 판매 및 알뜰시장 운영 : 10회, 2173명, 향토음식 및 중고물품 교환 판매

3) 불우이웃돕기 : 아동시설, 근로청소년, 청소원, 영세가구 등 500명 대상연탄, 생필품, 방한복 등의 지원

4) 새마을주부대학 운영 : 7개소, 1,347명, 교양교실, 취미교실, 자녀교육 등 10주 과정

5) 환경개선 사업 : 꽃동산(성남), 가로변 풀베기(의정부), 무궁화 식재(광명), 육림사업(동두천 잣 5천 그루), 꽃길조성(이천 80개 마을), 꽃 박스 설치(양평) 등

6) 농촌돕기 : 일손 돕기 4회, 173명, 농산물 팔아주기 무말랭이, 산나물, 호박 등

7) 가정경제 및 인구 억제교육 : 4회, 1,105명, 근검절약 및 저축, 피임도구 사용 교육

8) 합동 회갑연 및 경로잔치 : 시군 또는 읍면동 단위 74회, 9,018명 노인

9) KAL기 폭파 소련만행 규탄대회 : 강화 공설운동장, 450명

10) 시군부녀회장 및 부녀아동계장 연석회의
: 여성회관 63명, 야시장 관련사업, 지도자증 발급

11) 식생활개선 교관요원 교육
: 28명, 본부연수원, 식생활개선 민간홍보요원 양성

12) 낙도어린이 초청 : 화성군 서신면 제부분교 34명 서울 견학, 운동구 전달

13) 여대생 하계 농촌봉사 : 35명, 용유면 남북2리 등 7개 마을, 유아 돌봄, 일손지원

14) 지도층여성 새마을교육 : 2회, 36명 본부연수원

15) 식생활개선 조리실습 교육 : 도 및 시군 8회, 760명

16) 우수새마을지도자 간담회 : 선경그룹 실내체육관 153명

17) 외국 손님맞이 새마을교육 : IPU 및 ASTA 대비 친절 · 청결 교육 2회, 784명

18) 각종회의 개최 : 총회, 운영위원회, 순회지도, 회장단 회의 등 37회

17.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주요 치사 모음

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치사(1973년)

전국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독농가, 독림가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일선 교육자, 관계공무원 농촌 유관기관 직원 여러분! 우리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의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 바람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한지 3년 남짓한 동안에 우리 농촌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놀라울 만큼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5월 18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 소득증대 촉진대회'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그 원인과 동기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운동의 목적이 무엇이며, 근본취지가 무엇인가, 앞으로 이 운동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강령이 무엇이란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 운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하겠다는 방향지침도 아울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농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 일선 공무원들은 또한 무엇을 해야 하고,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우리 국민들 즉 농민들이 아닌 비 농민들 또한 이 운동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말한바 있습니다. 오늘 제3차년도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또한 내년도 사업검토를 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새마을운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여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 아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새겨 보고, 생각해 보고 옛날 배운 책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이냐? 나는 작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쉽게 말하여 "잘살기 운동이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 '잘 살기'라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자주심이 강하고 서로 협동을 하여 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 가면서 나도 잘 살고 우리 이웃도 잘살고 우리 고장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참되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강조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 줄 수 있는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참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다시는 가난이라는 유산을 절대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작년에도 강조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온 국민에게 나는 재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의 백성, 못사는 나라의 국민, 못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또는 해방 직후 그리고 6.25 전쟁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외국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렇게 물을 때 자주정신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한국 사람이요."라고 대답하는 것을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여 말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 동양 사람이요." "동양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중국 사람이요? 일본사람이요?" "아니요" "그럼 어디요?" "한국이요" "한국이 어디에 있더라?" 또는 아는 사람들은 "아, 한국 전쟁 때 그 피난민들이 몰려다니던 그 한국말이요?" 과거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 나가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요"하고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디에 나가서도 조금도 구김살 없이 가슴을 활짝 펴고 떳떳하게 대한민국 사람이란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디에 나가서도 조금도 구김살 없이 가슴을 활짝 펴고 떳떳하게

대한민국 사람이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물려주자, 이것이 우리가 노리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참되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면, 또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즉 근면입니다.

옛말에 '일근(日勤)은 선지장(善之長) 이요. 일태(一兌)는 악지장(惡之長)'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문입니다만, '일근'은 한 일자 부지런할 근자, 한번 부지런한 것은 선지, 착한 것의 으뜸가는 것이다, 부지런한 것이 모든 선의 으뜸가는 것이다. '일태(一兌)는 악지장(惡之長)'이라, 한 일자 게으를 태자, 게으르다는 것은 나쁜 것 중에서 더 가장 으뜸가는 것이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우리 고장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부지런해야 하겠다. 근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면하지 못한 사람이 백 마디 말을 해 보았자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조정신이 강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협동을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협동심이 강해야 하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행동강령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조국근대화를 위한 일대약진운동이요, 동시 범국민적인 정신혁명 운동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반드시 행동과 실천이 뒤 따라야 합니다. 이론이나 말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하나의 행동철학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반드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둡니다. 소득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은 처음에는 모두 열을 올려서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의가 식어 버리고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계속 불길이 타오르고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나 직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이제 전국 도처에서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어촌에서도 직장에서도 공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이 운동의 불길은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이 붙지 않는 곳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그 취

지는 알지만 여기에 참여 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거센 불길은 이를 방관하거나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러한 구석구석까지도 머지않아서 반드시 불어 닥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타고 있는 불길이 워낙 거세고 불이 뜨거우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까지도 반드시 불이 번지게 마련입니다.

이미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농촌의 34,600여개 부락을 우리는 편의상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빨리 이 34,600여개의 부락을 자립마을로 끌어 올리자는데 1단계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1973년도 새마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본 결과 현 단계로서 자립마을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락은 전체 부락의 10%가 약간 미달한 숫자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 자립마을이 아직까지도 숫자가 적다고 하여 조금도 실망을 하거나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 그대로 꾸준히 계속 되면 해마다 이런 자립마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부락이 도처에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락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수백 개 수천 개 마을이 계속 자립마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절대로 그 성과를 너무 조급하게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가난이라는 것은 5천 년래의 가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1, 2년 또는 2, 3년 동안에 완전히 때를 벗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운동에 대해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립마을이 되는 것은 정부의 도움만 가지고는 결코 안 되며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다시금 강조합니다. 잘 살아 보겠다는 의욕, 다시 말하여 우리도 빨리 자립부락이 되어야 하겠다는 의욕과 노력이 왕성할 때에 이 부락은 빨리 부자마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이러한 부락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무거운 짐을 싣고 손수레를 끌고 고개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앞에서 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힘으로 고개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미는 사람들은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고 도와주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락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끌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없고 남이 뒤에서 밀어주거나 앞에서 끌어주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아무리 밀어 주더라도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느 부락이 지금 올라가려고 분발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러한 부락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이라고 하여 1등 마을, 3등 마을이라는 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자립마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현재 자립마을이 된 부락이상으로 부락민들이 단결하고 협동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락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과거에 그 부락의 모든 여건이 워낙 불리했기 때문에 노력은 남 못지 않게 오히려 남보다 더 하지만은 아직 그 수준에까지 못간 부락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자립마을이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자립마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실망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립마을로 인정된 부락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게 되었으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느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자립마을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적어도 이 자립마을의 농가소득이 평균 약 140만 원 정도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1980년대 초 농가소득은 14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최우선적으로 정부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일반부락과 같이 지원을 하고, 그 부락은 자기들 힘으로 노력해서 나가며, 정부는 또 다른 부락을 도와나가는 방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이 전개된 지 3년여 동안에 우리 농촌에서나 어촌에서나 또는 도시

에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미담과 가화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모범적인 두 마을 지도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사례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로 두 마을을 선택한 것이고 그러한 마을이 전국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훌륭한 새마을 지도자 아래 온 부락민들이 일치단결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는 몸부림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의 모습,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이 뭉클한 미담, 가화 등 성공사례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들은 머지않아 반드시 부자 마을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한 성공한 부락, 또는 그 부락이 성공할 때까지 앞장서서 노력한 새마을지도자, 그 부락에 공이 많은 사람 등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업적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역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을 후세에 까지 남기기로 방법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1973년도 판 성공사례집' 두툼한 책이 한 권씩 배포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면 '1974년도 판', 다음에는 '1975년도 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우리 농촌 근대화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로서 편찬하여 후세에 남기려고 합니다. 후세에 우리 자손들이 이 책을 읽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처럼 훌륭한 마을을 만들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만큼 피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했구나 하는 그 사실을 우리 후손들이 알게 될 때 과연 그들은 어떠한 느낌을 가지겠는가? 조상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는 동시에 우리도 노력해야 하겠다고 분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민족의 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이 해온 일을 계승하고 받들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후손이 어떻게 조상들이 했던 뜻과 업적을 계승하고 받드느냐 거기에는 조상과 후손들 사이에 비록 시대는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여 정신적으로 명맥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보았을 때 조상들이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만큼 피 땀을 흘려가면서 노력했다. 우리 동리를 잘 사는 부자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전 부락이 '근면 · 자조 · 협동'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를 써서 우리 부락을 이처럼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후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

손들로 하여금 “우리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조상들의 뜻을 반드시 받들어야 하겠다.”라는 감명과 감동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얼인 것입니다. 조국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데 누가 여기에 참여했고 또한 어떤 일을 했는가, 내 마을 내 고장 위하여 어떤 공헌을 했는가 하는 업적을 기록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은 하나의 민족의 역사인 동시에 민족의 얼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가장 영광된 유산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문중에 족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씨, 이씨, 김씨 등 그 조상들이 과거에 어떠한 벼슬을 했고, 몇 대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족보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몇 대 조상이 이조판서를 했다. 호조참판을 했다. 어느 도의 관찰사를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 하나의 풍속입니다. 요즘 같으면 누가 장관을 했다. 국회의원을 했다. 감투를 썼다. 벼슬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장관을 하는 것도 좋고, 국회의원을 하는 것도 좋고, 벼슬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것만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장관도 아주 훌륭한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도 아주 멋있는 국회의원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한 분들은 충분히 그런 것을 남길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자랑된 유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 희랍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아테네의 시민들이 그들이 죽을 때 자손들을 불러 놓고 유언을 하기를 “후세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든 너는 서슴치 말고 우리의 조상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용사였다고 떳떳이 일러주라”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그 용사들이 자기가 죽으면서 후손들에 “누가 너를 보고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든 나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용사의 후손이다”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이가 들어 늙으면 죽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겨놓고 죽는 것이 가장 보람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후세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의 조상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알뜰하게 일한 바로 저 마을의 농민이었다고 대답하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선생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며 또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떳떳한 유언이겠습니까? 나는 새마을운동은 우리들 세대가 앞장서서 해야겠고 또 우리 후손들 대에 까지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마을운동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다." 나는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즉,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에 한국적인 참다운 민주주의를 뿌리박기 위한 하나의 실천 도장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부락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락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부락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부락 지도자를 전체 의사에 따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락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좋은 의견을 들어 종합을 하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 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그 부락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남녀노소 전부가 참여하여 서로 협동하고 땀 흘려 이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성과, 여기에서 얻어진 소득은 부락민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고, 또 부락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일부 소득을 부락 공동기금으로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 저축한 것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또 다시 부락 사람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부락 공동이익 사업을 결의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러 과정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며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하면 과거의 선거를 연상합니다. 막걸리, 고무신 가지고 표 얻고 하는 그것만을 연상합니다. 그것은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건전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라는 것은 새마을운동

과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새마을운동과 같이 절차적인 훈련과 실천을 통해 하나하나 뿌리를 박아 나갈 때 비로서 정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도 그 실천 과정에 있어서는 근면과 자조와 협동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여된 민주주의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앉아서 놀고, 먹고,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전부 정부에 의지하면 된다는 의존심만 양성하고 여야, 아랫동네, 윗동네, 이 마을, 저 마을이 전부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욕하는 걸로 착각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민주주의가 오래가면 그 사회는 멸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새마을운동은 "참다운 애국심을 기르기 위한 실천 도장이다."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어 보자는 이 애향심은 곧 애국심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데 보람을 느낄 줄 알고, 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데에 참다운 삶의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나라가 잘 살아야만 나도 잘 살 수 있는 것이며, 나라가 잘 살자면 나 자신부터 근면하고 자립하고 협동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관념만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왕왕 말과 입만 가지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애국이란 것도 그 실천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면 · 자조 · 협동을 통해 땀과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영그러진 그 열매가 바로 참다운 애국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새마을운동은 "10월 유신을 실천하는 생활철학이요, 또 그 실천도장이다."라고 나는 강조 하고자 합니다. 나는 금년 봄 연두 기자회견 때 '10월 유신'의 목적과 기본이념은 우리가 서로 서로 도와서 땀 흘려 일하고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데 있으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풀이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0월 유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비능률과 비생

산적 요소를 과감히 시정하고 근면하고, 자조하고, 협동하고, 단결하여 국력 배양과 국력의 조직화에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곧 10월 유신이요, 10월 유신은 곧 새마을운동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도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새마을운동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실천도장이요, 참다운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도장인 동시에 10월 유신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도장이다."라고 나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신 전국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독농가, 독림가, 관계공무원, 농촌 유관기관 여러분과 또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분발하고 성공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1973년 11월 22일
대통령 박 정 희

나.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치사(1978년)

친애하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농촌 도처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주택개량 사업으로 우리 농촌의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탈바꿈해 가고 있는 이때, 금년 추수를 모두 마치고 우리가 1년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한발과 수해가 있었고, 특히 병충해의 피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합쳐 이를 잘 극복해 냈습니다. 나는 그 동안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온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과 이 운동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준 각계 인사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유관기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눈물겨운 미담 · 가화들을 수없이 남기면서 여러분이 추진해 온 각종 사업성과를 자랑스럽게 되돌아보고 중단 없는 전진, 더욱 활기 찬 새

출발을 다짐하고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 건설과 민족 중흥의 강력한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1,000만 건 이상의 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정부는 무려 9,700억 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3,600만 우리 국민 모두가 적어도 평균 스물네 번 이상 사업장에 나가서 일한 셈입니다. 이 통계 숫자는 새마을운동이 문자 그대로 요원의 불길 같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농촌은 영농의 기계화, 동력화, 생활문화 정보의 신속한 전파, 도로망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도시 못지않게 밝은 생활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호당 농가 소득은 1980년대 초의 140만원을 이미 작년에 넘어섰고, 금년에는 178만 원 이상이 될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봉래면 선창 마을의 경우는 놀랍게도 이미 작년 호당 소득 1,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귀중한 체험을 통하여 터득한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정신혁명운동이요 잘살기 운동입니다. 억척스럽게 분발하여 지난날의 가난과 무기력을 청산한 우리들이 「하면 된다.」는 신념과 보람으로 일하고 또 일하여 이룩해 낸 오늘의 이 경이적 발전이야말로 새마을정신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 이웃과 더불어 협동하는 협동정신을 실천과 체험으로 터득하게 되었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착안하고 실천해온 한국적 민주주의 생활 질서 속에서 합리적인 사고력과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을 키워 왔다는 점에서도 새마을운동 8년의 성과는 크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그 동안 이룩한 새마을운동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밝고 윤택한 복지농촌건설의 길은 아직도 멉니다. 초가집을 헐고 기와집에서 살만큼 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어느 선진국 부럽지 않은 고도의 복지문화 사회를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더 크고 웅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또 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슬기와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과 슬

기를 다하여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더욱 힘차게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농촌생활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농촌경제의 자율성장 기반 구축, 그리고 공장 새마을운동의 대대적인 확산과 도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등에 온 국민이 더욱 힘을 기울여 활력 찬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 새마을사업은 우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영농 기계화, 그리고 녹색혁명의 완수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정 면에서 서둘러야 할 분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143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1981년까지 50만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하고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까닭도 가난에 찌들었던 구각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주인답게 우선 자신의 생활환경부터 능률적이고 문화적으로 가꾸어 나가자는 데 그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촌경제의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농민의 지속적인 소득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획기적인 창의노력이 요청됩니다.

우리나라 농촌과 도시의 평균 소득 비교에 있어서는 이미 1974년을 고비로 농가소득이 앞지르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도시 근로자 소득 140만원에서 비하여 농촌이 143만원으로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공장의 유치, 부업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농외 소득원을 개발과 육성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농가의 잠재 노동력과 기능을 최대한 활동하는데 머리를 써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새 지식, 새 기술 습득한 농촌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기꺼이 농촌 건설에 투신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개발을 선도해 나갈 영농 후계자의 양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촌진흥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제건설의 최 일선에서 분발하고 있는 산업역군들의 공장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언급하고 며칠 전 '수출의 날' 행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금년에도 우리나라는 수출 목표 125억불을 초과 달성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의 급신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과 많은 사람의 노력이 집대성된

결과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공장들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장마다 새마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종업원은 '공장을 내 살림처럼 아끼고 돌보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기업주는 '종업원을 자신의 혈육처럼 아끼며 처우와 복지문제 등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가족적 분위기의 기업풍토를 꾸준히 확립'시켜 나가야 합니다. 슬기와 우애가 넘치는 기업풍토는 비단 기업주나 종업원 한 사람의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복지 사회건설과 국가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게 될 것입니다.

도시 새마을운동도 이제 농촌이나 공장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기 작업이 다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도시 특유의 생리 때문에 농촌에서와 같은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꾸준하고 줄기차게 밀고 나간다면 틀림없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시 새마을운동은 매월 열리고 있는 반상회를 뜻 있게 활용하고 이 모임을 대화의 광장으로 삼아 이웃끼리 마을의 공동 관심사나 공동 이익이 되는 사업 등을 서로 상의하고 검토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근검절약하고 공중도덕을 북돋아 나가는 일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자연보호운동으로 생활환경을 알뜰히 가꾸는 일이야 말로 자칫 각박하기 쉬운 도시생활을 훈훈하게 녹여주고 인간성을 순화하는 길인 동시에 이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입니다. 도시 새마을운동의 성패는 지도층과 지식층 인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 참여 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솔선수범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내외의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잠시도 쉬지 않고 전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자주 국방과 자립경제의 터전을 굳게 다지면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이 발자취야말로 우리 온 국민이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굳게 뭉쳐서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피나

는 노력으로 엮어온 소중한 역사입니다. 번영과 중흥을 향한 거국적 대행진에 앞장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잠시도 잊지 말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후세에 역사는 민족중흥의 도정에서 새마을지도자로 한 시대를 살면서 헌신 보국한 여러분의 빛나는 공적을 길이 전할 것임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부녀지도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면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고 건투 있기를 기원합니다.

1978년 12월 6일
대통령 박 정 희

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치사(1979년)

친애하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계 지도층에 계신 인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월 26일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돌연한 서거로 인한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이를 극복하고 이제 향상과 발전을 계속해 나갈 새로운 결의를 굳게 다짐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약진의 1970년대를 마무리 짓고 희망에 찬 1980년대의 문턱에 서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오셨던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명복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 번 빌면서 밝고 번영된 국가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국민적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돌이켜보면 1979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한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변화를 안겨다 준 한해였습니다.「10.26사태」후 우리가 처한 비상시국에 우리는 냉철하게 대처하여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갖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농업 증산을 위해 줄기찬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출을 신장시켜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국민이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새마을의 70년대」를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가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불면불휴의 노력으로 이룩한 결실인 것이며 자랑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지난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맞이할 80년대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년대는 잇 달은 세계적인 유류파동과 주변정세의 혼미 속에서도 우리가 안보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자주 · 자립 · 자위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약진을 거듭했던 보람찬 연대였습니다.

특히 70년대 초 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지난 9년 동안 농촌과 도시, 직장과 가정, 그리고 공장과 학교에서 힘차게 추진되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자력갱생의 정신적 활력소가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룩해 온 새마을사업의 주요 성과를 보면 농로개설은 경부 고속도로의 100배에 달하는 4만여 킬로미터라는 큰 숫자에 이르고 있으며 크고 작은 교량이 무력 7만 3천여 개소에 가설되어 농촌의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소류지, 도수로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여 식량증산의 기틀을 다졌으며 마을회관의 건립, 전화사업, 통신시설과 간이 상수도의 설치 등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에 문화 복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76년부터 주택개량과 취락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18만5천동의 농촌 주택을 개량하고 2천여 개 마을의 취락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농사도 미맥위주의 작부체계에서 벗어나 원예나 축산 등의 고소득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왔으며 농업의 기계화, 영농의 기업화를 위한기반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주택 환경의 개선과 영농기반의 확충은 물론, 농가의 소득증대에 주력한 결과 1970년대 말 25만 6천원에 불과했던 농가의 호당 평균소득이 지난 78년 말에는 188만원 4천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금년 말에는 200만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생활환경의 개선과 농가소득의 증대에 수반하여 이제 농촌에도 각종 문화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우리 농민들도 도시민 부럽지 않게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년간 전개되어 온 새마을

운동은 이러한 물량적 성과 못지않게 정신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하여 실천해 온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이제 우리 국민의 새로운 행동 규범이 되었으며 난국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활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신적 기반위에 능률과 질서, 그리고 공익과 실질을 존중하여 경제적 자립을 스스로 이룩하고자 하는 자주 · 자립의 의식이 뿌리 내린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 새마을운동도 활발한 진전을 보여 생활 주변의 부조리와 퇴폐풍조를 일소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으로써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자원 난에 대처하여 범국민적인 소비절약 운동과 국토를 깨끗이 가꾸기 위한 자연보호 운동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실이라든가, 매월 열리고 있는 반상회를 통하여 도시인들의 생활기풍도 점차 개선되어 서로 돕고 신뢰하며 협동하는 이웃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일 등은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과 도시 등 지역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직장 단위로도 활기차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간 활발히 추진해 온 공장 새마을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근로자와 기업인은 새마을정신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공장을 내 집처럼, 종업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기업 윤리와 근로정신이야말로 새마을운동이 거둔 값진 성과이며 자립 경제를 앞당길 수 있는 저력이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새마을운동이 이처럼 물량 면에서나 정신면으로나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투철한 애국심과 공익을 앞장서 봉사하는 지도이면, 그리고 전 국민이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밝아오는 80년대도 지나간 70년대가 그러했듯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원유의 잇 달은 가격앙등과 공급사정의 악화 등으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각국의 경기침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비산유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충격은 더욱 심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남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은 채 우리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여 무력도발의 구실을 찾고자 하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동과 각종 도발책동을 격화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대내외적 도전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생존권을 수호하면서 국가발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들이 감히 우리를 넘겨다 볼 수 없도록 우리가 가일층 굳게 단합하고 국력을 배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새마을정신을 꾸준히 드높이고 농촌과 도시, 공장과 학교에서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농촌과 기업은 농축산물 가격문제와 영농 인력의 부족문제, 그리고 생산원가의 압박과 노임 상승문제 등 시급히 타개해 나가야할 갖가지 애로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으며 또 이런 문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 될 수는 없으며 농민과 근로자와 기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참고 견디면서 땀 흘려 일할 때 비로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이 기회에 우리의 새마을운동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새마을운동에 있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훌륭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자영발전 기반을 더욱 굳게 다지는 데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국의 거의 모든 마을이 자립마을로 승격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영마을을 설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며 농업계고등학교에 자영학과를 신설하여 농촌에 항구적으로 정착할 영농 후계자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 농촌의 주거환경을 그 부락의 실정에 맞도록 계속 정비해 나가면서 환경개선이나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마을마다의 실정을 감안하여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완결하는 방식으로 유도하여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해마다 농촌 인력이 줄어드는데 대비하여 경지정리를 촉진하고 영농의 기계화를 적극 촉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의 지속, 증대를 위하여 영농의 과학화와 고소득 작목의 개발에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외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고 공해가 없는 개별공장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새마을운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어 밝고 명랑한 도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합리회해 나가면서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을 돈독히 함으로써 도시 새마을운동의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시 새마을운동의 성패는 사회 지도층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각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은 소비절약운동과 자연보호 운동 및 반상회 활동에 솔선 참여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공장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공장 새마을운동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에까지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기업인은 사회적 책임과 사명감을 일깨워 근로자의 처우향상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 사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를 생각하기에 앞서 내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원자재의 절약이라든지 기술의 연마,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인이나 근로자 가운데서 투철한 사명감과 강인한 실천력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서 공장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마을과 직장에서 각기 설정과 특성에 알맞은 새마을운동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국민적 단합을 기하면서 생산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국가발전을 지속하여 이 토대위

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은 이 중차대한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국민적 행진의 선봉에 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화와 안정과 번영의 새 역사 창조를 위한 역군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1979년 12월 28일
대통령 최 규 하

라.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치사(1998년)

존경하는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그리고 전국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오늘 '98년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모든 국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큰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에 남다른 공로로 오늘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지난 날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열한 번째의 경제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에는 가난을 딛고 잘 살아보자는 온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토록 염원했던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경제 위기를 맞고 말았으며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땀으로 이룩해 놓은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시련 속으로 몰아가는 이 위기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외면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고 경쟁과 효율이 시장경제 원칙이 무시됨으로써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고 우리 경제는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민의 열정을 그토록 끓어오르게 했던 새마을운동도 이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반민주적 작

태 때문에 얼마나 쓰라린 좌절을 경험했던가는 여러분이 모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발전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뼈아픈 교훈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국가부도의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1년 전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사상최대인 47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솟던 환율과 금리가 완전히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대외 신인도의 상향으로 외국인 투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의 밝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4대 개혁의 큰 틀을 마무리 짓게 되면, 명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선진국가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발전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틀을 새로이 짜는 총체적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제2의 건국운동'에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 될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참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창조적인 지식 기반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세계와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는 열린 세계주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이제야말로 다시 한 번 여러분이 앞장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맨주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저력과 자신감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적인 과업에 여러분이 선봉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2의 건국운동'의 대열에 앞장설 때, 우리 국민은 다시 뛸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마을'은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노력을 불러 모으고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분열과 갈등을 국민 대통합으로 승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맡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각종병폐와 부조리를 바로 잡는 생활

의식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후세를 위해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고 감시하는 일에도 '새마을'이 앞장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건전한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되 불필요하게 개입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를 여러분에게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도 '새마을'이 관변단체라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시민사회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권력이 새마을운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친애하는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

오늘 출범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합시다. 국정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제2건국운동의 선봉이 되도록 합시다. 다시 한 번 '98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8일
대통령 김 대 중

마.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치사(2003년)

존경하는 이수성 회장님,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2003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거듭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지사 여러분과 각 자치단체 대표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명실 공히 새마을운동이 국가적운동이고 전국민적운동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하나 놀랍니다. 새마을운동은 저보다 조금 연

세가 위이신 분들이 하는 아저씨 아주머니 운동으로 알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대단히 운동이 젊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이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음으로 대단히 기쁩니다. 진심으로 거리낌 없이 새마을운동을 축하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됐던 첫 시절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길이 넓혀지고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 지고 부뚜막이 고쳐지고 그 부뚜막에 쌀 한줌 모으기 단지가 만들어지고 근면 · 자조 · 협동으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으로 생각하고 가슴 벅차서 삽 들고 괭이 들고 함께 쫓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뒤 제가 철들고 민주화운동이라는데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정말 혼란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운동이고 그 정부는 민주적인 정부가 아니고 그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갈구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곱지 않는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 전 국민이 함께 열렬히 참여하는 운동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두운 그늘이 있어서 이 운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의 운동으로 훌륭히 성공했고 훌륭히 자리 잡았고 또 앞으로도 훌륭히 계속돼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새마을운동은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산업화가 성공했고 지난 40년 동안 국민들은 국민소득을 백배 성장시키는 쾌거를 이뤄 냈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가 혼란스럽긴 하지만 1945년 전후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 발전의 바탕에 우리의 경제적 성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성공의 밑바탕에 바로 여러분의 새마을운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한 번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바깥에 나가보니까 정말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우리 새마을운동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새마을운동의 첫 번째 성공입니다.

두 번째 성공은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지도자로서 인사말씀을 하신 이수성 회장님 그 분은 바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 분이 지금 새마을운동을 앞장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자리 맨 앞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시도지사, 시장 여러분들 중에는 다 과거의 독재에 맞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땀 흘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여러분의 새마을운동을 이 자리에서 축하하고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의 분명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은 시대의 환경을 넘어서 전 국민의 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공은 이 자리에 계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시대의 변화에서 지금도 국민과 함께 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민족의 바른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드어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운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선진국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성큼 성큼 달아나고 있고, 후발국들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또 다시 변방의 역사를 살아야 합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전 할 때입니다. 안으로 내실을 다지면서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해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30여년을 이어온 새마을운동이 한 차원 높은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민화합이 절실합니다. 분열과 대립, 불신과 증오를 이대로 두고는 경쟁에서 승리 할 수 없습니다. 역량 한 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주저 앉게 되는 아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법을 찾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 하는 시스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신뢰와 공정으로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결과에 승복 할 줄 아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화의 창구도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지금의 여러 사회갈등 현안들도 대화하고 설득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막고 자기주장만을 해서는 모두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서로의 발목을 잡는 공멸의 길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라 위한 일이라면 늘 한마음으로 뭉쳤던 우리들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새로운 협력의 문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만원입니다.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이대로 두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지방이 독자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발전의 역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전략만이 수도권과 지방을 다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육성, 지방의 생활여건 개선, 신행정수도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을과 직장이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시대가 요구하는 일을 앞장서서 실천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 대한국민의 애정과 신뢰 또한 큽니다.

화합과 개혁의 구심점으로서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성원하겠습니다. 지도자 여러분이 새로운 협력과 화합의 문화조성에 앞장서 주십시오. 여러분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이제 모든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시대로 가야합니다. 수도권은 너무 과밀하고 집중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지방은 소외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안하고는 국민화합이나 2만불 시대는 불가

능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을 발전시켜서 해결 할 것입니다. 지방이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발전의 역동적인 주체가 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을 통해서 또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내건 여러분의 새 목표가 그야말로 분권과 자율,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되고 또 큰 성공을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대통령 노 무 현

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치사(2012년)

전국 2백만 새마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 대회개최를 축하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발전 에 헌신 하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들께도 따뜻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5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두를 다른 나라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전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면서,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국가 부흥의 살아있는 꿈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군 첫 걸음이자 정신적 바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을 일깨웠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진정한 생활 혁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해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 만이 넘는 나라 대열에 진입했고, 국가브랜드 가치는 세계 9위에 올라섰습니다.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강국, 문화강국으로 뻗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일류국가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생활 속에서 대한민국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뉴 새마을운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친환경생활을 실천하는 녹색강국, 예의와 질서가 살아 있는 품격 높은 나라, 더 불어 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뉴 새마을운동의 목표는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나누며 가난한 나라의 자립을 돕고 '세계 속의 새마을운동' 으로 키워가고 있는 여러분의 노력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도움을 받아보았기에 돕는 방법을 알고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 느끼는 고마움도 알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할 수 있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정과 패기로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가는 우리 G20세 대 젊은이들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함께하면서 언제나 젊고 활기찬 새마을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모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그래왔듯이 다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터널 끝 밝은 빛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이 가장 어렵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 간 정부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국가적으로나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대통령 이 명 박

사.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인사말씀(2019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나눔과 봉사의 운동이며, 두레, 향약, 품앗이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협동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 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3만 3천여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에 함께 한 이웃들이 있었고

앞장서 범국민적 실천의 물결로 만들어낸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국 200만 새마을 가족을 대표해 함께 해주신 새마을지도자 한 분 한 분은 모두 대한민국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마을지도자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회를 훌륭히 준비해주신 경기도새마을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각국 대사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과 가족들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공무원증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헌신적인 공직자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의 중심이며, 협동의 구심점이고 믿고 따르는 공공의 지도자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나서면 이웃이 함께했고, 합심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냈습니다. 1970년대에는 64만 헥타르에 이르는 민둥산에 앞장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국토 곳곳에 흘린 땀은 OECD 국가 중 산림면적 비율 4위의 '산림강국'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의 기적을 이끈 것도 새마을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전국 새마을부녀회는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으로 무려 370만 돈의 금을 모았고, 이는 전국적인 금 모으기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2007년 12월, 태안기름유출 사고 때는 절망으로 얼룩진 지역민과 어민들의 마음을 닦아주었고, '세월호 사고' 때는 팽목항에서 유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며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앞장서는 등 큰 재난에는 항상 새마을회의 자원봉사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주역이 돼주셨고,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주신 새마을지도자와 가족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입니다.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운동'의 기록물을 '인류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해 열린 유엔 개발정상회의는 빈곤타파, 기아종식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새마을운동'을 꼽았습니다. 2017년 아세안정상회의에서 미얀마의 아웅산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각국의 정상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개발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고, 필리핀 농업부도 지난해, 새마을 ODA 사업을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전파는 메콩국가들과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전파로 우리는 경제발전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지구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내년부터 라오스와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최초로 중남미 온두라스에 네 개의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내년에는 남태평양의 피지에, 2021년에는 아프리카 잠비아 등지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확산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달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다양한 '새마을운동'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를 비롯한 지구촌 국가들과 '새마을운동'을 통한 우리의 발전 경험을 나누고,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사는 나라'를 넘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눔과 협동의 중심인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끌어주셔야 할 길입니다. 국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온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새마을운동'이 조직 내부의 충분한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명 · 평화 · 공경운동'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에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새마을중앙회는 이미 '유기농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서 전기 · 가스 · 수도

사용량을 20% 가까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20% 절감에 국민 모두 동참한다면 석탄 화력발전소 열다섯 개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새마을운동'의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만 새마을지도자들과 200만 회원들께 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공동체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며 가난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나라'를 완성해야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마을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함께 열릴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우리 모두의 운동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국민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협력, 국민통합과 주민참여의 주역이 되어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대통령 문 재 인

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치사(메시지)요약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치사(1982년)

그 동안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성과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자주 · 자립의 주인정신을 확고하게 체득할 수 있었던 정신적 성과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가난이나 시련을 남의 탓이나 운명의 장난으로만 돌려 아무런 주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가난과 시련의 멍에는 결코 벗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체념해 오던 가난을 '사람이 얼마든지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으며, 주어진 운명을 체념이 아니라 개척의 대상으로 보는 적극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운동은 협동과 단결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고 사회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잘살고 복된 내일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너와 내가 따로 없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땀 흘리는 범국민적 운동이 우리 역사에 흔치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실로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을 국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촌과 도시, 농어부문과 비농업부문,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낙후된 마을이나 지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분야에 대한 새마을사업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함으로써 80년대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82년 10월 10일
대통령 전 두 환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치사(1990년)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화합의 바탕을 굳건히 하기 위해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운동은 살기 좋은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건설해 나가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어 온 새마을운동은 이제 새로운 상황 속에서 '민주 · 번영 · 통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는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열정과 헌신으로 '범죄의 두려움이 없는 사회', '질서 있는 사회', '일하는 사회'를 이루어 우리 모두의 밝은 앞날을 여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국민운동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 우리고장과 나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믿음을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하여 번영의 힘을 더욱 키워갑시다. 그리하여 그 보람찬 결실을 고루 나누어 이 사회의 그늘을 지워갑시다. 불법과 무질서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여 모두가 편

안한 삶을 누리는 민주사회를 만듭시다. 마을을 스스로 지키는 자율방범과 교통질서로부터 자연과 환경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참여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말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 갑시다.

1990년 11월 22일
대통령 노 태 우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치사 축하메시지(1997년)

새마을운동은 지난날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염원을 하나로 모아 이 땅에 온 국민이 새마을의 깃발아래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굳게 뭉쳐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적 번영의 토대 위에 당당한 민주국가를 건설하여 21세기에는 세계 일류국가가 되겠다는 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헌신해 온 여러분은 최근에도 '경제 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100년, 다시 여는 새마을'이라는 이번 대회의 구호처럼,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뜨거운 애국심을 발휘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국가적 과제들을 풀어 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전국의 300만 새마을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997년 11월 6일
대통령 김 영 삼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치사(2013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공경험은 새마을운동과 함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우고 싶은 모범사례가 되어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고 있고, 내적으로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의 양극화, 청년실업 등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 번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마을운동이 미래에도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실천방식에 있어 끊임없는 변화와 실천이 요구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기 보다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변화를 과감히 수용해서 새로운 공동체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새마을운동이 절대빈곤의 탈피라는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성취했었다면 지금의 새마을운동은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에 나눔 · 봉사 · 배려의 실천 덕목을 더한 새로운 공동체운동으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10월 20일

대통령 박 근 혜

18. 새마을지도자 성공사례 모음

가. 성공사례(만화) : 농촌남성지도자, 1978

황금의 왕

이천군 율면 석산1리
새마을지도자 이 관 섭

이 사례는 경기도가 1978~1980년에 도내 새마을사업추진 우수지도자를 발굴하여, 그 성공사례를 만화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보급하였던 것을 다시 글로 풀어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우르릉 쾅!", "터진다 에잇!", "모두 비켜 나시오.", "자네도 빨리 따라 오게."
"아앗! 늦었다.", "저...저사람 죽는다.", "어푸. 어푸.", "관섭아! 이걸 잡아라."
"어푸!", "헉 헉",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네."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수개월의 역경을 무릅쓰고 쌓은 제방이 예년에 볼 수 없던 큰 홍수로 붕괴될 상태에 이르자 이관섭은 제방일부를 미리 깨고 있었다. 주민들은 낙담과 절망으로 쓰러지듯 주저앉는다. 절망하는 자신을 일깨우듯 부르짖는다. "여러분 모두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이보다 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이룩해 온 새마을정신이 있습니다."
"이관섭씨 말이 옳소", "다시 합시다."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선 주민들이 이관섭을 따라서 제방을 쌓기 시작했으며 수개월의 고투 끝에 기어이 완공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 발전의 기수가 된 새마을 지도자 이관섭이다. 그의 고향은 경기도 이천군 율면 석산1리며 마을의 주업은 쌀농사와 담뱃재배로 1943년 11월 13일 이씨 가문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그의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은비녀를 주워서 다락에 넣는 꿈을 꾸고 잉태 했다고 한다. 중

농 가정으로 큰 시련 없이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자라난 이관섭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친구들과 재미나게 놀다가도 깨어진 사기 조각 한 개라도 더 차지하려고 다투기 일쑤며 "내놔!" "내거야." 나중에는 고사리 같은 주먹이 오고 가고 대판으로 치고받는 활극이 벌어진다. "이야~" "이게~" 멍든 얼굴로 집에 돌아오는 날은 대문 앞에서 서성대며 집안 동정을 살핀다. 아버지가 보면 야단칠게 뻔하다. 장난하는 척 하면서 뒷걸음질로 마당 안을 들어서면서... "하나!" "둘!" 방향을 잘못잡고 뒤로 가다가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세수하시는 대야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관섭이 6세 되던 해에 6.25 동란이 터지고 괴뢰군이 마을로 들이 닥치자 "누구 있소?" 아버지만 급히 피난을 가시고 식구들만 남아서 불안으로 떨고 있는데 괴뢰군들이 몰려와서 총부리로 윽박지른다. "다 뒤지기 전에 식량을 내어 놓으시오.", "우...우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겁에 질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어린 관섭이가 겨를 빻는 시커먼 자루를 들고 나오며 당돌하게 항변하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도 이것 밖에 먹을 것이 없어요." 분단의 비극인 동란이 끝나고 이관섭은 율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항상 5등 안에 꼽히는 우등생이었다. 국민병에 나갔던 아버지가 뒤늦게 귀향한 후 평택에 있던 미군부대로 근무하게 되어 전 가족이 따라가고 학교 관계로 이관섭만 남게 되고 빈 집을 봐주려고 와 있던 마을 사람에게 밥을 부쳐 먹었다. 웬만한 어린 아이 같았으면 외롭고 불편한 생활과 밤마다 혼자 자는 무서움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족을 보려고 평택행 버스를 탄다. 5학년이 되던 어느 해 밤 이었다. 화로를 놓고 자다가 잠결에 이불을 차서 화롯불이 이불에 붙었다. "앗! 저게 웬 연기냐? 불이 다! 불!"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끄는 바람에 질식사를 면하게 되었다. 1956년 장호원 중학교에 입학하자 통학길이 너무 멀어서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서로 같이 있자고 관섭이를 졸랐다. 학교 성적이 1~2등인 관섭과 같이 하숙을 하면 덩달아 공부가 잘 될 것을 계산한 것이다. "이봐 학생. 어떻게 된거야? 하숙비가 두달이나 밀렸는데....", "죄송합니다. 토요

일에 집에 가서 꼭 가져 오겠습니다.”

미군부대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지나친 술타령과 낭비로 집안 살림이 쪼들리기 시작했으며 사업이 망하자 집을 나가신 후 종적을 감춰버렸다. 기다리다 지친 가족들이 평택 살림을 정리하고 귀향 했으나...

“내 돈 내놔라. 내돈”, “이놈! 이가야! 내돈은 못 떼어 먹는다.”

사업을 한답시고 막대한 동리 빚까지 걸머졌던 아버지 때문에 빚쟁이가 몰려와 아우성이었다. 빚쟁이들이 으름장을 놓으며 밤낮으로 들볶는데 식구도 모르게 진 동네 빚은 너무나 엄청난 액수였다. “여러분! 논도 밭도 다 팔고 집까지 비워 드릴테니 진정하셔요. 제발...”, “헤헤 아주머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남의 셋방살이로 나가게 되었고 돈 때문에 하숙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하숙생활을 청산하고 좁은 셋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살게 되었다. 30리나 되는 통학 길 때문에 새벽에 집을 나오면 밤늦게 귀가를 했으며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여자 몸으로 나무를 해다가 팔기도 했는데 그나마 수제비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생활이었다. 16세 되던 해 중학교를 졸업한 이관섭은 진학을 포기하고 목공소에 취직을 해 적은 돈이나마 살림에 보태면서 밤이면 통신 강의록으로 공부를 했다.

“에구구~”,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오늘은 하루 쉬셔요.”, “쉬면 누가 먹여준다 더냐?”, “휴우~ 논 댓 마지기만 있으면 이 고생은 안 하는데”, “어머니 두고 보셔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땅을 꼭 찬고 말겠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한편으로는 그리운 아버지이기도 했다. 명절 때면 행여 아버지가 오실까 해서 몇 십리나 걸어 나가야 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나간다. 버스가 멎을 때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의 얼굴을 찾았다. 몇 번이나 낙담을 하면서도 다음 버스를 기대하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에 막차가 지나갈 때까지 버스마다 기웃 거렸으나 종내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고 이관섭은 울면서 돌아선다. 밤길을 걸으며 허공에 대고 아버지를 부르던 밤이 몇 번이었던가? 그리고 혹시 아버지를 모시고 오나 해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관섭이가 혼자 터덜거리고 돌아오자 절망으로 흐느낀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어머

니가 애처로울수록 이관섭은 이를 악물고 모진 결심을 굳힌다.

"십년! 십년만 고생하면 뭣이든 이루어지겠지!"

1960년대 석산1리 호당 소득은 10만원도 안 되는 저소득이어서 아주 영세한 농촌마을 이었다. 1년 동안 목공소 일을 하다가 그만둔 관섭이는 부잣집의 농사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하는 서툰 낫질로 팔다리가 성할 날이 없었다. 1년이 지나고 나니 품값으로 쌀 두가마니를 받았다. 한 가마니는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는 팔아서 장사 밑천 삼아 큰 돈을 벌어 보겠다고 상경을 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작업복 장사며 양말 장사를 했는데....

"양말 사셔요.. 양말" "양말이 쌉니다.", "두 켤레에 백 원이오. 백 원."

목이 아프도록 떠들어 봤자 숙식비 제하고 나면 자꾸 적자가 난다. 이럭저럭 하다 보니 힘들여 번 쌀 한 가마니 값이 모두 날아가 버렸고 남은 건 눈물밖에 없었다. 철로 위로 절망의 몸을 날리려고 기도했으나 가난보다 죽는 것이 더 어려웠다. 추위가 한창이던 엄동설한에 귀향을 한 관섭은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다. 당시는 땔감이 부족해서 나무 두 짐이면 쌀이 한 말 값이나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택한 것은 입을 옷이 여의치 않은 형편이라 나무를 하면 땀이 나서 추운 걸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나뭇짐을 지고 내려오다가 심한 바람이 불어 굴러 떨어지는 통에 "악!" 바위에 얼굴이 부딪쳐 찢어졌으나 아픈 것도 모르고 흩어진 나무를 주워 모았다. 점심도 굶고 떨리는 다리로 나뭇짐을 짊어진다. 20리를 나가야만 나무를 팔수가 있다. 그러던 차 품삯이 많은 부잣집이 있어 그 집일을 하기로 했는데 동네분과 어머니가 만류를 했다.

"여러 사람이 그 집 일을 해봤지만 일도 제일 많고 까다로워서 1년을 견디지 못하고 나온 다네" , "가봤자 고생이란다. 그만 둬라.", "어머니! 그 정도의 일을 해내지 못 한다면 장차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두고 보셔요."

품삯이 1년에 쌀 4가마니라 비장한 각오로 일했다. 남보다 힘이 약한 대신 꾸준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이 사람아! 밤이 깊었는데 그만 하고 어서 자게.", "아닙니다. 일을 다 끝내야 잠이 오는 걸요.", "저런 사람 처음 보는 구먼.", "자기 일도 저렇게 열심히

하지 못할 텐데.”

감탄한 주인이 나중에는 몸 걱정까지 해주며 쇠고기까지 사다 준다.

“너무 무리하지 말게. 몸 생각도 해야지”, 남의 집 일 3년이 이관섭에게 인생의 수련장이었으며 대학이었다.

고된 작업을 통해서 고통을 이기는 정신력과 애써 가꾼 곡식이 이만큼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소문이 나서 쌀 6가마니가지 받고 다른 집 일도 하면서 자기 농사를 지어 보려고 틈틈이 하천부지를 실습 삼아 퇴비를 많이 넣고 재배를 해보았다. 농토 살 돈은 없었고 하천 부지를 개간하면 거저 생기는 땅이었다.

“모래가 많으니 땅콩과 뽕나무를 심는 게 좋겠구나. 품삯이나 나올 정도면 해 봐야지.”

어느 날 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길에 하천부지를 살펴보니 “야~싹이 돋는다. 됐다. 됐어.” 작으나마한 성공이었지만 너무나 넓은 하천부지를 개간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다.

“이 넓은 땅을 언제다 개간한단 말인가? 차라리 남의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게 낫겠다.”, “오빠! 엄마가 빨리 오래.” “엄마가?”

입대 영장이 나왔다. 날짜 관계로 남의 일도 곤란해졌다. 할 수 없이 저수지 공사장이며 다리 놓는 일, 토목 일로 살림을 보태다가 떠나게 되었다. 그런대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던 장남이 떠나게 되자 어머니는 잠을 못 이루셨고 어머님과 동생 걱정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던 이관섭이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열차에 올랐다. 그러나 입대한 이관섭은 새로운 생활에 두 눈을 크게 뜬다. 여태까지 살아오던 생활이 판이하게 달랐다. 옷 걱정 먹을 걱정으로 시달려 오던 그에게 옷도 주었고 먹을 것도 주었다. 책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으며 조국방위의 긍지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를 복 돋아 준다. 착실하다고 부대장도 아껴 주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세상을 만난 기분 이었다. “장기 복무를 하자” 결심을 굳힌 이관섭이었지만 휴가를 나왔다가 고생하시는 어머님과 가족들을 보자 마음이 흔들린다. 나 혼자 편히 살수 없다는 가책으로 할 수 없이 장기복무를 포기하였다. 군에서 심훈이 지은 소설 상록수

를 감명 깊게 읽고 독농가에 관한 서적을 찾아가며 탐독했고 방송을 통해 불모지개간 수기를 들으며 제대 후 개간 계획을 세웠다. 군에서 받은 사병 봉급을 한 푼 안 쓰고 집에 보냈더니 여동생 영순이가 푼푼히 모아서 돼지 새끼를 사다가 기른 다는 소식이었으며 군복무 3년간 새끼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쳐서 여러 마리로 불어났는데 새끼돼지 한 마리는 쌀 한 가마니 값이었다. 1968년 3월 제대를 하자 이관섭은 하천부지로 달려갔다. 아카시아 나무뿌리를 캐내고 갈대 뿌리를 뽑는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흐른다. 닳고 헤어 진 옷은 몇 번이고 그 위를 겹쳐서 기워 입는다. 삽질한 만큼 내 농토가 된다는 꿈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넓은 하천부지에 모래알 같은 땀을 뿌렸다.

"개간만 하면 논을 살 수 있다." "농사를 지어 성공한다. 하고 말테다!", "어머니 보세요. 두 자루의 삽이 다 닳았지만 4천 평이나 개간 했어요.", "아이고 ~ 꿈만 같구나."

"그런데 애야 너무 모래라서 곡식이 될 것 같지가 않구나.", "하하 두고 보세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모래를 파다가 둑을 쌓고 좀 좋은 흙은 모래 파낸 곳으로 옮기고 엉성한 대로 밭을 만들었다.

"아따! 이 사람 미련하게 웬 퇴비를 그렇게 많이 넣나.", "두고 보세요."

퇴비 덕으로 가뭄도 덜 타게 되었으며 농촌지도소를 찾아가니 개간지에는 석회를 뿌리라기에 그대로 실행했더니 땅콩도 빈 쭉정이 없게 잘 되었다. 좋은 흙에는 고추를 심고 모래땅에는 땅콩을 심고 더 나쁜 모래땅에는 뽕나무를 심는다. 비닐하우스로 촉성 재배를 하나 싹이 트고 예정대로 잎이 생겨다가 열매가 영 그는데 "오빠! 돼지가 새끼를 낳으려나 봐요. 빨리 오세요." "정말?" 비위가 약한 이관섭이었지만 돼지가 불어난다는 기쁨으로 냄새나는 것도 모르고 돼지 분만을 도운다. 돼지 2마리가 1년에 두 번씩 분만하니 이제는 20마리가 넘는다. 온 가족이 기쁨에 들떠 고된 일도 모르고 열심히 뛰었는데 집중 폭우로 밭 500여 평이 유실되는 고난을 겪고 울기도 했다. 가을이 되어 땅콩 고추를 거두어 파니 쌀 36가마 값이 되었고 돼지 38마리를 모두 처분하

니 쌀 70여 가마 값이 되었다.

"이 사람아! 양돈이 잘되는데 계속하지 왜 돼지를 팔아 치우나.", "저는 농사로 성공하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부락민은 대개가 밭에는 담배나 인삼을 재배했지만 이관섭은 거들 떠 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논에 대한 집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1969년 쌀 67가마 값을 치르고 기어이 대망의 논 8마지기를 샀다.

"야~ 우리도 이제 쌀밥을 먹게 됐다." "신난다!", "어머니 이 기쁜 날에 왜 우셔요. 진정하세요.", 제사 날은 제사상 위에 땅문서를 놓고 절을 했다.

"오늘 가족회의를 하자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논을 좀 마련했다고 해서 만족할게 아니라", "앞으로 십년은 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일을 하자는 거다. 십년만....", "인생이 60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는 25세에서 35세 까지의 십년이다.", "늙은 후의 노력이 20년인들 어찌 젊은 10년을 따르겠습니까? 어머니.", "오냐 오냐 네 말이 옳다."

"나는 일평생 동안 술 담배 화투 등 사치와 낭비는 안 하겠다. 열심히 일해서 다시는 후손에게 가난과 못 배운 것을 물려주지 않겠다. 물론 뜻을 이루기 전에는 결혼도 안 할 생각이다.", "앞으로는 논에서 나는 것은 쓰지 말고 땅을 사고 밭곡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 "옷도 한 벌 사면 4~5번은 꿰매 입고 그것도 입던 옷 뒤판을 다시 기워 더 입을 수 없을 때까지 입는다."

"그리고 가족 간에는 절대로 비밀이 없기로 하자.", "십 원, 이십 원의 작은 돈이라도 서로가 빚진 돈을 감추고 몰래 갚으려다 보면 집안 가산이 흩어지고 결국은 집안 도둑으로 가세를 펴지 못하게 된다.", "빚이 백만 원이라도 가족이 모두 알고 다 같이 힘을 합쳐 갚아 나간다면 청산이 빠를 것이다."

말하는 관섭이의 뇌리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간다. 비록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떠났지만 이관섭의 생애는 아버지가 큰 교훈이오. 스승이었다. 아버지가 잘못 살아간 행적을 더듬으며 그 미비점을 반성하고 자기 생활에 거울로 삼았으며 아버지로 해서 받은 고통을 채찍질 삼아 절망하려는 자기 자신을 역경 속에서 일어서게 한 것이다. 이관섭이가 논을 사자 부락민들은 너도 나도 고추와 땅콩을 심었지만 재미를 별로 보지 못했는데 "이상

하다 우리는 왜 안 되지?" "글쎄 말이야." "이관섭은 운이 튼 사람이라니까 운이…"

그것은 운이 아니었다. 이관섭이가 농사에 들이는 정성과 노력을 따르지 못한 탓이었다. 어느 일이나 그렇겠지만 무조건 정성만 들인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돌봐 줄 시기와 기후에 맞춰 작물을 살피고 돌보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일하는 농사와 생각하는 농사가 잘 맞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섭도록 밤을 새워 일을 하는 이관섭이다. 처음 지어 보는 내 농사 내 논!

69년~70년도는 재래종 벼를 심으면서 면사무소로 지도소로 뛰어다니며 각종 영농 교육을 받고 신문 라디오로 새로운 농사법을 들으며 독농가 사례집을 탐독하고 스크랩을 했으며 실패 없는 농사를 짓기 위해 보다 나은 수확을 하고자 매일 작업 일지를 써서 그해 비료 량과 종류 그리고 생산량을 기록해서 해마다 장 · 단점을 연구 검토했다.

"거참 이상하거든, 관섭이네 논하고 우리 논은 딱 붙은 바로 옆인데 저 친구 논에서 나는 쌀은 알이 실하고 수확도 우리보다 훨씬 많단 말이야", "설마 저 친구가 우리 논에서 슬쩍 해다가 보탠 건 아니겠지.", "예끼! 이 사람아. 관섭이가 거저 준다 해서 받을 사람인가?"

자기 정성이 부족한건 생각지 않고 남의 수확만 탐내는데 모만 심어놓고 추수 때 까지 나와 보지도 않는 한심한 친구도 있었다. 하루 두 끼는 국수를 먹기로 한 계획이 어머니의 알뜰한 생활방식으로 잘 이행되어 논농사의 수확 때마다 땅을 사게 되어 해마다 논마지기가 불어났으며 농사짓고 논을 사는 일만이 유일한 효도요 낙이었다. 이관섭은 논을 자기 생명같이 여겼고 벼는 자식같이 사랑하고 가꾸었으며 논에 물이 마르면 자기 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늦은 저녁이었다.

"이봐! 관섭이 있나?" "들어오게. 웬일들 이야?",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마을청년단 문제로 의논 좀 하려고 말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청년단 운영이 잘 안된단 말이여. 적자가 자꾸 나고 고전 이라고. 그래서 말인데 자네는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나?", "사람들 참! 나는 코가 두 개라도 되나?", "헤

헤. 자네야 야무지고 빈틈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마을청년단 운영을 맡아주면 어떻겠나?", "나라고 별수 있겠나?"

여러 사람의 권유로 청년단 총무 직을 맡아 보게 되자 처음은 운영상 여러 가지로 절약하고 회의 규칙을 엄격히 해서 회원들에게 불평을 샀지만 흑자를 올리게 되자 모두 좋아하게 되었다.

1970년! 대통령각하의 새마을운동 제창으로 이 나라 방방곡곡으로 새 물결이 일면서 71년도에 새마을운동이 본격화 하자 그 여파가 이 마을까지 파급되어 이관섭은 새마을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고 농촌 소득향상에 앞장을 서겠다는 결심을 했으며 그동안 마을에서 주저하고 심지 않던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심기로 한 후 부락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벼가 일반 벼보다 싸다는 결점과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습관을 혁신하자는 설득에 두려움을 받는다. 재래식 농사와 새로운 농사 기술에 의한 수량차이를 세밀히 설명했으나

"예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말라고.", "통일벼 심었다가는 일반 벼 반만큼도 못 먹는다. 말일세.", "그렇지 않습니다. 값 차이는 얼마 안 되고 수량차가 많기 때문에"

"허어~ 이 친구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군.", "아저씨. 그렇게도 이해가 안 가셔요?", "답답하구먼.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이해 못하고 우기니", "그런 소리 떠들고 다니면 미친놈 소리를 듣는 거여", "쳇!" "통일벼 심는 녀석은 미친 놈이니께 알겠나?"

그렇다고 쉽게 단념할 이관섭이 아니었다. 노인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쫓아다니며 열을 올렸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 바람이 불어 농촌마다 새마을정신으로 협동 단결하고 이웃이 의논하며 부업으로 소득을 향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라고 질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도 소득 향상을 위해 통일벼로 농사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 보게. 새마을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아는 척 하는구먼.", "모르다뇨?",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길을 닦는 것이여.", "길이라뇨?", "좁은 마을길을

차가 들어서게 넓게 닦는 것이 새마을운동이여.", "길 닦는 게 새마을운동이란거 알것재?", "하하 옳은 말씀입니다만 길 닦는 것만이 새마을 운동이 아닙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다시 말해 줄까?", "아... 아닙니다."

이관섭을 동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벽에 부딪친 이관섭은 논두렁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봐" "엉" "뭘 그렇게 생각 하고 있나?" "으응. 웬 일이야?", "자네 만나려고 오던 길일세.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응. 다름이 아니라"

학교 동창이며 어려울 때 마다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준 친구 이용연이다.

"부락민들이 뭐라던 개의치 말게. 자네 뜻만 확신이 선다면 실행하게.", "자네가 성공하면 자연이 모두 따라 올걸세.", "옳은 생각이야.", "이번도 추수가 끝나면 땅을 살 계획인가?", "그럼 사야지.", "돈이 조금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염치없지만 돈 좀 빌려주게"

"노력 해 볼테니 걱정 말고 일을 추진하라고.", "고마워." "예끼 이사람."

1972년! 마을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통일벼를 심었다. 소주밀식은 평당 80주 이상을 심어서 재래종(60~70주)보다 많은 편이었고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도 정기적으로 살포하였다.

"수고 많습니다." "어서 오시오. 우리 벼 좀 봐 주십시오."

지금은 예전과 달라 권농시책이 철저해서 농촌지도소 지도원(전문가)이 수시로 둘러 봐주고 병충해 여부를 관찰해주며 약과 비료 등의 사용 시기를 선생님처럼 자상히 지도해준다. 농사꾼도 벼의 병충해 시초는 가려내지 못하지만 이들 지도원들은 금방 알아낸다.

"잘 들 한다. 그런다고 잘 될 줄 아나?" "어림도 없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황금색이 깃들기 시작하려는 통일벼를 보고 공연히 배가아파 빈정대고 있었다. "흐흥.", 정성대로 벼가 잘 자라나서 알 거름(벼 싹이 보일 때 주는 비료)을 주고 한 시름 놓는가 싶었는데 8월 19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제방이 터지면서 흙탕물이 논을 덮었다. "이거 야단났구나. 벼이삭에 흙탕물이 묻었으니 농사를 다 망치게 됐다."

이관섭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논으로 뛰어들었다. 벼이삭에 묻은 흙탕물을

일일이 물을 뿌려 씻어내야 한다. 밤이면 달을 등불삼아 작업을 연 이은다. 낮과 밤이 몇 번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논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자지도 않았다.

"애야 좀 쉬면서 해라. 병나겠다.", "걱정 마셔요. 어머니." "저는 끄떡도 없습니다." "이번 농사가 잘되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 뜻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이 것 뿐입니다."

혼자 말처럼 중얼 거리며 씻어내기 작업을 마친 이관섭은 논마다 약을 살포하고 논두렁에서 나온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이관섭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잠들어 버린다. 가을의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검은 톨이 많은 벼가 되어 추수 때 몹시 걱정을 했으나 일반품종(재래종)보다 월등한 수확으로 단보 당 15가마(벼)가 나와 재래종보다 9가마나 더 생산되었다.

"뭐야 9가마나 더 나왔다고?", "예.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는데요.", "네이 녀석! 늙은 아비를 놀리는 거냐?" "정말입니다." 흉보던 부락민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아이고. 수고 많네. 통일벼가 좋기는 좋구먼.", "하하. 아저씨들도 한번 심어 보셔요."

"다음해는 심고말고"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관섭을 흉보던 부락민들이 태도를 바꾸고 관섭이가 말하는 새로운 영농지식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여러분! 통일벼로 식량이 증대되면 작게는 우리 마을 호당소득을 높이는 일이며 크게는 국가를 위해 애국하는 길입니다.", "여태까지 원조 받던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국가적 사업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허어. 그 말을 듣고 보니 어깨가 무거워 지는데." "음…"

1973년! 이관섭은 대대적으로 통일벼심기 운동을 벌이며 생산량 증대를 위해 모든 정성과 연구를 거듭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논을 돌보며 영농지도를 해주었는데 그해따라 대풍이 들어서 72년도 수확량을 초과하는 1단보당 16가마반을 생산했으며 이관섭을 따라서 전주민이 통일벼를 심은 덕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 호당소득이 백 만원으로 뛰어 오르자 모두 싱글벙글하는데 지도소에

서 나온 전문가가 이관섭의 수확량이 높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내년에는 다수확 신청을 해 보셔요.", "남들에게 비웃음이나 사려고요.", "아니오. 이만한 수확량이면 희망이 있소. 다음해는 좀 더 분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국 증상기록에 도전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통일벼의 다수확 생산은 가장 큰 매력 있는 일이었다.

"통일벼를 심어도 이관섭의 수확량만큼은 미치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야 논농사의 귀신이야 귀신."

1974년! 통일벼에 대한 매력은 습답과 건답 지역까지 벼를 심게 되었으며 여러 건답 농가가 다수확시상을 받게 되었다. 이관섭은 부락에서 제일 많은 논을 가지게 되어 논40마지기 밭 5,000평, 상전 1,400평을 소유하게 되고 마을 주민들은 통일벼와 이관섭의 영농지도로 차츰 생산량이 높아져 호당 소득이 일백일십만원으로 올랐다. 주민들은 이관섭의 말이라면 관심을 갖고 따랐는데...어느 날 주민 여러 사람이 찾아와 "우리 부락에서 여러 사람이 의논한 일인데 말이여", "우리 마을이 발전하고 혁신이 되려면 아무래도 자네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어야 겠구먼", "그런 말씀 마셔요. 나이도 어린 제가 어떻게...", "아니여! 우리 부락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고.", "생각할 시간을 주셔요."

다음날 이장 집에서 마을 총회가 열리자 "이장! 발언이 있습니다. 이관섭씨를 새마을지도자로 추천합니다." "찬성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 제의한 새마을지도자 선출에 이의 없습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이관섭씨각 새마을지도자로 선출 됐습니다.", "관섭이 한마디 하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항상 충고를 아끼지 말고 이끌어 주십시오.","타 부락에 손색이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도 급선무이겠지만", "보다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높은 소득만으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면 · 자조 ·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이 생활화됨으로서 우리 마을의 소득증

대는 더욱 큰 결실을 맺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새마을정신으로 협동 단결해서 다 같이 행동하면 보다 큰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옳소.", "우선 첫 번 사업으로 마을 안길부터 확장공사를 해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 "뜻은 좋지만 상당한 인력과 자금이 필요할 텐데 가능 하겠소?", "어렵게 생각할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주민 각자가 하루 3시간씩 틈을 내어 삽과 괭이를 들고 나오십시오.", "다 같이 모여서 일하면 마을안길 확장은 정부지원 없이도 가능 합니다.", "옳지! 그거 좋은 생각인데."

길 확장에 따른 도면을 작성 하다 보니 길에 저촉이되 어 담을 헐어야 하는 집이 큰 문제였다. 이관섭은 이장과 함께 담이 저촉되는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고 양보를 하도록 설득했으나 "뭐요? 담을 헐으라고?" "마을 전체를 위해서 조금만 양보 하시면..." "듣기 싫소. 재수 없는 소리 말고 썩 가시오!" "아저씨! 흥분 하실 게 아니라." "안 돼! 무조건 안 돼!", "땅 한 평이라도 늘리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데 두 눈을 멀건이 뜨고 금쪽같은 땅을 잃어버리란 말이오?" "아저씨! 다른 마을들은 다 협조가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면.." "그럼 그 마을에 가서 하시오. 난 못하겠소." "그런 소리 하려면 당장 나가시오."

처음은 말도 제대로 못 붙이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도저히 어렵겠는데요."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관섭은 두 눈을 꼭 감고 반대가 심한 집마다 매일 찾아가 호소를 했다.

"그 양반 지독하구먼. 또 왔소.", "예. 매일같이 오다보니 정이 들어서요.", "하루도 안 와보면 섭섭한걸요." "쳇!", "하하하! 아저씨 부탁 합니다." "쳇!"

"좀 물어봅시다. 당신에게는 아무 소득도 없는 일을 뭐 하려고 열을 내며 쫓아 다니시

오." "소득이 없다니오?" "길이 넓어지면 외관상도 좋지만 마을 안길까지 차가 들어오면 농산물을 지게로 져 나르던 수고가 덜어지니 얼마나 편리 합니까?"

"그...그건 그렇지만..", "국가가 발전하려면 도로부터 넓혀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알았소." "나도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시오." "감사합니다.", "참 그 양반 끈질기구먼. 네발 들었다니까. 하하하.", "감사합니다."

이집 저집에서 담을 양보하자 주민이 총동원된 마을 안길 확장공사가 본격화 되었는데 마을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를 해서 놀부라고 불리우는 할아버지네 집이 끝내 말썽이었다.

"주민들이 모두 협조하는데 어르신네만 우겨서야 되겠습니까?", "좌우간 나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할아버지.", "내담을 건들이는 사람은 그냥두지 않을테다." "참~이거"

아예 담 밑에 돗자리를 까고 누워버린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지만 막무가내였다. 보다 못한 건너 집 주민이 자기 담을 양보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500m 확장공사는 매듭을 지었고 차가 마을안길까지 들어오자 온 마을 사람들은 환성을 올린다.

이관섭은 이번 일을 통해서 마을공동기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여러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막걸리 한잔이라도 곁들여 지게 마련이고 기타 경비가 필요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설명을 하고 일일이 돈을 거두는 절차 때문에 일도 늦고 시간 낭비도 적지 않았다. 일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궁리한 끝에 마을 공동기금을 착상!

"마을금고를 설치하고 전주민이 절약 저축하면 그 저축금으로 마을공동 정미소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정미소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마을 공동자금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오." "당장 실천을 합시다."

매 가구마다 1통장 갖기 운동이 벌어지고 저축이 시작 되었으나 정미소 운영자본이 모자라 농협으로 부로 융자를 받게 되었다. 정미소가 가동되고 1년이 되자 상당한 흑자를 올리게 되었으며 그 이익금을 모아 무엇보다 시급한 전기가설을 하기로 했다. 문명의 빛이 이곳 벽촌에도 밝혀지고 등잔불 퇴치는 이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 생기가 넘쳤다.

설득으로만 따라오던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을 피부로 느끼고 생활과 연관되자 자발적인 동조자로 바뀌고 마을총회에서는 마을발전을 위한 제의가 다투어 상정된다. 여러 가지 새마을 사업계획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주민의 총동원으로 하수구 700m가 정리되고 이어서 담장개량이 착수 되었으며 그에 따

른 환경정리는 물론 변소개량과 지붕개량도 시작되었다.

"지붕이 개량되면 썩은 짚이 논밭으로 가서 거름이 되고 곡식도 잘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구먼." "하하."

돈 때문에 지붕개량이 어려운 집은 마을공동기금으로 협조해주어 신축할 집만 빼고는 42호 전 가구가 지붕개량을 완료했다. 타 동리에서 다니러 왔던 사람이 깜짝 놀라다.

"어..." "내...내가 잘못 찾아왔나?"

남자들에 의해 새마을사업이 척척 진행되자 부녀자들도 질 수 없다고 팔소매를 올리고 이관섭을 찾아왔다.

"이씨! 우리라고 새마을운동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소 잉!", "하하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녀회를 조직하도록 하십시오."

이관섭의 지도로 부녀회가 조직과 동시에 부녀회장을 선출하고 부녀회는 절미운동을 실시하여 쌀 두되씩을 수시로 모으는 한편 부녀회 구판사업을 벌여 주민들은 생필품을 싼값으로 구입하니 좋아지고 팔아서 남는 이익금으로 공동기금을 늘리게 되었으며 부녀회는 절미저축과 구판장이익금 저축으로 수도시설을 목표로 하고 뛰었으며 주민총회 의결에 따라 마을회관이 건립되고 앰프시설을 갖추므로 건전한 노래보급은 물론 소식전하기 사람 찾기 등 주민총회 때마다 일일이 소집을 알리러 다니는 불편이 덜어지게 되었는데 새로 지은 마을회관에서는 연일 심각한 주민총회가 열띤 토론을 벌이며 개최되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상 때부터 내려오고 있는 좁은 농로 때문에 농산물 운반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농로를 넓히고 경운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무질서한 농로를 정리해서 생산효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말이야 좋지만 농로를 넓히려면 논이 침해를 당한단 말이오." "내 논은 한 치도 양보를 못하오." "난 찬성이오."

피해를 입게 될 논 주인들이 저마다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났으나 지금까지 해 온 새마을운동을 여기서 좌절시킬 수 없다는 설득과 마을여론에 굴복!

농로개설과 농로정비가 시작되었는데 "이놈들아 안 된다 안 돼!", "이크! 놀

부 할아버지다." "골치 아프게 됐는데", "내 논은 손끝도 건드리지 마라." "할아버지! 진정하셔요."

"마을을 위해 모두가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내가 손해 보는 일은 안 된다고." "할아버지!", "듣기 싫어. 이쪽은 내 땅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정말 이러시깁니까?", "마을발전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소." "뭣이라고?", "그래 해봐라. 나를 어쩔 셈이냐?" "말할 것도 없어요."

흥분한 마을청년이 참다못해 논으로 뛰어들어 곡괭이질을 하자 "네 이놈!" "이거 놓으시오." "놔요." "아이고! 이놈 봐라." "자네가 참게 노인과 싸울 수야 없는 일 아닌가?" "어휴." "아이고! 젊은 놈이 사람을 친다." "영감님! 진정하셔요. 치긴 누가 칩니까?" "아이고." 할 수 없이 할아버지네 농로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른 농로만 개설했으며 농로정비도 마무리를 짓게 되자 이어서 마을공동소득사업이 토론된다. 마을공동 자산으로 황무지 4,000평을 개간하기로 하고 전 주민이 삽과 괭이를 들고 불모지 작업에 들어갔다.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파헤친다. 석회를 뿌린다. 비료를 준다. 땀과 정성으로 옥토를 만든다. 이곳에서 나오는 수확은 연 수입 3백만 원에 이를 것이며 소득은 마을발전을 위해 보다 큰 복지사업에 투입 될 것이다. 1975년! 통일벼 증산과 담배 인삼 등의 부업으로 호당소득이 일백이십칠만원으로 향상되면서 경운기와 텔레비전 안테나가 눈에 띄기 시작했으며 새마을지도자 이관섭의 75년도 쌀 증산기록은 1단보다 700kg을 달성함으로써 면 증산왕에 뽑혀 농수산부 장관상을 타는 영광을 차지했으며 한동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조차 몰라서 수소문하던 아버지 소식을 듣고 가족회의 끝에 가족보기 부끄러워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모셔오기로 되었다. 사실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 아버지가 가장 무서운 채찍이었고 선생님이었다. 의정부 시청 앞에서 아버지를 만난 이관섭은 늙어서 작아진 아버지의 손을 꼬옥 잡았다.

"나를 용서해라. 이제 남은 여생은 누구 못지않게 너를 돕겠다." "아버지!"

눈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지난날을 참회하려는 듯이 아들보다 부지런히 농사를 돌봐주셨다. 이제 가정의 행복도 되찾고 쌀 생산량만도 년 200가마를 넘어서는 부농이 되자 사촌이 중매를 서겠다고 의향을 떠보러 왔다.

"이제 집안도 자리가 잡히고 경제기반도 원만하니 결혼을 하지 그래", "글세. 날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까?", "그게 걱정스러우면 시험 삼아 선을 볼래?" "하하."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결혼을 더 미루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다. 드디어 선보러 가는 날이었다.

"오빠! 그 옷을 입고 그냥 갈거예요?", "뭐가 어때서 그러냐?"

몇 번씩이나 꿰맨 누더기 작업복을 입고 맨발로 신부 집을 따라갔다. 이관섭을 본 신부감 어머니가 몹시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모르는척하고 절을 한다. 신부감 입장! 태연한 태도를 하고 있었지만 총각 가슴은 설레이고 있었다. 상상보다 예쁜 처녀였다. 아...아니 예쁘기다 보다는 첫인상이 평소 그리던 여성성과 일치하고 있었다. 물론 집의 식구들이 바라고 있던 그런 여인상이었다. 이관섭의 엄숙한 첫마디가 떨어진다. "재...재봉을 잘 하십니까?" "?" "?" 신랑의 몰골도 엉뚱한데 질문도 엉뚱하니 신부 집에서 당황하기만 했다. "우...우리집은 떨어진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말입니다." "호호."

장모님이 이상하게 웃었다. 신부감 얼굴은 보이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너무 말끔한 신랑감 보다는 어딘가 엉뚱하면서도 깊이가 있어 보이는 이관섭의 행동이 마음에 들었던지 그 후 두 남녀가 자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다른 연인들처럼 달콤한 대화가 오고간 것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투지에 불타는 한사나이의 이상과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힘껏 도와 드리겠어요. 힘껏!"

그해 3월9일 농업협동 조합장의 주례로 이천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였으며 아내의 내조로 "십년고생" 목표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된 이관섭은 1976년 보다 높은 생산량을 목표로 그동안 심어오던 통일벼대신 유신 벼를 심었더니 그해 수확량이 1단보 당 792kg을 상회함으로써 군 증산왕으로 뛰어 올랐고 경기도 2위를 차지하게 되어 경기도지사 상을 받는 또 한 번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마을도 유신 벼 증산으로 호당소득이 일백사십만원으로 뛰어 올랐고 근검절약의 새마을정신으로 저축도 높아져 타 부락에 모범이 되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대통령각하 하사금을 받게 되었다.

주민들은 부락기금과 합해 숙원사업이던 저수시설을 하기위해 주민이 총동원!

보를 쌓는 대대적인 공사가 희망에 부푼 주민들의 열의로 몇 개월의 역경을 극복하고 완성을 목전에 둔 어느 날 집중호우가 연일 쏟아지더니 장마가 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범람하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보를 터뜨렸다. 주민들이 한때 실망으로 주저앉았으나 하면 된다는 단합된 새마을 정신으로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 저수시설이 완공되자 가뭄에도 물 걱정을 않고 제때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됐으며 그물이 천수답고 밭을 논으로 만든 곳까지 흘러가 주민 모두가 새마을운동에 또 한 번 감사해 마지않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쌀 한 톨이라도 더 증산하려는 새마을지도자 이관섭은...

"올해 전국 증산왕 기록이 1단보 당 845kg이었으니까 내 기록과는 불과 45kg의 차이가 아닌가?"

최소한 45kg을 더 증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관섭은 과감히 밀양23호를 심기로 작정하고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새로 개간한 땅을 택해 모를 심기로 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논에다 벼를 심어도 걱정인데", "글세 말이야.", "여보게! 자네 제정신인가?" "두고 보게."

한 번도 모를 심지 않았던 땅이라 흙속에 양분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것을 노린 것이다.

지력증진을 위해 퇴비를 많이 넣는다. 잡초 썩은 풀등 여러 가지를 1단보 당 1,800kg 계분 잠분 붕사 들깨 묵을 1,200kg 다음 객토는 붉은 산 흙을 12.5톤이나 지게로 져 나르고 토양 개량제는 규산질 200kg, 용성인비 60kg, 용과린 20kg을 골고루 흙과 배합시킨 다음 심경은 깊게 28cm 햇빛과 통풍이 잘되도록 남 · 북간으로 골을 냈으며 모내기는 평당 백주를 심기로 하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모줄 대신 각목을 이용하고 모는 얕게 심었다. 비료는 1단보다 ①밑거름-복합(22-22-11) 40kg 염화가리 10kg ②가지거름-요소 10kg ③추비-염화가리 4kg ④이삭거름-요소 7.5kg 염화가리 6kg ⑤알거름-유안 10kg을 시기에 맞춰 사용하고 제초는-이양후 37일 만에 2 · 4-

D(무효분일)를 뿌렸으며 흰빛 잎 마름 병과 문고병방제에 치중 하면서 이화명충 멸구류 방제를 위해 담당지도소의 조기예찰로 병충해 발생통보를 빨리 받고 사전예방을 위해 병충해 방제로 농약을 13번 살포했다. 피와 잡초는 자랄 틈이 없게 수시로 뽑아준다. 물 관리는 제일 신경을 많이 쓰게 했는데 처음 짓는 논이라 수리시설도 불안전하고 습답 이어서 모심고 일주일간은 모키에 ½정도 물을 대주고 한달 후는 실금이 가도록 중산 낙수를 했으며 이삭이 생길 때하고 이삭이 펼 때는 물을 3cm정도로 대주고 그 외 기간은 토양 습도만 유지되는 진밭 상태로 유지 시켰다. 그리고 기타 관리는 농약을 뿌리거나 비료를 줄 때 반드시 지정된 골로만 통행하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 온 정성을 다해 키웠더니 황금물결이 일기 시작 하면서 이삭위로 30cm이상 잎이 올라간 벼가 되었다. 가을 추수 때가 돌아오자 다수확신청에 따라 지도소전문가 입회하에 탈곡을 했으며 그 후 지도 소장에게 수확량을 알아보니 898kg이라고 하며 "전국적인 심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만하면 가능성이 있소." "허우리 면에서 증산왕이 나오려나." 1977! 마을호당 쌀 증산은 전년도보다 높아져서 부업인 담배재배와 인삼재배 수입까지 합해 호당 평균소득이 일백칠십만 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매년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주민 자산도 늘어나서 이제는 매가구당 평균 논 4,000평과 밭 2,000평을 소유하는 부농가가 되어 지붕마다 텔레비전 안테나가 즐비하고 가정마다 문화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자전거, 오토바이는 물론이거니와 경운기가 15대에 마을금고저축이 삼백만 원 마을공동정미소 공동논, 밭이 4,000평. 마을회관에는 문학지를 비롯해서 영농 전문서적 등이 500여권이며 부녀회 쌀 저축이 100여 가마에 이른다. 이제 이 마을주곡 총생산량은 무려 1만1천 가마에 육박함으로써 국가적인 염원인 주곡 생산량초과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72년 12월9일! 이관섭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전국증산왕으로 뽑혀 대통령각하가 친수하는 산업은탑 훈장을 받는 생애 최대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관섭! 그는 맨주먹으로 흙을 파서 기적을 이룩한 사나이다.

그는 이제 논 8,400평과 밭 6,000평 산 4,000평을 소유한 5천만원대의 자산가로 성공을 했으나 길을 지나가다가도 벼삭 한 톨 줍고 아끼는 사람이다.

떨어진 옷을 꿰매 입고 하루 두 끼를 국수로 때우는 이관섭이지만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대어주고 있다.

돈을 아끼는 것은 가장 바른일 가장필요 할 때 필요한 만큼 쓰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이관섭은... 가장 인간답게 살다가 죽겠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성공사례 강연을 위해 75년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75년 농수산부 공무원 교육, 75년 신성 통상원, 76년 대한 방직, 78년 장호원 중 고등학교, 78년 농촌진흥원, 78년 시민회관 증산 대회 등을 통해 자신의 체험을 했고 수천 명 관중에게 연설을 시상은 새마을 표창(군수), 75년 2월 1일 새마을 소득 표창(군수), 75년 7월 15일 농수산부 장관상(면 증산왕), 76년 12월 9일 경기도지사상(증산왕 2위), 76년 4월 1일 은탑산업훈장(전국 증산왕), 77년 12월 10일 장학생도운 감사장, 78년 1월 16일 현재는 경기도 명예 참사며 리 개발위원인 이관섭은 두 아들 기웅(3세)군과 홍일(2세)군의 자상한 아버지로서 후손의 나태를 일깨워 주기위해 자신이 입던 누더기 옷을 보존, 상자 안에 넣어 뒀는데 그 옷은 4~5번이나 꿰매고 나중에는 더 기워 입을 수 없을 때까지 입고 누더기 작업복이다. 성공이란 시련이 단계적으로 쌓일 때 이루어진다는 신념의 이관섭은 그의 가훈도 그의 생활과 일치하고 있었다.

마음은 인간다워야 하고 정신은 의지가 있어야 하고 노력은 한 우물을 파되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인다. 새마을 운동이야 말로 증산과 소득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면에서 생활화 한다. 불과 8년 전만해도 호당소득이 심여만 원 안팎이던 석산1리가 이제는 지난날의 가난을 뛰어넘고 새마을사업으로 개량된 주택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오직 맨주먹으로 일어선 이관섭의 불굴의 증산 정신이 남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으로 마을 역사를 바꾼 것이다. 이제 석산1리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의 가치아래 굳게 단합하여 1978년도 호당소득 이백만원을 초과 달성하려고 희망에 부푼 일손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부녀회 절미 저축 목표달성으로 수도시설이 착공되었다. 이제 석산1리는 보다 높은 마을 소득 향상을 목표로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한우비육 사업인 목장건설을 위해 공동 정미소로 흑자금과 공동 논밭 수입은 물론 마을금고 저축금 청년단 기금을 통합해서 자금을 여축하고 있는 이사업이

추진되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79년도에는 호당 소득 이백사십만 원으로 뛰어 오르게 될 것이며 일부는 장학금 기금으로 운동장 시설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석산1리 주민들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무장되어 불철주야 주곡생산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국가가 요구하는 증산의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오직 그길 만이 80년대 국민소득 2,000불 달성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오직 이길 만이 조국통일의 지름길임을 굳게 믿고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새마을운동의 밑거름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 성공사례(만화) : 부부새마을지도자, 1979

억센 금순이

김포군 하성면 후평1리
부녀지도자 허 금 순

이 사례는 경기도가 1978~1980년에 도내 새마을사업추진 우수지도자를 발굴하여, 그 성공사례를 만화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보급하였던 것을 다시 글로 풀어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저는 김포군 하성면 후평1리 부녀 지도자 허금순입니다. 별로 자랑할 만한 일도 못한 저의 성공사례가 출간되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저의 고향은 전남 나주 토계리 입니다. 중농의 가정에서 허길남씨의 장녀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났습니다만, 4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병치레로 가산이 기울었으며, 저의 운명을 어둠 속에 몰아 몰아넣은 것은 중학교 1학년을 다니던 14살 때 였습니다.

"남의 시험지를 엿보는 학생은 퇴장 시키겠다.", "휴", 평소 땡땡이치던 여학생들의 한숨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간간히 새어 나올 뿐... 학기말 고사를 치루는 교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한데... "누나! 누나! 으앙", "깜짝!" "금순아! 네 동생이다.", "아니? 쟤가...", "엉엉, 엄마가 밭에서 지게 지다 쓰

러 지셨어.", "뭐라고? 엄마가!", "이 녀석아! 시험 치다 말고 가면 어떡해?" 저는 선생님에게 말씀 드리는 것도 잊고 정신없이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삼남매를 키우시느라고 농사일과 품팔이로 지나친 고생을 하신 어머니가 그동안 숨기고 참아 오던 병마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저는 고열로 신음 하시는 어머니 간호로 밤을 새웠으며 어린 두 동생(7세, 4세)을 데리고 농사까지 짓는 가장이 되어 학업을 중단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큰 걱정은 약값 대는 문제였습니다.

"금순아! 또 곡식 팔러 읍에 나간 다냐?", "예! 약이 떨어 졌어요.", "쯧쯧... 어린것이불쌍도 하지.", "흑흑 어쩌면 좋담! 이제는 팔 양식도 없는데 엄마 병환은 차도가 없네." 생각다 못한 저는 이웃 마을에 사시는 큰 아버지 댁을 찾아가 손바닥만 한 논, 밭이나마 팔아 달라고 울었습니다. "글세... 네 효성은 갸륵하다만 논 밭떼기만 날라 가고 네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하면 남은 너희들은 뭘 먹고 살라냐?", "엄마가 돌아가시면 저도 죽을 랍니다." 몇 평 안 되던 논밭이 하나 둘 줄어들고 20리 나 떨어진 읍내병원으로 눈발을 헤치며 동동걸음을 치기도 여러 번! 남들이 정월 대보름이라고 널을 뛰며, 달구경과 불꽃놀이로 밤새워 놀던 날이었습니다. 배고프다고 보채던 동생들이 기진해서 잠이 들었는데... "금...금순아! 동생들을 부...부탁한다.", "어...엄마!", "엄마아! 죽으면 안돼! 으흐흑", "갑자기 웬 곡성이여?", "금순이네 집이다. 가보자!", "아저씨! 아줌마!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엉 엉" 이웃 도움으로 장례를 지냈으나, 저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자, 자! 동생들을 봐서라도 그만 진정하고 내려가더라고.", "으앙" 고아가 된 우리 삼남매는 당장 먹고 살길이 막연했으며, 막내 동생은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삼남매가 부둥켜안고 울음보를 터뜨렸고 울다 지치면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과 굶주림으로 방황하던 저는 남은 가산을 정리해 가지고 의지할 곳을 찾아서 어린 두 동생을 끌고 원주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곳은 군에 계시던 오빠 댁으로 찾아가 눈칫밥을 먹으며 얹혀살다가 오빠 소개로 과자 공장에 취직한 후, 엄마 대신 어린동생들을 키웠습니다. 막내 동생이 8살 되어서 일산 초등학교에 입학도 시켰는데, 제가 다니

면 과자공장이 망하는 통에 그나마 연명하던 생계 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쟤네들을 먹여 살려요.", "쉬 쉬 알았다니까.", "금순아! 내일 당장 고향으로 내려가라! 제발 부탁이다.", "오빠..." 저희들은 쫓겨나다시피 고향으로 돌아와 남의 소를 먹여주고 품팔이도 했습니다만 먹을 것, 입을 것도 어려웠습니다.

"형! 쟤가 나보고 거지래.", "저 자식이..." 저는 모진 결심을 하고 큰 아버지 댁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당분간만 동생들을 맡아 주시면 원주로 가서 취직을 해 보겠어요.", "오냐! 나도 쪼들리는 형편이지만 빨리 돈 벌어 떳떳이 살아보자.", "누나! 같이 가, 나도 갈래. 엉 엉", "곧 데리러 오마.", "누나야아!" 죽을 듯이 울부짖는 막내 동생을 뿌리치고 기차에 오른 저는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촌 오빠 댁에서 달포 가까이 냉대를 받으며 직장을 구해봤으나, 취직을 못하고 초조하던 중, 삼척에 사는 사촌언니가 일할 사람을 구한다기에 찾아갔습니다. 새벽 5시에 먼동이 트기 전에 부엌일을 시작해서 밤12시가 가깝도록 온종일 손톱이 닳도록 바쁘고 고된 일을 하였습니다. 논두렁위로 피눈물을 뿌리며 뛰었습니다. "뿌욱" 무작정 서울행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니나노 닐니리야", "금순아! 싸게 와서 한잔 따루더라고 잉!", "아이고! 그럴 아이가 아니락카이.", "그랑께 딱 한잔만 따르라고 하질 않소.", "뭐하노? 퍼뜩 오재!" 그러니깐 3개월 전, 서울역 광장에서 갈 곳이 없어 서성거리다가 어떤 친절한 아주머니 소개로 이곳 식당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손님들의 시달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22세 되도록 꿈 많고 예쁘던 소녀 시절도 모르고 시들어 가는 생각을 하면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봐! 색시! 동생들은 위해서라도 차라리 시집 가는 게 어떻수?", "어머! 제가 무슨.."

식당에 자주 놀러 오시던 근방 아주머니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 김포군 하성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말만 들은 김용주라는 분이 살고 있는 오막살이 문을 열자, 저는 가슴이 설레고 부끄러웠습니다. 건강한 남자 등 뒤로 어린 두 딸(2세, 5세)이 말끄러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부부간에 뜻이 맞지 않아 이혼한 후 술타령과 방탕으로 살림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어린 두

딸을 보자 동생들로 해서 울고 산 제 신세와 흡사해서 그런지 실망보다 다정감이 앞섰으며, 부모 없는 설움을 뼈저리게 느낀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어요?”, “좋소! 다 떨쳐 버리고 새 출발 하리다.” 맨 주먹 뿐인 우리 부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성황당 옆 흉가 집을 외상으로 사서 정착했는데, 이곳 김포군 하성면 후평1리는 북괴의 스피커 소리가 들리는 적 가시지역으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만, 저와 남편은 서로 위로해 가며 남의 콩밭을 매어 주기도하고 집안일을 거들어 준 대가로 허기진 배를 보리죽으로 연명하기도 바빴습니다. “허참! 이러다가 몇 백년이 가도 농토 마련은 꿈도 못꾸겠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개펄을 개답 해봅시다.” “개답?”

마을 앞 300m 떨어진 곳에 임진강 하류와 한강상류가 합류하여 밀물과 썰물의 차가 몹시 심한 곳에 예부터 밀물이 휩쓸어다 모아 논 강변 갈대밭을 개답하기로 의논하고 새벽 일찍부터 어린 두 딸을 업고 가서 논 뚝에 내려놓고 갈대를 깍았습니다. 남들이 미친 짓이라고 비웃든 말든 남편은 등허리에 멍이 들도록 지게를 지고 흙을 운반했으며, 저는 손마디마다 물집이 생겨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처음 하는 고된 노동을 잘 참아 주었습니다만, 배고파 우는 딸을 등에 업고 갈대를 깍던 저는 너무 허기가 져서 낫자루를 팽개치고 울 때도 많았습니다. “개답지에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 뭘 먹고 산담!” 서울서 식모살이하며 저축했던 약간의 돈을 찾아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앞산에 군부대가 있었고 마을에는 다른 구멍가게가 하나뿐이어서 생계에 도움이 되었으며 개펄을 개답한지 2년 만에 3천 평의 논을 일구어 모를 심었습니다만, 장마가 져서 몇 번이나 밀물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연구 끝에 논 밖으로 큰 뚝을 쌓아서 밀물을 막자 “어라라! 버려진 땅에서 진짜 곡식이 나네여.”, “저런!” 비웃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개간지로 달려갔으나 너무 힘들어 중도에서 포기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여보! 조금이나마 생활기반이 잡혔으니 당신 동생들을 데려오지.”, “고...고마워요.” 고향에 연락하니 둘째 동생은 앓다 죽고 막내 동생이 서울서 고생한다기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동생과 집으로 돌아오면

서 처음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렸으며, 노력의 대가를 알게 된 저는 이웃이야 어떻게 되던 그저 농토 확장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1970년! 새마을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장님이 웬 일이셔요?", "허허... 상의할일이 있는디...", "그동안 두 분이 보여준 개척정신은 우리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소. 그래서 말인데.., 우리마을을 위해서 일 좀 해주시오.", "아유 그럴 여유가 있나요 뭐!" 1971년4월1일. 우리 부부는 이장의 권유에 못 이겨 군에서 열린 새마을전진대회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이웃과 협동하면 서로가 잘 살 수 있으며 혼자 하는 노력보다 성과도 높고 성공도 빠른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강연을 듣고 그동안 혼자만 잘 살겠다고 발버둥친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주먹구구로 무작정 살아 왔던 저는 새마을운동이야 말로 참된 인간의 삶의 방법임을 깨닫고 눈앞이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돌아오는 길에 의논한 결과 남편은 새마을지도자로 자원하고 저는 부녀지도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곳에 이주 한 후, 처음으로 마을 실태를 둘러보니 농가 97호와 비농가 23호로 총120가구에 약간의 인삼재배 수입 외에는 71년도 호당소득이 불과 25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회지로 빠져나가고, 태반이 중년 이상이었으며, 대대로 내려온 좁은 농토에 매달려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 노력은 하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만 부러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일깨워서 꼭 부자마을을 만들어야지!" 저는 비 오는 날을 택해서 부녀회를 구성하려고 집집을 방문하고... "여자들이라고 못할게 뭐 있겠어요. 모두 힘을 합친다면...", "호호 한가한 소리 하시네.", "아주머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바쁜 사람 잡고 왜 이래요?", "쳇! 언제 봤다고 건방지게 떠돌이들이..." 빈정대거나 욕을 하거나 모두 내 정성 부족으로 돌리고 몇 번씩이나 같은 집을 찾아가면... "우리 엄마가 없다고 그러래요.", "뭐?", "엄마아! 갔어! 잘했지?", "이 밥통아! 밖에서 듣겠다.", "으앙" "저 여편네 뭐가 잘 났다고 저러고 다니지?" "나 원 아니꼽게 시리" 구박을 받으면서도 없는 돈에 과자를 사들고 반대하는 집 아이들 손에 들려주는 애교작전도 동원했는데, "아이고! 내가 못 당한다니

까.", "호호 그럼 회원에 가입하시는 걸로 알겠어요." 이런 저의 정성을 오히려..."돈도 많군!", "흥! 뒷구멍으로 생기는 게 있나보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한바탕해대고 싶었지만, 그들의 무지를 동정하고 "언제인가는 이해해줄 날이 오겠지." 저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긴 설득작전으로 겨우30명의 젊은 부녀자와 노인들로 부녀회를 구성하고 이장 집에 모여서 총회를 열고 미숙한 제가 회장에 뽑혔습니다. "우리 부녀회가 활동하려면 자체기금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마다 매월 300원씩 현금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니 하루 1홉씩 절미 저축해서 기금을 마련합시다.", "찬성이요!", "엄마!" 새마을 가꾸기 1차 산업으로 회원들이 한참 토론중인데.. "엄마! 큰일 났어! 아빠가 빨리 오시래요.", "에구 화가 많이 나셨니?", "응! 여자가 밤늦게 나다닌다고 호통이셔.", "아이고오 난 몰라!" 철이 엄마가 당황해서 나간 다음, 이번에는... "이봐!", "밥상 안 차리고 거기서 뭐하는 짓이여!", "예예 곧 가요." 몰이해한 남편들도 많아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여러 번! 여러 가지 난관으로 낙담할 때면 같은 새마을 지도자로 고충이 많은 남편이면서도 저를 따뜻이 격려해주었습니다.

"여보! 무슨 사업을 먼저 해야 좋겠어요?" "마을에 도움이 되고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해봐요." 드디어 부녀회의 1차 사업으로 마을 한복판에 있는 정자나무에 축대 쌓는 작업을 시작하고, 비가 와서 일 못하는 날마다 전회원이 돌을 주워 모은다. 산에서 돌을 캐어 일일이 머리위로 여 날랐습니다. "아주머니! 겨우 그걸 들고 쩔쩔 매십니까요?", "쳇! 큰소릴랑 말아요.", "댁은 들지도 못하실 텐데요.", "우헤헤...좋소! 거기 내려 노시오!", "이 정도야 한손이면 족하죠.", "호호...", "덕분에 쉽게 운반 했습니다.", "뭐요?" 나무 둘레 40평방미터에 높이 2m의 축대를 쌓으니 노인들의 유일한 휴게소와 어린이 놀이터가 되었으며, 부녀회의 여름밤 회의장소도 되었습니다. 이어서 2차 사업으로 약 1500m나 되는 마을 안길에 코스모스도 심었습니다. "히야! 이거 꽃길이 됐구먼.", "마을이 밝아졌어. 그 참! 부녀회도 제법인데, 그려" 3차 사업으로는 1,000평이 공동답을 일구었습니다. "치맛바람이 무섭다야!", "젠장! 남자가 져서 되갔서? 이거!" 그 바람에 남편이 추진하는 새마을사업에 발 벗

고 협조하는 남자들이 늘어났으며, “여보! 저 부녀회에 가입하러 가요.”, “어라라 반대만 하던 당신이 웬일이요?” 회원이 늘어가니 부녀회는 더욱 단합했으며 회원일동이 남의 밭을 매어주고 품삯을 받아 기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이렇게 부녀회가 잘 운영 되자 저는 회의 때마다 소득 증대를 위한 개간사업을 권장했습니다. 군청에서도 개간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밀가루 배급도 주고 포크레인도 보내어 강변 갈대밭이 20헥타의 농토로 변모하고 72년도 호당소득이 48만원으로 증대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별것 아닌디…”, “암! 같은 노력이라도 머리 쓰기 달렸더라고.” , “나는 거..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무슨…요상한 체조 같은 건줄 알았다구요.”, “이제 보니 그게 아니더구먼”, “하모”, “아이쿠! 벌써 다 모이셨군요.”, “회장이 늦게 나와서야 쓰겠우?”, “호호… 제가 늦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찍 나오셨어요.”, “참!”, “오늘은 좀 심각한 의논을 해야겠어요.”, “금년부터는 일반미 농사대신 통일벼로 바꾸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구매! 대대로 내려온 일반미가 제일이재”, “통일 쌀은 값도 헐쿠 처음하는 농사라 위험해요.”, “호호 수확량이 배나 가까이 되니까 수입은 늘 꺼예요.”, “글쎄…”

온 동리가 통일벼로 논쟁을 벌였으나, 저와 남편의 꾸준한 권장으로 120가구 중에서 80여 가구가 통일벼를 심게 되었으며, 그동안 회원들이 한 수저 덜 먹고 절미 저축한 자금과 품삯을 계산 해보니 8만49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회원들의 가계를 돕기 위해, 73년 5월20일 이장네 사랑방을 빌려 구판장을 열고 한 달에 3천원을 주기로 하고, 동리아가씨를 점원으로 채용했는데, “얘! 줄칼 한 자루 다우.”, “큼직한 솥은 없냐?”, “그…그런 건 없는데요 어쩌나!” 워낙 소규모라 물건을 고루 가추지 못해 그냥 돌아가는 주부가 많아서 좀 더 구판사업을 확장하려고 제가 장사하던 구멍가게를… “구판장으로 내놓겠습니다.”, “흥!”, “그 핑계로 남은 재고나 정리해 보잔 말이구려?”, “그…그건 오해입니다.” , “호호.. 누굴 뭘로 취급 하실까? 그 속셈 모를 까봐!” 회의 도중에 몇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저를 보는 나머지 회원들의 눈길이 싸늘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 주세요 시간이 흐르면 제 결백을 아실 테니까 협조해 주셔요." 50여명의 회원들이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돌아가 버렸으며, 저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당신은 더 오해를 받아요.", "알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구판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보이겠어요." 저는 가장 반발이 심한 회원마다 찾아가 성심성의로 설득했으나, "여러 소리 말구 우리가 그동안 내놨던 기금이나 당장 돌려줘요.", "호호..누구 좋은 일 시키려구." 기어이 5명의 회원이 돈을 찾아 탈퇴했으며, 그들은 뒤에서 저를 헐뜯고 또 하나의 부녀회를 만들려고 했으나, 저는 모른척하고 남은 회원들을 설득하고 매일 밤 구판장에 나와 일일 결산을 했는데 공부 못한 회원이 많아서 장부를 이해 못하니 괜히 의심을 살 것 같아 매일 밤 2시간씩 50명의 회원에게 학습지도를 하고, 임신 9개월의 무거운 몸을 끌고 밤12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여보! 문 좀 따주셔요!", "필요 없어! 당신은 이집 식구가 아니야!", "여보!", "밥상도 안치우고 어딜 돌아 다녀! 방구석이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이 몇 시야? 생활도 신경을 써야지!", "여보! 흑흑...",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셔요!" 같은 새마을지도자로 고충을 아는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참다못해 화를 내서 혼이 났었습니다. 우리 부녀회는 새 사업으로 마을금고를 설치하고 2개조로 나눠 매달 1좌 500원을 저축하기로 했으며, 남자들도 참여해서 1년 후, 71만원의 저축실적을 올리고 73년은 통일벼 증산으로 호당소득이 80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그해 겨울...

주민 총회는 농로 확장사업으로 격론 끝에 안건이 통과되어 주민 모두가 작업장에 나와 길을 닦았는데, 그중 몇몇 사람은 강제로 부역 나온 듯이 눈살을 찌푸렸으며, 어떤 날은 한사람도 나오지 않아 남편 혼자 눈을 맞으며 일하기 일쑤였습니다. 밭이 들어가는 동리 아주머니가 끝내 반대해서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으며, 아주 딱한 사람에게는 저희 땅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합의한 집 노인이 "네 이놈! 내 땅은 안된다!", "어... 어...저 노인이..", "이크! 참으시오!" 곡괭이를 들고 쫓아다니며 반대! 뿐만 아니라 성미 급한 박씨가 주먹질을 해서 남편이 안 맞으려고 상대를 밀쳤는데, 잘못 넘

어진 박씨가 “아이고오!” 등허리를 다치자 무조건 저희 집 안방으로 들어와 눕더니 죽는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희들이 잘못 했어요. 치료해드릴 테니 병원으로 가셔요.”, “싫소!” 남편과 저는 큰 죄나 진 사람처럼 밤새 교대로 사정사정해서 겨우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해 드렸는데, 그 통에 친해져서 땅을 희사받기도 했으며, 희비 곡절의 난관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손으로 반듯한 농로가 정비되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한번 태워주셔요.”, “하하…”, “깽!” 우리 마을에도 한 대 두 대 경운기가 눈에 뜨일 무렵에 자전거도 다니지 못 하는 꼬불꼬불하고 좁은 마을안길 확장과 담장개량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담장이 헐리게 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욕설까지 튀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마련한 땅이라고 거저 내준단 말이야?”, “지가 뭔데 남의 땅을 내노라 마라야!”, “마을 안으로 차가 들어오면 농작물 운반도 쉬워져 경제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일없어! 그동안에도 잘만 살아왔는데 무슨 소리여!” 남편은 반대자의 바깥 분을 설득하고 저는 부인들을 맡아서 안팎으로 끈질긴 설득 작전을 전개했으며, 지지하는 회원도 총동원해서 매일같이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진짜 시원하게 탁 트여버렸어!”

“오매 …이게 진짜 우리 동리 맞나?” 드디어 주민들의 총동원으로 5미터의 넓고 곧은길이 환하게 트이고 담장개량 물론 하수구 정비도 완료했습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지붕이나 담장이 조금만 헐려도 저희 집으로 달려와 고쳐 달라고 야단입니다. “갑시다, 가요! 이러다가 직업을 바꾸어야겠소. 하하…” 지붕개량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지붕을 내리면 귀신이 노해서 될 일도 안 되는 거여!” 완고한 노인들은 큰 골치였으나 남편의 정성스러운 설득과 대접에 마지못해 반 승락이라도 했으며 남편은 노인 마음이 변하기 전에 직접 지붕으로 올라가 초가를 헐어 내렸습니다. 얼마 후, 모든 집들이 반듯한 스레트 지붕으로 면모를 바꾸자 불평하던 노인들이 흐뭇해했으며, 저는 남편을 졸라서 경운기에 과자와 음료수를 싣고 운동회하는 학교마다 찾아다니며 파는 극성으로 구판장 자금이 부쩍 늘어나 회원들의 오해도 풀리고 회원

수가 97명으로 늘어났는데 취객이 경운기로 뛰어든 사고가 생겨 10만원의 치료비를 자비로 냈습니다.

"엄마! 자신 없는데…", "잔소리 말고 부락 청소년들을 모아서 4H클럽을 조직 해봐라", "우리 부녀회에서 돼지 세 마리를 사주는 거니까 잘 길러서 기금을 늘려라." 농약도 사다 팔게 해서 독립적인 운영 체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얘들아! 빨리 나와라! 아침마다 마을 청소를 하기로 했잖아?", "어휴 졸려." 하계 퇴비증산으로 도지사님의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북부 6개리가 모여 운동회를 열 때는 "삼삼칠!", "착착착!" 4-H클럽 응원단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부녀회활동으로 마을이 차츰 활기를 띄우자… "쳇! 요즘은 동리 여자들 보기가 부끄러운데", "에에라! 화투가 다 뭐야!", "어떻소? 우리남자들은 친목회를 조직 해봅시다요.", "두말하면 잔소리!" 남자 친목회는 상가 집 일을 봐주고 사례 받는 쌀과 공동 품삯으로 받는 곡식을 모아서, 주민들에게 대여 해주고받는 이자 쌀로 기금을 늘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추수도 끝나고 한가해 졌으니 부업으로 새끼 꼬기 안해 보실래요?", "오매! 진짜 하루 5천원벌이가 되능가?", "헤헤… 올 겨울에는 새끼 꼬기로 50만원을 벌었어.", "여봉~ 나 치마 한 감만~" 집집이 해마다 50만원의 부업소득을 올리게 되었으며 부녀회는 명절 때마다 인근 부대를 위문가기로 했습니다. 74년도 호당소득은 13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부녀회는 새마을 회관건립 자금을 마련코자, 그해 정월 대 보름날을 기해 부녀회 기금으로 상품을 마련하고 척사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표는 한 장에 30원입니다.", "나는 열장 주슈.", "난 다섯 장이요." 남자들 친목회와 4-H 클럽회는 물론 타 동리에서도 70~80명이 참여해서 대성황을 이뤘고, "모다!", "오매! 또 잡혀 버렸네." 윷판에서 표를 많이 딴사람 순위로 5등까지 상을 줬는데 "1등은 전자밥통 타 가세요.", "나요! 나! 이게 웬 떡이냐.", "어머나! 비용을 빼고도 3십만 원이나 남았어요.", "얼씨구~ 좋다", "우리 부녀회 기금에서 2십만 원 보태야 되겠어요." "하모!"

회관 지을 대지를 물색하던 중, 마침 장사가 잘 되는 방앗간 앞에 빈터가 있어서 지주를 찾아가 마을을 위해 희사를 간청했으나 거절당하고 궁리 끝에 살

짝 그 집 며느리를 불러 내서 통사정을 했더니, 젊은 여자라 뜻이 통해 작전을....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졸라서 군청으로 모시고 갔는데, 때마침, 새마을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한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간청에 선선히 땅을 희사 했는데, 뜻밖에..."이것들아! 너 죽고 나 죽자!", "어...어 저 아주머니가..." 방앗간 옆에 있던 구멍가게 주인이 구판장이 생기면 자기네가 망한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이것도 지도자의 길이라고 믿고 참았습니다. 보다 못한 이장이 자기 땅을 희사했으며, 면사무소에서는 새마을양회를 보내 주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비 오는 날이면 모여서 산 밑에 쌓이는 모래와 자갈을 나르고 교대로 공동작업을 해서 아담한 새마을회관을 준공한 후, 구판장을 옮기고 회의장도 마련해서 회의 때마다 남의 집을 돌며 하던 불편을 면하고 이제는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실 분위기가 아주 근사해 졌답니다. 호호... 저는 또 하나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회원들에게 가축부업을 권유하고 우선은 시험사업으로 돼지와 닭을 집집마다 몇 마리씩 길러 사육법을 익히게 했으며, 유휴지 활용으로 농작물 재배 권장이 성과도 커서 75년도 호당 소득이 150만원이 되었고, 76년에는 신품종인 밀양23호로 소출을 높이고 이 고장 특산물인 인삼재배로 77년도 호당소득이 190만원에 이르자 부자 마을 소리를 듣게 됐으며, 전화선도 끌어 들여 10대의 전화기를 가설하였고 우리도 이제는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불이야!" 벙어리 주인이 사는 이웃집에 불이 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고, 면에서 불자동차까지 왔지만, 집이 전소하는 재난이 생겨서 우리 부녀회는 실의에 빠진 이웃에게 옷가지를 거두어 주고 쌀도 한가마를 주었으며 친목회는 3십만 원을 들여서 집도 개축해 주었습니다. 80년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부녀회가 총동원하여 야산 개발에 착수하고 밤나무、사과、포도 등을 심기 시작했으며 새마을운동으로 부지런해진 주민들의 노력으로 78년도 호당 소득이 220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그동안 해온 새마을사업을 총결산 하니, 백미가 107가마, 마을금고 200만원, 절미 저축이 150만원, 구판장 운영기금 260만원, 친목회 공동기금이 100가마를 돌파하고 집집이 사육하고 있는 꿀

꿀이가 150두, 소가 80두, 닭이 4천수, 오토바이 42대, 텔레비전 105대, 전화기 10대, 냉장고 38대, 경운기 82대로 불과 8년 전만 해도 무지하고 가난했던 후평1리가 이제는 새마을운동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고 말끔한 주택에서 문화시설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별로 큰일도 하지 못한 제가 도지사님으로부터 성공사례 자조상을 받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73. 3.27, 군수님 가정의례 준칙상. 75.12.30 면장님 절미상, 76. 1.24 군조합장님 저축상패, 76년 도지사님 저축상, 78. 8. 9 군수님 성공사례 발표상을 받고, 부녀회장에 구국여성 봉사단 부회장까지 겸하였으며 그동안 저의 가정도 살림이 늘어 지금은 9천 평의 논과 3천 평의 밭, 그리고 인삼밭도 있으며, 200평의 대지 위에 산뜻한 한옥을 지었고 학교 다니는 딸들도 실장 · 반장으로 책임을 다해서 행복한 1남 4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가난을 물려 주지말자는 신념으로 마음 속 깊이 더한층 분발하여 8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건강관리를 위한 약방 개설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마을 장학제도를 신설하고 마을 공동 정미소 설립으로 연간 1천 5백만 원의 공동 소득을 높이는 한편 양돈사업 육성과 야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인삼재배를 확대해서 호당소득 3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입니다만, 오직 한 가지! 온 국민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길만이 조국번영의 지름길임을 굳게 믿고 일 하겠습니다.

다. 성공사례(만화) : 농촌남성지도자 1979

광명의 지도자

화성군 팔탄면 노하3리
새마을지도자 홍 성 직

이 사례는 경기도가 1978~1980년에 도내 새마을사업추진 우수지도자를 발굴하여, 그 성공사례를 만화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보급하였던 것을 다시 글로 풀어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1950년! “태풍이 불라나?”, “날씨도 안 좋은데 나가지 말까 싶네요.”, “뭔 소리여? 앉아서 굶어 죽을라나?”, “나룻배라도 타고 나가야 게 나 맛살을 좀 더 잡지.”, “하긴 그려요.”, “아부지! 많이 잡아와!”, “오냐! 영차”

여기는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노하3리. 마을 삼면이 산이고 서쪽으로 광활한 갯벌뿐인 이곳은 농사만으로 살기 어려운 주민들이 썰물 때는 맛살 잡이를 하여 먼 이웃마을에 내다 팔고, 근근이 하루 생계를 이어 나가는 암담한 마을이라...

“아악! 배가 부서진다!” 술타령 아니면 싸움질과 화투판이 고작이었다.

“임마! 요게 장땡이란 거다. 콩땡 갖고 명함이나 디밀 것 같냐?”, “젠장!”, “너 화투짝 속였지?”, “벼락 맞을 소리 말어!”, “팔소매에 감춘 화투는 뭐여?”, “아차차!”, “이 육시럴 놈이!”, “아이쿠!”, “이 사람아! 뭐 허는 짓이여? 자네 처남 부부가 죽었어!”, “뭐, 뭐라구?”, “이게 웬 벼락이여?”, “빨리 갯벌로 나가보라구!”, “아이쿠 가난이 웬수여! 어린것들은 어떡하라구 먼저 가나 흑”, “엄마! 으앙”

동리 친척들이 모여 통곡하는데 그 뒤에서... 작은 주먹을 불끈 쥔 7세 안밖의 어린 소년이 눈물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이담에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불쌍한 마을 사람들을 도와 줄꺼야! 가난 때문에 울지 않게 할꺼야!”

맹세하고 다짐하는 소년 홍성직! 이 소년은 바로 26년 후에, 가난이라는 전국에서 으뜸 갈 낙후 마을 노하 3리를 녹색 혁명으로 부자 마을로 뒤바꾼 새마을지도자가 될 줄이야 그 누가 알았던가! 그는 2대 독자인 아버지 홍응표씨의 8남매중 장남으로 출생(1943.6.1.)하여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라났으나, 농토가 없는 가난한 집안이라 부모는 물론 남의 품을 팔고, 어린 성직은 갯벌에 나가 맛살 잡이를 하였다.

“할머니! 내가 더 많이 잡았지?”, “호호 인석은 뭘 해도 부지런하다니까”, “탕! 탕!”, “이크!”, “사람 살류~~~”

6 · 25동란이 발발하자 살기등등한 북괴군들이 마을로 들어 닥친 것이다.

“동무! 집집마다 뒤져 서리 쓸만한 아바이들은 모조리 끌어내기요!”, “알갔

시요! 그러니끼니 메사니 대장 동무래 그치들을 징집할 생각이 디요?", "간나 새끼! 말이 많다이 날래 행동부터 하지 않구 서리.", "거 탐! 성미레 더럽구만!"

아버지가 북괴군에게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고 나자... 할머니가 남의 집 일을 해주고 호박죽을 얻어 오면 자신은 굶고라도 손자 배는 불려 주었는데, 어느 날 밤 이었다.

"누구요?" "쉬! 나다 나야! 성직아!" 아버지가 징용 대열에서 탈출 해 오고 얼마 후에 동란도 끝났는데 "할머니! 할머니 소원은 뭐예요?", "호호, 우리 성직이가 어서 커서 학교 운동회 때, 뛰는 모양을 보는 거란다" 집에서는 성직이를 귀엽다고 어리게만 보아서 11세가 되도록 학교엘 보내지 않았다. "임마! 너희들 어디 가는 거니? 놀자!", "멍청아! 학교 가신다.",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단 말이야.", "참! 그렇구나!", "내가 성공해야만 우리 마을을 잘 살게 만들 텐데.." 성직은 용기를 내서 봄비 오는 어느 날, 7km나 되는 팔탄 초등학교로 갔다. "교장선생님! 저도 입학시켜 주셔요.", "허허... 좀 늦었구나. 오냐! 1학년에 들어가 배우도록 해라.", "쳇! 꼬마들 하구 같이 공부하자니 망신인데 죽갓네, 이거!" 성직은 이를 악물고 밤새워 공부를 해서 3학년으로 월반하고 3학년에서 5학년으로 월반하여 4년 만에 졸업장을 쥐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길만이 부모세대의 가난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조회시간 때 교장선생님이 하신 훈시를 남다르게 새기며 중학을 다닌 성직은 남이 놀 때도 공부 했으며, 고되고 잠이 올 때는 어른들이 힘들여 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제 몸을 꼬집었다. "녀석이 저렇게 열심이니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대학엘 보내야 겠구먼"

줄곧 고등학교까지 우등으로 졸업한 홍석직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합격하는 영광을 차지했으나... 가난한 집안 형편을 아는 홍성직은 "늙으신 부모님께 더 이상 공부 뒷바라지를 바랄 수는 없다.", "뭐여? 대학엘 안 가구 군대를 자원 해? 예끼!", "죄송합니다. 아버지!" 일찍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 농촌운동을 하려고 1946년4월 군대에 입대한 홍석직은 훈련병 교육을 잘 시켜 최우수 사병 표창까지 받았다. "뒤로돌아 갓! 하나 둘", "어머니!"

66년11월, 제대복을 입은 홍하사가 꿈과 기대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총 가구 69호에 주민이 420명인 마을은 예전이나 다름없이 가난과 폐습에 젖은 채, 안일한 사고방식에 찌들어 세상만 원망하고 잘 살아 보려는 노력은 조금도 없었으며, 무슨 일이고 이기적이고 비협조적 이어서 뭣보다 분열된 정신자세를 단합시켜야했다. 홍석직은 없는 살림에 남모르게 주머니를 털어야 했다. “아이구 어르신네 나오셨습니까? 진지는 드셨는지요?”, “하모...성직이 아이가?”, “허허... 젊은 친구가 예의가 바르단 말이여.”, “요즘 젊은 것들은 통 인사성이 없는디...” 저녁이면 마을 사랑방에 들려서 주민들 틈에 끼어 마을일에 관심을 끌어 들였다. “우리 젊은 놈들이 뭘 압니까? 마을 일을 위해서 어르신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허허.. 내가 아는 게 뭐 있어야지” 뿐만 아니라 상가 집 일이라면 앞장서서 발 벗고 뛰었다. 홍성직은 성실성과 마을에 대한 봉사정신은 차츰 주민들의 잠자던 마을을 각성시켰다. “이 녀석아! 술타령 좀 작작하고 너도 성직이를 따라서 마을 일 좀 해봐!”, “알았어요.” 드디어 마을 개발 위원회가 조직되어 청년들은 선봉회, 청소년들은 4H클럽, 부녀자들에게는 부녀회가 조직됐으며, 그 외 주민들은, 농사개량 구락부 등 여러 조직을 통해 단합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월 3회 각 회원 연회석을 개최하여 정신순화 운동을 시작하고 “여러분!” 회장으로 선출된 홍성직은 회원의 자유를 속박 하는 규정을 일체 정 하지 않는 대신... “4가지 원칙만은 지켜 나갑시다. 1.고향을 사랑하자 2.이웃을 돕자 3.효도 합시다. 4.서로 상부상조 합시다.”

회의 때마다 4원칙을 강조하고 주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한편... “우리 조상님은 굶주리다 못해, 갯벌을 막고 갯논에 농작물을 심었으나, 되지 않아 초근목피로 연명도 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듣고 나이 어린 4-H회원은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회원은 뛰어 나와 홍성직의 손을 잡고 마을이 잘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던지 시켜 달라고 격렬하게 흐느끼기도 했다. 1967년! 홍성직은 주민들의 정신 운동이 효과적으로 스며든 시기에 맞추어... “여보게! 각 회원들에게 통고해서 모두 뒷산에 모이도록 해야겠네.”, “오케이!”, “우리 마을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습

니다.", "잘 살아?", "그… 그게 뭔데?", "뭐여?" 잘 산다는 말에 귀가 번쩍한 주민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까?", "하다마다 헤헤…", "빨리 말하슈! 답답해 미치겟네요.",

"우리 눈앞에는 광활한 갯가 하천이 있습니다. 무성한 잡초지만 개답하면 기름진 옥토가 공짜로 생깁니다.", "아니! 왜들 그러십니까?", "그 미치광이 소리 좀 작작 혀!", "그 짓을 한두 번 해봤남?", "난 또 뭐라구." 실망한 주민들이 화를 내며 돌아 가 버렸다. "여보게! 노력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거야", "그 이야기라면 네 발 들었다구.", "낄낄….", "회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갯가 하천변의 흙을 한줌 집어 가지고 지도소로 찾아가 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염분이 15%밖에 안 됩니다. 객토 40cm정도만 하면 농작물이 잘 되는 일등 답이 되겠는데요.", "아이쿠! 감사합니다.",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회원들에게 설명했으나 모두 빈정만 댈 뿐이어서 실망하고 있던 차, 동네 아주머니의 소개로 학교동창의 여동생과 선을 보게 되어 68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여보! 우리는 생활주관과 신조를 똑바로 정하고 인내와 근면으로 화목하고 정직한 가정을 이룩합시다.", "예! 힘껏 잘 해보겠어요." 남편을 이해하는 아내의 고무로 용기를 얻은 홍성직은 두 부부가 힘을 합쳐, 남의 비웃음을 격려로 개토사업을 시작하고, 잡초를 뽑으며, 흙을 져다 나르는 중노동을 했다. 무리한 작업으로 쓰러지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성공만 하면 좋은 농토가 얼마든지 생긴다는 희망으로 더욱 힘을 내서 600평의 논을 일구어 모를 심었는데 그해 가을에 백미 8가마를 첫 수확 하는데 성공하자, 깜짝 놀란 주민들이 달려와 힘을 합쳐 하겠다고 나섰으며 드디어 주민협동으로 개간사업이 시작 되었다. 그런데, 평소 성품이 삐딱하고 일하기 싫어하던 청년들도 있어서…

"젠장! 하고 싶은 놈이나 할꺼지, 왜 우리까지 못살게 굴어?", "캬~ 술맛 한 번 기차네요", "보시요! 일이 힘든 줄은 아오만, 조금만 더 참고 같이 일 합시다. 자! 어서 일어나시오!", "건방지게 지가 뭔데…이거 못 놔", "이 자식이!", "아이쿠" 갖은 고충과 피땀의 개미역사를 시작한지 무려 3년이 흐른 1970년!

논 한 평 없던 농가가 호당 1ha에 가까운 농지를 갖게 되었으며, 주민 공동으로 일군 공동답도 12,500평이나 되었고, 그 논에서 백미 80석을 수확하여 123만원의 공동소득을 올려 배당하자, 어떤 회원은 감격으로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다. 지지리도 못살던 노하3리가 자력으로 기근에서 벗어난 것이다.

1972년! 새마을운동의 봉화불이 전국 적을 가열하자, 이에 힘을 얻은 홍성직은 새로운 마을 발전의 목표를 세우게 됐으며, 주민총회의 선출로 1973년도에 새마을 지도자가 되었다. "회원 여러분! 로마제국이 세계를 정복한 것도 넓은 길부터 닦았기 때문입니다.","마을이 도약하려면 마을 진입로부터 넓혀야 합니다.", "대찬성이요!", "합시다!", "내가 말 쪼깨 할라요. 그 뭐시냐, 공사비라는 게 들 모양인디 그걸 워쩐다요?", "하하 갯벌을 일군 협동 정신을 되살려서, 농한기 때... 전주민이 나와서 길을 만듭시다. 하하하...", "아고야! 올 겨울은 폭싹 망해 뿌렸네." 길이 1500m에 폭 5m의 진입로 확장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자 밭이 들어가는 땅임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누구든 내 땅을 건드리기만 하면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놀테다" 삽자루와 곡괭이를 든 지주들이 집단으로 길을 막아서자 찬성하는 회원들도 흥분해서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마을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서 쫓아 내 버립시다.", "아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새마을운동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돕고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홍성직은 반대하는 땅임자들을 매일 같이 찾아가 무릎 꿇고 양보를 호소했으며, 회원들도 모두 나서서 "조르기 작전"을 폈으나, 지주들은 핏대를 세우고 막무가내였다. 홍성직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쳐 궁리궁리 끝에, 군청으로 달려가서 선배 새마을지도자들의 성공사례미담이 수록된 카세트를 빌려다가, 주민총회를 열고, 땅임자들에게 틀어 줬다. "땅 임자들은 제가 마을길을 닦아 놓고 뒷구멍으로 상금이라도 타 먹는 줄 아는지, 마을을 위해서 제집 일을 제쳐 놓고 뛰는 저를 냉대했으며, 한 치의 땅도 양보 못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다 못해 총회를 열고 그들 앞에 꿇어 앉아 호소했습니다. 제가 마을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것은 전 주민의 단합을 위해서입니다. 전 주민이 협동으로 일을 하면 혼자서 하는 것 보다 몇 배나 빠르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새마을 정신을 왜 모르

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양보하는 땅은 결코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느 시기에 가면 그 이상의 대가가 돌아 올 것이며, 그 혜택은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마을에도 시원시원한 큰길로 차가 들어....", "그만! 내 땅을 양보하겠소!", "어 어? 이양반이...", "우짤라고 땅을 내 논다는 거야?", "여태 듣고도 모르겄나? 머리가 안 돌아가면 오기라도 부려 봐!", "다른 마을이 다 하는디 우리 마을이라고 못한다믄 창피한 거 있지?", "에에라! 모르것다, 나도 양보다." 추위를 무릅쓰고 주민들이 떼를 지어 길을 닦았다.

모래와 자갈을 깔아서 비가와도 대형트럭이 통행 할 수 있는, 큰길이 탁 트인 것이 1972년! "오매! 좋은거! 확 뚤려 부렸어" 농작물을 트럭으로 실어 가자, 좁은 길로 일일이 져 나르던 불편이 없어지니, 남이 하니깐 마지못해 따라 주던 주민들과 반대하던 땅임자들도 싱글벙글! 마을 공공사업이 열기를 띄기 시작해서 주민총회는 2차 사업으로 암거 개설을 계획하고 정부 자재 지원으로 시멘트 250포와 철근 1톤을 받아 3개소에다 폭5m, 높이 3m의 항구적인 암거 공사를 전개! "야아! 뉘 집 개 고?", "홧! 저놈의 개가 개통식도 하기 전에 먼저 간다!" 이제 노하3리도 서서히 새마을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늘 주민총회는 어디서... 하는거지?", "글세... 뒷산에서 할까?", "좀 추운데 이장네 집이 어때?", "그 집에 제사가 있다던데..." "젠장, 거지도 아니고 뭐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아이고! 추워 죽갔시다... 덜덜...", "보시오, 회장! 떨려서 못 살 것네. 오늘 회의는 끝 냅시다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안건을 하나만 처리 합시다.", "새마을회관 건립을 제의 하겠습니다.", "물어 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만장일치 합시다요.", "찬성이요!" 군청에서 철근1톤과, 시멘트 300포를 지원해 주어 이에 분발한 주민들은 약간의 현금을 보태고 노력부담으로 착공 45일 만에 아담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마을 소득을 높이기 위한 생산기반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을 이 화관에서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1974년도 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 공동답에서 수확한 백미대금 430만원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어 이 돈으로 지붕개량, 담장개량 117동을 완료하고, 변소개량과 위생시설을 갖춘 부엌개량을 집

집마다 100%하게 되어, 새마을심사에서 자조마을로 승격하였는데, 낙농사업으로 부업소득을 착상한 홍성직은 시험삼아 집에서 젖소사육을 시작하고 성공하면 전 부락민에게 권장키 위해 사육 방법을 연구했다. 한편으로는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절미저축과 퇴비증산 활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마을자금이 없는 탓으로 어려움이 많아 새마을금고를 조직하기로 했다. “뭐시라? 새마을금고?” “앗따! 먹기도 바쁜데 뭔 저축을 혀?”,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습니다.”, “아고고 이 사람 보게, 고걸 모아서 몇 푼이나 될 거라구”, “많아서 만이 아니라, 저축하는 그 마음을 기르자는 거죠.”, “술 한잔 덜 먹고 담배 한 대 덜 피우면…”, “알았어! 그 잔소리 땜시로 300원 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큰둥하게 저축하던 사람들이 장부를 보고 깜짝! “아이갸 뭔 돈이 이렇게 이렇게 많다요?”, “한사람이 1,000원은 작은 돈이지만, 300명이면 3십만 원 아닙니까?”, “이 돈을 뭣에 쓰겄남?”, “목돈이 급한 집에 융자도 해주고 마을 공동사업에 투자도 합시다요.” 푼돈저축에 매력을 느낀 주민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1인1통장 갖자고 야단이었다. “이봐! 회장! 이리 와서 술 한잔 하자구!”, “자, 자! 쭈욱 드리키라구요.”, “삼다도라 제주에~는 짜라짜라 짠짠”, “좋고!”, “아니, 왜들 또 이러십니까?”, “할 일 다 하구 노는데 뭐가 잘 못 됐남? 딸꾹~”, “장이야! 장 받아요 갈데없어! 여러 소리 말구 돈만 내슈”, “크~ 800원째 잃네 그려”, “야단났군! 야단났어!” 미작이 위주인 논농사만 하는 곳이라, 농한기에는 빈둥거리는 사람이 많아서 나태한 습성에 빠질 것을 우려한 성직은 “농한기도 없애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을 강구해야겠어. ”홍성직은 영농학교에서 배운 고등소채를 생각해 내고 작목반을 구성하기 위해… “김씨! 어서 나오시우! 노는 시간에 돈벌이 좀 합시다.”, “헤헤~ 나 좀 빼 주쇼. 몸살이 나서 한잔하는 거라구요.”, “좀 살려주쇼” 작목반을 조직한 홍성직은 그들을…. 선진 농가로 데리고 가서 견학시킨 후, 그동안 새마을금고에 저축한 450만원과 부녀회 절미금 15만원을 융자해 주고, 비닐하우스용 철재 앵글과 포리에치렌등을 공동구입, 1,750평에 35동을 짓고 고추, 상추, 배추를 재배하며… “온상 설치 후, 7~10일 지나서 종자를 파종하되, 반드시 발아시켜 파종해야 합니다.”, “고추종자 소득은 「호마이」20배액에

10분간 담가 둔 후, 맑은 물로 씻읍시다.", "하우스 내 채소는 물 비료를 줍니다." 일일이 자상하게 지도한 결과, 논농사의 3배가 넘는 1,8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주민들의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졌다. 이어서, 축산사업으로 비육우와 젖소 사육을 권장하고, 그동안 집에서 익힌 축산기술을 보급하고 낙농의 이점을 가르쳤다. "인건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논농사에 비해 4배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글쎄 돈을 더 버는 것은 좋은디 말이지, 비싼 젖소를 사다 놓고 설랑 고놈이 칵 뒤져버림 문제 아니것나? 요거요.", "까딱하면 집안 망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젖소를 길러 봤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서, 아서! 난 그만둘라네.", "아저씨! 불안 할 것 없다니까요.", "그럼 자네가 책임 지것나?", "책임이라니요?", "만약에 말이지... 젖소가 죽으면 자네가 그 값을 변상해 줄 라는가?", "옛! 변상이요?", "보라구 역시 자신이 없지", "아저씨! 책임지겠습니다!", "그 대신 말입니다. 조금 이라도 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헤헤헤... 그라구 말구." 큰 소리는 쳤지만, 마음속은 켕기는 홍성직... 축산가구가 늘 때 마다 축사를 지어주고, "비육우는 자주 피부손질을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식욕을 증진시키시오.", "젖은 짤때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짜줘야지 유방염이 발생 할 우려가 있습니다.", "호~", "하, 매일 우유를 짜 내니 보통 수입이 아닌데?", "그 놈 참, 신통한 놈 일쎄!", "어휴 아저씨! 큰일 났어요! 우리집 소가 이상해요!", "이크!" 까딱하면, 소 값을 물어 낼 판이다. 허겁지겁 달려가는데 "회장! 어딜 가유? 우리 집 소가 분만인데 새끼가 나오질 않아 야단났수다.", "어~ 어~", "아이고오~", "이거 어딜 먼저 가냐?" 어미 뱃속에 새끼가 잘못 들어 앉아 진땀을 빼기도 했다.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신적인 봉사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봉사도 해야 해서 공동답에서 나오는 마을 자치 기금이 있지만, 명목이 뚜렷치 않은 대개의 활동비는 거의 개인 지출을 했는데, 그것이 마을을 이끄는데 효과도 있어서, 부녀자들의 퇴비 증산 때도 그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음료수나 과자류를 사 대기 일쑤였다. 뿐만 아니라, 이웃집에서 갯벌을 개간하던 도중에 식량이 떨어져 어린것들이 보채자, 가난의 아픔을 아는 그는 남 모르

게 쌀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이웃을 잘 살게 돕는 것이 참다운 보람이며 기쁨이었던 것이다. 축산이 재미를 보자, 축산가구가 30여호나 늘어나 젖소와 비육우가 180두를 넘게 되었으며, 연간 1,700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자... 더욱 새마을정신이 가열된 주민들은 일을 해도 힘 드는 줄 모르고 뛰게 되었다. 1975년! 노하3리는 축산과 고등소채에서 3,500만원, 미작에서 1억1천9백만원을 올려 호당 평균 171만원을 기록하므로서, 자립마을로 올라 섰고 이제는 누구나가 마을일에 앞장 서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 마을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제방성토공사를 착수하기로 결의! 비만 오면 물이 범람하여 6만 5천평의 농경지가 침수되어 수확이 감소되었던 것을, 도 보조금 3백만원과 주민부담 2백만원으로 750m의 긴뚝에 폭 2.5m와 높이 40cm의 성토작업이 시작되었다. 항상 앞장 서고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딴청이거나 늦장이어서 홍성직은 연일 작업장으로 남보다 일찍나와 일을 시작하고 늦게 들어 가야 하므로 집안일은 전폐하고 있었는데... 작업현장으로 급한 연락이 와서 집으로 달려 가 보니, 새끼를 분만한 젖소를 돌 볼 겨를이 없어 후산 처리 잘못으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젖소를 폐사하게 되었으나 가족한테는 누구에게도 말 말라 이르고, 작업장으로 다시 나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열심히 일만 하였다.

1966년! 주민들의 환호 속에 제방이 말끔히 정비되자 준공 검사관이 감탄까지 했으며, 우수부락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각하께서 50만원의 특별 지원 사업비를 하사 하시어, 주민부담과 합해서 가뭄이나 홍수가 닥쳐도 물 걱정 안하게, 길이130m, 높이2m 소하천공사도 끝냈다. 이어서, 식량 자급 증산 시책에 발맞추어 신품종을 확대 재배하기 위해 집집이 찾아다니며 적극 권장 하고, 다수확을 목표로 병충해 방제와 조기 예찰에 주력하면서... 마을 논 마다 둘러보고 물대기와 토양, 습도에 온통 정성을 쏟았는데, "아휴우~ 이러다가는 집 농사 망치겠어!", "이것아! 내 한 몸 잘 살기도 힘든 세상에 남의 일만 봐 주고 다녀?", "하하... 아버지, 걱정마세요.", "저...이거 얼마 안되지만 용돈 쓰십시오. 아버지!", "일 없다. 인석아!" 부모에 대한 정성도 지극한 홍성직은 아내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연만하신 부모님의 영양관리에도 각별히 신

경을 쓴다. 정성을 다한 신품종 재배가 크게 성공하여 12농가가 최고 다수확의 영광을 차지하고,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받아 공동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자동분무기 5대와 리어커 7대를 구입하여 공동 사용 하게 되었고, 77년도에도 또 다시 우수부락으로 선정되어 대통령각하께서 특별지원금 150만원을 하사 하셨다. "여러분! 대통령각하께서는 잘 살려고 노력하는 마을에 계속 지원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세!" 이에 분발한 회원들은 보다 의욕적인 사업으로 그동안 마을 공동답에서 모아 온 자치자금 410만원과 하사금으로 마을 공동 창고를 짓기로 하고, 전 주민이 동원하여 60일간의 공사 끝에 50평의 창고를 완공했다. 이어서, 주민부담으로 280만원을 투입해서, 새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전 농가 지붕 도색을 주위 환경에 조화되도록 하고, 부녀회의 마을 안 길, 꽃길 가꾸기와 꽃동산 만들기도 마을의 면모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갔으며, 마을은 이제 동력 트렉터 3대, 이양기 1대, 바인더 4대로 영농이 완전히 기계화 된 선진마을이 되었고, 텔레비전 57대, 냉장고 25대, 세탁기 4대등 이상 농촌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신품종 확대 재배에 박차를 가한 홍성직은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과학 영농으로 10Ha당 평균수확 685kg을 소출하여 단지 시상금 30만원을 받게 되어 단지 회원들은 경사 났다고 춤을 추었다. "다수확 해서 벌고, 상금 타서 벌고, 좋다!", "매부 좋고, 누이 좋고", "어쩔씨구 좋을씨구!", "어싸!"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용기 백배 한 회원들은 더 많은 확대재배를 환호 속에 다짐하고, 홍성직은 도지사로부터 명예지도사 직책을 위촉 받았다. 1977년도 호당 평균소득이 240만원을 넘었으며, 새마을정신으로 똘똘 뭉친 주민들은 지난날 불우했던 과정을 도약의 발판으로 모든 생산 기반 조성을 다져 가는 쉬지 않는 일꾼이 되어 눈을 씻고 찾아 봐도 노는 이는 찾아 볼 수 없고 도회지로 나가던 젊은이들도 이제는 마을 발전에 앞장서게 되었으며, 경영 소득 시범마을이 되어 소득자금 100만원을 지원 받아 주민부담을 보태 순환식 대형 곡물 건조기도 설치하고.... 축산과 고등소채의 선구자가 된 노하3리는 1978년도 호당 소득이 340만원을 돌파했다. 68년도의 호당 소득 20만원에 비하면 무려 17배에 이르는 기적의 소득증대가 아닌가! 보라! 저 광활한 황금들판! 산

뜻한 지붕 위로 솟은 TV안테나! 넓고 반듯한 길! 길! 불과 10년전 만 해도 가난의 상징이던 노하3리가 자랑스런 선진마을로 탈바꿈 하였다. 마을을 위해서 좀 더 일해 달라고 주민들이 사 준 오토바이를 몰고, 오늘도 홍성직은 마을 발전을 위해 달리고 있다. 새마을 지도자가 된지 6년여! 무거운 사명감과 긍지로서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온갖 비난과 수모를 기꺼이 극복하고 이마을에 새마을운동의 뿌리를 내렸다. 그는 1976년, 면 내 쌀 증산왕이 된 것을 비롯해서 1978년 새마을 훈장 협동장, 1978년 군수님 상장, 1978년도지사님 상장 등을 수여 받는 영광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곧 잘 미술상을 받아 오는 장남 선기(10살), 차남 돈기(7살), 막내딸 희숙(4살)을 둔 2남 1녀의 가장으로서, 조상 때부터 가난과 싸워 오던 터전 위에 농촌 형 한국식 주택을 새로 짓고, 유축농업으로 전답1만 5천 평, 임야 9천 평, 젖소 10두, 경운기, 바인더, 탈곡기 등을 소유한 부농이 되었으나.... 지난날의 가난을 잊지 않고 언제나 품삯은 남 보다 후하게 주었다. 현재, 화성군, 지방세 심의회 위원이며 새마을 양식계 계장, 청년 봉사대 회장, 팔탄면 명예지도사로 동분서주하는 홍성직은 도시와 격차 없는 농천 근대화를 신념으로 지금까지의 새마을운동을 기반 삼아, 이제부터야말로 한 단계 차원 높은 새마을운동으로 생산물 판매 구조를 혁신해서 시장과 직결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각하께서 주신 희생, 봉사,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생활화하여 대망의 80년대는 호당 소득 600만원을 잡고 영농의 과학화로 증산에 이바지함은 물론, 남은 인력을 낙농사업에 전력투구할 것이며, 고등소채의 확대 재배에도 힘을 기울여 1가구 70만원을 저축, 출자해서 마을의 숙원 사업인 도정공장 건립과 건조장설치, 공동 낙농 단지 조성으로 공익사업을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강한 국력만이 국토방위의 힘이며, 남북통일의 지름길임을 굳게 믿고 다시는 울지 않는 힘찬 농군으로서, 세계 선진 대열에 뛰어 오르는 초석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전진 하겠습니다!

라. 성공사례(만화) : 어촌여성지도자, 1980

갯마을

시흥군 군자면 정왕6리
부녀지도자 박 형 진

이 사례는 경기도가 1978~1980년에 도내 새마을사업추진 우수지도자를 발굴하여, 그 성공사례를 만화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보급하였던 것을 다시 글로 풀어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이곳은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6리, 안양에서 서해안 쪽으로 반월단지를 지나 30여분쯤 버스를 타고 가면 바다의 짙은 소금 내음이 풍기는 한적한 마을이 나타난다. 두 낚시꾼이 이 장소를 방문했다. "아니 대체 교통도 나쁜 이런 갯마을에 뭣 하러 오자고 한 거야?" "무슨 소리! 이곳까지만 그렇지, 조금 더 가봐."

누구든 정왕6리 마을을 들어서기 까지는 하찮은 시골이려니 하고 불평을 한다. "곧 깜짝 놀라게 될 걸? 매일 오자고 나를 보챌 거란 말이야." "거짓말 말아."

그도 그럴 것이 버스 한 대가 겨우 달릴 수 있는 길을 30여분이나 지나도 멀리 보이는 염전 외에는 삭막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아앗!" "하하, 이사람! 이제 봤구나!"

그러나 정왕6리 오이도에 들어서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이곳이 도대체 어디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이란 말이야?" "내, 내가 길을 잘못 알고 온 걸까?" "무슨 소리야. 바로 이곳이 새마을운동을 충실히 하여 부자동네로 바뀐 정왕6리야." "도대체가 못 믿겠다. 이곳은 서울의 고급 주택가 같은걸?" "이사람, 생트집 쓰긴가."

이런 관경을 목격한 마을사람들은 웃음이 절로 났다. "새마을운동 10년간의 성과를 모르는 사람들이로군." "하하 서울 촌사람이 왔구나."

서울에서 온 낚시꾼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잘살기 위한 새마을운동 추

진으로 편리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의 참모습을 몰랐기 때문이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나도 서울에서 좋다는 집을 갖고 산다는 사람인데... 우리 집은 이곳에 비하면 초라한걸." "이사람, 새마을운동으로 잘사는 농어촌을 모르다니..."

또한 주민들의 복장은 모두 검소하며 주민들 모두가 사치를 모르고 새마을운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한다. 이곳의 주요 소득은 해산물이다. 한국에서 잡히는 해산물종류는 안 잡히는 것이 없다. 해산물을 수산협동조합을 통해 팔려나가며 이곳 주민들의 생계수단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어때? 내가 매주 이곳에 오는 이유를 알겠는가?" "야~ 정말 놀랍다.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오자고!"

정왕6리 마을 어느 곳에나 흠잡을 때가 없이 풍요롭게만 보였다. 잘 정돈된 마을의 길과 주택들은 물론이고 집안을 엿보면 현대식 가구와 전기제품들로서 모든 것이 서울의 부자동네를 보는 것 같이 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 마을이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1970년에만 해도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였다. 외부와는 완전 두절된 동네로서 찾아오는 길손도 없었다. 쌀밥을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엄두도 못 냈고 하루 3끼니를 잇기만 하여도 부자소리를 들었다. 여자들은 밀물이 빠져나가기 바쁘게 바닷가로 해산물을 주우러 나가고 남자들은 염전에 나가 노동일을 하는 것이 수입의 전부였다. 자연 이들은 그날그날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고 발전이란 있을 수 없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들은 모든 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술과 노름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을이 1980년도에 들어서는 어떻게 부자 마을이 되었을까? 한 마디로 마을 사람들이 일치 협동하여 새마을운동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의 결실이 글로 표현할 수 있듯이 손쉬운 것이었을까? 천만의 말이다. 이들 역시 다른 그 어느 마을보다 더 노력하고 남모르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울면서 일어난 것이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아래 굳게 뭉쳤기 때문이다. 마을 이장 정용택(43)씨는 이렇게 말한다. "새마을지도자이신 박형진 여사 덕분이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박지도자를 믿고 따르고 일치 협동한 결과 마을은 부강하게 된 것이다. 예쁜 미모와 날씬한 스타일에 가냘픈 그녀가 어떻게 남자도 힘든 일을 해낸 것일까? 그럼 정왕6리가 박형진 지도자의 지도 아래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녀는 1950년 3월 22일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농가에서 자란 그녀는 어릴 땐 별다른 특색이 없는 아이로 자랐다. 그녀가 다섯 살 되던 해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게 되어 전주로 이사를 하여 전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어린이였던 것, 고등학교 때는 배구를 잘했고, 또 대표선수로 뽑히기도 했지만 공부만을 위해 배구를 포기했다. 그러나 공부만 하겠다는 그녀의 꿈은 다시 깨지고 말았다.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탓이었다. 그녀는 197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을 돕기 위해 대학을 포기하고 서울의 육군본부에 '타이피스트'로 취직을 했다. 예쁘게 성장한 형진은 일을 충실히 하는 책임감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임과 귀여움을 독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녀의 예쁜 미모와 성실함에 반한 사나이들도 많았다. 어느 날 같은 과의 군속인 박용덕씨가 그녀의 마을을 사로잡고 말았다. "저희 집은 인천의 번화가에 있는 부잣집이고... 또 나는 용감한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호호 이제 그만 웃기세요."

농촌에서 살던 그녀는 도회지생활이 꿈이기도 했기에 그의 청혼을 받아드렸다. 박용덕씨는 동료들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녀의 결혼승낙을 받고 미칠 듯이 기뻐했다. 그들은 1971년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시댁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소금 내음 나는 염전과 20여 가구의 초라한 가옥뿐이었다. 박씨는 예쁜 그녀를 놓치지 않으려고 인천번화가의 부잣집 아들이라고 속인 것이다. 남편의 집은 인천의 번화가가 아닌 시골의 초라한 초가집 바로 그것이었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녀의 시련은 닥쳐오기 시작했다. "원~ 요즘 것들은 왜 그리 게을러? 이것 빨아라!" "죄송해요 어머니." "밥도 지어놓고 어서 바닷가에 나가 굴과 조개를 주어와야지!" "옛?"

그녀로써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이 생소하였으며 상상 밖이었기 때

문이다. 마을의 문화시설이라고는 접적지역인 관계로 전기불이 고작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생계수단 역시 남자들은 염전에 나가 노동하는 것과 여자들은 바닷가에 나가 해산물을 주어오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 역시 가정에서는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낮에는 다른 아낙네들처럼 바닷가에 나가 조개 줍기, 굴 따기를 해야만 했다. 모든 것이 생계수단이지만 처음해 보는 일이라 그녀는 서투르기만 했다. 그녀는 열심히 이곳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썼으나 모든 것은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자꾸 빗나가는 것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녀를 가장 아끼고 감싸주어야 할 남편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마을 몇몇 사람들과 매일 사랑방에서 술과 화투로 일과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결국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분노를 터트렸다.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은 것일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울고 또 울었다. 그녀는 멀리 떠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많았지만, 그녀의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또 하나의 생명을 느끼고 주저앉고 말기를 여러 번, 그러던 1972년 봄이 마을에도 새마을운동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했다. 면장과 이장이 나서 새마을지도자를 뽑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지만 무지한 마을사람들은 나태한 생활에서 벗어나질 못했으며, 그날그날 일을 해도 밥 먹기 힘든 마을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했다. 면장과 이장은 어떻게 마을사람들을 설득해야할지 난감했다. 이때, 소식을 들은 박형진, 그녀는 다음 세대에 가서도 지금같이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고질적인 악습 속에 살아가는 이곳의 모든 것을 고쳐 잘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발적으로 면사무소를 찾아가서 새마을지도자를 자처한다.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기에 면장은 그녀에게 새마을지도자의 자리에 임하게 했다. 곧장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새마을운동의 첫 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계했고, 무엇보다도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일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했다. 마을사람들을 모으라고 하면 어느 집이고 한결 같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노름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등 누구하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에게는 먼 안목을 내다보고 잘 살 수 있는 새마을사업보다 당장 먹을 한줌의 쌀과 퇴폐적인 오락을 소중히 하는 폐단이 있었

기 때문이었다. 자신들의 퇴폐적인 생활풍습 때문에 예부터 오늘에까지가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더구나 그녀에게 가장 큰 실망과 분노를 터지게 한 것은 마을 한복판에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에 어느 날 술집의 주모가 무모한 마을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보자는 심산으로 예쁜 아가씨를 서울에서 불러왔고, 이 작전은 맞아들어 갔다. 원래 일부 뱃사람의 기질이 하루 벌어 하루 쓰는 기질이 있듯이 이곳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아가씨 때문에 싸움까지 일어나기 예사였다. 이런 술집의 횡포는 면장님까지 알게 되고, 면장님과 그녀는 몇 번이고 찾아가서 퇴폐 술집을 설득했으나 안하무인격이었다. 면장님도 찾아갔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에 평소 친분이 있는 옆집 아낙네가 찾아왔다. "내 이거 새댁이 너무 딱해보여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바로 술집으로 달려갔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설마 믿고 믿었던 남편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녀는 결국 못 볼 것을 보고만 것이다. 알고 보니 술집 예쁜 아가씨와 벌써부터 보통관계가 아니었고 마을에 소문이 퍼졌으나 그녀 자신만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 잘못을 빌었으나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재로 그녀가 조금만 한눈팔면 어느 사이 술집에 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밤낮 고민 속에 지내다가 신경을 너무 쓴 탓인지 안면 신경마비증세가 나타났다. 그러다 결국은 앓아눕게 되었다. 웃으려 해도 웃을 수 없는 얼굴, 울려고 해도 울 수 없는, 표정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때 남편의 친구인 김영웅씨가 자신의 일같이 분개하며 나섰다. 그는 마을청년들을 모두 불러 회의를 갖기에 이르렀고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기를 토하고 있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모이라 한 것은 이제 우리도 마을을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다른 마을은 어떤지 아십니까? 새마을운동을 하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은 .. 우리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술이나 먹고 화투장이나 만지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 마을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새마을운동을 하여 잘 살아 보자 이겁니다!"

김영웅씨의 설득에 마을 청년들은 수긍의 뜻을 보이며 찬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일 먼저 항구술집으로 달려갔다. "너 서울 가서 배워온 것이 그거야? 어서 가서 네 마누라 병간호나 하라고!"

남편은 사태가 심각하게 된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기 시작했다. 남편의 정성어린 덕인지 그녀의 안면신경마비 증세도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욱 기쁜 일이 생겼다. 김영웅씨가 고맙게도 그녀가 누워있는 동안 마을사람 몇몇을 설득해서 같이 온 것이다. 그녀는 온몸에 힘과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대로 오이도의 정왕 6리 역시 희망이 싹틀 수 있는 마을이었던 것이다. 힘을 얻은 그녀는 마을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 마을환경부터 정돈하는 계획을 세웠다. 1972년 봄 첫 사업으로 진입 도로를 확장하면서 배수구를 설치하여 수해를 막자는 사업이 주민총회에서 만장일치를 결의하였다. 한편 항구술집여자는 박용덕씨가 마음을 잡자 다른 마을사람을 넘보려다가 결국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첫 새마을운동은 1972년 전개되었다. 모두들 새마을운동의 첫발을 내딛으며 힘차게 삽과 곡괭이로 흙을 파헤쳐 나갔다. 마을 20여 가구의 남자들만 동원된 작은 인원으로써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라는 속담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그녀의 예상은 너무나 쉽게 빗나갔다. 이유는 마을 자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에 노동력을 집중하려니 당장 먹고살 거리가 없어서 집안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던 것이었다. 결국은 시작 안하느니만 못한 꼴이 되었다. 어쩔 수 없는 형편 아닌가. 그녀 부부와 김영웅씨는 다시 마음사람을 설득했으나, 다들 당장의 돈벌이가 부족하여 거절하기 일쑤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면장은 매우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김영웅씨가 새로운 제안을 꺼냈다. 그의 제안은 마을 가구당 노동력 있는 한 사람씩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게 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는 가구는 작업장의 출입을 금지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마을 총회를 열었는데 갯벌 출입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불만은 노골적이었다. 생계수단과 밀접한 갯벌출입을 새마을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만 부여한다하자 마지못해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그러나 정작 노동력 있는 사람은 모두 갯벌에 나가고 노동력 없는 노인이나 아이

들을 내보내기 일 수였다. 결국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은 박씨 부부와 김영웅씨 셋 뿐 이었다.

얼마 전 큰 비로 인해 물이 잘 안 빠지자 집이 무너지는 소동까지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들은 주민들이 돈 내는데 어려움이 많아 정부에서 시멘트 330포대를 지원받아 일을 다시 시작했다. 오직 이들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일념에서 남이 도와주던 말 던 열심히 할 일을 할 뿐이었다. 20여 일 동안 계속 작업을 하니 하수구 하나하나 완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비웃을 뿐이었다. 가장먼저 마을 입구 쪽으로 악취를 풍기며 흐르던 하수구의 일부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후 큰 비가 오기 시작하며 갯벌에 나가는 것과 염전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심지어 물이 넘쳐 수해를 입을 피해까지 올만큼 큰 비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비면 틀림없이 집이 물속에 잠겨 있으려니 하고 달려간 마을사람들은 놀라고 만다. 그것은 생각했던 것 보다 피해가 적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보니 며칠 전 하수구 작업을 완성한 것이 침수가 안 된 가장 큰 원인이었다. 비로소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박형진 지도자의 고마움을 알았다. 다음 날 마을사람들은 모두모여 그녀에게 사과를 하고 자진해서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그녀와 남편, 그리고 김영웅씨가 무엇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잘 깨우쳐 주었다. 모두들 생업에 지장은 컷 지만 열심이었다. 지도자 박씨가 면사무소로 가서 면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면장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유는 단 두 달 만에 하수구 작업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면장은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초가집부터 개량해야겠다는 박지도자의 말에 융자 지원을 위해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일은 척척 진행되어 나갔다. 모두들 이제는 그녀를 믿고 신임하는 것이었다. 마을의 환경이 말끔히 바뀌었다. 어딜 가나 그녀에 대한 칭찬은 끊이질 않았다. 더구나 바쁜 나날 속에 옥동자까지 낳았으니 박씨 집안은 경사스럽기만 했다. 그녀는 자식을 낳는 순간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내 자식들 세대에 가서는 잘 살 수 있겠어. 나는 해내고 말테다. 정왕6리를 이 나라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테다.”

그녀가 그렇게 결심한 어느 날, 마을에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까운 갯벌에는 이제 어린 조개와 굴 등의 해산물만이 남았을 뿐 먼 곳까지 나가자니 밀물이 들이닥칠 때의 위험도 있고 해서 수확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였다. 남자들이 염전에 나가 일하며 받아오는 노임은 너무 적어 생계를 할 수 없는 마을이 아닌가.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 해산물을 키우는 전문지식이 담긴 책을 구입하고, 다른 고장의 해산물 양식 전문가도 만나보았으며, 마을사람들과 면사무소에 가서 의논한 끝에 해산물 양식장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밤이 늦도록 마을사람들과 방파제 쌓는 의논과 설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일부 마을사람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회의적이기는 했으나 많은 지지자들이 지지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1975년, 또 다시 마을을 위한 작업은 시작되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 한 개의 돌이라도 더 나르려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 오늘은 고생하더라고 후세를 위해 땀을 흘린다. 이들에게는 어제의 무지로 인해 오늘 고생하고 있다는 결심 아래 350m에 이르는 방파제를 쌓기 시작했고,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기를 수개월, 그 중 힘든 일은 부녀자들까지도 20kg 이상 되는 돌을 나르는 일과 추운 겨울날 허벅지까지 빠지는 일이 허다하여 동상에 걸리기 일쑤였다. 짚으로 추위를 막으려 했지만 그 방법 역시 젖어버리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돌을 실어 나르던 우마차가 갯벌에 빠지게 되어 모든 마을사람들의 애를 태우게 된 일이 생겼다. 마을주민들이 모두 달려들어 끌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수레바퀴는 점점 갯벌의 수렁에 빠져들어 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미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모두가 안절부절 할 뿐이었다. 소는 살려달라는 듯 애처롭게 음매음매 울부짖었지만 모두들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며 바라볼 뿐이었다. 소는 물속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고 마을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후로도 마을사람들은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일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사람들의 숙원인 방파제 350m가 75년 말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방파제를 만듦으로써 굴 양식장 10ha와 까무락 양식장 6ha가 생겼고, 수문을 이용하여 바닷물을 조절할 수 있기에 많은 농토가 생기게 되었다. 워낙 가난한 마을이기에 초기에는 200만 원 정도의 돈으

로 굴과 까무락을 양식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1년 후인 200만원을 투자한 굴과 까무락의 양식은 기대했던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이 될 정도로 양식사업은 대 성공이었다. 양식된 굴과 까무락은 공동구판장에 매입하여 공동 판매하는 방식을 썼고 계속 늘어나는 소득으로 마을 전체가 윤택하게 되었다. 정왕6리가 새마을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소문이 처지기 시작하자 다른 고장의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다. 하지만 점점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20여 가구의 정왕 6리는 130여 가구로 늘어나게 되었다. 서울에서도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던 사람들이 정왕 6리에서 일하는 것이 더욱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다.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마을회의까지 열리게 되었다. 마을회의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받아주지 말자고 했지만 박지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사 오는 사람들을 막을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 마침 우리 일손이 부족하고 할 일은 많으니 우리 일에 협력하는 성실한 사람은 적극 도와주는 것이 좋겠어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곳은 살 수 없는 곳인만큼 살라고 해도 못살고 떠나갈 것이니까요."

그렇게 박지도자는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모두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만듦으로써 좀 더 활발한 새마을운동을 주도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처음 세를 들어 살기도 하고, 어디선가 돈을 꾸어 약간의 땅을 사서 집을 짓기도 했다. 이들 역시 마을사람들과 어울려 낮에는 염전이나 갯벌에 나가 일을 했다. 그리고 마을 어느 곳이든 새마을운동 할 곳이 생기면 너도나도 일치단결이 되었다. 옛날에 비해 인원이 많기에 웬만한 일은 당일로 끝나기도 했다. 이러니 마을이 빠른 속도로 발전이 안 될 수가 없었다. 또한 해산물 양식은 계속 흑자를 내고 마을 소득은 늘어만 갔다. 1972년 봄 도로 확장공사로 마을입구까지 들어오게 된 버스운수회사에서는 마을인구가 많아지자 마을 내부까지 순환하도록 신청하였으며, 교통이 좋아지니 생활의 여유도 생기자 중학생이 1명밖에 없던 마을에 공부하는 학생의 숫자가 불어나기 시작했고, 중학생이 80명 대학생이 8명으로 늘어났다. 마을이 부유해지고 발전해 갔지만 박 지도자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녀는 항상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고 계획해 나갔다. 그러던 1976년 어느 여름날 밤의 일이었다. 한 마을 사람들이 밤늦게 박지도자를 다급히 찾아왔다. "글쎄, 마을사람 여러 명이 갑자기 열이 오르고 배를 앓아 신음하고 있어요!"

그녀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군자에서 왕진 온 의사가 치료를 하고 있었다. 의사의 말로는 이질이라는 전염병으로 불결한 마을 공동 우물물이 원인이 된 것 같다는 것이었다. 다른 곳에 신경쓰느냐 미처 가장 중요한 곳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당장 마을의 공동 우물과 파리가 들끓는 재래식 공동변소를 고치기로 했다. 공동우물은 빨래터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1976년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을 찾아 커다란 물탱크와 정화장치를 만들어 주민들이 청결한 물을 먹도록 했고 집집마다 수도 파이프를 묻고 수돗물이 나오도록 했다. 또한 재래식 공동변소를 철거했고 위생적이고 깨끗한 공동변소를 만들었다. 그 외에도 마을은 무섭게 발전되어갔다. 담장도 울타리나 판자였던 것이 멋진 모양으로 변모했고, 고장의 특색을 살린 멋진 음식점이 여러 개 생겨 외부 방문객을 즐겁게 해줬다. 그리고 집집마다 전화를 가설하게 되었고 TV, 냉장고 등 현대식 문화생활로 없는 것이 없이 바뀌어 나갔다. 또한 각 집마다 오토바이는 물론 자가용을 가질 정도의 여유를 갖춘 집도 생겨났고, 이곳에서 생겨나는 생산을 직접 시장으로 운반하는 자동차를 가진 집이 일곱 집이나 되니 점점 부자마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여자의 몸으로 너무나 많은 일을 해냈다. 처음 그녀가 이 마을에 나타났을 때는 어떠했던가. 쌀밥 구경도 못하던 오이도 정왕6리는 오늘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을로 변모된 것이다. 자신들의 행복보다 2세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정성어린 꿈이 새마을사업을 통해 활짝 꽃피운 것이다. 그녀는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암담하기만 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현실의 행복한 꿈에 깨어날 줄 모른다. 어느 날 시아버님은 그녀가 장한 일을 한 것이 흐뭇하신지 시아버님 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복숭아 400백수의 과수원과 그곳에 살림을 지어 주셨다. 그녀는 이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어느새 3남1녀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런 속에서도 그냐는 새마을사업의 박차를 늦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녀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할 일은 계속 확대되어 갔다.

1976년 5월 정부에서 시멘트 250포와 철근 1톤을 지원받아 22평의 마을회관을 건립하였다. 1973년도에 건립된 공동창고에는 주민들의 어패류 창고, 공동작업장, 공동판매, 사무실 등으로 더욱 유익하게 쓰게 되어 마을발전에 크나큰 이바지를 하게 되었다. 3남1녀의 어머니가 된 그녀는 자식들 돌보랴, 마을일을 돌보랴,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필요한 생활품을 사기 위해 6km나 되는 군자까지 나가야 한다. 심지어 서울까지 갔다 오는 불편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의논하여 부녀회를 조직하여 회장 직을 맡고 1978년 부녀회기금 75만원과 수협중앙회에서 50만원을 지원받아 17평의 구판장을 완공 운영하였다. 구판장은 생활품을 싼값에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싸게 팔고 남는 수익금은 마을을 위해 쓰이며 부녀회 회원이 차례로 돌아가며 판매를 하게 되어 편리한 주민들은 좋아만 하였다. 소득증대사업으로 마을의 자산은 계속 늘어갔고 1974년 마을소득을 위해 심은 나무 3,000주는 푸르고 울창하게 자라났다. 또한 바다의 무진장한 보고를 계속 개발하여 마을 호당 소득은 1980년 초 500만 원대에 육박하기 이르렀다. 마을금고를 개설하여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금난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장이 다급히 그녀를 찾았다. 그 이유는 박지도자의 새마을성공사례를 보고서를 본 대통령이 박지도자에게 표창장과 포상을 준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마을도 축제의 분위기에 묻혔다. 오이도의 정왕6리는 새마을운동으로 노력의 대가인 행복의 결실을 맺었고 그녀 역시 자신의 소망대로 행복의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그녀는 새마을운동 역사상 가장 크게 노력하고 성공한 여성이 된 것이다. 그녀는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부녀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부녀회를 적극 이끌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위치를 자신과 함께 열심히 일해 온 남편의 친구인 김영웅씨가 맡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그녀는 쉬지 않을 것이다. 오이도의 정왕6리에 처음 발을 딛었을 때의 그 자세로 계속 일해 나갈 것이다. 왜 그녀라고 다른 여자들처럼 호의호식하며 인생을 화려하고 멋지게 보내고 싶지 않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먼 앞날의 좀 더 큰 희망찬 삶을 기원하기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총명하

고 노력하는 박형진 여사와 같은 새마을지도자가 있는 한 오이도의 정왕6리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며 크게 나아가서는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한 1980년도의 조국의 앞날을 더욱 밝고 빛나게 발전 시켜 나갈 것이다.

마. 성공사례(만화) : 농촌 남성지도자, 1980

황금물결

평택군 현덕면 화양1리
새마을지도자 황 대 영

이 사례는 경기도가 1978~1980년에 도내 새마을사업추진 우수지도자를 발굴하여, 그 성공사례를 만화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보급하였던 것을 다시 글로 풀어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일까? 무엇이기에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일까? 그것은 잘살기 위한 국민운동으로 근면 · 자조 ·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빈곤과 게으름에서 풍요와 자신감을 가져 민족중흥의 기틀을 성공적으로 다진 우리의 운동으로서 70년 대통령 각하께서 이 땅에 제창 하신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잘사는 내 마을, 부강한 내 조국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을을 자신의 손으로 번영시켜 보겠다는 굳은 결의와 협동으로 뭉친 사람들만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여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농촌, 질서가 바로서고 쾌적한 삶의 터전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을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잘사는 마을로 79년도 호당 450만원의 소득을 올린 평택군 현덕면 화양2리 마을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마을은 온 국민이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 아래 농업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마을이다. 이 마을 역시 1970년 이전 새마을운동의 물결을 타기 전에는 가난한 마을에 불과 했으나...

"못 살겠다.",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짓겠고…", "보리밥 먹기도 힘들다." 길옆에 늘어선 과수원, 각종 채소를 심은 채소밭 들…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방앗간의 모터소리, 모든 것이 한 눈에 부자 마을이라는 것을 깨닿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럼 찢어질 듯이 가난했던 이 마을이 오늘날까지 발전한 그 과정은 어떠했을까?

새마을 지도자 황대영씨, 그는 어떻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오늘의 부농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 분명히 모든 것은 새마을운동의 근본이적인 뜻에 따른 것일 것이다. 그 안팎의 인간승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1933년 11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아들이에요" "으앗! 신 난다. 첫아들이다." "황 서방 좋겠다. 한턱내라." 이날은 이 마을의 새마을지도자인 황대영씨가 태어난 날이다. "잔치를 벌려라.", "와~ 황종윤씨 기분 좋겠다.", "돼지부터 잡아볼까?", "꽥! 살려줘요"

그의 집안은 이곳 현덕면 화양2리에서 11대를 살아온 토박이였고 그의 집안은 마을에 손꼽히는 부농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은 다른 지역과 같이 대체적으로 가난한 마을이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본인 밑에서 농사를 지어주며 그날그날을 겨우 살아가고 있었다.

"야 빨리 빨리 일해라 앙", "에잉 저 녀석들만 아니면 이곳이 우리 땅이 될텐데", "에잇 더러워 일 못 하겠다.", "자넨 땅이 있어 좋겠어.", "자네들 심정 이해하네." 자기의 땅을 갖고 있는 한국인은 겨우 4세대일 뿐이었다.

"와 신난다. 대한 독립만세!", "이놈들 어서 못 가", "에구구 내 신세야"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자 일본인이 갖고 있던 논과 밭, 산은 다시 마을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 "다시는 일본인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배워야 하느니라.", "예, 아버님", 이때 황대영… 그는 훌륭한 사람들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울로 공부를 하러가게 되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그는 서울의 외가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너 이번 시험 몇 점이냐?", "70점" 학우들과 잘 어울리고 착실한 아이로 성장했다. 1950년6월25일 그가 4학년 때 6.25가 터졌다. "국어책 84페이지 읽어봐요", "야, 멀리서 대포소리가 들려 온다.", 6.25전쟁 중에도 그는 공부를

계속하며 장래의 꿈을 설계했다.

"회사원, 공무원, 예술인, 군인, 가수" 그의 꿈은 커서 농사보다 다른 여러 가지일을 모두하고 싶어 했다. "어험, 나도 드디어 대학생이다" 6.25가 끝난 후 경신중학을 졸업하고 건국대학 행정과를 입학했고 "야 어때 이번엔 이순신 장군을 해보자", "좋지 내가 그 장군 역을 맡을까?", "대영이는 왜군 적장 역을 맡아라." 그는 연극을 대단히 좋아했고 학우들과 모이면 언제나 연극 이야기였다.

"이곳은 이렇게..." 그는 학우들과 함께 직접 각본을 쓰고 연극에 몰두했다. "춘향아 내 품에 안겨다오", "아잉~징그러워용", "하하하 되게 웃긴다." 그는 여자 역을 잘해서 연극의 대부분을 여자 역을 맡았다. 이때는 전시인지라 반공교육이 온 국민 모두에게 시급한 상황이었다. "탕", "탕", "억 저 여자가 굉장한 명사수구나", "야 실감난다. 만세 만세" 그래서 그는 학우들과 함께 군부대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반공연극을 많이 하게 되었다. "반공의 기수다. 표창장 줘라!", "하하하 저 여자역 맡은 대영이가 제일 잘하는구나." 그의 이러한 반공연극은 대단한 호평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기분 좋다." 1945년 23세 때 그는 외가 집의 중매로 홍승애씨와 결혼했다. "아~ 세월은 유수와 같구나." "여보, 보고 싶었어요." "아빠", "아빠" 57년 건국대를 졸업하자 군에 입대하여 59년에 제대를 했다.

"자~군대도 제대했고 내가 이제 할 일은 무엇인가", "은행에 취직을 할까?", "아니 공무원은 어떨까?", "영화배우가 될까?", "아냐, 아냐, 장사나 할까?", "좋아 이럴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 뜻있는 일을 해 볼까?" 그는 결국 자신은 고향을 위해 일하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이 녀석아 고향에는 왜와, 농사꾼이 되고 싶어 그래? 앙!", "농촌에 할 일이 많아 일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부모님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랬는데 다시 시골로 온 것이 싫었던 것이다. 이곳 주민들은 경지면적이 적어 생활이 어려웠고 일상생활에 짜증이 나자 서로 잦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맛있다. 꼭꼭", "멍멍, 야 술래잡기 하고 놀자" 집 앞의 채소밭에 앞 집 닭이 와서 쪼아 먹거나 개들이 뛰어놀아 밭을 망치기 일쑤이고..

이럴 땐 "야! 너희 집 닭이 우리 채소밭을 망쳤어 물어내", "거짓말 마라 너희 집 똥개는 우리 집 마당에 변을 봤다고, 치웠냐!" 꼭 싸움이 일어난다. "야, 왜 우리 감 따먹고 지랄이야", "뭐야 가지가 우리 담으로 넘어 왔으니 이것은 우리 꺼야", "야 저 닭 잡아먹으러 가자" "야! 저건 우리 꺼야 잡아먹지 말아" 그 뿐이 아니었다. 마을의 청소년들은 농사일을 건성으로 끝내 놓은 후..."제길, 심심하다", "야, 술이나 한잔 들어", "이 녀석 너 내게 까불어", "어쭈 덤빌래?" "내가 잘난 놈이다.", "무슨 소리 내가 잘났다." 가난한 탓인지 동네 인심은 사납기만 했고 마을의 싸움은 그칠 날이 없었다. "야! 나 취했다 어쩔래?", "어쭈 이게 태권도 4단에게 덤벼", "이래서는 안 되는데"

황대영, 그의 눈에는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해 엉뚱한 곳에 짜증을 부리며 살아가는 마을사람들의 생활이 마음에 걸렸다. "얘야, 밭일 좀 해라", "나 놀러 갈 때가 있어요. 싫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창 꿈을 안고 자라야 할 마을 청소년들의 행동이 더욱 안타까웠다. "야, 우리 연애 좀 하자", "엄마야" 이들의 일과는 싸움뿐이고... 꿈이라고는 없었다. "앗! 우리 멍멍이가 어디 갔지?" "주인 오기 전에 얼른 잡아먹자.", "깽깽", "맞았어. 내가 일할 곳은 서울이 아니다." "내 마을을 발전시키고 내 마을 청소년들에게 꿈을 안겨 주어야 한다." 자신이 할 일은 우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전한 정신을 불어 넣어주는 새로운 지식. "이 녀석아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안 돼! 안 돼", "우리 집 사랑방이 애들 놀이터가 될 수는 없어. 넌 서울 가서 공부나 계속해!" 그의 부모는 그가 사랑방에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뜻을 반대하며 심지어는 밥도 잘 안 지어 주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대학 나와 그래 할 짓이 없어 우릴 가르친다고", "하하하 되게 할 일이 없나보구나", "우리 모두는 배워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배워야 하며 특히 너희들만 할 때 해야지 늦으면 후회 하게 된다." 그러나 그의 끈질긴 설득아래 몇몇의 소년 · 소녀들이 그의 사랑방에 모였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겠니?", "옛!" 그는 이들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왜 해야만 하는가를 제일먼저 가르쳤고 "야!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자,

이 문제를 풀어 볼 사람” “저요!” “저요!” “저요!” 어른을 대하는 예의범절 그리고 영어, 수학, 한문, 도덕, 국사, 과학, 농업 등을 주요 과목으로 정하고 가르쳤다. “다음 이순신 장군이 나갈 차례야”, “어흠 이놈들아 내가 이순신 장군이다”, “아이쿠 사람 살려”, “아이쿠~ 무섭다!”, “야~ 이순신 장군은 용감했구나.”, “왜놈들이 꼼짝 못하는 구나.” 또한 어려운 역사나 문학은 학창시절의 연극을 통해서 이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쳤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냐”, “어? 이 녀석들 봐라 인사를 다하고” 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자 부모님들은 모두 놀랬다.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 낳겠습니까?”, “그러니 일은 쉬시고 우리가할 께요.”, “햐~ 이 녀석 이제 봤더니 효자로구나”, “글쎄 우리 아들 놈이 효자가 됐다고”, “우리 아들도 효자가 됐어”, “일도 잘하고 책만 본다고”, “놀라운 일이냐”, “이젠 나쁜 짓도 안하고 안심이야”, “나도 그래 이 모두가 황대영이 덕이야”, “그러니 너도 가서 배워라”, “아버님 저는 어른이예요.”, “아빠도 같이 가요”, “이번에는 영어도 좀 가르쳐 줘요. 그래야 남들이 나보고 유식하다고 할 것 아닌가요?”, “하하 그래, 그래 가르쳐 주마”, “이 친구 한글도 잘 못하면서 영어는 배워 뭐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마을사람 모두가 그의 사랑방에 모여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놈아 내가 너보고 시골에서 썩으라고 대학 보낸 줄 알아, 어서 썩 서울 가지 못하겠느냐”,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님은 결사반대였다. 관공서의 관리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요”, “이곳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요”, “뭐 얏! 가난한 농사꾼이 되고 싶어 그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을도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보. 아버님 말씀대로 서울 가서 살아요.” “시끄럽다. 이 녀석아!”, “우리 마을은 잘살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다. 마을사람들 모두가 협동해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먼 안목을 내다보고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우리 힘으로 될까?”, “야 민태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넌 우리 마을의 이장이잖아” 그래서 그는 1964년 뜻이 있는 마을의 동갑내기 친구들과 모여 잘 살 수 있는 협동하는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다.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선 우리 마을이 왜 발전이 안

되는가를 생각 해봐", "뭘까?" 당시 새마을 운동이란 이름의 구호는 없었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와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었다.

"내 생각은 이래, 우리에게는 농토가 부족하고 농사짓는 법이 재래식이라 소득이 적어" "그래서?", "농사법은 우리가 지도소에 가서 배워오면 될 테이고…", "또 있어", "야산을 가꾸어 소득자원을 이루어 보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야산을 과수원으로 만드는 거야 후일 막대한 소득을 줄 땅을 놀게 할 수는 없잖아", "좋은 생각이긴 한데 어렵지 않을까? 돈이 없잖아" 이렇게 해서 그는 두 친구와 함께 과수원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일을 시작했다.

"자, 이 나무를 베어 버리고 배나무를 심자", "영차!", "영차!" 그러나 문제는 있었다. 두 친구는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고 곧 작업을 했지만 "뭐 야산을 달라고? 안 돼, 안 돼", "넌 서울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 어떻게 하나…." 그는 아버님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쳤다. "이때다" 어느 날 아버님이 무엇 때문인지 서울로 일보러 나가셨다. "아버님 오셨어요?", "앗, 이럴 수가 네 이놈!" 그는 과수원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산의 나무를 베어 버렸고 나중에 이를 안 아버님은…. "이놈아, 이게 어떤 산인데 아이쿠 심장이야", "저, 묘목 살 돈 좀 주세요.", "없어, 없어.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님의 노여움은 대단하였다. 결국 그는 묘목을 살 돈이 없기에 과수원 만드는 일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어이 어디 가나?", "자네들은 과수원이나 잘 가꾸게" 두 친구는 과수원을 만들어 꿈에 부풀었고 그는 그 대신 지도소에 나가서 현대식 농사법을 배우러 나갔다. "어이구 웃기네. 이봐 보리농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냐" 그는 지도소에서 배운 기술로 밭 600평에 보리이식재배를 처음으로 파종했다. "이봐, 자넨 서울 가서 공부나 하지?",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냐!" 마을사람들은 그의 엉뚱한(?) 보리이식재배 방식에 비웃을 뿐이었다. "앗, 저것 봐라" "우리 보리밭은 천 평인데 600평 가지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두다니…" 시험재배 결과 단수가 재래식재배보다 훨씬 높아 지켜보던 모든 주민들은 놀라워했고, 재래식은 300평에 100kg이 수확되었다. "헤헤, 그동안 미안 했어. 좀 가르쳐 주겠어?", "좋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그의 방식대로 따라 보리를 심기 시작했다. 그는 전 필지 재배계획을 세우고

1,000평의 공동묘판을 설치했다. “뭣! 그게 정말이야 대단한 일입니다.” 이 소식은 평택 군수님에게 전해졌다. “이 곳에 보리 재배의 천재가 있다면서?”, “수고가 많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리이식재배가 종래의 방법보다 3~4배의 결실을 더 맺자 군수님은 군내 기관장 독농가들을 현지에 모아놓고 보리이식재배에 대한 재배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호~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훌륭합니다.” 군수님은 그의 사례를 들으시더니 관내 확대 재배를 전개시켰고 경기도에서도 1965년도에는 전역에 재배토록 권장하니 각 군마다 서로 경쟁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농사를 보급키 위하여 애로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시오” “감사 합니다” 군수님은 번영에 도전하고 있는 그의 마을을 보시고 새로운 농사를 보급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물으시고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하여 주셨다.

“모든 것은 자네의 공이 크네.”, “뭘. 이번에는 교량 공사를 해야겠네.” 그는 친구인 마을 이장 이민태씨와 동네사람을 모아 잘 살기위한 마을총회를 열었다. “야! 우리 마을에도 다리가 생기는 구나”, “모두가 대영이 덕분이야”, “징검다리로 인하여 홍수 시에는 학교에 못가는 것은 고사하고 농사짓는데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는데”

1966년 평택 군청으로부터 시멘트 330포를 지원 받아 마을까지 차가 들어올수 있도록 폭 5m 길이 15m의 소 교량을 설치했다. “야! 보기 좋다” 그리고 초라한 초가를 헐고 12동의 슬레이트 지붕개량까지 하게 되었다. “이봐 왜 우리 집은 지붕개량 안 해 주기야!”, “하하 우선 영세농가의 순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해 드리죠.”, “이해하십시오.” “호~ 이곳에서 우리 마을을 위해 회의를 한다고”, “예,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들이 공부하는 곳 이예요” 주민들과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야학을 위해 마을 회관을 건립했다. 그의 일과는 바쁘나, 남보다 먼저 과학적 영농을 이루기 위하여 새벽부터 일했다. 마을 발전을 위한 회의, 과수원의 묘목심기, 저녁에는 청소년들 공부 가르치기 등 바쁜 나날들이었다. “아빠 시골에서 고생해서 뭐해요. 서울서 살아요.” “여보, 애들 말대로 합시다.”, “허~ 무슨 소리야” 그러니 자연 가정에 신경 쓰는 시간이 적었고 가족들의 불평은 대단했다. “그런 소리 두 번 다시 말

거라. 이곳에서도 우리의 할 일은 많다.", "서울 가서 사는 것 보다 내 고장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보람된 일이야.", "에잉~ 농사를 지으려 해도 너무 적어서", "누가 아니래. 그러니 맨 날 고생이지." 그러나 39가구에 250여명의 주민들이 논 22ha와 밭 7ha를 가지고 살기에는 땅이 너무 적었다. 땅이 절대 부족인 고충을 느낀 그는 1967년 360만원의 안전농가 조성자금을 장기 융자 받아서...

"아이쿠 이거 수고가 많았네.", "아이쿠 이제 일할 맘이 나는구먼.", "뭘요. 이제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땅이 없어 농사일을 못하는 영세농가 15집에 임야 15ha를 개간하여 가구당 1ha씩 분배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여 주민들의 새로운 의욕이 생기게 하였다. 꾸준한 퇴비증산으로 지력증진을 하여 심는 곡식마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 주민들의.... 획기적인 경종법 개선으로 식량증산이 성공을 거두자 몇 개 일간지에 그 공적이 소개되었다. "야 우리 마을에 인재 나왔구나.", "일본가면 편지해",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요." 그의 공적을 인정한 농수산부는 그를 6개월간 농업분야를 연수하기 위해 일본으로 파견했다. "야~ 그 한국인 우리보다 낳구나." 드디어 그는 일본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일본사람보다 더 잘 살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동안 고생이 많았지? 이제 우린 잘 살 수 있어", "뭘 나보다 자네가 배우느라 고생 많았지. 그런데 큰 일났네." 67년 고향에 돌아오자 그를 크게 실망시킨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에잉, 쓸모없는 땅이야" "누가 아니래, 일하느라 고생만 했단 말이야" 마을 주민들에게 사준 농지를 마을 주민들이 쓸모없는 농지라고 모두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다.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겠어.", "무슨 소리야? 팔아야지 돈이 나오지", "모두 무식하군. 이 정도의 땅값이라면 얼마든지 사 주지." 그래서 서울의 돈 많은 사람들이 임자가 되어 버렸다. "아~ 이럴 수가", "나 역시 만류했지만 어쩔 수 없었네." 친구인 이장 이민태씨와 그의 실망은 크기만 했다. "이런 마을에서 내가 일해서 무엇 한담? 난 이장 직을 내놓겠네." "이 사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안하면 누가 이 마을을 일으킨단 말인가?", "그만 두겠어. 난 실망 했어. 내일이나 하겠네." 그러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일을 추

진해 나갔다. “이게 언제 열려 수확을 거두지? 난 그만 두겠어”, “대영이 말 들어 실패해 본 적은 없어.”, “이건 내 땅도 아닌데 일해 뭣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앞날을 내다봐야 합니다.”

그는 마을 뒤 임야를 개간토록 마을사람들을 설득하여 10ha를 조성하여 배와 사과 묘목을 심게 했다. 그를 비웃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의 끈질긴 설득으로 모두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좋아 어디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럴까?” “먼저 사준 땅을 팔아먹은 것이 좀 미안해서…”, “역시 그때 대영이 말 듣기 잘했어”, “누가 아니래 저 탐스럽게 열린 과일을 보게나.” 그의 훌륭한 현대식 재배법에 의해 묘목은 훌륭히 자랐고 오늘날 100톤의 과일을 생산하게 되어 마을의 주 소득원이 되었다.

1970년 들어 그는 크나큰 난관에 또 부딪히고 만다. “앗! 양돈 사업을 하면 되겠구나.”

소득사업을 하기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며 일하던 중 양돈사업을 하게 되었다. “앗! 이럴 수가… 돼지고기 값이 이렇게 하락 하다니”, “뭣? 그것 큰일 났구나 꿀꿀” , “꿀꿀… 큰일은 무슨 큰일 내일 팔려갈 팔자가 몇 일 더 연장 될 테니 잘됐지”

아버님을 겨우 설득하여 70마리의 돼지를 키우던 양돈사업이 사료 등의 물가 인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것 봐라! 넌 농촌에서 일할 팔자가 아닌 거야. 네 말 듣다가 우린 망했어. 이제 어쩔 셈이냐?”, “죄송합니다.”, “우리 집 돈은 고사하고 자금을 투자했던 마을사람들은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이냐?”, “에잉~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자식을 두었는지. 할 수 없구나. 이걸 팔아라.(땅문서)”, “아~ 난 큰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 것은 물론 선조로부터 물려오던 옥토 3200평을 팔아 빚을 갚게 되었다. “여보, 정말 미안하구려.”, “그런 말씀마시고 어서 일어 나셔야죠.” 여기서 받은 충격으로 그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마와 싸워야만 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각하께서 제창하신 새마을운동의 열풍이 이 마을까지 불어오게 되었고 “아~ 내가 얼른 일어나야 할 테인데..” 새마을의 열기가 전국 곳곳에서 파급되어 매스컴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들으니 자신이 일을 못하는

것이 더욱 괴롭기만 했다. “자네가 얼른 일어나 마을을 이끌어 나가야 할 테인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마을사람 일부는 그의 완쾌를 빌어 주었으나 그는 건강을 찾지 못했다. 마을은 그의 후배인 젊은 이봉모씨를 새마을지도자로 뽑고 일해 나갔다.

“아~ 이제야 몸이 완쾌된 것 같구나” 1975년에 접어들어서야 겨우 그는 건강을 회복했다. “자네는 좀 쉬지.”, “무슨 소리... 나도 일 할 수 있어.” 겨우 몸을 일으켜 마을사람들 앞에 나타난 그는 그날부터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도 아니다. 자신의 마을을 아낄 줄 알고 마을 사람들이 협동해야만 잘 살수 있다는 그의 애향심의 발로 때문이었다. “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 마을에도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1975년 이 마을에는 아직도 전기 시설이 없었기에 그는 마을이 문화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겠다고 느끼고 마을 회의를 열었다. “아니? 무슨 수로 전기시설을 한단 말이오.”, “에잉~ 좋긴 하지만 꿈같은 소리야.”,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여러분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발전은 없습니다.”, “그건 대영씨의 말이 맞아요. 시도해 봅시다.” 모든 경비와 시설설비를 뽑아보니 가구당 10만원씩의 돈을 내놔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으악! 그렇게나 많이...” “난 기권이다. 그 돈이면 팔자를 고칠 텐데”, “그냥 촛불 켜고 삽시다.” 이곳 영세농가에서의 10만원이라면 75년 당시는 큰돈이었다. “곤란해, 돈이 모자라” 그는 포기 않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다. “이봐, 농사일 바뻐. 그 이야기라면 그만 둬”, “난 올해 딸년 시집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만큼 마을 발전이 늦어질텐데...”, “뭣? 3만원을 대 주겠다고”, “그럼 해 볼만 하지”, “그러니 반대는 하지 말게.” 그는 자신의 돈을 모두 털어 돈을 못 내겠다고 반대하는 몇몇 사람을 찾아가서 돈의 일부를 자신이 책임져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 그는 궁리 끝에... “허~그래? 내 마을이 발전된다면 좋은 일이지” “감사합니다.” 이곳 출신으로서 서울 가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 찬조금을 도와 달라고 간청했다. “못줘! 나에게도 이득도 없는

데 귀찮게 하지 말아.” 간혹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닌 끝에 그는 40만원의 돈을 모아왔다. 문제는 또 남아 있었다. “어흠!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올시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유영태라는 가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 난 전기가설에 돈 한 푼도 낼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올시다.” “그깟 전기 불 없으면 어때, 낭비야 낭비.”, “그 친구는 워낙 가난하니깐 돈을 못 내겠지” 그렇지만 황대영, 그의 마음은 달랐다. “그 친구만 전기가 안 들어가면 그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 이럴 때 도와주는 것이 친구다.”, “자네가 웬일인가 우리 집에…”, “이 사람아, 자네 돈 만드느라고 너무 무리 말게”, “자네 몫은 내가 내주지.”, “아이쿠~ 이거 고맙네. 역시 자넨 내 친구야.”, “어? 저것 봐라.” “돈 안내 영태네 집도 전기가설을 하잖아.” 그런데 이 친구의 가벼운 입이 말썽이었다. 전기 가설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이봐 영태 너 돈 냈냐?”, “어흠! 무슨 소리야 황대영이가 난 돈 내지 말라고 했어.”, “그 친구 날 알아본단 말씀이야.”, “뭣이! 그럴 수가!”, “이건 뭐이래..누군 돈 받고 누군 그냥 봐주고”, “황대영, 지가 무슨 돈이 많다고”, “그렇구나!” 오해는 더욱 큰 오해를 낳는 법이다.

“서울 가서 찬조금 많이 얻어와 놓고 그 돈의 일부로 생색내고 있는 거야.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야! 황대영 우리도 공짜로 해다오.”, “야! 내 돈 내놔라 새마을지도자는 따로 있는데 네가 왜 야단이냐”, “너! 전기가설비 많이 남겨 먹었지” 이해를 못한 이들은 그에게 덤비고 야단이었다.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몰랐고 “나는 항상 결백하게 마을을 위해 행동했는데..” 결국 이일로 점화식도 못하고 마을에 전기불은 들어오긴 했으나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전기사업 추진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장은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새마을지도자를 새로 선출키로 결심하고…”, “왜 우릴 오라고 했냐?” 이장은 마을의 청장년을 모아놓고 대책을 의논하였다. “맞아, 이 마을을 이끌어갈 사람은 황대영씨 밖에는 없다는 것 같을세” “이장 심정 알겠네. 지금까지 마을 위하여 고생도 많이 했으며 앞으로 마을을 이끌 사람은 황대영이 밖에 없네” 그들은 마을 발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를 황대영씨로 선출키로 합

의하였다. “그럼 새마을지도자는 황대영씨가 선출 되었습니다.” “찬성이요.”, “앗! 난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여 75년말 그는 친구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먼저 새마을지도자가 되기 위해 수원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일주일간의 교육을 받는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서 새마을운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정신계발이 가장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마을이 잘 살려면 여러분 모두가 협동하여 새마을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잘 살 수만 있다면 회의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요”, “난 신혼 초야인데.. 어휴~ 마누라 보고 싶어.”, “우리를 위한 일이니 힘을 모읍시다.” 마을 회관으로 주민들을 모아 주민총회를 자주 열어 새마을운동의 취지와 방법과 요령을 교육시키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회의를 했다.

“뭐야 이거... 그럼 우리더러 까다롭게 살란 말인가?”, “거참...웃기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을 규범을 정해 질서와 기풍을 바로 잡도록 했다. 그런데.... “쳇! 내가 새마을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대영이가 돼서 배가 아퍼.”, “나도”, “나두” 몇몇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그들로 인해 새마을운동의 열풍이 식을 수는 없었다. “야~ 이 마을은 굉장히 잘 사는구나”, “하하...우리 마을은 새마을운동을 충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꾸준한 설득을 계속했다. 왜 우리 마을만이 딴 마을에 비해 침체상태 인가를 깨우쳐 주기위해 다른 곳의 선진마을을 견학도 하게 했고, 다음 소득사업으로 영농교실을 설치하여 매일 아침 7시20분간 방송을 통해...그날 해야 할 영농기술을 지도 했고, “자, 마음껏 갖다 사용하십시오.” “야~이것 봐라 못 보던 기계다.”, “마침 연장이 부족이었는데 잘 됐다.” 1975년 쌀 증산계획을 세우고 각종 영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해 주었다. “아니? 이 좁은 농토에서 어떻게 그 많은 양의 쌀을.....”, “지도자님이 정신이 있는 게야 뭐야?” 그는 금년의 쌀 생산목표량을 300톤으로 정했다. 이는 300평당 백미500kg을 생산하는 계획이라 이에 주민들은... “여러분! 새로운 영농시설로써 같이 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좋소! 해 봅시다.” “논 밭 가까이 집을 짓도록 장려하여 일손을 덜게 했다.”

첫째 집으로 부터 논과 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논밭 가까이 집을 옮겨일하는 시간을 벌게 했다. 그러나... "에잉~ 식사 때는 왜 이리 잘 찾아오나.", "에구~ 귀찮아." 모를 심는 것 역시 일손 부족으로 많은 날짜를 소비하는 것도 문제였다. "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자는 거야?", "글세, 지도소에서 가르쳐 준대로 해 봅시다."

그리하여 주민에게 영농법은 지도소에서 도움을 받고 모자라는 일손을 돕기 위하여 협동으로 농사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 우선 오늘은 갑돌이네 논부터 모를 심어 나갑시다.", "홧! 신난다. 우리 집 부터라고?", "내일은 우리 집부터 해 주십시오.," "그것 과연 빠를까?", "이깟 손 바닥 만한 논이 많은 사람들이 심으니깐 잠깐이로군.", "야~ 놀랐다. 보름 이상 걸리던 것이 하루에 끝나다니...", "역시 단결의 힘은 무섭구나.", "난 우리 집 갔다 오려면 2시간 걸려.", "난 2시간 10초" 다음은 식사가 문제였다. 그것은 각자의 먼 곳에 있는 집까지 먹고 온다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좋아요, 돈도 벌고 마을을 위해 일도 하고.." 그러나 이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었다. 마을의 놀고 있는 처녀나 할머니들에게 일당을 줘서 공동취사반을 구성해서 "식사 다 됐어요. 어서들 마을회관으로 오세요." "하하, 이거 편하게 농사짓게 됐는걸." 인부들에게 끼니를 제공하니 일은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 "아~ 역시 협동의 힘은 무섭구나." "황대영 지도자님의 실력은 알아줘야 겠어." 농사를 능률적으로 짓게 되자, 영농비절감은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 주택 환경개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뭣~ 우리 마을이 대통령 하사금을 받았다고..." 그의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공동작업방식과 현대식 영농방법은 당국에 크게 인정을 받아 1976년 대통령 각하께서 150만원을 하사 하셨다.

"만세! 신난다.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 주다니", "대통령 각하 감사합니다.", "황대영 지도자도 만세다." 마을사람 모두는 뛸 듯이 기뻐했다. "아니? 정말 이니? 이걸 정말 내게 주는 겁니까?", "물론이죠. 잘 키우십시오." 그 돈으로 마을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영세 농가를 기준하여 자부담을 합한 한우 50마리를 사육키로 하였다. "잘 키우면 일 년에 10~20만원의 소득이 떨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휴~ 이제 아들 녀석 내년 입학금은 마련됐구나.",

“아빠 이게 정말 우리거야”, “이놈아, 어서 커서 우리 논과 밭을 갈아다오”, “바보야, 곧 경운기를 사게 될 거야”, “이 놈이 새끼를 낳고 또 낳고.. 또..또” 영세 농가는 뛸 듯이 기뻐했다. 난생 처음 소를 길러보게 된 것이었다.

“자, 이제 모심기가 끝났으니 환경개선을 합시다.”, “좋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면 무조건 합시다.”, “시골 농가를 어떻게 개량 하죠.”, “하하...현대식 건물로 지어 우리도 문화생활을 해 봅시다.”, “야~ 그것 멋있게 되어가는구나.”, “좋다. 난 지도자님 집보다 더 크고 좋게 지을 테다.” 1976년에 들어 새로운 경종법으로 소득을 올린 그는 먼저 그의 집을 헐어 편리한 현대식 주택을 지었다. “영차!” 이곳저곳에서 주택개량의 힘찬 망치소리가 들렸다. “기왕 손댄 김에 울타리도 고치자.”, “좋지, 싸리 울타리는 매년 손봐야 되고 불결해.”, “음매,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구나.”, “꿀꿀~ 기분 좋다.” 소 돼지를 기르는 축사를 돌보는 것은 물론이었고 “야, 해 놓고 나니 멋있다.”, “이거~ 이러다가 마을 전체가 서울 번화가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1976년 마을구판장을 비롯하여 부속건물 20동을 지었다. “우리 여자들 머리도 현대적인 파마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참내~ 그건 새마을운동이 아니야.” 옛날의 불편했던 모든 것은 편리한 현대식으로 하나하나 바뀌어 나갔다. “주민들이 부담하고 모자라는 것은 도와주십시오.”, “예, 새마을운동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립니다.” 모두 새마을운동의 결실인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서만 군청에 제출하면 군청은 적극지원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이다. 일하려고 노력하는 마을... 즉 이것은 발전을 꾀하는 새마을 운동의 취지인 것이다.

“자, 냄새나는 곳은 하수구관을 묻읍시다.”, “좋지요. 이제 파리, 모기 안 봐서 좋겠다.”,

“그뿐이냐? 마을 안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토관을 매설하기로 결심을 하고...”, “영차, 영차”, “진작 이렇게 일할 것을 왜 몰랐던가.”, “새마을운동은 좋은 것이야.” 1976년 평택군 현덕면 화양2리 용동마을은 자립마을로 승격되고 힘찬 전진을 계속하였다.

“어흠 우리 집은 전화를 가설했지”, “피~ 우린 벌써 한달 전에 가설됐다고”

이렇게 해서 각 가구의 능력대로 문화복지 혜택을 받는 마을이 된 것이다. "지도자님,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할까요?", "예, 그래서 모이자 한 겁니다."

1977년에 들어서도 이들의 힘찬 전진은 계속 되었다. "우리 마을은 진입로가 좁아 아직도 크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도로확장 공사를 하자 이거죠", "좋지요. 이젠 척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군비 300만원을 지원받아 연 인원 210명이 동원되어 길이 2500m의 길을 노폭 6m로 넓히는 공사가 1977년 시작되었고, "아니 샛길이 언제 이렇게 커졌지?", "야~ 우리 집 앞까지 차가 들어오다니" 마을의 교통은 이제 걱정이 없게 되었고 어떤 차량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제길 우리 마을은 어떻게 정미소 한 군데도 없담." "에잉, 물레방앗간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또한 이 마을의 해야 할 큰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그중 도정공장이 없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에잉, 갔다 왔다 바쁜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뿐이야 기다려야 하고 돈도 많이 들어", "에구 이 많은 수확물을 언제 어떻게 도정공장까지 갖고 가서 도정해야 한담.", "에잉, 그게 제일 고민이야" 도정공장이 없기에 2km나 떨어진 타 부락에서 쌀과 기타의 곡식을 도정해 오는 불편과 노력의 낭비가 많았다. "어쩐담. 가장 시급한 게 도정공장인데..." 그러나 워낙 큰 돈이 들기에 자금이 문제였다. "도정공장만 설립하면 시간절약은 물론 마을에 큰 도움이 될 터인데.", "글쎄요 좋기는 한데", "그 큰돈을 어떻게" 곧 마을 총회가 개최되고 "지금은 어렵겠지만 노력합시다.", "도정공장은 우리 마을에 영구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좋다. 언젠가는 만들어야 할 것 당장 해 봅시다." "암 물론이지 이런 일에 돈을 아끼는 것은 바보다.", "우리 마을에 도정공장이 생기다니 꿈만 같다." 그의 설득으로 주민들 모두 있는 돈 없는 돈을 구하여 성의껏 모금하였으나 600만원 중 400만원이 모였다. "아~ 역시 절망인가?", "아 걱정 마십시오." 나머지 200만원은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곳이 없었다. 그러나... "우린 전기가설 때 이보다 더 큰일도 해냈습니다. 나머지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제 100만원만이 문제로군" 그는 농협에서 100만원을 융자 받았고, "염치불구하고 또 찾아왔습니다.", "무슨 소릴 좋은 일입니다. 작지만 보태 쓰십시오." 남은 100만원은 재경 마을사람들을 찾아가 사

정해 도움을 받았다.

"만세! 만세!" "우리가 정미소를 갖게 되다니" 1978년9월 어려운 난관을 뚫고 새마을협동정미소가 설립을 보게 되어 마을은 축제의 분위기에 쌓였다. "새마을운동 만세!" "새마을지도자! 황대영씨 만세!", "야 ,신난다. 정미소가 가까워 운임도 절약되고", "그뿐이냐 우리 마을 것이니 값도 아주 싸다구."

"공부 잘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꼭 은혜에 보답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회의 끝에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30%는 장학금으로 사용키로 하고, 1978년의 모든 경비를 뺀 순이익금 100만원을 중학생 22명과 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으로 주게 되었다. "우리 마을이 잘 살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과 지도자님 덕택이야.", "암, 그렇고말고" 그의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결실은 하나하나 맺어져 갔다.

"신난다. 이것도 돈 덩어리로구나.", "우리 마을은 점점 부자가 되어 가는구나." 또한 농협에서 300만원의 마늘 재배자금을 융자 받아 5ha의 논 마늘을 확대재배 했고 "이젠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어 좋구나." 또 한편으로는 마을금고를 육성하였다. "아이쿠, 마을금고가 날 살려주었구나.", "자, 이 악질아 돈 받아라,", "아이고 난 이제 누구에게 돈 놀이를 하지" 이때까지만 해도 몇몇의 고리대금업자가 있어 판을 쳤으나 마을금고에서 570만원을 출자하여 이를 퇴치시켰다. "에잉~ 다른 마을에나 가서 돈놀이를 해볼까." 다른 마을 "이곳도 자넨 필요 없어. 우린 새마을운동을 하니까 고리채는 쓸 필요가 없어" 이제 마을에 고리대금업자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암!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이니까"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주민 모두와 마을금고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마을 근처의 아산만을 막아서 농토를 늘려 나갔다. 소득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주민들은 평균 1~2ha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을 소득은 더욱 늘어난 것이었다.

"와아, 신난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증산왕 용동마을' 황대영 지도자는 솔선수범하여 영농법을 개선하여 농사를 지어 300평당 백미 920kg을 수확하여 경기도 쌀 증산왕을 차지하였다" 1978년 쌀 신품종재배법의 성공으로 경기도 쌀 증산왕을 차지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전국에서 벼농사를 제일 잘 짓는다는 말이지" "그렇고말고 이 상패를 보십시오." 하여 대통령각하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어 1979년에는 전국 증산왕을 획득했다. "우리 마을의 역사상 쌀을 이렇게 많이 수확해 보기도 처음이야.",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야" 마을사람들 모두가 기쁨에 넘쳤고 '하면 된다.'는 신념에 불타 있었다.

"아니, 평택군 현덕면 화양2리 용동마을에 쌀 증산왕이 있다고?", "그것 신기 하구나. 비결이 뭘까?" 이 마을의 발전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당신이 쌀 증산왕이요?", "비결이 무엇 입니까?", "하하, 노력이 제일이죠." 또한 세계 속의 관심이 된 새마을운동을 배우려 동남아를 비롯한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놀라운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단결하는 새마을운동 정신아래 일하는 겁니다.", "호~ 새마을운동정신이라?", "우리나라도 배워야겠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후진국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햐 한국은 무섭게 발전하는 나라로구나." 이들은 황대영씨에게 모든 걸 배워가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야, 이거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발전하다니 나도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은걸.", "여보 우리 한번 구경 같이 가봐요." 또한 고향을 떠나 타지방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고향의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했고 "빨리 일해", "예 예" 새마을운동의 물결이 있기 몇 해 전만해도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거나, "옥수수 사세요.", "고물 삽니다." 날품팔이 행상을 하며 살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될 줄이야.", "그러게 그동안 일하는 방법을 몰랐던 탓이야" 이제 자기 땅을 가지고 1980년도 호당 500만원의 소득을 목표로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즐거울 수가! 우리가 옛날 농사지을 때 어디 이랬나.", "암 모두가 대영이가 똑똑한 탓이야 한잔 들게" 계속 쌓여만 가는 마을 소득의 이익금으로 마을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도 베풀어진다. "요즘 마을 젊은이들의 경노사상 또한 얼마나 예의 바른가.", "암, 자네 아들이 똑똑한 덕에 우리가 호강하는 거라고", "아범아 그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버님이 걱정해 주신 덕분입니다." 항상 농촌에서 일하는 것을 자식이 출세

못하는 원인으로 알고만 계시던 아버님도 비로서 아들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야 재미있다”, “꼭꼭 숨어라.”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어 자유롭게 놀게 해 주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서 발전된 마을 속에 안정된 가정을 갖게 된 것이다.

“아빠 그동안 고생 많았죠?”, “이젠 내가 아버님 일을 대신 맡아 할께요.”, “허허 고맙구나.” 2남 2녀의 가장으로서 집안일을 돌볼 날 없이 일을 했기에 아이들에게 큰 점수는 따지 못했으나 그는 존경받는 아버지인 것이었다. “여보, 모처럼의 휴일이니 가족끼리 하루 쉬시죠.” “아빠 오늘이 추석이죠.” “오~그랬나?”, “그래, 오늘은 너희들과 하루 즐겨보자꾸나.”, “만세 신난다. 오늘은 가족 바둑대회를 열기로 해요.”, “형은 하수가 제일 떠들어.” 풍요하고 복된 마을 이것은 돈만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 피와 땀을 흘리며 이룩해야지만 참된 보람의 뜻을 알게 되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한 푼의 돈이라도 땀 흘려 벌어야만 알차게 쓸 수 있듯이 피와 땀의 노력으로 이룩된 마을의 발전만이 영원을 지속 하게 된다. 그만큼 소중히 아낄 테니까.

19. 시대별 주요 성공 · 우수사례 모음

가. 성공사례 : 농촌 남성지도자[지역], 1977

농학사가 이룩한 양계단지 마을

화성군 반월면 입북2리
새마을지도자 이 철 우

이 마을은 수원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수인 산업도로변에 위치한 마을로서 영세한 경지면적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날품팔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무기력하고 나태한 마을이었으나, 이상농촌 건설을 꿈꾼 한 농학사의 집념어린 소득원개발로 양계사업을 시작하여 전 주민에게 보급시키는 한편, 주민들

에게 자조, 협동정신을 고취시키는 등 이 지도자의 마을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작년 말 호당 평균 185만원의 소득을 올린 우수 새마을이다.

이상농촌 건설의 꿈

수원역에서 수인 산업도로를 따라 약 4km 정도 가면 저분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하면서 처음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입북 양계단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이 바로 총 가구 149호에 816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전 가구가 거의 전화, 전기시설이 되어 있으며, 76년 말 호당 평균 소득이 185만원인 부자마을 화성군 반월면 입북마을이다. 이 마을이 이처럼 농촌마을 답지 않게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부자 마을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교편생활을 청산한 후 이상 농촌을 건설해 보겠다고 아무 연고도 없는 농촌마을에 뛰어들어 새마을 운동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온 지도자 이철우씨 때문이다.

이 지도자는 충남 홍성군 어느 벽촌에서 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농촌 근대화의 기수가 되어보겠다는 일념으로 고향에서 중 · 고등학교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입학하였다. 낮이면 학업에 열중하고 밤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을 하자마자 학생시절에 설계했던 이상농촌 건설의 꿈을 한번 실천에 옮겨 보겠다는 굳은 결의를 하고, 61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자식의 출세만을 위하여 오로지 한평생을 희생하여 온 그의 아버지께서는 "글 한 줄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내가 생명과도 같은 땅을 팔아가며 너를 가르칠 때 내 뒤를 이어 땅을 파라고 너를 가르친 줄 아느냐"고 꾸짖으면서 하루 속히 고향을 떠나 출세하는 길을 택하라고 재촉하였다. 이 지도자는 이 같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경북 김천 농업고등학교의 축산담당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교단에서 학생들과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도 평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만을 지키면서 흙만 팔줄 알지 소득원의 개발이나 새로운 농사법의 도입 같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순박한 농민들과 생활하면서 근대화된 이상 농촌을 건설해 보겠다는 신념은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이때마다 사표를 제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부

모님을 설득할 길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하는 수 없이 그는 용단을 내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1969년 드디어 보건소에 근무하는 부인과 함께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의 이 마을에 내려오게 되었다.

난관을 극복한 지도자의 의지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이 지도자는 퇴직금 26만원과 그동안 푼푼히 저축한 70만원으로 밭 800여 평과 방 한 칸 딸린 초가 한 채를 구입하여 초라하게나마 농촌생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당시 이 마을은 장화가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진흙투성이였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적은 농토에 의지하고 살 수 없어 수원 시내에 나가 날품팔이를 해야만 생계가 유지될 정도로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술과 노름은 생활주변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려 무절제하고 무기력한 생활의 연속으로 인근에서 도난 사건만 발생하면 이 마을 주민들을 의심하게 되었고 싸움이 벌어졌다 하면 이 마을 주민들이 관련되어 있을 정도였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마을 환경 때문에 이 지도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편생활까지 한 지식인으로서 발전의 여지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이 마을에 정착한데 대하여 의아심을 갖게 되었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일 때 마다 이 지도자의 정체에 대하여 수군수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도자는 주위의 눈총에도 아랑곳없이 잘사는 농촌, 이상적인 농촌을 건설하고 낙후된 이 마을 주민들의 의식구조부터 개선해 보기로 작정하고 먼저 마을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악조건을 이겨내면서 소득 수준을 조사하였더니 호당 평균 20만원 이라는 극히 낮은 수준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소득 수준으로는 이상 농촌을 건설해 보겠다는 당초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자신을 의심도 해 보았지만, 그러나 고향을 버리고 부모님과도 의를 상하게 된 이 마당에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여 기어코 목적을 달성해 보기로 스스로 다짐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섰다.

병아리를 벗 삼아 꿈을 키운 이 지도자

이처럼 타성에 젖어 있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란 힘든 일이므로, 우선 혼자의 힘으로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이기로 하였다. 800평의 밭에 20평 규모의 계사를 짓고 부화장에서 감별하고 난 수평아리를 사다가 양계 사업을 시작하였다. 열과 성의를 다한 결과, 양계 사업은 의외로 잘 되고 양계 업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처음부터 회의적으로만 보고 있던 마을사람들은 양계장이 점점 커지고 사업이 확장되는 것을 목격하자 무엇이든 열과 정성을 다하면 성공이 가능하고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없다고 한 사람 두 사람 느끼게 되었다. 이에 힘을 얻은 이 지도자는 이 마을 사람들을 지도하는데 따라 근면하고 협동하는 새마을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 밤이면 사랑방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근면하고 협동해야 된다고 누누이 역설하고 또 학교 때 배운 양계지식을 가르쳐 선진 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설득하였다.

입북양계 단지 결성

그 결과 18가구가 양계 사업에 동조하여 첫해 수평아리의 시험사육 방침에 따라 약 한달 동안 1,000수당 4만원의 순수익을 보게 되자 많은 농가가 호응하여 70년 11월 드디어 입북양계 단지라는 정식조합을 전 주민총회에서 결성하고 이 지도자가 초대회장으로 추대되기에 이르렀다. 이 지도자는 사료의 공동구입과 공동출하의 이점을 주지시키고 5명의 이사를 선출하여 공동판매 사업을 위한 정관을 작성하였다. 사료와 계사를 짓기 위한 자제 구입을 공장과 직거래하며 생산물은 고가의 판매 계약에 의하여 주민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하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황기 대비책으로 적립금 제도를 마련하여 저축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모든 사업추진을 주민 총회의 의결로 실시하였든 바, 호응도나 추진상의 열의 및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이리하여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생활에서 근면하지 않을 수 없고, 협동하지 않을 수 없는 주민들은 스스로 돕고 노력하면서, 이 지도자가 이 마을에

오기 전의 그 방탕했던 생활을 부끄러워했다. 또한, 이지도자는 마을 총회에서 주민들 스스로 지켜나갈 다음과 같은 생활신조를 제정하여 집집마다 부착케 하고 아동 교육의 지침으로 활용하게도 하였다. 성실한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자. 서로 믿고 서로 도와 풍요한 새마을을 이룩하자. 굳게 뭉쳐 나라를 지키고 빛나는 새 역사를 창조하자.

예식도 다목적 마을회관에서

1971년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마을운동의 싹이 움트면서 이철우 지도자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기초 환경 사업을 이룩하고자,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나서 농산물 반출과 사료 반입에 큰 지장을 초래하던 진입로 1,500m를 대형 트럭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확장시켰고, 양계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전화공사를 자체 자금으로 끌여 들여 놓았으며, 73년에는 정부지원 시멘트 450포와 철근 1.5톤, 자체자금 240만원으로 다목적 마을 회관을 건립하여 마을 총회, 사료 적치장, 아동 학습지도, 가정의례 준칙에 따른 간소한 예식장 활용 등으로 마을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도자는 여기서 다섯 쌍의 신혼부부에게 주례를 맡아 결혼식을 올려 주기도 하였다.

첫 번째 닥친 시련

1974년 이 지도자는 마을 호장 평균 소득이 120만원을 상회하게 되어 부자마을로 표창까지 받았으나, 그해 가을 뜻하지 않던 전염병에 의해 전 양계 사육수의 50%에 해당하는 5만수의 닭을 폐사시키는 첫 시련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지도자는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방안 강구로 그동안 불황기에 대처하기 위해 적립하였던 양계 단지자금 1,000만원으로 병아리를 구입하여 사육능력에 따라 분배한 후, 새로운 양계 기술 보급과 계사 소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 양계사업은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75년도에는 거의 전 가구에 전화를 가설하여 대도시의 농산물 수요정보와 앉아서도 이웃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내에서 보기 드문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마을이 되었다. 1969년도 호당소득 20만원이 금년 말 23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 지도자는 농촌소득구조의 개선을 위한 농업에 소득원 개발과 주민들의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협동정신으로 이룩한 개혁이라 할 것이다.

소득원의 다각적 개발

한편, 이 마을은 양계사업 외에도 한우 비육사업, 양돈사업과 두부공장을 경영하고 있기도 하며, 새마을사업으로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지난날의 흙 담장의 초가집을 문화주택으로 완전히 개량하였고, 집집마다 TV 안테나가 마을의 위용을 드높이고 있다. 현재 계사 연건평 3,000평에 20만수의 닭과 700마리의 양돈사육으로 하루에 3,000수의 육계가 시장에 출하되면서 축산수입으로만 호당 평균 18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부자 마을이 되었다. 또한 이 지도자는 1980년대 호당 평균 소득 350만원을 목표로 하여 제2공동사육장을 만들기 위하여 인근 면의 화성군 봉담면에 야산 10,432평을 구입하여 12만수의 닭을 사육할 수 있는 축사를 건립키 위해 1억 800만원의 공사를 현재 80%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1977년도 경제동향 동시보고 마을로 선정되어 각하하사금 300만원을 지원받아 주민 부담금 300만원과 함께 한우 비육사업 5개년 계획으로 1980년대 호당 3마리의 한우 비육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온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인 육계가공 처리장을 설립하여 마을 주민이 생육한 육계를 직접 가공하여 값싸고 영양 높은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적립자금 1,550만원을 확보시켜 놓았으며, 이 사업의 수입금으로는 80년대에 가서 마을의 전 학생을 무상으로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한 농학사가 농촌의 무기력을 타파하고 소득 증대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한 마을의 번영을 이룩하게 되었고, 주민들에게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일깨워 건전한 생활을 영위케 한 이 철우 지도자. 그의 새마을 운동은 실천 철학이며,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 주변에서 농민들을 일깨울 때 농촌 근대화는 멀지만 않으리라 믿는다.

이 사례는 1977년 내무부가 발행한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나. 성공사례 : 농촌 남성지도자[지역], 1976

보리이삭 주워 모아 낙농부촌 이룩한 마을

평택군 송탄읍 칠원 1리
새마을지도자 김 기 호

보리이삭을 주워가며 내일을 설계

이 마을은 평택 읍에서 동북쪽으로 약 3km 지점에 자리 잡은 산간마을이며 조선조 말엽 삼남지방에서 서울로 통하던 구 도로변의 마을로 주막을 열거나 주위 산에서 나무를 베어 나무장수로 연명하며 누대를 내려온 가난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을 이겨내고 떳떳하게 살아야겠다."는 끈질긴 집념을 가진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마을 주민이 협동 단합하여 주변의 산야를 알뜰히 가꾸고 소득기반을 닦는 등 피땀 흘려 일한 보답으로 자랑스러운 부자마을로 탈바꿈 되었다.

김기호 지도자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라면서 조상대대로 가난 속에서만 살아온 쓰라림에 강력한 자극을 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는 굳은 각오로서 소년단장, 청년회장, 마을 이장 등을 역임하면서 오직 마을만을 위하여 20여 년간을 꾸준히 일해 왔다. 그는 가난을 숙명처럼 알고 나태한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각없는 어른들의 마음을 일깨우려면 어린이들이 솔선하여 옳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15살이 되던 해에 자기 또래의 친구를 모아 소년단을 결성하고 우선 논밭에 떨어진 이삭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6.25동란으로 피난 중에 굶주린 주민들이 모아놓은 보리를 양식으로 보태 먹자고 졸라대는 것도 뿌리치고 방공호에 숨겨가며 꾸준히 10년 동안 늘려온 결과 보리이삭은 20가마로 불어나게 되었다.

그 후 청년회장으로 피선된 김기호 씨는 청년회원들과 상의 끝에 이삭모아

만든 기금으로 이웃마을에서 빌려 써야 했던 사모관대, 꽃상여 등 관혼상제 용품을 구입하여 부락민들로 하여금 "인륜대사에 쓰는 귀중한 도구를 이제 우리 마을도 가지고 있다"는 긍지를 갖게 하고 농악기를 구입하여 주민들의 단합과 협동의 계기를 마련하므로 서 주민들이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일에 솔선 참여하여 무기력 했던 지난날을 청산할 수 있는 바탕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는 주민들의 단합의 계기가 마련되자 오랫동안 이 마을 주민들이 나무를 베어내어 헐벗게 된 산에 이제는 나무를 심어 가꾸므로 서 산의 소중함을 절감케 하는 한편 이 산에서 새로운 소득을 얻기 위하여 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기금으로 9,000본의 리기다 묘목을 구입하여 국유림 3ha에 조림을 하고 가지치기와 송충이 잡이 등 정성을 다해 가꾸고 몰지각한 이웃마을 사람들의 도벌을 막기 위해 김 지도자는 충북 진천군 미군부대에 교섭하여 시멘트로 만든 철책 기둥 500개를 얻어 청년회원 전원이 이를 운반 국유림 3ha 주위에 철조망을 시설하였고 청년회원으로 순산 반을 편성하여 주야로 북을 치며 산을 감시하였다. 이리하여 지난 10년 동안 정성껏 가꾸어온 나무들은 울창하게 자라 마을 소득의 새로운 보고가 되었고 오는 80년에는 약 1,000만원 상당의 마을 공동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며 81년도에는 경제 수종으로 다시 조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마을 사업으로 덴마크를 능가하자

이렇듯 지도자의 실천을 통한 지도력에 의하여 주민들이 마을일에 참여하려는 협동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마을일을 외면하고 헐뜯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있어 고심하던 중, 71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른 새마을운동의 거센 기운은 김 기호 지도자와 철원 1리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고 이에 힘을 얻은 주민들은 덴마크를 능가하는 새마을 건설을 다짐하고 '결의의 탑'을 마을 입구에 세우면서 새마을운동의 첫발을 힘차게 내딛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첫 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개설사업계획을 세운 지도자는 농로로 편입될 자기소유 옥답 300평을 솔선 희사함으로써 일부 지주들의 반대를 쉽게 설득하였고 얼음이 채 녹기도 전인 72년 3월에 일을 착

수하여 40일 동안 연 인원 1,200여명이 참여하여 5m폭의 농로를 3.5km나 개설하였으며 마을 진입로 1.5km를 6m폭으로 확장하고 길가에 수양버들과 이태리 포플러 2.000 그루를 심어 경관 조성도 함께 하였다.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새마을 사업용 시멘트 335대를 지원받고 사기가 높아진 주민들은 마을 내 하수도 공사에 사용할 토관 372개를 제조하여 모든 마을길에 매설하였다. 특히 마을 앞 천수답의 농경지를 가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농업용수를 겸한 하수구 600m를 축조하였으며 이 하수구에 집안의 하수구를 연결하여 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건위생 시범마을로

73년 10월부터는 39호의 지붕개량을 비롯하여 개량이 불가능한 불량주택의 개량 사업에 착수하여 청년회원을 5개조로 편성한 후 지역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어린이까지 참여시켜 28동이나 되는 불량주택을 개량 완료하였다. 또한 변소를 중심으로 한 축사, 퇴비사 등 부속건물의 위생적 개량이 농촌 주거 환경개선의 주요 과제임을 인식한 지도자는 마을안의 모든 변소와 부속사를 새로 개량하여 보건위생 시범마을로 육성하였다. 그리고 120만원의 지원금과 155만원의 마을기금 및 주민자력으로 이룩된 전화 사업은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야간에도 쉬지 않고 일손을 생산 화함으로서 더욱 근면한 생활기풍을 조성하였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자 문화 복지 생활의 기틀을 마련한 김기호 지도자는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부엌개량과 함께 위생식수를 공급하였고 부녀자들은 공동양묘사업으로 얻어진 21만원의 기금으로 식생활 개선과 농번기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건평 7평의 식생활 개선의 집을 세우고 국수기계, 병조림제조기, 제분기, 분쇄기 및 전기밥솥 등 조리 기계를 구입하여 주 1회, 식생활 개선 연시회를 여는 등 농촌의 보건위생 선도마을이 되겠다고 의식주 생활개선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다. 마을 발전을 위하여 희생적인 봉사활동을 경주한 김기호 지도자는 72년 3월 1일 조림사업과 지역개발 분야에서 3.1문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그는 이 영광이 마을주민들의 단합의 결과라 생각하고 상금으로 받은 100만원을 모두 마을에 희사하여 27평 규모의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대화의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첫 걸음

또한 그는 자기 직장인 미 공병부대에 사정하여 콘센트 자재를 지원 받아 43평의 새마을 교실과 사재 25만원을 들여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새마을 교실에서는 농한기와 야간을 이용하여 주민 총화를 위한 새마을 정신교육과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 및 영농기술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기호 지도자는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운동'이라는 박대통령 각하의 말씀을 되새기며 호당 평균 경지면적 0.6ha밖에 되지 않는 이 마을의 여건으로 보아 소득을 올려 잘 살 수 있는 길은 주변 산지를 활용 낙농 소득을 올리는 길이라 판단하고 평택목장과 농촌지도소를 찾아가 낙농 기술을 배워가면서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며 주민들을 설득해 나갔다. 73년도에 축산 구조개선 특별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은 지도자는 선뜻 호응하지 않은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네 동의 축사를 건립하고 융자금 396만원으로 평택목장에서 네덜란드산 「홀스타인」젖소 12두를 구입하여 우선 뜻있는 네 농가에 입식시켰다. 처음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라 유우관리 경험 부족과 사양 관리 기술이 미흡한데다가 때마침 전국적인 사료 난까지 겹쳐 젖소 값이 하락되자 입식 농가들은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젖소를 반환하겠다고 한일도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농 부촌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사료 난을 해결키 위하여 논두렁과 야산을 헤매어 산야초를 찾았고 배합사료를 공급받기 위해 각 방면으로 교섭하였으며 틈틈이 젖소관리 기술을 익혀 주민들을 계도해 나갔다. 한편 자급사료 개발을 위해 마을 주변 야산 7.5ha에 목초지를 조성하였고 신선한 우유를 얻기 위해 분뇨와 습기로 불결한 우사를 청결히 함을 잊지 않았다.

낙농으로 부자 마을을 이룩

이러한 피나는 3년 동안의 각고 끝에 낙농 농가가 당초 4호에서 17호로 늘어났고 젖소는 12두에서 114두로 늘어나 마을은 낙농 전업마을로 변모 되었

다. 지금은 매일 76두의 성우에서 1,140kg의 우유가 생산되며 송아지 생산과 큰 소 증식 수입 등을 합하여 연간 총 5,130만원으로 낙농농가 평균 302만원의 순소득을 올리고 있다. 젖소의 사육관리 기술에 익숙해진 주민들은 한우 생식에도 눈을 돌려 현재 52두의 비육우를 사육하여 연간 600만원의 소득을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산간마을의 소득구심사업은 새마을의 열기와 함께 고조되어 11,400평의 연초재배로 양질의 잎담배 8,300kg을 생산하여 747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지도자의 묵묵히 솔선수범하는 지도력으로 주거 환경사업과 소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마을은 75년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100만원의 하사금을 받았고 여기에 주민 부담금 50만원을 보태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34평의 공동창고를 완공하고 정부양곡 보관으로 연간 34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이 지도자와 마을사람들이 힘써 일한 결과 70년도의 호당 경지면적 0.6ha에서 현재는 1.15ha로 증가되었고, 소득은 70년도 호당 32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69만7,000원으로 무려 8배나 신장되어 부자마을이 되었으며 이 마을의 발전상은 인근 마을을 자극시켰고 새마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새마을 사업을 가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이 마을은 80년대 320만원의 호당소득을 목표로 마을 앞 10.5ha의 천수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만들어 식량 증산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저수 시설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5ha의 산지 개발로 초지면적을 더 확대하여 낙농을 위한 공동사료 채취장으로 활용하고 77년도까지 젖소 200두를 입식시켜 80년도 320만원의 소득 중 낙농에 의한 소득 구조를 60%로 올릴 계획이다. 또한 영농을 기계화하고 남는 노동력을 생산소득 사업에 힘쓰도록 하기 위하여 트랙터 2대, 분쇄기 5대, 착유기 10대를 78년까지 구입하는 등 80년대 덴마크를 능가하는 살기 좋은 부자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사례는 1976년 내무부가 발행한 '새마을운동 시작에서 오늘까지'에 게재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다. 성공사례 : 농촌 여성지도자[부녀], 1977

절망에서 낙원으로

안성군 삼죽면 강촌리
부녀지도자 박 인 순

우리 마을은 안성군 삼죽면 강촌리로서 면소재지 마을입니다. 부락을 가로지르는 국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나 사회면으로 딴 부락보다 발달하기가 쉬운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옛 조상들이 앞뒤가 산으로 가로막혀 인재가 없다는 탓으로 뭘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주어진 땅에서 그냥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 아주 어렵고 빈약한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아주 낙후된 마을이었어요. 그런 마을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정생활을 돌보다가 안성읍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락현황을 말씀드리겠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교직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별 호화로운 생활은 못했지만 무난한 생활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생활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962년도에 인천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그만 거기서 뇌출혈로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그 비참함과 애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벼락 맞은 나무가 다시는 꽃피우지 못하듯이 나의 인생이 그 벼락을 맞은 그 자신에, 무슨 일을 할 용기와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매일 한 5개월 동안은 한순간 나도 죽어야 한다는 절망 속에서 세월을 살아왔어요. 한 5개월이 지날 때 학교에서 퇴직금이 아니라 교육비가 나왔다고 교육비를 받아가라고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왔을 때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차마 못 들어가고 교장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참 저의 비참한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시는 살길이 없다고 제가 절망의 말씀을 했더니 그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가 있으니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

서 그 계획을 목표로 삼아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 어느 누가 가엽다고 돌볼 사람 없으니까 내가 자립을 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1년이건, 2년 이건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이든 한번 해 보라고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고민을 들었을 때, 다행히 "아! 나는 정말 내가 너무 편한 생활을 했구나!" 내 부모, 내형제가 억만장자이고 백만장자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내 재산 1원 한 장이라도 내가 쥔 그 돈이 진실한 돈이며 절실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시댁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시골에다가 구멍가게라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를 내 마당 귀퉁이에 내놓기 전에 어떻게 너를 내가 시장에 내놓고 너를 장사하라고 내놓겠느냐, 그러니까 못 하신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살림을 하던 것을 철거를 해 가지고 친정부락으로 돌아 왔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으며 내가 배우지 못한 그 배움의 길을 내 자식이나 후손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걸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을 품게 된 거예요. 교감선생님이 나를 보고 1년, 2년, 3년 계획을 세우면 살길이 생긴다고 하는데 1년, 2년, 3년을 하면 그 기회가 내 머리에 떠날 것 같지 않아서 10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내가 10년이면 어떠한 일이든 한번 계획을 세워서 10년에 무슨 계획을 세웠냐하면 10년에 내가 돈 300만 원을 벌어서 서울에 집 한 채를 사면 우리아들 공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결심을 해도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10년 동안 노력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죽던지 아니면 내가 딴 데로 재가를 하겠다는 이러한 결심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게를 구할 수 없어서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못되지만 외동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서 27세의 어린 몸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든 몸으로 보따리를 걸쳐야만 했던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럽게 자신을 가르치는 그 양심을 차마 피할 수가 없어 담 모퉁이 돌아가며 보따리를 지고 눈물을 흘리

며 어린애를 업고 등에 짊어지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지마는 밤에는 계산을 볼 때, 뜻하지 않게 그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이익이 남았어요. 그렇게 3년을 하고 보니까 쌀의 40가마가 마련되었습니다. 쌀의 40가마가 마련되었을 때 저의 시댁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익이 많아요. 수익이 많지마는 제게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과수원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뒷산, 평지보다 200미터나 높은 아주 큰 지형이었어요. 거기서 개간지를 샀습니다. 그 개간지를 쌀 40가마를 주고 사서 배나무 200그루, 사과나무 200그루, 포도나무 200그루를 심어 그거를 관리를 해야 할 텐데, 관리할 저력이 없어요. 보따리 장사를 해 가지고 날마다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했기 때문에 직업을 바꿨습니다. 이 과수원을 성공하려면 내가 집에서 있어야 할 테니까는 집에 있는 생활을 해 보자. 했을 때 제가 배운 기술도 없고 했기 때문에 안성에서 그때 군납닭장을 했습니다. 계란을 양계장에서 군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계란 중에서도 특란을 가져다가 그걸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서울에다 닷새에 한 번씩 열 상자씩 갖다가 구로동과 이문동에 갖다가 2등분을 했습니다. 2등분을 해서 본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본금은 거기다 갖다 바치고 이익금은 갖다 적금을 들었습니다. 적금을 들어서 3, 4월에 농번기를 이용해서 그 돈을 적금을 빼다가 과수원에 활용했습니다. 과수원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한 반면 5년이 됐을 때 1968년도에 포도나무 200그루에서 연 1,500개를 땄어요. 1,500개를 땄을 때 쌀농사로 봤을 때 100가마라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아무리 내가 절망에 5년 전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교감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목표로 삼아 기회로 삼아서 내가 10년 동안 계획한 그 결과, 과연 여기에 있었구나, 아무리 내가 약한 여자지만은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그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땅을 4,000평에다 1,000평을 더 장만했고 장만한 가운데 다가 집을 한 칸 장만했습니다.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산 지형이 높은데 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집을 판 사람은 양봉와 양계를 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집을 팔고 갔어요. 근데 저희는 산 밑에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제가 사야 했기 때문에 제가 샀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과수원이 낭떠러지 밑 옹달샘에서 한 200M 내려오는 옹달샘에서 물을 두 지게 길어 와야 하는 거예요. 옹달샘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과수원 소독을 하려고 그러면은 20킬로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못해도 이틀, 사흘씩 소독을 해야 했어요. 분무기로다가요. 그래서 그것을 할 적에 참말로 애로가 많고 포도나무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배나무는 도저히 그 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때 소독을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낙심하였습니다.

'이거 내가 실패를 했구나!'하고 낙심을 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그래요, 봉학사에 좀 놀러가자고. 나 지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 갈 기분이 없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가자고 그래서 봉학사에 올라갔어요. 봉학사에 올라가는데, 봉학사에 올라가니까 대나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꼭대기인데 대나무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저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쪽으로 끌어 댕기는 그런 작업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저렇게 물을 끌어올 수 가 있구나. 그럼 우리 과수원이 산 밑이니까 산꼭대기에서 어느 정도 물이 흐르니까 저 물을 받아 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자고 해 가지고 집에 와서 관찰한 결과 30메타 정도의 낭떠러지에 전부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러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거를 파가지고 벙커를 묻어가지고 그것을 팔 계획인데 쇠파이프로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성 상수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플라스틱파이프가 있다고 그래요. 69년도입니다. 있다고 해서, 안성에는 없고 천안이나 서울 가면 그 플라스틱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천안 가서 그 파이프를 사다가 상수도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 떨어지는데 하고 저희 집하고 지형이 얼추 같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그물이 안 넘어온다고 그래요. 그 물이 여기까지 안 넘어온다고 그래요. '저 여자 과수원에서 돈이 많이 나오니까 저런다.'고 하는 소리가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물 떨어지는 간격이 물 고이는 데서 떨어지는 데가 2센티만 높았어도 물이 넘어 온답니다. 암만 굴곡이 높아도 넘어서 떨어뜨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했더니 물이 넘어오지 않아요. 거기까지. 또 다시 가서 알아보니까 호스에 공기가 차

면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호스를 분무기로 따랐습니다. 따르니까 물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갖다가 성공시켰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보고 산골에 물을 전부다 몇 사람이 실패를 하고 돌아갔는데 저 여자가 저기다 수돗물을 해 놓았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래서 웃어른들에게 칭찬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제가 70년도에 들어가서는 제가 부업으로 양돈을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부락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제창을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 부락에서도 청년개발위원을 소집하여 부락 새마을사업에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남자들이 하는 일만 우리가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우리가 부녀자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부녀회를 발족 시켰습니다. 부녀회를 발족 시킨 결과 부녀회는 운영을 해야 할 텐데, 자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살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 부녀회에서도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니까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부녀자들이 제일하기 쉬운 것 전리대출을 하자! 전리대출을 해서 1971년도 6월 10일 전리로 시작해 가지고 전리로 모은 돈은 구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구판사업을 실시해서 1973년도에 결과를 볼 때 백미 13가마, 돈 32만 7천 원이라는 거액이 모아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 부락에서 초가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건물 176동의 지붕을 전부다 벗겨내고 한꺼번에 해야 할 텐데, 부락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금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부락에다가 지붕개량 하는데 이 돈을 극빈자들에게 무이자로다 2년 상환으로 해서주자! 그래 가지고 그걸 2년 상환으로 부녀회에서 내놓았습니다. 내놓고 지붕개량 철수를 하는데 워낙에 썩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썩은 것을 벗겨 놓으면 여자들이 전부다 그걸 나르고 남자들은 슬레이트를 다 날라주고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상부상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1973년도에 지붕개량을 착수시켰습니다. 그랬을 때에 경기 도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저희 마을에 시찰 나오셔 가지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감탄하실 때 '아! 과연 조그만 부락이고 아무리 빈곤한 가정이지만은 행동으로 실천하고 개혁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를 칭찬하시고 가

셔 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건의할 것이 있으면 무엇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하실 때 부녀자 일손 돕기 위해 간이상수도급수시설을 해 달라고 했고 양장, 양봉, 양계, 양돈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사료공급을 건의 했습니다. "사료공급을 좀 해 주십시오. 또 하천공사작업장,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아 그럼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셔서 지금은 아주 공동작업장이 있어 가지고 부녀들이 일체, 공동작업장을 할 수 있으며 또 상수도 설치를 해서 물을 떠다먹고 아주 없었던 하수도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한우 양장으로 유명하며 PR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향한 결과 실적도 있고, 정부에서 지지하는 80년대에 140만 원, 소득 1인당 140만 원 소득을 우리 부락에서는 2년 앞당겨 1978년도에 1인당 소득 140만 원을 올릴 계획으로 우리 부락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계속하고 있고 우리 부녀회에서는 78년도까지 백미 80가마, 현금 300만 원을 목표 달성하여 우리가 배우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어머니 장학회를 조직해서 우수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공급할 것이며 부녀 장학회를 만들어 출시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1977년 '새마을연수원'에서 발표된 성공사례를 게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라. 성공사례 : 농촌 남성지도자[지역], 1977

이상촌을 향한 젊음의 의지

양주군 구리읍 수택1리
새마을지도자 이 완 석

저는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수택1리 새마을지도자 이완석입니다. 서울 근교

에 위치한 우리 마을은 농촌이라고는 하지만 총 342세대 중 농가는 겨우 48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는 농촌과 도시가 혼합된 마을입니다. 제가 13년 전 처음 정착하였을 당시만 해도 이 마을은 40여 호의 농가로만 이루어진 가난하기 짝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6.25때 잔인무도한 놈들의 총칼에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님 슬하에서 대학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어느 여름방학 때 농촌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본 논은 평소에 생각했던 전경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컸습니다. 저는 농촌의 빈곤을 직접 목격하며 왜 우리 농촌은 가난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를 뼈아프게 생각했고, 내 힘으로라도 어떻게 하든 저 가난의 멍에를 벗기고야 말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가슴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농촌서적을 읽으면서 농촌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반대는 대단했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자식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어느 부모고 말리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온 기대를 걸며 고생고생 다하신 어머님이시니 그 반대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성인들이 농촌을 외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우리 같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보람 있게 일하는 것도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한 끝에 기어이 어머님을 설득해서 지금의 마을에 정착하였습니다.

저는 첫 사업으로 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경험도 없이 시작한 양계사업이 그 당시 한창 성행하던 전염병에 걸려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고 이번에는 논과 밭을 사서 진짜 농군이 되어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도 다른 사람의 반농사 밖에 짓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마음으로 실패의 원인을 되새기며 다시 책을 들기 시작했고 친지 독농가를 찾아가 고등소채재배기술을 익히는 한편 농촌지도소와 농과대학 교수님을 찾아가 새로운 영농기술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가장 중요한 파종법, 온도조절, 습도조절 그리고 병충해 방제 법까지 소상히 배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에 가서는 농사정보와 판로관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협

을 통해 농사자금을 융자받아 논농사는 퇴비와 더불어 객토를 하고 아울러 못자리는 보온절충 못자리를 실시하여 주민들보다도 20일을 앞당겨 모를 심었고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대로 비료시비법과 병충해 방제에도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한 밭농사로는 기술을 익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상추, 오이, 토마토, 쑥갓 등의 고등소채를 재배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온 정성을 다 바친 비닐하우스 농사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등소채재배에서 논농사의 3배가 넘는 소득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마을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으며, 저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씩 둘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던 비닐하우스와 얼가리 영농방법을 알려고 모여들어 저희 집은 갑자기 영농교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때를 맞추어 저는 한창 배우면서 내일의 꿈을 키워 가야할 청소년들이 하는 일없이 빈둥대며 허송세월하는 것이 하도 안타까워 이들에게 농사기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점점 커나가 흡사 야간 강습소와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몇몇 마을사람들은 야간모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어디서 타향 놈이 들어와 잘난 듯이 설치냐며 주먹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며 배우겠다고 모여든 청소년들은 날로 늘어만 갔고 저는 이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1970년 박대통령각하께서 제창하신 새마을의 불길이 저의 마을에도 번져왔으며 저는 마을총회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첫 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장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도 못 들어오는 좁은 진입로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마을은 발전할 수 없다고 역설하며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 착수는 하였으나 가장 큰 난관은 진입로에 편입되는 2천여 평의 개인 땅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10여 차례의 마을총회와 개인설득으로 40여일 만에 확장공사는 거의 다 끝났으나 서울에 사는 어떤 갑부의 땅 100여 평 때문에 마을 입구만은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찾아가 우리 마을 전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몇 번이나 땅주인에게 말해보았으나 언제든지 단호한 거절의 냉대만을 받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

나 만약 여기서 꺾이면 앞으로는 아무 일도 못하리라는 생각에 미치자 저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질 각오로 아예 경운기를 동원하여 자갈까지 쫙쫙 깔아버렸습니다. 며칠 후 땅주인이 저를 찾아와 자기 땅을 도로 내놓으라며 따귀와 욕설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땅주인을 붙들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길은 선생님의 땅이 들어갔지만 우리들은 여기에 무수한 땀방울을 쏟았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노기등등하던 땅주인은 얼마 후 정중한 사과와 함께 그동안 고생하신 동네 분들께 막걸리나 대접하라면서 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확장된 그 길로 들어오는 대형트럭을 본 마을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시원하게 뚫린 그 길에 서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가슴 뭉클한 감회를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첫 사업의 완전성공으로 당겨진 새마을의 불길은 이제 그 어떤 모진 비바람도 세찬 폭풍우도 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을 얻은 우리는 하수구 950m, 지붕개량 35동, 담장개량 1,300m, 소 교량 및 암거 40m등의 환경정돈 사업은 큰 힘들이지 않고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정돈 사업 못지않게 소득증대에도 힘을 기울여왔습니다. 농가마다 비닐하우스 1동 이상씩을 설치하였고, 공동작업으로 통일벼를 집단 재배하여 단위당 수확을 565kg라는 사상 유래 없는 대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마을은 순 농업소득만도 1972년도에 호당평균 26만원에서 지금은 그 여섯 배가 되는 15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을이 불철주야로 노력한 결과 1974년도에는 자립마을로 승격하게 되었고 대통령각하 하사금 백만 원을 받는 벅찬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을주민들과 더불어 이 기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고 더욱이 새마을사업이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주민 모두에게 알려주는 산 교훈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을 마을공장을 짓는데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소득증대는 한정된 농토의 농업소득만으로는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농외소득을 개발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을공장건립을 생각하고 무슨 공장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서적을 뒤지며 연구도 하여왔습니다. 저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뜻밖에도 공장장은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면서 자

기네 공장의 제품원료공장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공장을 짓는 데는 4백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마을형편으로는 도저히 이 많은 돈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청을 찾아가 마을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였더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래채취를 한강변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그것으로 무슨 돈을 만들 것이냐 하며 참여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공장을 짓기로 결심하고 먼저 청년회원들과 같이 마을에서 4킬로나 떨어진 한강변에 나가 모레와 자갈채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사일과 달라서 삽으로만 퍼주는 작업을 하루만 하면 어느 천하장사도 손바닥이 터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악물고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에는 모두 손에 붕대를 감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통증을 내색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전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 옴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이 마침내 우리의 투지에 감탄했던지 모두 삽을 메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주머니도 노인들도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까지도 손에손에 대야를 들고 몰려나왔습니다.

3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적립한 금액은 예상보다 백만 원이나 더 많은 4백50만원이 되었고, 우리 주민들의 억척스런 모습을 본 지역 유지들이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200만원이란 적지 않은 성금을 보내주어 총 7백5십만 원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장을 짓는다는 벅찬 기대 속에서 6개월 동안 밤낮없이 일한 결과 152평이나 되는 식품원료공장을 마을 한복판에 우뚝 세웠던 것입니다. 이 작업장을 준공하던 날, 양주군의 전 기관장님 그리고 구리읍민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운데 온 마을 주민들은 꿈만 같은 공장 앞에서 기쁨에 넘친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좋아서 서로를 격려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노인들... 참으로 감격에 넘치는 순간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식품공장에서는 약속대로 기계시설을 무료로 설비해주었고, 곧 40여명의 마을주민이 일을 하게 되니 연 평균 3천만 원이나 되는 노임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가운데서 들려오는 기계소

리는 정말 노래 소리보다 더욱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스스로가 신념과 용기를 갖고 값진 새마을의 열매를 하나하나 거두고 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은혜로운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각하의 특별지원금 150만원을 하사받았던 것입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는 마을에는 계속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각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동안 식품공장에서 모은 마을공동기금 250만원을 합하여 제1공장에 이어 건평 120평의 제2공장을 증축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동직조기 20대를 들여와 주민 스스로 삼베를 짜내어 시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마을은 제1, 제2공장에서 주민 70여명이 주야로 일함으로써 연 5천만 원 상당의 노임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놀고 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월 2회 주민공동작업으로 마을 공동기금도 연 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장에서 나오는 부식물 또한 사료로 이용하여 돼지와 닭을 기르고 있어 부수입만도 연 8백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마을은 농외소득도 평균 50만원에 이르러 농업소득과 합치면 호당소득은 2백만 원으로 잘 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얻어진 공동기금으로 주민복지사업을 하기로 하고 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10평짜리 협동이발관을 건립하여 연간 7백만 원을 절약케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평의 아담한 경로당을 지어 주민 모두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50여명의 노인들께 안식처로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들께서는 대단히 좋아하시며 어느 날 저를 경로당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노인들이 모여계신 경로당으로 들어서니 박수로 환영을 하며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회장께서 저에게 일어서 눈을 감으라면서 손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손을 내놓은 저의 손에는 굵직한 금반지가 끼여졌으며 노인들께서는 박수와 함께 "우리지도자 최고야" 하시며 그동안 마을을 위해서 고생만 한 지도자 일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우리 노인들이 푼푼이 모은 정성이라면서 더욱 열심히 마을을 위해 일해 달라는 노인들의 말씀은 너무나도 고마우셨고 저는 그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노인들께서는 조기청소와 함께 애향운동을 손수

실천하시는 훌륭한 노인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지도자만이 갖는 가장 값진 눈물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후 더욱 창의적이고 봉사하는 지도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의례 준칙에 솔선하고 농촌실정에 맞으며 가난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절약시켜 주기위해 새마을 꽃수레 상여차를 연구 제작하여 획기적인 의례준칙을 주민 스스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아하고 간소함은 물론 1개 마을에서 연간 3백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면 연간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마을 주민들은 대단히 좋아하고 신기하게 생각하며 노인들께서는 내가 죽게 되면 꼭 이 차를 태워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잘 사는 마을로 변모해가자 고향을 등졌던 옛 주민들이 되돌아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지도자로서 더 없는 보람이라 생각하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시로 나가려던 우리 농촌이 이제는 도시사람이 오히려 농촌을 부러워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반면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많은 도시사람들과 특히 서울의 판잣집 철거로 인한 집단이주 등으로 우리 마을은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와 무질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입구는 온통 판잣집에 장사꾼들이 혼잡을 이루게 되니 길도 비만 오면 온통 진 구렁텅이가 되어 통행에 불편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어느 날 읍내 기관장회의에 참여하여 아수라장 지역을 새마을사업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으나 하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많은 예산과 주민들의 협조가 어렵다고 걱정들만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다음에는 구리읍 유지와 청년들의 모임 장소마다 찾아다니며 정화사업을 해 보자고 했지만 뜻은 좋지만 그 엄청난 일과 예산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등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새마을에 미친놈이나 할 일이지 하면서 더욱이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무슨 놈의 정화사업이냐고 하는 마음 아픈 냉대를 받는 순간 저는 정말 맥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도자생활 6년의 길은 너무나도

험한 길이었기에 과연 그동안 걸어온 길보다 몇 배나 어렵고 힘든 이 가시밭길을 무난히 걸을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저를 괴롭혔고 아울러 늘 몸이 약한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가정 일을 돌보아오다가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니 어머님께서도 이제는 지도자생활을 그만두라는 말씀이 빗발쳐 참으로 견디기 힘든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생활신조를 '꿀벌같이 살자.'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잠잘 때 일어나 일하고 남이 놀 때 노력하고 남이 술을 먹을 때 그리고 놀러 다닐 때 저는 근검절약하고 두 배 아니면 세 배의 일로서 더욱 봉사하고 희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한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읍 중심가 및 마을 진입로를 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고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야만 하는 사업이고 보니 고민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 끝에 여러 마을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협동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자세한 계획을 세워 우리 마을과 연하는 5개 마을 이장님과 지도자들을 찾아 저의 계획을 전하고 힘을 합쳐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장들과 지도자들은 1개 마을의 사업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5개 마을을 많은 예산과 어렵다는 이야기로 참여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고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이장님들과 지도자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소하천 바로 펴기 교량가설과 간판정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습니다. 다행히 협동권으로 묶어 일 하자는 데는 모두가 찬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갖고 즉시 다섯 마을 주민총회를 열고 정화사업 협동권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우리의 힘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대답은 사업계획은 좋으나 그 많은 사업은 누가하며 또 돈은 누가 마련할 것이냐면서 한 결 같이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들만 모아서 다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달리해서 먼저 이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추진위원장으로 다섯 마을 중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모든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분을 추천해놓고 마을별로 다섯 명씩 모두 26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작업반

협조반, 수금반 그리고 서무반 등으로 부서를 나눈 후 곧 각기 지역을 담당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설득작업은 약 2개월 동안 실시되었고 상당한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동의한 일부 사람만으로 곧 사업에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도로 포장용 시멘트는 군청에서 지원을 받고 기타 사업은 개인부담과 공동부담 그리고 작업은 마을별로 노력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착수를 하고보니 실로 저희들로서는 대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76년 3월 10일 기공식과 함께 착수한 것은 도로포장에 앞서 실시해야 하는 하수구 매설지 파기였습니다. 주민 200여명이 깊이 2m에 넓이 1m로 하수구 매설지 400m를 팠을 무렵 쏟아진 봄비는 파놓은 하수구 매설지를 모두 웅덩이로 만들고 흙까지 메꿔 버렸습니다. 저는 미친놈 날뛰듯이 물속에 뛰어들어 물 퍼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물이기에 저는 다 퍼내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본 주민들이 그대로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는지 물통과 대야로 물을 퍼내고 메꿔진 흙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수구 설치는 무난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포장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충족부족으로 공사는 100m도 못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나의 재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빌려 계속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부담금을 자진해서 납부해달라고 설득했고, 또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기업체를 방문하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호소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를 이해하는 주민들과 기업체에서 다소의 협조가 있어 포장공사 계획 중 500m를 실시했을 무렵인 1976년 4월 4일 저에게는 청천병력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입원 중이던 아내가 별안간 악화되어 생명이 위태롭다는 전갈이 온 것입니다. 아찔한 마음으로 병원에 달려가니 이미 혼수상태가 된 아내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저는 어린 것들을 붙들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자신 너무나 아내에게 무심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대신해서 가정을 돌봐왔던 아내! 과로로 입원까지 하면서도 새마을사업을 걱정해주던 그 아

내가 너무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마을 사람들의 온정에 찬 위로의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었고 한창 벌려놓은 협동권사업을 생각하면 번민과 슬픔에만 젖어 있을 수도 없는 고마움이었고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슬픔을 딛고도 굽힐 줄 모르는 저의 새마을정신에 대해 모든 주민들은 높은 찬사를 보내며 여태까지 망설이고 지지부진하던 작업에 더욱 힘찬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삽질에는 더욱 힘이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열띤 참여는 주위 기업체들에게도 파급되어 많은 성금과 더불어 협조를 보내오게 하였습니다. 작업은 의외로 급진전을 보았고 모두가 최초의 계획을 넘어 도로포장도 1,560m를 실시 260m를 더했고 토관매설도 1,860m를 완료하여 360m를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소하천 바로 펴기 공사는 700m를 완료함으로 30여 호의 침수지역을 보호하게 되었고 폭 8m에 길이 8m의 교량가설과 더불어 바라베트 및 간판정리도 376동을 연동원인원 4,500명으로 총 1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시작 6개월만인 1976년 8월 31일 대망의 준공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온 시가지가 무언가 밝은 내일을 향해 뻗어 나가려는 기운이 서린 듯 했고 아름답고 깨끗한 시가지와 진입로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실로 새마을운동은…… 그야말로 무서운 위력을 지닌 불길이었습니다. 박대통령께서 제창하시어 온 천지에 메아리친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위대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가장 성스러운 길임을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거리질서 바로잡기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등하교시에 어린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혼잡한 거리를 다소나마 바로잡기 위해 경춘 국도 대로에 서서 교통정리를 하루 2시간씩 4년간이나 실시했습니다. 교통정리는 보기와는 달리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일로서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리를 무시하고 마구 달려오는 차량에 아무 것도 모르고 뛰어드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 자신을 생각지 않고 어린이들을 구해낸 일, 또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자나 노약자의 손을 붙잡고 아니면 등에 업고 길을 건너 주는 일은 보기와는 달리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이제는 이곳을 왕래하는 모든 차량들은 물론 주민들도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스스로 거리질서를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역유지들의 성금으로 신호등까지 설치해 교통사고 없는 명랑한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항시 실천위주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무엇이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시 '꿀벌'같은 신념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우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는 불우청소년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관내 기업체와 자매도 맺게 해주어 현재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된 청소년들이 12명이나 되어 밝은 내일을 걷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갖가지 일들을 통해 지도자의 할 일은 한정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새마을사업이고 새마을운동이 된다고 새삼 마음 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한 보람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마을은 농사에서 공장에서 상가에서 직업에 구별 없이 균형 있는 발전을 하게 되어 도시가 부럽지 않은 잘 사는 마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을 주민들은 현재에 만족치 않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어 모든 소득을 마을금고에 적립하여 현재 금고적립금액만도 3천3백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무에서 출발한 마을재산도 4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마을이요. 새마을의 또 하나의 신화를 남긴 마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성과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못되며 정녕 하나의 작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문화주택에 최소한의 문화시설을 갖춘 멋진 이상농촌을 만들기 위해 1980년대까지는 호당 소득을 350만 원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저는 정부의 배려로 일본농촌을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소 앞선 농촌생활을 가지고 으스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일본을 능가하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마을을 만들고야 말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결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가치도

않으며 먼 훗날의 이야기라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과거 누구나가 불가능하다고 체념해버렸던 일들을 결국 승리로 장식해온 우리이기에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도자가 된지도 새마을운동의 연륜과 더불어 7년이 되었습니다. 실로 지도자의 길은 고달픈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자신과 용기가 주민 모두에게 뿌리 깊게 심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저는 이제 어떠한 고난에도 미소 지으며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물러서서도 중단해서도 안 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냉철한 이성으로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천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세심한 보살핌 속에 차가운 머리로 따뜻한 마음을 펴나가는 지도자의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이제 영원이 타오르는 새마을의 횃불에 한 방울의 기름이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찬란한 내 강토 뻗어나가는 조국건설에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는 1977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발표된 성공사례를 게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마. 성공사례 : 도시 여성지도자[부녀], 1987

86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녀지도자 김 선 규

저는 86아시안 게임에 조그만 일익을 담당했던 금메달의 산지 필드하키 경기장이 자리 잡고 있는 성남시 성남동 부녀회장 김선규입니다.

조그마한 물방울이 모이고 모이면 냇가가 되고 강물이 되며 바다가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터득하는데 십일 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1971년 3월 15일 광주 대단지라는 말만 듣고 저희 식구가 성남동에 위치한 복지촌에서 피난 보따리 같은 짐을 풀면서 밤하늘의 찬 이슬을 맞으며 누더기에 잠을 청했던 철거민이란 굴레 때문에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혀를 깨무는 아픔을 참아야만 했던 그 곳은 불량배와 도둑이 춤을 추는 우범지대로 변하면서, 삶의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자 정을 붙이고 살아보겠다던 이웃들이 하나 둘씩 성남을 떠나도 갈 곳이 없고, 떠나야 한다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의 생활이 계속되던 시기에, 성남시민을 위해 실시한 주부시민대학을 수료하고 나도 모르게 억척 주부가 되어 성남시 어머니합창단의 창설단원이 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11년 전 새마을지도자라는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인내와 잘 살아보자는 노력과 끈기만을 가지고 부녀회를 맡았기에 솔선수범 한다는 정신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 사람을 많은 회원들이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으로 먼저 쓰레기 더미와 내 집 앞은 내가 쓸고,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다듬자고 매일 아침 지역을 순회, 조기청소를 하면서 버려진 폐품을 성남동 전 회원이 수집하여 모은 돈 318,000원으로 265명의 성남동 회원들에게 1,200원씩 저금통장에 넣어 줌으로써 '한 회원 한 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모두 마을금고 회원이 되어 삶의 의욕을 심었으며 두 번째 사업으로 봉사의 정신을 간절히 기다리던 양친회 병원 소재 정박아의 집, 소망재활원을 매주 수요일이면 분담제로 방문하여 대소변으로 쌓여있는 빨래를 하였습니다. 구역질도 나고 소름도 끼쳤지만 빨래터 옆에서 "엄마! 엄마!"하고 칭얼대며 빨래하는 손을 꼬옥 잡아 놓지 않고 마냥 즐거워 할 때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치 못하여 얼굴은 눈물범벅이 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성남동 부녀회에서는 생활필수품과 먹을 것, 입힐 것을 사들고 그들을 잊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저희 지역은 어려운 살림 때문에 부모님은 일터로 나가시고 흙강아지가 되어버린 어린 아이들을 위한 유아원 건립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끝에 시장님을 찾아가 본인의 생각을 털어 놓았습니다. 이 같은 참뜻을 이해하신 시장님의 배려로 성남동 30통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 옆 약 50평의 시

유지에 성남동 새마을부녀회관 부설유아원을 건립케 되었습니다. 건립기금을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공한지의 황무지 땅 천여 평을 일구어 율무를 심어 판매하여 얻은 127천원의 수익금과 저희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공예품으로 바자회를 열어 1,126천원의 수익과 보리차를 판매하여 380천원의 수익금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벽돌과 블록을 머리에 이어 나르는 저희 회원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에는 마가 끼듯이 50이 넘으신 한 회원이 블록과 같이 쓰러지면서 얼굴과 팔이 피투성이가 된 채 병원으로 실려 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자 열심히 협조해 주시던 몇몇 회원이 여자가 겁도 없이 너무 큰 공사를 한다는 불평이 여기저기에서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묵묵히 지켜보시던 남자 지도자님들이 발 벗고 나서는 도움으로 개원을 하게 된 새마을유아원에서 82년 첫 번째 졸업생 37명을 배출하던 날 기쁨으로 전 회원과 자모가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86년까지 5회 24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저희들 노력에 고마움의 대가로 자모님들께서 저희들 부녀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86아시안 게임에 대비한 전 국토 공원화 사업에 저희 부녀회장들과 손을 맞잡고 성남동에서 추진한 60개소에 국화꽃 1만 8천 본을 식재하여 물 주기에는 3개조로 나누어 한 송이라도 시들지 않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오고 가시는 손님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가로화단과 가로변 환경정비는 만점이라는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각 국의 많은 선수들과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거리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섯 번째 사업으로 저희 부녀회장 32명은 86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동안 거리의 움직이는 꽃이 되기 위해 거리질서계도 복을 맞추어 입고 교통정리 수신호를 멋지게 해보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기 9개월 전인 86년 1월 우리 회장단은 부녀회 기금 확보운동의 목적으로 복조리와 행주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에 만복이 깃든다는 복조리 1,200개를 리어카에 싣고 구슬땀을 흘리며 집집마다 방문할 때 문밖에서 거절당할 때면 몇몇 회원들은 왜 우리가 사서 이 고생을 하느냐며 불평도 많았지만 회원들을 설득하여가며 강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참

뜻을 알고 선뜻 복조리를 거두어 주시던 동민들의 따뜻한 인정과 800원하는 행주를 천원에 웃으시며 받아주신 주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계도 복 마련 자금은 초과달성하여 84만원이 되었고 행주판매 이익금 30만원까지 합치면 140만원의 거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익금을 앞에 놓은 우리 회원들은 그동안 어려웠던 일들을 회고하며 너무나 큰 성과에 감격하여 손을 맞잡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녀회장 32명에게 1벌 17,000원씩 하는 계도 복 준비자금을 만들어 놓은 다음 차량행진 수신호와 횡단보도 안내 수신호를 하시는 교통순경 아저씨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집에 모여서 한 회원이 방안에 있는 형광등을 켜면 호루라기를 부는 흉내로 호흡을 크게 내쉬면서 오른손을 180도 높이 들어올린 다음 차량이 전진하는 방향으로 얼굴을 옆으로 멋지게 꺾으면서 호각소리를 끝내야 하는 연습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개회식 날이 밝아오자 하늘색 계도 복을 입은 우리 회원들은 마치 여경 같은 모습으로 그 동안 연습한대로 시작하였지만 손동작과 호각소리가 일치되지 않아 실수가 연발이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은 어색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숙달이 되어 갈 때 2개조로 나누어 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며 하루 이틀 사흘이 되니 예뻐 보이려고 화장으로 안간힘을 썼던 얼굴은 새까맣게 깜둥이 사촌이 되어 있었고 바른 자세로 오래 서 있어서 다리는 퉁퉁 부어 저녁이면 집에 누워 영양제 주사를 맞아가며 계속하였고 처음 신었던 흰 구두를 하얀 운동화로 바꾸어 신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달픈 하루하루가 지나면서도 오시는 손님, 가시는 손님께 특히 외국선수들이 탄 자동차만 지나가면 서로 손을 흔들어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시킨들 이런 고달픈 봉사활동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해내겠습니까? 이 것은 오직 내 고장, 내 조국을 위해 똘똘 뭉쳐진 새마을정신인 근면 · 자조 · 협동을 몸소 실천하는 새마을지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만이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경기장 주변을 수시로 순시하시는 시장님께서 저희들의 활동에 대하여 감탄하시면서 성남동 부녀회원들의 아낌없는 땀과 노력의 대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를 점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집안도 돌보지 못하고 허기진 배

를 자장면으로 달래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점심이라도 따뜻하게 들라시며 건네주신 금일봉을 받아든 저희들은 고마움과 기쁨 속에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주부로서 평범한 엄마와 아내의 역할만 하는 것 보다는 작은 힘이지만 성심성의껏 남을 위해 봉사한다는 보람 속에 오늘도 저는 부녀회장직을 맡고 있음을 내 생애에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보람된 노력이 알려지자 아낌없는 후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을 비운다고 투덜대시던 아빠들까지도 지친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밀렸던 일들을 끝내고 자리에 누울 때면 어깨도 주물러 주시면서 수고한다는 말과 함께 자상하게 대해 주실 때 하루의 피로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런 조그만 애국심은 성남시 필드하키 경기장을 찾아 주신 국무총리와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가슴 뿌듯한 영광도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폐막되자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감에 서인지 몸살이 나서 회원이 대다수가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 또한 몸이 아파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고는 있었지만 동 부녀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기에 아픈 몸이지만 부녀회원 가정을 방문, 아빠들께 용서를 빌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성남동에서 남녀 선수 모두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서로 손을 흔들며 이별을 아쉬워했던 일들, 승리의 함성이 귓전을 때리는 듯 여운을 남길 때 86아시안 게임의 일익을 담당했던 저희들은 새마을 정신을 토대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저희들 가슴을 마냥 뿌듯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계도복장 구입을 하고 남은 돈 59만 6천원으로 부모가 없이 고생하는 마을 내의 소년가장 네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백미 한 가마씩을 전해 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였고, 눈물로 범벅이 된 저희들은 꼭 다시 찾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두 곳의 노인정을 찾아가 적은 성의 5만원씩 위로금을 전달하며 온정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성남동 부녀회원들의 커다란 자부심과 가슴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애틋한 봉사의 마음을 부추겨 주듯이 86새마을운동 종합평가에서 저희 성남동이 성남시에서 최우수 동으로 선정

되어 상금 1천만 원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또다시 저희 부녀회원들의 봉사활동이 칭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벌써 추억이 되어버린 아시안 게임을 디딤돌로 삼아 88서울 올림픽 때에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봉사자가 될 것을 굳게 맹세하며 앞으로 다가올 올림픽을 대비해서 계도요원 증원과 관계기관의 별도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동 부녀회원들은 희생과 노력은 물론 봉사 앞에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새마을부녀사업에 총동원하여 올림픽이 열리는 그 날까지 만반의 준비에 착오 없이 진행할 것을 재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는 1987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발표된 성공사례를 게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바. 우수사례 : 직장비교평가대회 여직원사례발표자, 1995

보이지 않는 손길과 관심으로

과천시청
곽 갑 순

저는 과천시청에 근무하는 곽갑순입니다. 여직원 활동사례 발표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발표까지 하라고 하실까? 하며 의아해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일들을 남겨 놓았던 우리의 기록을 다 뒤척이며 우리는 아주 당연시 여겼던 일들, 우리가 일상생활처럼 지내왔던 그 일 자체를 이야기 할 수 있으면 되리라 여겼습니다. '과천에는 새도 많고 별도 많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다'는 시인 신세훈씨의 이야기처럼 남동쪽에는 청계산이 북서쪽으로는 관악산이 살기 좋은 과천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한번만이라도 과천에서 살아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과천에서 다시금 살고 싶어 과천을 찾게 된다.'는 과천 시민들의 말처럼 공기가 맑고 깨끗하며 주거 및 생활환경이 좋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 받고 있으며 우리들

의 자부심도 강한 곳입니다. 과천을 한자로 하면 과실 과 자에 내 천 자로 표기됩니다. 과천은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과천현으로 호칭되었고 과수가 많고 양재천이 맑게 흐르는 고을이라 하여 과천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신라 때에는 율진군에서 볼 수 있듯이 과수 중에는 밤나무가 많은 고을 이었고, 지금도 관내 관악산 청계산에는 밤나무가 아름드리 우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옛 모습 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부 가로수를 밤나무로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나무가 잘 익어 가을 햇살에 반사되어 빛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아람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풍요롭게 평온해 하지요. 우리 모임의 이름은 그런 충성한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람회'라고 하였습니다. 작으나마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어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과천시청 여직원의 모임으로 지난 86년 과천시의 개청과 함께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아람회는 1986년 발족 시기에는 약 20여명으로 구성된 작은 모임이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120명의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나 혼자의 힘은 나약하나 여럿이 힘을 합하면 강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개인당 매월 3천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매년 보름날을 맞아 판매하고 있는 부럼 판매 수익금은 우리 모임에 소요되는 수익금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아람회에서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직원들 상호간의 화합과 이해입니다. 이런 취지하에 여직원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사람 몇몇 외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여직원의 생일을, 빨간 장미꽃 한 송이와 깜찍한 핑크빛 알람시계로 생일날 아침을 축하해 줍니다. 물론 선물은 해마다 다른 종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직원에게 선물이 전해지는 순간 같은 사무실의 직원들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생일을 함께 축하한다며 또 다른 선물을 건네주곤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의 각종 경조사에는 상조금을, 퇴직, 인사발령 등으로 아람회를 떠나게 되는 회원들에게는 전별금 등을 전하며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진 만큼 소집단 활동도

다양하여 퇴임식 등 각종 행사 및 기념식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자랑하는 중창단, 비가 오나 눈이오나 개의치 않고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연습하고는 소인연극제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린 연극반, 취미와 건강의 양면성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볼링반의 매주 모임, 이 모두가 구지 모으려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모여 자신의 발전과 직원 상호간의 화합을 다져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1994년 11월 22일과 23일은 우리에게 화합과 친목을 다짐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각 실과별 여직원들이 2차로 나누어서 경기도 여주의 도예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시청에서 출발하여 11시 30분에 신륵사 입구에 도착하여 쏘가리 매운탕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1시에는 도예원에 도착하여 2시간 동안 자신의 화병에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며 어릴 적 자신의 꿈을 화병에 담았고, 일주일 후면 자신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과천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도예원 실습은 대규모의 이동이니만큼 많은 비용을 요구했고,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1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보조 받을 수 있었음은 다시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95년 2월 14일은 보름이었고 일주일 전부터 퇴근 후에 여직원들 힘을 빌어 보름날 부럼 판매를 위한 준비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온 국민의 숙원인 쓰레기 줄이는 데 동참하자는 취지하에 재활용 가능한 예쁜 바구니를 포장재로 사용하여 예쁘게 초장하였습니다. 2월 13일날 우리들의 부럼 판매는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층의 9개 과를 지나자 100개의 부럼 바구니는 겨우 1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구니 포장이 너무 예뻐서 집에도 한 개씩 가지고 가시겠다며 더 구입하시는 것입니다. 2층과 1층에는 사죄를 드리며 몇 분에게만 판매를 했는데 직원들의 성화가 너무도 대단해 더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서 추가로 50개를 더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판매를 했지만 부럼판매 이후 일주일간은 “내게는 왜 팔지 않았어?”하며 물어오는 직원들의 물음에 웃음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4년 12월 28일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돌보아 줄 보호자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소년 소녀 가장과 무의탁 노인, 영세민 등 관내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찻집을 열었

습니다. 관내 유선방송과 각 아파트 단지 방송시설 등의 도움으로 홍보를 할 수 있었고, 수익금 전액은 불우한 이웃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불우한 이웃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관절염이고 자식은 급성간염으로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손옥자씨에게 10만원, 대장암 말기 환자인 김광식씨에게 10만원을, 또 칠순, 팔순의 몸으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 6분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소년소녀 가장 선진선 학생과 정선희 학생에게 각각 10만원씩을, 비닐하우스에서 힘들게 기거하시는 김세기 할아버님께 10만원을, 저소득 모자 가정 김미녀씨, 이추월씨에게 각각 10만원씩을, 화재로 생활이 어려운 강상수씨, 또 여러분이 너무도 잘아시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금메달 취득 후 투병 중이던 송성일 선수에게도 각각 1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고 구세군 양로원에는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난방연료 대금으로 4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나처럼 늙은 노인을 찾아오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다 있네, 아이구 고마워라, 복 받을 거유, 아이구우, 세상에 흑흑흑..."

칠순, 팔순의 독고 노인들에게 10만원씩의 성금을 드릴 때, 그분들의 흐느낌과 애절함이 지금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 있어 가슴이 찡해옵니다. 저희들의 활동이 아무리 스스로 납부한 회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랴 싶어 몇 년 전부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으나마 우리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곳엔 힘이 되어 주고 싶어 시작한 일이 해가 감에 따라서 우리들의 가슴 뿌듯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시청에서 일하시는 청소원 분들께 작지만 식용유 1세트씩 선물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는 과천동 50-1번지에 거주하시는 박의승씨가 지하셋방에서 전세를 살며 굴다리 시장에서 행사하는 아내와 본인의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 업무 이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중 산불보호 홍보물을 걸려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뇌출혈 사고를 당해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6개월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기에는 너무 많은 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나마 1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여 쾌유를 빌었습니다. 올해 2월 27일에는 출생

때 경기로 인한 뇌성마비 발작증세의 재발로 극빈한 현재의 생활 형편 하에서 엄청난 수술비 및 진단비가 없이는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이규승씨에게 20만원을, 3월 15일에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모친이 사망하여 더욱 가정생활이 어려워진 구정근씨에게 10만원을 3월 28일에는 양의배씨에게 2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비옥한 케냐의 굶주린 어린 생명을 돕고자 매월 2만원씩을 송금하고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 세대 중 결연 아동인 신금이 학생에게는 매월 2만원씩의 송금과 더불어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부모와 처자식을 봉양하고 있으나 한 겨울 심야 제설작업 등으로 인한 위암 발병이 악화되어 수술비가 부족한 박인식씨에게 1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나 끝내 저세상으로 가신 고인께 조의금까지 전해야 하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조태원씨의 아들 조병규군의 백혈병에 관한 투병일기는 과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눈시울을 적시며 과천신문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월급으로는 백혈병의 아들을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어린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작지만 10만원의 성금과 혈액증서를 기탁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만원, 10만원, 20만원 운운하며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찌 다 전달할 수 있었을까마는 그 저변에 깔린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은 그 보다 몇배 더 포근하게 가슴으로 전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여자이기에 또 다른 무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금전적인 도움만 필요한 것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섬세함과 깔끔스런 솜씨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도움을 주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작년 12월 2주간은 노동으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아담회원들은 매주 토요일 양로원을 방문하여 불편하신 할머니들의 몸을 깔끔하게 목욕시켜드렸고, 양로원의 김장을 도맡기로 하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직원들로서는 호언장담만 하였지 사실 무척이나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김치만 담근다고 하셔도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김치 담근 후에 간만 볼 수 있을 정도인데 감히 김장이라니 어떡하나 하며 시작한 김장 담그기는 서로들 얼굴에 고추 양념이 묻은 건 모르고 닦아주며 빨갛게

묻어나는 고추양념에 메워서 쩔쩔매는 에피소드까지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람의 이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쁨, 봉사라는 말이 이렇게 기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며 양로원의 봉사를 내년에도 꼭 하자는 회원들의 권유에 우리는 또 다른 봉사 방법을 찾아봅니다. 여직원으로서의 소양과 품위, 마음가짐 등 요즈음 흐트러지기 쉬운 일상생활을 다시금 되새겨 보고자 해마다 11월이면 예지원에 예절교육 등 친절봉사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교육이라는 말이 자칫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곳에 다녀온 직원들의 가슴은 여고시절 꿈 많은 소녀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화장실 출입구에는 명상의 창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성현들의 좋은 말씀을 일주일씩 담아놓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되 뇌임이 여직원 뿐 아니라 시의 전 직원,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민원인들에게까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가끔씩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글귀를 주문받곤 합니다. 우리 여직원은 더 이상 직장의 꽃으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람회는 앞으로도 나서지 않되 확실한 업무수행하고 그른 일은 그르다고 명확히 말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한편으로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자상함을 살려 자칫 삭막하기 쉬운 직장분위기를 따뜻하게 이끌어 나갈 그런 모임으로 성장 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아람회는 큰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손길과 관심으로 아람이 벌어지는 밤송이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작게는 직원들의 화합과 이해,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의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 우수사례 : 농촌 여성 지도자[부녀], 1997

사랑이 있기에 이웃에게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평군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옥자

6시면 어김없이 마을회관에서 흘러나오는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질때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 “여보 어서 일어나서 새마을 청소 나가야지.” 하며 깨우는 남편. 언제부터인가 저녁 늦게까지 공동작업과 각종 회의에 지친 몸을 깨우는 일이 습관화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일을 자신 일처럼 해온 “새마을에 미친사람”새마을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별명이 붙은 나를 보고 다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남편 역시 새마을 병에 걸려 미처버린 아내를 위하여 새마을 병이 전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평군 새마을부녀회장 이옥자입니다. 군 부녀회장이 되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남편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 제가 군부녀화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꿈많던 처녀시절 초등학교 여교사로 발령을 받고 맑고 고운 꿈을 간직한채 동심속에서 어린 꽃들과 인생의 설계를 꿈꾸고 있을 때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 박기동씨를 만났습니다. 당초 저는 교사시절부터 남을 돕는 일이 좋았고 봉급을 타면 어려운 학생들의 운동화나 학용품을 사서 주는 것이 습관화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 머리와 손톱, 발톱을 깍아주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인지 이발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또한 밤이면 동네 부인들을 모아 놓고 한글과 산수를 가르쳐 주는 야학선생이였습니다. 강초 결혼하기 전 남편에게 “나는 어릴때부터 사회봉사를 같이 해줄수 있는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니까 결혼해서도 봉사활동을 같이 하겠느냐?”라고 제의 했을 때 쾌히 승낙한 남편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같이 해보겠다는 결혼 전 약속을 굳게 믿고 결혼을 하였지만 밤늦게 돌아오는 아내가 마음이 편치는 않은 모습이었고 더욱이 맞벌이 하던 시절이라 주말마다 만나는 주말부부인데 오래간만에

만나는 날마다 늦어지고 온통 집안에는 아이들 머리칼이 날리는 것이 못마땅하고 투정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제발 봉사도 좋지만 편하게 살자며 위로 아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자녀가 셋이나 생기고 저는 다른 학교로 전근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도 힘들고 건강이 좋지 못하여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16년간 몸담았던 교편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에 살고 있는 가평으로 이사를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직장을 그만두고 약국을 경영하기로 하고 가게를 얻어 손수 수리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이곳에 정착하고 보니 낙후된 마을은 밤낮없이 술과 놀음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농촌마을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약품도 무료로 주면서 친해질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을일이라면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 역시 낙후된 이 마을을 위하여 도울 것이 없나 생각 끝에 60년도 후반부터 가족계획운동이 한창 붐이 조성하고 있을 때 가족계획 상담요원을 자원하여 계도에 나섰습니다. 한편 부녀자들의 고통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자주만나 토론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부녀자들과 친숙해 졌습니다. 부녀회원들과 같이 마을일을 함께 해보자 하고 몇몇 회원들과 다짐을 하면서 근검절약을 위해 저축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때 이웃에 눈총과 남정내들의 비협조와 빈정거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구설수에 오르내리자 참기 힘들었던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살림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처녀시절부터 봉사정신이 박혀서인지 도저히 물러설수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남편도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해 주시더군요. 남편은 이왕에 마음먹은 일이니 열심히 노력하여 모범마을로 이끌어 보라고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도움을 청하라고 하였을 때 정말로 살맛이 생기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고단한 줄도 몰랐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 불붙기 시작할 때 부녀자들은 만장일치로 저를 부녀화장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식생활개선, 부엌개량, 절미저축, 가족계획사업 등 열심히 회원들과 부녀활동을 전개 도내에서 최우수 시범마을로 탈바꿈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을일로 뛰어다니다 보면 각종 장부정리 할 시간이 없을 때 남편은 각종장부정리를 꼼꼼히 정리해 주면서 몸을 생각해서 점심

은 꼭 챙겨 먹고 다니라고 격려해 주시곤 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점심과 저녁을 손수 챙겨 드시는 가하면 굶은 날이 허다했으니까요. 어느날 남편은 근검절약을 위하여 기금조성 사업을 해보라 하시면서 회원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기금조성하면 큰 자금이 된다 하며 마을 부녀회금고를 한번 해보자 하며 회원들과 의논 끝에 회원당 300원씩 매일 모으기로 하고 70여명이 가입을 하여 처음에는 2만원내지 3만원씩 출자하던 것이 지금은 기금이 수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부녀금고 운영을 남편이 맡아 장부정리를 정확히 하고 회원마다 통장에 돈이 불어날 때 마다 기뻐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였던 회원들이 하나, 둘 불어나고 회원들은 처희 남편을 정식으로 부녀회금고 이사장으로 추대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부녀회일이라면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부녀회원 원례회때면 의례히 음료수를 보내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때가 되면 쌀과 라면을 부녀회를 통하여 전달하게끔 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그냥 보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께 똑같이 선물을 사서 찾아뵙는 효성이 지극한 효자입니다. 제가 면 부녀회장이 되었을 때에도 늘 뒤에서 걱정해 주고 실수 없이 부녀활동을 하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원들이 쓰레기통이나 상점에서 수거한 빈병과 깡통, 재활용 쓰레기를 리어카에 실고 오면 그 다음 분리하는 것은 남편 몫 이였습니다. 다들 농촌 일에 바쁘다보니 분리할 시간이 없어 쌓아 놓으면 남편은 하루종일 빈병은 병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푸대자루에 담아 놓고 폐지는 꼭꼭 묶어 달아 놓으면 매월 2번씩 수거차가 와서 실릴ㄹ때 까지 남편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어떤 때는 깨진 병에 손을 다치고 쌓아놓은 빈병자루가 무너져 허리를 다쳐 병원신세를 진적도 있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은 색시가 예쁘면 소말뚝보고 걸한다고 부녀회장을 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미친 짓을 하냐고 비웃기도 합니다만은 오직 남편은 저하고 약속한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알뜰마당이다, 불우시설위문이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늦게 집에 올 때 남편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저녁밥을 지어놓고, 벗어 던지고 나간 옷가지들을 빨아서 그때에는 세탁기가 없었을 때 손으로 비벼 빨래를 해 놓고

기다리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을 경로회 총무직을 10여년간 맡고 있으면서 노인회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한 결과 군내에서 최우수 경로당으로 뽑혀 표창과 상금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 위원으로 위촉 받아 불우청소년 선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을 장려시켜서 매월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등 노인회 활동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부녀회장과 경노회, 청소년 등을 위하여 신경쓰다 보니 건강이 좋지 못하여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70년대 처음 새마을운동에 몸담은 저는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마을 지도자, 면 부녀화장을 거쳐 군 부녀회장으로 26년간 새마을에 동참하다보니 이젠 검은 머리때 유행했던 새마을 노래가 흰머리가 되어서도 새마을을 못 잊는걸 보니 아마도 병이 들어도 중병에 걸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때 새마을 기를 내린다는 보도가 있을 때 나보다도 남편이 더 서운해 하였고 무엇인가 정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분개해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주 잘 닮은 닮은꼴 부부인가 봅니다. 결혼 때 약속한대로 한평생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지역사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요즈음에 남편은 아들 내외가 경작하는 5천평이 넘는 포도밭 관리와 우루과이 대책으로 난을 키워 예쁘게 된 난꽃이 한창인 비닐하우스에서 난을 손질하는데 하루 일과를 보내시곤 합니다. 하루 속히 건강이 완쾌되시기만 빌 뿐입니다.

아. 우수사례 : 새마을문고 운영 우수사례 발표자, 1998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수원시화서1동
새마을문고지도자 이 효 우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려 인명피해와 수재민을 만든 그 여름도 잠깐이었던 착각 속에 어느덧 가을이 문턱에 다가섰다. 아침에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강렬한 태양이 장마통에 몸살 앓던 곡식과 열매를 잘 여물게 할 것으로 믿

고 이 가을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낸다. 이렇게 흐르는 세월 속에 문고에 몸담은 지도 오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너무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나 자신도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1995년 10월 동사무소로부터 문고회장직을 요청받고 3층에 자리 잡은 문고에 들어섰다. 책장 4개와 1천6백 권의 도서와 아주 오래된 전집들이 먼지와 함께 진열되어 있었다. 벽에는 곰팡이에 휩싸여 냄새가 났다. 달갑지 않은 눈빛으로 나를 당황하게 했단 일곱 명의 문고회원들. 그도 그럴 것이 전임 회장님이 문고를 그만두게 되어 아파트 단위 회장 경력이 있는 내가 추천되어 맡게 됐으니 그들의 따가운 시선은 아마도 당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할 일이 많아졌다. 임원을 재구성하고, 서로 봉사정신으로 뭉쳐진 단체이므로 돕고 격려하여 마을 주민을 위해 책 한권이라도 읽을 수 있게 열심히 일해보자고 문고 회원들의 도움을 진심으로 간청했다. 울선 동사무소에 의뢰하여 곰팡이가 핀 벽에 페인팅을 부탁했고 주 1회 대출하던 것을 주 3회로 늘려 회원들의 근무 시간을 늘려놓았다. 또 단함을 위하여 3천원의 회비를 모아 필요한 물건도 사고 매달 한 번 씩 회원들의 집을 돌며 다과회를 가져 회원들 간의 많은 갈등을 해소시키려 노력했다. 또한 3개월에 한번 씩은 회식도 해 가며 덕담도 나누어 가며 주부회원들의 외식을 통해 더욱 친밀감을 가졌다. 그리고 문고 안내문을 작성하여 홍보에 나선 회원들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그렇게 하여 책 읽는 회원들은 점점 늘고 문고를 보는 회원들도 조금씩 봉사의 의미를 아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지기 시작했다. 동사무소에서도 우리를 전적으로 필요로 했고 우리도 주민을 위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열심히 도와주었다. 1996년 12월에 우리는 화서1동 청우회 회원들과 동사무소 도움으로 청우회 회관을 문고 전용으로 쓰게 되었다. 17평인 건물을 회사 받고 날씨가 추웠음에도 아랑곳없이 우리는 이사를 했다. 도배를 하고 비눗물로 바닥을 닦고 책장을 진열하여 제법 도서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책장은 버려진 것을 수선한 것과 기관단체장이 기증한 것을 합하여 12개의 책장을 가진 괜찮은 문고가 되었다. 앞으로 책 구입과 주민의 기증을 받아 이 책장을 꽉 채워 풍요로운 마음으로 주민에게 대여 해주고 싶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신 시의원님께서

문고에 꼭 필요한 전화를 놓아주셨다. 우리는 더욱 힘이 생겼다. 문고는 점점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그때 남달리 문고에 관심 써주신 동장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상황을 발판으로 1997년도에는 더욱 바빠졌다. 1997년도 운영 사례만 해도 많은 변화와 움직임이 있었다. 대출일은 3일에서 6일 동안 개방하고, 친절한 마음과 말씨로 어린이와 주민을 맞이하였다. 4월에는 동사무소 행사였던 알뜰 벼룩시장에 참여하여 다 보고 난 50여권의 좋은 도서를 기증받았고 문고회원들이 모아온 신발, 장난감, 의류를 서로 교환하여 흡족해했다. 남은 의류 백점은 판매하여 반은 부녀회에 지원하고 반은 문고 운영비에 보태 썼다. 5월에는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에 우리 문고회원 전원이 참여하며 큰 기여를 함과 동시에 효행심과 단결심 또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더욱 긴밀한 가족애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방학을 통하여 1회, 2회에 걸쳐 다독상 열두 명을 시상하고 대상은 화서초등학교와 화양초등학교에서 시상함으로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한다. 7월에는 주부 꽃꽂이 교실을 갖게 되어 이름모를 꽃을 익혀가며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꽃꽂이 회원들의 얼굴에는 꽃보다 더한 아름다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도서정리에 들어갔다. 회원들이 번갈아 가며 분야별로 책에 번호와 스티커 붙이기, 도서대장 정리하기, 독서회원록 정리하기, 참으로 더운 날씨에 내 일처럼 생각하며 손수 음료수를 준비하여 나누어 마시면서 일주일동안 일을 완성시켰다. 누가 봐도 자랑할 수 있게 아주 단정하게 정리가 되었다. 12월에는 동광원에 떡 두말과 귤 두 상자를 선물하여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 된 것으로 본다. 참으로 바빴던 1997년도를 보내고 올해를 맞이하여 지난 일을 재점검 하면서 다소 서먹하였던 회원 간의 갈등도 해서했고, 문고도 단독으로 운영하여 독립심과 회원 간의 우애도 더욱 커졌다. 주민들의 기증에도 한 몫 하여 5천권의 장서도 갖추고 8백여 명의 독서회원과 1일 80여권의 대출로 우리 동주민들의 정사함양에 크게 이바지 한다고 생각한다. 주일내 개방하여 많은 사람이 책을 볼 수 있게 하고 문고회원 스물다섯명은 자원봉사로서 짜임새 있는 시간표대로 적극 실천하고 있다. 또한 주민봉사의 일환으로 불우한 소년소녀가장 돕기, 무의탁 노인 돕기 등 회원들이 자주 이야기

함으로 앞으로 실천해볼까 한다. 좀 더 나아지는 주민의 생활을 위해 독서 저변확대와 꿈나무를 키우는 작은 불빛이라 생각하고 작은 마음으로 큰일을 해 나가는 우리 문고회원님들께 찬사를 보내며 이런 봉사자들이 있는 한 새마을문고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이다.

20. '새마을의 날' 제정 경위

이 자료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011년 4월 '월간조선'이 새마을운동 초기부터 간여한 이재창 회장의 인터뷰를 '새마을운동에 관한 비사'로 요약하여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어떤 이는 새마을운동을 유신 독재에 동원된 운동이라고 폄하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사실 한국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마을의 회장을 선출하고 모여서 토의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아도 마을의 중론 쫓을 줄 아는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뉴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주목할 만한 기념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창립일인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제정하게 됐지요." "새마을운동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되도록 법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멘트가 마을마다 도착했는데, 주민들은 어디에 쓸지 몰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당시 촌에서는 시멘트가 아주 귀했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시멘트가 쌓였는데, 지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동네 아낙들이 밤중에 한 바가지씩 퍼가곤 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부엌 부뚜막을 시멘트로 바꿔보고 싶은 욕심에서였죠. 시멘트 포대가 뜯겨 엉망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며함께 모여 시멘트를 어디에 쓸 것인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시멘트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 총회가 생긴 셈이다. 주민들은 '한 포대씩 나누어 부엌부터 고치자', '흙으로 되어 있어 비에 자꾸 쓸리는 마루 앞 기단을 고치자'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다 개인이 아닌 마을을 위해 쓰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배급된 시멘트를 어디에 써야 할지 막막해 하는 마을을 위해 정부에서도 기본 가

이드라인을 예시했다. 마을 앞 수로를 콘크리트로 복개해 좁은 진입로를 넓히기,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는 마을 뒷산과 언덕에 콘크리트 축대 쌓기 등이었다. 마을마다 시멘트 사용처는 달랐습니다. 마을 전체를 위해 사용한곳도 있지만 집마다 나누어 개인 용도로 쓴 곳도 있었지요. 정부는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잘된 곳과 잘못된 곳을 평가했습니다. 그러곤 잘된 곳에 시멘트 500포와 철근 1톤을 추가로 지원해 경쟁을 붙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의의

새마을운동의 큰 의의는 마을마다 총회가 생긴 것이며 새마을운동이 몰고 온 변화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을 부녀자들이 총회에 참여하면서 여성에게도 발언권이 생겼습니다. 당시 농촌에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잔존해 있어 여성들의 경우 집안일이라 해도 앞에 나서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군수나 면장이 마을을 방문해도 부엌으로 숨기 바쁠 정도로 외간남자를 경계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마을 총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고, 마을을 가꾸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이는 여성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계기이자 밑거름이 됐다.

둘째, 지주든 머슴이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마을 공동사업에 똑같이 참여함으로써 신분이나 계층 간의 벽이 허물어졌다. 부자라고 해서 일을 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소득 분배를 덜 받지 않았다. 공동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사회에서 '쟁이'로 폄하되어 오던 기술자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기도 했다. 마을에서 손재주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된 것이다.

셋째, 군대 문화의 강점인 공공성과 조직력의 힘이 그대로 마을에 유입, 일의 효율화가 촉진됐다. 군 전역자가 마을의 리더가 되면서 분업을 통한 공동작업이 빠르게 정착된 것이다.

소득 증대와 기초 환경 개선이라는 새마을운동의 가시적 효과 이면에는 사회 변혁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새마을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분배의 공정성, 즉 일한 만큼 돌아온다는 인식도 공동 작업을 통해 뿌리내

리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 원동력이 된 것이죠. 당시의 농민들은 벼 몇 포기 더 심기 위해 논두렁을 깎고 깎을 정도로 땅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 그들이 마을 안길을 위해 보상도 없이 땅을 내놓은 것은 관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이다.

대회 하루 전날 일행을 태운 버스가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지도자들은 대회 참가용으로 나누어준 카키색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채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옷감이 얇았는데도 대통령 유시(論示) 현장에 참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 때문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이 무렵에는 새마을사업이 본격화돼 해외에서도 시찰하러 오는 인사들이 많았어요. 새마을교육과장이었던 저는 해외에서 오는 VIP 인사들을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해외용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주문으로 세계에서 사진 화보를 가장 잘 만든다는 에드워드 김을 영입했지요. 그는 동양인 최초 내셔널지오그래픽 편집장 출신이었습니다. 얼마 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들인 새마을운동 화보가 영어 · 불어 · 스페인어 판으로 발간됐다. 그는 이 화보 발간을 끝으로 잠시 새마을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었다.

다시 새마을운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79년, 내무부 새마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지방행정국장 수하에 있던 자리지만 새마을 전담부서 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던 터라 임무가 막중한 자리였다. “새마을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을 매월 대통령께 보고하는 중책이었습니다. 전국에 숨어 있는 새마을우수 마을을 발굴해 대통령께 보고하면 격려도 해주시고, 사업비도 주셨지요. 대통령께서는 그때까지도 새마을 사업에 애착이 많았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 연수원 비화

“그날 밤 김준 원장과 상의한 끝에 ‘새마을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 연수원을 지어 새마을 지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원 농민회관에 있던 연수원은 너무 좁고 작아 새마을 지도자 양성에 한계가 많았거든요. 며칠 후 이상희 실장님을 만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재정국장과 상의해 예산을 만들어보겠다 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도 채 되지 않아 12 · 12 사태가 터졌고 김종환(金鍾換) 합참의장이 내무부 장관으로 부임했다. 그는 '군에 계셨던 분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얼마나 알겠는가' 싶어 연수원 신축 건은 물건너 간 것으로 단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초 김종환 장관이 그를 불러 "새마을사업 지금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일선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장관께서 새마을사업 현장을 한번 순회하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레 건의했다. 김장관은 뜻밖에도 "그러지"라고 답했고, 곧 이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강원도와 경북 일대를 돌았다. 이때다 싶어 그가 연수원 건립 얘기를 꺼냈고 김 장관이 흔쾌히 동의했다. 얼마 후 그는 김장관과 함께 헬기를 타고 연수원 건립 후보지를 물색했다. 그 결과 현재의 위치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이 낙점됐다. 이 회장의 말이다. "분당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이라 당시만 해도 현재의 연수원 자리는 오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수원이 들어설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김종환 장관께서 '멀지 않은 곳에 경부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이 있으니 언젠가는 개발될 지역' 이라며 낙점하시더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해 8월 김종환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이 회장은 경기도 부지사(이사관)로 발령이 났다. 내무부 장관이 위원장이었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이후 존폐 위기에 처했다가 민간기구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로 변신하며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초대 본부장은 김준 전 새 마을지도자연수원장이 맡았다. 이재창 회장은 "지금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조직은 이때 만들어진 것"이라 며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지도자 중심의 기관으로 끌어가기 위해 중앙회나 시 · 도지부 및 지회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

새마을운동의 시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

는 국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새마을운동이 국민 통합에 기여해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식 선진화운동,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실천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천 중인 뉴새마을운동의 4대 중점운동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던 듯 취임사에 기본골자가 모두 담겨 있었다.

뉴새마을운동의 핵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도 참석하고 청와대에 전국 회장단을 초청해 격려해 주기도 했다. 덕분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힘을 얻어 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국민운동으로 지속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재창 회장은 "새마을운동은 좌우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운동이었다."며 "지난 정부 시절 봉사 개념으로 굳어진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이야말로 새마을운동의 힘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 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시대에 맞게 주창한 국민운동이 뉴새마을운동이다. 이회장의 설명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핵심이 가난에서 벗어나기였다면, 오늘의 뉴새마을운동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숙한 시민 의식 함양과품격 높이기가 핵심 입니다. 선진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 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걸림돌은 소득 격차와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 현상 이죠. 이 문제는 정부 정책이나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운동 당시 신분에 상관없이 한마음으로 뭉쳤던 마을 주민들처럼 이웃과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녹색산업은 집에서 시작

올해는 뉴새마을운동 시작 2년차. 지난해의 경우 캠페인 중심의 국민 홍보에 역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캠페인과 더불어 실천에 옮김으로써 뉴새마을운동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계획이 한다. 먼저 그린 코리아 운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린 마을' 을 공모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48개 마을을 선정해 육성했고 올해는 그 두 배인 96개 마을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미래 경제발전 동력인 저탄소 녹색산업은 생활 속에서 지구온난화현상이 우리 각자에게 닥친 현실임을 인식하는 순간 시작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각 가정에서 내복 입기와 자전거 타기 운동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현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기업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은 제조 공정상 일반 제품보다 비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결국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소비자를 보고 이 분야 연구개발 에 과감하게 투자하게 되죠.”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준비한 스마트 코리아 운동과 해피 코리아 운동은 올해가 실천 원년이다. 이 회장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인사 잘하고,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다 보면 마을은 물론 국가 전체의 품격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아 생긴 좋은 예화를 최근 한 신문에서 읽었다.”며 소개했다. “서울의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두 여성이 멱살잡이까지 했답니다. 주위 사람이 말려 겨우 싸움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알고 보니 위아래 층에 사는 이웃이었답니다. 이후 만 날 때마다 민망하고 곤혹스러워서 결국 서로 사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하고 살았어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멱살잡이까지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문화 가족 껴안기 운동도 펼친다. 그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협력으로 이민여성과 새마을 부녀 회원의 결연 맺기 캠페인을 벌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며 이렇게 말했다. “다문화 가족의 특징은 남편이나 시부모가 이민여성을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도중 가출하고 도망치는 이민여성이 너무 많아 집안에 감금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이민여성을 상대로 한 교육이나 행사가 참석률 저조로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의 부녀 회원이 멘토가 되어 동행하니까 가족도 안심하고 보내주더군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행안부 후원으로 결혼여성 이민자의 친정부모 60명을 초청해 6박 7일 동안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 행사는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글로벌 새마을

글로벌 코리아 운동은 전 세계를 상대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몽골 · 에티오피아 · 인도네시아 · 우간다 · 중앙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의 저개발국가 103개국에서 4만900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 새마을 교육을 받고 갔다. 이 중 10개국 17개 마을에서 새마을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1970년대 한국 새마을운동의 핵심이었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가 주요 사업 내용이다.

이재창 회장은 “새마을운동 전파는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정부나 일반 민간단체의 원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사실 선진 국가의 원조에 익숙한 일부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자력갱생의 의지를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저개발 국가 주민 중에는 일은 하지 않고 원조 만 바라보고 사는 이가 상당수다. 이 회 장의 이야기다. “국내에서 저개발국가에 원조하는 단체도 상당수입니다. ODA(개발원조위원회) 자금으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 방식의 지원을 하는 코이카(KOICA)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큰 경우 정부 대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혜택이 바로바로 간다. 또한 현지 주민들과 함께 가꾼 시범마을을 통해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립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원조 단체가 많아지면서 걱정거리가 생겼다. 정부 기관이든 종교 단체든 한국에서 지원하는 경우 새마을사업으로 얘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경우 교육받을 때는 분명히 자립운동이었는데, 이것도 원조인지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자칫 잘못하면 새마을사업도 원조의 일환으로 생각해 자꾸 더 달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솔직히 각 기관에서 각자 하다 보니 투입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가닥이 여럿이라 통제도, 이미지 관리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인지 작년에 총리실에서 ‘어차피 원조 규모로는 중국이 나 일본을 따라갈 수 없으니 액수가 작더라도 고맙게 받을 수 있는 종합농촌 개발 모델을 만들겠다.’ 고

하더군요. 새마을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종합농촌 개발 모델을 만들겠다.' 고 한 만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4월이면 모델이 나올 겁니다."
올해는 저개발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접목해 주는 맞춤형 지원도 추가할 예정이다. 가령 새마을운동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몽골의 경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식목(植木) · 육림(育材) 기술이다.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 은 토질이 척박해 나무를 심기도 어렵지 만심어도 고사(姑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라고 한다. 이 회장의 설명이다.

"몽골은 5월 15일을 식목일로 정하고 나무 심기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목과 육림 기술이 없어서 심는 족족 나무가 죽어버린 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몽골 새마을 지도자 19명을 초청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산림청 임업기술자에게 묘목 생산기술, 산림녹화 정책 등의 교육을 받았지요.

代價를 받지 않는 지도자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추진 중인 뉴새마을운동 사업은 그 종류가 다양했다. 이 회장은 "4대 중점운동틀 안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실천해야 할 과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려면 조직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그의 말이다. "새마을운동은 갖은 풍파에도 4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대단한 생명력 이지요. 결속력이나 사명감이 그만큼 강한 반면 폐쇄적인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직 이 관료화된 부분도 있고요. 회원이 되고 싶어도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가 변했는데도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했지요. 젊은 회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는 수평 구조로 고령화된 조직을 수직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학생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에 파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하면, 지부건 지회건 회장직을 연임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 했다. 또한 지역 제약 없이, 중앙회라 할지 라도 누구든 원하면 가입 해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만한 조직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중앙회를 해병대 전우회, 호남향 우회, 고대 동문회 등과 더불어 불가사

의한 조직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어느 조직이든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라는 사실 입니다. 빗장을 풀고 젊은 피를 받아들여 야 건강한 조직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지요.' 새마을 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지도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으면 리더십이 없어진다. 마을을 위해 헌신하니까 주민들이 따르는 것이지, 대가를 받고 일한다고 하면 누가 따르겠는가." 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이었다고 한다. 대신 박 대통령은 새마을 지도자로 서 명예와 자부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훈장을 수여했다. 이재창 회장은 새마을운동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어떤 이는 새마을운동을 유신 독재에 동원된 운동이라고 폄하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사실 한국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마을의 회장을 선출하고, 모여서 토의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아도 마을의 중론을 좇을 줄 아는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의 날 제정 성공한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월간조선 2011년 4월호

"어떤 이는 새마을운동을 유신 독재에 동원된 운동이라고 폄하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사실 한국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마을의 회장을 선출하고 모여서 토의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아도 마을의 중론 좇을 줄 아는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광주광역시 신안동 모아타운은 180가구가 사는 전형적인 도시형 아파트 단지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눈에 띄는 시설이 많다. 그 중 하나는 지렁이 생태학습장이다. 주차장 한편에 마련된 나무상자 뚜껑을 열고 그 안의 고슬고슬한 흙을 들추면 검붉은 지렁이가 꿈틀댄다. 아파트 단지 주부들이 지렁이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텃밭과 화단을 가꾸는 데 사용된다. 이곳 주민들은 주차장 형광들과 가로등, 현관 입구 전등 까지 모두 LED등으로 바꾸었다. 집안의 조명등에는 반사 갓을 설치했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20% 감량되었고, 에너지도 20% 절감할 수 있었다. 이웃 간의 교류가 돈독해지면서 주민들은 더 많은 일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 모아타운은 지난 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추진

하는 그린마을 가꾸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린마을 가꾸기는 요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진행하고 있는 4대 중점운동중 하나이다.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그린 코리아 운동,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나라 품격을 높이는 스마트 코리아 운동,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드는 해피 코리아 운동,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글로벌 코리아 운동 등이 5대 중점운동이다.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는 운동임에도 이것이 새마을운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아직도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나?" 의아해하는 이가 많다. 심지어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나 하던 구시대 유물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도 있다.

새마을운동은 외환위기 당시 빛을 발했던 금 모으기운동과 국민저축운동 등의 형태로 꾸준히 지속돼왔다. 전국에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이 207만 여명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조직도 건재하다. 그럼에도 대중 사이에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은 금 모으기 외 추진한 많은 사업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한 채 '회원들만의 리그'로 끝난 까닭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뉴새마을운동'을 주장하며 새마을운동 재건에 나섰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인 근면 · 자조 · 협동과 더불어 변화 · 도전 · 창조의 깃발을 들었다. 잘살기 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의 기존 개념도 시대 변화에 따라 '공정한 사회 ·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로 업그레이드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 중점운동은 국민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뉴새마을운동'의 코드이자 실천과제들이다.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가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다. 그는 2009년 3월 제 19대 회장에 취임한 직후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장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이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새마을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됐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창 회장을 서울 대치동에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회 본부에서 만났다.

경북 청도의 신도리 마을이 새마을운동의 모태 "뉴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주목할 만한 기념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창립일인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제정하게 됐지요. KBS〈열린 음악회〉 등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데, 4월 27일이 재보선이어서 올해 행사는 5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인사를 나누자마자 '새마을의 날'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새마을운동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겪어야 했다" 며 "앞으로는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되도록 법률로 제정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된 '새마을의 날'관련 법 조항에는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마을운동이 걸어온 길은 한국 현대사를 보듯 곡절이 많았다. 새마을운동 초기부터 인연을 맺어 '새마을운동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이 회장은 지난 40년의 굴곡진 역사를 단숨에 풀어놓았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제창되었지만, 그 태동은 수해가 심했던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여름, 박정희 대통령은 수마가 할퀴고 간 경상도 일원을 기차를 타고 돌아봤다. 기차가 청도 부근을 통과하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차창 밖으로 스치는 한 마을(신도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가난한 산골 마을인데도 마을 앞길이며 언덕이 깨끗하고 보기 좋게 가꾸어져 있는 것에 놀란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돈 들이지 않아도 주민이 잘 가꾸면 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빠른 속도로 마을의 이모저모를 메모했고, 이듬해 4월 부산에 서 열린 전국 지방장관 회의석상에서 이 메모지를 꺼내들었다. 그러곤 "청도의 한 마을처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을 가꾸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 을 벌이자"고 선포했다. 그것이 새마을운동의 시작이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박정희 작사 · 작곡의 이 노래에는 '근면 · 자조 · 협동' 정신을 통해 잘사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새마을운동의 취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

시멘트 사용처 놓고 토론

1971년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전국 3만5000여 마을에 시멘트를 지원했다. 1개 마을당 시멘트 335포대씩이었다. 이재창 회장은 이무렵 경기도 평택 군수로 부임했다. 그는 "시멘트가 마을마다 도착했는데, 주민들은 어디에 쓸지 몰라 쳐다보기만 했다"며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당시 촌에서는 시멘트가 아주 귀했습니다. 마을 어귀마다 시멘트가 쌓였는데, 지키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동네 아낙들이 밤중에 한 바가지씩 퍼가곤 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부엌 부뚜막을 시멘트로 바꿔보고 싶은 욕심에서였죠. 시멘트 포대가 뜯겨 엉망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며함께 모여 시멘트를 어디에 쓸 것인지 토론을 벌였습니다. 시멘트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 총회가 생긴 셈이다. 주민들은 '한포대씩 나누어 부엌부터 고치자', '흙으로 되어 있어 비에 자꾸 쓸리는 마루 앞 기단을 고치자'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다 개인이 아닌 마을을 위해 쓰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배급된 시멘트를 어디에 써야 할지 막막해 하는 마을을 위해 정부에서도 기본 가이드라인을 예시했다. 마을 앞 수로를 콘크리트로 복개해 좁은 진입로를 넓히기,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는 마을 뒷산과 언덕에 콘크리트 축대 쌓기 등이었다. "마을마다 시멘트 사용처는 달랐습니다. 마을 전체를 위해 사용한곳도 있지만 집마다 나누어 개인 용도로 쓴 곳도 있었지요. 정부는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잘된 곳과 잘못된 곳을 평가했습니다. 그러곤 잘된 곳에 시멘트 500포와 철근 1톤을 추가로 지원해 경쟁을 붙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의의

추가 지원을 받은 마을은 신이 나서 마을 가꾸기에 더욱 열심이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마을이라도 주민이 공동체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마을 외양에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새마을운동에 무관심하던 마을도 앞 다투어 주민 총회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잘살기 운동에 불이 붙은 것이다. 이 회장은 "새마을운동의 큰 의의는 마을마다 총회가 생긴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이 몰고온 변화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마을 부녀자들이 총회에 참여하면서 여성에게도 발언권이 생겼다. 당시 농촌에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잔존해 있어 여성들의 경우 집안일이라 해도 앞에 나서는 일이 드물었다. 군수나 면장이 마을을 방문해도 부엌으로 숨기 바쁠 정 도로 외간남자를 경계했다. 이런 여성들이 마을 총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고, 마을을 가꾸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이는 여성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계기이자 밑거름이 됐다.

둘째, 지주든 머슴이든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마을 공동사업에 똑같이 참여함으로써 신분이나 계층 간의 벽이 허물어졌다. 부자라고 해서 일을 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소득 분배를 덜 받지 않았다. 공동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사회에서 '쟁이'로 폄하되어 오던 기술자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기도 했다. 마을에서 손재주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게 된 것이다.

셋째, 군대 문화의 강점인 공공성과 조직력의 힘이 그대로 마을에 유입, 일의 효율화가 촉진됐다. 군 전역자가 마을의 리더가 되면서 분업을 통한 공동작업이 빠르게 정착된 것이다.

이 회장은 "소득 증대와 기초 환경 개선이라는 새마을운동의 가시적 효과 이면에는 사회 변혁의 힘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며 "이런 변화가 새마을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분배의 공정성, 즉 일한 만큼 돌아온다는 인식도 공동 작업을 통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 원동력이 된 것이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까지만 해도 관(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두터웠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당시에는 적어 도 군수가 뭔가 하려고 하면 군민들은 '군수가 우리에게 불이익한 일을 하겠느냐' 며 믿고 따랐다고 한다. 이 회장은 "당시의 농민들은 벼 몇 포기 더 심기 위해 논두렁을 깎고 깎을 정도로 땅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며 "그들이 마을 안길을 위해 보상도 없이 땅을 내놓은 것은 관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평택군수 시절, 이 회장은 조선시대 판관처럼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려 다녔다고 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한번은 평택 서북쪽에 있는 한 면의 면장이 "며칠 후 김모씨 집에서

군수님 을 모시고 조반(朝飯)을 하고 싶다"고연락이 왔다. 연유를 물으니 "마을 안길을 넓히려고 하는데, 땅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군수라고 해서 마을 안길을 위해 문전옥답을 내 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난감했다. 고민만 하다 어느덧 약속한 날이 되었다. 이 회장은 새벽 일찍 김모씨 집에 당도했다. 그리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마을 유지들과 막 식사를 마쳤는데, 그날 조반을 마련한 김모씨가 그에 게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영감님, 제 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동의를 못 했는데, 마을 안길 넓히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죠?" 그 시절에는 군수가 조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많았다. 이 회장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2년에는 새벽같이 이 마을 저 마을로 조반 하러 다닐 일이 많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새마을 화보 만들기 위해 에드워드 김 초빙

1973년 11월 20일, 전남 광주에서 열린 제1회 새마을지도자회도 '평택군수 시절의 추억' 중 하나로 남아 있는 사건이다. 전국 2500명의 지도자가 참석하는 이 대회에 그는 평택 지역 인솔자로 참가했다. "대회 하루 전날 일행을 태운 버스가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지도자들은 대회 참가용으로 나누어준 카키색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채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옷감이 얇았는데도 대통령 유시(諭示) 현장에 참여한다는 긍지와 자부심 때문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고, 광주 시내는 전국에서 몰려온 카키색군단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숙박시설이 동이나 일행은 연탄을 피우는 여인숙에 묵을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이 회장은 밤새 한숨을 못 잤다고 한다. 지도자들이 혹여 연탄가스에 중독될까 봐 밤새도록 여 인숙을 순시한 것이다. 새마을 지도자 하면 떠오르는 카키색유니폼과 모자가 이 대회를 통해 첫선을 보였다. 이재창 회장은 이듬해 내무부로 자리를 옮겨 법무관으로 근무했다. 이 무렵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교육에 참석해 교육을 받았는데, 1년 후에

는 자신이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1975년 내무부 새마을교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 무렵에는 새마을사업이 본격화돼 해외에서도 시찰하러 오는 인사들이 많았어요. 새마을교육과장이 었던 저는 해외에서 오는 VIP 인사들을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해외용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주문으로 세계에서 사진 화보를 가장 잘 만든다는 에드워드 김을 영입했지요. 그는 동양인 최초 내셔널지오그래픽 편집장 출신이었습니다. 얼마 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들인 새마을운동 화보가 영어 · 불어 · 스페인어 판으로 발간됐다. 그는 이 화보 발간을 끝으로 잠시 새마을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었다. 이 회장이 다시 새마을운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79년, 내무부 새마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지방행정국 장수하에 있던 자리지만 새마을 전담부서 였고, 당시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던 터라 임무가 막중한 자리였다. "새마을 관련 사업들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을 매월 대통령께 보고하는 중책이었습니다. 전국에 숨어 있는 새마을우수 마을을 발굴해 대통령께 보고하면 격려도 해주시고, 사업비도 주셨지요. 대통령께서는 그때까지도 새마을 사업에 애착이 많았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 연수원 비화

각 부처 예산에 쉽게 사인을 하지 않던 경제기획원 예산국도 새마을 관련 예산은 함부로 깎지 않았다. 그 때문에 각 부처 사업 중에는 '새마을'자가 붙은 것이 많았다. 보사부에서 하는 간이급수사업은 '새마을급수'로 상공부에서 하는 농어촌전기 사업은 '농어촌 새마을 전기 사업'으로 이름 붙이는 식이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0 · 26 사건이 터졌다. 이후 상황은 반전되었다. '새마을' 자 붙은 사업은 내용이 무엇이든 무조건 예산이 삭감됐다. 게다가 김영삼(金泳三) 당시 신민당 총재는 새마을운동을 '유신(維新) 운동' 으로 몰아갔다. 새마을운동을 보는 정계의 눈이 싸늘해졌다. 의기소침해져서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상희(李相照) 내무부 기획관리실장이 그를 불렀다. 그러곤 "새마을운동은 잘 될 것 같아?" 라고 물었다. 그가 "어렵다"고 하자 이상희 실장은 "그래도 하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당시 새마을지도자연수원 김준(金準) 원장과 상의해 보고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이야기다.

"그날 밤 김준 원장과 상의한 끝에 '새마을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 연수원을 지어 새마을 지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수원 농민회관에 있던 연수원은 너무 좁고 작아 새마을 지도자 양성에 한계가 많았거든요. 며칠 후 이상희 실장님을 만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재정국장과 상의해 예산을 만들어보겠다 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도 채 되지 않아 12 · 12 사태가 터졌고 김종환(金鍾換) 합참의장이 내무부 장관으로 부임했다. 그는 '군에 계셨던 분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얼마나 알겠는가' 싶어 연수원 신축 건은 물건너 간 것으로 단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듬해 1월 초 김종환 장관이 그를 불러 "새마을사업 지금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일선에서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장관께서 새마을사업 현장을 한번 순회하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조심스레 건의했다. 김장관은 뜻밖에도 "그러지"라고 답했고, 곧 이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강원도와 경북 일대를 돌았다. 이때다 싶어 그가 연수원 건립 얘기를 꺼냈고 김 장관이 흔쾌히 동의했다. 얼마 후 그는 김장관과 함께 헬기를 타고 연수원 건립 후보지를 물색했다. 그 결과 현재의 위치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이 낙점됐다. 이 회장의 말이다. "분당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이라 당시만 해도 현재의 연수원 자리는 오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수원이 들어설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김종환 장관께서 '멀지 않은 곳에 경부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이 있으니 언젠가는 개발될 지역' 이라며 낙점하시더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해 8월 김종환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이 회장은 경기도 부지사(이사관)로 발령이 났다. 내무부 장관이 위원장이었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이후 존폐 위기에 처했다가 민간기구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로 변신하며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초대 본부장은 김준 전 새 마을지도자연수원장이 맡았다. 이재창 회장은 "지금의 새마을운동중앙회 조직은 이때 만들어진 것"이라 며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

을지도자 중심의 기관으로 끌어가기 위해 중앙회나 시 · 도지부 및 지회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운동 조직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5개 단체 중앙회 가 있고, 17개의 시 · 도지부와 232개 의 시 · 군 · 구지회로 꾸려져 있다.

새마을운동의 시련

이재창 회장은 경기도 부지사에 이어 인천시장, 환경청장, 교통부차관, 경기도지사 등을 거쳐 환경처장관을 끝으로 1994년 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 국회의원(경기 파주) 3선 (選)을 하는 동안 새마을운동과는 멀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운명인 듯 2009년 3월 제19대 새마을운동중앙회 장에 선출, 깊은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취 임 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국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새마을운동이 국민 통합에 기여해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식 선진화운동,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실천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실천 중인 뉴새마을운동의 4대 중점운동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던 듯 취임사에 기본골자가 모두 담겨 있었다. 1980년 이후 오랫동안 봉사단체 정도로 축소 위축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1970년대 못지않은 국민운동으로 부흥시켜야 하는 임무가 그에게 주어졌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엇보다 새마을운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과거처럼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민주화 바람이 몰아친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박정희 정권의 유신 통치를 위한 도구' 로 평가 절하했다. 그 가운데 4대 회장을 지낸 전경환씨의 횡령 비리 사건 이 터지자 새마을운동의 위상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정권의 힘을 업고 군림하는 조직으로 이미지가 굳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새마을운동은 유신 독재를 위한 체제'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그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며 당시 시청과 구청 안에 있던 새마을운동 사무실을 밖으로 내쫓았다. 또한 계양돼 있던 새마을기(旗)도 모두 내리게 했고, 정부 지원도 대폭 축소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들어 제2 건국운동이라는 것이 생겨 국민들은 새마을 조직을 협의의 봉사 개념 단체로 인식했다 그런데다 진보 성향의 교과서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북한의 '천리마운동' 과 비교하며 폄하했다. 그러다 보니 새마을운동 회원들조차 봉사활동이 본연의 임무인 것으로 착각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 지속됐다.

뉴새마을운동의 핵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도 참석하고 청와대에 전국 회장단을 초청해 격려해 주기도 했다. 덕분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힘을 얻어 정부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국민운동으로 지속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재창 회장은 "새마을운동은 좌우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운동이었다."며 "지난 정부 시절 봉사 개념으로 굳어진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이야말로 새마을운동의 힘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 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시대에 맞게 주창한 국민운동이 뉴새마을운동이다. 이회장의 설명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핵심이 가난에서 벗어나기였다면, 오늘의 뉴새마을운동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숙한 시민 의식 함양과품격 높이기가 핵심 입니다. 선진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 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걸림돌은 소득 격차와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 현상 이죠. 이 문제는 정부 정책이나 사회 안전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운동 당시 신분에 상관없이 한마음으로 뭉쳤던 마을 주민들처럼 이웃과 함께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녹색산업은 집에서 시작

올해는 뉴새마을운동 시작 2년차. 지난해의 경우 캠페인 중심의 국민 홍보에 역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캠페인과 더불어 실천에 옮김으로써 뉴새마을운동의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계획이 한다. 먼저 그린 코리아 운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린 마을' 을 공모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48개 마을을 선정해 육성했고 올해는 그 두 배인 96개 마을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미래 경제발전 동력인 저탄소 녹색산업은 생활 속에서 지구온난화현상이 우리 각자에게 닥친 현실임을 인식하는 순간 시작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각 가정에서 내복 입기와 자전거 타기 운동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현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기업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은 제조 공정상 일반 제품보다 비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결국 좀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소비자를 보고 이 분야 연구개발 에 과감하게 투자하게 되죠.”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준비한 스마트 코리아 운동과 해피 코리아 운동은 올해가 실천 원년이다. 이 회장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인사 잘하고,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다 보면 마을은 물론 국가 전체의 품격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아 생긴 좋은 예화를 최근 한 신문에서 읽었다.”며 소개했다. “서울의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두 여성이 멱살잡이까지 했답니다. 주위 사람이 말려 겨우 싸움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알고 보니 위아래 층에 사는 이웃이었답니다. 이후 만 날 때마다 민망하고 곤혹스러워서 결국 서로 사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인사만 하고 살았어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멱살잡이까지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문화 가족 껴안기 운동도 펼친다. 그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협력으로 이민여성과 새마을 부녀 회원의 결연 맺기 캠페인을 벌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며 이렇게 말했다. “다문화 가족의 특징은 남편이나 시부모가 이민여성을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도중 가출하고 도망치는 이민여성이 너무 많아 집안에 감금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이민여성을 상대로 한 교육이나 행사가 참석률 저조로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의 부녀 회원이 멘토가 되어 동행하니까 가족도 안심하고 보내주더군요”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해 행안부 후원으로 결혼여성 이민자의 친정부모 60명을 초청해 6박7일 동안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 행사는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글로벌 새마을

글로벌 코리아 운동은 전 세계를 상대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몽골 · 에티오피아 · 인도네시아 · 우간다 · 중앙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의 저개발국가 103개국에서 4만900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 새마을 교육을 받고 갔다. 이 중 10개국 17개 마을에서 새마을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이다. 1970년대 한국 새마을운동의 핵심이었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가 주요 사업 내용이다.

이재창 회장은 “새마을운동 전파는 물고기가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정부나 일반 민간단체의 원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사실 선진 국가의 원조에 익숙한 일부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자력갱생의 의지를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저개발 국가 주민 중에는 일은 하지 않고 원조 만 바라보고 사는 이가 상당수다. 이 회 장의 이야기다. “국내에서 저개발국가에 원조하는 단체도 상당수입니다. ODA(개발원조위원회) 자금으로 규모가 큰 프로젝트 방식의 지원을 하는 코이카(KOICA)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큰 경우 정부 대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지만 혜택이 바로바로 간다. 또한 현지 주민들과 함께 가꾼 시범마을을 통해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립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원조 단체가 많아지면서 걱정거리가 생겼다. 정부 기관이든 종교 단체든 한국에서 지원하는 경우 새마을사업으로 얘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마을 운동의 경우 교육받을 때는 분명히 자립운동이었는데, 이것도 원조인지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자칫 잘못하면 새마을사업도 원조의 일환으로 생각해 자꾸 더 달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솔직히 각 기관에서 각자 하다 보니 투입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가닥이 여럿이라 통제도, 이미지 관리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인지 작년에 총리실에서 ‘어차피 원조 규모로는 중국이 나 일본을 따라갈 수 없으니 액수가 작더라도 고맙게 받을 수 있는 종합농촌 개발 모델을 만들겠다.’ 고

하더군요. 새마을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종합농촌 개발 모델을 만들겠다.' 고 한 만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4월이면 모델이 나올 겁니다." 올해는 저개발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접목해 주는 맞춤형 지원도 추가할 예정이다. 가령 새마을운동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몽골의 경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식목(植木) · 육림(育材) 기술이다.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 은 토질이 척박해 나무를 심기도 어렵지 만심어도 고사(姑死) 하는 경우가 많아서 라고 한다. 이 회장의 설명이다.

"몽골은 5월 15일을 식목일로 정하고 나무 심기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목과 육림 기술이 없어서 심는 족족 나무가 죽어버린 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몽골 새마을 지도자 19명을 초청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산림청 임업기술자에게 묘목 생산기술, 산림녹화 정책 등의 교육을 받았지요."

代價를 받지 않는 지도자

이재창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이 추진 중인 뉴새마을운동 사업은 그 종류가 다양했다. 이 회장은 "4대 중점운동틀 안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실천해야 할 과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려면 조직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그의 말이다. "새마을운동은 갖은 풍파에도 4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대단한 생명력 이지요. 결속력이나 사명감이 그만큼 강한 반면 폐쇄적인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직 이 관료화된 부분도 있고요. 회원이 되고 싶어도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대가 변했는데도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했지요. 젊은 회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는 수평 구조로 고령화된 조직을 수직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학생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에 파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하면, 지부건 지회건 회장직을 연임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 했다. 또한 지역 제약 없이, 중앙회라 할지 라도 누구든 원하면 가입 해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만한 조직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중앙회를 해병대 전우회, 호남향 우회, 고대 동문회 등과 더불어 불가사

의한 조직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어느 조직이든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라는 사실 입니다. 빗장을 풀고 젊은 피를 받아들여 야 건강한 조직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지요.' 새마을 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지도자가 금전적 대가를 받으면 리더십이 없어진다. 마을을 위해 헌신하니까 주민들이 따르는 것이지, 대가를 받고 일한다고 하면 누가 따르겠는가." 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이었다고 한다. 대신 박 대통령은 새마을 지도자로 서 명예와 자부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훈장을 수여했다. 이재창 회장은 새마을운동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어떤 이는 새마을운동을 유신 독재에 동원된 운동이라고 폄하하지만, 새마을운동은 사실 한국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마을의 회장을 선출하고, 모여서 토의하고, 자기 뜻과 맞지 않아도 마을의 중론을 좇을 줄 아는 훈련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21. 새마을운동 관련 주요 언론보도 · 기고문

※ 이 언론자료들은 각 신문에 게재된 새마을운동 관련 기사 · 기고문들입니다.

다시 한강의 기적을…

大寒한파속 열기고조

광명·신길1동주민 900명 참가

경제살리기 1천만명 서명운동

○…경기도 광명시민 5백여명과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주민 4백여명이 20일 경제살리기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는등 경제를 살리자는 국민적 열의 의 순금을 모으는 성과를 기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보여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려는 뜨거운 열기를 과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소재 광명실내체육관에 서 열린 경제살리기 시민 돌반지、행운의 열쇠、금



광명시민 전재희 시장(앞줄왼쪽 두번째) 손학규의원(세번째) 등 비롯 광명시민들이 경제살리기 1천만명 서명운동에 동참 서명하고 있다。



영등포구 주민 들이 큰기러지 모으기운동에 참여한후 경제살리기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목걸이등 아끼던 금붙이를 소중하게 들고온 시민들은 인구동성으로 조그만 노력들이 보태져 국가경제를 회생하는데 큰 힘이 될것 이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아기돌반지 5개를 들고 나온 주부 송미금(33·여)씨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금모으기 운동에 이어 이제부터는 가진 사람들이 많은 금을 내놓아 경제회생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이날 행사에는 전재희 광명시장을 비롯 손학규 한나라당의원、김봉기 시의원 등 관내 기관장과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참여 했으며、새마을운동광명시지회 새마을클럽、귀금속협회등 광명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빠짐없이 참여해 경제살리기에 지도층이 앞장선다는 모습을 보여줘 시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주민 4백여명은 이날 영등포구 한복여시장에서 경제살리기 서명대회를 열고 금모으기 행사를 열었다。

주민들은 서명에 앞서 결의대회를 열고 에너지절약、자가용이용 자제、외제상품 안사기、사재기 지양 등을 실천키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들은 고려대 곽상경 교수의 특별경제교육을 경청한 뒤 신길1동 새마을금고의 협조를 얻어 금모으기행사를 개최、돌반지 결혼반지등 갖가지 사연이 담긴 금부치를 기꺼이 내놓기도 했다。신길1동에서 가구상을 하는 박민종(39)씨는 여섯살바기 아이와 함께 참석、서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신길1동주민 김민자(34)씨는 『나라가 어려울때면 온국민이 힘을 모아 난국을 극복했던게 우리 민족이니냐며 『아이들에게 떳떳해지고 싶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京畿타임즈 1993年 12月 6日 (월요일)

다시 켜질 새마을운동

道內 지도자 1900명 한자리에

새로운 跳躍! 前進하자

尹世達知事 人事말로 격려

제2새마을 운동전개를 위한 93경기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29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데 제1부 개회식에선 상오 이해구 내무부장관 윤세달 경기도지사 김선규 도 새마을부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김유혁 새마을운동중앙회의장, 한근이 도의회의장, 하환 도교육감을 비롯해 오상근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회장, 황말부 새마을지도자 구여, 54세, 성남시 새마을부녀회장)씨가 새마을훈장 근면장, ▲조봉단체장, 지역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도의원 및 시군의회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등 1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도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가 주관하고 도 및 시군이 후원해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노력해 온 새마을 지도자를 위로 격려하고 사기를 고취시켜 전진하는 계기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2부행사로 김유혁 새마을운동중앙회의장의 「제2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새마을운동을 최일선에서 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그간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는 수원시 어머니합창단(70명)이 축하 공연으로 「영광, 나의 조국, 목련화, 고향의 봄」등 가곡 합창을 공연한다.

한편 윤세달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과거 어려웠던 시절 새마을 깃발을 높이 들고 잘살기 운동을 시작한지 2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풍족한 생활과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번영과 민주의 선진국 대열에 다달았다」면서, 「변화와 개혁속에 새로운 도약이 사회 곳곳에서 울트고 있는 요즈음 한때 사회적 외면속에 움츠려왔던 새마을가족 여러분들도 이제는 환골탈퇴하는 제2도약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강조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되살리고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밑알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했다.



유공자에게 표창하는 윤지사

(민간100, 공무원33)이 내무부장관 표창, ▲주윤돈여, 43세, 구리시 새마을부녀회장)씨등 47명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또 장경식(남, 51세 부천시 원미구 새마을협의회장)씨등 47명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장 표창, ▲최근덕(남, 32세, 고양시 새마을지도자)씨등 47명이 도 남녀새마을지도자 2만5천여명을 대표해 총297명이 수상했다.

또한 정부주(남, 51세, 송탄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씨와 박육란(여, 44세, 송탄시 새마을부녀회장)씨가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2명이 새마을포장을 후장, 5명과, ▲권영완(남, 55세, 의정부시 의정부3동 새마을협의회장)씨등 6명이 대통령 표창, ▲신현철(남, 49세, 수원시 새마을지도자)씨등 12명이 국무총리표창, ▲김완(남, 55세, 과천시 문원동 새마을지도자)씨등 133명이 새마을포장을 수여받는 등 「제2새마을운동을 통해 「신한국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2부행사로 김유혁 새마을운동중앙회의장의 「제2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새마을운동을 최일선에서 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그간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는 수원시 어머니합창단(70명)이 축하 공연으로 「영광, 나의 조국, 목련화, 고향의 봄」등 가곡 합창을 공연한다.

한편 윤세달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과거 어려웠던 시절 새마을 깃발을 높이 들고 잘살기 운동을 시작한지 2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풍족한 생활과 함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번영과 민주의 선진국 대열에 다달았다」면서, 「변화와 개혁속에 새로운 도약이 사회 곳곳에서 울트고 있는 요즈음 한때 사회적 외면속에 움츠려왔던 새마을가족 여러분들도 이제는 환골탈퇴하는 제2도약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강조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되살리고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밑알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했다.

【3】 西紀 1995年(檀紀4328年) 1月 15日 日曜日 〈日刊〉

京畿道民日報

社說

「開化博物館」과 「새마을 역사관」

문민시대 출범이후 달라진 것 중의 하나는 역사 회복 움직임이다. 올해가 광복 5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대적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최근 수년동안 중앙과 지방에서 역사 재발굴 재조명 재구성을 위한 크고 작은 활동이 있었던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었다.

이를테면 역사조명의 원형적 접근방식이라 할수 있는 역사 전시회, 인물사 연구, 문화유적지 발굴조사, 학술 발표회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사들이 그것이었다.

물론 質量(질량)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긍정과 부정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었다. 어떤 경우는 의욕이 지나쳐 오히려 본질이 희석되거나 歷史紀行(역사기행)이라는 명분아래 흥행효과를 노리는 것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토록 멀리, 그토록 무관심하던 특정한 역사에 대하여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그나름의 가치와 뜻이 있었다.

아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는 매우 온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역사는 역사의 내용이나 질을 떠나서, 史實的(사실적)이어야 하고, 역사의 대상은 계층과 계급을 초월해야 하는데 우리 역사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봉건시대의 역사는 민중을 배제했고, 근대의 권력역사는 지배자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결국 역사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지배자를 위한 조작의 기록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작금의 역사회복 운동은 그 일환으로 보기에 합당하다.

이런 시기에 仁川과 水原에서 주목할만한 일이 기획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한다.

仁川에선 「開化博物館」(개화박물관)을 만들기로 하고,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한다. 인천항이 개항된지, 올해로써 1백12년째가 된다. 인천 개항은 외세 압력에 굴복한 굴욕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5백년 사직의 역사가 무너지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개항은 轉禍爲福(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했다. 그래서 인천개항을 빼고서는 우리의 근대사를 말할 수 없다.

그 땅에, 그것도 1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개화의 역사를 한눈으로 볼수 있는 개화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너무 뜻 깊다. 건립비용 염출과 부지 선정, 규모와 방향 설정까지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착상 자체만으로도 평가받을만 하다.

水原에서 제기된 것은 최현대사에 한 획을 그었던 새마을 운동사를 조망하고 계승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른바 「새마을 역사관」의 건립이다. 새마을운동은 좋은 싫은 우리나라의 격변기로 상징되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거침없이 전개된 대표적인 국민운동이었다.

비록 개발독재가 주도하는 근대화에 발맞추었다는 흠이 있기는 하나, 깊은 잠에 빠져있었던 국민들을 깨우고, 자력갱생의 용기를 심어준 계몽운동의 白眉(백미)임에 틀림없었다. 훗날 정치에 오염돼 주락의 신세가 됐지만, 통렬한 자성을 거쳐 재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마을 경기도지부도 그중의 하나다. 그들은 새마을 역사관을 건립하여 좌절의 늪에 빠진 새마을 정신과 역사를 복원·계승시키려 한는 것이다. 이론의 여지없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바라기는 시민과 당국의 협력에 힘입어 인천엔 「開化博物館」, 수원엔 「새마을 역사관」이 順産(순산)됐으면 한다.



創立総会

京畿道새마을指導者協議会

日時 : 80. 8. 18. 10 : 00

場所 : 教育會館 講堂

새마을指導者協議会創立総会
準備委員会

정부수립 50년, 대한민국 50년의 20大 업적

「새마을운동」1위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한민국 50년 역사상 우리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으로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을 꼽았다. 70년대에 조국근대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지역사회개발운동에 대해 국민들은 이를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높은 평가를 내린 것이다.

조선일보사와 한국갤럽이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의 「대한민국 50년의 업적」분야에서 새마을운동에 이어 2~5위까지는 서울올림픽 개최, 경부고속도로 건설, 광주민주화 운동, 4.19 혁명 등이 차례로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평화적 정권교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월드컵 공동개최 유치, 5.16 이후의 행정개혁,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획득 등이 5~10위까지 올랐다.

이 여론조사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97년까지 50년 동안 각 연도별로 가장 중요한 업적 한가지씩 예시한 뒤 1천5백13명의 응답자들에게 각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가지씩을 고르게 해 집계한 결과이다.

1~20위까지의 업적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경제 및 과학기술부문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9가지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정치부문으로 광주민주화운동 등 4가지, 사회부문이 새마을운동 등 3가지, 스포츠가 월드컵 유치 등 2가지씩의 업적을 기록했다.

〈조선일보 7월16일 1면 전재〉

역사상 위대한 업적

	1948년 이후	선정률(%)
1	새마을운동(1971)	45.6
2	서울올림픽(1988)	37.3
3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	31.9
4	광주 민주화운동(1980)	22.1
5	4·19혁명(1960)	16.4
6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1997)	9.5
7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1962)	9.3
8	월드컵 공동개최 유치(1996)	8.8
9	5·16 군사혁명 후 행정개혁(1961)	7.4
10	황영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1992)	6.7
11	반도체 64K D램 개발(1983)	6.5
12	수출 1백억 달러 달성(1977)	6.3
13	포항제철 준공(1973)	6.1
14	월남 파병(1965)	5.3
15	가족계획 성공(1976)	5.0
16	원자력법 제정과 연구용 원자로 도입(1958)	5.0
17	금융실명제 실시(1993)	5.0
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발족(1966)	4.8
19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4.2
20	농지개혁법 제정(1949)	3.8
	1948년 이전	
1	훈민정음 반포(1446)	52.8
2	3·1운동과 임정 수립(1919)	29.6
3	이순신의 활약(1592)	25.4
4	광개토대왕 영토 확장(391~413)	23.6
5	삼국통일(676)	17.6
6	조선건국(1392)	17.2
7	광주학생운동(1929)	10.4
8	안중근 의거(1909)	10.4
9	김정호의 대동여지도(1861)	10.1
10	허준의 동의보감(1601)	10.0
11	손기정, 올림픽 마라톤 우승(1936)	9.6
12	장보고, 해양 패권 확보(828)	8.5
13	4군 6진으로 압록강 두만강 국경 확정	8.4
14	세계 최고 금속활자인 직지심경 인쇄(1377)	8.3
15	독립협회 설립(1896)	6.0
16	왕건, 후삼국 통일(936)	5.9
17	을지문덕의 살수대첩(612)	5.5
18	윤봉길 의거(1932)	3.9
19	김좌진의 청산리 대첩(1920)	3.3
20	화랑도 국가조직 확대(540~57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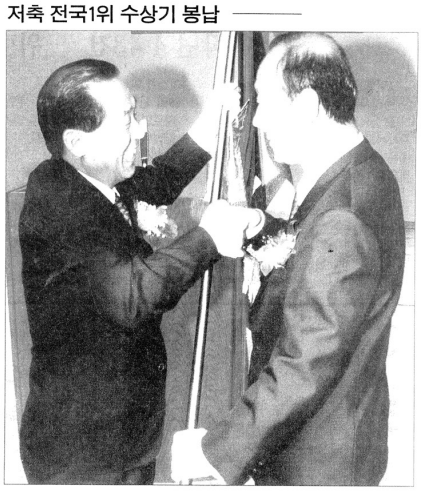
※한 응답자가 3가지까지 적도록 했기 때문에 선정률 합계는 1백%를 훨씬 넘게 됨니다.

중부일보

1997년 9월 30일 화요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전화 302-114 中部日報 제 2030호 1

저축 전국1위 수상기 봉납



林完洙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회장이 29일 도문예회관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 전국1위 평가대회'에서 林秀福경기지사직무대리에게 대통령 표창으로 받은 전국1위 수상기를 봉납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경기도, 저축운동 전국1위

8천5백70억 계약고 … 목표 7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 전국 1위 평가대회가 29일 林秀福경기지사 직무대리, 洪性浩경기도의회 의장, 尹雄圭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 林完洙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 회장을 비롯, 金南眞 도의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林지사대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30만 도 새마을가족들이 저축운동을 펼쳐 8천5백70억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하면된다'는 새마을정신의 교훈"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

西紀 1995年(檀紀4328年) 1月 14日 土曜日 〈日刊〉

京畿道民日報

새마을 역사관 건립

경기부「운동」추진과정등 재현

26억들여 지상3층 규모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는 새마을운동의 역사및 추진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해 새마을지도자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도민의 새마을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마을역사관 건립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9면〉

지사가 재임하던 지난 91년 추진하였던 새마을회장단의 초도 순시를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 전시하기 위한 새마을역사관 건립기획단을 구성,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위한 추진사업의 개요와 함께 2단계로 나누어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1단계 사업은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와 건립비 16억원은 도의 지원을 받아 10억원은 범도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단계 사업은 새마을역사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와 건립비 16억원은 도의 지원을 받아 10억원은 범도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독신청 080-1588-0088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백평규모로 수원지역에 들어설 계획인데 지하층은 지방문화재 및 전적 등을 보관, 전시하는 수장고로 활용되고 지상층은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 전시하는 새마을역사관 직원들의 사무실로 쓰기로 했다.

새마을역사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 지난 91년 재임하던 李순탁전지사가 추진하였던 새마을회장단의 초도 순시를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 전시하기 위한 새마을역사관 건립기획단을 구성,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林完洙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회장은 가족 간담회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전환하고 있다고 밝힌다. (왼쪽은 林完洙회장)

1997年(檀紀4330年)4月 28日 月曜日 〈2版〉 【日刊】
京仁日報



새마을운동 오산시지회가 농협의 협조로 1구좌 1천원상품을 개설하는등 경제살리기운동에 나서고 있다.

하루 1천원저축 경제를 살립시다

하루 1천원 저축으로 경제를 살립시다.

외채가 늘어 나는등 경제에 적신호가 계속되면서 경제살리기 운동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 새마을지회가 「경제살리기 운동」에 발벗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 오산시지회(지회장·黃갑용)는 농협중앙회 저축홍보와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있다.

또한 유선과 가두방송을 통해 홍보에 나서는등 홍보활동을 강화, 현재까지 3백여구좌가 관매되는등 성과를 올렸다

黃지회장은 『외채총액 1천여달러, 경상수지 적자 연2백50억달러등 우리경제가 취청거리고 있다』며 『농협에 마련된 1일 농협지부장제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저축을 권장, 참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구좌를 개설한 한 주민은 『우리 경제가 살아야 가정경제가 살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를 새삼 깨달았다』며 『이웃들에게 1천원상품은 물론 저축을 권장하겠다』고 다짐했다.

(烏山=金鎭泰기자)

烏山 새마을지회·농협지부 共助
1구좌 상품개설 본격 홍보 활동

오산화성군지부(지부장·李正鎭)와 협소제세를 갖추고 1구좌 1천원상품을 개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마을운동 지회는 먼저 전 시민의 공감대형성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오산시장을 비롯 시의장·교육장·경찰서장등 기관단체장들을 중심 일일지부장으로 위촉,

1997년 12월 27일 토요일

부일보

롱속 금붙이 3천7백50돈 모아

하루 새마을도지부 경제살리기 운동 큰성과

내다팔아 경제살 내 공직자와 새마 서 1억5천만원 상 모아졌다.

는 30일 하룻동 으로 도청 세계 내다팔아 저축

이날 운동에 도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4백92명과 새마을지도자 도협의회등 도내 새마을단체장 및 임직원 50명이 참여, 장롱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던 반지나 목걸이등 3천7백50돈을 내다팔아 경제살리기 저축통장에 가입했다.

금붙이 교환내용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의 돌·백일등에 하나둘씩 모아진 반지가 2천5백66돈으로 가장 많았고 목걸이 2백55돈, 팔찌 88돈, 기타 귀금속이 8백3돈으로 모두 1억5천만원 상당의 3천7백50돈에 이른다.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참여가 부드러져 모과장의 경우 평사 며칠전부터 주변의 친구나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장롱속 금붙이 모으기에 나서 1백42돈을 교환하는등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금붙이의 출장교환에 나선 사단법인 전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수원지부는 당초 1억2천만원을 평사 교환액으로 준비했다 참여열기가 예상을 웃돌아 부라부랴 교환용 현금을 추가 준비하는 일도 빚어졌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한 새마을단체의 참여도 줄을 이어 임원수 새마을운동 도지부장과 신형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김선규 새마을부녀회장, 이도형 직장새마을운동 협의회장, 권태욱 새마을문고 회장이 31돈을 바꿔 경제살리기통장에 가입했다.

새마을문고 도지부의 회원 30명과 수원시 새마을지도자 30명등이 참여, 1백48돈을 교환해 통장을 마련했고 연말까지 시군별로 열리는 새마을지도자대회와 병행, 계속 캠퍼 나가기로 했다.

왕형근기자



로 '경제살리기' 동참 26일 오전 도청 세계관에서 새마을운동 경기도지부 주관 경기도·중부일보 후원으로 열린 경제살리기 저축운동 이 아기돌반지 등 각 가정 장롱속의 패물을 팔아 동참을 개설하고 있다. 박홍배기자

西紀 1996年12月 5日 木曜日 (日刊)
증부일보

과소비를 추방하자'

새마을정신 되살려

건전소비문화 유도

경기자기모습만들기 96새마을지도자대회

경기도 새마을지도자들은 5일 새마을운동 경기도부녀회관에서 열리는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를 위한 '96경기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건전한 소비분위기 조성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결의키로 했다.

특히 그린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지역발전에 실천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은 ▲기초 보행 교통 행태 개선 ▲올바른 쓰레기 줄이기 ▲건전 소비분위기 정착 등을 통해 일류 한국 건설에 앞장서기로 했다.

林完洙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은 "지난 30년간 (중략) 시련과 도전속에

서도 남다른 저력과 열정을 발휘, 사회의 모범을 보여왔다"며 "앞으로 다시한번 뭉쳐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다시한번 되살려 경제를 살리고 일류국가를 구현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동안 각 시·군별로 구호만외치고 그쳤던 새마을운동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국산품 애용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운동 등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특히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계기로 지역별로 새마을지도자 추진협의회를 구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또 지역별 새마을운동을 위한 실천과제를 선정,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

96경기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5일 오전 10시 5백여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진다.

〈柳載明기자〉

「경제 살리기」 汎도민캠페인 다짐

「경제를 살리자」

경기도내 30만 새마을 지도자들이 최근 망연되고 있는 과소비 및 사치풍조와 수출부진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범운동에 나섰다

경인일보

2월 20일 금





安養市새마을회 고철수거 경진대회

"고철모으기"도 나라경제 도움

果川·華城 55 t 수거

〈果川〉 새마을지도자 과천시협의회(회장·崔명락)는 지난달 20일부터 동사무소 12개소에 고철 수집창고를 마련하고 가전제품·식기·주방용기등 가정용과 캔류·철강슬래그·철근등 사업용고철 수집운동을 벌여 5 t 가량을 수거했다.

〈사진〉

특히 협의회는 지난 ~ 활용품 고철모아 경제~ 하자」등을 내걸고 단체~ 에서 보관중인 「고철모~ 민행사」를 개최, 새마~ 시민등 다수가 참석하~ 이뤘다.

〈華城〉 화성군은 최~ 사무소 광장에서 金~ 비롯 새마을지도자 주~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을 위한 고철모으~ 를 개최했다.

군은 이날 행사에서~ 방치돼 있는 폐농기~ 고철등 50 t (2백여~ 수거했다.

중부일보

1998년 7월 24일 금요일



경기도새마을 운동 재도약 발판마련

수원 인계동 신청사 '개관식'

경기도 새마을회관 개관식이 20일 오전 11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6-8 신청사 5층 회의실에서 임창열 경기도지사, 이계성 경기도의회 의장, 석종윤 중앙새마을회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 1백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뤘다.

이날 개관된 경기도 새마을회관은 새마을운동 지립기반 확충과 가정형관이 어려운 도민에게 예식장으로 제공되는 등 경기도 새마을운동의 구심체로써 지역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30만 새마을가족의 염원인 경기도 새마을회관을 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기도 새마을회관 개관을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기찬 새마을운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지사는 특히 "건국 50년 역사상 우리 민족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이라며 "점실을 명확히 인식, 오늘의 시련과 도전을 지혜기 자랑스런 역사창조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경기도 새마을회관은 지난 91년 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7년여만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4백65평으로 건립됐다.

사진=송영배기자



『학교폭력』 추방하여 청소년을 『21세기의 주역』으로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대 발대◑

◆조직수 : 483개대 2,400명 (읍,면,동당 평)

◆주요활동

1997年 4月 21日 月曜日 (日刊)

나라경제가 어려우면 가정살림이 어려워집니다!

새마을운동 27주년에 즈음하여

◆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이는 아직도 새마을운동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 북한 동포는 금주령에 시달리도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로
넘간 8조원을 버리고 있습니다.
◆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나홀로 차량은 의80%에 해당 합니다.
◆ 내 집만은 깨끗해도 내 집앞은 어떻습니까?
◆ 내 집만은 대접받고 봉사자는 외면 합니다.
◆ 목소리 큰 사람은 대접받고 봉사자는 입어야만 합니다.
◆ 저축할 돈은 없어도 외식할 돈은 있어야만 합니다.
나라경제는 바드시 살려야만 합니다.
나라경제는 부지로부터 탈출을 이끌어낼 새마을운동!
나라 부지로부터 탈출을 이끌어가는 새마을운동!

중부일보 1997년 11월 6일

30만 지도자 3천억 저축운동

◆취 지 : 1997년 구국운동의 하나인 국
나라경제를 살리자는 그 정신

◆경기도 목표액 : 3,000억원(238,095 국
◆캠페기간 : 97. 4. 21 ~ 4. 30
◆내 용 : 1인 1구좌 개설하기(3만원
◆가입요령 : 은행 창구에서 경제살리기
◆문 의 : 0331-42-0696 새마을

지역 경제 살리기 국민저

◆일 시 : 1997. 4. 23 (수) 1
◆장 소 : 안양시 문예회관
◆주 최 : 새마을운동경기도지
◆내 용 : 하자은 낭독, 웅변
저축홍보, 결의문

장 새마을운동경
수원시 高

새로운100년 다시여는 새마을

- 97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 일 시 : '97. 11. 6 (목)
● 장 소 : 88체육관
● 인 원 : 4,000명
● 주요내용
- 특별강연
- 혼 포장 수여
- 새마을운동사진전시
● 새마을지도자 유공 수상자(경기도)
▶ 새마을훈장 자조장 안양수(새마을운동 경기도지
▶ 새마을훈장 협동장 이순남(

'97새마을지도자대회

- 이럼할 일을 하고있습니다 -

■ 깨끗한 환경만들기

중부일보

1997년 11월 26일 수요일

道民에

「새마을家

일등경기 일

우리는 어려운

이런 때 우리

야 할 당위적 과

도민이 하나가 되

각합니다.

부일보

1997년 12월 22일 월요일

오는 12월 26일

우리 모두 가정의 금붙이 내다팔아 저축하기」 운동에 참여합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환지출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금수입량으로 60억불의
외화를 지출하고 있어 구한말 나라빚을 갚기 위해
금가락지를 팔아 국가빚을 갚는 애국심을 발휘한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정의 금붙이 내다팔아 저축하기」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난국 극복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가정의 금붙이 내다팔아 저축하기 행사

● 일 시:1997. 12. 26(금) 10:00~15:00
● 장 소:경기도청 (세계관)
● 주 관: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 후 원:경기도, 중부일보
● 내 용
· 금붙이(면지, 귀걸이, 비녀, 팔찌, 각종 모형금붙이)등을
현금과 교환, 경제살리기 동참에 기입
· 경제살리기 범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 참여대상
· 도새마을단체장 및 지도자
· 도청공무원 및 산업소 직원
· 도민 및 직장, 단체 협직원

새 마 을 운 동 경 기 도 지 부

우리 아기 돌반지 하나라도 내다팔아 나라경제 살립시다.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 부녀회장 金李李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회장 善鏡寬泰
새마을금고연합회경기도지부회장 衡閨載夏
직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장
경기도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장

경기일보

kyeonggi.com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2〉 15

사설

문 대통령의 '10·29 수원 새마을 선언' 옳은 방향이다, 정치로 비난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마을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었다. 10월 29일 수원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대회였다. 축사 곳곳에서 새마을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이다"라는 유명한 정의를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이 정의와 문 대통령의 이날 평가가 다르지 않다. 긍정적으로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희망도 밝혔다. '조직 내부의 충분한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명, 평화, 공경운동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에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새마을 운동의 시대적 변화와 개혁에 대한 평가이자 당부로 보인다. '포용적 성장'과 '신남방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조화를 촉구하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래저래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던 참석이었고 축사였다. 적절한 행보라고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와 새마을 운동을 보는 편협된 시각이 있다. 집권 첫해 예산 삭감 영향이 컸다. 새마을 운동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다. 보수층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을 대척점에 놓기 시작했다. '보고 싶은 곳만 볼 때' 생기는 왜곡이다. 문 대통령은 그 해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지시했다. 지난해에는 '새마을 운동의 이름도 바꾸지 말라'고도 했다. 함께 봐야 할 과거다.

새마을운동은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은 국민 모두의 것이었다. 지금의 기성세대, 그리고 앞선 장·노년 세대 모두에 남은 역사적 자긍심이다. 진보 보수로 나뉜 적도 없고, 정치적 견해로 갈라선 적도 없다. 일부 정치권이 어제오늘 '문 대통령이 중도층을 끌어안으려고 새마을 행사에 참석했다'고 비난한 것은 그래서 옳지 않다. 현장의 새마을지도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생명·평화·공경' 언급에 대해 새마을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는 한국당 의원의 비판도 있었다. 새마을 운동의 철학적 가치는 정신 운동이다. 정신 운동에 시대정신이 가미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새마을 운동도 매 정권 바뀌어 왔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은 이제 국내 운동에서 국제 캠페인으로 성장해 있다. 시대를 거친 변화와 개선이 만든 결과다. 이걸 왜 비판하나.

우리는 문 대통령의 '10·29 새마을 선언'에 동의한다. 시대에 맞는 변화의 요구도 적절한 당부였다고 본다. 이를 정치적 해석으로 왜곡하고 비틀면 안 된다. 총선전(戰)에서 안마당을 내준 양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다. 새마을운동이 왜 보수·보수정당의 전유물인가. 어느 정파에도 새마을운동을 독점할 권한은 없다.

경기일보

16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kyeonggi.com

"50개국 새마을 지도자와 생명살림·평화나눔 집중"

경기도새마을회 송재필 회장

"그동안 우리가 누린 만큼 이젠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죠. 후손에게 올바른 조상이 되기 위해 '생명 살림'과 '평화 나눔'이 더 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달 28일부터 29일까지 수원에서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리면서, 대회의 총괄 책임자인 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 회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이자 새마을운동 제창 49주년을 맞아 전국 새마을회는 '새로운 50년'을 위한 자리를 경기도에서 갖는다.



수원서 지구촌·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새로운 50년' 비전 제시… 나라별 사례 공유

송재필 회장은 "지나온 50년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50년의 비전과 방향을 보여주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곡곡 마을과 지역에서 펼쳐 온 새마을운동을 되돌이보고, 아울러 자신의 시간을 들여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지도자들을 격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3개의 행사가 함께 마련됐다. 특히 세계새마을지도자대회를 통해 50여개 국가의 지도자들이 참여, 나라별 새마을운동의 성공·실패사례를 공유해 보다 튼튼한 새마을운동을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송 회장은 "새마을운동은 한마디로 '잘 살기 운동'이다. 경제적 풍요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 풍요로 선진시민이 되자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등 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우리는 '생명 살림'을 시대정신으로 삼고 생각과 습관을 바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 훗날 '좋은 조상'으로 칭송받도록 좀 더 노력하며 도민께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중앙일보 • 2019년 10월 29일(화) 정치

文대통령 "새마을운동, 과거 운동아닌 살아있는 역사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다시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기념 축사에서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루고,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저력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온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이라며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발전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지구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생명, 평화, 공경을 바탕으로 한 새마을운동 대전환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격려하면서 "새마을운동이 과거에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가 부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건설에 다시 한 번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 60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박경순씨와 신철원 새마을문고중앙회장 등 21명에게 새마을운동 훈·포장을 직접 수여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도 '새마을 가꾸기 운동'로 시작돼, 80년대까지 국내 농촌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2009년부터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농촌에 경제발전경험을 전수해 왔으며,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경기일보 • 2019년 10월 30일(수) 종합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생명·평화·공경 앞세워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

이연우 기자

경기도서 9년 만에 열려… 文 대통령 첫 참석
음악회·유공자 포상·생명살림 퍼포먼스 펼쳐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린 29일 오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명·평화·공경 3대 운동을 앞세워 새로운 문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28~29일 양일간 수원에서 열렸다. 경기도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린 건 9년 만이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해 46개국 해외새마을지도자 등 총 6천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 1일차(전일행사)에선 '생명이 되살아나다'를 주제로 한 음악회가 진행됐다. 생명살림 운동 캠페인송에 맞춰 새마을지도자들이 율동을 선보이는 등 함께 참여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일차(본대회)에는 새마을운동 유공자 포상 수여, 생명살림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박경순 부산시 새마을부녀회장 등 24명이 새마을훈장을 받았고 새마을포장 24명, 대통령 표창 59명, 국무총리 표창 72명 등 모두 179명이 포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박경순 회장 등 유공자 21명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2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렸다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내년은 새마을운동 50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는 국민 속에 들어가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생명살림 운동을 함께할 것이다. 자연이 주신 에너지를 우리의 생활 안으로 가져오고 생명·평화·공경의 새로운 문명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장은 "23만 경기도 새마을가족은 그동안의 낡은 새마을운동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생명이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제주에서 개최된다.

이연우기자

디지털타임스

2019년 10월 28일(월) 인물 21면

디지털타임스

2019년 10월 28일
21면 (인물)

"한국 새마을운동 배우자"…50개국서 200여명 참가

수원서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
국내외 지도자 대상 정부 포상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외교부·경기도·새마을금고등이 후원하는 '2019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28~29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50개국에서 온 새마을운동 관계자와 각국 고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 호텔에서 열리는 본행사에서는 행안부와 잠비아 지역개발사회복지부가 새마을운동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잠비아 농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새마을지도자 양성, 마을 청년·여성 교육 훈련 지원 등에 양측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새마을운동 유공 국내외 지도자에 대한 정부 포상도 수여된다. 김진택 미얀마새마을회협력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파푸아뉴기니 등의 마을 대표 4명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본행사에 앞서 25일부터는 새마을 우수사례 발표,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총회 등이 진행됐다.

농촌재건개발부에 새마을운동 이행팀을 설치하고 새마을운동을 공무원 연수원 정식 과목으로 채택한 아프가니스탄, 정부 사업비 지원 없이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회를 구성하고 마을 기금을 조성한 우간다 나루툰투 마을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국가별 새마을운동 조직 연합체인 SGL 총회에서는 지구촌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발전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현시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절대빈곤을 극복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만들고, 기후위기와 생명위기를 극복해 모든 생명이 공생·공영하는 조건을 확립하는 새마을운동을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16.8*10.3)cm

중부일보

2019년 10월 29일(화) 종합 01면



오늘 수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수원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참가국 기수단이 국기를 흔들고 있다. 노민규기자

西紀 1995年 8月 31日 木曜日 〔日刊〕

중부일보

특별 寄稿



남평우
〈국회의원〉

새마을운동을 구심점으로

역사의 바른 흐름은 어제의 일을 돌이켜보고 내일의 의미를 재음미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반성과 그것은 한 나라와 사회, 개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한구성원으로서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점검없이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 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21세기를 열어갈 새롭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습이 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의 재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개혁과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류의 역사가 바로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오늘의 이러한 변화는 일찍이 우리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속도와 폭과 깊이를 지니고 있다하겠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구질서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습이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고 개혁의 물줄기는 사회 구석구석 부패한 찌꺼기들을 말끔히 청산해가고 있으며 21세기를 대비하게 될 새로운 질서로 그 자리를 점차 잡아가고 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개혁의 요구는 되돌릴 수 없는 커다란 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러한 시대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근대화 작업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게 되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근면·자조·협동의 이념 아래 추진된 「새마을운동」이다.

전쟁과 가난의 역사에서 영광과 풍요로움의 밝은사회로 한국사회를 탈바꿈시킨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자랑이요, 자존심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몇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새마을운동」 전체가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멸시당하고 치부되어 버리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평가라고 감히 주장한는 바이다.

새마을운동은 우리에게 있어 꿈이요, 희망이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며 지금은 후발 개도국의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이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60~70년대 우리 경제를 일으켰던 「새마을운동」을 신사고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오늘의 개혁정책과 접목시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朝鮮日報
96. 10. 24 (木)

時論

새마을 새국가 운동

땀흘려 일했던 시절

尹 世 達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하루속히 국토와 민족분단의 고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고도산업사회를 이룩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잘사는 사회를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환경과 여건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도 세계일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의 염원을 달성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은 교육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것이며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땀흘려 일하는 길뿐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상은 어떠한가? 구시대적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고도 사회 각 집단과 지역, 계층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채 아직도 지역감정에 따른 정치적 선택의 결과만 나타나고 있다.

6·25동란이후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했던 우리는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70년대부터는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전국민이 「하면된다」「우리도 잘살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동참한 우리 역사상 처음 겪는 민족의 대양진운동이 불붙어 4반세기란 짧은 기간동안 조국의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탈냉전시대라고 하나 우리는 반세기가 흘렀어도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남북이 첨예한 대립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의 엄청난 경제적 경쟁이 전쟁을 방불케하는 가운데 우리가 피땀으로 이룩한 경제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빈번한 해외나들이, 외제선용의 사치낭비 풍조가 팽배하여 소비성향이 급등하고 물가고를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여름 휴가때 우리 국민은 1조2천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썼다고 하니 이게 웬말인가. 이제 겨우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3만달러의 국민보다도 더 과소비하면서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겠는가?

民도 官도 하나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직자는 물론이요 정치인, 군인, 기업인, 노동자, 농민 등 모든 국민이 새마을정신으로 다함께 다시 뛰어야 한다. 최근에 「관변단체란 용어가 사회의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다. 관변단체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부의 지시에 맹종하고 선거때 親與的(친여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새마을 조직의 선거개입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에도 금지되어 있고 조직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이 강력히 지시되어 있다. 국민들의 수준을 감안할 때 더이상의 선거개입은 하려야 할수가 없다. 官(관)과 民(민)이라는 이분적 사고는 권위주의적 시대의 발상이며 이제 문민화, 자치화시대에는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변이란 용어의 남용은 결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26년의 추진경험과 里(리) 洞(동)단위 마을에까지 골고루 추진조직을 갖고있는 지역사회발전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의 성격은 생활, 실천, 주민운동으로서 일상적 생활과제를 실천하자는 국민운동인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이 새마을운동의 계획성, 실천성, 지도력, 추진력 그리고 성과에 대하여 놀라움을 가지고 배우려 하는 이때, 정부차원에서도 더욱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수립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열매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여 새마을 조직을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26년의 긴 세월동안 땀흘려 일해온 새마을운동을 매도 말살하려는 것은 어느 政派(정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국의차원에서도 상당한 과오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모두 다시뛰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어촌 활성화와 내고장 환경지키기, 국민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에는 근검 절약으로 사치낭비풍조를 배제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경기 파주 연천지역과 강원 철원지역 등 재해현장에서의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날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하여 온 겨레가 한데 뭉쳐 피땀흘리며 일해왔던 새마을정신을 되살려 다함께 다시 뛰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사무총장〉

本欄(본란)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1997年 4月 17日 木曜日 〔日刊〕

중부일보

독자투고



黃彰泳 새마을운동경기도지부 총무과장

국채보상운동과 새마을운동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에서는 한국정부의 차관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돈을 들여다 썼는데 그 결과 1천3백만환의 빚으로 남게 되어 온 백성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보다못한 서상돈선생은 국채보상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대구에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학생·나무꾼·짚신장수·시골아낙네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으로 서민층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라며 일제침략에 항거하는 나라 경제살리기 국채보상운동에 동참케 되었는데 이는 경제항일운동에서 급기야는 독립운동으로 승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시끌시끌하다.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기업가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구멍가게 주인도 불경기라고 야단들이다. 게다가 언론과 국민들은 연일 「한보시리즈」에 도취(?)해 있다.

1천억불이 넘는 외채, 연간 2백억불이 넘는 무역수지적자, 필리핀·태국에도 뒤지는 31위의 국제경쟁력. 이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힘이 빠져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떠한가? 윗분(?)들을 욕해가면서 호화 해외여행은 해야겠고, 북한 어린이가 굶어 죽어도 음식물쓰레기는 남아야 속이 시원하고, 일제TV는 봐야 하는게 현실이다. 이러다가 정말 추락하는 용이 되는 것은 아닐까?

마침내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어섰다. 관변단체니 어용이니 하는 소리를 숱하게 듣고 그렇게 매도를 당해도 그들은 또 한번 나라경제를 살리자고 일어섰다.

새마을지도자들은 하루 1천원을 아껴 한달에 3만원하는 적금 하나씩을 먼저 가입해 3조원을 저축하고, 국민들도 동참하도록 하자고 한다. 보릿고개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이었던 새마을인들이 이제는 위기에 빠진 나라경제를 살리자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참으로 장하고 고마운 일이다. 운동이 시작된지 일주일, 벌써 천억을 돌파했다고 하니 실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스라엘인들이 자녀들에게 무교병을 먹이며 조상들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말라고 교육하는 것처럼, 보리개떡을 먹던 시절을 반드시 가르쳐야만 한다.

오늘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치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국민 각자가 어려웠던 시절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다. 27년전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을 때처럼 절미운동을 시작하여 다시 일어서야 한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펼치는 지역경제살리기 저축운동은 그들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모두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으자.

중부일보

1998년 4월 13일 월요일

새마을정신으로 위기극복

특별기고

황치문 경기도사회개발과장



불과 몇 달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는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이었다.

그러나 총 부채 1천5백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5천 달러, 실직자 1백50여만명, 매년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 2백50억 달러,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주소인 것이다.

로그램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IMF 극복을 위해 근검 절약하며 금모으기, 고철모으기 등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소위 말하는 상류사회인들은 IMF가 남의 나라 이야기란다.

일정한 직업도 없는 20대 초반청년의 하루 저녁 술값이 2백50만원이고 한 두번 입고 버리는 속옷 한 벌에 1백만원, 구두 한 켤레에 60만원, 벨트 하나에 30만원이라 하니 근검 절약의 새마을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온 국민 다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의 '신세대'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40대 이상 장년층은 '보릿고개'를 기억할 것이다.

지난해 수확한 얼마되지 않는 곡식이 춘궁기에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5, 6월쯤이면 농민들은 멀쩡히 앉아 굶을 수 밖에 없었던 초근목피시절, 꽁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어 보는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때도 있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한을 풀기 위해 마을에서 마을로, 농촌에서 도시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갔던 '새마을운동'을 통해 굶는 것이 저축이었던 시절을 탈피하고,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 잘사는 나라, 세계가 동경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말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에 의해 이 숭고한 새마을운동과 정신은 퇴색되어 갔으며, 정치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 체제로 빠져들었다. 고통을 나누기는커녕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한 기업주, 생산성에 관계없이 고임금만 요구하는 근로자, 무분별한 해외여행, 사치와 향락의 의식문화에 물들어 가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퍼졌던 새마을의 노래는 작아졌다. 또 하나로 응집된 새마을 열기가 식들어가면서 근검 절약의 저축풍토는 사라지고 흥청망청한 과소비문화만 관쳐 오늘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있는 많은 분들의 자성도 들리고 있다.

얼마전 모 TV방송국에서 방영한 취재 프

이래서는 안된다. 아껴야 한다. 줄여야 한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이다.

혹자는 '새마을'이 한때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았는지 모르지만,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국이후 가장 자랑스러웠던 일로 경제성장, 88올림픽 개최, 새마을운동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78.7%가 해방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중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한 것은 다름아닌 새마을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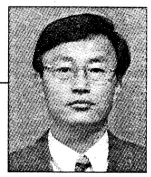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오직 나라의 발전만을 위해 근 30년간을 땀흘려온 3백만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정신의 뿌리는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이들의 변함없는 구국정신과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지금 재점화한다면 4천5백만 온 국민은 하나가 될 것이요, 아무리 IMF시대의 경제난국이라 할지라도 김대중대통령의 말대로 2년내에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지난날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싶다.

자랑스러운 3백만 새마을지도자들이여!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우리의 힘찬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 앞장섭시다.

중부일보

특별기고



김 원 기
경기도새마을회 지도부장

'통일손수레' 모금 운동

남북분단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민족의 비극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다. 그리고 이 과제는 온 민족이 통일을 향한 지혜와 열정이 슬기롭게 모아져서 진정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농촌 재건을 위한 '통일 손수레' 보내기운동은 그 명분과 소명의식이 충분하다 할 것이며 지난 7월 20일부터 통일 손수레모으기 운동을 시작하여 불과 한 달여만에 우리도 목표액 1억2천만원을 상회하는 모금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일반인의 참여가 월등히 높은데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운동의 생명인 자발성이 잘 지켜짐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국민의식을 통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운동 추진에 있어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게 된 요인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도민들의 참여를 위해 먼저 '경기도지사 초청 시·군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운동의 실질적 추진 주체인 시·군 새마을회장으로 하여금 이 운동 추진 배경과 취지, 그리고 추진방법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결의를 이끌어 냈음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의 본질인 새마을지도자들만이 통일손수레보내기 성금을 기탁하는 형태가 아닌 지역주민, 사회단체, 기업체 임직원, 공무원들을 비롯한 국민모두가 참여 하는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우리가 정치적, 이념적 관계를 초월하여 비료보내기, 의류보내기, 통일손수레 보내기등 일련의 대북관련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거창하게 통일준비 운운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담아 보냄으로써 북한 동포들의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분단 반세기로 멀어진 상호간의 거리를 좁혀나가고자 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고 하겠다.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부 이해가 부족한 인사도 없지 않았으나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자부심이 가득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끝으로 이 운동이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성공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

京仁日報

2000년 7월 11일 화요일 (陰 6월 10일) 제 12368 호

열린글밭



새마을운동 30년 — 회고와 다짐

조 명 환 〈경기도 새마을회장〉

지난해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남쪽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추진했던 새마을운동 덕분"이라고 말했다고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는 1페이지에 걸쳐 새마을운동을 자세히 수록하여 새마을운동을 전세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12일에는 우리나라 NGO로는 처음으로 가입 기준이 까다로운 UN기구(DPI)에 가입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정부의 동원능력에 의존한 사회개발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의존적 농민을 만들어 냈으며, 또 역대 군사정권의 전위조직으로 군사정권과 함께 퇴장한 대표적 관변단체로 매도하며 개혁대상의 조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는 그동안 조직의 관료화를 경계하며 관변운동의 상징을 벗겨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리고 이를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아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며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며, 이제 새마을운동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본래의 새마을정신에 충실하며 시대적 과제와 지역의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먼저, IMF여파로 더욱 고통받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실직가정 등 우리 도내 40여만명의 소외계층에게 질병과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하고 배움의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이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처럼 소중한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비롯한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 환경 친화적 생활습성이 살아 숨쉬는 자원 재활용하기, 물과 에너지 아껴쓰기, 오·폐수 줄이기 등 잘못된 관습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환경지킴이 활동은 물론,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를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이겠다.

다시 한번 새천년과 남북화해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 새마을운동이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깊이 되새기고 지난날의 업적을 거울삼아 새마을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경기도민의 화합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고 통일의 초석을 쌓는 활동에 전념할 것을 뜻깊은 새마을운동 30주년에 즈음하여 다짐하고자 한다.

※ 본란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중부일보

joongboo.com

중부일보 |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오피니언

기고 | '이제 우리는…' 선언서



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장

이제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후손들에게 위대한 조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지난 100년을 정리해 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오랜만에 중·고교 시절 달달 외웠댔던 3·1 독립선언서를 외워보려 하니 결국 첫 문단만 맴돌고 말았다.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기미년)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한 '선언서'의 서두다. 요즘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의 각오와 나아갈 길을 밝힌 선언이다. 기미독립운동은 혁명으로써 당시 일제의 살벌한 계엄령 같은 헌병통치하에서 2천만, 2백만 이상이 1년 이상 참여하고 비폭력주의를 전제한 우리민족의 자주운동으로써 인류사에 찾기 어려운 위대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위대한 이유는 종파와 정파, 이념과 성별, 남녀노소를 떠나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도하는 국민의 힘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 독립의 계기를 만들어냈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의 밑거름이 됐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에 큰 영향을 끼쳐 세계적인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갖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니.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된 것 같다. 지난해 말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인구 5천만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 미국·독일·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이다. 1954년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약 70달러, 1963년 100달러를 넘어선 이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거쳐 국민소득은 55년 만에 약 300배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 힘으로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땀과 눈물과 정성을 바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당연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올해는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을 개국한 단기 4352년째 해이다. 우리 민족은 어려운 고비마다 역경을 이겨내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냈다. 기미독립운동, 국채보상운동, 새마을운동, 민주화운동 등 시대에 따라 닥쳐 온 위기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나라를 구해 지금의 풍요로운 나라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이제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물질적 풍요와는 달리 정신이 쇠락해지고 천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연간 670만여 건의 소송이나 친족 살해 비율 1위 국가가 한국이라는 통계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수치로만 보면 맨날 싸움만 하고 사는 것 같다. 환경은 어떠한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살기 어려워졌다. 누가 일기예보에 미세먼지 농도가 포함될 줄 꿈에나 생각했을까? 지난해 여름 40도를 오르내리는 아열대기후와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 대란은 국토피폐는 물론 우리의 미래를 막을지 모른다. 자칫하면 훗날 우리가 그토록 예뻐하는 손자·손녀들에게 아주 나쁜 조상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이 땅에 살 수 없어 모두 이주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늦기 전에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문명의 대전환'을 이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공약3장'을 통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운동과 서로 평화롭게 사는 운동, 서로 공경하며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선언하고 실천할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목숨 바쳐 독립을 외치고 이뤄낸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지나온 100년을 정리해 보고 새롭게 다가올 100년을 준비해야 후손들에게 위대한 조상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경인일보
kyeongin.com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 기고

'생명살림' 운동은 절체절명의 '살기운동'



송 재 필
경기도새마을회장

'철없는 것들'이란 말이 있다. 요즘은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꽃이 핀다. 한여름에 피었던 장미꽃이 11월에도 아파트 울타리에 피니 참으로 '철모르는 것들'이다. 늦가을이긴 하지만 뜰가을은 가을다운 청명한 날씨를 거의 느끼지 못한 것 같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라는 애국가 3절의 일부분이 무색할 정도이다.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는 기상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조금 겨울러 올라가면 올여름은 40℃를 오르내리는 초유의 이상기온으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큰 몸살을 앓았다. 이러다가는 정말 지구가 다시 인류의 멸망시대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또 무슨 기상이변이 일어날까? 벌써 내년 여름이 걱정되는 것은 걱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뭐지는 주위의 권유로 경기도새마을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해 보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뛰어들었다. 앞으로 무슨 운동을 해야 하는지 오래 고민하던 중에 '생명살림' 운동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도내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도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질 것이라는 바람에서다. 또 '생명살림' 운동으로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의 노력은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국토를 물려줄 수 있다는 '미래운동'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서다.

그동안의 '환경운동'은 사람중심이었다. 우리가 환경운동만 계속하는 한 환경문제는 개선되지 않을지 모른다. 버려진 환경을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나마 지속 추진한 환경운동으로 2000년대 초반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더는 버티기 어렵다.

생명운동은 생명체 복원이다. 생명운동은 새마을운동처럼 '잘 살기운동'이 아니다. 절박함에서 나온 '살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환경운동만 계속한다면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지금의 환경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 손자와 손녀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이대로 미루다가는 자칫 먼 훗날 우리는 나쁜 조상이었다는 원망을 들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생명의 위기다.

생명살림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을 것이다. 우리의 생산과 소비양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은 노력해야 한다. 생명위기의 주범은 인구폭발, 대량생산과 소비폭발, 화석연료 과다소비 등이다. '생명운동'을 지속해야 조금씩이나마 회복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생명살림' 대전환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 공존과 순환의 사회구조로 전환하여 적정생산, 적정소비, 최소폐기의 직은 문명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 생명의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울러 나 자신과 우리 가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와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실생활도 단순하고 소박한 행복추구의 생활관으로 바꿔야만 생명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생명의 문명, 작은 문명으로의 전환은 우리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믿는다.

공기와 물과 토양은 우리 인간 삶의 원천이다. 아무리 좋은 문명의 이기도 이를 간과해서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생명살림'운동을 통해 생명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우리와 후손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도민 모두가 이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일보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년 5월 7일 화요일

지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운동

❙ 특별 기고 ❙



송재필
경기도새마을회장

지난 주말만 해도 꽃이 만발 하는 것 같더니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꽃구경은커녕 숨마저 답답하다. 올 봄은 제대로 된 꽃놀이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봄이 흘러가는 것 같다. 엄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저녁으로 싸늘해서 온풍기를 돌렸다. 갑자기 4월에 30℃를 넘나드는 이상기온을 만나게 되었다.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마저 기승을 부려 온 국토가 숨쉬기 힘든 나라가 된 것 같다. 지난겨울 인터넷에 돌던 '3한 4미'라는 말이 생각난다.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한반도 겨울의 특징인 '3한 4온'을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고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좀 나아지리라 생각했지만 불청객 황사와 스모그가 하늘을 시커멓게 덮어 버리기 일쑤이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난해 여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고생했던 악몽도 생각난다. 에어컨, 선풍기, 부채, 얼음덩어리가 총 가동되던 지난여름의 우리 집과 사무실, 공장의 모습이 기억난다. 벌써부터 올여름의 폭염으로 잠 못 이룰 것을 생각하니 불안하다 못해 겁이 난다. 건강한 자연이 주는 쾌적한 행복은 이제 꿈에서나 바라는 처지가 된 것 같아 위기의식이 생긴다. 나의 코와 목, 그리고 폐에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쌓여가는 데 돈을 번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고 보니 겨울도 봄도 여름도 모두가 정상이 아니다. 하늘이 죽어가고 있다. 땅과 바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가 땅과 바다를 뒤덮고 있다. 바다와 물도 죽어가고 있다. 하늘, 땅, 물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인들 온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 경기도 새마을회원들은 지난해부터 "생명·평화·공경으로 문명의 대전환을 만들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처음에는 생동맞은 느낌도 있었지만 그 때나마 시작한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원치 않는 시대정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무릇 바람직한 사회운동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사회적 실천행위이다. 또한 훌륭한 사회운동은 '실천 활동'을 통해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생각을 한 차원 높이는 "가치 향상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의 근본적이고 절실한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인류존망의 위기,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생명살림 운동"이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환경운동, 생태운동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간 생명의 위기, 뭇 생명의 위기, 지구 생명의 위기 곧 모든 생명 있는 존재의 절멸과 관계파탄의 위기이다. 생명살림운동은 평등을 넘어선 평화나눔 운동 그리고 인권을 넘어선 공경문화 운동과 셋이면서 하나가 되어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차원 향상을 통합하는 새로운 문명운동이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소유보다는 단순·소박함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집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스스로, 함께"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존과 순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존과 순환의 이치를 삶의 방식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대량생산·소비·폐기하는 거대문명을 거부하고 적정함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문명을 추구해야 한다.

"생명·평화·공경"의 새로운 문명사회는 우리의 힘, 우리의 실천만으로는 도달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해야 하고 인종, 종교, 이념, 국가를 뛰어 넘어야 성공의 새벽별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다. 우리는 조건의 불리함, 시간의 촉박함을 계산하기 전에 그리고 정부와 기업 특히 거대자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생명살림의 길로 나서야 한다.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며, 스스로 함께 실천의 길, 생명살림의 길로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공부하며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가며 살남같은 생명의 길, 더 큰 생명공동체의 길로 나아 가야한다. 이러한 결심과 실천이 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중부일보
joongboo.com
음력 3월 14일 乙酉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기고 | 이민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



송재필
경기도 새마을회장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는 아이를 억지로 끌고 들어올 때마다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다." 회원 수 7만여 명의 온라인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미대촉)'에 올라 온 글 중에 하나이다. 젊은이들은 해외 이민이나 국내에서 공기가 좋은 강원도나 제주도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를 '공기난민'이라고 부른다. 당장 이민·이사가 어려우니 당연히 주변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같은 지역에 사는 회원들끼리 근처 미술관, 키즈카페, 휴양림 등 공기 질이 좋은 장소 정보를 나눈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미세 먼지 오어시스'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이 추천 1순위란다.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젊은 엄마들이 이민 간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이다.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았는데 차츰 실감이 나더니 이젠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이 생긴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이민 역사는 미국 선교사 호러스 알렌(Allen·1858~1932)이 고종황제를 설득해서 여권을 넘당하는 '유민국'을 설치하고 이민자를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1903년 1월 13일, 조선인 102명이 하와이 땅을 밟으면서 최초의 해외 이민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을 시작으로 1905년까지 7천 명 넘는 조선인들이 하와이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절대빈곤을 벗어나고자 떠난 '생계형이민'이었다. 그 이후로는 교육, 직장 등이 이민의 주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환경적 요인이 이민의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이다.

나라는 늘 시끄럽다. 언론 매체마다 온 국민을 갈라놓는 뉴스가 넘쳐나서 식상한다. 도대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젊은이들이 심각하게 이민 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과 뉴스는 보기 어렵다. 정치인들은 말 뿐이다. 말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외침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지금 닥치는 자구 문제나 온난화 문제는 먼 미래의 일도 남의 일도 아닌데 말이다. 조만간 우리 곁에 다가올 일이 분명한데도 너무 근시안적인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람이 사는 데 중요한 것은 공기, 물, 밥이다. 온실가스와 산업 폐기물 때문에 공기와 물과 땅이 망가지고 있다. 미세먼지를 들이 마신 동물들, 비에 가라앉아 땅에 녹아버린 미세먼지 지하수, 이를 먹고 사는 동식물. 그것들을 섭취하는 우리에겐 분명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50년 후엔 농작물 소출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땅과 물과 하늘을 중심으로 하는 생명운동은 아주 현실적인 아젠다이다. 땅과 물과 공기처럼, 불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일단은 불을 아껴 써야 하고 불을 아껴서 석탄 연료를 줄이는 게 급선무이다.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그나마 젊은이들의 이민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 같다.

매년 4월 22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정한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이다. 국가의 무형자산인 새마을운동은 가난극복의 상징이자 '우리도 잘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운동이다. 지나 온 50여년이 격동의 시기였다면 이제 새로운 50년의 새마을운동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후손들은 우리가 누린 것 이상 더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누리면서 나쁘게 만든 것이나 우리가 회복시켜야만 한다. 후손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문명의 대전환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 생명살림의 시대정신으로 더 좋은 나라 만들기에 노력하면 훗날 후손들이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결코 이민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나누면서 서로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선진 대한민국으로서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말로만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 '해야겠다'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때 우리의 귀여운 손녀·손자들은 이민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중부일보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 중부일보

기고 | 대한민국 브랜드 '새마을운동'



함옥생
새마을지도자
경기도협의회장

새마을운동은 한국인의 것에서 세계인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로 국가의 무형자산으로써 세계 희망으로 결실되어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지난 해 국민 1인당 순소득(GNI)이 잠정적으로 2만7천561달러 라고 발표했다. 2만 달러가 넘은지 1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국민들은 3만 달러가 곧 달성되어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는 목표치 이하로 나타났다. 3만 달러 문턱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다보니 국민들이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욕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동력이 상실된 것인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런 가운데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주요 인사들 중 많은 분들이 새마을운동을 소개 받고 놀라운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미얀마, 티모르,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키르키스스탄, 부룬디, 앙골라 등 실로 많은 국가 정부관계자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오고 있다.

그들은 왜 한결같이 '새마을운동'을 칼빵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보릿고개'를 넘은 민족, 모두들 넘고는 싶었지만 자신이 없어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 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기에 그 비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 높은 고개를 사투하면서 넘었는지, 어떻게 그토록 광활한 신천지가 열리기 시작했는지 궁금한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단기간에 빈곤 탈출, 산업화,민주화, 세계화를 이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47년전 우리는 "독일이 해냈는데, 미국도 해냈는데, 일본마저 해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한 번 해보자"라며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물론 그 땐 다소 무리하고 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은 찌든 가난의 굴레를 벗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다. 그 과정은 우리들의 보모님과 삼촌·이모 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이 있었던 것이지 결코 기적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개도국 사람들은 "눈으로 꼭 한번 대한민국 현장을 보고 싶었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 변화와 성공신화의 땅에 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고, 본 것만 으로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기(氣)를 받고 돌아가서 자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가슴 뜨거워 돌아간다.

그런데 국내의 어떤 이들은 '새마을운동은 시대적 시명이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흘러간 옛 노래'나 '박물관에 넣어야 할 대상'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현재 진행형이자 공동체 운동으로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이고 미래 비전인 것이다. 지금 이시간도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의 마을과 지역에서 주민 이 스스로 하는 지조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4월 22일은 대한민국 법률(10438호)이 정한 '새마을의 날'이다. 올해는 47회째 이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012년에 세계인에게 전해 줄 한국의 브랜드에 주저하지 않고 '새마을운동'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은 2011년에 새마을운동 모든 자료를 '국가기록물'로 지정했고,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인의 것에서 세계인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무형자산으로서 대한민국의 브랜드로서 세계인의 희망으로 결실되어져야 한다.

가난이 숙명이라는 생각에서 '반근퇴치'에 성공한 운동, '해야 겠다'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야 만 한다'는 사명감을 통해 절망적 국민에게 자신감을 안겨준 운동,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로서의 운동을 우리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지속가능한 한류로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노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지금도 시대정신에 맞게 '문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이웃공동체, 자구촌공동체'운동으로 성숙해 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각오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활동이 이뤄져야 다음의 100주년을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달간 흘어지고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이 '새마을의 날 47주년'을 계기로 어려웠던 역경을 이겨낸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하나가 되어 이서 빨리 3만달러 시대 선진국으로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중부일보
joongboo.com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기고 | 통일손수레



함옥생
경기도새마을회장
직무대행

'가래'는 혼자 쓸 수 있는 작은 삽보다 자루가 2~3배나 긴 삽이다. 삽 양쪽 끝에 동아줄을 묶어 셋 또는 다섯이 하나가 돼 작업하는 농기구로써, 혼자서 할 수 없는 삽질을 거뜬히 하는 효과적인 농기구다.

혼자 잘한다 해도 셋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과를 낼 수 없는 도구로,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이 도구가 마을길을 넓히고, 무너진 제방을 쌓는 데 참으로 큰 공을 세웠다.

가래보다 유용한 한 수 위의 기구는 '손수레'였다. 진흙 짐을 싣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 혼자서 할 때보다 몇 배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는 새마을정신 중 '협동'의 상징과 같다.

새마을운동은 개인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마을 주민전체가 힘을 합해서 새로운 환경과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농가계가 부족하던 그 시절에 '손수레와 가래'는 새마을 현장의 일등공신이었다. 새마을운동의 정신과도 닮아 있어, 새마을운동을 대변하는 상징물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5년 말부터 1997년 말까지 '고난의 행군'이 계속됐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새마을은 1998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의 영·유아 아사자를 막기 위한 영양공급원으로 '젖 염소 보내기 사업'을 필두로 대북지원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의류, 감귤 보내기' 등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새마을은 인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개선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북한농촌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전국 새마을 지도자들이 12억여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했다.

북한에서의 새마을운동은 사유지가 없고 주민의 자발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우리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훗날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사업으로써 '북한 농촌 현대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첫 사업이 새마을운동의 상징물인 '손수레'를 보내는 것이었다.

북한의 농촌 환경에 맞게 국내에서 제작·이송해 북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됐다. 그 이름이 바로 '통일손수레'인 것이다. 피폐된 북한 농촌 복구지원을 위한 이 사업은 손수레 앞면과 뒷면에 새마을 마크와 '통일손수레'라고 써서 보내졌는데 초기에는 북한 측에서 일부 손수레에 새겨진 글씨와 마크를 지웠다.

이후 페인트 값과 인손이 많이 들어 결국 그냥 쓰게 됐다. 통일손수레는 비정치적이면서도 집단농장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측 반응도 매우 좋았다.

통일손수레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만4천500대를 보내져 평양시,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등 4개 도 8개 시·군에 배포, 활용됐다. 북한 측은 손수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

우리 측의 자금사정과 운송애로로 중국산을 보내자 북한 측이 "1톤 손수레가 유용하고 중국산은 잘 파손되니 국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 결국 국산을 추가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통일손수레를 통해 북한 농촌재건 지원의 신뢰를 쌓으며 남북한 간 관계가 두터워지고 북한 측에는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자금 사정,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결국 사업이 중단, 남북관계에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로 남았다.

최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해빙모드로 접어들면서 새마을 가족들은 잊혀져가던 통일손수레를 새삼 기억하게 된다. 지나온 50년,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발전의 밑바탕이 됐다면 다가오는 50년은 통일손수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새마을운동이 활활 타올라 민족융성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경기일보
kyeonggi.com
음력 3월 11일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생명살림'은 새로운 문명사회로 가는 길



| 기고 |
황창영
경기도새마을회 사무처장

강원 동부 지역의 산불은 참으로 무서웠다. 하룻밤 사이에 평생을 일구어 놓은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다. 크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의 처지는 참으로 막막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를 당한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을 바라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십시일반으로 2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오는 길에 산불피해 현장을 돌아보았다. 산림도 산림이지만 민가가 있는 피해 현장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자연 앞에 인간은 참으로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였다. 보다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국가적 재난을 보면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돕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불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모습이다. 돕는 분들은 뭐 더 도와드릴 것이 없느냐고 물으면서 용기를 내라고 위로하고, 도움을 받는 분들은 감사하다고 답례하고 다른 곳에 재난이 있다면 우리 지역이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라고 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상처받은 분들의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겠지만 불에 탄 산림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독일, 호주에 이어 세계적인 조림 성공국가이자 산림선진국이다. 지금 심어진 나무들의 상당수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심어진 것들이다.

1974년에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을 제시한 박정희대통령의 초고에 의하면 정부나 주민들에게 성급한 성과를 자제시키고 있다. 이 초고에서 "조림사업의 성과는 40년, 5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고 하자. 조림사업은 우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부모님들과 삼촌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이 땅의 후손들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자원을 물 쓰듯(?) 써 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자손들이 미세먼지에 갇혀 서로 얼굴 모습조차 볼 수 없는 마스크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의 재앙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모두 누리고 버리고 망쳐놓고 이대로 도망간다면 훗날 아주 나쁜 조상이라 불리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여러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매년 4월 22은 세계인들에게는 '지구의 날'이고, 대한민국에게는 마흔 아홉 번째 맞는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새마을운동이 그동안 해 온 성과를 인정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국가의 무형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법률 제10438호에 의해 '새마을의 날'을 제정한 기념일이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세대가 참 잘해서 이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반세기를 지나왔듯이 이제 우리는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새로운 생명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삼천리금수강산을 회복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문명의 대전환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새마을운동의 저력으로 또 다른 생명살림을 위한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이 생명살림의 시대정신으로 더 좋은 나라 만들기에 노력하면 훗날 후손들이 그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가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

중부일보

중부일보 |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오피니언

기고 | 수해복구지원 현장은 공동체운동 현장



임 낙 희

경기도새마을부녀회장

이제 장마가 끝나가고 있지만 태풍 몇 개가 또 올라온다니 주민들이 대비를 잘 하여 더 이상 수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해 입은 주민들은 하루 빨리 이전의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

장마가 끝나는가 하였더니 아직 힘이 남아 있는 것 같다. 매년 반복되는 봄 가뭄 피해, 이어지는 장마와 국지성 폭우 피해, 태풍의 공격 등이 늘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안타깝다.

뜻하지 않은 수해는 주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는 주었고 "평생에 처음 만나는 물난리였던 것 같다."고 인터뷰하는 어르신의 말처럼 하늘도 무심하리만큼 평화롭기만 한 농촌 마을과 농민들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좀 야속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생각하면 그 비와 바람은 언제나 우리 먹 거리를 풍성하게 자라게도 해주는 고마운 비바람이기도 하다.

그러니 막을 수 없는 재해는 어쩔 수 없다하여도 당한 피해는 우리가 힘을 합해 극복 해 내면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수해복구지원은 무엇보다도 적절한 타이밍과 빠른 속도, 즉각적인 현장 활동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충북 청주, 괴산 등 현장에 빨리 달려 갔다. 현장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이 덮쳤고 이로 인해 나무뿌리와 온갖 쓰레기들이 진흙과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땀을 흘리며 마을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작은 힘을 보태었다.

그리 무덥고 힘들어도 아무도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는 참여자들이 없고 모두 서로 서로 격려해 주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 우리 뿐 만 아니라 옆에서 활동하던 다른 지역,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였다. 우리는 7월 19일~8월 2일까지 매일 2~4시간 씩 2주간 현장을 찾아가 수해복구지원 활동을 펼치었다. 아무에게도 복구 지원 활동을 강요하거나 독려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주요한 수해복구지원 활동은 제2차 감염을 우려하여 방역차와 방역기를 동원한 방역활동, 인삼밭에 들어가 물에 침긴 인삼을 캐는 활동, 흙더미 속에서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치우는 활동, 토사가 덮친 양어장 을 치우는 일, 펜션·식당·농가·주택 현장에서 요청하는 대로 치워댔지만 끝이 없는 것 같았다. 특히 도배차량과 목공차량은 이전 활동과는 달리 아주 유용했던 것 같다.

물론 급식차량을 가지고 와 땀을 뻘뻘 흘리며 삼계탕을 끓여주며 활동자들을 지원하는 모습은 더 없이 감사했다.

각 지역과 기관·단체에서 손으로 하는 활동은 한계가 있었는데 군인들의 중장비는 아주 유용한 복구지원 활동이었던 것 같다.

무너진 도로를 보수 한다든지 쌓인 쓰레기 더미를 치운다든지 무거운 폐기물들을 치우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는 수해지역에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지역에서 보여주신 성의는 참가자들을 오히려 감동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 갔는데도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손수 지어온 잔치국수, 올갱이국과 수박화채는 더없는 꿀맛이었다. 참여한 각 지역의 기관·단체이웃 자원 봉사자들이 서로 싸 가져온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도 아주 보기 좋았다. 우리 국민들은 늘 어려운 일이 닥치면 힘을 모으는 전통과 저력이 있는 것 같다. 정치인들은 늘 "국민통합, 소통"을 외치는데 현장에 가보니 그 곳이 국민통합의 장이었고 소통의 장이었던 같았다.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합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들이 진정한 공동체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계기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두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사회공동체, 문화 공동체, 경제공동체, 환경공동체를 다시 세워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올 장마가 끝나간다. 하지만 아직 태풍 몇 개가 또 올라온다니 주민들이 대비를 잘 하여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해를 당한 주민들께 용기를 잃지 말라고 위로해 드리고 싶고 하루 빨리 이전의 삶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

경기신문
www.kgnews.co.kr
2018년 7월 4일 수요일

기고

평양의 '산란 종계장'



임낙희
경기도새마을부녀회 회장

많은 식재료 중 계란은 지구촌 어딜 가나 구할 수 있고, 세계인 누구나 아무런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이다. 계란은 영양 또한 풍부하여 최고의 영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보약 같은 전통 식재료인 것 같다.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형편은 최악이었다. 좀처럼 경제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없음은 물론 많은 아사(餓死)자들이 생겼고, 살아남기 위해 북한을 이탈하는 이가 줄을 이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었던 차에 새마을지도자들은 '젖염소'를 보내 영유아의 영양공급이라도 시키자고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대북지원사업의 방향은 '북한농촌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을 매개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와 이해를 도모하고, 민족화해 및 통일기반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정했다. 북한 어린이들의 시급한 영양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양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그 이름이 '통일 산란 종계장' 설치였던 것이다. 모든 물자와 기술은 남한 측에서 제공하고 북한 측에서는 대지와 노동인력을 제공하여 합작형태로 평양시 삼석구역 농업과학원 내에 설치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추진하였던 것이다.

'통일 산란 종계장'의 규모는 농업과학원 내 5천373평을 정비하여 대지를 만들고, 필요 시설은 5개동 557평을 경량조립 형강구조로 뼈대를 만들고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세우는 일이었다. 공사를 위해 국내 12개 업체 참여가 북한을 오가며 3개월만에 공사를 마쳤다. 주요시설로는 1주당 1만9천200수 규모의 부화장을 비롯하여 종계사, 육추사, 육성사, 계분처리장, 발전기실 등을 짓고, 병아리 원원종 4천100수와 어린병아리 사료 21t도 함께 보냈다. 국내 사육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규모지만 당시 북한에는 최초의 대형 종계장이었던 것이다.

산란종계는 계란을 낳는 닭을 생산해 내는 종자계 닭인데 종계(병아리)는 한 마리 값이 일반 통닭 값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우리는 국내에서 종계를 부화시켜 일주일 이내에 평양에 도착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인천항과 남포항을 통해 평양으로의 이송작전은 그야말로 007작전과 같아서 종계가 멀미하지 않게 하고 적당한 온도와 영양을 공급하며 살려 북한에 도착시키는 것이 당시 인도요원들의 주 임무였던 것이다.

최근 남북, 북미회담으로 남북이 화해모드로 접어들면서 새삼 평양의 '통일 산란 종계장'이 무척 궁금해진다. 시설들을 잘 유지되고 있는지? 계란은 생산하고 있는지? 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았는지? 물론 일정기간 종계와 어린병아리 사료, 약품 등을 지속 지원해야 하는데 중단되었고, 북한 측의 전력사정, 남한 측 기술 인력의 방북중단 등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말이다.

어찌됐든 '산란종계장'이 다시금 새마을과의 관계를 어어주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쌓은 대북사업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되고 새마을의 역할이 주어지길 기대해 본다. 대북지원사업은 미래에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역할영역이기 때문이다. 계란은 생명이자 부활의 상징이다. 이 작은 계란을 통해 북한에는 '생명살림'이, 남북간에는 '평화나눔'이 다시 부활하는 그 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중부일보
joongboo.com
13일 수요일

기고 | 공경문화로 '문명의 대전환' 만들자



최연숙
직·공장새마을운동
경기도협의회장

며칠 전 뉴스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었다. '간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남편이 이를 방치하고 출근해 결국 사망했다'는 뉴스였다. 방치 이유는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셔 간이 나빠 입원한 경험도 있고, 입원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간병하기 싫었다'는 참으로 씁쓸한 뉴스였다. 더 충격적인 뉴스는 친모 살해를 정부한 30대 중학교 여교사 사건이었다. '국가대표 출신 스포츠인과 내연관계를 맺기 위해 친모 청부 살해를 의뢰했다'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뉴스였다.

반면 같은 날 같은 시각 뉴스에는 다른 신선한 뉴스의 반전도 있었다. '불의의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간과 신장 2개를 기증하여 3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뉴스는 가슴을 짠하게 만드는 감동이었다. 고인이나 갑작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새 생명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가족 분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그래도 삭막하지 않고 훈훈한 것이리라. 전남의 한 마을에서는 80대 노인들이 글을 배워 그 실력으로 감정을 담아 '할매시집'이란 시를 쓰고 만들었다는 뉴스도 있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예절을 이어왔다. '동방예의지국'은 이를 대표하는 말이다. 위 사건들만 보면 오늘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절의 뿌리가 우리의 전통문화인 것이 자랑스럽다. '공경'(恭敬)이란 말이 있다. 공손할 공(恭), 공경할 경(敬), 공손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나해 섬긴다는 뜻이다. 전통적인 공경이라 하면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행위로 생각한다. 즉, 수직적 상하관계다. 하지만 진정한 공경이란 수평적이어야 한다. 아내와 남편, 제자와 스승, 자식과 부모-, 수평적 공경이야 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미래지향적 공경이다. 이제 우리는 수직적 공경에서 수평적 공경으로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공경이란 연경이나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 등의 외형을 떠나 상대방을 인정하는 진정한 내면적 행위다. 생각건대 공경은 우리 사회 생활의 기본이 돼야 한다. 어른도 아랫사람을 공경할 때 진정한 공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윗사람의 권위는 필요하되 권위주의는 철저히 배제될 때 진정한 공경이 이뤄질 수 있다. 수평적 공경문화는 우리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묘약이다.

우리 민족은 문화의 뼈대도 튼튼하다. '노리'의 유교문화가 틀을 만들었고, '빨리빨리' 문화는 첨단기술을 만드는 원동력이 돼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외형상으로는 느림과 빠름의 조화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천신만고 끝에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이제부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새로운 선진문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공경은 참 예의이고 쌍방문화다.

필자는 최근 직·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 최초 여성회장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 '무슨 일이 진정한 시대정신일까', '우리 사회를 밝고 튼튼하게 만들 운동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보니 '공경'에 귀착했다. '공경문화를 통한 문명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보고자 한다.

'3·1운동 100주년'이 달포정도 남았다. 100년 전 우리 겨레 모두가 하나 돼 나가야 할 길을 밝혔다면 이번 3·1운동 100주년에는 다가올 100년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전통문화의 장점들을 유지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대우하는 진정한 공경문화로 문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다. 이래게 만든 이 나라가 다시는 추락하지 않게 공경문화를 실천하는 '문명의 대전환'을 이룰 때 새로운 100년은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당당해질 것이다.

경기일보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비무장지대를 생명·평화공원으로

| 기고 |



이 용 구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회장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주관한 '동일경제특구 세미나'에서 경원선이 지나는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가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휴전선을 사이로 북한과 접경해 수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아 왔다. 경기도에는 153㎞의 비무장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아직도 군사보호구역이 약2천364㎢나 남아 있다. 연천군의 경우 면적의 97.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다. 장마철이면 지뢰 유실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 수두룩하고, 미군이 머물다 떠난 지역은 경제 위기 지역으로 쇠락하는 등 오랜 분단의 상처들이 남아 있다. 게다가 분단에 따른 규제와 안보로 경기남부와 북부는 현격한 경제적 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경기도의 발전을 막아온 철도 단절, DMZ, 민간인통제구역, 철책, 지뢰, 포 사격 소리 등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개발의 혜택도 마땅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해 온 주민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잘도 참아주었다. 경기도가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평화시대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분단의 상징인 경의선·경원선 철도를 복원·연결하는 것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1910년에 개통된 경원선은 서울에서 경기, 강원을 거쳐 북한의 원산까지 이어지는 철도이다. 경원선은 한반도 국토의 중앙을 통과하는데 이 철도가 연결되면 평화적 의미뿐 아니라 경기북부 기반시업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 자명하다. 서울에서 파주 도라산역을 거쳐 '개성-평양-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 축의 복원은 더 할 나위 없이 평화적·경제적 의미와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새로운 평화시대에 한반도의 신 성장 동력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기도 꿈은 대한민국의 꿈이 될 것이다.

철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활용일 것이다. 평화시대에 경제개발, 관광개발만을 거론하면 큰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 개발은 좀 뒤로 미루어도 좋을 것이지만 비무장지대는 한 번 개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내 땅도 내 땅도 아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비무장 지대를 이제 "생명·평화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특이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상태로 사야 확보를 위해 비무장지대에 오랫동안 불을 질러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상당한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비무장지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의 자산이지만 전 세계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인류의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생명·평화공원은 남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인이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지역이기에 더없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뜻을 모아 1인당 1 달러, 5 달러, 10 달러씩 모아 생명·평화공원을 조성한다면 비무장지대는 세계평화의 상징이자 '평화의 성지'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세계인의 참여로 생명·평화공원을 만든다면 동참한 세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동포들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인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생명공원', '평화공원', '지뢰공원', '자연학습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등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야말로 국운상승의 재 도약점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인이 함께 만드는 비무장지대의 생명·평화동산 조성은 한민족에게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이다. 생명·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한민족의 기상이 세계만방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중부일보
joongboo.com
2019년 5월 2일 목요일 | 중부일보

기고 | 선진 교통문화는 국격이다



강창희
새마을교통봉사대
경기도지대장

아름다운 교통문화는 우리의 마음도 품격 있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쁜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배려와 양보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부부싸움 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남편이 시내를 180km로 달리다가 사고를 내고서야 멈췄 섰다." 며칠 전 언론보도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참지 못하고 그리 달린 것일까? 어떤 유명 언론인은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언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교통문화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 6월 27일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후 명품도로의 천국이 되었다. 전국 어딜 가나 잘 갖추어진 도로는 우리의 국력이지 자부심이자 소통의 통로인 것이다. 새마을연수원에 교육을 받으러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성공박물관으로 생각한다. 외국인들은 인천공항에 내려 바다 위의 인천대교를 건너면서부터 벌린 입을 닫지 못한다.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많은 차량에도 원활한 소통을 보이는 것에 모두가 놀란다. 깨끗하고 넓은 도로. 톨단 하이패스, 버스 전용도로. 광폭터널 등을 보면서 감탄과 부러움을 표시한다. 놀라는 것의 절정은 물이 가득한 한강다리를 지나면서 한강다리 아래로 자하철이 다닌다고 하면 그냥 할 말을 잃는다. 새마을교육의 목표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나 범죄사고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참으로 대단하다.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덕이다.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는 과속·신호·과적위반, 방법용, 교통량조사용, 내 차용, 남의 차용 등 무수하도 많다. 그 덕에 우리는 범죄와 시시비비로부터 그나마 벗어 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대한민국의 교통 인프라와 시스템은 가히 세계 최고로 잘 갖추어져 선진 교통체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교통선진국 평가를 못 받는 것인가? 교통은 양방향 교차소통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양보 없는 일방적 통행은 교통이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양반문화'에서 비롯된 유유자적한 여유와 품격, 개발과정에서 만들어진 '빨리빨리' 문화라는 좋은 DNA가 있다. 그 동안 서구에 뒤쳐져 따라가느라고 부족이나 빨리빨리 다닐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한다. 그 덕에 우리는 최첨단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게 되고 오늘날의 국민 먹거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3만불 소득시대를 시작하고 있다. 빨라진 속도에 비해 의식수준이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다. 좀 여유를 가져야 한다. 여유에서 품격이 나온다. 이젠 속도를 맞추어 가면 좋을 것 같다. 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래 전에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이 조그마한 나라를 선진국으로 부르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질서와 품격이 있기 때문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좀 늦추어 보자. 여유를 가지면 주변이 보일 것이다. 산에 오를 때는 보이지 않던 꽃들도 내려 올 때는 보인다고 하지 않았던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교통문화 후진국을 벗어날 수 있다. 교통문화는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또 다른 문화자산이 될 것이다. 국력을 높이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남의 자유를 방해하고 점주는자유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범죄인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씻자. 그래야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찾아오고 존경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다. '질서·친절·청결'과 더불어 품격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 때 대한민국은 또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이왕이면 차량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줄여보자. 지난여름 40도가 넘는 폭염에 고통 받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우리가 뿌려놓는 매연은 미세먼지가 되어 다시 내가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 않은가. 아름다운 교통문화는 우리의 마음도 품격 있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쁜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배려와 양보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경기신문

열린광장

후손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자

거리엔 넘쳐 확성기 소리가 요란하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모두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한다. 거리마다 대선과 관련된 현수막들도 어지러울 정도로 그득하다.

언론은 지난 몇 달간 비선 실세, 탄핵, 촛불과 태극기, 세월호, 사드, 대선 이야기 등 비슷한 내용으로 화면과 지면을 채워댔다. 대다수 국민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도 정치인과 언론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국민 모두를 한 곳만 바라보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와중에 미국은 강력한 국수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일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안하무인격의 우경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더 가관이다. 자기네들 가진 것은 털끝 만치도 밝히거나 줄이지 않으면서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만 만만히 보며 참으로 무례한 조공의 예를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선빙지축 럭비공같이 튀면서 한반도를 더욱 어려운 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 국민 1인당 순소득(GNI)이 잠정적으로 2만7천561달러라고 발표했다. 2만 달러가 넘은 지 11년째 제자리걸음이란다. 국민들은 3만 달러가 곧 달성되어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는 목표치 이하로 나타났다. 3만 달러 문턱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다보니 국민들이 의욕을 상실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기까지 할 지경이다.

이제 한 달 이내에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보듬고 끌어안는 리더십이 간절한 시점이다. 국민통합을 잘 할 수 있는 지도자, 아니 반드시 잘해야만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용서와 화해, 포용과 통합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번영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기초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좋은 나라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정부로, 간호원으로, 사막의 기능공으로, 공장의 노동자로,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로 헌신 봉사한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는 이제 입장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매무새를 가다듬고 힘을 모아야 한다. 선진국 진입을 위한 통합된 지력을 세계에게 보여줘야 한다. 후손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4월22일은 대한민국이 정한 '새마을의 날'이다. 지난 47년간 묵묵히 마을 현장에서 마을과 지역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숨은 영웅들을 기리고 후손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한 세계적 성공사례를 길이 전하고자 만든 국가기념일인 것이다. 물론 밉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오늘 날 대한민국의 저력은 새마을정신에 있다고 본다. 1970년 4월22일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지난 47년 동안 참으로 혹독하고 엄격한 평가과정을 거쳐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성공한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근면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일을 찾기고 이웃과 함께 협동을 통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렇게도 핍박받고 소극적이고 부기력했던 국민들을 해아겠다는 의지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불어넣어준 새마을운동이 이 시내에도 현재진행형으로 유효한 정신이라고 본다.

우리는 지나온 5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50년에 대비해야 한다. 선진국 문턱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세계인의 새마을운동, 세계 33개국이 만든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SGL) 종주국, 지속가능한 한류로서의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민 모두의 힘이 모아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창영
경기도 새마을회
사무처장

중부일보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 중부일보

기고 | 태극기 휘날리자



이도형
경기도새마을회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세가
구한말 시대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번 광복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회합과
도약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칠 전 영화진흥위원회는 '태극기 휘날리며'의 누적관객수가 1천174만6천135명으로써 '베테랑'에 밀려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영화의 내용도 감동적이지만 태극기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반증해 주는 결과인 것 같아 뿌듯하다. 국기는 한 나라의 상징이다. 국내보다는 해외에 나가 태극기를 보면 언제나 가슴이 뛰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 일 것이라 믿는다.

요즘에는 특이한 태극기도 눈에 띈다. 지난 광복 70주년에 광화문 정부청사에 달렸던 대형 태극기는 잊을 수가 없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동 부근 심행선 오른 편에 설치된 대형 태극기는 수도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국민들에게 한 번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곳곳에 그런 대형 태극기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보기 좋은 현상인 것 같고 국경일에 택시나 승용차에 달로 다니는 소형 태극기도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나라 국기는 특이해서 국제행사 시 어디에 달아 놓아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태극기는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다"고 되어 있다. 태극기는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고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파랑)과 양(陽: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음·양)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다. 현재의 태극기는 고종의 명에 의하여 나라의 국기가 되었으나 그 원형은 이미 5천 500년 전부터 이어온 한민족의 사유체계인 것이다. 생명은 우주와 하나라는 '우아일체(宇我一體)'의 철학이 형상화 되어 뚜른 하늘에 힘차게 나 붓기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태극기가 중국이나 일본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기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라를 되찾고자 나선 의병과 독립 운동가들이 꿈에서라도 만져보고, 흔들어보고, 피토하듯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보고 싶었던 목숨과 같은 태극기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극기하면 최근에 있었던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떠올리게 하는 이상한 통조가 생긴 것 같다. 마치 특정인들이 각각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이나 편 가르기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 같아 씁쓰름하다. 더 이상 태극기를 이용하는 '꼰'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태극기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태극기 사랑은 나라사랑이고 나라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 태극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민족의 역량을 결집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정세가 구한말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한다. 주변 4강과 북한의 무모한 광기, 사사건건 국민들의 마음을 가르는 사회분위기, 이제 73주년 광복절에는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떨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기도 새마을회원들은 지속적으로 '태극기 달기운동'에 혼신을 다 하고 있다. 새마을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 모두가 이 운동에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태극기 아래서는 정치도, 종교도 이념도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것이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태극기의 진정한 의미고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태극기 휘날리며 새롭게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자" 이번 광복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화합과 도약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부일보

joongboo.com

음력 6월 13일 庚午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기고 | 환경보호에서 생명살림으로 가자



강경환
직·공장새마을운동
경기도협의회장

어린 시절 어머님은 한 여름에도 종일 뙤약볕에서 밭을 매시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시곤 했다. 자식들은 배가 고파도 그저 어머님을 기다리면서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를 쫓아다니거나 멍석을 깔고 앉은 쑥으로 모기향을 피우는 일이 고작이었다. 밭에서 돌아오신 어머님은 부랴부랴 거친 밀가루로 칼국수를 만들어 주시곤 했다. 밥상(?)을 물리고 나면 명석에 드러누워 곧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세다가 그 위에서 잠들곤 했던 추억이 생각난다.

최근 강원도 인제군 민통선에 가까이 위치한 'DMZ생명평화동산'이란 곳에서 생명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 태양열을 이용해 자체 소비전력의 절반정도를 만들어 내고, 13℃정도의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구조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자연·생태적 생명의 동산으로써 생명운동과 평화 나눔 준비를 체험하는 곳이었다. 빗물활용 시스템이 없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자연그대로의 생명을 살려가는 과정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터라 후일 민통선과 DMZ의 생태복원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뿐더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자연환경을 보존, 복원하는데 첨고할 수 있을것 같다.

최대한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자 만든 오행(火·水·木·金·土)동산과 편백나무로 만들어 져 적외선이 나오는 사우나는 인상적이었다. 최근 들어 반딧불이와 구렁이가 생긴다는 이 동산은 생태복원을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았다. 반딧불이와 구렁이는 청정한 지역에서 사는 생물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마터면 잊을 뻔 했던 그 이름들을 생명평화동산에서 들을 수 있어 반가웠다. 초가지붕 속에도 땔감 나뭇간 속에도 똬리를 틀고 앉아 있던 그 구렁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은 생명살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 동산은 초저녁부터 주변이 캄캄했는데 밤하늘에는 어린 시절 봤던 그 북두칠성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고도 우아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초승달과 셋별도 또렷하게 보였는데 오랜 친구를 만난 기쁨에 보고 또 보며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눈에 담고자 애썼다. 전깃불 탓에 어딜 가든지 볼 수 없는 그 별들이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이다. 동산에서 본 북두칠성은 그 때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였다.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 북두칠성은 동산에서나 민통선 안에서나 북한지역에서 봐도 변함이 없는데 결국 우리가 잊고 살았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초가집은 가난의 상징이라, 생활당은 미신의 상징이라 바꿔 나갔는데 지킬 것과 바꿀 것을 구분하지 못한 탓에 일부 전통과 자연의 훼손이 있었다. 간과했던 부분을 깨달은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부터 '전국토의 공원화'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목표로 버려진 것들의 복원을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중요한 교훈은 개발과정에서 지킬 것과 바꿀 것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환경복원, 자연보호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환경운동은 상당히 인위적 요소가 많은데 사람이 자연에 개입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환경운동을 넘어 생명운동으로 가야 할 때인 것 같다. 환경운동이 인간이 버려 놓은 자연을 치유하고 바로잡는 것이라면, 생명운동은 근본적이고 자연의 이치대로 움직이는 생명들을 자연 그대로 인간과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생각으로 느리지만 차츰차츰 생명살림운동이 일어나 복원 가능한 마음들이 많이 나와 후손에게 좋은 나라 좋은 땅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반딧불이와 구렁이, 북두칠성과 샛별'은 자연과 생명살림으로 우리 곁에 돌아 올 것이라 믿는다.

경기신문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기고

농촌봉사활동으로 都農 거리좁혀야



강경환
직장새마을운동
경기도협의회장

지난 주말은 나에게 아주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안성시 선비마을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직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와 Y-SMU포럼에서 개최한 농촌봉사활동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은 학생들이 해주는 마사지와 염색으로 10년은 젊어졌다며 웃음꽃을 피웠고 학생들의 활동으로 칙칙했던 마을의 담장은 알록달록 단장을 했다. 학생들과 회원들은 1박2일간 마을 어르신들께 염색과 마사지를 해드리고, 마을회관 주변 울타리 설치와 화단조성, 벽화그리기와 마을의 주 농작물인 오이 수확을 돕는 등으로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다.

1970~1980년대 대학생이라면 농활은 꼭 다녀와야 할 필수 코스였다. 농활 기간동안 학생들은 농촌지역에서 부족한 일손을 거들면서 노동의 의미와 농촌의 실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과서를 통해 배우던 농촌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학업은 물론, 봉사활동과 토익준비, 어학연수 등 다양한 스펙 쌓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 중 취업활동에 도움되는 해외봉사 활동 등은 면접을 봐야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는 봉사는 '찬밥'이 되기 일쑤다.

대학생 봉사활동은 농어촌에 활력과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다. 예전에는 농작물 수확 등의 단순 활동에 그치던 봉사활동은 다양한 재능기부활동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특별한 전문성이라기보다 이미용, 마을 외관 정비, 네일아트 등이지만 이러한 소소한 봉사활동의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취업만을 위한 스펙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풍부하게 하는 값진 스펙이 될 수 있다. 아름답고 소중한 청춘의 한 시기에 남을 위해 땀을 흘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농촌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곳만이 아니다. 온 국민의 밥상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생명산업 기지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존해 온 우리 모두의 고향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다양한 교류는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도·농 상생의 철학을 공유하고 체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라는 인식과 정서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농촌 고령화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 전체 고령화 속도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20~30년 앞서가고 있다. 농가경영주의 38%가 70대 이상이며, 평균 연령은 66세에 이른다. 이 때문에 농촌 일손부족은 도시보다 훨씬 심하다.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절실하나 도시와 비교하면 매우 부족하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생활의 차이가 없는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한다. 도농 간 생활격차를 줄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소소한 활동이라도 함께 나누면 특별해진다. 농촌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로 정착된다면 도농 교류와 상생, 통합의 가치가 한국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것이다.

직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에서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도시와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공동체 살리기를 우리도 실천할 수 있다. 작은 실천과 관심으로 농촌살리기에 힘을 보태자.

중부일보

joongboo.com

중부일보 |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오피니언

기고 | 생명이 되살아나야 후손도 있고 미래도 있다



윤선옥
경기도새마을회
행정부장

돼지열병으로 몇 달째 방역하는 공직자들 비롯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됐으면 한다.

연천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온 나라의 긴장이 연속되고 있다. 일단 발병하면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100%에 육박한다니 무섭기도 하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등에서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보았기에 더 초조하다. 속 시원히 발병의 원인이나 감염경로를 밝혀내지도 못하니 답답하기도 하다. 원인을 알아야 그 치료약도 개발할 수 있고 감염경로를 알아야 차단할 방법을 찾을 텐데 막연히 수그러질 때만 기다리는 형국 같아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조류독감, 구제역이란 말이 그리 낯설지 않게 됐다. 다른 나라에서 발병한다 해도 긴장이다.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지구촌이란 말이 실감 난다.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도 서로 연계돼있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이 생명의 연계고리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 같다. 남미에서 수입한 과일, 유럽에서 들여 온 삼겹살, 아프리카 앞 바다에서 잡은 참치, 북미에서 사 온 밀가루, 호주에서 수입한 소갈비 등 어느 한 고리를 끊으면 안 될 만큼 삶과 밀접하다. 이런 유통의 전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런 일상이 돼버렸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안전한지는 의문이 든다. 농약을 빨아 먹은 과일, 플라스틱 입자를 먹은 물고기, 중금속을 먹은 돼지 등 어느 과정에서 얼마만큼 오염원을 먹었는지 모른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 오염원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무 과도한 우려일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직간접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돼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오염원을 줄이는 것 정도일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생명을 살리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무심코 버려진 오염원들은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메랑이 돼 다시 우리 몸에 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너무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우리가 누린 만큼 우리 후손들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버리며 산다. 이 과정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를 너도 나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한 행동들의 결과가 우리 또는 후손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 절실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 생각과 습관을 바꿔 나가다 보면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땅은 우리가 잠시 빌려 살다가 돌려 줘야 하는 땅이다. 머지않아 이 땅은 후손들이 주인이 될 것이다. 생명을 되살리자는 운동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운동이다. 생명이 되살아나야 나라도 있고 후손도 있고 미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선진시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돼지열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 안타깝다. 당사자인 양돈농가는 얼마나 긴장하고 속이 상하겠는가. 애지중지 길러 온 자산인데 하루아침에 땅 속에 묻는 축산 농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너무 클 것이다. 벌써 몇 달째 방역하는 공직자들과 주민들,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하루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길 두 손 모아 빌어 본다. 생명을 살리는 노력만이 가장 좋은 백신이 될 것이라 믿는다.

22.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연도별

연도	조사기관	조 사 결 과
1988	서울대 새마을연구소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여부 ① 계속되어야 한다(73.8%) ② 필요가 없다(19%)
1994	대륙연구소/경향신문 (광복 49주년 기념)	해방이후 가장 잘된 정책 ① 새마을운동 추진 (78.7%) ② 수출주도 정책 (66.8%) ③ 식량 자급자족 (66.1%)
1996	공보처/코리아리서치	해방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일 ① 올림픽 유치 (35.8%) ② 경제성장 (14.8%) ③ 새마을운동 (9.7%)
1998	조선일보/한국갤럽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대한 50년, 우리 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 ① 새마을운동 (45.6%) ② 올림픽 (37.3%) ③ 경부고속도로 (31.9%)
	동아일보/리서치&리서치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정부수립 50년, 역대정부가 가장 잘 대처한 사건 ① 새마을운동 (50.5%) ② 경제개발5개년계획 (44.6%)
2002	한국갤럽	해방이후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 ① 월드컵 개최 및 4강 진출 (59.9%) ② 올림픽 개최 (6.8%) ③ 경제발전 (5.5%) ④ 새마을운동 (5.1%)
2006	조선일보/한국갤럽 (광복절 맞이)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① 서울올림픽 (18.4%) ② 한일월드컵 (15%) ③ 새마을운동 (9.1%)
2007 (12.19)	서울경제신문/한국리서치 (새정부 출범)	정부수립 이후 국가발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건 ① 새마을운동 (46.3%) ② 올림픽 (18.6%) ③ 5.18 광주민주화운동 (10.2%)
2008 (3.1)	조선일보/한국갤럽 (조선일보 창간 88주년)	건국60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업적 ① 새마을운동 (40.2%) ② 88 서울올림픽 (30.1%) ③ 경제개발5개년계획 (29.9%) ④ 경부고속도로 (18.8%) ⑤ 2002 월드컵 (15.1%)
2009 (12.31)	서울경제/한국리서치 (서울경제 창간 50주년 2010 신년기획)	지난 50년 우리 경제발전의 중요한 계기 ① 경제개발 5개년계획 (34.0%) ② 새마을운동 (26.6%) ③ 우리사회의 민주화 (8.5%) ④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 (8.0%)
2010 (4.14)	조선일보 · 한국정당학회 한국갤럽 (5.16과 산업화 50년)	한국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사건이나 계기 ① 새마을운동 (35.5%) ② 경제개발 5개년계획 (24.5%) ③ 경부고속도로 · 포항제철 건설 (20.8.%)
2010 (4.22)	조선일보 · 영남대박정희리더십연구원/ 리서치앤리서치 (새마을운동 40주년)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 ① 새마을운동 (59.1%) ② 경제개발 5개년계획 (46.8%) ③ 전자산업 육성 (27.1%)

“경기도 새마을운동 50년사”[참고문헌]

○ 새마을운동 길잡이, 내무부, 1975
○ 새마을운동 10년사 : 내무부, 1980
○ 새마을운동 30년(자료집) : 새마을운동중앙회, 2000
○ 새마을운동 40년(자료집)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0
○ 새마을문고 40년사 : 새마을문고중앙회, 2000
○ 새마을교육 20년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1992
○ 새마을교육 40년사 :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2012
○ 전라북도새마을운동 25년사 : 새마을운동전라북도지부, 1995
○ 전라남도새마을운동 40년사 : 전라남도새마을회, 2011
○ 아산새마을운동 30년사 : 아산시새마을회, 2001
○ 단양군새마을운동 42년사 : 단양군새마을회, 2012
○ 새마을운동발상지 청도 42년 발자취 : 청도군새마을회, 2012
○ 양주시새마을운동 45년사 :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 2015
○ 파주시새마을운동 45년사 : 파주시새마을회, 2015

○ 최태석, 새마을교육 진단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
(영남대학원 새마을국제개발전공 박사논문)
○ 권민정, 새마을지도자의 리더십유형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2019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커리어개발학과 리더십교육전공 석사논문)

○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국학진흥원, 2018
○ 영광의 얼굴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1990
○ 대통령 박정희, 안병훈(가파랑), 2012
○ 수원상공회의소백년사, 수원상공회의소, 2008
○ 경기일보 50년사, 경인일보사, 2010
○ 경기건협 반세기, 대한건축협회경기도회, 2003
○ 경기연감, 경인일보사, 2018
○ 경기 뉴스연감, 경기일보사, 2018

편집후기

마치 50년의 세월을 달린 듯하다.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정리와 집필의 시간. 이제 끝났다. 2017년부터 매년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2019년이 되어서야 편찬이 시작됐다. 서고 3개에 오랜 시간 먼지와 함께 켜켜이 쌓이고 흩어져있던 4천여 권의 문서철,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문서철 한 권 한 권을 모두 분리해 연도별 · 부문별로 정리하는 일에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자료의 쓰임새와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버릴 자료와 취할 자료, 중요한 자료와 덜 중요한 자료, 귀한 자료와 흔한 자료.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연도별 부족하거나 빠진 자료들의 정리에만 1개월 넘게 씨름했다. 부족한 자료는 중앙이나 시군 자료를 챙겨 보완했지만 그럼에도 많이 부족했다. 다른 시도 새마을회와 타 기관에서 만든 자료, 내무부를 비롯한 정부자료, 논문자료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참고하려 노력했지만 집필 작업은 더 어려웠다. 사실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그 위에 역사적 평가를 더해야 하는 작업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했다. 낮에는 자료를 정리하고, 밤에는 집필을 하다 보니 늘 시간에 쫓겼다. 뿐만 아니라 통상업무를 겸하며 집필을 하다 보니 시간은 매우 촉박했고,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에 발만 동동 구르기가 일쑤였다.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차마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의 첫 번째 역사서인 만큼 외부용역이 아닌 우리가 주체가 되서 만들어야 그 의미가 더 큼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경기도새마을운동 50년사'는 처음 정리하는 일이라 더욱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지? 편집위원들과 감수위원들의 좋은 방향제시와 충고가 있었지만 많이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기본적인 백서나 자료집의 틀 위에서 역사서로서의 틀을 갖춰 보려 노력했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50년사는 차츰 그 윤곽을 드러냈고, 마무리에 이르렀다. 질책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맘먹은 대로 되지 않아 아쉽고 속상하기도 하다. 하지만 후련함과 뿌듯함, 보람은 있다. 부족한

내용은 후일 보완해 60년사에 넣으면 될 것이다. 이번에 빠진 원로들의 증언, 각 마을에 남아있는 흔적 등을 더 찾아 보완한다면, 보다 훌륭한 역사서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한다. 낭만파를 대표하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다"라고 했다. 후배들에게 바라건대 지난 50년의 역사를 부디 기억하고, 앞으로의 50년을 설계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50년사 발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아낌없는 자문을 해주신 이재창 도민회장님께 각별한 경의를 드린다. 그리고 곁에서 늘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준구 뉴시스 국장님과 집필을 지원해 주신 최용근, 최태석 처장님의 힘도 컸다. 집필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 준 동료 직원들과 인쇄물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경인인쇄사 이주석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이전 세대들에게는 자랑과 보람을, 새로운 세대에게는 희망과 등대가 되어 주길 바란다.

책임 집필자 황 창 영

경기도 새마을운동 50년사 편찬 · 감수위원

[편찬위원회]

○ 위 원 장 : 송재필(경기도새마을회장)

○ 위　　원 :

– 함옥생(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장)

– 임낙희(경기도새마을부녀회장)

– 최연숙(직 · 공장새마을운동경기도협의회장)

– 이응구(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회장)

○ 책임집필자 : 황창영

(경기도새마을회 사무처장, 생명 · 평화포럼 상임대표)

○ 집필지원자 :

– 집필지원 : 최용근(전.경상남도 · 울산광역시 사무처장)

– 자료수집 : 윤선옥, 손형주, 배태용, 이연화, 정찬건, 지경희, 안지요, 이소희

○ 교정 · 교열 : 이준구

(전.경기대학교 교수, 전.경인일보 50년사 책임 편찬자)

[감수위원회]

○ 감수위원장 : 이재창(경기도민회장)

– 전.경기도지사, 전.환경처장관, 전.국회의원, 전.새마을운동중앙회장

○ 감수위원 : 이철우

– 전.국회의원, 전.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전.새마을지도자경기도협의회장

○ 감수위원 : 황종각(경기도새마을회 자문위원)

– 전.경기도새마을회 감사

○ 감수위원 : 이강석(행정사)

– 전.동두천시 · 오산시 · 남양주시 부시장, 전.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

○ 감수위원 : 이규주(생명 · 평화 포럼 본부장)
  – 전.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전.새마을담당
○ 감수위원 : 박래현(주민자치 · 생명살림 협동조합 이사장)
  – 전.전라북도 사무처장
○ 감수위원 : 정명진(명진라이프 대표)
  – 전.시흥군 · 안양시 · 평택시 · 시흥시지회 사무국장
○ 자문위원 : 최태석(국제개발학 박사)
  – 전.대구광역시 · 경상남도 · 경기도 사무처장,
    전.새마을운동중앙회 조직사업부장

京畿道새마을運動50年史

발행일 : 2020. 4. 22.(새마을운동 제창 제 50주년 기념일)

인쇄일 : 2020. 5. 20.

발행처 : 경기도새마을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인계동 1122-12)
031-225-4941~3

발행인 : 송재필

편집인 : 황창영

인쇄처 : 경인인쇄사

대 표 : 이주석 | 디자인 : 우재식, 김자연

후 원 : 경기도, 새마을운동중앙회

제자(題字) : 근당(槿堂) 양택동(梁澤東)
- 한국서예박물관장,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한정 1,000권, 비매품 |